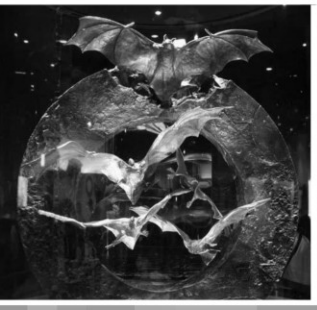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함평군사 제2권






함평군사 제2권 차례

제8편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 제1장 | 대한민국사 개관 / 16

제1절 광복과 미군정(美軍政) _ 16

제2절 6·25 한국전쟁과 제1공화국 시기 _ 36

제3절 4·19 혁명과 5·16 쿠데타 _ 43

제4절 제3공화국 시기와 10월 유신 _ 45

제5절 광주민중항쟁과 제5공화국 _ 52

제6절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_ 57

제7절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_ 62

제8절 참여정부 _ 68

제9절 실용정부 탄생 _ 78

| 제2장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 / 82

제1절 광복직후 함평인사들의 활약 _ 82

제2절 미군정 실시와 함평 _ 84

제3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_ 86

1. 5·10 총선(總選) _ 86
2. 대한민국 정부 출범 _ 88

제4절 6·25 전쟁과 함평 _ 88

1. 북한 공산군의 남침과 함평 진입(進入) _ 88
2. 북한 공산군 통치 3개월 _ 91
3. 함평 수복과 공비 소탕 _ 94
   1) 학교역원들의 순직
   2) 함평경찰대
4. 6·25전쟁의 호국영령 명단 _ 97
5. 함평지역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_ 100

제5절 함평 양민학살사건 _ 127

1. 제11사단(제5중대) 양민학살사건 _ 127
2.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 _ 166
3.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_ 183
4. 함평 양림 민간인 희생사건 _ 209
5. 군유산 등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_ 236
6. 함평군 국민보도연맹사건 _ 274

제6절 반공포로 석방과 함평 정착 _ 297

제7절 월남피난민(越南避難民)의 함평 정착 _ 298







| 제3장 | 정당정치(政黨政治)와 선거(選擧) / 299

제1절 제1공화국(共和國) _ 299

1. 정당 _ 299
   1) 전국의 정당
   2) 함평의 정당
2. 선거 _ 301
   1) 대통령, 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면의원 선거
   4) 도의원 선거

제2절 제2공화국(共和國) _ 310

1. 정당 _ 310
2. 선거 _ 312
   1) 제4대 대통령 선거와 국무총리 인준
   2) 제5대 국회의원 선거
   3) 제1대 참의원 선거
   4) 제3대 도의원 선거
   5) 도지사 직접선거
   6) 제3대 면의원 및 면장 선거

제3절 제3공화국(共和國) _ 315

1. 정당 _ 315
2. 선거 _ 318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국민투표

제4절 제4공화국(共和國) _ 325

1. 정당 _ 325
2. 선거 _ 325
   1)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국민투표

제5절 제5공화국(共和國) _ 329

1. 정당 _ 329
2. 선거 _ 329
   1) 1980년 10월 22일 시행 제5공화국 헌법확정 국민투표
   2) 제1대 대통령 선거인 선거
   3) 제12대 대통령 선거
   4) 국회의원 선거

제6절 제6공화국(共和國) _ 332

1. 제6공화국의 출범 _ 332
2. 정당 _ 332
   1) 새정치국민회의
   2) 한나라당
   3) 자유민주연합
3. 선거 및 국민투표 _ 333
   1) 헌법개정 국민투표(1987. 10. 27)
   2)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
   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 4. 26)
   4) 제1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1990. 11. 9)
   5)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 3. 24)






함평군사 제2권 차례

6)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12. 18)
7)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4. 11)
8)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12. 18)
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
10)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12. 19)
11)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4. 15)
12)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19)
1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9)

4. 지방자치제의 실시 _ 360
1) 기초의회의원 선거(1991. 3. 26)
2) 시·도의회 의원 선거(1991. 6. 20)
3) 군의원 보궐선거(1993. 9. 10)
5. 제4대 지방선거(1995. 6. 27) 제1회 전국동시
6. 제5대 지방선거(1998. 6. 4) 제2회 전국동시
7. 제6대 지방선거(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
8.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2004. 6. 5)
9. 제7대 지방선거(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

제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_ 385

제8절 함평군의회(咸平郡議會) _ 387

제9절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_ 395

| 제4장 | 행정(行政) / 398

제1절 연혁 _ 398

제2절 함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_ 396

제3절 지방자치의 행정 _ 406

제4절 함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_ 407

제5절 군·읍면 공무원 현황 _ 414

제6절 역대 군수·부군수 _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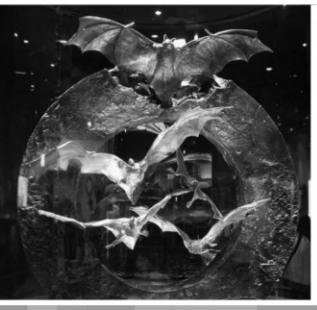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7절 군정자문위원(郡政諮問委員) _ 417

제8절 역대 실·과장(室·課長) _ 420

| 제5장 | 재정(財政)과 금융(金融) / 428

제1절 옛 군지에 수록된 함평군의 재정 _ 428
1. 1874년 7월 함평현 재정 사례 _ 428
2. 1930년 속수 함평지 게재 함평군의 재정 사례 _ 439

제2절 함평군의 연별 세입 세출 결산액과 일반회계 연도별 과목별 내역 및 재정자립도 _ 440
1. 연간 세입 세출 결산액 _ 440
2. 일반회계 연도별 과목별 세입 세출 내역 _ 442
3. 함평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_ 444
4. 함평군의 재정 자립도 _ 446






제3절 세제(稅制)와 국세, 지방세 징수액 _ 446
1. 군정 및 과도정부시대의 세제 _ 446
2. 건국 후의 세제 _ 446
3. 국세 징수 상황 _ 447
4. 함평군의 지방세 연별 징수 상황 _ 448
5. 읍·면별 지방세 징수 상황 _ 451

제4절 가구당, 1인당 조세(租稅) 부담액(負擔額) _ 453

제5절 군유, 도유재산 현황 _ 455
1. 군유재산 _ 455
2. 도유재산 _ 456

제6절 금융(金融) _ 458
1. 함평금융조합 _ 458
2.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_ 459
3. 읍·면 농업협동조합 _ 462
4. 광주은행 함평지점 _ 487
5. 제2금융권 _ 488
1) 신용협동조합
2) 보험회사
3) 새마을금고

| 제6장 | 교육(敎育) / 499

제1절 현대 교육정책의 변천 _ 499
1. 한말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 _ 499
2. 미군정하의 교육정책(1945~1948) _ 501
3.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1948~1960) _ 502
4.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1960~1961) _ 503
5.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1961~1973) _ 504
6. 제4공화국의 교육정책(1973~1980) _ 505
7. 제5공화국의 교육정책(1980~1988) _ 506
8.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1988~1992) _ 507
9. 문민정부의 교육정책(1993~1998.2) _ 508
10. 국민정부의 교육정책(1998.2~2003.2) _ 510
1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2003.2~2008.2) _ 513
12. 실용정부의 교육정책(2008.2~) _ 518

제2절 함평군의 교육현황 _ 523
1.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 연도별 현황 _ 523
2. 교원 연도별 남녀 구성 비율 _ 523
3. 유치원 현황 _ 524
4. 초등학교 현황 _ 524
5. 중·고등학교 현황 _ 525
6. 학원 현황 _ 526

제3절 전라남도함평교육청 _ 527

제4절 함평군의 초등학교 _ 530
1. 현존하는 초등학교 _ 530
2. 폐교된 초·중등학교 _ 568

제5절 함평군의 중·고등학교 _ 606
1. 중학교 _ 606
2. 고등학교 _ 625






함평군사 제2권 차례

제6절 함평군의 기타학교 _ 646
1. 특수학교 _ 646
2.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_ 653
3. 함평군평생교육학교 _ 654
1) 함평문화학교
2)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

제7절 함평군의 도서관(圖書館) _ 658

제8절 함평군의 체험시설 _ 678

제9절 함평군의 미술관 _ 693

제10절 전라남도교육위원 _ 700

제11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_ 702

제12절 함평군교육발전위원회 _ 704

| 제7장 | 사법(司法)과 치안(治安) / 706

제1절 사법 _ 706
1.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_ 706
2.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_ 70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_ 709

제2절 치안제도와 함평경찰서 _ 711
1. 우리나라 치안제도 _ 711
2. 대한제국기말,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 _ 711
3. 광복 후의 치안제도와 치안상태 _ 712
4. 함평경찰서 _ 715
5. 읍·면, 지·파출소(派出所) 연혁 _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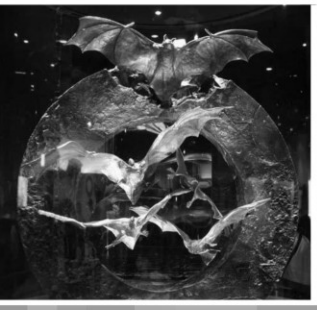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 제8장 | 교통(交通) / 746

제1절 도로(道路) _ 746
1. 함평군의 도로 _ 746
1) 옛 도로 개황
2) 현대의 도로

제2절 교량(橋梁,다리) _ 756
1. 옛 교량 개황 _ 756
2. 현재의 교량 _ 757

제3절 함평군의 철도(鐵道) _ 766
1. 호남선(湖南線) _ 766
2. 함평역(咸平驛) _ 767
3. 함평궤도회사(咸平軌道會社) _ 769
4. 대한통운(주) 학교출장소 _ 770

제4절 운수업(運輸業) _ 771
1. 차량(車輛) 보유 현황 _ 771
2. 운수회사(運輸會社) _ 773






| 제9장 | 통신(通信) / 776

제1절 한국의 통신발전 개요 _ 776

제2절 함평군의 통신 발전 _ 777

1. 읍·면 우체국 _ 777
2. 우편물 취급 현황 _ 785
3. 전신·전화 _ 786
   1) 전신
   2) 함평군의 전화 발전 개요와 가입자수
   3) 한국전기통신공사 함평전화국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

| 제10장 | 산업·경제(産業經濟) / 791

제1절 농업 _ 791

1. 농업의 자연 여건발전 _ 791
2. 농가구와 농가인구 _ 792
3. 경지면적 급 현황 _ 797
4. 농지 개량 _ 800
   1) 농업 수리 현황
   2) 경지정리사업
   3) 객토(客土) 사업
   4) 퇴비생산과 금비수급(金肥需給)
5. 농업 기계화 _ 808
6. 농업 생산물 현황 _ 812
   1) 식량작물의 생산
   2) 채소의 생산
   3) 과실의 생산
   4) 특용작물의 생산
   5) 엽연초(葉煙草) 및 인삼의 생산
7. 양곡의 수매 _ 828
   1) 추곡 수매
   2) 하곡 수매
8. 양곡 보관 창고와 가공공장 _ 831
   1) 양곡 보관 창고
   2) 양곡 가공공장
9. 농업 관련 기관 _ 834

제2절 임업(林業) _ 840

1. 임업 여건 _ 840
2. 산림 현황 _ 841
3. 조림과 사방사업 _ 844
4. 산림 피해 _ 846
5. 임업 사업 _ 847
6. 함평군 임업협동조합 _ 850

제3절 축산업(畜産業) _ 853

1. 가축 사육(家畜飼育) _ 853
2. 도축(屠畜) _ 860
3. 가축 방역과 수의사(獸醫師) 현황 _ 861
4. 함평군 축산업협동조합 _ 863






함평군사 제2권 차례

| 제10장 | 산업·경제(産業經濟) / 791

제4절 수산업(水産業) _ 865

1. 수산 여건 _ 865
2. 어업 가구와 어업 인구 _ 866
3. 어선 보유 현황 _ 869
4. 수산물 어획고 _ 870
5. 양식 어업 _ 871
   1) 천해 양식(淺海養殖)
   2) 내수면(內水面) 양식

제5절 광·공업(鑛工業) _ 873

1. 광업 _ 872
2. 공업 _ 875
   1) 공업 여건
   2) 제조업종 현황
   3) 제조업 각 등록업체 현황
   4) 농공단지

제6절 장시(場市) _ 882

1. 함평군의 장시 _ 882
   1) 옛 장시
   2) 현재의 장시 현황

제7절 전기(電氣) _ 885

| 제11장 | 사회복지(社會福祉)) / 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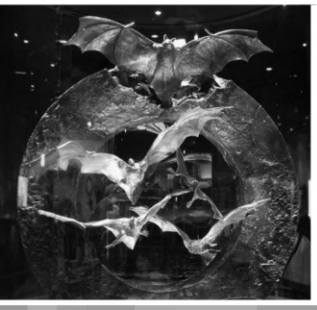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1절 고대(古代)의 사회복지(社會福祉)제도와 사례(事例) _ 888

제2절 현대의 사회복지 _ 890

1. 구호사업 _ 890
   1)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사업
   2) 자조근로 및 새마을 노임 소득사업,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 실적
2. 원호사업 _ 895
3. 시설보호 관리사업 _ 901
   1) 삼애원(三愛園)
   2) 시온원
   3) 자광원(自光園)
   4) 성애원(聖愛園)
   5) 기아대책 사업
   6) 양로원(養老院)
4. 노인복지(老人福祉) _ 907
   1) 읍·면 경로당
   2)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5. 의료보험 _ 916
   1) 의료보험 수혜 상황
   2) 함평군 의료보험조합

제3절 군민복지시설(郡民福祉施設) _ 919

1. 함평공원(咸平公園) _ 919
2. 기산공원(箕山公園) _ 921
3. 군민복지회관 _ 921
2.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_ 923






제4절 군민의 날과 군민의 상 수상자(受賞者) _ 925
1. 군민의 날 _ 925
2. 함평군민의 상과 수상자 _ 925
1) 군민의 상
2) 군민의 상 수상자
제5절 호국충혼(護國忠魂) 기록 _ 928
1. 나라와 겨레 위한 얼의 탑 _ 928
2. 함평군 기미(己未) 3·1의거 열사 기념비 _ 928
3. 고(故) 반공애국투사 추모비 _ 929
4. 순직 경찰관 추도비 _ 930
제6절 사회단체(社會團體) _ 932
1. 국가관련단체(國家關聯團體) _ 932
2. 국제봉사단체(國際奉仕團體) _ 953
3. 여성단체(女性團體) _ 960
4. 향토 자생단체(鄕土自生團體) _ 971

| 제12장 | 보건(保健)·위생·상하수도(上下水道) / 1019

제1절 함평군의 보건소와 지소 _ 1019
1. 함평군 보건소 _ 1019
2. 읍·면 보건소 및 진료소 _ 1024
제2절 의료시설(醫療施設) _ 1026
1. 의원(醫院)·병원(病院) _ 1026
2. 약국(藥局)·약방(藥房)·한약종상(韓藥種商) _ 1029
제3절 공중, 식품위생업소 _ 1031
제4절 상하수도 시설 _ 1036
1. 상수도 시설 _ 1036
2. 상수도 보급 상황 _ 1041
3. 하수도 _ 1047






함평군사 제2권 차례

| 제13장 | 체육(體育) / 1049

제1절 한국체육의 발달 _ 1049

제2절 함평군 체육의 개요 _ 1050

제3절 함평군 체육회와 종목별 활동 실적 _ 1051
1. 함평군 체육회 _ 1051
2. 종목별 활동 실적 _ 1053

제4절 경기단체별 대회 개최 실적 _ 1086
1. 경기단체별 개최 주요대회 _ 1086
2. 경기단체별 심판자격증 소지자 현황 _ 1087

제5절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 _ 1087

제6절 올림픽과 함평출신 선수들의 활동 _ 10878

제7절 함평군의 체육시설 _ 1089
1. 운동장 _ 1089
2. 체육관 _ 1090
3. 특별 경기장 _ 1099

| 제14장 | 종교(宗教) / 1107

제1절 불교(佛教) _ 1107

제2절 유교(儒教) _ 1108

제3절 천주교(天主教) _ 1110
1. 천주교의 한국 전교 _ 1110
2. 함평의 천주교 _ 1111

제4절 기독교(基督教) _ 1112
1. 개신교의 한국 전교 _ 1112
2. 함평의 기독교 _ 1114

제5절 기타 종교1114 _ 1118
1. 통일교회(統一教會) _ 1119
2. 원불교(圓佛教) _ 1119
3. 여호와의 증인 _ 1119
4. 전도관 _ 1120
5. SGI(국제창가협회) 한국불교회 _ 1120

| 제15장 | 언론(言論) / 1121

제1절 신문(新聞) _ 1121
1. 중앙지(中央紙) _ 1121
2. 전라남도의 신문 _ 1123
3. 함평출신 신문인과 보급상황 _ 1125

제2절 방송(放送) _ 1129
1. 방송의 발전개요 _ 1129
2. 함평출신의 방송계 활동과 방송 _ 매개체 현황 _ 1130







| 제16장 | 문학(文學)과 예술(藝術) / *1131*

제1절 문학(文學) _ *1131*
1. 고대(古代)의 문학활동과 유고(遺稿) 및 문집(文集) _ *1131*
2. 현대(現代)의 문학활동 _ *1139*
1) 한문학(漢文學)
2) 현대문학

제2절 예술(藝術) _ *1163*
1. 함평출신들의 예술활동 _ *1163*
1) 서예·미술계
2) 음악계
3) 연예계

제3절 함평의 예술제 현황 _ *1187*
1. 예총 함평지부와 함평예술제 _ *1187*
2. 함평군 미술협회 및 교원미전 _ *1189*
3. 함평문화원 주최 문화제 _ *1189*

| 제17장 | 환경(環境) / *1194*

제1절 개요 _ *1194*

제2절 대기 환경 _ *1196*
1. 대기환경 기준 _ *1196*
2. 대가오염 자동 측정망 운영 _ *1197*
3. 대기오염 배출 시설 현황 _ *1199*

제3절 수질환경 _ *1201*
1. 수질환경 기준 _ *1201*
2. 영산강 수계 환경관리 _ *1202*
3. 영산강 수계의 오염 현황 _ *1203*
1) 생활오수
2) 산업폐수
3) 축산폐수
4) 분뇨
5) 쓰레기

제4절 함평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폐수·분뇨처리장) 건설공사 _ *1212*

| 제18장 | 주택(住宅) / *1214*

제1절 선사 주거지(住居地) _ *1214*
1. 청동기시대(전기 B.C 1000 ~ 300, 후기 B.C 300 ~ 0) _ *1214*
2. 철기시대(A.D 0 ~ 300) _ *1215*

제2절 함평군 민가의 유형과 구조 _ *1215*

제3절 함평군의 주택 보급 상황 및 건축 허가 상황 _ *1216*
1. 함평군의 주택 보급 상황 _ *1216*
2. 건축 허가 상황 _ *1217*

제4절 도시계획 현황 _ *1222*

제5절 고가(古家) _ *1223*






| 제19장 | 월남 파병(越南派兵. 베트남)과 함평 / *1241*

제1절 월남전과 한국 _ *1241*
1. 개요 _ *1241*
2. 비전투부대 파병 _ *1242*
3. 전투부대 파병 _ *1243*
4. 파리평화협상, 연합군 철수와 월남 패망 _ *1250*

제2절 함평출신들의 파월활동과 전사자 _ *1253*

| 제20장 | 새마을운동 / *1257*

제1절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기본정신 _ *1257*
1. 개요 _ *1257*
2. 새마을운동의 배경 _ *1257*
3.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_ *1258*

제2절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 _ *1258*
1. 새마을운동의 주요 연혁 _ *1258*
2. 연도별 중점 추진 내용 _ *1262*
3. 전개 과정 _ *1265*
4. 새마을 사업의 분류 _ *1266*
1) 생산 기반 부분
2) 소득 증대 부분
3) 복지 환경 부분
4) 정신 계발 부분
5) 도시·공장 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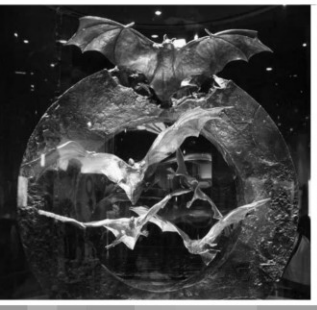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3절 새마을 사업의 추진 실적 _ *1268*
1. 마을 발전 목표 _ *1268*
2. 새마을 사업 추진 실적 _ *1268*

제4절 주거환경 개선사업 _ *1270*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_ *1270*
2. 취락구조 개선사업 _ *1272*
3. 기타 사업 _ *1272*

제5절 소도읍(小都邑) 가꾸기 _ *1274*
1. 2000년 이전 _ *1274*
2.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_ *1275*

제6절 국토 가꾸기 운동 _ *1277*
1. 추진 개황 _ *1277*
2. 분야별 추진사항 _ *1278*
1) 꽃길 조성
2) 가로화단 조성
3) 소공원 조성
4) 자연보호와 국토 청결

제7절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현황 _ *1285*
1. 일반현황 _ *1285*
2. 새마을지도자 훈·포장자 명단 _ *1286*




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





Contents

| 제1장 | 대한민국사 개관 — 16
집필 / 고일석

| 제2장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 — 82
집필 / 김영택

| 제3장 | 정당정치와 선거 — 299
집필 / 정현철

| 제4장 | 행정 — 393
집필 / 김창훈

| 제5장 | 재정과 금융 — 423
집필 / 최재원

| 제6장 | 교육 — 494
집필 / 박광웅

| 제7장 | 사법과 치안 — 702
집필 / 고송주

| 제8장 | 교통 — 742
집필 / 박광웅

| 제9장 | 통신 — 772
집필 / 박광웅

| 제10장 | 산업경제 — 787
집필 / 최재원

제8편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 제11장 | 사회복지 *884*
집필 / 박광웅

| 제12장 | 보건·위생·상하수도 *1015*
집필 / 박광웅

| 제13장 | 체육 *1045*
집필 / 박광웅

| 제14장 | 종교 *1103*
집필 / 김창훈

| 제15장 | 언론 *1117*
집필 / 고송주

| 제16장 | 문학과 예술 *1127*
집필 / 이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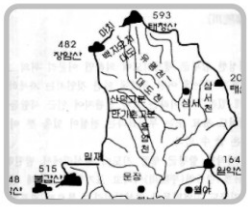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제17장 | 환경 *1192*
집필 / 신영호

| 제18장 | 주택탁 *1212*
집필 / 신영호

| 제19장 | 월남파병과 함평 *1241*
집필 / 신영호

| 제20장 | 새마을운동 *1257*
집필 / 나홍채

제1장 대한민국사 개관(槪觀)



제1절 광복과 미군정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다. 곧 일제의 패망으로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국가건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민족해방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도 순조로울 수가 없었다.

어떻든 우리 민족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타율적으로 관리되어져 오던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자율적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물론 자율이라는 것에는 대내·대외적인 민주와 호혜평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자주국가와 자립경제 그리고 사회적 민주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전남지역은 의병투쟁, 암태도와 하의도 농민들의 소작쟁의, 광주 학생운동 등 민족사의 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전남지역은 민족자주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의가 한층 강렬했다.

광복 후 민족운동을 탄압하던 일제가 물러남으로써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대치는 대단히 높았다. 물론 친일파에 대한 응징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화 속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년학생들 및 뜻있는 지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정치와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두개의 짐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민족내부의 제 세력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모두 다 부강하고 민주적인 민족과 국가의 달성이라는 과업을 주창하였지만 한데 어우러져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각양의 정치단체들이 대립 반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38도선을 경계로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면서,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사회체제가 형성되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그어진 군사분계선이 민족분단의 장벽으로 굳어지면서 남과 북에는 새롭고 희망찬 민족국가의 완성보다는 왜곡된 역사가 전개되었다.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재편하면서 한민족을 대대적으로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던 일제는 패망의 순간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불행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 전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일제는

한반도를 최후의 결전장으로 설정하고, 38도선 이북과 이남을 각각 관동군과 대본영의 지휘 하에 들게 함으로써 미군과 소련군이 양쪽에 진주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었다. 소련은 대일 참전을 결정하자마자 1945년 8월 9일 나진과 웅기를 공격하고, 곧바로 8월 21일 원산과 24일 평양을 점령하였다. 이때 오끼나와 부근까지 북상하고 있던 8월 15일 미군은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38도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자고 제의하였다. 소련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한반도는 광복된 그날부터 미·소 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우리 민족은 대일 항전의 승리자로서가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민으로서 연합국의 분할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친 다양한 민족적인 과제의 실현에 비우호적이거나 오히려 통제적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동조적인 세력들은 미군정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족적인 죄과를 호도하였다. 즉 과거의 일제 토지는 신한공사로 접수되어 소작료는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공출당하여야 했고, 노동자의 자주 공장관리 운동은 미군정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자치적인 정치체제 수립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탄압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일제로부터 해방의 진정한 의미 즉 우리 민족의 자립의 가치와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스스로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곧바로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나타났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1946년 10월 대구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민중적인 저항이 이 지역 전라남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7년 「3·22총파업」과 1948년 「2·7투쟁」「5·10 단독정부수립 저지를 위한 단선단정반대투쟁」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전라남도에서는 제주도의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군인들이 봉기하는 이른바 「여순사건」이 일어나 전국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남북한에서는 광복과 동시에 자주적인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정치·사회운동이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여운형은 일제의 패망 직전에 일제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 받아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안재홍, 최근우 등이 참가하였던 이 위원회는 건국역량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김준연, 김약수, 이동화, 이강국 등을 중앙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강령으로서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질서의 자주적 유지, 대중생활의 확보 등을 내걸었다. 한편 해방과 함께 소련군이 진주하였던 북한에서는 각 도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해온 미군은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은 그들의 비밀지령에 따라 패망 후에도 남한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총독부의 기구와 관리를 그대로 인수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맞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공은 건준의 강령을 계승하는 한편, 시정방침으로서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 및 농민에의 무상분배, 생활필수품의 공정·평등 분배,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등을 천명하였다.

인공은 형식적으로는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허헌을 추대했지만, 핵심세

력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박헌영·이강국 등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인공은 그 후 대중조직으로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을 거느리면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한편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세력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봉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인공에 대항하면서 반공친미노선을 견지해 나갔다. 또한 안재홍, 김규식 등 중도세력은 국민당을 조직하여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1월 23일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고, 김구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인공에서 탈퇴한 여운형 등 중도좌파세력은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과거의 임정에 구애받지 말고 신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구는 임정을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미군정에서 정권을 인정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한민당은 임정을 봉대한다는 초지를 굽히고 이승만과 결탁하여 임정파를 물리치고, 한민당은 미군정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도 이에 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김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북협상을 주도하다가 피살자 안두희의 손에 쓰러지고 한국독립당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미·영·소 3국은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가결하였다. 신탁통치안의 내용은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미·영·소·중은 한국을 5년 동안 공동관리(신탁통치) 할 것, 미·소공위는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와 상담할 것 등으로 되어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이의 실천을 협의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만 국내의 정치세력이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싸고 좌우로 분립하여 격렬하게 찬반투쟁을 전개하고, 미·소 양국 또한 협의의 대상이 될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회담은 곧 결렬되었다.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입장과 행동은 다양하였다. 우익 중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빠른 시일 내에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반탁을 주장하였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남북한 통일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을 위해 반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좌익세력은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민주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신탁통치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1946년 2월 8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고,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등의 좌익세력은 1946년 2월 16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여 치열한 찬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우익의 극한대립과 우익 일부의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은 중도파 정치세력과 종교·문화계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운동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규식, 안재홍, 원세훈, 여운형, 이강국 등은 1946년 7월 25일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고, 좌우익이 제시한 합작조건들을

심의한 끝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정치범 석방과 테러행위 중단, 언론·집회, 결사 등의 모든 자유보장, 합작위원회에 의한 입법기구의 구성 등이었다.

이 원칙이 발표되자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찬성,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한국민주당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반대를 표명하였다. 좌우 세력의 찬반이 엇갈린 것은 주로 신탁통치와 토지개혁 및 친일파 처리문제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고, 미군정 또한 좌우합작에 의한 중도정부의 수립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이 운동은 한때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좌우합작위원회와 한국민주당계가 주축이 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6년 12월 12일 구성되었고, 남조선 과도정부가 1947년 2월 5일 설립되어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안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극좌세력과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이승만 등이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하고, 좌우합작운동의 핵심 인물인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암살되자 사태는 단독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기울어져갔다. 미국도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극우세력을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을 핑계 삼아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 역시 1947년 12월 6일 해체되고 말았다.

극좌·극우세력의 방해와 미군정의 지원철회로 좌우합작운동이 무산되고, 또 남북한의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어가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독립당의 김구는 중도세력을 통합하여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한 김규식과 함께 한국문제의 국제연합 상정에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지도자회의를 제안하였다. 북한 측 역시 이에 호응하여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들 4자회담에서는 정치문제 이외에도 북한 측의 송전 계속과 연백수리조합의 개방 등이 논의되었다. 그렇지만 미·소의 냉전이 격화되고, 남북한의 극우·극좌세력들이 모두 단독정부 수립을 확고하게 추진하자, 남북협상 또한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독립당과 민족자주연맹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불참하고,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역사의 방향은 이미 국토분단과 민족상잔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남북한에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분단국가의 성립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이 근원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한 외세에 편승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려고 획책했던 좌우세력의 분열책동 또한 이에 못지않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달성이라는 과제에 못지않게 식민지 유제의 처리문제 즉 반민족세력의 처단, 귀속재산의 처분과 토지개혁 등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민족적 과업중의 하나였다. 때문에 모든 독립운동세력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고, 또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친일반역배의 강력한 처벌과 중요 산업시설 및 귀속재산의 국유화, 토지의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등으로 대체로 의견의 합일을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해방정국의 혼란과 분단국가의

수립으로 식민지 유제의 청산은 불철저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일본인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재산을 접수하여 군정청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신한공사는 이러한 귀속재산의 일부를 연고자에게 불하함으로써 일본인이나 그 기관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 자본가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미군정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해방당시 소작농가가 전농가의 50%에 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적 지주·소작관계의 철폐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초미의 해결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한 채 우선 소작료를 3·1제로 인정하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타협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에서는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무상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토지개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1947년 12월 토지개혁법안을 기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의회 자체가 지주계급과 한국민주당 계열의 우익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못하였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일본인 소유지를 소작인과 귀국동포들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조건은 주생산물 가격의 3배에 달하는 농지 가를 15년간 현물로 사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30여만 정보의 경작지가 처분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비등하는 여론의 압력과 사회운동의 격화로 토지개혁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소작지와 3정보 이상의 자작지를 정부가 매수해 소작인, 농업노동자, 유가족, 귀환동포 순으로 3정보 이내에서 유상분배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농지의 매수가격과 상환액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주계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국회에서는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농지의 매수가격과 상환가액을 연평균 생산액의 1.5배, 보상기간과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안을 1950년 3월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농지개혁안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서, 지주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더구나 그것마저도 해방 후 5년 만에 실시되었으므로 과반수이상의 농지는 이미 매매되어 실제로 분배된 농지는 55만 정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상환 방법도 현물납으로 되어 있어서 격심한 인플레가 계속되었던 당시의 상황 아래서는 농민층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귀속재산의 처리도 불철저하였다. 이승만정부는 공공성이 있는 토지와 기업체, 공장 등은 국유 또는 공공기업으로 개편하고, 기타의 것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불하하였다. 불하의 대상자가 연고자, 종업원, 유공자, 일반공매 등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인 또는 일본인과 밀착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았다. 실제로 6·25전쟁과 휴전 직후에 행해진 33만 건의 귀속재산 처분은 친일세력이 다시 자본가로 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었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도 미흡하였다. 미군정은 총독부의 권력구조와 인물을 그대로 계승한 측면이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친일세력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기간요원으로서 일제치하의 군인, 경찰, 관리들이 대부분 군정청에서 중용되었다. 이밖에도 제헌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1948

년 9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입법하여 반민특위의 재판관 검찰관들이 국회에 사표를 낼 때까지 많은 친일파를 재판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처단의 의지가 없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론(世論)만 어지럽게 하였을 뿐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일반공을 내세웠지만, 핵심세력은 대부분 친일세력이었다. 심지어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친일경찰로 하여금 강제로 해산시키는 반민족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친일세력이 온존하게 됨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출발 시초부터 민족사적 명분을 크게 훼손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던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실권을 장악하여 사회혁명의 일환으로써 식민지 유제의 청산만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친일세력은 보안대의 수색과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단되었다. 북한 또한 주요 산업을 모두 국유화하였다.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철저하게 단행된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정책은 단기간 동안에 농업 및 공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과격한 사회개혁은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여 수백만 명의 월남이주민을 낳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붕괴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사회, 문화운동도 폭발적으로 고양되었다. 그렇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사상의 분열은 사회·문화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해방 후 한국교육 60년은 굴곡의 역사였다. 미군정은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 애국정신, 민주공민육성을 내세우고 6·3·3·4의 학제를 마련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방법을 전파하였다. 해방 후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온 교육목표는 “새교육”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말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 교육목표가 싱싱하고 넓은 의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식 식민지 교육 잔재를 일소하고 교육법 제1조에서 말 하였듯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일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모든 진보적 교육활동의 내용 및 그 방법을 “새 교육”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은 1964년 말 당시 우리나라 굴지의 교육전문지 새 교육지가 송년호에서 다시 한 번 새 교육이념에 투철하자는 논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앞서 말한 교육법 제1조 서두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이 되었고,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아무런 연관이나 상관이 없는 한배검의 “一民主義” “民族的 民主主義“를 지향하는 학도호국단 학생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식 수신교육의 재판인 반공 도의교육 등이 횡횡하여 참다운 민주주의 교육발전을 저해해왔다. 김진만이 ”어글리 코리언“에서 말 했듯이 한국 교육을 훈화 봉건윤리 중앙집권 관존민비 관료독선 출세주의 등 학명을 가진 ”신주단지 교육론“의 활동무대로 전락시켜 놓았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진행된 한국교육의 개편은 심히 혁명적이었다. 일본식 교육제도인 단선형을 바꾸고 특히 차별적이던 중앙교육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를 무제한으로 넓히고 민주주의 특징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기간이었고 미국인 교육고문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교육자들의 손에 의해 미국식 교육제도가 그대로 유

입되었다. 그런데 이승만의 집권 하에서 미국식 교육제도 집착 대신 국부 이승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행동강령이 교육목표로까지 등장한 것이 앞서 말한 "일민주의" "학고호국단"이었다. 그 당시 교육당국이 주동이 되어 제정한 "우리의 盟誓"인데 이는 일제 당시 황국신민의 誓詞와 비슷했다.

해방 후 교육계의 양적성장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였다.

194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 비해 상급학교의 학교 수 학생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이중 대학의 증가율이 995%에 달해 사회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대학은 입학생의 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5 – 1953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였다. 해방 후 국민 문맹퇴치에 힘을 기울였던 시기였고, 대학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어 입학시험은 각 대학 자율에 맡겨 신입생 선발권을 보장해 주었다.

광복 후의 사회혼란과 남북분단은 경제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46년의 남한의 공업생산력은 1939년에 비해 5분의 1로 감소하였고, 물가는 광복 후 1년 사이에 22배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노동자수도 반 이하로 감소하여 실업자가 백여만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처럼 격심한 생산의 위축, 물가의 상승,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자의 증가 등은 민중들의 생활을 극도로 궁핍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귀환동포와 월남이주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미군정은 정국의 혼미 속에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전국적인 노동조직이 탄생하고 각 부분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노동단체로서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1945년 11월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만, 1천 2백여 개의 노동조합과 50여만 명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적 조직이었다. 이 단체는 실천요강으로서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전선정권의 수립, 민족자본과 협력하의 산업건설, 노동자의 이익옹호 등을 내걸고, 행동강령으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제 실시, 연 1개월의 유급휴가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임금인상, 미곡지불, 일급제 및 감원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맞서 우익진영에서는 45년 11월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으로 개편되어,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노사 간의 친선 도모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농지의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주장하였으며, 우익의 정치노선에 따라 반탁과 반공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정하의 노동운동 중에서는 전평산하의 조선철도노동조합이 단행한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이 유명하였다. 9월 총파업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대구를 기점으로 하여 폭발하였던 10월 폭동은 식량공급정책의 실패와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어 경상도, 전라도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2개월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2백여만 명이 이에 가담하여 경찰과 민간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10월 폭동의 진압을 계기로 전평은 불법단체로 규정되었다. 이후부터는 정권의 비호를 받는 대한노총이 전국의 노동전선을 통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이승만정부하에서 특히 강화되었다.

농민들은 해방과 동시에 식민지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각지에서 농민조합, 농민동맹, 농민위원

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농민조합총동맹(전농)이 1945년 12월에 결성되었다. 전농은 도·부·군·면에 지부를 두고 각 마을에 반(1만 5천여 개)을 설치하여 약 330만 명의 회원을 두었다. 그리고 행동강령으로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와 빈농 분배, 소작료의 3·7제와 금납화, 농업노동자의 최저임금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지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이 있을 수 없다하여 농지개혁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광복 후 문화계는 좌우익 사상대립이 격렬하였는데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좌익 우세 속에서 전개되었다.

1945년 8월 16일 임화 이태준 김남천 이원조 등이 결성한 "조선문학건설본부"였다. 그리고 임화는 부분별 예술단체인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을 결성하여 8월 18일 그 전체 "협의기관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서기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기영 한효 송영 한설야 등은 1945년 9월 17일 극좌적인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을 결성하고 9월 30일 자매단체인 음악동맹 미술동맹 연극동맹을 합하여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문맹)으로 합동이 되었다.

한편 민족진영에서는 이헌구 김광섭 김진섭 이하윤(異河潤) 등 예전의 해외문학파를 중심으로 1945년 9월 18일 "중앙문인협회"를 결성했고 서정주 김동리 조인현 조지훈 박목월 박진두 등은 "생활문화사"에 모였다. 이들 민족진영 작가들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교육 체육 과학 등 문화의 각 분야를 망라하여 정인보 설의식 이병도 박종화 이선근 양주동 등을 임원으로 한 1946년 3월 13일 "조선문필가협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민족진영의 젊은 작가 김동리 유치환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황순원 홍구범 등이 중심이 되어 1946년 4월 4일 "조선청년문학협회"를 결성하였다. 다시 1947년 2월 12일 조선문필가협회 조선청년문학가협회 등 25개 문화계 단체가 "조선문화단체총영합회"(문총)가 탄생하였다.

1949년 12월 17일 한국문학가협회(한국문협)가 결성되어 문총 예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한국문학의 구체적인 기구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등록되어 문학의 대외적인 활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문학 발표지로 백민 문학 문장 문예 등 순수문학지 해동공론 민성 신천지 등의 종합잡지가 문학작품 발표에 큰 역할을 하였고, 6,25 이후 순문학지로 "문예"가 폐간된 후 "문학예술"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춘추" 등이 나왔고 종합잡지에 "신생공론" "현대공론" "자유세계""문화세계" "신태양""현대""새벽""사조" 등은 문학작품 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사상계"는 순수문학지에 못지않게 작품창달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한국, 동아, 서울, 경향, 조선 등 일간지에서 신춘문예현상에서 신인 발굴로 한국 문예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8.15 광복 후 문화계에도 사상적 대립이 심각하여 북한에 있거나 월북한 작가는 시에 임화 박세영 오장환, 소설에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이태준, 희곡에 박영호 송영 함재덕, 평론에 이원조 한효 윤규섭 김동석, 납치된 인사는 김광수 김동환 김억 김진섭 김기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송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폭팔적인 영향은 집권자들에게 무서운 존재여서 규제와 통제를 가

하고자 하는 경행이 있다.
정부 기업 일반대중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방송의 위상을 국영 민영 공영 중 어떤 형태의 정립을 논하게 하였다.
일제가 세운 첫 라디오 방송 경영방송국은 8,15후 미군의 공부에 예속되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국영방송으로 태어났다.
스포츠부문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그냥 여가나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스포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압제 하에서 우리민족은 스포츠를 통해서 단결하고 울분을 달래곤 하였는데 일본이이를 방해하기 위해 운동장을 실습지 명목으로 채소밭 콩밭 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해방과 더불어 스포츠 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어 각각의 운동장이나 광장에서 각종 경기가 실시되었고, 조선체육회의 주체로 자유해방경축종합경기대회가 1945년 10월 서울 운동장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성대히 거행하여 우리민족과 체육인들은 벅찬 감격에 차있었다.
체육인들은 1945년 11월 26일 YMCA 체육관에서 평의회를 열고 해방 후 초대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 회장에 呂運亨, 부회장에 유억겸 신국권을 선정하였다. 이 때 이미 조직되었던 경기단체를 보면 빙상. 체조. 핸드볼. 복싱. 역도. 농구. 럭비. 축구. 씨름. 승마. 정구. 탁구. 야구. 배구. 유도 등이 있었다.
해방 후 6개월의 조정기를 거친 후 1946년 봄부터 학원 스포츠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전통의 延. 普(현 연고전)전의 축구 농구가 부활하였고, 연. 보전 오픈게임으로 京.平戰이 열렸는데 평양팀이 승리를 하였다.
1948년 런던 올림픽 출전을 위한 선수선발을 위한 경기가 계속되었고, 각 종별 육상경기가 계속되어 우수선수가 계속 발굴되어 68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한국마라톤의 역사를 보면 약 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 마라톤의 첫 공식기록은 1927년 조선신궁 체육대회에서 마봉옥이 3시간 29분 37초이고 한국인으로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1932년 LA올림픽이다. 원태하와 고교생 김은배는 9위와 6위를 하였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월계관은 1979년에 한국에 반환되어 손기정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윤복 선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1950년 같은 대회에서 한국의 함기용 송길용 최윤칠이 1. 2. 3위를 휩쓸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오늘날의 축구와는 다르지만 옛 신라시대에 蹴鞠이란 놀이 형태의 공차기가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전해지는데, 근대축구는 약 100여년전 19세기 말 1882년(고종19) 인천에 상륙한 영국 군함 승무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1904년 서울 관립 외국어학교 체육과목으로 채택하면서 보급되어 1905년 6월 서울훈련원(현 동대문운동장)에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청년회 간의 시합이 공식 축구경기이다.
1921년 제1회 조선축구대회 개최되고, 1928년 5월 22일 조선심판협회(조선축구협회전신)창립,

1933년 9워 19일 조선축구협회(회장 박승빈)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가 광복과 함께(1948.9.4) 대한축구협회로 개칭하고 동시에 FIFA에 가입했다.
한국 야구의 역사는 1905년부터라고 한다. 야구가 전해진 것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 질레트씨가 황성YMCA 야구단을 조직해서 야구를 가르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되어있고, 최초 전래지는 인천인데 인천은 서양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곳이고, 인천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사는 곳이다.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도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인천은 축구 야구 농구의 명문이 많은데 축구의 부평고, 야구의 명문 동산과 인천고, 농구의 송도고를 들 수 있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되고 1920년 11월 배제고등학에서 제 1회 야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10월 15일 즈음해서 우리나라 전국체전이 개최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46부터 각 언론사를 중심으로 고교야구대회를 만들었는데, 1946년 자유신문이 창설한 청룡기(조선일보 개최권인수), 1947년 동아일보의 황금사자기 대회를 비롯 중앙일보의 대통령기, 한국일보의 봉황대기, 광주일보의 무등기 등 지역에 연고를 둔 대회가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웅을 겨루었다.
우리나라에 유도라고 하는 스포츠가 1905년 고종 때 유술이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1906년에 우찌다라는 도장(內田道場)이 明治町(지금의 명동)에 설립 운영되었다.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수박. 씨름. 줄다리기 등이 삼국시대부터 널리 유행되어 되어왔는데, 특히 수박(手搏)은 치기. 차기. 막기 세 가지를 주 기술로 白水 白身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스포츠이다.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 유술이 되었는데 유술은 찌르기, 막기, 던지기 등 종합격투기였는데 찌르기를 빼고 1877년 가지노고르에 의해 정신수양체육목족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고도칸 유도이다. 조선시대 고종 때 '柔術'이란 말이 등장하였고, 1906년에 일본의 강본의 강도관 유도가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통하여 최초로 수입되었다.
1945년 10월 조선유도연맹이 결성하였고, 1946년 대한학생유도연맹이 발족하여 발전을 계속하였다.
탁구가 한국에 언제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24년 경성일일신문사가 주체한 탁구대회가 최초의 대회이며, 1928년 기독청년회가 주체한 제1회 조선탁구선수권대회가 한국이 주최한 최초의 대회이다.
해방 후 1945년 9월 발족한 조선탁구협회는 1947년 9월 대한탁구협회로 개칭하고, 제1회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1950년 4월 아시아탁구연맹과 국제탁구연맹에 가입하였다.
빙상경기의 기원은 추운 북방의 원시민들이 생활을 하기위해 교통의 수단으로 개발한 도구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 스케이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05년 북미 개신교 선교사 질레트씨에 의해서 전해졌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스케이를 처음 구입한 사람은 현동순씨가 1908년 북비 선교사 질레트씨에게 구입한 것이다. 1912년 경성일보가 용산부근에 빙활장을 만들어 무료 개방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트장이다.
1915년 중국의 빙상단을 초빙하여 의주농업학교 부근의 경빙장에서 스케이트대회가 개최되었는

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빙상경기대회이다. 1921년 12월 조선체육협회가 명동부근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개방함으로 일반인의 스케이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1933년 대동강에서 전조선 빙상경기대회, 1935년 한강에서 개최된 조선여자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빙상활동이 활발하여 1941년에는 한국의 편창남, 1943년 이효창 선수가 전 일본 빙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1936년 독일 칼뮤슈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김정연 이성덕 장우식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참가하였고, 태국기를 달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것은 1948년 제5회 스위스 산모르츠 동계올림픽이다.

활과 화살이 언제 발명되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활과 화살의 발명은 인류역사에 문화적 향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의 발견 언어의 발달과 함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큰 역할을 왔다. 더구나 활과 화살은 사냥뿐만 아니라 16세기 총이 출현하기 전까지 전쟁무기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총의 출현으로 활과 화살은 무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스포츠로서 발달하였다. 18세기 이후 미국 등 전 세계에 보급되어 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1931년에 국제양궁연맹이 결성되고 타깃 아처리 대회가 2년마다 거행되었다. 필드 아처리 대회도 1936년부터 타깃 아처리와 중복되지 않게 세계대회로 개최되었다.

골프가 한국에는 1897년부터 함경남도 원산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골프의 시초는 1900년경 함경남도 원산항의 한국정부의 세관관리로 고용된 영국인들이 세관안의 유목산 중턱에 6홀의 골프코스를 만들고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21년 1월 조선철도국은 미국인 탠트의 설계로 지금의 효창공원자리에 경성골프구락부를 개장하였으나 이 골프장은 9홀 코스로 운영되다 1923년 공원지정으로 폐장되었다.

1924년 한국최초의 정규코스인 파 70의 18홀인 골프장이 개장되어 1929년 폐장될 때까지 활발히 운영되었다. 이 골프장은 일반인에게도 개장하여 골프인구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1929년에는 제1회 조선골프선수권대회도 개최하여 한국골프사의 첫 장을 연 골프의 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한국골프가 본 괴도에 들어선 것은 1929년 군자리(현 어린이 대공원 위치) 골프장이 개장하면서 부터이다. 군자리 골프장은 원래 왕실의 능 자리였으나 영친왕 이은 공이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골프장건설비로 거액을 희사함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게 되었고, 영친왕 이은 공은 한국골프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37년 9월에는 조선골프연맹창립총회 결성과 규약과 임원이 결정되었다.

한국 프로골프의 역사는 연덕천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는 17세에 골프를 배웠으며, 일본인 주선으로 일본에 가서 골프수업을 받고 3년만에 일본 오픈경기에 출전하여 8위에 오르는 등 급성장을 하여 1941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일본 오픈경기에서 패권을 잡았다.

역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경기가 있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독일에는 힘자랑으로 돌 던지기가 있었다. 이러한 경기는 단순히 힘을 자랑하는 경기에 불과하였으나, 1800년대에 들어와 근대적인 역도 경기가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구츠무츠나 얀에 의해서 확실히 자라 잡게 되었다.

1869년 제1회 올림픽대회에서 역도가 체조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는데 그 종목은 한 손에 의한 저크와 두 손에 의한 저크가 있었을 뿐이며 현재와 같은 체급도 없었다.
현재와 같은 역도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28년 역기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 이후다. 1936년에 조건역기연맹이 조직되었고, 1946년 해방 후 조선역도연맹이 발족되고 1947년 우리나라 역도사상 최초로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대회와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서 김성집 선수가 연속 동메달을 획득하여 올림픽에서 첫 태국기가 게양되었다.
한국에 복싱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12년 10월 7일 단성사주인 박승필이 유각권투구락부 주최로 흥행에서였다. 흥행 내용은 체육보급을 목적으로 유술. 권투. 씨름의 3가지 경기였다. 1916년 미국인 선교사 길레트가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1922년부터 권투시합이 중앙YMCA에서 연례행사로 열렸다.1925년 1월 30일 중앙YMCA 주최로 열린 제9회 실내경기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27년 중앙YMCA 체육부에 권투부를 개설하여 30명의 요원을 양성하고, 1928년 6월 동아일보후원으로 제2회 전 조선권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1929년 황일수가 전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한국아마추어 권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에 출정하여 국제무대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1934년 조선 아마추어권투연맹이 조직되고, 제10회 마닐라 극동선수권대회에서 김창엽이 동양선수권을 획득하였다. 1935년 아무추어와 프로권투가 분리되어 조선권투연맹이 창립하여 김정연 서정권 황을수 이상목등이 활약하였다. 1945년 전 조선아마추어권투연맹이 창립되어 1947년 국제아마추어연맹에 가입하고 동년 12월 복싱단체들은 대한권투연맹으로 통합하였다.
다른 한편 1945년 8월 17일 '전라남도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8월 30일 시군에도 지부가 결성되어 치안과 자체 업무수행에 나섰다. 함평에서는 이재혁이 위원장이 되어 건준을 이끌었다. 그러나 건준은 좌경화하면서 자체안에서 혼란을 겪었고,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초대 군정장관 아놀드가 3·8도선 이남에는 오직 미군정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건준은 와해되고 말았다. 미군정은 일본인 관리들로부터 일부 행정권을 인수받아 자치활동을 하고 있던 도인민위원회 및 시군인민위원회와 치안대를 해산시켰다. 미군정에서는 대체로 지역의 유지를 군수에 임명했는데, 함평에서는 후에 헌법학자가된 박일경이 임명되었다. 5·10총선에서 함평에서는 4명이 입후보하여 무소속의 이성우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전남지역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여순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여순사건을 알아보려면 제주 4·3 사건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시대인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들이 당시 전라남도 제주군 제주읍 관덕정에서 3·1절 행사 중에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시위군중 6명이 희생되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집행과 경찰관 서북청년단(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 조직원의 신분노출로 인해 수세에 몰린 제주 남로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발맞추어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

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이었다. 정부군의 진압작전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끌어갈 정부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금이 저려온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 95%가 소실되고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가옥 3만9천 여동이 방화에 의해 소실되었고 생활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 여명은 산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빚었고, 세화 성읍 남원 등에서는 주민이 30명 50명씩 희생되었다.

정부는 더욱 강경하고 철저한 진압을 위해 2연대를 제주에 파견하여 절차 없이 즉결처분을 자행하였다. 한 마을 주민 400여명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남여 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된 북촌사건은 대표적인 주민 집단 총살 사건이다. 이 밖에도 진상조사 위원회에 신고 된 자료에 의하면 100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제주도민의 희생은 일차적으로 9연대와 2연대의 책임이지만 서청단원들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청 단원들은 4·3사건 반발 이전에도 500 −700 명이 제주도에 들어가 도민들과 마찰을 자주 빚었고, 이들의 지나친 행동이 4·3 사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3 사건 직후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4·3 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본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승만은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의 2개 선거구가 무효화됨에 따라 선거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여순사건이 발발하여 이승만 정권의 생존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의문시 되었고, 유엔의 승인에 두 선거구가 걸림 돌리 되었으며 김구 김규식 등에 의해 통일운동이 활성화 되어 정권의 정통성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에 초토화 작전을 통하여 긴급히 4·3 사건을 평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정권의 힘을 얻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위에 군림하여 특권 부라고 부르던 서북청년단을 미군 정보부가 작성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극우정치 인사들이 지원하는 테러조직”이라 단언한 서청을 “빨갱이 섬으로 규정한” 제주도에 대거 내려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 제주도민에 대한 좌우의 구별은 무의미해졌다. 그들과 군인 경찰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였다. 같은 경찰도 우익단체원도 도지사도 면사무소 서기도 마을 이장도 모두 특별한 재판도 없이 죽어갔다. 그 뒤에는 변함없는 대통령 이승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주 4·3 사건은 30여만 명의 도민 중 2만 5천 − 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냈다. 희생자는 집단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은 학살이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제주도민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수이고, 가옥은 3만 9천 여동이 대부분 방화로 인해 소실되었다. 제주 4.3 학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줄 곧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희 이하 군사정권과 보수집권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 후 1999,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1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진상조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주 4·3 사건이 여순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제1공화국이 출발하였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관료를 임명하고 각료선임 과정에서 한민당과의 갈등, 좌익세력의 격렬한 저항, 심화되는 민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도 2·7 구국투쟁 제주 4·3 민중항쟁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 등의 좌절을 겪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여수 순천 승주 구례 보성 광양 여천 곡성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에 온존하고 있었다. 5·10 단독선거 저지투쟁과정에서 나타난 군중들의 투쟁파고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은 까닭에 해방이후 인민위원회와 연관된 조직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 온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5·10 선거직전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여순사건 발발시 봉기군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을 맺은 집단이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5·10 선거후 남로당이 7월 15일부터 실시한 지하선거와 9월 이후부터 "인공기 게양투쟁과 미소 양군 철수요구투쟁을 통해 급진화 되어갔다.

한편 정부는 1948년 5월초 확군 작업 일환으로 광주의 국방경비대 제4연대 1대대를 근간으로 하여 14영대가 창설되었는데 이 부대는 창설부터 여순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갔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기관원 가운데 여순사건의 주모자인 지창수(인사계) 상사를 비롯 김중희(대전차중대장) 중위 한석순(순천주둔중대장) 중위 등 좌익계 간부가 부대 내에 포진하고 둘째는 사병의 모병작업이 전남 일원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원조회 없이 실시되어 경찰수배를 받은 좌익계열 청년들이 다수 입대하여 좌익 은둔처가 되어있었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사건이 일어나 동년 10월에 제주도 유격대가 공세를 강화하여 정부토벌대를 위협하므로 이승만 정부는 계속 병력을 증파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1948년 10월 15일경 국방경비대는 제 14연대에 10월 19일 오후 8시에 1개대대를 제주도에 출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일 밤 제주도로 출병하기 위해 승선하기 한 시간 전 지창수 상사 등 핵심 요원 40여명이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고 비상나팔을 불었다. 제1대대 사병전원이 연병장에 집결하자 지창수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반대, 경찰타도, 남북통일 위해 민중의 군대로 행동할 것을 호소하여 대다수 사병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2개 대대도 합류하여 반란군은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 선발대 700여 명은 기차로 순천에 도착하자 14연대 2개 중대가 반란군에 적극 합류하여 순천을 포위공격하자 광주에서 파견된 제 4연대 1개 중대도 반군에 합류하여 반란군이 순천을 점령하였다.

사건에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1일에 반군토벌 총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총 10개 대대 병력으로 순천을 포위 공격하였다. 정부 진압군은 23일 아침 7시 81미리 박격포 사격과 L-4 정찰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장갑차 부대를 선두로 총공격을 개시하여 많은 인명살상을 내고 오전 11시경 순천을 탈환하였다. 여수는 24일 여수만을 포위하는 상태에서 개시되어

3연대 병력 27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내는 14연대 200여명과 약 1천명의 청년학생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는데 25일 진압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가지에 박격포 사격을 퍼부어 27일 오후 여수를 완전 점령하였다.
여수와 순천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여순 지역을 점령한 정부는 여순에 계엄령을 내린 후 가장 먼저 봉기군과 동조자를 철저하게 색출 처벌 작업에 나섰다. 1948년 10월 23일 사건발생 3일이 지난 후 국무총리 이범석은 "이번 국군이 일으킨 반란의 주요원인과 폭동의 성질은 수주 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을 해서 반국가적 반란을 일으키자는 책동이 있었다"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48년 11월호 "신천지"에 설국환 취재기자는 "이 사건의 현지로 가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자 할 것이 제 14연대라는 적지 않은 국군의 병사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서울서 우리가 들은 한 공산당원과 극우파가 공통전략으로 일으킨 것이었으나 만일 이 단순한 해석을 그대로 믿는다면 반란의 가능성은 비단 제 14연대뿐만 아니라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며, 따라서 금반 사건은 좀 더 상세한 조사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1948년 10월 23일 여순사건 현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국방부 인사국장 강영훈 중령(후일 국무총리 지냄)이 설국환 기자에게 사회 경제의 혼란에서 오는 일부 행정관리 내지는 경찰의 부패를 곁에서 보면서 국군 병사들은 완전히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군의 고민은 경찰 측에서 왕왕 말하듯 하는 국군의 불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의 부족을 비행으로 보충하는 많은 경관을 다만 묵묵히 어느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군병사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군병사들의 반경 감정은 결코 사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모략으로 발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주 상태만 하더라도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이었습니다.
김득중의 역사연구 7(2000)에 이승만 정부는 처음에는 1948년 10월 1일 발생한 혁명의용군 사건과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해방정국에서 최대의 정적이었던 김구를 견제했으며, 나중에 실질적인 주체가 14연대 장병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이었다고 몰아감으로써 예상치 못한 주민의 대규모 반란 동참에 따른 정부실정에 대한 비난과 진압과정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려 하였다. 1948년 10월 23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국무총리 이범석의 포고문은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라고 언급하여 극우청치의 역할이 컸음을 부각시켰다. 진압군의 가혹한 처벌정책은 동족에 대한 아량이나 연민의 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누가 부역자인지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 우익인사, 청년단원 등 봉기군 치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세력들에 의해 민간인 참여자의 색출작업이 진행되었고, 그것은 보복테러와 무차별적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무고한 청년들이 흰 운동화를 신은 죄, 국방색 런닝셔츠를 입은 죄, 머리를 깎은 죄, 과거에 좌익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죄, 가족과 친구 가운데 좌익에 가담하였다는 죄로 헤아릴 수 없이 학살당한 이들은 역사의 현장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주 여순 사건에 대해 엄벌하라는 말에 대한 해답은 김시훈의 "4.3은 말 한다"에서 제주도민이 당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서청 문봉제 단장은 이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이대통령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제주도에서와 같은 학살 사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시리에서 며칠 전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튼 학살의 책임자는 이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보면 진실화해위가 여수지역에서 884명으로 추정했고, 순천지영에서만 2,00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고, 구례에서는 구례시민연대와 구례진실화해위가 3,000여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진실화해위가 순천에서 439명을 밝혔으나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규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헌법이 제정된 후 민주주이 발전과정과 헌법의 수난과정은 떼어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헌법 개정의 괴변을 늘어놓곤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라 하였으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또한 많은 피를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UN 총회에서 남한지역에 한한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미국 측 제안을 31대 2로 가결한지 90일 만인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선거의 개요는 비밀, 평등, 보통선거의 시초였다.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인 자로서 의사무능력자 수형자 일본정부의 작위를 받은 자 와 일본국회의원이 되었던 자 이외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 없이 선거권을 가졌다. 유권자 총 수는 8,132,517명 이었고,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구·시·군을 단위로 1명을 선출하되 그 인구가 15만 이상일 때에는 매 10만단위로 1구씩 늘리기로 하여 전국 선거구는 200개 구였다. 입후보 총수는 948명 무투표당선 12명 부득이한 사고로 제주 2개구를 제외한 198명의 제헌의원이 선출되고 제주는 1949년 5월 10일에 보선하였다.
정당별 당선인은 무소속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촉국민회의 55명, 한국민주당(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4명, 민족청년단 6명, 기타 11명이었고 함평지역에서는 무소속 이영우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2대 때에는 여당인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다.
총선 후 20일 만인 1948년 5울 31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개원하였는데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이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국회 본회는 의장 사회아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규칙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먼저 기초의원 전형의원을 10명을 별도 뽑아 10인의 전형의원이 기초위원 30인을 선출하였고, 국회기초위원 15명을 함께 선출하였다.
1948년 6월 23일 제17차 본 회의에서 서상일 헌법기초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유진오를 중심으로 헌법권위자들의 검토로 이루어 졌음을 보고하였다.
해방 20년사에 보면 국회는 헌법초안을 축조심의하였는데
1.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의의와 근거 2.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이유

3. 인민과 국민과의 술어적 차이 4. 국토방위와 병역 의무 5. 선전포고와 결의 문제
6. 남녀평등권 7. 의무교육 8. 국회정기회 소집 일자
9. 부통령 임기를 왜 대통령 재임 중에 한 하는가 문제 10. 제헌국회의원 임기문제
11. 정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는 이유
12. 국무위원 임면을 국회 동의 없이 하게 된 이유
13. 국무회의 결의를 과반으로 하는 이유 14.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부통령으로 한 이유
15.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의 한계 16.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어구는 부농에게도 분배할 수 있는 것인가?
17. 대한민국의 경제는 통제경제인가? 자유경제인가?
18.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한계
19.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가할 수 없는 이유 등을 7울 12일 국회 28차 회의에서 삼독회를 거쳐 통과하고 1948년 7월 17일 의사당에서 이승만의 서명으로 그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일제 35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5,000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헌법을 가진 입헌민주국가로써 세계 만방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제정이유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발휘케 하여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국회를 단원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와 국민의 기본권 규정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가능, 탄핵재판소 설치, 정부통령 국회선출 간선제, 정부통령 4년 1차 중임 대법원장인 법관 대통령 임명 국회 승인 등 어렵고 힘들게 제정된 헌법은 탄생 순간부터 독재자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난도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요 개인이나 국가의 행위의 준칙이고 근간이요 규범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자유와 평화이다. 자유란 절대로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이나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한 국가사회에 속한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 국가란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에 속한 나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유와 자유 아님이 나누어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자유로운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일개인

이나 일 계급에서 온다. 일개인에게서 오은 것은 전제나 독제라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헌법은 정부수립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였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선서한 대통령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시하고. 심지어 한때 패문화 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 많은 개헌과 개헌안이 나왔으나 주요골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한하고 삭제하려는 것이었고, 국가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늘이려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0 1차 개헌은 1954년 7월 4일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전란의 와중에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체제를 강화하고 독재정권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대한국민당 24명. 민국당 23명. 국민회 12명. 대한청년단 10명. 일민구락부 4명. 기타 8명. 무소속이 127명으로 정원 210명 가운데 무소속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무소지배 국회가 되었다. 따라서 2대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50명 내외밖에 되지 않았는데 6.25를 겪는 기간 중에 지지 세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에서는 당선이 무망하므로 국민직접선거로 개헌을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의 신당조직 의사표명을 계기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었던 원내 공화민정회 소속의원들과 원외의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대한부인회 등 5개 사회사회단체장은 공동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승만은 국제공산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이 국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1952년 5월 26일 곽상훈 서범석 임흥순 의원 등 10명의 야당의원을 검거하고 여순사건을 기회삼아 서민호의원을 구속하는 등 야당의원 47명을 체포 감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은 정부통령 직접선거, 국회를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을 골자로 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기립 표결시켜 통과시켰다.

5.26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접선거가 실시되어 총선거에서 이승만은 압승을 거두고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0 제 2차 개헌은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파동이다.

국민 직접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여 당시 자유당 주도권은 이범석이 이끄는 족청계가 잡고 있었는데 이에 이승만은 위협을 느끼고 족청계 거세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헌법에 따른 그해 8월 5일의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관권개입으로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범석이 낙선되고 무소속의 함태영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 후 자유당은 이범석의 거세를 위해 당수제를 총제제로 바꾸고 이범석의 부당수직을 박탈하고 이기붕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1954년 5월 20일 5.20 부정선거로 3대국회 개원초의 의원분포는 자유당 114석 민주당 15석 국민당 3석 기타 4석 무소속 67석으로 자유당이 과반수를 넘어 국회는 여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에 이승만은 종신 집권을 위해 3선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작업을 진행하여 개헌정족

수 삼분의 이를 확보하려고 무소속의원 포섭에 나서 의석 총수 137석을 확보하였다.

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제한 헌법조항을 바꾸기 위해,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년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라고 하였다.

3대국회의원선거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압승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발의 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표결에 들어가 총 20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하여 개헌선 3분의2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사오입의 이론을 내세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사사오입파동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다수의 횡포가 빚어낸 이 개헌파동을 발췌개헌의 5,26 정치파동과 함께 우리나라 국회 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에서 56%의 득표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 신익희 후보 런닝메이트 장면이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급서하는 바람에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 되었으나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을 위하여 각 투표구 내에서 부정표를 조작하여 6명씩을 매수하고 전국적으로 3인조 9인조를 만들어 공개투표를 하는 동시에 일련번호를 매당 100원씩에 매수하여 유효표 40%를 사전에 투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야당의 선거강연을 듣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강제동원 시키는 사태를 빚어내어 고교생 데모를 유발시켜 4.19 학생의거를 일으킨 1960년 3월 15일 그 유명한 3,15부정 선거이었다.

제 3차 개헌은 1961년 6월 15일 개정이었다. 4,19의거로 이승만은 하야하고 자유당은 무너지게 되었다. 1961년 6월 15일 허정 과도정부 밑에서 양원제 내각제 개헌과 보안법 선거법 자치법등 개악된 모든 법률개정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였다.

개헌 이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지치단체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 한 것이다.

제4차 개헌은 개헌이유로 이승만 정권하에서 자행한 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형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 혁명의 과업수행을 원활이 하고자 개헌을 하려하는 것이다.

제 5차 개헌은 1962년 12월 26일 헌법안 전부를 개정하였다.

제2공화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져 헌정이 중단되고 박정의 의장을 정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정치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1961년 8월 1963년 8월까지 민정이양을 하겠다는 성명에 따라 제 3공화국헌법이 1962년 12월 26일 탄생하였는데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 3선 금지 단원제

국회,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인데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다.

제6차 개헌(1969,10.21)은 3공화국 1기와 2기의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와 겨루어 승리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마련하기 위하여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자신이 박차를 더욱 가하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면분을 내세워 대통령 연임을 3기로 연장하는 개헌을 시도하였다. 야당이 결사적 반대를 하자 여당은 야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사이에 일요일 새벽 2시 38분에 국회 별관에서 여당과 매수한 야당의원 3명 포함 122명에 의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제 7차 개헌(1972, 11,21 유신헌법)

3선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개헌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대화를 시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린 후 장기집권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토착화를 위하여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의 중지 등 비상조치를 단행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단독 출마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8차 개헌(1980,10,22) 10,26 사태이후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육군소장이 주축이 된 신군부가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총장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12.12 사태를 일으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유신잔재를 청산하라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광주항생이 일어나자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이를 진압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가비상대책위원장으로써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22일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전두환이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어 1981년 2월 25일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9차 개헌(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

무력으로 집권하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일어난 대통령 직선제를 바라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 1987년 6월 시민 항쟁을 막을 수 없어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헌법개정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 야 합의로 개헌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행헌법으로 대통령직선,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헌법조문은 명백하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헌법이거니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헌법위반인 것이다.

이제까지 헌법수난을 보았거니와 우리 헌법의 역사는 결코 평탄치 못했다. 그것은 헌법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헌법을 무시하려는 국민들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집권자 스스로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여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느 헌법도 헌법의 권

위와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를 유린하거나 파괴하려는 어떠한 세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은 결의 없이는 헌법이 지켜지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헌법자체는 본질적으로 한조각의 종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집권자의 명령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법이라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류의 자유. 평화. 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요 가치이다.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실행한다.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자유이다. 이 자유란 각 개인이나 집단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 국가란 일종의 규범이고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의해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동일하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라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일개인이나 한 그룹에서 나온다. 일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독재라 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절차요 방식이지 그 내용이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이다. 헌법은 이것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본법이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재국가이다.

제2절 6·25 전쟁과 제1공화국 시기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도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완전한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져 민족의 시련은 더욱 깊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정치, 이념, 사회 체계를 더욱 고착화시켜 역사를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남북한에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각 정권은 내부 혼란과 불안을 밖으로 전가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립과 반목을 심화시켰다.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정부는 출범 당초부터 불안정을 면치 못하였다.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생산력은 감퇴하여 경제운영이 파탄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제주도 4·3항쟁과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국군이 일으킨 여순사건 등으로 국내의 정치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48년 12월 국제연합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를 결의함에 따라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지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자 사태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호도하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는 구호로나마 북진통일을 제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식민지 유제를 재빨리 청산하고 통치기반을 정비한 북한정권은 생산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남침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소련은 비밀군사협정을 맺어 6개 보병사단 및 3개 기계화부대의 장비와 비행기 150대를 원조하였다. 중공도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중공군

에 참가하고 있던 5만명의 조선인을 조선인민군에 편입시켰다.
전쟁발발 직전의 남북한의 군사력은 병력 3만7천대 11만 1천, 전차 0대 248, 대포 1천 2백 1천 7백, 비행기 0대 150으로 북한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고무된 김일성정권은 전쟁을 도발하면 불안정한 이승만정부가 곧 붕괴될 것이며, 미국 또한 결코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였다.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두 달 후에는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상남북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연합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하자, 전쟁은 돌연 내전에서 국제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군이 대대적으로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었다.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9일 평양을 점령, 10월 26일 압록강에 당도하여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중공이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구호아래 1백만 군대를 파견하자 전세는 다시 뒤집어졌다. 연합군측은 후퇴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및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이 회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소 양국의 의도가 관철되어 1953년 7월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미국은 이승만정부를 무마하기 위하여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을 그해 8월에 체결하고, 한국군의 증강을 위해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3년 1개월에 걸친 6·25전쟁은 우리민족에게 미증유의 재난을 가져왔다. 남한 측의 사상자는 국군 99만, 미군 40만, 유엔군 3만이었고, 북한 측의 사망자는 인민군 51만, 중공군 50만, 부상자 수십만이었다. 그밖에 민간인의 사상자는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남북한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주택, 학교, 공공건물 등도 거의 손실되었다. 전국토가 그대로 초토화된 셈이었다.
인민군이 함평에 진입한 것은 1950년 7월 23일이고, 10월 23일 수복됨으로써 꼭 3개월간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함평이 10월 23일 수복은 되었지만, 함평군 전역의 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했다. 산으로 숨어든 인민군들이 밤이면 각 읍면의 지서를 습격하고, 불갑산에서 군유산을 거쳐 영광군 백수면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는 그들의 아성이 되었다. 불갑산에 들어간 사람은 약 5만 7천여 명이고, 그중 1만 2천여 명이 각종 병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51년 2월 초에야 겨우 진압되었고, 함평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당시 불갑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인민군 잔류 병력과 국군 제11사단 20연대 5중대 병력 간에 끊임없는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낮이면 대한민국, 밤이면 인민공화국으로 전세가 뒤바뀌는 가운데 무고한 양민들만 '반동분자' '통비분자'로 몰려 학살되었다.
광복이 된지 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2년 완전한 해방이 아닌 절반의 해방 독립, 아직도 미 ,

소 강대국이 남북 양쪽에 자리 잡고 이념의 확장과 지배를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과 이를 봉쇄하려는 상항이 지속되고 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이념의 확장을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 우리민족에게 크나큰 상처와 비극을 가져다주었다.

6·25의 피해는 말할 수 없고 저희 함평에서도 대 참극이 벌어졌다. 전쟁발발 한 달도 못 된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이 함평에 진입하여 1950년 10월 23일 수복 될 때까지 3개월간 지배하였다. 그러나 함평군의 치안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다.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계기는 국군 제11사단 제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중대장 권준옥의 지시에 따라 무자비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1950년 12월 2일 해보면 금덕리 주둔 제5중대가 장성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가던 중 해보면 계림리 시목마을 뒷산에 진을 치고 있는 공비들과 온 종일 전투하는 중 제5중대원 2명이 전사하였는데 당일 후송치 못하고 다음날 후송조치하기 위해 전투지역에 갔을 때 시신이 난자당함을 보고 분개하여 학살극이 자행되었음을 당시 제5중대원 경주 영천출신 김추길과 송기봉이 증언하였고 양연언(현재 제주 거주)이 증언하였다. 김영택의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에 대한 발표문에 “양민은 좌익도 우익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성향을 가질만한 지식이나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좌우익과 전연 관계가 없는 노약자나 부녀자들이었다.”당시 이들은 문맹자가 대부분이고 언론매체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교통이 불편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공산주의가 머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따지거나 논할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골 무지렁이들이다. 이들이 제5중대가 주둔하는 근방에 살았다는 죄 때문에. 지나가는 길목에 살았다는 죄 때문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다.

1950년 12월 6일 새벽 월야면 정산리 장교리 동촌마을에 총을 쏘면서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살고 싶으면 마을 앞 논으로 모이라고 외쳐대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하였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모두 달아나다 계림리 죽림마을 뒷산에서 붙잡은 20여명을 학살하여 당일 70여명을 학살하였다.

1950년 12월 7일 오전 8시경 해발 164m의 월악산 자락에 자리한 월악리 7개마을 지변, 동산, 괴정, 송계 순촌에 5중대장 권준옥이 인솔한 부대는 마을 주민 200여명을 남산뫼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1950년 12월 9일 월야면 월야리 외치마을에서는 가정별 장자만 22명을 뽑아 안면있는 2명은 살려주고 17명을 해보면 두리샘 뒷산에서 사살하고, 나산면 이문리 사정마을 주민학생 10여명을 이문초등학교에서 사살하였다.

1950년 12월 12일 해보면 상곡리 마을 주민 12명을 사살하고, 1월 14일 우치리에서 36명이 살해되었다.

1960년 6월 8일 국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524명중 월야 350명, 해보 128명, 나산 4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60년 5월 20일자 한국일보 조간과 석간에 있 따라 보도됨으로 처음 드러낸 다음 제 4대 국회에서 1950년 5월 23일 함평출신 국회의원 김의택의 청원에 의해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전남 반은 유옥우 의원(무안), 박영배 의원(대전), 李祉炯의원(나주)이고 조사기간은 1960년 5월31일부터 1960년 6월 10일까지 11일간이었다. 전남 반 특위위원 함평현지 확인 과정과 피해정도를 보면

조사일시 1960년 6월 8일, 조사방법 : 월애 해보 나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증언조사. 참석위원 : 유옥우 임차주 전문위원 오표. 월야증언 정일봉 정봉규 정남숙 정재식 부면장 정복만. 해보증넌 강철현 윤방중 윤현중 김성묵 면장 윤완중. 나산증언 : 학살당시 면장 이오섭 이천구. 인명피해 524명 학살. 재산피해 1454호 주택및 건물 소실(월야 1449. 나산5) 본회의 특위활동보고 결과 대정부 건의문 개항을 채택하여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허정국무총리에게 1960년 6월 21일 제 156호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의문 2개 항은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 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만 아니라 該사건 조사를 위한 군 경 검 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할 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국회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가족과 관련자들을 이적행위로 몰아 구속 탄압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여순사건에 개입된 의혹이 있어 방첩대장 김창용이 박정희 소령을 체포하여 고문 끝에 주도세력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백선협과 이한림 장군 등의 배려로 석방되어 6,25 때 문관으로 복직되었다가 다시 장교로 복직된 사람으로서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1989년 월간 신동아 6호에 "아직도 맺힌 6.25의 恨 - 함평양민학살사건"이라는 제하의 글과 정희상의 "함평양민학살진상"(시사저널) 과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0,6,25)등에서 보도됨으로 국회청원이 잇따라 이루어졌다.

2007년 2월 9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유족 대표 노병량은 명예회복청원서를 접수하였다. 진실화해위에서 2007년 7월 3일 "함평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할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항이 아닌데도 공비토벌을 내세워 민간인 249명이 집단 총살되고 9명이 부상한 사건이었다고 선고하였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은 비록 월야 해보 나산뿐만 아니라 함평읍 대동 신광 손불 학교 엄다 등 함평군 전역에서 자행되었다.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조사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현대사 연구소"의 용역 보고서(2006, 9,28)에 의하면 함평읍 29명, 손불면 340명, 신광면 122명, 학교면 81명, 엄다면 24명, 대동면 273명 등 합 870명이 희생되었고,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전국 민간인 희생자를 조사하여 소장된 비밀문서에 수록된 명단을 2003년 6월 10일 월간조선이 발굴하여 발행한 책 1권에 함평에서 조사된 희생자 수는, 함평읍 159명, 손불면 375명, 신광면 249명, 학교면 72명, 엄다면 42명, 대동면 99명, 나산면 331명, 해보면 126명, 월야면 313명, 기타 49명 도합 1.8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로 함평 불갑산 과 장성 담양일대 민간인 수백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16일 전남 함평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담양 ,장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지난 1951년 2월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함평 영광 장성지역 주민 90명이상이 빨치산이나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출산을 앞두고 미쳐 피난을 가지 못한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사살하거나 노령으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집에 불울 질러 살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2대대장은 적 1천 5명을 사살했다고 20연대장에게 보고했으나 작전 관련 기록에는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사살된 적 1천 5명에는 불갑산 일대에 피난중인 다수의 민간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실시 등을 권고했다.

1953년 6월 18일 UN측과 공산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26,000여명을 석방하였다. 당시 광주의 제5포로수용소에 있던 자들은 광산, 나주, 함평, 영광 등지로 분산 수용되었는데, 함평에는 약 5백여 명이 수용되었고, 그들 가운데 58명이 함평에 정착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약 200여세대가 함평에 정착하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남한정부는 그동안의 단독정부건설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였던 인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1949년 6월 5일 결성했다. 이른바 좌익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사상을 교화하는 한편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보도연맹은 남로당원을 비롯하여 전평, 인민위원회, 민주주의 민족전선, 전농,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좌익단체의 주요 구성원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사찰기관에 협조를 해야하는 반강제적인 의무가 지워졌고,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민주주의 교육 등을 받으면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야간경비를 서기도 하고 좌익인사들의 색출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교육이나 반공시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단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인민군이 전남지역을 정복한 후 유가족들에 의해 광주시 광산구 치평동에서 499구의 시체를 찾아내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행위를 가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과 아픔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역이 거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6·25전쟁은 물질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전쟁 자체가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밀고 밀리는 와중에서 '낮에는 국군이요 밤에는 인민군'이라는 식으로 민중들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다. 상호간에 피 점령지역의 주민들은 점령자가 서로 바뀔 때마다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되풀이하여 처벌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은 단순한 정치·군사적 분할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 내부에서 상호 불신과 원망을 초래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후 통치 집단은 이것을 오히려 지배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했다.

6·25의 민족상잔은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국토와 민족의 분단은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서는 독재정권이 전횡을 부리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에 51년 2월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51년 3월 국민방위군 횡령사건 등 반민족적인, 반민중적 실정을 거듭하고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재정치에의 길을 착실하게 다져갔다. 이승만 정권은 민족청년단 등 우익단체를 규합하여 52년 3월에 자유당을 조직하고, 계엄령하의 부산에서 백골단 등의 폭력배를 동원하여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 이른바 발췌개헌이라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승만의 종신대통령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이른바 54년 11월 사사오입개헌을 단행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총선거에서도 경찰력을 이용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자유당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창하면서 남북대결의 자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1958년 12월 신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1959년 1월에는 반공청년단이 조직되었으며, 59년 7월에는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간첩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자유당은 그 여세를 몰아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초 법규적 만행은 결국 6·25전쟁과 그것이 형성해 놓은 분단구조에서 양육된 산물이었다.
한편 6·25전쟁은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남한의 경제기반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였다. 생산이 저하되고 전쟁비용은 증대하여 인플레가 극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3년에 화폐가치를 100대 1로 절하하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군정 기에도 원조액은 4억1천만 달러나 되었지만, 이승만 정권 기에는 그것이 약 31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한 원조자금의 42%는 원재료와 중간재였고, 25%는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이었다. 미국의 원조는 전쟁피해의 복구와 공업생산력의 회복 및 식량난의 극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민족의 분단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억압은 정치적으로 극우 반공으로 치달아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의해 우리의 농업의 생산기반이 오히려 철저히 훼손되어 국민경제 자체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겨우 지탱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원조는 이에 기생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매판 자본가를 출현시키고, 삼백산업(三白産業, 밀가루·설탕·면화)으로 일컬어지는 소비재공업을 파행적으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미국의 농산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밀, 면화, 사탕수수였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밀과 사탕수수 그리고 원면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 방직업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경공업의 발전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쌀과 면화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이승만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이 지역을 결과적으로 철저히 유린하였다. 특히 전남의 중서부지역은 쌀과 면화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러한 경공업조차도 대기업에 독점되어 정경유착을 심화시켰다. 1959년의 공장 수는 식민지시대 말기의 56%에 불과하였으며, 공업생산의 대외의존이 90%에 달하였다. 1960년에는 농촌의 82%와 서울의 39%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도입도 장기적으

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밀과 면화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쌀의 단작농업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에 식민지시대의 생산수준을 넘어선 것은 쌀농사 뿐 이었다. 이처럼 6·25전쟁과 그 후에 전개된 원조경제는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식민지 유제를 극복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형성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12년은 광복으로 인한 표출된 여러 사건과 과제들과 6·25로 인한 우리민족의 고통의 역사 한 장면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12년의 공과 사를 정리해 보면 공보다는 과가 많은 기간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만 채워진 것만은 아니다.
첫째 정치 분야에서 이승만은 신탁통치 안을 배격하고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운동을 주도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제헌의회 의장이 되어 제헌헌법의 내각책임제를 반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대한민국 정부구조를 정착시켰다. 대통령 중심제 내각책임보다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생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집권의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이고, 결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의 탄생을 보게 하였다.
1953년 10월 한미방위조약의 체결로 우리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게 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발전을 기할 수 있었다.
군사 분야에서는 6·25 전쟁 중 UN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을 동원하여 6·25 전쟁을 종결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군 장비를 확충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65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육 해 공 사관학교와 각종 특화학교와 지휘참모학교 등을 설립하여 우수한 군 지휘관을 양성하고 9,000여 명의 장교를 미국에 유학시켜 새로운 군사지식과 신기술을 연마하게 하였다. 이 군인들이 뒷날 5·16 주체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경제 분야는 집권기간 동안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소작농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작농이 되었고 토지소유권자가 된 것이다. 이 농지개혁은 한국사회의 지배층이었던 양반계급의 경제적 지배구조인 토지기반을 와해시킴으로 양반제도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6.25 전쟁 중 동요하지 않고 공산군에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편 1953년 대한중공업(현 인천제철) 1954년 동국제강, 1955년 한국유리공업, 1955년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1959년 원자력산업위해 트리가 마크2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6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여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해방당시 80% 이상이던 문맹률이 10% 이하로 낮추었다. 그 결과 초·중·고·대학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대학생의 수는 7800명에서 9만7천여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해외유학을 장려하여 1953년 – 1966년 기간 중 약 7000 여명이 해외 유학을 하게 되고 약 1500여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미국경제원조처(USOM)가 후원하여 2500여명의 고급인력이 유학, 단기훈련, 단기시찰 등으로 교육 받고 미국무부가 지원하는 “지도자 단기 시찰계획” 일환으로 940여명의 정치인 고급관료 교육자 (영어교사)가 미국을 다녀왔다. 1950년대의 양산된 고급인력은 1960년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 종교 면에서는 1948년 10월 한글전용법 안을 공포하여 우리역사상 한글시대를 열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 활동에 필요한 영어교육을 중학교 이상에서 실시하였다.
새로운 문화 현상 가운데 기독(개신교)의 교세신장이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수반이 된 후 미국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하였고,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회식 때 감리교 출신 국회의원 이윤영에게 식순에도 없는 개회기도로 개회를 하였다. 이어서 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에 기독교식 의식에 따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였다. 모든 국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행하고 대통령 영으로 국기경례를 목례로 하며, 군에는 군종목사, 형무소 교화목사 제를 도입하여 동양최대의 교세를 조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유교, 불교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려하였다.
1961년 3월 장면정권은 UN총회에 보고한 "통한각서"에 이승만의 12년 치적을 보고하였다. 동 보고문 제 4장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옹호 난에

1) 구제사업 및 교육사업의 성취. 2) 국회와 언론 자유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뿌리내림.
3) 96% 아동교육, 78개 대학에 10만 명 대학생 수 십만 졸업생은 교육의 발전이다.
동 제 3장에
1) 1957년까지 도시 교통 문화 경제방면에 의하여 30억만 불의 대 손해를 받은 6.25 전제 완전 복구
2) 1959년까지 가치인정 경제안전이 되었다. 각 부문에서 생산율이 상승으로 한국경제 최고 기록
3) 1954 – 1959까지 주택 52만호 건축, 1959년 곡물 420만 톤 생산 최고 기록, 기타생산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제3절 4·19혁명과 5·16쿠데타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원조 경제는 대외의존성의 심화와 함께 만성적 불황을 초래하여 경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자유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령인 이승만이 죽은 후에도 정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다. 대한반공청년단과 공무원 등을 선거 선발대로 삼아 '4할 사전투표' 등을 자행한 이 선거에서는 부통령 이기붕의 지지표가 95~99%나 나오자 득표율을 79%로 하향조정하는 넌센스가 연출되었다. 지배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던 국민들은 이러한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시위가 속발하였다. 특히 마산에서 시위 중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군의 시체가 발견되자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학생시위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이제 전국적인 독재정권 타도 시위로 전환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전국적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4월 19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186명의 시위대를 사살하고 6,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기붕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00여명의 교수들이 수십만의 시민들과 함께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시위를 감행하자, 미국도 자유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여, 1960년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은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4·19 학생의거에는 도시 빈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러나 생산의 주체인 민중들이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직화된 학생층이 이들을 대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자립경제의 수립과 민족의 자주적 통일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4·19 학생의거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함으로써, 해방이후 줄기차게 성장해온 민중들을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4·19는 이후에 전개될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기념비적 이정표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정권은 일시적으로 허정 과도정부에게로 넘어갔다. 과도정부는 자유당의 각료와 간부를 구속하고, 완전 내각책임제와 민의원 선거의 즉시 실행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신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구파인 윤보선이 선임되었고, 국무총리에는 신파인 장면이 구파의 김도연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출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정국은 민주당 신파가 장악하고 이에 반발한 김도연 등 민주당 구파 의원 일부는 탈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당의 분열은 장면 내각의 기반을 약화시켜 과단성 있는 정치의 실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장면정부는 4월 혁명 이념구현이나 자유당 치하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정권을 얻은 데다 가, 그 인적, 이념적 구성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던 지주, 관료층의 한국민주당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혁명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정부가 직면한 당시의 최대과제는 파탄 직전의 경제를 재건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1960년 말에는 서울 부근의 공장 80%가 조업정지상태였고, 완전실업자는 240만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보리 고개를 겪는 농촌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었다.

민주당정권은 공약으로 부정축재의 회수, 특혜와 독점배제, 국민소득의 공정분배, 농어촌의 부흥, 중소기업 육성, 금융의 대중화 등을 제시하고, 4백억원 규모의 국토건설사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정쟁을 되풀이하면서 신·구파로 분열하였다. 그 결과 1년 사이에 4차에 걸친 개각을 단행하였다.

국민들은 민주당정권의 기만과 지지부진한 사회개혁에 불만을 품고, 직접 가두에 진출하여 의사표시를 계속하였다. 사회의 혼란과 불안은 가중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정권은 지배기구에 대해 효율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해이된 경찰 및 관료와 불만에 가득 찬 군부를 양생하였다.

민주당정권이 4·19에서 분출된 민중의 변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때, 군부의 일각에서는 통일운동의 급성장과 민주당의 무기력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단의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민주당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1961년 5월 16일 새벽 3,600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처음에는 미국과 주요 부대들이 이에 저항하였지만,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의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대세는 곧 군사쿠데타의 성공으로 기울어졌다.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함 기풍을 진작시킨다. 4).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5).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6).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인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반공의 국시화, 유엔헌장의 준수, 대미유대의 강화, 부정부패의 일소, 민족정기의 정립, 민생고의 해결, 통일을 위한 실력양성, 양심적 인사에의 정권 이양 등을 혁명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은 용공분자의 색출을 표방하면서 3,300여 명의 혁신계 인사와 노조, 학생간부를 검거하였다. 또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정화법 등을 잇달아 공포하여 구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또 민중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농어촌 고리채정리법,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부정축재처리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환심을 획득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리고 1962년 6월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10대 1의 화폐 개정을 단행하고,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먼저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박정희는 민정이양의 시기로 1963년 여름으로 할 것을 196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2년 3월에 군사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이어 1962년 12월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중심제 및 국회 단원제로 하는 새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정공포하고 1963년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제4절 제3공화국 시기와 10월 유신

군정을 통하여 권력기반을 다진 쿠데타의 주체세력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대내외 정보를 장악하는 한편,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민정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것을 획책하였다.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하지 않고, 스스로 퇴역한 다음, 1963년 12월 새로 마련된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하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윤보선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온갖 부정을 자행하여 공화당이 압승하였다. 그리하여 군부에 기반을 둔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공화당 정권은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였다. 이것들은 당면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공화당 정권이 미·일의 동맹체 속에 불가피하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일 회담의 초점은 식민지 지배의 손해배상 문제에 모아졌다. 하지만 김종필· 대평(大平) 메모에서는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낙착되고 말았다. 국내에서는 야당과 학생들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지만, 공화당정권은 이를 비상계엄으로 봉쇄하고, 마침내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가깝고 먼 나라,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며 지나온 역사요, 굴욕과 쓰라림의 역사를 안겨준 나라, 일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까지의 한일회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 자유당 정권시기인 1951년 10월 22일 첫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965년 6월 22일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14년이 걸렸다.

1953년 4월 15일 제 2차 회담에서 평화선 문제, 제일교포 강제퇴거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열 되었고, 1953년 10월 5일 제 3차 회담은 구보다 망언으로 회담이 결열 되었다. 1957년 다시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958년 4월 15일 4차 회담이 재개되어 재일교포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중단되고, 1960년 10월 25일 5차 회담을 개최하여 진행하다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회담이 중단 되었다.

1961년 10월 20일 6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고, 1961년 11월 12일 김종필 대평 메모로 타협점에 도달하여 1965년 2월 20일 일본 씨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방한하여 기본조약에 가서명하고 동 6월 22일 조인식을 갖고 1965년 12월 18일 한일 외교협정서를 교환함으로 협정의 대다원을 내렸다.

한·일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역방위체제가 확립되자, 미국은 월남 파병을 요청해 왔다. 1964년 9월 제 101 동외과병원병력 13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파견하고, 1965년 2월 "비둘기"부대 2000명을 후방군사원조단으로 파견하고, 1965년 10월 전투부대 해병 "청룡부대", 10월에 육군"맹호부대', 1966년 4월 "혜산진 부대", 8월에 백마부대를 파견하여 1973년 철수 시까지 총 34만 여명이 참전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제공을 약속하였다. 공화당정권은 '젊은이의 피를 파는 행위'라는 야당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여, 1970년대 초까지 34만여 명의 군대를 월남 전선에 파견하였다. 월남 파병은 그곳에서의 인력 및 상품 수출과 함께 이 시기의 외화 획득의 주요 원천을 이루었는데 외화획득, 군사기술 군장비현대화 기여, 한미군사관계 증진과 한국기업의 진출은 1973년 철수시까지 60여개가 되고, 무욕 외 수입이 6억4190만 달러가되고 수출과 군납으로 2억1560만 달러가 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월남파병은 경제적 군사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병장병들에게는 엄청난 후유증이 유발하였는데, 특히 고엽제 피해가 많은 장병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고엽제의 주성분이 환경호르몬이란 다이옥신인데 다이옥신 1gm으로 체중 50kg 성인 2만 명을 치사할 수 있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월남파병 피해상항을 보면 파월장병 312,853 중 전사자 4,624명, 전상자 15,000명, 고엽제 피해자 234명, 신체마비자 227명, 각종암 208명, 피부병264명등 결핵등 호흡기질환자, 기형아 분만, 손발 부패자, 정신질환자, 후유사망, 비관자

살, 기타사망 등 22,509명이란 인명피해가 있었다.
한·일 협정과 월남파병을 거치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무기로 삼아 장기집권을 꾀했다. 1967년 5월 윤보선과의 재대결에서 압승한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3번째 도전하였다. 박정희는 1971년 4월 박빙의 차로 신민당 김대중을 물리치고 다시 집권하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가하면서 독재정권을 공고히 했다.
나아가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 통치기구가 무소불위의 전제권을 행사하는 유신독재가 전횡을 부리게 되었다. 광폭한 독재정치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심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당하게 됨으로써 종말을 고했다.
5·16 이후 등장한 군사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공산주의에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 즉 경제건설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공장을 짓고 생산된 물건을 수출하여 자본을 축적해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냉전체제하에서 자본수출과 국제 분업을 노리고 있었던 미·일의 전략과도 맞아 떨어져서,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미·일의 경제구조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갔고, 그에 상응하여 정치면에서는 개발독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1962~1966) 기간 동안 공화당 정권은 외자 도입을 위해 한일회담과 월남파병 과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정부공식 통계에 의하면 남한 총인구 2400만명에 실업자 250만 이었다, 이런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달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자본이 없어 외자도입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정부는 외자도입의 일환으로 독일에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야하는 탄광노역 광부와 병원에서 죽은 시체를 하루 종일 알콜 솜으로 닦아야만 하는 간호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1963년 광부 500명 모집에 지원자가 4만6000여명이나 몰렸는데 상당부분이 대학졸업자와 중퇴자였다. 1964년부터 간호사를 파견하였는데, 1963 – 1978 광부 7800여명, 1964 – 76 간호사 1만 30여명이 파견되어 이들이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보낸 송금액기 연간 5000만 달러나 되었다. 1964년 박정의 대통령이 외자 도입차 독일 방문시 파독 광주 간호사 만남의 자리는 눈물의 바다가 되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동행했던 “독일 뤼브케 대통령”이 차안에서 자기 손 수건을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닦도록 주었고, 정부는 파견 광부 간호사들의 급여를 담보로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2억6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여 수출주도형의 공장건설을 추진하였다. 1964년에는 수출산업단지조성법과 수출진흥종합시책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에 3천3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66년에는 2억5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 44%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식료품, 원료, 경공업품 등 외화 가득률이 낮은 상품이 주종을 이루어, 국제수지의 개선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제1차 계획은 외자 의존도가 60%에 이르는 가운데 연평균 8.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기간 동안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을 바탕으로 더욱 더 많은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수출업에 대해 면세, 공장용지 제공, 노동쟁의 금지 등의 특혜를 주고,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외채는 22억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10억6천만 달러로 늘어나서 연평균 33.7%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10.7%를 기록하여 일부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여 무역의존도가 70% 정도로 높아졌다. 국내경제는 국제 불황 과 인플레, 자원파동, 수입규제 등에 쉽게 휩쓸리게 되어 불안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차관의 도입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부실화하여 도산이 속출하였다. 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채를 동결하는 등 비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3차5개년계획(1972~1977)은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쌓여진 외채의 총액은 65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리고 수출은 1백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41%의 증가를 보였다. 그 후에도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실시되어 수출은 2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었고, 그중에서 중공업제품의 구성비가 과반수에 이르렀다. 또한 공업생산에서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여 한국은 명실공히 공업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중동지역의 공사현장에 국내의 건설업체가 다수 진출하여 오일달러를 흡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1962~1980년 사이에 연평균 40.7%의 수출신장률과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수많은 모순이 내재하고 있었다. 우선 과도한 외채가 상환능력을 압박하여 경제의 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심하여 국내경제 자체가 세계경제의 파고에 휩쓸리게 되었다. 더구나 수출입선이 미·일에 편중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특히 대일 무역구조는 수입이 항상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1966~1981년까지 약 25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차관도입과 수출장려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소수재벌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기업의 독점이 강화되었다. 1979년 당시에 종업원 5~9인의 영세기업이 전체의 37.5%였지만, 생산액은 1.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숫자적으로는 2%에 지나지 않았지만, 생산액은 55%를 차지하였다. 또 정부가 수출액을 늘이기 위해 저임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일반적으로 열악하였다. 그와 함께 경제개발의 지역적 편차도 격심해져서 서울·경기 및 경상도 지역이 혜택을 입은 반면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하였다.

어떻든 20여년 동안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은 수출주도형의 공업입국을 이룩하는데 일단은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경제 전체의 대외의존성은 심화되었고, 수출공업과 내수공업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공업부분에 대한 농수산업 부분의 침체는 국내시장을 좁게 만들어 장기적인 공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민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져서 농업노동자의 연령이 상승하고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높아졌다. 정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경제사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농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면도 있지만, 장기집권의 이데올로기로서 반공사상과 민족주체성을 방방곡곡에 침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도 하였다.
공화당정권과 유신정권하의 경제개발은 정치적 억압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실시되었다. 제3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개발독재가 분단 상황과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문화운동을 크게 제약하였던 것이다.
4·19로부터 시작된 196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1967년 6·8부정선거 투쟁을 거쳐 1968년 3선 개헌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민주화운동에는 야당진영도 참여하였지만, 주도세력은 여전히 학생들이었다. 1960년대의 학생운동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한·일회담이나 선거부정과 같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민중이 나가야 할 바를 실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족운동의 보루를 이루었다.
유신체제의 등장은 민주화운동을 한층 더 고양시켰다. 유신 1년 만에 사회 저명인사들에 의해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등 학생들의 유신철폐 투쟁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1974년 자유언론수호선언을 발표하고, 문학인들은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조직하여 민주화운동의 부문별 확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를 잇달아 발포하여 일방적인 탄압을 되풀이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민주세력의 조직력과 투쟁력도 강화되어,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몇 차례의 개편을 겪으면서 1979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표방하는 국민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정치인, 교수, 문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재야세력이라 칭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수출주도형의 공업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운동의 조직률은 15%를 넘지 못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노동단체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노동자의 양과 질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노동자수는 1960년 200만에서 1971년 400만으로 늘어났고, 종사업종도 제조, 운수, 광산, 건설업 등이 대종을 이루었다.
노동운동은 1970년 청계 피복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자살함으로써 신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현실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학생과 사회인들의 노동운동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때마침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와 1971년 성남, 광주대단지 철거민 소동이 발생함으로써 고도성장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 경제적 모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그후 노동운동은 울산 현대조선소, 청계피복, 동일방직, 원풍모방, YH무역 등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등이 일관되게 노동운동을 억압하였으므로, 1970년대 노동운동은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차차 노동운동과 연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도시산업 선교회와 카톨릭 노동청년회 등은 이러한 움직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제 노동문제와 더불어 이농민들로 구성된 도시빈민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하였다. 수출주

도형 공업화정책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던 농촌은 매년 50만명에 이르는 이농민을 배출하였다. 정부는 피폐해진 농촌을 구제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관주도의 농민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민들의 생활태도혁신,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을 펼쳐나갔다. 이 운동은 생산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지만, 1970년대의 농촌을 외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저곡가정책 등으로 야기되었던 농촌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농촌의 모든 전통적 구조를 일거에 훼손시키고 획일적 구조 내지는 도시형으로 만들어서 전통문화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972년 창립된 카톨릭 농민회가 선도하였던 저 농산물가격 반대투쟁이나 1978년 함평 고구마피해보상투쟁 등은 농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한편 사회역량의 증대와 더불어 문화운동도 활발하였다. 정부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개척, 협동, 반공, 공익, 질서, 소질개발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족주체성과 안보의식 및 통일을 위한 중흥정신 등을 체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경제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20여년 동안 학교 내외에서 국민정신을 육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또한 국사와 국민윤리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교육계의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적 교육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시도되었다.
재야세력과 학생 및 민중들의 끈질긴 도전으로 유신체제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1978년 10월 제10대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대학가의 데모는 다시 확산되어 경찰의 힘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9년 10월 특히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계기로 폭발한 부산과 마산의 학생시위에는 시민들도 합세하여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KBS, 구청, 세무서, 파출소 등을 파괴하는 등 이른바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에 비상계엄을, 그리고 마산에는 위수령을 선포하였다. 유신정권은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매도하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한 유신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사살 당함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권력내부의 갈등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것은 유신체제의 정치구조의 폭력성 및 폐쇄성의 반영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피지배 대중의 저항에 대한 유신체제의 체제유지력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들어서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추진된 식량자급화의 성과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보리 고개는 없어졌지만, 영남지역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산업화, 그리고 「수출입국」의 산업경제정책으로 말미암은 저임금, 저곡가 정책은 빈약한 산업에 그나마 기반이었던 농촌경제를 와해시켜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1967~68년 대한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또한 도시의 하층빈민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산업입국의 정책은 지역 간 차별과 농업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을 거의 전적인 기반으로 하는 호남지역에서는 피해의식으로 전화되었고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생존적 차원의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더군다나 정권안보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탄압과 폐쇄적 인사정책 등은 호남지역에서 지역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어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났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사건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한 국가원수의 유고가 아닌 억압된 정치구조에서 해방으로, 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민주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소박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조각나고 말았다
박정희 공화당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출형 경제성장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받았지만 국력을 신장하고 주체적인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발전위해 주체적인 민족문화의 확립을 위해 교육정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에서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에는 인간주의 국가주의 발전주의 방향이 정립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국적 있는 주체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이었다.
경제발전정책의 특징을 보면 1).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2). 농업보다는 공업발전 정책으로 농업과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공업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3). 1960년 이후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어 금융. 세제. 외환 등 간섭. 4). 외자를 도입하여 경재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을 추진하였다.
수출은 1960년 3.380만 달러에서 1979년에는 150억 5.550만 달러로 격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81달러에서 1.662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960 – 1969 8.5%. 1971 – 1979 9.5% 를 기록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적극외교와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개발 자금수입과 미국의 극동전략에 발맞추어 한. 미. 일 3국 관계의 장을 열었다. 1965년 월남파병, 1966년 한미행정협정체결, 1970년대부터 비동맹 비적성공산권과 교섭을 통해 실리추구 외교를 하였다.
북한과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교섭을 시도하여 1970년 8·15 선언을 하여 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북 간 인위적 장벽 제거를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존재와 협상대상자 임을 인정한 것이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하여, 1972년 8울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적십자사회담 개최를 필두로 서울과 평양에서 7차례의 회담을 가져 정치회담으로 발전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3대원칙으로 “외세의 간섭 없는 민주통일. 무력사용을 배제한 평화통일.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합”을 천거하여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설치를 합의하여 남북 직통전화 개통, 판문점 서울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개최되었다.
1973년 6·23 선언을 하여 남북 UN 동시가입을 제의하였고, 1974년 1월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고, 8월에는 남북불가침협정체결, 남북대화의 추진,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등 3대 원칙을 발표하였고, 1979년 1월에 조건 없는 남북당국자 회의를 제의하였다.

제5절　광주민중항쟁과 제5공화국

10·26직후 군부는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들로 이루어진 육사10기 이내의 진영과 사단장급 이하의 지휘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정규육사 출신의 11기 이하 진영간에 대립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군의 공식적인 주류의 입장에 서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군단장급 이상의 상급지휘관들은 대체로 소위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유신헌법의 폐지, 새로운 헌법의 제정, 민선정부의 수립이라는 경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경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한편 군부내 이른바 신군부 강경파 진영은 유신헌법의 조기철폐를 주장하는 군부 상층부의 주류에 대해 내심 반발하고 있었으며,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제거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12월 12일, 곧 '12·13 개각' 하루 전이며, 장군 진급 심사결과 발표일인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잡아 기습적인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군부 강경파가 정국의 실세로 강력히 부상함에 따라 이제 '유신헌법의 폐지, 새로운 헌법의 제정, 민선정부의 수립'이라는 경로는 표류하게 되었고, 향후 정국의 변화는 군부의 움직임에 달려있게 되었다.

신군부는 국내외의 모든 정보망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핵심을 손에 넣었지만 당장 표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권력의 배후에서 실세를 장악한 채 자신들의 권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암암리에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군대라는 물리력을 포함하여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심지어는 유신체제하에서 여당이었던 공화당마저도 민주화의 대세를 인정하고 유신헌법 철폐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도, 권력을 장악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군부는 무력으로 사회운동 진영을 굴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면에 등장하여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장악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5·17 계엄확대는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자 그동안 잠재적이었던 문제점들이 봇물 터지듯 분출되었다. 1980년에 들어서자 4월 24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가 719건으로 1979년 한 해 동안의 총 분규건수 105건의 7배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 4월 16일 소위 '사북사태'가 터졌다. 국내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광업소에서 어용노조 문제와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북 광산노동자들의 투쟁은 70년대에 누적된 노동문제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었다. 또 4월 28일에는 부산의 동북제강에서 어용노조와 임금인상 문제로 격렬한 분규가 발생하였다. 10·26 이후 1980년 5·17이 일어나기까지의 폭발적인 노사 분규와 노동운동은 유신독재와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전남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민

주화와 유신잔재 청산에 대한 요구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분출되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이 지역 대학가였다. 1980년 학도호국단의 조직을 청산하고 학생회를 부활시켜 이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등 이 지역 대학의 총학생회는 80년 5월이 되자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일 교내 시위와 철야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군부의 유신부활 음모에 대항하고자 도청 앞에 집결하여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은 모든 사람에게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희망찬 계절이었다. 정치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신군부가 점차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자, 학기 초 주로 학내문제에 집중되었던 학생들의 시위가 계엄철폐와 정치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그해 5월 들어 급격히 정치적으로 바뀌었지만, 5월 17일은 전국적으로 학생시위가 수그러든 평온한 주말이었다. 그러나 17일 초저녁부터 재야인사와 학생 지도부의 검거선풍이 불어 닥쳤고,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21시 40분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선포 안을 의결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굴복하지 않고 신군부 세력의 집권 음모와 유신부활 기도에 맞서 광주시민, 학생들은 저항하였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비상계엄의 확대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잔혹한 행위는 무장 항쟁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의 시군까지도 여기에 휩쓸리게 되었고, 무참히 진압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은 내적으로 분노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호남지역은 더욱 소외되었다.

5월 18일 흉흉한 소문이 함평지역에도 전해졌다. 그 소문만으로도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이나 친척들의 걱정에 함평지역의 분위기는 험악해져갔다. 그렇게 걱정과 불안으로 며칠간을 보내는 동안 가끔 광주에서 도망 나온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함평으로 들어오면서 광주지역의 참상이 전해지고 지역민들의 분노도 커져갔다. 그러다가 항쟁이 발발한지 4일 째인 5월 21일 오후 1시경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대에 분승한 광주의 시위대가 함평읍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그때 이미 함평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는 고양되어 있었다.

함평읍민들은 광주에서 온 시위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함평 신광지서 등을 접수하여 총기 100여정, 실탄 2박스 등의 무기를 확보했다. 이때 경찰들 대부분은 광주지역으로 파견 나가 있어서 극소수의 잔류 병력만으로는 이들을 제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무장을 갖춘 시위대는 그날 저녁 8시경 광주로 진입하려다가 계엄군이 광주 외곽지대를 봉쇄해버리자 다시 함평으로 돌아왔다.

5월 22일 아침 수많은 군중들이 함평읍 공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읍내를 돌며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에는 시위 차량에 태극기를 꽂은 채 해남, 영광 등지로 빠져나갔으며, 도중에 엄다면지서 무기고와 군부대를 공격하여 다량의 무기를 획득하였다. 이 무기들은 이후 무안을 거쳐 목포로 반입되었다. 5월 23일부터 시위대는 자신들의 본부를 함평경찰서로 정하고 영광으로 통하는 도로와 함평다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에서 자체경비에 들어갔다. 이후 항쟁이 끝나는 27일까지 함평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군을 투입하여 광주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는 곧바로 정권수립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불과 3일후인 계엄하의 대통령 자문 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5월 31일 새로 만들고, 상임위원장에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임명하였다. 그 후 국보위는 대규모 숙정 및 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 최규하 대통령을 1980년 8월 16일 하야시킨 다음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추대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1981년 2월 11일 제12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통령선거인 선거가 실시되었고, 2월 25일 선거인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전두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대통령선거인에 의하여 선출된 전두환은 1981년 3월 3일에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곧바로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3월 25일 실시되었다. 4월 11일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보위 시대는 폐막되고 정식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신군부세력은 사회 각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 '언론의 자율정화와 언론인 자질향상 결의'를 신호탄으로 언론계 숙정을 시작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출판사의 등록을 허가제로 만들면서 전국에서 주간 15, 월간 104, 연간 16 등 모두 172종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 후 언론기본법을 통하여 언론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영기업체와 교육기관에 근무한 공무원을 복무태만과 부정비리를 이유로 8,877명을 숙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고 대규모적인 숙정은 1980년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었다. 문신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당시 각 경찰서에는 할당량이 배정되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트집을 잡아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렇게 폭력배 소탕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조치로 민주노조 간부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던 교사 등 상당수 민주인사들이 포함되어 잡혀 들어갔다. 3천여명을 구속하고 2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하여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한다'는 삼청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행된 삼청교육으로 대숙청작업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강압적인 체제정비에도 불구하고 '장영자 사건' 등 권력형 부정부패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물리적 수단에만 의존한 전두환 집단은 정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도덕적 바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민주세력은 새로운 재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5공화국 초기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반독재투쟁의 선봉은 학생들이 담당하였고, 성향도 반미운동을 표방하는 등 전반적인 민주변혁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학생운동 이외의 노동운동과 재야운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5공화국 정부는 1983년 말부터 85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체제정비를 마치고 어느 정도 탄압을 완화시켜 이른바 유화조치를 실시하였던 시기이다. 해직교수의 타 대학 복직허용, 학원사태에 관련된 제적학생의 복적, 정치활동규제자의 해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화국면을 계기로 민족민주세력은 권력의 체제정비 시기의 일방적 수세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모든 영역에서 급속히 복구, 성장하는 투쟁의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학생운동은 강력한 조직적 투쟁을 통하여 독재정권에 도전하였고, 노동운동 역시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점차 정치 투쟁적 정책에 대항

하여 생존권 투쟁에 나섰고, 재야세력도 조직적 통일을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학생운동이 노학연대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노동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탄압금지, 집시법 철폐, 언론기본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의 양상까지 보였다.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도 나타났다. 개방농정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하·추곡 수매가 동결 등으로 농민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농가부채는 호당 3백만원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농촌의 파탄이 가속화 되어갔다.
1984년 9월 함평과 무안에서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이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양파와 고구마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양파의 경우 그 동안 부당 농지세제에 따라 실제 소득액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오고 있었다. 그런데 1983년 양파를 밭에서 그냥 갈아엎을 정도로 풍작을 이루자 을류 농지세를 과중하게 부과한 것이다. 고구마의 경우 그동안 정부당국에서는 매년 생고구마를 수매해 왔는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고구마 대체용인 당밀의 수입이 늘자 1984년부터 생고구마 수매를 중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외국 농축산물 도입, 농협의 독단적 운영, 하·추곡 수매가 동결,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인하여 누적된 농민들의 불만을 일거에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함평·무안 농민대회로부터 1년 뒤인 1985년 소 값 파동이 터지면서 농민운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났다. 약 20개 군 총2만여명이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전남지역에서도 외국 소 과 다 도입으로 인한 소 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소와 경운기를 앞세워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5년 2월 12일 총선을 바로 앞두고 1월 18일 정치규제에서 해제된 자들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고, 선거결과 신민당이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두고 제1야당이 됨으로써 집권 민정당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민한당 또한 정치적으로 몰락하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신민당은 양심수 석방이나 직선제 개헌투쟁등 빠른 속도로 정치공세를 시작하였다.
1985년 후반에 접어들어 개헌문제가 점차 부상되기 시작하였으며, 86년에 들어서 본격화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1월 16일 국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불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정당 사회단체 등이 대대적으로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식인, 종교인, 교수 등의 시국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됨으로써 개헌운동은 장외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 4월 30일 청와대 3당대표회담에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헌정국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하여 재야와 신민당은 분열하였고, 개헌의 주장이 시간의 흐름과 각 정치세력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헌정국은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를 계기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야당은 재야세력과 단절적 입장을 취하였고, 5월 27일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특히 9월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정권은 재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10월 28일 '건국대사건'으로 1,525명을 연행, 1,290명을 구속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금강산댐 건설 등 국가안보의 위기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내각제와 직선제개헌

이 팽팽히 대결하는 가운데 12월 24일 7개항의 민주화가 선행된다면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 나오게 되자 신민당은 두 파로 분열되었고, 결국 1987년 4월 김대중과 김영삼은 74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 신민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이민우 구상은 좌절되었다.

마침내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되자, 전국적으로 호헌반대, 직선제쟁취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5월 27일 재야와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호헌반대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개헌운동의 구심을 마련하였고,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사건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범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6월 민주대항쟁이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나자 시위는 더욱 고조되어,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결국 6월 29일 5공화국정권은 대통령직선제 수용 등 이른바 6·29선언을 하게 되었다. 6월 항쟁은 비폭력적 전 국민의 항쟁이 막강한 물리력과 권력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일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6·29선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선거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 7·8·9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1987년 7월 3일 울산에서 현대엔진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시작된 노동쟁의는 부산, 마산, 거제, 창원 등으로 번졌고, 이어 7월말에는 경인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전두환 정권이 유신체제의 노동관계법을 더욱 개악하여 철저히 탄압했던 데다가, 80년대 중반부터 한국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을 다시 구가했지만, 여전히 임금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불만요인들이 6월 항쟁 이후 공권력이 무력화됨으로써 폭발했다고 하겠다.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은을 보면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족복지국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워 1970년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 격차, 부유층 사치, 황금만능주의 풍조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새 시대, 새 사회, 새 역사 창조"의 구호아래 체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수석 김재익이 성장, 자율, 개방이라는 간단명료한 경제원리를 실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82년 제 5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경제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 1980년대는 양적성장보다 국민경제발전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목표를 세웠는데 경제사회개발계획이다. 그리하여 제4차계획의 성장 능률 형평에서 제5차계획은 안정 능률 균형을 제시하여 성장보다 분배의 균형을 큰 목표로 삼았다. 1980년대 제5차경제개발계획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는데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목표치 7.5를 초과달성하였고 1인당 GNP도 당초 2.226달러에서 2.300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적자에서 198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경상수지 46,2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외채도 전연의 468억 달러에서 445억 달러로 23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물가안정 수출초과 경상수지 흑자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두환 정부는 외교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 순방과 외국원수를 초청하여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1981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고, 1982년 아프리카, 1986년

유럽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불행히도 1983년 서남아 와 대양주를 방문하기 위해 첫 방문국 미얀마에 들렀다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전두환 대통령 경제스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등 17명의 각료가 죽어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는 아픈 상처도 있었다.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강경노선의 신한민주당이 민한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었다. 이는 현 체제에 대한 안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망이 표출된 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1981년 1월 남북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1981년 6월 남북정상회담조속개최와 남북한 사회개방 제의,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으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통일헌법제정을 제의하였다 (1. 22 제의). 1984년 수해구호품으로 북한의 쌀과 옷감을 적십자를 통해 인수하였고, 1985년 남북적십자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세 차례 개최하고, 1985년 9월에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 상호방문 공연하여 처음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1985년에는 1984년에 이어 5회 남북경제회담과 남북국회 회담 예비접촉 및 남북체육회담 (스위스 로잔)이 전개되었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 대통령으로 정통성은 상실했지만 한국헌정사상 첫 단임제를 실천한 대통령이었다.

제6절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6월 항쟁의 산물로 1971년 대통령 선거이후 16년 만에 직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야권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김종필은 유신체제하의 공화계를 기반으로 후보로 나섰고, 일부 재야세력은 백기완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범야권은 사분오열되었다. 특히 야당후보들의 분열과 유세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지역감정을 증폭시켰고, 11월 29일 있었던 KAL기 폭파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결국 민정당의 노태우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정부 수립이 좌절되었다. 선거 결과는 확연한 지역적 편중을 보였고, 1988년 4월 26일 치루어진 총선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구조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선결과와는 달리 민정당 125석, 평민당 71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무소속 9석으로 헌정사상 처음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6공화국 즉 노태우정권 초기 가장 큰 사건은 1988년 9월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이라 하겠다. 당시 세계 네 번 째 외채가 많은 국가로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재야나 학생권의 반대운동도 심했다. 그리고 개최하려면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그러나 결국 공동개최는 이루어지지 못하

였지만, 무리 없이 순조롭게 치루어 냄으로서 우려한 만큼 부정적 역할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되었고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다. 1988년 11월 3일부터 5공화국 비리를 캐기 위한 이른바 '5공 청문회'와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야권이 이념이 아닌 지역적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의지와는 달리 서로 당리당략에 머무르면서 사실상의 성과는 미미하였다. 곧 광주문제의 경우 평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야당의 활약이 거의 없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반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민주화 욕구가 곳곳에서 표출되어 나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맞물려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노동계에서도 거세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노동조합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사무직원 노조도 결성되어 노동계의 한 축이 되었고, 1989년에는 교육계에서는 참교육과 노동자로서의 교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교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교조 운동으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교사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의 부정적 모습들이 들추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았다.
노태우정권이 주택경기를 부채질함으로써 일반 노무자를 구할 수 없어 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건설자재는 턱없이 모자라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러나 89년부터 이른바 3저 호황기를 맞아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한 거품경기가 일어 소비 수준이 고급화되고, 산업현장에서는 3D 기피현상이 생겨 중국 조선족이나 동남아 국가의 불법체류자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 취임초기는 사회 분의기상 그래도 개혁적인 장관들을 임명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수파의 저항과 국회 여소야대의 현상으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장관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여버렸다. 한편 GNP는 2,808억불 1인당 총생산량도 6.498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국제수지는 수출에(71,870억불) 비해 수입(81,525백만불)초과로 91년 96억불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부작용이 많았고 실패했다. 토지 공개념은 1). 택지소유상한법(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제)인데 서울시.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공시지가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부과제도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불가한 제도이다. 그러나 1994년 4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2). 개발이익 환수법(개발부담금제)인데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개발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3). 유휴 토지 등 소유자에게 3년 단위로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150%를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1994년 7월 땅값이 하락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등 일부 내용에 문제가 생겨 헌법불합치판정을 받고 1998.12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초토세가 미 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입법정책의 문제 일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 중 북방정책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개혁추진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나타나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파급되었고, 1989년에는 동독 체코 루마니아 등이 민주화 바람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12월 소련에서는 옐친이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여 소련은 소멸하고 고르바초프는 사임하였다. 소련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였고, 1989년 4월 소련연방 상공회의소가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고, 1989년 7울 KOTRA가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여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하여 양국 수교를 합의하고 1990년 9월 30일 UN본부에서 소련 세바르드라제 와상과 최호중 외무부 장관이 양국 수교문서에 공동서명함으로 대사급 수교가 수립되었다. 1989년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등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2년 8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어 중국에 한류열풍이 일어났다. 한국 대중 문회의 수출은 드라마 가요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패션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자동차 등 무역거래가 확대되어 한국 수출 1위국으로 부상하였다. 뉴욕 타임스는 한류열풍에 대해 미국문화를 선망하면서도 동시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국인에게 유교전통을 아우르고 있는 한류는 서구문화에 접근하는 적절한 대안이 되었다고 평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북한이 형제 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에워싸는 여건이 조성되어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줄어드는 상항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 철도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KTX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을 정하고, 1994년 프랑스 TGV 사와 고속철도 차량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4월 -10월 참여정부 때 통합시운전을 하고 동 11월 -12월에 동적통합시험(서울 - 부산. 서울 - 목포)을 거쳐 2004년 1월 상업시운전을 한 후 동 3월 24일 호남선 복선화 전철사업완공을 하고, 고속철도 운행을 일반철도와 함께 운행되고 있으며, 경부선은 동 3월 30일에 1단계 개통을 하고 기존 철도를 병행 운행하고 있다. KTX의 이용률은 경부선이 약 60%, 호남선이 약 35%내외여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으나 모든 국가사회기반시설이 처음부터 이익을 남길 수는 없으나 사회기반시설 즉 SOC의 확충은 장래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동서화해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통일운동이 확산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 개최론이 대두하였고, 통일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런 가운데 노태우 정권은 정치, 군사부문을 제외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89년에 들어서 문익환 목사의 방북, 문규현 신부의 방북, 황석영의 방북, 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방북,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의 방북 등이 잇달아 일어나 공안 한파가 밀어닥쳤다. 일련의 방북사건이 초래한 공안정국은 노태우 정권의 안정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공안정국 속에서 노태우 정권은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짓고 정계개편을 추진되면서 야당 간의 공조는 와해되

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이시기는 소련의 붕괴를 비롯하여 동구권의 공산정권이 차례로 무너지고, 미국을 유일한 강대국으로 하는 세력 재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급기야 91년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고립되게 되었다. 공산권 몰락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교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0년 9월 남북한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회담을 가졌고, 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경험해본 여소야대 정국에 거대여당의 독주가 체질화되어 있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철저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정당구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1990년 1월 22일 민정당,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이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민자당이라는 거대여당을 만들었다. 또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평화민주당을 고립시킴으로써 호남지역을 정치, 사회적으로 고립화를 가중시켜 야당의 주장은 야당의 주장이 아닌 호남지역의 주장으로 바꿔 다른 지역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 정치적 안정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지역 차별과 지역감정은 함평, 영광을 지역구로 하고 있던 서경원 의원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의원직이 상실되어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은 지역감정을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대구출신 이수인을 공천하였던 것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기본적으로 호남지역의 소외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87년 대통령선거부터 김대중과 김영삼이 직접 겨루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지역감정을 촉발시켜 김영삼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했던 '초원복국집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 사건은 애초 김영삼 민자당후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영남지역의 몰표를 유도하여 결국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결국 지역적 편향성과 색깔론 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양 김씨의 대결에서 김대중 후보는 패배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이 박정희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되어 문민정부라 불리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민자당 당적을 버리고 현승종을 국무총리 중립내각을 수립하였다. 한편 일부 금권문제가 제기되고 지역성의 한계를 넘지 못했지만 대통령선거에 관권개입이 없이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문민정부의 출발은 정권의 정당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선출에 있어서도 후계자로 지명제가 아닌 민주적인 경선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직선에 의해 민간인 출신의 신정권이 수립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 획이었다.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신 한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1). 깨끗한 정부. 2). 튼튼한 경제. 3). 건강한 사회 등을 국정지표로 삼고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단행하였다.
수많은 개혁안 중 정치자금 거부,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육해공 참모총장을 비롯 군 장성, 판사, 검사, 가운데 부정 공직자 추방, 정치성 군조직(하나회)에 가담한 장성급

군인 추방 등 강력한 사정조치, 군장비 도입 부패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한 정치자금입법 등등이다.
따라서 1993년 4월 20일 행정쇄신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그 기본방향을 1).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관행 쇄신. 2).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3).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구축으로 정하였다.
1994년 3월 15일 정치개혁입법 서명 공포하는 자리에서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80여명의 사상자에 대해 의사로 규정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를 확립하였다. 1995년 7월 검찰은 12·12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 시민 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여 이들에 국민의 처벌 요구를 외면했지만, 10월 19일 통합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터지자 두 전직 대통령을 1996년 구속수감하였고,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법정에 세웠다. 이어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립묘지 승격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종래 군사정권시절 뿌리 깊게 사회 각계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과단성 있게 처벌하고 군 율곡사업(무기구입사업)비리를 수사하여 공무원에 대한 사정개혁으로 건전한 사회기강확립에 기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정책에 착수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워 경제제도의 개혁보다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둔 신 경제 계획은 금리인하, 재정조기 집행 기업투자유인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3년의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금융관계를 실명으로 전환케 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동 8월과 11월에 개최된 대전엑스포와 APEC에서 주도적 역할과 1995년부터 새로이 WTO가 출범하고 세계시장이 일원화함에 수출시장이 다원화되었다.
1996년 12월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문민정부는 1995년을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외국순방을 거듭하여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유럽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1995년 한국이 1996년부터 2년간 유엔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커다란 성과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라고 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하였고 1993년 북한은 NPT를 탈퇴하면서 전쟁발발의 위험이 높을 때 김대중이 미국에 달려가 미국조야와 방송을 통해서 미 국민을 설득하여 미국은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여 김일성과 회담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므로 남북정상회담과 핵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1995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보지는 못하였다.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뇌물 수수 및 권력남용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1997년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연속 부도

사태가 일어나 IMF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10일 강경식 부총리와 통화 이전까지는 외환위기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다가 1997년 12월 5일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실업대란이 일어났다.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은 대법원 판결 후 8개월 만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사면을 합의 발표하여 사건의 종결을 보았다.

김영삼 정권 시기 매년 도시가스 폭발, 비행기 추락, 성수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등 어이없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고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게다가 해마다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국내의 경기는 침체가 계속되었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구조적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 조기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GATT 세계무역체제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의 틀인 WTO체제 즉 완전자유무역과 무한경쟁의 체제로 굳혀져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어 특히 농촌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와 많은 농가가 파산하거나 농어민후계자가 농촌을 떠나는 일이 속출하였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은 여야관계를 전혀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실정과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득세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기초단체장을 거의 휩쓴 것을 발판으로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주장하여 해외여행, 조기유학, 원어민 영어교육, 해외연수 등의 붐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하면서 마치 선진국에 다다른 듯 소비수준만 올려놓았다. 그러나 계속 확대되는 국제수지의 적자로 인한 외채의 증가, 허술한 외환관리,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거대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한보와 기아의 부도사태 등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국가부도 위기로 몰렸다. 결국 굴욕적 조건하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97년 12월 치뤄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를 이룬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물론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편향성은 그대로였지만, 대북한 카드 즉 사상시비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과 지역차별을 받아온 호남출신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제7절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탄생과 여 야 정권교체의 상황은 정해져 있었다. 1995년은 문민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고 국내정치의 대 변혁을 예고하였다.

민주자유당 대표였던 김종필이 대통령과 갈등으로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설하여 총재로 선출되었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자당 영남, 민주당 호남, 자민련 충청지방 활거가 재현되었지만 서울특별시장에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되어 여당인 민자당이 참패를 당하였다.

이 선거에 고무되어 김대중은 정계에 복귀하고 민주당을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런 와중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5,000억원을 조성하여 1,700 억 원을 남겼다고 밝힘으로써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중국방문 중 정치자금 사실을 밝혔고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미지 쇄신을 꾀하였으나 차 때기 당이라는 누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1997년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 해였다.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이회창이 선출되었고, 국민회의는 김대중이 추대되고,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가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만들어 후보가 되었고, 조순의 민주당이 신한국당에 통합하여 이회창을 밀었고 자민련의 김종필은 내각제를 고리로 김대중과 소위 DJP연합을 하였다. 1997년 12월 안기부가 김대중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공작을 자행했지만 IMF 사태로 기업의 부도와 도산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 등 문민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제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의 당선과 국민의 정부 출범은 우리 헌정사상 민의에 의해 이루어진 정권교체라는 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한국사 발전의 한 표징이다. 국민의 정부는 "화해와 평등과 도약"을 지표로 삼았다.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 국가주도 계획경제, 냉전이라는 과거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냉전체제 해체"로 전환한 것이다. 즉 탈권위주의와 용서와 화합을 목표로 새로운 민주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예로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관련자들을 사면시킴으로써 용서와 화해의 원칙을 실현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IMF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었고,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대개혁을 이루었고,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협약을 맺고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의 열열한 지지와 금모으기 등 참여로 와환관리의 개혁과 성공으로 IMF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김중권 이상주 등 5공 핵심인사들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하고 사면함으로 지지자들의 비판을 바기도 하였다. 한편 37여년 만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화적 정권 교체이고 IMF 환란을 초래한 책임을 여당에 물음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역량과 민주역량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민의정부는 경제개혁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주화운동 흡수 통일을 정책을 파기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방향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한 공화국연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계 -> 연방제 단계 -> 완전통일단계를 거친 점진적 통일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6월 13 -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도 3원칙을 골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배제""적극적 화해 협력추구"이다.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 대학 연설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1).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2). 북한의 경제계획을 돕는다. 3). 북한의 경제적 대외진출에 협력한다.
대신 북한도 보장해야할 사항은 1). 대남도발을 절대 포기한다. 2).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한다. 3).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000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방북하여 평양에서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5개항의 남북공동성명문을 6월 15일 발표하였는데

1). 남북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2). 남북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3). 이산가족 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인도적으로 해결한다.
4). 남북경제협력으로 균형발전과 교류를 통해 신뢰를 키워간다.
5).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당국간 대화를 개최 한다. 등이다.

2000년 10월 13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50년 이상 지속된 남 – 북한의 전쟁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노력하였으며 그분의 북한 방문은 두 나라간 긴장관계를 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또 높은 도덕적 결당으로 미얀마와 동티모르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은 김대중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항 국제적 평가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과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969년 3선 개헌 이후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9년 6월 특별법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1월 15일 법률 제 6170호로 진실화해를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3월 2일 1950년 7월 – 9월 사이에 부산 마산 진주에서 군인 경찰들에 의해 3,400명이 살해되고, 1950년 7월 26일과 9월 25일 까지 경관 교도관에 의해 재소자 보도연맹요원 1,500명이 살해되고, 비슷한 시기 마산형무소에서 717명이 총살되거나 수장되었고, 진주형무소에서 최소 1,200명이 희생되었는데 진실화해위가 576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17일 군사독제시절 발생한 강진군 김우철 김이철 형제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국가에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권고했다.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승홍(69)씨는 지난 1975년 초봄 출근길에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강진과 목포 여관으로 끌려가, 제일교포 숙부 김우철과 김이철이 간첩이라고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해 허위자백을 하고 허위진술서를 써주었다. 김우철씨는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죄로 징역 10년, 동생 김이철은 3년6월 실형을 살다 만기 출소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김씨 형제의 자녀 6명과 친척 5명등 12명이 간첩가족이란 오명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

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정하여 해결된 사건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으며, 여기서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공포한지 4개월 뒤 2000년 5월 16일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뒤 2002년 9월 16일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총 82건(기권1건 제외)을 처리하였다. 처리결과 33건은 기각, 30 건조사 불능 결정 19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의문사"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에 이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은 "민주기본질서 확립""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에 있다.
이 기구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동령 후보시절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하여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하여 1998년 9월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가, 1999년 4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가,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공포하고 2001년 11월 25일 발효하여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자유와 정의 효율을 전제로 1).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지게 하는 원칙. 2). 시장경쟁을 통하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 3). 모든 이에게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원칙. 4). 내 외국인에 차별 없는 시장개방원칙인 경제정책의 이 원리 가운데 자유와 정의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원리"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질서를 조화시켜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의 원리" 공정투명하지 못한 경쟁규칙과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성이 저해될 것임으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단 정의 원리가 결과의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복지병"등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기회균등과 절차의 공정 투명성에 바탕을 두어 효율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실천적 원리와 기본원칙이 결국 자유경제원리,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충격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극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 발생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국민의 정부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흑자 누적을 통해 세계4위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했고 어려웠던 실물경제가 저금리기조를 배경으로 98년 하반기부터 회복 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뜨렸고 부실금융 퇴출과 통폐합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외국이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업종의 "워크아웃"이나 "빅딜"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스스로 손상시킨 예라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며, 공적자금 은행의 MOU(양해각서) 불이행 사례가 발생한 일이 일어났고,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과잉소비가 초래됐고 이는 가계파탄의 주범이 됐다.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당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는 하나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후일 카드 때문에 개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사태가 일어났다. 카드대란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개인 당사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발급능력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국 초, 중, 고에 컴퓨터를 100% 보급하여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이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하고 디지털 제품에서 세계 일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구축에 확고한 초석을 쌓음으로 적어도 우리국민을 먹여 살릴 밑천으로 성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정부는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거의 없앴다. 분양가 전면 자율화 및 분양권 매매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제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나왔고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독도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의 압력에도 북구하고 박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켜왔다. 이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항복과, 1948년 정부수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이승만라인)을 그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은 50 −100 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12해리까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월에 일본정부가 일방파기 통보하여 1998년 11월 28일 (당시 해수부장관 노무현) 신한일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선을 대체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게 되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한 단초가 되었다.

사회복지부문은 1999년 국민연금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어 무의탁 빈곤층에 대해 구제책을 세웠다. 2000년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항생제 남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실책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교육에는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여 IMF로 인한 실업자가 많고 사회 일자리 부족한 것을 이용하고 여론몰이를 하여 고령고사 1명 퇴임하면 신임교사 2,7명을 채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며, 젊은 교사는 신정보능력이 높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령교사는 무능하다는 뜻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여 교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경제적 원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교육계의 대 혼란을 가져왔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일시에 퇴임교사가 늘어나 교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겨 퇴임교사가 기간 제 교사로 재 채용되는 파행이 저질러졌다.
벤처기업 육성책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 기여율이 대기업에 앞서게 되었고, 고용성장 기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19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0년 2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출하였고, 미국은 발암물질을 버린 군무원을 처벌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 무시행위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는데 2006년 6월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훈련 중 미군 장갑차에 압사사건이 발생하여 반미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2003년 1월 25일 국제 해킹에 의한 혜화전화국 최상위 DNS 서버 다운으로 전국적인 인터넷 불통사태가 벌어졌으나 IMF 극복과2002년 FIFA 월드컵이 개최되기 하여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큰 계기가 되었으나 아들들이 부정으로 구속되는 어려운 사정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부평가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대해 형성, 집행, 성과 등에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그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정부 문화사회를 위한 정부개혁 및 추진과제들에 대해 문화연대는 2002년 국민의정부 5년을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에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나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화정책은 한 사회의 한 사회의 창조적 역량의 총체이자 그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의 다양성의 축적이며, 감성적 표현과 상상력과 지혜와 가치의 집결인 문화에 대해 그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경제나 정치에 종속시키는 대신 정치나 경제가 문화적 풍요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는 사회,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문화적 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목표로 삼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연대가 평가한 항목은

1). 정부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정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호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정부 문화정책 체제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a) 문화정책일반, 예술진흥정책, 문화산업정책
   b) 청소년정책, 문화유산정책, 문화 관광 진흥정책, 문화체육진흥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과제 이다

문화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내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고 문화산업유통시스템의 합리화, 투명성 제고로 문화산업의 모든 영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진흥정책 기본계획마련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위해 지역 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8절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참여정부의 탄생도 우리 역사에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 깨우치고 알려준 큰 물결이었다. 2002년 한화갑 이인제 김근태 정동영 노무현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될 때 아무도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광주에서 1위가 되면서 바람을 잡기 시작하여 한화갑 김근태 이인제 등이 경선을 포기하고 최후까지 정동영 후보만 남아 두 사람이 겨루게 되었고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 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본선에서 겨루어야 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었고, 지자체 선거에서는 대패하여 후보 교체설 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어 정몽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이회창을 이길 확률은 점점 희박해져 보여조 중 동을 비롯한 거대 언론은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고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대통령 아들 불법자금 수수로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는 날로 내려가는 상황에 처해있어 어려운 판에 대통령 후보단일화를 이룬 국민통합21의 정몽준이 투표하루전날 밤 열시에 노무현 지지철회를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지막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진보·개혁진영의 대 단합의 계기가 되어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역시 지역의 표 쏠림이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전북에서 이회창 65,334 대 노무현 966,053, 전남 이회창 53,074 대 노무현 1,070,506, 경북 이회창 1,056,446 대 노무현 331,358, 경남 이회창 1,083,564대 노무현 434.6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전남북 광주에서 90%가 넘는 몰표를 얻어 당선의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5천년 우리역사와 선거사상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당의 후보가 추대형식에서, 국민을 후보자 결정의 주체로 삼아 대통령후보 결정시부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후보결정과정을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고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의 공약사항을 보고 투표하였는데 두 후보의 공약사항을 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10대 공약과 노무현 후보는 4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의 4대 공약을 보면.

1). 바로선 대한민국 – 통합과 원칙의 바른 청치. –특권과 차별의 시정.
– 부정부패 척결. 좋은 정부의 구현.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2). 잘사는 대한민국 –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 – 7%성장 달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신산업정책으로 상업 강국 실현. – 정보화와 기술 5대강구 도약
3). 따뜻한 대한민국 – 빈부격차 해소. – 수준 높은 삶의 질. – 노인 존경 사회.
– 양성 평등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사는 농촌
4). 당당한 대한민국 – 평화와 번영의 신 한반도 사회. –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 등을 선택하였다.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 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 되는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라 하였다.
참여정부는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12대 국정과제와 과제별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 내용과 특징은“ 평화와 번영정책”으로 집약되어있다. 통일분야 와 관련해서 “대북5원칙”을 내세워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북 5원칙은 1). 계산적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우선주의” 2).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민화합” 3).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4). 북한에 대한 SOC 건설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하는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5).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가는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이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대미자주외교노선을 선택한 결과이가. 남북화해협력관계로 정착시키고 보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고 존재이유이고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4원칙을 제시하였는데 a. 대화해결. b. 신뢰와 호혜. c.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d.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다.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교류협력 심화 발전. 평화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권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동북아협력체 창설 추진. 자주적 방위 역량의 조기 확충.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남북군사력 신뢰구축 추진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4일까지 평양을 육로 방문하였다. 분단 60여년만에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형제가 형제의 집에 가는데 가로막힌 담장이 헐리는데 60여년 걸렸다. 감격적이고 가슴이 뭉클한 대사건이다. 우리민족은 숨죽이고 보고 있었다.
남북 정상은 10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1). 6.15 공동선언 적극추진. 2).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3).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4).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5).남북 경협 확대 발전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7).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추진.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9).남북총

리회담 개최. 10). 정상간 수시협의 합의 등이다.

참여정부 국정과제별 실행하고자 항 과제를 표로 정리를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 체널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
2.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 확립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4.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과학기술이력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5.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공익적 기능과 시장 지향,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 지역개발, 신해양시대 어업기반 구축
6.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 국민의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조성, 주택 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7.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5대차별(성,장애,학벌,비정규직, 외국인)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계층통합(빈부격차해소), 노사화합,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 대표성제고
8.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보평=s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면화
9.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 확립, 근로생활의 질향상, 노동행정서비스역량확충,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10.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11.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혁신, 행정개혁(평가분석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2.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중대 선거구제등 선거제도의 개선, 선거공용제의 확대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 위에서 행해진 대북경협사업은 참여정부시절 상당한 발전을 보아 개성공단 입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남북철도연결, 개성관광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11월 21일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부산에서 열린 한겨레,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주최 국제 심포지움에서 2010 개성공단 생산유발효과는 30억 −47억 2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 효과 11억9천만 달러−15억6천만 달로 남한 국민소득 0.3 − 0.4%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민정부의 최대의 사건은 국민경선에 의해 최초로 당선된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도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 한 민주당에 의해서다. 민주당의 탄핵발의 이유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여 2004년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으나 동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와 여야

대치하는 가운데 오전 11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의 저지를 막고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탄핵소추안을 곧 바로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 무기명투표를 하여 11시 55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등 투표에 참가한 198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소추결의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가결로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다가 전국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일어났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당의 쿠데타, 3.12 쿠데타로 규정 탄핵안을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 4월 15일 치러진 제 17대 총선에 까지 영향을 주어 열린 우리당이 152석이라는 과반수를 넘는 의원이 당선됐고, 한나라당 121석, 민주당이 9석, 자유민주연합 4석을 얻는데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주 2회,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의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4월 30일 최후변론을 종결한 뒤 2주일동안 집중 심의하여 결정문작성에 들어가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을 내려 두달 동안 권한 정지된 대통령 권한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공주 연기 일원에 신행정도시건설과 국영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국회에서 신 행정수도건설법을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민 단체에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2004년 10월 12일 위헌판결을 내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후속 조치로 2005년 2월 23일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재추진하게끔 입법하여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들어갔다. 한편 지방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소지에 몰렸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과 규제개혁, 7%경제성장달성을 위하여 신산업정책으로 산업 강국실현, 정보화와 과학기술 5대강국도약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은 반시장주의에 기초하여 반 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위축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자로 친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으나 그래도 다른 정부에 비해 성과가 상당하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문미정부 5.0%, 국민의정부 3.5%, 참여정부 3.0% 이고(통계청자료), 부도업체 수는 문민정부 12.701개, 국민의정부 9.152개, 참여정부 3925개(한국은행) 이고, 총 연구개발비 문민정부 약 45조, 국민의정부 약 70조, 참여정부 2003 −2005년까지 3년간 약 70조(과학기술처), 외국인 직접투자 문민정부 연평균 29억달러, 국민의정부 120억 달러, 참여정부 2003−2006년까지 S 4년간 102억 달러(산업자원부), 종합주가지수 상

승률 문민정부 11.1%, 국민의정부 10.8%, 참여정부 23.8%, 수출증가율 문민정부 12.2%, 국민의 정부 3.6%, 참여정부 19.0% 등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허탈감에 자져들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경기진작은 안된다며 임기 4년을 고집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주도의 경기진작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참여정부 국정난맥상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부산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한 진보진영, 노동조합, 화이트칼라층의 강한 반발을 샀고, 기업인 측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4대 공약으로 당당한 대한민국 건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사회 건설”“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강한군대 튼튼한 안보”를 내세워 한, 미간의 수평적 외교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촛불집회 등 반미감정에 호소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2004년 이라크파병 등 친미주의 외교를 펼쳤다.
2006년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UN 임기 5년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요구하였고, 2007년 4월 14일 한, 미간 FTA가 최종 타결되어 한 .미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개혁을 위해 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등 개혁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 등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이 2007년 6월에 처리되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관한 법이 2005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2005년 12월 29일부터 법이 발효되었는데, 친일행위 대상자는 을사조약, 정미7조약, 한 일합방시 일본에 공을 세워 일본의 작위 등 일본의 서훈을 받고 은사금, 토지(임야, 전답, 잡종지, 도로, 하천, 구거 등)를 받은 자와 러일전쟁 때 일본에 협력하여 공을 세운자 합방 후 총독부 관리와 협조자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일본에 협력하고 은사금이나 토지를 받은 자, 항일운동을 방해하고 살해한자와 그 자손의 재산을 조사하여 국가에 귀속 조치하도록 하였다. 친일재산귀속조치 특별법 조항은 동법 제2조 6호“을사조약 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모의한 행위”동법 제7호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동법 제8호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한 적용한 법이다.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을 보면, 친일재산 조사 대상자 현황은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에 따

라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확인하여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특별법 제2조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친일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추가선정 예정임을 밝혔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현황은 총 인원 508명, 실재인원 452명이다. 이를 관련법 조항별로 나누면 동법 2조 6호에 해당하는 매국행위 을사오적 5명, 정미칠적 6명, 한일 합방적 3명 계 14명. 동법 2조 7호 해당하는 작위 서훈 자 수작 5명, 습작73명 등 125명, 동법 재2조 8호 해당자는 귀족원 6명, 중의원 1명 등 7명, 동법 제2조 9호 해닫자 중추원 의원 306명 등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였고, 일제시대 토지보유현황 등 조사활동 중 추가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개시 결정을 통해 국가귀속 예정이며,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하는 등 친일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확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친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도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의 후손을 파악하여 친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적부, 족보, 호적부 등 공부자료 활용과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친일 재산으로 확인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개시 결정 후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을 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갖는다. 특별법 통과 된 후 제 3자에게 처분되는 조사대상자에 조처로 친일 재산은 특별법 시행일 (2005.12.29)자로 취득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소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귀속 결정은 해당재산의 친일재산여부를 결정하여, 그 친일 재산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특별법 공포 시행 후 처분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토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거쳐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귀속 결정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보면 “을사오적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제순(외부) 이근택(군부) 이완용(학부) 이지용(내부)”“정미7조약 공영희(탁자부) 송병준(농상공) 이병무(시종무관 장) 이완용(내각총리) 이제곤(군부) 임선춘(내부) 조중응(법부)‘ “한일합방적 이완용(총리) 고영희(탁지부) 민병석(궁내부) 박제순(내부)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시종무관장) 조민희(승령부총관) 조중응(농공상) 등이다.

친일재산귀속결정범위를 보면, 1차(07,5,2) 고희경 이완용 권중현등 9명 154필지 254.906m2. 時價額 908억원 상당액. 2차 (07,8.13) 민영희 민병석 박중양 등 10명 156필지 1.020.059m2 時價額 257억원 상당. 3차(07.11.22) 이해승 유정수 이경식 민영기 등 233필지 2.018.708m2 時價額 411억 원 상당. 4차(08.2.28)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등 7명 20필지 308.388m2 時價額 41억원 상당. 5차 (08.5.23) 이하영 조성근 김경진 등 26필지 784.028m2 時價額 74억원 상당. 6차(08.5.23) 서희보 이건춘 등 5명 17필지 133.172m2 時價額 41억원 상당. 7차(06.6.13) 이해창 남궁 영 등 4명 12필지 31.821m2 時價額 6억원 상당. 8차(08.7.9) 민영은 박영철 등 5명 20필지 190.502m2 時價額 15억원 상당액이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과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제정되었으나 독재정권

들이 자기들의 정권유지에만 급급했지 정작 우리역사 바로세우기는 그들에게는 거치장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인권법”이 제정되었고, 참여정부에 와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산귀속조치를 취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고 값진 일이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으로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실현의 국정과제는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2).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확대 3).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4).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5).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육성. 6).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이다.

추진과제로 0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는 교육혁신기구 설치,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0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에는 공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온화,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증진제로 개선,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0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는 초중등 과학교육 강화,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설정 등이다.

분고별 주요 정책 사업 중 교육부 소관은 1). 학교장 임명제도 다양화.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강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교수회 법제화. 3). 사립학교법 개정. 4). 교육혁신기구 설치. 5).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6). WTO 교육시장 개방. 7).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8). 유아교육법 제정. 9). 교원승진제도 개선. 10).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교육목표를 경쟁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초중 등 교육과 대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초. 중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0 과중한 입시부담과 성적부담(학생) 0 과중한 사교육비부담(학부모) 0기회의 불균형, 공교육부실 문제(교사) 이며 이의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학교육문제점으로 0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교육, 경쟁력 없는 교육이며, 해결책으로 0 입시개혁, 수요자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0 경쟁과 평가 수용, 0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0 유학 수학 흡수를 제시하였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이는 교육에서 국가 역할의 강화로 이어져 교육은 市場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의 1차적 고려사항은 사교육비 경감 과 공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방과 후 학교”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학생 맨토링,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학생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경제와 같은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을 시장에 맞기면 학생의 능력 외적인 면이 학생의 능

력을 좌우하게 만들어 본래 학생의 능력이 위축되고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자칫하면 가난이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능력 외적인 것이 학생의 능력발휘나 능력계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교육이다. 정부가 삼불정책을 고수하게 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선택 경쟁 효율 등 이 교육의 이상이고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적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학생개인의 능력이 있어도 이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사회 국가에서 국가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과 입시문제에서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관한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늘어나는 계층 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 치솟았는데 사교육비 비중이 2003년 50.7%, 2004년도 52.2%, 2005년도 53.2% 꾸준히 증가하여 초, 중, 고 학생이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학생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만4천명이나 되어 전년대비 24%나 증가했고 7년 전보다 13%나 증가해 기러기 아빠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유학이 필요한 거만도 아니요 만능인 것만도 아닌데 국내교육환경의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상항이 되어버렸다.

참여정부는 권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본다. 어느 시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정수반에게 공직자가 맞장을 떠보자고 공개된 형장에서 대들어 본때가 있었는가. 그것도 다름 아닌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일선 검사들과 공개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가. 우리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목소리 한번 크게 하였다고, 대통령 한번 욕했다고 국가원수 모욕죄로 구속되고 구속하던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이제 대통령을 욕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도 대독총리에 별로 한 게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여 총리제의 원칙과 제도를 살렸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장시켜버린 역할을 하였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분권에 맞게 지방 이양시켰다. 참여정부 들어 권위주의 타파와 기업규제완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정치 사회가 역대정권에서보다 투명해지고 맑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과의 싸움, 특히 조 중 동과의 싸움은 매일 이어졌고 결국 기득권층의 왜곡과 모함으로 탄핵까지 당하는 격랑을 겪었다

참여정부는 국방 사법개혁, 행정수도이전, 지역균형발전추진, 4대개혁입안처리, 작전통제권 환수합의, 과거사 진상조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처리 와 귀속처리, 한미 FTA 체결, 강력한 부동산 정책,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및 철도연결, 방패장 처리, 용산미군기지 이전, 국가장기발전계회 비젼 2030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노무현대통령은 퇴임 후 자기 고향인 진해 봉하마을로 귀향하여 환경운동을 하면서 시골 촌노로 살아가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매일 수천명씩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가 싶더니 청와대녹취록 불법유출사건이 터지더니 후원을 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딸의 불법자금 수수 문제로 도덕성에 치

명타를 입고 2009년 5월 23일 새벽 5시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한 많은 영욕의 생을 마감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상상을 초월한 압박과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창피주기 식 확증하지 않은 혐의들을 매일 중계방송 하듯 언론에 흘려 국민여론을 호도하려함에 한 개인으로서 방어능력을 잃고 14줄의 유서 한 장을 남기고 하직하였다.
우리민족의 가장 큰 염원이고 우리시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과제중의 과제가 통일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분단이 거의 고착화되어버려 국가적 국민적 희생과 부담을 계산하고 계산할 수도 예측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 국가적 민족적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역대정권은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방법은 차이가 없으나, 자유당 정권 이후 각 정권의 통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공화국(1948 -1960) 자유당 정부 통일정책은

1) 1948년 12월 12일 UN과 협의 하에 북한지역에 자유선거실시, 100내외의 북한 지여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공석 없애겠다.
2) 6.25 전쟁으로 분단심화초래, 휴전반대, 반공 북진통일 주장

제2공화국(1960 -1961) 민주당 정권

사회는 혼란 혼란스러웠으나 통일논의는 자유로웠다.

제3공화국(1961 -1972) 선(先)건설, 후 통일

1) 조국 근대화가 통일위한 전제, 중간목표로 통일의 꿈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가 경제자립 에 있고 통일의 첫 단계.
2) 1970년 광복절 경축사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구상 발표.
3) 7.4 남북공동성명(1972) 최초 남북 합의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 천명

제4공화국(1972 -1979) 선 평화, 후 통일 정책

1)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 23 선언)
   - 북한을 대화체제로 인정하고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보여 개방적 수용적으로 변함
2) 평화 통릴 3대 기본원칙(1974.8.15)
   -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간 신뢰 조성,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 실시.

제5공화국(1980 - 1988) 전두환 정권

1) 적극적인 통일 방안 제시 – 남북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제의
2)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1.22) 민족통일 협의회(쌍방 대표로 구성)
  – 통일헌법기초(민족 민주, 자유, 복지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 실현)
  – 남북국민투표실 → 통일헌법확정공포 → 총선거 실시
  – 통일국회, 통일정부 구성 → 통일국가 완성

제6공화국(1988–1993) 노태우 정부

1) 남북 화해 협력모색, 신 납북관계 정립 구상
2) 7.7 선언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인정"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의 기본 방향 설정됨
3)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 7.7 선언을 계승 발전시킴. 자주. 평화. 민주적인 통일원칙 제시
  – 교류 협력 →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쌍방합의) → 남북연합(과도기적 통일체제) → 총선거실시→ 통일국회, 통일정부 구성→ 통일 민주공화국 수립(완전한 통일국가)
  (공존공영 → 남북연합 → 단일민족국가)

문민정부(1993–1998) 김영삼 정부

1). 3단계 3기조 통일정책(1994.7)
  – 3단계 : 화해 협력→ 남북연합 → 통일국가
  – 3기조 : 민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채택
2). 민족복리 우선
  – 북한 고립 봉쇄하지 않고 특정 이념 체제 보다 민족복리 우선적 생각
3).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1994.8.15)
  – 인간의 존엄성, 평화 및 복지 지향,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회복– 정치적 통합
  –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 구성 통일

국민의 정부(1998 – 2003) 햇볕정책

1)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 정책 적극 추진
2). 남북정상회담(2000. 6.13) 6. 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화해 .협력. 평화공존 지표 됨
o 6.15 선언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남 – 남북연합, 북 – 낮은 단계 연방제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 전향 장기수 문제해결
  – 제반분야 협력 교류활성화 – 신뢰구축

–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해 당국사이 회담개최

참여정부(2003-2007) 평화번영정책

1). 대북 5원칙

– 계산적 상호주의 배격 → 신뢰회복 → 국민적지지 국민합의 → 국민화합

– 군사와 경제안보의 포괄적 안보 – 북한 SOC건설 경제협력·– 장기적 투자 경협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당사자 주의 국제협력

2). 평화 번영 정책 4원칙

– ○대화 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 국제협력 ○국민적 합의 초당적 협력

3). 평화정책 실천과제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교류 협력 심화 발정.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평화 협력체 창설 추진. 자주적 방위역량 조기 확충.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등이다.

제9절 실용정부 탄생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는 전국적인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번져 정치권은 지리멸열 상태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의원이 대표가 되어, 총선에 임하여 분전한 결과 121석이란 의석을 겨우 건지게 되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 조순형 정균환 한화갑 박상천 등 강경파들의 횡포로 국민의 따돌림을 당하였다. 민주당은 이들의 간판으로는 총선에 임해보았자 패배가 뻔 함으로 추미애 의원을 당 대표로 총선에 임하여 보다 참신한 인물이 아니고는 선거패배가 훤히 보이므로 참신한 인물로 공천을 주고 선관위에 등록을 하였는데 이때 이들 구시대 정치인들이 민주당 직인을 감추고 주지 않아 새 직인으로 선관위 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조순형이 직인 사용무효 가처분신청을 하여 개혁적인 인물의 공천은 물 건너가고,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삼보 일 배의 사죄를 구하였으나 선거는 참패로 끝나 9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되고, 새로 창당한 열린 우리당이 152명 당선이라는 대성과를 거두어 국회 과반 수 의석을 초과하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새로 당선되어 첫 등원한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자질이나 품위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정치란 생물이고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방영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독선에 사로잡혀있었고 그것은 바로 여론에 투영되어 국민들의 실망으로 안겨졌고, 거대 여당이 정부와 정책의 협력이나 의견조율이 전혀 되지 않아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갈등관계가 되어, 17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판가름이 나있는 상태가 되어 선거

결과는 정권이 10년 만에 보수원조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문제들이 터지고 발생을 하였으나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 하나로 당선되었다. 예전 같으면 BBK와 같은 대형 사건이 폭로되면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당선되어서 잘하면 된다고, 지난 과거사는 그냥 덥고 넘어가게끔 국민들은 그를 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 표차란 엄청난 득표를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국민을 잘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하였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 구성과 장관, 청와대 인사에서 서민의 아픔이나, 가려움을 헤아려줄 것이란 생각은 멀어지게 되었다. 고소영이나 강부자에 도덕적으로 허물이 만은 사람들이 입각의 대상이 되고 청와대 수석자리에 꿰차고 들어 안게 되었는데 돈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변은 국민의 입장에선 양해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다. 국민들은 돈이 많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특히 가난한 서민들은 그림의 떡으로나 여기는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팔아 부를 축적한데 대한 불만이다. 게다가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 국민들은 생존권문제로 여기고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학생 임산부 등 항의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전 국민적인 항의집회가 계속되어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벌여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광우병 문제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수입제한이 폐지되고 미국산 쇠고기 뼈와 머리 내장까지 수입하기로 합의되므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2008년 5월 3일 청계광장에서 집회시작으로 여름 내내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2008년 5월 12일부터 – 8월 15일 검거된 사람은 1,397명이고 직업별로 구분하면 10명중 대학생 2.4명, 무직 2.1명, 1명 자영업자, 주소별로는 서울 49.5%, 수도권 30.4% 전국 각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촛불 소녀, 유모차부대, 하이힐 부대 등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한편 국가대운하 사업은 정부와 대통령의 계획으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는데 정부와 대통령은 강행의지를 내비치므로 국민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나왔고 국민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여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인기가 하락하여 10%대의 지지를 받은 예가 없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27 –31%에 머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대북 강경 친미정책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정책을 내세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햇빛정책이나 화해번영정책을 내 세워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처해있어 금강산 피살사건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과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교류나 협력을 하지말자는 논리에 가깝다. 2008년 3월 세종연구소가 인용한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국민총소득(GNI)을 256달러, 1인당 GNI 1천108달러이고, 실제로 한나라당 비핵 개방 3000에서 300 – 400달러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2006년 1월 25일 산업은행 발간 북한산업 책자에 북한 기술은 남한의 40년 뒤진 것으로 평가하고, 산업가동률은 남한의

27%에 불과하고, 북한 산업기술은 1960년대 – 199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에게 상호주의를 내세워 일대 일로 주고받자고 하면, 북한에게 대화나 관계를 하지말자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가령 백 만원 가진 사람이 1,000원 밖에 없는 사람에게 1만원씩 똑같이 내놓고 담판하자고 하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가난한 형제를 부자 형제가 돕고 살아가는 것이 상생이 아니겠는 가 생각을 해본다.
급기야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 시작하여 개성공단에 기업의 필요한 물자수송이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요원들의 왕래가 지연되거나 철수를 하게 만들고 화물 수송을 위한 열차의 운행을 차단하고 지연시키고 기업의 주재원을 체제의 비판과 북측 노동자를 꾀여 탈북 시키려 하였다고 연금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친미정책을 내세워 한 미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미국에 달려가 미국의 쇠고기 전면수입이란 큰 양보를 하여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우리가 얻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주변 중국이나 소련의 견제와 저항만 받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친 기업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와 기업집중화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효율성을 내새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집중화와 기업의 출 총제를 폐지하였다. 한편 감세정책을 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내려주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실업자가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년에 일자리가 30만개 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정책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감세정책은 공공투자정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자본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제적 위기는 미국 발 은행부실문제가 글로벌경제에 대 타격을 주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선진국은 외국 자본 점유율이 20% 대인데 한국의 외국자본 점유율은 40%대 이상이 되어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에 영향을 주어 환율이 뛰게 되었는데, 정부의 안일 대처와 성장위주로 외환위기를 안일하게 보아 고환율 정책을 썼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안고 한국의 외환정책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외환위기를 마제되었는데, 책임을 차관에게 지우고 차관만 경질하여 시장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고,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었고, 세계경제의 불황은 한국경제의 불황을 더욱 깁게 만들었다.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한, 미, 일, 중국 등과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외화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였으나 미국 유럽 G20의 경제가 워낙 나빠 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은 제자리에 있고 환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온 나라가 요동치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650만 달러의 거액을 노무현 대통령부인과 딸이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재임시절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긴 전직 대통령이 수뇌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고향마을 봉하산 바위에서 투신하였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노무현 주변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샅샅이 뒤져 확인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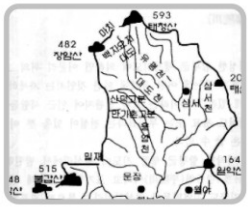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않고 증거 없는 사실들을 연일 스포츠 중계하듯 발표하여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감에 절박감을 기기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 열정을 다 했는데 잘못됐다고 비난받아 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한 것처럼 비난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 동료, 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하고 있어 외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한 많은 세상 하직하였다.

이 사건은 세계가 경악하였고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텔레비전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고 조문객이 5백만이 넘었다. 이는 우리 현대사의 한 슬픔의 역사요 아픔이었다.

북한은 노무현대통령 서거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상상을 초월한 상태인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일 후인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가맹하고 당일 오후와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적 여론이 뒤끓는 상태를 마련하였다. 유엔은 2009년 6월 26일 1874호 북한의 무기금수, 북한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안보리이사국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1874호 24조로 제재 대상기업과 인물 명단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 하도록 하였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나 찬반투표에 있어서 제일차에서 과반수 미달사태가 되어 부결되어 투표종결 선언을 의장이 하였는데 재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전광판에 나타나 국회통과 적법성에 대해 분란이 일어날 소지를 안게 되었고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재판을 제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방송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제2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제1절 광복직후 함평인사들의 활약

1945년 8월 15일 12시 일황(日皇) 히로히도(裕仁)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던 소식이었던가. 우리는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이다. 온 국민의 마음은 물론 집안과 거리에는 태극기의 물결에 휩싸여 열광과 환희로 가득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사람들은 잽싸게 문을 잠그고 귀추를 기다렸다. 이 몇 마디의 발표가 35년 만에 맞은 광복의 순간이었다.

이날 오후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조선인 직원 300여명이 회의실에 모여 '전남도청 조선인 청년단'을 결성하고 일본인이 서류와 집기들을 빼돌리지 못하게 지킴과 동시에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잠정적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각 군청에 알려 군청에서도 자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유했다.

함평군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의 대책을 그들 나름대로 숙의했다. 8월 16일에는 거리의 벽보판에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냄으로써 함평군민의 아량을 보여주자. 그리고 일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사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함평은 항일사상이 그 어느 지방보다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전쟁 참여자와 항일의병 색출작전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다. 일본인에 대한 사무치는 감정이 높아 반사적으로 보복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칼에는 칼'이라는 물리적 보복을 자행하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는 아량을 보이고 나온 것이다. 8월 17일 '전라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어 8월 30일 이후 각 시·군에도 속속 지부가 결성되어 치안과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이재혁(李載赫)이 위원장이 되어 건준(建準)을 이끌어 갔다.

그러나 여운형(呂運亨)이 전국위원장이 된 건준은 당초부터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데다 박헌영계열의 침투로 좌경화(左傾化) 내지 공산화되기 시작했고 거듭되는 건준자체 내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놓고 박헌영계와 여운형계의 암투가 계속되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38도선(度線) 이남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초대 군정장관(軍政長官) 아놀드가, '38도선 이남의 조선 땅에는 오직 미군정부(美軍政府)가 있을 따름이고 그 이외의 다른 정부는 있

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9월 6일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다.

광복을 맞은 이 격동기에 함평출신으로 도청소재지 광주에서 돋보이게 활동을 한 사람은 김 석(金晳, 신광면 함정리 출신, 상해 임시정부 독립투사)과 김의택(金義澤. 엄다면 신계리 출신, 현대 인물 정계편 참조) 두 사람이다. 김 석은 상해로 망명하여 동방피압박민족동맹 중앙위원과 상해 한인청년당 이사장을 지내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 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윤봉길 의사에게 폭탄을 직접 건네주어 상해 홍구공원 폭탄투척사건을 일으키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후 국내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다음 1941년 출옥했으나 다음 해에 다시 예비 검속되었다가 광복과 동시에 풀려난 애국지사였음은 다 아는 일이다.

광주 역시 다른 지방처럼 광복이 되자 서울에서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격인 전남건준(全南建準)이 조직되고 여기에 치안부(治安部)가 설립되고 그 산하에 치안대가 조직돼 광복 후 극도로 혼란해진 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는 8월 18일 오전 10시 광주극장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 '광주 청년단'을 결성하고 총단장(總團長)에 김 석, 부단장에 주봉식(朱奉植)을 선임했다. 김 석 단장은 주봉식 부단장을 비롯한 단원 정성태(鄭成太, 후에 국회의원 및 국회부의장 역임)·김복실(金卜實, 북부대장) 등을 대동하고 전남건준 치안부장을 찾아가 '광주청년단'의 조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치안대를 자기들이 관할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 동의(同意)를 받아내고 김 석 자신이 치안대장을 겸임했다. 김 석은 치안대를 도청 앞 무덕전(武德殿)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군정청의 방침에 따라 발족한 '전남경찰재건위원회' 조직에 항의하다가 갈등이 빚어졌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전남에서 가장 악질 왜경의 대표적 인물로 손꼽히는 노주봉(盧朱鳳)이 전남경찰재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 석·주봉식이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다행히 김 구(金九)등 각계의 탄원으로 풀려나왔다. 그러나 피살사건에 직접 연루된 '광주청년단'의 김영일(金永一)과 정판국(鄭判國) 단원은 살인혐의로 구속되어 김영일은 옥사했다. 3년 후 검거된 김이현(金利鉉)은 독립촉성회와 민족청년단의 진정으로 1948년 9월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정판국과 함께 풀려 나왔다.[1)]

김의택은 군정청의 방침에 의하여 발족된 '전남경찰재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전남의 치안을 바로 잡는데 이바지하였다. 노주봉 피살사건 이후 미 군정청은 도 고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국장급을 임명할 때 경찰국장에 박명제(朴明濟)를 임명, 경찰체제를 강화한 후 치안유지를 자임하고 나선 청년단체들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단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상주시켜 버티며 농성하면서 저항하도록 선동하고 있었다. 박명제 국장은 총무과장 주태규(朱泰奎), 감찰과장 김의택, 수사과장 박몽실(朴蒙實), 보안과장 김광섭(金光燮), 기동대장 장홍염(張洪淡) 등과 숙의한 끝에 그 때까지 건준 치안대가 점거하고 있던 19개 시·

1) 『光州市史』, 제2권, 1980, 500~509쪽 내용에서 발췌.

군 경찰서를 강제로 진주(進駐)하는 형식의 작전을 펴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전은 1945년 12월말에야 끝났다. 김의택은 후에 전남경찰국장에 임명된다.

제2절 미군정(美軍政) 실시와 함평

1945년 8월 20일과 9월 2일 서울 상공에 나타난 미군B29기는 남한에 미군,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내용과 '경거망동(輕擧妄動)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경고성 전단을 살포한 후 9월 8일 오후 1시 미군 제24군단 병력이 인천항에 상륙하였다. 9일 오후 3시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고 4시 30분 일장기를 강하(降下)하고 성조기를 계양함으로써 일제 35년간의 한반도통치가 이 날 사실상 끝났다. 일본 총독부는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의 통치권은 일본에 있다는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에 넘겨줬던 치안권을 8월 20일 회수해 계속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준을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2)]

이날 미군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38도선 이남의 모든 행정통치권은 당분간 한반도에 진주하는 맥아더 사령부 휘하 미 제24군단장 하지 중장의 장악하에 이행된다는 것으로 이틀전인 9월 6일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은[3)] 물론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군정(軍政) 선포였다.

이렇게 하여 실시된 군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무장해제의 구획선이었던 38선은 민족분단이란 한과 비극을 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군이 전남 도청에 도착한 것은 9월 10일이었다. 야전복(野戰服) 차림을 한 미군 소령(성명은 모름)이 도지사실에 들러 야기(八木) 일본인 지사에게 출납중지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며 도금고(道金庫)의 출납중지, 광주부청(현 시청), 그리고 각 은행의 출납을 중지시켰다.

그 후 9월 23일 기차 편으로 킬버트 소령이 인솔하는 미군이 광주에 진주하였고 도청을 접수했다. 도정(道政) 인수를 서두른 킬버트는 최흥종(崔興鍾)·최종섭(崔鍾涉)·장용태(張容泰)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10월 7일 야기로부터 도정을 인수한 후 8일부터 일인 관리들의 귀국을 허용하였다.

10월 20일 미 제40사단이 전남에 진주하였으며 10월 23일 피그 대령이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라남도 초대 군정지사(軍政知事)로 취임하였다. 그는 그동안 일본인 관리들로부터 일부 행정권을 인수받아 자치 활동을 하고 있던 도 인민위원회 및 시군 인민위원회와 치안대를 해산 시킨 다음 초대 한국인 지사로 최영욱(崔泳旭)을 임명했다. 이어 광주시장에 서민호(徐珉濠), 광산군수에 최성준(崔聖俊), 영광군수에 김영하(金永廈) 등을 발령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는 지방

2) 조인식 직후 하지미군사령관은 당분간 총독부체제를 유지한다는 선언, 총독부 관리들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독부 체제는 10월까지 지속된다. 미국언론과 한국 지도자들의 항의로 총독부 체제유지 발언은 곧 취소했지만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중요한 조언과 업무 등이 그들에 의해 집행되었다.

3)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모태로 박헌영 등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 결성해 선포한 국호(國號).

유지를 군수로 발령하기도하여 한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지방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어 몇 달이고 공석(空席)으로 비어있기도 했다.
우리 함평군에는 다른 군에 비해 늦게 군수가 발령되었다. 뒷날 한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문교부장관을 역임하게 될 박일경(朴一慶)이었다.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던 그는 약관 25세의 청년으로 광복 전에 총독부에 의해 함평군수에 임명되었었다. 피그는 2주일 만에 전임되고 프라이스 대령이 2대 지사로 부임하여 5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그가 임기를 마칠 때쯤 도정(道政) 대부분이 한국인의 수중으로 넘어왔다. 군정기간 동안 좌익세력의 각계 침투, 250여개에 달하는 정당(政黨)의 난립, 찬탁(贊託, 공산주의), 반탁(反託, 반공주의)의 회오리, 민청(民靑, 공산주의), 학련(學聯, 반공주의)간의 격화된 대결, 미·소 공위의 결렬 등 혼란한 사회상이 계속되었다. 나중에는 좌익들에 의한 파업이 단행되어 극심한 경제공황을 초래하였고 1946년 10월 1일 일어나는 대구 폭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난국을 겪었다. 이 때서야 미군정은 좌·우합작(左右合作)의 통일정부수립의 기대를 포기하고 우측(右側)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함평군도 마찬가지였다. 함평농업학교 학생들의 학련과 민청간의 치열한 폭력 대결, 청장년층의 좌·우 분쟁 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6년 8월 24일 공포된 법령 제118호에 의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南朝鮮 過渡立法議院)이 창설되었다. 이 법이 공포되자 국내 정치권은 남조선 단정수립 설(南朝鮮 單政樹立 說), 통일정부지연 설, 군정연장 설 또는 합리화(合理化)등 여론이 분분하였고 군정측은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이며 인민이 정부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발전의 소산이지 남조선 단정(單政)이나 기타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민선의원(民選議員) 45명에 대한 각 도 단위의 간접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남에서는 광주지구(光州地區) 최종섭(崔鍾涉)·고광표(高光表)·홍성하(洪性夏), 목포지구(木浦地區) 이남규(李南圭)·천진철(千珍喆), 순천지구(順天地區) 황보익(黃保翼) 등 6명이 당선되었다.
민선의원에 대한 각 시·도의 선출배정 수는 서울 3명, 경기 6명, 충북 3명, 충남 5명, 전북 4명, 전남 6명, 경북 7명, 경남 6명, 강원 3명, 제주 2명이었다. 민선의원 45명을 분석해 보면 이승만을 옹호하는 독촉(獨促)과 한민당 계열이 40명, 한독당(韓獨黨) 2명, 공산진영 민전(民戰)이 2명, 김규식계(金奎植系)가 1명이었고 12월 7일 발표한 관선의원(官選議員) 45명은 김규식계인 좌·우 합작파(左 . 右 合作派)가 대부분이었다.
1946년 12월 12일 개원식(開院式)에 참석한 의원은 53명이었다. 의장(議長)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旿)·윤기섭(尹琦燮)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1948년 5월 19일 해산될 때까지 50여건의 법률을 의결·공포하였다. 이에 비해 입법의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정 단독 법령으로 입안·공포된 것은 80여건이었다. 이로 미루어 입법의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제3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10 총선(總選)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정기총회에서는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 채택한 한반도 신탁통치 안이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주의화 되어 소련의 지시대로 찬동하고 나섰지만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맹렬한 반대에 부닥치자 1947년 11월 미국이 제출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키자는 한국통일안(韓國統一案)을 43대0으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UN 한국 임시 위원단'[4]이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월 12일 인도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13일부터 한국인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21일 방송을 통해 한국인의 염원인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38도선을 넘어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동 위원단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할 목적으로 이승만·조만식·김성수·김규식·김구·허 헌·김두봉·박헌영·김일성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소련군정 당국의 38선 월경 거부로 조만식·김두봉·김일성과 만날 수가 없었다. 또한 허헌과 박헌영은 북쪽에 도피 중이었다.

2월 23일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가능한 지역 내의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40대 3, 기권 3으로 통과시켰다. 유엔 임시위원단의 경과보고를 받은 미국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한국국민의 염원(念願)을 성취시키자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여 2월 26일 31대 6, 기권 11표로 가결하였다.

3월 2일 미군정장관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14명을 임명하였다. 3월 4일 유엔주재 미국대표는 안보리(安保理)에서 한국의 분할독립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3월 6일 미국에서 돌아온 메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이 그간의 결과를 위원단에 보고하고 12일 '남한의 총선거 실시 안'을 4 대 2로 가결했다.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되고 선거 일자를 당초 5월 9일로 잡았다가 다음 날인 5월 10일로 확정, 한국역사상 최초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좌익계는 물론이고 중립계(中立系)와 일부 민족진영의 불참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제주도는 좌익계의 선거참여방해 공작으로 총선에서 제외되기까지 하였다. 입후보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200명에 입후보자가 948명으로 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단체별 입후보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35명, 한국민주당이 91명, 대동청년단이 87명 순이었으며 10명 미만을 입후보 시킨 단체가 43개로서 정당·단체의 난립 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1명만이 입후보한 단체도 26개나 되었다.

---

[4]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호주, 카나다, 인도,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크라이나 대표가 불참 8개국 대표가 도착했다.

<표 1> 단체별 입후보자

정당·단체별 구분	입후보자 수	비율 %	정당·단체별 구분	입후보자 수	비율 %
무소속	417	44.0			
대한독립촉성국민회(韓國獨立促成國民會)	235	24.9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91	9.6	대한정의단(大韓正義團)	2	0.2
대동청년당(大同青年黨)	87	9.2	대한독립촉성국민총연맹(國民總聯盟)	2	〃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青年團)	20	2.1	청년당(青年黨)	1	0.1
대한노동총연맹(大韓勞動總聯盟)	12	1.3	조선법학회(朝鮮法學會)	1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農民總聯盟)	10	1.1	대한민국총동원본부(總動員本部)	1	〃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7	0.7	조선불교중앙총무원(中央總務院)	1	〃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	5	0.5	전도회(傳道會)	1	〃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	4	0.4	민족통일본부(民族統一本部)	1	〃
기독교청년회(基督敎青年會)	2	0.2	조선공화당(朝鮮共和黨)	1	〃
기독교도연맹(基督敎徒聯盟)	2	〃	부산일오구락부(釜山一五俱樂部)	1	〃
유도회(儒道會)	2	〃	여성단체총연맹	1	〃
단민당(檀民黨)	2	〃	한국기독교연합회	1	〃
대성회(大成會)	1	0.1	민주주의자유독립당(自由獨立黨)	1	〃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3	0.3	조선건국청년회	1	〃
교육협회(敎育協會)	2	0.2	대한독립서북협회(西北協會)	1	〃
조선여자국민당(朝鮮女子國民黨)	2	〃	조선변호사협회	1	〃
대한독립청년단	1	0.1	조선불교교무원(敎務院)	1	〃
조선예수교장노회(長老會)	1	〃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	1	〃
대한부인회	1	〃	애국부인동지회	1	〃
상무사(商務社)	1	〃	고려진보당(高麗進步黨)	1	〃
민족사회당(民族社會黨)	1	〃	청우당(青友黨)	1	〃
민중당(民衆黨)	1	〃	민주의원(民主議院)	1	〃
이재민동포자치회(罹災民同胞自治會)	1	〃	민족통일건국전선(建國戰線)	1	〃
			합 계	948	100

1948년 5월 10일 7시부터 전국 200개 선거구 1만 3,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총선은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제헌국회(制憲國會)라고 부르는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17명의 공무원이 살상되었고 2·27폭동, 4·3폭동과 소위 선전선행대(宣傳先行隊) 등에 의해 자행된 남한전체의 피해는 피살(被殺) 388명, 부상(負傷) 712명이었다.

전남의 선거 상황을 보면 29개 선거구로 책정되었다. 입후보자는 92명이었으며 한국민주당이 31명으로 가장 많아 한민당이 강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거에 함평에서는 4명이 입후보하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성우(李成佑)가 당선되었다.[5]

선거 결과를 보면 무소속이 85명, 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대한노총 등 기타 군소 단체에서 11명이 당선되었다.

5) 『함평군사』 권2, 제8편 제3장 정당과 정치 참조할 것

2. 대한민국 정부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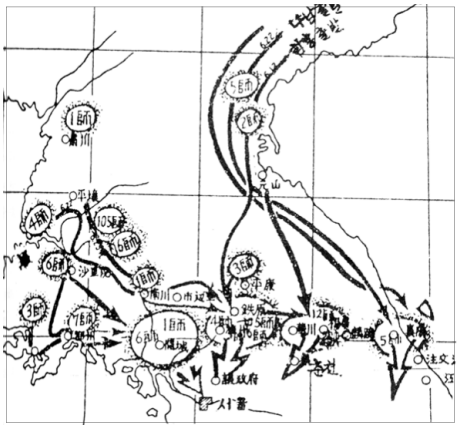
5월 27일 국회 예비회의를 개최(143명 참석)하여 의장에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한 후 5월 31일 한민족 역사상 처음인 제헌국회가 개원(開院)되었다. 신익희(申翼熙)·김동원(金東元)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6월 10일 국회법 통과,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헌법 공포식을 거행한 후 7월 20일 정·부통령선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이범석이 인준되었다.

8월 5일에는 초대 대법원장에 김병로(金炳魯), 국회의장에는 신익희가 당선되어 정부의 3부 조직이 완료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출범한 것이다.

제4절 6·25 전쟁과 함평

1. 북한공산군의 남침과 함평 진입



적 남침의 병력 집결과 각 공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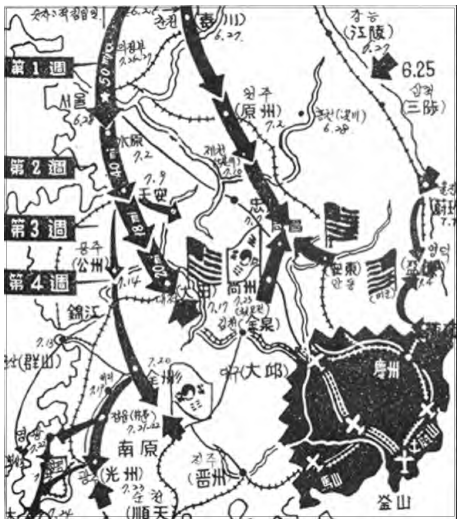
북한공산군이 함평에 진입한 것은 그들이 남침을 감행한지 29일 만인 7월 23일 새벽 5시경이었다. 이 때부터 약 3개월 동안 남한은 북한 인민공화국체제 하에서 살아야 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은 인민군의 후퇴당시 많은 우익성향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잔인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낱알 곡식을 철저하게 헤아리는 몰인간성 등 공산주의 통치행태를 이 기간에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1948년 2월 이른바 인민군 경비대, 보안대를 만든 후 6·25 남침 직전까지 20만 명의 병력을 양성하였고 입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는 공세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장급 비밀회의를 열고 1950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훈련을 가장해 보병 7개 사단과 전차 2개 사단을 38도선 일대에 집중 배치시켰다. 그들은 의정부(議政府)와 동두천(東豆川)을 주공격선으로 삼고 고랑포(高浪浦) 개성·옹진(甕津)·춘천·강릉 방면에서 협공을 펼 계획을 마무리 해놓고 공격명령만을 기다리도록

했다.

6월 25일, 이날은 일요일이었다. 비가 내린 곳도 있었으나 맑은 날씨였다. 새벽 4시를 기해 공격의 총성이 울림으로써 20세기 한반도상에서 빚어진 최대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살육과 아비규환 그것이었다. 일요일 휴무 차 전방 근무병력 절반 이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선(前線)은 막강한 인민군 화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38도선을 돌파한 북한공산군은 6월 25일 오전 9시경 개성(開城)·청단(靑丹)·주문진(注文津)을 장악했고 26일에는 의정부(議政府)에 진입(進入)했다. 27일에는 춘천(春川)·강릉(江陵)을 점령했고, 의정부를 통과한 후 서울외곽에 도착했다. 한국군은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결사 항전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28일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안심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공산치하 3개월의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력인사들이 북한으로 강제납치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동부전선에서는 홍천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인천에서는 상륙을 기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적 침입 1개월의 전황(戰況)

29일에는 한강을 끼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미군의 B29가 평양폭격을 단행했다. 이날 평양폭격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및 유엔공군은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제공권을 장악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6·25전쟁 2주일째에 접어든 7월 2일 공산군은 한강을 건너 수원(水原)·양평(楊平)·원주(原州)를 잇는 전선이 형성되었고, 3주일째인 7월 10일경에는 금강(錦江)에서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7월 13일 공산군 제6사단에 의해 공주(公州), 7월 14일에는 군산(群山)이 점령되었다. 인민군 제6사단은 서부전선을 담당한 적의 주력(主力) 부대이며, 사단장은 방호산(方虎山)이었고 이들에 의해 우리 함평도 점거되었다.

제4주일째로 접어든 7월 17일 대전(大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어 7월 19일에는 이리(裡里, 현 益山), 20일에는 전주가 함락되었다. 적은 7월 19일 이리를 장악함과 동시에 영광군 법성포(法聖浦) 상륙(上陸)을 시도했으나 국군의 완강한 반격전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 때부터 함평에서도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공산군이 밀려온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떠날 준비를 서둘렀으며 좌익성향 인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섰다.

7월 21일경 전선(戰線)은 김제(金堤)·이리(裡里)·논산(論山)·대전(大田)·청주(淸州)·예천(醴泉)·영주(榮州)를 잇는 선(線)이었다.[6] 7월 22일에는 전라 남·북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6) 『한국전란 1년지』 B, 20쪽 참조.

7월 13일 인민군 제6사단이 기습적으로 공주와 군산을 점령하자 한국군 사령부와 미8군(美八軍)은 깜짝 놀라 서해안지구(西海岸地區) 전투사령부(戰鬪司令部)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신태영(申泰英) 소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호남지구에 흩어져 있는 국군과 경찰의 집결을 명령하는 한편 신병(新兵)을 모집하도록 조치했다. 동(同) 사령부 휘하에 전남(광주)·전북(전주) 관구사령부(管區司令部)가 설치됐는데 전남지구 사령관에는 이응준(李應俊) 소장이 임명되었다. 전남지구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 예하에는 종전의 제5사단(사단장 李炯錫 대령)을 그대로 두고 5사단 예하에 제15연대(여수·순천)와 제26연대(광주)가 새로 편성되었으며 해병 김 부대(金部隊, 부대장 김성은 중령)와 전남경찰국장 김응권(金應權)이 지휘하는 경찰부대가 휘하에 들어갔다. 전쟁 발발 전 광주지역에는 제20연대가 주둔해 있었다. 이 부대는 공비토벌 등 실전(實戰) 경험이 많은 부대였으나 6월 26일경 서울 쪽 전선으로 북상하는 바람에 전남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자리를 제26연대가 창설되어 메운 것이다. 제26연대의 실태는 전선에 출동하지 않은 잔류병과 후퇴해온 낙오병(落伍兵) 1개 대대 그리고 새로 모집된 신병(新兵)과 학도병(學徒兵)이었고 무장상태는 3명중 1명이 소총을 가졌을 뿐이었다.

7월 20일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 제6사단의 일부가 정읍까지 진격해 왔다. 여기에 26연대는 본부중대 병력에 학도병을 끼어 소총으로 무장시킨 1개 대대(대대장 趙始衡)를 출동시켰다. 이 대대는 21일 정읍 외곽에서 공산군 선발대와 조우(遭遇),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물리치고 정읍을 탈환했다. 일단 전주방면으로 후퇴했던 공산군 제6사단 주력병력이 22일 탱크를 앞세우고 정읍으로 진격해 왔다. 26연대 병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장성으로 후퇴했다. 정읍을 점령한 공산군 6사단은 2대(二隊)로 나누어 1대는 장성으로 향하고 2대는 무방비 상태인 고창·영광을 단숨에 점령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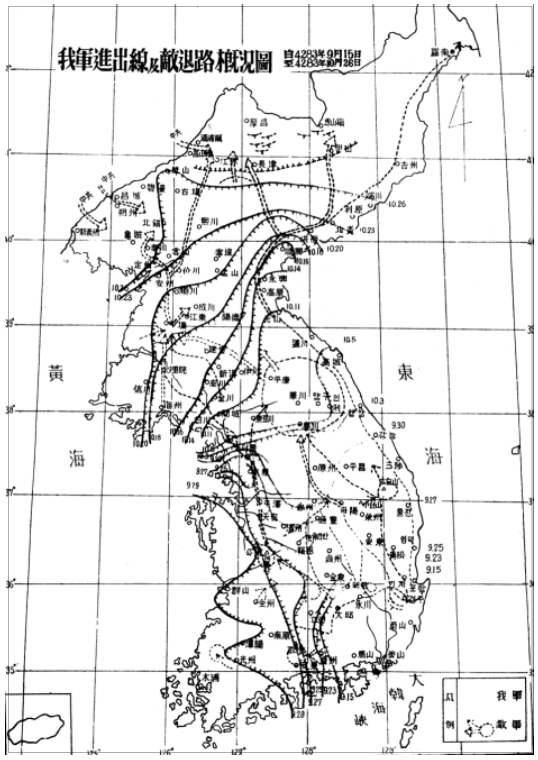
영광에 다다른 공산군은 며칠 전 법성포 상륙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상륙전을 펼친 그들의 인민군 부대와 합류하여 밤늦게 영광을 떠나 함평으로 향했다. 7월 22일이었다. 이날 함평은 어수선한 하루였다. 며칠 전부터 영광 쪽으로 향했던 국군의 일부 병력과 경찰들이 거멍다리(黑橋, 현 : 咸平橋)를 건너 남으로 후퇴했다. 7월의 불볕더위는 기승을 부렸다. 이날 오전 10시경 10여명의 경찰이 함평초등학교로 밀어닥쳤다.

그것은 당시 함평초등학교에 근무하던 나모(羅某) 교사가 1949년 북에서 집단 침투시킨 간첩의 일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광·함평·나주군의 상황을 북에 보고하는 책임자였던 그는 경찰이 학교에 도착할 무렵 이미 피신한 뒤였다. 간첩이 어떤 것인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준 산 본보기였다. 일명 쌕쌕이, 호주기라 부르던 제트 전투기가 오후 3시경 함평읍 상공을 몇 번 선회하고 남쪽으로 살아졌다.

오후 8시경 어둠이 깔리자 남아있던 경찰 일부가 함평을 떠났고 밤 9시경에는 일부 공산당원 약간 명을 처결한 경찰 잔여부대가 후퇴했다. 이어 일제초기에 가설됐던 목조(木造)의 거멍다리가 폭파되었다. 국군과 경찰의 함평철수가 완료된 것이다. 경찰은 여수로 향했다.

23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함평읍내에 장갑차와 소총을 휴대한 인민군이 밀어닥쳤다. 그들은 곧 바로 함평 천에 도로를 가설하고 목포를 향해 떠난 후 9시경 무안에 도착했다. 공산군 6사단의 1대(一隊)는 갈재를 넘어 장성을 경유하여 23일 11시 30분 광주의 산동교(山

東橋)에 이르러 군경 특공대와 접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국군 5사단장 이형석은 보성을 경유해 순천으로 후퇴했고 박철수(朴哲洙) 지사도 광주시장 일행과 함께 순천으로 향했다. 마지막 피난열차가 오전 10시 남광주(南光州)역을 출발하자 학동철교는 폭파되었다. 12시 조금 넘어 인민군은 광주시에 진입했고 1개 부대는 나주로 향했다.



아군 진출선 및 적 퇴로 개황도

7월 23일 이날은 일요일이었다. 전국적으로 보아 비가 온 곳도 있지만 땡볕이 쏟아지는 무더운 하루였다. 특히 전남지방은 폭염의 연일(連日)이었다. 24일에는 목포, 26일에는 여수, 27일에는 하동(河東)까지 공산군의 발길이 닿았다. 또 공산군의 후속부대인 제4사단은 자동화기와 탱크로 무장하고 6사단을 뒤따라 계속 남하(南下)하고 있었다. 한편 순천을 사수하려던 군경부대는 순천을 포기해야 했다.
7월 26일 이응준 호남지구 전투사령관, 이형석 5사단장 일행의 군부대는 해군경비정으로 여수를 떠났고 같은 날 김응권 경찰국장 등 경찰부대는 목포항에서 경비정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도지사 일행은 배편을 이용, 마산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해서 전남 일원은 6·25전쟁 발발 1개월만에 완전히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되는 10월까지 향후 3개월간 이른바 인공(人共)통치시대를 겪어야 했다.

2. 인공통치 3개월과 우익인사 학살

함평을 비롯한 전남일원을 장악한 북한 인민군은 전남 인민위원회와 시·군 인민위원회 조직을 서둘렀다. 전남 인민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모(鞠某)를 내세웠고 함평군 인민위원장에는 함평읍 함평리 출신 이모(李某)를 내 세웠다가 얼마후 임모(林某)로 바꾸었으며 다시 해보면 금덕리 출신 김모(金某)를 세우는 등 3개월에 3명이 바뀌었다. 내무서장은 월야면 출신의 정재호(鄭在浩)가 맡았으나 북에서 파견한 당 위원장(黨 委員長)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전항(前項)에서 언급한 팔로군(八路軍) 출신의 첩자였던 나모(羅某, 나주출신)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다. 함평군의 공산치하 3개월은 7월 23일 오전 10시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 가진 '인민해방군 환

영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8월로 접어들면서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소위 사상학습이 시작되어 농사(農事)에 시달린 농민들은 졸음 속에 자아비판이라는 생소한 용어(用語)를 익히느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9월 중순부터 날마다 '노력동원'이 강행되었다. 평양까지 연결된다는 참호파기 작업에 동원된 것이다. 참호파기 작업동원과 병행하여 현물세(現物稅) 자료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수수·콩·벼의 낱알 수를 세는 현물세 기초 자료조사에 농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또 불순분자 검거선풍이 불었다. 숨 돌릴 사이도 없는 3개월의 공산치하에 군민들은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불평 불만자는 반동이라는 억압에 모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8월 2일 사상(史上) 처음으로 함평공원에서 인민재판이라는 피의 숙청이 시작되었다. 가구마다 1명 이상 참석하라는 강제동원령에 따라 모인 군중은 곳곳에 끼어있는 붉은 완장들의 눈치를 살피며 '죽입시다.' '옳소'를 외치며 강압에 의해 동조해야 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20여명으로 죄상은 '악질반동'이었다. 12명이 그들의 각본대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군중들의 주시 속에 총살되었다.
이 재판이 있은 후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다. 8월 초순부터면 인민위원회·민청(民靑)·부녀동맹·소년단·조국보위후원회 등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치보위부는 우익인사(右翼人士) 일제검거에 착수했다. 정치보위부는 북에서 내려온 정규요원과 지방 좌익의 정보원(情報員)으로 구성되었다.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존재였고 이들에 의해 끌려 갔다하면 목숨을 잃거나 반 주검 상태가 되어 풀려났다. 내무서는 유치장은 물론이고 창고까지 검거된 반동분자(?)로 꽉 찼다. 이들 중 죄질이 크다고 판정된 사람은 광주교화소(光州敎化所, 우리 제도의 교도소)로 이감(移監)됐는데 함평에서는 2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함평읍 내교리 출신 김제광(金濟光)등 다수가 끌려갔다.
이렇게 각 군에서 이감된 수효가 8월 중순경 200명을 돌파했다는 당시의 기록이 있다.[7] 내무서 유치장, 광주교화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찬과 밥은 암염(岩鹽) 한 톨에 주먹크기의 밀밥 한 덩어리였고 감방은 비좁다 못해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1950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그 폭염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감방의 환경은 생지옥이란 표현이 알맞았다. 그들의 소위 광주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9월 하순에 석방한다는 선전과는 달리 무더기로 호명되어 나간 후 집단 학살되었다. 9월 28일 밤 9시 그들이 철수하여 입산(入山)한 공백을 틈타 대한구국회와 대한청년단 결사대가 형무소 정문을 부수고 수감자들을 구출하였다.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함평의 김제광은 함평이 아직도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귀향했다가 다시 그들에게 붙잡혀 학살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여기서 언급해야할 것은 6·25한국전쟁 당시 좌익들에 의해 우익인사들을 포함한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민공화국 통치시기를 전후해서 2,000여명에 가까운 우익인사 또는 민간인들이 학살됐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군경에 의해 좌익이나 민간인이 학살당

7) 『광주시사,』 제2권, 1980, 558쪽.

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밝혀지겠지만[8] 우선 1952년 공보처가 작성한 명단을 보면 함평군에서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1,954명이나 된다. 1952년 3월 31일자로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피살자명부』에는 전국적으로 5만 9,964명의 피살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명단에는 개중에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도 더러 눈에 띠었지만 주로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 명부는 월간조선사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재편집하여 별도로 김성동 기자의 '영광 대학살의 현장을 가다'라는 영광군 현장 르포기사와 함께 김광동 박사의 『6·25피살자명부』 분석기사와 함께 2003년 1· 2권으로 발행되었다.

이 명단은 6·25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李美一)가 납북자 명부를 찾는 과정에서 함께 발견됐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이 명부에는 5만 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발견된 피살자명부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에도 동일한 문건이 소장돼 있으며 통계청도 명부의 일부인 서울과 경기도 지역 피살자 명단을 소장하고 있다. 이 명부의 정식 명칭은 『6·25피살자명부』이며 작성기관은 공보처 통계국, 작성일자는 1952년 3월 31일이다. 명부는 성명·성별·연령·직업·피해연월일·피해 장소·본적·주소 등 8개 항목으로 피살자들의 신원을 기록해놓고 있다. 명부는 피살자들을 각 시·도별로 구분한 다음 군(郡)이나 구(區)별로 세분화하여 피해가 많은 성씨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 명부 범례(凡例)에 '6·25사변 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군경을 제외한 비(非)전투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우익인사 또는 민간인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만 9,964명의 피살자 가운데 전라남도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 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5,603명, 충청남도 3,680명, 경기도 2,536명, 서울시 1,383명, 강원도 1,216명 순이었다. 그 외 경상남도 689명, 충청북도 633명, 경상북도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 피해자 중 남자는 4만 4,008명, 여자가 1만 5,956명이다. 여성피살자 1만 5,956명 가운데 1만 3,946명이 전라남도지역에서 피살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전남지역 피살자 4만 3,5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이는 당시 영광군 인구 13만 1,065명의 16.1%가 넘는 숫자다. 더욱이 영광지역 여성 피살자 7,914명은 전국 여성피살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특히 놀라운 것은 10세 이하 어린이 피살자가 전체 피살자 2만 1,225명의 12%인 2,5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영광군 인근지역의 피해도 컸다. 전북지역 피살자 5,603명 중 2,364명이 피살된 고창은 행정구역상 전북이지만 영광군과 이웃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전남지역으로 영광군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함평군에서는 1,954명, 장성군에서는 4,306명이고 바로

[8]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과거사정리 작업에 참여했던 필자는 당시 군경들에게 희생된 사람뿐만 아니라 좌익들에게 희생된 우익인사 유가족들에게도 신고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었다. 그러나 많은 유가족들이 신고하면 '무어 하느냐' 며 기피했다. 그래도 소수이지만 신고자가 있어 이를 토대로 좌익에 의해 희생된 우익인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필자가 놀란 것은 이웃인 영광군에서는 군경 또는 우익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6,000여명이고 좌익에 의해 희생된 우익 또는 민간인들이 2만 1,225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가까운 나주군(나주시)에서도 3,596명이 피살되었고 여기서 먼 영암군에서는 7,175명이나 희생되었다. 영광군 내 피살자들의 피살 시기는 1950년 6월부터 1951년 2월사이었다. 영광에 인민군이 진입한 시기는 1950년 7월 23일이고 빨치산토벌이 완료된 시기는 1951년 2월 20일임을 감안하면 인민군이 진입하기 이전부터 지방토착 좌익들에 의한 학살이 이미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1952년 10월에 작성된 『대한민국통계년감』에는 납북자 수를 8만 2,959명, 피살자수를 12만 2,799명으로 적고 있어 5만 9,964명의 피살자 명단 이외 남은 6만 2,835명의 명단이 어딘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9)]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함평군에서 좌익에 의해 피살된 1,954명에 대한 피살과정이나 사실에 대한 증언 또는 기록의 발견이 시급하다. 이 명부에 의하면 당시 나산면에서 희생된 사람이 310명이었다. 필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나산면 나산리에서 거주하던 김재길(金再吉·당시 43세)은 우마차를 운행해 화물을 실어다주고 받은 운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가난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무지한 사람이었는데도 우마차에 실은 남의 곡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익들에게 붙잡혀 나산교(羅山橋) 아래 강변에서 죽창에 찔리고 집단으로 던져진 돌멩이를 맞아 피살당했다. 또한 전복용(全福用·27세) 복순(福順·24세) 형제는 형이 대한청년단장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진실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함평 수복과 공비 소탕

국군과 경찰부대가 함평을 수복한 것은 1950년 10월 23일이다. 만 3개월만의 일이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인민공화국 치하를 겪은 것이다.

함평에서 철수한 함평경찰은 순천을 거쳐 여수로 집결, 7월 23일 다른 지역의 경찰과 함께 부산으로 후퇴했다. 부산에 도착한 전남경찰은 부산소방서 건물에 입주하였고 '전남경찰국' '전남경찰전투훈련소'라는 현판을 내걸었다. 이어 심순택(沈淳澤) 국장이 부임했고 피란민 중에서 경찰관 희망자를 신규 채용하여 병력을 증강했다. 부산 피란초기에는 일선에 배치된 미군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대원이 2,000명이 넘자 본부를 동래(東萊)의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魚寺)로 옮긴 후 마산(馬山)에 일선 지휘부를 설치하고 낙동강 방어전선에 참여하였다.

한편 화순·장흥·해남·진도·영암·나주·완도·무안과 함평경찰의 일부는 남부지구지휘소라는 이름아래 완도에 거점을 확보하고 공산군과 싸우다가 거문도(巨文島)에 집결, 유격전을 펼쳤다. 반격전이 전개된 이후인 10월 1일 심순택 국장이 이끈 전남경찰부대는 마산을 출발하여 이날 구례·곡성·순천·광양을 수복하였고 10월 3일에는 남원에서 미군 1개 소대와 함께 출동, 담양을 거쳐 광주를 수복하였다. 오후 6시였다.

또한 거문도에 집결해 있던 남부지구 경찰부대는 10월 1일 여수에 상륙했고 목포·진도·해남·완도·장흥·고흥·함평경찰은 배편으로 각각 자기 본대(本隊)지역을 향해 떠났다. 목포에

9) 김성동, 「靈光 대학살의 현장을 가다」, 월간조선사, 『6·25피살자명단』, 2003. 재인용.

다다른 함평경찰은 10월 19일 열차 편으로 학교역에 이르러 큰 교전 없이 정오경(正午頃) 함평경찰서에 도착,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수복했다. 그러나 이날 진주한 경찰은 15명가량이어서 야간이면 기습해 올지도 모르는 공산군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열세였다. 유치장에 감금된 일부 인사와 일부 우익인사 가족들을 피신케 한 다음 석양 무렵 무안 쪽으로 후퇴했다. 7시경 산으로 도주했던 좌익들이 다시 읍내로 잠입했다가 경찰부대가 후퇴한 것을 알고 나자 기산봉을 비롯한 이웃 각 산봉우리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등 기승을 올렸다. 밤 10시경 어둠에 쌓였던 함평읍내가 갑자기 불야성을 이루었다. 공산주의자들이 함평경찰서와 군청으로 사용하고 있던 옛 동헌·금융조합·함평천주교회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우익인사 4명을 다시 감금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는 잔악성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진주했다 다시 철수한 다음 날인 20일경부터 이들의 행동은 가히 발악적이었다. 참호파기운동은 물론 양민을 동반한 입산계획을 진행했다. 드디어 10월 23일 오전 제11사단 제20연대 병력이 내교리 외대화마을 앞의 고두재를 넘어 함평읍에 진주했다. 이어 제2진이 속칭 거멍다리를 통과해 영광 쪽으로 향했다. 함평읍내가 완전 수복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잔류 공산군과 지방 동조자들은 양민을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입산하였다. 손불면 군유산에서 양민이 많이 학살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함평을 수복한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는 대구에서 호남수복을 위해 새로 창설된 부대였다. 연대장은 여순반란사건 진압 때부터 인연을 맺은 박기병(朴基丙) 대령이었다. 전남지구전투사령부 역할을 담당한 제20연대는 10월 15일 광주에 진주하여 준동하는 공비소탕은 물론 미수복지 탈환에 투입됐다. 특히 1951년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당시 공산군 서남지구사령부 역할을 하던 불갑산에서 '대보름작전'을 벌여 완전히 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갑산 토벌작전을 벌이기 전인 1950년 12월 5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제20연대 예하 제5중대가 월야·해보·나산 등 3개면에서 공비를 토벌한다면서 아무 죄도 없는 5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10] 또한 불갑산에 입산했다가 대보름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과 수복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11] 10월 30일 영광이 수복돼 전남지역 군청소재지는 완전히 수복되었으나 불갑산을 비롯해 지리산 등 산악지대는 미 수복 상태였다. 함평이 수복되던 10월 23일 국군은 이미 평북의 정주(定州)와 초산(楚山), 함남의 단천(端川)까지 북상하고 있었다.



학교역원들의 순직 추도비

10) 다음 제5절 함평양민학살사건 참조.

11)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에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2007년 7월 3일(제5중대 사건, 249명)·2008년 12월 23일(불갑산 사건, 90명)·2008년 4월 4일(수복작전과정, 52명), 그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졌다.

1) 학교역원(鶴橋驛員)들의 순직(殉職)

1950년 10월 3일 전남경찰대가 광주를 수복하고 이어 각 군(郡)의 경찰대가 각기 자기 군에 진주하자 공비들은 10월 3일 군·경의 철도에 의한 수송이동을 막기 위해 학교역과 사창(社倉)역 사이에 있는 엄다면 영흥리 앞의 철교를 폭파시켜버렸다. 당시 학교역 보선사무소(保線事務所) 보선 조역(保線助役)으로 근무하던 학교면 학교리 출신 김문화(金文和)가 국도의 혈맥이 끊긴 것을 안타까워하며 복구계획을 세웠다. 이 때 학교역의 사정은 낮에는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공백기가 되고 밤이면 지방좌익들이 들끓는 인공 시기나 다름없었다.

김문화는 수장기원(手長技員) 장영식(張永植)·조수기사(助手技士) 김기홍(金基洪)·기원(技員) 정종태(鄭鍾太)·조역서기(助役書記) 고병대(高炳大)와 힘을 합쳐 폭파된 선로를 보수해 10월 19일 함평 경찰대와 그 외 철도수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격분한 공비들은 일단 수복했던 경찰이 다시 후퇴한 19일 밤 복구공사를 한 위의 5명을 경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 대동면 덕산리 외덕마을 앞 구릉에서 무참하게 처단해버렸다.

1951년 10월 20일 학교역구내에 이들의 순직을 추도하는 추도비가 세워졌고 보선사무소 전 직원들이 추모제를 계속 봉행해오고 있다. 10월 23일 함평군 일부지역이 수복되었으나 수복 후의 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불갑산으로 피해간 공비들이 밤이면 각 읍·면의 지서를 습격하고 민가에 들어와 식량을 약탈해가기 때문이었다. 불갑산에서 군유산을 거쳐 영광군 백수면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는 공비의 아성이 되어있었다.

특히 불갑산의 공비는 더욱 발호했다. 당시 전남지방에 잔존해 있던 공비는 인민군, 치안대, 내무서원, 유격대를 망라하여 5만 7,000여명에 이르렀고 그중 1만 2,000여명은 야포·박격포·기관총·다발총·소총(주로 딱꿍총, 쏘면 딱쿵소리를 내기에 붙여진 별명)으로 무장하고 있었다.[12]

불갑산 공비를 소탕하는 '대보름작전'은 1951년 2월 20일 시작되어 3월 25일 끝났다. 2월초 향교다리(현, 영수교)에서 노획된 전리품과 생포자를 군민에게 전시하였다. 이후 함평은 평온을 되찾았다.

6·25전쟁 동안 함평출신 인사 중 지휘관으로 전공을 세운 사람은 엄다면 출신 김두천(金斗千) 경감이다. 그는 전남경찰이 후퇴하고 있을 때 완도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200여 경찰관과 지방 애국청년 100여명을 규합해 인민군 또는 무장유격대에 대항하였다. 9월 20일에는 완도의 조약도(助藥島)에서 적에게 몰려 궁지에 빠져있는 낙오경찰관을 구출하는 작전을 전개해 15명을 구출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13]

2) 함평경찰대

함평경찰대는 1951년 7월 29일 장흥군의 덕룡산(德龍山)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용전분투했다. 이 때 참가한 경찰대는 함평경찰대를 비롯한 나주·화순·보성·영암·장흥·강진·광주·목포·무안·벌교·고

12) 전남지역 공비 5만 7,000명, 완전무장공비 1만 2,000명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으로 다음 절을 참조바람.
13) 『전남도지』 1권, 1982, 1069~1071쪽.

흥·해남부대로 1,560명이었다. 전과는 적 사살 6명, 생포는 장흥군 유치면 일대를 주름잡던 소위 제3지구 민청연대 사령관을 비롯한 18명이었다. 36개의 아지트도 폭파했다.
이어 함평경찰대는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전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분전하여 공을 세웠다. 공비토벌작전을 마칠 때까지 함평경찰대 소속으로 있다가 전사한 사람은 전남경찰의 총 2,799명 중 113명이다.[14]

4. 6·25 전쟁의 호국영령 명단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박복동	애국단체	한청원	1950.11.16	함평읍 장년리 208-1	손태중	애국단체	한청원	11950.11.18	함평읍 석성리 57
박동출	육 군	일 병	1950.11.25	〃 함평리 56	김종구	〃	〃	1950.10.05	〃 기각리 918
박판동	〃	상 병	1952.10.16	〃 장교리 45	김용호	육 군	이 병	1951.11.18	〃 〃 791-1
이대수	애국단체	구련원	1950.10.27	〃 내교리	구장현	애국단체	애국청년	1950.11.21	〃 〃 776
강남용	〃	한청원	1950.08.20	〃 함평리 14	유재국	〃	〃	1950.08.08	〃 〃 689
김대자	〃	〃	1951.06.13	〃 함평리 258	나기이	〃	〃	1950.11.16	〃 개동리 226
최병길	〃	〃	1950.10.30	〃 장교리 754	김재관	〃	〃	1950.10.17	〃 기각리 902
이재선	〃	〃	1950.12.14	〃 함평리 372	이재복	〃	한청원	1950.07.28	〃 함평리 372
김옥상	육 군	상 병	1953.06.12	〃 내교리 664	김기석	의 경	의 경	1951.01.25	〃 〃 28-1
이종금	〃	〃	1951.10.20	〃 장교리 335	김석순	〃	〃	1950.07.13	〃 〃 103
김상환	애국단체	한청원	1950.10.24	〃 기각리 359	김용연	육 군	일 병	1953.02.18	〃 장교리 781
김영래	경 찰	경 사	1950.07.21	〃 옥산리 523	김판식	경 찰	순 경	1953.10.03	〃 기각리
김형수	육 군	상 병	1953.07.19	〃 기각리 781-6	이동현	육 군	일 병	1950.06.25	〃 성남리 394
조세현	경 찰	경 사	1950.08.31	〃 수호리 454	정모남	〃	상 병	1952.07.30	〃 장년리
김석순	육 군	이 병	1951.07.11	〃 기각리 715	이계홍	〃	〃	1951.06.18	〃 기각리
홍윤수	〃	병 장	1953.06.12	〃 기각리 997-3	김종기	〃	중 사	1952.09.24	〃 석성리 447
주천석	〃	상 병	1950.12.16	〃 함평리 90	박용두	〃	상 병	1951.10.12	〃 〃 614
박병우	〃	일 병	1950.06.13	〃 옥산리 638	이일행	〃	〃	1950.06.25	〃 성남리 247
유대순	〃	〃	1950.10.18	〃 내교리 95	이주범	경 찰	순 경	1950.07.26	〃 기각리 891
김대성	애국단체	애청단원	1950.11.16	〃 석성리 442	황대성	애국단체	애청원	1950.10.13	〃 장년리 709
박병수	〃	〃	1950.11.16	〃 적성리 152	박병철	〃	〃	1950.11.30	〃 석성리 144
임인림	〃	〃	1950.12.13	〃 내교리 989	김의창	〃	〃	1950.10.12	〃 장교리 772
김영식	소방대	대 원	1950.12.07	〃 내교리 214-1	김정근	〃	〃	1950.11.16	〃 만흥리 466
김송모	육 군	하 사	1952.09.24	〃 옥산리 706	문효덕	〃	단 원	1950.12.23	〃 내교리 310
김길수	애국단체	공무원	1950.10.10	손불면 궁산리 296	김용현	〃	한청원	1950.11.16	〃 장년리 209
김만병	경 찰	순 경	1949.04.24	〃 대전리 71	박옥동	육 군	징 용	1953.06.20	손불면 북성리 224
전정균	〃	〃	1951.07.01	〃 산남리 675	박양규	〃	병 장	1953.08.07	〃 〃 149
이현용	육 군	일 병	1952.04.23	〃 양재리 758	이석하	〃	〃	1953.01.14	〃 죽장리 349
김성배	경 찰	순 경	1950.07.26	〃 대전리 411	이정범	〃	하 사	1950.11.27	〃 〃 340

14) 『전남도지』 1권, 1982, 1079쪽.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이사범	육 군	일 병	1953.03.30	〃 월천리 195	이정규	〃	병 장	1953.05.28	〃 북성리 687
장병일	〃	병 장	1952.11.05	〃 월천리 1038	장익선	〃	상 병	1952.09.16	〃 석창리 292
김열재	〃	이 병	1954.04.30	〃 궁산리 330	강정학	〃	하 사	1950.11.27	〃 산남리 225
김길채	육 군	일 병	1950.09.20	손불면 산남리 14	김생진	육 군	일 병	1950.06.26	손불면 학산리 665
노희영	〃	병 장	1953.06.20	〃 〃 914	김영택	〃	〃	1950.07.02	〃 산남리 131
김홍남	애국단체	단 원	1950.04.24	〃 대전리 477	임인택	애국단체	단 원	1949.04.24	〃 대전리 447
김두용	〃	〃	1950.10.26	〃 산남리 139	조병옥	〃	노무자	1953.06.22	〃 산남리 412
박병순	〃	한청원	1950.10.25	〃 궁산리	이수행	육 군	일 병	1950.05.30	〃 동암리 476
이옥순	육 군	일 병	1952.07.02	〃 석창리 354	양실옥	애국단체	단 원	1950.09.26	〃 대전리 389
김영인	애국단체	한청원	1950.11.05	〃 산남리 132	주귀철	육 군	상 병	1950.10.12	신광면 송사리 593
배상기	〃	단 원	1950.11.17	신광면 유천리 76	김채옥	〃	상 병	1953.03.19	〃 동정리 648
이창곤	육 군	하 사	1950.11.08	〃 원산리 634	이정행	〃	병 장	1952.08.24	〃 함정리 203
양한식	〃	병 장	1953.05.16	〃 백운리 235	장원형	〃	상 병	1953.10.20	〃 계천리 295
임수택	〃	일 병	1951.11.25	〃 복흥리 686	유병기	애국단체	단 원	1950.12.25	〃 함정리 2
윤갑병	애국단체	애청원	1950.10.03	〃 삼덕리 201	모영근	육 군	일 병	1953.12.03	〃 삼덕리 491
양중석	육 군	상 병	1953.08.31	학교면 월호리 663	한상남	〃	상 병	1950.09.23	학교면 고막리 53
김복순	〃	일 병	1951.08.29	〃 사거리 776	김기홍	애국단체	단 원	1950.10.20	〃 학교리 642
정종섭	애국단체	애청원	1950.10.14	〃 학교리 644	박균도	경 찰	경 사	1951.09.14	〃 곡창리 523
김동현	육 군	병 장	1951.10.05	〃 백호리 793	장수연	〃	순 경	1952.07.04	〃 〃 276
양태백	경 찰	〃	1951.07.26	〃 월호리 430	노관수	육 군	병 장	1951.10.06	〃 복천리 325
양승용	〃	순 경	1951.07.26	〃 월호리 430	이남신	〃	〃	1950.06.25	〃 학교리 526
김태현	육 군	〃	1953.07.16	〃 곡창리 295	신광호	〃	〃	1953.05.31	〃 사거리 391
조수형	〃	병 장	1952.10.07	〃 사거리 178	나병규	〃	하 사	1953.06.13	〃 학교리 878
정형채	〃	상 병	1952.06.22	〃 금송리 733	김홍영	〃	상 병	1953.07.16	〃 〃 441
김동근	〃	일 병	1950.10.08	〃 곡창리 219	김유택	〃	일 병	1950.06.30	〃 마산리 209
양현식	〃	〃	1953.07.14	〃 월호리 662	차덕재	〃	병 장	1952.09.07	〃 사거리 452
지철상	애국단체	애청원	1951.06.01	〃 사거리 775	정종태	애국단체	단 원	1950.10.20	〃 학교리 638
박성금	〃	연락원	1951.10.15	〃 학교리 878	윤현중	〃	징 용	1952.09.10	〃 상옥리 301
장기수	육 군	일 병	1950.10.09	엄다면 송로리 1001	김용달	〃	단 원	1950.11.28	엄다면 신계리 653
박수일	노 무	노무자	1951.12.12	〃 〃 713	최병대	육 군	일 병	1950.05.06	〃 송로리 449
정영기	육 군	하 사	1952.06.13	〃 신계리 246	김원구	〃	하 사	1950.06.25	〃 신계리 682
천승옥	〃	이 병	1950.12.29	〃 엄다리 220	황규봉	〃	일 병	1950.07.25	〃 엄다리 572
최달용	애국단체	단 원	1951.05.16	〃 화양리	정기석	애국단체	한청원	1950.11.07	〃 〃 758
강호인	육 군	병 장	1952.10.22	〃 〃 976	노동환	경 찰	순 경	1953.07.18	〃 영흥리 580
한석천	〃	하 사	1951.08.24	대동면 강운리 668	유성욱	육 군	〃	1952.06.08	대동면 금산리 노적
이행춘	애국단체	한청원	1951.11.20	〃 용성리 902	김화봉	소 방 대	대 원	1951.10.27	〃 용성리 692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이복인	소방대	대 원	1950.10.24	〃 강운리 685	한영수	육 군	상 병	1953.01.07	〃 강운리 681
조종태	애국단체	한청원	1950.10.30	〃 향교리 893	심권섭	〃	일 병	1953.06.17	〃 운교리 26
노별양	육 군	상 병	1950.06.25	〃 〃 1007	이정만	경 찰	순 경	1954.05.24	〃 강운리 673
오규현	육 군	상 병	1953.04.04	대동면 월송리 486	최국진	육 군	일 병	1950.07.29	대동면 서호리 197
박영복	〃	일 병	1952.01.01	〃 용성리 693	박이자	〃		1950.02.22	〃 향교리 594
이계홍	〃	상 병	1951.09.22	〃 금산리 313	임봉술	〃	이 병	1953.08.14	〃 〃 552
노희영	〃	병 장	1953.06.12	〃 〃 984	박병순	〃	상 병	1950.10.30	〃 〃 604
조윤식	노무자	노무자	1952.02.09	〃 강운리 343	임기순	〃	일 병	1953.10.27	〃 백호리 794
이봉례	육 군	병 장	1954.04.29	〃 백호리 639	이정국	경 찰	순 경	1952.04.17	〃 강운리 666
서중권	〃	중 사	1950.09.07	〃 향교리 603	이화섭	육 군	상 병	1953.11.04	〃 서호리 355
안양수	애국단체	한청원	1951.01.25	나산면 나산리 298	이종분	〃	일 병	1952.03.01	나산면 덕림리 557
안동수	〃		1949.02.03	〃 수상리 381	이판용	애국단체	한청원	1951.10.24	〃 〃 522
남상열	육 군	병 장	1953.07.05	〃 수하리 146	김양수	육 군	〃	1952.04.21	〃 〃 73
신성호	〃	일 병	1953.07.11	〃 나산리 79	강정희	경 찰	순 경	1950.09.20	〃 수하리 357
이용행	〃	상 병	1953.07.21	〃 초포리 614	백남철	〃		1949.10.10	〃 우치리 486
최우현	〃		1950.11.27	〃 삼축리 265	정태원	육 군	일 병	1952.10.02	〃 월봉리 370
이재삼	〃	일 병	1953.10.20	〃 초포리 509	조대섭	〃		1952.11.04	〃 신평리 320
안종오	〃	상 병	1951.03.01	〃 송암리 232	김철옥	〃	병 장	1953.04.02	〃 용두리 117
안기진	〃		1953.07.16	〃 나산리 464	이춘길	애국단체	애청원	1950.10.30	〃 삼축리 303
노응운	애국단체	애청원	1951.02.10	〃 구산리 237	이형남	〃	한청원	1950.09.17	〃 〃 308
이두경	〃	한청원	1949.03.09	〃 삼축리 219	정병수	육 군	병 장	1952.10.02	〃 수상리 765
정동범	육 군	일 병	1952.01.14	해보면 금계리 293	이간우	애국단체	애청원	1950.11.29	〃 덕림리 215
이계용	애국단체	한청원	1951.02.03	〃 문장리 385	박상현	경 찰	경 사	1950.07.10	해보면 금덕리 407
윤중연	육 군	상 병	1953.07.24	〃 용산리 386	박상범	애국단체	한청원	1950.07.10	〃 〃
강천수	경 찰	순 경	1952.07.25	〃 금덕리 구계	정기원	육 군	일 병	1953.08.15	〃 해보리 603
윤상남	육 군	상 병	1952.08.29	〃 용산리 120	채만석	〃	이 병	1950.11.01	〃 대창리 499
윤석록	〃	일 병	1953.12.08	〃 상곡리 230	안승환	〃	일 병	1953.03.05	〃 용산리 1037
윤석례	애국단원	한청원	1950.12.16	〃 〃 448	임성택	애국단체	한청원	1950.09.20	〃 문장리 124
정영병	〃		1951.02.01	〃 문장리 422	박준구	육 군	노 무	1953.07.14	월야면 용정리 181
장재석	경 찰	순 경	1950.11.03	월야면 월악리 250	정동채	〃	일 병	1952.01.15	〃 월악리
장규종	육 군	상 병	1952.09.13	〃 정산리 839	정재신	〃		1950.08.15	〃 〃
안종학	애국단체	단 원	1951.12.08	〃 예덕리	정판석	노 무	노 무	1951.03.12	〃 외치리 197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성 명	군 별	계 급	전사일자	주 소
임천기	〃	한청원	1950.02.02	〃 〃	이돈식	애국단체	단 원	1950.10.30	대동면 덕산리 114
한종환	육 군	상 병	1951.12.23	대동면 강운리 681	정보연	육 군	일 병	1952.09.27	나산면 우치리 492
이오범	〃	일 병	1950.06.25	나산면 초포리 653					

※ 원호금 지급자에 한함.

5. 함평지역 적대(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하고 2003년 6월 10일 월간조선사가 발행한 『6·25事變 被殺者 名簿』에 의하면 1948년 5월부터 1951년 2월 사이 함평군 내에서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2,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좌익 특히 지방좌익들에 의해 감정적 보복대상으로 여겨져 살해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나산면 김 모(당시 42세)는 마차를 운행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 운임을 받고 수송하던 쌀을 무조건 달라 고 했다가 불응하자 붙잡아다가 나산교 아래에서 죽창과 돌멩이로 살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남의 쌀을 마음대로 줄 수 없는데도 무조건 달라는 무경우가 살인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렇게 많은 숫자가 희생됐는데도 이번에 진실이 규명돼 명예가 회복 된 사람은 겨우 137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하면서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는데도 홍보부족과 신청의 기피로 인해 신청자가 겨우 94명에 불과했었다. 물론 이번 진실규명은 2010년 4월까지 한정되어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간의 한계로 인해 미신청자에 대한 규명작업이 불가능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조금 더 연장된다면 더 많은 진실규명이 가능할 터이다. 이점이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1948. 5월~1951. 2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추정하였다.

신청인 안명환 등 62명은 1948. 5월~1951. 2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박남례 일가 등 총 94명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1948. 5월~1951. 2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등 8개 읍·면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 43명 등, 총 137명이 희생당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희생자 137명 중, 진실규명대상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은 시신수습이 되었고 희생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고 희생 장소 및 시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 진실규명대상자 희생사실 확인(83명) :

고판문(高判文, 마-2867), 권승일(權承一, 마-10819), 김덕근(金德根, 마-6122),
김덕봉(金德奉, 마-1107), 김도보(金嶋甫, 마-3929), 김도보의 아기 (김○○,
마-3929), 김병식(金炳植, 마-10798), 김봉옥(金奉玉, 마-10800),
김상옥(金相玉, 마-2611), 김성옥(金成玉, 마-4422), 김소녀(金小女, 마-4507),
김순례(金順禮, 마-5100), 김순영(金順令, 마-710), 김양섭(金良燮, 마-3929),
김업례(金業禮, 마-3929), 김연수(金演洙, 마-4421), 김영목(金永睦, 마-710),
김영자(金永子, 마-710), 김용자(金龍子, 마-710), 김재근(金在根, 마-1050),
김재길(金在吉, 마-7959), 김종순(金宗順, 마-2236), 김종열(金宗烈, 마-4938),
김종현(金宗鉉, 마-8001), 김팔현(金八鉉, 마-4942), 김한중(金漢中, 마-2610),
김해용(金海龍, 마-710), 김홍식(金洪植, 마-4278), 나남산(羅南山, 마-3644),
나복상(羅福相, 마-4983), 나복상의 부인 (성명불상, 마-4983), 노점돌(盧点突, 마-7561),
나순임(羅順任, 마-4983), 노대진(盧大津, 마-1444),
박남례(朴南禮, 마-710), 박동근(朴東根, 마-2239), 박봉훤(朴奉暄, 마-2234),
박재섭(朴在燮, 마-1053), 박점오(朴占五, 마-4946), 박현채(朴顯采, 마-4569),
배전도(裵屇桃, 마-3624(1)), 백남식(白南植, 마-4990), 백영록(白永錄, 마-5100),
백영순(白永淳, 마-5100), 백한봉(白漢鳳, 마-5100), 심기영(沈棋英, 마-3647(1)),
심기운(沈棋雲, 마-2617), 심기찬(沈棋燦, 마-10807), 안달수(安達洙, 마-4507),
안동순(安東淳, 마-4507), 안종성(安鍾星, 마-4507), 안종월(安鍾月, 마-4946),
안종평(安鍾平, 마-4946), 양방전(梁放田, 마-2610), 윤도이(尹倒伊, 마-4983),
윤상규(尹相奎, 마-4572), 윤상연(尹相連, 마-4570), 윤성중(尹聖重, 마-3630),
윤판중(尹判重, 마-4983), 윤일태(尹一太, 마-3919(1)), 이갑범(李甲範, 마-3644),

이민부(李民夫, 마-7752), 이백태(李伯泰, 마-1530), 이재윤(李載允, 마-3930),
이주범(李周範, 마-3644), 이직헌(李直憲, 마-10809), 이진희(李鎭熙, 마-10000),
임성환(任成煥, 마-2237), 임양수(任良守, 마-2238), 임종해(林鍾海, 마-4416),
장남용(張南龍, 마-10654), 전복순(全福順, 마-8646), 전복용(全福用, 마-8646),
정정환(鄭廷煥, 마-4571), 조낙균(曺洛均, 마-1108), 조홍원(趙洪元, 마-5106),
진막동(陳莫同, 마-3919(1)), 채두표(蔡斗杓, 마-3624(1)), 채두표의 아기 (채○○,
마-3624(1)), 최공임(崔功任, 마-4946), 최대덕(崔大德, 마-1053),
최두례(崔豆禮, 마-4983), 최오봉(崔五鳳, 마-3643)

○ 진실규명대상자 희생사실 추정(11명) :

김판순(金判順, 마-6569), 박경상(朴京相, 마-4559), 박재용(朴再容, 마-4564),
심기택(沈琪澤, 마-5030), 이내범(李乃範, 마-1445), 이일용(李一龍, 마-6569),
이정범(李正範, 마-2608), 정 수(鄭 洙, 마-6742), 정오복(鄭五福, 마-10794),
정희석(鄭熙錫, 마-6742), 조옥녀(趙玉女, 마-6529)

○ 미신청희생자 희생사실 확인(42명) :

강양원의 어머니(성명불상), 고영채, 김용기(金容琪), 김윤라, 김재섭, 김종섭,
모구원(牟九源), 모봉춘(牟封春), 모성하(牟成夏), 모평원(牟坪源), 모종원의 부인
(성명불상), 모종원(牟鍾元)의 어머니(성명불상), 모종원의 아기 (모○○), 문남평,

박삼자(朴三者), 박일규(朴一圭), 박준필(朴準弼), 서순금(徐順今), 양금석(梁今石),
윤상기(尹相基), 이경헌(李景憲), 이계성, 이계순(李啓淳), 이광헌(李光憲),
이규택(李圭澤), 이대천(李大泉), 이돈근(李敦謹), 이돈식(李敦植), 이돈표(李敦杓),
이돈형(李敦炯), 이돈형의 둘째부인 (성명불상), 이병영(李炳榮), 이재양(李載亮),
이준행(李濬行), 이충헌(李忠憲), 장성댁 박씨(이름불상), 전복순(田福順),
정여순(鄭如順), 정지모(鄭芝模), 정헌칠(鄭憲七), 정헌태(鄭憲太), 성명불상 1명

○ 미신청희생자 희생사실 추정(1명) : 박준용(朴俊用)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8년, 1949년에는 무장폭도에 의해 주로 마을이장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민군 점령기인 1950. 7~8월에는 분주소원, 지방좌익들에 의해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으로 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1950.9.28 서울수복 이후 1950. 10월 초순경에는 대동면에서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 공무원, 경찰(의용경찰),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 및 분주소원에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군 퇴각이후, 함평지역 수복상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1951. 2월 군경에 의한 대규모 토벌작전까지 인근 불갑산, 군유산 등지로 들어간 빨치산들에 의해 가족단위로 끌려가 희생당하거나, 같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여러 명 끌려가 희생당하는 사건, 마을이나 지서주변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주로 의용경찰, 공무원, 이장,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었고,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및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사 건】 마-710, 마-1107, 마-1108, 마-1444, 마-1445, 마-1530, 마-2234, 마-2236, 마-2237, 마-2608, 마-2610, 마-2611, 마-2617, 마-2867, 마-3630, 마-3644, 마-3647(1), 마-3919(1), 마-3929, 마-3930, 마-4278, 마-4416, 마-4421, 마-4422, 마-4507, 마-4559, 마-4569, 마-4570, 마-4571, 마-4572, 마-4938, 마-4942, 마-4946, 마-4983, 마-4990, 마-5030, 마-5106, 마-6122, 마-6529, 마-6569, 마-6742, 마-7561, 마-7752, 마-7959, 마-8001, 마-8646, 마-10000, 마-10654, 마-10794, 마-10798, 마-10800, 마-10807, 마-10809, 마-10819, 마-1050, 마-1053, 마-2238, 마-2239, 마-3624(1), 마-3643, 마-4564, 마-5100 등 62건

【신청인】 안명환, 김재술, 조경현, 이민행, 이재필, 조기순, 박봉주, 김맹자, 박양례, 이정순, 김가현, 김재영, 심웅섭, 고안순, 윤석근, 박종화, 심기범, 윤석주, 김상수, 이칠행, 김관식, 임만택, 김정환, 김동주, 김영임, 박계화, 박 용, 윤순자, 정병수, 윤태환, 김사열, 이자연, 안종래, 윤경중, 백두인, 심상윤, 조병율, 김병일, 조성용, 이월자, 정 견, 노병운, 조금순, 김영례, 박영임, 전철웅, 이춘하, 장이순, 정부칠, 김만택, 김은석, 심위섭, 이정순, 권오웅, 서연순, 박기권, 임경혁, 박성필, 채정자, 최점용, 박길용, 백영균 등 62명

【결정일】 2009. 10. 2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1).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인 안명환 등 62명은 2006.2.17.부터 2006.11.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후 제25차(2007.2.20.), 제29차(2007.4.17.), 제30차(2007.5.15.)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총5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그 가운데 경찰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파악되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한 사건이 1건, 가해주체 등의 불명확, 취하요구 등으로 각하결정을 한 사건이 3건이다. 그리고 2009.8~9월 집단희생조사국에서 8건의 사건이 이관되어 총 6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중 희생자가 같은 일가(一家)일 경우와 시기, 장소가 같은 경우 한 사건으로 병합하여 총 46건의 사건으로 정리하였다.[15]
사건명은 희생장소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한 후, 진실규명대상자 개인이 희생당한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을 사건명에 기재하여 '○○○ 희생사건'으로 표현하였고, 가족 또는 일가(一家)가 희생당한 사건은 가족 구성원 중 호주 또는 장남, 희생사건의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희생사건'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 또한 어디론가 끌려간 뒤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
사건배열은 사건발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이전, 인민군 점령기, 인민군 퇴각기, 인민군 퇴각 이후로 나눈 후, 각 시기에 속하는 사건을 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16]

15)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사건을 포함하면 총 48건이다.

<표 1>은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을 사건이 발생한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 62명의 신청인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는 94명이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1	마-4938	'06.8.25	김사열 (남, 15)	함평에서 구장 김종열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김종열 (金宗烈)	남 (34)	형	손불면 궁산리 김종열 희생사건	개별
2	마-2610	'06.3.22	김가현 (남,6)	함평에서 김한중 부부가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김한중 (金漢中)	남 (76)	할아버지	신광면 송사리 김상옥 일가 4명 희생사건	병합
3					양방전 (梁放田)	여 (77)	할머니		
4	마-2611	'06.3.22	김재영 (남, 출생 전)	함평에서 이장 김상옥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김상옥 (金相玉)	남 (45)	할아버지		
5	마-10800	'06.11.30	김은석 (남, 출생 전)	함평에서 김봉옥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김봉옥 (金奉玉)	남 (30)	당숙		
6	마-4990	'06.8.30	백두인 (남, 5)	함평에서 이장 백남식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백남식 (白南植)	남 (42)	아버지	손불면 학산리 백남식 희생사건	개별
7	마-4983	'06.8.30	윤경중 (남, 1937년생)	함평에서 윤판중 등 일가족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윤판중 (尹判重)	남 (1919년생)	형	대동면 상옥리 윤판중 일가 6명 희생사건[17]	개별
8					나순임 (羅順任)	여 (1924년생)	형수		
9					윤도이 (尹倒伊)	남 (1897년생)	아버지		
10					최두례 (崔豆禮)	여 (1902년생)	사돈 (윤판중의 장모)		
11					나복상 (羅福相)	남 (1930년생)	사돈 (윤판중의 처남)		
12					나복상의 부인 (성명 불상)	여 (-)	사돈 (윤판중의 처남댁)		

16) '대동면 상옥리 윤판중 일가 6명 희생사건'의 경우, 진실규명대상자 6명 가운데 윤판중과 윤판중의 부인 '나순임'은 한국전쟁 발발 후에 희생당했으나, 희생당한 6명 모두 윤판중의 가족 및 인척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병합했다.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13	마-10794	'06.11.30	정부칠 (남, 31)	함평에서 국군 정오복이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사건	정오복 (鄭五福)	남 (21)	동생	해보면 대각리 정오복 희생사건	개별
14	마-1445	'06.2.14	이재필 (남, 출생 전) *실제나이1	함평에서 이장 이내범이 빨치산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사건	이내범 (李乃範)	남 (51)	아버지	나산면 초포리 이백태, 이내범 희생사건	병합
15	마-1530	'06.2.23	조기순 (여, 17)	함평에서 이백태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이백태 (李伯泰)	남 (49)	시아버지		
16	마-8646	'06.11.30	전철웅 (남, 8)	함평에서 전복순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전복용 (全福用)	남 (26)	작은 아버지	나산면 나산다리 희생사건	병합
17					전복순 (全福順)	남 (24)	작은 아버지		
18	마-7959	'06.11.28	김영례 (여, 16)	함평에서 김재길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김재길 (金在吉)	남 (44)	아버지		
19	마-4946	'06.8.25	안종래 (남, 6)	함평에서 안종평 등 일가족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안종월 (安鍾月)	남 (24)	형		
20					안종평 (安鍾平)	남 (15)	형		
21					박점오 (朴占五)	여 (47)	어머니		
22					최공임 (崔功任)	여 (26)	형수(안종월의 부인)		
23	마-4507	'06.7.26	김영임 (여, 7)	함평에서 안종성 등 일가족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안종성 (安鍾星)	남 (62)	시아버지		
24					김소녀 (金小女)	여 (43)	시어머니		
25					안달수 (安達洙)	남 (23)	시숙		
26					안동순 (安東淳)	남 (20)	시숙		
27	마-10654	'06.11.30	장이순 (여, 출생 전)	함평에서 장남용 등 일가족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장남용 (張南龍)	남 (26)	작은아버지	월야면 월야분주소 장남용 희생사건	개별
28	마-10000	'06.11.30	이춘하 (여, 6)	함평에서 이진희가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이진희 (李鎭熙)	남 (50)	시아버지	손불면 월천리 손불간척지 이진희 희생사건	개별
29	마-4942	'06.8.25	이자연 (여, 24)	함평에서 김팔현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김팔현 (金八鉉)	남 (40)	남편	대동면 용성리 김팔현 희생사건	개별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30	마-8001	'06.11.28	박영임 (여, 출생 전)	함평에서 김종현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김종현 (金宗鉉)	남 (44)	시아버지	학교면 학다리 장터 김종현 희생사건	개별
31	마-4416	'06.7.24	임만택 (남, 7)	함평에서 임종해가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임종해 (林鍾海)	남 (31)	아버지	손불면 학산리 임종해 희생사건	개별
32	마-3644	'06.5.23	박종화 (여, 출생 전)	함평에서 이갑범 모자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이주범 (李周範)	남 (31)	시아버지의 형	손불면 죽장리 이주범 가족 3명 희생사건	개별
33					이갑범 (李甲範)	남 (28)	시아버지		
34					나남산 (羅南山)	여 (60)	시조모		
35	마-1444	'06.2.17	이민행 (남, 출생 전)	함평에서 노대진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노대진 (魯大津)	여 (57)	할머니	나산면 우치리 노대진 희생사건	개별
36	마-3919 (1)	'06.6.13	윤석주 (남, 7)	함평에서 진막동 외 1인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진막동 (陳莫同)	여 (28)	어머니	해보면 용산리 진막동, 윤일태 희생사건	개별
37					윤일태 (尹一太)	남 (25)	작은 아버지		
38	마-7752	'06.11.24	조금순 (여, 25)	함평에서 이민부가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이민부 (李民夫)	남 (30)	남편	함평읍 기각리 함평다리 이민부 희생사건	개별
39	마-3930	'06.6.13	이칠행 (남, 15)	함평에서 이재윤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이재윤 (李載允)	남 (42)	아버지	대동면 용성리 이재윤 희생사건	개별
40	마-7561	'06.11.23	노병운 (남, 14)	함평에서 노점돌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노점돌 (盧点突)	남 (43)	아버지	나산면 구산리 노점돌 희생사건	개별
41	마-10809	'06.11.30	이정순 (여, 출생 전)	함평에서 청원경찰 이직헌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이직헌 (李直憲)	남 (22)	아버지	대동면 대동분주소 희생사건	개별
42	마-4570	'06.7.31	윤순자 (여, 11)	함평에서 윤상연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윤상연 (尹相連)	남 (50)	아버지	학교면 사거리 윤상연 희생사건	개별
43	마-6569	'06.8.30	이월자 (여, 12)	함평에서 이일용 부부가 좌익세력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사건	이일용 (李一龍)	남 (34)	아버지	나산면 덕림리 이일용 부부 희생사건	개별
44					김판순 (金判順)	여 (32)	어머니		
45	마-4569	'06.7.31	박용 (남,10)	함평에서 박현채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박현채 (朴顯采)	남 (47)	아버지	학교면 사거리 박현채 희생사건	개별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46	마-4571	'06.7.31	정병수 (남, 6)	함평에서 정정환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정정환 (鄭廷煥)	남 (24)	아버지	학교면 사거리 정정환, 윤상규 희생사건	병합
47	마-4572	'06.7.31	윤태환 (남, 11)	함평에서 윤상규가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윤상규 (尹相奎)	남 (33)	아버지		
48	마-10819	'06.11.30	권오웅 (남, 24)	함평에서 권승일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권승일 (權承一)	남 (57)	아버지	대동면 향교리 권승일 희생사건	개별
49	마-3643	'06.5.23	최점용 (남, 10)	함평사건	최오봉 (崔五鳳)	남 (45)	아버지	손불면 손불지서 최오봉 희생사건	개별
50	마-710	'06.1.18	안명환 (여, 출생 전)	함평에서 박남례 등 일가족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박남례 (朴南禮)	여 (26)	시어머니	대동면 용성리 박남례 일가 6명 희생사건	개별
51					김영목 (金永睦)	남 (21)	시숙부		
52					김순영 (金順令)	여 (18)	시숙모		
53					김영자 (金永子)	여 (17)	시고모		
54					김용자 (金龍子)	여 (14)	시고모		
55					김해용 (金海龍)	남 (14)	시숙부		
56	마-4421	'06.7.24	김정환 (남, 5)	함평에서 김연수가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김연수 (金演洙)	남 (41)	할아버지	불갑사 김연수 희생사건	개별
57	마-1107	'06.2.14	김재술 (남, 13)	함평에서 김덕봉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김덕봉 (金德奉)	남 (24))	작은 아버지	신광면 원산리 덕동마을 희생사건	병합
58	마-1108	'06.2.14	조경현 (남, 16)	함평에서 조낙균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조낙균 (曺洛均)	남 (25)	형		
59	마-2234	'06.3.8	박봉주 (남, 25)	함평에서 박봉선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박봉훤 (朴奉暄)	남 (22)	동생		
60	마-2236	'06.3.8	김맹자 (여, 1)	함평에서 김종순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김종순 (金宗順)	남 (34)	아버지		
61	마-2237	'06.11.30	박양례 (여, 9)	함평에서 임성환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임성환 (任成煥)	남 (29)	시아버지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62	마-2617	'06.3.22	심웅섭 (남, 15)	함평에서 심기운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심기운 (沈棋雲)	남 (41)	아버지		
63	마-3647 (1)	'06.5.23	심기범 (남, 18)	함평에서 심기영이 인민군과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심기영 (沈棋英)	남 (34)	형		
64	마-6742	'06.11.13	정견 (남, 출생 전)	함평에서 정희석, 정 수가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사건	정희석 (鄭熙錫)	남 (33)	큰아버지	나산면 용두리 정희석, 정 수 희생사건	개별
65					정 수 (鄭 洙)	남 (25)	사촌		
66	마-5100	'06.9.8	백영균 (남, 3)	함평사건	백한봉 (白漢鳳)	남 (26)	아버지	손불면 학산리 백한봉 가족 4명 희생사건	개별
67					김순례 (金順禮)	여 (33)	어머니		
68					백영순 (白永淳)	여 (12)	누나		
69					백영록 (白永錄)	남 (9)	형		
70	마-4278	'06.7.10	김관식 (남, 23)	함평에서 김홍식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김홍식 (金洪植)	남 (20)	동생	손불면 석창리 김홍식 희생사건	개별
71	마-6122	'06.10.20	김병일 (남, 15)	함평에서 김덕근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김덕근 (金德根)	남 (44)	아버지	군유산 김덕근 희생사건	개별
72	마-10807	'06.11.30	심위섭 (남, 8)	함평에서 심기찬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심기찬 (沈棋燦)	남 (37)	큰 아버지	신광면 복흥리 심기찬 희생사건	개별
73	마-4564	'06.7.31	박길용 (남, 14)	함평사건	박재용 (朴再容)	남 (16)	형	손불면 북성리 박재용, 박경상 희생사건	병합
74	마-4559	'06.7.31	박계화 (여, 출생 전)	함평에서 박경상이 의용군으로 징집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	박경상 (朴京相)	남 (20)	아버지		
75	마-3630	'06.5.23	윤석근 (남, 20)	함평에서 윤성중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윤성중 (尹聖重)	남 (42)	아버지	해보면 산내리 윤성중 희생사건	개별
76	마-1050	'06.2.9	서연순 (여, 14)	함평 신광면 가덕 사건	김재근 (金在根)	남 (55)	시아버지	신광면 가덕리 김재근, 박동근 희생사건	병합
77	마-2239	'06.3.8	박성필 (남, 15)	함평사건	박동근 (朴東根)	남 (39)	아버지		
78	마-1053	'06.2.9	박기권 (남, 9)	6.25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	박재섭 (朴在燮)	남 (60)	아버지	대동면 대동저수지 희생사건	병합
79					최대덕 (崔大德)	여 (54)	어머니		

연번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80	마-2238	'06.3.8	임경혁 (남, 21)	함평사건	임양수 (任良守)	남 (56)	아버지		
81	마-5106	'06.9.8	조병율 (남, 12)	함평에서 조홍원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조홍원 (趙洪元)	남 (56)	아버지	대동면 덕산리 조홍원 희생사건	개별
82	마-2867	'06.4.7	고안순 (여, 16)	함평에서 고판문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고판문 (高判文)	남 (45)	아버지	나산면 삼축리 고판문 희생사건	개별
83	마-4422	'06.7.24	김동주 (남, 6)	함평에서 김성옥이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김성옥 (金成玉)	남 (27)	아버지	손불면 주포 김성옥 희생사건	개별
84	마-3929	'06.6.13	김상수 (남, 3)	함평에서 김도보 등 일가족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김도보 (金嶋甫)	남 (38)	아버지	손불면 북성리 김도보 가족 4명 희생사건	개별
85					김업례 (金業禮)	여 (35)	어머니		
86					김양섭 (金良燮)	남 (15)	형		
87					김○○	–	동생		
88	마-5030	'06.8.31	심상윤 (남, 15)	함평에서 심기택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심기택 (沈琪澤)	남 (42)	아버지	신광면 복흥리 심기택 희생사건	개별
89	마-6529	'06.11.3	조성용 (남, 11)	함평에서 조옥녀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조옥녀 (趙玉女)	여 (20)	누나	대동면 용성리 조옥녀 희생사건	개별
90	마-2608	'06.3.22	이정순 (여, 13)	함평에서 이정범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이정범 (李正範)	남 (21)	오빠	나산면 초포리 이정범 희생사건	개별
91	마-10798	'06.11.30	김만택 (남, 7)	함평에서 김병식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	김병식 (金炳植)	남 (29)	아버지	해보면 용천사 김병식 희생사건	개별
92	마-3614 (1)	'06.5.23	채정자 (여, 10)	함평11사단 사건	채두표 (蔡斗杓)	남 (43)	아버지	함평군 군유산 채두표 가족 3명 희생사건	개별
93					배전도 (裵届桃)	여 (42)	어머니		
94					채○○	생후2주	동생		

나. 신청내용

신청인 안명환 등 62명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

17) 진실규명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별과 당시 나이를 기재하였으나, '대동면 상옥리 윤도이 등 희생사건'은 희생시기가 한국전쟁 발발 전과 후로 나뉘므로 이 경우에만 출생연도로 표기하였다.

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진술조사는 신청인 62명 중 52명[18]을 대상으로 희생시기, 희생장소 등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신청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신청내용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1	마-4938	김사열 (남, 15)	손불면 궁산리 김종열 희생사건	시신목격	1948.5.23. 마을 이장이던 형 김종열이 돈을 요구하러 온 빨치산들에 의해 총살당함
2	마-2610	김가현 (남, 6)	신광면 송사리 김상옥 일가 4명 희생사건	전문	1948.8.3.지방좌익에 의해 할아버지 김한중, 할머니 양방전이 몽둥이에 맞아 희생당함
3	마-2611	김재영 (남, 출생 전)		전문	1948.8.3.지방좌익에 의해 이장이던 할아버지 김상옥이 집에서 칼과 몽둥이에 맞아 희생당함
4	마-10800	김은석 (남, 출생 전)		전문	1948.8.3. 지방좌익에 의해 당숙 김봉옥이 같은 집안이던 이장 김상옥의 집에서 희생당함
5	마-4990	백두인 (남, 5)	손불면 학산리 백남식 희생사건	전문	1948.12.18 이장이던 아버지 백남식이 지방좌익에 의해 손불면 학산리 지호마을 공동우물터에서 총살당함
6	마-4983	윤경중 (남, 1937년생)	대동면 상옥리 윤판중 일가 희생사건	현장목격	1949.7.21.지방폭도들에 의해 아버지 윤도이, 사돈 나복상 등이 상옥리의 집에서 희생당하고,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 형 윤판중은 함평경찰서에서, 형수 나순임은 상옥리 앞 냇가에 수장당함
7	마-1445	이재필 (남, 출생 전)	나산면 초포리 이백태, 이내범 희생사건	전문	1950.10.20. 나산면 초포리에 거주하던 아버지 이내범이 좌익에 의해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됨. 같은날 마을사람들이 집에 끌려와서 희생당함
8	마-1530	조기순 (여, 17)		전문	1950.10.20. 빨치산들이 이백태의 집을 습격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시아버지 이백태는 같은 마을에 살던 이내범의 집으로 끌려가서 희생당함
9	마-8646	전철웅 (남, 8)	나산면 나산다리 희생사건	전문	1950.7.26. 작은아버지 전복용과 전복순이 그의 형 전복술이 나산면 대한청년단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가 나산다리에서 희생당함
10	마-7959	김영례 (여, 16)		시신수습 현장 목격	1950.10.5. 아버지 김재길이 좌익들에 의해 나산면 삼축리 나산다리 아래로 끌려가 죽창과 돌에 희생당함
11	마-4946	안종래 (남, 6)		전문	1950.10.11. 대한청년단원이던 형 안종월 및 어머니, 형수 등 일가족 4명이 지방좌익에 의해 나산다리 밑에서 희생당함

18) 신청인 62명 중 10명(박용, 윤태환, 박봉주, 조경현, 김사열, 정부칠, 윤석근, 김동주, 박기권, 임경혁)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박용(마-4569)은 진실규명신청서에 기재내용이 전부라는 이유로 진술조사를 거부하였고, 신청인 박봉주(마-2234)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진술조사를 할 수 없었다. 정부칠(마-10794)은 노환으로 인해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신청인 조경현(마-1108), 김사열(마-4938), 윤석근(마-3630), 박기권(마-1053)은 진실규명신청 후에 사망하여 부인 및 동생, 아들의 진술 로 대신하였다. 신청인 임경혁(마-2238)도 진실규명신청 후에 사망하여 진술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임양수가 같은 날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 '대동저수지'에서 희생당한 사건이어서 참고인의 진술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김동주(마-4422), 윤태환(마-4572)은 사정상 그 부인, 어머니의 진술로 대신하였다.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12	마-4507	김영임 (여, 7)		전문	1950.10.12. 시숙인 안동순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안동순을 비롯하여 시아버지 안종성, 시어머니 김소녀 등 일가족 4명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함.
13	마-10654	장이순 (여, 출생 전)	월야면 월야분주소 장남용 희생사건	전문	1950. 7월경(음력6월경) 경찰이던 작은아버지 장남용이 월야면 월야분주소로 끌려가 총살당함
14	마-10000	이춘하 (여, 6)	손불면 월천리 손불간척지 이진희 희생사건	전문	1953년, 손불면 손불국민학교 교장이던 시아버지 이진희가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가 손불간척지에서 돌에 맞아 희생당함
15	마-4942	이자연 (여, 24)	대동면 용성리 김팔현 희생사건	현장목격	1950.8.1.인민군에 의해 마을에서 반장을 하던 남편 김팔현이 절구대로 머리를 맞아 희생당함
16	마-8001	박영임 (여, 출생 전)	학교면 학다리 장터 김종현 희생사건	전문	1950.8.5. 학교면 학다리 장터에서 인민재판이 열려 시아버지 김종현이 총살당함
17	마-4416	임만택 (남, 7)	손불면 학산리 임종해 희생사건	전문	1950.8.14. 아버지 임종해가 좌익들의 습격으로 끌려가 손불면 학산리 복학마을에서 총살당함
18	마-3644	박종화 (여, 출생 전)	손불면 죽장리 이주범 가족 희생사건	전문	1950.8.20. 시아버지 이갑범의 집에 빨치산이 습격하여 경찰이던 이갑범의 형 이주범을 찾다가 없자 이갑범의 한 살짜리 아기를 향해 총을 쏘는 바람에 이갑범의 어머니 나남산이 대신 총에 맞아 희생당함. 그리고 1950.8.25 빨치산들에 의해 이주범, 이갑범 형제가 해보면으로 끌려가 총살당함
19	마-1444	이민행 (남, 출생 전)	나산면 우치리 노대진 희생사건	전문	1950.9.5. 할머니 노대진이 소 판 돈 내놓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산면 우치리 접사리 골 바위에서 희생당함
20	마-3919 (1)	윤석주 (남, 7)	해보면 용산리 진막동, 윤일태 희생사건	전문	1950.10.1. 아버지 윤일두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진막동과 작은아버지 윤일태가 좌익에 의해 희생당함
21	마-7752	조금순 (여, 25)	함평읍 기각리 함평다리 이민부 희생사건	시신수습	1950.10.1. 남편 이민부가 좌익에게 끌려가 함평읍 소재 하천변에서 총살당함
22	마-3930	이칠행 (남, 15)	대동면 용성리 이재윤 희생사건	전문	1950.10.4. 아버지 이재윤 등이 한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방좌익에게 대동면 용성리 용성다리 옆 하천으로 끌려가 대창 등에 의해 희생당함
23	마-7561	노병운 (남, 14)	나산면 구산리 노점돌 희생사건	시신수습 현장목격	1950.10.7. 이장이던 아버지 노점돌이 좌익에 의해 불갑산으로 이어지는 새암골로 끌려가 희생당함
24	마-10809	이정순 (여, 출생 전)	대동면 대동지서 희생사건	전문	1950.10.9. 대동지서 경찰이던 아버지 이직 헌이 좌익들에 의해 희생당함. 신청인 본인은 당시 출생 전이라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며 동네 어른들한테 전해 들음
25	마-4570	윤순자 (여, 11)	학교면 사거리 윤상연 희생사건	연행현장목격	1950.10.12. 빨치산이 습격하여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윤상연의 장남 윤일형을 찾았으나 없자 시아버지 윤상연을 대신 끌고 감. 시신은 율동마을 뒷산에서 수습
26	마-4569	박용 (남, 10)	학교면 사거리 박현채 희생사건	전문	1950.10.14. 아버지 박현채는 이웃에 살던 윤상연의 집에 나타난 빨치산에 의해 윤상연과 함께 끌려감. 시신은 14일 후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수습
27	마-4571	정병수 (남, 6)	학교면 사거리 정정환, 윤상규 희생사건	전문	1950.10월 중순 함평이 수복되었다고 오인한 율동마을에서 태극기를 단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을을 습격한 지방좌익들에 의해 아버지 정정환이 집근처에서 희생당함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28	마-4572	윤태환 (남, 11)		전문	1950.10.17. 함평이 수복되었다고 오인한 율동마을에서 태극기를 단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을을 습격한 지방좌익들에 의해 마을회관 앞에서 아버지 윤상규(일명 윤상채)가 몽둥이와 죽창으로 희생당함. 제사 음력 9.6
29	마-10819	권오응 (남, 24)	대동면 향교리 권승일 희생사건	시신수습	1950.10.22 당시 함평면장이던 아버지 권승일이 지방폭도들에 의해 대동면 향교리 산으로 끌려가 마을사람들과 총살당함
30	마-3643	최점용 (남, 10)	손불면 손불지서 최오봉 희생사건	전문	1950.10.24. 아버지 최오봉이 빨치산에 의해 손불지서(분주소)로 끌려가 희생당함
31	마-710	안명환 (여, 출생 전)	대동면 용성리 박남례 일가 희생사건	전문	1950.10.26 시아버지 김영한이 경찰이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박남례, 시숙부 김영목 등 6명이 대동면 용성리 금성부락에서 죽창으로 희생당함
32	마-4421	김정환 (남, 5)	불갑사 김연수 희생사건	전문	1950.10.27. 후퇴하던 좌익들에 의해 할아버지 김연수와 그의 처남 이계성을 끌려 갔으며 그 후 불갑사 부근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함
33	마-1107	김재술 (남, 13)	신광면 원산리 덕동마을 희생사건	시신목격	1950.10월경 지방좌익들에 의해 작은아버지 김덕봉 등 마을청년들이 신광면 원산리 덕동부락 뒷산으로 끌려 가 죽창으로 희생당함
34	마-1108	조경현 (남, 16)		연행과정 목격	1950.10.28.지방좌익들에 의해 형 조낙균 등 마을청년들이 신광면 원산리 덕동부락 뒷산으로 끌려 가 죽창과 칼로 희생당함.
35	마-2234	박봉주 (남, 25)		당시 현장 목격	1950.10.29.지방좌익들에 의해 동생 박봉훤(선) 등 마을청년들이 신광면 원산리 덕동부락 뒷산으로 끌려 가 죽창과 칼로 희생당함
36	마-2236	김맹자 (여, 1)		전문	1950.10.28.지방좌익들에 의해 아버지 김종순 등 마을청년들이 신광면 원산리 덕동부락 뒷산으로 끌려 가 죽창과 칼로 희생당함
37	마-2237	박양례 (여, 9)		전문	1950.10.29.지방좌익들에 의해 시아버지 임성환 등 마을청년들이 신광면 원산리 덕동부락 뒷산으로 끌려 가 죽창과 칼로 희생당함
38	마-2617	심웅섭 (남, 15)	신광면 원산리 덕동마을 희생사건	시신목격	신광면 소방대장이던 아버지 심기운이 1950.10.28.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1950.10.29. 원산리 덕동마을 뒷산에서 칼에 찔려 희생당함
39	마-3647 (1)	심기범 (남, 18)		시신목격, 시신수습	1950.10.28. 신광면 복흥리 이장이던 형 심기영이 후퇴하던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원산리 덕동마을 뒷산에서 희생당함
40	마-5100	백영균 (남, 3)	손불면 학산리 백한봉 가족 희생사건	전문	1950.11.5. 손불면 학산리 지호마을에서 아버지 백한봉 및 형, 누나 등 일가족 4명이 희생당함
41	마-4278	김관식 (남, 23)	손불면 석창리 김홍식 희생사건		1950.11.15 신학대학생이던 동생 김홍식이 좌익에 의해 손불면 석창리 대발부락 뒷산으로 끌려가 희생당함
42	마-6122	김병일 (남, 15)	군유산 김덕근 희생사건	연행과정 목격, 시신수습	1950.11.25. 빨치산들이 김덕근의 집에 찾아와 경찰인 형 김병용을 찾았으나 없자 아버지 김덕근을 대신 끌고 감.
43	마-10807	심위섭 (남, 8)	신광면 복흥리 심기찬 희생사건	전문	1950.10.19 큰 아버지 심기찬이 복흥리 석계마을 건너편(속칭 분산동)에서 좌익들에 의해 총살당함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44	마-3630	윤석근 (남, 20)	해보면 산내리 윤성중 희생사건	전문	아버지 윤성중이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1950.12.22 빨치산에게 끌려가, 이틀 후인 12.24 해보면 산내리 원산마을 뒷산에서 총살당함
45	마-1050	서연순 (여, 14)	신광면 가덕리 김재근, 박동근 희생사건	전문	1950.12.25. 시아버지 김재근이 야경을 서다가 마을을 습격한 빨치산에게 희생당함
46	마-2239	박성필 (남, 15)		전문	1950.12.26. 아버지 박동근이 대동면 운교리에서 경찰유격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생당함(*신청인은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진술함)
47	마-1053	박기권 (남, 9)	대동면 대동저수지 희생사건	전문	1950.12.26. 아버지 박재섭, 어머니 최대덕 등 마을사람 10여명이 마을을 습격한 빨치산에게 끌려가 대동저수지에서 희생당함
48	마-2238	임경혁 (남, 21)		전문	1950.12.26. 아버지 임양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빨치산에게 끌려가 대동저수지에서 희생당함
49	마-5106	조병율 (남, 12)	대동면 덕산리 조홍원 희생사건	전문	1950.12.30. 마을에서 야경을 서던 대한청년단이던 아버지 조홍원이 대동지서 근처에서 희생당함
50	마-2867	고안순 (여, 16)	나산면 삼축리 고판문 희생사건	시신목격	1951.1.1. 이장이던 아버지 고판문이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빨치산에게 희생당함
51	마-4422	김동주 (남, 6)	손불면 주포 김성옥 희생사건	전문	1951.1.5. 아버지 김성옥이 손불면 주포에서 야경을 서다가 빨치산에게 희생당함
52	마-3929	김상수 (남, 3)	손불면 북성리 김도보 가족 희생사건	전문	1951.1.7. 어머니 김업례가 담배장사를 위해 함평읍내를 왕래하였는데, 그로인해 경찰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받아 아버지, 형 등 일가족 4명이 지방좌익에 의해 군유산으로 끌려가 희생당함
53	마-10798	김만택 (남, 7)	해보면 용천사 김병식 희생사건	전문	1951.2.4. 이장이던 아버지 김병식이 신광면소재지로 피난을 갔다가 빨치산에 의해 용천사 부근으로 끌려가 희생당했으며, 같이 끌려갔던 친구가 살아 돌아와 사건현장을 알려줘서 시신수습함
54	마-3624(1)	채정자 (여, 10)	군유산 채두표 가족 희생사건	전문	1951.2월 경, 이장이던 아버지 채두표, 어머니 배전도 및 갓난아기가 빨치산에 의해 군유산으로 끌려가 희생당함
55	마-10794	정부칠 (남, 31)	해보면 대각리 정오복 희생사건	전문	1948. 5월 경 동생 정오복이 입대 후 휴가차 해보면 대각리의 고향에 와 있을 때 집을 습격한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함
56	마-6569	이월자 (여, 12)	나산면 덕림리 이일용 부부 희생사건	전문	1950. 10.12. 경찰이던 아버지 이일용이 지방좌익한테 끌려간 뒤 행방불명되었으며, 어머니 김판순은 이일용을 찾으러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참새암골 부근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57	마-6742	정견 (남, 출생 전)	나산면 용두리 정희석, 정 수 희생사건	전문	1950.가을 경 큰 아버지 정희석, 사촌형 정 수가 빨치산에 의해 끌려갔으며 불갑산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
58	마-4564	박길용 (남, 14)	손불면 북성리 박재용, 박경상 희생사건	전문	1950. 11월 경 형 박재용이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
59	마-4559	박계화 (여, 출생 전)		전문	1950.12.25. 아버지 박경상이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빨치산에 의해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
60	마-5030	심상윤 (남, 15)	신광면 복흥리 심기택 희생사건	전문	1950.11월 말일 경, 아버지 심기택이 용천산 주둔 빨치산 소탕작전에서 소방대원과 취사반장을 하다가 신광면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삼덕리에서 빨치산에게 납치, 그 후 용천사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61	마-6529	조성용 (남, 12)	대동면 용성리 조옥녀 희생사건	연행과정 목격	1951.1.22. 누나 조옥녀가 경찰부인이라는 이유로 대동면 용성리 집에서 빨치산에게 납치되어 해보면 불갑산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62	마-2608	이정순 (여, 13)	나산면 초포리 이정범 희생사건	전문	1951.2.2.경찰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빠 이정범이 빨치산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1945. 8. 15. 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의거,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사건의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규모,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첫째, 사건의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자 수를 규명한다.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셋째, 사건의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고, 관련기관의 자료를 검색·수집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 조사로 사건과 관련 각종 명부, 사건 관련 신문기사,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기록, 함평경찰서 소장자료 등을 수집·검토하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문헌자료는 첫째,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인 『6·25사변피살자명부』[19], 『전국순국반

19)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살자명부(6·25事變被殺者名簿)』, 1952.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년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가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함평지역 희생자 수는 1,821명이고, 이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36명이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는 함평지역희생자가 1,95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 1,82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중복된 이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희생자 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청년운동자명부』[20], 『6·25사변피납치자명부』[21], 「함평군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연구보고서」(이하 「피해연구보고서」)[22], 「전몰애국단체원대장(함평)」[23]을 검토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 및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24]

둘째, 국가기록원에서 함평군에서 활동했던 지방좌익의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을 검색·수집하여 1950년을 전후한 시기 함평지역 지방좌익의 활동상황 및 함평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였다.[25]

셋째, 『동아일보』, 『조선일보』, 『호남신문』[26]에서 함평지역 관련기사를 검색·수집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함평군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미(美)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이하 KWC)와 『미 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dic Report』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발발 전 희생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27]

다섯째, 국가보훈처 및 전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가보훈처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결과를 요청하여 진실규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28]

여섯째,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정에서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29]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30] 함평군에서 발간한 간행물,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관한 연구[31]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20)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全國殉國反共青年運動者名簿)』(전라남도), 1964. 이 명부에는 희생자(순국동지)의 성명, 출생년도, 본적, 주소, 직위 및 소속, 당시 소속단체 및 직위, 학력 및 경력, 순국투쟁개황 등이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함평지역 전체 희생자 수는 89명이고, 이 가운데 진실규명대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공보처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명부(6·25事變被拉致者名簿)』, 1952·1954.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납치일이 등재되어 있고, 6·25가족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www.war625.in)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대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 이 보고서는 함평군이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2006.7.1-9.25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한 보고서이다. 이 조사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피해실태를 수집한 후 현지주민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별 사건발생지점과 각 마을별 피해인원이 조사되어 있다.

23) 대한경무협회, 「전몰애국단체원대장」 1959.

24)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의 정보와 진실규명대상자의 정보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이 여자인데 남자로 되어 있는 경우, 한자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25) 함평 각 지역 출신 좌익, ○○○(1948년 刑公單 제229호), ○○○(1950년 刑公 제1155호), ○○○ (1951년 刑公 제2756호), ○○○(1951년 刑公 제962호), ○○○(1951년 刑公 제70호), ○○○ (1952년 刑公 제2796호), ○○○ (1953년 刑公 제64호) 등의 재판기록을 통해 신청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물론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26) 『호남신문』은 광주에서 일간형태로 간행되었으며 1948.7-1949.12 사이의 기사가 남아 있다. 이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전쟁 전 함평지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신청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동면 상옥리 윤도이 등 희생사건(마-4983)' 등이 그 것이다.

2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미 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1989.

2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여부 대조확인 의뢰」(진실화해위원회 2009.8.5 /회신 2009.8.17)

29) 「인사기록협조요청」(2009.8.5)/회신(2009.8.13)

30)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연구(하)』, 역사비평사, 1999 ;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1991; 김석학, 임종명, 『광복30년』, 전남일보사, 1975.

31) 안종철, 「전남지역 인민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역사비평』 19호, 역사비평사, 1991 ; 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1954.4.5)」,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2003 ; 목포대, 「한국전쟁기 전남지방 '민간인희생'에 관한 재조명」(제12회 역사학전공 학술심포지움), 2003.

나. 참고인 진술조사

참고인 진술조사는 참고인 118여명을 대상으로, 사건의 실재여부 확인 및 1950년을 전후한 함평지역 상황,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여부 확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참고인은 신청인이 추천한 참고인, 1920~1940년대 초반 출생자 중 현재까지 함평군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진술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 중, 희생자들의 연행·감금과정, 희생과정, 시신수습·처리과정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조사결과에 반영하였다.[32] 또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연행·희생과정 혹은 희생자의 시신수습·처리과정을 경험·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제삿날 등과 같이 희생자와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 결과에 반영하였다.

다. 현지조사

총 6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인 및 참고인을 면담하였고, 사건 발생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사건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차 현지조사는 2009.2.23~2.27.에 함평군 대동면에서, 제2차 현지조사는 2009.3.16~3.20.에 손불면에서, 제3차 현지조사는 2009.4.6~4.10에 신광면에서, 제4차 현지조사는 4.1~5.1 나산면에서, 제5차 현지조사는 2009.5.25~5.29.에 나산면, 해보면에서, 제6차 현지조사는 2009.6.29.~7.3에 함평군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사건배경

함평지역은 광복정국 및 한국전쟁기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우익성향이 강하고, 해방정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좌우대립이 그렇게 심하게 표출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해방직후 결성된 함평 '건국준비위원회'(8.16결성)의 위원장에 일본대학을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관료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이재혁이 추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33] 하지만 함평지역은 함평지역 내의 정치적인 성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불갑산이나 군유산 등 산악지역이 있어서 나주나 목포 등지에서 활동하던 좌익 활동가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곳에 들어와 그들의 주도하에 강력한 정치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34]
1948년 '2·7구국투쟁' 및 '5·10선거 반대투쟁' '여순사건' 등을 거치면서 좌익단체·활동가들은 무장투쟁 및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함평지역 역시 무장세력(빨치산)과 군경과의

32) 희생자의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아닌 경우 참고인들이 정확한 희생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참고인들의 진술로는 사건의 실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물론 시신 수습했거나 현장을 목격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장과 엇갈리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에 따랐다.
33) 안종철,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1, 105~106쪽; 이재혁은 일본대학 법률과를 졸업하고 총독부 관리, 도 평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1천여 두락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였다.
34) 함평군, 「함평군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연구보고서」, 2006, 27-28쪽.

충돌이 이어졌다.[35]

함평지역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폭력적인 형태로 변해가던 1948년도부터 희생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36] 신청사건 가운데에도 1948. 5월 지방좌익들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폭력을 가하고 그 와중에 마을이장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발생했다.

한국전쟁이 발발, 인민군이 함평에 들어온 것은 1950.7.23.이다. 영광등지를 진격해오면서 병력 30여명이 함평에 주둔하고 주력부대는 광주를 향해 빠져나갔다. 인민군 선발대가 함평에 머물다 떠날 즈음엔 이미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면·리 단위 인민위, 내무서 조직 등이 거의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함평군 인민위원회는 당시 수리조합건물에, 정치보위부는 읍사무소, 내무서는 경찰서에 설치됐다.[37]

또한 면 인민위원회, 민청, 부녀동맹, 소년단, 조국보위후원회 등이 조직되었다.[38] 함평지역에서 활동한 좌익들의 재판기록을 보면, 1950. 7월 이후,[39] 8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각 면, 리의 인민위원회, 민청, 자위대, 생산유격대 등에 가입하는 걸 알 수 있다.[40]

이렇게 조직된 단체들을 통해 1950.8.2. 함평공원에서 인민재판이 개최되어 20여명이 총살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1] 신청사건 가운데에도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등지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완도로 후퇴한 전남서남부 경찰 중 함평경찰은 10.1. 여수에 상륙, 배편으로 목포에 도착, 10.19. 열차 편으로 학교역에 도착하여 함평경찰서를 탈환,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인사들을 피신하게 한 다음 그날 오후 다시 무안 쪽으로 후퇴했다. 산으로 도망갔던 좌익들이 다시 함평읍내로 들어와 밤 10시경 금융조합, 함평경찰서에 방화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감금시켰던 우익인사 4명이 희생당했다.[42]

그 후 1950.10.22. 제20연대 3대대에 의해 함평이 수복된다.[43] 하지만 수복 상황은 각 지역

35) 『호남신문』 1949.7.5. 〈폭도 뻐쓰를 습격 이소위 응전 끝에 전사〉 ; 『호남신문』 1949.7.10. 〈함평에 폭도〉 ; 『호남신문』 1949.7.24. 〈발악하는 폭도 하룻밤새 6개면 출현〉 ; 『호남신문』 1949.8.6. 〈일가문 9명을 살해 손불면 지호부락서 폭도만행〉 ; 『호남신문』 1949.8.10. 〈신문기자 등 살해 나산면서 무장폭도양민에 만행〉 등.

36) 함평군, 「함평군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연구보고서」, 2006, 33쪽.

37)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66-67쪽.

38) 전남일보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학사, 1991, 268-268쪽; 함평군사 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66~67쪽.

39) ○○○ 판결문, 「1952년 刑公 제10호」 1950. 7월 중순경 민주청년동맹원 가입

40) ○○○ 판결문, 「1951년 刑公 제962호」 1950.8.20.경 인민위원회 가입; ○○○ 판결문, 「1953년 刑公合 제57호」 1950.8.2. 자위대, 1950.9.30.생산유격대 가입; ○○○ 판결문, 「1951년 刑公 제70호」 1950.8.30. 자위대, 1951.1.10. 유격대 가입; ○○○ 판결문, 「1950년 刑公 제1155호」 1950.8.15. 자위대 가입; ○○○ 판결문, 「1953년 刑公 제125호」 1950.8.15. 민청, 1950.9.1.경 자위대. 1950.11.1경 생산유격대 가입

41)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66-67쪽.

42)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68쪽; 이때 진실규명대상자 '윤판중(마-4983)'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1950.10.19.경찰이 함평에 들어오나 금방 다시 물러났다. 『함평군사』에는 함평수복을 10.23이라 하고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희생사건」(2008.상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제20연대 1대대는 10.14. 담양방면으로 진출하였고, 2대대는 10.18. 장성읍을 수복하라는 연대 작전명령 제10호에 의하여 장성읍을 수복하였으며, 3대대는 10.21. 목포를 출발하여, 22일 함평, 30일에는 2대대와 합류하여 영광을 수복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결정서에서도 함평 수복은 1950.10.22.로 한다.

마다 달라서 함평읍에 군인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날인 1950.10.23.이고 손불면과 신광면 일부는 1951.2.19. '군유산 작전' 이후에야 수복된다.
이러한 가운데 치안상태는 여전히 불안해서 낮에는 경찰, 밤에는 빨치산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계속되었고, 1951.2.20. 군경에 의한 대토벌 작전인 이른바 "대보름작전" 이후에야 함평지역에 빨치산들이 출몰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함평지역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했다.

(2)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 규모

가. 『6.25사변피살자명부』 등 자료검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남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발생시기 및 장소, 희생규모를 확인하고자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명부는 『6.25사변피살자명부』, 『피해연구보고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6.25사변피납치자명부』 등이며, 각 명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5사변피살자명부』에 등재된 함평지역 희생자 수는 총 1,821명이다.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함평지역 희생자 1,821명 가운데 진실규명대상자는 42명,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인지된 미신청희생자는 21명이다.
『6.25사변피살자명부』에 등재된 희생자 수를 각 읍·면별로 나누어 보면, 나산면, 손불면, 월야면, 신광면 순으로 희생자가 많은데 이는 불갑산, 군유산 등 산악지대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연구보고서』에는 함평지역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각 읍·면별 민간인희생자 859명이 등재되어 있다.[44] 이 보고서에는 희생자의 성별, 직업, 연령, 사망일자, 가해자, 사망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자 수는 174명이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대상자는 17명이었고,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인지된 미신청희생자 가운데 17명도 등재되어 있었다.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남도)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함평지역에서 순국한 89명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출생연도, 본적, 주소, 직위 및 소속, 당시 소속단체 및 직위, 학력 및 경력, 순국투쟁 개황 등이 나타나있는데,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함평지역 희생자 89명 중 진실규명대상자는 없고, 미신청희생자는 1명이었다.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는 희생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납치일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명부에 등재된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는 없었다.

---

44) 「피해연구보고서」에는 월야면, 나산면, 해보면 등지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등재되어있지 않다. 이는 1997.12. 함평군의회 조사보고서('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보고실태보고서' 1997)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의 이른바 '5중대 사건'만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실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피해연구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희생자들이 한정적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드러나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들의 희생사실을 확인하는 보충자료로서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몰애국단체원대장(함평)』을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순직·전사한 전남지역 경찰 및 대한청년단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근무처, 전몰상황 및 유훈, 전몰연월일, 유가족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장을 검토한 결과 대장에 등재된 진실규명대상자는 2명이며 미신청희생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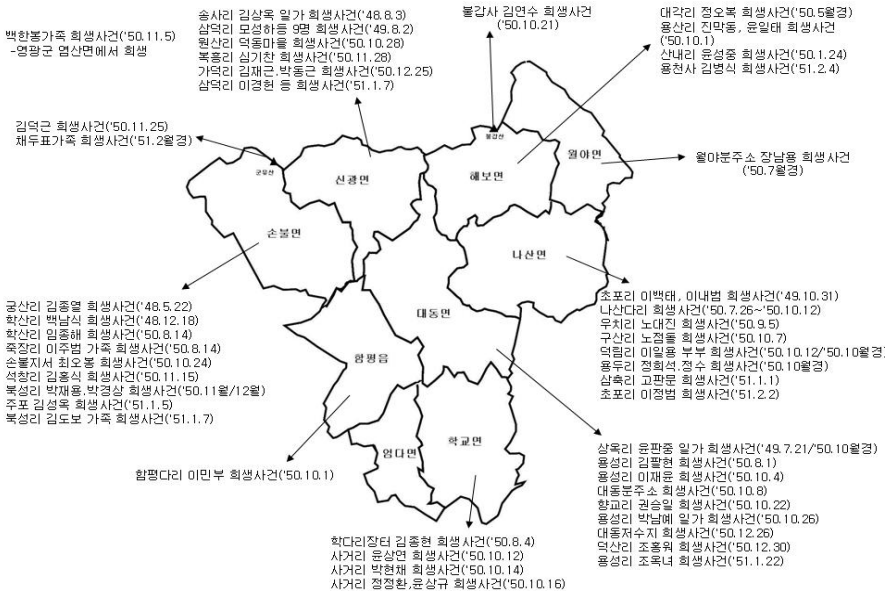
나. 사건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자 수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함평군 전체 9개 읍·면 중 엄다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발생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되었다.

진실규명신청사건과 조사과정 중 인지된 미신청사건을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실재했는지 여부와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희생당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48. 5월부터 1951. 2월까지 함평군 각지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미신청희생자 43명, 총 137명이 희생당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다음 <그림 1>은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을 사건의 발생시기 및 장소에 따라 함평군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고, <표 4>는 진실규명신청사건과 미신청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함평지역사건 발생시기 및 장소>



(3) 사건내용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함평지역 전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엄다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이 신청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조사 개시된 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가. 한국전쟁 발발이전

한국전쟁 발발 전 희생사건은 1948. 5월부터 1950.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주로 각 마을의 이장들이 희생당했으며 좌익들에게 요구받은 돈이나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희생이유였다.

또 당시 "좌익의 범행을 알린다고 구장아들이 구타"[45]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경관으로 가장한 폭도가 구장을 살해"[46]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 마을 일을 맡아하는 이장들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좌익들의 출현이나 활동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좌익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9. 7월에는 하루에만 6개면에 무장폭도들이 출현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북총선거 실시를 찬양"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삐-라를 살포, 마을 주민 및 이장 등을 구타하기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1949. 8월에도 무장폭도들에 의해 마을이장의 가족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7]

나. 인민군 점령기

1950.7.23 인민군에 의해 함평이 점령되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1950.9.28. 서울 수복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는 시기까지 지속된다. 함평에서는 1950.8.2. 함평공원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졌는데,[48] 신청사건 가운데에도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으로 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나산면의 경우 면소재지인 삼축리의 나산다리로 끌려가 희생당한 경우가 많았다. 나산면에서 신청된 사건 가운데 4건이 이에 해당된다. 나산다리에서 있었던 희생사건을 여러 차례 목격한 '김재길 희생사건(마-7959)'의 참고인 ○○○는 마을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자라는 것으로는 나물도 안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49] 나산다리 및 그 주변하천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많은 희생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민군 점령기에 발생한 각 신청사건은 다음과 같다.

---

45) 『호남신문』 1948.10.12.
46) 『호남신문』 1949.2.2.
47) 『호남신문』 1949.7.24. 〈발악하는 폭도 하룻밤 새 6개면 출현〉 ; 『호남신문』 1949.8.9. 〈신광면서 또 양민 8명을 살해, 피해가족 폭도 섬멸코자 속속 경관지원〉
48)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2, 66-67쪽.
49) 「참고인 ○○○ 진술조서(2009.5.20)」

다. 인민군 퇴각기

1950.9.28. 서울 수복 이후 전국 각지의 인민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함평지역의 인민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치안이 회복되기 전이어서 지방좌익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주로 10월 초순에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동면에서는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 의용경찰 및 공무원, 우익인사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고, 학교면에서는 함평이 수복된 줄 알고 태극기를 달았다가 그것을 보고 마을을 습격한 좌익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 등이 있었다.

라. 인민군 퇴각 이후

1950.10.22. 함평이 수복되었지만 수복 후의 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하여, 불갑산 등지로 피해 간 좌익들(빨치산)이 밤마다 각 읍·면의 지서를 습격하고 민가에 들어가 식량 등을 약탈해 가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50]

또 수복상황은 각 지역마다 달라서 손불면, 신광면 일부는 1951.2.19.(음력1.14)에 있었던 '군유산 작전'에 이르러서야 수복된다.

낮에는 경찰, 밤에는 빨치산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었고, 빨치산 활동이 잠잠해지는 것은 1951.2.20(음력1.15)에 있었던 대토벌 작전인 이른바 '대보름작전'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지서주변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한 사건,[51]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일가족이 희생당한 사건, 불갑산 및 군유산 등지로 끌려가 희생당하거나 희생당했다고 추정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4)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각종 명부와 제적등부를 확인하였다. 각종 명부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 ×로 표기하였다. 기타 『6.25사변피납치자명부』,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등재된 예가 거의 없어 기타 자료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적등본을 통해서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인적사항과 제적등본 상 사망일을 확인하여 표기하였다.[52]

---

50)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1992, 69쪽.

51) 예를 들어, 나산면 각 지역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함평수복 후에도 나산지서가 여러 번 빨치산들에 의해 습격을 당하자 지서에서 나산면 각 마을사람들에게 야경(보초)를 서게 했는데 당시 나산지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보초를 서다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지서에 연락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참고인 ○○○/○○○ 진술조서(2009.4.29)」; 「참고인 ○○○ 진술조서(2009.4.28)」; 「참고인 ○○○ 진술조서(2009.4.28)」)

52) 진실규명대상자가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등재'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본적지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비에게 피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표기 하였다. 당시 어수선한 상황 상, 정확한 사망일자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적부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손불면, 신광면 등 대부분의 면사무소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는지 여부와 제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시신수습 여부를 확인하여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희생된 사실 여부와 희생장소를 파악하였고, 제사일을 통해 희생일을 확인하였다.[53]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확인은 다음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또는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및 장소가 밝혀진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은 시신이 수습되었고,[54]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장소 등이 확인되므로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진실규명대상자 윤판중(마-4983), 최오봉(마-3643)의 경우는 시신이 불에 타버린 바람에 비록 시신수습은 못했으나 희생장소가 함평경찰서, 손불지서라는 것이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사실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 '확인'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정확한 희생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끌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즉, 강제 연행된 경우,[55] 경찰이거나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갈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경우 등은 희생사실을 '추정'으로 처리하였다.

함평지역에서는 한국전쟁 발생 전부터 1951. 2월 무렵까지 빨치산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함평지역의 특성상 불갑산 등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은 시신수습을 못했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희생시기 및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5)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가. 가해주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과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지방좌익들이 각각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희생사건에 관여했는지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희생사건의 가해주체가 분주소원, 빨치산, 무장폭도 등 여러 신분이 혼재되었으리라는 점, 현재 각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들이 지방좌익(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흔히 "지방폭도"

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미신청희생자의 제적등본을 입수하기가 곤란하였다.

53) 문헌자료가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희생사실을 확인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다만 제사일이 실제 희생된 날짜가 아닌 경우와 신청인 및 참고인이 제사일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54) 미신청희생자의 경우는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수습자를 확인 못했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이 있거나 문헌자료에 있을 경우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55) 신청사건 가운데 젊은 사람 위주로 짐꾼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나 가해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은 배제시켰다.

라 칭함)의 당시 신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었다" "말할 수 없다" 등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점도 크다.
또한 주로 밤에 나타나는 빨치산들의 특성상,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밤손님" "밤사람" "산사람" "반란군"들에 의해 끌려가서 희생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희생과정 및 연행과정 등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로도 희생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본 결정서에서는 가해주체를 지방좌익, 분주소원, 빨치산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는 마을에서 이장을 하던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이 많았고 총살이 많았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한 경찰(의용경찰), 공무원 및 우익인사들 등이 분주소원을 포함한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가서 인민재판식으로 희생당했으며 총살당한 경우가 역시 많았다. 월야면 월야분주소, 대동면 대동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경우이며, 나산면 나산다리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의 경우도 인민재판으로 희생된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56]
인민군 퇴각시기인 10월 초순경에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 의용경찰 및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함평이 수복되기 전까지 낮에는 경찰, 밤에는 빨치산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어 지방 좌익,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인민군 퇴각이후가 되면 주로 좌익이나 빨치산들에 의해 죽창, 대창, 칼, 절구대, 몽둥이(다듬이돌)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 때에 비해 가족단위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경찰, 이장, 공무원 등을 한 당사자들보다 경찰, 이장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가 많았다.
불갑산, 군유산을 끼고 있는 함평지역의 특성상 그곳을 중심으로 빨치산들이 수복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였으며, 빨치산들의 활동은 1951. 2월 군경의 토벌작전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 가해이유

희생자들은 해방 후 어수선한 좌우익의 대립 하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희생당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희생당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전쟁 발발 전 함평지역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주로 마을이장이었다. 그 후 인민군 점령기나 퇴각기, 퇴각 이후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경찰, 이장[57] 및 그 가족들,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흔히 "우익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 및 그 가족, 당시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기독교인, 교사(교장) 들이었는데, 희생자들은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이유가 혼재되어 희

56) 이러한 각 희생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뿐만 아니라 희생자 수가 더 많이 있었다고 참고인들은 진술하고 있으나, 그 후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연락처를 수소문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으로 미신청희생자를 밝히기 어려웠다.
57) 함평지역의 희생자 가운데 이장을 했던 사람이 16명이나 된다. 물론 경찰, 공무원을 한 사람도 13명, 대한청년단도 4명이 있긴 하지만 이장을 했던 사람의 희생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예컨대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거나, 소금이나 담배장사를 하면서 경찰의 스파이라고 오해 받아 희생당하기도 했다. 또 마을을 습격한 빨치산들을 피하려다가 길에서 붙잡혀서 희생당한 경우도 있고, 소 판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등 우익이라는 이유 외에도 그 가족이라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기타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 및 추정된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미신청희생자 43명을 성별, 연령, 직업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3명(갓난아기 등 영아)[58]을 제외하면 남성은 104명(78%), 여성은 30명(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희생당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주로 이장, 경찰, 공무원 등 직접적인 희생원인이 되는 신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8명을 제외한[59] 연령(대)이 확인된 인원은 129명이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4명(3%), 10대가 10명(8%), 20대가 41명(32%), 30대가 22명(17%), 40대가 28명(22%), 50대 16명(11%), 60대가 6명(5%), 70대가 2명(2%)이다.
20~40대가 91명(71%)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10세 미만의 영·유아에서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찰(의용경찰)이나 이장, 우익인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1948. 5월~1951. 2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등 8개 읍·면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 43명 등, 총 137명이 희생당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희생자 137명 중, 진실규명대상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은 시신수습이 되었고 희생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고 희생장소 및 시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58) 갓난아기 등 영아(嬰兒)의 경우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도 갓난아기라고 하는 등 성별을 알 수 없었다.
59) 영아(嬰兒)의 경우 10세 미만에 분류하였다.

○ 진실규명대상자 희생사실 확인(83명) :

고판문(高判文, 마-2867), 권승일(權承一, 마-10819), 김덕근(金德根, 마-6122),
김덕봉(金德奉, 마-1107), 김도보(金嶋甫, 마-3929), 김도보의 아기 (성명불상,
마-3929), 김병식(金炳植, 마-10798), 김봉옥(金奉玉, 마-10800),
김상옥(金相玉, 마-2611), 김성옥(金成玉, 마-4422), 김소녀(金小女, 마-4507),
김순례(金順禮, 마-5100), 김순영(金順令, 마-710), 김양섭(金良燮, 마-3929),
김업례(金業禮, 마-3929), 김연수(金演洙, 마-4421), 김영목(金永睦, 마-710),
김영자(金永子, 마-710), 김용자(金龍子, 마-710), 김재근(金在根, 마-1050),
김재길(金在吉, 마-7959), 김종순(金宗順, 마-2236), 김종열(金宗烈, 마-4938),
김종현(金宗鉉, 마-8001), 김팔현(金八鉉, 마-4942), 김한중(金漢中, 마-2610),
김해용(金海龍, 마-710), 김홍식(金洪植, 마-4278), 나남산(羅南山, 마-3644),
나복상(羅福相, 마-4983), 나복상의 부인 (성명불상, 마-4983), 노점돌(盧点突, 마-7561),
나순임(羅順任, 마-4983), 노대진(盧大津, 마-1444),
박남례(朴南禮, 마-710), 박동근(朴東根, 마-2239), 박봉훤(朴奉暄, 마-2234),
박재섭(朴在燮, 마-1053), 박점오(朴占五, 마-4946), 박현채(朴顯采, 마-4569),
배전도(裵屇桃, 마-3624(1)), 백남식(白南植, 마-4990), 백영록(白永錄, 마-5100),
백영순(白永淳, 마-5100), 백한봉(白漢鳳, 마-5100), 심기영(沈棋英, 마-3647(1)),
심기운(沈棋雲, 마-2617), 심기찬(沈棋燦, 마-10807), 안달수(安達洙, 마-4507),
안동순(安東淳, 마-4507), 안종성(安鍾星, 마-4507), 안종월(安鍾月, 마-4946),
안종평(安鍾平, 마-4946), 양방전(梁放田, 마-2610), 윤도이(尹倒伊, 마-4983),
윤상규(尹相奎, 마-4572), 윤상연(尹相連, 마-4570), 윤성중(尹聖重, 마-3630),
윤판중(尹判重, 마-4983), 윤일태(尹一太, 마-3919(1)), 이갑범(李甲範, 마-3644),
이민부(李民夫, 마-7752), 이백태(李伯泰, 마-1530), 이재윤(李載允, 마-3930),
이주범(李周範, 마-3644), 이직헌(李直憲, 마-10809), 이진희(李鎭熙, 마-10000),
임성환(任成煥, 마-2237), 임양수(任良守, 마-2238), 임종해(林鍾海, 마-4416),
장남용(張南龍, 마-10654), 전복순(全福順, 마-8646), 전복용(全福用, 마-8646),
정정환(鄭廷煥, 마-4571), 조낙균(曺洛均, 마-1108), 조홍원(趙洪元, 마-5106),
진막동(陳莫同, 마-3919(1)), 채두표(蔡斗杓, 마-3624(1)), 채두표의 아기 (성명불상,
마-3624(1)), 최공임(崔功任, 마-4946), 최대덕(崔大德, 마-1053),
최두례(崔豆禮, 마-4983), 최오봉(崔五鳳, 마-3643)

○ 진실규명대상자 희생사실 추정(11명) :

김판순(金判順, 마-6569), 박경상(朴京相, 마-4559), 박재용(朴再容, 마-4564),
심기택(沈琪澤, 마-5030), 이내범(李乃範, 마-1445), 이일용(李一龍, 마-6569),
이정범(李正範, 마-2608), 정 수(鄭 洙, 마-6742), 정오복(鄭五福, 마-10794),
정희석(鄭熙錫, 마-6742), 조옥녀(趙玉女, 마-6529)

○ 미신청희생자 희생사실 확인(42명) :

강양원의 어머니(성명불상), 고영채, 김용기(金容琪), 김윤라, 김재섭, 김종섭,
모구원(牟九源), 모봉춘(牟封春), 모성하(牟成夏), 모평원(牟坪源), 모종원의 부인
(성명불상), 모종원(牟鍾元)의 어머니(성명불상), 모종원의 아기 (성명불상), 문남평,
박삼자(朴三者), 박일규(朴一圭), 박준필(朴準弼), 서순금(徐順今), 양금석(梁今石),
윤상기(尹相基), 이경헌(李景憲), 이계성, 이계순(李啓淳), 이광헌(李光憲),

이규택(李圭澤), 이대천(李大泉), 이돈근(李敦謹), 이돈식(李敦植), 이돈표(李敦杓),
이돈형(李敦炯), 이돈형의 둘째부인 (성명불상), 이병영(李炳榮), 이재양(李載亮),
이준행(李濬行), 이충헌(李忠憲), 장성댁 박씨(성명불상), 전복순(田福順),
정여순(鄭如順), 정지모(鄭芝模), 정헌칠(鄭憲七), 정헌태(鄭憲太), 성명불상 1명

○ 미신청희생자 희생사실 추정(1명) : 박준용(朴俊用)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8년, 1949년에는 무장폭도에 의해 주로 마을이장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민군 점령기인 1950. 7~8월에는 분주소원, 지방좌익들에 의해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으로 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1950.9.28 서울수복 이후 1950. 10월 초순경에는 대동면에서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 공무원, 경찰(의용경찰),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 및 분주소원에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군 퇴각이후, 함평지역 수복상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1951. 2월 군경에 의한 대규모 토벌작전까지 인근 불갑산, 군유산 등지로 들어간 빨치산들에 의해 가족단위로 끌려가 희생당하거나, 같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여러 명 끌려가 희생당하는 사건, 마을이나 지서주변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의용경찰), 공무원, 이장,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었고,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및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했다.

(2) 권고사항

첫째,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읍·면·동사무소는 각종 기관자료(시지, 면지 등)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제5절 함평양민학살사건

1. 제11사단(제5중대) 양민학살사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좌와 우익세력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 좌익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00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60] 이들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양민의 개념' 항에서 언급하겠지만 우선 이 가운데 좌익무장유격대 또는 빨치산 이른바 공비를[61]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6·25한국전쟁 이전의 4·3사건에 따른 제주 한라산주변에서의 많은 민간인 희생은 물론, 경북 문경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희생사건이 발생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이 글의 주무대인 전남 함평은 물론 경남 거창·함양·산

6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선언문, 2000년 9월 7일, 기독교연합회관: 1950년 6월 25일부터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에서의 집단피살자수는 남한정부의 공식 추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에게 가해진 것으로 사망자 244,663명, 학살자 128,936명, 부상자 229,625명, 행방불명자 303,212명, 납치자 154,532명으로 도합 10,060,969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다(내무부 치안국, 『경찰십년사』, 1958, 265~266 참조. :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 제 41 권 2호{통권 115호·2000. 9.) 각주 6에서 재인용). 여기서 부상자 229,625명을 제외한 831,343명이 실제 인명피해자다. 또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전쟁 기간 중 인명피해는 사망 23만 6475명, 학살 12만 2799명, 행방불명 29만 8175명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 321~322 쪽). 전시 중에 작성된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납치 8만 2959명을 합산한다면 74만 여명이다. 여기에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인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 휴전 시까지 소탕된 공비와 학살된 양민, 좌익에 의한 우익인사들의 피해자, 누락가능성이 있는 보도연맹 원 피해자를 포함시킨다면 인명피해 100만 여명 추정이 가능하다. : 또한 1994년 발간된 전라북도의회보고서는 어떤 근거를 인용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의 민간인 사상자가 99만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기록하고 있어 100만여 명 피해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라북도의회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14쪽). 특히 2001년 6월 24일 미국 뉴욕 인터처치센터에서 열린 상징적 민간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서 수석검사로 나선 클라크 전 미국법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3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300만 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1년 6월 25일). 이는 남북한을 합친 숫자임은 물론이다. 또한 2000년 6월 13일자 『워싱톤 포스트』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인명피해는 500만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민간인 피해자 수는 250만 명 이상' 이라고 추정했다(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0, 53쪽에서 재인용).

61) '共匪'라는 말은 좌익무장세력 또는 빨치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共産主義 匪賊'의 줄임 말이다. 본래는 중국의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를 가르켜 사용했던 용어를(R.B 에스프레이 지음·편집부 역 『세계게릴라전사』 2권, 일월서각, 1989, 55 쪽 참조) 한국전쟁 전후 남한에서 도입해 '좌익 게릴라'나 '좌익 유격대' 또는 '빨치산'에게 붙였던 용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우에 따라 '공비' '빨치산' '좌익 유격대' '좌익 게릴라' '밤손님' 등등의 용어를 당시 상황에 어울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모두 '좌익으로서 무장한 세력 또는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다. 예를 들면 경미한 무장을 갖춘 몇 명의 좌익이 보급투쟁 차 주민들의 집에 나타나 위협을 가할 때 이를 '빨치산' '좌익유격대' '좌익무장세력'이라는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아 '공비' 또는 '밤손님'으로 표현하게 되고 군경과 교전한 무장 세력에 대해서는 '무장유격대' 또는 '빨치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유엔군의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미쳐 북으로 퇴각하지 못한 북한 인민군과 한국전쟁 후 북한정권에 부역했던 지방 토착좌익무장세력, 한국전쟁 전인 1946년 10월 봉기와 1948년 4·3사건 및 제14연대 반란사건 좌익들이 군경의 추격을 받아 지리산과 여타지역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무장투쟁을 벌인 게릴라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빨치산'이라는 호칭을 즐겨 쓴다.

청·전북 고창·순창·남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수없이 집단 학살됐었다.[62] 당시 학살된 양민들은 공비와 내통했거나 동조자로 지목돼 공비들의 준동을 차단하려는 작전수행 상 불가했었다고 당시의 지휘관들은 주장하지만 이들은 공비들과 내통했거나 동조자가 아닌 순수한 양민들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63]

【사　건】 다-1254 외 184건 함평11사단사건
【신청인】 노병량 외 184명
【결정일】 2007. 7. 3.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한국전쟁시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그리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이 접수한 사건건수는 192건, 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총수는 283명(부상 9명 포함)이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서 검토 후 조사개시결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개시 결정 설명회, 본 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

62) 여기서 말하는 집단학살(Genocide)은 비전투원 곧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집단으로 학살된 것을 말한다. 비록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아래 비전투원을 집단학살하는 것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비전투원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한 군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도쿄재판이나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와 같이 전범으로 규정하여 '평화와 인도에 대한 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1968년 11월 26일 국제연합 총회는 집단학살(Genocide) 같은 비인도적(Crimes against Humanity) 범죄행위 등 전쟁범죄(War Crimes)와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국내법상의 제한을 둘 수 없게 하였다. 즉 범행일시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2000년, 553~554 쪽). ; 상징적 국제민간전범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의 배심원 26명은 2001년 6월 24일(한국시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반인륜적 전쟁범죄행위'라고 평결했다(한겨레신문, 2001년 6월 25일자).

63)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함평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조치를 내린 결정문.

(2) 신청인의 주장

함평11사단사건은 진실규명신청인들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당시 광산군 본량면 일대에서 육군11사단(사단장 최덕신) 20연대(연대장 박기병) 2대대(대대장 유갑열) 5중대(중대장 권준옥)에 의해서 민간인 283명(부상 9명 포함)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조사의 근거와 진실규명과제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집단희생규명소위는 기본법 제2조 1항 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소위는 함평11사단사건에 대하여 ①사건의 규모 ②지역별 형평성 ③국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별 대표성 ④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4월 25일 152건을 조사개시 한 이래 5월 30일 15건, 7월 25일 46건, 2007년 2월 6일 20건을 병합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28일 제21차 집단희생규명소위원회는 '함평11사단사건'의 범위를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2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3).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가. 신청인 조사

사건 신청인 192명 중 2007년 6월 20일 현재 185명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7명의 신청인 중 박희님(사건번호 다-1239)은 사망하였고, 정병주(다-1116)·정태중(다-1117)·정이재(다-1153)·채상현(다-3631)은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었다. 또 윤금복(다-1245)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신청인 윤양성(다-1244)의 경우 신청인 장애로 인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박희님을 제외한 6명의 신청인은 조사중지 하였다.

또 신청인 이옥희(다-1173)의 경우 언니 이계순은 남산뫼에서, 오빠 이병옥은 광산군 삼도지서에서 군인에게 희생되어 분리하였다.

나.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위원회는 사건관련 희생자 측 참고인 18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산뫼 사건의 현장 생존자 및 월야 학도연맹원(학련), 6중대 학도의용군, 청년방위대원(청방), 구국연맹원(구련), 한새들 전투 목격자, 수해리 주민, 그 밖에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표 2]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정일웅	현장 생존자	20060526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큰집에서 청년 1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월야지서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자는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녹범	월야학련 선전부장	20061213	월야노인회관	진술조서	해보지역에는 G-2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2는 주로 5중대 소속으로 사건이 있고 난 뒤 주민여론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6중대 학도의용군	20061213	자택	녹취	연대게시판에서 5중대 전과표를 보니 내가 사는 해보면 상곡리 작전이었어요. 적 사살 400명, 노획물 호미 괭이 곡괭이 창 죽창이라고 써있었어요. 날짜는 음력 동짓달 그믐 무렵입니다.
최인규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서	청방은 대기상태에 있었고 밥은 주변 마을에서 조달해 주었으며 경찰의 명령에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과 경찰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청방이 있는 마을은 순번을 정해서 밥을 나르니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성구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서	저는 16살이었는데 살기 위해 12월초 청방에 들어갔습니다. 1중대 소속이었는데 해보중학교 옆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청방이 4군데에 있었으니 4개 중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쌍구룡사건은 본부소대 병력을 제외한 중대병력이 주도했습니다. 나는 쌍구룡에 가서 주민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중대장이 관상 보듯이 골라내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갈겼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에게도 총격을 했습니다.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70118	월야면 다방	진술서	G-2는 후방에서 활동하던 정보원으로 인공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5중대 소속이었습니다. 함평사람이지만 이쪽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중대 진주 때 G-2가 중대에 정보보고를 하였습니다. 구련도 정보수집을 하였는데 개인감정으로 빨갱이로 왜곡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윤채병	해보 학도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빨치산과 교전을 벌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비들에게 쫓기면 화풀이로 주민을 죽이고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해보 학련대장이 서○○이었습니다. 학련 감찰반에 문○○, 신○○, 이○○ 등이 있었는데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폭행했습니다. 특히, 문○○은 대창으로 찔러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이 학련을 길잡이로 앞세워 마을에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2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화기 소대는 해보면 중대본부와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화기소대가 주둔한 곳이 처가 뒤여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김석주	해보 청년방위대원	20060629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전쟁 전에 청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예비 군인의 개념이었습니다. 5중대 진주 후에는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청년단은 50~60명이었고 처음에는 지서 보초 임무를 수행하다 5중대장이 30명 정도를 뽑아 군 임무를 수행하는 청방이라는 조직으로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행하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해보 진주 후에도 빨치산들은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야 상면 습격이 있고 난 후에는 빨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나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불타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진채언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장교·동촌마을쪽에서 아침에 총소리를 듣고 전투가 벌어진 줄 알았으며 당일 군인들이 복귀 후 장교마을 누나 집에 피해가 있는지 보려고 가다보니 동촌마을 주민 수십 명이 논과 도로변에 죽어 있었습니다.
장두병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신기마을 앞에 한새들이 있고 중간에 지하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투 중 공비들이 저수지 물을 터버리자 위치가 노출된 군인이 모두 논 위로 나왔고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보에 물을 넣은 것으로 봐서 공비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빨치산의 소행이었을 것입니다.
임화수	주민(목격자)	2006060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군인 한 명이 소를 끌고 가는 저에게 '진작부터 끌고 왔느냐'는 말을 경상도 말로 물어 못 알아듣고 그냥 "예"했습니다. 그 군인은 "너는 빨리 가"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려는 것을 피하고 도랑을 건널 때 총소리가 나 뒤를 보니 군인들이 일행 중에 임광진, 김병수, 심달섭, 김종섭, 임봉수씨 등 12명을 3열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재윤	주민(목격자)	20060824	유족회 사무실	진술조서	동생 재선이 "전하마을 뒷산에서 한 사람은 죽어 있고 세 사람은 군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으로 죽이는 것을 봤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너의 형들이 죽었다"고 해 그때 형님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신	주민(목격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서	정성면의 시신을 외치재에서 저와 둘째형이 가져왔습니다. 정성면이 끌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외치재 쪽에서 총소리가 난 후에 정성면의 부인이 우리 형제에게 시신을 찾아달라고 하여 군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 주었습니다.
윤주원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서 주민들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분첩은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군인들이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홍춘성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1950년 11월경 5중대가 해보에 진주하여 중대본부가 설치되고, 5중대장이 학도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본인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도대를 결성하였고, 이를 학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유형렬	주민(목격자)	20070517	광주시 송정동 다방	진술서	사람들이 모여 있던 주막은 본량면 덕림리 412번지인가 그래요. 12살 먹은 주막집 아들까지 데려가고 여자는 안 데려갔어요. 그 때는 법에서도 3인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 3인 이상 모일 때는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고,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군인이 뒤따라 들어가 연행해 갔어요.

(2) 가해 혐의자 및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위원회는 당시 5중대원과 월야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1소대 분대장,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 사건 당시 월야지서 토벌대장 오정인, 그리고 당시 소속 중대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또 당시 5중대 2소대원 박병인으로부터 장교, 동촌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표 3]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황학준	5중대1소대원	20060706	서울시 은평구	진술조서	입초 서던 병사가 침낭에서 자다가 난도질을 당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월야지서 토벌중대장	20061213	함평읍 원광한의원	진술조서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었으며,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월야와 삼서면 경계지역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된 사람과 부역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일호	5중대장 연락병	20070215	제주시 자택	녹화	마을 앞 들판에서 징, 꽹과리를 쳐 신경이 날카로웠다. 내가 월악리(남산뫼)에서 정일웅을 살려주었다. 권준옥 중대장은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했기 때문에 최덕신에게 책임이 있다.
박병인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북제주 자택	녹화	광주에 가 얼마 안 있어 장성 쪽 연초제조창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때로는 인공기가 휘날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중대가 기습당하여 아군 피해가 크니까 중대장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을 지르고 마을부근을 없앤 것은 확실해요.
김공원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5	북제주 자택	녹화	마을에 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돌아오면 살려주고 도망하는 사람은 총으로 쏘았어요. 여러 명이 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창봉	5중대 중대본부원	20070215	제주시 이도1동	녹화,녹음	해보에 갔던 시기가 추운 때였어요. 함평에 가서 불갑산 지구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기억은 납니다.
김준오	5중대1소대원	20070213	제주시 천지동사무소	진술조서	해보에 있을 때 토벌작전을 한두 번 갔던 기억은 납니다. 작전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 경 가족과 나머지 주민은 분리하여 데려갔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평문 강제승 홍순홍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북제주 한림읍 귀덕리	진술조서	공비출몰이 있어 현장에 가면 마을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취침 중 공비에게 습격당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죽창에 찔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용	20연대 1중대원 (학도의용군)	20070119	함평읍 자택	진술조서	미처 올라가지 못한 진짜 빨치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산으로 도망간 민간인들이 많았습니다. 토벌작전 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간 민간인이었습니다.
나진수	함평경찰서 경찰	20070118	함평읍	진술조서	국군이 함평에 먼저 선발대로 들어왔으며 학다리, 엄다, 수호리, 함평읍, 대동면으로 갔습니다. 5중대는 장성이나 광주 쪽에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중대본부에서 이오섭 나산면장이 항의하면서 권준옥 중대장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자료조사

○ 「정기작전보고」 육군본부, 1950, 336쪽.
○ 『한국전쟁사료』 육군본부, 1988.
○ 「보11사20연특별명령(갑)제22호」 와 권준옥 「자력표」
○ 보병 제20연대, 「부대약력표」,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1997.
○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실태보고서』, 한울, 2005.
○ 「마구 터지는 대학살 秘史」, 『한국일보』, 1960. 5. 21.

(4) 현장조사

위원회는 2006년 5월 9일과 2007년 3월 14일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이용헌 회장 등 유족회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집결장소, 희생 장소에 대하여 사건발생 순서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4). 조사결과

(1) 사건의 전개과정

가. 조사내용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장성군 삼서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총살, 타살 등의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소결

함평11사단사건은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으로 활동하였거나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의심하여 집단 또는 소규모로 총살·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11월 27일 덕림리 사건은 주민들이 신고 없이 주막에 모여 새끼 꼬는 것을 5중대 군인들이 수상히 여겨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12월 6일 월야면 정산리 장교, 동촌마을 사건과 12월 7일의 남산뫼 사건은 한새들 전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3일 후 동촌마을 뒤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징과 꽹과리를 치며 '승리'를 자축한데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64] 또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에 있던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조달해가자 주민들이 이들에게 협조하였다고 의심하여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저녁 월야리와 월악리 주민들과 소년단원들은 좌익들의 강요로 손동재에서 봉홧불을 피우며 만세를 부른 것이 다음날 5중대가 남산뫼에서 벌인 집단총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12월 31일의 쌍구룡 사건과 1951년 1월 12일 모평 사건 그리고 1950년 1월 14일 우치리 사건은 소개 나온 주민들이 식량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마을을 왕래하자 5중대가 이들을 빨치산 내통자로 의심한 나머지 군·경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선별없이 총살한 사건이다.

그리고 모평마을 사건은 전날 밤 비녀봉에서의 중대본부 공격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또 12월 9일 외치리 사건은 빨치산의 5중대에 대한 도로교란작전이 주민총살의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집단 총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은 공비소탕작전 진격과정에서 벌어졌고 5중대 진격소식이 전해오자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어 희생자가 대부분 노약자들이었다.

(2)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가. 사건별 희생자의 희생규모[65]

64) "그 전날 군인 2명이 신기마을에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봉화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장교마을에 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2006. 7. 25.). ; "어머니와 이모가 밥을 하는데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큰소리로 "대한민국 군인이 들어왔다. 모두 밖으로 나와라"해서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연설하는 줄 알고 작은 이모는 아기를 업고 맨 앞에, 어머니는 아기를 업고 이모뒤에 앉았습니다"(신청인 한정옥 진술조서, 2006. 5. 25.).

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1950년 11월 27일 발생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의 경우 목격자 유형렬, 신청인 오춘열 등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는 오봉근 등 6명으로 확인되었다.[66]

[표 4]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오봉근	남	37	농업	오춘열	1969.3.2. 사망일 기재
2	정진국	남	42	농업	정양수	1971.4.25. 사망일 기재
3	유재섭	남	23	농업	유우현	1950.10.18. 사망일 기재
4	유태열	남	30	농업	정옥순	1957.8.20. 사망일 기재
5	정성규	남	36	농업	정종화	1953.10.17. 사망일 기재
6	오팔근	남	15		오칠근	1955.2.4.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오봉근(다-1223) 정진국(다-1224) 유재섭(다-1225) 유태열(다-1226, 7238) 정성규(다-1227) 오팔근(다-1228, 7239)이다.

②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을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양순의 가족 5명을 포함한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양순의 동생 박아기와 한정옥의 남동생 한아기, 그리고 강풍전의 남동생 강아기 등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5]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박두남	남	51	농업	박양순	1955.11.23. 사망일 기재
2	김순란	여	21	농업	박양순	사망사실 미기재
3	박종한	남	15		박양순	1955.8.10. 사망일 기재
4	박순심	여	12		박양순	1961.9.10. 사망일 기재
5	박아기[67]	여	1		박양순	호적 미등재
6	이복녀	여	34	농업	한정옥	1949.10.5. 사망일 기재
7	한아기	남	1		한정옥	호적 미등재
8	이순득	여	29	농업	강풍전	1948.4.11. 사망일 기재
9	강아기	남	1		강풍전	호적 미등재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박두남, 김순란, 박종한, 박순심, 박아기(다-1202), 이복녀 한아기(다-1203), 이순득 강아기(다-1204)이다.

65) 희생자 확정과정에서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가 안 된 경우, 신청인 주변을 탐문하였으며 제적부 미제출자는 위원회에서 제적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또 결혼 후 자녀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는 인우보증, 족보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희생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유를 명기하였다.

66) 희생자 중 주막 노파의 아들 정봉근의 유족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67) 이 보고서의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희생자 신원이 제적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③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서백수의 부 서만동 등 11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6]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서만동	남	49	농업	서백수	1960.5.10. 사망일 기재
2	서석암	남	51	농업	서창복	1968.1.10. 사망일 기재
3	곽판용	남	51	농업	곽진관	1968.10.27. 사망일 기재
4	곽석연	남	43	농업	곽상태	1950.11.25. 사망일 기재
5	서용기	남	49	농업	서창호	1951. 7. 사망일 기재
6	곽지연	남	42	농업	곽상덕	사망사실 미기재
7	박소남	남	44	농업	박종인	1950.10.27. 사망일 기재
8	김삼금	남	45	농업	김희태	1957.5.8. 사망일 기재
9	김성애	남	37	농업	김희태	1957.5.5. 사망일 기재
10	김초순	여	13		김희태	1957.5.10. 사망일 기재
11	김상율	남	12		김희태	1951.11.10. 사망일 기재

동촌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서만동(다-1196), 서석암(다-1197), 곽판용(다-1198), 곽석연(다-1199), 서용기(다-1200), 곽지연(다-1201), 박소남(다-1205), 김삼금 김초순 김성애 김상율(다-2869)이다.

④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덕부의 부 이연범 등 2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7]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연범	남	31	농업	이덕부	1950.1.5. 사망일 기재
2	이판금	남	42	농업	이재하	일본인 여자 희생 목격. 1952.5.6. 사망기재

서촌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이연범(다-1318), 이판금(다-3487)이다.

⑤ 월야면 계림리·삼서면 수해리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계림리와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일수의 사촌형 임양수를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참고인 임화수는 목격한 희생자가 12명이라고 하였지만 본인도 희생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하여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희생자 김수성은 실제 이름과 호적상 이름 사이에 착오가 있어 수정진술을 들었다.

[표 8] 월야면 계림리·삼서면 수해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임봉수	남	27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 10. 27.(양 12. 6) 등재
2	임양수	남	24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 10. 27. 등재
3	임선진	남	40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 10. 27. 등재
4	김병수	남	35	농업	김매화	사망일 1950. 12. 8. 등재
5	김수성	남	26	농업	김주섭	실제이름 김용선, 1953.8.9. 사망일 기재
6	노병훈	남	27	농업	노도출	사망일 1951. 2. 5. 등재
7	이수범	남	33	농업	이종철	사망일 1960. 5. 25. 등재
8	노병조	남	23	농업	유귀복	사망일 1950. 12. 27. 등재
9	노병식	남	25	농업	노선균	사망일 1968. 10. 8. 등재
10	노준기	남	53	농업	노필귀	사망일 1950. 11. 10.로 등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시목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임봉수(다-1188), 임양수(다-1189), 임선진(다-1190), 김병수(다-1191), 김수성(다-1192), 노병훈(다-1193), 이수범(다-1194), 노병조(다-1195), 노병식(다-1196), 노준기(다-1207)이다.

⑥ 월야면 남산뫼 사건

1950년 12월 7일 발생한 남산뫼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민봉의 양모 김갑순을 포함하여 76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정길호의 모 김유순 등 8인은 사건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정남숙은 현재 생존해 있다.

이 중 정진덕 외 21명의 사망사실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행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다.[68] 이 명부에는 정진덕 등 22명이 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피살자로 기재되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이들은 국군 5중대에 의한 희생자임이 확인되었다.

또 신청인 정진두의 고종사촌 정재덕은 제적부 확인결과 군인신분으로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5중대에 의한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조사과정에서 남산뫼 사건의 희생자가 131명이라는 진술도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월야면 남산뫼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갑순	여	34	농업	정민봉	1966.2.5. 사망일 기재
2	정진덕	남	19	농업	정진억	피살자명부[69] 기재,1950.11.20.사망일 기재
3	최용례	여	38	농업	정상수	1950.11.28. 사망일 기재
4	정천수	남	14		정상수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8. 사망일 기재
5	정종문	남	17	농업	정기문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3.사망일 기재
6	심용기	남	12		심춘택	1957.4.20. 사망일 기재

68) 1952년 3월 3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6·25 기간에 좌익, 빨치산 및 인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민간인의 실태를 조사한 정부문서이다. 명부는 피해자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59,964명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인원이 43,511명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명부에 따르면 함평군 피해 인원은 1,954명이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7	정길문	남	31	농업	정근우	사망사실미기재
8	정동수	남	20	농업	정근한	피살자명부 기재, 1969.11.2. 사망일 기재
9	정계환	남	13		정태환	1962.8.5. 사망일 기재
10	정방섭	남	21	농업	정충섭	1950.10.27. 사망일 기재
11	정병모	남	18	농업	정득모	1957.10.27. 사망일 기재
12	정진철	남	19	농업	정홍순	제적부 사망 미 등재, 피살자명부 기재
13	정동모	남	20	농업	정부덕	피살자명부 기재, 1951.10.28. 사망일 기재
14	정민모	남	19	농업	오공숙	1949.11.28. 사망일 기재
15	정진발	남	20	농업	이순례	1951.11.5. 사망일 기재
16	정창진	남	13	농업	정진천	1952.9.9. 사망일 기재
17	정재호	남	22	농업	정재문	피살자명부기재, 1950.12.10. 사망일 기재
18	김순애	여	17	농업	김선행	1950.10.19. 사망일 기재
19	김재만	남	18	농업	김재익	1957.1.20. 사망일 기재
20	정옥모	남	30	농업	정진임	1961.8.3. 사망일 기재
21	정기모	남	20	농업	정진임	피살자명부 기재, 1961.7.25. 사망일 기재
22	정재환	남	21	농업	정병호	1950.10.29. 사망일 기재
23	정중진	남	23	농업	정계수	피살자명부 기재, 1962.7.8. 사망일 기재
24	정문모	남	33	농업	정진정	1962.6.27. 사망일 기재
25	정양모	남	39	농업	정공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9.3.14. 사망일 기재
26	정진봉	남	43	농업	정칠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6.12.20. 사망일 기재
27	정병모	남	18	농업	정응모	1950.10.18. 사망일 기재
28	정근모	남	16	농업	안춘자	1955.2.5. 사망일 기재
29	김유순	여	1928년생	농업	정길호	부상 (1998년 사망)
30	정동석	남	19	농업	정석봉	1955.3.22. 사망일 기재
31	정동섭	남	18	농업	정석봉	피살자명부 기재, 1956.11.11. 사망일 기재
32	이사석	남	38	농업	이경범	제적부 사망 미등재
33	정홍섭	남	30	농업	정윤철	피살자명부 기재, 1949.11.18. 사망일 기재
34	정봉수	남	47	농업	정진섭	1963.12.27. 사망일 기재
35	정달모	남	1930년생	농업	오영남	부상 (1997년 사망)
36	정진철	남	28	농업	정방수	1962.3.12. 사망일 기재
37	이점동	남	40	농업	이재환	1956.7.5. 사망일 기재
38	정남섭	남	39	농업	정기훈	1951.10.18. 사망일 기재
39	정봉섭	남	23	농업	정운섭	1950.11.5. 사망일 기재
40	정근모	남	17	농업	정송모	1965.10.25. 사망일 기재
41	윤필중	남	18	농업	윤만중	1952.2.9. 사망일 기재
42	정상휴	남	36	농업	윤납순	1950.10.10. 사망일 기재
43	정익모	남	44	농업	정진자	피살자명부 기재, 1960.3.10. 사망일 기재
44	조병혁	남	31	농업	조병술	1952.8.16. 사망일 기재
45	정병선	남	31	농업	정을호	1961.3.5. 사망일 기재
46	정진차	남	15		정진재	1950.10.30. 사망일 기재
47	정현수	남	17	농업	정공열	1956.10.20. 사망일 기재
48	정현기	남	13		정복기	1964.12.5. 사망일 기재
49	이계순	여	17	농업	이옥희	제적부 사망 미등재(혼인신고)
50	정해로	남	16	농업	정옥기	1962.1.6. 사망일 기재
51	정영관	남	36	농업	정창호	1953.6.14. 사망일 기재
52	김영섭	남	32	농업	김선영	1961.11.10. 사망일 기재
53	정봉휴	남	37	농업	정유순	1950.10.18. 사망일 기재
54	정재복	남	27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5.3.1. 사망일 기재
55	정홍섭	남	18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7.10.5. 사망일 기재
56	정재섭	남	28	농업	정은균	피살자명부 기재, 1970.5.20. 사망일 기재
57	정병섭	남	30	농업	정경숙	1953.10.8. 사망일 기재
58	김명자	여	18	농업	정경숙	1952.10.10. 사망일 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59	정광열	남	26	농업	백삼남	사망사실 미기재
60	정말동	남	21	농업	백삼남	1957.7.5. 사망일 기재
61	정남숙	남	1928년생	농업		부상
62	정진을	남	30	농업	정영수	1951.11.8. 사망일 기재
63	정동휴	남	25	농업	정영위	1956.5.9. 사망일 기재
64	정동기	남	19	농업	정근욱	1950.11.8. 사망일 기재
65	정귀님	여	15		노흥용	1950.12.7. 사망일 기재
66	정기찬	남	1926년생	농업	김흠선	부상 (1990년 사망)
67	정맹모	남	41	농업	정귀례	피살자명부 기재, 1961.7.3. 사망일 기재
68	정차임	여	17	농업	정귀례	사망사실 미기재
69	정열	남	15	농업	정용운	피살자명부 기재, 1952.6.7. 사망일 기재
70	정진기	남	1922년생	농업	정길수	부상 (1987년 사망)
71	정삼근	남	14		정종욱	피살자명부 기재, 1956.5.9. 사망일 기재
72	김도담	여	16	농업	김윤선	1954.9.5. 사망일 기재
73	김윤월	남	12		김윤선	1957.3.2. 사망일 기재
74	김쌍순	여	5		김윤선	1960.1.10. 사망일 기재
75	이상숙	남	1935년생	농업	정순남	부상 (1985년 사망)
76	정병우	남	23	농업	정연순	피살자명부 기재, 1949.10.27. 사망일 기재
77	정민선	남	17	농업	정연순	1949.12.7. 사망일 기재
78	정태섭	남	28	농업	정재형	1972.4.1. 사망일 기재
79	정회섭	남	1932년생	부상	정기옥	부상 (사망)
80	정팔봉	남	24	농업	정팔림	1950.10.12. 사망일 기재
81	정석두	남	41	농업	정남진	피살자명부 기재, 1953.10.20. 사망일 기재
82	정병찬	남	17	농업	정진섭	1948.6.25. 사망일 기재
83	정남선	남	1921년생	농업	정진두	부상(사망), 사망사실 미기재
84	윤성중	남	29	농업	윤을석	1957.3.26. 사망일 기재
85	정계형	남	34	농업	배정자	2차 총격에 사망, 1950.10.5. 사망일 기재

남산뫼 사건의 희생자는 김갑순(다-1127), 정진덕(다-1128), 최용례·정천수(다-1129), 정종문(다-1130), 심용기(다-1131), 정길문(다-1132), 정동수(다-1133), 정계환(다-1134), 정방섭(다-1135), 정병모(다-1136), 정진철(다-1137), 정동모(다-1138), 정민모(다-1139), 정진발(다-1140), 정창진(다-1141), 정재호(다-1142), 김순애(다-1143), 김재만(다-1144), 정옥모·정기모(다-1145), 정재환(다-1146), 정중진(다-1147), 정문모(다-1148), 정양모(다-1149), 정진봉(다-1150), 정병모(다-1151), 정근모(다-1152·신청인 안춘자), 정동석·정동섭(다-1155), 이사석(다-1156), 정홍섭(다-1157·신청인 정윤철), 정봉수(다-1158), 정진철(다-1160), 이점동(다-1161), 정남섭(다-1162), 정봉섭(다-1163), 정근모(다-1164·신청인 정송모), 윤필중(다-1165), 정상휴(다-1166), 정익모(다-1167), 조병혁(다-1168), 정병선(다-1169), 정진차(다-1170), 정현수(다-1171), 정현기(다-1172), 이계순(다-1173), 정해로(다-1174), 정영관(다-1175), 김영섭(다-1176), 정봉휴(다-1178), 정재복·정흥섭(다-1179·신청인 정재모), 정재섭(다-1180), 정병섭 김명자(다-1181), 정광열·정말동(다-1182), 정진을(다-1184), 정동휴(다-1185), 정동기(다-1186), 정귀님(다-1187), 정맹모·정차임(다-1315), 정열(다-1316), 정삼근(다-2243), 김도담·김윤월·김쌍순(다-2244), 정병우·정민선(다-2872), 정태섭(다-2974), 정팔봉(다-3900), 정석두(다-4267), 정병찬(다-4435), 윤성중(다-6741), 정

69)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계형(다-3752)이다.

또 김유순(다-1154), 정달모(다-1159), 정기찬(다-1314), 정진기(다-1317), 이상숙(다-2245), 정회섭(다-3898), 정남선(다-4696), 정남숙(다-1183)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으며 정남숙은 생존해 있다.

⑦ 월야면 외치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월야면 외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순열의 형 이남열을 포함하여 15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70]

표 10] 월야면 외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남열	남	18	농업	이순열	1950.12.2. 사망일 기재
2	이상근	남	16	농업	이상구	1950.10.27. 사망일 기재
3	정기봉	남	20	농업	정호현	피살자명부 기재, 사망사실 미기재
4	정기업	남	19	농업	정판수	1949.5.11. 사망일 기재
5	정기순	남	16	농업	정판수	1952.10.28. 사망일 기재
6	정기선	남	14		정기정	1950.12.1. 사망일 기재
7	이계주	남	23	농업	이용헌	1950.12.28. 사망일 기재
8	정기동	남	31	농업	정용현	피살자명부 기재,1957.5.5.사망일 기재
9	정갑현	남	14		정귀현	1969.9.25. 사망일 기재
10	정석봉	남	15	농업	정석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1	정달선	남	15	농업	정재선	1950.11.15. 사망일 기재
12	정기복	남	17	농업	정병원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0. 사망일 기재
13	정상현	남	17	농업	정동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4	정만선	남	25	농업	정종성	피살자명부 기재,1950.11.2. 사망일 기재
15	정기우	남	21	농업	정재준	1950.12.20.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이남열(다-1209), 이상근(다-1210), 정기봉(다-1211), 정기업·정기순(다-1212), 정기선(다-1213), 이계주(다-1214), 정기동(다-1215), 정갑현(다-1216), 정석봉(다-1217), 정달선(다-1218), 정기복(다-1219), 정상현(다-1220), 정만선(다-1221), 정기우(다-1222)이다.

⑧ 나산면 이문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나산면 이문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승원의 조부 김기복을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안명임이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안명임과 아들 김맹수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11] 나산면 이문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기복	남	64	농업	김승원	1960.12.10. 사망일 기재
2	김담봉	남	51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3	박삼봉	여	55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70) 함평군의회 보고서에 희생자로 등재된 조금석·조정석과 유족이 나타지지 않은 백기남은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4	김용길	남	57	농업	김완기	1971.3.25. 사망일 기재
5	이계례	여	50	농업	김완기	1971.3.28. 사망일 기재
6	김양임	여	14		김완기	1973.9.10. 사망일 기재
7	정감산	여	58	농업	김호욱	1952.9.5. 사망일 기재
8	안명임	여	20	농업	김현석	혼인신고 미필
9	김맹수	남	7		김현석	호적 미등재
10	오경선	남	15	농업	오정수	1950.11.15.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김기복(다-1121), 김담봉·박삼봉(다-1122), 김용길 이계례(다-1123), 김양임(다-1124), 정감산(다-1125), 안명임·김맹수(다-1126), 오경선(다-2870)이다.

⑨ 해보면 쌍구룡 사건

1950년 12월 31일 해보면 쌍구룡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형술의 부 김영만을 포함하여 23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71]

장재수의 숙모(청암댁), 여동생 장이님 장재님 장아기 등 4명, 김종회의 여동생 1명, 박용원의 여동생 박금희는 호적 등재가 안 되어 제적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김종회의 여동생 김순덕은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제적부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표 12] 해보면 쌍구룡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영만	남	59	농업	김형술	1969.4.19. 사망일 기재
2	장진섭	남	48	농업	장재수	1951.12.21. 사망일 기재
3	조운여	여	42	농업	장재수	1952.1.15. 사망일 기재
4	장순섭	남	46	농업	장재수	1951.12.26. 사망일 기재
5	청암댁	여	39	농업	장재수	장순섭의 처로 혼인신고 안 되었음
6	장이님	여	11		장재수	호적 미등재
7	장재님	여	8		장재수	호적 미등재
8	노월산	여	34	농업	김종회	1962.7.5. 사망일 기재
9	김순덕	여	10		김종회	사망신고 안 됨(혼인)
10	김아기	여	3		김종회	호적 미등재
11	이석여	남	72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2	최봉예	여	37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3	이정행	남	10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4	박영수	남	41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15	구순녀	여	27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16	박금희	여	1		박용원	호적 미등재
17	박민수	남	28	농업	박용원	1960.4.3. 사망일 기재
18	김연녀	여	24	농업	박용원	1967.8.5. 사망일 기재
19	김만엽	남	52	농업	김재귀	1967.10.5. 사망일 기재
20	김경엽	남	56	농업	김재귀	1950.10.31. 사망일 기재
21	이봉범	남	41	농업	이정이	1955.10.19. 사망일 기재
22	이종락	남	28	농업	이병한	사망사실 미기재
23	장아기	여	1		장재수	호적 미등재

71)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대창리 이장 김성묵은 대창리 원주민 11명과 광암리에서 소개된 피난민 40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전남반), 9쪽, 1960. 6. 8.

희생자는 김영만(다-1230), 장진섭·조운여·장이님·장재님·청암댁(정순섭의 처)·장순섭(다-1231), 노월산·김순덕·김아기(다-1232), 이석여·최봉예·이정행(다-1233),박영수·구순녀·박민수·김연녀·박금희(다-1236),김만엽·김경엽(다-1240), 이봉범(다-1253), 이종락(다-3923), 장아기(다-4689)이다.

⑩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1951년 1월 12일 발생한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병용의 가족 5명을 포함하여 50명의 희생과 장종석의 부상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우범·이아기(신청인 이이범)의 희생사실은 이이범 본인에 대한 전화 탐문[72]과 주변 인물[73]에 대하여 탐문하였으나 희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희생자 임남도·임명순(신청인 임기운), 장아기(신청인 장종석), 김용순(신청인 윤한봉의 前母)·윤명란(신청인 윤한봉), 노아기(신청인 노병량) 등 6명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동용은 호적이 멸실되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장종석은 당시 4살에 총을 맞아 부상하였으나 현재 생존해 있다. 신청인 모평마을 사건 윤양성은 장애로 인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3]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윤상수	남	54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2	김정임	여	42	농업	윤병용	1968.11.5. 사망일 기재
3	윤병길	남	24	농업	윤병용	1968.11.6. 사망일 기재
4	윤병식	남	21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5	윤복덕	남	16	농업	윤병용	1950.10.15.해보면 상곡리 쌍구룡 사망
6	김유촌	여	83	농업	윤경중	1950.10.29. 사망일 기재
7	주순님	여	42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8	윤창중	남	17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9	임막동	남	50	농업	임기운	1951.9.18. 사망일 기재
10	윤선순	여	38	농업	임기운	1958.12.12. 사망일 기재
11	임남도	여	6		임기운	호적 미등재
12	임명순	여	3		임기운	호적 미등재
13	이귀범	남	15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4	이오목	여	12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5	이영범	남	9		이이범	1971.11.3. 사망일 기재
16	이갑열	남	49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7	한대례	여	40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8	이인범	남	18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9	이현득	남	16	농업	이이범	1975.2.7. 사망일 기재
20	이윤범	남	9		이이범	1955.3.2. 사망일 기재
21	이문범	남	8		이이범	1971.11.20. 사망일 기재
22	윤옥중	남	49	농업	윤길수	1953.3.22. 사망일 기재
23	장규옥	남	39	농업	장종석	1966.6.8. 사망일 기재
24	윤효임	여	28	농업	장종석	1972.1.4. 사망일 기재

72) 신청인 이이범, 전화탐문 2007. 4. 11.
73) 해보면 유족회장 박용원, 2007. 6. 22.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25	장아기	여	2		장종석	호적 미등재
26	임삼봉	여	55	농업	윤일성	1953.9.20. 사망일 기재
27	윤판술	남	35	농업	윤일성	1954.7.10. 사망일 기재
28	정순임	여	16	농업	윤종길	혼인신고 미필
29	윤석열	남	27	농업	김윤임	1951.11.15. 사망일 기재
30	김처녀	여	43	농업	윤한봉	1968.3.1. 사망일 기재
31	김용순	여	22	농업	윤한봉	혼인신고 미필
32	윤명란	여	3		윤한봉	호적 미등재
33	윤양중	남	22	농업	윤철곤	1954.7.2. 사망일 기재
34	김기중	남	49	농업	김복수	1974.12.28. 사망일 기재
35	정지족	여	73	농업	김광현	1967.8.25. 사망일 기재
36	윤규삼	남	70	농업	윤오중	1973.6.10. 사망일 기재
37	정고녀	여	54	농업	윤오중	1973.5.6. 사망일 기재
38	노방주	남	35	농업	노병량	1950.11.15. 사망일 기재
39	노병희	여	8		노병량	1961.10.5. 사망일 기재
40	노아기	여	3		노병량	호적 미등재
41	이유용	남	31	농업	이귀성	1969.4.11. 사망일 기재
42	최희락	남	22	농업	최남용	1950.12.20. 사망일 기재
43	장종석	남	1947년생		본인	부상
44	정동용	남	25	농업	윤길수	제적부 확인 안 됨
45	윤덕림	여	12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6	윤석규	남	9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7	윤석문	남	8		윤길수	1950.1.6. 사망일 기재
48	윤유성	남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9	장양림	여	63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0	이평림	여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1	모순녀	여	27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희생자는 윤상수·김정임·윤병길·윤병식·윤복덕(다-1208), 김유촌(다-1234),주순님·윤창중(다-1235), 임막동·윤선순·임남도·임명순(다-1237),이귀범·이오목·이영범·이갑열·한대례·이인범·이현득·이윤범·이문범(다-1238),윤옥중(다-1241),장규옥·윤효임·장아기(다-1242), 임삼봉·윤판술(다-1243), 정순임(다-1246), 윤석열(다-1247), 김처녀·김용순·윤명란(다-1248), 윤양중(다-1249), 김기중(다-1250), 정지족(다-1251), 윤규삼·정고녀(다-1252), 노방주·노병희·노아기(다-1254), 이유용(다-2871), 최희락(다-3922), 정동용(다-10830), 윤덕림·윤석규·윤석문·윤유성·장양림·이평림·모순녀(다-10831)이다. 또 장종석(다-4944)은 당시 4살이었는데 발목에 총을 맞았다.

⑪ 나산면 우치리 사건

1951년 1월 14일 발생한 나산면 우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희생자 수는 이계준의 모 김증산을 포함하여 6명으로 확인되었다.[74] 이계백의 외숙 안귀식은 절손되어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동생 이아기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74) 희생자 김증산은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표 14] 나산면 우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증산	여	58	농업	이계준	피살자명부기재, 1970.10.5. 사망일 기재
2	안귀식	남	28	농업	이계백	사망사실 미 등재
3	안귀순	여	33	농업	이계백	1992.5.13. 사망일 기재
4	이아기	남	1		이계백	호적 미등재
5	김신광	여	61	농업	김재경	1924.10.18. 사망일 기재
6	정병옥	남	11		정병호	1962.11.20. 사망일 기재
7	문앵례	여	68		고영석	사망사실 미기재

희생자는 김증산(다-1054), 안귀식(다-1114), 안귀순 이아기(다-1115), 김신광(다-1118), 정병옥(다-1119), 문앵례(다-1120)이다.

⑫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그밖에 1950년 11월 27일부터 1951년 2월 20일경까지 5중대의 작전지역이었던 함평 일원과 장성군 삼서면, 광산군 인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규모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병화의 부 정성면을 포함하여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의 신원과 당시 사건발생지역은 아래와 같다.

[표 15]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1	정성면	남	31	농업	정병화	월야 영월, 1950.1.9. 사망일 기재
2	이동선	남	29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3	이동기	남	25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4	안해동	남	44	농업	안길원	해보 금덕, 1951.7.28. 사망일 기재
5	김기만	남	46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10.29. 사망일 기재
6	정약순	여	49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2.3.12. 사망일 기재
7	강정순	여	20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9.15. 사망일 기재
8	김인순	여	13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47.7.20. 사망일 기재
9	정창기	남	27	농업	정윤현	월야 전하, 1950.11.15. 사망일 기재
10	이성신	여	19	농업	이기신	해보 금덕, 1961.3.15. 사망일 기재
11	이용범	남	45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3.7. 사망일 기재
12	윤효순	여	43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6.20. 사망일 기재
13	김영만	남	17	농업	김영휴	1961.6.7. 사망일 기재
14	노봉래	남	55	농업	노병철	1951.11.30. 사망일 기재
15	노연자	여	18	농업	노병철	호적 미등재
16	최남휴	남	34	농업	최병수	해보 고모, 1950.10.28. 사망일 기재
17	이윤선	남	64	농업	이덕행	해보 금덕, 1957.5.26. 사망일 기재
18	이손동	남	39	농업	이덕행	1958.1.29. 사망일 기재
19	이달성	남	27	농업	이국범	사망 미기재
20	윤일두	남	45	경찰	윤석주	해보 금덕, 1950.11.16. 사망일 기재
21	박명수	남	25	농업	장동규	월야 계림, 1958.12.16. 사망일 기재
22	배판수	남	29	농업	배상호	해보 귀밀, 1951.11.30. 사망일 기재
23	이기범	남	35	농업	이재삼	월야 서촌, 1966.10.26. 사망일 기재
24	양대자	남	43	농업	양윤식	월야 용정, 1964.12.14. 사망일 기재
25	윤봉연	남	49	농업	윤무병	해보 쌍구룡, 1975.11.15. 사망일 기재
26	서이섭	남	27	농업	서동기	해보 탑재, 1951.10.15. 사망일 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27	김병갑	남	40	농업	김현필	해보 금덕, 1953.2.16. 사망일 기재
28	봉진성	남	28	농업	봉석	해보 문장, 1950.11.20. 사망일 기재
29	이병옥	남	27	농업	이옥희	광산 삼도, 사망일자 미기재

신청인 이만희의 숙부 이정열, 이정기의 사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만은 신청인 김영휴의 형으로서 행정 착오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김영휴이다.

희생자 중 노연자는 호적 등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달성은 제적부 상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희생자[75]는 정성면(다-1229), 이동선 이동기(다-555), 안해동(다-556), 김기만 정약순 강정순 김인순(다-1049), 정창기(다-1177), 이성신(다-1319), 이용범 윤효순(다-2744), 김영만(다-2862), 노봉래 노연자(다-2868), 최남휴(다-3223), 이윤선·이손동(다-3626), 이달성(다-3899), 윤일두(다-3919), 박명수(다-4104), 배판수(다-4557), 이기범(다-4558), 양대자(다-5612), 윤봉연(다-6302), 서이섭(다-6306), 김병갑(다-8485), 봉진성(다-10810), 이병옥(다-1173)이다.

신청인 김성수(다-5617)는 진실규명신청서에 누이 김소림이 1950년 가을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목격자 양윤식의 증언에 따라 5중대의 해보 주둔 전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여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정진두(다-4696)의 고종사촌 형 정재덕은 제적부 상에 **「단기 4283년 9월 2일 ○○지구에서 전사 육군본부 부관감 … 단기 4294년 11월 20일 보고」**로 되어 있어 남산뫼 사건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192명의 진실규명신청인 중 185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 사망자 249명과 부상 후 사망 또는 생존자 9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미신청인 1명을 사건현장 부상 생존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신청인 윤석주(다-3919호) 진실규명 신청에서 피해자 진막동, 윤일태는 인민군 통치 시기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 사건 진실규명대상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이관하였다.

나. 사건지역 전체 희생자 수

함평11사단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별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9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258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피해자 확정은 주로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사관이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75) 소규모사건 희생자의 사망일자는 다음과 같다. 정성면(1950. 11. 27.), 이동선 이동기(1950. 12. 말), 안해동(1951. 1. 6.), 김기만 정양순 강정순 김인순(1951. 1. 9.) 정창기(1950. 11. 28), 이성신(1950. 12. 13.), 이용범 윤효순(1950. 12. 8.) 김영만(1950. 12. 7), 노봉래 노연자(1951. 1. 6.), 최남휴(1950. 12. 8.), 이윤선(1950. 12. 4.), 이손동(1950. 12. 2.), 이달성(1950. 11. 26.), 윤일두(1950. 12. 25), 박명수(1950. 12. 10.), 배판수(1950. 12. 1.), 이기범(1950. 12. 5), 양대자(1950. 12. 5.), 윤봉연(1950. 12. 21.), 서이섭(음·1950. 11. 13.), 김병갑(1950. 12. 27), 봉진성(1950. 12. 5), 이병옥(1950. 12. 7.).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신청인 박희님과 같이 사망하여 조사,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희생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76] 그래서 함평 11사단 작전지역이었던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사건관련 사망자는 최소 249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확인한 사건지역별 희생자 수와 함평군의회가 조사한 희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6] 진실화해위원회와 함평군의회 조사의 마을별 사건희생자 규모

단위: 명

구분	덕림리	장교	동촌	수해리	남산뫼	외치리	이문리	쌍구룡	모평	우치리	기타	합계
진실화해위	6	9	13	10	77	15	10	23	50	7	29	249(9)
함평군의회	7	11	18	5	90	18	8	34	48	10	13	262

주: ( ) 안의 숫자는 부상자 임.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96년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그리고 유족회가 작성한 「유족회원 명부」 등을 위원회가 확인한 피해규모와 비교해보면 1960년 제4대 국회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남반(유옥우, 임차주 조사위원과 오표 전문위원)은 함평 현지에 내려와 사건 당시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결과 월야면 피해자 수를 남산뫼 현장 사망 108명을 포함하여 350명(부상 25명 포함)이라고 집계하였고,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을 포함하여 함평11사단 집단희생 피해자 수는 도합 524명으로 집계하였다.[77] 이러한 피해자 수는 당시의 국회 속기록과도 차이가 난다.

함평 현지 증언청취 속기록을 보면 당시 월야면 부면장은 월야지역 희생자를 350명(부상자 25명 포함)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해보면은 금덕리 고두마을 43명(이장 강철현 증언), 모평마을 83명(이장 윤형중 증언), 성대마을 40명(이장 김성묵 증언), 그리고 해보지역 주민 45명(김성묵 증언)이라고 증언하여 이를 합치면 해보면 피해자는 211명이었다. 나산면은 우치리 36, 37명(이오섭 면장 증언), 이문리 10명(이오섭 면장 증언)이라고 증언하였다. 속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수를 합치면 607명이 된다. 이는 해보면 피해자 수에서 83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제4대 국회의 현지 증언청취를 통한 조사가 1960년 6월 8일 단 하루 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장들의 증언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524명의 신원 등이 포함된 명단은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함평군의회는 1996년 12월 28일 제46회 정기회에서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76) 신청인 박희님은 사망하였고, 신청인 채상현, 윤복금, 정태중은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은 장애로, 정병주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정이재는 연결이 안 되었다.

77) 제4대 국회 조사보고서는 당시 조사가 단 하루에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희생자의 규모를 사건 당시와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조사의 원자료 등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또 조사보고서에서는 함평지역 희생자를 면별 희생자 수만을 발표하다 보니 마을별 희생자 수 등 희생자의 구체적인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위원장 윤표, 간사 이재화 의원)를 구성하여 1997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활동하였다.[78] 군의회 조사 역시 피해 유족들을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 기존 유족회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많았다.

함평군의회 조사는 당시 마을별 증언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조사이어서 그 보고서의 희생규모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조사에서 5중대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중 동네의 다른 소규모 사건과 관련 희생자 규모는 누락되었다.

이에 비해 위원회 조사는 진실규명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 산정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좀 더 엄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이 상당수 있고 가족이 전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8명이 최종 확인된 피해자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함평11사단사건 관련 희생자는 최소 249명에서 최대 607명이라고 일단 결론내릴 수 있다.

또 『6·25피살자 명부』에 기록된 30여 명이 오히려 국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다. 연령별·성별 희생자 구성

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17] 희생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79]

단위: 명

구분	~10	~20	~30	~40	~50	~60	61세~	기타	총계
전체(여자)	22(12)	71(18)	55(7)	40(9)	34(7)	16(5)	11(5)	9(1)	258
비율(%)	8.8	28.5	22.1	16.1	13.7	6.4	4.4	(부상)	100

주: 기타는 9명의 부상자 포함.

희생자의 연령·성별 분포를 보면 41.7%에 이르는 104명이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희생자 중 여성은 6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50세 이상 희생자는 특히 쌍구룡과 모평, 우치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20대 희생자는 총살직전 청장년을 선별하였던 남산뫼와 외치리 사건에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체 희생자의 41.7%에 이르는 104명 이상이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가 아닌 노인과 청소년이고 특히 여성도 전체의 25.7%(64명)나 차지하여 희생자의 대다수가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빨치산 협력활동과는 무관한 민간인임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일부 사건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형식적인 선별절차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을 앞이나 일정 지역에 주민을 불러낸 후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 사건의 경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78) 현지 기초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지만 당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군의 지휘계통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9)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신청인의 조사와 제적부 확인 및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조사 거부 등으로 사건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분포도에서 제외하였다.

이다.

희생자들은 5중대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내통자 또는 협력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되었지만 신청인과 참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249명의 사망자 가운데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빨치산과 국군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마을에 남아 있던 농민들이었다.

5). 가해주체와 가해 이유

가. 조사내용

(1) 육군 11사단의 창설과 토벌작전

가) 부대 창설과 견벽청야 작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초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인민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인민군과 지방좌익 등은 북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자 후방 산악지대에 들어가 빨치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1950년 8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4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11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육군 준장 최덕신이 9월 25일자로 초대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1사단은 지리산 동서 양안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다 1951년 4월, 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11사단장 최덕신은 중국의 고전적 작전개념인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을 빨치산 토벌작전에 활용하였다. 이 작전은 '지켜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하게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게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시키고 건물은 깨끗이 없애 적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목표를 구분하였다.[80]

■ 제1기(1950. 10. 7. ~ 10. 25.) 작전은 병력의 호남지역에 집결 후 훈련과 각 지역 행정기관 복구 및 적정을 수집하였다.

■ 제2기(1950. 10. 26. ~ 12. 31.) 작전은 월동기를 맞아, 빨치산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방법을 통해 적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견벽청야 작전'을 전개하였다.

■ 제3기(1951. 1. 1. ~ 1. 31.)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빨치산이 고봉을 근거지로 아지트를 구축하고 약탈, 납치, 방화, 기습 등을 감행함에 경찰, 청년방위대에 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사단은 근거지 붕괴에 주력하였다.

8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8, 172~176쪽.

■ 제4기(1951. 2. 1. ~ 3. 31.) 작전은 최종 토벌기로서 공비의 섬멸을 위하여 지리산 불갑산 등 빨치산 근거지 인근 산악지역의 주민 소개 작전도 병행하였다.

이 작전은 빨치산토벌이라는 본래의 작전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발생시켰다.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전에 대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최덕신은 "견벽청야작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집을 불사르고 철수시킨 다음, 다시 주민들이 들어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 원성이 클 수밖에요"라고 하면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폐해를 인정한 바 있다.[81]

나) 11사단 예하 연대의 창설과 20연대의 광주 주둔

11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배속시켰는데 함평11사단사건과 관련된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경상남도 삼랑진에서 육군 제6훈련소를 개편하여 창설하였으며 10월 1일 제주의 육군 제5훈련소로부터 장교 87명, 사병 1500명을 충원 받아 편성을 완료하였다.[82] 20연대는 11사단 작전명령 제3호에 의거, 1950년 10월 4일 삼랑진을 출발하여 10일 광주시에 도착하여 광주여자중학교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다.[83]

20연대 1대대는 1950년 10월 18일 담양읍 지역과 전라북도 순창 방면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3대대는 광주, 목포에 이어 육로를 이용, 함평지역을 수복하고 화순지역에 주둔하게 된다.

한편 9연대는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는데 1951년 2월 초 경상남도 거창, 산청, 함양의 산악지역의 주민을 집단 총살한 사건 즉 '거창사건'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3연대는 진해시 진해여자중학교에서 11사단에 예속되었고 10월 9일 전주로 이동하여 10월 23일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전주에 두고 전라북도 내 공비 토벌작전을 벌였다.[84]

1950년 10월 7일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의 11사단 20연대의 전과 및 피해통계를 보면 사살이 6,800명, 포로는 527명으로 전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사단의 공식 공비 토벌작전과의 상당 부분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많이 한 함평, 화순, 담양, 고창, 순창 등지가 전쟁 당시 20연대 2대대 및 3대대의 작전지역이었다는 점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 2대대의 편성과 초기작전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육군본부 일반명령에 의거 제6훈련소로부터 20연대로 개편된 이래 같은 해 9월 28일 연대 작명 제1호에 의거하여 제2대대(대대장 유갑열 소령)를 경상남도

81)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3, 을유문화사, 1975, 410쪽.
8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922쪽.
83) 1950. 10. 22. 연대 작명 제12호에 의거 광주여자중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본부와 예하 각 대대본부를 광주 서석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육군 군사연구실, 「부대약력표」.
84) 보병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보병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참조

진영에서 편성[85]하였다.

그후 제2대대 작전보고에 의하면 최초 작전은 10월 18일 연대 작명 제10호[86]에 의거, 전라남도 장성지구 소탕전을 전개하였다.[87]

이후 제2대대의 작전 관련기록은 육군본부 작전명령[88]에 의하여 미 9군단에 이양되었고 실행내용은 육군본부에서 번역한 미군 문서인 「정기작전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 부록 제 1 호-

육 군 본 부

육본작명 제 207 호

1. 가. 생략
   나. 미 제8군 및 아군은 38선을 돌파하여 괴뢰군을 완전 격멸키 위하여 집결 중에 있음.
2.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3. 가. 제11사단장은 1950. 10. 5.까지 사단사령부 및 제13연대를 남원, 제20연대를 광주, 제9연대를 전주에 각각 집결시켜 미 제9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나. 집결 후 즉시 사단 전투지경선 남방의 전남지역을 인수 담당하라.
4.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작전명령 제207호를 통하여 11사단에 대한 지휘권을 미9군단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미군 지시에 의하여 20연대 2대대가 장성군 사창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문서에 나타나 있다.

> 11ROK Div; 13R 一部兵力은 270400時 CQ8731附近에서 約200의 敵과 接戰하였음. 敵 KIA 30, 殘敵은 分散. 20R2Bn은 오지리 B8893으로 移動 中. 20R3Bn은 동림리 BP8086으로 進出하였으며 期間 中 接戰報告 無. 全 部隊는 擔當地區에서 積極的으로 任務遂行 中.[89]

위 보고에서 좌표 CQ8731은 해남군 옥천면 지역이고 좌표 B8893(BP8893의 오기)은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인근이다. 지명 오지리와 동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BP8086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부근이다.

이 지역에서 군의 이동사실은 신청인 양윤식의 진술[90]에서 확인되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926쪽.
86) 광주 주둔 중인 제2대대장 육군소령 유갑열 이하 완전 1개 대대는 장성방면으로 출동하라.
87) 「장성읍 동남방 261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937쪽.
88) 보병11사단, 「화랑약사」, 1976, 78쪽.
89) 육군본부,「정기작전보고」, 1950. 10. 336쪽.

11월 중순 함평군과 광산군의 경계지점인 월야면 외치리 인근에서 군의 이동과 초소가 운용되었음이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었다.[91] 기록상 사건지역에서 20연대 2대대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12월 18일 함평군 해보면 구계리로 알려져 있었지만[92] 위 「정기작전보고」에서는 10월 27일에 함평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대대는 이후 11월 30일에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을 전개하였다.[93] 위원회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2대대의 대대본부와 8중대는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6중대는 전라북도 고창에, 7중대는 장성군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94]

라) 국군의 함평읍 수복과 5중대의 해보면 주둔시기

참고인 이현석(당시 함평문화원장)의 진술[95]에 따르면 함평군 함평읍에 20연대가 최초로 나타난 시점은 1950년 10월 23일이다.[96] 3대대 9중대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던 중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인근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한 후 함평중학교에 주둔하였고 일부는 나산면 나산초등학교에 주둔하였다. 나산면 구산리 주민 이재열(당시 청년방위대원)은 함평 쪽에서 들어온 군인이 나산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인근 원선리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벌였다[97]고 증언하였다.

12월 18일 「구계리 공비소탕전」은 현지 주민을 통해 탐문해본 결과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8]

또 5중대의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 주둔에 대해서는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으며,[99] 윤인식(4선 국회의원), 이계필(사건 당시 월야지서장), 오정인(월야지서 경찰)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2) 가해주체

함평11사단사건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인근 지역에서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가해주체로 당시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지목하고 있다. 당시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는 2000년 6월 25일 『MBC』가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에서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가해주체로 지목하였다.[100] 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김일호는 당시 가해주체가 5중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

90) 신청인 양윤식, 전화탐문, 2007. 5. 15.
91)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4쪽, 2006. 5. 17.
9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928쪽.
93)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7, 941쪽.
94) 2대대의 작전 관련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위원회의 고창지역 조사, 그리고 본 사건과의 함평지역 조사 등에서 주둔사실은 확인되었다.
95) 참고인 이현석, 진술조서 4쪽, 2006. 8. 23.
96) 함평의 수복은 1950년 10월 23일이다.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②, 1999년, 67쪽.
97)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이재열(5중대 청년방위대원)과 2007. 6. 6, 전화탐문.
98) 해보면 금덕리 거주 윤주원(061-323-0414)과 2007. 5. 9. 전화탐문.
99)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 2000. 6. 25, 『MBC』 ; 참고인 김일호, 2007. 2. 15.
100) 김일호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

였다.[101]

5중대 및 중대장 권준옥이 사건의 명령 지휘책임자라는 것은 당시 월야지서 경찰관이었던 오정인의 진술,[102] 월야지서장 이계필의 증언서, 동3(월야, 해보, 나산)면 선무공작대장 윤인식의 증언서에서도 확인된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가해부대를 '5사단 20연대 5중대'(중대장 권준혁)라고 지목하였다.[103] 또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한국일보』 1960년 5월 21일자 기사에서도 5중대장을 권준옥 대위로 보도하였다.[104]

그러나 권준옥의 인사기록카드나 자력표 등에는 5중대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 사건 발생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1951년 1월 22일 '2대대 장교 권준옥'을 '연대 근무중대 병기장교 권준옥'으로 전보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기록은 1951년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과 1월 20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희생사건 발생 후 권준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105]

현재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 되는 바 같은 2대대 소속이면서도 전·남북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했던 6중대나 8중대에 의한 피해보다 5중대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사건의 지휘책임이 일단 5중대장에게 있음을 입증해 준다.

당시 목격자나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중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일은 비일비재했는데, "군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니까 군인들이 없는 곳으로 피신가야 했다"[106]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국군들이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으며, 따라서 불갑산으로 올라간 주민들 상당수도 빨치산을 따라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5중대 군인을 피해 피난 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인 윤홍병은 "전반적으로 질이 나빴다. 무시무시한 놈들이다"라고 5중대 군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학련활동을 했던 정현모는 "이동 시에 낙오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죽여 버리기까지 하였다"[107]며 5중대 군인들의 잔인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5중대 사병의 대부분은 전투력이 별로 없는 신참 군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대 후 일주일의 훈련으로 낯선 함평에 온 17, 8세의 병사들에게 문장장터에 주둔한 후 맞닥뜨린 빨치산의 기습은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5중대는 소대별로 야전에 참호를 파고 천막을 치고 생

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노약자, 걸린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101)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7·12·34·36쪽, 2007. 2. 15.

102) 오정인은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번은 회의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한번은 책임제를 맡겨주었는데 만약 공비로 지목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3쪽, 2006. 12. 13.)

103)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15쪽. 당시 희생자 측 증인은 '권준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듣는 과정에서 권준옥을 권준혁으로 들어서 초래된 착오로 보인다.

104) 「마구 터지는 大虐殺 秘史」, 『한국일보』, 1960. 5. 21.

105)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139쪽.

106) 참고인 장두병, 진술조서 4쪽, 2006. 6. 28.

107) 참고인 정현모, 진술조서 9쪽, 2006. 7. 20.

활하다 보니 틈만 나면 민가에 나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있다.

5중대의 규율은 6중대와 대비된다. 6중대는 같은 대대의 중대였지만 학교 안(고창중학교)에 주둔하다 보니 병력이 통제되고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지만[108] 5중대는 소대별 천막생활을 하여 규율이 존재하지 않았다.

5중대가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집단총살사건을 빈번하게 야기한데는 5중대장 권준옥의 개인적인 성격과 품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대장 권준옥과 일부 병사의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은 주민의 원성을 샀다. 남산뫼 사건에서 젊은 여자를 연행하려 하자 그 아버지까지 총살하였고, 당일 남산뫼 현장에 가면서 월야면 용두리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를 성폭행 후 총살하기도 하였다.[109]

참고인 이녹범에 의하면 권준옥 중대장의 만행에 대해 해보지서장이 연대장 박기병 대령에게 진정하여 연대장이 해보 중대본부를 불시에 방문하였는데, 그는 중대막사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 발각되어 입창조처를 받기도 하였다.[110] 5중대 화기소대원에 의한 여성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였다.[111] 또 해보면 문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어느 주민은 5중대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주민이 매일 여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112]

권준옥 5중대장과 중대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역주민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113] 한편으로는 집단희생 사건 발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된다.[114]

한편 사건지역의 경찰, 청년방위대원, 학도연맹원, 구국연맹원 등도 군의 작전에 동원되었다. 청년방위대원의 경우 남산뫼 사건, 쌍구룡 사건 발생 시에는 마을에 들어가 5중대의 명령으로 주민을 끌어냈으며 군인들이 주민을 총살할 때는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입구에서 망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115]

또 학도연맹원의 일부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비색출을 명분으로 마을에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116] 구국연맹원 또한 군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해 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5중대원 중 명령을 피해 주민을 살려준 경우도 있는데 남산뫼 사건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가 정일웅을 살려주기도 하였고, 어느 군인이 주민들을 나오라고 독려하는 이장에게 만류하였는가 하면, 쌍구룡에서는 앞장서 나오는 주민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주기도 하였다. 또 나산면 우치리에서는 군인이 제사를 지내는 집에 와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단총살을 피할 수 있었다.[117] 이는

108) 참고인 윤석근, 녹취록 6쪽, 2006. 12. 13.
109)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8쪽, 2006. 6. 29.
110) 참고인 이녹범,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111) 신청인 김홍빈·노병철의 진술조서, 2007. 1. 18.
112) 정찬동 『함평양민학살』, 시와 사람, 1999, 75~84쪽.
113) 신청인 양윤식, 진술조서 4쪽, 2007. 3. 15.
114) 참고인 박병인, 진술조서 38·42쪽, 2007. 2. 14.
115)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4쪽, 2006. 6. 29.
116) 참고인 윤홍병, 진술조서 7쪽, 2006. 6. 8.
117) 신청인 김재경, 진술조서 5쪽, 2006. 8. 9.

중대장의 총살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병들이 중대장의 명령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볼 수 있다.

(3) 가해 이유

사건이 일어난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은 빨치산 근거지였던 불갑산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9·28 수복이후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일부 지방좌익이 불갑산과 태청산으로 입산하여 인근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하며 5중대 및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당시 5중대는 불갑산과 태청산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하던 초기부터 월야면 외치재의 교통요지에서 경계초소를 운용하고 있었다.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는 당시 형식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전시 계엄이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3명이상 회합을 할 경우 반드시 군·경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당시 계엄 지침을 알지 못했던 덕림리 주민들은 노루고기를 먹기 위해 주막을 드나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연행된 후 총살당하였다.

장교와 동촌마을의 집단 총살사건은 한새들 전투 전후로 빨치산 협력자들이 뒷산에 올라가 징과 꽹과리를 치며 만세를 부르면서 5중대원을 크게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9일의 외치리 사건은 5중대가 마을 앞의 광주-영광 간 도로가 파헤쳐진 것을 주민이 빨치산과 내통하여 저지른 짓이라고 의심하여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118]

나산면 이문리의 경우 마을 거주자 가운데 좌익활동을 하였던 주민이 있다며 명부를 보고 선별하여 살상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쌍구룡에 끌려나왔던 성대마을 주민들은 식량 등을 가지러 원래 거주지였던 광암리를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을 시켜 틈틈이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사건 전날인 5중대는 12월 30일 어수산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나갔다가 잠복하고 있던 빨치산의 습격으로 퇴각하기도 하였다.[119] 5중대는 이날의 습격에 자극받아 성대마을의 소개민을 빨치산으로 의심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상곡리 모평마을 집단희생사건의 원인은 사건 전날(1월 11일) 밤 모평마을 뒷산과 연계되어 있는 비녀봉에서 빨치산들이 중대본부에 총격을 가한데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의 경우 일부 소개 피난민들이 이곳에 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 활동으로 의심하여 마을에 들어가 남아있는 주민을 총살하였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1950년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함평 11사단 사건은 월야, 해보 등지의 불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한다고 간주한 5중대 군인들이 무리하게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인들은 빨치산에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한새들 전투 이후 장교·동촌마을 사건이나 남산뫼 사건 또 쌍구룡, 모평마을 사건처럼 화풀이 식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

118) 신청인 이용헌, 진술조서 8쪽, 2006.6.28; 정호현(3쪽), 정재선(6쪽), 정병원(4쪽), 정동현(3쪽).
119)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11쪽, 2006. 6. 29.

었다. 5중대장의 평소 부하나 주민들에 대한 난폭한 행동도 주요한 이유가 되지만, 빨치산과 비교해서 전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이 어린 군인들의 빨치산에 대한 공포감과 보복심도 화풀이식 무차별적인 주민희생을 야기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나. 소결

1950년 10월 말 이후 함평군 해보면, 월야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집단 총살한 가해부대는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5중대의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문장 장터 주둔 사실은 당시 5중대장 연락병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윤인식, 이계필, 그리고 생존해 있는 오정인 등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또 가해부대의 직접 책임자인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로 확인되었다.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지역의 집단희생사건은 육군11사단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5중대는 한새들 전투에서와 같이 사건 발생지역인 불갑산 인근지대 주민들이 빨치산에 내통 또는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아래 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총살하였음이 분명하다.

6) 가해 측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1) 가해 측의 지휘·명령체계

가. 조사내용

1960년 국회 조사당시 현장 생존자 정일웅은 "그 사람(5중대장)이 와가지고 말한 것은 하루에 공비 몇 명과 무기 얼마를 사살하고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120] 이는 5중대의 민간인 사살이 상부의 '공비사살' 지시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즉 본 사건의 가해부대인 5중대 중대장 권준옥이 함평지역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을 직접 명령한 장본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루에 일정한 수의 공비를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은 상급부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월야지서 토벌대장으로서 사건 직전 군경작전 회의 현장에 참석했던 오정인, 5중대장 연락병으로서 명령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김일호, 당시 군의 작전과 상부 보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방 경력의 김석주의 다음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사건 전에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으며 한번은 월야와 삼서면 경계지역에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121]

120) 정일웅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 16쪽, 1960. 6. 9.
121)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122]

>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 와서 자신들이 주민들의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으며 이중 분첩은 이발소에 주고 가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5중대 군인들 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123]

위의 진술 및 증언에서는 5중대장 권준옥이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 '대대장의 명령'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 하루 50명 혹은 일정규모의 공산주의자 혹은 공비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물론 5중대 분대장 황학준을 비롯한 다른 사병들은 그러한 명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124]하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면 군경 합동의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오정인, 대대, 연대로부터 명령을 수발하고 작전보고를 했던 연락병 김일호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0연대 작전명령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 혹은 연대의 실제 명령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상부로부터의 명령 전달과정을 목격한 위의 오정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의 내용이 실제 명령서에 적혀 있었다면 연대장, 대대장은 이들을 곧 공비와 동일 시 했다는 말이 된다.

그는 작전 회의에서 군인들이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면, 그런 놈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작전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그 말을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는데,[125] 5중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지휘관들도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5중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혹은 적어도 묵인 하에 불갑산 인근 동네의 청장년기의 주민들을 모두 빨치산 협력자, 부역자로 간주하고 총살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하였던 동네 중 권준옥이 현장에서 지휘했던 몇 곳에서 총살직전 주민을 선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 지휘부에서 불갑산 인근 지역의 민간인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명령,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11사단 9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 산청,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이 사건의 지휘·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예하부대 부대장에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하여 비전투원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도 "이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122) 김일호 증언,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 2000.6.25. 『MBC』
123) 참고인 윤주원, 진술서, 2007. 5. 17.
124) 참고인 황학준, 진술조서 9쪽, 2006. 7. 6.
125)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라고 시인하였으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직접, 간접으로 행동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복구지대에도 양민이 있었지만,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26]

결국 거창 신원면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연대장이 공비소탕을 위해 미수복 지역의 공비협력 가능자들을 사실상의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곧 '이적행위자를 교전 중인 적과 동일시하여 총살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군·경 가족과 노인, 아동을 선별한 후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것은 거창군 신원면 사건 발생이전이었던 함평 11사단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2대대장이 작전초기에 월야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2대대장은 5중대가 공비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미수복 지역의 민간인들을 사살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5중대는 자신들이 수행한 작전상황에 대해 장성의 2대대 본부에 3일에 한번 씩 작전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보고자는 사병 1개 분대 규모병력과 엇비슷한 숫자의 청방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갔다고 한다.[127] 당시 5중대는 마을에 들어가 주민 소개작전을 할 때도 꽹이 삽 쇠스랑 도끼 등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여 노획무기의 전과로 보고하였는데,[128] 이 같은 내용은 공비사살과 무기노획이 중요 작전 목표였으며, 그것이 대대, 연대에 그대로 보고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년 말께 6중대 청년방위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연대본부에서 사살한 인명 수 등의 내용을 적은 5중대 전과표를 보았다는 윤석근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129] 다만 5중대가 연대본부에 본 사건을 단순히 공비토벌 전과로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대대장과 연대장이 5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살상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권준옥을 1951년 1월 22일 연대 병기장교로 인사이동 조치한 것으로 보아 집단희생·성폭력 사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연대의 작전명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연대장이 직접 "'이적행위자'를 총살하라"라고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1사단의 작전 지휘 하에서 발생하였던 거창사건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연대차원에서 예하의 2대대장과 5중대장이 불갑산 인근의 주민 중 청·장년들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하여 총살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정도의 명령이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2대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5중대 작전지역에서 유독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5중대 작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공비와의 실제 교전 경험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군인들의 공포감과 보복심과 감정적 대응, 그리고 5중대장 자신이 매우 난폭한 성격

126)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3권, 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28~71쪽
127) 김일호가 광주 연대본부에 보고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4쪽, 신청인 이용헌, 진술조서 6쪽.
128) 유창기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275쪽.
129) 참고인 윤석근, 진술조서 6쪽, 2006. 12. 13.

의 소유자인데다 인명을 경시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던 점, 5중대 군인들의 훈련이 부족하였고 규율이 없었던 점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일호는 이 사건의 책임이 중대장 권준옥에게 있다기 보다는 사단장 최덕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130] 그는 권준옥 중대장이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살상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장 권준옥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넓게 보아 사단차원의 견벽청야 작전개념, 특히 '청야'작전이 사실상 민간인 집단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실제 1951년 초 거창사건이 폭로되어 11사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최덕신 사단장은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거창군 신원면 거주 주민을 총살한 원인을 "남여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구실 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131] 이는 민간인 총살의 일차 원인을 국군의 과오보다는 적에게 협력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그의 사고방식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무차별적 사살'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사단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 살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함평11사단 사건 중 남산뫼 등지에서의 주민 선별과정을 보면 이듬해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선별 후 총살'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명부록, 혹은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개념은 연대, 대대 혹은 말단 지휘관에게는 적의 근거지 즉 함평지역의 경우에는 미수복지역이었던 불갑산이나 태청산 인근을 초토화시키면서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132]

결국 상급부대인 연대나 사단에서 직접 주민 살상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 주민을 공비 내통자로 간주하고 무리한 토벌작전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견벽청야' 작전개념 하의 토벌작전은 산간지대 인접 지역 대대와 중대에서는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거창 신원사건이 폭로된 1951년 3월 이후 이전의 모든 작명이나 작전내용이 변조,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 2대대장은 유갑열 소령, 20연대장은 박기병 대령, 11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기 때문에 함평11사단 사건의 책임은 이들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귀속된다. 그리고 공비토벌을 위해서는 전투의 필요(necessity)를 넘어서는 민간인 무차별 총살까지도 묵인 방관했던 이승만 정부에게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한편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작전보고 문서를 번역한 「정기작전보고」(1950. 10.)에는 11사단

130)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21쪽, 2007. 2. 15.

131) 사단장 보고서, 『거창사건(양민학살)』, 『동아일보』, 1960.5.14.

132) 전라남도 25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한 도처에서 '인민공화국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퇴로를 차단당한 괴뢰군 잔도를 호남일대에서 섬멸하고자 소탕전을 실시하였다. 제1기에는 적정 수집과 미수복지 회복에 두었으며 제2기는 적 주력 섬멸하고 호남선 개통을 하였으며 제3기에는 빨치산 토벌에 있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제4기는 각 전투부대가 확보한 거점을 이용하여 견벽청야 전법을 사용, 각지에 출몰하는 적을 체포, 섬멸하여 전남의 치안도 확보되었다.

이 미9군단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9군단도 함평지역의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미군이 최종적으로 11사단의 토벌작전을 지휘하고 감독했다면 본 사건의 책임은 2대대→20연대→11사단→미9군단으로 연결된다.

(2) 가해의 적법성 여부

가) 사건 당시 법적 상황

사건 당시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133]이 헌법원칙이었으며,[134] 특히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는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제헌헌법』, 『(구)형법』, 『(구)형사소송법』,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135]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발효되고 있었다.[136]

나) 가해행위의 적법성 여부

단지 공비 또는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국가기관인 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

133) 국가비상사태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계엄하의 특별조치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953.10.8. 헌위결정4286 헌위2). ○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1985.5.28. 대판81도 1045).

134)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5) 해당하는 국제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 가)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 원칙(강행규범적 성격). ○인도주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ity). : 전쟁시 취해지는 모든 행위는 인도주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 : 공격은 군사적 목표에만 가해져서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의 경우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군사적 필요의 원칙(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 군사력은 합법적인 군사적 필요를 얻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원칙. 나)조약, ○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6조(생명존중의무).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와 제16조. 조약의 경우, 전자는 국제관습법적 성격에 의해, 후자는 한국전쟁 당사자간의 공식적인 준수선언에 적용가능하며 이행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근거자료로는 이 협약의 2장이 피해자가 자국 민간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십자사(ICRC) 주석서뿐만 아니라 국내학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 최득진, 『자국민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에 관한 일 고찰』, 제성호, 『국제인도법의 자국민 적용문제』, 이장희,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조시현, 『노근리학살사건의 국제법적 성격』 등이 있다.

136)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정부 수립 이전의 법령이 당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1950년대 판례들을 보아도 의용일제법령이나 미군정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55.7.8. 4288형상87; 대법원 1955.5.31. 4288행상22; 대법원 1955.2.25. 4287형상5; 대법원 1954.5.26. 4287민상118; 대법원 1953.11.23. 4286형상162; 대법 1952.2.12. 4285민상118 등.

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137]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138]과 적법절차 원칙[139],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구)형법』[140], 『국방경비법』[141], 『국가보안법』[142]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43]이 있었고, 후자 2개의 법의 경우 법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이나 면제하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형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

137)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에서, 군 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138) 생명권이-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있으나-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설,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③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④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139) 이 원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들 수 있으며, 제4조에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정 포고(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원칙처럼 명시적으로 당시 헌법에 언급(19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40) 구 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1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明治 45)년 이래로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장(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에 간첩죄과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41) 『국방경비법』은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과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전시범죄 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였다.

142)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143) 이 법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의 위세에 밀려 대전으로 천도한 정부는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의 반민족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신속 엄중 처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괴군 침공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용되도록 한시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공비내통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4조 제3호-제5호, 제5조였다.

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5중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방조·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144]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145] 결국 전시라는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나 국군의 민간인 불법 살해에 대해서는 군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146]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빨치산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여성, 아동,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적 필요에 비례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살해 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피해 원칙에도 현저히 위반되

144) 국제형사재판소(I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Prosecutor v. KA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 ❍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8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lo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oo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145) 전범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 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막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p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46)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인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의 요건에 대해 제네바협약 2조는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네바협약상의 보호대상, 무력충돌의 존재, 무력충돌의 국제성, 무력충돌과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다. 우선, 제네바협약은 보호대상을 자국이나 점령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 제2편의 제13조에는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평11사단사건의 희생자(아동 여성 노인포함)도 이 협약의 제2편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또한 한국전쟁은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수나 구유고형사재판소의 전쟁성격에 대한 판결, 한국전쟁당시 한국육군에서는 빨치산을 「헤이그 육전법규」에 의거하여 포로로 대우하도록 조치, 북한을 형법상의 간첩죄 적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 국내 대법원의 입장에서 뒷받침되며, 무력충돌관련성 요건을 보면, 함평11사단사건에서 빨치산과 내통한 혐의자를 색출하고 처형한 행위는 전시하에서 적과 관련된 행위이며, 가해자들이 교전당사자로서 총으로 무장한 작전 상태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등 무력충돌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가해행위는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다룬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에서 적과 내통혐의자를 임의 처형한 행위를 전쟁범죄로 판결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입장에서도 뒷받침 된다.

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147]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7) 사건이후 유족의 피해

[사진]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 터와 장교마을 앞에 세워진 전사비





쌍구룡 사건의 생존자 이금남의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3명의 가족이 5중대에 의하여 총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금남 본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죽으로 던져진 경험을 한 후 지금도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남산뫼 사건의 정남숙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서 총격으로 주민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7회나 총격을 받고 살아나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 모평사건의 장종석의 경우 어릴 때 발목에 입은 총상 때문에 최근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안종필의 경우 평생 대중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총격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발생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147)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의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연좌제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 김증산이 1951년 나산면 우치리 사건에서 59세에 5중대 군인에 의하여 사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서에 '1951년 1월 14일 여자유격대원으로 아군과 전투 중 사살된 자'로 잘못 기록되어 신청인 이계준 자신과 아들의 취업에 필요한 신원조회가 문제되었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망사실이 잘못 기록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음이 분명하다.

8)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가.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2월 20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당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게 집단총살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현장에서 살아남았으나 심한 부상을 당했다.

나. 조사 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5중대는 1950년 11월 27일 정오 무렵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외치재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950년 12월 6일 새벽에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과 동촌마을에서,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으며, 서촌마을에서는 6일 오전 군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다가 주민을 총살하였다. 다음날인 12월 7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월야면 월야월악리에서 5중대장 권준옥의 직접 지휘 하에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또 12월 9일 오전 나산면 이문리 주민을 인근 나산천변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월야면 외치리 주민을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 원주민과 불갑산 용천사 아래 광암리에서 소개되어 왔던 주민을 상곡리 쌍구룡에 불러내어 집단으로 총살하여 방죽에 던져 넣었다. 다음해인 1951년 1월 12일 오전에는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원주민과 용천사 옆 산내리에서 소개나왔던 주민을 쌍구룡 앞으로 나오라 하여 나오는 대로 총살하였다. 1월 14일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과 나산면 계동 마을을 지나온 군인들은 우치리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였다. 이외에도 5중대가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주민을 총살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 장성군 거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7.3%,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라.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장교 동촌 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

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꽹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의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남산뫼 사건은 사건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이문리 사건은 빨치산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고 하여, 과도한 의심이나 감정적 반응에 좌우되어 주민들을 무차별 집단 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이들 마을의 경제력이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 갔고, 실제로는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였으며 군인들이 무서워 산으로 피난한 사람도 많았다. 결국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단지 사건 지역 일부 주민이 살아남기 위해 빨치산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한 일은 있으나 일부 주민에 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5중대의 행동은 감정적 대응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된다.

마.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쌍구룡 모평 우치리에서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주민을 지목·선별한 다음 총살하였고, 외치리에서는 청·장년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민은 주막에 모여 있다가 5중대 초소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바. 함평11사단사건의 가해부대는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육군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사.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현장에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20연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주민 살상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함평11사단의 지휘명령 계통 상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인사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작전 초기 11사단은 미군 9군단의 지휘를 받았으며 1950년 11월 이후에는 8사단과 교체될 때까지 3군단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책임은 미군 9군단장과 한국군 3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연이어 귀속된다.

아. 함평11사단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148]'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빨치산토벌을 내세워 다수 주민을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살해사건이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까지 포함된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148)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6조.

가. 명예회복 조치

①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은 매년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우며 화해조치를 이미 시도한 것에 주목하여, 육군 11사단장은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②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원호

유족들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사건현장을 순회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추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령사업이 유족들의 갹출과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규모있는 위령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 치료 및 사건관련 유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149]

나. 법적 제도적 정비

①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보면 본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될 수 있는 30여 명의 희생자가 거꾸로 좌익에 의한 피살자로 기록[150]되어 있는데 이들 희생자들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으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법) 등재 또는 정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151] 이번 진실규명이 결정된 후 잘못 등재된 호적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152]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49) 이런 점에서 최근 함평군 해보면에 개원한 국군함평병원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등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상 또는 소액의 유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50)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1, 2003, 370쪽.

151)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에는 관련된 조문이 있다. 즉 특별법 상에 각종 재난 등의 사유로 호적부가 소실되어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0. 4. 29. 대법원 규칙 제1648호)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등'에 관한 업무는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원회도 기본법에 호적등재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호적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152) 호적정정에 대한 문제는 비록 함평11사단사건에 한하지 않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들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다.

① 공식기록에 등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시·군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게 등재하여 피해자와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史實)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군인대상 교육

전쟁발생 시나 국가위기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 대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③ 평화인권교육 강화

전쟁의 반인륜성과 잔학성 그리고 함평11사단과 같은 전쟁시기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을 향후 미래세대인 초·중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④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 하에서 민간인 즉결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시급히 정비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153]

【사 건】 다-3620호 외 34건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문만섭 외 34명
【결정일】 2008. 12. 23.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153) 2008년 12월 2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불갑산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조치 결정문임.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문만섭(다-3620) 외 34명은 2006년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20일(음력 1월 15일)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과 1951년 2월 25일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함평11사단사건(2006년 7월 25일)과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2007년 2월 28일)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하였다. 이 사건의 신청 건수는 62건이었으나 27건을 제외한 35건[154]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신청서에 기재된 진실규명 대상자 수는 90명이다. 신청서 접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1	2006. 4. 5.	2834	김철영(金哲永) (1961)	정영애 (丁英愛)	여	19	양모 (養母)	1951.2.25.
2	2006. 4. 5.	2835	김동출(金東出)[156](1937)	김문수 (金文洙)	남	58	주민	1951.2.25.
				이효성 (李曉星)	여	59	주민	1951.2.25.
				김희창 (金熙昌)	남	29	주민	1951.2.25.
				김희남 (金熙南)	남	29	주민	1951.2.25.
				김희동 (金熙東)	남	26	주민	1951.2.25.
				김희백 (金熙伯)	남	24	주민	1951.2.25.
				김영봉 (金永奉)	남	56	주민	1951.2.25.
				이막례 (李莫禮)	여	46	주민	1951.2.25.
				전○○[157]	여	22(추정)	주민	1951.2.25.
				김공순 (金公順)	여	17	주민	1951.2.25.
				김소녀 (金小女)	여	13	주민	1951.2.25.
				김영학 (金永學)	남	46	주민	1951.2.25.
				김동수 (金東秀)	남	26	주민	1951.2.25.
				김동수 처[158]	여	21(추정)	주민	1951.2.25.

154)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62건 중 목격자, 희생 장소, 사건 경위 등이 불명확한 사건(불능),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사건(각하)은 조사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김봉순 (金鳳順)	여	20	주민	1951.2.25.
				김탁수 (金琢洙)	남	16	주민	1951.2.25.
				김정순 (金正順)	여	13	주민	1951.2.25.
3	2006. 4. 5.	2838	정광전(丁廣田) (1937)	정일성 (丁一聲)	남	40	부	1951.2.25.
				강원순 (姜願順)	여	39	모	1951.2.25.
				정광현 (丁廣賢)	남	3	동생	1951.2.25.
4	2006. 4. 5.	2839	강대완(姜大完) (1936)	강복수 (姜福秀)	남	41	부	1951.2.25.
				강대문 (姜大文)	남	17	형	1951.2.25.
5	2006. 4. 5.	2841	최종남(崔鍾男) (1934)	최이현 (崔利鉉)	남	53	부	1951.2.25.
				이부덕 (李富德)	여	44	모	1951.2.25.
				최종철 (崔鍾哲)	남	16	형	1951.2.25.
				최귀임 (崔貴任)	여	5	동생	1951.2.25.
				최막동	남	2	동생	1951.2.25.
6	2006. 4. 5.	2842	박득수(朴得洙) (1937)	심복치 (沈伏峙)	여	53	모	1951.2.25.
				조복순 (趙福順)	여	20	형수	1951.2.25.
7	2006. 4.11.	2957	김석주(金錫柱) (1930)	진순비 (陳順泌)	여	44	모	1951.2.20.
				김동주 (金東柱)	남	13	동생	1951.2.20.
				김금순 (金金順)	여	11	동생	1951.2.20.
8	2006. 4.11.	2958	장만기(張萬基) (1935)	장종환 (張宗煥)	남	41	동생	1951.2.20.
				장용기 (張用基)	남	15	동생	1951.2.20.
9	2006. 4.11.	2959	박정숙(朴正淑) (1943)	박순용 (朴順龍)	남	34	부	1951.2.20.
				김재임 (金在任)	여	27	모	1951.2.20.
				강갑순 (姜甲順)	여	27	숙모	1951.2.20.
				박일례	여	1	사촌 동생	1951.2.20.
10	2006. 5.23.	3620	문만섭(文萬燮) (1933)	안○○[159]	여	60(추정)	모	1951.2.20.
				문대자 (文大者)	남	42	형	1951.2.25.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김귀례 (金貴禮)	여	26	형수	1951.2.25.
				문경섭 (文璟燮)	남	33	형	1951.2.20.
				문석암 (文石岩)	남	52	숙부	1951.1.30.
				문점섭 (文占燮)	남	14	사촌형	1951.2.20.
				문경남	남	3	조카	1951.2.25.
				문덕순	여	1	조카	1951.2.25.
				문복순	여	4(추정)	조카	1951.1.30.
11	2006. 5.23.	3623	김재병(金在炳) (1933)	김봉현 (金鳳鉉)	남	42	부	1951.2.20.
12	2006. 5.23.	3632	진부언(陳富彦) (1946)	진용술 (陳庸述)	남	25	부	1951.2.20.
				진용섭 (陳庸燮)	남	20	삼촌	1951.2.20.
13	2006. 5.23.	3648	김귀선(金貴善) (1950)	김석조 (金錫祚)	남	56	조부	1951.2.20.
				김평전 (金平鋐)	남	29	부	1951.2.20.
14	2006. 5.24.	3671	박기홍(朴基洪) (1939)	박종오 (朴鍾午)	남	25	숙부	1951.2.20.
				김○○[160]	여	23	숙모	1951.2.20.
15	2006. 5.24.	3672	서익수(徐益洙) (1943)	서윤기 (徐允基)	남	63	조부	1951.2.18.
				서종철 (徐鍾喆)	남	39	부	1951.2.20.
				서남기 (徐南基)	남	58	종조부	1951.2.18.
16	2006. 5.26.	3728	박영순(朴榮淳) (1936)	박인순 (朴仁淳)	남	11	동생	1951.2.20.
17	2006. 6.12.	3901	정효연(鄭孝衍) (1946)	정병태 (鄭炳泰)	남	23	부	1951.2.20.
18	2006. 6.13.	3913	김상봉(金相鳳) (1937)	김영채 (金永采)	남	32	부	1951.2.20.
				김덕례 (金德禮)	여	19	고모	1951.2.20.
19	2006. 6.13.	3914	김권섭(金權燮) (1945)	김영춘 (金永春)	남	26	삼촌	1951.2.20.
				김정례[161]	여	10	누나	1951.2.20.
20	2006. 6.13.	3920	이정숙(李正淑) (1946)	이상범 (李相範)	남	51	부	1951.2.20.
21	2006. 6.13.	3925	김재수(金在洙) (1940)	김마철 (金馬鐵)	남	52	부	1951.2.20.
				김재경 (金在耿)	남	24	형	1951.2.20.
22	2006. 6.13.	3931	이문범(李文範) (1938)	이공범 (李公範)	남	28	형	1951.2.20.
23	2006. 6.13.	3932	윤업순(尹業順) (1933)	김현두 (金鉉斗)	남	18	시동생	1951.2.20.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24	2006. 6.13.	3933	이복례(李福禮) (1925)	임병두 (林炳斗)	남	20	시동생	1951.2.20.
25	2006. 6.13.	3934	정병천(丁炳天) (1929)	정점수 (丁点水)	남	22	조카	1951.2.20.
26	2006. 7.10.	4266	박길례(朴吉禮) (1934)	박정순 (朴正順)	남	44	부	1951.2.20.
				김순례 (金順禮)	여	28	모	1951.2.20.
				박순례 (朴順禮)	여	11	동생	1951.2.20.
				박순월 (朴順月)	여	7	동생	1951.2.20.
				박순자 (朴順子)	여	5	동생	1951.2.20.
27	2006. 8. 9.	4690	장재수(張在垂) (1936)	방매실 (房每實)	여	79	외조모	1951.2.20.
28	2006.10.26.	6303	정세심(鄭世心) (1948)	정창훈 (鄭昌勳)	남	25	부	1951.2.20.
29	2006.11.14.	6815	박종원(朴鍾沅) (1931)	박연수 (朴連洙)	남	56	부	1951.2.20.
				정중산 (鄭中山)	여	55	모	1951.2.20.
				박장수 (朴長洙)	남	53	숙부	1951.2.20.
				박순덕 (朴順德)	여	23	누나	1951.2.20.
				김형구	남	1	생질	1951.2.20.
30	2006.11.27.	7814	김진현(金振鉉) (1921)	김재문 (金在文)	남	47	부	1951.2.20.
				장오막 (張五莫)	여	48	모	1951.2.20.
				이납순 (李納順)	여	23	처	1951.2.20.
				김덕현 (金德鉉)	남	21	동생	1951.2.20.
				김치현 (金治鉉)	남	17	동생	1951.2.20.
				김예쁜	여	1(추정)	동생	1951.2.20.
				김아기	여	1(추정)	딸	1951.2.20.
31	2006.11.27.	7815	김갑현(金甲玄) (1939)	이방례 (李芳禮)	여	41	모	1951.2.20.
				김성현 (金性鉉)	남	21	형	1951.2.20.
				김춘자	여	3(추정)	동생	1951.2.20.
32	2006.11.30.	8513	나홍주(羅烘柱) (1939)	나맹주 (羅孟柱)	남	25	형	1951.2.20.
33	2006.11.30.	10516	최정석(崔正錫) (1964)	최승원 (崔承遠)	남	18	삼촌	1951.2.20.
34	2006.11.30.	10811	이건한(李建漢) (1948)	이국행 (李鞠行)	남	24	부	1951.2.20.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35	2006. 2. 9.	1244(1)	윤양성(尹陽成) (1961)	윤순병 (尹舜炳)	남	23	삼촌	1951.2.20.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과 2월 25일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박종오 등은 1951년 1월 29일 빨치산이 "군경이 작전을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자"고 하여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부근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2월 20일 오후 국군에게 살해되었다.
또 김재임 등은 불갑산 아래인 해보면 광암리 주민들은 경찰의 소개명령에 노령, 출산 등의 사유로 피난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2월 20일 오후 교전 후 국군에게, 나산면 주민 이공범 등은 빨치산에 의하여 보급부대원으로 용천사 인근으로 끌려갔다가 교전 후 대각리 오두치 등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다.

② 문대자 등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이 끝난 현장에서 군경에게 잡혀 영광경찰서 불갑지서와 삼학출장소로 연행되어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③ 정일성 등은 미수복 지역 주민으로서 2월 20일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에 피난을 갔다가 교전이 끝나고 경찰에 연행되거나 자수하러 갔는데, 15세 이상은 선별하여 2월 25일 불갑면 옴팍골과 묘량면 시산재와 흘루개재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55) 호적상 출생년도와 실제 출생년도가 다른 경우 실제 출생년도를 기재하였다.
156) 김동출은 사건의 유족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로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157) 김영봉의 자부 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58) 김동수의 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59) 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60) 박종오의 처 김○○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61) 김정례는 제적부상 김원섭(남)으로 기재되었지만, 신청인 김권섭과 참고인 박봉옥은, 김원섭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례가 불갑산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규명 과제

국군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이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영광군 불갑면과 묘량면 일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불갑산 용천사 일대 소탕전 후 민간인 희생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51년 2월 20일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이후 국군에 의하여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각궁, 산내리 송산 산안, 광암리 운암 가정마을 등에서 민간인 살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교전과 민간인 희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또 이날 작전 이후 미수복 지역 주민이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빨치산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와서 영광경찰서 삼학출장소에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이 살해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후 전체 희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들이 불갑산 용천사 아래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된 계기, 희생자들의 거주 지역, 활동 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빨치산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군이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살해하였는지, 아니면 사건 당시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중 피난민들이 빨치산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어 교전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 방법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신청인·참고인의 진술, 전투관련 문서조사와 참전 군경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4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 사건 신청인 36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신청인 조사를 통하여 희생 장소, 희생 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

연번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과 관계	진술 일시	진술형태[162]	진술 장소	주요 진술
1	2834	김철영 (1961)	정영애	양모	2008.9.9.	진술 조서	진실화해위원회	양모 정영애는 용천사 골짜기에서 경찰에 의하여 불갑지서로 연행되어 흘루개재에서 살해되었다고 들었음.
2	2835	김동출 (1937)	김문수 외 16명	목격자	2008.9.25.	진술 조서	묘량면	삼학리 주민 30여 명이 경찰에 자수하러 갔는데 시산재에서 살해됨.
3	2838	정광전 (1937)	정일성 강원순 정광현	부 모 동생	2008.6.24.	진술 조서	함평군청	부모님과 동생 광현과 함께 작전 후 불갑지서로 연행되어 나를 제외한 가족은 옴팍골에서 살해됨.
4	2839	강대완 (1936)	강복수 강대문	부 형	2008.6.26.	진술 조서	함평군청	아버지와 형님을 경찰이 불갑지서에 연행 후 옴팍골에서 살해하였음.
5	2841	최종남 (1934)	최이현 이부덕 최종철 박○○ 최귀님 최막동	부 모 형 형수 동생 동생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아버지와 가족은 광암리 가정마을에 살았는데 작전 후 군인들에게 연행된 뒤 불갑지서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김소자에게서 들었음.
6	2842	박득수 (1937)	심복치 조복순	모 형수	2008.6.26.	진술 조서	함평군청	어머니와 형수는, 경찰이 불갑지서에 연행하여 옴팍골에서 살해함.
7	2957	김석주 (1930)	진순비 김동주 김금순	모 동생 동생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어머니와 동생은 국군의 총격이 시작되자 용천사 위로 피신하였는데 작전 후 국군에게 총살되었음.
8	2958	장만기 (1935)	장종환 장용기	부 동생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아버지와 동생은 작전이 끝나고 광동마을 정자 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것을 큰어머니가 목격하였음.
9	2959	박정숙 (1942)	박순용 김재임 강갑순 박일례	부 모 숙모 동생	2008.9.2.	진술 조서	광주시청	어머니가 산달이 지나도 출산이 안 되어 피난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신광 쪽에서, 다른 가족은 마을 에서 국군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함.
10	3620	문만섭 (1933)	문대자 김귀례 문경남 문덕순 안○○ 문경섭 문점섭 문석암* 문복순* 문만섭[163]	형 형수 조카 조카 모 형 사촌형 숙부 질녀 본인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삼서면 학성리 원촌에 살았는데 빨치산에 끌려 불갑산으로 갔다가 작전이 끝나고 어머니, 형, 사촌형은 오두재 부근에서 국군에 의하여 총살되었고, 장형과 형수 조카 2명은군인에게 연행되어 불갑지서에 있었다는 사실을 살아나온 조카로부터 들었음.
11	3623	김재병 (1933)	김봉현	부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아버지는 빨치산에 의하여 가정마을로 끌려가 국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12	3632	진부언 (1946)	진용섭	삼촌	2008.8.19.	진술 조서	함평군청	삼촌 진용섭은 음력 1월 초 불갑산으로 갔는데 시신을 발견한 주민이 연락을 해주어 사망사실을 알았음.
13	3648	김귀선 (1950)	김석조 김평전	조부 부	2008.6.10	진술 조서	함평군청	아버지의 시신은 오두재 부근에서 수습하였다고 어머니께 들었음.
14	3671	박기홍 (1939)	박종오 김○○	숙부 숙모	2008.9.2.	진술 조서	광주시청	숙부는 2월 20일 오두재에서 총살당하고, 숙모는 불갑지서에 있었다는 사실을 허준열로부터 들었음.
15	3672	서익수 (1943)	서윤기** 서종철 서남기**	조부 부 종조부	2008.9.2.	진술 조서	광주시청	아버지는 풀숲에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연번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과 관계	진술 일시	진술형태[162]	진술 장소	주요 진술
16	3728	박영순[164] (나정자) (1940)	박인순	동생	2008.7.10.	진술 조서	장성군청	시동생은 산안마을로 피난을 가 대보름 작전에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17	3901	정효연 (1946)	정병태	부	2008.9.3.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어스름할 무렵 정호순이 아버지를 용천사 아래에서 만났다고 들었음.
18	3913	김상봉 (1937)	김영채 김순덕	부 고모	2008.9.2.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아버지는 오두치에서 불갑지서에 연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큰고모부로부터 들었음.
19	3914	김권섭 (1945)	김영춘 김정례	삼촌 누나	2008.7.10.	진술 조서	장성 군청	삼촌과 누나는 오두치에 피난하고 있었는데 토벌작전 후 국군의 총격에 행방불명되었음.
20	3920	이정숙 (1946)	이상범	부	2008.6.11.	진술 조서	함평 군청	아버지는 국군에 의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불안하여 불갑산으로 피난을 갔음.
21	3925	김재수 (1940)	김마철 김재경	부 형	2008.7.10.	진술 조서	함평 군청	아버지가 오두치에서 국군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문만섭이 목격함.
22	3931	이문범 (1938)	이공범	형	2008.6.24.	진술 조서	함평 군청	형은 빨치산이 불갑산으로 끌고 갔음. 시신은 목격한 주민이 이야기를 해주어 수습하였음.
23	3932	윤업순 (1933)	김현두	시동생	2008.6.24.	진술 조서	함평 군청	시동생은 반란군에 끌려갔는데 대보름작전 때 국군의 총격에 사망함.
24	3933	이복례 (1925)	임병두	시동생	2008.6.24.	진술 조서	함평 군청	시동생은 정월 보름날 불갑산에서 국군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25	3934	정병천 (1929)	정점수	조카	2008.6.24.	진술 조서	함평 군청	반란군이 마을에 내려와 빼앗은 식량을 조카에게 지고 가도록 하였음.
26	4266	박길례 (1934)	박정순 김순례 박순례 박순월 박순자	부 모 동생 동생 동생	2008.7.11.	진술 조서	장성 군청	부모, 동생 등은 거주지였던 산안에 서 상귀밀로 소개를 나갔는데 식량이 떨어져 집안에 있다가 대보름 작전 때 죽었다고 들었음.
27	4690	장재수 (1936)	방매실	외조모	2008.9.3.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외할머니는 노령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는데 작전 후 경찰이 운암마을에 지른 불에 타 돌아가셨음.
29	6303	정세심 (1948)	정창훈	부	2008.6.11. 2008.9.4.	진술 조서	함평 광주 시청	아버지는 산안에 피난 후 국군의 총격에 사망하여 시신은 어머니가 수습하였다고 들었음.
30	6815	박종원 (1931)	박연수 정중산 박장수 박순덕 김형구	부 모 숙부 누나 생질	2008.9.2.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우리가족은 거주지인 빨치산의 강요로 원촌에서 오두치로 피난을 갔는데, 사건 당일 국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을 문만섭이 목격함.
31	7814	김진현 (1921)	김재문 장오막 이납순 김덕현 김치현 김예쁜 김아기	부 모 처 동생 동생 동생 딸	2008.9.4.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아버지와 남동생은 용천사 주변에서 군인들의 총격에 사망하였고, 처·어머니·여동생·딸은 경찰에게 끌려가다 신광면 유천리 벽유동에서 경찰에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32	7815	김갑현 (1939)	이방례 김성현 김춘자	모 형 동생	2008.8.20.	진술 조서	함평 군청	형은 좌익 쪽에서 활동하여 수복 후 가족이 불갑산으로 피하였음. 오두치 뒤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함.
33	8513	나홍주 (1939)	나맹주	사촌형	2008.7.11.	진술 조서	장성 군청	형님은 오두치로 피난을 가 그곳에서 사망한 것을 이대식이 목격함.
34	10516	최정석 (1964)	최승원	삼촌	2008.9.2.	진술 조서	광산 구	경찰기동대원인 외삼촌이 전사한 경찰의 시신을 찾으면서 삼촌 시신을 보고 연락을 하였음.

연번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과 관계	진술 일시	진술형태[162]	진술 장소	주요 진술
35	10811	이건한[165] (이문행) (1935)	이국행	부	2008.9.1.	진술 조서	광주 시청	이국행은 용천사 아래에서 국군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36	1244(1)	윤양성[166] (1961)	윤순병	삼촌	2008.8.22.	진술 조서	함평 군청	윤순병은 오두치에서 가정이 마을로 갔다가 대보름 작전 때 사망함.

*피해자 중 문석암과 문복순은 1951년 1월 29일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원촌에서, **서윤기와 서남기는 1951년 2월 18일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측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2008년 9월 3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조사하였는데[167]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청인 측 참고인 진술

연번	성명	당시 나이[168]	진술일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	장재수 (신청인)	15세	2008. 9. 3.	광주 시청	진술 조서	·토벌작전이 있다는 것은 2, 3일 전에 알았고, 마을에서 내려가려면 빨치산 몰래 가야 했음. ·동틀 무렵 신광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음. ·피난민은 처음에는 광암리 운암 뒤로 밀렸고 국군이 오후 2시경 용천사 뒤를 점령하였음. ·오후 3~4시경 산내리 산안마을 쪽으로 몰렸는데 그곳에서 피난민이 죽은 것을 보았음.
2	김남식	23세	2008.9.25.	영광 묘량	진술 조서	·부모님, 형수, 조카 등이 삼학출장소로 자수하러 갔는데 시산재에서 경찰이 총살하였음. ·시산재에서 돌아가신 분은 30여 명임.
3	김공선	1960년 출생	2008.8.28.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로부터 중부 김희백과 당숙 김희남·김희동이 시산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중부의 시신은 아버지가 수습하여 선산에 매장하였음.
4	정호순	18세	2008.10.13.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정병태는 당숙인데 음력 1월 13일에 불갑산으로 같이 피난을 갔음. ·피난 중 당숙과 다시 만나 숲 속에 숨어 있는데 군인이 총을 들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당숙이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았음.
5	박봉옥	17세	2008.10.14.	〃	통화 보고	·불갑산 오두치에 피난을 가 행방불명된 사람은 김권섭의 삼촌 김영춘과 누나 김정례임.

162)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진술녹음), 면담보고(면담조서), 통화보고 등으로 구분했다.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호, 제18호 서식(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다. 진술녹취는 동 규칙 제19호 서식(녹음·녹화 동의서)을 작성한 후 녹화 또는 녹음된 음성을 글로 바꾼 문서다. 면담보고는 조사관이 진술인의 녹음·녹화 동의서 작성 없이 면담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 문서다. 통화보고는 조사관이 참고인의 전화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다.

163) 문만섭은 신청인이며 1951년 2월 20일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에서 총상을 입었다.

164) 박영순은 2007년 2월 7일 사망하여 처 나정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65) 이건한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어서 당숙 이문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66) 윤순병은 언어장애가 있어 참고인 윤기병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67) 참고인 조사는 이 사건이 교전 후 피난지에서 피난민들이 국군의 총격에 미리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사건의 성격상 참고인을 탐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번	성명	당시 나이[168]	진술일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6	김은수	10세	2008.10.30.	〃	통화 보고	·최정석은 외가 동생뻘인데 그 사람의 삼촌을 밤에 누군가가 와서 불갑산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 ·이때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끌려간 사람은 용천사 아래 고랑이에서 사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음.
7	박기홍	12세	2008.11.1.	〃	통화 보고	·박인순은 박영순의 동생임. 박영순의 부모와 박영순이 박인순과 함께 피난을 갔는데 박인순만 오두치에서 사망하였음.
8	김복례	11세	2008.11.3.	〃	통화 보고	·정영애는 작은올케인데 불갑산에서 군경에게 잡혀 흘루개재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은 부모님이 수습하여 관리하였음.
9	김길선	22세	2008.11.5.	〃	통화 보고	·진용술은 회화정에 있었는데 작전 후 군인들에게 가정마을 골짜기까지 쫓겨 가 국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10	윤기병	22세	2008.11.5.	〃	통화 보고	·진부언의 부친 진용술은 작전 전에는 같이 있다가, 군인들에게 쫓길 때 가정마을에서 헤어졌음. ·윤양성의 삼촌 윤순병은 내 종조부와 함께 있다가 가정이 마을에서 군인의 총에 죽었음. ·진용술은 처음에 오두치에 있다가 작전 날 군인들이 총격에 피난민과 함께 밀려갔음.
11	이계서	15세	2008.11.7.	〃	통화 보고	·김진현의 어머니, 처, 여동생, 딸이 불갑산 작전 때 군경에게 잡혀 함평경찰서로 연행도중 신광면 벽유동 계곡에서 총살되었음. ·얼마 후 어머니가 누님의 손거울과 참빗을 보고 누님임을 확인하여 시신을 수습하였음.

나. 군경 측 참고인 조사

군경 측 참고인 조사는 사건 당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중포중대장, 수색소대장 및 사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군경 측 참고인 진술

연번	이름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형태	소속 신분	주요 진술
1	유삼율 (22세)	2008.10.9.	진술녹취 (조서)	수색 소대장	·수색소대는 작전 하루 전날 함평국민학교에서 집결하여 기도비닉[169]을 위하여 20명만 출동하였고, 불갑산에 가서는 양쪽에 5명씩, 중앙에 10명을 잠복시켜 내려오는 적과 피난민을 생포하게 하였음. ·작전 후 연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에 '적 생포 70명'이라고 적혀 있던 기억은 남. ·밤중에 들어가 매복 후 작전을 하다 보니 어두워 아군의 포가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음. 빨치산은 우리에게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음. ·실탄 사용량은 과다하게 보고되었으며, 수색소대는 전투를 하지 않았기에 '적 사살 70명'은 사실과 다르며, 다른 전과(戰果)도 부풀려졌을 것임. ·전투 후 퇴각하다 부대원 1명이 부상당하였음.
2	양창규	2007.12.1	진술	6중대	·2월 20일 불갑산작전은 송정리에서 문장을 거쳐 갔는데 불갑산

168) 당시 나이는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실제 나이를 기재하였다.

연번	이름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형태	소속 신분	주요 진술
	(19세)	2.	녹취	원	부근에서 1박을 하고 작전을 하였음. ·새벽에 출동하여 불갑산 정상까지 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려오다 부상을 입었음. ·빨치산이 호 안에서 하늘에 대고 총을 쏘아 총구만 보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도망가는 사람들은 떼를 지어 움직였는데, 민간인이었지 전투요원으로 보이지는 않았음. ·내려오다 부상을 당하여 민간인의 당가로 밤늦게 해보국민학교로 내려와 후송되었음.
3	김성순 (19세)	2007.12.13.	진술 녹취	7중대 원	·빨치산 복장은 대부분 떨어진 인민군 복장에 죽창, 철창을 들었고 99식 소총이나 따발총을 든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음. ·빨치산은 몇백 명에 불과하여, 전력은 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 ·전과는 민간인을 죽고 적 사살이라고 보고하였음.
4	김정부 (19세)	2008.11.13.	통화보고	수색 소대원	·수색대장 유삼율의 연락병이었는데 불갑산작전 때는 전사자나 부상자는 없었음. ·작전은 몇 시간 밖에 안 하고 오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왔음. 우리가 올라갈 때 '따꿍따꿍' 총소리가 몇 번 나서 우리는 응사만 하였음. ·수색소대는 적 사살 전과는 없었고 비무장 피난민만 몇 사람을 발견하여 데리고 내려왔음.
5	오달근 (16세)	2008. 9.24.	진술 녹취	학도 연맹원	·8중대가 음력 1월 13일까지 순창군 쌍치면작전 후에 불갑산작전을 하였음. ·문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올라갔는데 점심 무렵 불갑산에 도착하였음. ·8중대를 10여m 뒤에서 따라갔는데 교전은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난민을 총격하는 것은 보았음. ·6중대 부상자와 전사자가 10여 명이었는데 당가를 이용하여 문장으로 옮겼음.
6	오정인 (23세)	2008. 9.22.	진술 녹취	월야 지서 경찰	·불갑산 작전에는 함평경찰서와 월야지서 등을 합하여 경찰은 50명 정도가 참전함. ·영광경찰과 함평경찰은 따로따로 불갑산에 올라갔는데 함평경찰은 밀재부터 작전을 하였음. ·체포된 피난민을 따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군경이 데려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갔음. ·부상한 경찰은 있지만 전사자는 없었으며 민간인도 많이 죽어 산고랑이 하얗게 보였음.
7	김규영 (23세)	2008.10.10.	진술조서	영광 경찰서 기동 대원	·국군 20연대 소속 3개 중대 병력이 왔었는데 1개 중대는 함평, 1개 중대는 장성, 1개 중대는 영광 쪽에서 들어와 작전을 하였음. ·경찰 일부만이 공비와 교전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작전을 마쳤음. ·불갑산작전의 군 보고서에 적힌 '사상자 1,000여 명'은 엉터리로 한 명을 사살하면 30명으로, 두 명을 사살하면 50명이라는 식으로 보고하였음.
8	임봉섭 (20세)	2008. 9.22.	진술 녹취	함평 경찰서 기동 대원	·함평 수복 후에는 주로 서나주 쪽 전투에 참여했으므로 불갑산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함평경찰서 기동대는 90명 정도였는데 불갑산 빨치산과 연계를 끊기 위하여 서나주 쪽 작전을 나갔는데 20여 명이 매복 작전을 하였음. ·불갑산 대보름작전은 군경이 정보만 제대로 있었어도 민간인의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임.

169) 기도비닉(企圖秘匿)의 사전적 의미는 아군의 작전을 적이 모르게 준비해 실행한다는 뜻.

다. 피해자 관련 참고인 조사

사건 당시 불갑산 용천사 주변의 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당시 활동하였던 무장빨치산과 비무장빨치산 그리고 빨치산에게 끌려가 보급부대원 활동을 하였던 참고인에게서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였다.

<표 5> 피해자 관련 참고인 진술

연번	이름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형태	소속신분	주요 진술
1	김진현 (30세)	2008. 9. 4.	진술조서	신청인·빨치산 간부	·빨치산 불갑지구대는 함호대, 무호대 등 7개 지역대가 있었으며, 총사령관은 나주 출신 박정현이었음. ·전투 반경은 남쪽으로는 학교면, 북쪽으로는 태청산, 동쪽으로는 서나주까지였음. ·군경의 공격이 시작되자 용천사 방향으로 피난민이 몰려 함호대는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했음. ·용천사가 국군에게 점령된 것은 오후 4시경임. ·국군의 불갑산작전 정보는 5일 전쯤에 알았음.
2	김인석 (24세)	2008. 9.24.	진술녹취	비무장빨치산	·오후 3시경 합동작전이 들어왔는데 빨치산은 실탄이 없어 대부분 빠져나가고 말단만 남았음. ·전투 중대 2개 중대 중 1중대는 산내리, 2중대는 광암에 있었는데 전투는 2중대가 먼저 패하였음. ·함호대 등의 지역부대는 보급부대로 무장은 대창으로 하였음. 정규전투부대의 3분의 2정도가 총으로 무장하였는데 인원은 30~40명에 불과하였음. ·빨치산이 함평지역 이곳저곳을 자주 습격하니 군경이 빨치산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음. ·무장은 대부분 M-1이었으며, 따발총 1대, 카빈, 아카보, 99식이고 기관총 1정, 박격포 1정이 있었음.
3	정호범 (21세)	2008. 9.24.	진술녹취	보급부대원	·보급부대원으로 빨치산에게 오두치 부근으로 잡혀갔는데 보급부대는 나산면당에서 관리하였음. ·나산면 월봉리, 신광면 등으로 식량조달을 나가 빨치산이 민가에서 빼앗은 식량 등을 운반하였음. ·나산면 수상리 유덕에서만 10명 정도가 끌려갔음. 오두치에서는 움막에 살았으며 밤에만 활동하였음. ·오두치에서 빨치산이 밤에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았음. ·오두재에서 국군이 '5중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 ·대보름작전 이후 지서에서 조사만 받고 돌아왔음.
4	김영승 (16세)	2008. 9. 9.	진술조서	빨치산	·빨치산 불갑지구의 정식 명칭은 전라남도 불갑지구당부였으며 위원장은 김용우임. ·함호대, 무호대 등 무장조직이 있었는데 무장빨치산은 30~40명, 각 군당 무장부대까지 하면 100명, 칼, 대창, 수류탄 무장까지 합하면 300~400명임. ·지구당요원 30여 명은 새벽에 금성산으로 빠졌음. ·용천사에서 사령부는 오후 3~4시 후퇴하였음. ·보유무기는 단발총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카빈, M-1은 희소하였고, 기관총도 1, 2정에 불과하였음.

라. 자료조사

① 육군본부 관련자료

가)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8.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BQ7896) 일대 소탕전'(1951.2.20.)의 「전투상보」(1951.3.3. 박기병 연대장이 최덕신 사단장에게 보고)를 1988년에 육군본부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이 「전투상보」에는 1951년 2월 20일 작전의 전투 명칭 및 부서, 적정, 아군의 기도, 부대편성 및 장비, 군대부서, 적 병력 및 장비, 전투 경과,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당시 사건 발생지역에 주둔한 빨치산에 대하여 '적 병력이 3,500명(무장 500명, 비무장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편찬한 『공비토벌사』 및 『공비연혁』의 '공비 350명'이라는 기록과 큰 차이가 있어 빨치산 숫자에 관한 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나 부대이동 등과 관련해서는 이 조사에 참고하였다.

나)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1945년 해방 이후 여순 사건, 한국전쟁 전후 시기 빨치산의 활동 내용과 이에 따른 군경의 작전 내용이 수록된 자료이다. 이 자료의 제4장 '토벌작전 개요'에는 제11사단의 호남지구 토벌작전 중 20연대 전투 편에 불갑산지구 작전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제2대대는 함평군 불갑산에 근거를 둔 공비 350명이 부근 각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계속 출몰하여 만행을 감행하고 있었으므로 2월 20일 불갑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한 작전의 결과이다. 부대이동과 작전경과 관련 내용은 『한국전쟁사료』 59와 일치한다.

다) 육군본부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해방 전후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빨치산 토벌작전 내용을 『공비토벌사』, 『한국전쟁사』뿐만 아니라 『경찰10년사』 등의 자료에서 경찰의 공비토벌작전 내용, 각 부대역사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 역시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있었던 제11사단의 호남지역 토벌작전에 제20연대 전투 중 불갑산지구 전투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비토벌사』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 연구소편, 『빨치산자료집』, 1996.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中卷, 1996.

② 빨치산 관련자료

○정관호, 『전남유격투쟁사』, 선인, 2008.
1950년 10월 5일부터 조선노동당 전남도당 기관지 『전남노동신문』 주필이었던 정관호가 기록한 유격투쟁사이다. 제2부 '전남유격투쟁 약지'에는 9·28이후 함평과 영광지역에서 빨치산의 습격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3부 인명록에는 사건 당시 불갑산지구 빨치산 간부의 출생지와 활동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③ 기타 연구자료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김영택, 「한국전쟁기 불갑산지구 빨치산과 '대보름작전'」, 『북악사론』 제10집, 북악사학회, 2003.

마. 현장조사

1951년 2월 20일 군경과 빨치산의 전투 및 당시 민간인들의 피난지였던 함평군 불갑산 용천사 인근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 또한 최초로 총성이 울렸던 함평군 신광면 지역, 피난지였던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 대각리 오두·각궁, 산내리 원산·송산마을 사건현장을 조사하였다. 또 빨치산과 전투가 있었던 1951년 2월 20일 용천사 인근에서 연행된 피난민을 수용한 후 1951년 2월 25일 경찰이 살해한 영광군 불갑면 옴팍골과 묘량면 시산재, 흘루개재, 삼학출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사건 당시 생존자로부터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2). 결론 및 권고

(1) 결론

가. 정일성 외 89명 이상의 주민이 1951년 2월 20일과 1951년 2월 25일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과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옴팍골, 흘루개재, 시산재 등에서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중포중대·대전차중포중대·수색소대 및 영광경찰서 불갑지서·묘량지서·삼학출장소 소속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는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이 끝난 직후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을 수색하여 출산을 위하여 집안에 있던 주민 김재임 등을 마을 앞에서 살해하였다. 또한 해보면 대각리 오두재에서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주민 박연수 등을 빨치산이 파 놓았던 방공호에 몰아넣고 총살하였다. 1951년 2월 25일에는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묘량지서, 삼학출장소 경찰이 국군의 토벌작전 중 연행한 주민과 빨치산의 선전과 권유, 군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난을 갔다 와서 자수한 주민 등을 옴팍골, 흘루개재, 시산재 등에서 총살하였다.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90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7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영애(丁英愛·다-2834), 김문수(金文洙), 이효성(李曉星), 김희창(金熙昌), 김희남(金熙南), 김희동(金熙東), 김희백(金熙伯), 김영봉(金永奉), 이막례(李莫禮), 김영봉의 자부 전○○, 김공순(金公順), 김소녀(金小女), 김영학(金永學), 김동수(金東秀), 김동수의 처, 김봉순(金奉順), 김탁수(金琢洙), 김정순(金正順·이상 다-2835), 정일성(丁一聲), 강원순(姜願順), 정광현(丁廣賢·이상 다-2838), 강복수(姜福秀), 강대문(姜大文·이상 다-2839), 최이현(崔利鉉), 이부덕(李富德), 최종철(崔鍾哲), 최귀임(崔貴任), 최막동(이상 다-2841), 심복치(沈伏峙), 조복순(趙福順·이상 다-2842), 장종환(張宗煥), 장용기(張用基·이상 다-2958), 박순용(朴順龍), 김재임(金在任), 강갑순(姜甲順), 박일례(이상 다-2959), 문대자(文大者), 김귀례(金貴禮), 문경남, 문덕순(이상 다-3620), 김봉현(金鳳鉉·다-3623), 진용술(陳庸述·다-3632), 김평전(金平銓·다-3648), 박종오(朴鍾午), 박종오의 처 김○○(이상 다-3671), 서종철(徐鍾喆·다-3672), 김영채(金永采·다-3913), 김마철(金馬鐵), 김재경(金在耿·이상 다-3925), 이공범(李公範·다-3931), 방매실(房每實·다-4690), 정창훈(鄭昌勳·다-6303), 박연수(朴連洙), 정중산(鄭中山), 박장수(朴長洙), 박순덕(朴順德), 김형구(이상 다-6815), 장오막(張五莫), 이납순(李納順), 장오막의 딸 김○○, 이납순의 딸 김아기(이상 다-7814), 이방례(李芳禮), 김성현(金性鉉), 김춘자(이상 다-7815), 나맹주(羅孟柱·다-8513), 이국행(李鞠行·다-10811), 윤순병(尹舜炳·다-1244(1)) 등이다.

또 희생 추정자는 23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순비(陳順泌), 김동주(金東柱), 김금순(金金順·이상 다-2957), 문만섭의 모 안○○, 문경섭(文璟燮), 문점섭(文占燮·이상 다-3620), 진용섭(陳庸燮·다-3632), 김석조(金錫祚·다-3648), 박인순(朴仁淳·다-3728), 정병태(鄭炳泰·다-3901), 김덕례(金德禮·다-3913), 김영춘(金永春), 김정례(이상 다-3914), 이상범(李相範·다-3920), 김현두(金鉉斗·다-3932), 임병두(林炳斗·다-3933), 정점수(丁点水·다-3934), 박정순(朴正順), 김순례(金順禮), 박순례(朴順禮), 박순월(朴順月), 박순자(朴順子·이상 다-4266), 최승원(崔承遠·다-10516) 등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만섭(文萬燮·다-3620)은 '부상 생존자'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희생자 90명 중 교전 능력이 없는 여성이 39명(43%)이었으며, 10세 이하와 51세 이상도 25명(27%)이었다. 또 희생자 중 2명 이상의 일가족이 희생된 가족단위 희생자가 57명이었으며 이들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희생된 경우도 39명이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과는 무관한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민간인과 영광지역 거주 민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및 중포중대, 대전차중포중대, 수색소대 군인과 영광경찰서 경찰이다.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2대대장, 20연대장, 11사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해 경찰의 지휘계통은 불갑지서·묘량지서·삼학출장소, 영광경찰서 등으로 이어진다.

바. 이 사건은 국군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직후 국군과 경찰이 피난 중인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2) 권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유해 발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 중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제적부·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사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적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복원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사단 부대사』 및 『함평군지』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추가하는 것과 같이 이 진실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경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6·25한국전쟁으로 인해 일시 남으로 후퇴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북진하던 195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일원에서 수복작전을 벌이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3대대의 일부 중대는 함평 진주일인 1950년 10월 22일 오후 3, 4시경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을 수색하여 사상불순자로 몰아 윤재형(尹再炯·1937년생) 등 8명을 사거리 야산(산 16번지)으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또한, 사거리 낙천동을 수색하던 제3대대를 보고 낙천동 주민 김영수(金永守·1929년생)가 국군을 인민군으로 오인하는 말실수를 하자 김영수 등 7명을 좌익으로 간주하고 마을 앞 논(답 1006번지)으로 끌어내어 사살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월산리에서 제3대대는 마을 앞을 지나던 윤두식(尹斗植·1932년생) 등 7명을 살해하였다. 제3대대는 월산리 송산마을을 포위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대동면 향교리를 수복하고, '여성동맹위원장'을 찾아내라며 마을을 수색하여 김재덕(金在德·1907년생) 등 5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대동면 덕산리에서 김재운(金在沄·1911년생)을 사살하였다. 제3대대의 다른 중대는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2구 대등마을과 해동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 이병범(李丙範·1900년생) 등 16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토벌작전을 계속하면서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의 주민 곽원길(郭元吉·1927년생) 등 5명을 인근 천주봉에서 사살하였다. 같은 마을 주민 정창근(鄭昌根·1918년생)은 총상 치료 중 12월 27일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한편 제2대대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불갑산 밀재 방향으로 전진하던 중 밭일을 하다가 마을 앞을 지나가던 국군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월야면 주민 장장식(張長植·1893년생)과 김소님(金小任·1936년생)을 살해하였다. 모두 52명이 학살되었고 이의범(李義範·1926년생) 등 2명은 총상을 입었다.

희생자는 40대 이하 청·장년이 46명으로 전체 희생자 52명 중 8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학생도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나 대동면 향교리 사건의 희생자 5명 중 이정수를 제외한 4명은 여성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8년 4월 8일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정부당국에 권유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170]

【사 건】 다-4573호 외 38건,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윤순자 외 38명
【결정일】 2008. 4. 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을 의결한다.

1) 조사개요

(1) 사건 개요

가. 신청접수 및 처리

신청인 윤순자 외 38명은 1950년 10월 22일부터 1950년 10월 29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 지역의 수복작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국군에게 희생되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수는 38명[171]이었다. 신청서 접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건 관련자			희생 장소
				희생자	희생일자	관계	
1	4573	2006.7.31.	윤순자 (尹順子)	윤우병 (尹宇炳)	1950.10.22.	사촌 오빠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2	4574	2006.7.31.	김성무 (金晟武)	김치형 (金致衡)	1950.10.22.	백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3	4575	2006.7.31.	윤기옥 (尹奇玉)	윤상대 (尹相大)	1950.10.22.	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4	4576	2006.7.31.	윤기옥 (尹奇玉)	윤상안 (尹相晏)	1950.10.22.	백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5	4577	2006.7.31.	김찬식 (金贊植)	김영철 (金永喆)	1950.10.22.	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6	4578	2006.7.31.	김찬식 (金贊植)	김영수 (金永守)	1950.10.22.	숙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17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4월 8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조치를 취한 결정문이다.
171) 신청인 장성규는 부친 장장근이 1950년 10월 23일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에서 국군에게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사건번호 다-2948(2006. 4. 11.), 사건번호 다-9815(2006. 11. 30.) 등 2회에 걸쳐 중복 접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 희생자 수는 38명이다.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건 관련자			희생 장소
				희생자	희생일자	관계	
7	4579	2006.7.31.	김성무 (金晟武)	김대형 (金大衡)	1950.10.22.	삼촌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답1006-7
8	4580	2006.7.31.	윤순자 (尹順子)	윤재형 (尹再炯)	1950.10.22.	오빠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9	4581	2006.7.31.	김수남 (金秀南)	김영석 (金永石)	1950.10.22.	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0	4582	2006.7.31.	윤순자 (尹順子)	최귀례 (崔貴禮)	1950.10.22.	올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1	4583	2006.7.31.	윤순자 (尹順子)	윤삼금 (尹三琴)	1950.10.22.	언니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2	4584	2006.7.31.	정종순 (鄭鍾順)	정양규 (鄭良奎)	1950.10.22.	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3	4585	2006.7.31.	정종순 (鄭鍾順)	정종실 (鄭鍾實)	1950.10.22.	오빠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4	4586	2006.7.31.	추재섭 (秋在燮)	추상섭 (秋相燮)	1950.10.22.	형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5	4587	2006.7.31.	박남규 (朴南圭)	박동규 (朴東圭)	1950.10.22.	형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 16
16	5664	2006.10.16.	윤기환 (尹奇桓)	윤두식 (尹斗植)	1950.10.22.	형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월봉
17	2941	2006.4.11.	조효명 (曺孝明)	조효영 (曺孝英)	1950.10.23.	동생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18	2942	2006.4.11.	조낙현 (曺洛鉉)	조기영 (曺基英)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19	2943	2006.4.11.	조자승 (曺滋勝)	조상현 (曺相鉉)	1950.10.23.	형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0	2944	2006.4.11.	조상호 (曺祥鎬)	조기후 (曺基厚)	1950.10.23.	숙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1	2945	2006.4.11.	조연임 (曺連任)	조백석 (曺白石)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2	2946	2006.4.11.	조오현 (曺五鉉)	박양길 (朴良吉)	1950.10.23.	형수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3	2947	2006.4.11.	조오현 (曺五鉉)	조기재 (曺基才)	1950.10.23.	형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4	2948	2006.4.11.	장성규 (張性奎)	장장근 (張長近)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5	2949	2006.4.11.	이숙자 (李淑子)	이인행 (李仁行)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6	2950	2006.4.11.	구강열 (具康烈)	구장현 (具長鉉)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7	9815 (중복)	2006.11.30.	장성규 (張性奎)	장장근 (張長近)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해동
28	2951	2006.4.11.	이종금 (李鍾金)	이병범 (李丙範)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29	2952	2006.4.11.	이종금 (李鍾金)	이재봉 (李載奉)	1950.10.23.	오빠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30	2953	2006.4.11.	이근식 (李根植)	이종악 (李鍾岳)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31	2954	2006.4.11.	이용범 (李龍範)	이홍범 (李洪範)	1950.10.23.	사촌형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건 관련자			희생 장소
				희생자	희생일자	관계	
32	2955	2006.4.11.	이만행 (李萬行)	이종욱 (李鍾旭)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33	6743	2006.11.30.	정견 (鄭汧)	정순희 (鄭順姬)	1950.10.23.	사촌누나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숲쟁이
34	2743	2006.3.30.	이계행 (李桂行)	김재덕 (金在德)	1950.10.23.	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숲쟁이
35	1505	2006.2.21.	김지현 (金智鉉)	김재운 (金在沄)	1950.10.24.	부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내덕
36	949	2006.1.21.	곽연자 (郭蓮子)	곽원길 (郭元吉)	1950.10.28.	부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
37	976	2006.1.31.	정귀섭 (鄭貴燮)	정창근 (鄭昌根)	1950.12.27.	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모퉁이
38	5614	2006.10.11.	장창환 (張昌煥)	장장식 (張長植)	1950.10.29.	부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39	5617	2006.10.11.	김성수 (金成壽)	김소님 (金小任)	1950.10.29.	누나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0년 10월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희생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윤재형 등이 함평지역 수복시점인 1950년 10월 22일 국군에 의하여 학교면 사거리와 월산리 등에서 살해되었으며, 조효영 등은 1950년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 2구와 대동면 향교리 등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50년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에서 곽원길이, 1950년 10월 29일 월야면 용정리에서 장장식이 수복작전 과정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발생원인, 가해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희생과정, 가해의 과정, 수복작전의 지휘계통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와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서 교전 및 민간인 희생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함평지역이 1950년 10월 22일 수복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인민군 또는 빨치산과 국군 간의 전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사건관련 신청인, 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당시 전투관련 문서의 조사, 전투 참여 국군과 경찰의 진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의 규모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후 전체 희생 규모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은 전라남도 함평지역 수복과정에서 희생자들이 국군에게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희생자의 활동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인민군 혹은 빨치산 협력자였는지도 확인하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군이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살해하였는지, 아니면 사건 당시에 국군과 인민군 또는 빨치산과의 전투가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함평지역 민간인들이 빨치산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어 교전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민간인 희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복작전 과정에서 사건 발생지역 주민의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이와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12월 5일 사이에 이 사건 신청인 2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172] 신청인 조사를 통해 희생 장소, 희생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진술조사 현황

연번	신청인 (연령)	사건번호	희생자	관계	진술일	장소	진술내용
1	윤순자 (66)	4573	윤우병	사촌 오빠	2007.9.14.	천안시청	국군이 둘째오빠 윤재형, 큰올케 최귀례, 언니 윤삼금은 율동에서, 사촌오빠 윤우병은 낙천동에서 죽였음.
		4580	윤재형	오빠			
		4582	최귀례	올케			

172) 신청인 윤순자 등과 같이 1명이 여러 명의 희생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경우 1건의 신청사건으로 하여 신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연번	신청인 (연령)	사건번호	희생자	관계	진술일	장소	진술내용
		4583	윤삼금	언니			
2	김성무 (47)	4574	김치형	백부	2007.9.11.	함평 군청	삼촌 김대형은 군인으로 휴가 나와 있었는데 국군에게 죽었음.
		4579	김대형	삼촌			
3	윤기옥 (58)	4575	윤상대	부	2007.9.14.	위원회	희생자는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국군에게 말실수하여 죽었음.
		4576	윤상안	백부			
4	김찬식 (60)	4577	김영철	부	2007.9.14.	위원회	희생자는 국군에게 "동무, 수고 하십니다"라고 말실수하여 죽었음.
		4578	김영수	삼촌			
5	김수남 (62)	4581	김영석	부	2007.9.12.	함평 군청	국군이 부친을 음력 9월 12일(양력 10월 22일)에 죽였음.
6	정종순 (72)	4584	정양규	부	2007.9.13.	자택	희생자는 국군이 집 뒤 야산에서 죽였음.
		4585	정종실	오빠			
7	추재섭 (61)	4586	추상섭	형	2007.9.11.	함평 군청	희생자는 학교면 사거리 율동에서 고용살이 중 국군에게 죽었음.
8	박남규 (69)	4577	박동규	형	2007.9.12.	위원회	희생자는 함평 장날(양력 10월 22일), 국군에게 "살려 달라"라고 했지만 죽었음.
9	윤기환 (74)	5664	윤두식	형	2007.9.11.	위원회	희생자는 마을에 들어온 국군이 뒤따라와 죽였음.
10	조효명 (77)	2941	조효영	동생	2006.8.23.	함평 군청	희생자는 희생 당시 수리조합 감시원이었음.
11	조낙현 (62)	2942	조기영	부	2007.9.18.	위원회	국군에게 밥을 준 후에 돌아와 보니 부친이 돌아가셨음.
12	조자승 (68)	2943	조상현	형	2006.8.23.	함평 군청	희생자는 국군이 손짓하며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죽였음.
13	조상호 (53)	2944	조기후	숙부	2007.9.13.	위원회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동네 아주머니를 첩자로 오인한 국군이 주민들을 살해하였음.
14	조연임[173] (김재희45)	2945	조백석	부	2007.10.30.	서울 중구	외조부 조백석 등 10여 명이 한꺼번에 죽었음.
15	조오현 (82)	2946	박양길	형수	2006.8.23.	함평 군청	국군이 형님 부부를 끌고 나가 죽였음.
		2947	조기재	형			
16	장성규 (74)	2948 9815	장장근	부	2007.9.12.	위원회	내가 죽은 듯 있으니 국군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면서 지나갔음.
17	이숙자 (58)	2949	이인행	부	2006.8.23.	위원회	총소리가 난 후 누가 나를 업고 논에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있음.
18	구강열 (61)	2950	구장현	부	2006.8.22.	함평 군청	희생자는 엄다면 화양리에 살았는데 해동마을 분들과 함께 죽었음.
19	이종금 (68)	2951	이병범	부	2006.8.23.	함평 군청	사건 3일 후 국군이 부상자 이의범의 치료약을 가져왔음.
		2952	이재봉	오빠			
20	이근식[174] (서희순49)	2953	이종악	부	2007.10.12.	함평 군청	시아버지가 국군에게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21	이용범 (62)	2954	이홍범	사촌형	2006.8.22.	함평 군청	사촌형은 마을 뒷산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음.
22	이만행[175] (김이례61)	2955	이종욱	부	2006.8.23.	함평 군청	국군은 목포 쪽에서 들어왔고, 주민이 환영을 했는데도 죽였음.
23	정견 (54)	6743	정순희	사촌 누나	2007.12.5.	함평 군청	사촌누나가 향교리 남교 숲쟁이길에서 죽었음.
24	이계행 (70)	2743	김재덕	모	2006.6.8.	월야면	어머니와 김정수 모친, 이종익 계모가 국군에게 죽었는데 모두 공무원 가족이었음.
25	김지현 (66)	1505	김재운	부	2006.8.14.	위원회	국군이 아버지에게 "타이어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물어 모른다고 하자 죽였음.
26	곽연자 (54)	949	곽원길	부	2007.11.26.	위원회	국군이 마을에서 2km 떨어진 천주봉으로 아버지를 데려가 죽였음.

연번	신청인 (연령)	사건번호	희생자	관계	진술일	장소	진술내용
27	정귀섭 (60)	976	정창근	부	2007.12.5.	함평 군청	희생자는 음력 9월 18일 끌려갔다가 총을 맞고 치료 중 음력 11월 19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죽었음.
28	장창환 (67)	5614	장장식	부	2007.9.12.	함평 군청	희생자는 총소리에 놀라 장규조의 집 앞까지 뛰어가다 살해됨.
29	김성수 (70)	5617	김소님	누나	2007.3.15.	함평 군청	희생자는 밭에서 일하다 국군이 몰려오니 무서워 도망가다 살해됨.

한편,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의 경우에도 2007년 9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4일 사이에 8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미신청인 진술 조사 현황

연번	성명 (연령)	관련성	희생자	관계	진술일	장소	진술내용
1	오영종 (67)	미신청 유족[176]	오길동	부	2007.9.6.	함평 군청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10월 22일로 동생이 태어난 날임.
2	채상기 (66)	〃	채감용	부	2007.12.24.	위원회	희생자는 소에게 여물을 주러 나가다 집 앞에서 총격을 받아 돌아가셨음.
3	정정희[177] (75)	〃	정순희	언니	2007.11.24.	위원회	국군이 언니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 "동무 집에 놀러 왔다"라고 대답했더니 국군이 언니를 사살하였음.
4	김정수 (74)	〃	조삼례	모	2007.12.1.	위원회	어머니는 이웃 여성의 지목으로 국군에 연행된 후 숲쟁이길에서 죽었음.
5	이중규 (64)	〃	이정수	부	2007.12.5.	함평 군청	아버지는 국군을 환영하러 나간 자리에서 말을 더듬어 숲쟁이길에서 살해됨.
6	이종익 (84)	〃	김순임	계모	2007.12.6.	자택	계모님은 정오에 집에서 나가 오후 2, 3시경 국군에게 돌아가셨음.
7	이옥례[178] (62)	〃	이홍범	부	2007.10.31.	위원회	아버지는 이장이었는데 마을 사랑방에 있다 국군에게 끌려가 대딴봉에서 돌아가셨음.
8	이재국 (58)	〃	이의범	부	2007.10.18.	자택	아버지는 수호리에서 총에 맞아 후유증을 앓으시다 1993년에 돌아가셨음.

신청인 측 참고인 24명에 대하여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173) 신청인 조연임이 2007년 10월 6일 사망함으로써 신청인의 자 김재희가 외조부 조백석의 희생사실을 대신진술.
174) 신청인 이근식이 2006년 12월 22일 사망함으로써 신청인의 처 서희순이 시아버지 이종악의 희생사실 대신진술.
175) 신청인 이만행은 언어장애가 있어 신청인의 처 김이례가 시아버지 이종욱의 희생사실을 대신진술.
176) 이 사건에서 미 신청 유족이라 함은 국군의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서 희생되었음에도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으로서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2006. 함평군)등에 수록된 피해유족을 중심으로 탐문하여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경우다.
177) 희생자 정순희의 경우 사촌동생 정견이 진실규명 신청(다-6743)을 하였고 참고인 정정희는 희생자의 친동생으로 언니와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178) 이옥례 부 이홍범의 희생사실은 희생자 사촌동생 이용범이 신청(다-2954) 했고, 이옥례 진술을 보완 청취했다.

<표 4>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현황

연번	성명 (연령)	관련성	진술일	장소	진술 형태	진술내용
1	윤상율 (71)	사건 목격	2007.9.6.	함평 군청	진술조서	사건 당일 오후 국군이 학야리 쪽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에 들어왔음.
2	노순례 (84)	〃	2007.10.10.	자택	녹취	김치형과 김대형의 제사를 음력 9월 11일에 지내고 있으며 김대형은 휴가 나온 군인이었음.
3	이기행 (79)	〃	2006. 8.24. 2007. 9. 6.	함평 군청	진술조서	총소리를 듣는 순간 잿더미에 숨은 덕분에 살았음. 국군이 사건발생 3일 후 마을에 와서 사과하였음.
4	이건영 (77)	〃	2006. 8.22. 2007.10.22.	함평 군청	진술조서	국군이 숙부, 남동생과 나를 끌고 가 부역 여부를 물었고, 밤을 주었더니 살려줌.
5	김정순 (82)	〃	2007.10.5.	인천 서구	진술조서	집에 있다 딸을 업고 나왔는데 국군이 “엎어져”라고 하면서 총을 쏘았음.
6	김동쉬 (81)	〃	2007.12.28.	함평	녹취	빨치산과 대치하던 국군은 송산마을에서 하룻밤 잤음.
7	김영재 (67)	〃	2007.10.25.	자택	녹취	국군이 낮에 작전 나갔다가 밤에는 함평읍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음.
8	박계근 (84)	〃	2007.12.6.	자택	녹취	조병수 아들은 보도연맹원으로 죽었음. 국군은 명륜당에 며칠간 주둔했음.
9	이현석 (71)	부대 이동 목격	2006.8.23.	함평 군청	진술 조서	국군이 주민을 함평중학교로 데려갔음. 국군은 누런 군복과 철모를 썼으며 어려 보였음.
10	최병영 (70)	〃	2006.8.24.	함평 군청	진술 조서	주민 18명이 희생되어 15명이 신청하였고 3명은 신청하지 않았음
11	이장원 (70)	〃	2007.10.12.	자택	녹취	국군이 명륜당에서 “인민군을 토벌할 테니 안심하라”며 불갑산쪽으로 갔음.
12	김영휴 (60)	정창근 희생 관련	2007.12.8.	위원회	진술 조서	1950. 12. 27. 경찰이 아버지 김복수와 정창근을 연행하여 죽였다고 들었음.
13	신정식 (76)	부대 이동 목격	2007.10.10.	자택	녹취	수호리 사건은 엄다면에 있던 인민군이 수호리 방면으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
14	전형기 (85)	〃	2007.10.11.	자택	녹취	천자봉에서 국군이 사격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마을 나규환은 총 쏘는 걸 보다가 죽었음.
15	나병한 (76)	〃	2007.10.11.	자택	녹취	국군이 함평중에 주둔한 후 성남리에 와 부역자 색출을 하였지만 주민들을 죽이지는 않았음.
16	김득천	〃	2007.10.12.	함평 군청	진술 조서	수산봉 부근에 대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음.
17	김기철 (78)	〃	2007.10.24.	자택	녹취	마을에서 경찰은 보았으나, 국군은 오지 않았음.
18	김성기 (75)	〃	2007.10.24.	자택	녹취	국군이 동호정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음.
19	윤병옥 (80)	〃	2007.10.24.	자택	녹취	좌익이 피난하라고 하여 피난하던 중, 불갑지서 부근에서 만난 국군의 지시로 포 받침을 지고 영광 쪽으로 갔음.
20	정헌표 (71)	〃	2007.10.25.	자택	녹취	국군이 나산국교에 진주 후 전 여맹위원장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음.
21	김만종 (69)	〃	2007.10.25.	자택	녹취	대를 베어 나산면소재지에 울타리를 만들었음.
22	나인균 (69)	〃	2007.10.26.	자택	녹취	국군이 오전에 영광 방향으로 갔다가 오후에 광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음.
23	정길연 (84)	〃	2007.10.25.	자택	녹취	국군이 송정리 방향에서 와 영광방향으로 지나다녔음.

연번	성명 (연령)	관련성	진술일	장소	진술 형태	진술내용
24	김영훈 (67)	〃	2007.10.25.	자택	녹취	100여 명의 국군이 밀재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

나. 군·경찰 측 참고인 조사

2008년 1월 31일과 2월 1일과 12일 가해부대로 지목된 제20연대 3대대 대대장과 12중대장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사건 당시 대대장·중대장 조사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소속	진술일	장소	진술 형태	진술내용
1	김필상 (88)	3대대장	2008.1.31. 2008.2.12.	위원회	전화 면담	목포에서 입성식을 하고 나서 연대장이 즉각 함평으로 진격하라고 하였음. 함평에서 전투는 없었으며 주민들이 환영하였음.
2	김용림 (82)	12중대장	2008.2.1.	위원회	전화 면담	인민군 패잔병이 포를 쏘았음. 진격 당시 적은 산에 올라간 상태였으므로 민가를 수색한 기억은 없음. 함평에서 어린이가 울 때 5중대가 온다고 하면 그쳤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음.

2007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지역 거주 참전사병 11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함평지역 참전경찰 등 참고인 4명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표 6> 사건 당시 참전사병 및 참전경찰 조사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진술내용
1	송규석 (75)	제20연대 9중대	2007.12.11.	자택	녹취	제주에서 3일 동안 훈련받고, 삼랑진에서 9중대에 배치받았음. 20연대에는 대정읍, 9연대에는 한림읍과 애월읍, 13연대에는 성산읍 출신이 많았음.
2	이창우 (75)	제20연대 9중대	2007.12.13.	자택	녹취	제대 후 11중대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들었음. 함평 수복작전은 2시간 동안 하였으며 포 지원까지 받았음. 주민에게 포탄을 메고 다니게 했음.
3	강성근 (81)	제20연대 10중대	2007.12.13.	자택	녹취	1개월 동안 비무장으로 훈련받았음. 권돈 중위가 창설 당시부터 중대장이었음. 함평중학교 운동장에서 10중대원이 빨치산의 총에 맞았음.
4	김인권 (79)	제20연대 10중대	2007.12.13.	자택	녹취	함평에서 작전한 기억은 있고 도보 이동 중 부패한 시신을 보기도 하였음.
5	유화인 (76)	제20연대 11중대	2007.12.12.	자택	녹취	삼랑진에서부터 함평 수복작전을 할 때까지 중대장은 권준옥이었음. 흰옷 입은 사람이 밤에 습격하였음.
6	채희돈 (77)	제20연대 11중대	2007.12.12.	자택	녹취	학다리는 처음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 중대장은 권준옥이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지휘하였음.

연번	성명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진술내용
7	고수홍 (80)	제20연대 12중대	2007.12.11.	자택	녹취	우리는 뒤에서 포로 소총중대를 지원하였음. 민가를 수색한 후 방송으로 "국군이 왔으니 안심하고 나오라"고 하니, 주민들이 한두 명씩 모였음.
8	양태일 (77)	제20연대 12중대	2007.12.11.	자택	녹취	수색 중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즉시 진압하였음. 주민들에게 적을 도우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주민들을 죽이기도 하였음.
9	허경일 (87)	제20연대 12중대	2007.12.12.	자택	녹취	함평에 특이한 기와집이 있어 주민에게 어떤 곳이냐고 물으니 향교라고 하였음. 그곳에서 포공격을 하였음. 민간인은 의심되면 사살 후 중·대대에 보고하였음.
10	양창규 (76)	제20연대 6중대	2007.12.12.	자택	녹취	삼랑진에서 6중대에 편성되었는데 중대장은 이용배였음. 장성 수복 1주일 후 함평 해보를 거쳐 영광으로 갔음. 고창과 불갑산 전투에도 참여하였음.
11	김성순 (76)	제20연대 제7중대	2007.12.13.	자택	녹취	중대장이 소대장이나 분대장에게 "작전 나가면 하루에 최소 2, 3개의 무기를 탈취해 와라, 적을 사살하면 귀를 잘라 오라"라고 지시하여 한 쪽 귀만 잘라 오는 사람이 있었음.
12	임봉섭 (77)	함평 경찰서	2007.12.5.	자택	녹취	빨치산이 산으로 갔다는 정보를 듣고 함평으로 들어갔음. 인민군이 강하여 함평 수호리 쪽까지 들어갔다가 후퇴함. 그때 수호리에서 서○○라는 경찰이 인민군에게 죽었음.
13	정금용 (83)	함평 경찰서	2007.12.6.	자택	녹취	함평읍 방향인 수산봉에서 깃발이 올라 안심하고 함평에 진주하였음. 실탄이 부족하여 미군에게 실탄을 받고 함평에 들어갔음.
14	나진수 (83)	함평 경찰서	2007.1.18.	함평	녹취	군경은 따로 작전을 하였고 경찰은 한청과 합동작전을 함. 국군이 경찰보다 먼저 함평에 들어가 수호리를 거쳐 대동면으로 갔음. 수호리 희생자 중에는 좌익 활동을 한 사람은 없었음.
15	최정례 (74)	함평 경찰서	2007.10.23.	자택	녹취	경찰은 1950년 10월 19일에 함평에 들어갔음. 경찰이 후퇴한 후 빨치산이 함평경찰서 등에 불을 질렀음.

다. 자료조사

① 사건 피해자 관련 자료

가) 『함평양민 학살 피해 진상조사 실태 보고서』(1997)

함평군의회에서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 29일까지 1년 동안 한국전쟁 기간 중 일어났던 함평군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평읍 수호리와 학교면과 대동면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유족을 대상으로 마을별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언과 탐문조사 후 현장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이어서, 희생규모 등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조사결과는 충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함평군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2006, 이하 『피해연구보고서』)

함평군이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기간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2006년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한 보고서이다. 이 조사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피해실태를 수집한 후 현지 주민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별 사건 발생지점과 각 마을별 피해인원이 세밀하게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

1952년 3월 3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조사한 정부문서이다. 이 문서는 한국전쟁 기간에 좌익, 빨치산 및 인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민간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정부문서이기는 하나 이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피해자 8명[179]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진실화해위회의 조사과정에 활용하였다.

② 국방부 및 육군본부 관련자료

1950년 10월 전라남도 함평지역 수복작전이 광주에 주둔하였던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崔德新 준장) 20연대(박기병·朴基丙 대령)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본부 간행 자료와 부대역사일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군문서도 조사하였다. 다음은 조사에 참고한 자료 목록이다.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8.
○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50.
○ 육군본부, 「보11사20연대특별명령(갑)제22호」, 1950.
○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 보병 제20연대, 「부대약력표」, 육군본부군사연구소, 발행연도 미상.
○ 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 함평 수복작전 관련 미군 문서
○ 1950. 10. 27. 국군의 함평지역 전과 관련 미군 문서
○ 국군 11사단의 배속관련 미군문서

③ 기타 연구자료

○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179)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장장근(張長近)의 피살일자는 1950. 10. 23, 김영철(金永喆), 김영수(金永守), 김영석(金永石), 김대형(金大衡), 김치형(金致衡), 정종실(鄭鍾實), 정양규(鄭良奎)의 피살일자는 1950. 10. 15.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국군에 의해 피살된 것이나 이 명부에는 모두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 학살』, 사회문화원, 2001.
○ 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 1954.4.5)」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겨울.
○ 김영택, 「한국전쟁기 불갑산지구 빨치산과 '대보름 작전'」, 『북악사론』 제10집, 북악사학회, 2003.

라. 현장조사

함평군 함평읍, 엄다면, 대동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등 당시 국군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각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50년 10월 22일 최초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 사건현장과 사거리 낙천동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주민 윤상율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또 1950년 10월 23일 사건이 발생한 함평읍 수호리 2구 대등마을 대딴봉과 해동마을 사건현장을 확인하고 목격자 이기영과 이건영으로부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대동면 향교리 남교마을의 '숲쟁이길'에 대해서도 대동면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월야면 용정리 복용마을에서도 주민 김영훈으로부터 당시 희생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또한 수복작전 당시 국군의 숙영지로 알려진 함평읍 함평중학교와 대동면 향교리 명륜당 및 나산국민학교 등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함평수복에 앞서 호남선 선로보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1950년 10월 19일 빨치산에게 연행되어 대동면 덕산리에서 희생된 학다리역 선로보수원 위령비도 확인하였다.

2) 조사 결과

(1) 사건의 배경

개전 초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였던 한국전쟁의 전세는 유엔군의 참전 및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과 서울 수복(9월 28일)을 기점으로 반전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이 압록강까지 이르자 중공군은 1950년 10월 16일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이때부터 인민군과 지방좌익도 후방전선에서 기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군이 맡았던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담시킬 제3군단을 창설하였고 제3군단은 예하에 11사단을 배속시켜 호남과 서부영남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빨치산도 1950년 9월 전남지역 전남도당 유격대를 조직하여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별 유격부대를 조직하였다. 도당은 화순군 북면 백아산 기슭에 도당 본부를 설치하고 불갑산지구 등 6개 지구를 두었는데 불갑산지구는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에 빨치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제11사단은 4단계로 나누어 토벌작전을 펼쳤는데 함평지역 수복작전[180]은 그 중 제1시기

180) 제11사단의 시기별 토벌작전 내용(보병 제11사단, 앞의 책, 167쪽)은 다음과 같다. ■제1기(1950. 10. 7.~10. 25.) 신규병력을 훈련하고 지역 행정기관을 복구하였으며 적정을 수집하였음. ■제2기(1950. 10. 26.~12. 31.). 월동기를 맞아 빨치산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견벽청야 작전'을 전개하였음. ■제3기(1951. 1. 1.~1.

(1950. 10. 7.~10. 25.)에 진행되었다.
한편 함평경찰은 10월 19일 함평읍에 들어왔다 밤이 되자 철수하였고, 이때 빨치산은 함평읍의 주요시설과 기관에 방화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함평 수복작전 당시 국군의 이동경로와 상황

1950년 10월 14일 광주시 광주여자중학교에 주둔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는 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수복과 적정 수집을 하면서 대대별로 수복작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10월 20일경부터 11월 초 사이에 수행된 국군 제11사단 20연대의 함평 수복작전 상황은 부대역사일지, 정기작전보고(육군본부, 1950.10.), 미군 문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부대역사일지 등에 따르면 제20연대 1대대는 10월 14일 담양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2대대는 10월 18일 장성읍을 수복하라는 연대 작전명령 제10호에 의하여 장성읍을 수복하였으며, 3대대는 10월 21일 목포를 출발하여, 22일 함평, 30일에는 2대대와 합류하여 영광을 수복하였다.

① 제20연대 3대대

제20연대 3대대는 1950년 10월 18일 연대 작전명령 제10호에 의하여 목포지역 출동명령을 받고 10월 20일 오후 3시 선발대가 목포(BP 6152)를 수복한[181] 후 10월 21일 지역 치안을 해군에 인계하였다.
미군문서에 의하면 이후 제3대대가 북상하며 22일과 23일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BP 7483)에서 빨치산과 최초로 교전하였다.[182] <첨부 1 참조>
또 '10월 27일 함평읍 인근(BP 7383, 수호리)에 무장 300명 및 비무장 400명의 빨치산이 81mm박격포, 50cal기관총과 소형무기로 3대대를 공격하였지만 3대대는 27명의 적 사살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183] <첨부 2 참조>
제3대대는 연대 작전명령 제14호에 따라 함평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여 10월 30일 2대대와 합동으로 고산성(BP 7385) 등에서 빨치산을 영광읍(BP 7306) 방향으로 퇴각시키고 영광읍을 수복하였다.[184]

31.). 중공군이 참전하고 빨치산이 고봉을 근거지로 아지트를 구축하자 근거지 붕괴에 주력함. ■제4기(1951. 2. 1.~3. 31.). 최종 토벌기로 빨치산 섬멸을 위하여 지리산·불갑산 등에서 대규모 토벌작전과 주민 소개 작전도 병행함(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167쪽).

181) 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18쪽.

182) "b. "K" Co 3d Bn 20th ROK Regt left MOKPO on afternoon of 21 Oct to investigate a report that 300 enemy were in vicinity SAGARI(BP7577). The company made contact with enemy vicinity SAGARI 220901 Oct. The enemy split into two group. One group going North toward HAMPYONG(BP7482) and the other going South toward MUAN(BP7075). c. "K" Co followed the enemy group two group HAMPYONG. The 3d Bn(−) moved from MOKPO to MUAN toblock the enemy group moving to the South. No report received on this operation."(NA, RG 407, box 1766−1 20060504170958_00214.tif.)

183) "11:15 300 armed and 400 unarmed enemy attacked HAMPYONG BP7483 using 81mm mortars, 50 Cal machineguns and small arms. 27 enemy killed."(NA, RG 407, box 1761−1, 20060502112249_00062.tif.)

184)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70. 10, 358쪽.

이후 제3대대는 부대를 나누어 이동하였다. 당시 제3대대장 김필상의 진술과 제주 출신 참전사병의 진술, 그리고 현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10월 22일 이후 3대대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제3대대 11중대('K' Co)는 학교면 사거리 인근에 300명의 적이 출현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하여 10월 22일 오전 9시 무렵부터 빨치산과 교전하여 빨치산을 무안과 함평읍 북쪽으로 격퇴시켰다.[185] 이로써 함평이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에게 점령된 지 3개월 만인 10월 22일 국군에 의하여 수복되었다.[186]

이후 11중대 등은 10월 22일 학교면 사거리 ⇒ 학교면 월산리 ⇒ 대동면 수복 후 향교리 명륜당 숙영 ⇒ 나산면 나산국민학교 숙영·영광읍 수복 ⇒ 전라북도 고창으로 이동하였다.

나) 제10중대 등은 빨치산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목포에서 무안방향으로 북상하며 작전을 계속하였다. 이 부대는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 ⇒ 함평중학교 숙영·함평 인근 토벌작전 ⇒ 영광읍 수복 ⇒ 전라북도 고창으로 이동하였다.

다) 제3대대는 10월 23일 오후 1시 또다시 빨치산과 교전을 하였다. 10월 22일과 23일의 교전에 대해서는 수복작전 과정에서 첫 전투였기 때문인지 조사과정에서 만난 당시 3대대 대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마을이름 또는 학교면이라는 지명까지 기억하고 있었다.[187] 당시 함평지역 수복작전에 대하여 3대대장[188]과 사병들의 진술[189]사이에는 엇갈린 점이 있었으나 제3대대의 교전과 숙영사실에 대하여는 부대역사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참전사병 및 주민 목격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였다.[190]

이후 제3대대는 전라북도 정읍의 입암산성, 장성 갈재와 담양을 거쳐 화순으로 이동하여 1951년 3월 말 강원도 전선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전남지역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191]

② 제20연대 제2대대

제20연대 2대대도 3대대와 비슷한 시기에 주둔지인 광주여자중학교에서 출발하여 송정리를 경유하여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을 펼쳤다.

육군본부의 「정기작전보고」(1970)에는 '제1기 견벽청야작전의 결과 제20연대 2대대는 10월

185) NA, RG 407, box 1766-1, 앞의 인용문.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사병 및 주민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참고인 김정수 진술조서」(2007. 12. 1.), 5쪽; 「참고인 임봉섭 녹취록」(2007. 12. 5.), 4쪽; 「참고인 고수홍 녹취록」, (2007. 12. 11.), 4쪽; 「참고인 채희돈 녹취록」(2007. 12. 12.), 3쪽.]

186) 『함평군사』에서는 함평 수복 일자를 1950년 10월 23일로 기술하고 있다.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②, 1999, 67쪽.

187) 「참고인 고수홍 녹취록」(2007. 12. 11.), 5쪽; 「참고인 채희돈 녹취록」, (2007. 12. 12.) 3쪽.

188) "함평이 완전히 인민군 점령 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다 달아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총격전 없이 점령했어요. 적정을 살피니까, 완전히 인민군 점령 하에 있다고 하여 진격했는데 저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들어간 거죠."[「참고인 김필상 전화진술 조사보고」(2008. 1. 31.), 2~3쪽].

189) 당시 제3대대 12중대 3소대원으로 수복작전에 참전했던 고수홍과 대대장 김필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목포에서 손톱, 발톱, 머리를 깎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고, 도보로 이동했는데, 얼마 후 앞에서 소총중대는 전투를 벌였고, 우리는 뒤에서 포로 지원하는 등 서너 시간의 전투 후 함평을 수복을 하였습니다. 함평에 진주해보니 민간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수색과 방송으로 국군이 왔으니 주민에게 안심하고 나오라고 하니 그때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참고인 고수홍 녹취록」(2007. 12. 11.), 3쪽].

190) 「참고인 윤병옥 녹취록」(2007. 10. 24.), 3쪽; 보병 제11사단, 앞의 책, 176쪽.

191) 「참고인 김필상 녹취록」(2008. 1. 31.), 12쪽.

21일에 적 사살 38명, 포로 2명 등의 전과[192]와 10월 26일 장성군 북일(CQ 0216)에서 교전 후 적 사살 7명, 생포 1명의 전과를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다.[193]
2대대는 이후 3대대와 합동으로 영광읍을 수복한 후 1951년 2월에서 20일 '불갑산 대보름 작전' 시까지 함평, 장성, 영광지역에서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194]

③ 당시 국군의 상황

제20연대의 사병은 1950년 9월 1일 소집되어 1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육지에 도착하여 부대 편성을 하고 작전지역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사병은 단지 1주일간 제식훈련 정도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95]
당시의 제3대대 사병은 대부분이 처음 전투를 접한 18, 19세의 초년병[196]이었으며, 무기뿐만 아니라 군수품의 보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197] 따라서 제3대대의 초기 수복과정에서의 전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러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출신 참전사병들은, 2·3대대는 목포를 거쳐 함평으로 들어와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주민 가운데 빨치산과 빨치산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당시 군 지휘관들이 전과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수복대상 지역주민 모두를 사실상 빨치산 협조자로 간주하며 작전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198]
제3대대 출신 참고인 유화인은, 작전 중 적과 주민의 식별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전라도에서 공비토벌을 할 때는 정규 인민군인지 공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와서 습격을 했다"라고 말했다.[199] 즉 작전을 폈던 3대대에게는 흰옷을 입은 '평범한' 주민도 언제든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평 수복 직후에도 국군에 대한 빨치산의 공격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참전사병 강성근은 "학교 운동장에 중대가 정렬해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중대원 1명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에 출동을 나가 청·장년 남성들이 보이지 않으면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200] 그러나 이들은 주민들에게 대접을 받으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였다.[201]

192)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70. 10, 274쪽.
193)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70. 10, 307쪽.
194) 「참고인 김영훈 녹취록」(2007. 10. 25.), 3쪽.
195) 「참고인 송규석 녹취록」(2007. 12. 11.), 2쪽; 「참고인 채희돈 녹취록」(2007. 12. 11.), 6쪽.
196) 제주지역 거주 3대대 참전사병 중 송규석, 김성순, 양태일, 유화인, 이창우, 채희돈 등이 20세 미만이었고 함평읍 주민 이현석도 당시 국군들이 "열 몇 살 정도로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현석 진술조서」(2006. 8. 23.), 3쪽.]
197) 함평읍 수호리 해동마을에 들어와 주민을 연행한 3대대는 주민이 밤을 갖다 주자 주민들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건영 진술조서」(2007. 10. 11.), 3쪽.]
198)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2007. 12. 13.), 17쪽.
199) 「참고인 유화인 녹취록」(2007. 12. 12.), 4쪽.
200) 「참고인 강성근 녹취록」(2007. 12. 13.), 3·8쪽.
201) 참고인 이건영은, 함평읍 수호리 해동마을에 들어온 3대대가 주민을 모아놓고 부역자 색출을 하던 중 동생이 가져온 밤을 주자 소집하였던 주민을 돌려보냈고, 또 다른 3대대는 주민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여 밥을 차려 주자 먹고 나서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나오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여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건영 진

나. 요약

국군 제11사단 20연대는 1950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각 대대별로 시·군 지역 수복에 나섰다.
제1대대는 10월 14일 담양방면으로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10월 18일 장성을 수복하였다. 제3대대는 10월 20일 목포를 수복하고 무안, 함평을 따라 북상하면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11사단 20연대 3대대는 10월 22일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서 빨치산과 최초의 전투를 치른 다음 그날 함평을 수복하였다. 그 후 제3대대는 함평중학교 등에서 숙영하면서 함평지역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30일에는 제2대대와 합동으로 영광읍을 수복하였다.
3대대는 10월 22일 학교면 사거리 함평 수복작전 후 율동마을을 수색하며 주민 일부를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들을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사거리 낙천동에서는 김영철의 집에 들어갔는데 일행 중 김영수가 3대대를 인민군으로 오인하는 언행을 하자 김영수 등을 마을 앞 논에서 살해하였다.
또한, 수복작전 당시 빨치산은 국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신광면과 대동면 등 인근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보초를 세웠다. 전투 후 빨치산은 불갑산 방향으로 깊숙이 후퇴한 반면, 강제 동원된 주민은 빨치산을 따라가지 않고 전투지역 인근인 학교면 월산리 송산마을을 거쳐 대동면, 나산면 방향으로 갔다. 이 주민들을 추적하며 월산리로 들어간 3대대는 월산리 주민 일부를 빨치산 협력자로 간주하고 윤두식 등 마을의 청·장년을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한편 제3대대의 다른 중대는 10월 23일 수호리 대등, 해동마을 앞 천자봉에서 함평읍의 수산봉 방향으로 총격을 가한 후 대등마을을 수색하였다.
3대대 일부 중대는 대등마을에서 5명의 주민을 색출하여 살해하고, 다른 일부는 해동마을 앞에서 일부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하지만 해동마을 뒤로 들어온 3대대의 일부 중대는 연행한 주민을 풀어주었다.
또한, 3대대는 대동면 향교리 남교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 중 3명의 여성을 데리고 여성동맹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성 들을 연행하였다. 이때 연행된 여성들은 숲쟁이길에서 살해되었다. 3대대는 대동면 덕산리에서 주민 김재운도 살해하였다.
3대대는 나산국민학교에 숙영한 후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주민 7명을 천주봉으로 연행하여 총격을 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6명은 사망하였고 정창근은 현장에서 살아남았다.
한편 불갑산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제2대대는 불갑산 아래인 밀재 부근 밭에서, 밭일을 하다 2대대를 보고 놀라서 달아나던 장장식 등을 살해하였다.

(3) 주요 규명과제별 입증사실

가. 희생·피해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술조서」(2006. 8. 22.), 5·7쪽].

① 희생자 판단근거와 희생·피해규모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과 희생·피해규모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적부를 제출받아 사망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38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청인이 진실규명신청서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희생되었다고 진술한 사람들 중 직계 유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부 확인과 사건 목격자 탐문을 통하여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에서 3대대에 연행되어 천주봉에서 살해된 곽원길, 이기옥, 노세창, 정종하, 김복수 등의 희생자와 같이 기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실규명신청서[202]에만 기재된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 청취 후 희생자의 제적부 확인과정을 거쳐 이기옥 외 3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전쟁 중 공보처 통계국이 발표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1952), 함평군의회에서 조사한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실태보고서』(1997), 함평군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된 『피해연구 보고서』에 희생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이 뒷받침된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이종면 1명이었고, 『피해연구보고서』에 기재된 희생자 중 제적부와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 희생자는 9명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52명이다.

<표 7>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실태보고서』[204]에 기록된 희생자

연번	성명	성별	출생년도	직업	피살 연월일	당시 주소	판단근거	판단
1	이종면	남	1933	농민	1950.10.22.	함평읍 수호리	제적부	확인
2	조기동[203]	남	1913	농민	1950.10.22.	함평읍 수호리		미정

<표 8> 『피해연구 보고서』[205]에 기록된 희생자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 연월일	피살 장소	판단근거	판단
1	성명섭	남	21	농업	1950.10.23.	대동초교 운동장		미정
2	이종익 모친[206]	여		농업	1950.10.23.[207]	대동면 향교 숲	유족진술 제적부	확인
3	조삼례	여		농업	1950.10.23.	대동면 향교 숲	유족진술 제적부	확인
4	이정수	남	40	농업	1950.10.23.	대동면 향교 숲	유족진술 제적부	확인
5	기혼순애	여	16		1950.10.23.	대동면 향교 숲		미정

202) 신청인 곽연자의 희생자 곽원길의 희생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
203) 조기동의 희생사실은 사건지역 주민을 상대로 탐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204)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실태보고서』에는 함평읍 수호리 사건 희생자 17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15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와 일치하였다.
205) 『피해연구 보고서』에 기재된 희생자 중 이 사건 관련 시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희생 여부를 탐문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는 제외하였다.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 연월일	피살 장소	판단근거	판단
6	조병수	남		농업	1950.10.23.	대동면 향교 숲	목격자 진술	미정
7	이오범	남	20	농업	1950.10.23.	마을 근처 산		미정
8	김동쉬 고용인	남	40대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미정
9	김형택	남	35	사무원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제적부	확인
10	김성만	남	30대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제적부	확인
11	추경섭	남	26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제적부	확인
12	채희복	남	20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제적부	확인
13	채감용	남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유족진술 제적부	확인
14	이(박)복렬	남	20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미정
15	최희조	남	26	농업	1950.10.22.	신흥동	목격자 진술	미정
16	최문수 외삼촌	남			1950.10.22.	신흥동	목격자 진술	미정
17	오길동	남	30대	농업	1950.10.22.	신흥동	유족진술 제적부	확인
18	나성렬[208]	남	27	농업	1950.10.22.	송산마을	목격자 진술	미정

② 희생자의 신원

확인된 희생자의 신원은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이 중 신청인은 38명, 미신청인은 14명이다.

<표 9> 희생자의 신원 및 판단근거(신청인)

연번	세부사건 지역	사건 번호	희생자				신청인	판단근거			판단
			성명	성별	출생년도	당시 직업	성명	제적부확인	후손 진술	참고인 증언	
1	학교면 사거리 율동	4580	윤재형 (尹再炯)	남	1937	학생	윤순자 (尹順子)	○	○	○	확인
2		4581	김영석 (金永石)	남	1894	농민	김수남 (金秀南)	○	○	○	확인
3		4582	최귀례 (崔貴禮)	여	1924	주부	윤순자 (尹順子)	○	○	○	확인
4		4583	윤삼금 (尹三琴)	여	1936	주부	윤순자 (尹順子)	○	○	○	확인
5		4584	정양규 (鄭良奎)	남	1898	농민	정종순 (鄭鍾順)	○	○	○	확인

206) 이종익 모친은 제적부 확인과 참고인 이종익의 진술을 통하여 김순임(金順任)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이종익 진술조서」(2007. 12. 6.), 4쪽.

207) 김순임, 조삼례, 이정수의 사망일자가 『피해연구보고서』에는 1950. 10. 24.(음 9. 14.)로 기재되었으나 유족과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이들의 사망일자가 대동면 수복일인 1950. 10. 23.로 확인하였다.

208) 『피해연구보고서』에는 나성렬이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기재돼 있으나, 월산리 거주 참고인 김동쉬는 나성렬이 당시 경찰로 빨치산과 대치 중 빨치산에게 희생됐다고 진술(「참고인 김동쉬 녹취록」(2007. 12. 28.), 6쪽).

연번	세부사건 지역	사건 번호	희생자				신청인	판단근거			판단
			성명	성별	출생년도	당시 직업	성명	제적부확인	후손 진술	참고인 증언	
6		4585	정종실 (鄭鍾實)	남	1930	학생	정종순 (鄭鍾順)	○	○	○	확인
7		4586	추상섭 (秋相燮)	남	1928	농민	추재섭 (秋在燮)	○	○	○	확인
8		4587	박동규 (朴東圭)	남	1933	농민	박남규 (朴南圭)	○	○	○	확인

<표 10> 희생자의 신원 및 판단근거(미신청인)

연번	세부 사건 지역	희생자				유족	판단근거			·판단
		성명	성별	출생년도	당시 직업	성명	제적부확인	후손 진술	참고인 증언	
1	학교면 월산리	오길동 (吳吉童)	남	1914	농민	오영종 (吳英鍾)	○	○	○	확인
2		채감용 (蔡監龍)	남	1914	농민	채상기 (蔡相基)	○	○	○	확인
3		채희복 (蔡熙福)	남	1930	농민	채정기 (蔡正基)	○	×	○	확인
4		김형택 (金兄澤)	남	1923	서무원	김동재 (金東載)	○	×	○	확인
5		김성만 (金成萬)	남	1922	농민	김성곤 (金成坤)	○	×	○	확인
6		추경섭 (秋京燮)	남	1922	농민	이점순 (李点順)	○	×	○	확인
7	함평읍 수호리	이종면 (李鍾勉)	남	1919	농민	이건영 (李健榮)	○	×	○	확인
8	대동면 향교리	조삼례	여	1911	주부	김정수 (金晶洙)	○	○	○	확인
9		김순임 (金順任)	여	1917	주부	이종익 (李鍾益)	○	○	○	확인
10		이정수 (李廷秀)	남	1921	농민	이중규 (李中揆)	○	○	○	확인
11	나산면 월봉리	정종하 (鄭鍾河)	남	1934	농민	정천수 (鄭千洙)	○	×	○	확인
12		이기옥 (李基玉)	남	1921	농민	이경자 (李京子)	○	×	○	확인
13		김복수 (金福壽)	남	1929	농민	김만호 (金滿鎬)	○	×	○	확인
14		노세창[209] (魯景塾)	남	1928	농민	노양숙 (魯良塾)	○	×	○	확인

209) 노세창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제적부상 이름은 노경숙이었다.

<표 11> 부상자의 신원 및 판단근거

연번	세부 사건 지역	희생자				유족	판단근거			판단
		성명	성별	출생년도	당시 직업	성명	제적부확인	후손 진술	참고인 증언	
15	함평읍 수호리	이의범[210] (李義範)	남	1926	농민	이재국 (李載國)	○	○	○	확인
16	대동면 향교리	정정희[211] (鄭貞姬)	여	1933		정정희 (鄭貞姬)	본인 확인	○	○	확인

(3) 희생자의 특징

이 사건들은 모두 3대대가 빨치산과 2, 3일간의 교전 후 이동과정에서 빨치산 협력자로 짐작되는 주민 일부를 별다른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골라내어 사살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3대대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던 청·장년들이 주로 희생되었다.

가) 희생자의 성별 분포

희생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52명 중 남성 44명, 여성 8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그러나 대동면 향교리 사건 희생자 5명 중에는 여성이 4명이었는데 그 이유는 국군이 대동면 향교리에서는 여성동맹위원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여성들 중 그들의 눈에 띄거나 집안에 있던 여성들을 연행하여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나)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1세에서 40세까지가 전체 희생자 52명 중44명을 차지한다. 10세 이하의 희생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국군이 주민 중 11세 이상의 청년들은 주로 빨치산 용의자 또는 협조자로 간주하여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다)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희생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업 41명, 상업 4명이었다. 또 중학교와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던 학생도 6명이 포함되었다.

나. 가해부대 및 지휘관

기존의 문헌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함평 수복작전은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및 3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또 사건 당시 수복작전을 수행한 제2대대장은 유갑열(柳甲烈)[212]

210) 이의범은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에서 3대대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고 지난 1993년 사망하였다.
211) 정정희는 대동면 향교리 남교 숲쟁이길에서 3대대의 총격에 총상을 입었으나 현재 생존해 있다.
212) 유갑열은 자력표상에는 1950. 9. 14.~12.15.까지 제6훈련소 근무(조사4팀-368)로 되어 있으나, 『부대역사일지』에는 사건 발생 무렵 제20연대 2대대장으로서 장성지역에 출동한 기록이 있다[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17쪽.]. 또한, 3대대장이었던 김필상도 제2대대장 유갑열이 불갑산을 거쳐 영광 수복작전을 지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필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2008. 1. 31.), 6쪽.].

소령, 제3대대장은 김필상(金弼相)[213] 소령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국군 제11사단은 1950년 8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4호에 의하여 경북 영천에서 예하에 9, 13, 20연대 및 1개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를 예속 받아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되었다.[214] 1950년 9월 25일, 제11사단장에 최덕신(崔德新) 준장, 20연대장에 박기병(朴基丙) 대령이 임명되었다.[215]
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토벌작전에 견벽청야 작전 개념을 도입하였다.[216]
또한, 연대장 박기병은 1949년 3월 31일부터 전남지역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217]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주출신 제20연대 2·3대대 참전사병을 조사한 결과 2대대 6중대장은 이용배(李龍培) 중위,[218] 7중대장은 강충호(姜忠鎬) 중위[219]임이 확인되었다. 또 제3대대 9중대장은 현덕진(玄德鎭) 중위,[220] 10중대장 권돈(權敦) 중위,[221] 11중대장은 권준옥(權俊玉) 대위,[222] 12중대장은 김용림(金龍琳)[223] 대위였다.[224]

다. 가해의 지휘계통과 적법성 여부

① 가해의 지휘계통과 책임

이 사건 당시인 1950년 10월 말 부대의 지휘계통을 아래로부터 살펴보면 제2·3대대장, 제20연대장, 제11사단장으로 올라간다.
제11사단은 20연대 본부를 전라남도 광주에 두고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3대대는 함평 수복작전을 완료한 후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화순에 주둔하였다. 또 2대대는 장성에 대대본부를 두고 불갑산 지역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1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7호 부록 제1호에 의하여 창설 후부터 1950년 10월 31일

213) 김필상은 자력표상에는 1950. 9. 8.~12. 14.까지 제5훈련소 근무(조사4팀-368)로 되어 있으나, 『부대역사일지』에는 사건발생 무렵 제20연대 3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18쪽.], 김필상 자신도 함평수복작전 당시 제3대대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함평에서 빨치산과의 전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12중대장 김용림은 빨치산으로부터 포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필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2008. 1. 31.), 2쪽. ; 「참고인 김용림 전화 진술조사 보고」(2008. 2. 1.), 5쪽.].
214)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10쪽.
215) 1950. 9. 25, 육군본부 특별명령(갑) 제159호.
216)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3, 을유문화사, 1975, 410쪽; 그러나 3대대장 김필상은 자신이 1951년 초 11사단 작전참모로 있을 때 비로소 견벽청야 작전에 대하여 사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필상 전화진술조사 보고」(2008. 2. 12.), 3~4쪽.].
217) 한국전쟁 전 전남 광산군 극락면에서 창설된 제4연대가 제20연대로 개칭. 보병 제20연대, 「부대약력표」, 2쪽.
218) 「참고인 양창규 녹취록」(2007. 12. 12.), 2쪽.
219)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2007. 12. 13.), 2쪽.
220) 「참고인 이창우 녹취록」(2007. 12. 13.), 7쪽.
221) 「참고인 강성근 녹취록」(2007. 12. 13.), 2쪽; 권돈 자력표에 10中隊 附로 配 83. 10. 6.(20聯特1號)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4팀-411.
222) 권준옥 자력표에 11中隊 附로 配 83. 10. 6.(20聯特1號)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 4팀-56.
223) 「참고인 김용림 전화 진술조사 보고」(2008. 2. 1.), 2~3쪽 ; 「참고인 유화인 녹취록」(2007. 12. 12.), 2쪽 ; 「참고인 채희돈 녹취록」(2007. 12. 12.), 5쪽; 권준옥 자력표 3쪽.
224) 이용배·강충호·현덕진·김용림의 자력표상에는 중대장 보임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주지역 거주 제3대대 소속사병과 2대대 소속사병은 이들의 중대장 보임사실을 진술하였다.

까지 미9군단에 배속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225] 이후 한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이 바뀌었다. **<첨부 3 참조>**

당시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제11사단 일반명령 제2호(1950. 10. 15.)에 의하여 전남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전투사령관 예하 대대의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다수의 희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부대의 각급 지휘관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1사단이 수복 및 빨치산 토벌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른바 견벽청야의 작전개념을 도입하여 적에게 협력할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1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② 가해의 적법성 여부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지역 거주 3대대와 2대대 출신 참전사병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술내용 중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제3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양태일은 작전 중에 주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아기 업은 엄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멀쩡한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빨치산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든지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26]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이후 인민군이 북으로의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빨치산을 조직한 후 제3대대의 함평지역 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난을 가지 않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어 교전을 한 직후였다는 점을 발생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복작전 중이던 3대대는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작전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주민 중 일부는 강제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들이 거주하였던 마을의 청·장년들을 적과 동일시하였다.

물론 당시 지휘관들의 전과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제 갓 입대한 사병들에게는 심리적 압박 또는 주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제주출신 참전사병 김성순은, 작전 나갈 때 대대나 연대에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을 통하여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전 나가면 하루에 최소 무기 2, 3개는 가져와라, 또 적을 사살하면 귀를 잘라 오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부에서 전과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 그래야 공로도 인정받고 표창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227] 제3대대 출신 다른 참고인도 "작전지역에서 국군이 가면 (주민들이) 도망갔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진술했다.[228]

한편, 제3대대장 김필상은 "함평이 완전히 인민군 점령 하에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부대가 들어갔는데 적의 저항이 없어 그대로 차량을 타고 진격하여 앞에서 부대가 점령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전투는 없었다."라고 말하여 수복작전 시 교전 혹은 주민 희생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229] 즉 김필상은 제20연대장 박기병이 함평 수복을 명령하여 함평에

225) "The 11th ROK Division will be taken over by IIICorps in place."(NA, RG 407, box 1766-1, 20060504170958_00254.tif.); 육본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1971, 302쪽.
226) 「참고인 양태일 녹취록」(2007. 12. 11.), 13쪽.
227)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2007. 12. 13.), 17쪽.
228) 「참고인 송규석 녹취록」(2007. 12. 11.), 10쪽.

들어갔으나 인민군의 저항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참전 사병 강성근, 채희돈, 고수홍 등 함평 수복작전에 참가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230]

수복 이전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3대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 중 일부를 연행하여 불법적으로 살해하였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사건 며칠 후 군인들이 주민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231] 이러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작전상 불필요한 인명피해는 방지하라는 지휘방침이 수립되고 병사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언은 없었다.

민간인 보호 조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과를 올릴 것을 압박하는 무리한 지시와 명령[232]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때 수복작전을 수행하였던 11중대장 권준옥은 같은 해 11월 중순 5중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무리한 작전을 되풀이하여 수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을 1950년 11월 중순부터 발생한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의 민간인 희생 사건(제20연대 2대대 5중대가 가해함)[233]과 비교하여 보면, 이들 나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10세 이하와 60세 이상 등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는데 비해, 그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에는 청·장년 희생자가 대부분이었다.[234] 만약 이 사건 발생한 직후 작전상의 과오에 대하여 해당 지휘관을 문책 혹은 처벌하고 민간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그 이후의 살상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 특히 수복작전 중 교전시기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는 못했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있었고[235] 『제헌헌법』과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및 『국제인도법』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적에게 도움을 준 혐의자에게는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작전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전투 중에 적에게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주민이 작전상 적으로 간주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면 마땅히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

---

229) 「참고인 김필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2008. 1. 31.), 3쪽.

230) 3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강성근은 함평중학교에 숙영할 당시 빨치산의 총에 10중대원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강성근 녹취록」(2007. 12. 13.), 3쪽.].

231)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과 대동면 향교리 사건 3, 4일 후 3대대는 마을 또는 유족에게 찾아와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약까지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이기행 진술조서」(2006. 8. 24.), 3쪽; 「참고인 김정수 진술조서」(2007. 12. 1.), 4쪽.]

232) 「참고인 양태일 녹취록」(2007. 12. 11.), 11쪽.

233) 1950년 11월 중순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5중대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지에서 민간인 249명 이상을 살해하였는데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234) 이 사건의 특징은 교전 후 민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빨치산의 퇴로를 따른 이동선상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235)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국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수복 작전지역에 있었거나 적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236]는 위법한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 요약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의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인 52명이 희생당하였으며, 2명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자의 직업은 농민이 41명이었으며, 학생도 6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수복작전 중이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3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11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장 박기병 대령, 3대대장 김필상 소령·2대대장 유갑열 소령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건의 일차 책임은 제2·3대대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 지휘계통상에 있었던 제11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3)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윤우병 외 51명은 1950년 10월 22일부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에서 함평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와 제2대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신청 외 이의범, 정정희는 부상을 당했다.

나. 조사결과 밝혀진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군 제11사단 20연대 3대대의 일부 중대는 함평 진주일인 1950년 10월 22일 오후 3, 4시경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을 수색하여 윤재형 외 7명을 사거리 야산(산16번지)으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또한, 사거리 낙천동을 수색하던 제3대대를 보고 낙천동 주민 김영수가 국군을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말실수를 하자 김영수 외 6명을 마을 앞 논(답 1006번지)으로 끌어내어 사살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월산리에서 제3대대는 마을 앞을 지나던 윤두식 외 6명을 살해하였다. 제3대대는 월산리 송산마을을 포위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대동면 향교리를 수복하고, '여성동맹위원장'을 찾아내라며 마을을 수색하여 김재덕 외 4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대동면 덕산리에서 김재운을 사살하였다. 제3대대의 다른 중대는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2구 대등마을과 해동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 이병범 외 15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토벌작전을 계속하면서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의 주민 곽원길 외 4명을 인근 천주봉에서 사살하였다. 같은 마을 주민 정창근은 총상 치료 중 12월 27일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한편 제2대대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불갑산 밀재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진행하였는데, 밭일을 하다가 마을 앞을 지나가던 국군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월야면 주민 장장식과 김소님을

236)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살해하였다.

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52명이고 부상자는 2명으로,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54명이다. 이 중 신청인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 가운데 확인된 희생자는 조효영(曺孝英·다-2941), 조기영(曺基英·다-2942), 조상현(曺相鉉·다-2943), 조기후(曺基厚·다-2944), 조백석(曺白石·다-2945), 박양길(朴良吉·다-2946), 조기재(曺基才·다-2947), 장장근(張長近·다-2948·다-9815와 중복), 이인행(李仁行·다-2949), 구장현(具長鉉·다-2950), 이병범(李丙範·다-2951), 이재봉(李載奉·다-2952), 이종악(李鍾岳·다-2953), 이홍범(李洪範·다-2954), 이종욱(李鍾旭·다-2955), 윤우병(尹宇炳·다-4573), 김치형(金致衡·다-4574), 윤상대(尹相大·다-4575), 윤상안(尹相晏·다-4576), 김영철(金永喆·다-4577), 김영수(金永守·다-4578), 김대형(金大衡·다-4579), 윤재형(尹再炯·다-4580), 김영석(金永石·다-4581), 최귀례(崔貴禮·다-4582), 윤삼금(尹三琴·다-4583), 정양규(鄭良奎·다4584), 정종실(鄭鍾實·다-4585), 추상섭(秋相燮·다-4586), 박동규(朴東圭·다-4587), 윤두식(尹斗植·다-5664), 곽원길(郭元吉·다-949), 정창근(鄭昌根·다-976), 김재운(金在沄·다-1505), 김재덕(金在德·다-2743), 장장식(張長植·다-5614), 김소님(金小任·다-5617), 정순희(鄭順姬·다-6743) 등 38명이다.

또한, 추가로 확인된 미신청 사망자는 오길동(吳吉童), 채감용(蔡監龍), 채희복(蔡熙福), 김형택(金兄澤), 김성만(金成萬), 추경섭(秋京燮), 이종면(李鍾勉), 조삼례, 김순임(金順任), 이정수(李廷秀), 정종하(鄭鍾河), 이기옥(李基玉), 김복수(金福壽), 노경숙(魯景塾) 등 14명이며, 이의범(李義範), 정정희(鄭貞姬) 등 2명은 부상자로 확인되었다.

라. 희생자의 대다수는 수복작전 중인 부대이동 경로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로 이들이 빨치산에게 협력한 것으로 간주한 2·3대대에게 적법절차 없이 살해되었으며,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직후 빨치산 및 빨치산 협력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적 경로에 있는 마을의 주민이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지역 주민은 국군을 인민군으로 오인한 말실수 때문에 살해되었으며, 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국군을 보고 놀라 도망가다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 및 제2대대 군인이다.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국군 제11사단장, 제20연대장, 제2대대장과 3대대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이 사건은 함평 수복작전 중국군과 빨치산이 교전 직후 부대 이동 및 빨치산 추적과정에서, 국군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이 진행되던 첫 수복작전 수행 중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군이 민가에 들어가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2) 화해를 위한 권고사항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다.

(2)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는 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원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법적·제도적 정비

①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 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제반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②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희생자의 제적부를 확인하여 멸실된 경우 복원해야 한다.

③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④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함평 양림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인 1949년 9월 21일과 22일 사이에 불갑산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고 귀대하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유격대에 의해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주민 28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마을 뒤 동산과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총살된 사건이다. 피살된 주민들은 특히 그날 밤 함평경찰서 야간 보초를 서기 위해 어수룩한 군복을 입고 집결 중 마을 앞 도로에 펑크가 난 타이어를 수리하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공비로 오인하여 사살한 사건이다. 특히 경찰유격대는 분명하게 경찰서 보초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중이라고 밝혔는데도 무조건 사살한 사건으로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임연화 등 28명을 이틀 동안 함평군 함평읍 양림마을에서 총살했다.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 늦은 오후 경찰유격대가 불갑산 방향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함평경찰서로 귀대하다가 병력수송 차량 2대 중 1대가 펑크가 나자 양림마을 앞 삼거리(주포입구)에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유격대원들은 양림마을 주민 장락규가 경찰서 야간보초를 서기 위해 어수룩한 국방색 복장으로 죽창을 들고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마을에 진입하여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 수색 과정에서 마을주민 장락규를 붙잡아 집결지로 인솔하던 중 대나무 밭을 수색하던 다른 동료유격대원들이 이 두 사람을 공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다. 그 결과 마을주민 장락규는 사살되고 유격대원 1명(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이 부상을 입었다. 유격대원들은 동료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격분하여 마을주민들을 '선암정'으로 집결시켜 대나무밭 주인 김일동과 김의창, 대나무밭 주인과 가장 가까이에 살았던 주민 장남식, 그리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죽이려거든 나를 죽여라'며 항의하던 임연화(여, 64세) 등 총 4명을 총살했다. 곧 바로 유격대원들은 마을청년을 무작위로 트럭에 싣고 함평경찰서로 연행하여 밤새도록 구타하였다. 동료유격대원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유격대원(최판기 순경 추정)이 1949년 9월 21일 자정쯤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자, 경찰유격대는 1949년 9월 22일 새벽에 다시 양림마을로 들어와 주민 100여 명을 '선암정'에 집결시키고 3개 마을(신기, 동하, 양림) 구장과 마을주민 장기남 등 4명을 총살하였으며, 양림마을 가옥 7채를 방화하였다. 또한 함평경찰서로 연행했던 마을 청년 19명을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일렬로 세워 놓고 총살하였다.

함평 양림사건의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에서 거주하였던 민간인들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20대~30대의 마을 청년들이었고, 10대가 4명, 64세의 노인 여성이 1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으며,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16일 징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조치를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237]

【사 건】 다-1255~1281(27건), 함평 양림 사건

【신청인】 장형기 외 26명

【결정일】 2007. 10. 16.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가. 진실규명 신청 접수현황

장형기 등 27명은 2006년 2월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前)의 시기인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부터 1949년 9월 22일(음력 8월 1일) 사이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238]에 있는 선암정과 저수지 둑에서 전남유격대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대표자 3인(장형기, 장기환, 김현식)을 선정하여 진실규명신청서(27건)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수는 28명이다.

그 접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희생일시	희생장소	신청인과의 관계	비고
1	'06. 2. 9.	1255	장철황	장락규(張樂圭) (남, 당시 32세)	'49. 9. 21. 17:30	양림마을 (신기마을 촌전)	조부	·주민 중 최초 희생자 ·음력7월29일
2	〃	1256	김현식	김일동(金一童) (남, 당시 40세)	'49. 9. 21. 18:00	선암정	부	·석양 무렵 ·신청인 대표

237) 2007년 10월 1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조치를 정부당국에 건의한 전문이다.

238) 사건 당시 진양리 양림마을은 120여 호의 큰 마을로써 신기, 동하, 양림마을 등 3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행정구역은 '진양리'이다.

연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희생자	희생일시	희생 장소	신청인 과의 관계	비고
3	〃	1257	장형수	임연화(任連化) (여, 당시 64세)	'49. 9. 21. 18:00	선암정	조모	선암정 (마을뒤 동산)
4	〃	1258	장형수	장남식(張南植) (남, 당시 27세)	'49. 9. 21. 18:00	선암정	숙부	석양 무렵 (17:30~19:00)
5	〃	1259	김용채	김의창(金義昌) (남, 당시 18세)	'49. 9. 21. 18:00	선암정	형	석양 무렵
6	〃	1260	장형기	장인섭(張仁燮) (남, 당시 38세)	'49. 9. 22. 새벽 05:30	선암정	부	·동하 구장 ·신청인 대표 ·음력8월1일
7	〃	1261	장기환	장기남(張基南) (남, 당시 20세)	'49. 9. 22. 새벽 05:30	선암정	형	신청인 대표
8	〃	1262	장무길	장수열(張壽烈) (남, 당시 40세)	'49. 9. 22. 새벽 05:30	선암정	부	양림 구장
9	〃	1263	장행문	장주식(張周植) (남, 당시 28세)	'49. 9. 22. 새벽 05:30	선암정	부	신기 구장
10	〃	1264	장순철	장복식(張福植) (남, 당시 22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저수지둑 (방죽둑비석거리)
11	〃	1265	장귀임	장우섭(張禹燮) (남, 당시 34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오전 07:00~09:00 사이 추정
12	〃	1266	장기욱	장양섭(張良燮) (남, 당시 25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13	〃	1267	장기환	장기주(張基珠) (남, 당시 18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형	
14	〃	1268	장준호	장남표(張南杓) (남, 당시 30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조부	
15	〃	1269	장영균	장용섭(張瑢燮) (남, 당시 22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숙부	
16	〃	1270	장일순	장명섭(張明燮) (남, 당시 20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남동생	
17	〃	1271	장홍임	장은식(張殷植) (남, 당시 26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18	〃	1272	장용상	장남식(張男植) (남, 당시 16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형	
19	〃	1273	조형윤	조두윤(趙斗允) (남, 당시 16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형	
20	〃	1274	장행석	장한기(張漢基) (남, 당시 32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21	〃	1275	장춘혁	장방일(張邦一) (남, 당시 35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22	〃	1276	장춘혁	장원표(張元杓) (남, 당시 30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숙부	
23	〃	1277	장귀임	장만표(張萬杓) (남, 당시 21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24	〃	1278	장희남	장종표(張宗杓) (남, 당시 20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25	〃	1279	장옥균	장재상(張齋相) (남, 당시 25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조부	
26	〃	1280	장동진	장백기(張伯基) (남, 당시 26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부	
27	〃	1281	장기형	장용표(張龍杓) (남, 당시 27세)	'49. 9. 22. 08:00	저수지 둑	숙부	

※ 신청서상 희생자에 포함한 장주식 가의 고용인은 성명주소 미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서 접수현황에는 미포함(희생자는 28명임).

나. 처리 경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7. 2. 28.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관련 민간인희생사건에 포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07. 7. 6.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건의 명칭을 '함평 양림사건'으로 정하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과 1949년 9월 22일(음력 8월 1일) 이틀 동안 양림마을 뒤 동산(선암정)과 동 마을 앞 저수지 둑(방죽둑비석거리)에서 마을주민 28명이 함평경찰서 공비토벌부대인 전남유격대(대장 윤상수)에게 집단적으로 총살당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 조사의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관련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30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2007. 2. 28.)

(2). 조사의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3). 규명과제

함평 양림마을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 오후 및 9월 22일(음력 8월 1일) 오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신청인 등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평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전남유격대가 양림부락 3개 마을(신기, 동화, 양림마을) 주민 28명을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 집결하여 총살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윤상수가 이끄는 전남유격대가 어떤 집단인지, 피해자가 비전투 민간인인지, 공비토벌부대인 전남유격대가 왜 양림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쟁점이다.

첫째, 신청인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남유격대가 실제 존재했는지, 전남유격대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전남유격대가 양림마을 주민들을 사살하고 총살한 것이 사실인지?

둘째, 피해자인 양림마을 주민들이 비전투 민간인인지, 그리고 그들이 희생된 이유가 무엇이며, 좌익 활동 여부가 희생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셋째, 전남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마을 주민의 수는 몇 명인지?

넷째, 주민들의 희생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전남유격대의 조직적인 차원의 계획 하에서 일어났는지?

4). 조사의 방법과 경과

(1)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된 3인(장형기, 김현식, 장기환)과 신청인들 중 함평읍과 광주, 전남지역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함평군청 함평유족회 사무실(4층)에서 조사하였고 서울, 경기 등 위원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위원회 조사실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대표자 3인의 진술 범위 내에 속하는 신청인 중 김용채(사건번호다-1259), 장행문(다-1263), 장일순(다-1270), 장귀임(다-1277), 장희남(다-1278), 장동진(다-1280) 등 6명은 통화보고서로 진술조서를 대체하였고, 장기형(다-1281)은 연락이 안 되어 누나 장영선으로부터 진술을 들었으며, 신청인 장영균(사건번호 다-1269)은 2007년 6월 30일 사망하여 배우자 윤성자의 진술을 들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주요 참고인으로 선정한 장관섭(86세) 및 장서인(73세) 등 2명을 조사하였고, 이들의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 장돈섭(79세)을 추가 조사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현황

연변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와의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다-1256	김현식(대표자)	자	'07. 7.24.	함평군청(4층) 함평유족회 사무실(진술조서)	○ 대나무밭 부근에서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어 부친이 희생되었고, 가해자가 유격대장 윤상수, 손옹골, 최병남이라고 들었으며 국민학교시절 최병남 아들을 미워했음.
2	다-1260	장형기(대표자)		'07. 7.25.	함평군청(4층) 함평유족회 사무실(진술조서)	○ 당시 조선대부속중학교 2학년(17세) 재학 중으로 1949년 9월 22일'선암정'에는 마을사람 100여명이 모였으며 이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도 있었음. 유격대원이 아버지(장인섭, 동하구장)를 보며 '일어서서 나오라'고 하더니 그냥 총을 쏘았으며, 이어서 신기, 양림마을 구장과 장기남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3	다-1262	장무길	자	'07. 8.9.	진실화해위원회 제1조사실(진술조서)	○ 집집마다 함평경찰서에서 야경을 나오라고 하여 야경을 섰으며 직접 야경을 서기도 하였음.

연변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와의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4	다-1264	장순철	자	'07. 8.29.	진실화해위원회 제2조사실(진술조서)	○양림, 하늘이, 고향촌 마을사람들이 교대로 야경을 섰음. ○호적상 사망일자가 1968. 10. 2.로 정리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형식적으로 신고된 것임.
5	다-1261 다-1267	장기환	제	'07. 8.30.	진실화해위원회 제2조사실(진술조서)	○큰형(장기남)은 대동면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작은 형은 농업에 종사했으며, 좌익활동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 ○1949년 9월 22일 신기, 양림, 동화마을 이장과 장기남(큰형)을 총살하고,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서 가족들이 울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음(당시 9세). ○전남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에 근무했으며 최병남은 큰 형수와 동향임) ○유격대원들의 오인사격으로 장락규가 숨졌고, 장락규가 맞은 동일 총탄에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하였다고 전해 들었음.
6	다-1277	장귀임	자	'07. 9.10.	통화 보고서	○모친이 신청인을 임신한지 8개월째 사건이 일어남. ○할아버지(장덕수)가 아들(장만표)이 총살당하자 함평경찰서를 찾아가 3일 동안 아들을 살려내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음(고모 장말림으로부터 전해 들었음).

<표 3> 주요 참고인 진술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장서인	선암정 총살현장 목격자	'07. 7.24.	함평군청(4층) 함평유족회사무실(진술조서)	`○1949년 9월 21일 부친과 선암정으로 집결 도중 장락규가 쓰러져 있고, 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광경을 목격함. ○선암정에는 남·녀 구별하여 집합시키고 대나무밭 주인 김일동과 김의창을 나오게 하여 총살시키는 것을 목격하였음. ○유격대원이 장화식을 호명하자 임연화가 '여보시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하니까 유격대원이 '그래 죽고 싶으면 죽여주지'하면서 임연화를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것을 목격함. ○1949년 9월 22일 아침, 선암정으로 다시 모아 신기, 동하, 양림마을 구장 그리고 장기남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함. ○장주식 가의 머슴으로서 희생된 김동근은 대동면 용성리에 거주했던 것으로 함평군에서 조사되었음.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은 것은 대나무밭이 유격대원의 시야를 가려 오인사격을 하였기 때문이며 유격대원이 사망하자 보복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총살하였음. ○가해자는 전남유격대 윤상수 대장이며,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계 직원이었다고 후에 전해 들었음. ○장한식은 양림마을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대동면에 거주하면서 미싱업에 종사하였음.
장관섭	선암정 집결자 중 생존자 및 목격자	'07. 7.24.	함평군청(4층) 함평유족회사무실(진술조서)	○1949년 9월 22일 선암정에서 유격대원에게 몽둥이로 구타당했으며, 유격대원이 방화한 가옥의 불을 끄다가 정신을 잃고 몇 개월간 집에서 누워 지냈음. ○장락규는 유격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장락규를 인솔했던 유격대원도 장락규를 관통한 총탄에 부상을 입었다고 마을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음. ○진양리 마을주민들은 좌익사상에는 관심 없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음.
장돈섭	목격 및 전해 들은자	'07. 08.02.	진실화해위원회 제1조사실(진술조서)	○마을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사항은 아래와 같음. -야경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오는 마을주민 장락규를 공비로 착각한 유격대가 추격하여 붙잡아 집결지로 향하던 중 대나무 밭을 수색하던 동료 유격대원의 오인사격에 의해 장락규와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었음. -함평경찰서로 연행된 마을청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었으며 밤새껏 구타한 것은 공비들과 내통했다는 억지진술을 듣기 위함이었음. -20여 년 전에 사망한 가해자 최병남은 손불면에 살았으며 양림마을 주민총살을 진두지휘하였음. -가해자 손옹골은 함평읍에 살다가 사망했으며, 방죽둑비석거리에서 손옹골이 혼자서 주민들을 총살하였음.

(2) 가해자 및 가해자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집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전남지역에서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근무한 경찰 680명(전남지역 340명, 함평경찰서 34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 중 사망했거나 근무시기가 다른 경찰은 제외하고 나머지 생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방문 및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면담하거나, 전화(탐문)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고령으로 대화가 불가한 경우, 당시 함평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아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귀가 멀어 잘 듣지 못하는 경우 등은 조사가 곤란하여 조사가 가능한 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당시 총살현장의 목격자나 주요 참고인 및 신청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보다 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남 함평지역 경찰 중심의 임의단체인 함평경우회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표 4> 당시 경찰근무자 주요 조사현황

연번	성명	계급 및 직위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이동석	경위	'07.08.29. '07.09.19.	자택	통화 보고서	1949년 여수지역에서 근무하여 함평지역(함평경찰서)은 잘 모름.
2	조규업	경감	'07.08.30.	자택	통화 보고서	사건시 여수, 순천경찰서 근무로 함평지역 상황은 잘 모름.
3	정영만	순경	'07.08.30.	자택	통화 보고서	입대하기 이전 사건으로 잘 모름.
4	이종구	순경	'07.08.30. '07.09.19.	자택	통화 보고서	48~49년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아군의 진주(수복) 후 대동지서에서 3개월 정도 응원 근무했으나 양림사건은 잘 모름. 당시 대동면은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여 밤에는 지서에서 경비근무하고 낮에만 주로 활동했음.
5	김동협	순경	'07.08.30. '07.09.19.	자택	통화 보고서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여 함평지역 사정은 잘 모름.
6	노오복		'07.08.30.	자택	통화 보고서	함평지역 당시 상황은 잘 모름.
7	박춘원	경사	'07.08.30.	자택	통화 보고서	함평 진양리 지역은 공비활동이 별로 없었던 지역임.
8	정헌승		'07.08.30.	자택	통화 보고서	당시 광주경찰서 근무하여 양림마을 사건은 잘 모름.
9	주용섭		'07.08.31.	자택	통화 보고서	당시 함평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잘 모름.
10	오정인		'07.09.06. '07.10.10.	자택부근 식당 (연수수산) 및 자택	방문, 통화 보고서	당시 유격대는 주로 경찰로 구성되었으며,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고 그 당시에는 각 경찰서마다 경비주임이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로 맡고 있었다. 윤상수 경비주임은 키가 작았고 얼굴모양이 동글둥글하였다. 양림마을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보았으나 대부분 사망하여 찾을 수 없었다.
11	손옥권		'07.09.06.	자택	통화 보고서	한국전쟁 이후에 입대하여 양림마을 사건은 잘 모름.

연번	성명	계급 및 직위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2	김창호	함평경우회장	'07.09.10. '07.10.11.	자택	통화 보고서	한국전쟁이후 입대로 양림마을사건 모름 함평경우회 회장으로 양림마을 사건을 알고 있는 회원을 알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음. 그러나 양림마을 사건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주민을 수색하다가 마을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3	양동식		'07.09.03.	자택	통화 보고서	52년 함평경찰서에 근무하였으나 함평 양림사건은 모름.
14	정옥진		'07.09.03.	진실화해위원회	면담 보고서	당시 공비토벌부대로서 백오대, 흑오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기동대임. 당시 좌익들은 밤손님으로 불갑산에 인민군사령부가 있었고 주위 여러 지역에서 농촌을 약탈하고 우익인사를 학살하였음.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서 사찰계에서 공비 작전 상황보고를 담당하였으며, 함평경찰서장은 최신방으로서 1949. 2월부터 1950년경까지 근무하였음.(확인결과 최신방 경찰서장은 1949. 3. 15 ~ 1949. 10. 28 까지 재직하였음)

(3) 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 한울, 2005.

○ 함평군, 『함평군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연구보고서』, 2006.

○ 호남일보, 1949. 9. 25.字

○ 국가기록원 '장한식' 행형기록(서울기록정보센타-2933 2007. 8. 14.)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 육군본부편찬, 『공비토벌사』,육군본부, 1954.

(4) 현장조사

전남유격대 병력 수송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수시로 왕래했던[239] 양림마을 앞 도로(불갑산 방향에서 함평읍 방향 간 주포 삼거리 지점)에서 동 유격대원들이 양림마을로 진입한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양림마을 주민들을 이틀 동안 총살했던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의 현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외 현장조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유격대의 병력 이동차량 정차 위치.

② 유격대원들이 마을주민 장락규[240]를 최초로 발견했던 위치.

239)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2007. 8. 2.), 8쪽.

240) 경찰유격대 병력이동차량이 펑크가 나서 정차 중 양림마을 장락규를 발견하였다. 흰옷과 국방색 옷을 입고 죽창을 들고 어눌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장락규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격대원들이 마을을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락규는

③ 유격대원들이 수색했던 대나무 밭.

④ 마을 주민 장락규가 유격대원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장락규를 인솔했던 유격대원이 장락규를 관통한 총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던 장소.

⑤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던 전남유격대의 이동경로.

⑥ 유격대원들의 마을진입 및 수색경로.

5). 조사의 결과

(1) 사건의 배경

함평지역에서 좌·우간의 대립이 폭력적 갈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여순사건 이후 14연대의 무장부대가 불갑산 까지 오면서부터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함평의 불갑산과 군유산, 영광의 구수산, 장성의 태청산 등이었는데,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 및 우익단체와의 대립으로 산 근처의 손불면과 신광면, 대동면, 해보면, 월야면, 나산면의 마을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한편 불갑산에는 영광군 군서면 출신인 박막동을 대장으로 하는 좌익유격대가 조직되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영광농업학교 2학년 때부터 좌익 활동을 하였는데, 1947~1948년 무렵부터 무장조직을 이끌기 시작했으며, 불갑산과 구수산, 태청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경찰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비 또는 빨치산 조직들은 1948년 말부터 1950년 초에 걸쳐 진행된 국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의해 조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해되었다. 정부는 1949년 3월 1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사령관에 육군준장 원용덕을 임명하였고, 예하에 제15연대의 1개 대대와 제20연대 및 제3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하였으며, 경찰대와 함께 특공대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1949년 9월 22일에는 당시 내무장관, 국방장관, 내무차관,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등 군경수뇌가 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 및 본부를 남원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토벌작전의 결과 1950년 4월말까지 공비 및 빨치산 주력부대 대부분이 소탕되었다.[241] 그리고 많은 조직원들이 토벌작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당국에게 체포되었으며, 살아남은 일부도 생존에 급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토벌작전과 그에 대한 공비 또는 빨치산의 저항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작전지역 가까이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실로 엄청난 재산피해와 신체적 위해를 당하게 되었다. 함평지역의 경우에도 1948년경부터 피해가 발생하였다.[242]

유격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장락규는 양림마을 주민 중 최초로 희생되었다.

241) 육군본부 편찬,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1954, 27~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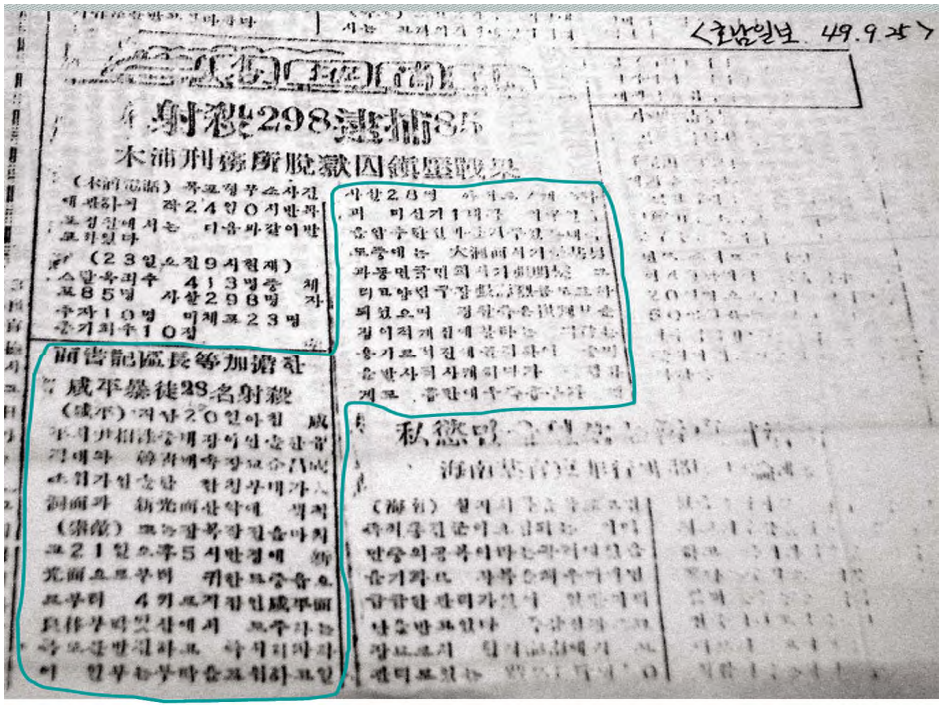
242) 함평군, 앞의 글, 함평군, 2006, 18쪽.

(2) 사건의 사실적 측면

가. 조사내용

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함평폭도 28명 사살』이라고 보도된 1945년 9월 25일자 호남일보 기사 및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먼저 위에 언급한 호남일보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1> 호남일보 기사내용(1949. 9. 25. 발행)



※ 위사진은 양림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회장 장형기(신청인의 대표자)가 진술과정(2007. 7. 24.)에 제출한 1949. 9. 25.자 함평양림사건을 보도한 당시 호남일보 기사원문이다.

◆ **면서기 구장 등 가담한 함평폭도 28명 사살**

(함평 발) 지난 20일 아침 함평서 윤상수(尹相洙) 중대장이 인솔한 유격대와 한청배속 장교 김창성(金昌成) 소위가 인솔한 한청부대가 대동면과 신광면 산악에 적을 색출 또는 잠복근무를 마치고 21일 오후 5시 반경에 신광면으로부터 귀환도중 읍으로부터 4킬로미터 지점인 함평군 양림부락 뒷산에서 도주하는 폭도를 발견하고 즉시 하차하여 부락을 포위하고 사살 28명, 아지트 7개, 미신기 1대, 침구 등을 압수한 전과를 올림.

경찰 측은 최판기(崔判基) 순경이 적개심에 불타는 피 끓는 용기로 적진에 돌진하여 수명을 발사 직사케 하다가 불행하게도 흉탄에 우측 흉부에 부상을 입음」.

※ 위 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49년 9월 21일 오후 5시 반경 함평군 양림부락 뒷산에서 면서기, 구장 등이 포함된 '폭도' 28명이 사살되었다. 또한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이 부상을 입었다.

나). '폭도' 28명을 사살한 자는 윤상수 중대장이 인솔한 함평경찰서 소속 유격대와 한청배속 장교 김창성 소위가 인솔한 한청부대이다.

② 신청인·참고인 진술 중 일치하는 부분 및 양림마을 앞 방죽둑비석거리 위령비에 새겨져 있는 희생자 명단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진위 및 진실을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사건은 실재했으나 위 기사에서 '폭도'로 지칭된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양림마을의 비무장 주민들이었다.

참고인 장서인, 신청인 장형기, 장기환은 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원들에게 선암정에서 총살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인·참고인들은, 사건 당시 너무 어리거나 여타의 이유로 총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서 양림마을 사람들이 경찰 및 유격대에 의해 총살당했다."라고 부모 등 마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신청인 장형기, 김현식, 장기환, 장무길, 참고인 장서인, 장관섭, 장돈섭은 "기사 내용 그대로 당시 경찰유격대가 양림마을 뒷산에서 도주하는 폭도를 발견하고 수색을 벌여 28명을 사살하고 순경이 적진을 돌격하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양림마을 주민 중 도주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마을 주민 중 한 명이라도 유격대원들에게 대항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격대원들에게 대항하다 사살된 주민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유격대가 마을사람들을 마을 뒤 동산인 선암정으로 소집하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호남일보의 보도 내용 중 "양림마을 뒷산에서 폭도를 발견하여 28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은 당시 공비토벌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 꾸며낸 내용이다."라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243]

나). 유격대는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였고, 이 유격대의 윤상수 중대장은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전남지역 경찰근무자였던 오정인은, "전남유격대 대장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경비주임이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로 맡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경찰서 경비주임이 공비토벌작전 등의 전투를 지휘했다는 통상적인 사례로 볼 때 타당성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고인 장서인, 신청인 김현식, 장기환은 모두 "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계 직원(또는 형사)이었다."라고 증언하여, 유격대가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소결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양림마을 주민 28명이 1949년 9월 21일과 9월 22일 사이에 양림마을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인 유격대(대장, 윤상수)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호남일보」의 기사내용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3) 희생규모와 희생자의 신원

가. 조사내용

① 희생규모

본 사건의 희생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243) 신청인 장무길, 진술조서 4쪽. ;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5쪽.

가). 진실규명신청서 상의 희생자 명단.
나). 마을 앞 저수지 둑(방죽둑비석거리)에 세워져 있는 희생자 위령비의 사망자 명단.
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244]및 『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 연구보고서』[245]의 관련 부분.
라). 주요 참고인과 신청인 대표자의 증언.
마).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 사실(사망 날짜와 장소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위 자료를 분석하면
가). 진실규명 신청서 상의 희생자 수는 28명이다.
나). 방죽 둑 비석거리의 위령비에 새겨진 희생자 수는 30명이다.

이 중 장화식, 장영식은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 한국전쟁발발 이후 국민보도연맹 관련 희생자로 밝혀졌다. 장화식은 농업에 종사하던 중, 함평경찰서 사찰계 최병남으로부터 좌익세력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동생 장한식을 자수시키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자수시키지 못하자 자신이 대신 자수하고 보도연맹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50년 7월 11일 함평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고 한다.[246]

장영식의 경우에는 문맹인으로서 농사일과 머슴살이를 하던 주민이었는데, 당시 좌익세력들이 야간에 찾아와 총부리를 대고 강제로 삐라를 뿌리게 했고 이를 따랐다는 이유로 나중에 자수하여 보도연맹원이 되었다. 그도 역시 1950년 7월 11일 함평경찰서에 연행된 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으며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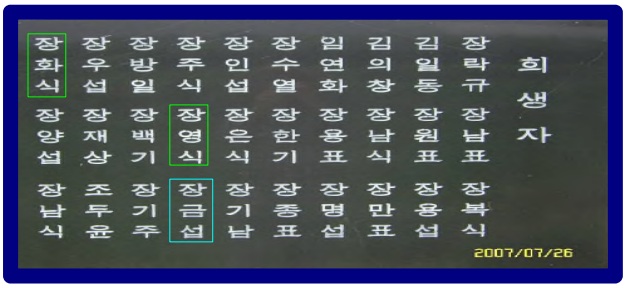
결국 보도연맹원인 장화식, 장영식의 희생은 본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본 사건 희생자 확인과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위령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장금섭은 신청서 명단에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장금섭은 희생자 장명섭(사건번호 다-1270, 신청인 장일순)의 동생인데 사건 당일 행방불명되어 마을 주민들이 본 사건 희생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시신은 찾지 못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신청서 상 희생자 수에 포함되어 있는 장주식 가의 고용인 김동근은 위의 위령비 명단에 이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건 당시 양림마을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는 대동면이었기 때문이다. 김동근은 신청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명, 주소 미상인 상태여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희생자 수만 포함시켜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된 것으로 판단되어 희생자로 확정되었다.[248]

244)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엮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 86쪽.
245) 함평군, 앞의 글, 38~41쪽.
246)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사건번호 다-3926, 2006. 6. 13., 신청인 장형수).
247)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사건번호 다-3927, 2006. 6. 13., 신청인 장순철) 내용
248)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5쪽 ;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5쪽;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4쪽

<사진 2> 양림마을 앞 '방죽둑비석거리'의 위령비에 새겨진 희생자 명단



※ 30명 중 2명(장화식, 장영식)은 1950년 7월 보도연맹원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장금섭은 함평 양림사건이 발생한 날 행방불명되어 마을 주민들이 동 사건의 희생자로 여겨 여기에 이름을 새겼다.

다). 한편, 민간 측의 조사보고서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에는 한국전쟁 이전 양림마을 희생자가 3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연맹원 희생자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함평군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기간민간인희생자피해연구보고서』에는 양림마을 희생자가 2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희생자 중 장주식 가의 머슴인 김동근을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희생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표 5> 양림마을 희생자 규모 비교표

구분	함평군[249]	범국민위[250]	신청서	위령비	호남일보	비고
인원	27	32	28	30	28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양림마을 주민희생자 수는 28명으로 판단된다. 그 외 양림마을 주민들의 희생자 명단, 마을별 희생자 분포 현황은 <표 6>, <표7>과 같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신청인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조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 1명이 입산하여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감옥살이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한 결과[251],

249) 함평군,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38~40쪽의 자료에 의하면 본 사건 희생자는 27명으로 집계되어있다. 그리고 희생자 김동근(장주식 가의 머슴)은 당시 그의 거주지였던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희생자에 포함시켰고 양림마을 희생자 집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5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엮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실태보고서』 86쪽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전의 학살로서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보도연맹원 희생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통계로 여겨진다. 32명(출처 : 강화사, 2003. 732쪽)의 희생자 중 장갑석은 장갑섭(장인섭의 통칭)의 오기이며 장규식은 장주식의 오기이다. 그리고 마을주민 증언자 장병기는 장형기의 오기이다.(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7쪽;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9쪽)

251) <광주지방법원 수용자 명적부> 성명 : 장성기(張成基), 생년월일 : 단기 4253.9.13, 이명 : 일명(一名) 한식(漢植), 본적 :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주소 : 함평군 함평면 진양리, 출생지 : 상동, 신분 : 농업, 즉결입소일자 : 4292(1959).8.26, 판결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형명 형기 : 징역 3년6월(감행집행), 확정판결 : 4285(1952).2.25, 판결확정 : 4285.2.27, 형기완료 : 4293.12.26, <광주지방검찰청 잔행집행지휘서> 수형자의 씨명 : 장성기(張成基), 호적명 : 한식(漢植), 주소 : 나주군 다시면 동곡리, 죄명 : 국가보안법, 형명 형기 : 징역 3년6월(감형기), 언도형기 : 5년, 언도법원 : 광주지방법원(언도연월일 : 단기 4285.2.25). <판결문> 단기 4285년 형공제91호 본적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주소 전남 나주군 다시면 동달리, 성명 : 장성기(張成基) 일명 : 한식(漢植), 당시33세, 처가 : 나주시 다시면,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특별조치에 의해 징역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는 대전시 중동 소재 대전 피복공장에서 직공으로 근무하다가 6.25사변이 발발하여 북한 괴뢰집단이 남침하자 일시 경상북도 김천으로 피난하였다가 적의 승리를 맹신한 나머지 동년 7월말일 김천을 출발하여 9.28수복 후 괴뢰부역간부의 호출로 나주군청(나주군인민위원회)연행 나주군당 후방부원으로 편입되어 매일 피복을 만듦, 4284년 1월경 나주경찰서 토벌작전에 의하여 체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5년형 언도, 단기 4287년 1월 중순 병으로 형집행 정지로 출소하였으나 후에 다시 입소함. <전향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강요에 의해 거들고 피복을 만들어서 제공해주었던 일을 반성하며

해당자는 장성기(張成基)[일명 한식(漢植)] 로 “1950. 6. 25. 이후 나주군 인민위원회에 연행되어 인민군에게 피복을 제공한 혐의로 1951년 1월경 나주경찰의 토벌작전과정에서 체포되어 수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건발생 당시 양림마을에 살지도 않았고 대동면에 거주하면서 미싱업에 종사하였으며, 감옥생활을 마친 후 20년 정도 살다가 병사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252] 따라서 이 사람은 본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희생자 조두윤을 제외하고는 사건 발생 후인 1949. 8. 30.에서 1978. 5. 9.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는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관련 유족들이 대체로 그러했던 것처럼 본 사건의 유족들도 좌익혐의를 받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사망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희생자 명단

연번	마을	희생자	신청 여부	위령비 기재여부	제적등본상 사망일자	판단	비고
1	신기	장락규	신청	기재	1960. 12. 25.	확정	
2	〃	김일동	〃	〃	1955. 7. 28.	〃	
3	〃	임연화	〃	〃	1954. 4. 12.	〃	
4	〃	장남식	〃	〃	1956. 10. 8.	〃	
5	〃	김의창	〃	〃	1960. 10. 12.	〃	
6	〃	장인섭	〃	〃	1955. 8. 1.	〃	
7	〃	장기남	〃	〃	1960. 10. 2.	〃	
8	양림	장수열	〃	〃	1960. 3. 17.	〃	
9	신기	장주식	〃	〃	1953. 12. 9.	〃	
10	〃	장복식	〃	〃	1968. 10. 2.	〃	
11	〃	장우섭	〃	〃	1951. 5. 1.	〃	
12	〃	장양섭	〃	〃	1949. 8. 30.	〃	
13	〃	장기주	〃	〃	1960. 10. 20.	〃	
14	동하	장남표	〃	〃	1956. 7. 26.	〃	
15	양림	장용섭	〃	〃	1950. 7. 28.	〃	
16	신기	장명섭	〃	〃	1963. 2. 15.	〃	
17	〃	장은식	〃	〃	1956. 11. 5.	〃	
18	양림	장남식	〃	〃	1950. 9. 13.	〃	
19	신기	조두윤	〃	〃	1949. 8. 1.	〃	
20	〃	장한기	〃	〃	1967. 4. 25.	〃	
21	양림	장방일	〃	〃	1958. 10. 7.	〃	
22	〃	장원표	〃	〃	1960. 12. 15.	〃	
23	동하	장만표	〃	〃	–	〃	
24	양림	장종표	〃	〃	1951. 6. 30.	〃	
25	신기	장재상	〃	〃	1978. 5. 9.	〃	
26	〃	장백기	〃	〃	1965. 2. 8.	〃	
27	양림	장용표	〃	〃	1966. 5. 10.	〃	
28	정창	김동근	미신청	미기재	–	〃	대동면 용성리

다시는 부역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국가에 충성 명서함.(내용 일부, 단기 4292년 9월 2일).

252)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 7. 24.) 11쪽.

<표 7> 마을별 희생자 분포

합계	신기마을	동하마을	양림마을	정창마을
28	17	3	7	1

② 희생자의 신원 및 특징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의 신원은 <표 8>와 같다.

<표 8> 희생자의 신원

연번	성명	나이	사망일시	사망장소	학력	직업	마을	비고
1	장락규	43	‘49.9.21.	양림 마을 앞	무학	농업	신기	최초 희생자
2	김일동	41	‘49.9.21.	선암정	〃	〃	〃	대나무밭 주인
3	임연화	65	‘49.9.21.	선암정	〃	〃	〃	
4	장남식	28	‘49.9.21.	선암정	〃	〃	〃	
5	김의창	19	‘49.9.21.	선암정	〃	〃	〃	대나무밭 주인
6	장인섭	39	‘49.9.22.	선암정	국졸	〃	동하	동하 구장
7	장기남	21	‘49.9.22.	선암정	중졸	공무원	신기	대동면 사무소 근무
8	장수열	41	‘49.9.22.	선암정	국졸	농업	양림	양림 구장
9	장주식	29	‘49.9.22.	선암정	〃	〃	신기	신기 구장
10	장복식	23	‘49.9.22.	저수지 둑	〃	〃	〃	
11	장우섭	34	‘49.9.22.	저수지 둑	무학	〃	〃	
12	장양섭	26	‘49.9.22.	저수지 둑	〃	〃	〃	
13	장기주	19	‘49.9.22.	저수지 둑	국졸	〃	〃	
14	장남표	31	‘49.9.22.	저수지 둑	무학	〃	동하	
15	장용섭	23	‘49.9.22.	저수지 둑	〃	〃	양림	
16	장명섭	21	‘49.9.22.	저수지 둑	〃	〃	신기	
17	장은식	27	‘49.9.22.	저수지 둑	〃	〃	〃	
18	장남식	17	‘49.9.22.	저수지 둑	〃	〃	양림	
19	조두윤	17	‘49.9.22.	저수지 둑	〃	〃	신기	
20	장한기	33	‘49.9.22.	저수지 둑	〃	〃	〃	
21	장방일	36	‘49.9.22.	저수지 둑	〃	〃	양림	
22	장원표	31	‘49.9.22.	저수지 둑	〃	〃	〃	
23	장만표	22	‘49.9.22.	저수지 둑	〃	〃	동하	
24	장종표	21	‘49.9.22.	저수지 둑	〃	〃	양림	
25	장재상	26	‘49.9.22.	저수지 둑	〃	〃	신기	
26	장백기	27	‘49.9.22.	저수지 둑	〃	〃	〃	
27	장용표	28	‘49.9.22.	저수지 둑	〃	〃	양림	
28	김동근	–	‘49.9.22.	저수지 둑	〃	머슴	용성	장주식 가의 고용인(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거주)

희생자들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20세~40세까지의 희생자가 70%(19명)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4명과 60대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들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26명, 여성이 1명이었다.

희생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동면 서기 장기남과 3개 마을 구장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양림마을에는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다녔던 주민들이 다른 부락

에 비해 많았으나 경찰 근무자는 없었다. 또한, 희생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학이었으며 일부만이 야학으로 공부하여 글을 터득하고 있을 정도였다.

신청인 대표자 장기환은 “마을 주민들은 당시 좌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대동면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좌익세력을 배척했던 장기남을 비롯하여 신기, 동하, 양림 등 3개 마을 구장 등 성실히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왜 경찰이 총살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53]

나. 소결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과 9월 22일(음력 8월 1일) 이틀간에 걸쳐 경찰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수는 28명이며 이들은 공직을 수행하던 3개 마을 구장을 비롯한 동네의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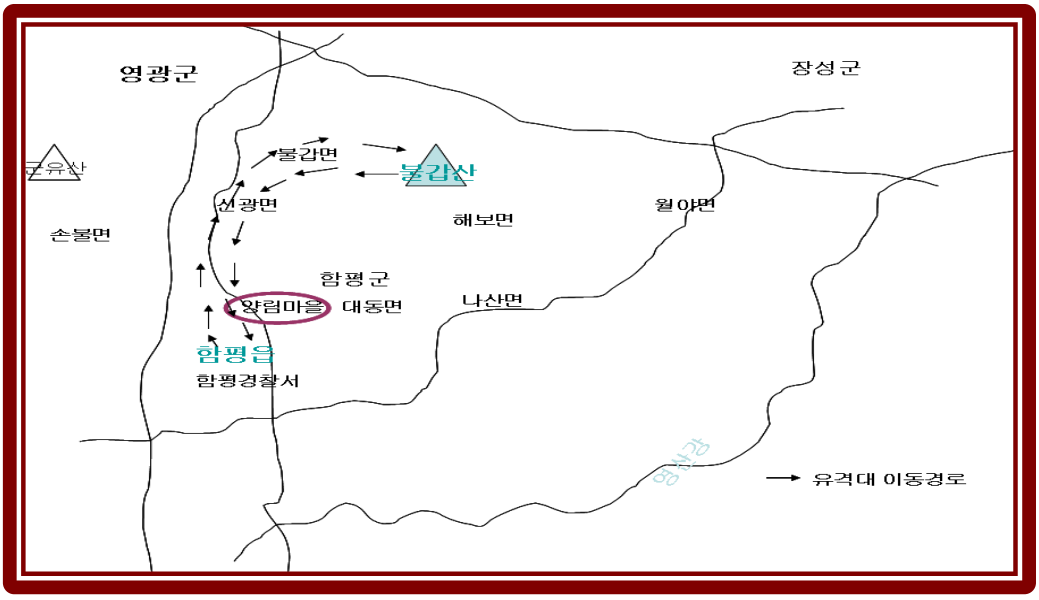
(4) 희생경위

가. 조사내용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림마을은 함평읍에서 불갑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당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던 경찰병력 수송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자주 지나 다녔다. 신청인·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공비토벌부대인 경찰유격대가 이동하던 경로는 <지도 1>과 같다.

<지도 1> 경찰유격대 이동경로



253)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2007. 8. 30.), 8쪽

② 경찰유격대는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 늦은 오후 불갑산 방향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함평읍 방향으로 귀대하다가 병력수송차량 2대중 1대가 펑크가 나자 양림마을 앞 삼거리(주포마을 입구)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유격대원들은 양림마을 주민 장락규가 야경[254]을 서기 위해 죽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마을을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격대원이 장락규를 붙잡아 대나무 밭 부근으로 인솔하던 중 마을 대나무 밭을 수색하던 유격대원들이 장락규와 장락규를 인솔하던 유격대원을 공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다. 그 결과 총알이 장락규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하였고 관통한 총탄에 의해 유격대원 1명(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이 부상을 입었다.

③ 유격대원들은 동료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격분하여 마을 주민들을 선암정으로 집결시켜 대나무밭 주인 김일동과 김의창, 대나무밭 주인과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 장남식, 그리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항의하던 임연화(여, 64세) 등 총 4명을 화풀이로 총살했다.[255] 곧 바로 유격대원들은 마을 청년 19명을 무작위로 트럭에 싣고 함평경찰서로 연행하였다.[256] 마을 청년들을 함평경찰서로 연행할 때는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주변에 있던 젊은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대나무밭 주인을 총살한 이유는 대나무가 시야를 가려 수색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257], "전남유격대가 야경을 서기 위해 집결해 있던 마을 주민들을 수상히 여긴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장락규를 수상히 여겨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격대원이 오인사격을 하여 주민희생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에 공비들이 출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격대가 들이닥쳤고 마을 청년들은 죄가 없기에 아무도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대나무 밭을 수색 중이던 유격대원들의 시야를 가려 장락규와 그를 인솔하던 유격대원을 공비로 오인하고 사격을 하였기 때문이며, 유격대원이 사망하자 흥분된 유격대가 보복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총살하였다. 평소 양림마을 주민들은 유격대원과 밤을 주어 나누어 먹기도 하였으며, 경찰이나 유격대원들에게 전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양림마을 주민들이 희생된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258]

또한, 참고인 장서인은 "1949년 9월 21일 '선암정'으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부친과 함께 선암정으로 가는 도중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락규의 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선암정에 집결 후 주민 장화식을 호명하는 유격대원에게 임연화가 '여보시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라고 하자, 유격대원이 '그래 죽고 싶으면 죽여주지'라고 하면서 임연화를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259]라고 증언하고 있

254) 함평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집집마다 야경을 서라고 하여 함평읍 함평리 산성매 (속칭 짝꾹재)에서 양림마을 사람, 하늘이마을 사람, 고향촌 사람들이 야경보초를 서곤 했으며, 직접 야경을 서기도 하였다(신청인 장무길, 진술조서 3쪽 ; 신청인 장순철, 진술조서 3쪽).

255)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 7. 24.) 4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2007. 7. 25.) 7쪽.

256)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2007. 8. 30.) 5쪽;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2007. 7. 24.) 5쪽.

257)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 7. 24.) 7쪽;

258)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6쪽 ; 참고인 장관섭, 진술조서 4쪽 ;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4쪽 ;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7쪽.

259)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 7. 24.) 4쪽.

다.

④ 한편, 총상을 당한 유격대원(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이 광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정 쯤 사망하자 전남유격대원들은 다음 날인 1949년 9월 22일(음력 8월 1일) 오전 일찍 주민 100여 명을 '선암정'으로 집결시켜 3개(신기, 동하, 양림) 마을 구장 장주식, 장인섭, 장수열과 마을 주민 장기남 등 4명을 총살하였다.[260]

이와 관련된 신청인·참고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장형기는 "당시 조선대부속중학교 2학년(17세)으로서 학생복 차림으로 1949년 음력 8월 1일 '선암정'에 양림마을 사람 100여 명과 함께 모였으며, 이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도 있었다. 유격대원이 부친 장인섭을 보며 '일어서서 나오라'고 하더니 그냥 총을 쏘았다. 1949년 음력 8월 1일 '선암정'에서 신기, 동하, 양림마을 구장과 주민 장기남을 총살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학생들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을 목격하였다."[261]라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장기환은 "대동면에 근무했던 큰형 장기남의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농사일을 거들다가 출근한 후 옷과 신발을 바꾸기 위해 다시 집으로 왔다가 이유 없이 붙잡혀 총살을 당했으며, 큰형이 만약 집으로 오지 않고 대동면 사무소에 계속 근무했다면 총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262]라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김현식은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 선암정에서 총살당했던 부친의 시신을 가족들이 집으로 옮겨놓았는데, 다음날 유격대원들이 마을에 다시 들어와 집에 불을 질러 부친의 시체가 화장되었다."[263]라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장돈섭은 "어릴 때 마을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전남유격대원들이 마을 청년 19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로 차에 태워 함평경찰서로 연행했으며, 밤새도록 취조하면서 공비와 내통했다는 말을 할 때까지 구타하여, 그 청년들은 나중에는 걸을 수 없었다."[264]라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장관섭은 "1949년 음력 8월1일 장기남은 유격대원이 쏜 총에 쓰러지고 장인섭은 유격대원이 쏜 총에 피가 쏟아져 당신 스스로 부위를 손으로 막자 '저새끼바라'하면서 총으로 한 번 더 쏘는 것을 목격하였다."[265]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장귀임은 "조부가 함평경찰서를 찾아가 양림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경찰에게 총살당한 아들을 살려 내라며 3일 동안 항의했으며, 마을 앞 저수지 둑에 서 총살당한 당시 피가 물 내려가듯 흘렀다."[266]라고 증언하였다.

---

260)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 7. 24.) 4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2007. 7. 25.) 7쪽.
261)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2007. 7. 25.) 7쪽.
262)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2007. 8. 30.) 3쪽.
263)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 5쪽.
264)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6쪽;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 5쪽;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7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6쪽.
265) 참고인 장관섭, 진술조서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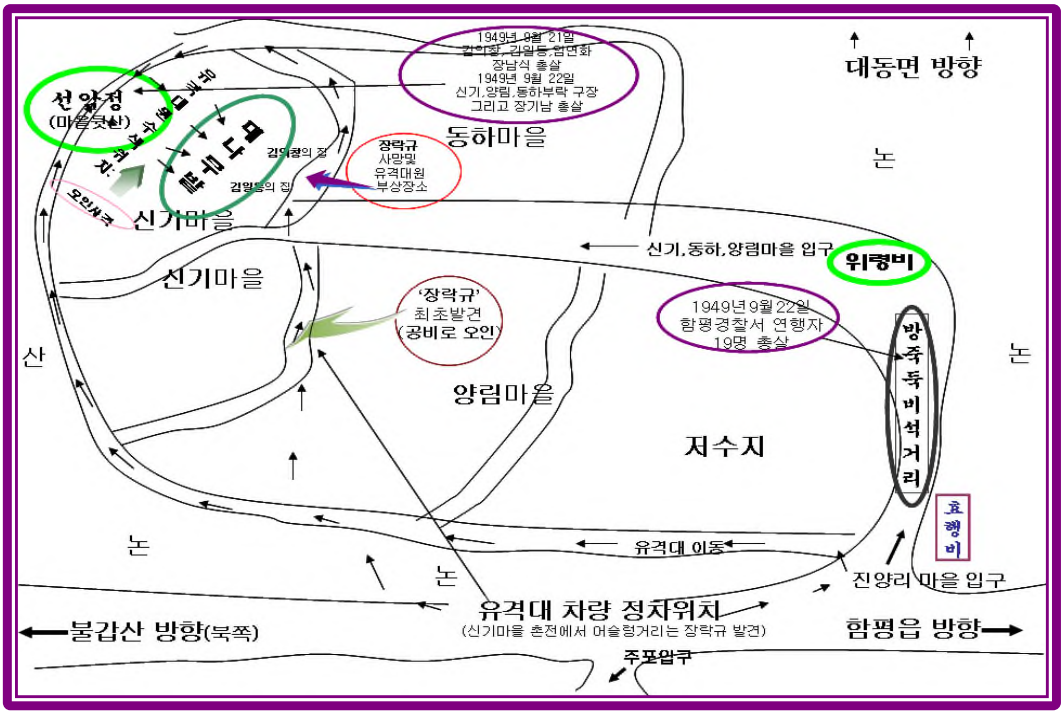
신청인 장기환은 “저수지 둑에서 희생된 시체를 찾아 매장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267]라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양림마을 주민 28명은 10여 명[268]의 경찰유격대에 의해 1949년 9월 21일과 9월 22일 사이에 4차에 걸쳐 총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9월 21일에는 마을 주민 장락규가 사살되었고, 이어서 선암정에 소집을 당한 주민 중 4명이 총살되었다. 다음 날인 9월 22일에는 또 다시 선암정으로 소집을 당한 주민 중 4명이 총살되었다. 그 전 날 함평경찰서로 연행되었던 마을청년 19명도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일렬로 세워져 총살되었다.[269]

나. 사건 현장

‘함평 양림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사건현장을 신청인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도 2>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지도 2> ‘함평 양림사건’ 재구성(증언을 바탕으로 유격대 마을진입 상황도)



266) 신청인 장귀임, 통화보고서(2007. 9. 10.) 1쪽.
267)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8쪽.
268) 신청인 장형기, 통화보고서(2007.10.11)
269)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7쪽.

<사진 3> 방죽둑비석거리 총살현장



함평읍과 불갑산 방향 간 도로에서 바라본 양림마을 진입로 전경(진입로가 저수지 둑이며, 진입로 끝자락에 위령비가 보이고 그 뒤로 마을 일부가 보인다. 여기가 1949년 9월 22일 마을주민 19명이 총살당한 현장이다).

<사진 4> 선암정 총살현장



1949년 9월 21일 및 9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경찰유격대원들이 이곳에서 마을주민들을 집결시켜 이 중 임연화, 장남식, 장기남 등 8명을 총살했다.(희생자들을 총살했던 장소를 마을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사진 5> 선암정 전경



마을 뒤편 동쪽에서 바라 본 선암정 전경
(유격대원들이 선암정 맞은편과 그 주위를 수색했다.)

<사진 6> 장락규 사살 및 유격대원 부상위치



대밭주인 김일동과 김의창의 집이 있었던 자리. 이 앞에서 최초로 장락규가 사살되었고 유격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밭 뒤편이 선암정이다.

<사진 7> 유격대원 수송차량 정차위치



※ 경찰유격대원 병력 수송차량 2대 중 1대가 펑크가 나서 휴식을 취했던 장소에서 바라본 양림마을 전경.

위와 같이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과 9월 22일(음력 8월 1일) 이틀 동안에 걸쳐 일어났던 함평 양림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현장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현장에 대한 특정은 당시 현장 생존자들인 신청인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자료, 사건현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이뤄졌다. 또한 양림마을의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양림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총무 조형윤과 함께 총살현장인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 그리고 경찰유격대 병력 이동차량이 펑크가 나서 정차하여 휴식을 취했던 위치, 유격대의 마을 수색경로, 마을 주민 장락규를 최초 발견했던 위치와 유격대원 1명의 부상 및 장락규 사망위치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다. 소결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에서 9월 22일(음력 8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양림마을 주민 28명이 희생된 것은 당시 불갑산 등 함평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유격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유격대는 마을주민 장락규를 공비로 오인[270]하여 사살하고 장락규를 관통한 총탄에 동료유격대원이 부상 후 사망하자 이에 격분하여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을 총살하였다. 또한 양림마을 주민 중 입산자 장한식으로 인하여 함평경찰서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고 의심받았을 수 있고 이것이 가해이유가 될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그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70) 유격대원들이 공비로 오인하여 마을주민 장락규를 사살하고 장락규를 인솔했던 유격대원(최판기 순경 추정)에게 부상을 입었다는 입증서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 장기환(진술조서 7쪽), 참고인 장서인(진술조서 6쪽), 참고인 장관섭(진술조서 4쪽)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비로 오인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 장관섭은 "장락규가 우둔하였고 흰 옷에 국방색을 입고 있었으니 공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5) 가해주체

가. 조사내용

신청인·참고인의 증언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가해자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림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회장(장형기)이 제공한 1945년 9월 25일자 호남일보 기사를 근거로, 사건 당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최판기(崔判基) 순경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 그는 1949년 9월 20일 사망한 사실이 확인[271]되었다.

② 신청인 김현식과 참고인 장돈섭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가해자는 전남유격대 대장 윤상수, 유격대원 손옹골, 최병남이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272]

이에 따라, 전남유격대 및 대장 윤상수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과 함평경찰서에 조회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273] 그러나 참고인 중 당시 경찰근무자 오정인은,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던 윤상수가 유격대장 이었다."라고 면담 및 통화조사 시 증언하였다.[274] 이 증언은, 당시에는 각 경찰서 경비주임이 공비토벌작전 등을 지휘했던 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 증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격대원 손옹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가 경찰이었는지 경찰 이외의 유격대원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 및 참고인 증언에 따르면 함평읍에 거주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유격대원 최병남은, 손불면에 거주했으나 20여 년 전에 사망하였다.[275]고 증언하였다. 또한, 참고인 장서인과 신청인 김현식은 "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계 직원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기록이 망실되어 당시 그가 함평경찰서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문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소결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림마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가해자는 함평경찰서 공비토벌부대인 경찰유격대(대장 윤상수)로 판단된다.

---

271) 2007. 9. 5. 광주지방보훈청 확인 : 최판기(1925. 5. 30.생, 1949. 9. 20. 전사). 최판기의 호적기재사항 : 단기 4282년 9월 20일 시불상(時不詳), 함평군 함평면 진양리 번지 불상(不詳) 동거자 윤대명 신고(단기 4287년 3월 30일 접수), 1954년 모친이 호적상 사망신고를 할 당시 사망일이 하루가 차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됨.

272)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2007. 7. 24.) 6쪽;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2007. 8. 2.) 7쪽.

27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016476(2007. 8. 24), 함평경찰서 경무과-003251('07. 8. 16.), 함평경찰서 경무과-003381('07. 8. 27.)에 의거 "전남유격대와 대장 윤상수, 대원 손옹골, 최병남 그리고 한청배속 장교 김창성 소위의 실존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관중인 자료에서 관련기록을 찾을 수 없음.(1949년 이전 사령원부는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274) 당시 경찰근무자 주요 조사현황(표 4) 참조.

275)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3~6쪽;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9쪽,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6쪽. 특히, 신청인 장기환은 최병남이 큰형수와 동향인이며, 큰 형 장기남이 1949년 9월 22일 선암정에서 유격대원들에게 몽둥이로 구타당하자 유격대원 최병남(형수의 친정 마을 출신)에게 "오빠, 좀 살려 줘."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죽창에 찔린 후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했다.

유격대장 윤상수는, 기록상으로는 그 실존 여부와 인사발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시 경찰근무자의 증언에 의해 당시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으로 재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마을 주민 장락규를 인솔하다 동료 유격대원들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판기 순경도 경찰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양림마을 주민들을 총살했던 최병남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보도연맹원을 색출하기 위해 양림마을에 들렀던 경찰(함평경찰서 사찰계 근무)이었던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276]

(6) 가해부대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가. 조사내용

① 가해자 측의 지휘·명령체계

본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결과, 1949년 9월 21일 병력이동 차량을 지휘했던 경찰유격대 대장 윤상수 지시에 따라 최병남, 손옹골 등 부대원들이 양림마을 주민들을 총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함평경찰서 공비토벌작전 유격부대는 경찰, 의용경찰, 유격대원, 한청 합동으로 편성되어 있었다.[277] 또한, 1949. 3. 7. ~ 1953. 9. 29.까지의 전남경찰국 기구표[278]에 의하면 전남경찰국에는 사찰부서(사찰과 및 사찰계)가 있었고, 전남경찰국의 지휘를 받았던 함평경찰서는 공비토벌대를 편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공비토벌대가 작전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 펑크로 인하여 휴식 중발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1차 책임자는 유격대장 윤상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시 함평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전체의 지휘·명령자는 함평경찰서장으로 판단된다.

② 가해의 적법성 여부

본 사건은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써 적대세력과 위급한 교전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살했던 사건이다.

공비 및 빨치산 혐의가 있거나 이들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전 상태에서 비무장·비전투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279]는 헌법상

276)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사건번호 다-3926, 2006. 6. 13., 신청인 장형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사건번호 다-3927, 2006. 6. 13., 신청인 장순철) 등 보도연맹관련 희생내용

277) 1949.9.25일자 호남일보 기사;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6쪽; 조사4팀-204(2007.9.7), 탐문조사보고서, 2쪽.

278)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102쪽.

279) 이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에서, 군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 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280]을 침해한 것이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유격대장 윤상수가 현장을 지휘하면서 유격대원 손옹골과 최병남으로 하여금 양림마을 주민들을 총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현장에서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281]

함평경찰서장의 경우에도 자기 관할[282]의 경찰서 내로 연행된 양림마을 청년 19명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총살되었던 사실을 묵인 방조하였다면, 설사 자신이 그것을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방지나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결

본 사건은 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의 전개를 결의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긴 하나 경찰유격대가 양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유격대의 병력수송차량 2대가 이동 중 우발적으로 비무장 민간인 28명을 총살한 집단희생사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해부대의 지휘권자는 실질적으로는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던 현지의 경찰유격대장 윤상수로 판단되지만, 그 상급 지휘권자는 함평경찰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280) 생명권이-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있으나-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설 ①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②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③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④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281) 전범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 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막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p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82) 지휘관의 관할 내에서 발생한 자기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휘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제2차대전후 열린 동경재판에서 피고 Hitaro Kimura는 미얀마지역의 지휘관으로 피고가 있는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규모의 잔악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서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여 지휘책임을 인정하였다. B.V.A. Röling, The Tokyo Trial and Beyond : Reflections of a Peacemonger, Polity Press, Cambridge, 1993. ○제2차대전후 미국관할 전범재판소 관할 사건인 Hostage 사건에서는 나치의 비밀경찰에 의해 점령지역내에서 각종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 비밀정치경찰은 사실상 지역사령관의 명령계통에는 있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Heinrich Himmler의 통제 하에 있었지만 지역사령관의 지역 내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지휘관의 본부 내에 도착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지도 못했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본부에 도착한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알았다고 하는 이른바 추정적 인지(constructive knowledge)를 인정하였다. 또한 지휘관은 지역 내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 지역 지휘관이 알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휘책임을 인정하였다.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ume VIII, London : HMSO, 1949, pp. 69-71.

(7) 유족의 피해사항

경찰유격대에 의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살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은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청인 중에는 부친을 잃고 학업을 중단했던 경우도 있었고, 남편을 잃고 홀로 가정을 꾸려야 했으며, 집이 불타 갈 곳이 없어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품팔이 등 막 노동일을 하였고, 가문의 기둥과 가장을 잃고 가문이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을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도 못하는 등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사건 당시 남편이 총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유산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283]

6).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사실적 측면

① 임연화 등 28명은 1949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음력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함평군 함평읍 소재 양림마을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대인 유격대에 의해 집단적으로 총살되었다.

②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 늦은 오후 경찰유격대가 불갑면 불갑산 방향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함평읍 방향으로 귀대하던 중 앞서던 병력수송차량 1대가 펑크가 나자 뒤따르던 차량이 함께 양림마을 앞 삼거리(주포마을 입구)에서 정차하여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마침 가까이 마주 보이는 양림마을에서 야경을 준비하고 있던 마을주민 장락규가 국방색 복장으로 죽창을 들고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동 유격대는 장락규의 옷차림이나 어눌한 행동을 보고 공비로 착각하여 마을로 진입하면서 대나무밭 등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유격대원이 장락규를 붙잡아 집결지(주민들의 집결지로 추정)인 '선암정'으로 인솔하였다. 그 때 마을의 대나무밭을 수색하고 있었던 동료 유격대원은 장락규와 그를 인솔하였던 유격대원(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을 공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 자리에서 장락규는 숨졌고 장락규를 관통한 총탄에 의해 장락규를 인솔하고 있었던 유격대원(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자 경찰유격대는 주민들을 '선암정'으로 집결시켜 대나무밭 주인 2명과 마을 주민 2명 등 총 4명을 총살하였다. 그리고 마을 청년 19명을 아무런 절차와 이유없이 함평경찰서로 연행하여 밤새도록 몽둥이로 구타하고 고문했던 것으로 보인다.[284]. 부상을

283)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추가 진술서, 2007. 8. 30.).
284)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2007. 8. 2.) 6쪽.

입었던 유격대원(최판기 순경으로 추정)이 1949년 9월 21일 자정에 병원치료 중 사망하자, 경찰유격대는 다음 날 다시 양림마을로 들어와 주민 100여 명을 '선암정'에 집결시켜 3개 마을(신기, 동하, 양림)구장과 마을주민 등 4명을 총살하고, 양림마을 가옥 7채를 방화하였다. 또한 함평경찰서로 연행했던 마을 청년 19명을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총살하였다.

③ 조사결과 함평 양림사건의 희생자는 장락규(張樂圭, 다-1255), 김일동(金一童, 다-1256), 임연화(任連化, 다-1257), 장남식(張男植, 다-1258), 김의창(金義昌, 다-1259), 장인섭(張仁燮, 다-1260), 장기남(張基南, 다-1261), 장수열(張壽烈, 다-1262), 장주식(張周植, 다-1263), 장복식(張福植, 다-1264), 장우섭(張禹燮, 다-1265), 장양섭(張良燮, 다-1266), 장기주(張基珠, 다-1267), 장남표(張南杓, 다-1268), 장용섭(張瑢燮, 다-1269), 장명섭(張明燮, 다-1270), 장은식(張殷植, 다-1271), 장남식(張南植, 다-1272), 조두윤(趙斗允, 다-1273), 장한기(張漢基, 다-1274), 장방일(張邦一, 다-1275), 장원표(張元杓, 다-1276), 장만표(張萬杓, 다-1277), 장종표(張宗杓, 다-1278), 장재상(張齋相, 다-1279), 장백기(張伯基, 다-1280), 장용표(張龍杓, 다-1281), 장주식 가의 고용인(김동근) 등 총 28명이다.

④ '함평 양림사건'의 희생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에서 거주하였던 민간인들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20대~30대의 젊은 마을 청년들이었고, 10대가 4명, 65세의 노인여성이 1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으며,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⑤ 본 사건은 당시 경찰유격대(대장 윤상수)가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귀대하던 도중 차량이 펑크가 나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동 유격대는 공비토벌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함평경찰서에서 편성된 경찰위주의 공비토벌대로 판단된다. 당시 경찰근무자 등을 탐문 조사한 바, 유격대장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다. 사건 당시에는 각 경찰서마다 경비주임이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직접가해자로 지목된 유격대원 최병남, 손옹골은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⑥ 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적대세력인 공비들을 상대로 토벌작전명령에 따라 전공을 세웠다면 국가유공자로서 그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법률적 측면

경찰유격대가 비교전상태에서 무저항·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행위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특히 이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국민의 생명권이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공비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을 포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민간인까지 총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57여 년이 지나 가해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285]도 있지만, 신청인들과 주요 참고인 진술, 가해 측 참고인 진술, 사건의 실재를 지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방신문(1949. 9. 25.자 호남일보)에 보도된 희생자 수, 발생 날짜, 장소가 본 사건과 일치[286]하는 점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총살한 것은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권고 및 화해조치

가. 명예 회복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행한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유도 모르게 희생되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함평폭도'라는 낙인을 받아온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 죄인처럼 살아왔던 유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권력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① 국가의 공식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비무장 민간인 28명을 어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살하고 그 유족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죄인처럼 살아오게 한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중한 사과를 권고한다.

② 위령사업의 지원

본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물리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③ 호적 정정

희생자 호적을 검토한 바 사망날짜, 사망장소 및 사망이유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호적 정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

---

285)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286) 본 위원회의 사건인 나주 동발굴재 사건에서도 조작된 문서상으로 소탕되었다고 하는 공비 수, 발생 날짜와 장소가 나주 동박굴재 사건의 희생자 수, 발생 날짜, 발생 장소와 일치하여 진실규명결정의 중요 입증자료로 인정된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pp.238~239.

나. 재발 방지

①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 국민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함평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공식 역사기록물에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②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경찰 등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③ 관련 법률의 정비

차후에 이런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민간인 보호 및 희생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5, 군유산 등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개요

손불면 유대홍(劉大洪) 외 224명 이상의 주민이 1948년 10월 22일부터 1951년 7월 10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엄다면 일대에서 군유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경찰서와 영광경찰서 기동대 및 국군 병력에 의해 부당하게 살해되었다.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경찰서와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토벌작전'이 끝난 직후 군유산과 그 인근에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게 되면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 좌익세력의 선동을 따라 군유산으로 피난을 나왔던 배복치 등을 살해하였다. 또한 경찰은 군유산 토벌작전 다음날 손불면 학산리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시켰다가 "여자들이 없으니 밥이 조금 늦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주민 백판준 등을 현장에서 총기로 살해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인 1948년과 1949년에도 '좌익들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월야면 용정리 양윤초 등을 살해하였다.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225명이었다. 이중 확실하게 살해된 사람은 다음의 184명이다.

송인방(宋仁坊), 임양욱(任良郁), 전무남(田茂男), 이대근(李大根), 김수복(金壽福), 조기형(趙基衡), 김경수(金京洙), 김용운(金容雲), 천기순(千基淳), 노동준(盧東俊), 김은곡(金隱谷), 이중순(李仲巡), 정길성(丁吉聲), 박종해(朴鍾海), 김재현(金在炫), 김광현(金光炫), 최인림(崔仁林), 김○○(未詳), 노상근(盧相根), 정천석(丁千石), 배복치(裵伏峙), 박용화(朴用化), 박용호(朴龍虎), 박용봉(朴用鳳), 김감산(金甘産), 임매동(林每同), 안춘길(安春吉), 안순자(安順子), 안판례(安判禮), 정춘석(鄭春錫), 정삼석(鄭參

錫), 정한석(鄭漢錫), 서영상(徐永相), 서유상(徐有相), 주반계(朱磻溪), 김연식(金連植), 윤춘식(尹春植), 윤춘하(尹春夏·이상 다-2956), 이발산(李發山), 박○○, 김○○(이상 未詳), 김동열(金東烈), 채수영(蔡洙榮), 손소하기(孫小河其), 곽인수(郭仁壽), 김영호(金永皓·다-3628), 최양례(崔良禮·다-3629), 임용택(林龍澤), 임진택(林辰澤·다-3634), 김병오(金炳午), 김남보(金南甫), 김순금(金順今), 김봉규(金奉奎), 심의대(沈宜大), 심택용(沈澤用), 김희권(金熙權), 노연순(魯蓮順), 김학기(金學基), 최명덕(崔明德), 배금술(裵今述), 모성학(牟成學), 이계병(李啓柄), 김광열(金光烈), 조효순(趙孝順), 박동순(朴東順), 이이순(李利淳), 이○○, 이○○, 조병식(趙炳植), 안기남(安基南), 김해용(金海龍), 모우종(牟佑鍾), 이봉열(李鳳烈), 배재고(裵在古), 배재만(裵在萬), 모종술(牟鍾述), 김동운(金東雲), 김정연(金正連), 남삼자(南三者), 모양선(牟良先), 양칠석(梁七錫), 모용배(牟瑢培), 이경민(李京敏), 모일기(牟日基), 강태원(姜太元), 모평댁, 정일순, 김○○, 배창년(裵昌年), 이영옥(李永玉), 강금례(姜金禮), 강대원(姜大元), 정맹순(丁孟順), 정판진(丁販鎭), 최복덕(崔福德), 이재화(李載華), 박태종(朴泰鍾), 박진구(朴鎭求), 강성문(姜成文), 이부현(李富玄), 김서현(金瑞鉉), 김영균(金寧均), 조용순(趙龍順), 송한용(宋漢用), 유대익(劉大益), 박윤휴(朴允休), 김복순(金福順), 김수복(金洙福), 박운득(朴云得), 이상용(李尙用), 배동원(裵東源), 김장수(金長洙), 장동환(張東煥), 김천수(金千洙), 모우범(牟佑範), 모우봉(牟佑奉), 문봉순(文鳳順), 백병인(白炳寅), 이상길(李相吉), 신연여(申蓮女), 이창식(李昌植), 김연옥(金淵玉), 김병호(金炳浩), 박준수(朴準洙), 윤진병(尹震炳), 정제봉(鄭濟鳳), 정재두(鄭載斗), 장동섭, 양윤초(梁潤楚), 장성환, 노가임(魯嘉任), 정항수(丁伉秀), 정수석(鄭壽錫), 정판근(鄭判根), 배열교(裵烈敎), 진상식(陳相植), 이재중(李載仲), 정철연(鄭喆衍), 이봉온(李奉溫), 정병선(丁丙善), 진옥진(陳玉振), 조동선(趙東先), 김판동(金判東), 정동일(鄭東一), 심의석(沈宜錫), 김대자(金大者), 김우현(金宇鉉), 강대현(姜大鉉), 공정엽(孔正燁), 김인수(金仁洙), 박해남, 김광숙(金光淑), 황장술(黃章述), 장길선(張吉善), 송무웅(宋武雄), 서균선(徐均先), 이동준(李東俊), 심회택(沈檜澤), 정상례(鄭尙禮), 심○○, 배성유(裵成酉), 배이식(裵以植), 채만택(蔡萬澤), 김현수, 문영수(文永洙), 백판준(白判俊), 전경복(全敬福), 박종인(朴鍾仁), 김소금(金小今), 모복님(牟福任), 조상술(曺相述), 배공리(裵孔鯉), 배창묵(裵昌默)이며, 미신청사건의 희생확인은 김영백(金永栢), 김소선(金小仙), 나상균(羅尙均), 장재록(張在綠), 백대윤(白大允), 박균경(朴均慶), 김판중(金判仲), 김일근(金一根), 김복수(金福洙), 김영태(金永台), 김남수(金南洙) 등이다.

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41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만수(韓萬洙), 주단임, 박균신(朴均臣), 박○○, 김관섭(金官燮), 박막동(朴莫同), 전병일(全炳鎰), 최병열(崔丙烈), 이길준(李吉俊), 김정남(金正南), 김종성, 노광영(盧光永), 이재용(李在龍), 이판술(李判述), 조성신(曺成信), 전연상(全連相), 전홍범(全洪範), 전홍섭(全洪燮), 최재욱(崔在郁), 강대식(姜大植), 강재환(姜在煥), 정복현(鄭福鉉), 문재동(文載東), 정병대(丁丙大), 김석현(金石鉉), 이형식(李熒植), 이금범(李金範), 진귀식(陳貴植), 이종진(李鍾振), 정재인(鄭載仁), 김상균(金尙均), 전주현(全舟鉉), 남천댁, 심화선(沈華銑), 심봉섭(沈捧燮), 박강진(朴康辰)이며, 미신청사건의 희생추정은 김영성(金永成), 박영규(朴永圭), 박두식(朴斗植), 박내언(朴來彦), 장길석(張吉錫) 등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채산수(蔡山水·다-10801)는 부상을 입고 생활하다가 1981년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 225명 중 여성은 35명(15%), 10세 이하와 51세 이상도 37명(16%)이었다. 또 사망당시의 직업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185명이었지만 상업종사자 5명, 학생 4명, 공무원 3명, 교사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무원에는 전임 면장도 있었으며,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와 주민들의 권유로 마을 인민위원장을 잠시 맡았다가 수복 후 경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경찰서와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들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도조자로 분류하여 적법절차 없이 사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은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2009년 11월 17일 다음과 같이 명예회복조치를 의결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사 건】 다-4562 외 168건 함평(일명 군유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신청인】 유대익 외 168명
【결정일】 2009. 11. 17.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유대홍(다-4562) 외 186명은 2006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남도 함평군 일원에서 군경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함평11사단사건(2006년 7월 25일)과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2007년 2월 28일), 또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2008년 1월 30일)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하였다.[287]

287)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 중 함평지역 사건은 함평11사단사건 198건, 함평수복작전민간인희생사건 39건,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20건, 함평양림마을 사건 27건, 보도연맹사건 74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65건이 진실규명 결정되었고, 형무소사건 6건(조사 중)이 조사 중에 있다.

나.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에 있는 군유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함평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당시 반란군들이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총살당하였다. 또 군유산작전 이후 마을에 들어온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②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반란군과 전투를 끝낸 경찰은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을 하거나 경찰의 소개명령으로 주민들이 소개를 나간 지역에서 미수복지역 주민을 총살하였다.

③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반란군에게 식량, 음식을 도왔다는 혐의로 군인 또는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 과제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서 경찰 또는 군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51년 2월 19일 함평경찰서의 군유산 토벌작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작전과정 또는 작전 이후 군유산 및 군유산 인근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1950년 12월 12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 미수복지역에서 경찰의 토벌작전을 하면서 민간인을 집단살해 하였는지, 또 작전 이후에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는 주민, 이후 경찰의 명령으로 소개나간 주민들을 피난지역에서 연행하여 살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살해 경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가 함평지역에서 경찰 및 군인에게 살해된 계기, 희생자의 거주 지역, 활동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반란군이었는지, 또 반란군에 대한 협조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빨치산 등 좌익세력은 군유산 또는 작전지역에서 이미 후퇴한 상태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또 경찰이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그 동조자로 인식하여 무차별 살해하였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찰의 진주 이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신청인·참고인 및 참전 경찰, 의용경찰, 대한청년단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사건관련 문서, 그리고 당시 사건과 관련 보도를 하였던 신문 등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였다.

가.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4월 9일부터 2009년 8월 5일까지 신청인 180명 중 진술거부, 사망 등으로 조사할 수 없었던 6명을 제외한 174명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추후 처리 예정인 사건을 제외한 신청인 164명의 진술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288]	주요 진술
[군유산작전 이후 사건] (손불면)							
1	2614	심안순 (1924)	전병일	남편	2008.8.19. 함평군청	진술 조서	남편은 아들을, 나는 딸을 데리고 군유산에 피난을 갔으나 길이 엇갈렸음. 남편과 같이 갔던 아들이 주민과 함께 와 남편의 사망사실을 말해주었음.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 남편의 시신은 바위 위에 있어 불에 타지 않았음.
2	3649	김이순 (1939)	김희권	부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영광과 함평경찰 기동대가 협공하여 몰려다니다 북성리 사기 뒤로 내려왔음. 경찰이 행색이 이상한 사람은 골라내어 총살하였는데 아버지도 총살당하였음.
3	4276	김재수 (1933)	김동운 김정연	숙부 사촌형	2008.5.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부는 군유산 중턱에서 총격을 가하니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내려오던 중 사기마을 아래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현장은 궁산리 김상길이 목격하여 시신은 수습하였음. 사촌형은 작전 뒤 경찰이 마을을 포위하자 바닷가로 도주하다가 총에 맞음.
4	4277	남수남 (1945)	남삼자	부	2008.6.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와 같이 피난을 갔는데 군유산 봉우리 아래 절터에서 경찰의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을 고종사촌 오빠와 중부(仲父) 남희일이 수습하였음.

288)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진술녹음), 면담보고(면담조서), 통화보고 등으로 구분하였다. 진술조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5	4281	최화님 (1945)	이판술	시숙부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숙부는 조성신, 전홍범·전홍섭 형제, 전연상과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경찰에게 끌려갔으나 돌아오지 않았음.
6	4282	조연신 (1936)	조성신	형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 조성신은 전홍범·전홍섭 형제, 전연상, 이판술, 조성순 등과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경찰에게 끌려가는 것을 생환한 조성순이 목격하였음.
7	4283	전내상 (1939)	전연상	형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군유산에서 경찰에 끌려가 대동면 대밭에서 살해되었다고 들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음.
8	4284	전상범 (1955)	전홍범 전홍섭	삼촌	2008.6.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삼촌 전홍범, 전홍섭은 신기에 살았는데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 쫓겨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음.
9	4285	양삼자 (1939)	양칠석	형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군유산 정상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뒤따라왔음. 경찰이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하여 나오는 도중 형님이 경찰의 총격에 즉사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10	4418	이재표 (1937)	이재화	형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과 함께 피난을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헤어져 오후 1, 2시경 내려왔음. 사건 2, 3일 후 사기마을 뒤 산소 옆에서 형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11	4419	박선자 (1942)	박태종	부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막내동생을 데리고 어머니와 피난을 갔음.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경찰이 "손을 들고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하여 사기마을 뒤까지 내려왔는데 총살하였음.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경찰이 반란군으로 오해한 것 같음. 큰아버지도 현장에서 오른 팔에 총을 맞았음.
12	4427	이광식 (1935)	이부현	부	2008.5.1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경찰이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군남 방향의 굴속에서 손을 들고 나오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박계순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후 시신은 수습하였음.
13	4428	김일환 (1945)	김서현	백부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큰아버지는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던 중 능선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시신은 할아버지가 작전이 끝난 뒤 수소문하여 찾아 수습하였음.
14	4429	김종성 (1943)	김영균	숙부	2008.6.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둘째숙부와 셋째숙부가 함께 피난을 갔는데 사기마을 뒤에서 경찰에 잡혀 승선마을까지 내려왔음. 경찰이 연행한 피난민을 집결시켜 선별하였음. 셋째숙부가 총살당하는 것은 둘째숙부가 목격하였음.
15	4431	문건식 (1967)	문재동	조부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산남리 북풍에서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음. 당일 오후 부모님 등은 돌아오셨으나 할아버지만 돌아오시지 않았다고 함. 할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군유산 일대를 뒤졌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함.
16	4563	박관규 (1946)	박윤휴	부	2008.5.1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숙부 집 벽장에 숨었다가 한청대원에게 잡혀 3일 후 군유산 정상으로 끌려갔음. 아버지는 경찰이 선별한 14명과 함께 포박 후 손불지서 앞 한청 사무실로 연행 후 살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17	4565	채봉수 (1942)	김복순	큰형수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다 죽인다'는 소문에 작전 이전에 군유산 아래 사기마을로 갔음. 그 후 형수도 사기마을로 갔는데, 형수님은 1951년 2월 19일 경찰에게 잡혀 2, 3일 뒤 대전리 수문에서 사망하였다는 말을 김재원으로부터 들었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8	4566	김영남 (1933)	김수복 박운득	부 모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갔으나 송사리 사간동에서 부모님과 헤어졌음. 그 후 아버지는 군유산 정상에서, 어머니는 경찰에 연행되어 대전리 산당고랑에서 사망한 사실을 경찰의 짐을 운반하였던 이필범이 말해주었음. 시신은 수습하였음.
19	4567	이귀술 (1938)	이상용	부	2008.5.21.함평 군청	진술 조서	형님이 인민군 점령기 좌익에 협조하여 작전이전에는 가족이 사기마을에 있었음. 군유산 작전 때 아버지는 여동생을 업어 걸음걸이가 더뎌 뒤따라온 경찰의 추격에 군유산 연흥사 옆에서 목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음. 사건 현장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목격함.
20	4940	김영석289) (1946)	김석현	부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산남리 청등에 살았는데 작전 전날 군유산에 피난을 가자 할머니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셨음. 아버지의 사망소식은 집안 형님으로부터 듣고 주민 황두채와 같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여 지게로 져왔음.
21	4989	백두인 (1944)	최복덕	모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손불면 학산리 지호마을에서 살았는데, 마을이 좌우간에 적대적인 감정이었음. 어머니는 군유산작전 후 경찰과 함께 마을에 온 우익 쪽의 김사병에게 살해되었음.
22	5098	이풍식 (1939)	신연여 이형식 이창식	모 큰형 작은형	2008.4.19.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큰형은 빨치산을 따라 갔고, 어머니와 작은형, 여동생은 군유산에 피난하였음. 작은형과 어머니는 대한청년단과 함평경찰서 기동대에 연행되어 한청고지에서 살해되었음. 큰형의 사망 사실은 2, 3개월 후 알았음.
23	5099	김금례 (1942)	김연옥	숙부	2008.8.19.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숙부는 학산리 해은마을에서 군유산으로 피난 중 사기마을 뒤에서 경찰에 연행 후 사망하였음. 숙부의 시신은 수습하였음.
24	6297	나병희 (1949)	노가임	모	2008.7.4.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군유산작전을 나온 경찰에게 연행되어 어전마을에서 살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25	7292	박길남 (1952)	강대현	전부 (前父)	2008.8.8. 부산 해운대구청	진술 조서	강대현은 전부(前父)로서 경찰이 총을 쏘고 마을에 들어오자 군유산 부근으로 피난을 하였음. 군유산에서 경찰에 잡혀 북성리 사기마을 뒤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살해되었음. 시신은 외숙 등이 수습하였다고 들었음.
26	8488	조복례 (1926)	황장술	남편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남편은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대전리 수문 경찰고지에 사흘 동안 있다가 월천리 어전으로 돌아왔음. 어전에서 경찰 총격에 부상을 입고 집에서 치료 중 이틀 후 다시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되었음.
27	8489	장여비 (1962)	장길선	삼촌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삼촌은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에 살았는데 조복례의 남편 황장술과 같이 군유산에서 연행되었음. 경찰고지에 있다가 1951년 2월 23일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조복례에게서 들었음.
28	8492	송복수 (1931)	송무웅	조카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경찰이 좌익 활동을 하였던 형님을 찾으러 자주 마을에 들어오니 형님은 조카, 형수와 함께 북성리 사기, 차경마을에 피난하였음. 군유산작전 때 피난을 갔는데 피난 중 경찰이 지른 불에 화상을 입고 몇 달 후 사망함.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29	8848	서승일 (1943)	서균선	부	2008.6.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거주지였던 영광에서 외가인 월천리 일공구로 피난을 가 있었음. 군유산 작전 때 아버지와 삼촌은 지호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경찰에 잡혀 살해되었음. 일공구 주민 선동 씨가 말해주어 시신은 수습하였음.
30	10812	백강수 (1942)	백판준	백부	2008.5.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1년 2월 20일 경찰이 학산리 지호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시켰는데 동네에 여자가 없어 밥이 늦었는데, 이것을 트집 잡아 경찰이 큰아버지를 총살하였다고 들었음.
31	10814	박종두 (1941)	박종인	형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인민군점령기 좌익의 강요로 주민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좌익을 따라다녔음. 군유산작전 일에 박종우와 함께 피난을 다니다가 내려왔음. 3일 후 경찰이 승선동 앞으로 연행하여 총살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32	10815	모성만 (1965)	김소금 모복님	전모(前母) 누나	2008.6.26. 함평군청	진술 조서	큰어머니(前母)는 이복누나인 모인례·모복님과 군유산에 피난을 갔음. 경찰의 총격에 큰어머니와 모복님은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모인례는 총을 맞고 살아와 5년 전에 사망하였음.
33	10817	박대일 (1945)	박강진	부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당일 아침 먹을 무렵 경찰이 몰려오며 총을 쏘자 군유산으로 피난하였음. 용골부근에서 아버지 손을 놓쳤고 그때 경찰이 군유산에 불을 질렀음. 아버지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군유산작전 이후 사건] (신광면)							
34	2296	노장수 (1944)	노동준 김은곡	조부 조모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동정리 신여마을이 소개된 후에도 재산 때문에 마을에 있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고, 할머니는 군유산작전 때 피난을 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35	2297	한규호 (1936)	한만수	부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총성을 듣고 비자나무골까지는 같이 피난을 갔는데, 비자나무골에서 경찰의 총격에 아버지는 사망하였음. 신광지서장이 총격직후 주민들에게 '경찰이 주둔한 곳으로 피난을 나가라'고 하였다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음. 채천석의 어머니도 함께 총을 맞았음.
36	2298	채천석 (1938)	이중순	모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어머니와 누나 동생 등이 군유산 비자나무골까지 피난을 갔는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음.
37	2300 4312	정내숙 (1931)	정길성	형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경찰이 총을 쏘면서 뒤쫓아 오자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동굴뫼까지 가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박종해, 김광현, 김재현의 시신도 목격하였음.
38	2301 4313	박종석 (1929)	박종해	동생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죽일 것이니 피난을 가야한다고 좌익들이 선동하여 사건 당일 총성이 울리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음. 신광 쪽에서 올라온 경찰이 추격하니 동생은 영광 군남면 남창리 방향으로 도망을 하였음.
39	2302	곽일례 (1936)	주단임 박균신 박○○	시숙모 시동생 시동생	2008.5.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숙모 송임댁, 시동생 박균신, 시동생(호적미등재)은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피난을 갔다가 군유산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들었음.

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호, 제18호의 서식(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288]	주요 진술
40	2303 4309	김재영 (1957)	김재현	삼촌	2008.3.27.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새벽 총성을 듣고 군유산 줄기인 동네 뒷산으로 피난을 갔음. 경찰에 쫓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들었음.
41	2304 4310	김가현 (1945)	김광현	형	2008.3.26.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부모님과 나, 큰누나는 군유산으로 피난을 나갔는데 사촌형과 형도 피난을 가던 중 경찰에 쫓기자 형은 외가가 있는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방향으로 피난을 가다가 동굴뫼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42	2305	김재기 (1945)	최인림 김○○	모 여동생	2008.4.5.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가족이 아침 일찍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군유산 자락 맞은 편 '학이봉'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였는데 그 총격에 어머니도 맞았다고 함.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업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걸음이 늦으니까 아버지가 재촉을 하였던 기억이 있음.
43	2306	김정기 (1957)	박막동 김관섭	조모 삼촌	2008.4.7.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삼촌은 1950년 12월(음력) 월천리 고모 집에 가다 경찰에 연행되어 주포에서 경찰이 죽였다고 하는데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할머니는 군유산에 피난을 가던 중 경찰 총격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경찰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사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며 시신은 수습하였음.
44	2612	노병우 (1959)	노상근	백부	2008.4.3.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동네의 좌익이, 경찰이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하여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음. 피난 중 경찰이 총격을 가하니 우왕좌왕하다보니 백부 노상근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음. 시신은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2, 3일 뒤 가보니 없어졌음.
45	2618	김대원[290] (1935)	배복치	조모	2008.5.6.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건 당일 경찰이 군유산을 점령한 때가 오전 간식 무렵인데 경찰이 점령하자마자 불을 질렀다고 함. 불을 지르자 피난민은 이리저리 밀렸고, 할머니는 얼개재 방향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음.
46	2740	임종연 (1936)	임매동	형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경찰이 동암 쪽에서 밀고 들어오자 가족은 군유산으로 피난하였는데, 정상에서 형은 김봉조 안춘길 안종환과 연행되어 형과 김봉조, 안춘길은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에서 죽었음.
47	2741	안의순 (1934)	안춘길	형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시신은 면 소재지인 월암리 노리개재에서 찾아왔음. 같은 마을 임매동의 시신도 그곳에서 찾아왔음.
48	3650	김창현 (1939)	김정남 김종성	부 동생	2008.4.17.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와 호적이 없는 동생 등 가족은 아침도 먹기 전에 피난을 출발하였음. 아버지와 동생이 총을 맞는 것은 나중에 김채섭으로부터 들었으며, 시신은 군유산 연흥사에서 500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 발견하였음. 옆구리에 기관총을 맞은 흔적이 있었음.
49	3651	김점순 (1947)	노연순 김학기	모 동생	2008.4.9.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침 일찍 군유산에 피난을 갔는데 경찰의 총격에 피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중에 언니뻘인 사람이 어머니가 총을 맞고 동생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함.
50	3652	노상숙 (1941)	노광영	형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당일 아침 준비가 막 끝난 상태에서 경찰이 마을 앞 뒤쪽으로 총격을 가하자 형만 피난을 갔음. 부모님과 본인은 피난을 가지 않아서 사건에 관한 내용은 같은 마을 김용문이 잘 알고 있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288]	주요 진술
51	3654	배정준 (1944)	최명덕 배금술	모 형님	2008.8.1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어머니와 형님은 군유산으로 피난하였는데 어머니는 8부 능선에서 어린 동생을 안고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형님은 손불지서로 연행되어 총살당하였는데 함평읍 장년리에 살던 매형이 말해주었음.
52	3878	이기춘 (1947)	이재용	부	2008.4.5.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동네 분들과 함께 군유산에 피난을 갔는데 빨치산이 빠져나간 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53	4302	김재명 (1945)	강태원 모평댁 정일순 〃 자	조모 사돈 숙모 사촌	2008.5.6. 함평군청	진술 조서	군유산작전 이틀 후 숙모님 친정식구, 외조부, 할머니 등 5명이 집에 있다가 작전을 들어온 경찰에 연행되어 군남 용암리 일진개미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54	4303	이귀례 (1958)	배창년	시숙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숙은 송사리 삼천동에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사기마을 뒤에서 경찰의 총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시어머니께 들었음.
55	4306	정상균 (1962)	정병대	백부	2008.8.7. 청주 흥덕구청	진술 조서	백부는 군유산으로 피난하다가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뒤 길목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당시 한 마을에 살았던 당숙모께 들었음.
56	4307	최순권 (1961)	최재욱	백부	2008.4.24.함평 군청	진술 조서	백부는 삼천동에서 군유산에 피난 중 경찰에게 학교 얼음재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고 들었음.
57	6732	이관수[291] (1947)	이재중	부			
58	6738	이종환 (1943)	이봉온이 종진	백부 사촌	2008.4.17.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백부는 군유산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으며 사촌 형은 부상을 입고 처가에서 치료 중 사망함.
59	7288	정휴상 (1954)	정동일	형	2008.8.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동정리 수정동에서 소개되어 복흥리 복치마을로 소개 나왔는데 반란군에게 군유산으로 끌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고 사촌형으로부터 들었음.
60	10795	심기종 (1943)	심회택 정상례 심○○	숙부 숙모 사촌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모 숙부, 젖먹이 딸이 같이 있다 숙모와 젖먹이 딸은 현장에서 경찰에 죽고 숙부는 함평경찰서로 연행되어 얼음재에서 시신수습을 하였음.
61	10797	배금수 (1949)	배성유 배이식	종조부 당숙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종조부 배성유, 당숙 배이식이 1951년 2월 19일 송사리 삼천동 군유산 기둥굴 봉우리 밑에서 살해되었음. 종조부의 시신은 찾았으나 당숙 시신은 찾지 못함.
62	10802	김양순 (1936)	김현수 (호적無)	시숙	2008.4.26.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시숙 김현수는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군유산 능선 골짜기 마구청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김채섭에게 들었음.
63	10803	김용호 (1966)	남천댁 (호적無)	종조모	2008.7.5.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종조모는 작은남천댁으로 불렸는데 아들과 함께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다가 마구청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함.
[1950년 12월 12일 사건 등 군유산작전 이전 사건] (손불면)							
64	2863	서갑열 (1946)	서영상 서유상	부 삼촌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수철마을에 1950년 12월 6일 경찰이 들어와 아버지, 삼촌을 신광 계천리 계월마을 앞 '까마귀머리산'으로 연행하여 3, 4일 후 죽였음. 아버지는 경찰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였는데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살해하였음.

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진술녹취는 동 규칙 제19호 서식(녹음·녹화 동의서)을 작성한 후 녹화 또는 녹음된 음성을 글로 바꾼 문서이다. 면담보고는 조사관이 진술인의 녹음·녹화 동의서 작성 없이 면담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65	3639	김영태 (1942)	김남보	부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0년 12월 9일 총을 든 경찰 3, 4명과 죽창부대원 20, 30명이 마을을 수색하는 것을 보고 장동마을에 피신하였는데 눈 위 발자국을 따라온 경찰에게 장동 앞에서 총살됨.
66	4273	이봉장 (1930)	이봉열	형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사기마을이 소개되어 수문에 있었는데 친구 모문기가 "경찰이 찾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손불지서에 같이 갔음. 10일 후 대동면 향교리 뒷산에서 형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오른손 엄지의 흉터로 확인하였음.
67	4274	배호묵 (1938)	배재고 배재만	부 숙부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5월 9일에, 숙부는 1951년 7월 10일 손불지서 경찰에게 죽었음. 숙부 배재만이 좌익 활동을 하여 숙부를 잡으러 경찰유격대가 마을에 왔음. 숙부가 없자 아버지를 마을 앞에서 총살하였음. 숙부는 두 달 후 학산리 앞 바다에서 경찰을 보고 도망하다 경찰 총격에 사망하였음.
68	4275	모재원 (1936)	모종술	숙부	2008.6.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군 편에 서서 활동한 것 때문에 양재리 수복 후 얼마 안 되어 경찰이 연행하였음. 그 후 1951년 2월 26일 대동 향교리에서 삼촌의 시신을 수습하였음.
69	4279	모종두 (1940)	모양선	숙부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부는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마을에 들어오자 빨치산과 주민들은 마을에서 3, 4㎞ 떨어진 상막재로 피난하였음. 경찰의 진격에 빨치산은 도망가고 주민들만 남아 있다가 경찰이 선별하여 총살하였음.
70	4286	모근배 (1943)	모용배	형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1950년 11월 12일 시계를 고치려 감남마을에 가다 경찰에 연행되었음. 양재리 모량이 처가인 의용소방대원 나근행이 연행·피살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시신은 찾지 못함.
71	4288	이창범 (1942)	이경민	부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궁산리에서 1951년 3월 3일 궁산리 묘동 김병국의 집에 다녀오다 목교마을 앞에서 경찰 윤상록에 연행되어 함평경찰서로 가던 도중 함평읍 장년리에서 살해되었음.
72	4289	모종채292) (1939) (심순례)	모일기	부 숙부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아버지는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자 상막재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다고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들었음.
73	4417	백두인 (1944)	백병인	형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가 구장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익 쪽의 김사병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 형님은 김사병과 경찰이 연행하여 등남산 봉우리에서 총살하였음.
74	4425	박래길 (1948)	박진구	부	2008.6.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0년 12월 10일 양재리 장재마을 종가의 제사에 가셨는데 12월12일(음력 11월 4일) 작전 차 들어온 경찰에 살해되었음. 종가에 있던 분들은 경찰이 들어오자 겁을 먹고 도망하였는데 아버지만 총을 맞았음.
75	4561	송복수 (1931)	송한용	부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신광면에서 설을 쇠러 장동마을에 오셨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음. 형이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에 나갔었는데 형을 찾으러 온 경찰이 아버지를 연행하여 경찰고지 뒤 까마귀머리산에서 살해하였음. 형은 나중에 자수하여 12년을 복역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 문서이다. 통화보고는 조사관이 참고인의 전화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288]	주요 진술
76	4562	유대홍 (1937)	유대익	형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1950년 12월 10일 실매에 조문을 다녀오다 마을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신광 경찰고지에서 살해되었음.
77	4684	김상기 (1948)	김장수	부	2008.3.2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수복 후 마을에 들어온 경찰이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살해하였다고 들었음.
78	4688	김요환 (1954)	김천수	형	2008.3.2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1951년 1월경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자수하라고 하여 보도연맹원이었던 형님은 자수하러 나갔는데, 경찰이 들어가라고 하고 뒤에서 총을 쏘았다고 들었음.
79	4936	문동주 (1936)	문봉순	부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인민군 점령기에 지호 인민위원장이었는데 군유산작전 다음날 수문마을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지호마을 앞 저수지에 수장되었음.
80	5097	이엽비 (1950)	이상길	부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부 이갑용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1951년 1월 21일(양력 2월 26일) 거주지인 장동마을에서 경찰에 끌려가 신광면 유천리에서 살해되었다고 함.
81	6570	배경택[293] (1946)	배열교	부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 등 가족은 금곡에 살았는데 당시 배재만이 좌익 우두머리였고, 셋째 고모부의 영향으로 숙부는 복학마을 빨치산 초소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였음. 숙부 연행 이틀 후 아버지가 연행되었고, 사촌형도 아버지와 같이 지서에 갔다 구금되었음. 숙부, 부, 사촌형은 1951년 3월 18일 면사무소에서 경찰에 총살되었음.
82	10848		배공리	숙부			
83	10850		배창묵	사촌형			
84	7794	공천수 (1947)	공정엽	부	2007.4.9.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숙부가 인민군에게 협조하였던 것 때문에 아버지가 손불지서에 자수하러 가던 중 경찰에게 살해되었다고 동네 분들에게 들었음. 시신은 수습하였음.
85	10813	전태범 (1937)	전경복	조부	2008.5.2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건 무렵 경찰이 작전을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피난을 다녔음. 1950년 12월 12일에도 경찰이 들어오니 할아버지는 주민들과 '양지돔' 방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총살당하였음.
86	10816	조남승 (1940)	조상술	사촌형	2008.5.20.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촌형은 경찰이 온다고 하여 마을 뒤에 피신하였는데,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뒷산을 수색하면서 사촌형 등 젊은 사람을 찾아내어 상막재에서 집결시키고 총살하였음.
87	4682	배정묵[294] (1951)	배동원	삼촌	2008.7.5.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삼촌은, 1950년 7월 23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불지서에 연행되어 시신은 월천리 농장에서 찾아왔음. 삼촌이 연행된 것은 좌익 활동을 하였던 배재만이 당숙인데 삼촌에게 당숙의 행방을 물어 모른다고 하자 연행하였다고 들었음.
88	4687	장정순 (1938)	장동환	부	2008.6.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죽림마을 이장이었는데 사기마을에 반란군을 잡으러 간 경찰이 반란군이 없자 분풀이로 마을에 들어와 아버지를 살해하였다고 들었음.
89	5101	김복만 (1944)	김병호	숙부	2009.2.12. 신청인 자택	진술 조서	숙부는 손불면 학산리 금곡에 살았는데 경찰 최병남이 집에서 손불지서로 연행하다가 월천리 어전 뒷산에서 살해하였다고 들었음.

[1950년 12월 12일 사건 등 군유산작전 이전 사건]
(신광면)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90	1531	서영순 (1934)	전무남	시당숙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0년 12월 3일 경찰이 원산리 덕동, 학동마을에서 주민을 마을 앞으로 집결시킨 후 선별하여 원남마을 앞에서 전무남, 이대근, 김종수, 천기순, 김기병, 김일 등을 살해하였다고 들었음.
91	1532	이춘만 (1926)	이대근	형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0년 12월 3일 경찰이 원남마을에서 학동마을 뒷산을 돌아 덕동마을 사람을 데리고 학동마을 앞 논에 집결시켰음. 경찰이 인민군 점령기 세포위원장을 찾아 형이 대신 나갔음.
92	2235	김영화 (1944)	김수복	숙부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누구, 누구 하며 지목하며 원남마을에 데려가 총살하였다고 들었음. 그날 오전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20여 명의 남자 주민 중 4명을 살해하였음.
93	2241	조기천 (1927)	조기형	형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경찰이 소개명령을 내려 월암리 연천마을로 피난을 가던 도중 면 소재지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시신은 계천리 실매에서 찾아왔음.
94	2242	김용찬 (1936)	김용운 김경수	부 형	2008.4.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0년 12월 8일 경찰이 소개명령을 내려 백운리 종곡으로 피난을 나가다가 면소재지에서 경찰에 잡혀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형님은 계천리 실매마을에서 시신을 찾아왔음.
95	2295	천동연 (1946)	천기순	부	2008.3.4.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면소재지에 살다가 학동마을에 가셨는데 마을에 들어온 경찰이 아버지를 들어가라고 한 뒤 총을 쏘았다고 들었음.
96	2616	정화순 (1937)	정천석	오빠	2008.5.1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오빠는 1950년 11월 초(음력) 복치로 피난 나왔음. 1950년 12월 22일 아침밥을 짓는데 대창을 든 두 사람이 집에 와 오빠를 찾아 스스로 갔는데 우렁굴에서 경찰이 총살시켰음.
97	2738	곽일례 (1936)	박용화 박용호 박용봉	시부 시숙부 〃	2008.5.9. 함평군청	진술 조서	박용화, 용호, 용봉 3형제는 1951년 1월 12일 경찰이 보전마을을 소개시키자 사천마을로 피난을 갔음. 경찰이 박용호와 용봉은 우렁굴에서, 박용화는 함정재에서 살해하였다고 시어머니께 들었음.
98	2739	노정순 (1937)	김감산	시어머니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불갑산 폭도가 군유산 쪽으로 몰려와 경찰과 교전하였음. 폭도가 산으로 도망간 후에 경찰이 마을에 와 시어머니에게 총격을 가하였음.
99	2742	안의순 (1934)	안순자 안판례	동생 동생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여동생 순자와 판례는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계천리에서 해안마을로 들어와 군유산 빨치산이 도망하고 교전이 끝난 후 경찰이 마을에 불을 질러 불에 타 죽었음.
100	3640	윤수봉 (1937)	김순금	모	2008.5.6.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건이 일어난 날 아버지는 빨치산의 명령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고, 어머니는 출산달이라 피난을 못 갔는데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총살하였음.
101	3645	심태수 (1940)	심의대 심택용	부 형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소개 작전이 있던 1950년 12월 12일 신여에 갔다가 심현택, 정병조, 심의석과 경찰에 연행되어 정병조를 제외한 3인은 당산나무 아래서 살해되었음. 형은 이후 소개명령이 내려 소개 나가기 전날 경찰고지에 가져다 줄 나무를 걷다가 연행되어 이영옥 등과 사망함.
102	4304	이영환 (1943)	이영옥	사촌형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촌형은 사건 3, 4일 전 경찰고지에서 땔감을 가져오라고 하여 땔감을 걷다가 심택용 등과 함께 연행되었고 1950년 12월 21일 실매에서 시신을 찾아왔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03	4305	심덕희 (1941)	강금례	모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당일 디딜방아를 찧고 있었는데 죽창을 든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를 끌고 갔음. 3일 후 언니에게 죽창을 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하였음. 아버지가 황점저수지 위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음.
104	4314	강재원 (1941)	강대식 강재환 강대원	숙부 당숙 숙부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부 강대식, 당숙 강재환은 1950년 12월 12일 가야에서 함평경찰서 기동대에게 연행되었음. 두 분은 면 소재지 월암리로 피난을 나왔으나 경찰에 연행되었음. 강대원은 경찰에 연행되어 '까마귀머리'에서 살해되었음.
105	4691	모동진 (1937)	모우범 모우봉	형	2008.6.10. 함평군청	진술 조서	둘째와 셋째형은 기동에 살았는데 1950년 12월 12일 소개명령이 내려 종곡으로 소개 나와 경찰고지에 신고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음. 시신은 아버지가 수소문하여 20여 일 후 시신을 수습하였음.
106	6733	정구연 (1932)	정철연	형	2008.3.31.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향토방위대원으로 사건 후에 어머니로부터 경찰이 형을 연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치산에게 가족이 살해된 경찰이 술을 먹고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음.
107	7287	김중신 (1965)	김판동	조부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백운리 신기마을에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큰아버지를 찾으러 삼천동에 가셨지만 찾지 못하고 나중에 시신만 찾았다는 말을 아버지께 들었음.
108	7289	심승욱 (1973)	심의석	조부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냉천마을에 살았는데 1950년 12월 12일 심태수의 부친 심의대 등과 함께 신여마을에 놀러갔는데 작전을 들어온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되었음.
109	10801	채동만 (1936)	채산수 채만택	부 형	2008.5.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군유산에 피난 중 중턱에서 총을 맞아 부상당하였음. 형은 계천리 새터에서 죽창부대에 경찰고지로 연행되어 구타로 사망하였음.
110	10804	심영애 (1947)	심화선 심봉섭	부 삼촌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0년 말과 1951년 초 사이에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에 살았던 아버지와 삼촌이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111	1051	황금자 (1932)	임양욱	시부	2008.5.8.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함평경찰서 유격대가 주민들에게 밥을 시켰는데 이장인 시아버지와 구장인 양순기가 "아랫마을에서 밥을 하니 안 해도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경찰유격대가 계천리와 가덕리 사이 도로에서 총살하였음.
112	2615 3653	최정의 (1937)	최병열	숙부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함정리와 보여리 사이에 20연대 군인들이 불갑산 주변에서 작전을 펴고 있었을 때 삼촌은 바깥에 나갔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배금렬로부터 들었음.
113	3624	채정자295) (1941)	채수영	조부	2008.4.4.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막내 종조부가 좌익활동을 하여 군인들이 잡으러 왔으나 집에 없자 연행하여 신광면 함정리 구봉잔등에서 총살하였음.
114	4426	강춘오 (1941)	강성문	부	2008.4.24.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당시 송사리 삼천동에서 보리 방앗간을 운영하였는데 집 근처에서 군경과 지방폭도와 총격전이 있을 때 피신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신광지서 경찰이 연행하여 살해함.

문서이다.

289) 신청인 김영석은 언어장애가 있어 김영석의 처 정윤자가 진술하였다.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15	6739	정병조 (1937)	정병선	형	2008.5.7.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학교면 사거리에서 이모의 포목점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집에 다니러 오다가 신광지서 경찰에 잡혀 월암리 연천마을 우렁굴 부근에서 경찰에 살해되었음.
116	7290	김순성 (1935)	김대자 김우현	부 숙부	2008.5.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47년 4월 27일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불을 지른 후 연행하여 삼천동 앞에서 살해하였고 숙부는 1948년 음력 9월경 6중대 군인들에게 신광 삼덕리 공동묘지 부근에서 구타당한 채로 발견되어 집에 데려왔으나 10일 뒤 사망함.

[그 외 지역 사건]

117	3365	김만수 (1934)	이발산 박씨 김아기	모 형수 조카	2007.11.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형 김만석이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동지서 경찰이 주민들을 집결시켜 어머니, 형수, 조카를 연행하여 용성리 금성동에서 총살하였음.
118	3625	손봉수 (1933)	손소하기	고모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송정리에 살고 있던 고모가 친정에 와 있었는데 1950년 11월 27일 경찰이 작전을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은 고모는 피난을 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다가 경찰에 살해되었음.
119	3627	곽판옥 (1943)	곽인수	부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함평읍 처가에 다녀오다 향교다리 부근에서 최정환의 손가락질로 한청대원에게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고 1950년 12월 5일 용모골 공동묘지에서 총살되었음.
120	3628	김맹수 (1943)	김영호	부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사건 발생 보름 전에 마을이 시끄러워 향교리 서교마을에 갔다가 잠잠해져 1950년 12월 19일에 돌아갔음. 경찰 밑에 일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강운리와 백호리 사이 공동묘지에서 총살하였음.
121	3629	김영기 (1938)	최양례	숙모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숙모는 1950년 11월 27일 '경찰이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하여 거무네골로 피난을 가던 중 해수가 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음. 뒤따라온 경찰이 추격하며 숙모께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였음.
122	3634	임주환 (1947)	임용택 임진택	부 당숙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와 당숙은 경찰과 의경이 마을에 들어온 1950년 12월 5일, 경찰에 연행되어 강운리와 백호리 사이 야산에서 총살되었음.
123	3635	은순자 (1931)	김병오	남편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남편은 함평읍에 있으면서 경찰의 명령으로 향교리에서 야경을 섰는데 빨치산이 함평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 다닐 수 없었음. 이후 1950년 12월 10일 함평읍으로 나가다 경찰에 잡혀 향교리 고산골로 끌려가 살해되었음.
124	3642	김종국296) (1963)	김봉규	조부	2008.6.26.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1950년 11월 27일 함평경찰서 경찰이 마을 주변 산에서 총을 쏘고 들어왔는데 눈을 보지 못하여 피난이 늦어 경찰 총격에 사망하였음.
125	3918	모상오 (1947)	모성학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0년 12월 10일 같은 마을 김병오와 함평읍에 갔다 오다 경찰 쪽 이종범에게 연행되어 마을에서 3㎞ 떨어진 대동면 향교 고산골에서 살해되었음.
126	3928	김종철 (1948)	김광열	숙부	2009.8.5. 함평군청	진술 조서	장성군 황룡면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숙부는 고향에 다니러 왔다가 경찰에 연행 후 살해되어 시신 수습함.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27	3964	이순화 (1955)	조효순 박동순 이이순 이○○ 이○○	조모 백모 중부 사촌 사촌	2008.8.6. 함평군청	진술 조서	백부 이형순이 빨치산 활동을 하였음. 이 때문에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에 살았던 가족이 대동지서 경찰 전봉석, 윤필중 등이 연행하여 용성리 금성동 기슭에서 총살하여 시신을 수습함.
128	7997	김용구 (1947)	김인수 박해남	부 모	2008.6.10. 함평군청	진술 조서	부모님은 덕산리에 살았는데 1950년 12월 24일 경찰이 주민을 대동국민학교 앞에 집결시켜 부모님 등을 고산동 안골에서 총살하였음.
129	4268	장장순 (1952)	조병식	시부	2008.2.20. 광주시청	진술 조서	시아버지 조병식은 대동면 용성리 구룡동에 살았는데 경찰이 마을을 포위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
130	421	송종득 (1943)	송인방	부	200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3월 10일 나산지서장 나병호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는데 현장을 목격한 송종원에게 들었음. 당시는 시신 수습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수습하지 못하였음.
131	2831	정제영 (1946)	정춘석	삼촌	2007.9.7.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삼촌이 좌익 활동을 하였는데 주민이 신고하자 경찰이 연행하여 해보면 문장저수지에서 총살하였다고 들었음.
132	2836	정문갑 (1964)	정삼석	조부	2008.3.15.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제사집에서 떡을 가지고 오다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이를 의심한 경찰이 살해하였다고 들었음.
133	2840	정제창 (1950)	정한석	부	2007.12.13.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아버지는 경찰에 자수를 하였는데 함평경찰서로 연행 중 나산면 배안골 기슭에서 살해되어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34	4270	안종운 (1939)	안기남	부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원선리에서 마을이 소개되어 관동으로 피난을 나왔는데 경찰이 지서에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주고 오다가 연행되어 1950년 12월 28일 구산리 뒷산에서 총살되었음.
135	4271	김용선 (1950)	김해용	형	2008.6.1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나산 원선리에 살았으나 소개 후 관동으로 피난을 나왔다가 나산지서에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주고 오던 중 함평경찰서 기동대에 연행되어 구산리에서 살해되었음.
136	4272	모종수 (1935)	모우종	형	2008.6.1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은 1950년 12월 27일 나산 구산리 뒷산에서 살해됨. 지서에서 아버지께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여 주고 오던 중 경찰기동대에게 잡혀 나산지서에서 하룻밤을 자고 경찰서로 가던 중 상구동 앞에서 살해되었음.
137	4432	조길춘 (1944)	조용순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2월 25일 거주지였던 관동마을에서 함평경찰서 나산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다음 날 학교면 죽정리에서 살해되었음.
138	5606	오옥순 (1925)	정제봉	시동생	2007.9.7.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동생은 좌익 활동을 하는 형의 심부름을 하다 불갑산 작전 후에 나산면 우치리에서 경찰에게 잡혀 살해됨.
139	6328	정제숙 (1945)	정수석	부	2008.3.28.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인민군 점령기 좌익 활동에 대하여 나산지서에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이 함평경찰서로 이송하다가 나산면 구산리 배안골에서 살해하였음.
140	6632	진효남 (1944)	진상식 진귀식	부 삼촌	2008.3.29.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51년 2월 초 나산지서에 연행되어 경찰에게 살해되었고 삼촌도 얼마 뒤 경찰에게 연행되었음.

290) 김대원은 중풍을 앓고 있어 처 임순덕이 시조모 배복치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91) 이관수는 2008년 1월 23일 사망하여 신청인의 고모 이말례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다. 신사제2동-6406,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41	2938	김희일 (1957)	주반계 김연식	조모 숙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군인들이 주민을 집결시키고 빨치산을 도운 것을 추궁하며 삼촌 이름을 부르자 삼촌은 도망하였고, 할머니는 군인들에게 삼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대검으로 난자해 즉사함.
142	3617	이재관 (1944)	이길준	형	2007.1.17. 함평군청	진술 조서	군인들이 마을에 와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빨치산이 누구의 집에서 묵었냐고 물러 정○○라고 하자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이고 형님은 군인들이 데려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음.
143	6745	진일랑 (1942)	진옥진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목포형무소에서 9개월 형을 살고 나온 뒤 나주의 고모 집에서 열차를 타고 오다 1949년 12월 17일 함평경찰서 엄다지서에 연행 후 살해되어 할머니가 시신을 확인하였음.
144	3619	김길호 (1942)	김동열	부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김두원의 사위가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김두원, 장싹쇄, 박화선과 아버지를 연행하여 박화선을 제외한 3명을 1950년 11월 28일 경찰에 살해하였음.
145	5607	정태진 (1942)	정재두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3월 20일 월야지서 경찰 김진철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음. 함께 돌아가신 분은 장동섭, 정판근, 김남수임. 김진철의 처가가 인민군 점령기 좌익들에게 피해를 보았음.
146	5608	장철금 (1936)	장동섭	부	2008.8.6. 익산시 중앙동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3월 20일 월야지서 차석 김진철에게 연행되어 백야마을(산 17번지)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147	6335	정광섭 (1948)	정판근	부	2008.3.2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1년 3월 20일 월야면 외치리 백야 정태진의 집에서 월야지서 경찰 김진철에게 연행되어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148	5611	양윤식 (1934)	양윤초	사촌형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사촌형은 용정리 복룡에서 1948년 11월 26일 밤 30여 명의 경찰에게 연행되어 마을 앞 네거리에서 살해하였음. 경찰은 두 명을 연행하여 왔는데 이들도 사촌형과 같이 살해하였음.
149	5615	장창환 (1940)	장성환	형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월야면 예덕리 망가촌 처가에서 1949년 11월 30일 면사무소를 다녀오던 길에 함평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어 정산리 장교마을 앞에서 살해되었음.
150	6744	정동진 (1948)	정재인	부	2008.8.7. 신청인 직장	진술 조서	아버지는 월야지서 의경이었는데 1950년 음력 5월 함평경찰서 출두요구에 나갔다 3개월 후 함평읍 대덕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들었음.
151	7284	조유복 (1955)	조동선	부	2009.3.16.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반란군을 도왔다고 월야면 예덕리에서 장성 삼서지서로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1949년생이나 출생신고가 늦게 되었음.
152	8080	김점례 (1947)	김광숙	부	2008.5.3.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1950년 음력 4월 중순경 주전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보름 후인 5월 단오 무렵에 해보면 문장저수지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왔음.
153	10217	이영기 (1937)	이동준	형	2008.6.11. 함평군청	진술 조서	둘째형님은 1950년 4월 7일 밤 방축마을 주막에 방봉규 등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문밖에서 '손들어'하는 소리가 들려 숨으려다 경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실을 방봉규가 알려주었음.
154	4420	정영수 (1941)	정복현	숙부	2006.7.24.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숙부가 옆집에서 살았는데, 숙부는 1950년 11월 초 빨치산 소탕작전을 벌이던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연행하여 갔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 진술 장소	진술 형태 288)	주요 진술
155	5306	박병량 (1943)	박준수	부	2007.3.29.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불갑산 대보름작전이 끝난 1951년 3월 용천사 부근에 작전을 나온 경찰에 연행되어 대동면 연암리에서 살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156	5311	이점봉 (1940)	이금범	오빠	2007.10.12.함평 군청	진술 조서	오빠는 광주사범학교 2학년으로 고향에 내려와 학도대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같은 학도대원이 어디론가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음.
157	2956	윤춘열 (1937)	윤춘식 윤춘하	작은형 큰형	2008.4.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작은형은 1949년 9월 10일 불갑산 용천사 부근에 있었던 반란군들과 교전 후 마을에 불을 지르던 함평유격대가 구타 후 살해하였음. 큰형은 작은 형 사건 후 경찰이 소개하여 1949년 12월 7일 처가가 있는 신광 삼덕 덕산 새납골로 피난하였다가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158	3921	이정숙 (1946)	이계춘	조부	2008.6.11.함평 군청	진술 조서	할아버지는 1950년 음력 5월 12일 마을에 들어온 경찰에 연행되어 해보면 쌍구룡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음.
159	5313(1)	윤석곤 (1945)	윤진병	조부	2009.3.13. 광주시청	진술 조서	반란군이 마을에 들어와 음식물을 가져갔음. 경찰이 다음날 마을에 들어왔다 반란군의 습격으로 사망하자 다음날 할아버지 윤진병과 정일성의 할아버지를 동네 앞에서 살해하였음.
160	6300	정일성 (1940)	정항수	조부	2008.6.27. 함평군청	진술 녹취	할아버지는 사건 전날 경찰 8명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빨치산의 공격에 사망하였음. 이후 가족은 나산면 용두리로 피난하였음. 할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마을에 왔다가 윤진병과 함께 마을 앞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161	8490	전귀임 (1934)	전주현	부	2008.10.18.진실 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아버지는 마을 구장으로서 같은 동네 정부칠의 동생이 경찰이었는데 반란군이 정부칠의 동생을 잡아오라고 하여 지서에 알려주었음에도 지서에서 불러 출두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음.
162	7976	김재경 (1945)	김상균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무안 망운 목서리에서 1950년 가을 진외가인 함평읍으로 피난을 왔는데 경찰이 늦은 가을 연행하여 성애원 인근 산에서 살해하였으나 시신수습은 못하였음.
163	4321	정석진 (1940)	정맹순 정판진	부 형	2008.6.2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와 마을 인민위원장을 하였음. 아버지와 형이 1950년 12월 21일 엄다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설을 쇠고 시신을 찾아왔음.
164	10806	문동식 (1939)	문영수	부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임시직 공무원으로 면사무소에 다니셨음. 1949년 8월 5일 밤 함평경찰서 경찰 최병남 일행이 모산마을에 들어와서 연행하였는데 며칠 후 수호리 뒷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경찰이 가족을 함평 읍내에 나오라고 한 뒤 며칠 후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왔음.

2008.8.18.

292) 신청인 모종채는 2006년 10월 6일 사망하여 처 심순례가 진술하였다. 손불면-5166, 2008.5.27.

293) 신청인 배경택의 진실규명 신청건수는 3건이나 진실규명대상자가 각기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였다.

294) 신청인 배정묵은 부 배동관과 삼촌 배동원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으나 배동관은 1950년 7월 23일 함평군 나산면 넙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여 보도연맹 희생사건으로 이관하였다. 조사4팀-24, 2009.1.8.

295) 신청인 채정자는 부 채두표, 모 배전도, 동생 채아기와 조부 채수영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술을 청취한 결과 채두표, 배전도, 채아기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이관하였다. 조사4팀-820, 2009.7.15.

나.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신청인 측 참고인 119명에 대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10일까지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	2301 4313 2618	정내숙 (20)	2009.3.3.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군유산 작전 당일 정상까지 온 경찰이 총을 쏘니 사방으로 흩어졌고, 앞에서 도망하던 박종해, 김재현, 김가현과 동생 정길성 등을 보았음. 작전이 끝나고 시신을 찾으러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방면에서 만난 주민이 동굴뫼 부근에서 사망한 것을 말해주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김대원의 할머니도 군유산 베틀바위에서 사망한 것을 보고 가족에게 말해 주었음.
2	2300 4312	박종석 (22)	2009.3.3.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정길성은 사간동 한 마을에 살았으며 나이는 1살 더 많았음. 사건이 있던 날 저녁 무렵 마을에 내려왔을 때 정길성, 김가현, 김재현 등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음. 동생 박종해도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수소문하여 나중에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동굴뫼 부근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3	2297	노장섭 (16)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돌아가신 한규호의 아버지 한만수는 한 동네에 살았음. 사건 당일 군유산 연흥사로 피난하였다가 밤중에 신여마을에 돌아왔음. 한만수는 군유산 비자나무골에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사망하여 가족들이 관을 가져가서 시신을 수습한 사실을 알고 있음.
4	10795	심연옥 (16)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심회택, 정상례는 숙부님과 숙모님인데 소실할머니의 아들이었으며 동정리 냉천마을에 살았음. 심회택의 시신은 작전 후 학교면 얼음재에서 수습하였고 정상례와 유아의 시신은 군유산에서 수습하였음.
5	6732	이말례 (14)	2009.1.13.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이재중은 셋째 오빠로서 1951년 음력 1월 14일 군유산 정상부근에서 사망하였음. 어머니도 옆에 숨어 있었는데 조카 관수는 오빠가 경찰이 나오라고 하여 나갈 때 옆에서 울고 있었다고 함.
6	6732	이재순 (29)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이관수의 아버지 이재중은 6촌 형임. 이재중은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피난을 갔는데 군유산 동암태 부근에서 사망하였음.
7	2302 2738	채희원 (20)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박일례의 시부 박용화, 시숙부 박용호 박용봉, 시숙모 주단임, 시동생 박균신, 박○○와는 한 동네에 살았음. 박용화 박용호 박용봉이 사망할 때는 계천리 사천마을에 있었음. 박용호는 계천리 우렁굴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고 박용호와 박용봉은 함정재에서 사망하였으며 송임댁과 박균신, 박○○는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작전 때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 그곳에서 사망하였음.
8	10797	김대원 (18)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빨치산이 시켜 사간동 부근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다가 오전 8시경 총소리가 들려 군유산으로 도망하였음. 군유산에서 해가 질 무렵 하산하다가 봉우리 밑에서 배이식의 시신을, 기둥굴에서 배성유의 시신을 보았음.
	4303 4306 6740	주육손 (14)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니 군유산 중턱까지 갔다가 내려와 손불 북성리 사기마을에 있었음. 형님이 경비대 출신 군인이어서 경찰을 따라 군유산 정상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경찰이 피난민들을 분류하는 것을 보았음. 정병대 배창연의 시신은 목격하였음.

296) 신청인 김정삼을 대신하여 김정삼의 형 김종국으로부터 신청인 진술을 청취하였다.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0	2296 2298	한규호 (15)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군유산작전이 있던 당일 경찰이 마을 방향으로 총을 쏘며 들어오니 송사리 삼천동 뒤 비자나무골로 피난을 하였음. 노장수의 가족은 한 동네에 살았으며 노장수의 할아버지 노동준은 소개를 나가지 않고 있다가 1951년 2월 3일 경찰에게 살해되었으며, 채천석의 어머니 시신은 보름 정도 있다가 군유산 비자나무골에서 보았음. 노장수 할머니 시신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수습하였음.
11	3654 4307	최정의 (14)	2009.3.4.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 당일 보초를 서다가 오전 6시부터 피난을 갔는데 경찰에 잡혔다가 오후 5시쯤 돌아왔음. 다음날 시신을 찾으면서 숯터에서 아이를 업고 죽은 최명덕을 보았고, 배금술은 경찰이 손불지서로 연행하였는데 3일 후 손불 대행동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최재욱은 군유산 정상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포박하여 얼음재에서 죽였다고 들었음.
12	6739	최정의 (11) 김채섭 (20)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1948년 사건 당시 정병선은 17살이었는데 함평에 갔다 집에 오던 중 함평읍 하느리 마을에서 경찰에게 잡혀 신광지서로 연행되었는데 월암리 우렁굴에서 사망하였음. 신광지서에서 연락이 와 가족이 밥을 해 다녔음. 시신은 정병선의 아버지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우렁굴에서 수습하였음.
13	7288	정상일 (17)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 당일 손불면 대전리, 신광면 함정리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려 군유산 정상으로 피난을 갔다가 오후 7시경 내려왔음. 정동일은 사촌형님인데 수정동에 살았던 노동안이 신광지서로 잡혀갔으나 생환하였는데 이 사람이 말해주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14	7289	심태수 (11)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당시 11살이었음. 1950년 12월 12일 심화택, 정병조 등과 아버지는 신여마을에 들르러 가셨음. 이날 작전을 들어온 경찰이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다른 마을 주민인 이 분들을 분류하였는데 정병조는 경찰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살아나왔으나 다른 분들은 경찰이 총살하였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음.
15	3652	김용문 (10)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노상숙의 형 노광영은 동정리 수정동에 살았으며 나이는 8, 9살 더 많았음. 군유산작전 1주일 전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켰는데 노광영은 반란군들의 지시로 보초를 서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다른 주민 2명과 함께 계천리 경찰고지로 연행도중 2명이 달아나자 노광영을 포승하여 연행하였는데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16	2303 4309, 2304 4310	김채섭 (23)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아침밥을 준비하던 중 피난을 갔다가 오후 5시경에 돌아왔음. 김동순의 집을 제외하고 마을이 모두 불에 탔음. 경찰은 이틀 후인 1951년 2월 21일 오후 4시경에도 마을에 와서 김재명의 할머니 강태원과 모평댁을 살해하였고 그날 경찰의 소개명령에 마을을 비웠음. 김재현은 6촌 동생인데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동굴뫼 앞 하천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음. 사망한 사람은 김광현과 박종해, 정길선 김재현 등인데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음.
17	6738, 4302, 10802, 10803	김채섭 (23)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이봉온과 이종진은 부자간인데 이봉온은 작전이 끝날 무렵 북성리 사기마을 앞에서 총살되었고 이종진은 군유산 연흥사 앞에서 총을 맞아 동암리 봉동 있다 1주일 후 사망하였음. 김재명의 숙모와 동생은 군유산 마구청에서 사망하였음. 또 김현수는 집안 형님뻘인데 군유산 마구청 아래 속칭 대포굴재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고, 김복현의 후처인 남천댁도 당시 나이가 30세 전후였는데 군유산 마구청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함.
18	7292, 2305, 2306, 3650	김채섭 (23)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강대현은 사촌매형으로서 딸이 1명 있었는데 군유산에 피난 갔다가 내려오던 중 정상 아래에서 돌 사이에 쪼그린 상태에서 사망하였음. 최인림은 형수인데 군유산 연흥사 방향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사망하였음. 그 부근에 숙모 박막동의 시신을 발견하였음. 박막동의 아들생 김관섭은 1950년 겨울에 손불면 일공구 누나집에 가다가 경찰에게 주포지서로 연행되었음. 김관섭의 부 김영섭은 보도연맹원으로 1950년 7월 나산면 넙태에서 사망함. 또 김창현의 아버지 김정남과 동생 김종성도 군유산 연흥사 아래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가 몇 해 전 이장하였음.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9	7290	김미섭 (24)	2009.9.9.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김대자(김보현)은 집안 형님 되는데 동생이 김우현임. 김대자와 김우현 모두 여순사건 후에 사망하였는데 김대자가 먼저 사망하였음. 본인도 김대자가 사망할 때 경찰에게 함께 연행되어 대답을 잘못한다고 구타당하였음. 김대자는 농민위원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김우현은 김대자가 죽은 한 참 뒤에 사망하였는데 함정리 구봉마을에 주둔하였던 군인들에게 집에서 연행되어 삼덕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살아나 집에 데려와 며칠 뒤 사망하였음.
20	2741 2742	안영환 (20) 임종연 (15)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음. 안의순의 동생 안순자와 안판례는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죽일 때 사망하였으며, 안의순의 할머니는 다리에 총을 3발 맞고 생존하다가 20년 전에 사망하였음. 안의순과 함께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안춘길은 경찰의 작전이 있던 날 피난 갔다가 손불면 북성리로 내려와 경찰이 월암리 노리개재로 연행하여 살해하였음.
21	2615 3653	이재순 (26)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최정의의 숙부 최병열은 일제 강점기 함께 징용을 갔다 왔음. 사건 발생 무렵 폭도들이 불갑산 용천사에 있었는데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음. 폭도들이 내려오면 군인들이 주민들을 추궁하였는데 최병열도 군인들이 연행하였으나 시신은 찾지 못하였음.
22	2739 2740	안의순 (16)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1950년 12월 12일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과 빨치산의 교전이 있어 젊은 사람은 군유산 자락으로 피난을 갔고 노인들만 마을에 남았음. 김감산은 당시 나이가 많아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있다가 작전을 끝낸 경찰에게 살해되었음. 임매동은 27, 28세였는데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서 연행되어 3일 후 백운리 노리개재에서 총살되었음.
23	7287	주육손 (13)	2009.3.31.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중신의 조부 김판동은 백운리 신기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에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왔다가 1950년 12월 12일 작전 때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신은 해안마을과 삼천동 사이 산길에서 수습하였음.
24	2302 2738	정내숙 (21)	2009.3.31.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곽일례의 시부 박용화는 고모부였음. 경찰유격대가 마을에 들어와 박용화를 연행하여 소재지 뒤편 우렁굴에서 죽였음. 경찰이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고 연행하였음. 박용화의 시신은 수습하여 구렁재에 매장하였음. 박용화는 1950년 음력 12월 5일경에 잡혀갔고 박용호·용봉은 같은 달 27일에 연행 후 살해되었음.
25	3645	임영수 (16)	2009.3.31. 동정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심의대는 신여마을에 놀러왔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음. 심의대 등 냉천 주민 3명이 1950년 12월 12일 신여에 왔는데 경찰이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어디 사냐고 물어 냉천에서 왔다고 하자 총살하였음. 시신은 며칠 뒤 가족이 수습하였음.
26	4304	심태수 (11)	2009.3.31. 동정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큰형 심택용이 경찰에게 연행되고 2, 3일 후 소개되어 계천리 사천마을에 임시로 거주하였음. 이영환의 사촌형 이영옥은 경찰고지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나무를 걷었는데 '반란군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살해하였는데 시신수습은 하였음.
27	2616 6733	심연옥 (18)	2009.4.1. 동정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정천석과는 한 동네인 냉천마을에 살았는데 나이에 비하여 숙성한 편이었음. 정천석은 1950년 12월 12일 경찰의 소개 명령에 복치로 피난 나갔는데 경찰 혹은 소방대원에게 연행되어 월암리 우렁굴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음. 정구연의 형 정철연은 6, 7년 연상으로 한 동네에 살았는데 신광 경찰고지로 연행되어 얼마 뒤 살해되었다는 것을 소개에서 돌아왔을 때 들었음.
28	4305	심길섭 (4)	2009.4.1. 동정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의 내용은 부모님께 들었는데 백운리 백오마을에 살았던 중모(仲母) 강금례는 디딜방아를 찧고 있던 중 대창부대에게 연행되었고 3일 만에 돌아온 중부가 신기마을에서 시신을 수습함. 강금례를 연행하였던 사람은 의경으로 백운리 신기마을에 살았음.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9	4691	김유예 (21)	2009.4.1. 보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모우봉은 초혼(初婚) 남편이고, 모우범은 시숙임. 음력 동짓달 초 경찰이 작전을 들어와 소개시켜 백운리 종곡으로 나가 제부 장길수의 집에 있었음. 대창부대원인 제부의 권유로 경찰고지에 신고하러 갔으나 돌아오지 않았음. 모우봉과 모우범의 시신은 시아버지가 수습함.
30	10801	채윤표 (15)	2009.4.1. 보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채동만의 아버지 채산수는 1951년 2월 19일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 가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고생하다 사망하였음. 채동만의 형 채만택은 소개를 나갔다가 경찰에 살해되었음.
31	4314	김병일 (14)	2009.4.21.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강대원의 숙부 강대식과 당숙 강재환은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진주하였을 당시 소개를 나갔다가 강대식은 피난을 나왔던 함정리 청년들과 함께 연행되어 계천리 계월마을 오두산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고, 강재환은 시신을 찾지 못하였음.
32	2612 3651 3878	정상일 (15)	2009.4.21.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신광면 복흥리로 소개를 나갔다가 반란군들에게 수정동으로 왔는데 3일 뒤 군유산작전이 있었음. 노상근의 사망사실은 작전 뒤 가족이 군유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알았음. 노연순과 아들 김학기는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모자가 총격현장에서 총에 맞은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였음. 또 이기춘의 부 이재용도 군유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33	10804	채주성 (17)	2009.4.21.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나이가 어려 피난을 가지 않고 신광면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소년단에 들어갔음. 심화선과 심봉섭은 월암리 매월촌에 살았는데 두 분은 5살, 10살 정도 많았음. 함께 피난을 나갔던 사람들로부터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음.
34	2241 2242	이기섭 (24)	2009.4.22. 원산리 마을회관	진술 녹취	조기형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될 때는 마을에 있었음. 경찰이 마을에 와 주민들을 집결시켜 총살하였음. 이 무렵 학동 이만옥, 원남 김일, 덕동 전무남 이대근 김수복 천기순 등이 조기형 보다 먼저 죽었음. 이들은 신광지서 의경 김정섭이 총살하였음. 김용찬의 부 김경수와 형 김용운은 계천리 경찰고지로 연행 후 살해되어 시신 수습함.
35	1051	양남진 (8)	2009.4.24.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함평경찰서 유격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밥을 시키고 갔는데 이장인 임양욱과 구장인 양순기가 “밥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경찰이 임양욱을 총살한 것을 알고 있음.
36	3649	김점례 (18)	2009.6.12.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김이순은 군유산작전이 나던 무렵부터 한 마을에 살았음.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동네 어른들에게 김이순의 아버지가 군유산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동네에서 초상을 치렀음.
37	2614	심기용 (21)	2009.3.5. 송사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전병일은 매형으로서 손불면 월천리 어전마을 양지뜸에 살았는데 군유산에 피난을 가서 돌아오지 않아 시신을 찾으러 다녔는데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뒤에서 찾았음.
38	2863	김재원 (22)	2009.3.1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아버지가 서갑열의 아버지에게 한자를 가르쳐 서갑열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음. 서영상 형제는 죽장리 수철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로 연행되어 까마귀머리산에서 총살되었음.
39	4288	김관식 (23)	2009.3.1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 당시엔 광주에 있었는데 사건 내용은 나중에 들었음. 이경민은 4, 5살 더 많았으며 윗집에 살았음. 동생 김홍식은 반란군에게 죽었고 이경민은 인민군 점령기 마을 구장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의경이 연행하여 살해하였는데 시신은 수습하였음.
40	4427	김남수 (17)	2009.3.1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이광식의 부친 이부현은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작전 때 북성리 사기마을 뒤에서 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아침 주포방향에서 총격이 시작되자 아침밥을 먹고 군유산으로 피난 갔음.
41	4561 4567 5097	이육종 (30)	2009.3.1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송한용은 아들 송병준이 군유산에 있으면서 좌익 활동한 것 때문에 경찰이 신광면 경찰고지로 연행하여 죽였고, 송무웅도 군유산 능선에서 경찰이 불을 질렀을 때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음. 이귀술의 아버지 이상용은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능선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음. 또 이엽비의 아버지 이상길은 군유산작전 후 경찰이 주민을 집결시켰는데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신광면 유천리로 연행 후 살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음.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42	4687	유대홍 (13)	2009.3.1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장동환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동네에서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의 밀고로 1949년 음력 8월 손불지서 경찰이 연행하여 산남리 지곡마을 방향 으슥한 곳에서 총살하여 시신은 수습하였음. 장동환은 마을의 구장이었음.
43	4277	이봉장 (21)	2009.3.19.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외숙인 남삼자는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오후 사망하였다는 것은 남수남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음. 남수남이 "아버지가 업고 갔는데 경찰이 총을 쏘아 죽었다"고 말하였음. 시신은 며칠 뒤 군유산에 수습하였음.
44	5098	송복수 (19)	2009.3.19.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이풍식의 가족은 한 동네에 살았으며 이풍식의 어머니와 형 이형식은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손불지서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음.
45	4428	백동인 (16) 이갑산 (16)	2009.3.19.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서현은 군유산 능선인 상막재 부근에서 사망하여 김일환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그 후 군유산 정상에서 경찰이 손을 들고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와 손불 경찰고지에 2일간 있다가 마을에 돌아옴. 피난 도중 북성리 승선마을 사거리에서 수많은 시신을 목격하였음.
46	10813	임민채 (18)	2009.5.26.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망한 전태범의 조부 전경복과는 한 마을인 월천리 어전마을에 살았고 경찰의 진주작전이 있었던 1950년 12월 12일 사망하였는데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 와서 알게 되었음.
47	10814	강은화 (30)	2009.5.26.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박종두, 박종인은 집안 손자뻘인데 박종인은 군유산작전 일에 경찰이 반란군을 잡는다고 작전을 나왔는데 북성리 승선동 비석 앞길에서 총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하였음.
48	10817	박병규 (14)	2009.5.26.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박대일의 아버지 박강진은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에서 경찰에게 잡혀 신광지서로 연행되었음. 박강진은 당시 감물들인 옷을 입었고 미숫가루 전대를 메고 다녔음.
49	4281 4283 4284	조연신 (19)	2009.5.27.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안악으로 피난 중 오후 4, 5시경에 왔음. 안악에서 군유산 정상이 보였는데 피난민들이 정상으로 갔다가 경찰이 깃발을 흔들자 내려오는 것을 보았음. 이판술과 전홍섭·전홍범 형제, 형님 조성순은 농사꾼이었고 전연상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였음.
50	4285	양삼두 (10)	2009.5.27.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사망한 양칠석은 형님임. 양칠석은 북성리를 지나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은행동 뒷산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마하였음.
51	4275 4286 4279 4289 10815	모학기 (22)	2009.5.27.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처음으로 마을에 들어왔는데 양재리 장재동 냇가에 있다가 경찰에 잡혀 신광 계천리 경찰고지로 갔음. 그날 사망하신 분은 모종두의 숙부 모양선, 모종채의 부 모일기, 모성만의 어머니와 누나, 조남승의 사촌형 조상술, 모종두의 외숙 김복현, 모종군의 외숙 염양수 등임. 모재원의 숙부 모종술은 경찰을 피해 다니다 연행되어 사망하였고 모근배의 형 모용배는 경찰 진주이전 함평읍으로 시계를 고치러 가다 연행되어 사망하였음.
52	10816	모재원 (15)	2009.5.27.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상막재 사건이 일어난 날 상막재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양재리 뒷산으로 피난 갔음. 경찰이 유가족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불을 질렀음. 조상술도 주민들과 함께 상막재로 피난 갔다가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음.
53	4563	박노진 (31)	2009.5.28.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박관규의 부 박윤휴는 사촌형님인데 동네에서는 박노연으로 불렀음. 군유산작전이 끝나고 한청대원 6, 7명이 박윤휴의 집에 들어와 연행하여 대전리 산당고랑 손불 경찰고지 부근에서 죽였음.
54	4565 4566 5098	이귀술 (13)	2009.5.28.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이풍식의 어머니와 작은형 이창식은 군유산작전이 있던 날 피난을 하였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대전리 손불 경찰고지에서 총살되었고, 큰형 이창식은 군유산에 피난 갔으나 그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음. 채봉수의 형수 김복순의 시신은 대전리 경찰고지에서 수습하였음. 김영남의 아버지는 군유산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여 왔고, 어머니는 대전리 경찰고지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음.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55	3640 4562	이재연 (21)	2009.5.28. 유대홍 자택	진술 조서	윤수봉의 큰아버지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윤수봉의 어머니가 출산을 하기 위해 신광면 송사리 해안마을에 갔다가 1950년 12월 12일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유대익은 신광 계천리 경찰고지에 있을 때 한청대원들이 연행하여 온 것 보았고, 다음날 원산리 부근에서 경찰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다른 한청대원으로부터 들었음.
56	3639	유대홍 (13)	2009.5.28.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돌아가신 김남보는 당시 50세 정도였는데 한 동네에 살았음. 김남보는 1950년 12월 초 처음 진주한 경찰과 대창부대를 보고 도망을 하였고 도망가는 김남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였음.
57	7794	홍연례 (20)	2009.5.29.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17살 때 이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공정엽은 농사꾼이었음. 공정엽의 동생 공정영이 똑똑하여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군 편에서 활동하여 손불수복 후 공정엽이 경찰에 자수하러 가다가 산남리 옷빠골 부근에서 경찰이 총살하여 동네에서 초상을 치렀음.
58	4273	임유택 (12)	2009.6.9. 학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사건이 났을 때는 산남2리 대성마을에 살았음. 이봉장의 고모가 대성마을에 살아서 이봉열의 사망사실을 들었는데 이봉열은 같은 마을 모문기가 경찰고지를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함께 죽었다고 들었음.
59	4274	배귀태 (7)	2009.6.9. 학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배재고와 배재만은 재당숙인데 배재고는 동생 좌익 활동을 하였던 배재만 때문에 고생하였음. 배재고가 사망한 장소는 모르고, 배재만은 해은마을 앞 바다에서 경찰의 추격에 도망을 가다 총격에 사망하였음.
60	10812	백충인 (20)	2009.6.9. 학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백판준은 40대 후반으로 나이가 많아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있었음. 다음날 마을에 들어온 경찰이 주민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여 밥을 준비하였는데 동작이 느리다고 총살하였음.
61	4417 4989	백영해 (16)	2009.6.9. 학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백두인과는 5촌인데 형 백병인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음. 백두인의 어머니는 사망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군유산작전이 끝난 다음날 경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살해하였음. 형 백병인은 배재만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삼섭과 함께 연행되어 5, 6일 뒤 총살되었음.
62	4684	김재수 (18)	2009.6.10.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김장수는 6촌 형님으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고 있었음. 군유산작전이 끝난 뒤 경찰이 마을을 수색하면서 청년들을 연행하여 총살하였음. 김장수도 마을 앞 비석거리로 불려갔는데 경찰이 들어가라고 하고 총살하였음.
63	4276	김홍용 (16)	2009.6.10. 김재수 자택	진술 조서	김동운은 집안 아저씨뻘임.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 사건 때 나산면 넙태까지 갔다가 총을 8발이나 맞고 살아왔는데 다음해 2월 군유산작전 때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김정연은 전쟁이전 좌익 활동을 하였는데 경찰이 온다고 하여 도망하다 총에 맞았음.
64	5099 4688 4684 4274	배정문 (18)	2009.6.10.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김금례의 숙부 김연옥은 남의집살이를 하였던 분으로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총살되었는데 시신 수습은 못하였음. 김요환의 아버지 김천수는 본인 집에 비트를 파놓고 숨어 있었는데 경찰에게 연행되어 행방을 모름. 김장수는 군유산 작전 직후 경찰의 총격에 부상을 입고 도망을 하여 치료 중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됨. 또 배재고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동생 배재만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었음.
65	4682 5101	배정문 (18)	2009.6.10.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배동원은 동네에서 배종수로 불렀음. 배종수는 1949년 여름 김복만의 숙부 김병호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월천리 농장마을 뒤 밭에서 살해되었음. 시신은 배용길과 김갑조가 수습하였음.
66	6570 10848 10850	배정문 (18)	2009.6.10.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배열교는 동네에서는 배권일, 배공리는 배권철로 불렀음. 배권일은 금곡, 배권철과 사촌형은 해은에 살았음. 배권철은 경찰이 면사무소로 연행하여 총살함. 배권일은 동생이 분주소장을 하였던 것 때문에 경찰에 총살됨.
67	4940	황두채 (21)	2009.6.11.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영석의 부 김석현은 동네에서 애현으로 불렀음. 김애현의 형이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군유산작전 다음날 시신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군유산에서 시신을 져다 주었음.
68	4425	박예구 (9)	2009.6.11.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박래길의 부 박진구는 4촌간이었으나 산남리 강석에 살았음. 음력 11월 3일이 할아버지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다음날 경찰이 마을에 진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다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69	8848	서일섭	2009.6.12.	진술	서균선은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에 살았는데 빨치산을 피하여 처가인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5)	함평읍	조서	손불면 월천리로 피난을 갔음.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학산리 지호까지 도망을 하여 그곳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70	6297	나복동 (15)	2009.6.13.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노가임은 올케이며 저의 조카 나병희의 어머니인데 죽장리 수철마을에 살았음. 오빠 나정주는 보도연맹원으로 1950년 7월 23일 나산면 넙태에서 사망하였음. 죽장리 장동 수말댁이 말해 주어 올케 노감임의 사망사실을 알았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71	4419	김남수 (17)	2009.6.13.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박선자의 아버지 박태종은 산남리 내감마을에 살았음. 박태종은 군유산작전 때 군유산으로 피난을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승선마을 네거리에서 경찰의 선별 후 총격에 사망하였음.
72	8488 8489	강해선 (21)	2009.6.18. 광주 상무병원	진술 녹취	황장술, 장길선과는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한 동네에 살았음. 그 사람들은 함평경찰서 기동대들이 총살하였음. 당시 북성리에는 지방좌익이 모여 있어 기동대가 군유산작전을 하고 난 뒤 북성리에 있던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선별하여 총살하였음.
73	3619	박화선 (27)	2009.6.16.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김길호의 아버지 김동열은 월야면 외치리 외치재에서 경찰에게 죽었는데 전날 경찰이 연행하였음.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고 김동열, 김두원, 장싹쇄아 본인 등 네 분이 월야지서로 연행되어 시어머니의 동생이 의경이어서 본인만 살아오고 세 분은 사망하였음.
74	5611 5615	황봉채 (14)	2009.6.16. 용정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양윤초가 경찰에게 불려나가 살해되었을 때가 14살이었는데 늦가을 한밤중 총소리가 들렸고, 다음날 양윤초와 경찰이 연행하여 온 다른 동네 2명이 마을 앞에서 총살된 것을 알았음. 장성환은 1년 뒤 경찰에 연행되어 죽은 것을 알고 있음. 장성환은 예덕리 망가촌 처가에 있었는데 방아를 찧던 중 월야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하였음.
75	5607 5608 6335 6744	정길진 (26)	2009.6.16.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정재두는 백야 큰마을에서 살았는데 1951년 대보름 작전이후 정판근, 장동섭, 김남수 등과 함께 월야지서 경찰 김진철에게 연행되어 면소재지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얼마 뒤 소재지 방향에서 총성을 들었음. 정재인은 월야지서 의경이었는데 함평경찰서 요구로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함평읍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76	10217	김동일 (23)	2009.6.19.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양정리 방축에 살았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이영기의 형 이동준과 한 좌석에 있었음. 청년 1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순찰 중인 경찰이 인기척을 냈고 인기척에 놀란 이동준이 도망하자 경찰이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였음.
77	8080	노덕례 (18)	2009.9.10.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서	결혼하여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김광숙이 죽었는데 집안 아저씨뻘임. 김광숙을 마을에서 김홍만으로 불렸음. 김홍만은 경찰이 빨갱이라고 연행하여 산 밑에서 살해하였는데 그때가 밀을 벨 무렵이었음.
78	3921	윤기병 (20)	2008.8.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이계병의 다른 이름은 이계춘이고 해보면 운곡에 살았음. 당시에는 용천사에서 문장을 가기 위해서는 모평 앞을 지나야 하는데 그 길목인 쌍구룡 주막에 있으면서 이계병이 연행되어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79	2956	윤병옥 (21)	2009.4.22.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윤춘하는 사촌형님이고 윤춘식은 3살이 적음. 윤춘식은 집에서 누에를 키웠는데 경찰이 작전 뒤 나가면서 죽였고, 윤춘하는 그 뒤 신광 삼덕리 새납골에서 경찰에게 죽었음. 윤춘하가 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은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본인도 새납골에 소개를 나가 있었음.
80	5311 5313(1) 6300	윤금중 (15)	2009.6.17.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이금범은 본인보다 나이가 1살 많았던 학도대원이었는데, 같은 대원에게 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음. 윤진병과 정항수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반란군이 마을에서 경찰 8명을 살해하였는데 다음날 경찰이 보복작전을 들어와 두 분을 총살하였음.
81	8490	김석주 (19)	2009.6.18. 광암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당시 마을에 있기가 불안하여 신광 삼덕리에 있었는데 전주현은 마을이장으로 전영환으로 불렸음. 전주현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보지서에 갔는데 경찰이 죽였음.
82	4420 5306 8490	박용원 (13)	2009.6.18. 광암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정복현은 보도연맹원으로 살아남았으나 수복 후인 1950년 11월 초 경찰이 불러 나갔다가 죽었음. 박준수는 당숙인데 1951년 대보름 작전 직후 함평경찰서 기동대가 연행하여 대동 연암에서 살해하였음. 전주현은 전쟁이전에 좌우를 무마하여 피해를 줄이려 애를 썼는데 해보지서에서 연행후 총살하였음.
83	3627	손봉수	2009.4.2.	진술	곽인수는 향교로 소개 나갔는데 함평경찰서 유격대에 붙잡혀 백호리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3634	(16)	강운리 마을회관	조서	용모골 공동묘지 부근에서 총살되었음. 임용택 임진택도 곽인수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곽인수와 함께 함평경찰서 유격대에게 연행 후 총살되었음. 세 분 모두 시신은 수습하였음.
84	3625 3629 3642 3928 3635 3918 3628	김진배 (17)	2009.4.2. 강운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손봉수의 고모와 김영기의 숙모, 김종국의 조부, 김종철의 숙부는 1950년 11월 27일 동네 큰묵전이라는 밭 주변과 함평-나산 간 도로에서 총격에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고, 은순자의 남편 김병오와 모상오의 아버지 모성학은 백호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김맹수의 부 김영호는 최정환의 손가락 총에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하였으며,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음.
85	3964 3965	김종남 (20)	2009.4.2. 덕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만수와 이순화의 가족은 가족 중 입산자가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어 대동지서 문서고에 감금되었다가 경찰이 총살하였고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음.
86	3964	이돈석 (21)	2009.4.2. 덕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함평읍이 수복될 무렵부터 의용경찰로 근무하였음. 경찰이대동면 소재지인 덕산리 진주 후 토벌작전을 나가서 김만수의 가족을 잡아다가 문서고에 감금하였다가 총살하였음.
87	7997	김영율 (11)	2009.4.2. 덕산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인수는 마을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학을 가르쳤음. 1950년 12월 24일 경찰이 주민을 마을 어귀 텃밭에 집결시킨 뒤 김인수와 박해남을 불러내어 고산동 뒷산에서 총살하였음.
88	4268	이종례 (38)	2009.9.5.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었는데 경찰이 마을을 포위하고 반란군에게 협조하였던 조병식을 연행하러 왔었음. 조병식은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름이 같은 다른 조병식이 반란군과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에게 끌려가 고문 후 사망하였음. 아들 결혼일이 1950년 음력 3월 9일임.
89	10806	박병열 (15)	2009.3.30.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1949년 음력 7월 함평경찰서 경찰이 문동식의 아버지 문영수를 빨갱이로 몰아 연행하였는데 음력 7월 16일에 시신을 수습하였음. 그분은 마을 일을 보았던 분인데 경찰이 사상을 의심하여 죽였음.
90	7976	이영조 (20)	2009.4.23.무안농협망운지부	진술 조서	김상균은 전쟁 후 전쟁이 일어난 후 좌익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다 함평으로 피난한 사실을 알고 있음. 김상균의 동생 김천우는 현 노인회관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곳으로 연행되어 망운면 앞창포 모래사장에서 총살하였음.
91	4321	정영일 (32)	2009.4.23.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정판진의 아버지 정맹순은 재산이 많았고 정판진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내려와 마을 인민위원장이었음. 정판진은 인민군 점령기에 활동을 하였는데 수복 후 경찰에 연행되어 갑자기 사라졌음.
92	4270 4271 4272	정관욱 (18)	2009.6.15.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원선리에 살았는데 경찰의 소개명령에 월봉리 안영동으로 소개를 나갔지만 돌아가신 안기남 김해용 모우종은 월봉리 관동으로 소개를 나갔음. 그분들은 지서에서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주고 오다가 지서로 연행되었고, 총살되어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93	4432	김경수 (26)	2009.6.15. 월봉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조용순은 본인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음. 조용순은 동네에서 조화실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갑산 대보름 작전 뒤에 경찰이 연행하여 죽였음.
94	2938	장현철 (20)	2009.6.15.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김희일의 조모, 숙부는 한 동네에 살았음. 사건 당일 문장방향에서 군인 1개 중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었다면서 몽둥이로 구타하면서 명단을 보고 김희일의 숙부 김연식을 불러냈음. 항의하는 김희일의 조모를 먼저 살해하고 김연식도 총살하였음.
95	2831 2833 2836 2840 5606 6328	정제영 (5)	2008.9.26.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정춘석은 막내숙부인데 1949년 음력 1월 19일 해보지서 경찰이 연행하여 문장에서 밀재방향 저수지 둑에서 총살하였음. 정춘석의 진외가가 성대마을이었고, 약혼녀가 그곳에 있어 그곳에 있었는데 진외가에서 밀고하였음. 정삼석은 불갑산 대보름 작전이 끝난 5일 뒤쯤 나산면 용두리 회화정에서 경찰에 잡혀 총살시켰으며, 숙부 정한석은 인민군 점령기 나산면 치안대장을 하였는데, 나산에서 함평읍으로 가는 길목 덕림리 골짜기에서 정수석과 함께 총살되었음. 정제봉은 큰집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형님인데 나산면 초포리 저수지 부근 속칭 깡촌굴에서 총살하였음. 정제룡은 목포형무소에서 탈옥하였고, 정제봉은 불갑산 작전 뒤 경찰이 살해하였음.
96	6632 6745	진용호 (12) 최상만 (15)	2009.4.3.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진옥진은 종형인데 전쟁 전 해에 사망하였음. 진상식도 전쟁이 나기 전에 사망하였음. 진옥진은 건준 함평군 책임자였는데 지금으로 하면 함평군수 정도 되었음. 진옥진은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좌익사상이 들었음. 진상식도 좌익 활동을 하여 이곳저곳으로 쫓겨 다녔고 경찰에게 총살된 뒤 집안에서 시신은 수습하였음.
97	2831 2833 2836 2840 5606 6328	정제섭 (17)	2009.6.8. 용두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정제룡 정제봉은 사촌형님이고 정삼석 정한석 정춘석 형제는 당숙이며 정수석은 아저씨뻘임. 정삼석은 좌익 활동을 한 것이 없는데도 총살하였음. 집안에서 정제룡이 일제 강점기에 나주원예학교를 다녔는데 맨 처음 좌익 활동을 하였음. 정제룡이 신평리 진일랑과 회의하는 것을 보았음. 정제룡은 목포형무소에서 탈옥하여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정제봉은 형님 정제룡을 따라다니다 좌익 활동을 하였음. 정제봉은 불갑산 작전 무렵 불갑산 아래 깡치굴에서 총살되었음. 정삼석은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는데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경찰에 잡혀 총살되었음. 정춘석은 밤에 경찰에 잡혀 사망하였음. 정수석과 정춘석은 나산지서에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이 죽였음.
98	5606	이완영 (28)	2009.6.14. 용두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오관수는 용두리 석현에 살았는데 나이는 한 살 적었음. 이 부근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수복 무렵에 나쁜 짓을 많이 하였음. 오관수는 어디에서 잡힌지 모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형되었음. 오관수의 외종이 좌익 쪽에서 활동하였음. 신평리 진옥진은 좌익 거물이었음.
99	미신청인	김형수 (19)	2009.6.11.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영성은 산남리 용흥에 거주하였음. 군유산작전이 있던 날 피난을 갔다 온 뒤 김영성이 돌아오지 않아 군유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마을에서 군유산에 피난을 가서 죽은 사람은 김병선의 누나, 김영국의 형님 김영백은 승선마을 사거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100	미신청인	김영진 (22)	2009.6.11.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당일 군유산에 가던 중 경찰의 총격에 가다가 내려왔음. 여동생 김소선은 군유산에 피난 중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가족은 따로 피난을 가 여동생과 떨어져 있었음. 시신은 아버지가 수습함.
101	미신청인	나장균 (16)	2009.6.11.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형님 나상균은 인민군 점령기 인민위원회에 다녀 수복 무렵에는 북성리 사기에 있었음. 다음날 형님의 처가에 있었는데 밤중에 경찰이 연행하여 마을 앞에서 총살하였음.
102	미신청인	장성수 (2)	2008.6.10. 함평군청	진술 조서	1951년 2월 19일 군유산작전 때 함평과 영광경찰이 밀고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하였음. 군유산에서 경찰의 작전에 밀리다 아버지 장길석이 군유산 평암골에서 사망하였음. 사건 당시 월암산으로 피난을 하였던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함.
103	미신청인	김병선 (15)	2008.6.12. 함평군청	진술 조서	군유산작전 당시 손불면 산남리 용흥에 살았는데 누나 김소선이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군유산 중턱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음. 누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총알이 팔꿈치를 스쳤고 누나는 총에 맞았음.
104	미신청인	김영국 (3)	2008.5.23.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 김영백이 경찰의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2월 19일 피난을 갔다 내려오다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사거리에서 경찰에 잡혀 선별 후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고 들었음.
105	미신청인	나영주 (1950)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아버지 나상균은 손불면 동암리 벽초에 살았음.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처가인 영광군 군남면 석정리로 피하였는데 다음날 저녁 주민의 밀고로 경찰에 잡혀 석정마을 앞에서 총살당하였음.
106	미신청인	김문호 (17)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형님 김영성이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1951년 음력 1월 14일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살해되었음. 당일 경찰은 주포방향에서 들어오면서 작전을 하여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던 것임.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07	미신청인	박연순 (12)	2008.5.22. 함평군청	진술 조서	시부 장재록이 1951년 2월 19일 경찰의 군유산작전이 있었을 때 피난을 나갔다가 경찰에게 양재리 뒷산인 월암산 기슭으로 끌려가 총살되었음.
108	미신청인	박광수 (7)	2008.8.8. 부산해운대구청	진술 조서	아버지는 손불면 북성리 차경마을에 살았는데 경찰이 수복 후 처음 진주하였던 1950년 12월 12일 함평경찰서 경찰에게 차경마을 뒷산에서 총살되었음.
109	미신청인	박상규 (9)	2009.6.13.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할아버지 박내언이 경찰이 수복 후 처음 북성리에 진주하여 작전을 편 1950년 12월 12일 함평경찰서 기동대에게 살해되었고, 형님 박병규는 군유산작전이 있었던 다음해 2월 19일 사기마을 뒤 큰골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110	미신청인	박영태 (9)	2009.6.13.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학교에 다니기 전이었는데 음력 동짓달 4일 할아버지 박두식이 차경마을 부근인 군유산 아래 칡재에서 함평경찰서 기동대의 총격에 사망하였음.
111	미신청인	김병섭 (8)	2009.6.14.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1950년 12월 12일 소개명령으로 신광면 함정리 구봉에서 월암리로 피난 나왔는데 눈가래를 만들던 아버지 김일근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어머니가 수소문하여 1950년 12월 15일 가덕리 호덕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112	미신청인	김병선 (15)	2009.3.19.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김영백은 1951년 2월 19일 함평경찰서 기동대가 군유산작전을 할 때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앞 네거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으며 시신을 목격하였음. 군유산 중턱에서 내려와 북성리 사기마을 앞 대밭에서 다시 잡혀 군유산에 올라갔는데 경찰이 명단을 보고 불러내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한 쪽에서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그 뒤 경찰이 신광 방향으로 가는데 뒤로 빠져 승선마을 방향으로 올 때 네거리에서 시신을 목격하였음.
113	참고인	장갑순 (20)	2009.5.29. 산남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경찰이 처음 진주하자 영광군 염산면 복룡에 있었음. 장재록은 숙부이고 장길석은 형님임. 숙부는 사건 당일 장재동 뒷산에서 경찰이 연행하려고 하여 거부하자 총살하였고, 형님은 군유산 평암골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음.
114	참고인	안영환 (20)	2009.5.26. 북성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경찰의 진주작전이 있었던 1950년 12월 12일 경찰이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갔음. 내려오다 손불 북성 차경마을과 경계인 신광 송사 삼천동 중간 계곡에서 박영규의 시신을 목격함. 부근에서 박내언, 박두식의 시신도 목격함.
115	참고인	박병규 (14)	2009.3.19. 죽장리 마을회관	진술 조서	– 1951년 2월 19일 마을에 있던 무호대가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피난을 가라고 하여 피난을 갔음. – 마을 한 가운데에 5칸짜리 집에서 그곳을 본부로 삼았는데 그 자리가 박상규의 집 자리이고 북성리 171번지임. – 1950년 12월 12일 처음 경찰이 마을에 진주하였을 때는 마을에 불만 지르고 갔는데 그 뒤 반란군이 상주하였음. –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기존 이장이나 구장이 물러났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박동규가 그때부터 전면에 나섰음. – 군유산 중턱에서 승선마을까지 끌고 내려온 주민이 100~200명이었는데 분류하여 어린 사람은 내려가라고 하고는 나머지는 총살하였음. – 그곳에서 최병남과 김사병을 보았음.
116	참고인	김채섭 (23)	2008.8.21.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 18살에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나가자 면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접수하여 업무를 봤는데 당숙도 해방 전 소방대장이었는데 면사무소에 나갔음. – 전쟁 후 군유산에 빨치산이 나타난 것은 함평수복 이후였으며, 전쟁 전에는 여순사건 이전부터 불갑산 빨치산이 밤에 마을에 내려왔는데 대부분 총은 없었음. – 마을에 무장 빨치산이 나타난 것은 1948년 여순사건 다음해 군복을 착용한 완전무장한 빨치산 20명이 손불면 방향에서 불갑산으로 이동하였음. – 여순사건 다음해 8월 초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연번	관련사건	성명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949년 음력 7월 경 신광면 소재지에 국군 20연대 8중대가 주둔하였음. – 처음에는 8중대가 왔으나 그 후 5중대와 6중대가 자주 왔음. 6중대는 중대장이 광산김씨로 같은 성씨였음. – 1950년 가을 군경이 함평읍을 수복하였다는 말은 면 소재지에 있다가 마을에 들어온 주민으로부터 들었으며 며칠 뒤 군인들은 영광으로 이동하였음. – 이후 목포와 무안에서 올라온 빨치산 잔당 10여명이 있었는데 군유산에 있다가 날이 새면 불갑산으로 물러가곤 하였음. 1951년 2월 19일까지 이런 상태였음. – 군유산작전일에는 새벽 5시경 함정리 달봉산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이때부터 군유산에 피난을 가기 시작하였음. 군유산에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민들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음. – 군유산 계곡에 숨어 있으면서 주민이 경찰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117	참고인	이용헌 (18)	2009.6.12.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 목포공업학교 3학년으로 1950년 12월 12일 양재리에 경찰이 진주하였을 때는 양재리 장재동에 있었음. – 양재리는 함평 손불면과 영광 군남면의 경계인데 1950년 12월 12일 새벽 총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피난민은 함평방향으로 밀리고, 경찰은 영광방향에서 몰려왔음. – 집에서 나와 논두렁 가시덤불 속에 은신하다가 오후 3, 4시 경찰에게 발각되어 상막재로 끌려갔음. – 상막재에 주민 남자 50, 60명과 여자 30여 명이 집결되어 있었는데 그때 경찰유가족이 주민들을 선별하였음. – 선별기준은 경찰유가족이 이장, 한청대원 등을 선별하고 40대 후반도 노인이라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음. – 이후 경찰은 선별하고 남은 주민에게 총격을 가하였는데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살 수 있었음.
118	참고인	모원 (36)	2009.3.6.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 구국연맹 신광면 지부장이었으며, 전쟁이전 신광소학교 졸업 후 함평농장보습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였음. – 불갑산이 빨치산의 본부였다면 군유산은 지소 정도로 여순사건 이후부터 지방좌익 30여 명 정도가 있었음. – 신광면 소재지가 수복된 것은 1950년 11월 초였으며 신광지서는 계천리 계월에 있었고 함평읍이 수복되고 조금씩 좁혀 왔음. – 신광 소재지 수복 무렵 삼덕리 앞 서근다리에서 빨치산과 교전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빨치산이 다수 죽었음. – 군유산작전은 전남도경 보안과장이 지휘하였으며 함평경찰서 보안과장은 조홍현이었으며 신광지서장은 수복직후부터 나성남이었음. – 구국연맹 사무실은 경찰고지에 따로 있었는데 연맹원의 수는 7, 8명이었음.
119	보급부대원	임순배 (22)	2009.5.25. 해보 백양의집	진술 녹취	– 빨치산 보급부대원으로 선을 대주는 일을 하였는데 길을 개척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였음. – 손불면에서 군유산 밑에까지 벼를 지고 두 번 정도 갔는데 산에는 가지 않았음. – 빨치산 조직은 모르고 동네에 있으면서 연락하고 심부름을 하였음. 대동면 운교리 판교에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니 작전을 다녔음.

다. 경찰 측 참고인 조사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의 사건 지역 주변 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경찰, 의용경찰, 대한청년단원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경찰 측 참고인 조사

연번	이름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소속 신분	주요 진술
1	임봉섭 (20)	2008.9.21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함평 의경	– 군유산작전은 함평경찰서와 영광경찰서 기동대에 전남경찰국 기동대까지 참여하였음. – 본국 기동대는 1개 대대 병력이 300, 400명인데 최소 150명 이상이 군유산 작전에 참여하였음. – 군유산은 민간인들로 꽉 찼는데 함평경찰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하니 민간인을 산 고랑으로 몰아넣은 것임. 정보만 제대로 있었어도 피해는 줄었을 것임.
2	정금용 (16)	2007.12.6.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함평 경찰	– 경찰모집이 있었을 때 응모하여 의경이 되었는데 서장이 순경으로 뽑아서 기동대에서 근무하였음. – 함평 수복 무렵 경찰 70, 80명이 와 일부는 대동면 정창까지 갔는데 다시 퇴각하였다가 3일 후에 들어왔음. 수복당시 기동대는 100여 명이었는데 증원되었음. – 당시 기산봉엔 빨치산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싸울 수가 없었음. –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이장이었음. 형사계에서 마을에 밀대를 두고 정보를 받았는데 잘못 주면 엉뚱한 사람이 다쳤음.
3	오정인 (23)	2008.9.22.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함평 경찰	– 김진철은 불갑산 대보름 작전 이후에 월야지서 형사로 사복근무를 하였음. 김진철의 처가가 인민군 점령기에 피해를 보았음. – 김진철이 김일동을 죽였는데 김일동은 인민군 점령기에 많은 피해를 준 사람임.
4	김재수 (20)	2009.3.17.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손불 한청 대원	– 형님 김재성이 향보단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였는데 반란군에 살해되었음. – 큰형 김재봉은 구국연맹 손불면 지부장이었는데 경찰과 함께 토벌작전을 하였음. 둘째형 김재룡은 한청단장이었으며 손불면 호적주임을 하였던 셋째형님은 징용을 갔다 왔는데 동네에 굴을 파고 숨어있었음. – 손불면이 수복된 것은 정월 보름 무렵이었으며, 동짓달 4일 작전에도 짐을 지고 경찰을 따라다녔음. – 군유산작전은 합동작전으로 신광, 손불지서 뿐만 아니라 영광 경찰까지 참여하였으며 당시 손불지서장은 한길수였음. – 군유산작전에 한청으로 참여하였지만 무기가 없어 앞장을 서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름.
5	김석주 (20)	2009.8.4. 함평군청	진술 조서	대한 청년 단원	– 해보지서 주재형사 유영하가 권유하여 대한청년단원을 하다 의용경찰로 복무하였음. – 신광지서 대한청년단장은 백인선이고 동생 백윤선은 단원이었음. 신광지서장 나성남도 백인선 형제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랐음. – 신광지서에서 작전을 나갔던 경찰은 수복 후에는 김재일, 박만원 등이며 지서단위 작전은 지서장은 나가지 않고 차석이 나갔음. – 신광지서에선 수복 후 2년 정도 근무하였음.
6	송영문 (18)	2009.8.5.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함평 의경	– 함평수복 후 경찰서에서 훈련을 받고 기산봉에 막사를 지어놓고 근무를 하다 대동지서로 발령이 났는데 1950년 말부터는 지서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였음. – 당시 대동지서장은 경상도 사람이었음. 불갑산 작전에는 나이가 있고 체구가 큰 사람만 참여하였음. – 대동지서에 있던 1951년 1월 초, 형사 한 명이 입산자 가족을 조사하고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음. – 판교마을에는 반란군이 있어 자주 작전을 나갔는데 의경, 경찰, 한청 등 10명 정도였음. 마을에는 주로 노인들만 있었음. – 강운리 방향으로는 마을을 소개하여 작전을 나가지는 않았음. 영수교 보초는 함평경찰서 관할이었음.
7	정복수 (29)	2009.8.5. 참고인 자택	진술 녹취	함평 경찰	– 함평경찰서 경찰이 후퇴할 때는 낙오하여 후퇴하지 못하다 인민군들에게 잡혀 광주형무소에 수감됨. 이후 인민군들이 물러날 때 파옥하고 나왔음.

연번	이름 (당시나이)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소속 신분	주요 진술
					- 병과가 통신이라서 개별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통신계는 전신주 수리하는 게 주요임무였음.
8	김균배 (19)	2009.8.6. 함평군청	진술 조서	함평 경찰	-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다 후퇴 직전인 1950년 7월 19일 함평에 왔음. 아버지가 구장을 하여 마을에 가지 못하고 고모 댁에 피신하였음. - 음력 정월 8일 반란군 청년단원 안병문에게 잡혀 불갑산으로 끌려가 사형선고를 받고 용천사 앞 운암마을 토굴에 있었음. - 군유산에는 작전 다음날 갔는데 시신만 보았으며, 불갑산 작전 일에는 군유산으로 후퇴를 하였다가 불갑산으로 돌아왔음. 이후 조계산으로 후퇴하였다가 경찰토벌대에게 잡혔음. - 소재지 대행동 고모 댁에 있었을 때 낮에 왕래하면서 보았는데 군유산에서 반란군을 볼 수 없었고 단지 무안 사람들이 경찰에 쫓겨 와서 갈 데가 없이 있었음. - 1950년 12월 12일 작전에는 양재리 장재동 주민이 대행동까지 피난을 나왔는데 그때 경찰이 주민들을 주포까지 데려다 총살하였음. - 1950년 12월 12일 작전은 현지 경찰과 경상도에서 온 기동대였음. 기동대는 해병대였는데 인정사정없었음. 당시 손불지서 경찰력은 100명 정도였으며 지서장은 한길수였음. - 주포사건은 음력 동짓달 초 반란군과 경찰의 전투가 있었는데 반란군의 주포 점령 소식을 듣고 석창리 주민이 밥을 가지고 주포지서로 가다가 경찰을 반란군으로 착각하여 "동무"라고 하여 발생하였음.

라. 자료조사

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3, 199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빨치산 자료집』 3권 문건편(3)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Ⅰ(1951.1.10~4.30.)를 참조하였다.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는 빨치산의 동향, 경찰과 빨치산과의 교전 내용을 한국경찰이 보고하여 이를 미군이 정리한 문서이다.

이 자료집 247쪽에는 1951년 2월 19일 전남남도경찰국 기동대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의 빨치산 토벌작전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② 함평군,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 2006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희생자 피해연구보고서』(이하 피해연구보고서)는 함평군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한국현대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러나 피해연구보고서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 3개 면을 제외한 1읍 5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피해연구보고서는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정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한하여 활용하였다.

③ 호남신문사, 『호남신문』, 1948.7~1949.12.15.

광주지역에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발간된 일간지로서 한국전쟁 이전 사건 조사에 참조하였는데, 함평지역에서 있었던 '공비(共匪)토벌작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1949년 2월 22일과 3월 1일자 호남신문은 같은 해 2월 20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 6명과 의용경찰 2명 등 8명이 전사한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④ 재판관련 기록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국가보안법,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의 포고 2호, 형법 등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전쟁전후 활동이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⑤ 전라남도경찰국, 『1950·1951 인사사령부』

1950년과 1951년의 전라남도경찰국 관내의 경찰관 인사이동에 관한 문서이다. 인사사령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참조하였다.

⑥ 제적등본

진실규명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조사에 활용하였는데 함평군 관내 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한국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어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자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적등본에 사망자 등이 사실에 맞게 기재된 경우는 본문에 서술하였다.

⑦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7.3.부터 2009.10.20.까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참조하였는데 각각의 진실규명 결정일과 사건명은 다음과 같다.

○ 함평11사단사건, 2007. 7. 3, 진실규명결정.
○ 함평양림사건, 2007. 10. 23, 진실규명결정.
○ 함평수복작전민간인희생사건, 2008. 4. 14, 진실규명결정.
○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2008. 12. 16, 진실규명결정.
○ 전라남도국민보도연맹사건3(함평·해남·완도군), 2009. 8. 25, 진실규명결정.
○ 함평지역적대세력에의한희생사건, 2009. 10. 20, 진실규명결정.

2) 주요 규명과제별 입증사실

(1) 희생자 확인 근거와 희생자 수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 및 희생자 수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 신청인으로부터 제적등본[297]을 제출받아 사망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한 후 ①희생사실 목격에 대한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 ②희생사실에 대한 제3자 전문(傳聞) 진술이 있는 경우로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희생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①희생자가 군유산 등 사건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②군유산 등지에 피난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진입 이후 군유산에서 목격되었으나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③1951년 2월 19일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망경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는 희생 추정으로 하였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경우 유

297) 함평군은 면사무소와 지서가 빨치산의 습격에 소실된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 상의 사망일자도 실제 사망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조사에 있어 제적등본은 대상자의 실존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족이 있는 경우는 유족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사건 당시 거주 면사무소로부터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위의 방법으로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84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41명이다.

3)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유대홍 외 224명 이상의 주민이 1948년 10월 22일부터 1951년 7월 10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엄다면 등에서 군유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및 국군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살해되었다.

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는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토벌작전'이 끝난 직후 군유산과 그 인근에서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게 되면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빨치산 등 좌익세력의 선전에 피난을 나왔던 배복치 등을 살해하였다. 또한 경찰은 군유산 토벌작전 다음날 손불면 학산리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시켰다가 "여자들이 없으니 밥이 조금 늦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민 백판준 등을 현장에서 살해하였으며, 한국전쟁이전인 1948년과 1949년에도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월야면 용정리 양윤초 등을 살해하였다.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225명이다. 이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84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인방(宋仁坊·다-421), 임양욱(任良郁·다-1051), 전무남(田茂男·다-1531), 이대근(李大根·다-1532), 김수복(金壽福·다-2235), 조기형(趙基衡·다-2241), 김경수(金京洙), 김용운(金容雲·이상 다-2242), 천기순(千基淳·다-2295), 노동준(盧東俊), 김은곡(金隱谷·다-2296), 이중순(李仲巡·다-2298), 정길성(丁吉聲·다-2300, 4312), 박종해(朴鍾海·다-2301, 4313), 김재현(金在炫·다-2303, 4309), 김광현(金光炫·다-2304, 4310), 최인림(崔仁林), 김○○(이상 다-2305), 노상근(盧相根·다-2612), 정천석(丁千石·다-2616), 배복치(裵伏峙·다-2618), 박용화(朴用化), 박용호(朴龍虎), 박용봉(朴用鳳·이상 다-2738), 김감산(金甘産·다-2739), 임매동(林每同·다-2740), 안춘길(安春吉·다-2741), 안순자(安順子), 안판례(安判禮·이상 다-2742), 정춘석(鄭春錫·다-2831), 정삼석(鄭參錫·다-2836), 정한석(鄭漢錫·다-2840), 서영상(徐永相), 서유상(徐有相·이상 다-2863), 주반계(朱磻溪), 김연식(金連植·다-2938), 윤춘식(尹春植), 윤춘하(尹春夏·이상 다-2956), 이발산(李發山), 박○○, 김○○(이상 다-3365), 김동열(金東烈·다-3619), 채수영(蔡洙榮·다-3624), 손소하기(孫小河其·다-3625), 곽인수(郭仁壽·다-3627), 김영호(金永皓·다-3628), 최양례(崔良禮·다-3629), 임용택(林龍澤), 임진택(林辰澤·다-3634), 김병오(金炳午·다-3635), 김남보(金南甫·다-3639), 김순금(金順今·다-3640), 김봉규(金奉奎·다-3642), 심의대(沈宜大), 심택용(沈澤用·이상 다-3645), 김희권(金熙權·다-3649), 노연순(魯蓮順), 김학기(이상 다-3651), 최명덕(崔明德), 배금술(裵今述·이상 다-3654), 모성학(牟成學·다-3918), 이계병(李啓柄·다-3921), 김광열(金光烈·다-3928), 조효순(趙孝順), 박동순(朴東順), 이이순(李利淳), 이○○, 이○○(이상 다-3964), 조병식(趙炳植·다-4268), 안기남(安基南·다-4270), 김해용(金海龍·다-4271), 모우종(牟佑鍾·다-4272), 이봉열(李鳳烈·다-4273), 배재고(裵在古), 배재만(裵在萬·이상 다-4274), 모종술(牟鍾述·다-4275), 김동운(金東雲), 김정연(金正連·이상 다-4276), 남삼자(南三者·다-4277), 모양선(牟良先·다-4279), 양칠석(梁七錫·다-4285), 모용배(牟瑢培·다-4286), 이경민(李京敏·다-4288), 모일기(牟

日基·다-4289), 강태원(姜太元), 모평댁, 정일순, 김○○(이상 다-4302), 배창년(裵昌年·다-4303), 이영옥(李永玉·다-4304), 강금례(姜金禮·다-4305), 강대원(姜大元·다-4314), 정맹순(丁孟順), 정판진(丁販鎭·이상 다-4321), 최복덕(崔福德·다-4417), 이재화(李載華·다-4418), 박태종(朴泰鍾·다-4419), 박진구(朴鎭求·다-4425), 강성문(姜成文·다-4426), 이부현(李富玄·다-4427), 김서현(金瑞鉉·다-4428), 김영균(金寧均·다-4429), 조용순(趙龍順·다-4432), 송한용(宋漢用·다-4561), 유대익(劉大益·다-4562), 박윤휴(朴允休·다-4563), 김복순(金福順·다-4565), 김수복(金洙福), 박운득(朴云得·이상 다-4566), 이상용(李尙用·다-4567), 배동원(裵東源·다-4682), 김장수(金長洙·다-4684), 장동환(張東煥·다-4687), 김천수(金千洙·다-4688), 모우범(牟佑範), 모우봉(牟佑奉·이상 다-4691), 문봉순(文鳳順·다-4936), 백병인(白炳寅·다-4989), 이상길(李相吉·다-5097), 신연여(申蓮女), 이창식(李昌植·이상 다-5098), 김연옥(金淵玉·다-5099), 김병호(金炳浩·다-5101), 박준수(朴準洙·다-5306), 윤진병(尹震炳·다-5313(1)), 정제봉(鄭濟鳳·다-5606), 정재두(鄭載斗·5607), 장동섭(다-5608), 양윤초(梁潤楚·다-5611), 장성환(다-5615), 노가임(魯嘉任·다-6297), 정항수(丁伉秀·다-6300), 정수석(鄭壽錫·다-6328), 정판근(鄭判根·다-6335), 배열교(裵烈敎·다-6570), 진상식(陳相植·다-6632), 이재중(李載仲·다-6732), 정철연(鄭喆衍·다-6733), 이봉온(李奉溫·다-6738), 정병선(丁丙善·다-6739), 진옥진(陳玉振·다-6745), 조동선(趙東先·다-7284), 김판동(金判東·다-7287), 정동일(鄭東一·다-7288), 심의석(沈宜錫·다-7289), 김대자(金大者), 김우현(金宇鉉·이상 다-7290), 강대현(姜大鉉·다-7292), 공정엽(孔正燁·다-7794), 김인수(金仁洙), 박해남(이상 다-7997), 김광숙(金光淑·다-8080), 황장술(黃章述·다-8488), 장길선(張吉善·다-8489), 송무웅(宋武雄·다-8492), 서균선(徐均先·다-8848), 이동준(李東俊·다-10217), 심희택(沈檜澤), 정상례(鄭尙禮), 심○○(이상 다-10795), 배성유(裵成酉), 배이식(裵以植·다-10797), 채만택(蔡萬澤·다-10801), 김현수(다-10802), 문영수(文永洙·다-10806), 백판준(白判俊·다-10812), 전경복(全敬福·다-10813), 박종인(朴鍾仁·다-10814), 김소금(金小今), 모복님(牟福任·다-10815), 조상술(曺相述·다-10816), 배공리(裵孔鯉·다-10848), 배창묵(裵昌默·다-10850)이며, 미신청 사건의 희생 확인은 김영백(金永栢), 김소선(金小仙), 나상균(羅尙均), 장재록(張在綠), 백대윤(白大允), 박균경(朴均慶), 김판중(金判仲), 김일근(金一根), 김복수(金福洙), 김영태(金永台), 김남수(金南洙) 등이다.

또 희생 추정자는 41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만수(韓萬洙·다-2297), 주단임, 박균신(朴均臣), 박○○(이상 다-2302), 김관섭(金官燮), 박막동(朴莫同·이상 다-2306), 전병일(全炳鎰·다-2614), 최병열(崔丙烈·다-2615, 3653), 이길준(李吉俊·다-3617), 김정남(金正南), 김종성(이상 다-3650), 노광영(盧光永·다-3652), 이재용(李在龍·다-3878), 이판술(李判述·다-4281), 조성신(曺成信·다-4282), 전연상(全連相·다-4283), 전홍범(全洪範), 전홍섭(全洪燮·이상 다-4284), 정병대(丁丙大·다-4306), 최재욱(崔在郁·다-4307), 강대식(姜大植), 강재환(姜在煥·이상 다-4314), 정복현(鄭福鉉·다-4420), 문재동(文載東·다-4431), 김석현(金石鉉·다-4940), 이형식(李熒植·다-5098), 이금범(李金範·다-5311), 진귀식(陳貴植·다-6632), 이종진(李鍾振·다-6738), 정재인(鄭載仁·다-6744), 김상균(金尙均·다-7976), 전주현(全舟鉉·다-8490), 남천댁(다-10803), 심화선(沈華銑), 심봉섭(沈捧燮·이상 다-10804), 박강진(朴康辰·다-10817)이며, 미신청 사건의 희생 추정은 김영성(金永成), 박영규(朴永圭), 박두식(朴斗植), 박내언(朴來彦), 장길석(張吉錫) 등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채산수(蔡山水·다-10801)는 부상을 입고 생활하다가 1981년에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희생자 225명 중 여성이 35명(15%)이었으며, 10세 이하와 51세 이상도 37명(16%)이었

다. 또 사망 당시의 직업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185명이었지만 상업 5명, 학생 4명, 공무원 3명, 교사 3명이었다. 공무원에는 전임 면장도 있었으며, 대학생으로서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왔다가 주민들의 권유로 마을의 인민위원장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 또는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살해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남도경찰국장 ⇒ 영광·함평경찰서장이었으며, 국군은 제4연대장과 제20연대장이었는데 20연대는 제6여단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협조자로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함평지역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 된 이 사건의 희생자뿐 아니라 한국전쟁발발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함평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사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는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복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史' 및 『함평군사』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추가하는 것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인, 경찰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 지역도 1> 손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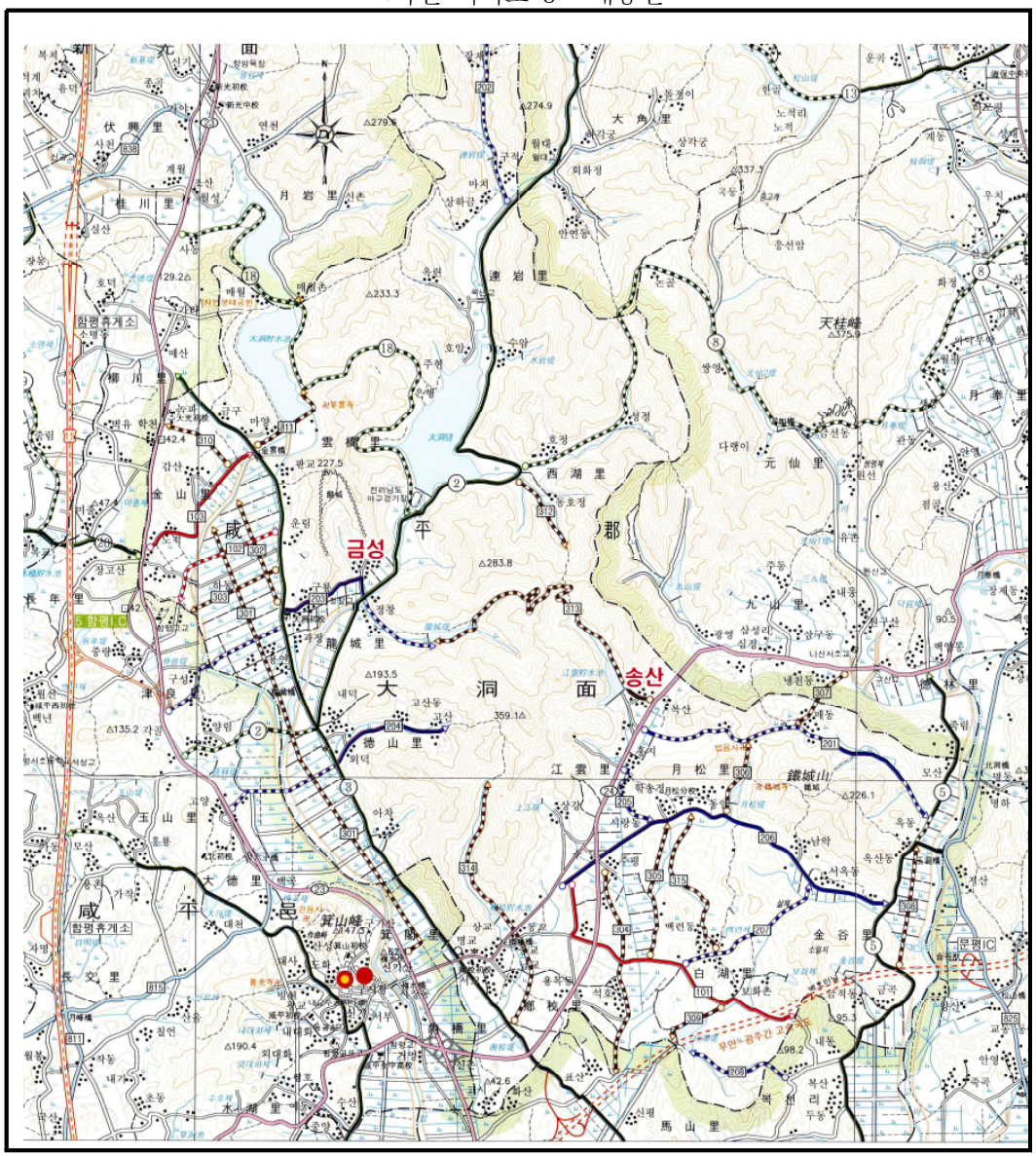


위쪽은 1950년 12월 12일 미수복지역

<사건 지역도 2> 신광면


사간
군유산
송계
松 士 里
냉천
삼천동
北 成 里
東 井 里
新 光 面
三 德 里
伏 興 里
경찰고지
月 岩 里
梅 川 里
車馬山
林峰山
竹 長 里
柳 川 里
金 山 里
雲 橋 里
連 岩 里
大 田 里
龍 岩 里
建武山
自 秘 里
牛 谷 里
咸 井 里
浦 余 里
老僧山
白雲山
함평휴게소
5 함평I.C

<사건 지역도 3> 대동면


금성
송산
大洞面
咸平郡
咸平邑
月岩里
雲榕里
西湖里
龍城里
德山里
江雲里
月松里
金谷里
白湖里
馬山里
天柱峰
鐵城山
咸평휴게소
함평휴게소
문평IC

<사진 1>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



<사진 2> 군유산 정상



6.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0년 6월 25일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사상불순자로 낙인찍어 사상교도차원에서 조직한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보도연맹원들을 경찰서 또는 인근 군부대에서 소집하여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6·25전쟁 전 함평군내 보도연맹원은 500—7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가운데 200—300명가량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함평경찰서에 의해 연행되어 함평여중(현 함평교육청)강당에 예비 구금되었다. 이들은 3차에 걸쳐 희생되었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3개소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1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1950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바다(신안군 비금면 인근바다)의 전남경찰국 경비선 상에서 사살된 후 시신들은 바다로 던져졌다. 2차는 인민군이 함평에 들어오기 2일전인 1950년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재에서 사살되었다. 3차는 인민군이 함평읍내에 들어오던 날인 7월 23일 대동면 강운리와 나산면 구산리 사이 넙태잔등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보도연맹 희생자로 밝혀진 사람은 모두 82명이다. 이 같이 희생자로 밝혀진 인원이 추정희생자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기간 중 신청사실을 몰랐거나 그 동안의 피해의식 때문에 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조사대상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다. 당초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신청자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모두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0년 4월로 임박함에 따라 신청자만이라도 완료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다음은 2009년 8월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함평군내 보도연맹원 희생자 조사결과에 대한 명예회복 및 조사불능자 결정문이다. 당초 이 결정문은 함평·해남·완도 등 3개 군을 묶어 전라남도 제3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문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남·완도군의 내용(명단)이 너무 많고 『함평군사』 에 타군의 것을 게재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함평군 내용만 게재했다. 그러나 여타 사항은 타군의 것이라도 차후 보도연맹 연구 또는 인식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대로 놔두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사 건】 다-3621호 외 215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해남·완도군-

【신청인】 이계행 외 207명

【결정일】 2009. 8. 25.

【주 문】

다-3621호 외 211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해남·완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 한다.

다-1052호 외 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 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 한다.

【이 유】

1). 사건 및 조사 개요

(1) 신청사건 개요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08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내경찰이 진실규명 대상자들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 한 후 1950년 7월 경 관내에서 학살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전원위원회(2006.10.10.)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결을 하고 그 이후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2.13.)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해남·완도군-으로 분류된 것은 총 217건[298]으로 그 현황은 각 군별 신청사건 개요 표와 같다.

(2) 조사대상

이 결정서의 사건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이다.

이 사건의 조사대상은 이 지역 민간인들 중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경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로 의심받아 예비검속 된 이후 희생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0일 창립된 이후 이듬해 3월경까지 각 지역의 지부가 조직되었던 전국 규모의 조직이었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 후퇴기에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규모의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고 살해에 관한 명령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졌으며 한강

298) 총 217건 중 희생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으로 앓다가 최근 몇 년 전 사망한 함평군 주민 정만우(다-4695호)는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216건이다. 정만우(다-4695호)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남의 전국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고 전쟁 당시 군경의 민간인 불법 살해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권력에 의한 전시 좌익 혐의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역사를 바로잡는 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구금과 대규모 집단희생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 등 국가권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원형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이후 인민군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중요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4)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예비검속과 희생 경위, 가해 주체,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5) 조사방법

조사는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 규명과제 중 희생경위, 희생규모 및 희생자 신원 등은 각 시·군 단위별로 조사하였다. 신청기간 경과 후에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경우와 조사과정 중 희생자로 드러난 경우는 희생규모와 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가. 자료 조사

① 경찰자료

○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경찰서 『경찰기본대장』, 「경찰연혁사」

– 한국전쟁 발발 후 각 경찰의 전투과정, 후퇴과정, 수복 후 상황 등은 살필 수 있으나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

○ 완도경찰서 「신원기록 성별목록」(완도경찰서, 1981. 4. 2. 생산)

– 한국전쟁 전후 완도군 민간인 희생자를 성별(姓別) 분류 후, 현존 227명, 시찰 314명, 부재232명, 처형 323명으로 구분한 총 1,096명의 한자(漢字)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해방 후 좌익활동과 한국전쟁 부역 혐의로 체포되거나 자수한 사람들 중에서 기록 당시까지 △생존자는 '현존' △보안처분대상자와 관찰보호자는 '시찰' △수복 당시 피난 후 생사불명 된 사람은 '부재' △사살이나 처형 된 사람은 '사살'이나 '처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살·처형의 명령자·집행자, 일시·장소, 법적 근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완도경찰서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완도경찰서, 1984. 9. 28. 생산)

– 한국전쟁 전후 완도군 민간인 희생자를 읍·면별 분류 후, 현존, 시찰, 부재, 처형(사살)으로 구분하여 총 1,160명의 이름, 주소를 수록하고 있는데 1,160명 중 사살·처형된 사람은 모두 323명이다. 323명은 「신원기록 성별목록」의 처형자 323명과 같은 사람들이다.[299]

– 동 자료는 완도경찰서 보안계가 관리하고 있는 존안(存案) 자료로서 원적과 본적이 완도군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신원기록 성별목록」과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의 사살·처형자 323명[300] 중 '완도군 보도연맹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된 희생자 27명[301]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중 성명이 밝혀진 사람 7명[302]을 포함하고 있다.

② 군(郡) 자료

○ 『함평군사』(함평군, 1999), 『해남군사』(해남군, 1995)

○ 『莞島郡誌』(완도군, 1977), 『莞島郡誌』(완도군지편찬위원회, 1992), 『莞島郡政 50年史』(완도군, 1994)

–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침입과 인민군 점령시기 각 군의 피해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해남군사』에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철수 이전 7월 20일 께 보도연맹원 일제 소집령 내려졌고, 1946년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대다수인 이들 해남지역 보도연맹원은 당시 600여명이었는데, 수감된 보도연맹원의 전원사살이라는 초기방침을 문종식[303]의 만류로 1차로 석방하였다가 경찰 후퇴가 결정된 24일 재소집하여 50여 명의 보도연맹원이 사살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③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함평군, 2006)

– 함평군이 (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전남대)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 함평군(월야·해보·나산면 제외)의 민간인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859명의 피해자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91명(함평읍 2명, 대동면 30명, 손불면 37명, 엄다면 3명, 학교면 19명)의 성명, 성별, 직업, 연령, 사망일, 가해자, 사망장소, 거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함평군 보도연맹원 500명~700명 정도가 함

299)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의 사살·처형자 읍·면별 현황(단위:명)

계	군외면	완도읍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생일면	소안면	노화읍	보길면	청산면
323	7	51	27	68	48	25	12	7	16	38	3	21

300) 사살·처형자 323명 중 '나주경찰부대 사건'(2007.10.23. 진실규명결정) 11명,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68명(2009.2.16. 진실규명), '전남 서남부민간인 희생 사건' 4명(2007.4.20. 진실규명·불능결정),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3명, '국민보도연맹 사건' 27명 등 총 113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되었고 210명은 미신청이다.

301) 김태문(4603호), 최창래(4602호), 문승수(882호), 박갑주(881호), 이두신(1788호), 김응담(9319호), 양성길(6249호), 이시우(10722호), 배기섭(2560호), 배길섭(2562호), 유광호(7899호), 장재표(7900호), 김양호(7903호), 박승춘(2525호), 조창선(2535호), 조창구(2534호), 장영효(2522호), 김남순(754호), 박만수(885호,=박종빈), 박광수(746호), 박복수(763호), 안규섭(755호), 김인철(4378호), 정병규(758호,=정병채), 이홍용(773,4호), 김석홍(3028호), 이수산(6028호) 등 27명.

302) 고금면 봉성리 김자정, 김자신, 약산면 해동리 박형식, 약산면 관산리 김광호, 득암리 김인수, 소안면 비자리 이구산, 노화읍 동천리 권상철 등 7명.

303) 문종식은 일제강점기 때 경찰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민의원에 출마하였다. 그는 '보복이 보복을 부른다'고 설득하여 보도연맹원의 희생을 막았다. 이 공로로 인공치하 해남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인민군 퇴각 시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5~556쪽)

평경찰서에 구금되어 희생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④『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해남신문사, 2005)

–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까지 해남군의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1946년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대부분 해남군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하고 갈매기섬에서 희생 된 보도연맹원 수에 관한 여러 설, 시신수습과정, 희생자들의 특징, 갈매기 섬이 알려진 계기 및 상황, 언론 보도내용 등을 담고 있다.

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유해발굴 보고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9. 3)

– 해남군 보도연맹원 희생지로 알려진 진도군 갈매기섬 유해발굴 보고서로 △부위 식별이 가능한 뼈대 299점 중 왼쪽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가늠 할 수 있는 개체 수는 19구 △땅 속에 매장되지 않았고, 높은 열에 의해 훼손된 상태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발굴결과 사망자가 50~60명이라 추정하고 있다.

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기초사실조사 – 전남 완도군'(2008)(이하 기초사실조사)

–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뢰로 완도군 관내 읍·면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실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중 4명[304]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조사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거주지, 희생장소와 증언자의 성명, 연령, 연락처, 거주지, 희생자와의 관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 조사

신청인 217명을 2007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진술조서, 면담보고서), 전화조사(통화보고서)이며, 조사내용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신원, 연행·희생과정, 희생이유 및 가해자 그리고 시신수습 여부 등 이다. 조사 상황은 각 군별 <신청인 조사 상황> 표와 같다.

다. 참고인 조사

신청인 측 참고인과 경찰 측 참고인, 사건 발생 현장 등을 목격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 등을 2007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 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에 접수 하지 못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중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도 희생규모와 사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상황은 각 군별 <참고인 조사 상황> 표와 같다.

라. 현장 조사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의 사건 발생 현장과 각 경찰서 및 구금 장소, 희생 장소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2). 조사 결과

304) 4명 중 2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되어있고 2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중 성명을 확인한 사람이다.

(1)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조직 및 활동과 가입 경위

서울에서 1949년 6월 전국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됨에 따라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은 1949년 12월 13일 개최되었고[305], 이듬해인 1950년 1월 8일경 광주형무소 재소자 중 사상 전향자 선서식을 개최하였다.[306] 『호남신문』(1949.12.25.)의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은 1949년 12월 13일 오후 1시 전라남도 회의실에서 李전남도지사, 金검찰청장 외 다수의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경찰국 사찰과장 이만흠의 사회로 연맹의 강령·규약 등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폐회하였다.

아울러 결성식에서는 각 군·면 보도연맹의 중앙집권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군·면 조직은 지방단위로 자치적으로 결성하기로 하였고 주요 임원을 결정하였다.[307]

한편,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지도위원장 김영천은 1950년 3월 '보련의 따듯한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독려하였다.[308] 이후 전남 보도연맹 기관지 '구국자'를 발간하였다.[309]

각 군별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함평군의 경우, 1948년 10월 여순사건 후 일련의 무장부대가 함평군에 왔고 여기에 함평군 주민 일부가 합세하여 불갑산, 군유산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군경토벌대가 불갑산과 군유산 토벌 작전을 하면서 이 산 근처의 손불·신광·대동·해보·월야·나산면 주민들은 밤에는 야산대에게, 낮에는 토벌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중 일부가 야산대에게 식사와 식량을 제공한 후 경찰에 적발되거나 자수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보도연맹 가입 경위를 보면 △동조하여 함께 활동(전선절단 사건 등) △빨치산을 따라(혹은 강제적으로) 입산 후 하산 △식사 및 식량 제공 △토벌대에 관한 제보(토벌대가 마을에 오면 봉화를 올려 빨치산에게 알림) △빨치산 은거에 도움(마을에 비밀 아지트를 마련하여 은거시킴)을 주는 등의 활동을 한 후 '자수하면 용서해준다'는 경찰의 권유로 자수와 함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10] 이외에도 가족, 친척의 좌익활동 경력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311]

---

305) 「호남신문」, 1949.12.25.

306) 「조선일보」, 1950.01.18. "광주형무소에서는 지난 8일 동 형무소광장에서 수감죄수(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사상전향자 선서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날까지의 전향자는 총 900명 중 63명이라 한다."

307) 당일 결정된 전남도 보도연맹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장 김영천 △지도부위원장 기세훈·김상봉 △명예이사장 이남규 △이사장 김상봉 △상무이사 이만흠 △간사장 국호렬 △총무국장 이덕우 △사무국장 최동문 △보도부장 지정선 △훈련부장 최창진 △선전부장 손기채 △조직부장 염세열 △사업부장 신태익.

308) 「동아일보」, 1950.03.16. "국민보도연맹은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조직을 충실히 하고 공비군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무근한 낭설이 유포되고 있어 지난 2일 전남보련 지도위원장 김영천씨는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수호와 좌익매국도배의 근멸을 목적으로 발족한 보도연맹은 나날이 그 사업이 발전되며 도연맹에서는 기관지 「구국자」를 발간하여 맹원들을 온정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맹원을 강제수용한다느니 벽지징용을 계도한다느니 송침을 한다느니 무근한 허언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부잔존한 좌익분자들이 모략으로써 맹원들의 투지○조상하여 본 연맹의 사업을 방해하려함이니 일반은 이에 현혹치 말기를 바라며 아직 가맹치 않은 ○들은 빨리 수속한 후 보련의 따듯한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309) 「동아일보」, 1950.03.16.

310) 신청인 이계행 등 진술조서(2009.2.10.)

311)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해남군의 경우, 194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추수봉기'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농민시위가 해남농민위원회의 주도로 해남군 일원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지서와 출장소가 파괴되고 시위대 및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경찰이 충남부대 등 외부 경찰서의 지원으로 가담자 체포에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두륜산, 달마산 등지로 입산하였고 체포된 사람들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에 석방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데 해남지역 보도연맹원은 600여 명에 이르렀다.[312] 특히 산이면 상공리 희생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데[313]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완도군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 전 좌익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었는데[314]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무조건 가입시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315], 경찰이 나서서 가입을 독려하자 보도연맹에 가입되면 어디도 보내주고 무엇도 시켜준다고 하여 가입하면 좋은 단체인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316] 보도연맹원은 완도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시국강연을 듣고 제식훈련 등을 받거나 부정기적인 소집에 응하였다.[317]

(2) 함평군

가. 신청사건개요

조사 개시된 사건 중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74건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사건 개요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희생자	거주지	성별	출생	신청인과의 관계	
1	2006.01.17	711	노병선	노상원(魯相元)	함평읍 옥산리	남	1912	부	
2	2006.01.16	728	장대섭	장연식(張練植)	대동면 서호리	남	1909	부	
3	2006.02.09	1052	박기권	박윤기(朴允基)	신광면 가덕리	남	1918	형	
4	2006.03.08	2240	김경자	김주천(金柱千)	손불면 석창리	남	1910	부	

312) 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3쪽.
313) 오홍탁은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 산이면 지부장으로 실형을 살았고, 해방 후 공주형무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박영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 해남신문사, 2005, 250쪽)
314)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6.14.)
315) 참고인 ○○○ 진술조서(2008.8.3.). 소안면 ○○○은 예비검속 되어 소안지서 옆 창고에 구금 중 풀려났는데, 자신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16) 약산면 관서리 청년단장 ○○○ 진술조서(2008.3.27.); 신지면 신청인 김종석 진술조서(2008.2.21.)
317) 약산면 ○○○ 진술조서(2008.3.27.)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희생자	거주지	성별	출생	신청인과의 관계	
5	2006.03.13	2307	임영수	임부길(任富吉)	신광면 동정리	남	1911	숙부	
6	2006.03.22	2609	정경원	정종량(鄭鍾亮)	해보면 해보리	남	1919	부	
7	2006.03.22	2613	이정자	이영순(李永淳)	신광면 동정리	남	1925	시숙	
8	2006.03.23	2643	김재호	김삼봉(金三峯)	나산면 우치리	남	1924	부	
9	2006.04.06	2855	김연수	김동열(金東烈)	나산면 우치리	남	1925	부	
10	2006.04.07	2864	이완영	이정영(李正永)	나산면 용두리	남	1929	동생	
11	2006.04.07	2865	오우선	오판선(吳判善)	나산면 용두리	남	1925	형	
12	2006.05.23	3621	이계행	이계혁(李啓赫)	함평읍 가동리	남	1924	형	
13	2006.05.23	3622	이재환	이주범(李周範)	함평읍 가동리	남	1927	부	
14	2006.05.23	3637	유대홍	유갑진(劉甲振)	손불면 죽암리	남	1902	부	
15	2006.05.23	3638	김병순	김규남(金珪南)	손불면 죽암리	남	1907	시부	
16	2006.05.23	3641	모두홍	모종섭(牟鍾燮)	손불면 양재리	남	1920	부	
17	2006.06.13	3926	장형수	장화식(張和植)	함평읍 진양리	남	1918	부	
18	2006.06.13	3927	장순철	장영식(張永植)	함평읍 진양리	남	1923	조부	
19	2006.06.13	3935	김천기	김영술(金泳述)	나산면 용두리	남	1927	숙부	
20	2006.07.10	4280	김양길	김치국(金致局)	손불면 학산리	남	1914	부	
21	2006.07.12	4308	김정기	김영섭(金永燮)	신광면 송사리	남	1925	양부	
22	2006.07.24	4423	김병학	김동섭(金東燮)	손불면 학산리	남	1928	부	
23	2006.07.24	4424	최병채	최동철(崔東喆)	손불면 학산리	남	1915	부	
24	2006.08.09	4682(1)	배정묵	배동관(裵東琯)	손불면 학산리	남	1919	부	
25	2006.08.09	4692	김한철	김철주(金鐵柱)	신광면 계천리	남	1930	형	
26	2006.08.09	4693	정연섭	정기우(鄭基祐)	신광면 계천리	남	1921	숙부	
27	2006.08.09	4694	이덕희 (이옥만)	이남우(李楠雨)	신광면 월암리	남	1933	숙부 (동생)	
28	2006.08.09	4695	정연섭	정만우(鄭萬祐)	신광면 계천리	남	1915	부	
29	2006.08.25	4941	임용호	임종범(林鍾範)	신광면 복흥리	남	1910	부	
30	2006.08.25	4943	박용배	박이주(朴二柱)	함평읍 자풍리	남	1915	부	
				박사주(朴四柱)	함평읍 자풍리	남	1922	숙부	
31	2006.08.25	4945	김봉현	김상호(金相浩)	신광면 계천리	남	1920	숙부	
32	2006.09.08	5103	장문기	장달섭(張達燮)	월야면 월계리	남	1928	숙부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희생자	거주지	성별	출생	신청인과의 관계	
33	2006.09.08	5104	장우섭	장화식(張化植)	월야면 월계리	남	1908	부	
34	2006.09.08	5105	박병현	박병석(朴炳錫)	월야면 월계리	남	1917	형	
35	2009.09.19	5208	이귀임	이계섭(李啓燮)	나산면 구산리	남	1923	남편	6299호와 같은 사건
36	2006.09.28	5304	이관범	이계일(李啓日)	해보면 대창리	남	1917	부	5316호와 같은 사건
37	2006.09.28	5305	김병일	김봉근(金鳳根)	신광면 함정리	남	1920	숙부	
38	2006.09.28	5308	정귀례	김종섭(金宗燮)	해보면 대창리	남	1920	남편	
39	2006.09.28	5309	윤성중	윤낙중(尹洛重)	해보면 대창리	남	1920	형	
				윤환중(尹桓重)	해보면 대창리	남	1927	형	
40	2006.09.28	5310	안유순	강인수(姜仁秀)	해보면 대창리	남	1924	시숙	
				강점수(姜点秀)	해보면 대창리	남	1928	남편	
41	2006.09.28	5313	윤석곤	윤한중(尹漢重)	해보면 대창리	남	1926	부	
42	2006.09.28	5314	윤도중	윤호병(尹浩炳)	해보면 대창리	남	1898	부	
43	2006.09.28	5315	윤진철	윤점병(尹点炳)	해보면 대창리	남	1930	형	
				윤흥병(尹興炳)	해보면 대창리	남	1927	형	
44	2006.09.28	5316	이홍범	이계중(李啓中)	해보면 대창리	남	1923	부	
				이계일(李啓日)	해보면 대창리	남	1917	백부	5304호와 같은 사건
45	2006.09.28	5317	이순옥	이완범(李玩範)	해보면 대창리	남	1925	부	
46	2006.09.28	5318	서기덕	서금두(徐金斗)	신광면 계천리	남	1918	백부	
47	2006.09.28	5319	서기덕	서판두(徐判斗)	신광면 계천리	남	1924	부	
48	2006.10.04	5502	나대주	나병현(羅丙鉉)	함평읍 가동리	남	1913	부	6301호 같은 사건
49	2006.10.26	6298	나병희	나정주(羅正柱)	손불면 죽장리	남	1925	부	8295호와 같은 사건
50	2006.10.26	6299	이귀임	이계섭(李啓燮)	나산면 구산리	남	1923	남편	5208호와 같은 사건
51	2006.10.26	6301	나대주	나병현(羅丙鉉)	함평읍 가동리	남	1913	부	5502호와 같은 사건
52	2006.10.26	6304	김용보	김복수(金福守)	신광면 함정리	남	1908	숙부	
53	2006.10.26	6305	서태열	서상열(徐相烈)	대동면 금곡리	남	1924	형	
54	2006.10.26	6330	유병채	유인식(兪仁植)	나산면 용두리	남	1926	부	
55	2006.11.06	6541	임봉덕	임기윤(林基潤)	학교면 월산리	남	1911	부	
56	2006.11.13	6730	심기윤	심진택(沈鎭澤)	신광면 동정리	남	1925	양부	
57	2006.11.13	6731	김영선	김대열(金大烈)	신광면 동정리	남	1910	부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희생자	거주지	성별	출생	신청인과의 관계	
58	2006.11.22	7279	채학웅	채판석(蔡判錫)	학교면 월산리	남	1917	부	
59	2006.11.22	7280	안종선	안기원(安基源)	월야면 예덕리	남	1930	부	
60	2006.11.22	7281	조양순	조귀손(趙貴孫)	월야면 월계리	남	1921	부	
61	2006.11.22	7282	조태원	조복열(趙福烈)	월야면 월계리	남	1915	부	
62	2006.11.22	7283	조영구	조동식(趙東植)	월야면 예덕리	남	1919	부	
63	2006.11.22	7285	안군실	안석수(安錫洙)	월야면 예덕리	남	1931	부	
64	2006.11.23	7521	정안기	정준기(鄭俊基)	함평읍 자풍리	남	1926	형	
65	2006.11.29	8295	나동주	나정주(羅正柱)	손불면 죽장리	남	1925	사촌형	6298호와 같은 사건
66	2006.11.23	8486	정관철	정종란(鄭鍾蘭)	신광면 함정리	남	1930	숙부	
67	2006.11.30	8758	정대웅	정휴철(鄭休哲)	해보면 해보리	남	1923	부	
68	2006.11.30	8835	정병일	정병섭(鄭炳燮)	해보면 해보리	남	1917	형	
69	2006.11.30	10793	김덕봉	김부덕(金富德)	해보면 문장리	남	1910	부	
70	2006.11.30	10805	심성호	심기남(沈棋南)	신광면 동정리	남	1923	백부	
71	2006.11.30	10808	김홍빈	김홍금(金洪金)	해보면 금덕리	남	1931	형	
72	2006.11.30	10818	박용재	박소자(朴小者)	월야면 용암리	남	1910	부	
73	2006.11.30	10821	조종기	조성갑(趙誠甲)	함평읍 내교리	남	1924	숙부	
74	2006.11.30	10827	윤완병	윤요병(尹堯炳)	해보면 상곡리	남	1923	종형	

나. 조사현황

① 진술 조사와 현장 조사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청인 70명 중 64명[318]과 신청인 측 참고인 41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함평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추정 되는 사람의 후손·친인척 8명도 조사하였다. 조사 상황은 <표 2>와 같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당시 함평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관 2명과 목포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관 2명 그리고 목포형무소에 근무했던 교도관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상황은 <표 3>과 같다.

또한, 예비검속 되어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되었다가 나산면 넙태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생존 보도연맹원과 월야면 국민보도연맹 총무를 지낸 사람을 중요한 참고인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상황은 <표

318)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신청서로 대체하였고 조사를 거부 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4>와 같다.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함평군, 2006)(이하 '피해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91명의 희생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마을 주민 16명을 전화로 조사하였다.

예비검속 된 사람들이 구금 되었던 함평군 함평읍 소재 옛 함평여중(현재의 함평교육청 자리)과 옛 목포형무소를 조사하였고, 예비검속 된 사람들이 희생된 장소로 알려진 학교면 얼음재, 나산면 구산리 넙태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아울러 희생장소 인근 마을 주민, 희생장소에 가서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조사결과

① 사건 배경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함평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군정이 시작된 얼마 후 '함평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미군정이 실시되어 1946년 3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보안서장이 교체되었다. 이에 대해 인민위원회와 함평 농민조합, 청년동맹 등은 미군정에 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후 일련의 무장부대가 함평군에 왔고 여기에 함평군 주민 일부가 합세하여 불갑산, 군유산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군경토벌대가 불갑산과 군유산 토벌 작전을 하면서 이 산 근처의 손불·신광·대동·해보·월야나산면 주민들은 밤에는 야산대에게, 낮에는 토벌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중 일부가 야산대에게 식사와 식량을 제공한 후 경찰에 적발되거나 자수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보도연맹 가입 경위를 보면 △동조하여 함께 활동(전선절단 사건 등) △빨치산을 따라(혹은 강제적으로) 입산 후 하산 △식사 및 식량 제공 △토벌대에 관한 제보(토벌대가 마을에 오면 봉화를 올려 빨치산에게 알림) △빨치산 은거에 도움(마을에 비밀 아지트를 마련하여 은거시킴)을 주는 등의 활동을 한 후 '자수하면 용서해준다'는 경찰의 권유로 자수와 함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19]

야산대는 1949년 겨울 국군 20연대의 토벌로 대부분 활동력을 잃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가 인민군에 점령되었고 같은 날 함평경찰은 후퇴 길에 올랐으나 전남 동부지역이 인민군에 의해 차단되어 완도군 일대로 후퇴하여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후퇴하였다.

② 사건경위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함평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 하여 함평경찰서와 당시 함평여중(현재의 함평교육청 자리) 강당에 구금하였다. 구금 된 사람은 3회에 걸쳐 세 곳에서 희생되었다.

1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1950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 바다(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다)의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선상에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졌고[320], 2차는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

319) 신청인 이계행 등 진술조서(2009.2.10.)

재[321]에서, 3차는 7월 23일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넙태[322]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 중 넙태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 온 노기현은 "함평군 보도연맹원 중 갑종은 각 지서에 감금되었다가 함평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후 목포에서 수장되었고, '죄라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을종, 병종을 지칭함)은 함평여중에 수용하였다가 얼음재와 넙태에서 희생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323]

먼저 목포시 인근 바다(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넙태와 얼음재에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이른 1950년 6월 말 소집·연행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는 특징이 있는데, 함평읍에서 예비검속 되어 목포형무소를 거쳐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희생된 노종숙의 아들 노진곤은 "부친이 집에서 함평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이 목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주어 목포형무소로 갔다. 목포형무소에서 간수로 일하고 있던 부친의 이종동생을 만났는데 그가 '노종숙을 형무소에서 보았고 함평에서 이송되어 온 보도연맹원들이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수장되었다.'라고 알려주어 부친의 희생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종은 목포, 을종은 얼음재, 병종은 넙태에서 희생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324]

아울러 함평군 나산면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목포형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은 "한국전쟁 발발 후부터 후퇴 전(1950년 7월 23일) 사이 어느 날 아침, 목포, 무안, 함평 등 목포형무소 관할 지역 보도연맹원 수 백 명이 목포형무소 운동장으로 경찰에 의해 끌려왔다. 끌려 온 보도연맹원 중 고향(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친구 나승엽(1924년생, 보도연맹에 가입)이 있어서 그와 대화를 하였다. 나승엽이 '함평에서 예비검속 되어 목포형무소로 끌려 왔다. 이곳에 수감되면 잘 부탁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보아 끌려 온 보도연맹원은 목포형무소 운동장에 대기 중일 때 까지도 목포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는 줄 알았지 처형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연맹원이 목포형무소로 끌려온 당일 밤 모두 어디론가 실려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로 실려 나가서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325]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목포경찰서 ○○○에 근무하였던 ○○는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3일 후퇴 전 어느 날, 목포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목포시를 포함한 인근지역 연맹원)을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금강호'에 싣고 신안군 비금면 인근 해상으로 이송한 후 선상에서 총살 후 바다에 수장시켰다. 해군기지사령부, CIC, 목포경찰서가 합동작전으로 보도연맹원을 처리하였다. 희생된 보도연맹원 전체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 명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326]

320) 참고인 노진곤 진술내용 녹음(2009.2.10.)
321) 목포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어지는 1번 국도 상에 위치. 함평군청에서 약 11km지점에 위치. 신청인 정안기 진술조서(2008.9.11)
322) 함평읍에서 장성군(광주광역시)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 상에 위치. 함평군청에서 약 6km지점에 위치.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323)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324) 참고인 노진곤 진술내용 녹음(2009.2.10.)
325)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7.29)
326)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7.29)

함평읍에서 예비검속 되어 학교면 얼음재에서 희생된 정준기의 시신을 수습한 정안기는 "형정준기가 예비검속 되어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되었는데, 구금 중이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가 나산면 넙태에 갔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주민들의 '학교면 얼음재로 트럭 2대에 사람들을 싣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시체 두 무더기 속에서 형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327]

신광면에서 예비검속 되어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 중 나산면 넙태로 끌려갔으나 희생을 면한 노기현은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 중 나산면 넙태로 트럭 12대에 태워져 끌려갔다. 한 사람씩 뒤로 손을 묶고 다시 3명씩 연결 시켰는데 트럭에 구금 된 사람과 경찰 3~4명이 함께 탔다. 넙태에 차량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사살했는데 3인을 한 조로 하여 앞으로 걷게 한 후 경찰이 뒤에서 총을 쐈다."라고 진술하였다.[328]

이들이 연행소집 된 것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였고[329] 이들이 구금 중 대부분의 가족들은 식사를 나르거나 면회를 하였다.[330] 목포형무소를 거쳐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사실은 경찰의 언질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면회를 다녀 온 유가족에 의해 알려졌고[331], 함평군 관내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사실은 넙태에 끌려갔으나 총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 난 노기현(신광면 계천리, 현재 생존) 등에 의해 알려졌다.[332]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얼음재[333]와 넙태[334]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③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신원과 특징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함평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은 총 82명이다.

△함평읍 가동리 이계혁(다-3621호), 이주범(다-3622호), 나병현(다-5502호, 다-6301호), 옥산리 노상원(다-711호), 진양리 장화식(다-3926호), 장영식(다-3927호), 노종숙(미신청), 자풍리 정준기(다-7521호), 정곽채(미신청), 박이주박사주(이상 다-4943호), 조성갑(다-10821호)

△학교면 월산리 임기윤(다-6541호), 채판석(다-7279호)

△대동면 금곡리 서상열(다-6305호), 서호리 장연식(다-728호)

327) 신청인 정안기 진술조서(2008.9.11.)
328)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329) 참고인 김화생 등 진술내용 녹음(2009.3.11.)
330) 신청인 노상원 등 진술내용(2009.3.10.)
331) 참고인 노진곤 진술내용 녹음(2009.2.10.)
332)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333) 신청인 정안기 진술내용(2008.9.11.)
334) 신청인 이계행 등 진술조서(2009.2.10.)

△신광면 동정리 임부길(다-2307호), 이영순(다-2613호), 심진택(다-6730호), 심기남(다-10805호), 김대열(다-6731호), 계천리 김철주(다-4692호), 정기우(다-4693호), 김상호(다-4945호), 서금두(다-5318호), 서판두(다-5319호), 월암리 이남우(다-4694호), 김봉근(다-5305호), 김복수(다-6304호), 정종란(다-8486호), 복흥리 임종범(다-4941호), 송사리 김영섭(다-4308호)

△손불면 죽암리 유갑진(다-3637호), 김규남(다-3638호), 모종섭(다-3641호), 김치국(다-4280호), 배동관(다-4682-1호), 김동섭(다-4423호), 나정주(다-8295호, 다-6298호)

△나산면 용두리 이정영(다-2864호), 오판선(다-2865호), 유인식(다-6330호), 김인호(미신청), 김영술(다-3935호), 구산리 이계섭(다-5208호, 다-6299호), 우치리 김삼봉(다-2643호), 김동열(다-2855호)

△해보면 대창리 김종섭(다-5308호), 윤낙중·윤환중(다-5309호), 윤호병(다-5314호), 강인수·강점수(다-5310호), 윤점병·윤흥병(다-5315호), 이완범(다-5317호), 이계일(다-5304호, 다-5316호), 이계중(다-5316호), 윤한중(다-5313호), 금덕리 김홍금(다-10808호), 문장리 김부덕(다-10793호), 상곡리 윤요병(다-10827호), 해보리 정종량(다-2609호), 정만휘, 정동택(이상 미신청), 정휴철(다-8758호), 정병섭(다-8835호), 용산리 이정범, 윤무병, 윤상담(이상 미신청)

△월야면 월계리 장달섭(다-5103호), 장화식(다-5104호), 박병석(다-5105호), 조귀손(다-7281호), 조복열(다-7282호), 예덕리 안기원(다-7280호), 조동식(다-7283호), 안석수(다-7285호), 용암리 박소자(다-10818호), 김갑성(미신청), 계림리 이재식(미신청)

△엄다면 화양리 박남석(미신청).

한편 진실규명 신청사건 중 신청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박윤기, 다-1052호),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최동철, 다-4424호),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김주천, 다-2240호) 등 3명은 희생사실을 밝힐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며, 희생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으로 앓다가 사망한 정만우(다-4695호)는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중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성명이 밝혀진 사람의 경우 그 후손이나 친인척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만 희생자로 포함하였다. 바다에서 희생되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은 참고인의 진술이 뒷받침 되고 당시의 실종사실이 보도연맹 사건관련 희생임이 분명한 경우는 희생자로 포함하였다.

한편, '피해연구 보고서'에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91명의 거주지 마을, 성명, 나이, 성별, 직업,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형태와 증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서 사건 진실규명에 활용하였다. 진실규명자 및 불능자 명단은 <표 5>와 같다.

<표 5> 진실규명자 및 불능자 명단

연번	사건 번호	신청인/ 미신청유족	희생자			판단근거			판단 결과
			성명	성별	출생	참고인 진술	시신수습	기타	
함평읍									
1	3621	이계행	이계혁	남	1924	○	○		확인
2	3622	이재환	이주범	남	1927	○	○		확인
3	5502 6301	나대주	나병현	남	1913	○	×	수장추정	확인
4	711	노병선	노상원	남	1912	○	○		확인
5	3926	장형수	장화식	남	1918	○	×	수장추정	확인
6	3927	장순철	장영식	남	1923	○	×	수장추정	확인
7	미신청	노진곤	노종숙	남	1913	○	×	수장추정	확인
8	7521	정안기	정준기	남	1926	○	○		확인
9	미신청	정영화	정곽채	남	1916	○	○		확인
10	4943	박용배	박이주	남	1915	○	○		확인
11			박사주	남	1922	○	○		확인
12	10821	조종기	조성갑	남	1924	○	×	수장추정	확인
학교면									
13	6541	임봉덕	임기윤	남	1911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14	7279	채학웅	채판석	남	1917	○	○		확인
대동면									
15	6305	서태열	서상열	남	1924	○	○		확인
16	728	장대섭	장연식	남	1909	○	×	수장추정	확인
신광면									
17	1052	박기권	박윤기	남	1918	×	○	신청인 사망으로 조사못함	불능[335]
18	2307	임영수	임부길	남	1911	○	○		확인
19	2613	이정자	이영순	남	1925	○	○		확인
20	6730	심기윤	심진택	남	1925	○	○		확인
21	10805	심성호	심기남	남	1923	○	○		확인
22	6731	김영선	김대열	남	1910	○	○		확인
23	4692	김한철	김철주	남	1930	○	○		확인
24	4693	정연섭	정기우	남	1921	○	○		확인
25	4695		정만우	남	1915	○	–	생존자	각하
26	4945	김봉현	김상호	남	1920	○	○		확인
27	5318	서기덕	서금두	남	1918	○	○		확인
28	5319		서판두	남	1924	○	○		확인
29	4694	이옥만	이남우	남	1933	○	○		확인
30	5305	김병일	김봉근	남	1920	○	○		확인
31	6304	김용보	김복수	남	1908	○	○		확인
32	8486	정관철	정종란	남	1930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33	4941	임용호	임종범	남	1910	○	○		확인
34	4308	김정기	김영섭	남	1925	○	○		확인
손불면									
35	3637	유대홍	유갑진	남	1902	○	○	제적부 사망 기록 단기4283.6.7.	확인
36	3638	김병순	김규남	남	1907	○	○		확인

연번	사건 번호	신청인/ 미신청유족	희생자			판단근거			판단 결과
			성명	성별	출생	참고인 진술	시신수습	기타	
37	3641	모두홍	모종섭	남	1920	○	×	수장추정	확인
38	4280	김양길	김치국	남	1914	○	○		확인
39	4682(1)	배정묵	배동관	남	1919	○	○		확인
40	4423	김병학	김동섭	남	1928	○	○		확인
41	4424	최병채	최동철	남	1915	×	모름	신청인이 조사거부	불능[336]
42	6298 8295	나병희 나동주	나정주	남	1925	○	○		확인
43	2240	김경자	김주천	남	1910	×	○	신청인 사망으로 조사불능	불능[337]
나산면									
44	2864	이완영	이정영	남	1929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45	2865	오우선	오관선	남	1925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46	6330	유병채	유인식	남	1926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47	미신청	김병선	김인호	남	1919	○	○		확인
48	3935	김천기	김영술	남	1927	○	○		확인
49	5208 6299	이귀임	이계섭	남	1923	○	○		확인
50	2643	김재호	김삼봉	남	1924	○	×	수장추정	확인
51	2855	김연수	김동열	남	1925	○	○		확인
해보면									
52	5308	정귀례	김종섭	남	1920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53	5309	윤성중	윤낙중	남	1920	○	○		확인
54			윤환중	남	1927	○	○		확인
55	5314	윤도중	윤호병	남	1898	○	○		확인
56	5310	안유순	강인수	남	1924	○	×	수장추정	확인
57			강점수	남	1928	○	○		확인
58	5315	윤진철	윤점병	남	1930	○	○		확인
59			윤흥병	남	1927	○	○		확인
60	5317	이순옥	이완범	남	1925	○	×	수장추정	확인
61	5304 5316	이관범	이계일	남	1917	○	○		확인
62	5316	이홍범	이계중	남	1923	○	×	수장추정	확인
63	5313	윤석곤	윤한중	남	1926	○	×	수장추정	확인
64	10808	김홍빈	김홍금	남	1931	○	×	수장추정	확인
65	10793	김덕봉	김부덕	남	1910	○	○		확인
66	10827	윤완병	윤요병	남	1923	○	○		확인
67	2609	정경원	정종량	남	1919	○	○		확인
68	미신청	김연식	정만휘	남	1909	○	○		확인
69	미신청	정동광	정동택	남	1915	○	○		확인
70	8758	정대웅	정휴철	남	1923	○	○		확인
71	8835	정병일	정병섭	남	1917	○	○		확인
72	미신청	이대범	이정범	남	1927	○	×	수장추정	확인
73	미신청	윤권병	윤무병	남	1925	○	○		확인
74	미신청		윤상담	남	1905	○	×	수장추정	확인
월야면									
75	5103	장문기	장달섭	남	1928	○	○		확인
76	5104	장우섭	장화식	남	1908	○	○		확인

연번	사건 번호	신청인/ 미신청유족	희생자			판단근거			판단 결과
			성명	성별	출생	참고인 진술	시신수습	기타	
77	5105	박병현	박병석	남	1917	○	×	수장추정	확인
78	7281	조양손	조귀손	남	1921	○	○		확인
79	7282	조태원	조복열	남	1915	○	○		확인
80	7280	안종선	안기원	남	1930	○	×	수장추정	확인
81	7283	조영구	조동식	남	1919	○	○		확인
82	7285	안군실	안석수	남	1931	○	○		확인
83	10818	박용재	박소자	남	1910	○	×	현장에 갔으나 못 찾음	확인
84	미신청	김을성	김갑성	남	1924	○	○		확인
85	미신청	김옥님	이재식	남	1931	○	○		확인
엄다면									
86	미신청	박규석	박납석	남	1930	○	○		확인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1948년과 1949년 사이 불갑산과 군유산 일대의 입산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짐을 날라 주는 식의 도움을 준 후 경찰에 자수하거나 체포되었다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직업과 나이 등이 파악된 71명을 보면 함평군에서 농업(97%)에 종사하던 20~30대(82%)가 대부분으로 모두 남성(100%)이었다.

나) 희생자 수

관내 지서, 함평경찰서, 목포형무소를 거쳐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외에 희생자 수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 등이 없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 중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30명이다.

학교면 얼음재에서 희생된 사람 역시 관내지서를 거쳐 함평여중에 구금 후 희생되었는데 그곳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 희생자 수를 추정할 별다른 자료는 없다. 조사결과 얼음재 희생자 중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3명이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나산면 넙태 희생자 중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95명이다. 그러나 함평여중 강당에서 구금되었다가 넙태로 끌려가서 총상을 입고 살아 온 노기현의 진술과 또 다른 넙태 생존자 정만우가 아들에게 해준 전언으로 보아 일부 생환자를 제외하면 희생자는 2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참고인 노기현은 "함평여중 강당에 소집된 보도연맹원은 222명이었다. 하루에 두 번씩 인원점검을 했는데 내가 맨 끝번인 222번이라서 정확히 기억한다. 구금 중 나산면 사람 3명이 석방되었고 남은 219명이 나산면 넙태로 끌려갔다. 219명 중 나를 포함하여 정만우, 김정수 처럼 총상만 입은 생존자가 몇 명 있으나 희생자는 200여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함평군이 (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전남대)에 의뢰하여 조사한 '피해연구 보고서'의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91명(함평읍 2명, 대동면 30명, 손불면 37명, 엄다면 3명, 학교면 19명. 월야해보·

335) 사건 신청인이 사망하여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336) 사건 신청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337) 사건 신청인이 사망하여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참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나산면 제외)이다.

이들 91명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촉가능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한 결과 희생시기와 희생장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희생시기는 1950년 7월, 희생장소는 목포시 인근 바다, 나산면 넙태, 학교면 얼음재)와 일치하는 사람은 63명이다. 63명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5명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중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성명이 밝혀진 6명 등 11명을 제외하면 52명이다.

'피해연구 보고서'의 91명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보이는 63명의 현황은 <별첨 1>과 같다.

결국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결과 성명이 밝혀진 134명과 '피해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52명을 합친 186명[338] 이기에 함평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최소 186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넙태 생존자 노기현, 정만우의 증언과 시신을 수습 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함평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대략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나산면 넙태에서 희생을 면한 사람은 12명으로 파악되는데 그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나산면 넙태에서 희생을 면한 사람 현황

성명	거주지	생존 후 상황	비고
노기현	신광면 계천리	현재 생존	노기현 진술
정만우		약 8년 전 사망	
김정수		인민군 점령기 때 인민위원회에서 활동 후 수복 때 입산	
심기호	신광면 함정리	약 10년 전 사망	모동진 진술
윤귀중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최근 몇 년 전 사망	윤금중 진술
강재풍	해보면 기밀마을	최근 몇 년 전 사망	조종기 진술
장귀채	월야면 은암리 은암마을	수복 때 불갑산으로 입산하여 토벌대에게 희생	김화생 진술
이석동	월야면 용정리 용수마을	최근 몇 년 전 사망	
강천식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	최근 몇 년 전 사망	
이동촌		최근 몇 년 전 사망	
정기환	월야면 외치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생존여부 불분명	김문현 진술
정영수	함평읍 자풍리	상당기간 살다가 사망	박용배 진술

다) 가해자 소속·신원

이 사건의 가해행위자는 함평경찰과 해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임이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함평경찰서 ○○○ 소속 경찰관 ○○○은 "듣기로 함평경찰이 후퇴하면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전쟁 발발 직후 소집하여 나산면 넙태에서 사살하였다고 한다. 재판 등의 절차는 없었고 전체 희생규

338) 희생자의 성명, 성별, 거주지, 희생장소 등을 확인하였다. 이중 5명의 희생장소는 불분명하다.

모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339]

아울러, 함평경찰서 ○○지서에 근무하였던 ○○○은 "후퇴 직전 함평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사살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1950년 6월말 경부터 7월 20일경까지 보도연맹원을 연행하여 함평경찰서에 수감시켰는데 ○○지서에서는 보도연맹원 10여명을 함평경찰서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340]

한편, 함평군 나산면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목포형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은 "한국전쟁 발발 후부터 후퇴 전(1950년 7월 23일) 사이 어느 날 아침, 목포, 무안, 함평 등 목포형무소 관할 지역 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목포형무소 운동장으로 경찰에 의해 끌려왔다. 끌려 온 보도연맹원 중 고향(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친구 나승엽(1924년생, 보도연맹에 가입)이 있어서 그와 대화를 하였다. 나승엽이 '함평에서 예비검속 되어 목포형무소로 끌려 왔다. 이곳에 수감되면 잘 부탁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보아 끌려 온 보도연맹원은 목포형무소 운동장에 대기 중일 때 까지도 목포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는 줄 알았지 처형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연맹원이 목포형무소로 끌려온 당일 밤 모두 어디론가 실려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로 실려 나가서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341]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목포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였던 ○○는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3일 후퇴 전 어느 날, 목포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목포시를 포함한 인근지역 연맹원)을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금강호'에 싣고 신안군 비금면 인근 해상으로 이송한 후 선상에서 총살 후 바다에 수장시켰다. 해군 기지사령부, CIC, 목포경찰서가 합동작전으로 보도연맹원을 처리하였다. 희생된 보도연맹원 전체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 명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342]

3).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함평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200~300여 명을 예비검속 하여 함평경찰서와 당시 함평여중(현재의 함평교육청 자리) 강당에 구금하였다. 구금 된 사람은 3회에 걸쳐 세 곳에서 희생되었다. 1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1950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 바다(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다)의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선상에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졌고, 2차는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재에서, 3차는 7월 23일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넙태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이계혁(다-3621호)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82명이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이계혁(다-3621호), 이주범(다-3622호), 나병현(다-5502호, 다-6301호), 옥산리 노상원

339)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6.14.)
340) 참고인 ○○○ 면담내용(2006.9.12.)
341)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7.29)
342)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7.29)

(다-711호), 진양리 장화식(다-3926호), 장영식(다-3927호), 노종숙(미신청), 자풍리 정준기(다-7521호), 정곽채(미신청), 박이주박사주(이상 다-4943호), 조성갑(다-10821호) **△학교면** 월산리 임기윤(다-6541호), 채판석(다-7279호) **△대동면** 금곡리 서상열(다-6305호), 서호리 장연식(다-728호) **△신광면** 동정리 임부길(다-2307호), 이영순(다-2613호), 심진택(다-6730호), 심기남(다-10805호), 김대열(다-6731호), 계천리 김철주(다-4692호), 정기우(다-4693호), 김상호(다-4945호), 서금두(다-5318호), 서판두(다-5319호), 월암리 이남우(다-4694호), 김봉근(다-5305호), 김복수(다-6304호), 정종란(다-8486호), 복흥리 임종범(다-4941호), 송사리 김영섭(다-4308호) **△손불면** 죽암리 유갑진(다-3637호), 김규남(다-3638호), 모종섭(다-3641호), 김치국(다-4280호), 배동관(다-4682-1호), 김동섭(다-4423호), 나정주(다-8295호, 다-6298호) **△나산면** 용두리 이정영(다-2864호), 오판선(다-2865호), 유인식(다-6330호), 김인호(미신청), 김영술(다-3935호), 구산리 이계섭(다-5208호, 다-6299호), 우치리 김삼봉(다-2643호), 김동열(다-2855호) **△해보면** 대창리 김종섭(다-5308호), 윤낙중윤환중(다-5309호), 윤호병(다-5314호), 강인수강점수(다-5310호), 윤점봉윤흥병(다-5315호), 이완범(다-5317호), 이계일(다-5304호, 다-5316호), 이계중(다-5316호), 윤한중(다-5313호), 금덕리 김홍금(다-10808호), 문장리 김부덕(다-10793호), 상곡리 윤요병(다-10827호), 해보리 정종량(다-2609호), 정만화정동택(이상 미신청), 정휴철(다-8758호), 정병섭(다-8835호), 용산리 이정범윤무병윤상담(이상 미신청) **△월야면** 월계리 장달섭(다-5103호), 장화식(다-5104호), 박병석(다-5105호), 조귀손(다-7281호), 조복열(다-7282호), 예덕리 안기원(다-7280호), 조동식(다-7283호), 안석수(다-7285호), 용암리 박소자(다-10818호), 김갑성(미신청), 계림리 이재식(미신청) **△엄다면** 화양리 박남석(미신청) 등 82명.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82명을 포함하여 조사과정 중 밝힌 전남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성명은 186명이다.

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함평군 주민 3명(박윤기. 다-1052호·김주천, 다-2240호·최동철, 다-4424호)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라. 가해주체는 함평군 사건은 함평경찰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해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 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시하의 민간인을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집단살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에 진실화해위원

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령·추모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생현장 주변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희생지는 주민화해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등 희생자와 관련된 공적 기록에 사망 날짜, 사망 장소 및 사망 이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사실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의 결정을 보완·추가하여 관련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郡지' 등에 이 사실을 등재하여 지역 공동체가 진실을 기억하게 하며 특히, 군과 경찰 등 해당부처는 '연혁사', '부대사' 등의 기록물에 사건 내용을 싣도록 적극 노력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하여 전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1.

'피해연구 보고서(함평군)' 중 보도연맹원 사건 희생자로 거론 된 사람 63명[343]

		피해연구 보고서의 내용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항	
읍면	연번	이름	연령	시기	희생장소	거주지	증언자	확인한 사항
읍	1	장화식	33세	1950.7.23	넙태	진양리 양림마을	-	신청사건 3926호
	2	장영식	27세	1950.7.23	넙태		-	신청사건 3927호

343) 91명 중 희생시기, 희생장소로 보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보이는 63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58명(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되어 있는 5명 제외)의 희생사실을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된 5명(연번 1, 2, 17, 30, 43번)과 미신청이나 조사 중 성명이 밝혀진 6명(연번 9, 18, 42, 52, 53, 57번)을 포함하고 있다.

읍면	연번	피해연구 보고서의 내용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항	
		이름	연령	시기	희생장소	거주지	증언자	확인한 사항
대동면	3	배득만	29세	–	–	용성리	박재선 (같은 마을 주민)	– 밤 손님에게 잡혀갔다가 하루만에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 후 보도연맹에 가입시킴. – 전쟁 발발 후 경찰에 연행되어 함평경찰서에 구금 중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함. – 모두 시신 수습 못함.
	4	김찬동	22–23세	–	–			
	5	이모질	22–24세	–	–			
	6	박성술	22–23세	–	–			
	7	김사원	–	–	–			
	8	조용식	–	–	–	운교리	조종기 조홍기 (같은 마을 주민)	– 조용식, 조보배는 목포에서 수장 되었다는 소문이 남. – 심귀찬(=심규찬)은 조종기가 넙태에서 숙부의 시신을 수습할 때 희생되어 있는 것을 목격함.
	9	심귀찬	–	–	넙태			
	10	조보배	17–18세	–	–			
	11	윤병용	28세	1950.7.23	넙태	상옥리	윤전중 (상옥리 이장)	– 경찰에 자수 후 보도연맹 가입. – 전쟁발발 후 경찰에 연행되어 넙태에서 총살당했다고 마을 어른들에게 들음.
	12	윤수식	34세	1950.7.23	넙태			
	13	정기성	–	–	–	강운리	김진배 (같은 마을 주민)	– 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연행되어 목포로 이송 후 생사불명.
	14	정기남	–	–	–			
	15	김영복	–	–	–			
	16	이대선	30대후반	1950.7.23	넙태	금산리	–	–
	17	서상조	22세	1950.7.23	넙태	금곡리	서태열 (같은 마을 주민)	– 서상조(=서상열, 6305호) – 강대천은 서태열이 넙태에서 서상열의 시신을 수습할 때 함께 수습.
	18	강대천	–	–	–			
손불면	19	백사동	27	50.4~5.	목포형무소	학산1리	백영해 (백영휘의 친척)	– 백사동은 전쟁 발발 직후 목포형무소 수감된 후 행사불명. – 친척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되어 나산면과 대동면 경계에서 총살, 가족이 시신 수습함.
	20	배출남	40	50.4~5.	거문해			
	21	배성초	40	50.4~5.	거문해			
	22	백영휘	27	50.4~5.	목포앞바다			
	23	김영록	40	50.6	넙태	학산2리	김홍용 (김영록의 아들)	– 김홍용 · 부친 김영록이 최선주, 김한모, 김연섭, 김연원과 함께 넙태에서 총살됨. 가족들이 시신 수습함. · 김병윤, 김삼윤은 목포형무소로 이송 후 행사불명.
	24	김병윤	32	50.5	목포앞바다			
	25	최선주	40	50.6	넙태			
	26	김한모	30	(음)50.6	넙태			
	27	김연섭	40	(음)50.6	넙태			
	28	김연원	29	(음)50.6	넙태			
	29	문동주	30	(음)50.5	목포앞바다			
	30	모종섭	37	(음)50.5.21	생사불명	양재2리	모두홍 (같은 마을 주민)	– 모종섭(3641호) – 모종연은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것이 확실하나 모길기는 잘 모름.
	31	모종연	32	50.6.15	나산 구산리			
	32	모길기	–	–	목포형무소			

읍면	연번	피해연구 보고서의 내용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항	
		이름	연령	시기	희생장소	거주지	증언자	확인한 사항
손불면	33	양일태	20	50.6.15	나산 구산리	월천4리	전강록 (같은 마을 주민)	– 양일태, 임영채, 전태일, 임주택이 넙태에서 희생되었다고 동네 어른들에게 들음. – 전주섭은 생사불명. 박성재는 잘 모름.
	34	임영채	21	50.6.15	나산 구산리			
	35	전주섭	27	50.6.15	나산 구산리			
	36	박성재	–	50.6.15	나산 구산리			
	37	전태일	22	50.6.15	나산 구산리			
	38	임주택	29	50.6.15	나산 구산리			
	39	김방현	25~27	–	넙태	동암1리	–	–
	40	이철호	31~32	(음)50.6.8	함평읍	죽장리	김옥년 (같은 마을 주민)	– 두 사람은 친척으로 보도연맹에 가입 후 경찰에 연행되어 함평대동면 어디선가 죽었다고 들음. – 가족이 시신 수습.
	41	이영채	32	(음)49.10.2	향교 숲뒷산			
	42	김기남	44	(음)50.6.9	넙태	죽암리	유대홍 (같은 마을 주민)	– 유갑진(3637호)과 김기남(=규남)이 넙태에서 함께 희생
	43	유갑진	47	(음)50.6.9	넙태			
	44	임군택	27~28	50년	목포형무소	산남리	임유택 (같은 마을 주민)	– 전쟁발발 직후 경찰에 연행되어 생사불명.
엄다면	45	양태석 (양태선)	35세	1950.7.23경	행불	송로리	장진태 (같은 마을 주민)	– 참전 후 제대(1951년도)하여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 양태선이 보도연맹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행사불명이라고 함. – 배창수, 정남용은 모름
	46	배창수	30대초반	1950.7.23경	행불			
	47	정남용	36–37세	1950.7.23경	행불			
학교면	48	노연섭	22세	1950.7.23	함평경찰서	복천리	노만홍 (같은 마을 주민)	– 노연섭은 노만홍의 형으로 넙태에서 총살되어 가족이 시신 수습함. – 조길선과 조인선은 형제로 경찰에 연행된 후 생사불명.
	49	조길선	33세	–	행불			
	50	조인선	34세이상	–	행불			
	51	최길섭	35세	1950.6.8.(음)	넙태	월산리	남장재 (같은 마을 주민)	– 최길섭 등 월산리 주민 10명이 채판석(7279호)과 같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 가족들이 시신수습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재상, 유곤자, 박경재 등 3명은 모름.
	52	오재원	30대	1950.6.8.(음)	넙태			
	53	최상렬	29세	1950.6.8.(음)	넙태			
	54	김용준	29세	1950.6.8.(음)	넙태			
	55	이영한	34세	1950.6.8.(음)	넙태			
	56	유귀남	30대	1950.6.8.(음)	넙태			
	57	박인배	30대	1950.6.8.(음)	넙태			
	58	박재상	30대	1950.6.8.(음)	넙태			
	59	오기만	30대	1950.6.8.(음)	넙태			
	60	박병준	30대	1950.6.8.(음)	넙태			
	61	유곤자	30대	1950.6.8.(음)	넙태			
	62	이재철	26세	1950.6.8.(음)	넙태			
	63	박경재	30대	–	목포			

제6절 반공포로 석방과 함평 정착

6·25전쟁 후 광주에는 제5포로수용소(第五捕虜收容所)와 중앙포로수용소가 있었다. 제5포로수용소는 현 9679부대 부근의 남쪽산 기슭에 있었다. 여기에는 인민군에 참전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북쪽으로 돌아가기를 반대하는 1만여명의 반공포로(反共捕虜)가 수용되어 있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뒷편 간호전문학교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중앙포로수용소에는 적치기간(敵治期間)에 부역했다가 입산하여 체포된 남한 출신 48,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곳은 포로관리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기 위한 시험 케이스로 한국군이 관리를 맡고 있었다.

당시 중앙수용소장은 육군 102헌병대장을 겸임한 송인섭(宋仁燮·1970~71년까지 함평군수 재임) 소령이었다. 포로들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살인자와 악질 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에 의하여 1953년 3월 28일까지 석방되었으며 이 날자로 중앙포로수용소는 해체되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0시를 기해 제5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1만여명의 반공포로까지 석방하는 용단을 내렸었다. '결사 휴전 반대' '북진통일'의 시위가 한창이던 무렵이었다. 석방을 적극 반대하던 UN군 측과 공산군 측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깜짝놀랐었다. 이날 석방된 포로는 광주 제5포로수용소를 비롯 부산, 마산, 영천, 논산, 부평 등 6개 수용소 26,00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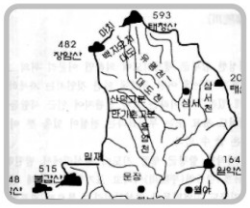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광주 제5포로수용소의 석방은 중앙에서 파견된 임기택(林奇澤) 중령과 5수용소 경비 책임자 한근호(韓根浩) 중령의 계획아래 새벽 1시 30분경 석방 선언이 있은 후 단행되었으며 한국군 경비병들은 외등(外燈)을 모두 파괴하고 공포탄만 쏘면서 유탄(流彈)이 미군 숙소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발을 묶어 놓았다. 이같은 작전으로 5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를 성공리에 석방시켰으며 석방된 포로들은 광산, 나주, 함평, 영광 등으로 흩어져 민간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함평군에도 500여명이 각 읍면에 분산되어 수용되었다. 이들은 바로 한국군에 입대하거나 생활터전을 찾아 각처로 떠났는데 함평에 정착한 사람은 나산면 수하리 거주 김주현(전 반공청년회 함평군지부장)외 58명이고 모두들 생활 기반이 튼튼하게 잡혔다. 이들은 매년 6월 18일이면 모임을 갖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반공 대열에 앞장서고 있으며 함평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제7절 월남한 북한피난민의 함평정착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UN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하자 공산주의 치하에서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국군과 UN군을 따라 남으로 피난하였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한민족(韓民族)의 대이동(大移動)이었다. 500만에 가까운 월남 피난민들은 남한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 갔다. 함평에 생활터전을 잡은 월남피난민은 처음에 200여 세대였다. 출신 도별로 보면 황해도가 제일 많고 다음이 평남, 함남의 순이다. 황해도 출신중에는 은율, 안악, 옹진, 신천이 많으며 평남 출신은 용강, 강서가 많다. 대개 이들은 배편을 이용하여 서해를 거쳐 내려왔었다. 정부의 배려로 엄다면 엄다리에 50여 가구, 손불면 석창리 대발, 대동면 강운리에 10여 가구, 학교면 사거리 청정에 30여 가구, 함평읍 함평리에 15여 가구가 정착했다. 지금은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월남피난민들이 도시로 떠났으며 아직도 50여 가구가 확고한 생활기반을 굳혔다. 엄다면 엄다리가 30여 가구, 학교면과 함평읍이 각각 10여 가구씩 살고 있다. 함평에 정착한 월남피난민들은 모임을 갖고 있는데 회장은 함평읍 함평리에 거주하는 이성운이다. 피난민 1세(世)들은 물론이고 2세들도 함평은 완전한 그들의 고향이 되었다.

제3장 정당정치(政黨政治)와 선거(選擧)



제1절 제1공화국(第一共和國)

1. 정 당

먼저 제1공화국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부터 1960년 4·19혁명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下野)하가까지의 12년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참으로 잡다한 일이 많았던 시기였고 정당이나 단체가 난립했던 때였다. 건국 초에는 250여 개의 정당과 단체가 난립하는 무질서의 정치풍토를 보이기도 하였다.

건국 초부터 2대 국회까지는 한민당과 독립촉성회가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이었기 때문에 여당(與黨)이라 할 수 있었고, 제3대 국회가 구성된 후로는 1952년에 결성된 자유당이 여당이고, 1955년 11월에 결성된 민주당(民主黨)이 제1야당이었다.

1) 전국의 정당

이 기간 동안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정당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태동되었다가 말소되는 때였으므로 모두를 열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때 태동한 정당으로 몇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해방후 이 나라 정당 단체 중 제일 먼저 발족한 것은 여운형이 위원장이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였다.

(1) 조선사민당(朝鮮四民黨)과 국민당(國民黨)

1945년 9월 1일 안재홍(安在鴻)을 위원장으로 사민당(사民黨)이 출범했고 이어 동년 9월 24일 중간우파(中間右派) 4개 정당과 합하여 국민당(國民黨)으로 확대 개편했다.

(2) 한국 민주당(韓國民主黨)

수석 총무 송진우(宋鎭禹)가 중심이 되고 이승만을 총재로 옹립키로 한 당이며 1945년 9월 16일에 결성했다.

(3)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中央協議會)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 두 단체는 구성원은 다르나 총재는 이승만을 추대하고 있고 전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

심이 되어 1946년 2월 8일 중앙협회가 조직되고 바로 전남협의회가 결성되었다.

(4)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30년 1월 25일 상해에서 창당했고 1946년 3월 20일 개편되었으며 김구가 위원장이고 1946년 11월에 전남도당이 결성되었다.

(5) 조선민족 청년당(朝鮮民族靑年團·族靑)

단장은 이범석(李範奭)이며 1946년 10월 13일 창단(創團)하였다.

(6) 사회노동당(社會勞動黨)

위원장은 여운형이며 1946. 10. 15 결성하였다.

(7)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총재 이승만, 단장 이청천(李靑天)이며 1947. 9. 21 창단했다.

(8)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1945년 9월에 창당한 한국민주당의 인사들 일부가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을 출범시켰다. 2대 국회 중반부터 원내에서 야당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9) 자유당(自由黨)

1951. 5. 16 부통령 보선(補選)후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여 1951년 12월 23일 창당하였고 이후 제1공화국의 여당이 되었다.

(10) 진보당(進步黨)

위원장은 조봉암(曺奉岩)이며 1956. 11. 10 창당하였다.

(11) 통일당(統一黨)

대표는 김준연(金俊淵)이며 1957. 11. 16 창당하였다.

(12) 민주당(民主黨)

구 한민당, 국민당 등 야당 세력이 규합하여 1955년에 창당하였고 동년 11월에 전남도당을 결성했다. 이후 제1공화국의 제1야당(野黨)으로 자유당의 독주를 견제하였고 제2공화국 때 여당이 되었다.

2) 함평의 정당

함평의 정당 단체도 해방과 더불어 중앙의 지부 또는 지단(支團), 군당(郡黨)의 이름으로 결

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확인된 정당 단체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국준비위원회 함평군위원회

1945년에 결성되었고 위원장에 이재혁(李載赫)이 피선되었다.

(2) 한독당함평군당(韓獨黨 咸平郡黨)

1947년 초에 결성되었고 이문겸이 위원장이 되었다.

(3) 국민당(國民黨)함평군당

1945년 말에 결당하였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제광을 입후보 시켰다. 후에 이성우(초대 국회의원)도 국민당에 입당하여 2대 국회의원에 김제광과 같이 입후보하여 낙선하는 난맥을 보였다.

(4)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 함평군당

1946년에 군당이 결성되었고 제1대 국회에 서상국 위원장이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1946년 한국민주당을 민주국민당함평군당으로 개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상국이 당선되었다.

(5) 자유당(自由黨) 함평군당

1952년 3월 5일 전남도당 결성 이후 바로 군당을 발족시켰으며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45)에 위원장 윤인식(尹仁植)을,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에 위원장 이필중(李必中)을 후보로 내세웠으나 모두 차점으로 낙선하였고 제3공화국 때 김덕부를 입후보 시켰으나 낙선한바 있다. 제1공화국 붕괴후 약체 정당으로 존속하다가 1980년에 명맥이 끊겼다.

(6) 민주당함평군당

민국당 등 재야(在野)세력이 통합한 정당으로 1956년 군당 결성 때부터 김의택이 위원장이 되었으며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에서 당선되었으며 1960년 제1공화국 몰락으로 제2공화국의 여당이 되었으며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에서 김의택이 당선되었다.

2. 선 거

제1공화국 때 우리가 치룬 선거는 국회의원 4번, 부통령 5번, 면의원 2번, 면장 1번, 도의원 2번 이었다. 이들 선거에 대해서 요약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부통령 선거

(1) 제1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에는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구(한국독립당), 안재홍(국민당)이 추천되어 이승만이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표1과 같으며 무효표는 추천되지 않은 서재필(徐載弼)을 기명(記名)한 것이다.

<표 1> 초대대통령 선거(1948. 7. 20) 득표상황

재적의원	재석의원 (在席議員)	투 표 자 수			기 권	후 보 별 득 표 수		
		유효	무효	계		이승만 (李承晩)	김 구 (金 九)	안재홍 (安在鴻)
198	196	195	1	196	2	180	13	2

부통령 선거는 2차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이시영이 당선되었고 득표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초대부통령 선거(1948. 7. 20) 득표상황

재적의원	재석의원 (在席議員)	투 표 자 수			기권	후 보 별 득 표 수			
		유효	무효	계		이시영 (李始榮)	김 구 (金 九)	이구수 (李龜洙)	계
198	197	196	1	197	1	133	62	1	196

(2) 제2대 부통령 선거

이시영 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자진 사퇴함으로서 1951년 5월 16일에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김성수(金性洙)와 이갑성(李甲成)이 후보로 추천되었고 김성수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2대 부통령 선거(1951. 5. 16) 득표상황

재적의원	재석의원	투 표 자 수			기 권	후 보 별 득 표 수			비 고
		유효	무효	계		김성수	이갑성	계	
210	152	151	1	152	58	78	73	151	투표율 70%

(3)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의 직접선거(直接選擧)

제2대 국회가 야당인 민국당(民國黨)등 반 이승만(反 李承晩) 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실시하면 이승만이 재선될 수 없음을 간파한 자유당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하는 발췌 개헌안(拔萃改憲案)을 국회에 제출, 무리를 빚어가며 통과시켰다.

이에 의해 1952년 7월 18일 정·부통령 선거법이 공포되고 8월 5일을 선거일로 지정했다. 선거기간을 단 17일로 단축한 것이다. 자유당은 7월 19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범석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족청계(族靑系)의 지도자인 이범석을 꺼려한 이승만이 공공연히 무소속의 함태영(咸台永)을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가 하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유당 자체에서도 이범석 낙선 지령을 하는 어설픔을 남기기도 하였다.

야당인 민국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이시영, 부통령 후보에 조병옥(趙炳玉)을 추대하였다. 제2대 대통령선거와 제3대 부통령선거에 있어 개표구는 163, 투표구는 5942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알아보면 표4에서 보듯이 투표율은 전국 평균치보다는 함평이 높으며 전남의 평균치보다는 1% 가량이 낮다. 후보자별 득표수에 있어 전국이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의 순(順)인데 전남과 함평은 이승만,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申興雨)의 순이다. 이시영이 조봉암보다 득표수가 많은 것은 보수세력(한민당계)이 다른 곳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되었다.

<표 4> 제2대 대통령 선거 (1952. 8. 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투표구	선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전 국	5,942	8,259,428	7,020,684	255,199	7,275,883	88	5,238,684	797,504	764,715	219,696
전 남	882	1,278,185	1,119,394	45,529	1,164,923	91	823,587	99,885	165,245	30,677
함평군	17	44,829	38,760	1,609	40,369	90	27,224	4,614	5,764	1,158

제3대 부통령에는 9명이 출마 하였는데 이승만의 지지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차점자인 이범석은 우리 전남에서는 5위, 함평에서는 4위를 기록 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극히 표가 적게 나왔었다. 이범석은 이 선거를 계기로 자기가 몸담아 조직했던 자유당을 떠나야 했다. 선거사상 있기 어려운 상황을 체험한 것이다.

제3대 부통령 선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제3대 부통령 선거 (1952. 8. 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유효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자유당(自由黨)		민국당(民國黨)	조민당(朝民黨)	여자국민당	노총(勞總)	무소속			
		이범석(李範奭)	이갑성(李甲成)	조병옥(趙炳玉)	이윤영(李允榮)	임영신(任永信)	전진한(全鎭漢)	함태영(咸台英)	백성욱(白性郁)	정기원(鄭基元)
전 국	7,133,297	1,815,629	500,972	575,260	458,583	190,211	302,471	2,943,813	181,388	164,907
전 남	1,136,734	59,318	77,231	125,525	60,658	20,470	23,221	729,541	18,031	22,739
함평군	39,337	1,907	3,319	3,279	2,602	978	1,109	24,062	1,003	1,078

(4) 제3대 대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

이 선거는 1956년 5월 16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앞서 자유당은 1954년 9월 6일에 대통령의 종신 연임제(終身連任制)와 국민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재적 203명(재석 202명)중 가(可) 135, 부(否) 60, 기권 7표로 재적의원 ⅔선은 135.333이나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135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사오입법(四捨五入法)을 들고 나와 부결 선포를 번의하게 하였다.

이른바 국회의 사사오입 파동이었다. 자유당은 1956년 3월 5일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이승만을 3대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4대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민주당(民主黨)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와 장면(張勉)이, 부통령 후보에 조병옥과 김준연(金俊淵)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

으나 3월 29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다. 또 진보당(進步黨)에서는 3월 31일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 부통령 후보에 서상일(徐相日)을 지명하였으나 서상일의 사퇴로 박기출(朴己出)이 지명되었다. 또 민정당(民政黨·가칭)에서 공화당(共和黨)으로 이름을 바꾼 족청계에서는 이범석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은 이승만을 지지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은 이승만을 지지하고 부통령 후보만 지명한 정당은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윤치영(尹致榮), 조민당(朝民黨) 이윤영(李允榮)이고 무소속으로 백성욱(白性郁) 이종태(李鍾泰)가 부통령에 입후보 하였다.

민주당에서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 구호가 국민에게 크게 감명을 주었고 5월 3일 한강 모래벌에서 열린 신익희 후보의 정견발표장에는 유례없이 30만의 군중이 모여들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5월 5일 호남지방 유세를 나섰던 신익희 후보가 새벽 5시 30분 뇌일혈로 급서(急逝)하고 말았다.

5월 15일 투표결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이 당선되었다. <표 6>, <표 7>을 볼 것.

<표 6> 제3대 대통령 선거(1956. 5. 1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선거인 수	투표자수				득표수	
		유효	무효	계	투표율	자유당 / 이승만	진보당 / 조봉암
전 국	9,606,870	7,210,245	1,856,818	9,067,063	94.4	5,046,437	2,163,808
전 남	1,330,477	1,028,410	257,768	1,286,178	96.7	741,623	286,787
함평군	46,319	36,674	9,154	45,821	98.9	31,955	4,719

※ 무효중 1,500,000표는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로 풀이하고 있다.

<표 7> 제4대 부통령 선거(1956. 5. 1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유효 투표수	득표수						비고 (무효표)
		자유당 / 이기붕	민주당 / 장면	조민당 / 이윤영	국민당 / 윤치영	공화당 / 이승만	무소속 / 조봉암	
전 국	8,642,494	3,802,502	4,012,654	34,926	242,278	317,579	230,555	421,700
전 남	1,212,411	549,279	529,341	3,924	25,979	33,890	70,628	73,863
함평군	36,798	22,143	8,236	86	785	3,488	1,060	9,030

※ 선거도중 박기출(朴己出)과 이종태(李鍾泰)가 사퇴하였다.

집권당(자유당)이 농촌에서 강하고 도시에서 약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를 "야도여농(野都與農)현상"이라 하였다.

(5)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선거 역사상 다시없는 부정선거였다. 이 선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말았다. 당시의 선거 상황을 간략히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자유당은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통령의 계승권이 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부통령에게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재집권(再執權)등 당원의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통령 지명을 둘러싸고 신, 구파

간의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가 사전조정을 못하고 결국 1959년 11월 26일 지명 대회에서 실력 대결을 하였다. 그 결과 총 투표자 966명 중 조병옥 484표, 장면 481표, 기권 1표의 근소한 차이로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이어 5대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지명되었다.

기타 다른 정당에서도 1959년 상반기를 정, 부통령 지명대회로 장식했다. 1960년 1월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위궤양 치료차 도미(渡美)하자 집권당인 자유당은 선거 기일을 예년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할 것을 결정 발표하였다.

2월 13일 입후보 마감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는 대통령 후보 이승만(자유당), 조병옥(민주당)이었고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자유당), 장면(민주당), 김준연(통일당영암출신), 임영신(任永信:대한여자 국민당)이었다. 그런데 등록을 마감한 3일후인 2월 15일 수술 결과가 좋다던 조병옥이 미국 워싱턴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급서(急逝)하였다는 비보가 방송망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홀로 남았기 때문에 선거인 총수의 ⅓만 득표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초점은 부통령 선거에 모아졌다. 자유당은 4대 부통령 선거때 패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당한 방법으로 승산이 없다는 귀결에 이르자 기상천외 (奇想天外)한 부정선거를 지령하였다.

- ○ 자연 기권, 유령(幽靈)유권자, 매수(買收) 기권표 등의 유권자 4할에 해당하는 표를 투표 시작 전에 무더기로 넣을 것
- ○ 자유당에 투표하기로 한 유권자로서 3인조(三人組), 9인조를 편성 조장(助長)이 조원(組員)의 기표 사항을 확인하고 기표(記票)한 투표지를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일 것
- ○ 자유당계 유권자에게 완장을 두르게 하여 야당측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자유당에 투표케 할 것
- ○ 민주당측 참관인을 어떤 구실로든 밖으로 내보낼 것
- ○ 투표함을 옮기는 도중에 바꿀 것
- ○ 개표(開票)때 혼표(混票) 또는 환표(換票)를 할 것
- ○ 자유당 입후보의 득표 목표는 5대 1 즉 80%로 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지령에 의해 선거가 아닌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했다. 표수를 너무 많이 올렸으니 좀 깎아 내리라고 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호통 치는 웃지 못 할 사례를 남긴 선거였기에 우리는 이 선거를 "3 .15 부정선거"라고 이름 지었다. 이 선거에 분격한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궐기한 것이 4. 19 학생 의거며 이 의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下野)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27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이 확정 공포되었으며 28일에 부정선거의 장본인이었던 이기붕과 그의 가족 전부가 자결함으로서 제1공화국은 종언되었다. 자유당이 멋대로 조작 발표한 선거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제4대 대통령 선거(1960.3. 1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득표수	득표율(%)
		유효	무효	계			이승만	
전국	11,196,490	9,633,376	1,228,896	10,862,272	334,218	97.0	9,633,376	88,7
전남	1,520,591	1,398,887	108,902	1,507,789	12,802	99.1	1,398,887	92,8
함평군	51,840	47,176	4,214	51,390	450	99.1	47,176	91,8

<표 9> 제4대 부통령 선거(1960.3. 15) 득표상황

구분 /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득표상황			
		유효	무효	계			이기붕	김준연	임영	장면
전국	11,196,490	10,527,445	334,128	10,861,573	334,917	97.0	8,337,059	249,095	97,533	1,843,758
전남	1,520,591	1,453,014	54,180	1,507,194	13,397	99.1	1,218,247	80,491	13,612	140.664
함평군	51,840	44,356	7,018	51,360	472	99.1	32,820	5,732	569	5.229

2) 국회의원 선거

(1) 초대(初代)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흔히 "5·10"선거라 하며 이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총선거였기 때문이다. 제헌국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5·10 선거는 전절(前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전절(前節)과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 언급키로 하겠다. 입후보 상황에 대해서는 전절에서 설명 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정당, 단체별 당선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생소했고 당이라면 조선조의 당쟁이 연상되는 때였기 때문에 무소속 당선자가 많아 국회의원 재적수 200명중 85명(42.5%)을 차지했다. 원내(院內) 제1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55명이었고 줄여서 국민회라 통칭하였고, 한국민주당이 제2당으로 29명이었는데 한국민주당 이라는 당명을 민주국민당으로 개명하였고 줄여 민국당이라 불렀다.

제3당은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제4당이 민족청년단(족청)이었다. 전남의 선거구는 29개구로 92명이 입후보 하였고 한민당(후에 민국당)이 29명을 출마시켜 10명이 당선되었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18명을 출마시켜 5명을 당선시켰다. 무소속은 29명이 출마하여 7명이 당선되었고 이웃 군인 영광군에서는 조영규(曺永珪·한국민주당), 무안에서는 갑구(甲區) 김용현(金用鉉·한국민주당), 을구(乙區) 장홍염(張洪淡·한국민주당), 장성군에서는 김상순(金相舜·한국민주당), 나주군에서는 갑구(甲區) 이항발(李恒發·무소속), 을구(乙區) 김상호(金尙浩·한국민주당)가 당선되어 한민당 우세지구(표밭)로 이름이 났다.

함평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성우(李成佑)가 당선되었다. 입후보자들의 학력은 92명중 28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외는 중졸 정도였으며 경력은 일제 때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특

징으로 되어 있었다. 함평에서는 4명이 출마했는데 인적상황과 득표 상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초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인적 및 득표상황표(1948. 5. 10)

성 명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득표수	비고
이 성 우(李成佑)	52	농 업	중동(中東)학교 졸	무소속	10,870	당선
노 경 수(盧京洙)	33	농 업	신학대학졸, 목사 7년, 중학교장	기독교 연 맹	8,254	차점
양 학 기(梁鶴基)	34	능률(能率)공회이사	일대졸(日大卒), 잡지사 사장	무소속	7,555	
서 상 국(徐相國)	52	상 업	조대(早大)전문부 졸, 중앙정구협회장	한 국 민주당	7,355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5월 30일에 실시했다. 이 선거는 5·10 선거 때와는 달리 공산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9개 정당, 사회단체가 입후보자를 내세웠으며, 무소속후보가 1,513명이었다. 국회원수 210명에 2,209명 출마(10.5 : 1)라는 놀라는 경쟁율을 보였던 것이다. 여당이었던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이 165명, 야당인 민주(民主)국민당이 154명을 출마시켜 각각 24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 당선자는 126명으로 무소속 국회가 된 셈이 되었다. 국민회의는 14명, 대한청년단은 10명이 당선되었고 기타 17개 정당 단체는 1~3명이 당선되었다.

전남에서는 30개 선거구에 241명이 출마하여 8.3 : 1의 경쟁율을 보였고 야당인 민주국민당(민국당)이 전국당선자의 ⅓인 8명이나 당선되었다. 함평에서는 무려 13명이 출마하여 역대 선거 중 가장 난맥을 이루었다. 민국당의 서상국 후보가 당선되고 무소속의 한규흥이 차점 낙선했다. 입후보자의 인적사항과 득표상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제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인적 및 득표상황표(1950. 5. 30)

입후보자 성명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 정당	득표수	비 고
안 종 휴(安鍾烋)	38	회 사 원	전남특산품공업회사 사장	무소속	1,142	
이 성 우(李性佑)	53	농 업	중동학교졸, 전 국회의원	국민당	684	
김 제 광(金濟光)	48	농 업	중졸	국민당	미 상	
김 월 진(金月辰)	44	농 업	국졸, 법원서기	국민당	미 상	
서 상 국(徐相國)	53	상 업	조대(早大)전문대, 민국당중앙집행위원	민국당	6,901	당선
양 학 기(梁鶴基)	35	회 사 원	일대졸(日大卒), 잡지사 사장	무소속	미 상	
이 규 정(李圭正)	57	변 호 사	광주지검청장, 변호사 12년	무소속	2.083	
임 방 원(林邦元)	35	회 사 원	일대졸, 미창(米倉) 지점장	무소속	1.208	
손 정 헌(孫正憲)	30	공 업	일본중앙대졸, 목포화학공업사장	무소속	386	
권 승 일(權承一)	57	농 업	면장 5년	무소속	531	
정 호 현(丁浩鉉)	42	사법서사	사법서사 5년	무소속	195	
김 우 현(金吁鉉)	30	농 업	경도대(京道大) 졸업	무소속	미 상	
한 규 흥(韓圭興)	54	농 업	수리조합장, 금융조합장 각4년	무소속	4,985	차점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4년 4월 7일에 공고하여 5월 20일에 실시하였다. 이 선거의 몇 가지 특색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집권당인 자유당이나 야당인 민국당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의원 후보자 공천제(公薦制)를 실시하였다. 또 이 선거는 관권이 깊숙이 개입되어 여당에게는 자유 분위기, 야당에게는 공포 분위기였으며 자유당은 전선거구(全選擧區)에 입후보자를 내어 114명이 당선됨으로써 과반수를 확보하였고 야당인 민국당은 당시까지 구 한민당(韓民黨)의 법통(法統)과 체질 위에 신익희, 이청천(李靑天)등이 얹혀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신익희 등 혁신파가 체질 개선을 추진하여 신익희 중심으로 당을 개편하고 구 한민당계의 김성수(金性洙), 백남훈, 조병옥, 서상일 등은 고문의 지위로 후퇴시켰다.

전국의 77개 선거구만 공천을하여 겨우 1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 조차 구성을 못하다가 일부 무소속 위원과 제휴하여 31석의 무소속 동지회를 조직했다. 자유당은 정족수(定足數)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범(選擧事犯)에 걸려 있는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6월 9일경 34명이 입당케 함으로써 개헌정족 의석을 확보했다.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군소 정당인 10개 정당이나 단체는 단 1명의 당선자도 없었다. 우리 함평에서는 <표 12>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 5.9대 1[344], 전남 평균 5.6대 1[345]의 비율보다 훨씬 많은 9명이 출마하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의택(金義澤)이 당선되고 자유당 후보로 공천된 윤인식(尹仁植)이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전남의 당선자 상황은 자유당 15명, 민국당 3명, 대한국민당 2명, 무소속 10명 이었다.

무소속으로 당선한 함평의 김의택은 민국당에 입당하였다. 선거후인 1955년 9월 10일 범야(凡野)신당 조직 운동에 의하여 민국당, 흥사단(興士團), 한민당 야파(野派), 자유당 탈당파, 대한부녀회 일부와 2대 국회말(末)의 무소속구락부(원외 자유당계)가 합류 민주당(民主黨)을 결성하였다.

<표 12> 3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인적사항과 득표상황(1954. 5. 20)

입후보자 성명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 정당	득표수	비고
김 용 우(金用宇)	43	출 판 업	교육신문사장	무소속	2.332	
윤 인 식(尹仁植)	31	농 업	중졸, 도의원	자유당	9,655	차점
신 현 기(申鉉祺)	54	농 업	대졸,금융조합 및 어업조합장	무소속	2.829	
김 의 택(金義澤)	45	회 사 원	중졸, 경찰국장, 회사중역(重役)	무소속	10,637	당선
김 우 영(金佑永)	51	농 업	중졸, 면장, 수리조합장	무소속	6,188	
이 용 수(李用洙)	43	도 의 원	중졸, 도의원	무소속	사 퇴	
이 재 혁(李載爀)	60	농 업	대졸, 함평금융조합장, 회사 사장	무소속	5,508	
김 교 석(金敎晳)	29	시 의 원	대졸, 시의원(市議員)	무소속	1,114	
신 호 열(辛鎬烈)	40	농 업	전문부졸(專門部卒), 동국대 강사	무소속	1.217	

344) 의원정수(定數) 203명에 1,207명이 입후보함

345) 30개 선거구에 169명이 입후보함.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 3월 1일에 공고하여 5월 2일에 실시하였다. 전국의 입후보자는 정수(定數) 233명에 841명으로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앞서의 선거보다 입후보자가 크게 줄었으며 14개 정당, 단체가 참여하였으나 당선자는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통일당 1명으로 3개당 뿐이었고 무소속은 27명이 당선되어 전보다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유권자의 성향이 양당(兩黨) 정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전남에서는 32선거구에 108명이 입후보하여 3.4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 함평에서는 3명이 출마하였고 민주당의 김의택 후보가 자유당의 이필중(李必仲)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4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향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여당 후보가 거의 당선되었으나 함평에서는 야당이 당선되어 야당이 뿌리 깊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득표상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인적 및 득표상황 (1958. 5. 2)

입후보자 성명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득표수	비고
이 필 중(李必仲)	57	양 조 업	광주지방법원서기 5년, 농민회장	자유당	17,586	차점
김 의 택(金義澤)	49	민 의 원	광농 3년 수료, 경찰국장, 민의원	민주당	21,832	당선
노 경 수(盧京洙)	42	농 업	한국 신학대학졸, 함평군 정훈대장	무소속	3,711	

3) 면의원(面議員) 선거

(1) 제1대 면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에 실시하였는데 1,448개 면 중 1,308개면에서 실시하였다. 전남은 227개면에서 실시했고 함평군은 당시 지금의 함평읍이 함평면이었으므로 9개면에서 실시하였다.<각 면의 면의원 당선자 명단은 읍·면 마을사 역대 면의원 명단을 볼 것>

(2) 제2대 면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에 실시하였고 면의회에서 면장 선거를 함으로 부정이 뒤따른다는 결론에 의해 면의원 선거와 병행하여 전국 1,389개면(전남 221개면)[346] 중 544개면에서는 면장 직접 선거를 실시하였다.<읍·면 마을사 참조>

4) 도의원(道議員)선거

346) 전남은 42개면만 실시함.

(1) 제1대 도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는데 완전히 수복하지 못한 경기, 강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역에서 실시하였고 도의원의 정수(定數)는 충북 28명, 충남 46명, 전북 32, 전남 59명, 경북 61명, 경남 60명, 제주 20명으로 모두 306명 이었다.

전남에서는 129명이 입후보하여 2.2대 1의 비율을 보였다. 우리 함평에서는 학교, 나산, 해보, 월야면에서 1명,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면에서 1명을 선출하였는데 이 선거에 대한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로 다른 기관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자료를 수록할 수 없어 유감이다. 학교, 나산, 해보, 월야면 지역에서 윤인식(尹仁植)이 당선되고 함평 지역에서는 이갑수(李甲洙)가 당선되었다.

(2) 제2대 도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 금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만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실시했다. 전국으로는 정원 437명에 1,703명이 등록하여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에서는 정원 58명에 236명이 등록하여 4.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의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자유당 47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이었다. 함평군의 2구 (나산, 해보, 월야, 학교)에서는 윤인식이 당선되었으며, 1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에서는 장권표(張權杓)후보가 당선 통지되었으나 민주당의 김봉수(金鳳守)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의 판가름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동면과 손불면의 투표함을 운송하는 도중에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투표함내의 김후보 기명표를 장후보 기명표로 바꾸어 넣기등 부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당시 신문지상을 떠들석하게 하였던 “함평환표사건”이었고 결국 문제 지구에 대한 일부 재선(再選)으로 판결이 났으며 장권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인식 의원은 도의회 부의장으로 피선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되는 자료가 없어 상세히 기록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제2절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1. 정당(政黨)

제2공화국은 4·19 의거후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1960년 4월 29일 허정(許政) 과도정부수반(過渡政府首班)이 조각을 단행하여 6월 15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개헌을 국회에서 가결, 새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선출 새 정부 조직을 완료함으로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60년 8월 23일 출범한 장 면(張勉)정권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에 의해 붕괴됨으로서 종언을 고했다.

실로 짧디 짧은 9개월이었다. 제2공화국을 주도한 여당은 민주당(民主黨)이었고 야당은 신민당(新民黨)이라 할 수 있다. 제1공화국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1960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의원(民議員) 175명(정수 233명), 참의원(參議員) 31명(정수 58명) 당선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7·29 총선에 참여한 정당 중 10명 이상의 공천자를 내세운 정당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民主黨)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신, 구파가 분열하기 시작하여 선거운동을 별도로 전개하게 되었다. 6월 26일에 민의원 후보 226명, 참의원 후보 60명을 공천 발표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당원들이 반발하여 민의원 112명, 참의원에 3명이 더 출마했다. 결국 민의원 338명, 참의원 63명이 선거전에 나선 셈이 되어 지역구에서의 신·구파 싸움이 불가피했다.

이들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선출한 후, 구파가 협상파(協商派)를 제외하고 신민당(新民黨)을 1960년 10월 18일에 창당함으로써 분당(分黨)되었고, 신파(新派)는 구파중 협상파를 포섭 민주당이라는 당명(黨名)을 그대로 쓰는 한편 집권당으로서 원내 안정 세력을 구축하였다.

2).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

전 진보당(進步黨, 박기출, 윤길중),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김성숙) 민주혁신당(民主革新黨, 서상일)이 합류하여 조직했으며 민의원 129명, 참의원 6명을 공천하여 민의원 4명, 참의원 1명이 당선되었다. 선거후 이들은 주류파(主流派)와 비주류파로 양분되었는데 주류파는 김달호(金達鎬) 주도하에 사회대중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썼고 비주류파는 1961년 1월 21일 이동화(李東華)를 중심으로 통일사회당(統一社會黨)을 결성하였다.

3). 한국사회당(韓國社會黨)

전 민족주의 민주사회당(民族主義 民主社會黨, 김성기), 사회당(社會黨, 성낙훈)등이 합류하여 조직하였고 민의원 후보 19명, 참의원 후보 2명을 공천하여 민의원 1명, 참의원 1명이 당선되었다. 선거후 이들은 새로 생긴 공화당(共和黨)에 합류했다.

4). 한독당(韓獨黨)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 해방 후에 개편을 단행 지속해 오던 이 당은 민의원 후보 12명, 참의원 후보 1명을 공천했으나 모두 낙선되어 지리멸렬 상태가 되고 말았다.

5). 자유당(自由黨)

제1공화국의 붕괴와 더불어 몰락한 자유당은 부정선거 관련자와 탈당자를 제외하고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어 민의원 공천 54명, 참의원 공천 13명을 내어 민의원 2명, 참의원 4명이 당선되었다. 선거 후 생긴 당은 앞에서 말한 신민당(新民黨)과 공화당(共和黨)이다. 신민당은 민주당 구파가 주류가 되어 결성했고 제2공화국에서 야당의 구실을 한 셈이며 공화당은 1960년 11월 15일 구 자유당계, 통일당(統一黨), 노동당(勞動黨), 한독당, 한사당(韓社黨)등이 규합하여 창당했고 최고위원에 김준연, 이윤영, 조경한, 이갑성 등을 추대하였다.

제2공화국 때 함평의 정당은 민주당 독주였고 선거 후 분당한 신민당도 군당의 체제를 갖추기 전에 5·16혁명을 맞았으므로 특기할 사항이 없다. 자유당도 입후보자가 함평에는 없어서 군당이 소멸되는 사례였다.

2. 선거(選擧)

제2공화국때 치룬 선거는 민, 참의원 선거 1회, 면의원, 도의원 선거 1회, 도지사 선거 1회, 간접선거인 대통령 선거 1회였다.

1) 제4대 대통령 선거와 국무총리(國務總理) 인준(認准)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분당의 필연성을 안고 신, 구파가 정권의 핵인 국무총리 쟁탈을 목표로 각자 자기파를 점검하고 무소속과 군소 정당 포섭전을 벌였다. 8월 12일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재석(在席) 259명중 208표로 윤보선(尹潽善, 민주당 구파)이 제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다,

투표 결과를 상세히 말하면 윤보선 208표, 김창숙(金昌淑) 29표, 변영태(卞榮泰) 3표, 백낙준(白樂濬) 3표, 허정(許政) 2표, 김도연(金度演) 2표, 김병로, 박순천, 나용균, 이철승, 유옥우, 김시혁 각 1표, 무효 6표였다.

윤보선은 헌법에 의해 민주당 탈당과 민의원직을 사임했고 8월 13일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월 16일 윤대통령은 김도연(金度演·민주당 구파)을 국무총리로 지명 국회에 인준동의를 요청했다. 민의원은 이 요청을 8월 17일에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224명중 가(可) 111표, 부(否) 112표로 부결시켰다.

8월 18일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 인준동의를 요청했고, 민의원은 1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25명중 가 117표, 부 107표로 인준하였다. 이로써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2)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하였다. 입후보자 등록상황은 정수 233명에 1,562명이 등록을 마침으로써 6.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은 정수(定數) 32명에 163명이 등록하여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민주당을 위시하여 14개였으나 10명 이상을 공천한 정당, 단체는 6개에 불과했고 민주당 175명, 자유당 2명, 사회대중당 4명, 통일당 1명, 기타 정당 1명, 계 184명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49명이나 당선된 것이다. 너무나 비대해진 민주당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선거가 끝난 후 신, 구파가 분리하여 여, 야 세력으로 존립하게 되었다. 함평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대 선거 중 출마자가 제일 적었다. 3·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민주당의 김의택 후보와 상해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한 김 석 후보가 맞싸웠다. 김의택 후보가 당선하여 3선 (三選)의 영광을 안았다. <표 14>를 볼 것.

<표 14>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 7.29) 상황

입후보자 성명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 정당	득표수	비고
김 의 택(金義澤)	51	민 의 원	광농 3년 수료 3,4대 국회의원	민주당	29,195	당선
김 석(金 晳)	50	회 사 원	상해법정대졸, 한독당중앙위원	무소속	16,942	

3) 제1대 참의원 선거

참의원(參議員)선거 이래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단 1회 실시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제헌 이래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하여 2~8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를 채택했다.

전국의 의원 정수는 58명, 전남은 이중에서 8명이었으며 25명이 입후보하여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임기 6년인 제1부 당선자는 황성수, 조국현, 김남중, 이남규였으며 임기 3년인 제2부 당선자는 박철웅, 정문갑, 최상채, 양회영이었다. 전국의 정당별 당선 상황은 민주당 31명, 자유당 4명, 무소속 20명,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기타가 각각 1명씩이었다. 전남의 초대 참의원 입후보자 인적사항과 득표상황은 <표 15>와 같다. 25명 등록자 중 김향수는 등록무효, 국쾌남, 황숙현은 선거도중에 사퇴하였다.

<표 15> 초대 참의원 선거 상황(1960.7.29)

입후보자 성 명	연령	주 소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득표수	비고
조 국 현 (曺國鉉)	65	광주시 사동 82	농 업	중동(中東)교 3년 수료, 제헌의원, 유도회총본부 부위원장	민주당	248,273	제1부 당 선
김 남 중 (金南中)	4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전남일보 사 장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	무소속	235,959	〃
정 문 갑 (丁文甲)	54	광주시 금남로 4가 20	농 업	순천매산국교졸, 전남도의회장	무소속	180,512	제2부 당 선
이 남 규 (李南圭)	59	목포시 양동 127	목 사	평양신학교, 전남지사	민주당	210,282	제1부 당 선
김 주 섭 (金周燮)	51	광주시 동명동 120	회 사 장	서울철도학교 졸, 전남극장(劇場)협의장	사 회 대중당	141,707	
김 희 성 (金喜誠)	69	광주시 대의동 51	농 업	선린상졸, 광주시장, 수련전남지부장	민주당	150,205	
양 회 영 (梁會英)	49	서울종로구 이화동 90	무 직	일본중대(中大)졸, 담양군수	민주당	161,178	제2부 당 선
강 선 명 (姜善明)	54	목포시 대안동 8	회사중역	신호고상(神戶高商)졸, 제헌의원, 삼화제철 이사장	무소속	108,478	
박 철 웅 (朴哲雄)	48	광주시 지산동 477	대 학 이 사 장	명치대(明治大)졸, 2. 3대 민이원, 조선대학총장	무소속	195,036	제2부 당 선
황 병 규 (黃炳珪)	51	여수시 동산동 1472	농 어 업	여수수산교 졸, 제헌의원, 2대 의원, 여수시장	무소속	66,160	
이 을 식 (李乙植)	48	광주시 동명동 1구 73	농 업	국민대(國民大)졸, 전남도지사	무소속	81,052	
김 동 섭 (金東燮)	54	광주시 계림동 1구 250	농 업	조도전대(早稻田大)졸, 어업조합이사	민주당	81,131	

입후보자 성 명	연령	주 소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 속 정 당	득표수	비고
김 향 수 (金向洙)	49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민 의 원	조도전대졸, 장학회장, 4대민의원(강진)	무소속	-	등 록 무 효
최 상 채 (崔相彩)	57	광주시 동명동 75	의 사	경성의원, 전남대 총장	민주당	174,460	제2부 당 선
박 장 환 (朴裝桓)	58	목포시 상락동 1가 11	농 업	북경대학졸, 목포염업조합장	무소속	64,034	
송 화 식 (宋和植)	62	광주시 지산동 41	변 호 사	경성전문대졸, 고법부장판사	무소속	126,277	
국 쾌 남 (鞠快男)	38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민 의 원	조도전대졸, 4대민의원	무소속	-	7.7 사퇴
황 성 수 (黃聖秀)	43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변 호 사	북경대졸, 전남도지사	자유당	260,181	제1부 당 선
박 천 재 (朴天在)	45	광주시 동명동 2구	회 사 원	관서대학 전문부졸, 전남도의원 2선, 회사 사장	무소속	71,397	
이 은 태 (李恩泰)	41	여천군 율촌명 조화리	대중여론사 장	명치대졸, 4대 민의원	무소속	79,050	
최 태 근 (崔泰根)	62	광주시 장동 13의 1	무 직	동경상대졸, 광주사법청장, 도교육위원	자유당	75,470	
장 병 준 (張炳俊)	67	광주시 월산동 43	무 직	일본대졸, 상해임시정부요원	민주당	124,977	
손 문 경 (孫文境)	47	고흥군 도양면 도덕리	농 업	명치대졸, 4대민의원	자유당	84,375	
황 숙 현 (黃淑玆)	54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농 업	수원농고졸, 4대민의원	무소속	-	7. 3 사 퇴
조 재 규 (趙在奎)	57	광주시 누문동 229	무 직	서울중동교(中東校)졸, 민주도당 상임위원	민주당	70,584	

4) 제3대 도의원(道議員) 선거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하였다. 정원 66명에 등록 후보 280명(4.2대 1)이었다. 입후보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66명, 신민당 50명, 사회대중당 3명, 자유당, 농민회 각 1명, 무소속 159명이었고 당선자의 정당별 상황은 무소속 28명, 신민당 19명, 민주당 18명, 농민회가 1명이었다.

우리 함평지역은 1.2대 때와 같이 2개구로 나누어 1명씩 선출했는데 함평지역(1구)에서는 김봉수(金鳳守 민주당)가 당선(當選)되었고, 학교지역(2구)에서는 정동운(鄭東雲 무소속)이 당선되었는데 후보별 득표 상황과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5) 도지사(道知事) 직접선거(直接選擧)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하였다. 이 지사 선거에는 모두 11명이 출마 하였는데 투표율이 우리 나라 선거 사상 제일 저조한 44.2%였다. 민영남 후보가 당선하여 전남지방이 신민당 우세 지구임을 보여 주었다. 우리 군내의 선거 결과는 전하는 기록이 없고 전남 전지역의 집계는 <표 16>과 같다.

후보자 성명	소 속 정 당	경 력	득 표 상 황
민 영 남(閔永南)	신 민 당	전 도지사	306,908
김 주 섭(金周燮)	사 대 당		53,890
이 용 익(李容翼)	무 소 속	도 상공과장	33,594
황 인 호(黃仁鎬)	무 소 속	농촌문화연구소장	19,012
최 의 남(崔義男)	민 주 당	직전 전남도지사	194,336
조 희 인(曺喜仁)	무 소 속		15,386
김 종 현(金鍾炫)	무 소 속	전 경찰관	8,774
박 기 홍(朴基洪)	무 소 속	전 광주시장	27,473
이 정 진(李廷鎭)	무 소 속	의사	9,992

6) 3대 면의원 및 면장 선거

제3대 면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9일에 적극적으로 일제히 실시하였다.

<각 읍면별 면의원 당선자 명단은 읍·면 마을사에 수록하였다.>

면장 선거는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하였다.<각 읍면 역대면장 명단에 민선관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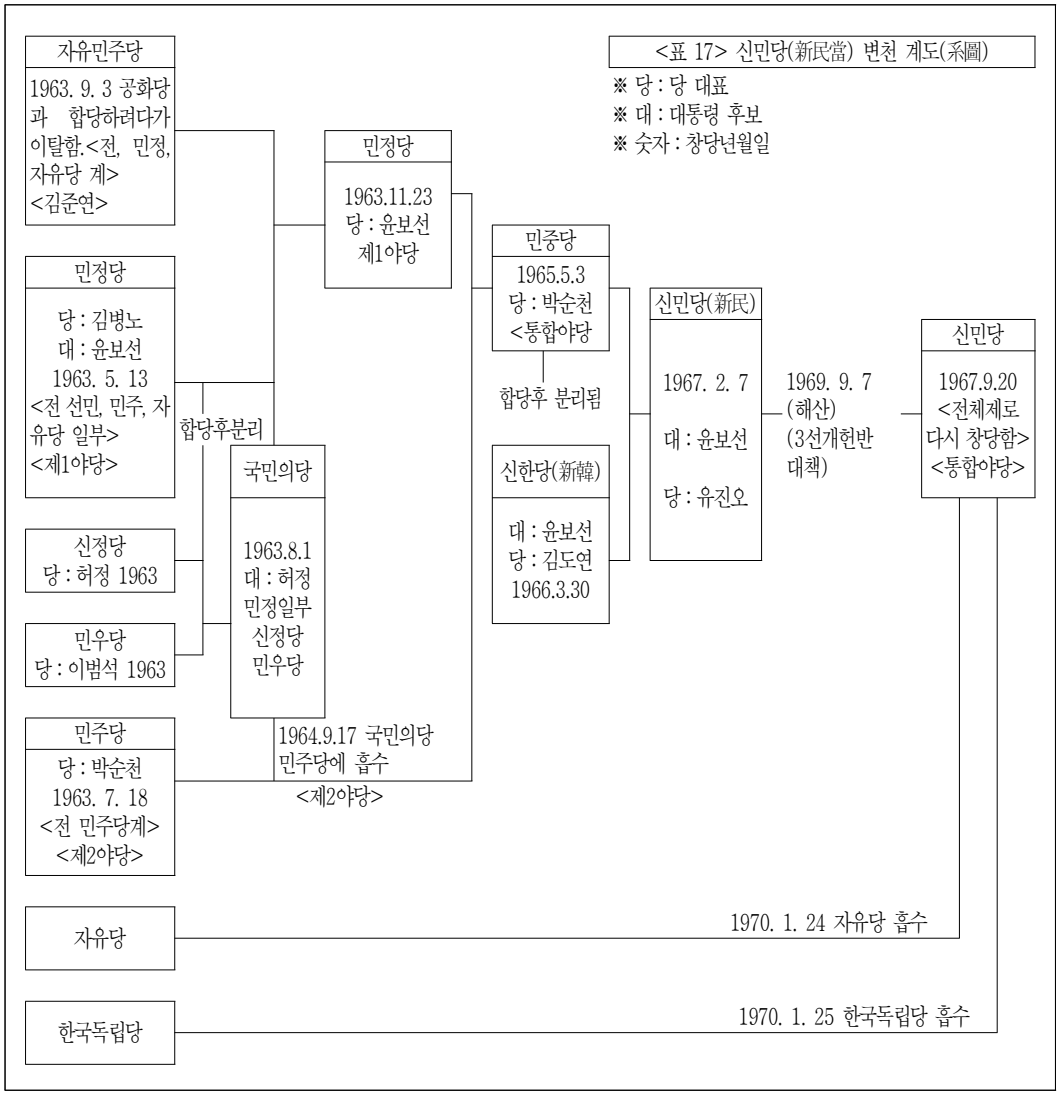
제3절 제3공화국 (第三共和國)

1. 정 당

제3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에 의해 단기(短期)로 제2공화국이 종언되고 혁명정부를 거쳐 1963년 민정이양(民政移讓)이 됨으로써 출범 하였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정치활동이 중지되므로 하여 끝을 맺었다.

제3공화국을 주도한 여당은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이며, 이당은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집권당으로 존속했다. 제2공화국의 제1야당은 한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합당, 분당, 또 합당의 과정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간략히 묶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는 윤보선이 총재인 민정당(民政黨)이 제1야당이고 제2공화국을 주도했던 민주당(民主黨 대표 최고위원 박순천)이 제2야당 이었다.

이들은 1965년 5월 3일에 극적으로 합류하여 민중당(民衆黨)을 창당(創黨, 대표 최고위원 박순천) 건전야당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1966년 3월 30일에 윤보선 계열이 신한당(新韓黨)을 결성함으로써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이들은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합당하여 신민당(新民黨)을 발족 대여투쟁에 나섰고 1969년 9월 7일에는 3선개헌(三選改憲) 반대책으로 당을 해산했다가 13일 후인 9월 20일에 전 체제를 그대로 살려 다시 창당하였다. 1970년 1월 24일에는 자유당을, 25일에는 한국독립당을 흡수 제1야당으로써 발판을 굳혔고 몇 번의 분당위기를 가까스로 면하며 제4공화국까지 존속했다. 이를 알아보기 쉽게 간략하게 도표로 만들면 <표 17>과 같다



신민당 외에 신민회(후에 민중당으로 개명), 대중당(大衆黨), 통일사회당(統一社會黨), 국민당(國民黨) 등 군소 정당이 많았는데 선거철이면 우후죽순처럼 여러 당이 생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맥이 끊기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3공화국에서 함평의 정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1963년 2월에 결성했으며 선거법의 변경에 따라 제3공화국에서 다음과 같이 변천했다.

지 구 당 명	창 당	위 원 장	관 할 지 역	비 고
전남 제18지구당	1963. 02.	정 헌 조(鄭憲祚)	영광군·함평군	정헌조위원장, 6대국회위원 당선(11.26)
전남 제18지구당	1967. 05.	윤 인 식(尹仁植)	〃	위원장, 7대 국회의원 당선
전남 제20지구당	1969. 06. 19	윤 인 식(尹仁植)	〃	선거구 증설로 인함
전남 제21지구당	1971. 01. 23	윤 인 식(尹仁植)	함평군	영광, 함평분리
전남 제21지구당	1971. 05. 25	윤 인 식(尹仁植)	〃	위원장, 8대 국회의원에 당선

2)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1963년 9월에 제18지구당을 창설 서진걸(徐進杰)이 위원장이 되고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었다. 선거후 활동이 없으므로 자연 소멸되었다.

3) 민주당(民主黨)

1963년 중앙당 결성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전남 제18지구당이 창당되고 김석(金 晳)이 위원장이 되어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되었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권오주(權五住)가 전남 제18지구당 위원장으로 취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했다.

4) 민정당(民正黨)

민정당 중앙당 창당 요원인 김의택이 1963년 5월에 전남 제18지구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동년 11월 26일에 실시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하였으나 낙선 하였으며 그후 민중당과 합당함으로써 소멸되었다.

5) 신민당(新民黨)

1967년 2월 7일 중앙당이 창당된 아래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통합야당으로 대여투쟁에 나선 정당이다. 신민당이 결당되기까지의 계도(係圖)는 앞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제3공화국에서의 변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 구 당 명	창 당	위 원 장	관 할 지 역	비 고
전남 제18지구당	1967. 01.	조 영 규(曺永珪)	영광군·함평군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낙선(6. 8)
전남 제20지구당	1969. 09. 17	이 진 연(李震淵)	〃	선거구 조정으로 인함
전남 제21지구당	1971. 02 .13	이 진 연(李震淵)	함평군	영광군, 함평군 분리
전남 제21지구당	1971. 05. 25	이 진 연(李震淵)	〃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

6) 자유당(自由黨)

1967년 4월에 전남 제18지구당을 창당 김덕부(金德富)가 위원장이 되고 동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하였다.

7) 민중당(民衆黨)

이 당은 1963년 9월 11일 신민회(新民會)로 출발하였는데 1967년 3월 23일 민중당으로 바꾸었다. 1965년 발족했다가 신민당으로 개명한 민중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다. 1967년 5월 남궁전(南宮筌)이 전남 제18지구당을 결당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했고 1971년 4월 13일에 권오봉(權五奉)이 전남 제21지구당(함평)을 창당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했으나 낙선하였다.

8) 통일사회당(統一社會黨)

1967년 3월 차영주(車榮柱)가 전남 제18지구당을 결성,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했으나 등록 무효가 되었고 1971년 3월 31일에 제21지구당을 결성 총선에 임했으나 낙선하였다.

9) 국민당(國民黨)

1970년 2월 25일에 정순민(鄭淳珉)이 전남 제21지구당을 결성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되었다. 동년 6월 20일에 자진 해산했다,

2. 선거

제3공화국 기간중 실시한 선거는 대통령 3회로,
제5대 : 1963. 10. 15.
제6대 : 1967. 05. 03.
제7대 : 1971. 04. 27이며
국회의원 선거 또한 3회이다.
제6대 : 1963. 11. 26(선거구 전남 제18지구당, 함평군, 영광군)
제7대 : 1967. 06. 08(선거구는 제6대 때와 같음)
제8대 : 1971. 05. 25(선거구 전남 제21지구당·함평군)
우리는 제3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2회 경험하였다.
○ 1962. 12. 17. 헌법개정
○ 1969. 10. 17. 대통령 신임 여부 3선개헌(三選改憲)이었음.

1) 대통령 선거

(1) 제5대 대통령 선거

5·16혁명 후 민정(民政)으로 이양하는 첫 선거이며 제1공화국부터 있어온 정당들이 모두 해체되고 새로이 출발한 첫 선거라는데 큰 의의가 있는 선거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실시하였다. 9월 5일에 공고가 되고 15일까지 등록 마감을 했는데 입후보자는 장이석(張履奭·신흥

당), 송요찬(宋堯讚·자유민주당), 박정희(朴正熙·민주공화당), 오재영(吳在永·추풍회), 윤보선(尹潽善·민정당), 허정(許政·국민의당), 변영태(卞榮泰·정민회), 이상 7명이었고 송요찬은 옥중 출마를 했었다.

투표결과 박정희 후보는 전남북, 부산, 경남북에서 승리하였고 윤보선 후보는 서울, 경기, 충남북, 강원도에서 승리했다. 15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0월 3일 허정 후보가, 12일에는 송요찬 후보가 사퇴하였고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박 정 희 (朴 正 熙)	4,702,640	당 선
윤 보 선 (尹 普 善)	4,546,614	차 점
오 재 영 (吳 在 永)	408,664	
변 영 태 (卞 榮 泰)	224,443	
장 이 석 (張 履 奭)	198,837	

<박후보와 윤후보의 시도별 득표상황>

도 별	박 정 희	윤 보 선
서 울	371,217	802,052
경 기	384,764	661,984
경 북	837,124	543,392
경 남	706,079	341,971
강 원	269,711	368,092
충 북	202,789	249,397
충 남	405,077	490,663
부 산	242,779	239,083
전 북	408,556	343,171
전 남	767,712	480,800
제 주	81,422	26,000

함평에서의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인수	유효	무효	계	기권	투표율	장이석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변영태	계
57,303	45,959	4,540	50,499	6,804	88	1,033	27,635	1,898	14,758	644	45,959

(2) 제6대 대통령 선거

1967년 5월 3일에 실시했다. 입후보자는 모두 7명으로 이세진(李世鎭·정의당), 전진한(錢鎭漢·한독당), 윤보선(尹普善·신민당), 김준연(金俊淵·민중당), 박정희(朴正熙·민주공화당), 오재영(吳在泳·통한당), 서민호(徐珉濠·대중당)이었다.

5대 때와 같이 윤보선, 박정희 후보의 대결이었다.

개표결과

박정희 5,688,666표

윤보선 4,526,541표

이세진 98,433표

전진한 233,179표
김준연 248,369표
오재영 264,533표 였다.

표의 성향을 보면 5대 때 남북 현상이 깨지고 박후보가 윤후보에게 앞선 표의 거의가 영남에서 쏟아져 나왔다. 야당의 아성이라고까지 하던 서울에서 야당이 근소한 차이로 여당에게 이겼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5대 때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박후보가 윤후보에게 3만여표를 졌다. 박, 윤후보의 시도별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 별	박 정 희	윤 보 선
서 울	595,513	675,716
부 산	338,135	164,707
경 기	525,676	674,964
강 원	429,589	340,807
충 북	269,830	252,469
충 남	489,516	505,611
전 북	392,087	451,611
전 남	652,847	682,622
경 북	1,083,939	447,082
경 남	838,939	281,545
제 주	73,150	41,572
계	5,688,666	4,526,541

함평군의 개표결과를 보면 5대 때는 박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으나 6대 때는 윤후보에게 패했다. 후보별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수	유효	무효	계	기권	투표율	이 세 진	전 진 한	윤 보 선	김 준 연	박 정 희	오 재 영	계
61,659	50,141	2,692	52,833	8,926	87	492	1,262	23,596	2,122	21,151	1,418	50,141

(3)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 27일에 실시하였다. 공화당에서는 박정희, 신민당에서는 김대중(金大中), 국민당에서 박기출(朴己出), 민중당에서 성보경(成輔慶), 자민당에서 이종윤(李鍾潤), 정의당에서 진복기(陳福基), 통사당에서 김철(金哲)을 후보로 내세워 모두 7명이 경합하였다. 그러나 공화당과 신민당 후보의 각축전으로 전개되었다. 김대중은 신민당 공천 과정에서 크게 혼선을 빚고 일어선 호남 출신이었다. 따라서 신민당이 내세운 “호남 푸대접”이 호남의 유권자를 크게 자극하여 호남 선풍을 몰고 왔다.

투표결과 박정희 6,342,828표, 김대중 5395,900표, 진복기 122,914표, 박기출 43,753표, 이종윤 17,858표로 박후보가 김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지역별 득표 상황을 보면 김후보가 전남북, 서울에서 우세했고 박후보가 기타 여러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표차는 특히 대조적이었다. 박, 김후보의 지역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 도 별	박 정 희	김 대 중
서 울	805,772	1,198,018
부 산	385,999	302,452
경 기	678,985	696,582
강 원	502,722	322,556
충 북	312,744	222,106
충 남	556,632	461,978
전 북	308,850	535,519
전 남	479,737	874,974
경 북	1,333,051	411,116
경 남	891,119	310,595
제 주	78,217	57,004
계	6,342,828	5,395,900

함평에서는 김후보가 28,400표를 얻어 박후보와 비교하여 16,088표를 이겼다.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후보자	박 정 희	김 대 중	박 기 출	이 종 윤	진 복 기
득 표 수	12,312	28,400	169	92	1,715
득표율(%)	28.9	66.5	0.4	0.2	4.0

2) 국회의원 선거

(1)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구현을 위해 무소속 입후보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천 지망자들로 붐볐고 짭잘한 재미를 만끽한 군소정당이 많았다는 후문이 있었다. 또 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지역구 선출의원과 정당추천 전국구의원이 있어서 전국구 의원 추천 순위를 놓고 각 당은 전통을 겪기도 했다. 지역 선거구는 131개이며 전남은 19개 선거구였다. 함평군은 영광군과 합쳐 1개 지역 선거구가 되고 공식 명칭은 전남 제18지구당이었다.

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를 낸 정당은 12개 정당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 당 명	지역선거구	전 국 구	정 당 별	지역선거구
민 주 공 화 당	131	31	신 민 당	29
민 정 당	131	30	정 민 회	36
국 민 의 당	110	22	신 흥 당	11
민 주 당	120	22	한 독 당	9
자 민 당	117	16	보 수 당	79
자 유 당	42		추 풍 회	33

1963년 11월 26일 선거결과는 민주공화당 110명(지역구 88명, 전국구 22명), 민정당(民政黨) 41명(지역구 27명, 전국구 14명), 민주당 13명(지역구 8명, 전국구 5명), 자유민주당 9명(지역구 6명, 전국구 3명), 국민의당 2명 (지역구 2명뿐)이 당선되고 7개 정당에서는 1명의 당선자도 없었다.

민정당이 원내의 제1야당이 되었다. 전남 제18지역 선거구인 함평과 영광군에서는 5개 정당에서 입후보를 하였는데 함평출신은 김의택, 김석이 출마하였고, 영광 출신은 정헌조, 조기상, 서진걸이 출마했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 후보 정헌조가 당선되고 민정당 후보 김의택이 차점자가 되었다. 후보자별 인적사항과 득표상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 11. 26)후보자별 득표상황

후보자명	소속정당	연령	직업	학력및경력	득표수	
					함평·영광함계	함평군
조기상(曺淇相)	자유민주당	26	무직	서울대 문리대졸	10,447	3,030
서진걸(徐進杰)	보수당	46	〃	농림부비서실 기획계장	3,046	1,641
김석(金 晳)	민주당	52	회사장	상해법정대졸, 임시정부 비서장	11,367	6,960
김의택(金義澤)	민정당	54	전국회의원	광농 3년 수료, 3,4,5대 민의원	13,703	10,139
정헌조(鄭憲祚)	민주공화당	44	농업	영광중졸	41,145	12,487

(2)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6월 8일에 실시하였고 흔히 6·8선거라 칭한다. 의원 정수는 6대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 계 175명이었다. 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11개 정당이나 선거전은 압축되어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통합야당의 면모를 갖춘 신민당의 대결이 되었다.

전국의 선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흐려 관권개입, 금품살포등이 자행되었고[347] 야당인 신민당은 자금사정으로 전국구를 정치헌금과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 선거결과 참여 3개 정당만 당선자를 내었다. 민주공화당 129명(지역 102, 전국구 27명), 신민당 55명(지역 28명, 전국구 17명), 대중당 1명(지역구 뿐)이었다. 함평은 영광과 합쳐 1개 선거구를 이루었는데 공식 명칭은 전남 제18지역 선거구였다.

전남 제18지역선거구에서는 6명이 입후보 하였는데 후보자의 군별 출신지를 보면 함평군이 윤인식, 차영주, 권오주 영광군이 조영규, 김덕부, 남궁전이었다. 차영주는 등록 무효가 되었다. 선거전이 전개되자 다른 지역선거구처럼 민주공화당(후보 윤인식)과 신민당(후보 조영규)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민주공화당의 윤인식 후보가 당선되고 조영규 후보가 차점자가 되었다. 후보별 득표상황은 <표 20>과 같다.

347) 전라남도, 간행 전남도지, 1982 1174쪽 참고함.

<표 20> 제대 국회의원 선거(1967. 6. 8) 결과표

후 보 자 명	소속정당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득 표 수	
					함평·영광함계	함평군
김 덕 부(金德富)	자 유 당	48	객척사업	대동신문사 부사장	522	165
남 궁 전(南宮銓)	민 중 당	39	상 업	목포문태중졸 기획계장	945	376
조 영 규(曺泳珪)	신 민 당	53	의 사	북경동국대 2년 중퇴	28,854	11,655
차 영 주(車榮柱)	통 사 당	29	사 업	고대정외과졸	(등록무효)	
권 오 주(權五柱)	민 주 당	28	의 약 업	고대대학원졸,외국경리시보사장	1,120	467
윤 인 식(尹仁植)	민주공화당	44	사회사업	중앙신학교	66,680	35,677

(3)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5월 25일에 실시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선거구 조정으로 전국선거구는 153개 선거구로 늘어났고 전국구도 44명에서 51명이 되었다. 함평군의 공식명칭은 전남 제21지역 선거구였다.

정당별 후보자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이 전국 153개 지역구에서 모두 입후보 하였고, 그외 국민당 121개, 통일당 59개, 대중당 53개, 민중당 35개로 지역구로 573명이 출마했다. 개표결과 신민당이 서울에서 19개 의석중 18석, 부산에서 8개중 6개, 대구에서 5개 의석 전부를 차지하는 야도(野都)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전남에서는 민주공화당 15명, 신민당 7명이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 의석은 204석으로 민주공화당 113석(지역 86명, 전국구 27명), 신민당(지역 65명, 전국구 24석), 국민당 1명, 대중당 1명이 되었다. 함평에서는 6명이 입후보 하였고 민주공화당 후보 (윤인식)가 신민당 후보 (이진연)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다. 득표상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 5. 25) 결과표

후 보 자	소 속 정 당	득 표 수	비 고
윤 인 식(尹仁植)	민 주 공 화 당	22,041	당 선
이 진 연(李震淵)	신 민 당	20,868	차 점
정 정 휴(鄭正休)	국 민 당	309	
정 순 민(鄭淳珉)	대 중 당	168	
권 오 봉(權五奉)	민 중 당	719	
차 영 주(車榮柱)	통 일 당	501	

3) 국민투표(國民投票)

(1) 1962년 12월 17일의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는 제3공화국의 헌법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혁명정부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 1962년 7월 11일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7월 16일 9인소위원회(九人小委員會)[348]를 만들어 신헌법의 문제점을 정하도록 했고 8월 6일에는 이를 토대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각 도청소재지의 주요 도시 12개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동 위원회는 3개월간에 걸쳐 심의를 끝내고 11월 13일 전문(全文) 5장(章) 121조(條)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 박정희 의장 명의로 발의 공고했다.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2월 17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공고하였다. 헌정사상(憲政史上) 처음으로 갖는 국민투표였다.

개표결과 투표율은 85.2%였고 찬성 8,339,333표, 반대 2,008,801표, 무효 237,864표, 기권 1,829,800표로써 투표자의 찬성율이 78.78%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을 1962년 12월 26일 공포하였다. 전남과 함평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지역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남	1,625,427	1,446,857	1,185,179	230,448	1,415,179	31,230	178,570	89	81.9
함평군	55,890	50,783	41,161	7,979	49,140	1,643	5,107	90.8	81.0

(2) 1969년 10월 17일의 국민투표

이 투표는 3선개헌(三選改憲)에 대한 국민투표다. 1969년 1월부터 나돌기 시작한 개헌설은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징계파동 등의 난관을 거쳐 7월 29일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개헌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9월 14일 새벽 야당의원들이 반대를 위해 농성중인 국회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별관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국민투표일이 10월 17일로 공고되었다.

신민당은 이날의 국민투표에 대해 공개(公開), 릴레이 투표가 행해지고 투표 통지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전국 8천여 투표소의 반수 가량이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개표결과 서울을 제외하고는 찬성자가 많았으며 투표율 대 찬성율은 65.1%였다.

전남과 함평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반대
전 남	1,883,817	1,557,540	82.7	1,100,640	399,220
함평군	61,809	50,163	82	32,593	15,319

348)유진오, 한태연, 박일경, 이형오, 강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

제4절　제4공화국(第四共和國)

1. 정 당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維新憲法)이 발효된 197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서거한 후 1980년 5월 17일 계엄이 선포되기까지를 한계로 할 수 있다.

제4공화국의 정당은 제3공화국이 유신체제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제3공화국의 정당과 같다. 단 야당인 신민당이 당내의 잡다한 내분을 겪으면서도 야당으로 성실히 자리를 굳힌 것이다. 기타 군소정당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언급할 선거 중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3공화국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은 모든 선거에서 제외되었으나 제4공화국은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다.

2. 선 거

제4공화국에서 우리가 치룬 선거는 국민투표 2회, 대통령 선거 4회(간접),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2회, 국회의원 선거 2회였다.

국민투표는

1회, 1972. 11. 21(유신헌법확정)

2회, 1975. 02. 15(유신헌법존속에 대한 찬반)이며

대통령 선거는

제 8 대 : 1972. 12. 23(간선)

제 9 대 : 1978. 07. 06(간선)

제10대 : 1979. 12. 06(간선)

제11대 : 1980. 08. 27(간선)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제 9 대 : 1973. 03. 27

제10대 : 1978. 12. 12이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는

제 1 대 : 1972. 12. 05

제 2 대 : 1978. 05. 18이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국회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하되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었다.

1)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

(1) 제1대 통대(統代)의원 선거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15일에 제1대 통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선(直選)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인원은 2천~5천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 결의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 제1대 통대의원은 모두 2,359명이었다. 함평군에서는 함평읍과 학교면에서 각 2명씩 그 외 7개면에서는 1명씩의 통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각 읍면의 통대의원 입후보자와 득표 상황은 표22와 같다.

<표 22> 함평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득표상황

읍 면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읍 면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함 평 읍	김 병 기	2,963	당선	엄 다 면	황 만 금	1,059	
〃	홍 순 호	1,591		〃	조 성 도	1,100	당선
〃	강 인 주	2,727	당선	〃	지 홍 재	1,062	
손 불 면	김 재 붕	2,505		대 동 면	이 상 순	1,455	
〃	김 만 성	2,633	당선	〃	박 병 구	1,934	당선
신 광 면	김 동 표	2,179	당선	나 산 면	안 인 수	무투표	당선
〃	홍 정 섭	1,244		해 보 면	정 남 혁	1,412	당선
학 교 면	김 유 원	1,730	당선	〃	유 창 남	1,097	
〃	김 민 수	2,403	당선	〃	윤 선 식	1,108	
〃	김 형 열	722		월 야 면	안 종 영	2,231	
〃	김 민 규	1,326		〃	정 진 재	2,360	당선

(2)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23일 통대의원 2,359명 전원이 참석하여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2,357표를 얻어 박정희 후보가 8대 대통령이 되었다.

(3)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

1978년 5월 18일 실시하였는데 정수(定數)는 2,581명이었다. 함평군에서는 함평읍은 2명, 그외 8개면은 각 1명으로 합계 10명을 선출하였는데 입후보자와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읍 면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읍 면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함 평 읍	이 우 행	3,883	당선	엄 다 면	조 성 도	2,082	당선
〃	강 인 주	1,876	당선	〃	김 희 남	1,371	
〃	김 병 기	1,745		대 동 면	김 영 곤	1,816	당선
〃	최 수 원	1,117		〃	박 병 구	1,284	
손 불 면	김 상 요	1,961	당선	〃	이 상 순	1,787	
〃	김 만 성	1,163		나 산 면	이 상 길	1,790	당선
〃	김 정 수	1,800		〃	안 인 수	1,765	
〃	김 용 일	974		〃	박 종 연	904	
신 광 면	김 용 일	1,829	당선	〃	이 진 범	830	
〃	김 동 우	1,565		해 보 면	윤 주 원	2,000	당선
학 교 면	김 민 수	2,922	당선	〃	정 남 혁	1,936	
〃	정 종 남	824		월 야 면	이 은 묵	2,640	당선
〃	김 유 원	2,477		〃	정 진 재	2,458	

(4) 재9대 대통령 선거

1979년 7월 6일에 실시하였는데 개표결과 박정희 후보가 유효 2,577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당선되었다.

(5) 제10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서거(1979. 10. 26)한 후인 동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하였는데 최규하(崔圭夏)후보가 재석 2,560명중 유효 2,465표, 무효 88표, 기권 11표로 당선되었다.

(6) 제11대 대통령 선거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1980년 8월 21일에 공고하여 8월 27일에 실시하였고 개표결과 재석 2,535명중 유효 2,524, 무효 1표, 기권 10표로 전두환(全斗煥)후보가 당선되었다.

2) 국회의원 선거

(1)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제4공화국의 국회의원 임기는 6년이며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의 폐단을 막는다는 뜻에서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를 채택하였다. 함평군은 영광, 장성군과 합쳐 1개 선거구가 되었으며 2명의 당선자를 선출하였다. 공식명칭은 전남 제10지역 선거구였다.

제9대 국회의원의 정수(定數)는 73개 지역 선거구에서 146명의 지역구의원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의 의원을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 선출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219명이다. 또 새 선거법은 전과는 달리 합동연설회, 선전벽보, 그리고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1973년 2월 27일에 실시한 제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에는 339명이 출마하였고, 당선자는 민주공화당 73명,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 19명이었다. 함평군이 소속되어 있는 전

남 제10지역 선거구에서는 4명이 출마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함평군 결과만임)

후 보 자	소 속 정 당	출 생 지	득 표 수	비 고
윤 인 식	민주공화당	함 평 군	18,866	3개군 득표 1위 당선
이 진 연	신 민 당	〃	17,070	3개군 득표 2위 당선
김 상 복	민주통일당	장 성 군	2,731	
정 헌 조	무 소 속	영 광 군	6,119	

(2)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하였다. 선거결과는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이었다. 그러나 정당별 득표수는 신민당이 민주공화당보다 1.1%가 더 많았다. 전남 제10지구당인 함평지역에는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민주공화당의 김재식(金在植), 신민당의 이진연(李震淵)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상황(함평군에 한함)은 다음과 같다.

후 보 자	소 속 정 당	출 생 지	득 표 수	비 고
김 재 식	민주공화당	장 성 군	9,857	3개군 합계 1위 당선
이 진 연	신 민 당	함 평 군	24,953	3개군 합계 2위 당선
조 기 상	민주통일당	영 광 군	5,843	
김 연 관	무 소 속	〃	1,421	

3) 국민투표

(1) 1972년 11월 21일 시행 유신헌법(維新憲法) 확정 국민투표

전국적 집계는
총유권자 : 15,676,395명
투 표 자 : 14,410,714명
찬　　성 : 13,186,559명(투표자의 91.5%)
반　　대 : 1,106,143명
무　　효 : 118,012명
기　　권 : 1,265,681명이다.
함평군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무효	기권	투표	찬성율
54	126,139	60,272	55,312	54,717	558	37	4,960	91.8	98.9

(2) 1975년 2월 12일 시행 유신헌법 체제의 정부 신임 국민투표

함평군의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무효	기권	투표	찬성율
54	126,639	59,048	52,553	40,433	11,460	660	6,495	89.1	76.9

제5절 제5공화국(第五共和國)

1. 정 당

기존 정당들은 새 헌법의 발효로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결성되었다.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여당이 되었고, 구 신민당이 주축이 된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제1야당의 위치를 굳혔으며 그외 국민당(전 민주공화당의 일부와 유신정우회 일부가 주축), 민권당(함평출신 김의택이 초대 당수)등 다수의 정당이 등장했다.

함평은 영광, 장성군과 함께 1개 지역 선거구가 되었으며 공식명칭은 전남 제11선거구가 된다. 1981년에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원일민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등 11개지구당 정당들이 창당을 했으며, 85년과 86년에 신한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4개의 정당이 창당을 했으나 5공당시 함평에서 활동을 했던 정당은 민주정의당, 신정당, 민주한국당의 3개 지구당이었다.

2. 선 거

제5공화국에서 우리가 치룬 선거는,
국민투표 : 1980. 10. 22(제5공화국 헌법 확정)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 1981. 02. 11
제12대 대통령 선거 : 1981. 02. 25(간접선거)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1981. 03. 25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1985. 02. 12 이상 5회이다.

1) 1980년 10월 22일 시행 제5공화국 헌법확정 국민투표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국회에서 주도해오던 개헌작업이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선포로 중단되고 정부가 주축이 되어 1980년 9월 9일 10장 131조로 된 시안(試案)을 내놓았고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발의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여졌으며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공포되었다.

특이점은 각 선거를 논할 때 언급키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함평군의 제5공화국 헌법확정 국민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무효	기권	투표율	찬성율
54	96,344	51,984	51,100	45,079	4,904	1,117	884	93.3	88.2

2) 제1대 대통령 선거인(大統領 選擧人) 선거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을 간선(間選)하게 되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인은 직선(直選)하게 되어 있다.

제1대 대통령 선거인은 1981년 2월 11일에 선거하였고 전국의 정원은 5,278명이다. 출마한 사람은 9,479명이었고, 소속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민주정의당 : 3,676명
민주한국당 : 411명
국 민 당 : 48명
민 권 당 : 20명
무 소 속 : 1,123명

우리 함평에서는 각 읍면에서 2명씩 18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32명이 입후보 하였다.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별	후보자	득표수	비고	읍면별	후보자	득표수	비고
함평읍	이 승 우	2,086	당선	엄다면	황 만 금	859	당선
〃	김 재 길	2,462	당선	〃	김 병 국	472	
〃	유 판 옥	2,079		〃	이 경 재	641	
〃	김 사 혁	1,535		대동면	이 민 호	1,547	당선
손불면	최 순 실	1,863	당선	〃	황 성 주	2,033	당선
〃	이 길 구	1,734	당선	〃	서 인	940	
〃	최 덕 균	1,584		나산면	이 재 열	무투표	당선
신광면	노 영 환	788	당선	〃	최 병 권	〃	당선
〃	모 영 규	977	당선	해보면	윤 국 중	1,304	당선
〃	임 유 광	784		〃	박 내 옥	1,489	당선
〃	임 학 연	483		〃	이 장 행	978	
학교면	정 종 남	1,733	당선	〃	정 우 철	106	
〃	김 국 성	1,777	당선	월야면	정 태 환	1,272	당선
〃	지 길 상	1,282		〃	장 종 진	1,216	당선
〃	신 호	988		〃	정 병 귀	1,102	
엄다면	이 부 헌	1,022	당선	〃	정 경 열	1,187	

3) 제12대 대통령 선거

새 헌법에 대통령은 선거인에 의해서 선출되고 임기는 7년이며 단임(單任)으로 되어 있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1981년 2월 25일 실시하였다. 전두환 후보가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소속정당	득표수
전 두 환(全 斗 煥)	민주정의당	4,755
유 치 송(柳 致 松)	민주한국당	404
김 종 철(金 鐘 哲)	국 민 당	85
김 의 택(金 義 澤)	민 권 당	26

민권당의 김의택 후보는 엄다면 신계리 출신이다.

4) 국회의원 선거

(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3. 25)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선거구제로 우리 함평은 영광, 장성과 같이 1개 선거구이며, 공식명칭은 전남 제11선거구이다. 11선거구에서는 7명이 입후보 하였는데 함평출신 3명, 영광출신 3명, 장성출신 1명이었다.

개표결과 민주정의당의 조기상(曺淇相), 신정당의 이원형(李元衡)후보가 당선되었다. 함평군에서의 후보별 득표상황은 아래와 같다.

후보자	소속정당	득표수	출생지	비고
안 종 필	원일민주당	1,681	함 평 군	
윤 인 식	국 민 당	8,119	〃	
이 진 연	민주한국당	16,931	〃	
김 상 복	민 권 당	1,165	장 성 군	
김 연 관	민주사회당	1,541	영 광 군	
조 기 상	민주정의당	6,854	〃	3개군 합계 1위·당선
이 원 형	신 정 당	3,507	〃	3개군 합계 2위·당선

(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 12일)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평을 포함한 영광, 장성 제11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개표결과 민주정의당 조기상, 민주한국당의 이진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지역 총 유권자 51,480명중 40,72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9.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각 후보별 득표상황은 아래와 같다.

후 보 자	소 속 정 당	득 표 수	득 표 율(%)	비 고
이 원 형	신정사회당	3,240	8.1	
조 기 상	민주정의당	9,125	22.8	당 선
김 상 복	신한민주당	1,134	2.8	
이 진 연	민주한국당	23,524	58.8	당 선
백 상 규	한국국민당	2,992	7.5	

제6절 제6공화국(第六共和國)

1. 제6공화국의 출범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사실상 정치적 패배를 시인해야 했다. 또한 신민당의 압도적인 우세속에서 보수야당들도 정치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었다. 1985년 후반기에 들어서 개헌문제가 점차 부상하기 시작하여 86년에는 본격화된다. 이후 민족민주세력과 야당은 공조하여 직선개헌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1987년 4월 김대중·김영삼은 신민당을 탈당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개헌 논의를 분쇄하고 야당과 민주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4·13호헌조치는 지식인, 종교인, 문인 등 각계 각층의 반대선언과 단식농성을 낳았으며, 직선제 민주헌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게 했다. 5월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성명발표가 있었고,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5월 27일 '호헌반대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어 24만 명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 와중에서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쟁의 열기는 가열되었다. 막바지에는 전국 34개시와 4개 군에서 140여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투쟁이 전개되어 결국 5공화국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굴복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직선제 수용,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의 석방, 국민기본권의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등 8개항이 선언에서 약속되었다.

2. 정 당

1987년 6·29선언으로 약속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수많은 정당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한 일과성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수명은 그리 길지 못했다.

6공의 정당 변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3당의 합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월 민주정의당(대표 노태우), 통일민주당(대표 김영삼), 신민주공화당(대표 김종필)의 합당은 자유민주당이라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 민주자유당은 후일 김영삼 정권을 낳게 했고 정국 또한 여당 주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민주자유당은 뒤에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후에도 여당으로 자리 잡았으나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제1야당이 된다. 한편 제6공화국에 있어 모든 정당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성싶다.

합당, 분당, 또 합당의 과정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함평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정당에 대해서만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새정치국민회의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이 민주당에 복귀하면서 정계복귀에 성공한다. 1995년 9월 민주당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야권 세력들을 규합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97년 김종필 총재로 있는 자유민주연합과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15대 대선에서 승리, 새로운 여당으로 자리 잡게 된다. 통일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으로 재창당되어 여당이 되었으나 17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다시 제1야당이 되었으며 영광, 함평, 장성지구당 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이 맡고 있다.

2) 한나라당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이 됐던 민주자유당의 후신이다. 이 민주자유당이 1996년 2월 신한국당으로 1997년 1월 한나라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공 내내 여당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으나 15대 대선 실패로 제1야당으로 전략한다. 현재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다시 여당이 되었다.

3) 자유민주연합

1992년 1월 창당된 통일국민당이 1992년 12월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면서 신민당이 되고 1995년 5월 다시 신민당과 자민련이 합당하면서 생겨난 정당이다. 현재 총재는 박태준이 맡고 있으며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현재 함평·영광지구당의 위원장은 조기상이 맡고 있다.

3. 선거 및 국민투표

1) 헌법개정 국민투표(1987. 10. 27)

6·29선언을 통한 정치민주화의 장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야협상을 통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는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였다. 총 유권자 25,617,648명 중 20,028,6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8.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93.1%(18,640,625표)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새 헌법은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당시 제정된 새 헌법에서는 여야합의에 의해 3권 분립과 대통령의 기능제한, 5년 단임의 임기,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통한 중앙통제의 약화 및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이 특징적으로 개정되었다. 다음은 함평지역의 투표상황이다.

투표구수	인구수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율
				찬 성	반 대	계				
54	80,507	49,352	46,469	42,938	2,809	45,747	722	2,883	94.2%	92.4%

2) 13대 대통령선거(1987. 12. 16)

6월항쟁의 산물로 1971년 대통령선거 이후 16년 만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되었다.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야권후보단일화는 재야와 야권의 분열로 좌절되고 이는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1월 16일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6일로 공고되면서 민정당 후보로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일체민주당 김선적, 사회민주당 홍숙자, 그리고 신정일 후보가 등록하였다. 총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김선적과 홍숙자가 사퇴하고 5명에 대한 투표가 12월 16일 실시되었다. 다음은 전국과 전남, 그리고 함평지역의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과 후보자별 득표율이다.

구 분	유권자수	투표상황		후보자별 득표상황			
		투표자수	투표율(%)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전 국	(854,378)	(827,378)		(36.6)	(28.0)	(27.0)	(8.1)
	25,873,624	23,066,419	89.2	8,382,838	6,337,581	6,113,375	1,823,067
전 남	(78,886)	(75,781)		(8.2)	(1.2)	(90.3)	(0.3)
	1,659,767	1,489,755	90.3	119,229	16,826	1,317,990	4,831
함 평	(2,779)	(2,596)		(2.3)	(0.7)	(91.7)	(0.2)
	49,121	42,849	89.3	3,138	300	39,213	79

이전에 비해 훨씬 높은 투표율은 16년만의 직선이라는 점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표결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고,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각기 지역적인 투표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후로도 지역간의 감정을 더욱 깊게 하였다.

3)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 4. 26)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12대 대통령선거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끝나고, 6월 민주항쟁의 여망은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5공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정국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국의 주도권 장악의 대결로 치달았다. 민주, 평민, 공화당 등 야권의 합의도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과의 개정안 협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은 16년 만에 1구 1인의 소선거구제를 부활시켜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혼합하는 것이었다. 지역구 총수는 224석으로 종전의 지역구의원 정수인 184명보다 30명이 늘어났지만 전국구의원 정수는 종래보다 줄어 전체 의석의 4분의 1인 75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함평·영광군 지역구에서는 민주정의당의 조기상, 평화민주당의 서경원, 신민주공화당의 최주경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개표결과 평민당의 서경원 후보가 73.4%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아래는 함평·영광지역의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상황이다.

<투표상황>

구 분	읍·면 수	투표구 수	인 구 수 ('88.2.29)	선거인수	투 표 수			기권자수	투 표 율
					유 효	무 효	계		
함 평	9	54	77,807	(2,095) 47,875	36,293	570	(2,072 36,863	11,012	77.0%
영 광	11	63	108,405	(2,173) 63,769	49,571	1,011	(2,095) 50,582	13,187	79.3%
계	20	117	186,212	(4,268) 111,644	85,864	1,581	(4,167) 87,445	24,190	78.3%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후 보 자	투 표 수			득 표 율	비 고
		함 평 군	영 광 군	계		
민 주 정 의 당	조 기 상	5,465	14,361	19,826	22.7%	
평 화 민 주 당	서 경 원	30,344	33,876	64,220	73.4%	당 선
신민주공화당	최 주 경	484	1,334	1,818	2.1%	
계	3명	36,293	49,571	85,864	100%	

13대 총선 결과 민정당은 총 125석(지역구 87석, 전국구 38석), 평민당은 70석(지 : 54, 전 : 16), 통일민주당 59석(지 : 46, 전 : 13), 신민주공화당(지 : 27, 전 : 8)을 얻었고,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헌정(憲政)사상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12대 대선 투표율 89.2%에 비해 무려 13%이상 하락한 7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선에서 야권의 분열에 대한 국민의 실망, 비이성적인 지역감정으로 인한 국민의 분열 및 정치적 냉소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역 몰표현상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광주 : 전남북에서 38석 모두를 확보한 평민당(전남 신안에서 한겨레민주당으로 출마한 박형오 후보는 총선 직후 평민당에 곧바로 입당함)과 대구의 8석 모두를 차지한 민정당과 부산·경남에서 37석 중 23석을 차지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은 충남의 18개 의석 중 13개를 석권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듯 했다.

한편 13대 총선에서는 재야 정치세력들의 독자적 정당 출마를 통한 제도정치권 진출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좌절되고, 기존 정당의 영향력에 편승한 시도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이 지역에서도 함평 출신의 서경원 후보와 무안지역의 박석무 후보가 재야출신으로 당선되었다. 함평지역의 투표율은 12대 대선때보다 12%하락한 77%를 기록했다.

4) 제1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1990. 11. 9)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는 행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야권의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시켜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북방정책의 수행을 이룩하였다. 또한 5공화국의 독재적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새출발을 위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

위원회'와 '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5공 청산의 문제를 어느정도 풀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5공 청산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는 1989년의 공안 정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전환적으로 개편하고 고양된 민족민주세력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당시 대학, 종교계, 지식인 등 민간에서의 폭발적인 통일논의와 교류 추진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만들었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작가 황석영의 방북은 '공안 합동 수사본부'의 발족을 가져왔다.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수부는 좌경세력의 발본색원이란 명분을 내걸고 재야운동권 야당, 정치인들까지 소환하는 등 정국을 경색시켰다. 6월 27일 평민당 서경원 의원의 방북 및 전격구속을 발표했다. 이것이 정치쟁점화함으로써 통일과 관련한 국제의 정계와 사회는 냉각 일변도로 선회하였다.

서의원의 경우 문목사와 달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미 4년 전인 1985년부터 김일성과의 면담을 희망해온 끝에 1988년 7월 19일부터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뒤 이를 1년 가까이 숨겨왔다는 점에선 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서의원은 1988년 7월 일본의 '식량 자립을 생각하는 국제 심포지움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차 출국했다가 서독을 거쳐 북한을 방문, 3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석과 한 차례 면담, 통일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으며 체류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다시 허담과 회담을 갖고 농민운동 지원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뒤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서의원 방북사건을 전형적인 국회 간첩단사건으로 단정, 평민당 · 카톨릭농민회 등 서의원이 활동해 온 정치권 및 재야단체에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사건의 충격은 일파만파로 퍼져갔다. 정치권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나 재판부는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의원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3,324만원을 선고하고 수행했던 방양균 비서관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공안정국 속에서 노태우 정권은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짓고, 정계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정계개편이라는 장기적 구도에 합의하고, 민정당과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민주당은 드디어 1990년 1월 22일 3당을 합당한다. 따라서 민자당의 출현으로 구체화된 정계개편으로 인해 5공 청산과 광주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공석이 된 함평, 영광군 선거구에서는 1990년 11월 9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표결과 영남 출신인 평민당의 이수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음은 투표 상황과 후보자별 투표상황이다.

<투표상황>

구 분	읍·면 수	투표구 수	인구수 ('90.9.30)	선거인 수	투표수			기권자 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함 평	9	54	69,290	(1,704) 44,595	31,092	1,311	32,403	12,192	72.7%
영 광	11	63	96,887	(1,974) 59,757	42,659	1,947	44,606	15,151	73.6%
계	20	117	166,177	(3,679) 104,352	73,751	3,258	77,009	27,343	73.8%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후 보 자	투 표 수			득 표 율	비 고
		함 평 군	영 광 군	계		
민주정의당	조 기 상	5,235	11,346	19,826	22.5%	
평화민주당	이 수 인	24,712	30,845	64,220	75.3%	당 선
무 소 속	노 금 노	1,145	465	1,818	2.2%	
계	3명	31,092	42,659	85,864	100%	

5)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 3. 24)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이 출범한 이래 야권의 통합 노력은 지지부진하다가 지자제 선거의 참패를 계기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극적으로 통합을 이룩하였다. 1991년 9월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합당선언을 통해 당명은 '민주당'으로 하고, 지도체제는 최고위원 동수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출현은 3당 합당 이후 2년여 만에 통합야당이 창당되어 다시 양당체제로 정치구조가 바뀌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양당구조는 1991년 1월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인 정주영의 정치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어 2월 8일 '통일국민당'을 창당함과 동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자금 부분을 폭로하고 나서므로써 6공화국 정권과 심각한 마찰을 초래한다.

<전국및함평·영광지역투표상황>

구분	읍·면 수	투표구 수	인구수 ('92.1.13)	선거인수	투 표 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 효	무 효	계		
함평	9	54	61,609	(1,670) 41,162	29,633	360	29,993	11,169	72.9%
영광	11	63	89,430	(2,038) 57,069	41,908	654	42,562	14,534	74.5%
계	20	117	151,039	(3,708) 98,258	71,541	1,014	72,555	25,703	73.8%
전국	유권자수 : 29,003,828				20,843,482				71.9%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후 보 자	투 표 수			득표율(%)	비고
		함 평 군	영 광 군	계		
민주자유당	조 기 상	4,847	13,201	18,048	25.2	
민 주 당	김 인 곤	17,931	24,490	42,421	59.3	당 선
통일국민당	이 진 연	1,456	1,414	2,870	4.0	
신 정 당	김 기 수	542	978	1,520	2.1	
무 소 속	안 평 수	4,857	1,825	6,682	9.4	
계	5	29,633	41,900	71,541	100	

14대 총선의 특징은 ①민자당의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 ②민주당의 개헌저지선 확보실패, ③국민당의 부상과 독점자본세력의 지배강화, ④민중당의 패배, ⑤지역주의적 투표 지속이다. 또

한 다른 선거때보다 투표율에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전년도에 실시되었던 지방의원선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투표결과가 집권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국민 양당은 2~30대 도시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총선 투표율은 71.9%로 지난 12, 13대 총선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초, 광역선거의 투표율 55%, 58.9%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다소 상승한 투표율은 야당의 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 선거에서는 정치노선 간의 대립보다는 물가와 가계의 불안정, 경제정책의 실정, 공직자 부패 등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중산층의 보수화 경향과 한국경제의 침체로 어려운 국민생활에 대한 탈피욕구가 이념적 대치선 설정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바람몰이식 득표전략의 효용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지역적 대치선(호남대 비호남)은 TK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민자당은 38.5%, 민주당은 29.2%, 통일국민당이 17.4% 등으로 이곳 광주 · 전남권역에서 민주당은 모두 석권하였지만 그 지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민자당의 득표율 향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DJ추종세력들의 약화와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부실해진 지역구관리 행태 등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함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3대 총선에 비해 다소 떨어진 73.8%(13대 총선 : 78.3%)의 투표율과 이전에 비해 늘어난 후보들의 경합으로 표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당선된 민주당의 김인곤 후보의 득표율 또한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민자당 조기상 후보의 지지율 향상과 함께 무소속 안평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선거를 통해 전에 비해 민주당 공천 후보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다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6) 제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1992년 대통령 선거의 정치사적 의미는 먼저 민주진영의 지원을 받는 '범민주 단일후보'가 반민주적 실정을 거듭해온 3당야합의 집권세력을 물리치고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막강한 재력을 등에 업은 국민당과 양김구도의 청산을 외쳐온 박찬종 후보, 진보진영을 대변한 백기완 후보가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 향후 정계개편의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30여년 동안 한국정치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온 양김의 최후, 최대의 결전장이라는 의미를 부여 받았다. 7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으나 당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양김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선거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 총재직을 떠나 중립내각을 구성하였지만 중립내각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중립성 시비'가 제기되었다. 중립내각은 관권의 선거개입 시비와 민자, 국민당의 금권시비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3당 합당을 통한 호남대 비호남의 구도를 구축하고 있었고, 여당이 지니는 조직, 자금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속의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세계적인 보수화의 흐름 속에서 집권세력의 변화를 원치 않는 안정희구적 표와 오랜 야당지도자로서의

김영삼 후보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이러한 민자당의 낙관적 전망을 위협하는 '정주영 바람'에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신속한 현대 수사와 금권선거 규탄공세를 통해 국민당의 상승세를 미리 꺾어 놓았다. 한편 민주당에 대해서도 '색깔논쟁'과 지역감정을 통해 일관적으로 공략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선거전략 핵심은 '뉴 DJ플랜'이었다. 중산층에 대한 김대중의 후보의 과격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지율을 높인다는데 있었다. 때문에 적극적인 대정부공세와 선거 전략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내분과 정주영 후보의 약진을 내심 기대하는 표 분산 효과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다.

한편 국민당은 3·24총선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와 현대그룹의 조직력과 자금력 등을 무기로 득표 전략을 세웠으나 민자당의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 정주영 바람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후보자 득표상황>

구 분	유권자 수	투 표 상 황		후 보 자 별 득 표 율			
		투표자 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 영 삼	민 주 당 김 대 중	통일국민당 정 주 영	신 정 당 박 찬 종
전 국	29,422,658	24,095,170	81.9	9,977,332 (42.0%)	8,041,284 (33.8%)	3,880,067 (16.3%)	1,516,047 (6.4%)
함 평	40,207	33,630	83.5	894 (2.7%)	31,346 (94.3%)	464 (1.4%)	126 (0.4%)

선거결과 김영삼 후보가 42%의 득표율을 보여 14대 대선은 집권세력의 완승과 제도권야당의 패배, 그리고 진보적 민주진영의 실패로 드러났다. 낙선한 김대중 후보는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14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지역감정의 극명한 노출은 김대중 후보를 무력화 시키는데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고른 득표율을 보여 42%라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과 함께 이미 확보한 과반수 국회의석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다. 무엇보다도 32년만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이 문민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더욱 악화되어가는 지역감정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 다른 모든 균열과 갈등을 아우르면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또한 민자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색깔론'도 민주당에게 족쇄로 작용해 수도권에서의 야당 바람을 미연에 잠재워 놓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3당 통합이 만들어준 호남대 비호남의 갈등구도, 6공의 제한적 민주화의 효과와 문민후보의 등장에 따른 민주-반민주 구도의 상대적 약화, 5공심판과 민주-반민주 구도를 내건 정공법 대신 뉴DJ플랜의 온건 이미지 전략을 선택한 김대중 후보의 선거전략 오류 등은 호남대 비호남의 지역갈등구도를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김영삼 정권의 출범과 호남의 패배를 초래했다. 패배 후 대안도 보이지 않고 호남대 비호남의 대립구도 역시 뚜렷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7)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 4. 11)

문민정부의 개혁의 가치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연이은 대형 참사와 비리사건, 집권야당의 분열과 대립상황 등으로 문민정부의 개혁은 좌초되고 만다. 그 와중에서 6·27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의 민자당의 참패는 심각한 정계개편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권은 김종필 대표의 민자당 탈당과 김대중의 정계복귀 등 여당의 정치적 입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군사정권의 잔재 청산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조사와 구속, 12·12 및 5·18 재수사 등 일련의 정치 전략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대선거에의 금권·관권·타락·불법선거를 종식하고자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민주질서를 확립시켜 갔다.

15대 총선은 이러한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역대 선거보다 크게 진전한 모습을 보인 선거였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기도 했다. 4·11총선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보인 폭로, 금권, 타락, 바람몰이, 대·소지역주의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고, 기권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선거결과는 민심의 위대함을 나타냈다. 황금분할로 표현되던 13대 총선의 여소야대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긴장된 여소야대 관계로 나타나 무소속이나 민주당 당선자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든 소규모의 정계변화가 예상되었다.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인구수 ('95.1. 31)	유권자수 (부재자)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상황					투표율 (%)
				신한국당 양근수	국민회의 김인곤	통합민주당 김기수	무소속 김동주	무소속 박남도	
함평	51,250	37,843 (1,091)	25,880 (1,032)	3,677	19,355	662	929	385	68.4
영광	75,932	52,929 (1,726)	34,222 (1,607)	3,632	24,622	1,931	1,387	1,712	64.7
계	127,182	90,722 (2,817)	60,102 (2,639)	7,309	43,977	2,593	2,316	2,097	66.2

개표결과 국민회의의 김인곤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75.4%(43,977표)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14대총선은 역대 총선 중 63%의 최저 투표율을 나타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지역에서도 68%의 투표율 하락을 볼 수 있다.

8)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8)

문민대통령, 문민정부의 전통을 세운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부독재의 청산을 통한 정부 기강 확립과 군부개혁,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정치개혁입법의 추진 등 일련의 개혁과 안정을 추구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태생적 취약점은 정권 내내 분열과 대립의 온상

이 되었고, 지나친 정략적 정책의 추진 등은 소수정파·소지역주의에 바탕 한 '가신정치'를 추진해 수구·기득권세력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국민과 일반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또한 일관성 없는 개혁과 사정, 경제정책의 실정, 대형 참사와 비리로 얼룩진 민생의 파탄으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만 갔다.

낙관적인 정세전망과 방만한 경제정책의 추진은 수서사건, 한보비리 사건을 거쳐 기아 부도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채와 무역적자의 급증으로 와환보유고는 바닥나 3년만기 단기외채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97년 11월 21일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신청하게 되어 김영삼 정권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15대 대선은 이와 같이 국가부도 위기의 상황에서 TV토론과 신한국당의 동요와 한나라당으로의 변화,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40대기수론', 진보진영의 독자후보 출마 등 이전 대선의 전통적인 선거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개표결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 실로 50여년 만에 여야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함평지역 투표상황 및 득표상황>

구분	유권자수 (부재자)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상황						
			한나라당 이 회 창	국민회의 김 대 중	국민신당 이 인 제	국민승리21 권 영 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정치연합 김 한 식	한국당 신정일
함 평	36,785 (1,149)	31,288 (1,111)	676	29,322	319	44	36	161	79
득표율			2.2%	95.8%	1.0%	0.1%	0.1%	0.5%	0.2%

9)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 04. 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길목에서 치루어진 첫 선거로서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형성과 공정한 선거질서의 확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사상 처음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5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위법 선거운동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각급 위원회에 사이버단속반을 설치·운영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후보자의 재산등록사항·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 후보등록자료와 투·개표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선거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및 선거법 불복종 운동이 더 큰 여론의 반향을 불러왔고, 이 와중에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이라

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섰고, 공천탈락에 반발한 여야의원들이 중심이 된 민주국민당이 창당되었으며, 공동정부를 구성한 한 축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새천년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하였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외에 희망의 한국신당, 공화당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진보세력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에 뛰어 들었다. 무소속을 포함하여 총 1,040명의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 등록하여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정견·정책 대결에 의한 경쟁이 미흡하였고,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시민 담체의 불법적인 낙천·낙선운동과 이에 대한 단속불응 그리고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례가 발생하였다. 투표율도 역대 최저인 57.2%로 떨어짐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기일은 공선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 되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일은 2000. 4. 13(목)이었다. 제6대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직선 소선거구제이며 임기는 4년간으로 총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27인, 비례대표 46인으로 총 273명을 선출하였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00. 3. 25부터 2000. 4. 12까지 17일 기간이었으며 전국의 총선거인수는 33,482,387명이고 투표자수는 19,156,511명으로 투표율은 57.1%있다

전국적인 투표결과는 치열한 선거전 끝에 한나라당이 과반수에 4석 모자란 133석(지역구 112석, 비례대표 21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고, 새천년민주당은 득표율에서 한나라당에 3.1% 뒤졌으며 의석에서도 115석(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9석)으로 제1당이 되는데 실패했다. 새천년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깨고 독자세력 구축에 나섰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지역구 12석, 비례대표 5석)으로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국민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 도합 2석으로 참패를 하였다, 희망의 한국신당이 1석을 건졌을 뿐 민주노동당 등 기타정당은 원내진출에 실패였고 무소속은 5석의 의석을 얻었다. 이런 선거결과는 지역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평지역에서는 5명이 입후보하였는데 한나라당 차영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자유민주연합 조기상, 무소속으로 김용복과 장현이 출마하였다. 개표결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9.2%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아래는 함평 영광선거구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 상황이다.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유권자수 (부재자)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비고
				한나라당 차영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자유민주연합 조기상	무속속 김용복	무소속 장현	
함평	36,092 (982)	25,104 (1,032)	69.5%	480	16,959	2,272	385	4,557	
영광	54,186 (1,629)	38,822 (1,500)	71.6&	485	20,904	6,069	857	9,920	
계	90,278 (2,611)	63,926 (2,431)	70.8	965	37,863 (59.2%)	8,341	1,242	14,477	

10) 제16대 대통령선거(2002. 12. 19)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50년 선거사를 통하여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그릇된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선거였다. 구시대적 정치유산인 대결과 반목, 지역감정 조장, 비방과 인신공격 등 구태를 극복하고, 후보자의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그리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새로운 선거 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선거가 국민 모두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선거 환경이 머지않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의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일반 국민까지 참여시키는 소위 국민참여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경선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후보자 선출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대의원 1만5천명, 일반당원 2만명, 선거인단참여국민 3만5천명 등 전체 투표인단 7만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하고 2002.3.9부터 4.27까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국 16개 시· 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한나라당도 4.13부터 5.9까지 당원 2만5천명과 일반유권자 2만5천명 등 5만 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권역을 순회하며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다.

이렇듯 주요정당이 당원과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공천 후보를 선출한 것은 오랜 세월 고착화된 폐쇄적인 후보 공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2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의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시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과거와 같은 세과시를 위한 대규모 청중동원, 사랑방좌담회 개최 등 금품선거를 조장해 온 동원형 선거운동방식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발표와 예산집행, 불요불급한 시책의 홍보 또는 고위공직자의 지방출장이나 선거관여행위 등도 자취를 감추어 우리나라 선거풍토를 한층 성숙하게 하였다. 많은 유권자들이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자리바꿈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행사로 인식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참여민주

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디어선거와 인터넷선거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큰 변화였다.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 시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방송광고나 TV합동토론 등 미디어선거운동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 초· 중반의 부동층에 적합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공영방송 주관 TV대담· 토론회 등 선거법에서 정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방송연설 및 TV대담· 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선거운동의 중심무대를 길거리에서 안방으로 옮겨 놓았으며 정책대결의 선거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활용, 인터넷방송· 신문, 인터넷 동영상,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발송, 전자메일 송부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의한 다양한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은 신속성과 쌍방향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여론형성의 매체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발적인 지지모임의 결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선거문화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선거문화의 확산은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인 비방과 흑색선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거풍토 하에서도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이번 선거의 큰 특징 중 하나였다. 선거과정 내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정책은 햇볕정책을 둘러싼 대북정책과 행정수도이전 공약이었다. 북한 핵문제 해법과 대북 햇볕정책의 지속여부는 주요 정당 후보 간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이번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었고, TV합동토론회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도 급속히 높아졌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주5일 근무, 농산물 개방, 재벌정책 등 수많은 정책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사안이었다. 이러한 정책 공방이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집중적인 정책보도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청중동원식 조직선거행태, 흑색선전, 색깔론, 지역주의 등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돈 안드는 선거풍토가 뿌리내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들이 있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사용의 의무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금지 규정 개정, 사이버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TV토론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거 방식은 제15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국민,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에 한정되었고,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5년간)과 집행유예 선고(10년간)를 받은 자, 금고 이상형의 일반사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피선거권은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를 병행하되, 후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5,000명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그 밖에 후보자의 기탁금은 5억 원이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돌려받도록 하였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고, 기호는 국회 의석보유 정당은 의석순, 무의석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 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하였고, 1·2·3 순으로 표시하였다. 투표 절차는 ① 투표소 입소 ②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③ 투표용지 수령 ④ 일련번호지 분리·투입 ⑤ 기표소에서 기표 ⑥ 투표함 투입 ⑦ 퇴소 순으로 진행되었고, 개표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함을 열고, 유효·무효를 구분한 다음 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하였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첫째 한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지자에 대한 세대간 대결 양상이 빚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20~30대 등 젊은 세대는 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를, 50~60대 등 안정을 바라는 중장년 세대는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둘째 노무현 후보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획득하기는 하였지만, 호남지역에서 90%가 훨씬 넘는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지역주의 의식이 여전함을 보여 주었다.셋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비록 유효투표총수의 3.9%를 얻는 데 그쳤지만,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급진적인 이미지를 씻고 진보정당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째 전자개표를 들 수 있다. 200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때는 개표요원들이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 착오를 겪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244개 개표소에 총 960대가 투입돼 분당 250매를 처리해 개표 3시간 만에 50%의 개표가 이루어질 만큼 초고속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가려냈다. 다섯째 방송사의 정확한 출구조사를 들 수 있는데, KBS·MBC·SBS 3개 방송사의 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가 1.5~2.3% 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표 결과도 2.3%차 앞선 것으로 나타나 거의 정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후보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盧武鉉), 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權永吉), 하나로국민연합의 이한동(李漢東), 국태민안호국당의 김길수(金吉洙), 사회당의 김영규(金榮圭) 등 6명이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의 양상은 처음부터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모아졌다. 특히 개표 초반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을 기치로 내건 여당의 노무현 후보와 '부패정권 심판, 정권 교체' 등을 내세운 거대 야당 이회창 후보 사이의 치열한 접전이 국민들의 시선을 방송에 집중시켰다. 선거 결과는 전국 총 3499만 1529명의 유권자 가운데 2476만 141명이 투표에 참가해 70.8%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1971년 제7대대통령선거 때의 79.8%에 비해 9.1%나 떨어졌다. 최고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77.7%인 광주광역시이며, 충청남도가 전국 최저인 65.9%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48.9%인 1201만 4277표를 얻어 1144만 3297표(46.6%)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57만 980표(2.3%)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 밖에 권영길 후보가 95만 7148표(3.9%), 김길수 후보가 5만 1104표(0.2%), 김영규 후보가 2만 2063표

(0.1%)를 차지하였다. 함평지역에서의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별 득표상황과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유권자수 (부재자)	투표수 (부재자)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비고
				한나라당 이 회 창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호국당 김길수	
전 국	34,991,529 (867,476)	24,784,963 (814,963)	70.8%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함 평	33,865 (863	26,056 (801)	76.9%	917 3.5%	24,108 92.5%	96 0.3%	211 0.8%	32 0.1%	218 0.8%	

11)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0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당적 이탈과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2004년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이 제도의 큰 혜택을 본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새천년 민주당(5석)과 자유민주연합(4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더 적었지만(2석) 정당 득표율에서 앞서서 새천년민주당(4석)과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없음)보다 훨씬 더 많은(8석)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돈이나 금품 등으로 표를 모으려 하는 시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이른바 개혁입법으로 불리워지는 획기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음성적인 불법선거자금의 모금과정과 수법 그리고 그 규모 등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돈 선거, 돈정치의 근절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개가 고조되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었고 여·야정치권 모두 이러한 개혁분위기에 휩싸여 과감한 정치개혁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운동의 본래목적보다는 돈으로 청중을 동원하여 세과시의 장으로 오용되고 있는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의 폐지 축소하고 정치신인이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지급,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접대 받는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선거법 위반자 명단의 언론 공개, 선거 기간중 후보자의 선거비용내역 일일공개요구, 후보자 신상정보를 매세대에 우송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이 1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주관 특별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성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무

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야권은 급기야 3월12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이때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연일 탄핵찬반 촛불시위가 열렸다.

선거운동의 중심이 세과시용 집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로 변화한 것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갖는 특징 중 하나이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된 영향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중요한 선거운동의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어디까지를 인터넷언론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인여부확인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취약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에 후보를 공천한 정당별로 활동내용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초 정동영이 당의장에 선출되면서 새천년민주당에 뒤처지던 지지도가 역전되어 2위로 올라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경합 내지는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서는 선전을 펼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17대 총선에서 과반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는데, 2004년 3월 12일에 터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고, 과반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동영은 이에 책임을 지고 선대 위원장직 사퇴 및 비례대표 후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총선 결과 원내 152석을 확보하면서 19년 만에 최초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은 수백억 원의 기업 비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도가 결정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전당대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홍사덕 의원을 제치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공약한 박근혜 의원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박근혜 대표는 차떼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거여 견제론에 바탕하여 선거운동을 펼쳤고, 영남 지역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121석을 확보하여 선거운동기간 초기에 예상되었던 참패를 면할 수 있었다.민주노동당은 사상 최초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포함, 두 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13.1% 정당투표 득표율로 무려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여 새천년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발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이어진 당내 내분의 결과 추미애가 새천년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추미애는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지지세 회복을 도모했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전라남도에서 5석, 비례대표 4석을 얻어 원내 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충청권 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려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 새천

년민주당과 공조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데 대해 충청권의 민심은 냉랭했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의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충청남도에서 겨우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민련 총재 김종필은 비례대표순위 1번으로 등록하여 국회의원선거 10선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4석에 그치고 비례대표 득표 역시 2.8%로,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에 미달하여 원내 입성이 좌절되어 결국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제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문경·예천의 신국환과 나주·화순의 최인기 뿐이었다.(이후 두 의원 모두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의 정몽준이 당선에 성공하여 1석을 얻었지만 대한민국의 시·도당과 당원의 수가 부족하여 17대 국회가 개시된 후 약 3개월여가 지난 9월경에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은 2004. 4. 15(목)에 실시되었으며 제7대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직선 소선거구제이며 임기는 4년간으로 총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3인, 비례대표 56인으로 총 299명을 선출하였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04. 4. 1부터 2000. 4. 14까지 14일 동안이었으며 전국의 총선거인수는 35,607,296명이고 투표자수는 21,581,550명으로 투표율은 60.6%있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투표율 57.2%와 비교하면 높고, 2002년 대선의 70.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16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이 부활됐고 진보정당으로 불리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초선의원이 전체의 3분의2에 달하는 188명에 이르렀고 당선자의 연령도 30-40대가 전체 의원수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여성당선자도 39명으로 16대의 1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역구 선거결과 열린우리당 129석, 한나라당 100석, 민주당 5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21 1석, 민주노동당 2석, 무소속 2석 획득하였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1인 2표제 도입하여 정당별로 득표한 비율에 의거 56석을 배분한 결과 열린우리당 38.3%로 23석, 한나라당 35.7% 로 21석을 그리고 민주노동당 13.1%로 8석, 새천년민주당 7.1%로 4석으로 배분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2.8%를 득표하였으나 3%미만'과 '지역구 5석 이상'확보해야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함평지역에서는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한나라당 한남열,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열린우리당 장현, 자민련 김흥주가 출마하였다. 개표결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5.2%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영광함평선거구 정당별 득표 현황은 한나라당 1,307표, 새천년민주당 21,506표, 열린우리당 23,821표, 자민련 512표, 국민통합21 268표, 가자희망 2080 64표, 공화당 81표, 구국총현합 40표, 기독당 389표 노년권익보호당 103표, 녹색사민당 276표, 민주노동당 4,688표, 민주화합당 674표, 사회당 227표, 무효표1,5424표였다. 함평지역의 정당별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454표, 새천년민주당 9,592표, 열린우리당 8,293표, 자민련 245표, 국민통합21 99표, 가자희망 26표, 공화당 32표, 구국총연합 12표, 기독당 183표 노년권익보호당 38표, 녹색사민당 82표, 민주노동당 1,941표, 민주화합당 239표, 사회당 98표, 무효표 615표를 득표 하였다. 다음은 함평 영광선거구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 상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한남열	새천년 민주당 이낙연	열린 우리당 장 현	자민련 김홍주	계		
합계	82,217	55,499	67.50	826	30,123	23,025	517	54,491	1,008	26,718
함평군	33,200	21,950	66.11	314	13,399	7,527	306	21,546	404	11,250
영광군	49,017	33,549	68.44	512	16,724	15,498	211	32,945	604	15,468

<후보자 명부>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영광군	한나라당	한남열	남/57.03.08	정당인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 한나라당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사무국장 -'98년도 이회창후보선거유세연설원	826 (1.52%)	
	새천년 민주당	이낙연	남/52.12.20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과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 민주당 대변인	30.123 (55.28%)	당선
	열린 우리당	장현	남/56.12.23	호남대학교교수	플로리다주립대대학권졸업 정치학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열린우리당 보건복지특별위원장	23.025 (42.25)	
	자민련	김홍주	남/47.09.14	(주)태일건설대표이사	조선이공대토목공학과졸업	- 자유민주연합 부대변인 - 광주광역시 근대5종 경기연맹회장	517 (0.95%)	

12).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19)

(1). 선거사적 의의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정부수립 60년을 앞두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표인 선거를 통한 정권연장 혹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특히, 여야 주요정당은 1년 내내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나라당의 우세 속에서 본 선거보다도 더 치열한 당내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검찰의 BBK사건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유력 후보자와 BBK의 연루의혹' 이 연일 제기되었고, 선거 종반까지도 후보단일화 시도가 계속되는 등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선거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이나 선거폭력 등 과거 악습은 거의 사라져 바르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실종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투표율도 63.0%로 역대 대통

령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런 반면, 이번 제 17대 대통령선거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서 부터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서 역대 선거에 비해 진일보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 선거라 할 수 있다.

(2). 정당의 당내경선

이번 선거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 정당은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경선방식에서도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선거운동, 투·개표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이 개정(2005. 8. 4)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사무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이투표 및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 경우 경선선거인의 구성비율과 지역별 편중, 경선선거인 동원 및 당비 대납, 포럼·팬클럽 등의 불법 경선선거운동 참여, 경선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경선 중단 및 거부, 심지어 경선후보 사퇴 등 파행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율도 극히 저조하고, 특정지역의 경선 선거인수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가 퇴색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선거관리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 관리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중첩되었으며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와 50 여개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가 동시실시 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업무량이 가중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7 년 1 월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선거관리지침 조기 시달, 인력시설·장비 사전 확보, 선거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선거에는 총 152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이들 중 11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 또는 일정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기탁금을 예치한 후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공명선거지원단 및 정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후보자 등록서류 등 안내 및 사전심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물론 각종 정당행사 등의 허용·금지사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위법시비 등 논란 없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법규운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법규안내 T/F팀을 구성하여 2만여 건에 이르는 전화·인터넷 질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 Call Back 시스템' 을 도입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금강산·개성공단·독도는 물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현장에서도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기존의 점자투표 안내문 외에 음성투표 안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특정지역·계층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모든 선거장비·용품의 디자인과 사양을 변경하여 유권자가 선거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밝고 세련된 분위기의 투표소를 운영하였음은 물론, 수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량 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절차 사무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서부터 당선인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었다. 다만 특정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항의 및 이의제기가 있었고, 투표지 분류기의 성능 불신을 이유로 수작업 개표를 요구하여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E-mail 발송,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대중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폐지됨에 따라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운동과 인터넷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UCC 동영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전자메일 송부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아울러 2004 년 3 월 12 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TV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수가 많고 토론형식이 너무 정형화되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역동성은 미흡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4).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운동의 방식과 후보자선택 기준을 정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도하에 정책선거실천협약식·국제학술회의·토론회·설명회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민적 정책이슈에 대한 정당의 기본정책과 후보자의 핵심공약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정책공약 비교·분석의 틀을 확정하여 제시하였고, 시민단체·언론사는 정책공약 비교분석토론회 개최, 정책비교 기획시리즈 연재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선과정에서는'경제 성장'과'대운하 건설'등 정책경쟁이 어

느 정도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BBK사건 연루의혹', '탈세 · 위장전입 의혹'등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선거 종반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기대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행위 감시 · 단속 이번 대통령선거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실시되고 정당 간, 보수 · 진보세력 간, 특정후보 지지성향의 언론사 및 팬클럽 · 포럼시민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구조가 심화되면서 비방 · 흑색선전, 관권선거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시 · 도에 특별조사팀과 비방 · 흑색선전 특별대책부 및 공명선거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여 정당 · 후보자에 대한 맞춤식안내 등 예방 · 단속 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났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후보검증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측면이 있었다.

반면 본 선거기간 중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선거법」 위반행위는 610건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1,267건보다 51.9%가 줄었다.

이중, 금권 · 관권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당내경선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모임 등 유사기관 · 사조직과 비방 · 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오히려 제 16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상북도 청도 · 영천군수 및 충청남도 연기군수 재선거에서 조직적인 금품살포 행위가 선거 후에 적발되어 선거운동원이 자살하고 수십 명이 구속되는 한편, 1,500여명의 주민이 자수하는 등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위한 보다 철저한 감시 · 단속과 예방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자수의 증가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높아졌고 사이버상의 비방 ·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시 · 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이트의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여 총 87,812건의 위법게시물을 적발하여 비방 · 흑색선전 관련 36건을 고발 · 수사의뢰 조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등 단순한 사전선거운동성 내용의 게시물은 삭제 조치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 반대의 견을 게시하는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비방 · 흑색선전 ·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대통령이 각종 모임 · 행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행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 결과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무리한 결정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국민의 한사람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1월 17일“대통령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는 이유로 동 신청을 기각하였다.

언론 및 홍보활동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언론 활동으로 국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위해 각종 제한 · 금지사항을 적기에 언론에 제공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언론에 공표하였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담은 「e-선거정보」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보」 발송, 기자에게 취재수첩 배부 등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로 정하고 모든 홍보전략과 방법을 단일 컨셉으로 집중하는 통합홍보(IMC)를 전개하였다.

중앙에서는 TV ·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위주로, 시 · 도에서는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구 · 시 · 군에서는 현장 위주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른 선거구도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어 언론, 시민 · 사회단체 등과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참여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63%로 과거 직접선거로 치러진 11번의 대통령선거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1년 넘게 특정 정당 ·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사상 유례없는 폭로전으로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선거 시마다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자,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표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2007년 7월 3일 국회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심의를 거쳐 총 27건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으나, 국외부재자투표 등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정당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결국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되었다.

② 개정의견 제출 및 국회심의

1994년 3월 16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제정으로 종전까지의 포괄적 제한·금지 체제를 개별적 제한·금지 체제로 전환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대정신과 정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선거·정치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역량 을 강화하며, 선진 정치문화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6년 12월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자 같은 해 12월 28일「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추가로 국회 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7년 7월 3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정치관계법」과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종합하여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총 27건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잠정 합의를 하였으나,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자 사망 시 선거 연기, 수작업 개표 등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정당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결국「정치관계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실시되었다.

③ 개정의견 주요내용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결국 대통령선거 전에는 처리되지 못했으나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였다.

주요 작성 방향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확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활성화,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 조성,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자유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확대,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복장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연설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토론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불참자에게는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정책공약의 구체적 목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정책공약집』 을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개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하였다.

마. 방송 · 신문 등 미디어의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언론매체의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와 정당 · 후보자의 권리구제 상시 보장 등을 위하여 현행 보도매체별로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매체의 선거보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통합심의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관원 · 상사원 ·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 · 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투표참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하였다.

사. 후보자 관련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 · 병역 · 납세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 ·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보선거공보『정책공약집』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적용 배제규정을 두도록 제안하였다.

아.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조정하는 한편, 선거범죄 근절을 위하여 정당 간부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안하였다.

주요 작성 방향은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보호와 육성, 정당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은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와 종이당원 · 당비인출 등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정당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활동방해죄, 당대표경선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등「정당법」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직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정당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주요 작성 방향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성방법의 확대, 정치자금사무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선거권자수 기준 1,000원으로 인상하며, 법인 · 단체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지정 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액 중 1만원까지는 정치자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도록 제안하였다.

㉰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후원금 기부내역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제도를 개선하며,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 16 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을 주요 정당에서 실시하였는데 2005년 8월 4일「공직선거법」 의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경선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경선운동에 관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3 개 정당의 국민참여 경선을 중앙위원회에서 관리하였고 민주노동당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현황을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원 14만명, 일반국민 130만명 등 당내경선 위탁관리 144만명, 한나라당은 당원 11만 6,000명, 일반국민 6만 9,000명 등 18만 5,000명, 민주당은 당원 40만 4,000명, 일반국민 18만 3,000명 등 58만 7,000명이 되었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경선에 비하여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서, 특히 일반국민 참여폭이 대폭 늘어난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단위로 실시된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정당별로 경선방식이 다르고 정당과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변수와 공정성 시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공정하고 하자 없이 관리함으로써 투표 및 개표관리 사무에 있어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론, 정당 측에서 경선방식을 자주 변경하고 경선선거인명부를 부실 작성하여 위원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는바, 이에 대한제도보완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정당은 경선선거인의 구성비율과 지역별 안배가 부족하였고 지난 제 16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국민의 경선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매우 낮은 투표율을 나타냄으로써 후보자의 조직 동원 능력과 경선지역별 특정후보 지지 선거인수 분포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참여경선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도 하였다.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분	유권자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통 합 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 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 한국당 문국현	계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 사람연합 전관	한국 사회당 금민	무소속 이회창			
전 국	37,663,518	23,732,854	6,174,681	11,492,389	712,121	160,708	1,375,498	23,612,880	119,974	13,920,664
			15,380	96,756	7,161	18,223	3,559,963			
전남도	1,500,831	971,461	757,309	88,834	23,178	23,074	31,289	962,851	8,610	529,370
			938	2179	517	743	34,790			
함평군	31,915	22,101	17,937	1,643	305	640	526	21,800	301	9,814
			17	37	27	20	648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명부

기호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1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남/53.06.17	정당인	서울대 국사학과 졸	통일부 장관	6,174,681 (26.14%)	
2	한나라당	이명박	남/41.12.19	정당인	고려대 경영학과 졸	서울시장	11,492,681 (48.67%)	당선
3	민주노동당	권영길	남/41.11.05	국회의원	서울대 농과대학 졸	제17대 국회의원	712,121 (3.01%)	
4	민주당	이인제	남/48.12.11	국회의원	서울대 법학과 졸	경기도지사	160,708 (0.68%)	
5	국민중심당	심대평	남/41.04.07	국회의원	서울대 경제학과 졸	제17대 국회의원	12.7 사퇴	
6	창조한국당	문국현	남/49.01.12	정당인	서울대학원 경영학석사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1,375,498 (5.82%)	
7	참민주연합	정근모	남/39.12.30	정당인	민시간주립대 응용물리학 박사	명지대학교 총장	15,380 (0.06%)	
8	경제공화당	허경영	남/47.07.13	정당인	방송통신대 법학과졸	제15대 대선후보	96,756 (0.40%)	
9	새시대참사랑 연합	전 관	남/44.12.17	정당인	육군사관학교	학생중앙 군사학교장	7,161 (0.03%)	
10	한국사회당	금 민	남/62.09.03	정당인	독일아우구스트대법학 석사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	18,223 (0.07%)	
11	화합과도약을 위한국민연대	이수성	남/39.03.10	정당인	서울대 법학박사	국무총리	12.14사퇴	
12	무소속	이회창	남/35.06.02	정치인	서울대 법헉과 졸	국무총리	3,559,963 (15.07%)	

1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에 실시되어 여·야 정당 간의 정국주도권 확보경쟁 및 한나라당의 의석 과반수이상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된 선거였다. 또한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지속되어 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2004년의 대통령 탄핵과 같은 대형 정치적 이슈는 없었던 반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한'정국운영 안정론' 과 야당의'거대여당"있었고, 북한의'미사일발사 등 전쟁 위협'발언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각 정당의지도부끼리 경쟁하는 선거구와 공천결과에 불복하여 탈당 후 무소속 또는 신생정당으로 출마하여'여여 또는 야야'후보끼리 격돌하는 지역의 선거판세가 언론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모두 17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역대 선거사상 최다 정당이 참여 하였으나, 각 정당은 공히 공천갈등으로 후보자등록기간이 거의 임박해서야 각 선거구의 후보자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중대 선거범죄는 과거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공천이 늦어짐에 따라 정책이나 공약준비가 소홀해 과거와 같이 불법 선거자금과 흑색선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도 후보자등록 등 선거관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유권자 또한 정당·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공약 등을 검증할 시간도 그만큼 부족하였다.

특히, 중앙당의 일방적 하향식 공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당을 급조하여 출마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지속되어 온 상향식 공천은 실종되었으며 당선인들에 대한 복당, 비례대표 공천대가 수수, 후보자 자질미달 등의 논란은 선거 후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선거일까지도 지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아 우열을 점칠 수 없는 접전지역이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위법논란이 가열되기도 하였다.'한반도 대운하 건설' ,'뉴타운 건설'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당·후보자 간 정책대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거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투표율도 전국단위 선거사상 최저인 46.1%를 기록하였다. 반면,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과거보다 선거법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질서 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공천지연 및 투명성이 결여된 비례대표 공천, 정책선거의 실종, 지역주의 투표행태 잔존 및 낮은 투표율 등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선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활성화되었던 당내 경선에 의한 상향식공천 대신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하향식공

천을 실시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경선 이후 나타난 당내 계파갈등이 고스란히 공천과정에 이어지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 상당수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친박연대' 라는 정당을 창당하여 출마하였으며, 민주당도 제 17대 대통령선거 이후 형성된 당내 계파갈등이 공천과정에서 재연되면서 탈락한 현역의원 등 중량급 정치인 상당수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대통령선거 패배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들 두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한해 여론조사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선을 실시하였다. 당초 우리 위원회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경선 위탁관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단 한 건의 당내경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선거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전남지역의 경우 풍랑주의보로 일부 섬에 거주하는 143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2월 29일 개정된「공직선거법」 에 도입된 교통불편지역에 교통편의 제공 및 전국 국·공립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 등 이른바'투표참여 인센티브제도' 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통편의 제공은 지역 간·후보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지 못하였고,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 제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관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조례 등 미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제한되었고, 이용 가능한 시설도 이용대상 및 이용기한 등이 상이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번 제18대 극회의원 선거일은 2008. 4. 9(목)에 실시되었으며 선거구제는 직선 소선거구제이며 임기는 4년간으로 총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5인, 비례대표 54인으로 총 299명을 선출하였다. 제17대와 총의석수는 299석으로 동일하나 지역구에서 2석이 증원되고 비례대표에서 2석이 감소되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03. 3. 27부터 2000. 4. 8까지 13일 동안이었으며 전국의 총유권자수는 37,796,035명이고 투표자수는 17,395,887명으로 투표율은 46%였다. 이는 역대 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을 획득하였고 무소속이 25명이 당선되었다, 지역구는 한나라당 131석, 통합민주당 66석, 자유선진당 14석, 친박연대 6석, 민주노동당 2석, 창조한국당 1석을 선택받았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1인 2표제에 의한 정당별로 득표한 비율에 의거 54석을 배분한 결과 한나라당 37.5%로 22석, 통합민주당 25.2% 로 15석, 자유선진당 6.9%로 4석, 친박연대 13.2%로 8석, 민주노동당 5.7%로 3석, 창조한국당 3.8%로 2석으로 배분하였다. 기독사랑실천당이 2.6%를 득표하였으나 3%미만'과 '지역구 5석 이상'확보해야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비례대표 의석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함평지역에서는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한나라당 한남열, 통합민주당 이낙연, 평화통일가정당 김영수, 무소속 이상선이 출마하였다. 개표결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67.9%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함평지역의 정당별(비례대표)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786표, 새천년민주당 12,169표, 자유선진당 162표, 민주노동당 1,234표, 창조한국당 295표, 친박연대 216표, 국민실향안

보당 1,139표, 기독당 607표, 문화예술당 54표, 사민당 46표, 신미래당 32표, 직능연합당 21표, 진보신당 216표, 평화통일가정당 948표, 한국사회당 208표, 무효 626표, 기권 12,877표를 득표하였다. 다음은 함평 영광선거구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 상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통 합 민주당 이낙연	한나라당 한남열	평화통일 가정당 김영수	무소속 이상선	계		
합계	117,240	64,309	54.8	42,950	2,271	1,676	16,321	63,218	1,091	52,931
함평군	31,636	18,758	59.2	10,497	369	403	7,146	18,415	343	12,878
영광군	47,106	27,033	57.3	18,614	974	685	6,283	26,556	477	20,073
장성군	38,498	18,518	48.1	13,839	928	588	2,892	18,247	271	19,980

<후보자 명부>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통합 민주당	이낙연	남/	국회 의원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졸업	-현 국회의원 -전 민주당 대변인	42,850 (67.7%)	당선
	한나라당	한남열	남/	정당인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광주남구청장 입후보 제17대 국선함평영광입후보	2,271 (3.6%)	
	평화통일 가정당	김영수	남/	NGO 활동	호남대 국어국문학과 3년 재학	통일부통일교육전문위원 남북통일지도자총연합회 영광군회장	1,676 (2.6%)	
	무소속	이상선	남/	정치인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육군군수관리학교장 장성상무골프장 사장	16,321 (25.8%)	

4. 지방자치제의 실시

6·29선언 이후의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종래의 지방의회 구성에 대한 유예의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의 길이 열린 것이다. 88년 4월에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 자치구로 하고 자치 계층을 전국에 걸쳐서 2계층으로 한다.
- ○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으로 하고 피선거권은 의원이 25세, 기초자치단체 의장은 30세,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35세 이상으로 세분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정한다. 즉 의결권의 범위에서 소송·화해에 관한한 사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권을 조사권으로 바꾼다.
○지방선거법을 지방자치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을 시·군·구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즉 시·군 자치구의 의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시·군 자치구의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의 설립방법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되었으며 3월 26일 기초지방단체 의원선거가 있었고, 6월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정부에서 임명하고 지방의회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반쪽 자치제에 불과하였다. 30년 만에 부활된 선거였지만 국민의 관심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이해득실을 따져 기초 및 광역선거를 분리선거 하도록 결정한데다 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시·군·구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기초의회의원 선거(1991. 3. 26)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당이 개입할 수 없었지만, 3당 합당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 정계에서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각 지역의 소단위에서 선거가 실시된 까닭인지 선거의 열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3월 8일 선거공고 후 후보자가 전국에서 10,159명이 등록하여 평균 2.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26일 실시된 투표에는 55%의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유권자의 45%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일제히 50%를 밑돌았다.

함평에서는 총 9개의 선거구에서 27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3대 1의 후보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은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이다.

선거구	성명	성별/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함평읍	김 봉 학	남/55세	농 업	고퇴	함평단협 감사	2,956
손불면	이 기 노	남/51세	운수업	고졸	새마을운동함평군지회장	1,563
신광면	이 용 헌	남/68세	농 업	고졸	신광면 부면장	848
학교면	정 성 화	남/49세	토건업	고졸	예비군 중대장	1,725
엄다면	윤 표	남/49세	농 업	국졸	엄다농협 이사	907
대동면	김 영 관	남/56세	농 업	고졸	함평카톨릭농민회장	1,697
나산면	김 경 호	남/58세	농 업	국졸	평민당 나산면 위원장	1,354
해보면	윤 여 은	남/46세	농 업	대졸	예비군 중대장	1,473
월야면	이 록 범	남/63세	도정업	고졸	평민당 전남발전특별위원	1,380

2) 시·도의원 의원선거(1991. 6. 20)

광역자치단체인 15개의 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6월 1일 선거가 공고되어 후보등록이 시작되었고 6일에 등록이 마감되었다. 모두 866명을 선출하는 의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2,877명으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구 1인제의 광역의회선거는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 기초의회 의원선거보다는 비교적 활기를 띠었다. 각 정당들은 단순한 지방선거라기보다는 6공화국이후, 특히 3당 합당 이후의 정치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과 타락상이 나타났다. 이 선거결과를 차기 총선에서 중요한 공천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당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과열과 금권·타락선거의 양상을 가중시켰다.

이 지역 광주·전남에서도 호남의 이미지를 희석화하기 위해 몇몇 재야인사를 영입하면서 평민당을 신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지만, 지역주의적 투표행태 때문에 신민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을 보장받기 때문에 금품시비가 있기도 했다.

광역선거의 투표에는 총 2,808만3천명의 유권자 가운데 1,653만3천여 명이 참가하여 평균 58.9%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겨우 5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다소 높은 60%대의 투표율이 나타났다. 개표결과 민자당은 총 866개 선거구 가운데 564개 지역에서 압승을 기록하였다. 민자당은 광주, 전남북,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넘는 564석은 차지했으며, 부산의 경우 50개 의석 모두를 휩쓸었다. 신민당은 전국적으로 165석, 민주당은 21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민중당 1석, 무소속 115석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민자당 41%, 신민당 22%, 민주당 14%로 야권의 분열이 민자당의 압승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거결과로 민자·신민 양당구조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민자당이 중앙과 지방정치무대를 완전 석권, 더욱 비대화한 반면 신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완패, 위축됨으로써 정당의 불균형 공존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의회의 민자당의 의석점유율이 모두 80%를 넘어 정치통념상 '야도(野都)'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전체적으로 일당독주(一黨獨走, 호남은 신민당)에 의한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 약화가 우려되었다.

<함평군 광역의회 선거구>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후보자수
함평	제1선거구(함평읍, 손불, 신광, 엄다면)	1	2
	제2선거구(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	1	2
	계	2	4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득표수	지지율(%)	비 고
제1선거구	신민당	이 연 행	7,321	59.1	당 선
	무소속	김 녕 호	5,074	40.9	
제2선거구	신민당	정 원 강	10,124	79.9	당 선
	무소속	정 남 진	2,544	20.1	

3) 군의원 보궐선거(1993. 9. 10)

1991년 3월 실시된 기초의원 의원 선거에서 월야면 당선자였던 이록범이 의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1993년 9월 10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인구수 ('93. 7. 31)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장호	정윤철	서현상
월야면	6,672	4,707	2,931	63.1%	1,056 (36.0%)	1,501 (51.2%)	374 (12.0%)

5. 제4대 지방선거(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종래의 선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마다 두던 각각의 선거법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된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였을 뿐 아니라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 환경 하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운동방법도 다양하고 새로워져 종전보다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정당·후보자는 TV토론 등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운동방법과 개인용 컴퓨터, 전화, 자필서신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와의 대면기회가 확대된 반면 4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후보자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현수막, 소형인쇄물, 선거공보 등 많은 선전물이 동시에 게시·발송되므로 인하여 후보자 식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했던 금품살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시비가 거의 사라지고 TV토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밝은 전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선거구 및 정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구가 정해졌으며 동법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 선거별 선거구 및 정수현황

구 분	계	시·도지사 선 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 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수	4,885	15	230	875	15	3,750
정 수	5,758	15	230	875	97	4,541

후보자 등록은 '95. 6. 11 오전 9시부터 6. 12 오후 5시까지 전국 284개 구·시·군위원회와 15개 시·도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하였다.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구 분		선거구수	정 수	후보자등록상황	평균경쟁률
합 계		4,885	5,758	15,596	2.7:1
시·도지사선거		15	15	56	3.7:1
자치구·시·군의장선거		230	230	943	4.1:1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875	875	2,449	2.8:1
	비례대표	15	97	178	1.8: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3,750	4,541	11,970	2.6:1

○ 선거별·정당별 등록상황

구 분		계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	대한민주당	천민당	한국당	무소속
합 계		15,596	1,153	807	279	2	1	1	13,353
시·도지사선거		56	15	11	9	—	1	1	19
자치구·시·군의장선거		943	209	156	67	—	—	—	511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2,449	833	582	179	2	—	—	853
	비례대표	178	96	58	24	—	—	—	11,970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1,970	—	—	—	—	—	—	—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전라남도지사를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 선거에는 민자당 공천 전석홍 후보와 민주당 공천 허경만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허경만 후보가 총유권자 1,504,598명중 투표자수 1,144,447명(투표율 76.1%)의 757,196표(득표율 73.40%)를 얻어 당선되었다. 함평지역의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전석홍	민주당 허경만	계		
함 평	38,526	30,170	78.31%	7,200	19,853	27,053	3,117	8,356

2) 광역의회의원 선거

제1선거구(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에서는 정찬동(민자당 공천), 조성택(민주당 공천), 김녕호(무소속), 김희남(무소속), 박성일(무소속), 윤영수(무소속), 조동윤(무소속) 7명이 출마하였고 조성택 후보가

28.3%를 득표 당선하였으며 제2선거구(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면)에서는 정남혁(민주당 공천), 김성완(무소속), 정남진(무소속) 3명이 출마하였고 정남혁 후보가 51.6%를 득표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제1 선거구	민자당	정 찬 동	남/58세	농 업	정광고졸	-민자당지구당부위원장 -함평읍농협장	1,052 (7.6%)	
	민주당	조 성 택	남/50세	사 업	성균관대졸	-공군사관학교교관 -민주당지구당부위원장	3,923 (28.3%)	당선
	무소속	김 녕 호	남/58세	창고업	전남대 중퇴	-전남일보 사회부 기자	2,064 (14.9%)	
	무소속	김 희 남	남/61세	농 업	전남대경영 대학원수료	-금태산업주식회사 근무	591 (4.3%)	
	무소속	박 성 일	남/47세	상 업	전남대경영 대학원수료	-함평주유소 대표 -새마을운동함평군지회장	2,780 (20.0%)	
	무소속	윤 영 수	남/41세	축산업	전남대행정 대학원수료	-광주일보 주재기자 -초동농장대표	1,707 (12.3%)	
	무소속	조 동 윤	남/51세	사 업	고려대정책 대학원수료	-재경함평군향우회부회장 -나산건설 관리본부장	1,755 (12.7%)	
함평군 제2 선거구	민주당	정 남 혁	남/61세	농 업	원광대 중퇴	-해보면장 -해보농협장	7,647 (51.6%)	당선
	무소속	김 성 완	남/53세	수의사	전남대졸	-김동물병원장 -아태평화재단중앙위원	4,394 (29.6%)	
	무소속	정 남 진	남/52세	농 업	단국대행정 대학원수료	-국회문공위원장보좌관 -새한전통공계술보존회지부장	2,790 (18.8%)	

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함평군수를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정원강(민주당 공천), 김영진(무소속), 이연행(무소속), 홍양희(무소속) 3명이 출마하였고 정원강 후보가 32.7%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후보자 명부 및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성별/나이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비 고
민주당	정 원 강	남/66세	정당인	목포중졸	-완도, 신안, 광양, 해남군수 -전남도의원	9,352 (32.7%)	당 선
무소속	김 영 진	남/58세	사 업	조선대졸	-함평교통 대표이사 -지방행정동우회장	8,215 (28.2%)	
무소속	이 연 행	남/55세	사 업	전남대행정 대학원수료	-전남도의원	7,124 (24.5%)	
무소속	홍 양 희	남/48세	사 업	전남대졸	-농촌지도소근무 -청계상가 대표이사	4,258 (14.6%)	

4) 기초의회의원 선거

함평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함평지역에서는 총 9개의 선거구에서 35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4대 1의 후보 경쟁률을 보였다. 함평읍은 장춘섭, 노금노, 강병태, 김백룡, 손

영무 5명, 손불면은 지풍, 임인택, 전상표, 전평근, 이길구 5명, 신광면은 이용헌, 이진섭, 모상영, 배상필 이민행, 오종봉 6명, 학교면은 이만근, 정성화, 김국성, 3명, 엄다면은 이부헌, 정정조, 정장, 윤표 4명, 대동면은 김영관, 정봉곤, 노광섭, 2명, 나산면은 노광섭. 안종래, 이문행, 정판수, 김경호 5명, 해보면은 이재화, 박래옥 2명, 월야면은 소수정, 정윤철, 안현 3명이 입후보하였다. 다음은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이다.

선거구명	유권자수(부재자)	투표수	투표율	당선자	성별/나이	득표수(득표율)
함 평 읍	8,426(1,296)	6,505(249)	77.2%	노 금 노	남/43세	1,803(29.0%)
손 불 면	4,762(140)	3,728(136)	78.2%	임 인 택	남/62세	953(26.6%)
신 광 면	2,527(95)	2,134(191)	84.4%	이 진 섭	남/53세	573(27.7%)
학 교 면	5,209(183)	4,028(177)	80.8%	이 만 근	남/54세	1,623(42.4%)
엄 다 면	2,614(107)	2,141(103)	81.9%	윤 표	남/53세	631(30.4%)
대 동 면	3,457(101)	2,568(97)	74.3%	정 봉 곤	남/60세	1,464(60.4%)
나 산 면	3,619(109)	2,937(102)	81.2%	안 종 래	남/51세	1,023(36.7%)
해 보 면	3,355(99)	2,782(96)	82.9%	이 재 화	남/53세	1,332(50.1%)
월 야 면	4,557(197)	3,352(194)	73.6%	서 수 정	남/39세	1,167(36.2%)
계	38,526(1,296)	30,175(1,245)	78.3%	총 9명		

6. 제5대 지방선거(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여·야간의 정권교체, 국가경제의 악화, 고비용 정치구조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갈망의 고조 등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의 유지· 정착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현수막, 명함형 소형 인쇄물 등이 폐지되고 방송연설·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됨으로써 지역방송사 및 종합유선방송사도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방송연설· 경력방송을 실시하게 되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는 선거참여를 위한 언론매체 등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 60.12.29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도지사)선거의 38.8%이래 전국적인 선거에서 가장 낮은 52.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권자의 금품 등 기대심리 및 기부행위의 잔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한 투표율저조 등 부분적인 문제점도 일부 나타났으나, 정당· 후보자 측의 선거법 준수 노력,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대, 유권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 ,언론· 사회단체 등의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추진활동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대체로 평온하고 질서있게 치러진 선거였다.

이번선거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등으로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8.4.30, 법률 제5537호)에서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은 자치구·시· 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에서 2인을 선출하고,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은 읍· 면· 동마다·1인을 선출하되 인구 5,000인 미만의 동은 인접 읍· 면· 동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구수와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 선거별 선구구수 및 정수

구분 \ 선거별		계	시·도지사 선 거	자치구·시·군 의 장 선 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계	지역구	비례대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구수	**4,347**	16	232	632	616	16	3,467
	정 수	**4,428**	16	232	690	616	74	3,490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구수	**4,885**	15	230	890	875	15	3,750
	정 수	**5,758**	15	230	972	875	97	4,541
증 가	선거구수	**감538**	증1	증2	감258	감259	증1	감283
	정 수	**감1,330**	증1	증2	감282	감259	감23	감1,051

선거인명부는 열· 공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구제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일전 7일인 ’98.5.28에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선거인수는 인구수의 69.6%인 32,537,815명이었다. 이중 남자가 15,998,331명 여자가 16,539,484명이었으며, ’9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보다는 1,489,249명이, ’97년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 보다는 247,399명이 증가하였다.

후보자 등록은 4개선거에 10,222명이 등록하여 평균 2.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 2.7:1(등록후보자수15,596명)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체 등록후보자수도 선거구수의 축소 등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정당별 후보자 등록상황(자치구· 시· 군 의회의원 선거 제외)은 4개 정당이 참여하여 전체 등록후보자의 76.3%를 추천하였으며, 이는’9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정당추천비율 61.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당추천 후보자의 등록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1인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무투표선거구는 758개 선거구(후보자 1인 선거구 25, 무투표선거구 733)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287개 선거구(후보자 1인선거구 4, 무투표선거구 283)보다 크게 늘어났다.

○ 후보자 등록상황

구분 \ 선거별	계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소 계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	**4,428 (5,758)**	16 (15)	232 (230)	690 (972)	616 (875)	74 (97)	3,490 (4,541)
등록후보자수	**10,222 (15,596)**	40 (56)	677 (943)	1,751 (2,627)	1,571 (2,449)	180 (178)	7,754 (11,970)
경쟁률(%)	**2.3:1(2.7:1)**	2.5:1(3.7:1)	2.9:1(4.1:1)	2.5:1(2.8:1)	2.6:1(2.8:1)	2.4:1(1.8:1)	2.2:1(2.6:1)

※ ( )내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통계자료임.

○ 정당별 후보자 등록상황

정당별 \ 선거별	계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41거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2,468**	**40**	**677**	**1,751**	**1,571**	**180**
한 나 라 당	**661**	12	148	501	440	61
새정치국민회의	**723**	8	169	546	478	68
자 민 련	**412**	8	93	311	268	43
국 민 신 당	**88**	4	35	49	41	8
무 소 속	**584**	8	232	344	344	

○후보자 사퇴· 사망· 등록무효현황

	계	자치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44**	**5**	**8**	**4**	**4**	**31**
사 퇴	**32**	2	4	3	1	26
사 망	**2**					2
등록무효	**10**	3	4	1	3	3

※ 등록무효는 선거법위반 5명, 기타법위반 3명, 당적보유 1명, 입후보제한언론인 1명임.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사퇴자수 등 : 48명(사퇴 29, 사망 2, 등록무효 17)

○ 후보자 1인 및 무투표선거구현황

구분	계	후보자 1인 선거구			무투표선거구		
		소 계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시·군 의장선거	소 계	지역구시·도 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선거인수	**758 (287)**	**25 (4)**	2	23 (4)	**733 (283)**	49 (41)	684 (242)
당선인수	**763 (327)**	**25 (4)**	2	23 (4)	**738 (323)**	49 (41)	689 (282)

※(　　)내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의 통계자료임.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전라남도지사를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 선거에는 국민회의 공천 허경만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찬·반을 묻는 투표가 되었다. 허경만 후보는 총유권자 1,527,489명중 투표자수 1,042,377명(투표율 68.2%)의 918,300표(득표율 88.0%)를 얻어 당선되었다.

함평군의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국민회의 허경만 찬성표	득표율(%)		
계	36,876 (1,171)	27,681 (1,120)	25,166 (1,009)	91.3	2,515 (111)	9,195 (51)
함 평 읍	8,063 (293)	5,640 (285)	5,004	88.7	636	2,130
손 불 면	4,362 (138)	3,081 (130)	2,846	92.4	235	1,143
신 광 면	2,483 (94)	1,968 (88)	1,816	92.3	152	421
학 교 면	4,928 (149)	3,527 (149)	3,233	91.7	294	1,252
엄 다 면	2,509 (84)	1,940 (80)	1,761	90.8	179	485
대 동 면	3,347 (106)	2,400 (101)	2,226	89.0	174	841
나 산 면	3,468 (104)	2,339 (97)	2,081	85.4	258	1,025
해 보 면	3,238 (79)	2,431 (73)	2,197	87.7	234	728
월 야 면	4,478 (124)	3,235 (117)	2,993	89.3	242	1,119

2) 군수 선거

이석형(국민회의 공천), 김영진(무소속) 2명이 출마하였으며 이석형 후보가 56.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투표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계	국민회의 이 석 형	%	무소속 김영진	%		
계	36,876 (1,171)	27,696 (1,120)	26,934 (1,052)	15,305 (817)	56.8	11,628 (235)	43.2	762 (68)	9,180 (51)
함 평 읍	8,063 (293)	5,645 (285)	5,527	3,112	56.3	2,415	43.7	118	2,125
손 불 면	4,362 (138)	3,084 (130)	3,006	1,553	51.7	1,453	48.3	28	1,140
신 광 면	2,483 (94)	1,969 (88)	1,914	1,089	56.9	825	43.1	55	420
학 교 면	4,928 (149)	3,528 (149)	3,454	2,091	60.5	1,363	39.5	74	1,251
엄 다 면	2,509 (84)	1,940 (80)	1,901	1,090	57.3	811	42.7	39	485
대 동 면	3,347 (106)	2,400 (101)	2,340	1,252	53.5	1,088	46.5	60	841
나 산 면	3,468 (104)	2,339 (97)	2,252	1,324	58.8	928	41.2	87	1,025
해 보 면	3,238 (79)	2,433 (73)	2,345	1,365	58.2	980	41.8	88	726
월 야 면	4,478 (124)	3,238 (117)	3,143	1,613	51.3	1,530	48.7	95	1,116

3) 도의원 선거

'제1선거구(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에서는 김희남(한나라당 공천), 김녕호(국민회의 공천), 박성일(무소속) 3명이 출마하였고 김녕호 후보가 56.5%를 득표 당선하였으며 제2선거구(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면)에서는 문중식(한나라당 공천), 박래옥(국민회의 공천), 정남진(무소속) 3명이 출마하였고 박래옥 후보가 69.6%를 득표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제1선거구>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계	한나라당 김 희 남	%	국민회의 김 녕 호	%	무소속 박성일	%		
계	17,417 (609)	13,222 (583)	12,690 (543)	737 (31)	5.8	7,172 (394)	43.2	4,781 (118)	37.7	532	4,195
함 평 읍	8,063 (293)	5,646 (285)	5,444	253	4.6	3,309	43.7	1,882	34.6	202	2,124
손 불 면	4,362 (138)	3,084 (130)	2,951	160	5.4	1,255	48.3	1,536	52.1	133	1,140
신 광 면	2,483 (94)	1,969 (88)	1,881	99	5.3	1,199	43.1	583	31.0	88	420
엄 다 면	2,509 (84)	1,940 (80)	1,871	194	10.4	1,015	42.7	662	35.4	69	485

<제2선거구>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계	한나라당 문 중 식	%	국민회의 박 래 옥	%	무소속 정남진	%		
계	19,459 (562)	14,483 (537)	13,963 (502)	595 (17)	4.3	9,721 (429)	69.6	3,647 (56)	26.1	520 (35)	4,976 (25)
학 교 읍	4,928 (149)	3,532 (149)	3,416	131	3.8	2,474	72.4	811	23.7	116	1,247
대 동 면	3,347 (106)	2,402 (101)	2,310	154	6.7	1,653	71.5	503	21.8	92	839
나 산 면	3,468 (104)	2,342 (97)	2,277	83	3.6	1,745	76.6	449	19.7	65	1,022
해 보 면	3,238 (79)	2,429 (73)	2,338	92	3.9	1,717	73.4	529	22.6	91	730
월 야 면	4,478 (124)	3,241 (117)	3,120	118	3.8	1,703	54.6	1,299	41.6	121	1,113

4) 군의원 선거

함평읍 이남경, 손불면 임인택, 신광면 모상영, 학교면 정성화, 엄다면 이부헌, 대동면 이경연, 나산면 나병기, 해보면 윤종형, 월야면 정현웅 후보가 당선되었다.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유효투표 (계)	후 보 자 별 투 표 상 황						무효표	기권
함 평 읍	8,063 (293)	5,647 (285)	5,737	노금노	%	이남경	%	이승우	%	118	2,125
				1,842	32.1	3,239	56.5	655	11.4		
손 불 면	4,362 (138)	3,085 (130)	3,096	임 인 택		%	조 용 기		%	28	1,140
				1,861		60.1	1,236		39.9		
신 광 면	2,483 (94)	1,971 (88)	2,000	모상영	%	이진섭	%	노영환	%	55	420
				1,013	50.6	500	25.0	487	24.4		
학 교 면	4,928 (149)	3,531 (149)	3,569	정 종 남		%	정 성 화		%	74	1,251
				1,504		42.1	2,065		57.9		
엄 다 면	2,509 (84)	1,941 (80)	1,967	윤 여 홍		%	이 부 헌		%	39	485
				917		46.6	1,050		53.4		
대 동 면	3,347 (106)	2,402 (101)	2,414	정봉곤	%	김영관	%	이경연	%	60	841
				756	31.3	641	26.6	1,017	42.1		
나 산 면	3,468 (104)	2,342 (97)		나 병 기						87	1,025
				무투표당선							
해 보 면	3,238 (79)	2,433 (73)	2,399	김 국 도		%	윤 종 형		%	88	726
				1,161		48.4	1,238		51.6		
월 야 면	4,478 (124)	3,243 (117)	3,253	정 현 웅		%	서 수 정		%	95	1,116
				2,263		69.6	990		30.4		

5) 기초의회 의원 보궐선거(1999. 7. 22)

1998년 6월 4일 실시된 기초의원 의원 선거에서 대동면 당선자였던 이경연이 의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1997년 7월 22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비고
				최미경	김영연	
대동면	3,440	2,167	62.9%	1,179 (54.4%)	880 (40.6%)	

7. 제6대 지방선거(2002. 6. 13)-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불과 반년후인 12월 19일에 연이어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실시됨으로써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의 본래의미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 성격을 띠는 등 종전의 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에서, 그리고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간 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적 의의는 먼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민주회의 진전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데 있다.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기 일부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던 종전과 달리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국민경선방식에 의해 선출되고 이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에까지 확산되어 정당공천이 허용된 지방선거후보자의 상당수가 경선에 의해 선출되는 상향식 공천제가 폭넓게 적용되었다.

시민단체들도 낙천 낙선운동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유권자운동을 실시하였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방선거에 소속단체의 회원들을 후보자로 추천 당선시킴으로써 정치발전에 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시도의원 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 정책에 대한 정당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계의 불법정치자금 거부 움직임과 아울러 한 정치인의 불법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고백을 게기로 정치자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돈 선거 청산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선거보다도 활발하게 대두된 선거였다. 2002. 1. 15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105명이 모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을 일절 중단하겠다는 행동윤리강령을 선포한데 이어 2.22 전국경제인연합이 정기총회에서 기업인의 결의라는 형태로 부당한 정치자금은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되 기

업에게 일체의 정치자금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등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인들을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 공영제를 통한 선거개혁방안을 제안하였고 언론 및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완전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냄으로써 완전공영제를 전제로 한 선거개혁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운동측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로 인쇄물, 신문방송을 이용한 연설 광고, 연설회 등 전통적인 선거운동방법에 더하여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당 후보자 및 네티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각광과 우려를 동시에 가져옴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선거였다.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게시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온라인상의 지지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종전의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 인터넷 신문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개최 불허를 계기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허용하거나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여부가 선거기간 개시전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의 확대 등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참여확대라는 긍정적인 정치발전 지표와는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투표참여 추세 속에서도 전국 투표율 48.9%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대표성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 선거이기도 하였다. 물론 선거가 월드컵 행사기간과 겹쳐 치러짐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이 분산되기도 하였으나 특히 20대의 투표참여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이 이번 지반선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한 선거문화 형성과 정치발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할 것이다.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한나라당 황수연, 민주당 박태영, 무소속 송재구, 송하성, 안수원 5명이 출마하여 민주당 박태영 후보가 563,54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1	한나라당	최형용	남/60.0 5.28	교수	전주대학교행정대학원 7학기졸업	-중국대련외국에대학개원교수 -퍼시택에일대학교사이버대학 총장	51,504 (5.3)	
2	민주당	박태영	남/41.1 2.04	정당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4년졸업	-산업자원부장관 -14대 국회의원	563,545 (57.8)	당선
3	무소속	송재구	남/41.0 9.21	정치인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 3년졸업	-전라남도부지사 -대통령직속중앙인사위원회위 원	236,558 (24.2)	
4	무소속	송하성	남/54.1 0.20	교수	솔본느대학정제학교3 년졸업	-대전엑스포해외유치부장-공 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89,487 (9.2)	
5	무소속	안수원	남/51.0 2.12	월드레져 타운대표	연세대향정대학원정치 학석사과정1학기재학	-자우민주연합주대변인 -자우민주연합광주전남지부장	34,339 (3.5)	

<함평군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황 수 연	민주당 박 태 영	무소속 송 재구	무소속 송 하성	무소속 안 수 원	계		
함평	34,499	25,561	74.1%	1,168	16,066	4,887	1,844	838	24,803	758	8,938

2) 광역의회의원 선거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는 제1선거구(함평, 손불, 신광, 엄다)에 최형용(한나라당 공천), 김성호(민주당공천). 김영호(무소속), 박동주(무소속) 4명이 출마하여 김성호 후보가 54.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서는 박래옥(민주당 공천), 정남진(무소속) 2명이 출마하여 박래옥후보가 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별 득표수와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나이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제1 선거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한나라당	최 형 용	남/63세	장로교회 목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4년 수료	-전남문화시민상수상 - 송이도교회목사	448 (3.9)	
	민주당	김 성 호	남/45세	정당인	조선대정책대학원지역 발전정책학과2년졸	-공군사관학교교관 -민주당지구당부위원장	6,283 (54.4)	당선
	무소속	김 녕 호	남/64세	전라남도 의원	광주농업고등학교3년졸 업	-전라남도의원 -가락함평군종친회장	1,779 (15.4)	
	무소속	박 동 주	남/41세	디자인 제조	광주대학교인문사회대 법학과4년졸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3,032 (26.3)	
함평군 제2 선거구 (학교,대동, 나산,해보, 월야	민주당	박 래 옥	남/55세	제조업	해보초등학교졸업	-해보농협장 -새천년민주당함평영광 지구당부위원장	8,860 (67.5)	당선
	무소속	정 남 진	남/59세	해인종합 건설대표 이사	무	무	4,242 (32.4)	

선거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사회당	계		
비례대표	34,499	25,573	74.1%	1,553	16,679	1,665	3,747	800	24,444	1,129	8,926

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함평군수를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는 이석형(민주당 공천)과 김영진(무소속)2명이 출마하여 이석형후보가 73.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후보자의 읍면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명부 및 득표상황>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민주당	이 석 형	남/58. 11.07	함평군수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년졸업	-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한국방송PD	18,221 (73.0)	당선
	무소속	김 영 진	남/37. 02.22	언론인	조선대학교 경제학과4년졸업	-광주문화방송보도국기자 -나산중학교 교사	6,727 (27.0)	

<읍면별 득표상황>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민주당 이석형	무소속 김영진	계		
계	34,499 (802)	25,566 (728)	18,221 (580)	6727 (123)	24,948 (703)	618 (25)	8,933 (74)
함 평 읍	7,566	5,067	3,438	1528	4,966	101	2,499
손 불 면	4,000	2,833	1,940	807	2,747	86	1,167
신 광 면	2,234	1,830	1,242	523	1,765	65	404
학 교 면	4,437	3,219	2,235	893	3,128	91	1,218
엄 다 면	2,287	1,838	1,311	494	1,805	33	449
대 동 면	3,120	2,247	1,709	495	2,204	43	873
나 산 면	3,107	2,457	1,823	584	2,407	50	650
해 보 면	2,934	2,220	1,625	549	2,174	46	714
월 야 면	4,012	3,315	2,310	727	3,037	78	897

4) 기초의회의원 선거

함평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9개선구에 24명이 출마하여 함평읍 김청수, 손불면 백맹조, 신광면 모상영, 학교면 이백주, 엄다면 김만환, 대동면 조용무, 나산면 노화섭, 해보면 정승근, 월야면 정현웅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명	기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읍	가	김 수 개	남/40. 01.02	정당인	동국대학교농학과2년중퇴	-전행정공무원 32년 -민주당함평협의회장	1,180 (23.1)	
	나	노 금 노	남/52. 10.26	농업	함평초등학교졸업	-함평군의원 -함평신협이사	1,345 (26.4)	
	다	김 천 식	남/42. 01.03	무직	서울신학대학 4년졸업	-영광군수입후보	210 (4.1)	
	라	김 청 수	남/53. 03.03	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졸업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장 -함평군기자협회장	2,364 (46.4)	당선
손불면	가	서 갑 열	남/46. 03.09	농업	무	-손불면죽장리 이장 10년 -함평군온촌지도자회감사	776 (27.8)	
	나	백 맹 조	남/41. 10.23	관광업	광주중앙초등학교졸업	-전남관광협회이사,고문 -함평태양라이온스회장	1.022 (36.6)	당선
	다	임 인 택	남/33. 03.03	군의원	전남대법과대학법률과2년중퇴	-함평군의원2.3대의원	998 (35.7)	
신광면	가	모 상 영	남/43. 12.26	군의원	목포사범병설중학교2년중퇴	-현 함평군의회의원	624 (33.7)	당선
	나	이 진 섭	남/42. 04.30	건설업	신광초등학교졸업	-함평군2대군의원역임	604 (32.6)	
	다	노 범 식	남/62. 04.17	농업	신광중학교졸업	-신광면 리장단내표 -신광면주민자치회장	112 (6.1)	
	라	장 관 식	남/58. 09.11	상업	함평신광중학교졸업	-새천년민주당영광함평지두당부위원장 -신광면의용소방대소방대장	510- (27.6)	
학교면	가	윤 영 종	남/44. 07.20	사회복지	초당대학교사회복지학과4년 졸업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1.276 (39.7)	
	나	이 백 주	남/50. 07.15	함평군의원	학다리중학교졸업	-함평군의회의원2년	1.940 (60.3)	당선
엄다면	가	김 만 환	남/38. 08.21	농업	목포사범병설중3년중퇴	-주민자치협의회엄다협의회장 -엄다농업협동조합장	1.185 (64.1)	당선
	나	이 부 헌	남/36. 12.03	농업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2년졸업	-엄다농협5,6,7대조합장 -현 함평군의원	664 (35.9)	
대동면	가	조 용 무	남/46. 06.12	농업	함평농업고등학교	지방행정공무원 -대동면번영회장	1.080 (48.2)	당선
	나	최 미 경	여/62. 11.19	함평군의원	향교초등학교졸업	-함평군의원 -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	929 (41.5)	
	다	이 은 헌	남/48. 10.21	농업	함평중학교졸업	-대동면이장단회장 -대동농업협동조합임원	230 (10.3)	
나산면	가	이 재 영	남/58. 03.03	농업	방송통신대학교농과대학2년중퇴	-나산면농업경영인회장 -새천년민주당나산면청년회장	1,155 (46.5)	
	나	노 화 섭	남/58. 08.04	농업	제일부속방송통신고등학교졸업	-나산면4-H회장 -나산면청년회장	1,323 (53.4),	당선
해보면	가	윤 종 형	남/55. 03.28	농업	해보초등학교졸업	-제3대 함평군의회의원 -해보면청년회장	857 (39.0)	
	나	정 승 근	남/48. 06.19	농업	광주농업고등학교졸업	-지방행정공무원25년 -새천년민주당함평영광지구당해보면협의회장	1,341 (61.0)	당선
월야면	가	정 현 철	님/53. 10.09	유류판매업	조선대학교공과대학자원공학과4년졸업	-한국화이자(주)근무 -새천년민주당월야면협의회장	1.195 (38.7)	
	나	정 현 웅	남/58. 08.10	함평군의원	월야초등학교졸업	-현 함평군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함평군협의회 간사	1,893 (61.3)	당선

8.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2004. 6. 5)

박태영 전 전라남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선거 개시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204. 6. 5 실시된 전라남도도지사 보궐선거는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로서 제17대 국회의운 선거후 2개월도 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과 정치권 등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선거였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2004. 3. 12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의 각 세대별 발송과 정치포탈사이트를 통한 후보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고, 선거공영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 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이 정보통신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대결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2004. 4. 30일 확정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3항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40일전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토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2004. 4. 15)부터 50일후 첫번째 토요일인 2004. 6, 5(토)에 실시하였다. 새천년민주당 박준영, 열린우리당 민화식, 민주노동당 김선동 3명이 출마하여 새천년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총선거인 1,500,370의 36.3%인 544,552투표자중 308,309득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함평군의 투표상황은 아래표와 같다.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새천년민주당 박준영	열인우리당 민화식	민주노동당 김선동		
계	33,083 (553)	12,671 (490)	7,553 (204)	4,132 (183)	810 (47)	176 (56)	20,412 (63)
함 평 읍	7,593	2,724	1,690	885	136	13	4,869
손 불 면	3,831	1,070	659	342	61	8	2,761
신 광 면	1,995	871	474	313	64	20	1,124
학 교 면	4,249	1,504	939	486	72	7	2,745
엄 다 면	2,201	8,63	540	245	67	11	1,338
대 동 면	3,015	1,166	666	407	75	18	1,849
나 산 면	2,990	1,457	845	471	124	17	1,533
해 보 면	2,773	1,228	746	396	74	12	1,545
월 야 면	3,883	1,298	790	404	90	14	2,585

9. 제7대 지방선거(2006. 5. 31)-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련된 돈 안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번선거는 물론 내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 인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제3회 지방선거는 시·도시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5개 실시하였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를 추가하여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

또한 우리나라 선거사이래 최초 6개선거동시 실시, 모든 지방선거의 전당공천 허용,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도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변화된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되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문제 개선, 역대선거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 연고주의 등 그릇된 선거폐습을 타파하고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선거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치른 이번선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이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재되었던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책임정치 구현을 시도하였으며, 기초의원정수축소 및 선거를 광역화하고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보수를 유급화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이유로 기초 자치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및 공천권의 지방이양, 당내경선실시 및 경선불복금지, 당내경선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의 국가부담 등 공천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원경선은 공천헌금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주적 경선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이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 연고주의를 파타하고 정책경쟁을 통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하여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이 시민단체· 언론의 주도로 적극 추진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당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동참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억

제하는 한편,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책선거'로 변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과거의 낙천 낙선운동 등 네거티브운동 대신 후보자들에게 갖춘 공약, 실현가능한 공약"을 개발 제시토록 촉구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정당간의 과열경쟁과 지방의원 유급화, 정당추천제의 전면허용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 시비 빈발, 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등 다시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았으나 신고포상금 최고5억원 인상과 함께 50배 과태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였고, 선거초기 정치 선거부패의 근원인 5대 중대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조직설치 운영, 매수 및 향응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를 선정 공포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8,685건 – 5,914건), 특히 금품·음식물제공(40%), 비방흑색선전(52%) 등 중대선거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련된 공명선거 기조가 더욱 유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막판 금품살포 등의 돈 선거폐습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잔존하였고, 과잉 편파단속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인구의 증가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가고, 그에 비례해서 시공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당 후보자의 명예, 인신공격을 차단하여 사이버공간을 선거운동의 유용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로 인해 선거 때마다 증가해 온 사이버상의 위법행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폭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표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상당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권자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여 60여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3년 이상의 영주체류 외국인 6,700여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거소에 관계없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이번선거에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E-mail발송, 홍보물 발송 등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정치신인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에서도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 광고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티셔츠 착용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을 항목별 산정 방법에서 총액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후보자등이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진정한 선거공영제로 한걸음 더 다가선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과열경쟁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대규모 청중동원이 예상되는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연설회를 대담 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로 전환시켜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주는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혼탁선거의 상징이었던 불법자금 차단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선거를 거듭할 수록 투표율이 계속 낮아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및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자 투표율이 선거사상 최저에 머물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정책선거 추진 등에 관심증대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투표율이 소폭이나 다시 반등하였다(48.9 - 52.6%)

그리고 이번선거는 사상최초로 6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조합장 등 위탁선거 관리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업무량이 가중되었으나 정치관계 법규의 조기개정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대과없이 선거를 관리하였다. 특히 E-선거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신고 신청업무를 접수 처리하여 후보자등에 대한 선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독도·개성공단·금강산·월드컵축구대표팀 부재자 투표실시, 후보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위치 재개, 인주 내장형 기표용구 전면도입, 외국인 선거권자용 안내문 발송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행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엄숙하고 다소 경직된 투표소 분위기를 클래식 음악방송, 화분과 꽃 비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시행함에 따라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앞 순위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함으로써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가 제3의 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20.1-42.9)되었으며, 6개 동시선거 실시로 후보자 수가 너무 많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투표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의한 선택보다는 정당선호에 따른 선택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열린우리당 서범석, 한나라당 박재순, 민주당 박준영, 민주노동당 박용두 4명이 출마하여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40,89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1	열린 우리당	서범석	남/51.01.10	홍익대학 교초빙교수	미국위스톤신메디슨대 학원교육정책학과2년 졸업	-고육인적자원부 차관 -재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181,756 (19,.19%)	
2	한나라당	박재순	남/44.09.29	정당인	조선대학교 대학원졸업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55,444 (5,85%)	
3	민주당	박준영	남/46.10.21	전라남도 지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졸업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 -김대중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겸 청와대 대변인	640,894 (67.69%)	당선
4	민주 노동당	박용두	남/68.07.27	농업	전남대학교 농과대학농학과 졸업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 어정점검평가위원 -(전)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68,702 (7.25%)	

<함평군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 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린 우리당 서범석	한나라당 박재순	민주당 박준영	민주 노동당 박용두	계		
전남	1,513,912	973,820	64.3%	181,756	55,444	640,894	68,702	946,796	27,024	540,092
함평	33,051	30,078	74.7%	3,095	1,374	17,197	1,884	23,550	831	8,670

2) 광역의회의원 선거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는 제1선거구(함평, 손불, 신광, 엄다)에 김성호(민주당 공천), 박동주(무소속) 2명이 출마하여 김성호 후보가 58.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서는 정문호(열린우리당 공천), 나병기(민주당), 정승근(무소속) 3명이 출마하여 나병기후보가 49.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별 득표수와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 명	유권자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링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계		
비례 대표	33,051	24,380	73.8%	3,603	1,348	15,161	3,225	23,337	1,043	8,671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제1 선거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민주당	김 성 호	남/56. 06.23	전라남 도의회 의원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 -함평 태양라이온스클럽회장	6,667 (58.88 %)	당선
	무소속	박 동 주	님/61. 04.28	자영업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자치행정학 과졸업	-광주시 광산구 2대의원 -함평군 박씨종친회 부회장	4,655 (41.11 %)	
함평군 제2 선거구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열린우리 당	정 문 호	남/64. 01.08	경영지 도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국지역학과 3학차 재학(박사과정)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위원 - 동강대학 외래교수	2,233 (18.12 %)	
	민주당	나 병 기	남/55. 06.05	정당인	-광주대학교 3학년 재학	-제3대 함평군의회의장4년 -전남22개시군의장단협 의회부회장	6,110 (49.6%)	당선
	무소속	정 승 근	남/48. 06.19	농업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1년 재학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행정공무원25년	3,975 (32,26 %)	

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함평군수를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는 안병호(민주당 공천)과 이석형(무소속)2명이 출마하여 이석형후보가 58.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후보자의 읍면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명부 및 득표상황>

선거구명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	민주당	안 병 호	남/47. 09.10	정당인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1년 재학	-함평축산업협동조 합장 -(현)성화대학교 겸임교수	9,432 (39.72%)	
	무소속	이 석 형	남/58. 11.07	함평군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민선2,3기 함평군수	14,314 (58.60%)	당 선

<읍면별 득표상황>

읍 면 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후보자 득표상황			무효표	기권
			민주당 안 병 호	무소속 이 석 형	계		
계	33051 (1061)	24390 (938)	9432 (279)	14314 (638)	23746 (917)	644 (21)	8661 (123)
함 평 읍	7504	5330	1733	3481	5214	116	2174
손 불 면	3746	2754	1016	1664	2680	74	992
신 광 면	1967	1501	557	888	1445	56	466
학 교 면	4218	3061	1277	1694	2971	90	1157
엄 다 면	2116	1604	634	929	1563	41	512
대 동 면	2978	2191	655	1468	2123	68	787
나 산 면	2947	2184	1017	1091	2108	76	763
해 보 면	2695	2062	948	1074	2022	40	633
월 야 면	3819	2764	1316	1386	2702	62	1055

4) 기초의회의원 선거

함평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가 2개선거로 조정되고 선거구당 3명씩 선출하는 중선거로 변경되었다 가선거구(함평,손불, 신광, 엄다)에9명이 출마하여 김백용(17,7%), 이윤행(18.6%), 이동윤(15.7%)후보가 선출되었고, 나선거구(학교,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서는 9명이 출마하여 김국도(17,2%), 정현철(14.9%), 조용무(14.9%)후보가 선출되었고 비례대표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영종의원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 구명	기호	정 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함평군가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지 대 만	남/67.1 2.11	(주)금종 건설이사	목포대학교법학 과졸업	-함평환경연합사무국장 -함평군재행군인회함평 읍회장	641 (5.72%)	
	3-가	민주당	김 백 용	남/41.1 2.22	농업	함평농업고등학 교졸업	-함평농업협동조합장 -가락 함평군종친회장	1988 (17.76%)	당선
	3-나	민주당	이 윤 행	남/66.0 4.03	자영업	초당대학교산업 대학원 졸업	-제일자동차공업사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2,088 (18.66%)	당선
	3-다	민주당	정 수 기	남/51.0 2.05	무직	광주동성중학교 졸업	-함평군청 종합민원과장 -함평군 손불면장	1,133 (10.12%)	
	6	무소속	김 청 수	남/53.0 3.03	함평군의 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 학교행정학과1년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장	1,462 (13.06%)	

선거구명	기호	정 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재학	-제4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7	무소속	이 동 윤	남/51.08.14	농업	나주대학교 토목조경학과2년 재학	-엄다면사무소 근무 -민주당 이낙연국회의원 비서관	1,765 (15.77%)	당선
	8	무소속	이 진 섭	남/42.04.30	농업	미기재	-함평군의회의원2대의원	1,525 (13.63%)	
	9	무소속	임 인 택	남/33.03.03	무직	손불초등학교졸업	-2.3대 군의원 - 평화통일 자문위원	586 (5.23%)	
함평군나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정 수 길	남/55.02.14	농업	조선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 학전자과졸업	-월야농협이사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정책국장	1,472 (12.15%)	
	3-가	민주당	김 국 도	남/45.05.12	금영돗자리대표	목포제일정보중학교2학년재학	-함평신문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해보초등학교운영위원	2,086 (17.22%)	당선
	3-나	민주당	양 규 모	남/42.04.14	농업	학다리고등학교 3년 중퇴	-농업협동조합근무28년 (엄다,학교,함평농협) -민주당학교면협의회장	1,360 (11.22%)	
	3-다	민주당	정 현 철	남/53.10.09	농업	조선대학교공과대학졸업	-민주당 상무위원 -함평군 농정 심의위원	1812 (14.96%)	당선
	6	무소속	김 국 성	남/46.05.05	자영업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학교면예비군중대장	1195 (9.86%)	
	7	무소속	김 석 구	남/48.07.12	농업	학다리고등학교 3년 중퇴	-지방공무원 27년	631 (5.21%)	
	8	무소속	노 화 섭	남/58.08.04	함평군의회의원	광주제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졸업	-제4대 함평군의원 -함평 태양라이온스크럽회장	1,748 (14.43)	
	9	무소속	조 용 무	남/46.05.12	함평군의회의원	함평농업고등학교졸업	-대동면 번영회장 -제4대 함평군의원 전반기 부의장	1807 (14.92%)	당선
선거구명	추천순위	정 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득표율)	비고
비례대표	1	민주당	김 영 종	남/44.07.04	무직	광주농업고등학교졸업	-함평군기획감사실장 -함평군재무과장	무투표 당선	
	2	민주당	윤 앵 랑	여/61.05.17	주부	해보중학교 졸업	-의용소방대 함평군연합회장 -해보중학교 자모회장 및 운영위원 부회장	-	

5)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2007. 12. 19)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기초의원 의원 선거에서 함평군 가선거구 당선자였던 김백용이 의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2007년 12월 19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무소속 정창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구명	읍면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상황			비고
					대통합 민주신당 임 용 수	무소속 이 화 동	무소속 정 창 우	
함평군 가선거구	합계	15,483	10,955	70.7%	3,934 (35.9%)	2,736 (24.9%)	4,048 (36.9%)	
	함평	7,552	5,217	63.1%	1,993	948	2,173	
	손불	3,636	2,482	68.2%	930	686	807	
	신광	1,885	1,356	71.9%	561	215	549	
	엄다	2,053	1,535	74.7%	343	802	357	

제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1. 소재지 : 함평군청 내

2. 창 립 : 1981. 6. 5

3. 목 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법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준호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다.

4. 기별(期別) 회장

1~3기 김재길(金在吉)
4기 김민수(金玟洙)
5기 정원강(鄭元强)
6기 이연행(李連行)
7~8기 윤 표(尹 杓)

5. 위원명단

<표> 재임기(在任期)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재 임 기(期)									참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김재길	金在吉	1936. 03. 24	함평읍 성남리	대졸	○	○	○	○						
모영규	牟永圭	1943. 07. 01	신광면 삼덕리	중졸	○	○	○	○	○					
박래옥	朴來玉	1947. 03. 21	해보면 문장리	중졸	○	○	○	○	○	○			○	
김국성	金國聖	1946. 05. 05	학교면 학교리	고졸	○	○	○	○	○	○				
노영환	盧榮煥	1949. 07. 21	신광면 동정리	고졸	○	○	○	○						
윤국중	尹國重	1935. 10. 05	해보면 문장리	대퇴	○	○	○	○						
이길구	李吉久	1943. 10. 05	손불면 월천리	고졸	○	○	○	○						
이민호	李敏虎	1936. 04. 03	대동면 금산리	중졸	○	○	○	○						
이부헌	李富憲	1936. 12. 03	엄다면 송로리	대퇴	○	○	○	○					○	
이승우	李承雨	1941. 05. 24	함평읍 장교리	독학	○	○	○	○						
이재열	李載烈	1925. 09. 05	나산면 구산리	한수	○	○	○	○						
장종진	張鐘鎭	1942. 03. 01	월야면 용정리	중졸	○	○	○	○						
정종남	鄭鐘南	1947. 03. 14	학교면 죽정리	고졸	○	○	○							
정태환	鄭台煥	1942. 03. 28	월야면 월악리	독학	○	○	○	○	○					
최병권	崔炳權	1926. 09. 02	나산면 삼축리	중졸	○	○	○	○						
최순실	崔順實	1928. 11. 13	손불면 석창리	대퇴	○	○	○	○						
황만금	黃萬金	1937. 02. 05	엄다면 엄다리	대졸	○	○	○	○						
황성주	黃聖周	1925. 09. 17	대동면 백로리	대졸	○	○	○	○						
강인주	姜仁周	1928. 04. 10	함평읍 기각리	중졸	○									
김동식	金東植	1931. 02. 01	나산면 삼축리	대졸	○	○	○							
김민수	金敏洙	1937. 11. 26	학교면 학교리	고졸	○	○	○	○	○	○	○	○	○	
이 상	李 祥	1917. 04. 19	함평읍 내교리	중졸	○									
임유광	林柳光	1939. 03. 12	신광면 복흥리	고졸	○									
이춘행	李春行	1940. 02. 23	함평읍 내교리	대졸	○	○	○							
최수원	崔洙遠	1934. 05. 18	함평읍 내교리	대졸	○	○								
김영자	金令子	1944. 07. 21	함평읍 내교리	대졸		○	○	○	○	○				
김용철	金龍喆	1934. 02. 04	함평읍 기각리	고졸		○	○	○	○	○				
모정신	牟政信	1940. 09. 20	함평읍 함평리	대졸		○								
윤석근	尹錫瑾	1931. 06. 16	해보면 상곡리	고졸		○	○	○						
박옥현	朴玉賢	1931. 09. 30	함평읍 함평리	고졸			○	○						
유영자	柳英子	1934. 01. 06	함평읍 기각리	대졸			○	○	○	○	○	○	○	
한순임	韓順任	1953. 07. 25	함평읍 기각리	대졸		○								
이재연	李載連	1933. 05. 28	함평읍 만흥리	고졸			○	○	○	○	○	○	○	
한순자	韓順子	1930. 03. 12	함평읍 기각리	중졸			○	○	○	○	○	○	○	
정원강	鄭元强	1930. 03. 08	학교면 마산리						○	○				
이용헌	李龍憲	1923. 04. 15	신광면 동정리						○	○				
임재상	林載尙	1951. 02. 28	학교면 월산리						○	○	○	○	○	
이연행	李連行	1940. 08. 08	함평읍 함평리						○	○	○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재 임 기(期)									참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김봉학	金鳳鶴	1936. 05. 07	함평읍 기각리						○	○				
이기노	李基魯	1940. 11 .27	손불면 월천리						○	○				
정성화	鄭成化	1942. 01. 07	학교면 학교리						○	○			○	
윤윤표	尹尹杓	1942. 05. 20	엄다면 엄다리						○	○	○	○	○	윤표로 개명
김영관	金永官	1935. 12. 01	대동면 운교리						○	○				
김경호	金京鎬	1933. 04. 15	나산면 용두리						○	○				
윤여은	尹汝垠	1945. 08. 10	해보면 상곡리						○	○				
이록범	李祿範	1928. 07. 20	월야면 정산리						○					
김영창	金永昌	1927. 02. 20	함평읍 수호리						○	○	○			
임금례	林今禮	1939. 08. 27	함평읍 내교리						○	○	○	○	○	
장 록	張 錄	1935. 02. 28	함평읍 기각리						○	○				
이현석	李炫石	1937. 06. 06	함평읍 내교리							○	○	○	○	
정윤철	鄭允喆	1948. 06. 05	월야면 월야리							○				
김형중	金衡中	1938. 07. 20	함평읍 기각리							○				
안병호	安炳鎬	1947. 09. 10	해보면 금덕리								○	○	○	
정남혁	鄭南爀	1934. 03. 05	해보면 해보리								○	○		
조성택	趙成澤	1945. 04. 23	함평읍 기각리								○	○		
노금노	魯金盧	1952. 10. 26	함평읍 내교리								○	○		
임인택	林仁澤	1933. 03. 03	손불면 월천리								○	○	○	
이진섭	李鎭燮	1942. 04. 30	신광면 월암리								○	○		
이만근	李萬根	1941. 08. 02	학교면 월산리								○	○		
정봉곤	鄭琫坤	1935. 01. 06	대동면 서호리								○	○		
안종래	安鍾來	1944. 09. 26	나산면 삼축리								○	○		
이재화	李載花	1942. 09. 10	해보면 금덕리								○	○		
서수정	徐水亭	1956. 02. 14	월야면 정산리								○	○		
안도순	安度淳	1916. 02. 13	해보면 금덕리								○			
김봉순	金奉順	1944. 01. 26	함평읍 수호리								○	○	○	
김녕호		1937. 12. 29	함평읍 기각리										○	
모상영		1943. 12. 26	신광면 삼덕리										○	
정성화		1942. 01. 07	학교면 학교리										○	
이부헌		1936. 02. 03	엄다면 송로리										○	
이경연		1957. 10. 15	대동면 향교리										○	
나병기		1955. 06. 06	나산면 월봉리										○	
윤종형		1955. 03. 28	해보면 문장리										○	
정현웅		1958. 08. 10	월야면 용월리										○	

※ 지방의원 임기만료로 1998. 6. 30 위촉
※ 지방의원 당선으로 1998. 9 23 위촉

제8절 함평군의회

1. 의회 현황

가. 연혁

함평군의회는 지방자치제 전면 부활로 1991년 3월 26일에 초대 군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91년 4월 15일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의회가 개회하였다.

-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형식적 의미의 지방방자치제가 시작
- 1952. 04. 25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작
- 1952. 05~1956. 08 제1대 읍·면 의회 운영
- 1956. 08~1960. 12 제2대 읍·면 의회 운영
- 1960. 12~1961. 05 제3대 읍·면 의회 운영
- 1961. 05. 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해산
-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부활
- 1991. 04~1995. 06 제1대 함평군의회 운영
- 1995. 07~1998. 06 제2대 함평군의회 운영
- 1998. 07~2002. 06 제3대 함평군의회 운영
- 2002. 07~2006. 06 제4대 함평군의회 운영
- 2006. 07~2010. 06 제5대 함평군의회 운영
- 2010. 07~2014. 06 제6대 함평군의회 운영

나. 역대 의장단 명단

대 별	기 별	의 장	부의장	비 고
1대	전반기	김봉학	윤여은	
	후반기	윤여은	정성화	
		김영관	정성화	
2대	전반기	윤 표	임인택	
	후반기	정봉곤	서수정	
3대	전반기	나병기	이남경	
	후반기	나병기	정현웅	
4대	전반기	김만환	조용무	
	후반기	정승근	정현웅	
		정영화	김청수	

5대	전반기	정현철	이윤행	
	후반기	조용무	이동윤	
6대	전반기	양규모	이화동	

다. 제1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1991.07.01~1994.06.30)

지역구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함평읍	김 봉 학	1936. 05. 07.	1대 의장
손불면	이 기 노	1940. 11. 17.	
신광면	이 용 헌	1923. 04. 15.	
학교면	정 성 화	1942. 01. 07.	2·3대 부의장
엄다면	윤 표	1942. 06. 20.	
대동면	김 영 관	1935. 12. 01.	3대 의장
나산면	김 경 호	1933. 04. 15.	
해보면	윤 여 은	1945. 08. 10.	1대 부의장, 2대 의장
월야면	이 록 범	1928. 07. 20.	
월야면	정 윤 철	1948. 06. 05.	보궐

라. 제2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1994.07.01~1998.06.30)

지역구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함평읍	노 금 노	1952. 10. 26.	
손불면	임 인 택	1933. 03. 03.	4대 부의장
신광면	이 진 섭	1942. 04. 30.	
학교면	이 만 근	1941. 08. 02.	
엄다면	윤 표	1942. 06. 20.	4대 의장
대동면	정 봉 곤	1935. 01. 16.	5대 의장
나산면	안 종 래	1944. 09. 26.	
해보면	이 재 화	1945. 09. 10.	
월야면	서 수 정	1956. 02. 14.	5대 부의장

마. 제3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1998.07.01~2002.06.30)

지역구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함평읍	이 남 경	1938. 05. 10.	6대 부의장
손불면	임 인 택	1933. 03. 03.	
신광면	모 상 영	1943. 12. 26.	
학교면	이 백 주	1951. 07. 15.	보궐
엄다면	이 부 헌	1936. 12. 03.	
대동면	최 미 경	1962. 11. 19.	보궐
나산면	나 병 기	1955. 06. 06.	6. 7대 의장
해보면	윤 종 형	1955. 03. 28.	
월야면	정 현 웅	1958. 08. 10.	7대 부의장

바. 제4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2002.07.01~2006.06.30)

지역구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함평읍	김 청 수	1953. 03. 03.	10대 부의장. 2006.02.24 ~ 06.30
손불면	백 맹 조	1933. 03. 03.	2002.07.01. ~ 2006.02.23.
신광면	모 상 영	1943. 12. 26.	2002.07.01. ~ 2006.02.23.
학교면	이 백 주	1951. 07. 15.	2002.07.01. ~ 2006.02.23.
엄다면	김 만 환	1938. 08. 21.	8대 의장. 2002.07.01. ~ 2004.09.22.
엄다면	정 영 화	1940. 04. 24.	보궐. 10대 의장. 2006.04.14 ~ 06.30
대동면	조 용 무	1946. 05. 12.	8대 부의장
나산면	노 화 섭	1958. 08. 04.	
해보면	정 승 근	1948. 06. 19.	9대 의장. 2004.09.23. ~ 2006.04.13.
월야면	정 현 웅	1958. 08. 10.	9대 부의장. 2002.07.01. ~ 2006.02.23.

사. 제5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2006.07.01~2010.06.30)

지역구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가선거구 (함평, 손불, 신광, 엄다)	이동윤	'51. 08. 14	제5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정창우	'64. 12. 12	보궐선거2007. 09. 07~2010. 06. 30
	이윤행	'66. 04. 03	제5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백용	'41. 12. 22	2006. 07. 01~2007. 09. 06
나선거구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김국도	'45. 05. 12	
	조용무	'46. 05. 12	제5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5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정현철	'53. 10. 09	제5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비례대표	윤앵랑	'61. 05. 17	제5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비례대표
	김영종	'44. 07. 04	제5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비례대표

아. 제6대 함평군의회 의원 명단(2010.07.01~2014.06.30)

선거구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가 선거구	정 철 희	'48.12.11.	
	이 화 동	'56.05.15.	제6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 용 수	'65.10.22.	
나 선거구	양 규 모	'42.04.14.	제6대 함평군의회 전반기의장
	정 수 길	'55.02.14.	
	이 재 영	'58.03.03.	
비 례	최 옥 정	'58.10.30.	제6대 함평군의회 비례대표

자. 역대 도의원 명단

역대	선거구	성 명	소속정당	선거년월일
최 초	제1선거구	이 연 행	신 민 당	1991. 06. 20.
	제2선거구	정 원 강	신 민 당	
2	제1선거구	조 성 택	민 주 당	1995. 06. 27.
	제2선거구	정 남 혁	민 주 당	
3	제1선거구	김 녕 호	국민회의	1998. 06. 03.
	제2선거구	박 래 옥	국민회의	

4	제1선거구	김 성 호	민 주 당	2002. 06. 13.
	제2선거구	박 래 옥	민 주 당	
5	제1선거구	김 성 호	민 주 당	2006. 05. 31.
	제2선거구	나 병 기	민 주 당	
6	제1선거구	박 동 주	민 주 당	2010. 06. 02.
	제2선거구	노 종 석	민 주 당	

2. 함평군의회 역대 사무과장·전문위원 명단

사 무 과 장			전 문 위 원		
번호	성 명	재 임 기 간	번호	성 명	재 임 기 간
1	나남채	91. 05. 15 ~ 92. 10. 27	1	김유태	91. 05. 01 ~ 92. 02. 06
2	정정남	92. 10. 28 ~ 93. 02. 22	2	오병조	92. 02. 07 ~ 93. 09. 10
3	김유태	93. 02. 23 ~ 94. 03. 22	3	김풍호	93. 09. 11 ~ 94. 03. 22
4	김풍호	94. 03. 23 ~ 95. 06. 21	4	이대실	94. 03. 23 ~ 95. 06. 21
5	오병조	95. 06. 22 ~ 96. 12. 09	5	임을택	95. 06. 22 ~ 96. 12. 09
6	임을택	96. 12. 10 ~ 97. 01. 16	6	임영일	97. 01. 17 ~ 98. 02. 05
7	김규준	97. 01. 17 ~ 2000.01.23	7	김철규	98. 02. 05 ~ 98. 09. 05
8	김양현	2000.01.24 ~ 2002.01.20	8	김양현	98. 09. 06 ~ 2000.01.23
9	고홍재	2002.01.21 ~ 2003.09.26	9	김양수	2000.01.24 ~ 2000.03.16
10	김우성	2003.09.27 ~ 2005.08.07	10	노진관	2000.03.17 ~ 2002.01.20
11	이건택	2005.08.08 ~ 2006.09.21	11	김우성	2002.01.21 ~ 2003.09.26
12	윤영식	2006.09.22 ~ 2007.07.22	12	정휴진	2003.09.27 ~ 2003.10.28
13	박연수	2007.07.23 ~ 2008.01.31	13	차주경	2003.10.29 ~ 2004.03.01
14	윤행식	2008.02.01 ~ 2008.07.27	14	박상석	2004.03.02 ~ 2005.02.06
15	나명주	2008.07.28 ~ 현 재	15	강형석	2005.02.07 ~ 2006.01.26
			16	이건섭	2006.01.27 ~ 2007.07.22
			17	윤행식	2007.07.23 ~ 2008.01.31
			18	정기복	2008.02.01 ~ 2009.07.01
			19	안순영	2008.07.28 ~ 2010.09.23
			20	김순곤	2009.07.02 ~ 2010.06.29
			21	이철행	2010.06.30 ~ 현재
			22	정인영	2010.09.24 ~ 현재

3. 의정활동

가. 의회운영

기초의회는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2일, 제2차 정례회는 당초 12월에 집회하던 것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09.4.6)을 통하여 매년 11월 25일로 정하였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월 또는 10월중에 실시하며, 회의일수는 연간 35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하였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미리 공고하여 소집하고, 회기는 55일 이내로 운영하였다.

【본회의 운영】

구 분	회 기	일 수	비 고
'91계	8회	60일	
'92계	7회	60일	
'93계	7회	60일	
'94계	6회	80일	
'95계	10회	80일	
'96계	8회	79일	
'97계	8회	80일	
'98계	9회	80일	
'99계	8회	80일	
2000계	9회	80일	
2001계	9회	80일	
2002계	9회	80일	
2003계	8회	80일	
2004계	9회	80일	
2005계	9회	80일	
2006계	13회	76일	
2007계	8회	77일	
2008계	9회	82일	
2009계	20회	20일	
2010계(5대)	10회	10일	

【특별위원회 운영】

구 분	회 기	일 수	비 고
'91계	1회	3일	
'92계	3회	101일	
'93계	3회	37일	
'94계	4회	61일	
'95계	4회	56일	
'96계	4회	61일	
'97계	6회	436일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활동(365일)
'98계	4회	52일	
'99계	4회	57일	
2000계	4회	41일	
2001계	6회	51일	
2002계	5회	50일	
2003계	4회	41일	
2004계	4회	37일	
2005계	5회	42일	
2006계	5회	39일	
2007계	5회	42일	
2008계	5회	19일	
2009계	5회	13일	
2010계(5대)	2회	7일	

【상임위원회 운영】

구 분	회 기	일 수	비 고
2008계	12회	20일	
2009계	23회	23일	
2010계(5대)	18회	18일	

나. 의안처리

의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한 안건으로, 군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의안접수→해당위원회 회부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답변→위원회 표결 및 의결→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본회의 심의→의결

구 분	계	조례안	예산안	규칙	승인동의	일반안건	기타안건	비 고
'91계	65	23	5		3	17	17	
'92계	77	30	5		13	13	16	
'93계	52	15	5	1	3	13	15	
'94계	91	35	7		10	14	25	
'95계	88	26	5		6	15	36	
'96계	98	48	6		3	9	32	
'97계	112	62	8		3	11	28	
'98계	95	43	6		4	12	30	
'99계	99	50	5		2	13	29	
2000계	103	55	5		2	6	35	
2001계	71	18	6	1	2	9	35	
2002계	81	27	6	1	2	12	33	
2003계	75	27	4		3	10	31	
2004계	80	34	4		3	10	29	
2005계	81	27	4		3	17	30	
2006계	114	41	5	1	6	21	40	
2007계	87	38	6	1	7	11	24	
2008계	95	35	7	2	7	20	24	
2009계	92	45	8		11	28		
2010계 (5대)	30	16	1		5	8		

다. 군정질문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의원 발의로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안 심사 · 의결 및 결산 승인

가. 예산안 심사 의결

군의회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군의회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주요 심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상의 위배 여부
·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 군정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 등

나. 결산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지출의 출납기간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 심사 사항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등

○ 부각된 주요 지적 사항
· 지역안정 예산 불용처분 부당
· 예비비 과다 계상
·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
·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소홀
· 지방채(수익자 부담) 상환금 세입 결함 발생
·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5. 특위 활동

가. 명　　칭 : 함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나. 활동기간 : 1996. 12. 30 ~ 1997. 12. 29(1년간)

다. 구　　성

위원장 : 윤표(엄다면) 의원

간　사 : 이재화(해보면) 의원
위　원 : 노금노(함평읍), 임인택(손불면), 이진섭(신광면), 이만근(학교면),
안종래(나산면), 서수정(월야면) 의원

라. 활동상황

함평 양민학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건의 : 2회
1차 건의 : 1997. 5. 2 청와대, 국회의장, 4당 총재(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2차 건의 : 1997. 9. 24 국회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4당 총재, 국회, 정부방문 청원처리 촉구 : 8회
국회내무위원회,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 청원 소개(김인곤 국회의원)
유사 자치단체 및 의회 방문 : 6회
자체간담회 : 5회
학살현장 확인 및 현지주민 증언 청취 : 14회
홍보매체 활용 홍보 : 9회

제9절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며 정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합의제(合議制) 기관인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1948년 3월 17일에 공포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법(미군정법령 175호)에 의한 제헌국회 선거부터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내무부에 부설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실무자로 대거 참여하여 각종 선거의 준비와 집행을 관리 담당하였다. 이때까지의 조직과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미군정(美軍政) 법령 제175호에 따라 최초로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9개면에 17개 투표소를 두었다.

위원은 군위원 9명, 사고에 대비한 후보위원 9명이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법률 제3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관리하게 되었고 1950년 4월 12일의 국회의원 선거법(법률 제21호)에 의해 후보위원제가 폐지되고 위원도 7명으로 줄었다.

1958년 1월 25일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민의원, 참의원 선거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여당과 제1야당에서 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 추천 위원제가 실시되었다. 제2공화국으로 들어서면서 내무부의 부속기관화(附屬機關化)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발족케 하기 위하여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1960년 6월 23일 민, 참의원 선거법에 선거위원회법(법률 제551호)이 분리 단행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961년 5·16혁명으로 폐기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2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월 1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월 7일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9개읍면 17개 투표소)가 창설되었다. 사무소는 함평읍 함평리 123번지(현 군청 별관 입구)에 두었다.

1963년 8월 6일 군선거관리 위원회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수(定數)를 5인에서 9인으로 늘렸고(정당추천위원 2명 포함) 1966년 12월 14일에는 정수는 같되 정당추천위원이 4인으로 증가되었다. 1968년 5월 22일에는 위원 정수가 7인으로 줄었다.(정당추천 위원은 같음)

1969년 11월 20일 함평군청 뒤뜰에 건축한 17.7평(坪)의 사무실을 헐고 1990년 12월 26일 함평군청앞 측면에 2층(연 건평 60평) 건물을 준공하였다. 1969년 11월 29일 함평군이 종래 전남 제18지역선거구 관할에서 분할독립(分割獨立)하여 제20지역구가 되었으며, 1971년 1월 26일 여천지역구 승격으로 전남 제21지역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2년 10월 23일 정당추천 위원제가 폐지되고, 1973년 1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영광, 함평, 장성군 일원을 전남 제10선거구 관할로 하였다.

따라서 7인의 군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0년대 전남 제11선거구의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었으며 1988년에 국회의원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어 함평군·영광군선거구가 되었다.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동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의원선거[함평군 의원정수 : 9인, 선거구수 : 9(읍·면당 : 1)]와, 동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의원선거(함평군 의원정수 : 2인, 선거구수 : 2)가 있었다. 그간 관리한 국민투표 및 선거는 앞 항 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이후의 역대 위원장과 서무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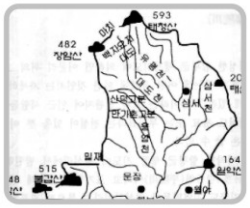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위 원 장>

대(代)	성 명	재 임 기 간	대(代)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강 대 윤	1963. 02. 07 ~ 1965. 10. 20	12	곽 준 흠	1981. 07. 03 ~ 1983. 09. 07
2	이 영 진	1965. 11. 20 ~ 1968. 02. 04	13	유 연 만	1983. 09. 16 ~ 1984. 08. 25
3	장 수 복	1968. 02. 19 ~ 1970. 11. 29	14	유 연 만	1984. 09. 03 ~ 1986. 09. 15
4	장 수 복	1970. 12. 10 ~ 1972. 10. 25	15	황 경 남	1986. 10. 15 ~ 1988. 08. 26
5	장 수 복	1972. 10. 27 ~ 1973. 01. 20	16	오 천 석	1988. 09. 01 ~ 1990. 09. 05
6	김 선 봉	1973. 01. 31 ~ 1975. 11. 06	17	홍 임 석	1990. 09. 06 ~ 1993. 03. 04
7	김 상 기	1975. 11. 26 ~ 1977. 06. 28	18	김 주 원	1993. 03. 06 ~ 1994. 02. 28
8	임 남 복	1977. 06. 29 ~ 1978. 01. 31	19	최 진 수	1994. 03. 16 ~ 1996. 02. 28
9	임 남 복	1978. 02. 09 ~ 1978. 07. 31	20	고 영 구	1996. 03. 06 ~ 1998. 02. 28
10	황 대 연	1978. 09. 08 ~ 1978. 10. 30	21	김 종 원	1998. 03. 05 ~ 현 재
11	정 남 희	1978. 11. 06 ~ 1981			

<서무과장>

대(代)	성 명	재 임 기 간	대(代)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최 병 수	1970. 12. 15 ~ 1971. 02. 13	10	조 명 환	1983. 04. 26 ~ 1986. 11. 05
2	김 영 환	1971. 02. 14 ~ 1972. 01. 31	11	김 문 환	1986. 11. 08 ~ 1988. 12. 31
3	유 병 태	1972. 02. 01 ~ 1973. 01. 31	12	황 용 연	1989. 01. 01 ~ 1989. 12. 31
4	김 영 래	1973. 02. 01 ~ 1974. 03. 30	13	박 병 남	1990. 01. 01 ~ 1993. 01. 14
5	정 재 풍	1974. 04. 01 ~ 1975. 08. 31	14	문 효 진	1993. 01. 15 ~ 1993. 09. 30
6	정 재 풍	1975. 09. 01 ~ 1980. 07. 31	15	이 일 주	1993. 10. 01 ~ 1994. 07. 04
7	최 응 주	1980. 08. 01 ~ 1980. 12. 03	16	국 경 표	1994. 07. 05 ~ 1997. 01. 19
8	최 응 주	1980. 12. 03 ~ 1981. 06. 09	17	양 승 복	1997. 01. 20 ~ 현 재
9	선 상 기	1981. 06. 10 ~ 1983. 04. 25			

제4장 행 정 (行政)



제1절 연 혁 (沿革)

(제1권 함평군의 연혁을 볼 것)

제2절 함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2007년말 함평군의 행정구역은 1읍 8면 104개 법정리, 271개 행정리 484개 마을, 51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선사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의 현(懸), 군, 읍, 면 변천 상황은 제2편부터 9편까지의 각 시대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고 1941년부터 실시된 이제(里制)에 대해서는 "읍면 마을사"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단, 반(班)에 대해서만 여기서 언급한다.

반은 우리 나라에 있어 최말단 행정구역인 이(里)의 하부조직이다. 이(里)에는 일종의 명예직인 이장만 있고 이의 하부에 반이 조직되어 있다. 반은 그 명칭이 반-방(坊)-재건반(再建班)으로 변천되어 왔다. 종래의 반은 이의 하부조직으로 이자체(里自体)에서 운영하였으나 군자치제(郡自治制) 실시로 재건반 설치조례가 1963년에 군조례(郡條例)로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반의 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하되 60호가 넘을 때는 자연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1963년에는 534개반을 편성했는데 이 반의 수효는 종래에 있던 반의 수효와 같았었다. 1968년에는 조례가 약간 바뀌어 반의 수효가 853개반으로 1970년 12월에는 933개반으로 늘었고 197년에는 다시 조례가 바뀌어 726개반이 되었다. 1973년에는 학교면이었던 상옥, 금곡, 월송, 백호리가 대동면에 편입되는 변동이 있었고, 1975년에는 반의 조례가 다시 바뀌어 870개반이 되었다.

이후로는 조례변동은 없었고 1982년에 행정리가 210개리에서 232개리로 늘었고 1982년에 대동면 서호, 연암리에 대동호(大洞湖)가 완공되어 수몰지구가 되자 4개반 4개 자연마을이 줄게 되었다.

1984년에는 행정리가 232개에서 250개로 늘었고 반은 특별한 변동이 없이 870여개로 존치되어 왔으나 1995년도에 제2기 자치시대가 열리고 민선자치 단체장의 군정과 때맞추어 540개의 반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07년에는 104개 법정리에 271개 행정리 513개반 48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있다. 반의 변동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반의 변천

연도별	법정리수	행정리수	자연마을	반(班)수	참 고
1996	104	270	484	541	
1997	104	270	484	507	
1998	104	270	484	507	
1999	104	269	484	507	
2000	104	269	484	507	
2001	104	269	484	507	
2002	104	269	484	507	
2003	104	269	484	507	
2004	104	269	484	507	
2005	104	271	484	513	
2006	104	271	484	513	
2007	104	271	484	513	
함 평	14	39	63	65	
손 불	11	34	74	64	
신 광	12	25	46	40	
학 교	11	35	57	72	
엄 다	8	23	41	44	
대 동	12	30	48	48	
나 산	14	29	66	71	
해 보	10	25	30	49	
월 야	12	31	59	60	

<표 2> 반의 명칭과 구역표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함평	함평1	1	산 성	함평리	2~14, 121~381, 382~1014	함평	자풍 1	1	신 풍	자풍리	71~586
								2	금 곡	〃	587~1010
							자풍 2	1	노 송	〃	368~567
		2	도 화	〃	21~120			2	비 아	〃	568~619
	함평2	1	대 사	〃	202~361		만흥 1	1	국 산	만흥리	2~428
		2	빙 현	〃	47~200			2	만 년	〃	392~567
	기각 1	1	옥 천	기각리	827~894, 1027~1038		만흥 2	1	초 동	〃	568~652
							장교 1	1	산 음	장교리	70~366
		2	누 각	〃	13~826, 895~938			2	칠 언	〃	367~568
							장교 2	1	월 봉	〃	368~492
	기각 2	1	시 장	〃	77~329			2	작 동	〃	51~367
		2	검정다리	〃	330~977		장교 3	1	자 명	〃	687~799
	기각 3	1	구 기 산	〃	12~639, 694~918		옥산 1	1	홍 룡	옥산리	48~711
								2	가 작	〃	721~902

			신기산		
	기각 4	1	구시장	〃	78~902
	기각 5	1	서부	〃	978~1050
	내교 1	1		내교리	69~161, 177~186, 225~679
			광교		
	내교 2	1	내대화	〃	322~707
		2	동광아파	〃	4~321
		3	트	〃	306
	내교 3	1	신기	〃	66~492
	내교 4	1	동부	〃	207~212
		2	중부	〃	203~206, 213~217
	내교 5	1		〃	528~688
	수호 1	1	외대화	수호리	110~183
		2	예동	〃	201~309
	수호 2	1	평호	〃	39~529
		2	해동	〃	530~816
	수호 3	1	대등	〃	918~983
	성남 1	1	송정	성남리	672~853
	성남 2	1	소등	〃	47~907
			성북		
				계	36

	옥산 2	1	모산	〃	195~590
		2	옥산동	〃	591~707
	가동	1	가동	가동리	1~284
	석성 1	1	성재동	석정리	8~271
		2	덕흥	〃	584~649
		3	신설포	〃	272~312
	석성 2	1	석두	〃	219~630
	석성 3	1	청학	〃	1~175
			성덕	〃	176~218
	장년 1	1	장고산	장년리	23~386
	정년 2	1	월선	〃	706~218
		2	구주포	〃	16~705
	장년 3	1	백년	〃	467~900
	진양 1	1	양림	진양리	66~788
		1	가금	〃	789~999
	진양 2	1	중양	〃	678~1326
		2	화동	〃	137~287
	대덕 1	1	고양촌	대덕리	11~398, 580~1053
		2	망적골	〃	390~579
	대덕 2	1	대천	〃	3~586
		2	백곡	〃	587~1002
		계	36	61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역	
손불	학산 1	1	지호	학산리	12~204
		2	평산	〃	180~340
	학산 2	1	복학	〃	725~784
		2	완정	〃	642~667-2
		3	금곡	〃	495~575
	학산 3	1	소동	〃	920~926-124
		2	세곡	〃	926-9~926-12
		3	〃	〃	3
	학산 4	1	해은	〃	973-12~973-3
		2	금계	〃	3
	양재 1	1	장재	양재리	993-3~1003-1
		2	호암	〃	993-3~1003-1
	양재 2	1	모량	〃	290~740
		2	신촌	〃	741~905
	북성	1	차경	북성리	12~205
		2	사기	〃	203~308
		3	승선	〃	8~408
	월천 1	1	농장	월천리	108~408
		2	영월	〃	434~689
	월천 2	1	신기	〃	1437~산36
		2	안락	〃	1437~산36
		3	새마을	〃	710~817
	월천 3	1	월산	〃	900~1162
		2	비천	〃	746~750
	월천 4	1	저수	〃	1007-1~1049-9
		2	어전	〃	
	월천 5	1	백옥	〃	489~550
		2	신옥	〃	454~607
	대전 1	1	저전	대전리	270~389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역	
손불	죽장 1	1	장동	죽장리	16~426
	죽장 2	1	죽사	〃	412~460
		2	응암	〃	322~380
		3	수철	〃	601~708
	죽암 1	1	죽림	죽암리	383~524
	죽암 2	1	석령	〃	511~761
		2	소명	〃	8~44
	궁산 1	1	상신흥	궁산리	99~105
		2	중신흥	〃	967~970
		3	하신흥	〃	117~1008
	궁산 2	1	목교	〃	27~404
	궁산 3	1	묘동	〃	769~849
		2	신평	〃	652~725
	궁산 4	1	덕산	〃	226~570
	석창 1	1	석계	석창리	613~771
		2	농암	〃	1109~1142
	석창 2	1	동편	〃	304~424
		2	서편	〃	270~370
	석창 3	1	대덕	〃	766~1157
		2	해안	〃	670~823
	석창 4	1	대발	〃	34~80
	산남 1	1	조내	산남리	545~554
		2	감람	〃	642~767
		3	교감	〃	1038~2424
	산남 2	1	교촌	〃	1039~2435
		2	대성	〃	2381~2455
	산남 3	1	용흥	〃	209~391
		2	기서	〃	304~370

					614~780			3	산 직	〃	123~150
		2	은 곡	〃	600~713		산남 4	1	수 연	〃	964~1480
	대전 2	1	소 재	〃	68~456			2	가 작	〃	920~930
		2	〃	〃	70~484		산남 5	1	내 감	〃	1056~2467
		3	대 행	〃	644~817-9			2	강 석	〃	2456~2501
	동암 1	1	복 암	동암리	180-2~817-23			3	북 풍	〃	1240~2490
		2	동 백	〃	133~184-3		산남 6	1	청 등	〃	900~1297
		3	벽 초	〃	616~727			2	유 록	〃	849~산 11
		4	매 곡	〃	530~618						
	동암 2	1	초 동	〃	207~629						
		2	복 흥	〃	180~272	계	34	74			
					304~365						
					370~372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신광	보 여	1	보 전	보여리	152~209	신광	가덕 1	1	가 리	가덕리	9~168
		2	장 전	〃	404~490		가덕 2	1	매 산	〃	199~358
		3	기 동	〃	23~120			2	호 덕	〃	406~606
	송사 1	1	송 계	송사리	169~342		유천 1	1	벽 유	유천리	130~582
		2	사 간	〃	354~621		유천 2	1	미 출	〃	289~582
	송사 2	1	해 안	〃	800~871		유천 3	1	학 천	〃	66~430
		2	삼 천	〃	99~629	계	25	46			
	동정 1	1	삼 향	동정리	135~1194						
		2	냉 천	〃	26~572	학교	복천 1	1	두 동	복천리	567~701
	동정 2	1	수 정	〃	65~78			2	외치동	〃	527~628
		2	신 려	〃	832~999		복천 2	1	장 동	〃	318~414
	함정 1	1	연 화	함정리	5~301		복천 3	1	내 동	〃	921~947
		2	구 봉	〃	588~803-1			2	복 산	〃	752~876
	함정 2	1	청 계	〃	350~547		고막 1	1	원고막	고막리	49~145
		2	무 송	〃	305~319			2	신 촌	〃	500~522
	원산 1	1	지 초	원산리	183~622			3	재생원	〃	600~600-20
		2	원 남	〃	623~792		고막 2	1	송 암	〃	233-2~346
	원산 2	1	학 동	〃	242~477			2	광 진	〃	316~325
		2	덕 동	〃	39~242		석정 1	1	화 지	석정리	83-1~119
	삼덕 1	1	덕 산	삼덕리	56~1940			2	원석정	〃	119~533
	삼덕 2	1	덕 천	〃	19~689		석정 2	1	건 지	〃	411~431
	삼덕 3	1	좌 야	〃	711~911			2	홍 룡	〃	608~661
	백운 1	1	백 오	백운리	210~490			3	동 림	〃	745~750
		2	운 제	〃	36~176		금송 1	1	반 송	금송리	658~744
		3	저 동	〃	78~151			2	반 곡	〃	670~717
	백운 2	1	신 기	〃	164~270		금송 2	1	향 동	〃	187~282
		2	종 곡	〃	274~378-6			2	금 산	〃	250~547
	복흥 1	1	복 치	복흥리	7~195			3	방우동	〃	552~582-2
	복흥 2	1	유 덕	〃	198~280		월호 1	1	기 동	월호리	291~320
		2	괴 치	〃	336~751			2	배 야	〃	52~89
		3	석 계	〃	291~331			3	망월동	〃	861~904
	계천 1	1	계 월	계천리	129~230		월호 2	1	용 호	〃	201~233
		2	사 동	〃	64~80			2	〃	〃	234~659
	계천 2	1	사 천	〃	243~617		곡창 1	1	고 창	곡창리	190~390
		2	실 산	〃	430~476			2	〃	〃	748~757
	월암 1	1	연 천	월암리	13~245		곡창 2	1	대 곡	〃	590~700
		2	신 촌	〃	727~745			2	신 곡	〃	1-5~16-3
		3	매월촌	〃	626~685			3	서당매	〃	190~250
	월암 2	1	가 야	〃	101~418						
		2	월 성	〃	87~541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학교	학교 1	1	큰동네	학교리	473-1~594-2
		2	〃	〃	586~602-11
	학교 2	1	이 암	〃	602-4~628-1
		2	〃	〃	630-1~652
	학교 3	1	영화촌	〃	128-1~263
	학교 4	1	신 학	〃	475-1~560-1
		2	〃	〃	878-79~878-115
	학교 5	1	쌍 교	〃	445~445-31
		2	〃	〃	447-2~451
	학교 6	1	백 학	〃	878-45~878-79
		2	〃	〃	657~721-3
	학교 7	1	회춘동	〃	44-16~471-1
	학교 8	1	달배기	〃	484-1~583-1
			〃	〃	
	사거 1	1	명 암	사거리	402~481
		2	〃	〃	481-1~499-16
	사거 2	1	경화동	〃	240~309
		2	율 동	〃	52~224
	사거 3	1	원사거	〃	619~651
		2	〃	〃	651~667
		3	신시장	〃	801~816
	사거 4	1	청 정	〃	713~741
		2	〃	〃	742~773
	월산 1	1	송 정	월산리	603~714
		2	송 산	〃	829~862-1
	월산 2	1	화 산	〃	91~125-2
		2	신흥동	〃	1126~1262
		3	〃	〃	1263~1286
	월산 3	1	월 봉	〃	338~361
		2	반 암	〃	267~278
	죽정 1	1	죽 림	죽정리	364~374
		2	정자동	〃	616~850
	죽정 2	1	덕 산	〃	1049~1111
		2	회초동	〃	1350~1359
	죽정 3	1	선 암	〃	198~255-2
	죽정 4	1	둔 기	〃	496~822
	죽정 5	1	호 암	〃	32~57
	마산 1	1	옥마동	마산리	135~176-2
		2	청수원	〃	90-3~209
		3	신 기	〃	210~302
	마산 2	1	신 평	〃	323~368-3
		2	표 산	〃	477~509-1
	계	35	72		
엄다	엄다 1	1	성 산	엄다리	904~944
		2	〃	〃	946~1158
		3	번 동	〃	63~758
	엄다 2	1	〃	〃	760~779
		2	〃	〃	780~888
	엄다 3	1	불 암	〃	123~653
		2	송 암	〃	263~590
	엄다 4	1	제 동	〃	198~1056
		2	정 동	〃	138~906
	엄다 5	1	신양동	〃	315~713
	송로 1	1	노 상	송로리	446~510
		2	〃	〃	512~1103
	송로 2	1	해 정	〃	47~139
		2	〃	〃	218~697
		3	비석동	〃	142~280
	송로 3	1	송 촌	〃	277~885
	송로 4	1	배다니	〃	145~768
		2	담 안	〃	297~692
	신계 1	1	화 계	신계리	227~427
	신계 2	1	장 동	〃	180~651
		2	생 곡	〃	89~862
	신계 3	1	우 평	〃	583~783
	삼정 1	1	원삼정	삼정리	2~284
		2	수정동	〃	18~135
	삼정 2	1	영화정	〃	262~425
		2	벽유정	〃	2~402
		3	송 정	〃	170~644
	영흥 1	1	영 천	영흥리	480~917
		2	송 현	〃	49~656
		3	용호동	〃	658~955
	영흥 2	1	흥룡동	〃	43~421
		2	월 산	〃	132~958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엄다	학야 1	1	토 교	학야리	1-4~337
		2	야 리	〃	13~381
	학야 2	1	대천동	〃	72~140
		2	죽월촌	〃	839~847
	성천 1	1	성 암	성천리	72~687
		2	〃	〃	688~905
	성천 2	1	와 촌	〃	427~546
대동	향교 1	1	동 교	향교리	710~747
		2	상 교	〃	647~709
	향교 2	1	남 교	〃	463~509
		2	중 교	〃	510~1054
	향교 3	1	고 시	〃	177~198
		2	〃	〃	1166~1199
	향교 4	1	서 교	〃	575~1018

		2	용 동	〃	597~1002			2	명 교	〃	587~599,
	화양 1	1	영화정	화양리	105~921						841~888
		2	농은동	〃	473~925		덕산 1	1	아 차	덕산리	222~242,
		3	포향정	〃	615~926						581~661
	화양 2	1	정 양	〃	503~976		덕산 2	1	고 산	〃	84~170
		2	중 양	〃	315~520		덕산 3	1	외 덕	〃	236~333
	화양 3	1	쌍 천	〃	50~215			2	〃	〃	350~374
계	23	46					덕산 4	1	내 덕	〃	257~282,
대동	상옥리	1	옥 동	상옥리	281~318						1046~1071
		2	〃	〃	319~356		용성 1	1	용 연	용성리	1006~1055,
		3	〃	〃	357~392						891~908
		4	매 동	〃	517~534		용성 2	1	구 룡	〃	564~618
	금곡 1	1	나 막	금곡리	419~713		용성 3	1	정 창	〃	70~120
LAY	금곡 2	1	금 적	〃	79~133		용성 4	1	금 성	〃	183~233,
	월송리	1	동 암	월송리	424~483						334~368
		2	시 랑	〃	20~51		용성 5	1	괴 정	〃	658~767
	백호 1	1	석 호	백호리	623~674		운교 1	1	판 교	운교리	889~957
		2	용 목	〃	773~804			2	운 림	〃	1003~1017
	백호 2	1	백 년	〃	168~245		운교 2	1	마 량	〃	537~735
	백호 3	1	보 화	〃	254~305		금산 1	1	감 산	금산리	157~327
	강운 1	1	송 산	강운리	306~359			2	금 구	〃	13~30
		2	홍 지	〃	909~934,			3	녹 파	〃	42-1~42-2
			학 송		139~1157		금산 2	1	노 적	〃	454~485
	강운 2	1	상 강	〃	876~919			2	〃	〃	486~517
	강운 3	1	주 평	〃	652~711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대동	서호리	1	호 정	서호리	181~216	나산	이문 1	1	석 지	이문리	72~210
		2	성 정	〃	35~48			2	〃	〃	267~367
		3	동 호 정	〃	277~386		이문 2	1	원이문	〃	651~682
	연암 1	1	옥 련	연암리	18~54,			2	〃	〃	682~711
					524~543		이문 3	1	사 정	〃	802~834
	연암 2	1	상 하 금	〃	731~748			2	〃	〃	735~910
		2	마 치	〃	762~779		수상 1	1	대 안	수상리	100~212
		3	구 적	〃	849~865			2	성 재	〃	590~680
		4	장 재	〃	988~1004			3	유 덕	〃	450~700
계	30	50						4	〃	〃	700~780
나산	삼축 1	1	하 장 기	삼축리	5~250		수상 2	1	월 현	〃	1~480
		2	〃	〃	251~319		용두 1	1	용 수	용두리	923~945
		3	〃	〃	320~360			2	〃	〃	945~1056
	삼축 2	1	동 축	〃	1036~1120			3	오 수	〃	833~923
		2	하 축	〃	951~1035			4	선 창	〃	821~832
	삼축 3	1	상 장 기	〃	362~378		용두 2	1	석 현	〃	923~945
		2	〃	〃	398~636			2	회화정	〃	690~700
		3	〃	〃	645~1176			3	괴 정	〃	700~813
	삼축 4	1	상 축	〃	810~950		용두 3	1	선 박	〃	29~120
		2	분 토	〃	720~810			2	〃	〃	120~290
	수하 1	1	마 산	수하리	271~314						
		2	화 전	〃	3535~465						

		3	〃	〃	471~729		우치 1	1	원우치	우치리	226~576
	수하 2	1	장 재	〃	748~780			2	화 정	〃	700~704
		2	백 인	〃	673~705			3	신 촌	〃	산18~산35
	나산 1	1	동 신	나산리	52~445		우치 2	1	계 동	〃	830~856
		2	〃	〃	446~492			2	〃	〃	870~898
		3	대 정	〃	492~512		초포 1	1	사 촌	초포리	400~501
	나산 2	1	방 하	〃	260-1~280-2			2	원초포	〃	502~700
		2	〃	〃	281~333			3	환 곡	〃	200~325
	신평리	1	신 촌	신평리	325~584		초포 2	1	사 산	〃	692~823
		2	고려,죽사,점방	〃	192~358			2	입 석	〃	560~660
	송암 1	1	죽 말	송암리	692~823		월봉 1	1	용 산	월봉리	45~452
		2	원 송 암	〃	560~660			2	안 영	〃	453~599
	송암 2	1	상촌, 송계	〃	199~495			3	관 동	〃	600~658
		2	음양지,불매동	〃	1~198		월봉 2	1	월 평	〃	555~592
								2	와 락	〃	593~805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나산	원선리	1	유 촌	원선리	1~200	해보	금덕 1	1	시 장	금덕리	407-1~407-5
		2	원 선	〃	238~286			2	〃	〃	407-18~407-11
		3	금선, 쌍령	〃	291~628			3	〃	〃	1
	구산 1	1	원 구 산	구산리	85~436			4	〃	〃	407-96~407-11
		2	〃	〃	437~469			5	〃	〃	1
		3	내 동	〃	500~522			6	〃	〃	407-112~407-12
		4	냉 천	〃	79~333		금덕 2	1	유 정	〃	1
	구산 2	1	삼 성	〃	200~400			2	〃	〃	407-122~407-13
		2	〃	〃	700~800		금덕 3	1	금 곡	〃	6
		3	광 령	〃	800~900			2	〃	〃	407-137~407-18
		4	주 동	〃	600~700		금덕 4	1	고 두	〃	7
		5	삼 구	〃	400~700			2	〃	〃	440~461
	덕림리	1	백양, 귀암	덕림리	306~595-1		금덕 5	1	구 계	〃	462~496
		2	죽 림	〃	55~80			2	만 년	〃	521~536
계	29	75					해보 1	1	모 산	해보리	537~567
해보	상곡 1	1	상 모	상곡리	3~248			2	〃	〃	43~60
		2	〃	〃	249~658		해보 2	1	발 미	〃	61~118
	상곡 2	1	하 모	〃	306~450			2	가 작	〃	581~614
		2	운 곡	〃	440~490		해보 3	1	월 현	〃	15~250
	대창 1	1	창 서	대창리	90~356			2	〃	〃	201~256
	대창 2	1	성 대	〃	473~598		금계리	1	금 산	금계리	257~277
		2	〃	〃	524~585		산내 1	1	원 산	산내리	559~634
	용산 1	1	주 현	용산리	819~840			2	〃	〃	635~672
		2	〃	〃	850~944		산내 2	1	송 산	〃	824~864
	용산 2	1	소 성	〃	650~721		광암리	1	운 암	광암리	677~801
		2	〃	〃	722~796			2	〃	〃	72~550
	용산 3	1	대 성	〃	216~301			3	〃	〃	411~450
	용산 4	1	백 토	〃	500~1013		대각 1	1	오 두	대각리	314~401
	문장 1	1	문 암	문장리	300~400		대각 2	1	회 화	〃	187~249
		2	〃	〃	421~445						
	문장 2	1	상 귀	〃	120~287						
	문장 3	1	중 귀	〃	751~796						
		2	〃	〃	721~740						

	문장 4	1	하 귀	〃	110~148			2	각 궁	〃	1~88 89~215 216~439 347~561 228~392 1~388
		2	〃	〃	148~168						
						계	26	50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읍면	리명	반명	자연마을명	구	역
월야	용월 1	1	내 세	용월리	28~138	월야	계림 1	1	주 전	계림리	11~275
		2	외 세	〃	149-1~217			2	가 차	〃	276-1~417
	용월 2	1	노 장	〃	367-57~430-2			3	시 목	〃	418~479
		2	월 봉	〃	367-19~400		계림 2	1	금 치	〃	480~536-3
	용월 3	1	용 두	〃	411~547-2			2	죽 림	〃	548-16~615
	양정 1	1	양 지	양정리	221~576		예덕 1	1	예 동	예덕리	2~185
	양정 2	1	기 전	〃	577~805-1			2	신 촌	〃	186~264
		2	고 정	〃	92~220		예덕 2	1	만가, 신덕	〃	275~656-2
		3	방 축	〃	806~875			2	발 산	〃	658~693
	영월 1	1	덕 령	영월리	98~313			3	무 봉	〃	731~742
	영월 2	1	석 보	〃	415~433		정산 1	1	내 정	정산리	396~446
	외치 1	1	백 야	외치리	464-2632			2	화 산	〃	447-1~532
		2	〃	〃	632-1~662		정산 2	1	동 촌	〃	660~662
		3	〃	〃	663~700-3			2	〃	〃	665~850-2
	외치 2	1	외 치	〃	25~142		정산 3	1	장 교	〃	727-1~755
		2	〃	〃	143-1~263-1			2	서 촌	〃	756~883
	월야 1	1	진 하	월야리	450-27~471-6			3	고 실	〃	834~893
		2	〃	〃	471-19~496-1			4	영 가	〃	835~896
		3	〃	〃	497~565-80		정산 4	1	신 기	〃	238-3~310-5
	월야 2	1	순 촌	〃	180~259-67		용암 1	1	방 하	용암리	571~669
		2	송 계	〃	21~90			2	연 화	〃	207~364
		3	동 산	〃	91~107		용암 2	1	은 암	〃	365~600
	월야 3	1	평 촌	〃	556-81~697-17			2	신 성	〃	52-2~206
		2	장 동	〃	697-18~759			3	용 산	〃	27~383
	월야 4	1	금 석	〃	406~450-88		용정 1	1	송 정	용정리	384~445
	월야 5	1	전 하	〃	259-68~305-1			2	용 수	〃	452-7~700
		2	〃	〃	306-1~322		용정 2	1	복 룡	〃	701~759
		3	〃	〃	453~456-40		월계 1	1	석 계	월계리	
	월악 1	1	지 변	월악리	302~494-1			2	용 강	〃	
		2	내 동	〃	654~914		월계 2	1	덕 산	〃	
		3	성 주	〃	801~863			2	월 계	〃	
	월악 2	1	봉 덕	〃	115~247	계	31	66			
		2	노 동	〃	248~301						
	월악 3	1	연 당	〃	511-1~653	합계	270	540	(개정 '96.10.9)		
		2	죽 산	〃	5-91~114						

제3절 지방자치 행정(地方自治行政)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종래의 관계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이 확립된 지방제도(地方制度)였다. 이 법중 군(郡)과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에는 도의회, 시읍면의회가 있는데 읍은 인구가 3만 미만일 때에는 15명, 면은 5천명 미만일 때 10명을 정원으로 하고 인구 증가가 있을 때에는 급별(級別)로 1인씩 증가시키는 비례제를 택했다.

의회의 권한은 조례등의 제정, 예결산, 주민부담, 기본재산 처분 승인, 의회규칙제정 등이었고 회의 회수는 1년에 2회 이상, 회기는 30일을 경과 못했다.

1952년까지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했고 부읍면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 15일 정원기준(定員基準), 부지사(副知事) 등의 삭제가 있었고 1956년 12월 13일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시읍면장 직선제, 시읍면장 불신임안 의결권 삭제, 시읍면장의 시읍면의회 해산권 삭제 등이었다. 이 법은 1960년 11월 1일에 대폭적인 개정(4·19혁명후)이 있었다. 이후 이 법은 5·16혁명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 발효됨으로 하여 임시조치법에 저해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임시조치법은 1962년 3월 21일, 1963년 6월 18일, 12월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시읍면 자치제를 시군자치제로 하고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으로 하고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케 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하고 부지사제도를 부활했다.

이리하여 1961년이후 1990년까지 지방자치제는 실시되지 않다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제6차 개정되고 1989년 12월 30일에 제7차 개정, 1990년 12월 31일 제8차 개정을 거쳐 비로소 1991년 3월 26일 기초(시·군·구)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친 지방자치제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함평군의회를 개원하고 1991년 5월 23일에 지방자치법을 제9차 개정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에는 제10차 개정을 하였고 1994년 3월 16일에 제11차 개정, 12월 30일에는 제12차 개정, 1995년 1월 5일 제13차 개정을 하여 1995년 6월 27일 광역자치제인 도지사와 도의원 그리고 군수와 군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도지사와 군수 및 도의원(2인), 그리고 기초의원인 군의원 9인을 선출하고 동년 7월 14일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대 군의회를 개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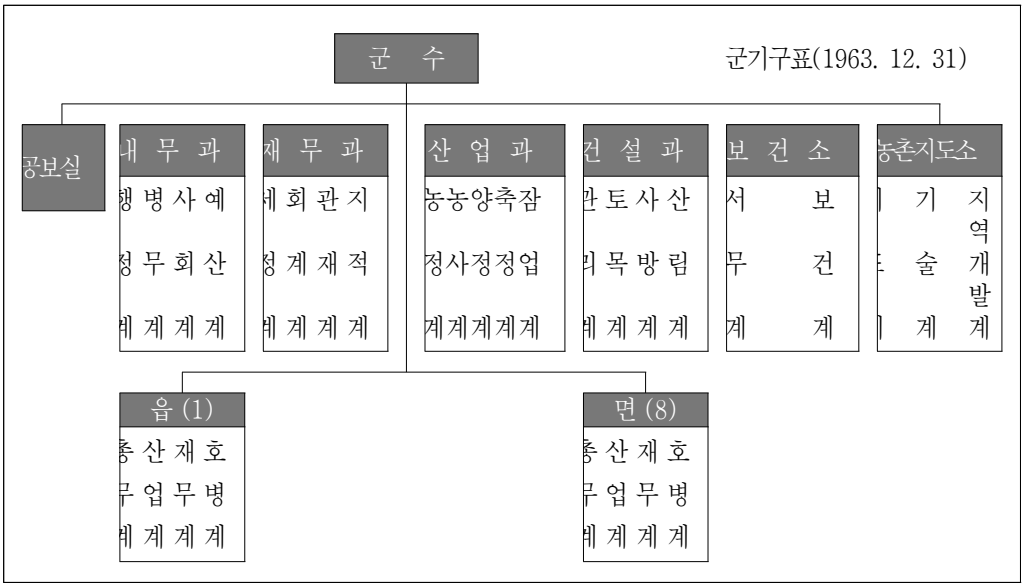
한편 지방자치법은 1995년 8월 4일 제14차 개정을 하였다.

제4절 함평군의 행정기구(行政機構) 변천

해방이후 1959년까지 군에는 내무과와 산업과 2개 과(課)가 있었고 자문기관으로 읍면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참사회(參事會)가 있었고 의장은 군수였다.

1961년 10월 1일에 개정된 군의 직제에는 내무, 산업, 건설, 교육과의 4개 과가 군수밑에 있었다. 이어 1962년 4월 29일에 재무과가 신설되고 6월 9일에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었으며 7월 5일 공보실, 1963년 3월 7일에 보건소가 신설되었다. 11월 1일에는 교육과가 자치 분리되었다.

1963년 12월말의 군 기구표를 보면 <표 3>과 같다.



1963년이후 근 30여년에 걸쳐 군행정기구는 변천을 거듭하여 왔는데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군의 기구도 이에 걸맞게 주민자치 행정의 개념으로 기구를 만들었는데 1963년이후 1996년까지의 33년간에 걸친 기구변천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ㅇ1966년

- 산업과 : 잠업계가 잠정계로 이름이 바뀌고 수산(水産), 전작계(田作係)신설
- 건설과 : 산림계 폐지, 보호(保護) 조림계(造林係) 신설, 사방계 폐지, 농토계(農土係) 신설

ㅇ1967년

• 보 건 소 : 보건계 폐지, 위생, 예방계 신설
• 농촌지도소 : 기술계 폐지, 작물(作物), 주산지계(主産地係) 신설, 직활지소와 면지소 설치
• 읍 면 : 부읍면장제 실시, 읍에 사회계(社會係) 신설

○1969년

• 규칙 제76호에 의거 3월 11일에 감사실(監査室) 신설
• 규칙 제82호에 의거 산업과를 폐지하고, 농림과(農林課・농정, 농산, 특작, 조림, 보호계 관할)와 식산과(殖産課・식산, 양정, 축산, 잠업, 수산계 관할) 신설
• 내무과 : 통계계 신설, 병무계를 병사계로 고침
• 건설과 : 조림, 보호계 폐지, 농림과로 편입 • 감사실 : 감사계 신설

○1971년

• 내무과 : 예산계가 기획예산계로 바뀜, 부녀아동계 신설
• 재무과 : 회계, 관재계 폐지, 경리계 신설 • 농림과 : 농정계 폐지, 상공계(商工係) 신설
• 건설과 : 도로계 신설 • 보건소 : 서무계 폐지, 보건행정계 신설

○1972년

• 새마을과(개발, 새마을계 관할) 신설 • 감사실 폐지
• 내무과 : 사회계, 부녀아동계 폐지, 복지부녀계 신설
• 식산과 : 상공계 폐지 • 농림과 : 특작계 폐지, 산업행정계 신설
• 건설과 : 농업토목계, 도로계를 폐지하고 농지계(農地係)를 신설

○1973년

• 산림과(山林課・식수, 보호계 관장)를 신설함 • 농림과를 농산과(農産課)로 바꿈

○1974년

• 부군수제(副郡守制) 실시로 새마을과 폐지
• 부군수실에 새마을계, 개발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둠
• 내무과 : 기획예산계, 폐지, 복지부녀 아동계를 분할 복지계, 부녀아동계 신설
• 재무과 : 평가계 신설 • 농산과 : 산림계 폐지
• 민방위과 신설,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둠 • 보건소 : 사무장을 보건행정계로 고침

○1975년

• 내무과 : 위생계 신설 • 보건소 : 위생계를 내무과로 편출

○1976년

• 공보실 : 공보계 신설

ㅇ1978년

• 부군수실 폐지
• 새마을과 부활,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신설) 관장
• 내무과 : 부군수실 폐지로 기획예산계, 감사계 흡수
• 사회과 신설, 내무과의 복지, 위생, 부녀아동계를 흡수
• 농산계 : 특작계 신설 • 건설과 : 지역계획계 신설

ㅇ1980년

• 사 회 과 : 의료보호계 신설 • 읍사무소 : 새마을계, 건설계 신설

ㅇ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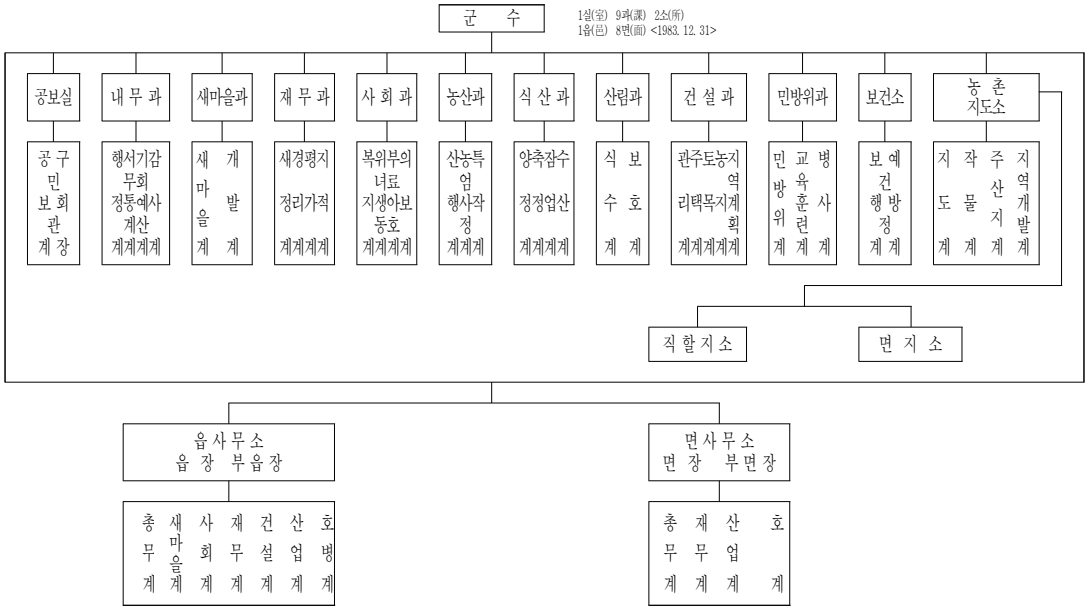
• 부군수 폐지 • 문화공보실 : 군민회관 준공으로 관장제(계장급) 실시

ㅇ1983년

• 내 무 과 : 통계계를 세무통계계로 고치고 병사계를 민방위과로 편출
• 민방위과 : 내무과의 병사계 흡수
• 새마을과 : 주택계를 건설과로 편출
• 건 설 과 : 새마을과의 주택계 흡수

1983년말 군 기구를 표로 만들면 <표 4>와 같다.

<표 4> 군 기구표



○ 1984년

- 보건소 : 가족보건계 신설

○ 1985년

- 부군수제 부활(4・10)
- 새마을과 : 국토미화계 신설

○ 1987년

- 내무과 : 민원실 설치
- 식산과 : 상공운수계 설치

○ 1988년 – 2실 9과 2소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 기획실 신설 :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의 3계를 이관 신설 구성
- 문화공보실 설치 : 공보실을 명칭 변경하고 공보계와 함께 문화관광계 신설

○ 1989년

- 새마을과 :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명칭 변경
- 건 설 과 : 토지관리계 신설
- 농촌지도소 : 기술담당관제를 신설하고 4계에서 12계로 세분하여 계를 확장 실시함.

○ 1990년

- 새마을과 :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계로 명칭 변경
- 건 설 과 : 토지관리계 신설
- 농촌지도소 : 기술담당관제 폐지,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2개과로 변경 신설, 12계를 6계로 나누어 존치

○ **1991년**-2실 12과 2소 1읍 8면의 기구로 3개과 분리 증설

- 기획관리실 : 법무계 신설
- 내무과 : 통신전산계 신설
- 지적과 신설, 지정계와 재무과의 지적계 흡수 설치
- 사회과 : 폐기물 관리계 신설
- 가정복지과 신설,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구성
- 산업과 신설 : 식산과와 농산과를 폐지, 두 과의 기능을 일부 흡수 6계로 신설
  (농어촌 계발, 농사, 양정, 잠업특작, 축산, 수산계)
- 지역경제과 신설 :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로 구성
- 건설과 : 관리, 농지, 토목계로 축소
- 도시과 신설 : 도시계, 주택, 토지관리계로 구성
- 의회사무과 설치 : 과장 1, 전문위원 1, 계장 1로 구성

○ **1992년** - 2실 13과 2소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 건설과 : 방재계 신설
- 도시과 : 수도계 신설
- 환경보호과 신설 : 환경관리계, 폐기물관리계, 환경지도계로 구성
- 농촌지도소 : 8계로 조정

○ **1993년**

- 내무과 : 민원처리계 신설
  -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 변경, 새마을계 역시 사회진흥계로 변경, 읍사무소 역시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변경
- 건설과 : 기반조성계 신설

○ **1995년**

- 재무과 : 재산관리계 신설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계 신설
- 산업과 : 농정기획계 신설
- 군 직할로 위생환경사업소 설립

○ **1996년** - 4실 11과 2소 1사업소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 기획감사실의 기구확장 신설 : 기획, 예산, 감사, 법무계로 구성
- 위민실 설치 운영 : 위민계, 민원처리계, 건축관리계, 시설검사계로 구성
- 문화공보실 : 체육청소년계 이관 존치
- 내무과 : 행정계를 주축으로 서무통계, 교양고시, 정보통신계 존치
- 재무과 : 세무계를 부과계로 명칭 변경
- 사회진흥과 폐지
- 환경위생과 : 상하수도계와 위생계 추가 구성
- 사회복지과 신설 : 가정복지과 기능에 사회보장계 추가
- 농수산진흥과 신설 : 산업과 기능 흡수, 농정기획, 농특사업, 농산물 유통, 해양수산계로 구성
- 농업소득과 신설 : 농산, 원예, 축산계로 구성
- 지역개발과 신설 : 경제진흥, 경영수입, 개발계획, 정주계발계로 구성

• 지적과 신설 : 부동산관리계, 지적계로 구성
• 민방위재난관리과 기능 강화 : 재난관리계 신설
• 정책개발담당관실 설치 확인 평가 행정담당 • 읍·면의 민원계 신설

1998. 9. – 1실 8과 직속기관 2소 , 1사업소 ,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폐지한 실과

문화공보실, 위민실, 사회복지과, 농업소득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과, 정책개발담당관

○신설과

민원봉사과 : 위민실을 폐하고 민원봉사과 신설

○명칭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로 변경
• 환경위생과 : 환경복지과로 변경
• 산 림 과 : 산림관광과로 변경
• 건 설 교 통 : 건설과로 변경
• 내 무 과 : 총무과로 변경
• 농수산진흥과 : 농산과로 변경
• 지역개발과 : 지역경제과로 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2001년 1실 12과 2사업소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산림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산림축수산과로 분리 변경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를 설치함

2004년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새로 설치함으로 3개 사업소로 늘어남

2005년 1실11개과 2직속기관 3개사업소 1읍 8면의 기구로 변경

○종합민원처리과를 자치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
○재난안전관리과를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

2006년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실과소의 명칭변경하고 엑스포사무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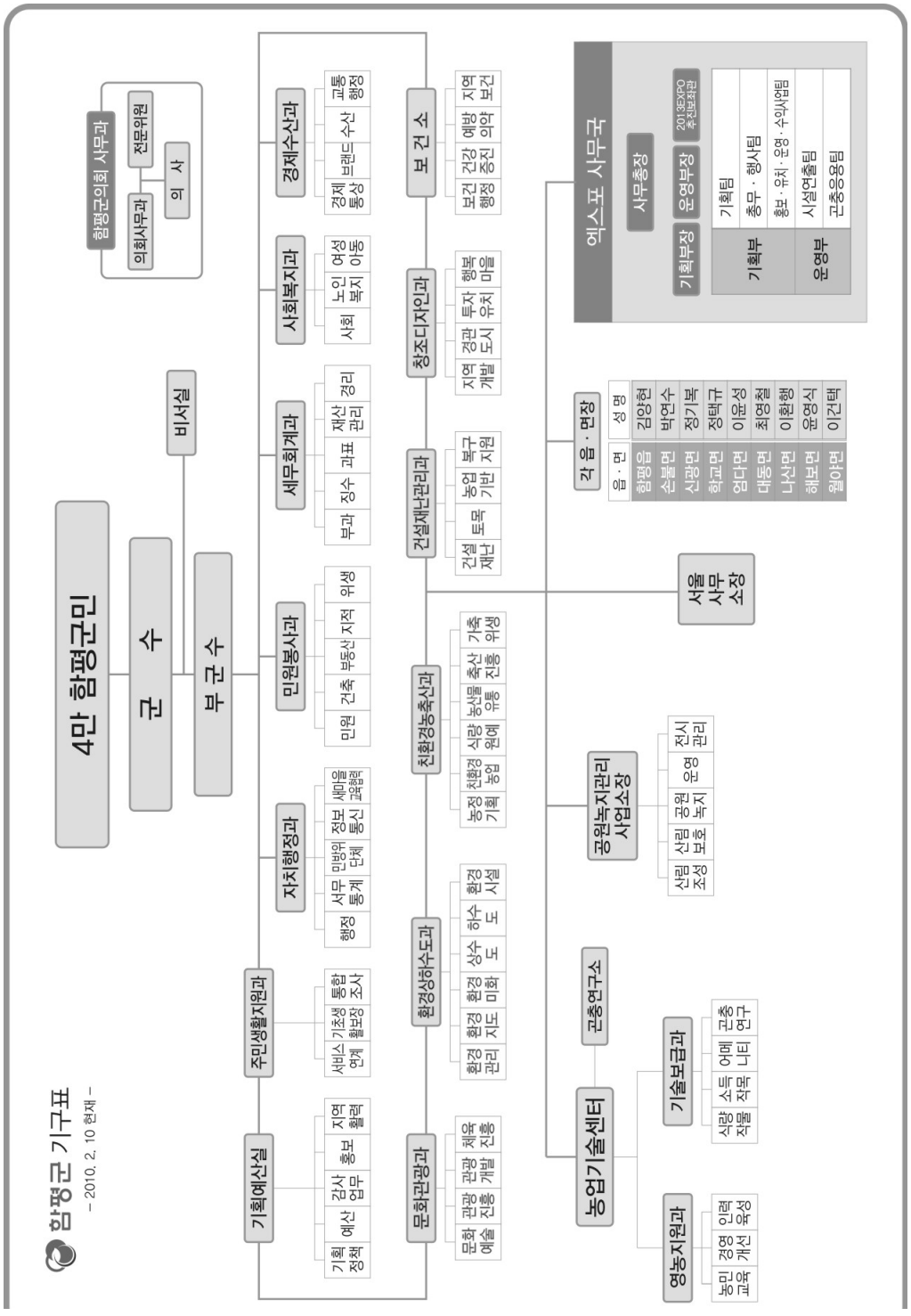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변경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
○자치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변경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생활기획 – 기초생활보장 – 통합조사기능부여
○사회경제과를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여 세부기능 담당토록 함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 변경

○ 환경보전과를 환경녹지과로 명칭 변경
○ 농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변경
○ 2008엑스포를 대비하여 엑스포사무국 설치

2007년 본청 12개과와 의회사무과1 직속사업소2 1개사업 1읍 8면으로 운영

○ 환경상하수도과 신설
–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관리사업소, 환경 시설사업소를 환경상하수도라고 편입 변경 환경시설을 담당토록 함
○ 창조디자인과를 신설
– 지역개발 –경관도시 –투자유치산단 –행복마을 등 담당토록 함

<표 5-1> 함평군 기구표


함평군 기구표
– 2010. 2. 10 현재 –
4만 함평군민
군 수
부군수
비서실
함평군의회 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의 사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지역
정책 업무 활력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기초생 통합
연계 활보장 조사
자치행정과
행정 서무 민방위 정보 새마을
통계 단체 통신 교육협력
민원봉사과
민원 건축 부동산 지적 위생
세무회계과
부과 징수 과표 재산 경리
관리
사회복지과
사회 노인 여성 아동
복지
경제수산과
경제 브랜드 수산 행정
통상
보건소
보건 건강 예방 지역
행정 증진 의약 보건
건설재난관리과
건설 토목 농업 복구
재난 기반 지원
창조디자인과
지역 경관 투자 행복
개발 도시 유치 마을
친환경농축산과
농정 친환경 식량 농산물 축산 가축
기획 농업 원예 유통 진흥 위생
환경상하수도과
환경 환경 환경 상수 하수 환경
관리 지도 미화 도 도 시설
문화관광과
문화 관광 관광 체육
예술 진흥 개발 진흥
서울사무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림 산림 공원 운영 전시
조성 보호 녹지 관리
곤충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민 경영 인력
교육 개선 육성
기술보급과
식량 소득 어메 곤충
작물 작목 니티 연구
엑스포 사무국
사무총장
기획부장
운영부장
2013엑스포 추진본부장
기획부
기획팀
총무 · 행사팀
홍보 · 유치 · 운영 · 수익사업팀
운영부
시설연출팀
곤충응용팀
각 읍 · 면 장
읍 · 면
성 명
함평읍 김양현
손불면 박연수
신광면 정기복
학교면 정택규
엄다면 이윤성
대동면 최영철
나산면 이환행
해보면 윤영식
월야면 이건택

제5절 군 - 읍·면 공무원 현황

농촌지도소 공무원은 농업 연관기관에서, 보건관계 공무원은 보건복지분야 항에서 정리되었으므로 본란에서는 생략한다.

함평군 본청 공무원수는 1963년도에 59명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142명, 1996년말에는 232명이되었다. 읍·면공무원의 경우는 1963년도에 161명, 1982년말에는 237명이었으나 1996년말에는 229명 2007년에는 238명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군과 읍·면 공무원의 변화는 <표6>과 같다.

<표 6> 군-읍·면 공무원 변화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방과출소
1996	624(1)	232(1)	11	119	10	229	23
1997	628(1)	232(1)	11	119	10	229	27
1998	547(1)	212(1)	11	101	10	188	25
1999	509	228	11	102	10	151	
2000	515	227	11	99	27	151	
2001	500	208	11	99	25	157	
2002	518	230	11	100	36	141	
2003	523	226	11	98	38	150	
2004	530	233	11	98	38	150	
2005	53	232	11	98	39	150	
2006	535	239	12	95	39	150	
2007	534	238	12	95	39	150	

* 괄호안은 국가직 공무원

1996년말 군청 공무원의 각 과별(課別) 근무상황과 급별(給別)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군공무원 본청 과별, 급별 현황

(단, 본청 공무원중 국가직은 부군수 한명으로 표를 생략함) (단위 : 명)

실과별	합계	정무직	별정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2007	238	1	1	195	2	11	63	69	42	15	34
기획예산실	18			16	1		5	7	42	15	2
자치행정과	29	1	1	19	1	1	6	6	42	15	8
민원봉사과	28			25		1	6	8	9	1	3
재무과	26			17		1	6	3	5	2	9
주민생활지원과	13			13		1	3	3	5	1	
사회복지과	12			11		1	3	4	3		1
지역경제과	15			14		1	5	7	1		1
문화관광과	19			16		1	6	4	1	4	3
환경녹지과	25			23		1	7	8	4	2	2
친환경농산과	24			22		1	8	7	5	1	2
건설교통과	19			17		1	5	8	2	1	2

재난안전관리과	10			9		1	3	4	1		1

• 단, 2008년 신설된 함평상하수도과와 창조디자인과는 2007년말 기준에 근거하여 기록을 생략하였음

2007년 말 현재 읍·면 공무원수와 직급별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읍·면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읍.면별	일반직							기능직
	합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2007	150	132	9	37	26	26	19	18
함평읍	21	19	1	5	4	4	3	2
손 불	17	15	1	4	4	4	2	2
신 광	15	13	1	4	2	2	2	2
학 교	17	15	1	4	3	3	2	2
엄 다	15	13	1	4	3	3	2	2
대 동	15	13	1	4	2	2	2	2
나 산	16	14	1	4	4	4	2	2
해 보	17	15	1	4	2	2	2	2
월 야	17	15	1	4	1	1	2	2

또한 1991년 4월 15일에 개원한 군의회 사무과와 군 직소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의 수와 직급별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군의회사무과,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

(단위 : 명)

구분 / 기관명	합계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2007	146	18	106		4	11	16	26	21	1	3	24	22
의회사무과	12		6		2	2	2						6
보 건 소	63	17	43		1	4	6	18	14				3
자연생태공원관리사 업소	14		12		1	3	3	2	2				2
환경시설관리 사 업 소	14		7			1	1	2	3				5
상수도관리사업소	11		7			1	1	3	2				4
농업기술센터	32	1	29				1	1					2

제6절 역대 군수·부군수

1. 역대 군수 명단(광복 이후 ~ 현재)

역대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1	오기홍(吳基洪)				
2	박기홍(朴基洪)				
3	손원배(孫元培)				
4	김영춘(金永春)	48. 12. 11	49. 07. 30	7월	전 남 무 안
5	김치준(金致俊)	49. 07. 31	50. 05. 14	9월	전 남 무 안
6	박종오(朴種午)	50. 05. 15	52. 06. 20	2년 2월	전 남 영 암
7	이시형(李時炯)	52. 06. 21	53. 08. 31	1년 2월	전 남 영 암
8	오세찬(吳世燦)	53. 09. 01	53. 12. 27	3월	전 남 무 안
9	한창석(韓昌錫)	53. 12. 28	55. 08. 03	1년 8월	전 남 무 안
10	박승규(朴升奎)	55. 08. 04	57. 04. 22	1년 8월	전 남 화 순
11	김종출(金鍾出)	57. 04. 23	60. 02. 07	2년 10월	전 남 보 성
12	정재수(丁在受)	60. 02. 08	60. 05. 22	3월	전 남 곡 성
13	김병오(金秉吾)	50. 05. 23	61. 06. 20	1년 3월	전 남 해 남
14	이준형(李準炯)	61. 06. 21	63. 01. 07	1년 8월	전 남 고 흥
15	이철수(李哲洙)	63. 03. 27	63. 11. 22	8월	광 주 광 역 시
16	정상열(鄭相烈)	64. 02. 07	65. 07. 31	1년 6월	광 주 광 역 시
17	조성칠(趙誠七)	65. 08. 01	66. 07. 19	1년	전 남 함 평
18	박남칠(朴南七)	66. 07. 20	68. 06. 14	1년 11월	전 남 보 성
19	송돈효(宋敦孝)	68. 06. 15	70. 03. 02	1년 6월	전 남 담 양
20	송인섭(宋仁燮)	70. 03. 03	71. 08. 20	1년 6월	광 주 광 역 시
21	김정동(金正東)	71. 08. 21	73. 02. 06	1년 5월	광 주 광 역 시
22	김석곤(金錫坤)	73. 02. 07	74. 01. 24	1년	광 주 광 역 시
23	윤성윤(尹盛胤)	74. 01. 25	74. 08. 05	7월	광 주 광 역 시
24	백하규(白夏圭)	74. 08. 06	75. 10. 30	1년 3월	전 남 장 성
25	김성흠(金聲欽)	75. 10. 31	76. 08. 31	10월	전 남 보 성
26	이영의(李永儀)	76. 09. 01	78. 05. 31	1년 10월	전 남 영 암
27	황영구(黃永九)	78. 06. 01	80. 01. 31	1년 8월	전 남 여 수
28	나승포(羅承布)	80. 02. 01	81. 07. 10	1년 5월	전 남 함 평
29	유민봉(庾珉鳳)	81. 07. 11	82. 09. 17	1년 3월	전 남 무 안
30	장재필(張再必)	82. 09. 18	85. 03. 10	2년 6월	전 남 영 광
31	정병섭(鄭炳燮)	85. 03. 11	86. 10. 31	1년 8월	전 남 함 평
32	김주호(金周鎬)	86. 11. 01	88. 06. 11	1년 7월	전 남 완 도
33	이정균(李鉦均)	88. 06. 12	89. 03. 02	9월	전 남 영 광
34	김해권(金海權)	89. 03. 03	90. 08. 26	1년 6월	광 주 광 역 시
36	정진오(鄭鎭午)	90. 08. 27	92. 04. 29	1년 8월	전 남 함 평
37	선종륜(宣鍾崙)	93. 05. 29	94. 05. 05	1년	전 남 곡 성
38	기갑서(奇甲舒)	94. 05. 06	94. 12. 31	8월	전 남 장 성
39	박재영(朴在泳)	96. 01. 01	95. 06. 30	6월	전 남 담 양
40	정원강(鄭元强)	95. 07. 01	98. 06. 30	3년	전 남 함 평
41	이석형(李錫炯)	98. 07. 01	10. 01. 05	12년	전 남 함 평
42	안병호(安柄鎬)	10. 07. 01	현 재	6월	전 남 함 평

※ 조선시대의 현감과 대한제국기 군수명단은 조선시대 참고할 것
※ 일제시대 군수 명단은 일제시대 항을 볼 것

2. 역대 부군수 명단

역대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1	정동주(鄭東柱)	75. 1. 9	75. 9. 2	8월	전 남 함 평
2	한상철(韓相哲)	75. 9. 3	76. 9. 2	9월	전 남 영 암
3	강승회(姜承會)	76. 9. 3	77. 3. 21	6월	전 남 광 양
4	박준식(朴俊植)	77. 3. 22	78. 8. 15	1년 5월	전 남 담 양
5	김상섭(金相燮)	78. 8. 16	80. 1. 31	1년 5월	광 주 광 역 시
6	정형근(鄭亨根)	80. 2. 1	80. 8. 20	7월	전 남 해 남
7	김양식(金瀁植)	80. 8. 21	82. 11. 4	2년 3월	전 남 순 천
8	서삼현(徐三鉉)	85. 4. 10	86. 3. 21	11월	전 남 담 양
9	이기태(李奇泰)	86. 3. 21	88. 7. 4	2년 3월	전 남 나 주
10	조영욱(曺泳旭)	88. 7. 4	89. 12. 20	1년 6월	광 주 광 역 시
11	강박원(姜鉑遠)	89. 12. 21	92. 1. 10	2년 2월	광 주 광 역 시
12	나인수(羅仁洙)	92. 1. 11	93. 8. 16	1년 8월	전 남 나 주
13	오만영(吳晩泳)	93. 8. 17	94. 12. 31	1년 4월	광 주 광 역 시
14	최복만(崔福萬)	95. 1. 1	96. 7. 24	1년 7월	전 남 순 천
15	이상옥(李相鈺)	96. 7. 25	97. 7. 28	1년	전 남 여 천
16	박영효(朴永孝)	97. 9. 24	98. 9	1년	전 남 광 양
17	김양기(金良基)	98. 9. 1	2000. 1. 7	1년 4월	전 남 함 평
18	김영석(金永錫)	2000. 1. 8	2002. 8. 13	2년 7월	전 남 영 광
19.	주신호(周信鎬)	2002. 8.14	2005. 1 .19	2년 3월	전 남 무 안
20	정병재(鄭炳在)	2006. 1.20	2006. 1. 11	1년	전 남 무 안
21	이호경(李滈坰)	2006. 1.12	2009. 1.12	3년	전 남 해 남
22	박윤식(朴允植)	2009. 1.13	현재		전 남 담 양

제7절 군정자문위원(郡政諮問委員)

지역별 계층별로 주민의 폭넓은 자문을 얻어 군행정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뜻에서 군정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여기서는 1974년이후 위촉한 군정자문위원 명단을 게재하되 기관장은 제외하고 민간인만 싣는다. 군정자문위원제는 1979년 6월 15일 정부방침에 따라 해체된 바 있으며, 1981년 4월에 방침이 바뀌어 다시 군조례에 의해 임명하게 되었으며 군정자문위원회는 군의회

가 개원되기 전인 1991년 4월 14일까지 군정발전자문의 기능을 다하다가 군의회가 개원함으로 자동해체되었다. 본란에서는 1983년까지의 군정자문위원을 정리한다.

성 명		주 소	1974. 7. 19 위촉	1978. 7. 18 위촉	1979. 4. 위촉	1981. 4. 1 위촉	1983. 2. 2 위촉	경 력
강인주	姜仁周	함평읍 기각리 917	○	○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김병기	金炳基	〃 내교리 497	○					〃
김영창	金永昌	〃 〃 293	○	○	○	○	○	읍위원, 회사사장
박정순	朴程淳	〃 함평리 98	○	○				읍장 8년 역임
한철종	韓喆種	〃 내교리 668		○	○	○		교육공무원 18년
리 상	李 祥	〃 함평리 145			○			문화원장
양길배	梁吉培	〃 기각리 981			○		○	재향군인회 함평군지회장
이우행	李友行	〃 함평리 153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김녕호	金寧鎬	〃 기각리 856			○			언론인
권병위	權炳威	〃 〃			○	○	○	회사사장
김영진	金永珍	〃 내교리 293			○	○	○	삼성전자대리점 경영
고재필	高在弼	〃 〃 979			○			상 업
유판옥	庾判玉	〃 기각리			○			군농협장 역임
이건진	李建榛	〃 〃			○			언론 4년
이재현	李載鉉	〃 내교리			○			한약방
이인철	李仁喆	〃 〃			○			제재소사장
김재우	金在友	〃 기각리			○			상 업
유영자	柳英子	〃 〃 967			○		○	한국부인회장
박옥현	朴玉賢	〃 함평리			○			사회사업
정찬동	鄭燦東	〃 자풍리			○			농 업
윤한식	尹漢植	〃 내교리 668			○		○	삼애원장 역임
노경수	魯京洙	〃 〃			○			공무원

성 명		주 소	1974. 7. 19 위촉	1978. 7. 18 위촉	1979. 4. 위촉	1981. 4. 1 위촉	1983. 2. 2 위촉	경 력
김재길	金在吉	〃 성남리 265				○	○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리인찬	李寅燦	〃 기각리 821				○		정화위원회위원장
이돈율	李敦慄	〃 함평리 17				○		향교 전교 역임
이경식	李景植	〃 함평리 128				○	○	재생병원장
이상만	李相滿	〃 기각리 981				○		라이온스회장 역임
장 록	張 錄	〃 〃 764				○	○	대서업
박종삼	朴鍾三	함평읍 함평리 166				○	○	목 사
김형중	金衡中	〃 내교리 199				○		약국경영
이희남	李熙南	〃 기각리 150				○		상 업
나병상	羅炳相	〃 내교리 209				○		함평농산사장
이재욱	李載郁	〃 함평리 153				○	○	문성상고이사장
이계후	李啓厚	〃 기각리 999					○	대한노인회 함평지부장
박병용	朴炳龍	〃 옥산리 678					○	농 업
김익수	金翊洙	〃 기각리 858					○	운수업
최수원	崔洙遠	〃 〃 763					○	삼양타이어대리점
김동창	金東昌	〃 내교리 182					○	운수업
리현석	李炫石	〃 〃 209-22					○	국정교과서 함평군공급소
문성수	文聖洙	〃 기각리 1061					○	상 업
이창행	李昌行	〃 〃 863-1					○	상 업
박재호	朴在昊	〃 〃 861					○	언론인
김만성	金萬成	손불면 산남리 2352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박귀근	朴貴根	〃 월천리 1438	○		○			농 업
김상요	金相堯	〃 산남리			○			예비군중대장 역임
이길구	李吉久	〃 월천리			○			농 업

성 명		주 소	1974. 7. 19 위촉	1978. 7. 18 위촉	1979. 4. 위촉	1981. 4. 1 위촉	1983. 2. 2 위촉	경 력
김종규	金鍾奎	〃 학산리 70-13				○		〃
박상철	朴相喆	〃 대전리 10					○	면장 역임
김동표	金東杓	신광면 유천리 25	○	○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이경우	李景雨	〃 월암리			○		○	면장 10년
임유광	林柳光	〃 복흥리 450				○		새마을협의회장
김민수	金玟洙	학교면 학교리 172	○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정재구	鄭在九	〃 사거리 638		○	○			면장 3년
김유원	金有源	〃 월호리 833	○	○		○		면장 역임
김재란	金在鸞	〃 사거리		○		○		교장 역임
김형태	金瀅台	〃 학교리			○	○		병원 경영
김용만	金容萬	학교면 학교리 878				○		공무원 역임
지길상	池吉相	〃 죽정리 540				○		〃
정인상	鄭仁相	〃 사거리 621				○		공 업
강병모	姜炳模	〃 학교리 878					○	약국 경영
김민규	金玟圭	〃 〃 878					○	한국농산사장
조성도	趙成都	엄다면 삼정리 262	○	○		○		면장 역임
지홍재	池弘在	〃 학교리 124		○	○		○	〃
김두천	金斗千	〃 엄다리 760				○		경찰서장 역임
윤용병	尹用炳	〃 〃 912			○	○		상이군경회분회장
박병구	朴炳九	대동면 용성리 736	○	○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김영곤	金永坤	〃 향교리 592			○		○	면장 역임
이상순	李相淳	〃 〃			○			반공연맹지부장 역임
황성주	黃聖周	〃 백호리 637				○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최병권	崔炳權	나산면 삼축리 250	○	○	○			단위조합장 역임

성 명		주 소	1974. 7. 19 위촉	1978. 7. 18 위촉	1979. 4. 위촉	1981. 4. 1 위촉	1983. 2. 2 위촉	경 력
김동식	金東植	〃 〃 261				○	○	중학교장
안인수	安寅洙	〃 나산리 428				○	○	함평군농협장 역임
이상길	李相吉	〃 삼축리 240			○			면장,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윤종규	尹鍾圭	해보면 상곡리 653		○	○			면장 4년
정남혁	鄭南爀	〃 해보리 614	○		○			면장, 통대의원
윤주원	尹柱元	〃 금덕리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정연석	鄭湲錫	〃 대창리 565				○		농 업
유춘구	劉春久	〃 금덕리 164					○	
정진재	鄭鎭在	월야면 월야리 195	○					면장, 통대의원
정완섭	鄭完涉	〃 〃 427		○	○			부면장 3년
이은묵	李殷默	〃 정산리 434			○	○		단위조합장 역임
이인하	李仁夏	〃 월야리6692					○	농 업

제8절 역대 실·과장(室課長)

1. 내무과장(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서 광 호	徐 光 鎬	주 사	~ 1995. 10. 11	
김 준 혁	金 俊 爀	〃	1955. 10. 12 ~ 1956. 11. 08	
박 구 화	朴 九 和	〃	1956. 11. 09 ~ 1958. 10. 31	
김 문 수	金 汶 洙	〃	1958. 10. 31 ~ 1959. 08. 09	
김 구 영	金 九 永	〃	1959. 08. 10 ~ 1960. 05. 31	
김 용 호	金 容 鎬	〃	1960. 05. 31 ~ 1961. 11. 30	
박 병 윤	朴 炳 允	행정주사	1961. 11. 30 ~ 1963. 05. 31	
심 기 용	沈 旗 庸	〃	1963. 05. 31 ~ 1964. 05. 01	
김 현 대	金 炫 大	〃	1964. 05. 01 ~ 1965. 08. 01	
최 금 균	崔 今 均	〃	1965. 08. 01 ~ 1966. 06. 01	
박 종 기	朴 鍾 驥	통계주사	1966. 06. 01 ~ 1970. 03. 31	
박 재 휴	朴 在 烋	행정주사	1970. 03. 31 ~ 1972. 09. 18	
정 원 강	鄭 元 强	지방행정사무관	1972. 09. 18 ~ 1973. 07. 09	
서 재 관	徐 在 寬	〃	1973. 07. 09 ~ 1974. 01. 10	
박 창 석	朴 昌 碩	〃	1974. 01. 10 ~ 1975. 01. 08	
정 태 호	鄭 泰 鎬	〃	1975. 01. 08 ~ 1975. 10. 31	
최 년 환	崔 年 煥	〃	1975. 10. 31 ~ 1977. 03. 22	
박 재 휴	朴 在 烋	〃	1977. 03. 22 ~ 1980. 04. 01	
정 윤 국	丁 潤 國	〃	1980. 04. 01 ~ 1982. 10. 15	
조 재 운	趙 在 雲	〃	1982. 10. 15 ~ 1984. 08. 16	
한 기 장	韓 基 璋	〃	1984. 08. 17 ~ 1986. 11. 21	
김 용 관	金 容 官	〃	1986. 11. 22 ~ 1990. 08. 04	
김 정 순	金 晶 淳	〃	1990. 08. 05 ~ 1993. 02. 22	
김 영 종	金 永 鍾	〃	1993. 02. 23 ~ 1994. 03. 31	
정 병 순	丁 炳 淳	〃	1994. 04. 01 ~ 1995. 01. 15	
김 영 종	金 永 鍾	〃	1995. 01. 16 ~ 1996. 05. 31	
나 남 채	羅 南 埰	〃	1996. 06. 01 ~ 2003. 09. 26	1998. 9 총무과로 변경
정 근 욱	鄭 根 旭	지방사무관	2003. 09. 27 ~ 2005. 08. 07	
김 규 준	金 圭 準	〃	2005. 08. 08 ~ 2008. 07. 27	2005.9.22 자치행정과로 변경
정 영 오	鄭 永 吾	〃	2008. 07. 28 ~ 현 재	

2. 산업과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영 환	金 永 煥	주 사	~ 1955. 10. 11	
김 종 길	金 鍾 吉	〃	1955. 10. 12 ~ 1956. 11. 08	
정 상 렬	鄭 相 烈	〃	1956. 11. 09 ~ 1957. 10. 02	
남 만 우	南 萬 祐	〃	1957. 10. 03 ~ 1959. 07. 31	
김 육 선	金 六 善	〃	1959. 07. 31 ~ 1961. 06. 12	
오 경 석	吳 京 錫	〃	1961. 06. 12 ~ 1962. 11. 30	
김 종 철	金 鍾 哲	행 정 주 사	1962. 11. 30 ~ 1963. 05. 31	
손 점 수	孫 占 洙	〃	1963. 05. 31 ~ 1964. 05. 01	
이 대 섭	李 大 燮	〃	1964. 05. 01 ~ 1965. 08. 01	
모 응 재	牟 應 在	〃	1965. 08. 01 ~ 1968. 12. 20	폐 지

3.재무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동 신	金 東 信	재 정 주 사	1962. 11. 30 ~ 1963. 05. 31	
윤 재 풍	尹 在 豊	〃	1963. 05. 31 ~ 1964. 06. 23	
노 예 근	魯 禮 根	〃	1964. 06. 23 ~ 1966. 06. 01	
신 광 호	申 光 浩	행 정 주 사	1966. 06. 01 ~ 1969. 05. 07	
김 용 철	金 容 哲	〃	1959. 05. 07 ~ 1970. 03. 31	
이 형 국	李 炯 國	〃	1970. 03. 31 ~ 1972. 06. 01	
모 돈 근	牟 敦 根	지방행정사무관	1972. 06. 01 ~ 1975. 01. 08	
안 종 선	安 琮 善	〃	1975. 01. 08 ~ 1975. 12. 13	
정 래 열	鄭 來 烈	〃	1975. 12. 13 ~ 1978. 09. 25	
박 종 영	朴 鍾 永	〃	1978. 09. 25 ~ 1981. 01. 09	
박 병 철	朴 炳 撤	〃	1981. 01. 09 ~ 1982. 10. 12	
윤 남 열	尹 南 烈	〃	1982. 10. 15 ~ 1989. 02. 08	
김 영 종	金 永 鍾	〃	1989. 02. 09 ~ 1993. 02. 22	
정 병 규	丁 炳 奎	〃	1993. 02. 23 ~ 1996. 12. 09	
정 정 남	鄭 正 南	〃	1996. 12. 10 ~ 1998. 09. 04	
박 세 영	朴 世 英	〃	1998. 09. 05 ~ 2003. 03. 16	
김 광 호	金 光 鎬	〃	2000. 03. 17 ~ 2002. 09. 08	
김 규 준	金 圭 準	〃	2002. 09. 09 ~ 2003. 09. 26	
이 건 택	李 建 澤	〃	2003. 09. 27 ~ 2005. 08. 07	
정 영 오	鄭 永 吾	〃	2005. 08. 08 ~ 2007. 07. 22	
김 우 성	金 雨 成	〃	2007. 07. 23 ~ 현 재	

4. 건설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주 녕 태	朱 寧 泰	토 목 기 사	1962. 11. 30 ~ 1963. 02. 18	
조 용 민	趙 鏞 敏	〃	1963. 02. 18 ~ 1963. 09. 04	
박 양 곤	朴 洋 坤	〃	1963. 09. 04 ~ 1964. 06. 23	
정 태 복	鄭 太 福	〃	1964. 06. 23 ~ 1966. 06. 15	
이 학 인	李 學 仁	〃	1966. 06. 15 ~ 1969. 08. 26	
변 자 연	邊 自 然	〃	1969. 08. 27 ~ 1970. 05. 26	
김 형 순	金 炯 淳	〃	1970. 05. 27 ~ 1973. 06. 30	
김 원 길	金 元 吉	〃	1973. 07. 03 ~ 1975. 01. 18	
나 재 균	羅 在 均	〃	1975. 01. 19 ~ 1975. 12. 13	
이 상 우	李 相 雨	〃	1975. 12. 31 ~ 1979. 05. 04	
서 국 남	徐 國 南	토 목 기 좌	1979. 05. 04 ~ 1980. 02. 09	
김 영 종	金 永 鍾	〃	1980. 02. 09 ~ 1980. 07. 04	
김 봉 수	金 奉 洙	토 목 기 사	1980. 09. 12 ~ 1982. 09. 01	
임 종 환	林 鍾 環	〃	1982. 09. 01 ~ 1985. 10. 06	
조 주 현	曺 周 鉉	토 목 기 좌	1985. 10. 07 ~ 1989. 02. 10	
송 기 채	宋 起 采	〃	1989. 02. 11 ~ 1991. 08. 04	
문 두 식	文 斗 植	〃	1991. 08. 05 ~ 1993. 09. 13	
김 태 일	金 太 一	지방토목사무관	1993. 09. 14 ~ 1995. 06. 14	
윤 영 욱	尹 永 旭	〃	1995. 06. 15 ~ 1998. 09. 10	98. 9 건설교통과로 변경
전 승 현	全 承 鉉	지방토목사무관	1998. 09. 11 ~ 2002. 08. 13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유 병 담	柳 秉 潭	지방토목사무관	2002. 08. 14 ~ 2005. 04. 12	
심 재 신	沈 在 信	지방토목사무관	2005. 04. 13 ~ 현 재	2008년 7월 건설재난관리과로명칭변경

5. 문화공보실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유 민 봉	庾 珉 鳳	지방행정사무관	1969. 05. 07 ~ 1970. 03. 31	
김 유 원	金 有 源	〃	1970. 04. 21 ~ 1971. 03. 20	
김 연 형	金 連 炯	〃	1971. 03. 20 ~ 1972. 06. 01	
김 연 수	金 演 洙	〃	1972. 06. 01 ~ 1973. 02. 14	
이 봉 록	李 奉 祿	〃	1973. 02. 14 ~ 1975. 05. 01	
정 래 열	鄭 來 烈	〃	1975. 05. 01 ~ 1975. 12. 31	
박 원 진	朴 元 鎭	〃	1975. 12. 31 ~ 1977. 03. 22	
박 종 철	朴 鍾 撤	〃	1977. 03. 22 ~ 1980. 04. 29	
정 영 탁	丁 永 卓	〃	1980. 04. 29 ~ 1980. 08. 18	
박 유 상	朴 儒 相	〃	1980. 08. 18 ~ 1983. 08. 05	
이 동 성	李 東 成	〃	1983. 08. 05 ~ 1985. 04. 14	
마 창 열	馬 昌 烈	〃	1985. 08. 15 ~ 1986. 01. 15	
박 영 효	朴 永 孝	〃	1986. 01. 16 ~ 1987. 09. 09	
정 병 규	丁 炳 奎	〃	1987. 09. 10 ~ 1988. 08. 05	
김 하 평	金 河 坪	〃	1988. 08. 06 ~ 1989. 06. 19	
나 남 채	羅 南 埰	〃	1989. 06. 20 ~ 1991. 08. 04	
정 근 욱	鄭 根 旭	〃	1991. 08. 05 ~ 1992. 07. 26	
주 형 찬	朱 泂 贊	〃	1992. 07. 27 ~ 1993. 09. 10	
오 병 조	吳 炳 朝	〃	1993. 09. 11 ~ 1994. 07. 01	
박 세 영	朴 世 榮	〃	1994. 07. 02 ~ 1997. 01. 17	
김 철 규	金 喆 圭	〃	1997. 01. 18 ~ 1997. .	
김 광 호	金 光 鎬	〃	1997. . ~ 1998. 09. 04	1998. 09 폐지

6. 농산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박 재 휴	朴 在 烋	지방행정사무관	1969. 05. 07 ~ 1970. 03. 31	
김 치 봉	金 治 奉	〃	1970. 03. 31 ~ 1970. 11. 06	
조 삼 현	曺 三 鉉	행 정 주 사	1970. 11. 06 ~ 1972. 06. 01	
김 종 근	金 鍾 根	지방행정사무관	1972. 06. 01 ~ 1972. 09. 18	
김 담 수	金 淡 洙	〃	1972. 09. 18 ~ 1973. 02. 14	
박 병 용	朴 炳 龍	행 정 주 사	1973. 02. 15 ~ 1974. 01. 09	
박 천 규	朴 千 圭	지방행정사무관	1974. 01. 10 ~ 1975. 01. 08	
문 상 언	文 相 彦	〃	1975. 01. 08 ~ 1978. 01. 01	
이 계 문	李 啓 文	〃	1978. 01. 01 ~ 1979. 03. 21	
박 종 철	朴 鍾 澈	〃	1979. 03. 21 ~ 1979. 05. 04	
김 영 종	金 永 鍾	〃	1979. 05. 10 ~ 1979. 12. 26	
한 창 수	韓 昌 洙	〃	1979. 12. 26 ~ 1986. 11. 21	
송 한 석	宋 漢 鈑	지방농업기좌	1986. 11. 22 ~ 1991. 08. 04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이 주 헌	李 周 憲	지방농업사무관	1998. 09. 05 ~ 2000. 01. 13	'96. 농수산진흥과로 변경 '98. 9 농산과로 변경
김 규 준	金 圭 準	지방행정사무관	2000. 01. 14 ~ 2001. 01. 14	
이 주 헌	李 周 憲	지방농업사무관	2001. 01. 15 ~ 2009. 07. 22	2006.09.친환경농산과로명칭변경
정 찬 득	鄭 燦 得	지방농업사무관	2009. 07. 23 ~ 현 재	

7. 산업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이두환	李斗漢	농 업 기 좌	1991. 08. 05 ~ 1994. 10. 16	
김영호	金永鎬	농업사무관	1994. 10. 17 ~1998. 09.	'96.06.01 농업소득과장으로 명칭 변경 '98.09 폐지

8. 식산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정 태 호	鄭 泰 鎬	행 정 주 사	1969. 05. 07 ~ 1970. 03. 31	
박 종 영	朴 鍾 永	〃	1970. 03. 31 ~ 1972. 06. 16	
오 덕 교	吳 德 敎	지방행정사무관	1972. 06. 01 ~ 1972. 09. 18	
오 형 석	吳 亨 錫	〃	1972. 09. 18 ~ 1973. 12. 27	
하 준 택	河 俊 澤	〃	1973. 12. 27 ~ 1974. 01. 10	
남 정 득	南 正 得	〃	1974. 01. 10 ~ 1975. 01. 09	
전 윤 식	全 允 植	〃	1975. 01. 08 ~ 1977. 06. 03	
민 영 송	閔 永 松	〃	1977. 06. 04 ~ 1979. 12. 25	
김 영 종	金 永 鍾	〃	1979. 12. 26 ~ 1985. 04. 14	
김 항 노	金 恒 魯	〃	1985. 04. 15 ~ 1986. 11. 21	
성 무 열	成 武 烈	〃	1986. 11. 22 ~ 1989. 06. 19	
박 종 주	朴 鍾 柱	〃	1989. 06. 20 ~ 1992. 05. 22	'91년 지역경제과로 변경 '96년 지역개발과로 변경

9. 지역경제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정 근 욱	鄭 根 旭	지방행정사무관	1992. 05. 23 ~ 1993. 09. 10	
김 정 남	金 正 南	〃	1993. 09. 11 ~ 1995. 06. 21	
김 풍 호	金 豊 鎬	〃	1995. 06. 22 ~ 1998. 09.	'97년부터 농수산진흥과로 변경
정 휴 진	鄭 烋 鎭	〃	1995. 06. 22 ~ 1999. 08. 01	지역경제과로 변경
박 형 필	朴 炯 弼	〃	1999. 08. 02 ~ 2000. 03. 16	
정 란 희	鄭 蘭 姬	〃	2000. 03. 17 ~ 2002. 09. 08	
정 휴 진	鄭 烋 鎭		2002. 09. 09 ~ 2003. 09. 20	
이 환 행	李 煥 行	〃	2003. 09. 21 ~ 2005. 08. 07	
김 양 현	金 良 鉉	〃	2005. 08. 08 ~ 2006. 09. 11	2005.08.사회경제과로변경
김 영 학	金 永 鶴	〃	2006. 09. 12 ~ 2008. 07. 27	
이 철 행	李 哲 行	〃	2008. 07. 28 ~ 2009. 07. 22	2008.07.지역경제과로변경
전 인 균	全 仁 均	〃	2009. 07. 23 ~ 현재	

10. 민방위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박원진	朴元鎭	지방행정사무관	1977. 03. 22 ~ 1979. 05. 04	
신남식	申南湜	〃	1979. 05. 04 ~ 1980. 08. 17	
김항노	金恒魯	〃	1980. 08. 18 ~ 1982. 10. 14	
이옥범	李玉範	〃	1982. 10. 15 ~ 1984. 04. 14	
곽창국	郭昌國	〃	1984. 04. 15 ~ 1985. 04. 14	
마창열	馬昌烈	〃	1985. 04. 15 ~ 1986. 11. 21	
손동룡	孫東龍	〃	1986. 11. 22 ~ 1988. 01. 14	
박종주	朴鍾住	〃	1988. 01. 15 ~ 1989. 06. 19	
김하평	金河坪	〃	1989. 06. 20 ~ 1990. 01. 06	
서복남	徐福男	〃	1990. 01. 07 ~ 1991. 08. 04	
정정남	鄭正男	〃	1991. 08. 05 ~ 1992. 05. 21	
김정남	金正男	〃	1992. 05. 21 ~ 1993. 09. 10	
주형찬	朱淳贊	〃	1993. 09. 11 ~ 1994. 03. 21	
오병조	吳炳趙	〃	1994. 03. 22 ~ 1995. 06. 21	
이대실	李大實	〃	1995. 06. 22 ~ 1998. 09. 04	'96.6.1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98.9.5 폐지

11. 새마을과장(사회진흥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홍 식	金 弘 植	지방행정사무관	1973. 02. 14 ~ 1974. 10. 31	
박 원 진	朴 元 鎭	〃	1979. 05. 04 ~ 1979. 12. 26	
신 장 식	申 章 植	〃	1979. 12. 26 ~ 1980. 08. 18	
정 영 탁	丁 永 卓	〃	1980. 08. 18 ~ 1985. 04. 14	
김 영 종	金 永 鍾	〃	1985. 04. 15 ~ 1989. 02. 08	
손 동 용	孫 東 龍	〃	1989. 02. 09 ~ 1992. 10. 27	
나 남 채	羅 南 埰	〃	1992. 10. 28 ~ 1993. 02. 22	
정 정 남	鄭 正 南	〃	1993. 02. 23 ~ 1996. 12. 09	'93 사회진흥과로 명칭변경 '96 폐지

12. 사회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박원진	朴元鎭	지방행정사무관	1979. 12. 26 ~ 1980. 08. 17	
김항노	金恒魯	〃	1980. 08. 18 ~ 1982. 10. 14	
박유상	朴儒相	〃	1982. 10. 14 ~ 1985. 04. 14	
곽창국	郭昌國	〃	1985. 04. 15 ~ 1986. 11. 21	
손동룡	孫東龍	〃	1986. 11. 22 ~ 1989. 02. 08	
박정길	朴正吉	〃	1989. 02. 09 ~ 1990. 07. 15	
나남채	羅南埰	〃	1990. 07. 16 ~ 1991. 04. 10	
김승주	金昇洲	〃	1991. 04. 11 ~ 1992. 10. 27	
김현중	金玄重	〃	1992. 10. 28 ~ 1993. 09. 10	
김종호	金淙鎬	〃	1993. 09. 11 ~ 1994. 03. 22	
김유태	金裕泰	〃	1994. 03. 23 ~ 1995. 12. 31	'98.09.05 폐지

13. 가정복지과(사회복지과)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정 난 희	鄭 蘭 姬	지방별정5급	1991. 05. 01 ~ 1996. 12. 09	
정 난 희	鄭 蘭 姬	〃	1996. 12. 10 ~ 1998. 08.	사회과 병합 사회복지과로 통합 1998. 9. 5 폐지

14. 산림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영 환	金 永 鍰	지방농림기좌	1980. 04. 29 ~ 1980. 12. 23	
최 재 준	崔 在 俊	〃	1980. 12. 23 ~ 1982. 10. 22	
유 동 영	庾 東 榮	〃	1983. 12. 26 ~ 1985. 11. 26	
차 유 식	車 庾 植	지방임업기좌	1985. 11. 27 ~ 1989. 12. 06	
김 근 식	金 根 植	〃	1989. 12. 07 ~ 1993. 09. 23	
윤 순 열	尹 淳 烈	〃	1993. 09. 24 ~ 1998. 01. 06	
김 명 석	金 明 錫	지방임업사무관	1998. 01. 07 ~ 2003. 07. 30	'98. 9 산림관광과로 변경 02. 9 산림축수산과로변경
강 강 만	姜 康 萬	〃	2003. 07. 31 ~ 2006. 09. 21	04. 산림수산과장으로 변경 06.9 과분리 폐지됨

15. 기획실장(기획감사실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정 병 규	鄭 炳 奎	지방행정사무관	1987. 09. 10 ~ 1993. 02. 22	
나 남 채	羅 南 埰	〃	1993. 02. 23 ~ 1996. 05. 31	
김 영 종	金 永 鍾	지 방 서 기 관	1996. 06. 01 ~ 2002. 09. 08	'96.06.01직급상향조정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
김 광 호	金 光 鎬	지 방 사 무 관	2002. 09. 09 ~ 2003. 09. 26	
나 남 채	羅 南 採	지 방 서 기 관	2003. 09. 27 ~ 2008. 10. 28	06.9기획예산실로명칭변경
나 홍 채	羅 洪 採	지 방 서 기 관	2008. 10 .29 ~ 현 재	

16. 지적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서 인 석	徐 寅 碩	지 적 기 좌	1990. 09. 24 ~ 1994. 10. 16	
신 천 년	申 天 年	지적사무관	1994. 10. 17 ~ 1998. 09. 04	'98.09.05 폐지

17. 도시과장(지역개발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현중	金玄重	지방행정사무관	1991. 08. 05 ~ 1992. 10. 27	
이덕수	李德秀	〃	1992. 10. 28 ~ 1994. 07. 01	
김용환	金龍煥	〃	1994. 07. 02 ~ 1998. 09. 04	'96.06.01 지역개발과로 명칭 변경

18. 환경보호과장(환경위생과장, 환경상하수도과)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유 태	金 裕 泰	지방행정사무관	1992. 02. 17 ~ 1993. 09. 10	
정 근 욱	鄭 根 旭	〃	1993. 09. 11 ~ 1996. 05. 31	
박 세 영	朴 世 英	〃	1996. 06. 01 ~ 1998. 09. 04	'96.06.01 환경위생과로 변경 '98.09 환경복지과로 변경
노 두 근	魯 斗 根	〃	1998. 09. 05 ~ 2002. 01. 20	
김 양 현	金 良 鉉	〃	2002. 01. 21 ~ 2003. 09. 20	환경보전과로 명칭변경
정 영 오	鄭 永 吾	〃	2003. 09. 21 ~ 2005. 08. 07	
김 우 성	金 雨 成	〃	2005. 08. 08 ~ 2006. 09. 21	'06.09 환경녹지과로명칭변경
박 연 수	朴 連 洙	〃	2006. 09. 22 ~ 2007. 07. 22	
윤 영 식	尹 永 植	〃	2007. 07. 23 ~ 2008. 07. 27	'08.07 환경상하수도과로 명칭변경,환경보호과 폐지
김 광 운	金 光 雲	시 설 사 무 관	2008. 07. 28 ~ 현 재	

19.위민실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정 근 욱	鄭 根 旭	지방행정사무관	1996. 06. 01 ~ 1998. 09. 04	'96. 06. 01 신설 '98. 09. 05 폐지

20. 정책개발담당관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오 병 조	吳 炳 朝	지방행정사무관	1996. 12. 10 ~ 1997. 10. 06	
김 양 현	金 良 鉉	〃	1997. 10. 07 ~ 현 재	'98. 09. 05 폐지

21. 민원봉사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용 환	金 容 煥	지방행정사무관	1998. 09. 05 ~ 2002. 09. 08	1998. 09. 05 신설 '00.09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변경
정 수 기	鄭 守 基	〃	2002. 09. 09 ~ 2005. 08. 07	'05.08 자치행정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
이 용 기	李 容 基	〃	2005. 08. 08 ~ 2006. 09. 21	'06.09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
이 건 택	李 建 澤	〃	2006. 09. 22 ~ 2007. 07. 22	
나 명 주	羅 明 周	〃	2007. 07. 23 ~ 2008. 07. 28	
윤 행 식	尹 行 植	〃	2008. 07. 29 ~ 현 재	

22. 문화관광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김 양 수	金 良 洙	지방행정사무관	2002. 09. 09 ~ 2004. 02. 28	
이 환 행	李 煥 行	〃	2004. 03. 01 ~ 2006. 09. 21	
오 금 열	吳 錦 烈	〃	2006. 09. 22 ~ 현 재	

23. 주민생활지원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이 용 기	李 用 基	지방행정사무관	2006. 09. 22 ~ 2008. 07. 27	
김 규 준	金 圭 準	〃	2008. 07. 28 ~ 현 재	

24. 사회복지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최 영 철	崔 永 哲	지방행정사무관	2006. 09. 22 ~ 2008. 07. 22	
이 윤 성	李 允 成	〃	2008. 07. 23 ~ 2008. 07. 27	
김 영 학	金 永 鶴	〃	2008. 07. 28 ~ 현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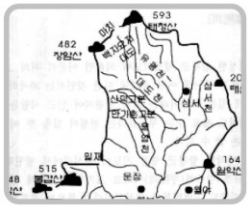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25. 창조디자인과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남 창 규	南 昌 圭	지방시설사무관	2008. 08. 01 ~2009. 07. 22	
최 인 규	崔 仁 圭	지방시설사무관	2009. 07. 22 ~ 현 재	

26. 자연생태공원 관리소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참 고
나 홍 채	羅 洪 採	지방행정서기관	2002. 09. 09 ~ 2006. 09. 21	
정 택 규	鄭 澤 圭	지방행정사무관	2006. 09. 22 ~ 2008. 07. 27	
이 광 우	李 光 宇	지방녹지사무관	2008. 07. 28 ~ 현 재	08.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

제5장 재정(財政)과 금융(金融)



제1절 옛 군지에 수록된 함평군의 재정

1910년 이전에 발간된 현읍군지(縣邑郡誌)에 수록된 사례는 조선시대의 “함평현의 재정 사례”에서 언급 하였으며, 공주사범대학교 이해준(李海濬)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1874년 함평현의 재정 사례”가 입수되어 1930년 간행 속수함평지(續修咸平誌) 기재분과 함께 여기에 적는다.

1. 1874년 7월 함평현 재정 사례 <甲戌七月 日咸平邑例錄>

▲ 관용(官用)

☆ 수미(需米) 310석(石) 내(內). 재(在) 270석
매월 22석 7말 5되. 윤달이 있는 해 매월 20석 11말 5되 4홉
매일 11말 2되 5홉. 윤달이 있는 해 매일 10말 3되 8홉 4작 6리.
☆ 결미(結米) 235석 3말 (재해가 있어도 감하지 않아 매년 변하지 않는다)
매월 19석 9말. 매일 9말 8되.
윤달이 있는 해. 매월 18석 1말 3되 9홉. 매일 9말 4홉 6작 3리
☆ 생어가(生魚價) 200냥(兩) 내
매월 16냥 6전(錢) 7푼(分). 매일 5전 5푼 6리
윤달이 있는 해. 매월 15냥 3전 9푼. 매일 5전 1푼 3리
☆ 지보전(紙保錢) 164냥 내
매월 13냥 6전 7푼. 매일 4전 5푼 6리
윤달이 있는 해. 매월 12냔 6전 2푼. 매일 4전 2푼.
☆ 장세전(場稅錢) 298냥 8푼 내
매월 24냥 8전 4푼. 매일 8전 2푼 8리
☆ 황밀가(黃蜜[349]價) 64냥 내
매월 5냥. 매일 1전6푼 6리
윤달이 있는 해. 매월 4냥 6전 2푼. 매일 1전 5푼 4리

349) 황밀 : 벌통에서 바로 따낸 꿀

☆ 세미(稅米)
태(太·콩) — 해마다 변함없음. 3월에 거두어 씀

•아록소정(衙祿所耕) 55결(結) 전세 취용(田稅取用)

•소정(所耕) 20결 보영사기(報營査起).
전(錢) 20냥 7전 7푼

☆ 어세전(魚稅錢) 11조 분봉(十一條分捧). 4월, 10월. 14냥 1전

☆ 무녀포(巫女布) 5월 취용(取用). 834냥

☆ 사색보(四色保)[350] 매월 배용(排用). 공방(工房). 48냥

☆ 사삭제수 첨 타가(四朔祭需添駄價)[351]. 고색(雇色). 60냥

☆ 재백지가(災白紙價) . 도서원(都書員). 350냥

☆ 신연타가 (新延駄價) 마련 (磨鍊) 468냥 6전 — 도서원(都書員)
구관타가(舊官駄價) 18냥

☆ 전선증미가(戰船蒸米價) 수조 불행 때 취용(水操不行時取用).

☆ 환미·태(還米·太－콩)
조년맥 (租年麥) — 해마다 변함 없음

☆ 망건(網巾). 20사(事) 내. 15사는 감하였고 5사는 가을에 납부함
식지면 오수설방(食知五水禊防)에서 거둠

☆ 마철(馬鐵)[352]. 3부(部). 매월 의례적으로 납부함

☆ 관둔 조(官屯租). 재난이 있으면 수시 감함

☆ 호장(戶長)

• 관중 소용(官中所用) 1년 분 시가전(柴價錢. 땔감 값이). 321냥
정식(定式)한 결역미(結役米)를 종시(從時)에 마련하여 지급하면(상하.上下) 원가(元價)가 부족하여 4등 첨가미(四等添價米) 지급분 12석을 마련한다. 윤년이 있는 해는 26냥 7전을 결미(結米) 중에 보태어 실시한다.

• 고초가(藁草價. 짚, 말먹이 용). 결역미 12석을 마련, 상하를 물론 말먹이용 고초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여 쓰고 있다.

• 예목보(禮木保). 62명 내
양인(良人) 50명. 매인 1냥 5전
사노(私奴) 12명. 매인 1냥
정초 호장이 상경할 때 사헌부, 이조, 예조 등 방문 경비와 노자로 쓰고 있다.

• 관노비의 차역을 맡아 거행함(官奴婢差役次知[353]擧行)

☆ 이방(吏房)

---

350) 사색보 : 군역을 면제 받기 위해 내던 돈
351) 타가(駄價) : 짐을 실어다 주고 받는 삯
352) 마철 : 말굽에 대갈을 박아 붙인 쇠
353) 차지(次知) : 이두문. 츠지. 일을 맡은이

• 포폄(褒貶) 때 사장(仕狀)에 의거 매년 봄, 여름에 수보(修報)를 한다.
• 인리(人吏), 통인(通引), 훈도, 사령(使令) 등의 차역을 맡아 시행한다.

☆ 호방(戶房)

•군역청에 납부할 어세전(均役廳納漁稅錢). 여름, 겨울에 상납(上納). 11조(條) 관납(官納). 매년 변함없이 시행.
•훈련도감에 납부할 둔세미(訓練都監納屯稅米). 2석 12말 3되 6홉. 매년 선세(船稅) 상납을 시행함
•무녀포(巫女布). 원무(元巫) 29명. 매명(每名) 2냥 2전 씩. 63냥 8전
반무(半巫) 12명. 매명(每名) 1냥 1전 씩. 14냥 3전
합전(合錢) 78냥 1전 내

지출(支出)

28냥	원상납(元上納) 8명 매명 3냥 5전 씩.
12냥	인정잡비(人情雜費)
5냥	5전 타가(駄價)
4냥	해색 지필(該色紙筆)
4냥	도화랑(都花郎)
4냥	사령 홍화가(使令紅花價)
4냥	공인(工人) 등
재(在). 14냥 1전	회록(會錄)

•경내 제언 (堤堰) 28 고(庫)
천보 (川洑) 25 고(庫)
매년 순사도(巡使道) 봄, 가을 순도(巡到)때 고마다 세전(稅錢) 2냥 씩 보용(補用)함

☆ 예방(禮房)

•향교(鄕校) 교생 30명. 보노(保奴) 40명
•문선왕 석존제(文宣王 釋尊祭). 중춘, 중추 상정일(上丁日)에 지냄
•사직제(社稷祭). 중춘, 중추 상무일(上戊日)에 지냄
•여제(厲祭)[354]. 봄에는 청명일에 지내고 가을 제사는 예조(禮曹)를 기다려 지냄
•성황제(城隍祭). 춘추로 지내되 여제 3일 전에 지냄
•장락원에 납부할 악공(掌樂院納樂工). 원군(元軍) 32명. 8월 발령(發令)
•법성포진 조포(法聖浦鎭漕布). 96명. 8월 발령
•내의원에 납부할 진상 청죽보(內醫院納進上靑竹保). 155명. 매명 2냥 씩
•순영문에 납부할 진상보(巡營門納進上保). 112명 내
양정(良丁) 89명. 매명 2냥 씩
사천(私賤) 23명. 매명 1냥 씩
•진상 배지보(進上陪持保). 매명 1냥 씩

354) 여제 : 질병 예방을 빌기 위해 연고없는 혼백에게 지내던 제사

☆ 병방(兵房)

• 훈국에 납부할 포보(訓局納砲保). 242명. 8월 발령
• 사복시에 납부할 제원(司僕寺納諸員). 25명. 8월 발령
• 균역청에 납부할 선무(選武). 147명. 8월 발령
• 병조에 납부할 기병(兵曹納騎兵). 정월 당(當) 62명
2월 당 15명
5월 당 4명
8월 당 30명
10월 당 9명
합 121명. 다섯 번으로 나누어 상납함

•군첨소 서지 필묵(軍簽所書紙筆墨) 단당기배삭진묵(段當其排朔眞墨). 1정(丁)
황필(黃筆) 1병(柄). 장지(壯紙) 1속(束). 공방으로 하여금 병영에 보낸다.
•충익부에 8월에 납부할 충순위(忠翊府納八月當忠順衛). 7인
충익위(忠翊衛). 3인
병영으로부터 전기에 납부함
•군첨소 서필묵 장지(軍簽所書筆墨壯紙). 11속(束). 공방에서 올려 보냄
•순영에 납부할 제번군관(巡營納除番軍官). 15명
악안장포(樂安匠布). 15명
7월 발령. 8월 상납
•봉수(烽燧). 고(庫)
고가 있는 곳. 다경면(多慶面). 서쪽으로 30리 거리
해제면(海際面). 서쪽으로 60리 거리
별장(別將). 14인 군(軍). 150명. 대직(臺直). 2명
•세공(歲貢)할 말과 소. 영광(靈光)까지 민호 출정(民戶出定)
말 1마리 6전 7푼
소 1마리 5전 7푼
•사복시에 납부할 분양 말(司僕寺納分養馬) 2마리 기르는 값(외양가.畏養價) 67냥. 징수하여 각 창고에 두었다가 12월에 상납함
•매월 말일 풍변소 서장지(風變所書壯紙). 8장. 공방에서 올림

☆ 형방(刑房)

•살옥죄인(殺獄罪人) 치죄 월 3회 거행
•가송판 첩하[355]. 금송감관 수용함(枷松板帖下禁松監官用下)
•형곤목(刑棍木). 각 면 주인 처분(各面主人處分)
•소지 추관 전당 거행(所志推關專當擧行)

355) 첩하 : 이두문. 체하, 체급. 관아에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치를 때 체지와 함께 주는 일

•금부나장 정전(禁府羅將情錢). 2냥. 도장처 차하(都將處上下)[356]
•매월 장지(壯紙) 4장(張). 백지(白紙) 2속. 공방처 상하(工房處上下)

☆ 공방(工房)

•병조장 (兵曹匠) 223명
•금복직 (禁袱直) 30명
→ 8월에 발령하여 행회하래후(行會下來後) 상납

•사색보 (四色保)[357] 423명 전 (錢) 834냥
•지물보 (紙物保) 100명 전 164냥
→ 매월 배용(排用)

•승번전(僧番錢). 62냥. 나누어 징수하여 12월에 광주부(廣州府)에 상납함
•죽상자 죽재(竹箱子竹滓). 신광 갓점(新光笠店) 책용(責用)
•목피 지물 등 급본가 무용(木皮紙物等給本價貿用)
•철탄 급본가 도장무용(鐵炭給本價都將貿用)
•옹사기 단 양 옹점 책용 공고자(瓮沙器段兩瓮店責用工庫子). 갈동 방축(葛洞 方丑), 손불 우천(孫佛牛川)
•망건장(網巾匠) 20명 내
15명 도망하고 5명 남음
•초석 대중승 급본가 무용(草席大中繩給本價貿用)
•마철 삼부(馬鐵三部) 치장처(治匠處) 매월 책용
•송판 금송감관처 첩하 책용(松板禁松監官處帖下責用)
•진상 절선가 대동미(進上節扇價大同米) 10석. 고마리조(雇馬利條) 103냥
병저이수가 당봉(兵邸夷受價當封)
•간지(簡紙) 1속(束). 전(錢) 2냥 5전
•중장지(中壯紙) 1속. 전 1냥 5전
•차장지(次壯紙) 1속. 전 1냥 1전
•백지(白紙) 1속. 전 1전 8푼
•상지(常紙) 1속. 전 1전 5푼

•장지(장지) 16장
백지(백지) 7속
상지(常紙) 6속
→ 매월 말일 각 방에 배분함

•진류(眞梳. 얼레빗) 1개. 5푼
•우모(雨冒) 1사(事). 1전 5푼
•여외 죽목물 급본가 입하(餘外竹木物給本價入下)

356) 차하(上下) : 이두.관청에서 물건이나 돈을 지불함.
357) 사색보 : 군역(軍役)의 면제를 받기위해 바치던 무명베나 곡식

☆ 도서원(都書員)

•원결(元結). 5,754결(結) 84복(卜) 4속(束)
면세 전답변(免稅田畓弁) 220결 96복 4속 ┐ 5,975결 81복 3속

•재백지가(灾白紙價). 쌀 50석 내
25석 순영문(巡營門) 백지 80속 상납
25석 해색 차지 관가 백지(該色次知官家白紙) 40속. 서청 서지 수용(書廳書 紙需用). 본미(本米)는 가을 추수를 기다려 민간에서 받는다.

•규장각 둔세미(奎章閣屯稅米) 25석 6말 2되 5홉
둔감(屯監)이 와서 값이를 정한 후 순영에 상납한다.

☆ 결후색(結後色)

•실결(實結) 5,754결 84복 4속 내(內)
140결 11복 3속 각양경(各樣頃)
재(在) 5,614결 73복 1속
가입 전궁(加入錢宮) 155결
합계 5.769결 73복 1속, 매결(每結) 1말 6되 5홉 6작 씩 쌀 648석 7말 7되 6 홉 4작, 또 매결 1말 6되 4홉 5작 씩 쌀 632석 11말 2되 5작 9리(里)
합계 쌀 1,281석 3말 9되 6홉 9작 9리 내(內)

14석	5되	3홉.	매석 5냥 7전 씩 80냥. 겨울 3개월 땔감 값
42석	1말	5되 9홉.	매석 5냥 7전 씩. 240냥. 1월부터 9월까지 땔감 값
12석			첨가 땔감 값(添柴價). 11석 고초가(藁草價)
7석			탄가(炭價) 5석 황밀가(黃蜜價)
6석			청초가(靑草價) 7석 동거가(同炬價)
2석	7말	5되	형리청(刑吏廳) 15석 갈물가(葛物價)
16석	10말		향청(鄕廳) 2석 결역색(結役色)
20석			경주인(京主人) 28석 5되 병영주인(兵營主人)
18석			유리(由吏) 16석 작청(作廳)
1석			진상색(進上色) 2석 통인(通引)
3석	5말		추우가(推牛價) 1석 5말 선장(扇匠)
	5말		해창수리(海倉修理) 2석 우포가(牛舖價)
12석			부빙가(浮氷價) 10석 빙정가(氷丁價)
1석	3말		포진가(舖陳價) 20석 첨가(添價)
192석	3달		배용(排用) 20석 순영주인(巡營主人)

여(餘) 160석 10말 1되 5홉 4작 내
15석 진상. 새로 마련
15석 부민고 식리(付民庫殖利)

130석 10말 1되 5홉 4작. 관용(官用)

17석 8말 1되 6홉 대전(代錢) 100냥. 원자 탄생 별도 진상 순영 주인(元子誕生別進上巡營主人)

10석 7말 9되 대전 60냥 겨울 3개월 땔감 값

20석 복군부지 첨타 사령청(卜軍負持添駄使令廳)

25석 병영주인 역가(役價) 50석 순영주인 진상첨가(進上添價)

59석 순영주인 진상 청대죽 첨가(進上靑大竹添價)

20석 순영주인 유생 복시량(儒生覆試粮)

60석 경(京)주인 역가(役價). 내(內) 25석 계유 위창(癸酉爲娼)

30석 경주인 역가 복구(復舊)

266석 7말 5되 순영주인 역가 12석 5말 9되 수영(水營)주인 역가 54석 경(京)주인 역가

여(餘) 7석 11말 7되 4홉 5작 9리 해색(該色)

☆ 본대색(本大色)

쌀 8말 2되 5홉 숭어(秀魚)

1말 8되 7홉 5작 숭어알(秀魚卵)

3말 청(淸) 1되 7되 5홉

7되 5홉 대맥(大麥) 1되

1말 8되 7홉 5작 석란(石卵). 소금 1되.

3되 호도(胡桃) 1되

2되 1홉 4작 백포(白布) 1자

1말 2되 대상 일부(大箱一部)

6되 소상 일부(小箱一部)

1말 조소 일거리(條所一巨里)

4말 5되 건시 일접(乾柿一貼)

1되 1홉 2작 말린 대하(乾大鰕)

6되 생리 일고(生梨一固)

7석 5말 5되 생록 일구(生鹿일구)

1말 5되 연당정과(蓮棠正果) 1되

4말 5되 생꿩(生雉)

1말 1되 2홉 조기(石魚) 1속

소맥(小麥) 1되

2되 5홉 5작 건시(乾柿) 1관(串)

1말 햅쌀(新稻米) 1되

7되 5홉 측백씨(栢子) 1되

1되 5홉 다사 11조(多士十一條)

9되 중상일부(中箱一部)

5되 초석일립(草席一立)

1말 2되 3홉 세린석수어(細鱗石秀魚)

3말 5되 5홉 말린 꿩(乾雉)

1말 5되 은구어(銀口魚.은어)1속

1말 5되 오징어(烏賊魚)

8석 ~~1말 5되~~ 절선(節扇)

1석 말린 노루 일구(乾獐一口)

8석 10말 석존제 우포 백포 (釋尊祭牛脯白布)

봄, 가을

10석 황촉(黃燭)

2석 5말 성전 우루처 수리시 제물(聖殿雨漏處修理時祭物)

8석 6말 세선 호송 양미(稅船護送粮米)

7석 5말 무과 동당 잡물 동당 시행(~~武科東~~堂雜物東堂施行)

20석 1말 속오군 호궤(束伍軍犒饋)

5말 6되 장관 2일 양(將官二日粮)

육조(陸操) 때

☆ 전(錢)

1냥 진상부지(進上負持) 1명 전주(全州)까지

1냥 절서부지(節扇負持) 병영(兵營)까지

5전 영광(靈光)까지

20냥 동지 사술청(冬至使朮請)

6냥 부지군(負持軍) 서울까지

4전 기마참(騎馬站)

2전 5푼 부지 일참(負持一站)

5전 복망 일참(卜馬一站)

☆ 사창색(司倉色)

각 아문미(各衙門米) 4,418석 11말 4되 2홉 8작 4리

콩(太) 1,227석 10말 8되 8홉 3작 1리

피모(皮牟) 3,579석 6말 1되 5홉 7작 8리

진맥(眞麥) 1,413석 3말 4되 9홉 2작 7리

조(租) 16,300석 6말 9되 1홉

각 면 병정 별칭미(各面丙丁別稱米) 3,275석 내(內)

1,637석 7말 5되 절반 분급(折半分給)

1,637석 7말 5되 반유(半留)

☆ 금위색(禁衛色)

•상번군(上番軍) 17명 자보(資保) 17명

•금위영 납부 별파진보(禁衛營納別破陣保) 1명

☆ 능노색(能櫓色)

•전선 능로군(戰船能櫓軍) 224명

☆ 속오색(束伍色)

•속오군 511명. 마병(馬兵) 82명

☆ 어영색(御營色)

•어영청 납부 군보(御營廳納軍保) 208명

경안군보(京案軍保) 60명

•동납 상번군(同納上番軍) 101명 자보(資保) 108명

•병영 납부 삼색보(兵營納三色保) 80명 신선보(新選保) 19명

☆ 전선색(戰船色)

•병선(兵船) 1척(隻)

사후선(俟候船) 1척

•전(錢) 60냥　　고마철 중 봄, 가을 굴토가(雇馬鐵中春秋掘土價)

미(米) 15석　　대소 갈물 무용(大小葛物貿用)

7석 7말 5되　초둔 무용(草芚貿用)

☆ 군기색(軍器色)

•진상 화살대 값(箭竹價) 민호에서 추렴하여 병영에 바친다.

•전(錢) 60냥 각 아문(衙門) 년말 인정 육조(人情陸操)로 보태 씀

•훈련도감 납부 군향미보(訓練都監納군餉米保)　69명

작미보(作米保)　303명

☆ 주사보(舟師保)

•주사군　1,449명 내(內)

577명 수영(水營)　559명 다경진(多慶鎭)

202명 임치진(臨淄鎭)　24명 이진(梨津)

50명 검모포(黔毛浦)　15명 여도(呂島)

2명 격포(格浦)　20명 신지도(薪智島)

☆ 관청색(官廳色)

•수미(需米)　270명 내

260명 관수(官需) 10석 사객 접대 (使客支供)

•기타 신물 수가 수용 하기(其他新物需價需用下記)

•마태 관둔곡 수용(馬太以官屯穀需用) 부족하면 화노태(還牟太)에서 씀

•직임 수임급 본가 도장처무용(直荏水荏給本價都將處貿用)

•황육측 관하전 40냥 주인전 50냥 획하에 고자 일 3근 씩 무하기 납상이 차 외용 매근 8냥 씩 하기 본전 40냥 3월 환납 (黃肉4[358]則官下錢四十兩主人錢五 十兩劃下庫子日肉三斤式無下記納而此外用每斤八兩式下記本錢四十兩三月還納)

☆ 객사색(客舍色)

•황촉가 미(黃燭價米) 5석 전(전) 30냥

•별성지대 포진수 본가 비용(別星支待舖陳受本價備用)

동서도장(東西都將)

•매월　2, 7일 읍전시전(每月二七日邑前市錢) 6전

3, 8일 선치시전(每月三八日蟬峙市錢) 8전

4, 9일 나산시전(每月四九日羅山市錢) 1냥 2전

1, 6일 망운시전(每月一六일望雲市錢) 2냥

•각 물종 무역 수 첨하급[359] 본가 차하[360](各物種貿易수 帖下給本價上下)

358) 황육 : 쇠고기

359) 첩하급 : 이두. 체하. 체급(帖給). 관아에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체지(영수증)와 함께 주는 일

360) 차하(上下) : 이두. 츠하. 관아에서 물건이나 돈을 지급함

☆ 호적색(戶籍色)

•계유(癸酉) 원호(元戶) 1,850호

남녀 합 15,036명 내

남 6,715명

여 8,321명 부의(賻儀)

•호적 만들 때 종이 값(紙物價) 전 500냥 5전. 원호에서 마련하여 씀

☆ 고마색(雇馬色)[361]

•원호(원호) 1,850호 내

203호 각양경제(各樣頃除)

405호 반(半) 고매호(雇每戶) 4전 8푼

120호 반 고매호 6전 4푼

1,122호 원고매호(元雇每戶) 7전 3푼

합전(合錢) 1,082냥 1전 6푼 내

911냥 2전 8푼 원고전(元雇錢)

20냥 채복(菜濮)

40냥 병, 이조 서리(~~書吏~~) 및 금부 나장에게 줌

36냥 3명의 정배 죄인 ~~6개~~월 요(料)

20냥 수 영(水營) ——

11냥 7전 8푼 전주부(全州府) ——

11냥 7전 8푼 병 영(兵營) ——

3냥 강 진(康津) ——

7냥 5전 청교 조 등(淸橋趙等) ——

7냥 5전 차동 홍 등(車洞洪等) ——

7냥 5전 필동 홍 등(筆洞洪等)

7냥 5전 윤동 이 등(輪洞李等)

화포(火砲) 및 별과 시장전(別科試場錢)

부족 1냥 6전 8푼

•원결(元結) 5,965결 9속(束) 내 추 등(秋等)

595결 56부(負) 각양경제(各樣頃除)

재(在) 5,369결 45부 매결 2전 3푼 씩

전(錢) 1,234냥 2전 내

911냥 2전 8푼 원고전(元雇錢)

10냥 장비(醬婢)

8냥 각전 타가(閣錢駄價)

34냥 병, 이조 서리 및 나장에게 줌

12냥 정배죄인(定配罪人) 1명 6개월 요(料)

361) 고마 : 시골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쓰던말

11냥 4전 6푼 전주부(全州府) ┐
11냥 4전 6푼 병 영(兵營) ├
3냥 마 병(馬兵) ├ 시장전(試場錢)
20냥 수 영(水營) ├
3냥 강진현 화포(火砲) ┘
100냥 병저리인 순영문 제급(兵邸吏因巡營門題給)
100냥 사령 등인 향중공의 급부지타(使令等因鄕中公 議給負持駄)
10냥 금부벌례전인 순영문제급(禁府罰例錢因巡營門 題給) 가(加) 7전 1푼

•춘추 합 원고전(春秋合元雇錢) 1,822냥 5전 6푼 내
12냥 진전 수리가(眞殿修理價) 16냥 진상 첨첨가(進上添添價)
48냥 4절일 제타(四節日祭駄) 30냥 총영 전죽타(銃營箭竹駄)
7냥 총영 정 공장타(銃營呈公狀駄) 30냥 육군기(陸軍器)
60냥 봄, 가을 연동 연동 굴토가(春秋烟洞掘土價)
200냥 새어가(生魚價) 30냥 화촉가(黃燭價)
17냥 5전총 연환(鉛丸) 받아오는 짐 값 14냥 향교(鄕校)
30냥 향청(鄕廳) 10냥 작청(作廳)
5냥 연분 쇄마비(年分刷馬費) 110냥 경주인(京主人)
30냥 병영주인 10냥 수영주인
8냥 우영(右營)주인 20냥 고마직(雇馬直)
18냥 수조시 증미식가(水操時蒸米食價)
1000냥 경영관부보장 담당 진정(京營關簿報狀擔當進呈)
20냥 채복(菜潊) 12냥 금부 나장
28냥 병리 서리(兵吏書吏)

•전 등 관하전(全等官下錢) 500냥 내
200냥 기복마(騎卜馬) 3마리를 매년 사들임
300냥 환년 식리전(還年殖利錢) 150냥 보용 본청(補用本廳)

•관우전(官牛錢) 444냥 환년 식리전 222냥 내
47냥 전죽가(箭竹價) 첨가 보충비로 병조에 보냄
47냥 순영저역 첨가(巡營邸役添價)
17냥 병영저역 첨가(兵營邸役添價)
111냥 진상 절선설방전(節扇褉防錢)

•신연[362]타가(新延駄價) 410냥 내
60냥 초중정 내왕소입(初中程來往所入)
350냥 신연 쇄마가[363](新延刷馬價)

362) 신연 : 감영이나 지방 관아의 장교나 이속들이 새로 도임하는 감사나 수령을 그 집에 가서 맞아 오는 일

☆ 향청(鄕廳)

•삼향소료 미(三鄕所料米) 매달 1석 3말 씩 수미중 차하(需米中上下)
결역미(結役米) 16석 10말 결역색(結役色)
전(錢) 30냥 고마색(雇馬色)

☆ 해창색(海倉色)

•전세미(田稅米) 2,887석 10말 2되 2홉 1작 9리
•대동미(大同米) 5,198석 8말 7되 8홉 5작
•전세 콩(太) 988석 3말 9되 4작 2리

갑술 12삭월 당록(甲戌十二朔月當錄)

2. 1930년 속수함평지 게재 함평군의 재정 사례

1) 부세(賦稅)

○국세 총액(國稅總額)	117,036원(圓)		
지세(地稅)	92,275원	소득세(所得稅)	2.269원
주세(酒稅)	21,159원	영업세(營業稅)	980원
연초경작세(煙草耕作稅)	153원		

2) 균세(均稅)

○지방세 총액(地方稅總額)	78,823원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55,254원	호세(戶稅)	16,715원
도장(屠場) 및 도축세	1,417원	차량세(車輛稅)	1,404원
취득세(取得稅)	3,533원	기타	500원
○학교비 총액	56,737원		
재산 수입(財産收入)	1,518원	사용료 및 수수료	13,088원
부과금(賦課金)	10,881원	기타	31,350원
○학교조합비(學校組合費) 총액	16,332원		
재산수입	492원	사용료 및 수수료	797원
부과금	4,380원	기타	10,663원
○군농회비(郡農會費) 총액	63,442원		
재산수입	32원	사용료 및 수수료	6,040원
부과금	8,483원	기타	48,887원
○면 경비(面經費) 총액	88,931원		
재산수입	2,077원	사용료 및 수수료	2,493원
부과금	67,332원	기타	17,029원

363) 쇄마가 : 지방에 배치한 관용의 말을 부리는 값

○ 향교비(鄕校費) 총액		2,905원		
재산수입		1,350원	기타	1,555원
○ 산림조합비(山林組合費) 총액		8,980원		
부과		6,460원	사용료 및 수수료	1,530원
기타		990원		
○ 축산조합비(畜産組合費) 총액		11,106원		
재산수입		694원	사용료 및 수수료	6,760원
부과금		950원	기타	2,702원
○ 어업세(漁業稅)		10원		
○ 어선세(漁船稅)		10원		
참 고 : 당시 호수	14,157호			
	한국인	13,889호		
	일본인	260호		
	기 타	8호		
당시 인구		77,464명		
	한국인	76,362명		
	일본인	1,082명		
	기 타	20명		

제2절 함평군의 연별 세입 세출(歲入歲出) 결산액과 일반 회계 연도별 과목별 내역 및 재정 자립도

1. 연간 세입 세출 결산액

함평군 통계연보에 의해 1961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액을 한데 묶어 보면 <표 1>과 같다.

1961년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58,970,000원이었고, 2007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54,042,486,000원으로 47년 동안에 4323.26배가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은 1961년에 43,480,000원이었고, 2007년에는 185,244,495,000원으로 47년 동안에 4260.45배가 늘어났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이 백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1986년부터며 1996년에 이르러 세입액은 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세입액이 이천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5년이며, 2007년에 이르러서는 이천육백억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세입 세출 결산액은 전라남도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는 이농현

상이 극심하여 인구가 다른 군에 비하여 적고 대단위 산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출의 전년 대비 상황을 보면 47년 동안에 가장 많은 비율로 증가한 해는 1967년의 129.5%, 1969년의 79.9%, 1989년의 73.0%, 1974년의 69.8%이며, 전년보다 감소한 해는 1962년(−35.5%), 2000년(−11.4%), 1970년(−28.2%), 1999년(−1.1%), 1982년(−0.4%)이다.

<표 1> 세입 세출 총괄 신장 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세입			세출			세출 전년대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61	58,970	58,970	−	43,480	43,480	−	−
1962	28,501	28,501	−	28,501	28,501	−	△34.5
1963	39,795	39,795	−	36,774	36,774	−	29.0
1964	51,460	51,460	−	49,705	49,705	−	35.2
1965	58,396	58,396	−	54,695	54,695	−	10.0
1967	126,112	115,673	10,439	125,529	115,824	9,705	
1968	207,173	193,371	13,802	207,414	194,123	13,291	65.2
1969	374,845	358,214	16,631	373,105	359,336	13,770	79.9
1970	277,244	256,237	21,007	268,172	256,614	11,558	△28.2
1971	412,138	370,512	41,626	396,420	369,506	26,914	43.9
1972	463,544	423,644	39,900	454,194	416,337	37,857	14.6
1973	513,921	486,555	27,366	499,267	475,696	23,571	9.9
1974	864,622	786,020	78,602	847,761	770,795	76,966	69.8
1975	1,070,844	971,553	99,291	1,011,342	920,165	91,177	19.3
1976	1,408,255	1,254,502	153,753	1,264,533	1,139,472	125,061	25.0
1977	2,107,754	1,752,493	231,908	1,983,510	1,752,493	231,008	56.9
1978	2,367,804	2,083,841	204,396	2,288,237	2,083,841	204,396	15.4
1979	2,954,433	2,489,338	226,796	2,716,134	2,489,338	226,796	18.7
1980	3,973,132	3,483,898	363,886	3,847,784	3,483,898	363,886	41.7
1981	5,910,554	4,747,691	962,246	5,646,922	4,823,623	823,369	46.8
1982	5,826,340	5,136,658	689,683	5,624,504	4,995,718	628,786	△0.4
1983	6,833,936	5,448,988	1,384,948	6,520,482	5,227,498	1,292,984	15.9
1984	8,258,652	6,810,227	1,448,425	7,905,351	6,473,841	1,431,510	21.2
1985	9,705,739	8,905,545	800,194	8,962,137	8187,424	774.713	13.4
1986	11,037,158	9,790,823	1,246,335	10,490,515	9,264,494	1,226,021	17.1
1987	12,648,162	11,756,412	891,750	12,167,135	11,298,287	868,848	16.0
1988	16,842,946	15,662,337	1,180,609	14,907,319	13,841,175	1,066,144	10.4
1989	29,853,848	26,615,560	3,238,288	25,787,833	22,991,136	2,796,697	73.0
1990	34,574,700	30,501,621	4,073,079	29,733,591	26,398,660	3,334,931	15.3
1991	41,490,537	35,450,108	6,040,429	35,339,813	30,096,421	5,243,392	18.9
1992	47,606,705	37,537,262	10,069,443	40,907,339	34,006,641	6,900,698	15.8

구분 / 연도	세입			세출			세출 전년대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93	53,942,730	41,684,931	12,257,799	43,092,562	34,937,088	8,155,474	5.3
1994	62,838,404	56,659,595	6,168,809	51,741,695	46,637,851	5,103,844	20.1
1995	75,664,217	70,706,217	4,958,131	54,646,874	50,476,178	4,170,696	5.6
1996	100,962,998	93,783,974	7,179,024	63,790,791	60,562,702	3,228,089	16.7
1997	128,105,383	115,730,611	12,374,772	81,240,961	75,516,319	5,724,642	27.4
1998	152,913,755	135,167,682	17,746,073	103,513,355	95,982,562	7,530,793	27.4
1999	146,771,468	128,430,452	18,341,016	102,373,017	95,217,822	7,155,195	△1.1
2000	160,120,984	141,003,425	19,117,559	90,682,973	82,988,419	7,694,554	△11.4
2001	182,532,368	159,998,223	22,534,145	125,130,112	108,942,538	16,187,574	38.0
2002	179,591,181	168,620,448	10,970,733	129,317,267	121,196,360	8,120,907	3.3
2003	191,936,289	185,391,271	6,545,018	133,159,805	129,194,980	3,964,825	3.0
2004	189,477,281	184,974,621	4,502,660	143,735,741	140,496,430	3,239,311	7.9
2005	205,200,539	199,973,555	5,226,984	149,304,429	145,552,902	3,751,527	3.9
2006	241,119,388	235,558,190	5,561,198	182,946,872	179,233,463	3,713,409	22.5
2007	260,284,863	254,042,486	6,242,377	189,044,013	185,244,495	3,799,518	3.3

2. 일반회계 연도별 과목별 세입, 세출 내역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지방잉여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정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이월금, 과년도수입, 부담금, 융자회수금 등을 말한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의회비포함),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산업경제비 포함),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문화체육비 포함)이다

.

<표 2-1>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세출 연도별 내역표

단위 : 천원 구성비

연도별 / 구 분	1965			1968			1971			1974			1978			1982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일반회계	세입	계	58,396	100	192,471	100	370,512	100	786,020	100	2,163,408	100	5,136,657	100
		지 방 비	32,056	54.9	13,212	6.7	33,238	9.0	83,607	10.6	336,519	15.6	946,802	18.4
		세 외 수입	4,440	7.6	7,348	3.8	15,600	6.9	33,339	4.3	218,317	9.0	359,742	7.1
		지방교부세	7,895	13.5	75,402	39.2	184,800	47.2	422,074	53.7	850,000	39.3	2,385,000	46.4
		보 조 금	14,005	24.0	96,509	50.3	136,874	36.9	247,000	31.4	733,744	33.9	1,445,114	28.1
	세출	계	54,695	100	173,778	100	369,506	100	769,661	100	2,083,841	100	4,995,718	100
		일반행정비	27,505	50.3	57,930	33.5	141,697	38.3	228,405	29.7	833,021	40.0	2,444,455	48.9
		공익사업비	11,722	21.4	11,182	6.4	56,281	15.2	118,334	15.4	522,326	25.1	832,522	16.7
		산업경제비	8,895	16.3	35,950	20.7	124,694	33.6	233,524	30.3	485,129	23.3	1,025,932	20.5
		사회복지비	5,892	10.8	65,710	37.7	3,2,121	8.7	125,370	16.3	170,485	8.2	682,782	20.5
		지 원 제 비	645	1.2	3,004	1.7	14,713	4.2	64,026	8.3	61,603	3.0	–	–
		민 방 위 비									11,277	0.4	10,027	0.2

<표 2-2>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세출 연도별 내역표

단위 : 천원 구성비(%)

구분 \ 연도별			1985		1987		1989		1991		1993		1996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일반회계	세입	계	8,905,544	100	11,756,412	100	26,615,560	100	35,450,108	100	41,685,000	100	93,784,000	100
		지 방 세	709,345	7.9	798,805	6.9	1,900,068	7.1	2,337,579	6.6	2,797,000	6.7	5,859,000	6.2
		세외수입	1,019,969	11.5	1,182,545	10.0	3,247,518	12.3	6,211,036	18.0	4,540,000	10.9	23,378,000	24.92
		지방교부세	4,181,000	46.9	5,314,839	45.2	7,779,000	29.2	14,937,000	41.0	19,156,000	46.0	26,404,000	28.2
		보 조 금	3,094,789	34.7	4,460,223	37.9	13,688,974	51.4	9,405,133	27.0	15,192,000	36.4	22,081,000	23.5
		지방양여금			2,016		–		2,559,360	7.4	–		6,210,000	6.7
		지 방 채											9,852,000	10.5
	세출	계	8,187,424	100	11,298,287	100	22,991,135	100	30,096,421	100	34,937,000	100	60,563,000	100
		일반행정비	3,532,824	45.0	3,505,947	31.0	4,929,686	21.5	8,586,266	28.5	8,825,000	25.3	18,581,000	30.7
		경제개발비	1,262,226	15.0	2,407,941	21.3	4,670,678	20.3	8,337,636	27.7	5,905,000	16.9	24,971,000	41.2
		산업경제비	2,160,808	21.0	3,223,499	28.6	8,614,705	37.5	7,065,375	23.5	13,418,000	38.4		
		사회개발비	1,192,452	15.0	1,919,970	17.0	3,733,177	16.2	4,665,715	15.5	5,429,000	15.5	16,279,000	26.9
		지원제비	9,100	3.5	58,059	0.5	900,938	3.4	439,373	1.4	417,000	1.2	569,000	0.9
		민방위비	30,014	0.5	182,871	1.6	269,994	1.1	359,200	1.2	187,000	0.5	163,000	0.3
		의 회 비					–	–	289,878	1.0	301,000	0.8		30.7
		문화체육비					284,887	1.1	361,978	1.2	455,000	1.3		

<표 2-3>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세출 연도별 내역표

단위 : 천원 구성비(%)

구분 \ 연도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금 액	비
일반회계	세입	계	135,168,000	100	121,885,000	100	168,620,000	100	184,975,100	100	235,557,000	100	254,042,000	100
		지 방 세	6,775,000	5.0	6,229,000	5.1	7,919,000	4.7	6,377,000	3.4	7,452,000	3.2	8,272,000	3.2
		세외수입	48,763,000	36.1	38,798,000	31.8	55,794,000	33.1	61,934,000	33.5	62,417,000	26.5	63,693,000	25.1
		지방교부세	29,644,000	21.9	32,586,000	26.8	52,097,000	30.9	65,207,000	35.3	96,065,000	40.8	104,649,000	41.2
		보 조 금	35,548,000	26.3	31,256,000	25.6	38,604,000	22.9	36,850,000	19.9	68,673,000	29.1	72,729,000	28.6
		지방양여금	6,938,000	5.1	11,518,000	9.5	13,052,000	7.7	13,382,000	7.2	–		–	
		지 방 채	7,500,000	5.6	500,000	0.4	–		–		–		3,000,000	1.2
		조정교부금	–		998,000	0.8	1,154,000	0.7	1,225,000	0.7	950,000	0.4	1,699,000	0.7
	세출	계	95,983,000	100	82,988,000	100	121,196,000	100	140,496,000	100	179,233,000	100	185,244,000	100
		일반행정비	22,807,000	23.8	21,090,000	25.4	27,372,000	22.6	34,922,000	24.9	36,677,000	20.5	46,397,000	25.0
		경제개발비	40,338,000	42.0	28,444,000	34.3	46,882,000	38.7	50,002,000	35.6	54,540,000	30.4	59,857,000	32.3
		산업경제비	–		–		–		–		–		–	
		사회개발비	28,578,000	29.8	29,226,000	35.2	43,822,000	36.2	51,474,000	36.6	80,525,000	44.9	73,953,000	39.9
		지원제비	3,993,000	4.1	4,091,000	4.9	2,963,000	2.4	3,847,000	2.7	4,417,000	2.5	4,931,000	2.7
		민방위비	267,000	0.3	137,000	0.2	157,000	0.1	251,000	0.2	3,074,000	1.7	106,000	0.1
		의 회 비	–		–		–		–		–		–	
		문화체육비	–		–		–		–		–		–	

3. 함평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1) 특별회계의 의의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출로써 일반 세출, 세입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는 임시적 회계를 말한다.

2) 특별회계의 종류

(1)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은 사업별 경영 성과나 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 지하철사업, 병원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2)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1996년 현재 97개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3)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둘째,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셋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때 등이다.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설치는 특별회계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특별한 분류체계가 없는 특별회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 지방 공기업의 대상이기는 하나 적용범위가 미달하는 경우. * ○○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② 관리특별회계 : 공유림관리나 공단관리, 사적관리 등 특정한 시설물이나 물품의 관리를 위한 경우. * ○○관리특별회계

③ 임시특별회계 : 재난이나 일시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임시특별회계

1967년 이후 함평군의 특별회계 예산과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회계별	회계수	예 산	세 입	세 출
1 9 6 7			10,439	9,705
1 9 7 7			231,908	231,008
1 9 8 7			891,750	868,848
1 9 8 8	6	1,210,060	1,180,609	1,066,145
1 9 8 9	7	3,568,276	3.238,289	2,796,697
1 9 9 0	8	4,630,404	4,073,079	3,334,931
1 9 9 1	8	6,420,704	6,040,429	5,243,393
1 9 9 2	9	10,732,062	10,069,443	6,900,699
1 9 9 3	9	14,132,277	12,257,800	8,155,475
1 9 9 4	6	6,259,090	6,168,809	5,103,844
1 9 9 5	6	5,085,048	4,958,131	4,170,696
1 9 9 6	6	7,344,977	7,179,024	3,228,089
1 9 9 7	7	14,322,646	12,374,772	5,724,642
1 9 9 8	7	22,724,399	17,746,073	7,530,793
1 9 9 9	7	17,869,892	18,341,016	7,155,195
2 0 0 0	7	19,526,545	19,117,558	7,694,554
2 0 0 1	7	22,447,249	22,534,145	16,187,574
2 0 0 2	7	11,323,925	10,970,733	8,120,906
2 0 0 3	7	6,545,018	5,808,758	3,964,825
2 0 0 4	7	4,419,253	4,502,660	3,239,311
2 0 0 5	8	5,445,674	5,226,984	3,751,527
2 0 0 6	10	5,628,664	5,562,065	3,713,409
2 0 0 7	10	5,830,154	6,242,377	3,799,518
상 수 도	1	2,403,752	2,307,670	2,153,474
주 민 소 득 지 원	1	837,862	1,177,843	564,259
의 료 보 호	1	730,752	732,155	700,677
주 택	1	75,568	67,073	19,072
경 영 수 익	1	668,887	670,589	283,816
농 공 단 지	1	317,570	527,692	51,048
농 어 촌 기 반	1	138,275	138,418	12,85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	469,571	473,932	14,315
담 수 어 양 식	1	863	876	-
기 반 시 설 사 업	1	187,054	146,129	-

4. 함평군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는 세입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합산되어 있어 정확한 재정 자립도의 산출은 어렵다.

함평군의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2-1, 2>에서 보듯이 1985년 이후 8%에서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2007년 이월금을 제외한 군 재정 자립도는 10.2%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2-2>에서 보면 함평군의 수입 결산액(이월금 포함액)에 따른 자립도는 1968년 10.5%, 1978년 24%, 1987년 16.9%, 1996년 31.1%, 2007년 28.4%로 평균 27.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자립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실제로 이월금이 많은 해에 자립도가 크게 올라선 것을 볼 수 있다.

함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남 시군 중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제3절 세제(稅制)와 국세, 지방세 징수액

광복 이후의 세제 개편을 주요한 것만 골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정 및 과도정부시대의 세제

국세(國稅) : 1946년 종래의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특별행위세, 골패세(骨牌稅) 등에 있어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었다.

사당소비세(砂糖消費稅), 특별입장세, 광고세, 건축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임시이득세, 특별법인세를 폐지했다.

임대차 가격은 10배로 올리고, 그리고 등록세와 인지세도 세율을 올렸다.

1947년상속세와 소득세의 면세 및 공제 한도금액을 올려잡은 동시에 세율을 인하했으며 주세와 청량음료세를 합해 음료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올렸으며 물품세(석유류 제품)를 신설했다.

지방세 :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다.

2. 건국 후의 세제

건국초인 1949. 12. 22 지방세법을 공포했다.

이 세법의 골자는 인세(人稅)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세(物稅) 계통에 중과하여 주민의 부담에 균형을 기하며 세목(稅目)의 개폐는 국세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면 보류하고 종래의 특별세를 독립세와 목적세로 구분 부과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대한 재종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등 민주화를 도모했다.

1966년 12월 12일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폐　지 : 호별세

신　설 : 특별세부가세(特別稅附加稅), 법인세부가세

조　정 : 국세 중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鑛區稅), 마권세(馬券稅)를 지방세로, 지방세 중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를 국세로 바꾸었다.

1973년 : 주민세 신설 및 전면적인 세제 개편

1974년 :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고 영세민 부담을 가볍게 하는 조처를 내림

1976년 : 지방세와 국세간의 세목 조정, 세목 신설 등 광범위한 개혁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공한지(空閑地)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방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에 편승한 세법이 공포되었고 전화세의 폐지, 그리고 농지세율을 낮추고 담배세를 지방세로 하는 등 몇가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목은 아래와 같다.

1) 국　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2) 지방세

보통세 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도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군세 :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3. 국세 징수 상황

1961년부터 2007년까지 함평군의 국세 징수 상황을 <표 4>와 같이 묶어 보았다.

1961년의 국세 징수액은 직접세 간접세를 합하여 476,000원 이었고 10년 후인 1971년에는 52,916,000원으로 1961년에 비해 111.16배가 되었고 1981년에는 475,782,000원으로 999.54배, 그리고 1991년에는 2,366,730,000원으로 4,972.12배, 2001년에는 58,390,000,000원으로 122,668.07배, 2007년에는 193,950,000,000원으로 46년간에 407,457.98배로 늘었다.

1991년에 비해서도 16년간 사이에 81.95배가 늘었음을 볼 수 있어 세액의 차이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신설한 방위세가 세원 조정

에 의해 크게 감소하였고, 1982년에 신설한 교육세와 증권세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 국세 징수 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직접세							간접세						과년도수입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평가세	부당이익세	토초세	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세	인지세				
1961	307	-	-	-	-	-	-	169	-	-	-	-	-		-	-	-
1962	251	-	-	-	-	-	-	141	-	-	-	-	-		-	-	-
1971	48,483	46,008	1,904	99	-	-	-	4,433	-	-	4,433	-	-		-	292	-
1972	60,802	58,284	2,394	124	-	-	-	5,575	-	-	5,575	-	-		-	367	-
1981	282,341	264,895	16,178	1,268	-	-	-	193,441	156,234	6,771	30,436	-	-		50,361	2,313	-
1982	320,042	287,945	27,967	4,130	-	-	-	264,741	214,137	20,056	30,588	-	-		61,662	4,483	1,676
1983	360,057	327,191	30,411	2,905	-	-	-	268,427	234,510	8,200	25,527	-	-	190	64,559	1,275	11,571
1984	347,544	326,068	15,009	6,467	-	-	-	409,355	371,070	15,622	22,371	62	-	190	-	-	-
1985	502,270	483,511	12,831	5,928	-	-	-	364,923	338,277	4,372	22,274	-	-		88,757	3,017	15,175
1986	139,561	83,977	25,721	29,863	-	-	-	376,111	348,400	2,881	24,720	110	-	50	877	-	-
1987	151,309	95,174	54,511	1,624	-	-	-	89,145	47,534	17,000	24,601	10	-		17,067	-	6,919
1988	204,038	137,596	63,426	3,016	-	-	-	459,355	429,636	5,117	24382	220	-		20,587	-	7,521
1989	225,127	161,387	60,813	2,927	-	-	-	259,159	235,644	398	23,117	-	-		37952	-	6,927
1990	750,809	599,844	77,230	-	73,735	-	-	746790	724,068	-	22,722	-	-		203,973	11,509	47,890
1991	1,273,946	894,966	284,835	-	115,736	8,411	-	1,092,784	1,067,877	-	24,907	-	-		261,384	17,154	75,879
1992	1,467,459	1,031,010	293,472	-	133,287	9,690	-	1,258,840	1,230,138	-	28,702	-	-		301,095	19,760	87,407
1993	2,654,000	2,191,000	363,000	41,000	-	-	59,000	1,797,000	1,783,000	59,000	13,000	-	-		3,000	-	14,000
1994	3,410,000	2,929,000	372,000	109,000	-	-	-	1680,000	1,609,000	-	13,000	-	2,000		3,000	58,000	14,000
1995	4,296,000	3,736,000	429,000	131,000	-	-	-	2,370,000	2,441,000	-	13,000				1,000	58,000	15,000
1996	3,526,538	2,706,229	610,409	209,900				2389665	2,197,771	1,273	16,137	2,005	77,795	1,891	1,604	69,672	21,507
1997	3,541,000	2,761,000	736,000	44,000	-	-	-	2,566,000	2,509,000	3,000	49,000	-	5,000	66,000	-	38,000	23,000
1998	24,566,000	17,117,000	7,116,000	288,000	43,000	-	2,000	15,029,000	14,767,000	25,000	199,000	21,000	17,000	1,215,000	-	256,000	181,000
1999	24,054,000	15,402,000	8,412,000	196,000	44,000	-	-	20,851,000	20,445,000	31,000	274,000	90,000	11,000	1,843,000	-	300,000	214,000
2000	25,049,000	17,823,000	6,276,000	469,000	481,000	-	-	19,284,000	18,917,000	53,000	240,000	67,000	7,000	1,919,000	-	212,000	302,000
2001	29,620,000	21,930,000	7,305,000	292,000	93,000	-	-	28,770,000	28,474,000	60,000	124,000	108,000	4,000	2,056,000	-	199,000	243,000
2002	35,076,000	23,350,000	11,179,000	547,000	-	-	-	27,254,000	27,004,000	31,000	130,000	77,000	12,000	3,214,000	-	293,000	312,000
2003	28,815,000	18,341,000	10,127,000	347,000	-	-	-	30,802,000	30,203,000	340,000	169,000	77,000	13,000	2,552,000	-	239,000	343,000
2004	38,735,000	22,996,000	15,087,000	652,000	-	-	-	36,400,000	35,070,000	978,000	276,000	75,000	1,000	2,520,000	-	458,000	511,000
2005	45,393,000	24,425,000	19,380,000	1,588,000	-	-	-	36,043,000	33,742,000	1,854,000	335,000	110,000	2,000	3,213,000	2,390,000	112,000	648,000
2006	57,805,000	32,221,000	25,015,000	569,000	-	-	-	47,438,000	45,060,000	1,854,000	405,000	119,000	-	4,185,000	-	1,366,0000	612,000

2007	123,661,000	49,127,000	73,653,000	881,000	-	-	-	70,289,000	66,372,000	3,158,000	380,000	330,000	49,000	3,142,000		2,080,000	998,000

4. 함평군의 지방세 연별 징수 상황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세 신장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간의 함평군 통계연보에 나타난 세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1982년 당시의 세목에 따라 정리하고(표 5-1), 그 이후의 것은 1996년의 세목에 따라 조정 합산(표 5-2)을 하였으나 이 중에 약간이라도 잘못된 곳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하여 1962년부터 함평군의 지방세 추이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에 17,912,00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20년 후인 1982년에 946,824,000원으로 1962년에 비해 52.86배가 되었고 35년 후인 1996년에는 8,157,791,000원으로 455.44배, 46년 후인 2007년에는 13,254,302원으로 739.97배가 되었다.

1982년에 비해서도 14.00배가 되었다.

이처럼 조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그간 화폐 가치의 변동, 생활의 윤택에 따른다.

그러나 다른 군과 비교해서는 부담액이 낮다.

그것은 앞서 국세징수 상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대규모의 산업체가 없고 인구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전년에 비해 지방세 증가 비율이 크게 높았던 해는 1969년의 101.9 %, 1988년의 71.64%, 2001년의 49.00% 증가였다.

지방세에서 주목되는 것이 담배소비세다.

1985년부터 농지세율을 낮추고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정한 이후 담배소비세는 함평군 지방세의 평균 38.85%를 기록하고 있고 1989년에는 61.21%, 1990년에는 57.86%, 1988년에는 52.80%를 차지하여 담배세에 의존하는 지방세 징수 실적이 되었다.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정한 후 담배 값의 인상, 그리고 "내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등에 힘입어 1985년에 331,668,000원이었던 담배소비세액은 1996년에 3,088,191,000원으로 9.31배가 신장하였고, 2001년 4,318,086,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농지세는 최고부담액이었던 1984년의 570,106,000원에서 1996년에는 312,000원으로 1827.26배의 감소를 보이다가 1999년의 3,830,000원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고 도시계획세는 감세되었다.

지방세 세목별로는 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고, 2000년에 신설된 주행세는 144,370,000원에서 2007년에는 1,432,349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다.

<표 5-1> 지방세 징수 상황

구분 / 연도	계 (천원)	도 세 (천원)	군 세 (천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 세 부 담		가 구 수 (호)	인 구 수 (명)
					가구당(원)	1인당(원)		
1962	17,912	1,171	16,741	–	808	130	22,176	131,991
1963	22,082	1,393	20,689	23.3	974	163	22,667	135,855
1964	28,399	1,688	26,711	28.8	1,251	204	22,709	139,547
1965	37,333	4,838	32,495	31.5	1,643	263	22,716	141,845
1966	40,776	4,296	36,480	9.2	1,745	294	23,363	138,818
1967	17,496	3,082	14,414	△57.6	755	124	23,159	141,177
1968	16,366	3,154	13,212	△6.5	723	119	22,628	137,337
1969	33,049	3,511	29,538	101.9	–	–	–	–
1970	27,218	4,468	22,750	△17.7	1,207	214	22,545	127,240
1971	37,370	4,155	33,215	37.3	1,731	296	21,592	126,139
1972	46,932	6,366	40,566	25.6	2,188	366	21,452	128,197
1973	71,219	8,965	62,254	51.7	3,319	558	21,460	127,621
1974	91,527	10,059	81,468	28.5	4,302	723	21,274	126,636
1975	164,959	16,417	148,542	80.2	7,607	1,383	21,684	119,237
1976	275,515	25,631	249,884	67.0	12,975	2,332	21,234	118,157
1977	346,378	46,640	299,738	25.7	16,549	2,972	20,931	116,555
1978	403,098	66,578	336,520	16.4	19,515	3,508	20,656	114,913
1979	440,718	38,093	402,625	9.3	21,622	3,993	20.383	112,924
1980	743,038	100,044	642,994	68.6	37,150	7.712	20,001	96,344
1981	833,448	135,233	698,215	12.2	43,454	8,966	19,180	92,960
1982	946,824	137,696	809,128	13.6	50,099	10,351	18,899	91,417
1983	1,082,525	–	–	14.3	57,722	12,536	18,754	86,357
1984	1,126,962	–	–	4.1	60,717	13,258	18,561	85,004
1985	924,061	–	–	△18.0	48,877	11,821	18,906	78,173
1986	1,001,887	–	–	8.4	54,623	13,232	18,342	75,720
1987	1,018,228	–	–	1.6	57,349	14,138	17,755	72,023
1988	1,745,856	–	–	71.5	100,273	25,102	17,411	69,550
1989	2,316,791	–	–	32.7	133,525	33,226	17,351	69,728
1990	2,728,476	–	–	17.8	157,679	43,254	17,304	63,081
1991	3,378,357	–	–	23.8	192,708	54,404	17,531	62,098
1992	3,656,812	–	–	8.2	211,230	62,816	17,312	58,215
1993	4,144,980	–	–	13.4	237,848	74,438	17,427	55,684
1994	5,172,100	–	–	24.8	301,229	97,921	17,170	52,819
1995	6,625,389	–	–	28.1	383,503	128,143	17,276	51,703
1996	8,157,796	2,298,318	5,859,478	23.1	473,740	164,032	17,220	49,733
1997	9,488,208	2,427,309	7,060,899	16.3	548,166	196,427	17,309	48,304
1998	8,981,852	2,206,910	6,774,942	△5.3	488,888	176,360	18,372	50,929
1999	8,847,265	2,418,282	6,428,983	△1.5	504,750	188,525	17,528	46,929
2000	8,821,490	2,592,728	6,228,762	△0.3	507,041	194,439	17,398	45,369
2001	13,146,127	5,290,300	7,855,827	49.0	761,874	301,054	17,255	43,667

구분 / 연도	계 (천원)	도 세 (천원)	군 세 (천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 세 부 담		가 구 수 (호)	인 구 수 (명)
					가구당(원)	1인당(원)		
2002	13,954,314	6,035,248	7,919,066	6.2	815,374	331,275	17,114	42,123
2003	10,541,305	4,974,398	5,566,907	△24.5	608,902	248,980	17,312	42,338
2004	13,199,752	6,822,627	6,377,125	25.2	769,530	326,033	17,153	40,486
2005	14,956,827	8,175,532	6,781,295	13.3	852,095	369,880	17,553	40,437
2006	14,195,740	6,744,046	7,451,694	△5.1	815,285	364,405	17,412	38,956
2007	13,254,302	5,448,895	7,805,407	△6.6	760,256	344,250	17,434	38,502

<표 5-2> 지방세 징수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1983	1,080,497	110,513	74,829	11,030	76,466	168,005	30,073	-	523,926	36,526	-	-	-	-	22,494	12,814	11,881	3,968
1984	1,126,792	108,661	85,059	13,731	73,953	165,890	33,479	-	570,106	29,093	-	-	-	-	21,644	12,656	10,699	1,991
1985	949,425	120,446	78,908	8,184	51,170	166,922	31,224	-	34,544	27,700	331,668	-	-	-	22,570	17,543	7,946	25,236
1986	1,001,436	123,225	112,856	7,901	61,831	166,807	35,074	-	44,125	25,508	366,153	-	-	-	24,166	10,739	13,959	9,543
1987	1,019,731	98,784	109,504	7,979	69,813	170,318	41,604	-	54,177	27,223	377,487	-	-	-	24,929	12,310	19,350	4,750
1988	1,750,311	149,215	187,222	8,010	86,607	179,125	46,344	-	66,433	36,275	923,932	515	-	-	25,374	14,428	22,371	4,631
1989	2,369,296	197,779	208,355	10,345	80,495	191,338	63,676	-	9,659	35,095	1,450,333	541	-	-	27,821	17,225	22,982	1,147
1990	2,728,476	254,684	332,644	12,934	93,855	76,834	96,497	-	9,351	44,098	1,578,657	139,013	-	-	29,574	20,777	31,226	8,332
1991	3,378,356	439,284	558,860	22,097	117,332	89,145	175,401	-	9,388	64,161	1,602,031	173,021	-	-	37,477	24,085	39,790	26,285
1992	3,656,612	480,053	580,433	25,357	180,859	103,555	248,782	-	884	52,065	1,633,719	200,646	-	-	48,197	32,756	59,329	10,177
1993	4,144,980	466,973	791,219	34,046	238,448	131,630	344,710	-	1,314	85,028	1,620,183	241,740	-	-	68,996	55,781	57,744	7,168
1994	5,172,100	618,070	983,038	43,901	306,112	151,195	501,232	-	1,312	167,703	1,890,539	289,861	-	-	88,135	61,510	60,963	8,529
1995	6,625,389	964,679	1,213,417	59,041	351,663	152,594	693,622	-	1,341	469,653	2,114,896	344,894	-	-	102,996	68,396	70,676	17,521
1996	8,157,795	929,812	1,210,306	75,397	505,534	170,487	915,325	-	312	588,335	3,088,191	382,811	-	-	74,907	77,027	110,623	28,728
1997	9,488,208	998,178	1,261,453	66,885	524,780	189,116	1,096,456	-	10,081	587,555	4,049,366	375,459	-	-	113,121	80,001	77,260	58,497
1998	8,981,851	861,843	1,153,872	74,006	622,505	211,125	1,344,376	-	-	562,821	3,421,320	368,003	-	-	119,508	89,606	74,326	78,540
1999	8,847,265	1,006,703	1,205,111	81,146	705,963	216,784	1,213,546	-	3,830	454,060	3,188,335	368,939	-	-	121,342	94,478	68,467	118,561
2000	8,821,490	1,018,421	1,378,549	79,507	783,151	224,574	1,168,318	144,370	-	472,109	2,674,068	382,076	-	-	123,834	97,170	115,154	160,189
2001	13,146,127	1,017,166	1,396,647	26,874	842,736	228,453	1,068,838	269,892	-	341,555	4,318,086	404,339	6,263	2,690,948	126,764	98,689	133,918	174,959
2002	13,954,314	1,425,467	1,804,507	31,410	978,504	229,774	943,074	594,047	-	431,173	3,988,201	408,225	3,346	2,583,013	130,557	103,227	94,175	205,614
2003	10,541,305	1,456,404	1,857,185	30,760	892,226	248,766	909,454	644,063	-	411,648	1,625,094	456,183	2,927	1,433,156	141,892	117,207	117,248	197,092
2004	13,199,659	3,232,323	1,678,130	29,715	996,572	271,173	937,036	876,418	-	376,387	1,989,987	527,149	5,121	1,613,967	151,248	122,759	100,315	291,359
2005	14,956,827	4,597,572	1,756,247	31,518	1,124,557	1,205,992	971,895	1,123,812	-	348,363	1,576,625	124	6,676	1,523,629	134,428	90,220	110,684	354,485
2006	14,195,740	2,193,989	2,348,653	39,006	1,116,028	1,505,125	1,143,517	1,162,918	-	382,411	1,677,048	685	3,404	1,784,247	142,623	113,116	115,561	467,409
2007	16,040,456	2,678,370	2,733,444	37,081	1,338,638	1,676,044	1,273,027	1,432,349	-	355,041	1,730,308	-	3,869	1,946,912	162,694	143,475	124,949	404,255
2008	16,008,750	2,543,769	2,603,100	38,488	1,431,849	1,501,054	1,444,874	1,372,121	-	273,321	1,914,491	35	5,991	2,046,162	192,574	174,028	125,746	341,147

5. 읍·면별 지방세 징수 상황

<표 6-1,2,3>에서 보듯이 1965년과 1968년에는 지방세를 많이 낸 읍면이 함평읍, 학교면, 나산면 순위였고, 1973년과 1974년에는 3위가 손불면이었다,

1977년부터는 월야가 3위로 올라 이 순위는 1993년까지 이어졌고, 1994년에는 월야면과 근소한 차이를 이루던 해보면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3위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해보면의 소득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지방세 읍면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읍면별	1965	1968	1971	1973	1977	1981	1982
계	37,333	16,366	37,370	71,219	346,378	833,448	946,824
함 평 읍	6,455	3,969	7,663	15,996	64,132	186,595	190,746
손 불 면	4,432	1,670	4,224	7,964	41,945	94,573	100,109
신 광 면	3,169	1,029	2,787	4,927	22,690	49,731	56,439
학 교 면	6,366	3,190	6,329	11,356	55,464	123,380	171,175
엄 다 면	3,157	1,265	3,773	7,209	30,257	62,596	78,802
대 동 면	2,069	1,236	2,147	4,858	28,948	68,699	73,351
나 산 면	4,585	1,779	3,344	5,707	30,670	73,537	82,026
해 보 면	2,803	1,118	2,943	6,225	27,669	64,142	69,562
월 야 면	4,417	1,106	4,160	6,979	44,603	105,238	125,589

<표 6-2> 지방세 읍면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읍면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1,080,497	1,126,792	949,425	1,001,436	1,019,731	1,750,311	2,369,296
본 청		1,991	435,812	375,606	404,710	923,932	
함 평 읍	247,782	245,859	193,202	184,628	197,225	233,197	1,720,704
손 불 면	112,751	113,345	37,952	51,398	58,181	76,340	65,803
신 광 면	68,939	66,849	20,062	32,306	27,704	33,215	32,360
학 교 면	188,087	192,374	94,384	134,389	107,483	225,420	217,846
엄 다 면	81,659	88,348	29,942	40,761	47,025	47,880	49,538
대 동 면	72,650	83,960	33,614	43,213	43,112	50,439	41,440
나 산 면	91,094	92,791	29,186	40,046	35,744	44,851	40,551
해 보 면	80,069	99,003	34,082	43,971	43,964	57,064	96,044
월 야 면	137,456	142,272	41,189	55,098	54,583	57,973	52,505

<표 6-3> 지방세 읍면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읍면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3,378,358	3,656,612	4,144,980	5,172,100	6,625,389	8,157,795
본 청		2,266,612	2,496,430	3,072,936	4,021,475	5,254,612
함 평 읍	2,367206	495,066	574,906	762,695	834,959	974,586
손 불 면	105,425	85,197	113,746	139,520	195,933	202,719
신 광 면	56,259	42,052	54,684	68,823	80,189	101,271
학 교 면	341,548	244,041	297,220	355,484	561,953	443,426
엄 다 면	88,310	63,666	86,919	98,049	111,583	144,662
대 동 면	64,796	60,970	71,651	95,953	110,587	142,622
나 산 면	68,697	75,638	85,414	115,241	146,812	187,061
해 보 면	119,152	136,688	169,469	234,924	257,044	352,566
월 야 면	166,965	187,077	194,541	228,475	304,854	354,270

<표 6-4> 지방세 읍면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읍면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8,955,795	7,675,835	6,088,921	5,586,767	5,292,338	4,811,368
함 평 읍	3,872,869	2,028,351	1,796,960	1,737,267	1,674,607	1,605,045
손 불 면	410,051	488,533	446,296	433,519	441,209	383,727
신 광 면	201,081	244,583	242,866	233,859	228,040	184,407
학 교 면	2,073,404	2,077,290	1,164,357	768,243	718,199	668,970
엄 다 면	297,768	347,216	307,882	317,594	308,562	270,814
대 동 면	293,148	352,711	321,458	311,651	294,889	257,806
나 산 면	410,171	421,926	485,905	381,221	361,546	330,629
해 보 면	651,274	733,936	633,745	614,380	549,261	481,180
월 야 면	746,029	981,289	789,452	789,033	716,025	628,790

<표 6-5> 지방세 읍면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읍면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0,960,236	13,151,169	14,915,070	13,712,797	15,569,929
함 평 읍	6,724,632	5,979,408	5,785,628	6,488,181	7,213,518
손 불 면	578,569	449,145	591,519	835,355	824,441
신 광 면	175,831	219,406	253,402	302,454	437,689
학 교 면	1,224,532	3,751,785	5,514,981	2,672,310	2,649,495
엄 다 면	349,412	346,614	334,221	384,054	959,304
대 동 면	280,630	324,817	377,153	549,385	567,847
나 산 면	291,298	362,051	386,266	518,646	595,010
해 보 면	600,963	882,436	647,310	916,505	1,023,193
월 야 면	734,369	835,507	1,024,590	1,045,907	1,299,432

본 청 : 1984년→ 과년도 수입금 1985년→ 담배 판매세 + 등록세 + 과년도 수입
1986년→ 담배 판매세 + 과년도 수입 1987년→ 담배 판매세 + 도축세
1988년→ 담배 판매세

함평읍 : 1989~1991년 담배 판매세가 포함됨

제4절 가구당, 1인당 조세 부담액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가 조세부담액이다.

<표 7>에서 보듯이 1962년의 가구당 조세부담액은 825원, 1인당 부담액은 139원이었고, 이로부터 10년 후인 1972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5,022원으로 6.08배, 1인당 부담액이 840원으로 6.04배로 늘었으며 20년 후인 1982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67,033원으로 81.25배, 1인당 부담액이 13,858원으로 99.7배로 늘었다.

1992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368,699원으로 1962년에 비해 446.9배, 1인당 부담액이 109,644원으로 788.8배가 늘었고, 2002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4,668,590원으로 1962년에 비해 5,568.9배, 1인당 부담액이 1,900,110원으로 13,669.9배 늘었으며, 2007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12,507,769원으로 1962년에 비해 15,160.0배, 1인당 부담액이 5,678,362원으로 40,851.5배 늘었다.

1972년에 불어난 가구당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률이 6.08배 : 6.04배로 거의 동률이었던데 비해 2007년에는 가구당 부담액 비율과 1인당 부담액 비율이 15,160.0배 : 40,851.5배로 크게 격차를 보이는 것은 농촌에 연로한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가호가 많아 가구 수는 비교적 적게 줄고, 젊은층의 이농으로 인구수만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이다.

<표 7> 군민 가구당, 1인당 조세부담

구분 / 연도	세금액 (단위 : 천원)			가구수	인구수	조세부담(단위 : 원)	
	국세	지방세	합계			가구당	1인당
1962	392	17,912	18,304	22,176	131,991	825	139
1971	48,483	37,370	85,853	21,592	126,139	3,976	681
1972	60,802	46,932	107,734	21,452	128,197	5,022	840
1981	282,341	833,448	1,115,789	19,180	92,960	58,174	12,003
1982	320,042	946,824	1,266,866	18,899	91,417	67,033	13,858
1983	628,484	1,080,497	1,708,981	18,754	86,357	91,126	19,790
1984	756,899	1,126,792	1,883,691	18,561	85,004	101,486	22,160
1985	867,193	949,425	1,816,618	18,906	78,173	96,086	23,238
1986	515,672	1,001,436	1,517,108	18,342	75,720	82,712	20,036
1987	240,545	1,019,731	1,260,276	17,855	72,023	70,584	17,498
1988	663,393	1,750,311	2,413,704	17,411	69,550	138,631	34,705
1989	484,286	2,369,296	2,853,582	17,351	69,728	164,462	40,924
1990	1,497,599	2,728,476	4,226,075	17,304	63,051	244,225	66,994
1991	2,366,730	3,378,356	5,745,086	17,531	62,098	327,710	92,516
1992	2,726,299	3,656,612	6,382,911	17,312	58,215	368,699	109,644
1993	4,451,000	4,144,980	8,895,980	17,427	56,684	493,256	151,647
1994	5,090,000	5,172,100	10,262,100	17,170	52,819	579,676	194,286
1995	6,666,000	6,625,389	13,291,399	17,276	51,703	769,356	257,072
1996	5,916,193	8,157,795	14,073,988	17,220	49,733	817,301	282,991
1997	6,234,000	9,488,208	15,722,208	17,309	48,304	908,326	325,485
1998	41,247,000	8,981,852	50,228,852	18,372	50,929	2,733,989	986,252
1999	47,263,000	8,847,265	56,110,265	17,528	46,929	3,201,179	1,195,642
2000	46,766,000	8,821,490	55,587,490	17,398	45,369	3,195,051	1,225,231
2001	60,888,000	13,146,127	74,034,127	17,255	43,677	4,290,590	1,695,037
2002	66,084,000	13,954,314	80,038,314	17,144	42,123	4,668,590	1,900,110
2003	62,751,000	10,541,306	73,292,306	17,312	42,338	4,233,613	1,731,123
2004	78,624,000	13,199,753	91,823,753	17,153	40,486	5,353,218	2,268,037
2005	86,246,000	14,956,827	101,202,827	17,553	40,437	5,765,557	2,502,728
2006	113,796,000	14,195,740	127,991,740	17,412	38,956	7,350,778	3,285,546
2007	202,020,000	16,040,449	218,060,449	17,434	38,402	12,507,769	5,678,362

제5절 군유, 도유재산 현황

1. 군유재산 (郡有財産)

군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표 8-1, 8-2 참조>

토지에 있어 1985년에 전년에 비해 100%에 가까이 면적이 늘었는데 그 까닭은 이 해에 군유 은익재산 찾기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2007년말 현재 군유재산의 토지는 8,180천㎡에 평가액은 63,354,790천원, 건물은 79,000㎡에 평가액은 25,674,481천원, 합하여 8,259천㎡에 89,029,271천원에 이른다.

읍면별로 행정재산(평가액 기준)은 함평읍, 학교, 대동, 월야, 신광, 손불, 해보, 나산, 엄다면 순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잡종재산(평가액 기준)은 함평읍, 손불, 월야, 학교, 엄다, 해보, 신광, 나산, 대동면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표 8-1> 군유재산 현황

단위 : 면적 ㎡. 금액 : 천원. 수량 : 건(件)

구분 / 연도	총평가액	토지		건물		기계기구		기타	
		면적	평가액	면적	평가액	점	평가액	수량	평가액
1977	176,865	258,690	100,836	12,804	70,029				
1978	170,235	828,768	101,372	11,781	65,534				
1979	183,535	827,670	100,672	12,063	79,534				
1980	183,793	824,385	100,927	12,063	79,534				
1981	208,217	1,630,767	128,683	12,063	79,534				
1982	351,890	1,630,499	127,689	13,900	224,201				
1983	391,213	1,631,380	128,606	14,295	262,607			45	6,750
1984	437,691	1,606,279	122,878	14,702	308,063			45	6,750
1985	1,251,740	3,058,383	436,707	15,572	808,283			45	6,750
1986	1,338,718	3,059,643	447,579	17,940	891,139			45	6,750
1987	1,343,733	3,026,351	444,351	17,987	892,632			45	6,750
1988	1,340,161	3,033,000	438,621	17,895	894,790			45	6,750
1989	1,448,063	2,208,000	443,116	18,021	998,197			45	6,750
1990	1,853,003	2,213,000	506,757	18,250	1,338,821			45	7,425
1991	2,609,011	3,027,000	553,299	23,438	2,048,287			45	7,425
1992	2,627,190	3,010,000	571,478	23,000	2,048,287			45	7,425
1993	2,701,766	3,020,000	646,054	23,000	2,048,287			45	7.425
1994	4,519,067	3,156,000	1,263,355	25,000	3,248,287			45	7,425
1995	8,261,002	3,482,000	5,091,433	26,000	3,169,569			45	7,425
1996	13,246,336	3,576,000	10,035,592	25,094	3,169,569	15	33,750	45	7,425
1997	13,780,760	3,685,000	10,603,766	26,000	3,169,569			45	7,425
1998	17,067,869	3,884,000	12,026,829	28,000	5,033,615			45	7,425
1999	12,846,884	3,873,000	7,805,844	28,000	5,033,615			45	7,425
2000	12,603,247	3,830,000	7,569,509	31,000	5,033,738			45	7,425
2001	31,440,927	6,161,000	24,559,023	29,000	6,874,479			45	7,425
2002	34,022,521	7,044,000	23,176,452	54,000	10,838,644			45	7,425
2003	33,560,476	7,175,000	24,034,812	54,000	9,518,239			45	7,425
2004	48,503,422	7,520,000	36,921,828	67,000	11,574,169			45	7,425
2005	687,595,142	7,651,000	56,935,753	68,000	11,651,964			45	7,425
2006	78,397,109	7,775,000	57,197,133	70,000	21,192,551			45	7,425
2007	89,036,696	8,180,000	63,354,790	79,000	25,674,481			45	7,425

<표 8-2> 읍면별 군유재산 현황

단위 : 면적 ㎡. 금액 : 천원. 수량 : 건(件)

구 분	총 계			행정자산			잡종자산		
	수량	면적	평가액	수량	면적	평가액	수량	면적	평가액
합 계	23,579	8,129,918	64,465,979	21,816	6,413,467	56,975,493	1,763	1,716,451	7,490,486
함평읍	3,655	2,056,896	33,642,889	3,351	1,128,742	30,187,615	304	928,154	3,455,275
손불면	3,478	956,892	4,344,159	3,252	842,891	3,633,207	226	114,001	710,953
신광면	2,486	816,227	4,082,989	2,363	761,549	3,684,974	123	54,678	398,015
학교면	2,670	914,568	5,348,598	2,362	793,006	4,719,335	308	121,562	629,263
엄다면	1,703	466,110	2,051,941	1,573	368,731	1,550,890	130	97,379	501,051
대동면	2,680	1,188,960	4,583,081	2,568	1,017,402	4,267,680	112	171,558	315,401
나산면	2,372	667,860	2,876,723	2,113	590,866	2,485,477	259	76,994	391,245
해보면	1,856	469,753	2,937,053	1,747	409,193	2,513,925	109	60,560	423,128
월야면	2,679	592,652	4,598,546	2,487	501,087	3,932,390	192	91,565	666,155

2. 도유재산 (道有財産)

도유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함평군에는 행정재산이 562,130㎡에 평가액이 889,498천원, 잡종재산이 102,968㎡에 평가액이 483,816천원으로 도합 655,098㎡에 1,373,314천원에 이른다. <표 9-1, 9-2 참조>

읍면별로 도유 행정재산(평가액 기준)은 나산면, 월야면, 대동면이 많고, 잡종재산은 함평읍, 나산면, 해보면이 많다.

합계로는 나산면, 대동면, 함평읍 순이다.

<표 9-1> 도 공유재산

단위 : 수량 ㎡. 평가액 천원

구분 / 연도별	총 계		행 정 재 산		잡 종 재 산	
	수 량	평 가 액	수 량	평 가 액	수 량	평 가 액
1988	130,743	42,430	11,939	9,626	118,804	32,814
1989	137,248	46,141	11,939	9,626	125,309	36,515
1990	142,530	46,633	11,939	9,626	130,591	37,007
1991	230,151	69,072	11,939	9,626	218,212	59,446
1992	389,877	147,492	163,106	84,606	226,771	62,886
1993	549,402	266,767	169,853	114,333	379,549	152,434
1994	575,927	422,039	196,755	272,265	372,172	149,774
1995	575,927	643,287	196,755	357,035	372,172	286,252
1996	575,187	642,547	196,755	357,035	378,432	285,512
1997	575,187	642,547	196,755	357,035	378,432	285,512
1998	575,187	642,547	196,755	357,035	378,432	285,512
1999	584,286	629,532	196,755	357,035	387,531	272,497
2000	558,164	1,549,985	385,790	1,213,163	1,723,374	336,822
2001	567,025	1,654,683	385,836	1,214,340	181,189	440,343
2002	570,416	1,545,795	372,292	1,107,531	198,125	438,264
2003	558,119	1,547,578	377,973	1,109,473	180,146	438,105
2004	548,126	1,507,030	364,769	1,099,453	183,357	407,577
2005	591,523	1,819,918	413,147	1,426,513	178,376	393,405
2006	547,514	1,504,696	364,768	1,099,453	182,746	405,243
2007	665,098	1,373,314	562,130	889,498	102,968	483,816
전	61,653	173,890	56,072	153,787	5,581	20,103
답	236,131	740,011	189,385	501,717	46,746	238,294
대 지	10,185	243,136	7,190	65,406	2,995	177,730
기 타	357,129	216,277	309,483	168,588	47,646	47,689

<표 9-2> 읍면별 도유재산 현황

단위 : 면적 ㎡. 금액 : 천원. 수량 : 건(件)

구 분	총 계			행정자산			잡종자산		
	수량	면적	평가액	수량	면적	평가액	수량	면적	평가액
합 계	2,110	651,810	1,352,473	1,919	549,314	870,560	191	102,496	481,913
함평읍	201	46,572	201,331	197	44,585	36,767	4	1,987	164,563
손불면	544	154,978	137,116	488	126,730	104,125	56	28,248	32,991
신광면	123	28,898	29,686	118	25,202	8,618	5	3,696	21,068
학교면	76	55,260	149,893	60	46,967	93,042	16	8,293	56,851
엄다면	24	19,086	12,421	21	18,105	9,674	3	981	2,747
대동면	234	85,955	203,329	190	67,777	141,786	44	18,178	61,544
나산면	556	156,059	348,612	521	129,608	281,511	35	26,451	67,101
해보면	63	23,825	81,469	36	10,823	16,378	27	13,002	65,091
월야면	289	81,177	188,616	288	79,517	178,659	1	1,660	9,957

제6절 금 융(金 融)

1. 함평금융조합(咸平金融組合)

함평군에는 1992년 2월 이전에는 은행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개설된 사실이 없다.

1992년 2월에야 광주은행 함평지점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전에는 현재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의 전신인 함평금융조합이 개설되어 금융 업무를 담당해 왔었다.

금융조합에 대해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조합은 1904년 8월 한일(韓日)에 의해 일본 사람 매가다(日賀田)가 고문이 되어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는 중국의 주자(朱子)와 조선조 이율곡(李栗谷)의 향약계(鄕約契)와 사회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1906년 금융조합의 원안(原案)을 만들어 통감부의 수정을 거친 후 1907년 5월 30일 칙령 33호로 공포되었다.

이어 1907년 8월 24일 전남 제1호 금융조합으로 광주금융조합이 발족되고 1910년 1월 전주재무감독국(全州財務監督局)의 지부이던 전라남도가 광주재무감독국으로 독립되고, 8월에 광주가 감찰도(監察道)의 도청(道廳)이 됨에 따라 각 군에도 금융조합이 설립되게 되었다.

1914년에 지방 금융조합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1917년에는 업무 감독 규정을 고쳐 금융업무 이외에 농사개량, 부업 장려 등의 권농 업무를 담당했으며 1918년에는 종래의 지방금융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조합령을 공포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각 도에 금융조합연합회가 창설되었다.

1929년에는 종래의 각 연합회 자금을 총괄하기 위해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에 금융조합중앙금고를 신설하여 영농자금, 수해복구자금, 고리채(高利債)정리자금 등을 대출하였다.

이어 1933년에 조선금융연합회를 창설하여 금융조합 중앙금고의 업무를 이양 받았다.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말 전국의 금융조합은 본점이 613개소, 지점이 29개소였다.

해방 후로도 금융조합은 업무를 그대로 지속했으며 1956년에 농업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57년에 새로이 농협(農協)이 발족되었는데 농협은 신용업무는 하지 못하고 옛 농회(農會)[364]의 축산농업조합, 원예협회 등 인수단체의 사업과 일부 사업만 담당했다.

1961년 7월 29일 새로운 농협법이 공포되고 구 농협과 농업은행을 합쳐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발족한 농업협동조합은 1981년 재개정이 있기까지 농협중앙회와 시군조합 140개소, 특수조합 101개소, 핵심체인 단위농협조합이 21,042개소에 이르렀다.

1981년 1월 1일부터 군의 농업협동조합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자립 경영의 체계를 갖

364) 농회 : 농회의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근업과장(勤業課長)이 되며 보통학사계(普通學事係), 전작계(田作係), 면작계(綿作係), 축산계, 잠업계, 근업계를 두어 농촌 기술 지도를 담당했다. 현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이 있었다.

추므로하여 일체의 재산과 업무를 단협(單協)에 넘기고 신용업무 전담과 중앙회와 단협 사이의 업무 추진에 대한 연락만 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1907년에 시발된 금융조합이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변천하는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다.

함평군금융조합의 연혁과 자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길이 없다.

그것은 1950년 10월 19일 군청 동쪽 바로 옆 자리에 있던 함평군금융조합이 공산군의 손에 의해 방화 소실됨으로 하여 자료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단위 금융조합이 1907년부터 개설되었는데 전남에는 광주(당시 광산)금융조합, 금남(錦南. 나주)금융조합 등 몇 군에 국한되었다.

1907년에 간행된 함평군지의 관청 이름에 금융조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는 개설되지 않은 것이 확연하다.

전남도지(全南道誌)에,

"1910년 1월 전남도는 전주재무감독국의 지부였으나 독립이 되어 광주재무감독국으로 되었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병에 따라 감찰도의 도청이 되므로 하여 각 군에 금융조합이 신설되고 -략-" 365)라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1910년에 함평군금융조합이 문을 연 것으로 보여진다.

1930년 간행 속수함평지(續修咸平誌) 공해조(公廨條. 관청)에

"金融組合所三(금융조합소 삼) 在郡廳東(재 군청동) 平陵面三枇里(평릉면 삼축리) 鶴橋面鶴橋里(학교면 학교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는 이미 3개소의 금융조합이 개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7년부터 1922년 사이에 각 군마다 보통 2~4개 면 단위로 1개소의 금융조합이 발족되었다.

따라서 학교, 나산의 금융조합도 이 기간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당시 각 금융조합의 임원진은 조합장, 이사, 감사, 평의원(評議員), 서기 기타로 구성했는데 조합장과 이사는 1명 씩이고, 감사는 3명으로 어느 조합이나 같았으며 평의원과 서기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달랐는데 평의원은 9~15명, 기타는 1~2명 정도였다.

2.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1)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919번지

(2) 사무소 :

365) 전라남도지 1983, 910쪽

대지 784㎡. 건평 : 1,309.5㎡. 철근 스라브 2층



(3) 연 혁

- 1956. 05. 01 : 금융조합의 업무를 인수 함평군농업은행이 발족되었다.
- 1957. 11. 23 : 구농회와 금융조합의 업무 일부를 인수하여 함평군농업협동조합 발족(신용업무 제외)
- 1961. 07. 29 : 신농협법 공포
- 1961. 08. 15 : 농업은행과 구 농업협동조합을 합해 종합농협을 발족했는데 명칭은 함평군농업협동조합이라 했으며 나산, 학교, 신광지소 및 136개 이동조합을 관할하였다.
- 1964. 읍면 이동조합 합병
- 1969. 05 : 군내에서 처음으로 엄다면 관내 13개 이동조합을 면단위로 합병
- 1969. 08 : 조합 청사를 신축(군청 옆 전 농협)하고 상호금융업무 개시와 연쇄점 개점
- 1972. 05 : 까지 이동조합은 면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 완료
- 1973. 03. 31 : 신광지소 폐소
- 1975. 02. 28 : 나산지소 폐소
- 1975. 09. 10 : 학교지소 폐소
- 1981. 01. 01 :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로 개칭함
- 1998. 08. 08 : 함평농협, 신광농협을 함평농협으로 합병
- 2007. 07. 01 : 농협중앙회와 축협 합병
- 2006. 02. 08 : 해보농협, 나산농협을 나비골농협으로 합병
- 2006. 03. 31 : 학교농협, 엄다농협을 천지농협으로 합병
- 2006. 07. 31 : 나비골농협, 대동농협을 나비골농협으로 합병
- 2006. 05. 01 : 손불, 나산, 학교RPC를 함평군통합RPC로 출범
- 2008년 말 현재 5개의 지역농협과 1개의 축협, 조합원 12,314명, 273개의 영농회, 90개의 작목반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4) 주요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별 / 사업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사업액	29,473	36,428	50,998	65,567	68,007	81,754	113,512	181,177	197,649	263,317	273,312	337,873	402,434	473,401	579285	750,288
저 축	7,347	10,319	11,440	12,561	15,780	21,849	31,469	38,896	49,843	83,422	82,851	101,006	119,161	138,624	172,435	231,511

사업 \ 연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사업액	163,794	200,563	243,030	252,396	251,139	267,592	240,468	287,234	321,584	345,102	399,115
예수금(저축)	41,999	45,125	45,501	51,073	51,512	63,920	56,772	97,188	132,250	154,298	195,513

사업 \ 연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도 시	2,021	2,825	3,152	3,478	4,033	5,077	6,747	8,021	11,388	15,960	18,187	21,723	25,259	34,667	45,482	85,008
농 촌	5,326	7,494	8,289	9,083	11,747	16,772	24,722	30,875	38,455	67,462	64,664	79,283	93,902	103,957	126,953	146,503
대 출 금	13,774	17,409	27,205	37,001	34,111	31,764	40,170	83,381	89,990	98,885	88,351	108,438	128,524	152,455	183,085	233,703
경제사업	7,261	7,126	8,680	10,234	10,828	16,113	22,478	25,589	15,963	27,040	43,796	51,230	58,663	64,578	65,999	97,367
공제보험	1,091	1,574	3,673	5,771	7,288	12,028	19,395	33,311	41,853	53,970	58,314	77,200	96,086	117,744	157,766	187,707

사업 \ 연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 출 금	120,550	154,062	196,055	199,938	198,475	202,657	182,606	188,724	188,253	189,317	201,797
경제사업					82	123	152	149	229	208	241
공제보험	1,245	1,376	1,474	1,385	1,070	892	938	1,173	852	1,279	1,564

(5) 역대 조합장, 지부장

명 칭	직 명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함평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한규흥(韓圭興)	'63. 08. 15 ~ '61. 12. 31	
		유판옥(庾判玉)	'62. 01. 01 ~ '76. 03. 07	
		안수복(安洙福)	'76. 03. 07 ~ '78. 08. 08	
		안인수(安寅洙)	'78. 08. 08 ~ '80. 12. 31	기구개편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지부장	순일수(舜日洙)	'81. 01. 01 ~ '82. 03. 10	
		차원근(車元根)	'82. 03. 10 ~ '84. 02. 13	
		김흥일(金興一)	'84. 02. 13 ~ '85. 02. 19	
		김갑재(金甲載)	'85. 02. 19 ~ '87. 02. 01	
		박채순(朴埰洵)	'87. 02. 01 ~ '87. 10. 16	
		양승인(梁承仁)	'87. 10. 16 ~ '88. 09. 15	
		정병주(鄭炳柱)	'88. 09. 15 ~ '90. 01. 18	
		박태용(朴台鏞)	'90. 01. 18 ~ '91. 03. 07	
		김홍찬(金洪贊)	'91. 03. 07 ~ '92. 03. 31	
		허필회(許必會)	'92. 03. 31 ~ '94. 04. 22	
		이지묵(李之默)	'94. 04. 22 ~ '95. 02. 08	
		박상만(朴相萬)	'95. 02. 08 ~ '97. 02. 24	
		김인식(金仁植)	'97. 02. 24 ~ '99. 02. 23	
		노철근(魯哲根)	'99. 02. 24 ~ '01. 02. 26	
		정오섭(鄭伍燮)	'01. 02. 27 ~ '02. 01. 22	
		김석동(金奭東)	'02. 01. 23 ~ '04. 01. 19	
		조성수(趙成洙)	'04. 01. 20 ~ '06. 01. 31	
		김덕녕	'06. 02. 01 ~ '08. 01. 29	
		전병덕(全炳德)	'08. 01. 30 ~ '08. 12. 31	
		김태남(金泰男)	'09. 01. 01 ~ 현 재	

<자료 제공. 과장 김명숙(金明淑)>

3. 읍, 면 농업협동조합

1) 함평(咸平)농업협동조합



(1) 소 재 지 :

함평읍 내교리 193-1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면적 3,173㎡. 건평 1,045㎡ 1층 벽돌조 스레트

(3) 부대시설

단위 : 면적 ㎡

이 름	대지면적	건 평	건축양식	소 재 지	참 고
성 남 창 고	916	330	벽돌 스레트	성남리 221-1	
주 포 창 고	6,591	1,981	〃	석성리 312-46	3동
옥 산 창 고	660	330	〃	옥산리 168-1	
장 교 창 고	1,375	330	〃	장교리 418-5	
대 덕 창 고	654	330	〃	대덕리 375-1	
내 교 창 고	1,802	1,651	〃	내교리 482-1	2동
신 광 지 점	434	277	철근 콘크리트	신광면 월암리 199	
하 나 로 마 트	3,672	694	벽돌 콘크리트	내교리 193-3	
장 례 식 장	9,035	1,438	철골조 벽돌 판넬지붕	대덕리 20	
월 암 창 고	1,498	330	벽돌 스레트	월암리 188-2	
복 흥 창 고	1,679	330	〃	복흥리 357-1	
동 정 창 고	729	330	〃	동정리 446-1	
삼 덕 창 고	661	330	〃	삼덕리 544-5	
가 덕 창 고	1,326	330	〃	가덕리 179-5	
집 하 장	949	398	철골조 판넬	월암리 246-1	2곳

(4) 연 혁

- 1970. 07. 21 : 5개 이동조합(里洞組合. 영풍, 수호, 함서, 장년 1, 2)을 흡수 함평읍단위 조합 설립
- 1970. 05. 01 : 상호금융 실시
- 1971. 09. 21 : 기각리 영수교 옆에 사무실 및 연쇄점 준공
- 1972. 04. 01 : 군 조합으로부터 비료 및 구판업무 인수
- 1977. 09. 05 : 상무 배치 승인
- 1978. 01. 28 : 성장 자립조합으로 승격 (전국 47호)
- 1979. 11. 01 : 단위조합 환 업무 개시
- 1979. 12. 18 : 현 사무실 2층 스라브 연건평 538㎡ 준공
- 1981. 07. 01 : 전신환 업무 취급
- 1981. 10. 10 : 연쇄점 건립
- 1982. 05. 01 : 자기앞 수표 발행
- 1983. 12. 31 : 봉사조합으로 승격
- 1888. 11. 14 : 온라인 업무 개시
- 1992. 12. 30 : 저온창고 660㎡ 준공
- 1993. 12. 31 : 농용자재 백화점 건물 준공
- 1995. 08. 30 : 농산물 간이 집하장 330㎡ 준공
- 1996. 06. 28 : 장의 자동차(25인승) 구입
- 1996. 11. 01 : 경제사업소(농용자재백화점) 온라인 취급 개시
- 1997. 12. 26 : 신광농업협동조합과 합병

• 2001. 10. 14 : 본점 사무실 이전
• 2001. 11. 16 : 대형 하나로마트 개점
• 2005. 09. 01 : 함평농협 장례식장 개장

(5) 조합원수 및 출자금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단위 : 천원)
1 9 7 4	2,911	–	2,911	20,120
1 9 7 5	13	1,047	1,877	95,123
1 9 8 2	1,696	1,367	1,367	148,971
1 9 8 5	–	–	–	187,328
1 9 8 8	–	–	–	193,032
1 9 9 1	–	–	–	185,985
1 9 9 4	–	–	–	195,796
1 9 9 6	–	–	–	226,183
1 9 9 7	–	–	–	348,000
1 9 9 8	–	–	–	383,000
1 9 9 9	–	–	–	518,000
2 0 0 0	–	–	–	557,000
2 0 0 1	–	–	–	–
2 0 0 2	–	–	–	–
2 0 0 3	–	–	2,575	898,187
2 0 0 4	–	–	2,556	771,200
2 0 0 5	–	–	2,585	1,062,445
2 0 0 6	–	–	2,590	1,121,525
2 0 0 7	–	–	2,577	1,211,255
2 0 0 8	–	–	2,537	1,269,834

(6)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도	예금 금액(천원)	대출 금액(천원)	참고
1974	48,000	51,424	1974=지수 100
1975	142,345	114,122	
1976	157,553	92,207	
1977	330,937	223,999	
1978	384,634	359,795	
1979	485,208	594,346	
1980	693,795	828,164	
1981	1,037,503	1,217,647	
1982	1,287,880	2,170,379	
1983	1,401,506	2,604,129	
1984	2,031,697	3,479,724	
1985	2,308,177	3,653,684	
1986	3,014,516	4,095,165	
1987	3,933,140	5,654,703	
1988	5,010,431	6,549,675	
1989	5,269,279	8,538,299	
1990	7,263,359	9,076,124	
1991	9,236,295	10,453,272	
1992	10,217,275	14,027,780	
1993	11,412,750	16,227,703	
1994	12,859,892	18,686,984	
1995	14,577,892	22,134,823	
1996	19,198,999	26,247,759	
1997	22,032,000	28,862,000	
1998	35,729,000	47,001,000	
1999	38,704,000	52,558,000	
2000	41,744,000	62,576,000	
2001	50,443,768	61,908,774	
2002	49,253,949	61,973,550	
2003	50,402,272	60,909,254	
2004	56,593,533	58,952,822	
2005	58,905,354	57,136,027	
2006	59,142,614	51,981,661	
2007	58,898,104	47,022,199	
2008	59,265,953	41,943,840	

(7) 역대 조합장

대(代)	이 름	취 임	퇴 임	본 적
1	이 춘 묵	'70. 07. 21	'73. 03. 26	함평읍 함평리
2	정 순 기	'73. 04. 02	'76. 04. 02	〃 기각리
3	박 선 구	'76. 07. 20	'76. 08. 23	〃 내교리
4	김 병 기	'76. 09. 14	'78. 05. 08	〃 〃
5	김 장 백	'78. 06. 19	'81. 06. 18	〃 장교리
6	〃	'81. 06. 19	'84. 06. 18	〃 〃
7	정 찬 동	'84. 06. 19	'87. 06. 18	〃 자풍리
8	〃	'87. 06. 19	'89. 04. 20	〃 〃
9	김 백 룡	'89. 04. 21.	'93. 04. 19	〃 석성리
10	윤 양 중	'93. 04. 20	'97. 04. 20	〃 기각리
11	김 백 룡	'97. 04. 29	'01. 04. 20	〃 석성리
12	옥 부 호	'01. 04. 21	'05. 04. 20	〃 대덕리
13	옥 부 호	'05. 04. 21	'09. 04. 20	〃 〃
14	김 형 모	'09. 04. 21	현재	〃 장교리

<자료 제공. 계장 배형철(裵炯喆) >

2) 손불면(孫佛面)농업협동조합

(1) 소 재 지 :

손불면 대전리 180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 면적 1,566㎡. 철근콘크리트조



손불농협

(3) 부대시설

시설명	대지면적	건평	건축양식	소재지
• 월천양곡창고	1,067㎡	330㎡	벽돌 스레트즙	월천리 1010-3
• 대전양곡창고	1,882㎡	330㎡	〃	대전리 230-3
• 자재백화점	2.553㎡	498㎡	〃	대전리 182-3
• 동암양곡창고	1,388㎡	330㎡	〃	동암리 206-1
• 산남양곡창고	2,174㎡	660㎡	〃	산남리 1848-3
• 농산물집하장	3,692㎡	825㎡	벽돌 스레트즙	대전리 290-6
• 간이집하장	1,064㎡	330㎡	조립식 판낼	동암리 179-1
• 석창비료창고	477㎡	165㎡	벽돌 스레트즙	석창리 864-1

(4) 연 혁

- 1972.04.26 : 8개리 조합합병 손불면단위조합 창립
- 1972.09.11 : 대전리 양곡창고 신축(330㎡)
- 1973.01.01 : 지원조합으로 선정
- 1973.03.01 : 산남리 양곡창고(전몽치 소유)인수
- 1973.04.01 : 신용 금융 업무 개시
- 1973.06.30 : 종합청사(구) 준공
- 1976.04.02 : 연쇄점 판매장 신축 및 개점
- 1976.12.31 : 산남리 양곡창고 신축(330㎡)
- 1977.12.31 : 동암리 양곡창고 신축(330㎡)
- 1978.12.26 : 농장 양곡창고 신축(330㎡)
- 1980.10.01 : 자립조합으로 승격
- 1981.02.01 : 환 업무 개시(3억 4천 7백만원)
- 1981.03.07 : 회관 준공(1층 92.4㎡. 2층 89㎡)
- 1981.05.22 : 유류 취급소 개점
- 1981.10.31 : 궁산, 월천 비료 창고 2동 신축
- 1988.01.01 : 자립조합에서 봉사조합으로 승격
- 1989.09.30 : 온라인 업무개시(예수금 2억 5천 9백만원)
- 1992.11.17 : 1면 1특품사업 손불 간척지 쌀 왕중왕 당선
- 1993.06.16 : 농산물 집하장 신축
- 1993.12.01 : 석창비료 창고 신축
- 1993.12.28 : 주유소 신축
- 1996.07.10 : 현재 종합청사 준공
- 1997.12.08 : 손불농업협동조합 농산물포장센터 기공(냉동창고 495㎡. 선별 및 포장 작업장 660㎡ 등 시설)
- 2000.12.15 : 손불RPC(미곡처리장) 준공
- 2005.01.14 : 365코너 설치운영
- 2007.12.28 : 자재판매장신축(498㎡)

(5) 조합원수

단위 : 천원

연 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자금	연 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자금
창립년	1,850		1,850	3,517	1999	18	53	1,736	423,433
1975	154	32	2,150	41,582	2000	15	15	1,729	517,098
1982	91	52	2,316	162,626	2001	45	53	1,721	562,843

연 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자금	연 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자금
1985	43	12	2,115	168,384	2002	26	30	1,717	571,395
1988	14	87	2,054	161,818	2003	22	25	1,714	614,670
1991	27	64	1,955	166,544	2004	48	4	1,758	849,615
1994	28	25	1,902	199,224	2005	35	178	1,615	1,086,340
1996	52	118	1,788	299,000	2006	67	29	1,653	1,444,665
1997	17	8	1,797	309,000	2007	51	54	1,650	1,483,305
1998	17	43	1,771	365,720	2008				

(6)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천원

연 별	예 금	대 출	연 별	예 금	대 출
1975	82,765	60,090	1995	10,603,441	18,508,275
1980	347,794	585,608	1996	12,922,007	24,406,099
1982	635,184	1,006,176	1997	15,169,503	31,195,000
1983	487,893	1,513,792	1998	17,525,000	34,076,000
1984	658,382	1,892,117	1999	20,195,000	35,200,709
1985	693,306	1,984,484	2000	23,832,000	36,500,299
1986	942,071	2,181,899	2001	23,704,493	38,162,953
1987	1,484,459	3,505,807	2002	26,393,544	37,430,371
1988	2,229,952	4,244,792	2003	26,338,909	35,673,806
1989	2,993,452	6,243,942	2004	27,667,410	34,778,389
1990	3,384,154	8,265,970	2005	31,202,003	32,133,132
1991	4,693,129	5,698,261	2006	32,188,953	28,247,189
1992	5,372,776	10,900,931	2007	33,466,758	27,593,486
1993	8,500,172	12,953,107	2008		
1994	10,096,081	15,023,544			

(7) 역대 조합장

대	성 명		취 임	퇴 임	출 생 지
1~3	이 왕 기	李 王 基	'72. 04. 26	'79. 06. 22	양 재 리
4	김 상 요	金 相 堯	'79. 06. 23	'82. 06. 22	산 남 리
5	최 덕 균	崔 德 均	'82. 06. 23	'85. 06. 22	석 창 리
6	지 풍	池 豊	'85. 06. 23	'88. 06. 22	석 창 리
7~8	김 만 성	金 萬 成	'89. 02. 20	'94. 02. 19	산 남 리
9	이 기 노	李 基 魯	'94. 02. 20	'97. 12. 04	월 천 리
10	전 상 표	全 相 表	'97. 04. 25	'02. 01. 22	대 전 리
11	이 길 구		'02. 01. 23	'06. 01. 31	월 천 리
12	김 준 안	金 俊 安	'06. 02. 01	현재	월 천 리

<자료 제공 상무 정성호>

3) 함평농업협동조합 신광지점



신광지점

(1) 소 재 지 :

신광면 월암리 199

(2) 시설현황 :

· 사무실 대지 면적 473㎡. · 건평 644㎡.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지하 1층 지상 2층

(3) 부대시설

시 설 명	건평(㎡)	건 축 양 식	소 재 지	참 고
농약 창고. 판매장	142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월암리 118-2	
동정 비료 창고	165	벽돌 스레이트	동정리 321-1	
군유 비료 창고	165	〃	동정리 326-9	
월암 비료 창고	330	〃	월암리 246-1	
연쇄점.창고.유류판매장	260	〃	월암리 188-2	
월암 양곡 창고	330	〃	〃 〃	
동정 양곡 창고	330	〃	동정리 446-1	
삼덕 양곡 창고	330	〃	삼덕리 544-5	
가덕 양곡 창고	330	〃	가덕리 179-5	
복흥 양곡 창고	330	〃	복흥리 357-1	
월암 비료 창고	198	〃	월암리 247-2	

시 설 명	건평(㎡)	건 축 양 식	소 재 지	참 고
삼덕 개량 창고	330	〃	삼덕리 627-3	
월암 농산물 집하장	198	철골조 철골지붕 판넬	월암리 246	
동정 농산물 집하장	198	〃	동정리 446-3	
백운 농산물 집하장	165	〃	백운리 426	
백운축사. 창고. 관리사	827	〃	백운리 429-1	관리사 : 벽돌 스레이트
백운 퇴비사	165	철골조 스레이트	백운리 428	

(4) 연 혁

- 1972. 09. 09 4개 이동조합이 통합하여 신광이동조합으로 발족
- 1972. 10. 01 신광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2. 10. 10 설립 등기 완료
- 1972. 10. 17 비료업무 이관
- 1973. 04. 01 지소업무 폐쇄와 동시 상호금융업무 인수
- 1973. 06. 30 동정판매장 신축 준공
- 1974. 09. 21 월암 김상렬의 창고 매입
- 1974. 09. 30 월암 양곡창고 신축 준공
- 1975. 12. 31 동정 양곡창고 신축 준공
- 1977. 08. 31 삼덕 양곡창고 신축 준공
- 1977. 10. 31 연쇄점 신축 준공
- 1978. 03. 30 가덕 양곡창고 신축 준공
- 1980. 09. 15 농약 판매장 신축 준공
- 1989. 02. 28 신광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1. 12. 27 복흥 양곡창고 신축 준공
- 1992. 12. 29 삼덕 개량창고 신축 준공
- 1993. 06. 18 사무소 신축 준공(지하 1층, 지상 2층)
- 1995. 07. 14 농산물 집하장 3동 신축 준공
- 1996. 03. 27 백운 축사 2동 신축 준공
- 1998. 08. 08 함평농업협동조합과 합병 (함평농협 신광지점)

(5) 조합원수 및 출자금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1972	1,648	0	1,648
1975	38	7	1,596
1982	26	42	1,246
1985	19	192	1,121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1988	5	57	987
1991	45	9	960
1994	93	125	924
1996	32	77	875
1997	169	80	964
1998	30	45	949

(6)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별	예 금		대 출		참 고
	금 액(천원)	성 장 률	금 액(천원)	성 장 률	
1973	12,420	100	9,240	100	1973년 지수=100
1974	23,040	186	21,084	228	
1975	54,414	438	41,579	450	
1976	57,136	460	29,600	320	
1977	116,118	935	79,808	864	
1978	176,885	1,424	168,133	1,820	
1979	251,169	2,022	302,890	3,278	
1980	293,040	2,359	386,242	4,188	
1981	331,390	2,668	436,811	4,727	
1982	451,180	3,633	726,756	7,865	
1983	450,475	3,627	1,077,659	11,662	
1984	524,584	4,223	1,354,809	14,662	
1985	587,006	4,726	1,528,153	16,538	
1986	687,513	5,535	1,612,441	17,451	
1987	1,008,489	8,119	2,229,514	24,887	
1988	1,512,597	12,179	2,665,853	28,851	
1989	1,908,519	15,366	3,555,565	38,480	
1990	2,594,217	20,887	3,807,052	41,202	
1991	3,896,825	31,375	5,327,155	57,653	
1992	4,763,392	38,353	5,554,351	60,112	
1993	5,345,418	43,039	6,223,774	67,357	
1994	6,086,500	49,006	7,123,836	77,098	
1995	7,049,899	56,762	9,424,160	101,993	
1996	7,846,486	63,176	11,608,787	125,636	
1997	8,878,956	1,032,470	13,400,418	1,791,631	

1998	10,455,818	1,576,862	15,130,101	1,729,683	

(7) 역대 조합장

구분 / 대	이름		재임기간		본적	참고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채경희	蔡敬熙	'73. 10. 02	'75. 10. 02	신광면 보여리	
2	김영균	金寧均	'76. 02. 09	'78. 05. 08	〃 백운리	
3	노장섭	盧長燮	'78. 05. 30	'80. 07. 30	〃 동정리	
4	김두섭	金斗燮	'81. 04. 27	'84. 04. 26	〃 가덕리	
5	오종봉	吳宗奉	'84. 04. 27	'87. 04. 26	〃 유천리	
6	모영규	牟永圭	'87. 04. 27	'90. 03. 16	〃 삼덕리	
7	오종봉	吳宗奉	'90. 03. 17	'94. 03. 16	〃 유천리	재선
8	노진성	魯鎭城	'94. 03. 17	'98. 08. 08	〃 유천리	

<자료 제공자 : 차장 모상유>

4) 천지농업협동조합



천지농협

(1) 소 재 지 :

학교면 학교리 878-65

(2)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 면적 1,680㎡. 건평 665㎡.철근 콘크리드 스라브 2층

(3) 부대시설

- 사 거 지 소 : 1동 561㎡
  철근콘크리드 스라브 2층
- 양 곡 창 고 : 7동 2,313㎡
- 비료 창고 기타 : 5동 807㎡
- 친환경사업소(생장물사업장) : 1동 9,628㎡
- 집 하 장 : 1동 331㎡
- 하 나 로 마 트 : 1동 152㎡
- 저 온 저 장 고 : 1동 772㎡

(4) 연 혁

- 1972. 10. 30 관내 철성, 금송, 중부, 진례, 이동조합 합병
- 1973. 01. 01 학교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73. 04. 07 비료업무 인수
- 1973. 05. 10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74. 09. 01 판매장 신축
- 1975. 12. 19 정부양곡 보관 창고 신축 (학교 1호)
- 1976. 05. 26 함평군농협 학교지소 인수 사무소 이전
- 1976. 12. 31 정부양곡 보관 창고 신축 (학교 2호)
- 1977. 07. 05 연쇄점 개점
- 1978. 12. 20 정부양곡 보관 창고 신축 (학교 3호)
- 1979. 11. 01 환 업무 개시
- 1985. 08. 26 사거예금취급소 개설
- 1987. 05. 07 종합사무소 준공 이전
- 1989. 04. 01 학교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89. 08. 10 온라인 업무 개시
- 1991. 08. 24 사거예금취급소 온라인 개시
- 1991. 08. 31 사거예금취급소 지소 승격
- 1992. 01. 27 사거지소 사무소 준공 이전
- 1992. 06. 01 저온 저장고 준공
- 1996. 10. 12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 2006. 03. 31 학교농협과 엄다농협 신설합병 / 천지농협으로 개칭
- 2006. 05. 01 미곡종합처리장 함평군관내농협 통합
- 2008. 03. 30 친환경사업소 준공(생장물사업장)
- 2009. 07. 31 APC 확장 준공

(5) 조합원수 및 출자금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천 원)	비 고
1972			1,321	6,554	
1975	50		1,475	19,834	
1982		22	2,142	131,039	
1985	45	123	2,032	158,848	
1988	12	212	1,776	193,911	
1991	51	17	1,722	177,015	
1994	17	16	1,767	185,415	
1996	24	9	1,821	211,033	
1997	73		1,894	247,736	
1998	51		1,945	274,420	
1999	31	244	1,732	298,425	
2000	50		1,782	357,505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천 원)	비 고
2001	64	126	1,720	546,107	
2002	33		1,753	634,422	
2003	40	42	1,751	841,352	
2004	20	69	1,702	996,165	
2005	48	45	1,705	1,259,565	
2006	51		2,774	2,071,020	엄다농협과 합병
2007	67	108	2,733	2,071,740	
2008	72	62	2,743	2,121,655	

(6)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도	예 금		대 출		참 고
	금 액(천원)	성 장 률	금 액(천원)	성 장 률	
1982	780,560	8,013	1,543,568	20,158	창립년 지수=100
1983	791,155	8,122	1,832,564	23,933	창립년 예금액 9,740천원
1984	896,735	9,206	1,873,978	24,474	창립년 대출 7,657천원
1985	1,250,461	12,838	2,354,398	30,748	
1986	1,616,395	16,595	2,905,605	37,947	
1987	2,304,516	23,660	3,890,649	50,811	
1988	2,314,720	23,765	4,678,056	61,095	
1989	4,895,006	50,256	7,069,275	92,324	
1990	6,240,701	64,155	9,981,470	130,357	
1991	7,938,346	81,502	10,439,789	136,343	
1992	10,430,433	107,088	11,372,003	148,517	
1993	13,242,290	135,957	13,060,354	170,567	
1994	16,549,736	169,915	14,818,018	193,522	
1995	18,534,800	190,295	16,873,153	220,362	
1996	21,894,213	224,786	19,074,148	249,107	
1997	24,169,660	248,148	23,756,834	310,262	
1998	24,459,832	251,127	26,114,008	341,047	
1999	26,782,419	274,973	26,308,373	343,585	
2000	30,628,042	314,456	27,042,365	353,171	
2001	33,573,464	344,696	27,712,302	361,921	
2002	34,148,383	350,599	26,242,742	342,728	
2003	35,745,471	366,996	27,330,047	356,928	
2004	38,735,752	397,697	27,284,778	356,337	
2005	39,483,715	405,376	27,523,887	359,460	
2006	57,901,497	594,471	48,718,058	636,255	엄다농협과 합병
2007	60,661,394	622,806	46,263,530	604,199	
2008	61,637,409	632,827	44,358,244	579,316	

(7) 역대 조합장

구분 / 대	이 름		재 임 기 간		본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조 철 주	曺 哲 周	'72. 10. 30	'73. 03. 31	학교면 백호리
2	지 길 상	池 吉 相	'73. 04. 01	'76. 03. 31	〃 죽정리
3	지 길 상	池 吉 相	'76. 04. 01	'78. 06. 18	〃 〃

구분 / 대	이름		재임기간		본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4	정경수	鄭景壽	'78. 06. 19	'81. 06. 10	〃	마산리
5	문기택	文基澤	'81. 08. 03	'84. 04. 30	〃	학교리
6	노삼영	魯三英	'84. 05. 01	'87. 04. 30	〃	〃
7	노삼영	魯三英	'87. 05. 01	'90. 02. 26	〃	〃
8	임재상	林載尙	'90. 02. 27	'94. 02. 26	〃	월산리
9	임재상	林載尙	'94. 02. 27	'98. 02. 26	〃	〃
10	임재상	林載尙	'98. 02. 27	'02. 02. 26	〃	〃
11	노종석	魯鍾釋	'02. 02. 27	'06. 02. 26	〃	복천리
12	노종석	魯鍾釋	'06. 02. 27	'08. 03. 30	〃	〃
13	정태연	鄭太淵	'08. 03. 31	현재	〃	사거리

<자료 제공. 대리 정석준(鄭錫俊)>

5) 천지농업협동조합 엄다지점

(1) 소 재 지 :

엄다면 엄다리 760-6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 대지면적 2,021㎡. 건평 416㎡.
철근콘그리트 스라브 2층



엄다지점

(3) 부대시설

- 양곡보관 창고 7동 2,640㎡
- 비료 창고 3동 693㎡
- 농약보관 창고 1동 264㎡
- 연 쇄 점 1동 181.5㎡
- 강제 건조시스템 양파 저장고 1동 165㎡

(4) 연혁

- 1969. 07. 27 : 8개 이동조합 합병추진위원회 구성
- 1969. 08. 16 : 엄다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
- 1970. 07. 28 : 종합시설(사무실) 준공
- 1970. 08. 20 : 중앙회에서 상호금융업무 이관
- 1970. 09. 10 : 중앙회에서 비료업무 이관
- 1977. 10. 19 : 정동 양곡보관 창고 330㎡ 신축 준공
- 1978. 05. 10 : 성천, 베다니 양곡보관 창고 각각 330㎡ 신축 준공
- 1979. 02. 25 : 구 엄다공회당 인수
- 1979. 11. 30 : 군조합 소유 송로 양곡보관 창고 인수

• 1981. 12. 07 : 농기구 서비스센타 개점
• 1982. 12. 31 : 개인 소유 별뫼 양곡보관 창고 2동 660㎡ 인수
• 1986. 02. 28 : 엄다면 소재지 비료보관 창고 165㎡ 신축 준공
• 1992. 07. 20 : 성천리 소재 비료보관 창고 165㎡ 신축 준공
• 1994. 07. 10 : 종합시설(사무실) 신축 이전
• 1997. 08. 31 : 강제 건조시스템 양파보관 창고 신축 준공
• 2006. 03. 31 : 학교농협과 신설합병 / 천지농협으로 개칭 (천지농협 엄다지점)

(5) 조합원수 및 출자금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천 원)
1 9 6 9	925		925	6,500
1 9 7 5	1,115		1,115	19,457
1 9 8 2	8	15	1,218	78.882
1 9 8 5	17	77	1,150	81,131
1 9 8 8	84	128	1,117	103,906
1 9 9 1	18	46	1,059	114,301
1 9 9 4	24	10	1,005	148,257
1 9 9 6	10	0	1,007	152,120
1 9 9 7	25		1,032	
1 9 9 8	29	47	1,014	
1 9 9 9	22	11	1,025	
2 0 0 0	67	29	1,063	
2 0 0 1	19	14	1,068	
2 0 0 2	21	11	1,078	
2 0 0 3	13	9	1,082	
2 0 0 4	21	46	1,057	
2 0 0 5	23	60	1,020	

(6)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도	예 금 금 액(천원)	대 출 금 액(천원)	참 고
1974	8,973	24,692	1974 지수 = 100
1975	27,293	35,270	
1976	32,227	47,287	
1977	53,733	273,262	
1978	113,128	502,444	
1979	159,412	732,605	
1980	186,023	1,227926	
1981	290,079	1,193381	
1982	373,157	991,486	
1983	309,342	1,117,324	

구분 / 연도	예금 금액(천원)	대출 금액(천원)	참고
1984	350,130	1,241,666	
1985	501,329	1,426,529	
1986	691,232	1,600,333	
1987	898,840	2,212,403	
1988	1,276,613	2,813,116	
1989	2,304,124	3,956,081	
1990	2,468,413	4,644,503	
1991	2,923,731	6,049,355	
1992	4,651,619	6,433,381	
1993	5,958,743	7,252,932	
1994	7,585,061	7,784,807	
1995	7,983,001	8,332,739	
1996	10,126,626	10,892,993	
1997	10,149,351	13,824,550	
1998	10,390,488	8,801,676	
1999	12,228,201	9,325,664	
2000	12,829,226	10,976,008	
2001	14,048,093	11,986,769	
2002	14,501,063	12,084,662	
2003	15,545,624	12,276,355	
2004	16,555,840	13,889,428	
2005	17,637,670	16,175,807	

(7) 역대 조합장

구분 / 대(代)	이름 한글	이름 한문	재임기간 취임	재임기간 퇴임	본적
1	조 성 도	趙 成 都	'69. 08. 16	'72. 02. 21	엄다면 삼정리
2	지 홍 재	池 弘 在	'72. 03. 01	'76. 02. 11	〃 학야리
3	장 주 식	張 周 植	'76. 02. 25	'78. 05. 08	〃 영흥리
4	정 영 집	丁 永 集	'78. 05. 30	'81. 05. 29	〃 성천리
5~7	이 부 헌	李 富 憲	'81. 06. 19	'90. 02. 28	〃 송로리
8	김 만 환	金 萬 煥	'90. 03. 01	'94. 02. 28	〃 영흥리
9	정 병 선	鄭 炳 善	'94. 03. 01	'98. 02. 28	〃 송로리
10	정 우 섭	丁 又 燮	'98. 03. 01	'02. 02. 28	〃 송로리
11	정 병 선	鄭 炳 善	'02. 03. 01	'06. 03. 30	〃 송로리

<자료 제공. 상무 최종선(崔鍾善)>

6) 나비골농업협동조합 대동지점

(1) 소 재 지 :

대동면 향교리 856-3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면적 1,643㎡. 건평 719.96㎡.



대동지점

(3) 연 혁

- 1972. 10. 31 : 6개 이조합(덕산, 용성, 운교, 금산, 서호, 연암)과 향교, 고시, 강운조합 합병 대동농업협동조합 발족
- 사무실 : 대동면 덕산리 1,052번지
  덕산리 비료 창고 60평, 40평,
  향교 비료 창고 24평, 15평 2개소 인수
- 1973. 01. 01 : 비료, 구매, 판매, 대부 업무 개시
- 1973. 04. 08 : 덕산리 355-2번지에 양곡 창고 107평 건립
- 1973. 07. 01 : 행정구역 개편으로 백호, 월송, 금곡, 상옥 합병
- 1974. 01. 01 : 상호금융 업무 개시
- 1974. 09. 01 :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4. 09. 18 : 향교리 908번지에 사무실 40평, 구판장 20평 신축
- 1974. 10. 08 : 덕산리에서 향교리로 사무실 이전
- 1975. 04. 15 : AID 창고 덕산, 향교, 금산리에 각각 1동 지음 (각각 100평)
- 1975. 12. 31 : 향교리 652번지에 도정공장 지음
- 1977. 07. 01 : 향교리 702-1번지에 양곡 창고 1동 신축
- 1977. 12. 30 : 도정공장 향교리 856번지로 이전
- 1978. 09. 22 : 덕산리 352번지에 양곡 창고 1동 신축
- 1984. 12. 20 : 향교리 856번지에 비료 창고 신축
- 1986. 01. 01 : 성장조합으로 승격
- 1987. 08. 15 : 농수산부장관 표창 받음
- 1989. 05. 09 : 대동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1. 10. 01 : 온라인 업무 개시
- 1993. 11. 18 : 지상 2층 연건평 218평 종합 청사 준공
- 2006. 07. 31 : 나비골농협과 합병(나비골농협 대동지점)

(4) 조합원수

단위 : 천원

연 별	가입 조합원수	탈퇴 조합원수	연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창립년도	1,737		1,737	1,327
1 9 7 5	46	5	1,330	21,901
1 9 8 2			1,762	95,768
1 9 8 5			1,658	97,925
1 9 8 8			1,510	103,833
1 9 9 1			1,243	96,832
1 9 9 4			1,237	99,600
1 9 9 6			1,191	108,687
1 9 9 7			1,142	189,400
1 9 9 8			1,112	244,600
1 9 9 9			1,089	365,200
2 0 0 0			1,126	402,510
2 0 0 1			1,140	448,275
2 0 0 2			1,185	475,550
2 0 0 3			1,211	491,770
2 0 0 4			1,285	521,220
2 0 0 5			1,324	543,705

(5)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천원

연 별	예 금	대 출	연 별	예 금	대 출
1 9 8 2	430,959	415,893	1994	10,064,000	4,227,423
1 9 8 3	429,940	461,787	1995	10,936,003	5,385,930
1 9 8 4	607,713	506,885	1996	13,863,000	6,957,000
1 9 8 5	785,446	637,612	1997	16,501,000	10,055,000
1 9 8 6	1,014,517	827,562	1998	17,846,500	16,450,000
1 9 8 7	1,588,684	1,245,159	1999	19,416,000	18,665,100
1 9 8 8	2,282,277	1,280,087	2000	20,125,412	19,145,000
1 9 8 9	2,822,585	1,644,501	2001	21,698,409	20,164,320
1 9 9 0	3,688,934	2,604,114	2002	21,969,703	19,700,866
1 9 9 1	4,919,426	3,059,690	2003	21,990,489	20,331,972
1 9 9 2	6,963,017	3,123,799	2004	22,488,564	20,966,403
1 9 9 3	8,182,107	3,681,903	2005	22,288,334	19,054,175

(6) 역대 조합장

대	성 명		취 임	이 임	참 고
1	이 점 순	李 点 淳	'72. 10. 31	'76. 04. 03	향 교 리
2	박 병 구	朴 炳 九	'76. 05. 25	'78. 05. 29	용 성 리
3	조 철 주	曺 哲 周	'78. 05. 30	'79. 10. 15	백 호 리
4	김 영 곤	金 永 坤	'79. 10. 16	'82. 10. 15	향 교 리

대	성	명	취 임	이 임	참 고
5	정 봉 곤	鄭 琫 坤	'82. 10. 16	'85. 11. 04	서 호 리
6	이 계 룡	李 啓 龍	'85. 11. 05	'88. 11. 05	덕 산 리
7	정 봉 곤	鄭 琫 坤	'88. 11. 05	'90. 02. 17	서 호 리
8	〃	〃	'90. 02. 17	'94. 02. 17	〃
9	김 영 복	金 永 福	'94. 02. 18	'98. 02. 17	덕 산 리
10	김 정 현	金 正 鉉	'98. 02. 18	'02. 02. 17	용 성 리
11	김 오 재	金 五 才	'02. 02. 18	'06. 07. 30	향 교 리

<자료 제공자 : 차장 김병옥(金炳玉)>

7) 나비골농업협동조합 나산지점



나산지점

(1) 소 재 지 :

나산면 삼축리 274-3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건평 231㎡. 업무용 토지 면적 24,275㎡

(3) 부대시설 :

- 하나로마트 199㎡.
- 판재장 199㎡.
- 창 고 171,579㎡
- 주유소 1,178㎡
- 미곡종합 처리장 11,040㎡

(4) 연 혁

- 1972. 06. 30 : 관내 10개 이동조합 중 수하리를 제외한 이동조합이 나산면 이동조합으로 합병
- 1972. 11. 05 : 사료업무 인수
- 1973. 08. 13 : 상호금융업무 취급 승인
- 1973. 09. 30 : 나산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3. 10. 05 : 신용, 공제, 구매 업무 인수
- 1975. 09. 17 : 연쇄점 신축 개점
- 1976. 03. 25 : 현 사무소 인수 이전
- 1979. 07. 01 : 수하단협 흡수합병과 수하분소 개점
- 1979. 10. 05 : 자립조합으로 승격
- 1979. 12. 31 : 농기계 서비스센터 개설
- 1980. 09. 17 : 유류 취급소 개설

- 1982. 12. 31 : 봉사조합으로 승격
- 1989. 04. 01 : 나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89. 08. 12 : 온라인 개설
- 1991. 12. 09 : 주유소 사업 인가
- 1993. 09. 24 : 함평군 우수 농, 수, 축산 직판장 개설(서울 장안동)
- 1994. 01. 01 : 복지조합으로 승격
- 1995. 10. 25 : 미곡 종합 처리장 준공
- 2002. 10. 31 : 농기구수리센타 폐쇄
- 2006. 02. 08 : 해보농협과 신설합병 / 나비골농협으로 명칭 변경(나비골농협 나산지점)

(5)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천원

연별	대 출 금	전년비 성장률	예 수 금	전년비 성장률	연별	대 출 금	전년비 성장률	예 수 금	전년비 성장률
1980	239,124		400,809		1993	5,391,872	10.3	8,331,098	15.0
1981	249,394	4.3	547,225	36.5	1994	6,748,919	25.2	10,285,949	23.5
1982	383,251	53.7	725,677	32.6	1995	9,379,794	39.0	11,323,310	10.1
1983	456,141	19.0	817,466	12.6	1996	12,262,366	30.7	13,023,406	15.0
1984	689,765	51.2	1,094,810	33.9	1997	14,773,544	20.5	15,407,308	18.3
1985	769,839	11.6	1,395,944	27.5	1998	17,278,246	16.9	18,026,550	16.9
1986	929,093	20.7	1,810,895	29.7	1999	19,006,071	10.0	19,829,205	10.0
1987	1,652,724	77.9	2,359,310	30.3	2000	22,807,285	19.9	20,820,665	4.9
1988	1,895,319	14.7	3,627,854	53.8	2001	24,548,072	7.6	21,788,279	4.6
1989	2,531,666	33.6	4,162,835	14.7	2002	23,276,346	-5.1	20,452,460	-6.1
1990	3,569,257	41.0	4,941,663	18.7	2003	23,366,301	0.3	21,264,944	3.9
1991	4,253,149	19.2	5,723,829	15.8	2004	22,738,665	-2.6	22,633,120	6.4
1992	4,887,356	14.9	7,246,925	26.6	2005	21,397,600	-5.8	21,217,553	-6.2

<자료 제공자 : 대리 권홍섭(權洪燮)>

(6) 역대 조합장

- 1~2대 최 병 권 1972. 6. 30 ~ 1978. 5. 29
- 3~5대 최 형 상 1978. 5. 30 ~ 1987. 5. 29
- 6대 김 영 채 1987. 5. 30 ~ 1990. 3. 15
- 7~9대 이 방 형 1990. 3. 16 ~ 2002. 3. 15
- 10대 이 삼 용 2002. 3. 16 ~ 2006. 2. 7

8) 나비골농업협동조합

(1) 소 재 지 :

해보면 문장리 822-31번지



나비골농협

(2) 시설현황 :

- 본점 • 사무실-대지 면적 2,468㎡
  - 건평 1,374㎡.
  -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 지하 1층 지상 2층
- 나산지점 • 사무실-대지 면적 1,200㎡
  - 건평 268㎡
  -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 지상1층
- 대동지점 • 사무실-대지 면적 1,488㎡
  - 건평 719㎡
  -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 지상2층

(3) 부대시설

- 농산물 집하장 • 대지 1,471㎡. • 건평 464㎡. 해보면 문장리 687-2번지
- 저온 저장고 • 대지 1,385㎡. • 건평 330㎡. 해보면 금덕리 410-4번지
- 저온 저장고 • 대지 5,686㎡. • 건평 991㎡. 대동면 향교리 652번지
- 청결고추,곡물 가공공장 • 대지 2,548㎡. • 건평 660㎡. 해보면 금덕리 409-2번지
- 농산물 선별장 • 대지 1,927㎡. • 건평 330㎡. 나산면 초포리 765-1번지
- 하나로마트(해보점) • 건평 330㎡. 해보면 문장리
- 하나로마트(나산점) • 건평 167㎡. 나산면 삼축리
- 하나로마트(대동점) • 건평 150㎡. 대동면 향교리
- 주유소 • 대지 1,119㎡. • 건평 178㎡. 나산면 삼축리 345-1번지
- 농산물 직판장 • 건평 230㎡. 서울 장안동 335-1번지

(4) 연 혁

- 1971. 10. 11 : 금덕, 해보남, 해보서, 해보의 4개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해보농협을 설립
- 1972. 11. 05 : 비료업무 개시
- 1973. 08. 13 : 상호금융업무 취급
- 1973. 10. 11 : 신용, 구매, 판매사업 실시
- 1974. 12. 30 : 양곡보관 창고 2동 660㎡ 신축 준공
- 1975. 06. 20 : 연쇄점 개장
- 1977. 10. 19 : 상곡리 양곡보관 창고 330㎡ 신축 준공
- 1978. 10. 24 : 상곡리 양곡보관 창고 330㎡ 신축 준공
- 1980. 10. 01 : 성장농협으로 승격
- 1982. 06. 30 : 사무실 및 연쇄점 신축 이전. 발미 양곡보관 창고 330㎡ 신축
- 1989. 04. 01 : 해보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89. 08. 12 : 종합 온라인 개시
- 1989. 12. 23 :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신축
- 1993. 05. 31 : 현 종합 사무실 신축
- 1994. 11. 10 : 군부대 부식 납품 실시
- 1996. 12. 31 : 봉사농협으로 승격
- 1997. 09. 25 : 청결 고춧가루, 곡물 가공공장 준공
- 1997. 09. 25 : 저온 저장고 준공 가동
- 2000. 09. 15 : 유통활성화사업 거점조합으로 선정
- 2001. 12. 31 : 조합경영평가 1등급조합 달성
- 2006. 02. 08 : 나산농협과 신설합병 / 나비골농협으로 명칭 변경
- 2006. 07. 31 : 대동농협과 합병

(5) 조합원수 및 출자금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천 원)
1971	24	26	1,811	26,165
1975	24	41	1,620	45,260
1982	21	63	1,350	93,435
1985	16	34	1,320	101,626
1988	28	80	1,194	97,789
1991	27	73	1,150	113,479
1994	37	10	1,196	143,982
1996	69	8	1,264	213,774
1997	63	52	1,275	269,540
1998	15	14	1,276	286,212
1999	31	18	1,289	329,920

구분 / 연별	가 입 조합원수	탈 퇴 조합원수	연 말 조합원수	출 자 금 (천 원)
2000	73	23	1,339	484,424
2001	48	14	1,373	556,075
2002	26	20	1,379	669,192
2003	53	98	1,334	800,145
2004	31	19	1,345	907,713
2005	35	95	1,285	1,044,548
2006	52	34	3,851	2,573,048
2007	120	63	3,908	2,804,808
2008	109	212	3,805	3,037,738

(6)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별	예 금	대 출	참 고
	금 액(천원)	금 액(천원)	
1982	464,231	1,187,495	창립년 지수=100
1983	571,230	1,446,381	
1984	701,646	1,779,560	
1985	720,928	1,897,608	
1986	854,711	2,601,170	
1987	1,490,540	3,992,258	
1988	2,490,602	4,568,244	
1989	3,043,687	5,524,273	
1990	5,678,001	6,688,940	
1991	4,917,703	7,524,106	
1992	6,321,500	8,697,092	
1993	8,067,706	9,561,351	
1994	9,363,388	12,521,323	
1995	10,017,505	14,499,720	
1996	12,626,694	18,029,607	
1997	14,432,763	23,213,270	
1998	15,702,272	23,533,835	
1999	17,168,467	24,988,632	
2000	18,823,015	27,328,767	
2001	21,586,090	26,682,484	
2002	23,670,863	26,982,420	
2003	29,287,705	27,561,664	
2004	26,731,570	28,978,502	
2005	26,373,662	28,044,202	
2006	69,548,229	66,375,070	나산농협.대동농협합병
2007	67,978,736	67,069,940	

구분 / 연별	예금 금액(천원)	대출 금액(천원)	참고
2008	69,274,278	65,246,036	

(7) 역대 조합장

구분 / 대(代)	이름 한글	이름 한문	재임기간 취임	재임기간 퇴임	본적
1	정 남 혁	鄭 南 爀	'71. 10. 11	'74. 10. 10	해보면 해보리
2	정 남 혁	鄭 南 爀	'74. 10. 11	'76. 04. 10	〃 〃
3	윤 선 식	尹 宣 植	'76. 05. 25	'78. 05. 07	〃 상곡리
4	윤 득 중	尹 得 重	'78. 07. 25	'81. 04. 28	〃 〃
5	장 광 휘	張 光 輝	'81. 05. 26	'84. 05. 25	〃 문장리
6	이 성 행	李 成 行	'84. 05. 26	'87. 05. 25	〃 〃
7	박 래 옥	朴 來 玉	'87. 05. 26	'90. 05. 25	〃 〃
8	박 래 옥	朴 來 玉	'90. 05. 26	'94. 03. 05	〃 〃
9	이 동 주	李 東 柱	'94. 03. 06	'02. 07. 24	〃 용산리
10	윤 한 수	尹 漢 洙	'03. 08. 20	'08. 07. 30	〃 상곡리
11	윤 한 수	尹 漢 洙	'08. 07. 31	현 재	〃 〃

<자료 제공자 : 전무 안을주(安乙柱)>



월야농협

9) 월야면(月也面)농업협동조합

(1) 소 재 지 :

월야면 월야리 463-3번지

(2) 시설현황 :

- 사무실·대지 면적 4,908㎡.
- 건평 396㎡. 철근 스라브

(3) 부대시설 :

- 하나로마트 및 식당 805.41㎡ 1동
- 농약판매장 158.16㎡ 1동
- 잡곡사업소 330㎡ 1동
- 비료양곡창고 2,790㎡ 8동

(4) 연　　혁

- 1972. 11. 28 : 월야면 리별농업협동조합 합병 설립(월동,대야이동조합 인수)
- 1981. 12. 28 : 종합청사 신축이전 128평(사무소,연쇄점), 월야리 463-3
- 1989. 04. 14 : 월야 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1. 01. 01 : 봉사농협으로 승격
- 1991. 08.　 : 유류 판매소 신축
- 1993. 03.　 :　　연쇄점 신축
- 1995. 02.　 : 농산물 판매장 신축
- 2002. 09. 01 : 하나로마트 확장이전과 365자동화코너 개장
- 2004. 10. 01 : 소포장 잡곡 가공사업소 사업 운영(100평), 월야리 463-3
- 2005. 07. 01 : 저온저장고 100평(50평규모 2개) 신규설치, 월야리 463-3
- 2007. 02. 08 : 하나로마트 및 한우식당 개장

(5) 조합원수

연　　별	가입조합원수	탈퇴조합원수	연말조합원수	출　자　금
1972	1,508		1,528	140,000
1975	12	5	1,515	177,000
1982	18	6	1,527	188,000
1985	11	4	1,534	195,000
1988	18	6	1,546	202,000
1991	17	4	1,559	205,000
1994	22	11	1,570	207,000
1996	25	7	1,588	211,000
1997	15	6	1,597	215,000
1998	39	28	1,667	262,000
1999	44	0	1,711	346,000
2000	75	85	1,704	566,000
2001	69	26	1,747	660,151
2002	34	30	1,751	699,016
2003	13	62	1,705	790,816
2004	20	102	1,638	876,753
2005	58	51	1,665	1,120,065
2006	38	46	1,677	1,209,436
2007	49	76	1,652	1,186,616
2008				

(6)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예 금 액	대 출 액	연 도	예 금 액	대 출 액
1982	2,700,000	3,500,000	1996	18,700,000	21,000,000
1983	3,100,000	3,900,000	1997	19,500,000	24,000,000
1984	3,500,000	5,100,000	1998	20,963,000	33,180,000
1985	3,900,000	6,100,000	1999	24,247,000	37,890,000
1986	4,700,000	7,500,000	2000	28,957,000	42,099,000
1987	6,500,000	8,100,000	2001	32,186,094	41,812,064
1988	7,000,000	8,300,000	2002	32,437,640	42,743,770
1989	8,100,000	9,700,000	2003	32,574,599	44,067,273
1990	9,500,000	9,500,000	2004	35,806,531	44,204,805
1991	10,100,000	10,700,000	2005	37,151,606	41,528,252
1992	12,000,000	11,500,000	2006	37,422,708	38,333,826
1993	14,100,000	13,000,000	2007	32,723,933	36,355,596
1994	15,500,000	17,000,000	2008		
1995	17,000,000	18,000,000			

(7) 역대 조합장

구분 / 대수	이 름		재 임 기 간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정 흥 선	鄭 興 善	'72. 01. 01	'74. 04. 22
2	이 은 묵	李 殷 默	'74. 04. 23	'77. 02. 21
3	정 진 재	鄭 鎭 在	'77. 02. 22	'78. 05. 08
4	정 용 식	鄭 龍 植	'78. 06. 01	'81. 05. 31
5	정 무 경	鄭 戊 暻	'81. 06. 01	'84. 05. 31
6	장 종 진	張 鍾 鎭	'84. 08. 23	'87. 08. 24
7	정 태 환	鄭 台 煥	'87. 08. 25	
8	정 태 환	鄭 台 煥		'94. 03. 07
9	이 환 주	李 鍰 周	'94. 03. 08	'98. 03. 07
10	정 한 식	鄭 漢 植	'98. 03. 08	'02. 03. 07
11	노 병 량	魯 炳 亮	'02. 03. 08	'06. 03. 07
12	정 상 진	鄭 相 鎭	'06. 03. 08	현 재

<자료 제공자 : 계장 최선아(崔瑄娥)>

4. 광주은행 함평지점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1005

2) 시설현황 :

사무실-대지 698㎡.건평 262.56㎡.라면조 스라브 3층



광주은행 함평지점

3) 연 혁

· 1992. 02. 25 : 개점

4)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별	예 금	대 출
	금 액	금 액
1992	4,975	3,429
1993	9,388	5,804
1994	16,396	8,430
1995	20,708	10,935
1996	23,553	11,607
1997	23,655	11,337
1998	21,354	12,831
1999	17,294	11,855
2000	14,951	12,878
2001	14,226	12,365
2002	18,047	15,505
2003	18,289	19,802
2004	16,565	21,292
2005	16,661	22,052
2006	20,985	25,375
2007	23,968	25,401
2008	26,676	26,788

5) 역대 지점장

대(代)	이 름	취 임	퇴 임	본 적
1	이 화 룡	'92. 02. 25	'93. 03. 28	함 평 군
2	노 관 숙	'93. 03. 29	'95. 01. 08	〃
3	양 흥 덕	'95. 01. 09	'96. 07. 15	광주광역시
4	최 정 석	'96. 07. 16	'98. 02. 28	강 진 군
5	최 재 방	'98. 03. 01	'00. 01. 07	
6	신 영 일	'00. 01. 08	'01. 07. 24	
7	정 성 우	'01. 07. 25	'02. 07. 15	
8	김 상 수	'02. 07. 16	'04. 07. 11	
9	김 병 국	'04. 07. 12	'05. 12. 29	
10	이 종 하	'05. 12. 30	'08. 12. 22	
11	이 광 호	'08. 12. 23	현 재	

<자료 제공자 : 김정란>

5. 제 2 금융권

금융기관의 외곽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유사한 자금 중개 기관을 총칭한다.

제2금융권은 지방경제가 발전된 1970년대부터 함평군에 진출하였는데 신용금고, 각종 보험, 새마을금고며 건전한 자금을 흡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신용협동조합

1949년 독일에서 농민과 소시민이 자립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1958년에는 미국에 국제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창설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 부산에 첫 신용협동조합이 개설되었고 함평에는 1973년에 문장조합, 1979년에 함평조합이 발족되었다

(1) 함평(咸平)신용협동조합



함평신협

①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884-7

② 시설현황 :

사무실 • 대지 445㎡.
• 건평 1,224㎡㎡.
•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③ 연혁

• 1979. 03. 18 : 장총빈, 노광숙이 발기하여 조합원 38명 자산 49,000원으로 창립함
• 1980. 04. 26 : 기각리 860-3번지로 사무실 이전
• 1981. 02. 07 : 함평신협장학회 발족
• 1982. 08. 11 : 재무부장관의 조합법인 설립 인가
• 1984. 10. 30 : 자체 회관 매입
• 1989. 05. 31 : 지역사회 개발사업 실시 중앙회장 승인 받음
• 1990. 02. 22 : 중앙회장 우수조합 표창 받음
• 1992. 02. 27 : 〃
• 1994. 02. 26 : 함평신협 15년사 발간
• 1995. 07. 03 : 학교지소 개점
• 1996. 10. 29 : 전남지사로부터 저축 우수조합 표창을 받음
• 1997. 01. 24 : 신축회관 개관 (14억 소요)

• 1997. 06. 30 : 조합 공동 유대지역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면의 6개 읍면으로 정관 개정,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신용사업, 비료사업, 사료사업, 교육사업, 장학사업, 유통협동사업 등이다.
• 1998. 05. 12 : 신협법 개정으로 정관 변경
• 2003. 03. 05 : 학교지소 폐쇄
• 2004. 02. 19 :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학교지소 폐쇄등기

④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별	예금 금액	대출 금액	참고
1979	9	8	설립년 지수=100
1981	156	139	
1984	349	283	
1987	869	487	
1991	2,538	1,962	
1993	5,003	2,848	
1994	7,315	4,252	
1995	10,002	7,506	
1996	15,800	12,219	
1997	13,047	11,663	
1998	15,173	11,686	
1999	16,729	15,058	
2000	16,803	14,179	
2001	20,519	13,669	
2002	20,106	13,778	
2003	17,671	13,353	
2004	18,732	13,153	
2005	20,223	12,378	
2006	19,215	12,089	
2007	18,011	13,064	
2008			

⑤ 역대 이사장

구분 / 연별	이름 한글	이름 한문	재임기간 취임	재임기간 퇴임	본적
1	노광숙	魯侊塾	1979. 03. 18	1981. 02. 06	함평읍 함평리
2	노광숙	魯侊塾	1981. 02. 07	1983. 02. 08	〃 〃
3	노광숙	魯侊塾	1983. 02. 09	1985. 02. 08	〃 〃
4	이상복	李相福	1985. 02. 09	1987. 02. 12	〃 내교리
5	최홍식	崔洪植	1987. 02. 13	1989. 02. 09	〃 〃
6	이상복	李相福	1989. 02. 10	1989. 09. 18	〃 〃
7	이건학	李建學	1989. 09. 19	1992. 02. 09	〃 기각리
8	노광숙	魯侊塾	1992. 02. 10	1995. 02. 09	〃 함평리
9	노광숙	魯侊塾	1995. 02. 10	1998. 01. 23	〃 함평리
10	노광숙	魯侊塾	1998. 01. 24	2002. 01. 29	〃 함평리
11	노광숙	魯侊塾	2002. 01. 30	2006. 02. 22	〃 함평리
12	김수개		2006. 02. 23	현 재	

<자료 제공. 과장 임철순>

(2) 문장(文場)신용협동조합

① 소 재 지 :

해보면 금덕리 407-20번지

② 시설현황 :

사무실 : • 대지 46㎡.
• 건평 75㎡.
• 시멘트 벽돌 스라브 단층

③ 연 혁



문장신협

• 1972. 09. 04 : 법인 발기인 대회
• 1972. 10. 11 : 법인 창립총회
• 1973. 03. 12 : 법인 등기필(함평등기소 제1호)
• 1974. 07. 16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가입
• 1981. 03. 03 : 국제 공제협동조합 가입
• 1982. 01. 01 : 법인 사업자 등록

(412-82-00835)

• 1984. 07. 31 : 중앙회 안전기금 가입
• 1988. 05. 21 : 생명공제 및 장학공제 업무 개시
• 1992. 01. 08 : 조합 사무실 구입 이전
• 1992. 08. 19 : 노후생활 연금공제 업무 개시
• 1993. 08. 18 : 업무 전산화
• 1996. 05. 01 : 타행환 송금업무 개시
• 1996. 06. 19 : 해보, 월야, 나산면 유대지역 확장 승인
• 1998. 07. 29 : 은행 제휴 업무 개시
• 2000. 12. 18 : 조합간 온라인 업무 개시
• 2001. 09. 20 : 금융결재원 참가 승인
• 2008. 09. 06 : 신협중앙회 수표업무 개시
• 2009. 03. 14 : 문장신협 수표발행 업무 개시

④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별	예 금	대 출
1980~1985	859	894

연 별	예 금	대 출
1986~1989	1,278	1,217
1 9 9 0	604	566
1 9 9 1	634	608
1 9 9 2	1,302	689
1 9 9 3	1,570	802
1 9 9 4	1,915	980
1 9 9 5	2,374	1,296
1 9 9 6	4,180	1,881
1 9 9 7	4,821	2,186
1 9 9 8	5,536	2,194
1 9 9 9	4,923	2,973
2 0 0 0	5,519	3,793
2 0 0 1	6,866	4,024
2 0 0 2	7,248	4,977
2 0 0 3	6,755	5,393
2 0 0 4	7,800	6,122
2 0 0 5	10,832	7,421
2 0 0 6	12,644	10,195
2 0 0 7	15,590	13,718
2 0 0 8	16,688	13,945

⑤ 역대 이사장

대(代)	이 름	취 임	퇴 임
1	안 승 현	'72. 10. 11	'74. 03. 10
2	장 두 병	'74. 03. 10	'77. 01. 24
3~4	백 용 선	'77. 01. 24	'79. 02. 13
5	이 훈 섭	'79. 02. 14	'81. 02. 16
6~7	윤 태 수	'81. 02. 17	'85. 02. 05
8~11	신 창 순	'85. 02. 06	'93. 06. 10
12	곽 상 일	'95. 02. 27	'98. 02.
13~14	곽 상 태	'98. 02.	'03. 02.
15	장 두 병	'03. 02.	'06. 02.
16	정 순 종	'06. 02.	'09. 02.
17	윤 득 중	'09. 02.	현 재

2) 보험회사

1947년 4월 8일 미군정의 지시 통첩으로 일본 보험영업을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가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473호 보험업법이 공포되어 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증한다는 뜻으로 함평군에도 각종 보험회사의 영업소, 지소, 대리점 등이 설립되었다.

(1) 대한보증보험 함평동산대리점

①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② 연 혁

1995. 04. 26 개점

③ 가입 건수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가입		지출
	건 수	금 액	
1 9 9 5	343	4,860	0
1 9 9 6	588	9,936	0
1 9 9 7	665	10,408	0

④ 역대 점장

1대 김계남(金桂男) 1995. 04. 26~현재

(2) 대한화재해상보험 함평영업소

① 소 재 지 :

학교면 사거리 628-3

② 연 혁

1996년 4월 1일 영업 개시

③ 가입 지불 상황

연(年)	가입건수	금 액(백만원)	지출건수	금 액(백만원)
1996	288	157		

④ 역대 소장

1대 전갑성(全甲成) 1996. 4. 1~ 현재

(3) 삼성화재해상보험 함평영업소

① 사무소 :

함평읍 기각리 822-1

② 연 혁

- 1995. 01 나산면 소재지에서 개소
- 1996. 04 함평읍 기각리 258-3번지로 사무소 이전
- 1997. 06 함평읍 기각리 822-1번지로 사무소 이전
- 1997. 06 출장소로 승격

③ 가입 지불 상황

연(年)	가입건수	금 액(백만원)	지출건수	금 액(백만원)
1966	495	248	30	150
1997	1,080	540	21	340

④ 역대 소장

1대 강정렬(姜正烈) 1996. 04. 01~현재

(4) 현대해상화재보험 함평영업소

①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② 연 혁 :

1992. 1. 1 개소(開所)

③ 가입 건수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가입		지출(사고)		지출(만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2	400	184,000	32	75,000	30	15,000
1993	820	305,000	40	63,000	45	40,000
1994	1,050	450,000	47	165,000	38	52,000
1995	1,100	506,000	39	80,000	120	103,000
1996	1,200	653,000	52	134,500	135	180,000
1997	1,150	745,000	46	215,000	117	205,000

④ 역대 영업소장

1 대 김계남(金桂男) 1992. 01. 01 ~ 현재

(5) 교보생명보험 함평영업소 : 함평읍 내교리 205-1

(6) 대한생명보험 함평영업소 : 함평읍 내교리 204-3

(7) 동부화재해상보험 함평대리점 : 함평읍 기각리 1043-65

(8) 동아생명보험 함평영업소 : 함평읍 내교리 215

(9) 삼성생명보험 함평영업소 : 함평읍 기각리 1005

(10) 흥국생명보험 함평영업소 : 함평읍 기각리 496

3) 새마을금고

1972년 8월 마을금고법이 특별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마을 주민, 직장 동료, 단체회원들이 상부상조하는 협동 조직을 만들어 근검 절약하는 기풍속에 자체 자금을 조성하고 회원간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부 활용하여 개인은 물론 마을 공동 발전에 큰 몫을 하였다.

1984년 3월말 조사에 따르면 함평군에는 함평군청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새마을금고가 운영되었는데 1997년말에는 함평, 해보, 월야새마을금고만 존속하고 있다.

참고로 1984년 3월말 조사 자료를 여기에 옮기고 존속하는 새마을금고는 자세한 상황을 소개한다.

<1984. 3월말 조사 자료>

읍면별	금고 이름	이사장명	회원수	자산(천원)	출자금(천원)	사무소 소재지	참 고
함 평 읍	함평군청	정 영 탁	173	13,000	11,000	함평읍 함평리	
〃	함 평	박 선 구	408	50,000	13,000	〃 내교리	'97년 현재 존속
엄 다 면	삼 정	조 성 룡	94	30,000	22,000	엄다면 삼정리	'92. 12. 31 해체
대 동 면	대 동	김 익 곤	194	10,000	4,000	대동면 향교리	
월 야 면	새 죽 산	정 규 선	62	14,000	3,000	월야면 월악리	'97년 현재 존속
〃	백 야	정 순 섭	99	7,000	5,000	〃 외치리	
대 동 면	고 시	이 세 계	50	4,000	3,000	대동면 향교리	
해 보 면	해 보	정 진 상	215	80,000	20,000	해보면 금덕리	'97년 현재 존속
나 산 면	용 두	유 순 식	40	7,000	3,000	나산면 용두리	
월 야 면	내 세	정 병 창	46	4,000	3,000	월야면 용월리	
계	10		1,381	219,000	87,000		

(1) 함평(咸平)새마을금고

① 소 재 지 :

함평읍 내교리 165번지

② 연 혁

- 1977. 04. 27 서부마을금고 창립총회
- 1979. 11. 14 법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 1983. 01. 25 함평새마을금고로 개칭. 함평읍 전지역 관할
- 1977. 함평, 손불, 대동, 학교, 엄다면 유대 구역으로 인가
- 1997. 10. 31 자산 30억 조성 돌파

③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도	예 금	대 출
	금 액	금 액
1977	100만원	
1985	1억원	8천만원
1990	7억원	8천만원
1992	13억원	7억원
1993	16억원	12억원
1994	20억원	6억원
1995	22억원	6억원
1996	24억원	4억5천만원

④ 역대 이사장

• 박선구(朴先求) 1977. 04. 27~현재

< 자료 제공. 김옥애(金玉愛) >

(2) 해보(海保)새마을금고

① 소 재 지 :

해보면 문장리 822-17

② 시설현황 :

사무실 • 대지 112㎡. 건평 180.4㎡. 라멘조 스라브 2층

③ 연 혁

• 1982. 04. 20 : 금고 자연 설립(향지회)
• 1983. 07. 01 : 법인 설립 인가 (10-169-8호)
• 1983. 09. 0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법인 변경 (10-169-008호)
• 1984. 02. 29 : 연합회 안전 기금에 가입
• 1991. 02. 10 : 금고 정관 변경 인가 (공동유대권 해보면 일원)
• 1991. 09. 25 : 자체 회관 부지 매입
• 1992. 10. 03 : 사무실 및 2층 회관 준공
• 1993. 10. 25 : 사무 전산화 완료
• 1995. 03. 25 : 전국 온라인 설치 업무 개시
• 1996. 11. 06 : 금고 정관 변경 인가 (공동유대권 해보, 나산면 일원)

④ 예금, 대출 실적

구분 / 연별	예 금	대 출
	금 액(백만원)	금 액(백만원)
1986	125	110
1987	228	178
1988	316	231

1989	475	381
1990	682	580
1991	902	661
1992	1,184	843
1993	1,648	1,230
1994	1,988	1,238
1995	2,363	1,419
1996	2,674	1,946

⑤ 역대 이사장

구분 / 대(代)	이름		재임기간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정진상	鄭鎭相	'82. 04. 20	'84. 01. 09
2	〃	〃	'84. 01. 10	'86. 01. 17
3	최병문	崔炳文	'86. 01. 18	'88. 07. 23
4	이창범	李昶範	'89. 02. 10	'93. 03. 02
5	윤선식	尹宣植	'93. 05. 04	'97. 01. 22
6	〃	〃	'97. 01. 23	현재

<자료 제공. 과장 윤갑연(尹甲連) >

(3) 월야(月也)새마을금고

① 소 재 지 :

월야면 월야리 713-11

②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 181㎡. 건평 39.3㎡. 벽돌 철근콘크리트

③ 연 혁

- 1977. 02. 28 : 발기인 대회 개최
- 1980. 11. 25 : 창립총회 개최
- 1981. 01. 29 : 법인 설립 (8-276). 명칭 : 새죽산마을금고
- 1983. 05. 07 : 새죽산새마을금고로 명칭 변경
- 1984. 07. 20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법인 변경
- 1991. 01. 19 : 월야새마을금고로 명칭 변경
- 1991. 07. 30 : 사무실 월악리에서 월야리 713-5번지로 옮김
- 1992. 12. 29 : 공과금 수납대행 계약 체결
- 1996. 05. 24 : 사무 전산화 개시
- 1997. 01. 01 : 타행환 송금 개시
- 1999. 05. 26 : 전국 온라인 개통
- 2001. 09. 20 : 금융결재원 가입
- 2005. 02. 25 : 함평군민 새마을금고 합병, 함평천지새마을금고로 명칭변경

• 2006. 12. 08 : 내국환거래 체결
• 2008년 12월말 31일 기준
  • 회원수 : 7,057명
  • 임원수 : 14명
  • 직원수 : 8명
  • 자산액 : 23,195,000천원

④ 예금, 대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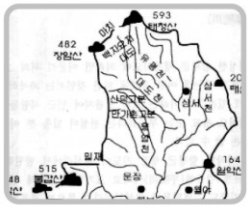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연 별	예 금(백만원)	대 출(백만원)
1991	373	199
1992	598	502
1993	1,110	608
1994	1,310	770
1995	1,795	975
1996	2,800	1,82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382	
2003	13,549	
2004	17,510	
2005	17,601	
2006	19,199	
2007	18,415	
2008	21,097	

⑤ 역대 이사장

구분 / 대(代)	이 름	한 문	재 임 기 간	
			취 임	퇴 임
1	정 규 선		'77. 02. 28	'89. 07. 22
2	정 계 환		'89. 07. 23	'96. 07. 31
3	정 언 수		'96. 08. 01	'02. 06. 03
4	김 영 채		'02. 06. 04	'03. 02. 10
5	김 도 중	金 道 中	'03. 02. 11	현 재

<자료 제공. 상무 박형기>

제6장 교 육(敎育)



제1절 현대 교육 정책의 변천

1. 한말(韓末)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

한말은 봉건제도, 세습적 계급제도의 사회, 유교와 모화사상(慕華思想)이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말의 교육정책은 상류사회의 양반계급을 위한 전통적 교육이었으며 무(武)의 천시와 문(文)의 숭배, 그리고 남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교육행정 면에서는 중앙집권체제로서 최고 행정기구로는 예조를 두고 지방에는 관찰사 밑에 예방을 두어 교육사무를 맡게 하였다.

학제(學制)를 살펴 보면 초등교육 기관으로는 사학(私學)인 서당이 있었고, 중등교육 기관으로 서울에 사학(四學)과 지방에 향교 및 서원이 있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국비로 운영하는 성균관(成均館)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학제는 현재의 초·중·고등교육 기관과 같은 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마다 하나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교육은 존고주의적(尊古主義的) 교육을 지향 하였으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능보다는 과거에 응시하여 입신출세를 통한 개인의 영달에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미 열강들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 땅에 신교육이 소개되었으나 도입된 현대적 개념의 교육이 정착하는 데는 정신적, 물질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본에 의해 좌우되었다.

일제강점하의 36년간 4차의 교육령에 의거해 식민지 교육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일본은 일시동인(一視同人)이라는 표어 아래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압제를 가하였다.

복선형(複線型) 학제를 실시하여 시세와 민도에 맞게 한국인을 교육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일어교육의 강조,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의 치중, 사학의 탄압 및 철저한 차별교육으로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고,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가. 일제의 교육정책 방향

· 우민화의 기본방침 · 점진적인 동화정책
· 일본인 교원 배치와 교과를 통한 친일강화정책(사립학교령, 학회령)
· 사립학교령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성향이 불량한 자를 교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 교과서 가운데 통감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종교학교 운영자 중 통감부에 반감을 가진 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규정의 사립학교령 발효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다.

나. 일제의 교육 vs 우리의 교육

· 일제는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 교육을 이용
·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이용

다. 무단통치기의 교육정책(1910~1919)

· 배경 : 조선인에 대한 무단통치와 아울러, 보다 철저한 조선인의 정신적 개조와 민족사상의 말살을 위한 교육개혁이 단행

·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 :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등의 제반 규칙과 학교 관제에 관한 관계 법규가 공포 '사립학교령'을 '사립학교규칙'으로 개정 공포, 종래 '사립학교규칙' ⇒ '개정사립학교규칙' 공포

라. 문화통치기의 교육정책(1919~1936)

· 무단정치 ⇒ 문화정치 조선회유책, 대외선전용의 기만적 술책에 불과, 문화정책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모색, 보통학교를 비롯한 각 급 학교를 확충, 정비.

·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 일부를 개정 ⇒ 일본 전문학교와의 연계사립학교 규칙을 일부개정 ⇒ 성경 과목의 교수를 허락,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완화, 종교와 교육의 절대 분리주의를 다소 수정

· 제1차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 ⇒ 보통학교 본과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시키고, 고등보통학교에 2개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는 등의 학제를 개편,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조직함 ⇒ 본격적인 교육제도 개편작업 시작

·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
· 개정된 교육령에 따른 교육제도의 변화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 4년 ⇒ 6년, 고등보통학교 : 4년 ⇒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 4년(또는 5년)
- 종래 각급학교에서 폐지되었던 조선어가 필수과목으로 더해짐

-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함
- 사범학교 대학 설치의 길을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함
-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를 따름

마. 군국주의 침략기의 교육정책(1936~1945)

- 배경 :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교육방침으로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일과 조선인을 총동원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일에 모든 교육적 노력을 기울임.
- '교육, 즉 생활'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근로주의를 주장하고 초등교육의 확충, 농촌간이학교 제도의 창설, 사범교육기관의 확충, 실업교육의 진흥 도모, 조선에 대한 교육방침 : 황국신민화의 민족말살정책
- 3대 교육방침 :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바. '제3차 조선교육령'

- 신사참배 문제로 성경과목 폐지
- 전시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개편에 착수
- 전문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
- 조선교육령의 전면 개혁(제4차 조선교육령)
- 중학교 이상의 모든 학교에 대해 수업연한 단축
-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 주장

2. 미군정하의 교육정책(1945-1948)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고 락카아드(E.L.Lockard) 대위가 군정청 교육부문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이때의 급선무는 해방과 더불어 휴교상태에 있는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미군정청의 도움으로 교육심의회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는 새로운 교육이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나타난 교육이념의 시초인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교육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둘 수 있다.

- 민주교육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서 교사의 재교육에 주력, 강습회, 하계학교, 하계대학 개설
- 교수 용어의 한국어 사용
- 종래의 차별적인 성격을 가졌던 복선형에서 단선형(單線型)으로 학제를 개혁하고 초등학교 규정을 실시
- 성인 교육을 통한 문맹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공민학교(公民學校)를 설치(해방 당시

78%의 문맹률)

- 교육행정의 자치화, 지방 분권화 정책 추진
-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화 정책 추진
- 각급 교육 기관의 확충 추진
- 대학입시의 대학별 단독 시험제(45~53년) 시행
- 중·고등학교 입시의 학교 관리제(45~50년) 시행

가. 교육과정의 민주화

- 교사중심 ⇒ 아동중심
- 교과중심 ⇒ 생활중심
  - 교육기관의 확대(초등학교의 의무제 논의)
  - 중, 고등학교와 사범대학 및 종합 대학의 설립

나. 군정청 문교부가 '국대안 설립운동'

- 1946년 7월 문교부는, 경성대학교와 서울 시내 및 근교의 8개 관립전문학교, 사립학교인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일괄 통합
  -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종합대학교로 설립한다는 안(⇒서울대학교).
  - 미국의 국익 우선, 민주주의 실현 위한 미국식 교육방법과 이론 도입

3.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1948-1960)

1948년 8月 15일 제1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권이 우리 손에 이양되고, 초대 문교부장관에 안호상이 취임하였다.

안호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른 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제창, 교육 현장에 보급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군정(軍政)하에 수립되었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기초로하여 교육법을 제정하였는 바, 이 시기의 주요 교육정책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모든 교육제도를 통괄하는 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기반 구축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주요정책

- 6-3-3-4제의 단선형 학제실시
- 교육자치제의 구상
-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계획 수립
-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설립
- 중학교 입학국가고시의 실시
- 6·25 후에는 교육시설의 복구
- 교원의 양성 및 재배치를 비롯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확대
- 실업기술교육의 강화

- 교육자치제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집행
  - 각급 교육 기관의 확충과 교육 기회의 확대
  -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
  - 교육행정 기구의 확충과 자주화
- 교육재정의 독립을 위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교육공무원법 제정
- 중·고등학교 입시의 학교관리제(45-50年, 국가연합고시제(國家聯合考試制. 51~53년), 내신필답합산제(內申筆答合算制. 54~56년), 무시험 전형제와 연합출제 병행제(57~61년) 실시
- 대입(大入) 국가연합고사·본고사 병행제(54년), 대학별 시험·무시험(내신제) 병행제(55-61년) 실시 등 이런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장기간 남의 나라 통치 밑에서 살아오던 우리로서는 민주주의 교육이념 및 교육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교육 기관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크게 부족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의 부조리가 만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교육정책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미군정기간 동안 수립된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교육의 외형적 틀은 미국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교육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력들은 일제 관료경험이 있어서 일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수립 초기에 교육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외세에 대한 의존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토양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교육의 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4.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1960-1961)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집권이 단기간이었으므로 문교정책만 정했을 뿐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이 당시에 내세웠던 교육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 4.19 혁명정신에 입각한 문교정신의 구현
  - 민족문화의 부흥
  - 실업교육의 질적 강화
- 교육의 질적인 향상
  - 교육자치제의 확립
  - 대여장학금제도의 확립
- 재일교포의 교육 강화
  - 학제의 변경 등 또한 4.19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 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기도 하였다.

• 문교부 통제기능을 줄이기 위해 문교부의 여러 권한을 지방행정 기관으로 이양
•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범학교를 2년제의 교육대학으로 승격 및 연구원 발족
•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보급

정권의 수명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사회의 각계 각층은 정부에 무차별적 요구를 퍼부었고,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
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교원들이 정치적 집단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시기이었다.

5.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1961-1973)

5·16 군사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붕괴되고 혁명정부가 수립되어 제3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 당시의 교육정책은 5.16 혁명정신에 입각한 간첩침략의 분쇄, 인간 개조, 빈곤 타파, 문화 혁신 등의 방침이 주류를 이루었다.

혁명정부의 교육정책과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1969)
•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1973)
• 지방대학의 확충
•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설치
• 교원양성교육체제의 정비
• 방송통신교육제도의 확립 등
• 민족주체성을 확립, 새 국민상의 창조, 과학·기술교육의 강화로 생산 교육의 촉진
• 주요 교육정책으로 대단위 교육자치제, 대학예비고사,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선포, 중학교 평준화 등의 교육개혁 실시
• 문교행정상의 개혁으로 문교부 소관이었던 문화행정이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문교부는 교육에 관한 사항만 관할하게 되었으며, 문교부 산하에 과학교육국 신설
• 교육 재정상으로는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세법을 제정하여 교육 재정상의 안정 도모
• 학제에 있어서는 수업연한 5년제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창설되었다가 곧 폐지되고, 2년제의 교육대학 설립, 2년제의 사범대학제 폐지, 4년제 사범대학 설립, 2년제의 전문학교 제도 신설, 대학원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방안으로 방송통신대학 설립

- 대입 국가자격고시제(62~6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64~68년), 대학입학 예비고사·본고사 병행제(69~80년) 등의 실시
- 중·고입시 국가고시제(62~63년), 시·도별 공동출제(64~65년), 공동 및 단독출제 병행제(66~68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69년 부터) 실시 등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정, 의무교육 시설 확충, 교원연수령 제정

연이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따라 교육받은 산업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양적 성장기인 이 시기의 주요 교육정책은, 교육부문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국가발전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의 양적팽창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 즉 과밀학급화, 학교규모의 과대화, 교원부족과 교육여건의 악화, 중고등학교 입시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큰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산업발전의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등한시되었고,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라 발생된 교육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6. 제4공화국의 교육정책(1973~1980)

유신(維新) 체제의 발족과 더불어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고, 국적(國籍)있는 교육의 제창과 함께 문교정책은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공포로 교육의 기본방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제4공화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시책 및 문교시책 등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 국적있는 교육과 새로운 한국인상의 정립을 위한 국사교육 강화 및 주체적인 민족사적 정통성 고취
- 총력안보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반공 안보교육의 강화
- 교육의 사회적 기능 강화 – 새마을 교육운동 전개
-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 과학기술교육 강화, 산학(産學)협동 교육체제의 정비 및 강화(산업체부설 중·고교 특별야간학급 개설)
- 교육정상화를 위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고교 연합고사 추첨배정제)
- 교원 표준인사 내규 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승진규정, 임용령, 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 시행 및 대학 교원 임용제도 개정
- 시청각 장애자 등 심신 장애에 대한 특수교육 진흥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

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법률 제2330호, 1971. 12. 28)

획일적인 유신체제 교육이 등장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국적있는 교육'이었다. 박정권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처럼 유신교육을 그렇게 불렀다.

1972년 3월 24일 박정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973년도의 문교부 시정목표로 세 가지
를 말하였다.

"첫째,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을 위한 국사교육의 강화, 그리고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민족사적 정통성의 고취.

둘째, 새 한국인상의 형성을 위한 확고한 국가관 정립.

셋째,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렇게 해서 국사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채택되었고, 반공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국민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국사와 국민윤리는 모든 공공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

이와 함께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되면서 국민들의 정신계몽·의식계몽 교육이 진행되었다. 새마을운동과 그에 따른 국민계몽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한 가지는 생활태도와 사회활동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 지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신체제의 틀 안에서 통제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유신정권은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
다. 우선 학생들의 반정부운동과 체제비판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학도호국단을 부활하였고 대학과 고등학교에 군사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일반자치활동이나 서클활 동을 일일이 규제하기 위해 지도교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교수들의 체제비판이나 민주화운동에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하여 교수재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 교수재임용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수들의 연구열과 교수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체제비판적인 민주교수들을 학원에서 몰아내고, 교수들의 입을 봉쇄하는 데에만 활용되었다.

유신시대에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는 아무래도 고교평준화제도일 것이다. 1973년 2월 28일 문교부는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를 학군별로 나누어 연합고사에 의한 추
첨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1974학년도부터 적용하였다.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무시험제
도와 마찬가지로 과열 입시경쟁과 과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전체 학생들의 하

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70년대는 교육제도 면에서 제3공화국 시기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었다. 다만 유신체
제의 등장과 함께 체제 이데올로기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획
일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교육이란 백년대계
라는 말이 있듯이, 한 시대의 교육의 결과는 그 시대보다 몇 십년까지 계속된다. 그런 점에 서 유신체제가 끝난 지 30여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우리는 유신교육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 제5공화국의 교육정책(1980-1988)

민주복지국가 건설, 정의사회 구현을 국가의 시책으로 설정한 제5공화국은 1981년 문교정책으로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취학전 어린이 교육의 확대, 초·중등교육의 충실, 대학교육개혁의 정착 및 질적 향상, 과학기술 및 직업 교육의 강화, 사회교육의 확산, 국민체육의 진흥, 국제교육의 강화, 교육풍토의 쇄신 등을 내세웠다.

또한, 문교부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기초교육의 내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을 장학방침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문교정책 및 장학 방침의 실현을 위해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주었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폈다.

◆ **주요정책**

- 과열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입정원의 확대, 졸업정원제의 실시
- 두발 및 교육자율화, 교육세 신설,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 5공화국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 교원임용 제도 개선, 대학입시제도, 교과서 제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실업교육 등 교육문제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 정책안을 구상 발표하였다.
- 평생교육 및 전인교육의 진흥
-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 반공안보교육과 이데올로기 교육의 충실
- 취학전 아동교육의 확대
- 학원 자율화 정책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자율화

- 고등교육 내실화 – 대학입학 학력고사령(대통령령 제10246호, 1981), 대학생 정원령(학력고사·내신제 병행)
- 해외유학 개방
- 과외수업 금지
- 특수 전문교원 양성 – 대학원 졸업생 등 병역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43호, 1982) 및 그 시행령 제정
- 교육세법의 제정(법률 제3459호, 1981)과 시행(1982)
- 문교부 소관의 체육업무를 88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신설된 체육부로 이관
- 교육대학의 4년제 개편(81년부터 순차적)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줌. 정권 출범과 더불어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함.

정권 말기이어서 정책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단편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전 정부에서 와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에서 하달된 것일 뿐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현장교원과 유리된 채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

8.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1988-1992)

제6공화국이 탄생되자 우선 제5공화국 당시에 물의를 빚어 왔던 반공 안보교육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변화가 왔고, 과외수업 금지 정책이 해제되었으며 교복자율화 정책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또한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 특례에 관한 조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제6공화국의 문교시책은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의 추진과 자주적·도덕적·창조적 인간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6공화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제정·공포
- 교장임기제 실시
- 과외수업 허용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한 강화
- 교수 재임용제를 대학에 위임
-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고시 실시

- 고등학교 및 대학의 실업·자연계 증원
-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내신성적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대학별고사) 및 정원의 조정 (94년부터 대학 자율화)
- 교육세법 개정으로 한시세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 일부 국세와 교육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총학장 선출권을 대학에 위임
- 독학에 의한 학위제(學位制) 실시
-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실시
- 고교평준화 정책의 자율화
-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협의권 부여
- 전문대학의 육성책 시행

제5공화국의 교육정책처럼 극단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 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쟁점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 만 교육자치제, 교원노조의 허용여부, 교장임기제, 교과서 정책 등 주요 현상들이 문교부장 관 자문기구인「중앙교육심의회」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제6공화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구상된 교육 개혁안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
하였다. 즉 투쟁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 행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력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과 개혁방향을 교육의 각 부문별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구상과 방향이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9. 문민정부(文民政府)의 교육정책 (1993-1998. 2)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국정지표로 "신한국 창조"의 구호를 내걸고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 조국 등의 4대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의 조성 등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실행되기 위해

①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②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학생·학 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③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책무성과 자율성에 바 탕을 둔 교육을 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획 기적인 것으로 기존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범주를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 었다는 평을 받을 만하며 문민정부에서의 주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교육재정 GNP 5% 확보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다원체제 구축
•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 관세법령체계 개편
•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교육정보화를 위한 청사진의 제시
•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 과외와 학원수강 허용
• 보충·자율학습의 폐지
• 고교 군사훈련의 폐지
• 해직교사의 복직 조치
• 대학별 본고사 실시 (특차모집 실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년 2회 실시(94년), 년 1회 실시(95년 부터)
• 입시 부정 척결 노력
• 교육부 조직의 축소
• 월반(越班) 및 속진제(速進制) 실시(95년부터)
• 대학 정원 자율화 추진(95년 부터)
• 우수 교원 확보법의 제정 추진
•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및 교육개혁과제의 제시와 추진
•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 교육 시장 개방 추진(95년 부터)
• 기타 교육법안 입법화 추진

또한 1995년 4월 27일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신교육구상(新敎育構想) 10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토록 한 바 있다.

• 평생 학습사회 구축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초·중교육의 자율 운영
• 인성·창의성 위주 교육
• 국민의 고통없는 입시
• 직업·기술교육 확립
• 교육자 평가제 확립
• 품위있고 유능한 교사 확보
• 정보화 교육의 틀 마련
• 교육행정·재정 혁신

아울러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1995년 5월 31일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기반 구축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 입학제도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 교육 재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문민정부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정책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역대 어느 정 부의 그것에 비해 우리가 처한 교육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전향적인 교 육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 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통치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고 시장 원리를 교육영역에 견 강부회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장교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음. 수많은 정책과제를 실행하 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문민정부」 교육개혁안의 완결을 담보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10. 국민정부(國民政府)의 교육정책 과제 (1998. 2~2003. 2)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국민의 의식구조와 교육구조간의 승리(乖離)에서 생기는 문제점의 간과(看過)
- 성급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교육정책
-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의 미흡
- 단편적인 개혁의 시도
- 과다한 성장 지표
-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다급한 정책 결정

따라서 앞으로 국민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개방화(開放化), 고도정보화(高度情報化)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본 교육개혁의 성찰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개혁의 완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문제이었고 전환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 발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같이 확인된 교육개혁 추진 과제이다.

- 교육개혁 추진 체계 정비
  - 새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기능 활성화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자치구조 확립
- 교육현장 병폐 근절
  - 입시제도 개혁 및 과외비 경감
  - 촌지, 학교 폭력 근절
  - 교수임용비리 등 교육부조리 추방

• 교육부문 구조 조정 추진
  – 교육행재정 구조 개혁　　– 산하기관, 단체 통폐합
  – 대학정원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화 등 자율화 확대　　– 교원정책 선진화
• 인력 수준의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체제 확립　　– 직업, 성인교육 등 평생교육체제 확립
  – 초중등학교의 교육 혁신

이러한 개혁 과제들 가운데는 이미 정책으로 개발되거나 법령의 제개정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거나 반발과 저항에 부딪쳐 유보한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정책 개발과 법령 제개정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구성, 지역 시민모임 결성 및 활동 지원
•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 교원 정년 단축
• 2002년 무시험 전형제 전면 실시와 새학교문화 창조안
• 보충수업 폐지와 방과후 활동 활성화
• 학교 체벌 금지
• 교과 연구 모임 지원
• 연수·연구 학점제 도입
• 교원 계약제와 대학 교원의 출신대학 편중 제한제 도입
• 행정 기구 축소 및 행정 인력 감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과 단순 경쟁적 대학입시제도로 인한 초·중등학교의 비교육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상사된 교원 노조 합법화는 현장으로부터 일어난 참교육의 물결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직간접적인 노력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는 지역 교육시민운동단체 결성 움직임은 잘만 되면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 문제 해결'이라는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내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의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을 과감히 시도하여 행정 비용의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과감한 교육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너무 미달된다. 국민의 정부는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부이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의 완성을 공언하였으며, 교육부 장관도 개혁성향의 인사를 기용하였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는 시민과 교육주체들은 이제야말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첫째, 개혁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교육의 본질 강화를 개혁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는 교육, 사회 정의와 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교육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너무 적다는 말이다.

교육개혁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쟁 구조도 마련하여야 하지만, 그 때문에 나타날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상승적 사회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주어진 자신의 능력과 인격이 존중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열린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 회복이요,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에서는 이같은 과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촌지, 학교 폭력, 인사 비리 등 교육 병폐 근절보다는 학교 정의 구현이나 학교 민주화라는 주제가 더 바람직하였다. 산업화 이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이나 인격적인 차별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업 교육의 혁신 방안이 주요 개혁 과제로 취급되었어야 했다.

둘째,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혁이 구안되지 못하였다. 교육개혁이 단편적인 현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철학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관련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 개혁 내용이나 정책간에도 고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핵심적인 개혁과제와 주변적인 개혁 과제를 구분하고, 동일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전략과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바로 이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데, 교육 현장의 병폐를 근절하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전략과 간접적인 보상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였어야 했다. 인력 수준의 고도화도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출실한 중저급 인력 양성책도 동시에 추구되었어야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혁신도 우수 교원 유치 및 양성 그리고 교원 지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핵심을 놓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핵심적 과제 해결보다도 주변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다른 개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개혁도 핵심적인 과제와 주변적인 과제가 따로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개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여 동참 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장의 현안 문제 해결은 정치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교육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내용들은 바로 이점에서 실망을 안겨주었다. 예컨데, 교육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 혁신 과제가 개혁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학교 촌지나 임용비리 등의 교육병폐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공언한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이 수준은 넘어서야 했다. 교육부분의 구조 조정 문제도 한국 경제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해결하여야 하는 과

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개혁 전략이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개혁이든지 개혁 추진과정에서는 이견의 제기나 개혁 저항이 없을 수가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확고한 목적과 철학을 바탕으로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타협도 하며, 권위적인 조정력을 적절히 발휘하면서 개혁을 이룩하려는 의지와 전략의 수립 능력이 어떠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발할 당시만해도 개혁 의지가 매우 컸고 괄목할만한 개혁안을 준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발과 저항을 만나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데, 유아교육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자치제도 개혁 등 교육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개혁을 유보하거나 우왕좌왕한 것이 그 예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기본 축으로까지 간주하던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에 설치하려다가 국회에서 공사립 모두 자문기관화 하기로 합의한 것도 개혁 의지와 전략 미숙의 표본이다.

11.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2003.2-2008.2)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되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창의적 인재 양성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정책은 특히 정권 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의 교육 정책의 변화가 주로 정권 교체 시기와 동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군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교체되면서 다양한 교육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참여정부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 분권과 자율, 참여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치를 혼합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근원적으로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 겉으로 자율을 내세우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자율은 보장되지 않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확대를 앞세우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의 자유는 자취를 감추었다. 계층 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벌 타파, 대학서열완화를 앞세 운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해졌다.

참여정부가 실현하려고 한 결과 들은 모두 강력한 국가 개입과 강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를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

완책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거나 아예 이 나라를 떠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민정부에서 구호처럼 등장한 교육의 자유와 수월성의 실현, 교육에 경쟁원리의 도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 **주요 교육정책**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새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의

◆ **국정과제는**

-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는 – 교육혁신 기구설치 ·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에는 –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의 내실화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과학 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는 – 초· 중등 과학교육 강화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설정되었다.

◆ 분과별 주요 정책 사업 가운데 교육부 소관에는

-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강화와 교사회 · 학부모회 · 학생회 · 교수회 법제화
-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혁신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 계획
- WTO 교육시장 개방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유아교육법 제정
- 교원승진제도 개선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의 확대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재정립, 사교육비 경감,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와 자립형 사립고 · 특목고 · 자율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 정책의 마련이다.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에는 대학 자율의 핵심인 대학입시와 대학운영의 자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육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확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과학기술의 부단한 혁신,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의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교육의 혁신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입시제도의 개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1. 초·중등교육분야

· 수시 교육과정 체제 수립·운영
· 교원 양성·연수·평가·승진 등 인사관리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 방과 후 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학교 모형 재정립
· 2008 새 대입제도 개편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 등 추진

2. 교육격차 해소 원년('06년)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확대
·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 :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02),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 10),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계획 ('04. 11), 1군 1우수고(~'07년 88개 전체 군으로 확대)
·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03~'07)('04. 10),
– 새터민을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학교 개교('06. 3),
– 저학년 성인 문해교육 실시,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 교육지원

3. 고등교육 분야

· 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제고
· 법학·의학·경영학 등 고부가가치 창출서비스 분야 전문 대학원 도입
·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육성 · 산학 협력의 실질화 등

4. 평생교육분야

·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 평생학습축제개최 및 평생학습 대상 제정
·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01) 도입 · 학력인정시설 초등분야 확대('04)
·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마련('04)

5. 국제화 교육분야

· e-러닝

- 말레이시아 등 40개국이 우리의 선진적 e-러닝 서비스를 벤치마킹

-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 정보화 지원 - APEC e-러닝 연수센터 개소

· Study Korea 프로젝트 수립

-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 목표

·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원 증원

- 대련한국국제학교 신설, 한국학교 4개교(필리핀, 심양, 청도, 하노이) 및 교육원 2개원(북경, 청도) 신설 추진

- 상급 학교 교육과정 설치(방콕, 대련, 연대), 정규학교 전환(경도), 한국학교 신축(방콕, 홍콩, 북경, 상해)

- 재외동포 교육 강화 방안 수립('05년)

· 교육시장 개방 대응

- WTO DDA 다자협상 :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한 1차·2차 양허안 제출

- FTA 체결관련 : 초·중등 교육 서비스는 미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 교육과 성인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개방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및 시행령 공포

◆ **국가 역할의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 연설인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노대통령은 연설에서 교육의 목표를 "경쟁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초·중등 교육과 대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

• 과중한 입시부담과 성적부담(학생) •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학부모)

• 기회의 불균형, 계층이동 기회상실(사회)

• 교단붕괴, 공교육 부실 문제(교사) 이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의 문제점**

•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경쟁력 없는 교육이며 해결책으로는
• 입시개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 경쟁력있는 교육 • 경쟁과 평가 수용
•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유학 수요 흡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
• 서열화가 아닌 적절한 차별화 • 학연사회 해소
•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 •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경쟁과 평가 도입
• 다양한 시대의 교육 수요의 충족을 위해 학교의 개방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정부 교육 정책의 기본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국가 역할의 강화로 이어진다. 교육은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평소 신념도 국가의 역할 강화에 한 몫 하였다. 2006년 12월 7일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인적 자원을 최고급 인력과 보편적인 인재 수준으로 나누면서, 최고급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인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편적 인재수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문맥에 비추어 해석하면 한나라 인력의 일반 수준을 말하는 것 같다. 그는 인재 수준을 높이는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교육을 국가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말하였다.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 투자는 20, 30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걸 내다보고, 그중에 내가 몇 사람을 쓸 지 모르는데, 교육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시행**
•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육 정책의 1차적 고려 사항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두면 국가의 역할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목적 달성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어 교육의 중심에 국가가 자리 잡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교육 사회 보장제도가 확충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쟁이나 효율은 사라진다.

◆ **「참여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 노무현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계획표(로드 맵)를 재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계획표는 또 다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
는가를 분명히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 인권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애초에 제외하였다가 뒤늦게 교육부문의 문제제기를 받아 포함시키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제를 뒤늦
게 선정한 것은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철저한 인식은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개혁의 주체, 대상, 과제 선정
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민주화를 통한 부패구조를 해소하고,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12. 실용정부의 교육정책(2008.2-)

실용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다른 경쟁체제 유도'를 교육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실용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들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가뜩이나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끼치고 있는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교육양극화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날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으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이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이후로 다른 교육정책의 추진마저 지지부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공적 교육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엇갈린 여론의 합의점을 찾아 늦추어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

-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
-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활동 지원
-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조기집행
- 교육·과학기술분야 구조조정 본격 추진

◆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12대 중점 추진과제

–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하여

- 학교를 다양화하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사교육비 부담, 정부가 덜어준다.
-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 학생에게 자신감을 주는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대학의 자율은 존중하고 책임은 다하도록
- 대학과 연구기관이 변화된다.
- 교육과 과학기술이 하나 되게 한다.
- 녹색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한다.
- 우리나라 R&D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
-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린다.
- 과학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창의적 연구거점을 만든다.

◆ 주요정책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1단계로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2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겨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단계 – 수능 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

수능등급제 보완, 대학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능등급제 보완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현행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병기된다.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대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지금까지 반영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즉시 자율화가 시행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한다.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 실시)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개인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 과목은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 한문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선택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 시간은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 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여러 번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교육부가 2010년 시험실시할 예정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3단계 –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대입 완전자율화 단계로, 2012년 이후 추진대상이다.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대학으 학생선발 자율이 명문화되고 필요한 법령도 정비된다. 또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2) 영어공교육 강화

•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 '영어전용교사제' 도입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강화하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 모델 개발·시행

– 원어민 보조교사 DB 구축 등 채용·관리체계 마련

• 영어 교육과정 개편

–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

–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과목 확대 등을 통한 영어 노출시간 확대 우선 추진

– 실용영어 중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 마련

•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 및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 추진

–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료 등 지원 및 영어전용교실 확충 88개교)

– 농산어촌에서도 원어민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어민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를 시범운영

–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립을 거쳐 추진하고,

농산어촌 영어교육은 우선 지원.

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
–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개혁 추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
※ 대학자율화를 전담할 별도 추진단 구성·운영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 취업률, 교원확보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대학의 주요 정보에 대한 대학별 자체 정보공시 및 전국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의무화, 외부 평가인증기관 지정 등 책무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
–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 운영(함평여자고등학교 지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설비 교부기준에 기숙사 포함
•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
–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반영 운영 (전남보건고등학교)
–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 구축
•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2012년까지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08년에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 확대
– 시도교육감은 대상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학교별 협약 체결
•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 일반 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를 공모, 성과협약 체결

5) 국가장학제도 구축

•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 경감
– 그 밖의 모든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자금 일반 대출을 보장, 아울러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추진
• 근로 및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효율화
–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근로연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전문대 → 4년제 대학)
– 우수인재 양성 목적 장학금을 통합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목적장학금 : 이공계 장학금, 인문계 장학금, 국비유학 장학금 등
• 효율적 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가칭)국가장학재단' 설립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 사업을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하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재단 설립 특별법 제정, 재단 설립후 관련사업 일원화
– 기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원을 이관하고, 추가적 정부예산 지원 및 민간기부금 유치로 재원 조달
–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 학자금 조달방안 상담·설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요 교육 시책 :

1) 성공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한다.

•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시정관제 확산
• 대학 졸업장보다 대우 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배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학원비 안정화
• 배우고 싶은 건 모두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초·중·고 교육비 지원

• 2012년 이후 중학교 학교운영비 전액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
• 4대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3)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든다.

• 농산어촌 명품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지원
• 도시에서도 전학오고 싶어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창출
• 일년 365일 문을 여는 연중 돌봄학교 운영
•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Talk

4)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한다.

• 엄마·아빠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종일 돌봄교실
• 단 한명의 학생도 끝까지,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 위기 학생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Wee Project
•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제 2 절 함평군의 교육현황

1.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 연도별 현황

(기준 :2009. 4. 1자)

구분 / 연도	학교수						교직원수						학생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기타	학생합계
	유	초	중	고	기타	계	유	초	중	고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93		29(6)	9	6		38		298	196							2,354	2,207	4,561	1,512	1,591	3,103					
1994		26(7)	9	6		35		280	191							2,008	1,883	3,891	1,469	1,469	2,935					
1995		24(5)	9	6		33		263	173							1,705	1,602	3,307	950	950	1,895					
1996		23(2)	9	6		32		239	162							1,501	1,419	2,920	1,197	1,175	2,372					
1997		20(3)	9	6		29		214	157	106		537				1,396	1,396	2,665	980	977	1,957	1,314	1,303	7,617		7,239
1998	23	19(4)	9	6	1	62	27	284	176	212	34	733	200	163	363	1,314	1,181	2,495	851	831	1,682	1,337	1,324	2,661	141	7,342
1999	22	18(4)	9	6	1	60	27	263	159	195	35	685	187	178	365	1,305	1,189	2,494	765	722	1,487	1,207	1,199	2,406	134	6,886
2000	18	14(4)	9	6	1	52	21	233	156	184	36	630	174	162	336	1,277	1,170	2,447	716	641	1,357	1,069	1,033	2,102	140	6,382
2001	16	14(4)	9	6	1	45	19	225	143	180	36	567	138	135	273	1,238	1,120	2,358	635	242	877	998	867	1,865	136	5,716

2002	15	13(4)	9	6	1	44	21	217	145	177	36	596	130	140	270	1,264	1,082	2,346	574	559	1,133	917	755	1,672	138	5,559
2003	15	13(3)	8	6	1	43	22	208	126	178	37	571	138	126	264	1,199	1,073	2,272	539	527	1,066	882	687	1,569	140	5,311
2004	15	13(2)	8	6	1	43	21	210	127	178	36	572	138	117	255	1,108	1,032	2,140	541	505	1,046	805	664	1,469	144	5,054
2005	14	13(2)	8	6	1	43	19	208	128	174	36	565	125	117	242	1,105	1,020	2,215	532	485	1,017	757	635	1,392	128	4,904
2006	14	13(2)	8	6	1	42	18	208	132	175	38	571	97	104	201	1,077	997	2,074	537	470	1,007	725	616	1,341	126	4,749
2007	14	14(2)	8	6	1	42	19	224	129	171	39	582	86	87	173	1,017	917	1,934	535	472	1,007	743	618	1,397	128	4,603
2008	14	13(2)	8	6	1	41	18	218	120	164	41	561	86	73	159	932	872	1,804	569	473	1,042	732	684	1,416	131	4,552
2009	13	12(2)	8	6	1	39	18	210	114	169	52	563	87	82	169	894	808	1,702	534	477	1,011	724	746	1,470	133	4,485

2. 교원 연도별 남녀 구성 비율

(기준 :2009. 4. 1자)

구분 / 연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남	비율(%)	여	비율(%)	계	남	비율(%)	여	비율(%)	계	남	비율(%)	여	비율(%)	계	남	비율(%)	여	비율(%)	계
1993						181	60.7	117	39.3	298	100	51	96	49	196					
1994						180	64.3	100	35.7	280	100	52.3	91	47.7	191					
1995						176	66.9	87	33.1	263	87	50.2	86	49.8	173					
1996						166	69.5	73	30.5	239	78	48.1	84	51.9	162					
1997						145	67.8	69	32.2	214	78	49.7	79	50.3	157	116	69.9	50	30.1	166
1998			26	100.0	26	135	67.5	65	32.5	200	77	52.4	70	47.6	147	124	70.5	52	29.5	176
1999			25	100.0	25	126	67.0	62	33.0	188	72	51.8	67	48.2	139	123	74.1	43	25.9	166
2000			19	100.0	19	96	58.2	69	41.8	165	63	48.5	67	51.5	130	115	73.7	41	26.3	156
2001			18	100.0	18	86	53.4	75	46.6	161	58	47.5	64	52.5	122	109	73.2	40	26.8	149
2002			19	100.0	19	81	52.3	74	47.7	155	56	45.2	68	54.8	124	103	70.1	44	29.9	147
2003			20	100.0	20	79	53.7	68	46.3	147	47	43.5	61	56.5	108	101	69.2	45	30.8	146
2004	1	5.3	18	94.7	19	77	52.0	71	48.0	148	43	40.2	64	59.8	107	105	71.9	41	28.1	146
2005	1	5.9	16	94.1	17	67	46.2	78	53.8	145	40	37.0	68	63.0	108	102	70.8	42	29.2	144
2006	1	5.9	16	94.1	17	68	46.6	78	53.4	146	41	37.3	69	62.7	110	100	70.9	41	29.1	141
2007	1	5.3	18	94.7	19	63	41.7	88	58.3	151	44	40.7	64	59.3	108	95	68.3	44	31.7	139
2008	1	5.6	17	94.4	18	62	40.0	93	60.0	155	43	42.2	59	57.8	102	93	68.4	43	31.6	136
2009	1	5.6	17	94.4	18	62	40.8	90	59.2	152	40	40.0	60	60.0	100	93	67.4	45	32.6	138

3. 유치원 현황

학교명	설립별	소재지	설립년월일	설립자	비고
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함평읍 내교리 272번지	1995.03.01.		
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함평읍 기각리 737번지	1997.03.10		
손불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손불면 대전리 273번지	1981.03.16		
손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손불면 월천리1031-1번지	1982.03.09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신광면 월암리 182번지	1981.03.17		
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학교면 사거리 172번지	1987.03.01		
학다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1984.03.01		
엄다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엄다면 엄다리 811-1번지	1981.12.01		
대동향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대동면 향교리 906번지	1980.03.01		
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나산면 삼축리 389-5번지	1981.03.01		
해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해보면 금덕리 477번지	1981.03.10		
월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설	월야면 월야리 1240번지	1981.03.05		
샛별유치원	사립	함평읍 기각리 782-3번지	1995.03.09	김선옥	

4. 초등학교 현황

읍 면	학 교 명	소 재 지	분교개교 년 월 일	설 립 년월일	분교격하 년 월 일	폐 교 년월일
함평읍	함평초등학교	내교리 272		1911.06.22		
	기산초등학교	기각리 737		1968.03.01		
	함평서초등학교 (장년분교장)	장년리 726	1942.04.01	1946.09.01		2004.03.01
	함평북초등학교	대덕리 913	1963.12.03	1964.04.02		1997.03.01
	성남초등학교	성남리 215		1936.04.01		2002.03.01
	석성초등학교	석성리 200-14	1971.06.05	1979.03.03		1999.09.01
손불면	손불초등학교	대전리 273		1927.04.25		
	손불동초등학교 (용암분교장)	죽암리 709	1962.12.31	1963.10.10	1994.03.01	2005.03.01
	손불서초등학교	월천리 1025-2		1945.09.28		
	손불남초등학교	산남리 2425-1	1968.09.18	1970.03.01		1999.03.01
신광면	신광초등학교	월암리 182		1921.10.25		
	신광서초등학교 (동정분교장)	동정리 296		1939.06.01	1991.03.01	1995.03.01
	신광북초등학교 (함정분교장)	함정리 160-2	1964.07.21	1970.03.01	1987.03.01	1988.03.01
학교면	학다리초등학교	학교리 585		1946.06.01		2008.09.01
	학다리동초등학교 (복천분교장)	복천리 421-1		1957.06.11	1992.03.01	1994.03.01
	신성분교장	고막리 17-6		1976.03.01		2003.03.01
	학교남초등학교 (금송분교장)	금송리 266		1938.07.01	1997.03.01	2000.03.01
	영창초등학교	사거리 172	1969.03.01	1969.11.20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죽정리 897		1923.11.01		
엄다면	엄다초등학교	엄다리 811-1		1926.08.24		
	엄다남초등학교 (영흥분교장)	영흥리 290	1955.11.19.	1956.11.09		1992.03.01
대동면	대동초등학교	용성리 687		1932.06.01		1999.09.0.
	한골초등학교 (서호분교장)	서호리 243	1963.03.01	1964.04.01		1982.03.01
	대동향교초등학교	향교리 906		1945.09.01		
	대광초등학교 (대신분교장)	금산리 422-7	1967.09.09	1968.07.23	1998.03.0.	2008.03.01
	월송초등학교 (동암분교장)	월송리 424		1941.06.13	1991.03.01	1992.03.01
	철성초등학교 (금곡분교장)	금곡리 637		1934.03.19	1993.03.01	1996.03.01
나산면	나산초등학교	삼축리 389-5		1920.09.13		
	나산동초등학교	송암리 750	1967.03.31	1967.11.04	1989.03.01	1995.03.01
	나산서초등학교	구산리 58-1	1961.06.05	1963.03.15	1993.03.01	1995.03.01

읍 면	학 교 명	소 재 지	분교개교 년 월 일	설 립 년 월 일	분교격하 년 월 일	폐 교 년 월 일
	(구산분교장)					
	나산북초등학교	초포리 376	1968.09.23	1969.03.01		1995.03.01
	이문초등학교	이문리 763		1934.04.15		1996.03.01
해보면	해보초등학교	금덕리 477		1930.09.05		
	해보중앙초등학교	상곡리 148	1969.10.25	1971.03.01		1997.03.01
	해보서초등학교 (오두분교장)	대각리 538		1940.04.01	1989.03.01	1994.03.01
월야면	월야초등학교	월야리 1240		1925.10.20		
	월야남초등학교 (양정분교장)	양정리 327	1970.07.21	1975.03.20	1994.03.01	1996.03.01
	월야북초등학교	용암리 86-5		1933.03.10		1999.09.01
	광동초등학교 (광동분교장)	계림리 581-3	1971.03.06	1976.03.11	1994.03.01	1996.03.01

5. 함평군의 중·고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소 재 지	인가년월일	개교년월일	설립자	폐교년월일
함평중학교	공립	함평읍 내교리 518	1929.09.18	1929.09.25		
함평여자중학교	공립	함평읍 내교리 892-2	1955.05.03	1955.10.05		
월야중학교	공립	월야면 월야리 612-4	1953.04.07	1953.04.15		
손불중학교	공립	손불면 대전리 636	1966.12.15	1967.03.07		
신광중학교	공립	신광면 월암리 231-1	1971.01.16	1971.03.09		
해보중학교	공립	해보면 용사리 938-1	1971.01.16	1971.03.09		
학다리중학교	사립	학교면 사거리 467	1946.09.30	1945.12.05	한규홍	
나산중학교	사립	나산면 삼축리 148-1	1969.10.14	1970.03.01	김동식	
엄다중학교	사립	엄다면 송로리 10-10	1971.12.29	1972.03.06	김 만	2003.03.01
함평여자고등학교	공립	함평읍 내교리 829-2	1975.03.01	1975.03.01		
전남보건고등학교	공립	월야면 월야리 627-5	1972.12.26	1973.03.06		
함평골프고등학교	공립	함평읍 내교리 518	1951.09.25	1951.09.25		
함평고등학교	사립	함평읍 진양리 산13	1984.11.27	1985.03.01	박상복	
학다리고등학교	사립	학교면 사거리 467	1945.12.05	1951.09.01	한규홍	
나산고등학교	사립	나산면 삼축리 1184	1984.11.27	1985.03.01	김동식	

6. 학원현황

구분 / 번	학 원 명	주 소	설립자	교습과정	비 고
1	탑클래스학원	함평읍 내교리 171-1	민승기	단과(보습)	
2	아인스학원	함평읍 기각리 1005	이경숙	단과(보습)	

구분 / 번	학 원 명	주 소	설립자	교습과정	비 고
3	연세학원	함평읍 내교리 205-1	장정성	단과(보습)	
4	상록학원	함평읍 내교리 200	박혜옥	단과(보습)	
5	우주학원	함평읍 내교리 2186	박미숙	단과(보습)	
6	고려E네트우진학원	함평읍 내교리 210-14	이우진	단과(보습)	
7	향교주산학원	대동면 향교리 846	조선경	단과(보습)	
8	나산학원	나산면 삼축리 300	정광숙	단과(보습)	
9	신성학원	학교면 사거리 656-1	임요준	단과(보습)	
10	영재학원	월야면 월야리 1133	윤연향	단과(보습)	
11	열린학원	월야면 월야리 713-18	한달선	단과(보습)	
12	월야학원	월야면 월야리 494-30	김순희	예능	
13	백제학원	해보면 금덕리 406-2	민정화	단과(보습)	
14	한별피아노학원	함평읍 내교리 103-5	유미희	예능	
15	엔젤음악학원	함평읍 내교리 103-5	백 운	예능	
16	쏠티음악학원	함평읍 내교리 217-9	김규선	예능	
17	흰돌음악학원	함평읍 내교리 401		예능	
18	솔로몬실용음악학원	함평읍 기각리 784-6	김영신,김정민	예능	
19	시온음악학원	손불면 대전리 689-7	배주남	예능	
20	소리엘피아노학원	해보면 금덕리 829-35	유은미	예능	
21	피카소미술학원	월야면 월야리 1133	정근숙	예능	
22	라미피아노학원	월야면 월야리 1133	신미옥	예능	
23	에벤에셀음악학원	학교면 사거리 628-3	김혜실	예능	
24	자연미술학원	함평읍 내교리	강갑순	예능	
25	한일전기기술학원	학교면 복천리 421-1	한종일	직업기술	전기
26	모아피아노교습소	함평읍 내교리 352-5	노성희		
27	참사랑피아노교습소	함평읍 기각리 1019-3	김유옥		
28	그린피아노교습소	함평읍 기각리 670	김길현		
29	호산나피아노교습소	나산면 삼축리 373	김애숙		
30	박영진수학교습소	학교면 사거리 621-19	박영진		

제3절 전라남도함평교육청



1.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2-3

2. 청 사 :

•대지 4,153m2, 건평 2,203.75m2,

•건축양식 : 철골 콘크리트 스라브

3. 부대시설

용 도	지 번	대 지 (m2)	건 평(m2)	건 축 양 식
연립사택	내교리 289	1,306	598.88	2동8세대-시멘트벽돌조 스라브
관 사	내교리 306	111.74	143.08	2동-철골콘크리트조 스라브
관 사	함평리 52	396	113.77	1동-철골콘크리트조 스라브

4. 기구 및 정원표

구분 / 기관명	전 문 직	교 사	일 반 직	기 능 직	계
전라남도함평교육청	8	1	18	9	36
함평 공공도서관			3	2	5

5. 연 혁

• 1948.11.04 : 문교부 설치(대통령령 제 22호. 5국 1실 22과)
• 1948.11.18 : 도지사 소속 학무국 설치
(학무과에 장학관과 장학사를 두어 초·중등교육 전반 지도 감독)
• 1949.08.15 : 학무국이 교육국으로 개칭(학무과, 학사과, 문정과)
• 1949.12.31 : 교육법 공포(법류 제86호) : 군단위 교육위원회 설치
• 1950.04.08 : 문교사회국(대통령령 제312호 – 교육국과 사회국 통합)
• 1952.05.24 : 교육 자치제 출범
• 1952.06.04 : 함평군 교육구청 발족(법률 제86호), 시·군 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추천, 문교부장관 제청 대통령 발령 시·도 단위 도 문교사회국 관장
• 1952.08.18 : 초대 민선 교육감 취임
• 1956.11.23 : 교육구제도의 직제개편(문교부 훈령 제27호) 과제도가 폐지되고 교육장과 사무장을 둠
• 1959.12.12 : 학무과와 서무과 설치(문교부 훈령 제 64호)
• 1961.09.01 : 읍면자치제 폐지(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과 지방자치에대한 임시특례법 공포)
• 1961.10.06 : 지방행정기구 일원화 시책에따라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일체를 군수가 관장. 도의 문교사회국이 교육국으로 개칭(대통령령 제 223호)
• 1962.01.06 : 시·군 교육자치제 폐지(각령 제233호, 개정 법률 제955호)
• 1964.01.01 : 교육자치제 부활(함평군 교육청 발족) 기구는 관리과와 학무과를 둔다
• 1964.05.06 : 초대 박말갑 교육장 취임.
• 1975.12.31 : 본관 1층 신축(375.75m^2)
• 1976.10.01 : 하부조직 규칙 개정(2과6계)
· 학무과 : 초등교육계, 중등교육계, 사회교육계
· 관리과 : 관리계, 경리계, 시설계

- 1976.11.10 : 본관 2층 증축(361.75m^2)
- 1979.08.17 : 관리과에 사무계 증설
- 1991.03.2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4347호) 광역교육자치제 실시로 함평군 교육청에서 전라남도함평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 1992.03.29 : 본관 3층 호ㅣ의실 증축(361.75m^2)
- 1994.12.30 : 관사 2동 아파트 27평형 매입
- 1995.01.10 : 관사 1동 철거(26평형)
- 1995.03.01 : 학생의 집 건립(284평)
- 1996.02.28 : 관사1동 신축(113.77m^2)
- 1996.03.26 : 청사 증축 -지하 주차장(225.5m^2), -1층 과학실험실(670.5m^2)
  -2층 사무실 및 컴퓨터실(640.5m^2), -3층 과학영재교실(584.25m^2)
- 1998.04.28 : 전라남도하급교육청 사무분장 규칙 개정
  관리과의 관리계를 정보관리계로 명칭 변경
- 1999.01.01 : 전라남도 교육청 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 학무과→교육과, "계"조직 폐지
  ·교육과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사회체육담당
  ·관리과 : 서무담당, 정보관리담당, 경리담당, 시설담당
- 2003.01.01 : 각급기관 조직개편
  ·교육과 : 과학정보교육담당 신설
  ·관리과 : 서무담당→총무담당, 정보관리담당→관리담당
- 2003.03.01 : 주차장포장(시공 : 함평군청,18,420천원)
- 2004.08.31 : 청사보수공사 - 리모델링(137,000천원)
- 2008.03.01 : 현재 제 23대 김광호 교육장 취임
- 2008.09.24 : 민원편의실 설치(23.5m^2, 11,285천원)
- 2009.04.11 : 기록물관리실 리모델링(26.3m^2,15,670천원)

6. 연도별세입세출

(단위 : 백만원)

연 도	세 입 액	세 출 액
2007	967	6,204
2008	802	8,686

7. 2008년 세입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관 별	금 액	관 별	금 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64	인적자원 운용	24
행정활동수입	1	교수 - 학습활동지원	1,156
자산수입	374	교육격차 해소	11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2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866
이자수입	1	학교재정 지원 관리	4,036
잡수입	50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1,942
		평생 교육	101
		교육행정 일반	176
		기관운영 관리	360
		예비비 및 기타	14
합 계	802	합 계	8,666

8. 역대 교육장

구분 / 대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한글	한자		
初 代	교육장	박 말 갑	朴 末 甲	1964. 05. 06 ~ 1967. 10. 03.	
2代	교육장	변 재 영	邊 在 榮	1967. 10. 04 ~ 1968. 10. 20.	
3代	교육장	박 상 진	朴 商 晉	1968. 10. 21 ~ 1969. 10. 06.	
4代	교육장	윤 하 중	尹 河 重	1969. 10. 07 ~ 1973. 08. 31.	
5代	교육장	전 병 곤	田 炳 坤	1973. 09. 01 ~ 1975. 07. 07.	
6代	교육장	이 재 완	李 載 完	1975. 07. 08 ~ 1979. 09. 06.	
7代	교육장	최 춘 배	崔 春 培	1979. 09. 07 ~ 1980. 08. 31.	
8代	교육장	박 종 무	朴 鐘 武	1980. 09. 01 ~ 1984. 02. 28.	
9代	교육장	최 종 기	崔 鐘 淇	1984. 03. 01 ~ 1986. 08. 31.	
10代	교육장	이 성 도	李 成 桃	1986. 09. 01 ~ 1990. 02. 28.	
11代	교육장	윤 우 중	尹 雨 重	1990. 03. 01 ~ 1993. 02. 28.	
12代	교육장	윤 병 주	尹 柄 注	1993. 03. 01 ~ 1994. 08. 31.	
13代	교육장	최 태 정	崔 兌 定	1994. 09. 01 ~ 1995. 08. 31.	
14代	교육장	강 운 기	姜 雲 奇	1995. 09. 01 ~ 1998. 02. 28.	
15代	교육장	임 규 태	林 奎 泰	1998. 03. 01 ~ 1999. 08. 31.	
16代	교육장	박 갑 석	樸 甲 錫	1999. 09. 01 ~ 2001. 02. 28.	
17代	교육장	정 동 술	程 東 戌	2001. 03. 01 ~ 2001. 11. 05.	
	직무대리	김 희 준	金 熙 峻	2001. 10. 23 ~ 2002. 01. 09.	
18代	교육장	문 홍 태	文 洪 泰	2002. 01. 10 ~ 2003. 02. 28.	
19代	교육장	신 춘 자	申 春 子	2003. 03. 01 ~ 2004. 02. 29.	
20代	교육장	윤 이 중	尹 貳 重	2004. 03. 01 ~ 2005. 08. 31.	
21代	교육장	임 복 희	林 福 姬	2005. 09. 01 ~ 2006. 08. 31.	
22代	교육장	이 재 윤	李 載 允	2006. 09. 01 ~ 2001. 02. 28.	
23代	교육장	김 광 호	金 廣 浩	2008. 03. 01 ~ 현재	

제4절 함평군의 초등학교



1. 현존하는 초등학교

1) 함평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72번지

(2) 학구범위 :

함평읍 함평1리(산성,도화), 함평2리(대사,빙헌), 내교1리(서부), 내교2리(내대화,광교, 동광아파트), 내교3리(신기), 내교4리(동부,중부), 수호1리(예동,수산,평호), 수호2리(해동), 장교1리(산음,칠언), 장교2리(자명), 대덕1리(고양촌,망적골), 대덕2리(대천, 백곡), 진양1리(양림,가금,갑골), 옥산 1리 (흑룍,가작), 옥산2리(용모산), 석성1리(성재동,덕흥,신설포), 석성2리(석두), 석성3리(청학,성덕), 성남1리(소등), 성남2리(성북,지성), 수호2리(대등), 수호3리(송정), 만흥1리(만년,국산), 만흥2리(초동), 장교2리(월봉,작동), 자풍1리(비아,노송), 장년1리(장고산), 장년2리(월선,구주포), 장년3리(백년), 가동리(가동), 진양2리(중량,화동), 옥산리(옥산동)

손불면 궁산1리(상신흥,중신흥,하신흥), 석창4리(대발)

엄다면 화양1리(영화정,농은동,포향정), 화양2리(중양,정양,방죽안), 화양3리(쌍천)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32,620㎡ · 건 평 – 5,228.13㎡
·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 부대시설 :

· 본관교사 – 2,282.94㎡ · 테니스장 – 4,000㎡
· 후관교사 – 937.71㎡ · 부 지 – 28,620㎡
· 체 육 관 – 1,356.90㎡ · 임 야 – 49,683㎡
· 급 식 소 – 321㎡ · 관사 4동 –192.34㎡

(5) 졸업상황 :

2009년도까지 97회
졸업생수 남 – 8,423명 여 – 5,614명 계 – 15,152명

(6) 연 혁

㈎ 역사적 배경

원래 대동면 향교리의 양사제와 기산리(현 기각리) 기산서원에서 양반자제들을 모아 광무10년(1906년) 1월 하주리 139번지(현 경찰서앞)의 객사를 함평지남학교로 칭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이르렀으나 우리 학생들이 일본의 침략근성에 불만을 품고 융희 2년(1908년) 1월 학생봉기를 일으키자 폐교되었다가 1910년 6월 재차 개교, 1회부터 10회까

지는 4년제였고 11회부터는 6년제였으며 한일합방(1910년) 이후 일제 치하에서 교육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우리 민족에 의해 학교를 운영함.

1910년 6월 사립 함평보통학교로 개칭, 대한제국 학부의 인가를 받아 1911년 11월 3일에 개교함

㈏ 개요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1906. 01.	함평지남학교(사립)설립	1964. 03. 01	함평북국민학교 분리개교
1910. 06.	사립함평보통학교 인가	1968. 03. 01	기산국민학교 분리개교
1911. 06. 22	공립함평보통학교 인가	1995. 04. 01	함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11. 11. 03	함평공립보통학교 개교	1996. 03. 01	함평초등학교로 개칭
1934. 05. 19	부설용성간이학교 분리 개교(대동)	1997. 03. 01	함평북초등학교를 통폐합
1936. 06. 01	부설성남간이학교 분리개교(성남교전신)	1999. 09. 01	석성초등학교 통폐합
1938. 04. 01	함평북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2000. 03. 01	(함평서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장
1941. 04. 01	함평북공립국민학교로 개칭	2000. 08. 31	장년 유치원 폐원
1941. 11. 01	함평대화공립국림학교로 개칭	2002. 03. 01	성남초등학교 통폐합
1948. 04. 12	함평공립국민학교로 개칭	2004. 03. 01	함평초 장년분교장 폐교
1949. 06. 20	함평남국민학교 합병(일본인 학교)	2004. 03. 01	장년분교장 통폐합
1950. 04. 01	함평국민학교로 개칭		

(7) 주요교육 실적

㈎ 학교 수상 현황

년 월 일	종 류	등 위	주 최
1964.09.30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문교부
1968.12.25	생산활동우수학교	1 등	전남교육위원회
1971.09.25	광주교육대학종합예술제(미술부)	우 승	광주교육대학
1971.11.06	예능경연대회	우 량 상	전남교육위원회
1971 02.28	학교환경정화	우 수 상	전남교육위원회
1974.08.07	학교경영우수학교	우 수 상	전남교육위원회
1977.05.05	문교부장관기배구대회(예)	우 승	전남매일신문사
1978.11.10	학도체육대회배구(여)	우 승	전남교육위원회
1979.10.11	학도체육대회 사격(여)	우 승	전남교육위원회
1984.12.31	자료실운영우수학교	우 수	전남교육감
1985.02.25	학교경영우수학교	우 수	전남교육감
1986.02.28	학교경영우수학교	우 수	전남교육감
1986.02.28	시범학교운영 공로표창	우 수	전남교육감
1988.02.29	시범학교운영 공로표창	우 수	전남교육감
1993.02.25	체육활동 우수학교 표창	우 수	전남교육감

1993.09.25	제9회 전남학교간육 상경기대회	우 승	전남교육감
1994.08.26	제10회 전남학교간육 상경기대회	우 승	전남교육감
1996.10.27	제21회 전남학생 체육대회	우 승	전남교육감
1999.11.23	전통문화자랑발표회(민요)	동 상	전남교육감
2001.12.31	학교교육과정 편성	최우수	전남교육감
2003.04.04	학교교육과정 편성	우 수	전남교육감
2006.12.29	교육과정우수학교	우 승	전남교육감
2007.03.29	전남소년체육대회100M,200M	1 위	전남교육감

육상부 전남, 전국, 국제 대회 입상 <대한민국시대 제13장 체육을 볼것>

㈏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지정연도	지정구분	구 분	기 간	분 야	발 표 일
1956	도 지 정	연구발표	1년	일상생활과정	1956. 7.21
1959	도 지 정	연구발표	1년	학습지도의연구	
1963	도 지 정	연구발표	2년	음악과학습방법	1963. 7.19 1964.10.15
1969	도 지 정	연구발표	3년	실과학습지도방법	1971.12.12
1972	문교부지정	실험학교	2년	새교육과정실험학교운영	1973.12.13
1975	한국교육개발원	협력학교	6년	새교육체제협력연구학교	
1985	도 지 정	시범학교	2년	미술과시범학교	1986. 7.11
1988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과학과시범학교	1988.10.24
1992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특별활동시범학교	1992.10.15
1996	도 지 정	시범학교	2년	체육교육시범학교	1997.11.14
1998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컴퓨터교육	1998.11.26
1999	도 지 정	실험학교	1/3	교육과정 정책연구	1999.12.1
2000	도 지 정	시범학교	2/3	교육과정 정책연구	2000.11.3
2001	도 지 정	시범학교	3/3	교육과정 정책연구	2001.7.2
2003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1/2	도서관 활용연구	2003.11.19
2004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2/2	도서관 활용연구	2004.10.28
2006	군 지 정	시범학교	1년	영어교육	2006.11.6
2007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흡연예방교육	2007.11.6
2008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기본학력증진	2008.11.19
2009	도 지 정	시범학교	1년	국정교과서현장적용검토	

(8) 학생수와 교직원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30	835	744	1579	33	1994	18	275	293	568	27
1977	29	823	743	1566	32	1995	17	253	263	516	33
1978	29	822	740	1562	32	1996	17	242	253	495	32
1979	29	740	712	1452	33	1997	18	273	228	501	33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80	29	738	678	1416	33	1998	18	286	223	509	32
1981	29	731	670	1401	33	1999	18	287	238	525	32
1982	28	699	638	1337	32	2000	18	291	276	567	37
1983	27	621	584	1205	31	2001	18	300	283	583	36
1984	22	535	490	1025	27	2002	20	321	307	628	37
1985	20	513	449	962	25	2003	19	324	307	637	38
1986	22	502	426	928	28	2004	20	308	314	508	42
1987	23	477	400	877	29	2005	21	321	321	642	43
1988	22	454	410	864	28	2006	22	311	319	630	46
1989	23	441	378	819	29	2007	21	295	312	607	44
1990	23	442	383	825	29	2008	21	299	295	594	48
1991	21	413	391	804	27	2009	21	295	285	580	51
1992	19	357	321	688	25						
1993	19	302	330	632	25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도변수건	渡邊秀建	1911. 11. 01	1920. 11. 13	일본	일본인 재임
2	제등작송	劑藤作松	1920. 11. 13	1923. 03. 25	〃	〃
3	길전직태	吉田直太	1923. 03. 25	1925. 11. 26	〃	〃
4	나순진부	那順辰夫	1925. 12. 31	1928. 02. 02	〃	〃
5	천상치랑	川上治郎	1928. 02. 02	1930. 11. 30	〃	〃
6	소노일지조	小老一之助	1930. 11. 30	1935. 04. 17	〃	〃
7	강본정차랑	岡本政次郎	1935. 04. 17	1939. 04. 28	〃	〃
8	삼본원십랑	森本原十郎	1939. 04. 28	1940. 03. 25	〃	〃
9	평정원광	平井元廣	1940. 03. 25	1942. 03. 25	〃	〃
10	거관지랑	居冠之郎	1942. 03. 25	1945. 08. .	〃	〃
11	송 세 정		1945. 10. 30	1947. 07. 31	전 남	해방후 재임
12	이 종 인		1947. 07. 31	1948. 09. 01	〃	
13	김 광 섭		1948. 09. 01	1949. 07. 30	〃	
14	손 종 헌		1949. 07. 30	1950. 03. 25	〃	
15	홍 성 척		1950. 03. 31	1951. 01. 14	〃	
16	박 병 칠	朴 炳 七	1951. 01. 14	1953. 04. 15	전 남	
17	김 채 호		1953. 04. 15	1954. 05. 24		
18	정 재 구		1954. 05. 24	1955. 07. 15		
19	박 행 태		1955. 07. 15	1957. 03. 25		
20	장 종 국		1957. 03. 25	1958. 09. 09		

구분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21	김사철		1958. 09. 09	1959. 06. 04		
22	양승택		1959. 06. 04	1961. 08. 26		
23	조한형	趙漢衡	1961. 08. 26	1962. 03. 20		
24	김창성	金昌成	1962. 03. 20	1966. 04. 15		
25	장수복	張壽福	1966. 04. 15	1968. 10. 21	함평	
26	이혁구	李赫九	1968. 10. 21	1973. 12. 31	담양	
27	임종태	林鍾泰	1974. 01. 17	1975. 09. 01	전남	
28	장수복	張壽福	1975. 09. 01	1980. 09. 01	함평	새학교 가꾸기 추진
29	이영휴		1980. 09. 01	1985. 02. 28	전남	학교경영 우수학교
30	이금남		1985. 03. 01	1990. 02. 28	전남	구룡관(체육관)준공
31	박민희	朴珉熙	1990. 03. 01	1992. 02. 28	목포	특별활동시범학교 운영
32	최석만	崔錫萬	1992. 03. 01	1996. 02. 28	함평	표준학교 가꾸기
33	최상만	崔相滿	1996. 03. 01	1999. 02. 28	함평	도지정체육교육시범학교
34	박종례	朴鍾隷	1999. 03. 01	2002. 08. 31	광주	교육과정연구실험학교
35	강광석	姜光錫	2002. 09. 01	2005. 08. 31	광주	교육부지정학교도서관연구
36	최기윤	崔琪允	2005. 09. 01	2008. 02. 29	광주	흡연예방연구학교
37	장명희	張明姬	2008. 03. 01	현재	광주	국정교과서 현장적용검토

<자료 제공자 : 교감 신한균>

2) 기산초등학교



(1)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42 번지
(동경: 126° 5′, 북위: 35°1′)

(2) 학구범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기각1리(옥천, 누각), 기각2리(시장, 검정다리), 기각3리(구기산), 기각4리(신기산), 기각5리(구시장)]

(3) 시설현황

• 학교용지 – 17,871㎡, • 건 평 – 1,947㎡, • 건축양식 – 슬라브 2층

(4) 부대시설

준공년월일	명 칭	종 별	평 수	실수	적 요
1968.10.30.	교사	철근 콘크리트	165.2평	6	2층 신축
1969. 01. 20.	교사	철근 콘크리트	124.8평	4	2층 증축
1969. 04. 30.	교사	철근 콘크리트	177평	6	2층 증축
1970. 10. 02.	교사	철근 콘크리트	115평	4	2층 증축
1969. 12. 30	급식소	부로크 스래트	7평	1	단층,현숙직실
1969.	변소	부로크 스래트	5.8평	1동	단층
1968.	변소	부로크 스래트	5평	1동	단층
1968.	변소	부로크 스래트	3평	1동	단층
1970. 10.03.	숙직실	부로크 평지붕	8.1평	1	단층 현 교감관사
1970. 12.30.	변소	부로크 평지붕	12.5평	1동	단층
1986. 01.23.	수세식 변소 1.8동 신축	철근 콘크리트	61.92㎡	1동	단층 대주건설
1989. 08	숙직실	철근 콘크리트	28.38㎡	1동	단층 대주토건주식회사
1992. 07	교직원 수세식 변소	철근 콘크리트	250㎡	1동	
1995. 04	창고 1동	철근 슬라브	50×7m	1동	
1995. 12	본관 2층강당	철근 슬라브 보수	50평	2실	
1995. 06	방송실,어학실	기존 교실에설치		2실	기존 교실에 설치
1996. 05	체육기구보관창고	철근 슬라브	5×7㎡ 10		
1996. 06	각실 목재창틀 교체	샷슈로 교체	16.5실	16.5실	개보수
1996. 12	수세식 변소				급식실옆 신축
1999. 12	본관2교실증축	철근슬라브	2교실(현관)	2실	본관동편연결
2000. 06	교과교육실설치	기존교실에 설치	음악실	1실	후관2층
2000. 08	교실바닥공사	후로링	100평	4칸	본관교실.복도
2001. 01.	어학실 개조	폐쇄형→개방형		1실	
2001. 07	후관교실.복도	데코타일	75평	3실	유치원.과학실
2001. 10	유치원교실난방	심야난방	37.5평	1.5실	유치원
2001. 12	본관교실증축	철근콘크리트	50평	2실	본관동편에연결
2001. 12	본관화장실증축	교실벽사이		2칸	1.2 층각1칸
2002. 02	샤워장	본관화장실위층		1칸	기존화장실위층
2002. 02	지붕누수공사, 도색	후관		4칸	도색 후관 실외
2003. 05	야외 학습장 설치		2곳		운동장
2003. 07	닭 사육장 이전				
2003. 07	본관동 화단 정비 및 식수				
2003. 10	급식소 출입구 설치 및 우천로 정비				
2003. 10	강당 무대 공사				
2003. 11	교실 도색 공사	본관, 후관			

준공년월일	명 칭	종 별	평 수	실수	적 요
2003. 09	유치원 종합 놀이 시설 설치				병설유치원 뒤
2004. 02	교문 양옆 화단 구축				
2004. 02	후관동 앞 수복 식수				
2005. 11	암석원 설치				본관앞
2006. 03	생태학습터널 설치				본관과 후관사이
2006. 09.	우천로 공사			3곳	본관과 후관사이
2007. 04	방수공사				본관동1실,후관5실
2007. 04	우천로 공사			1곳	본관동편계단위 공사
07. 10. 01	과학실 리모델링			1실	
08. 02. 15	교사지붕 방수 공사	도색		후관	
04. 21	본관과 후관 도복도 연결공사			50m	본관과 후관 복도 연결
09. 02	후관 교사 벽체 보수공사				
09. 29	어학실 확충 공사			1실	
09. 29	방송실 공사			0.5실	
10. 23	도서관 현대화 사업			1실	
09. 02. 13	학생용 책걸상교체	목재			75개
09. 02. 13	학생용 사물함 교체	목재			39개
09. 03. 14	화장실 비데(bidet) 교체	비데 설치		2곳	
09. 03. 22	철봉 교체	알루미늄		1조	

(5) 졸업현황

졸업상황 : 2008학년도까지 40회

졸업생수 남:1,309명 여:1,341명 계:2,650명

(6) 연혁

가. 총괄

1. 본교는 함평군 1읍 8면 중 읍에 속하고 읍 3개리 중 1개리 인 기각리를 학구로 68. 3. 1. 설립인가를 얻어 함평교로부터 분리되어 (분리 당시 13 학급 편성) 동년 11. 5. 현 위치에서 개교함

2. 본교는 북동쪽엣 대동면과 접해 있고 남서쪽으로 함평읍 내교리에 접하고 있으며 학교 위치는 뒷(서쪽)쪽에는 기산봉과 동쪽에는 영수천이 흐르고 있어 함평의 명소인 기산 영수의 중앙에 위치함

3. 학구민의 직업은 반 농 · 반 상업과 주 농업으로 문화 혜택은 다소ㅜ 받고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풍부치 못하고 특히 시장을 끼고 있어 인심이 각박하고 심한 편임

4. 기후는 남부지방으로 온화한 편이며 천연기념물의 하나인 북가시 나무를 본 학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논농사와 일부 양파 재배로 특별한 특산물은 없고 공무원과 노동자가

많음.
5. 외형으로는 후한 학구인 듯 하나 설립된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지 구입이 제대로 못되고 겨우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만 신축되어 구획정지 등 타 사업 등은 국고 의지 외는 해결 가능성이 없는 극히 이기적인 학구로써 장래가 문제된다고 봄.

나. 개요

년 월 일	학 구 명 칭	비 고
1968.03.01.	함평교로 부터 분리 설립인가 기산국민학교로 설립인가 13학급 편성 68.11.5까지 함평교에 수용됨	설립인가
1968.11.05.	기각리 742번지에 이주	개교
1968.10.30.	6개 교실 신축	
1969.01.20.	4개 교실 증축.변소 1동 신축	
1969.07.30.	축대(석축)55m×3m,95m×3m 운동장(북쪽,동쪽)	
1969.08.20.	6개 교실 증축 변소 1동 증축 숙직실 신축	
1970.09.30.	4개 교실 증축 변소 1동 증축 급식소 신축	

(7) 주요교육실적

가. 연구학교 운영

년 월 일	분 야	지정 구분	적 요
1973.11.15	효과적인 자유 학습 운영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 발표
1979.03.01.	교과전담제를 통한예체능학습지도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1980.10.31.	"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 발표
1981.11.17	정화 운동 선도 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 발표
1982.11.27.	.정화 운동 선도 학교 .조기 영어교육 실험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 발표
'83.03.01.-'85.02.28(2)	군지정음악과 연구학교 군지정 영어특별활동실험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 발표 1984.10.18.
1987.10.29.	도지정과학교육시범학교	도 교위 지정	공개발표기간 87.3.1-88.2.28.
1991.03.01.	군지정특별활동시범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발표 1991.11.22.
1994.030.1.	전라남도함평교육청지정 학부모교실 시범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지정	공개발표 1994.11.15.
1995.03.01.	전라남도 교육청 지정 컴퓨터 교육 시범학교	전라남도 교육청	공개 발표 1995.11.1.
1996.11.11.	표준학교 가꾸기	전라남도 교육청	1996.11.11.
1996.11.28.	환경교육시범(군)	함평 교육청 지정	1996.11.28.
1997.10.29.	학습지도시범(군)	함평 교육청 지정	도지정 열린교육 협력학교 겸
1998.03.01	열린교육 연구학교	전라남도교육청	98. 10. 16 공개
1999.03.01	환경보전 선도시범학교	"	99. 11.19
2003.03.01	군지정 유아교육 시범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지정	03.10.29

년 월 일	분 야	지정 구분	적 요
2006.03.01	군지정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전라남도함평교육청지정	06. 10. 26
'08.03.01 -'09.02.28	군지정 유아교육 연구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지정	공개발표 (2008. 10. 21)
'09.03.01 -'10.02.28	군지정 영어교육 연구학교	전라남도함평교육청지정	

나. 학교 수상 현황

순	수상명	수여자	년월일	비고
1	학교문집 전시회 표창	전라남도교육감	2007.02.28	
2	대통령기 제28회 국민독서경진 함평군 대회 표창장	새마을 문고함평군지부징	2008.11.07	
3	기초학습부진구제상	전라남도교육감	2009.01.01	

(9)학생수 및 교직원수 현황

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총학급수	교직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91	23	28	51	23	28	51	27	27	54	30	27	57	26	30	56	25	25	50	154	165	319	12(특1)	15
92	21	18	39	25	29	54	25	25	50	29	26	55	29	24	53	25	34	59	154	156	310	12(특1)	15
93	21	22	43	23	18	41	35	36	71	21	21	42	27	26	53	23	19	42	150	142	292	8(특1)	17
94	12	9	21	18	24	42	21	18	39	21	22	43	20	25	45	22	23	45	114	121	235	7(특1)	17
95	14	18	32	11	9	20	18	24	42	21	17	38	20	21	41	18	23	41	102	112	214	7(특1)	18
96	13	11	24	14	18	32	11	10	21	20	24	44	21	18	39	18	21	39	97	102	199	8(특1)	16
97	15	10	25	14	11	25	14	18	32	10	10	20	19	24	43	21	18	39	93	91	184	8(특1)	17
98	19	10	29	13	11	24	15	11	26	14	15	29	10	10	20	17	21	38	88	78	166	7(특1)	15
99	12	13	25	19	9	28	12	13	25	13	13	26	12	12	24	10	12	22	78	72	150	7(특1)	16
00	10	11	21	10	13	23	23	10	33	10	14	24	15	14	29	12	15	27	80	77	157	7(특1)	15
01	14	14	28	10	11	21	10	13	23	23	10	33	10	14	24	15	14	29	82	76	158	5(특1)	14
02	14	12	26	15	14	29	13	10	23	10	14	24	18	3	24	9	11	20	79	67	146	6	13
03	5	6	11	8	13	21	12	14	26	12	10	22	10	13	23	19	4	23	66	60	126	6	11
04	12	10	22	6	5	11	8	13	21	11	13	24	14	10	24	10	13	23	61	64	125	6	16
05	7	8	15	10	10	20	4	7	11	7	12	19	10	13	23	13	9	22	51	59	110	6	15
06	9	5	14	7	8	15	10	10	20	4	7	11	7	12	19	10	13	23	47	55	102	6	15
07	2	6	8	9	4	13	6	8	14	9	10	19	4	7	11	6	11	17	36	46	82	6	15
08	5	3	8	3	5	8	9	4	13	6	7	13	7	9	16	2	6	8	32	34	66	6(유1)	15
09	4	2	6	4	6	10	3	6	9	10	5	15	7	8	15	6	10	16	34	37	71	·6(유1)	15

(10)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부임일	이임일	기간	업 적	이동 내용	비고
1	리길재	68.05.01	70.02.28	1.11	운동장 정지	영남교로 전출	
2	장수복	70.03.01	75.08.31	5.6	축대80M축조.운동장,언덕 정리 5교실 방수공사	함평교로 전출	
3	나병련	75.09.01	80.02.28	4.6		함평교육청 학무과장	
4	서영교	80.03.01	82.0.28	2	북쪽울,스탠드.우천도로정구장	목표시 교육청 학무과장	
5	임기남	82.03.01	85.02.28	3	남쪽 축대 및 생물 조성 운동장 배수로	남도군교육청(장학사) 도교위 장학사	
6	김용섭	85.03.01	89.02.28	4	수세식 변소 배수로 및 교문포장(군지원)	영암군 서동국민학교	
7	박균상	89.03.01	93.02.28	4	복도 후로링 교체 조명시설 직원 수세식 변소	정년퇴직	

구분 대	성 명	부임일	이임일	기간	업 적	이동 내용	비고
8	김근원	93.03.01	97.02.28	4	급식소,노천 복도 배수로. 창문 교체	나주남 전출	
9	이준렬	97.03.01	99.02.28 정년퇴임	2	윗동 복도 교실 바닥 교체	해동교 전입 정년퇴직	
10	윤석택	99.03.01	00.08.31 정년퇴임	1.5	교실2칸증축 운동장 배수로 공사	해동교에서 전입	
11	김용대	00.09.01	03.02.28 정년퇴임	2.5	학교 전산망 구축 교실 및 화장실 2칸 증축	신안 암태에서 전입	
12	황창기	03.03.01	04.08.31 정년퇴임	1.06	야외학습장, 급식소출입구 설치 교문양옆 화단설치, 급식실 식탁의자 구입	정년퇴직	
13	정동기	04.09.01	07.08.31 정년퇴임	3.0	암석원설치, 주차창 설치	해남군 북일초에서 전입	
14	최철남	07.09.01			과학실 현대화 방과후보육교실 설치 도서관리모델링 추진	해남군 계곡초에서 전입	

자료 제공 : 교감 김경남

3) 손불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272

(2) 학구 범위 :

대전리, 산남리, 석창리, 죽암리, 죽장리, 동암리, 궁산리

(3) 시설현황 :

•부지면적-15,808㎡

•건평-1,632,8㎡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스라브

(4) 부대시설 :

유치원1동, 다목적강당2동,
사택2동, 급식실1동, 차고1동, 창고1동

(5) 졸업상황 :

2008년도까지 79회 : 졸업생수 남-3,658명 여-2,151명 계-5,809명

(6) 연 혁

•1926.10.01 손불 공립 보통학교 인가

•1927.04.25 손불 공립 보통학교 개교 (수업연한 4년)

•1938.04.01 손불 공립 심상 소학교로 개칭 •1945.9.20 손불국민학교로 개칭
•1964.10.10 용암분교 개교 (4학급) •1967.09.01 석산분교 인가
•1986.03.01 병설유치원 개원 (1학급) •1993.03.10 특수학급 편성 (1학급)
•1994.09.01 손불동교 용암분교장으로 격하 편입
•1996.03.01 손불초등학교로 개칭 •1997.03.01 현재 7학급 편성 (특수학급 1)
•1999.03.01 손불남초등학교 편입 •2005.03.01 용암분교장 통폐함

(7) 주요교육 실적

•1991.10.26 전남교육청 지정 과학시범학교 운영
•1996.11.13 전남교육청 지정 표준학교 가꾸기 보고회
•2006.03.01 전남교육청 지정 협동교육 연구 보고회
•2008.03.01 전남교육청 지정 협동교육 연구 보고회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9	484	470	954	22	1993	8	84	75	159	17
1977	18	463	481	944	21	1994	8	73	57	130	17
1978	17	481	419	900	20	1995	8	57	52	109	17
1979	16	424	460	884	19	1996	8	56	58	114	15
1980	18	421	410	831	21	1997	8	56	54	110	15
1981	18	402	392	794	21	1998	6	58	56	114	15
1982	17	347	332	679	20	1999	6	83	76	159	15
1983	16	305	316	621	19	2000	6	76	82	158	14
1984	13	260	256	516	16	2001	6	76	79	155	15
1985	13	218	236	454	17	2002	6	71	64	135	13
1986	13	202	213	415	16	2003	6	72	70	142	16
1987	12	176	171	110	16	2004	6	51	59	110	13
1988	11	162	157	123	16	2005	6	55	68	123	16
1989	10	143	125	120	16	2006	6	59	61	120	15
1990	9	134	124	116	16	2007	6	55	61	116	15
1991	9	120	107	227	17	2008	6	40	61	101	14
1992	8	88	86	174	17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중 요 공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구마무라					
2	구마바라					
3	김 인 주					
4	송 강					
5	전 중					
6	본전송남					

대 \ 구분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중 요 공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7	홍 성 위	洪 性 衛	'49. 04.24	'50. 09.29		
8	이 진 희	李 診 熙	50. 09.30	53. 04.14		
9	서 상 규	徐 相 圭	53. 04.15	53. 08.30		
10	이 길 재	李 佶 宰	53. 08.31	55. 07.14	함 평	
11	김 한 경	金 漢 經	55. 07.15	60. 03.31	〃	교실9실, 변소4칸
12	김 기 선	金 基 善	60. 04.01	64. 04.01	나 주	교실 8실
13	이 영 재	李 英 再	64. 04.02	67. 03.14	광 산	교실2실, 변소5칸
14	김 상 만	金 相 滿	67. 03.15	73. 08.31	함 평	교실 6실
15	정 영 복	鄭 永 福	73. 09.01	79. 08.31	화 순	2층 6실, 변소7칸
16	안 희 수	安 熙 洙	79. 09.01	83. 02.28	함 평	
17	이 한 규	李 漢 奎	83. 03.01	88. 08.31	무 안	교장관사1동
18	김 자 현	金 資 鉉	88. 09.01	92. 02.28	함 평	도지정 연구학교 공개
19	최 상 만	崔 相 滿	92. 03.01	96. 02.28	함 평	
20	최 석 만	崔 錫 滿	96. 03.01	98. 02.28	함 평	표준학교 가꾸기 공개
21	윤 계 홍	尹 桂 洪	98. 03.01	98. 08.31		
22	이 영 실	李 永 實	98. 09.01	02. 08.31		
23	노 강 수	魯 康 洙	02. 09.01	04. 08.31		
24	정 형 수	丁 炯 秀	04. 09.01	07. 02.28		
25	기 세 건	奇 世 建	07. 03.01	현재까지	광산	다목적강당

4) 손불서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1031-1번지

(2) 학구 범위 :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북성리, 양재리,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14,397㎡
- 건 평 - 1,971㎡(연면적)
- 건축양식 - 2층 슬라브

(4)부대시설 :

관사 4동, 예능실 1동, 주차장 1동

(5) 졸업상황 :

2008학년도까지 60회 : 졸업생수 남 2,386 여 1,741 계 4,127명

(6) 연 혁

•1941.04.12 손불서초등학교 부설 월천간이학교로 설립인가
•1941.05.12 손불면 북성리 박씨제각에서 개교
•1943.03.25 손불서소학교로 교명 개칭
•1945.09.28 손불서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50.11.23 6.25전쟁으로 전교실 소실 •1951.04.06 손불국민학교로 병합 개교
•1953.09.01 손불서국민학교로 복교
•1982.03.09 손불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5.03.12 특수학급 1반 편성
•1996.03.01 손불서초등학교로 개칭 •2009.02.20 제 60회 졸업

(7) 교훈 :

책임을 다하며 도전하는 어린이

(8) 학교 상징

· 교목 : 향나무(곧은 마음) · 교화 : 철쭉(사랑의 향기)
· 교색 : 녹색(꿈과 희망) · 특색 교육 : 쓰레기 바르게 분리하기

(9) 학생수와 교직원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1976	19	550	542	1,092	22	1993	8	110	107	217	16
1977	19	544	520	1,064	21	1994	7	84	82	166	16
1978	19	514	504	1,018	23	1995	7	68	60	128	16
1979	20	528	492	1,020	22	1996	7	56	46	102	17
1980	19	505	486	991	23	1997	7	41	47	88	16
1981	19	490	470	960	22	1998	6	36	43	79	14
1982	19	469	429	898	23	1999	6	35	39	74	14
1983	19	420	401	821	24	2000	6	26	25	56	12
1984	16	345	325	670	20	2001	6	33	31	64	12
1985	14	296	270	566	18	2002	6	32	32	64	12
1986	12	265	233	498	18	2003	6	42	38	80	15
1987	12	241	233	474	18	2004	6	40	37	77	14
1988	11	219	201	420	21	2005	6	43	33	76	14
1989	10	195	185	380	17	2006	6	38	38	76	14
1990	10	198	185	383	20	2007	6	38	34	72	14
1991	10	171	152	323	22	2008	6	28	25	53	16
1992	9	138	125	263	22	2009	6	27	24	51	16

(10)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한글	성명 한문	재임기간 취임	재임기간 퇴임	본적	중요공적
1	윤 용 혁	尹 龍 赫	45. 08. 15	미 상	함평 학교	
2	홍 성 규	洪 性 奎	미 상	53. 04. 01		
3	이 자 원	李 子 元	53. 04. 01	53. 04. 06	함평 대동	
4	김 상 만	金 相 萬	53. 06. 20	57. 03. 21	함평 손불	
5	김 기 선	金 淇 善	57. 03. 21	60. 11. 30		
6	조 종 권		60. 11. 30	64. 04. 02		
7	김 상 만	金 相 萬	64. 04. 02	68. 02. 29	함평 손불	
8	정 용 복	鄭 龍 卜	68. 03. 01	73. 08. 31	무안 현경	
9	김 상 만	金 相 萬	73. 09. 01	75. 08. 31	함평 손불	
10	김 자 현	金 資 賢	75. 09. 01	80. 08. 31	함평 대동	
11	조 기 근	曺 基 根	80. 09. 01	83. 02. 28	함평 함평	향나무 식수
12	장 형 록	張 炯 錄	83. 03. 01	88. 08. 31	광주 신형	
13	박 용 완	朴 用 浣	88. 09. 01	91. 08. 31		
14	박 기 춘	朴 基 春	91. 09. 01	94. 02. 28	함평학교	본관 뒤 옹벽시설
15	이 재 문	李 載 文	94. 03. 01	98. 02. 29	나주 다시	호암동산 신문 발간
16	양 재 열	梁 在 烈	98. 09. 01	99. 08. 31		
17	강 성 수	姜 聖 秀	99. 09. 01	03. 02. 28	함평	수세식화장실 신축
18	나 남 규	羅 南 渓	03. 03. 01	05. 02. 28	나주	교문 교체
19	정 기 정	丁 棋 正	05. 03. 01	07. 02. 28		급식소 증축
20	박 응 선	朴 應 先	07. 03. 01	09.3.1현재	해남	학교도서관개관,예능교실설치

자료 제공 : 손불서초등학교 교사 김남균

5)신광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82



(2) 학 구 :

신광면 보여리, 송사리, 동정리, 함정리, 원산리, 삼덕리, 백운리, 복흥리, 계천리, 월암리, 가덕리, 유천리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16,910㎡
· 건평 – 2,729㎡
· 건축양식– 콘크리트 슬라브

(4) 부대시설 :

관사 1동, 사택 1동, 급식소 1동, 다목적교실 1동, 유치원 1동

(5) 졸업상황 :

2008년도까지 84회 : 졸업생수 남–4,057명 여–3,029명 계–7,100명

(6) 연 혁 :

•1921.10.25. 계천공립보통학교 개교
•1941.04.01. 신광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81.03.01. 신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8.08.31. 함정분교장 통합
•1995.03.01. 동정분교장 통합
•1996.03.01. 신광초등학교로 개칭
•2005.03.01.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2년간)
•2009.02.17. 제84회 졸업식
•2009.09.01. 제 30대 고재문 교장선생님 부임

(7) 교훈 :

큰 꿈을 갖고 슬기를 닦자

(8) 학교 상징

· 교 목 : 향나무 – 향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침엽 교목으로 키는 10m~20m이며 나무껍질은 암갈색을 띠는 정원수이다. 향나무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자신의 꿈을 사시사철 푸르게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학생상을 상징하며 그윽한 향기는 공동체의 생활에서 서로 돕는 따뜻한 정을 지녀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지닌 어린이가 되자는 소망이 담겨 있다.
· 교 화 : 장미 – 가시떨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장미처럼 자기가 품고 있는 뜻을 정열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 교 색 : 녹색 – 녹색은 성장하는 생명의 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의미이다.

(9) 학교 특색교육 활동

·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 1인 1악기 연주기능 익히기

(10) 학생수와 교직원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21	487	520	1,007	24	1980	19	464	450	914	23
1977	20	506	518	1,024	23	1981	18	433	429	862	20
1978	20	525	508	1,033	23	1982	18	394	416	810	24
1979	19	508	479	987	21	1983	17	285	306	591	23
1984	13	270	265	535	19	1991	10	151	134	285	21
1985	13	235	245	480	17	1992	11	119	115	234	19
1986	13	210	220	430	19	1993	7	112	100	212	18
1987	10	201	205	406	22	1994	7	86	89	175	19
1988	10	195	162	357	22	1995	7	82	84	166	21
1989	10	181	159	340	22	1996	7	66	65	131	20
1990	10	160	145	305	23	1997	7	68	56	12421	18
1998	6	57	53	110	18	2004	6	55	33	88	13
1999	6	65	54	119	16	2005	6	57	26	83	13
2000	6	65	56	121	17	2006	6	53	30	83	13
2001	6	55	44	99	15	2007	6	52	30	82	13
2002	6	61	43	104	15	20082	6	32	29	61	14
2003	6	51	38	89	14	2009	6	27	52	52	14

(11)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3대	장수복	張壽福	57. 04. 01	61. 08. 31	함평 나산	
14대	장남규	張南奎	61. 09. 01	64. 06. 30	함평읍	
15대	고명조	高明祚	64. 07. 01	66. 03. 31	광주	
16대	김원상	金源相	66. 04. 01	67. 02. 28	목포	
17대	김삼금	金三今	67. 03. 01	72. 02. 28	함평 해보	
18대	장호상	張豪相	72. 03. 02	76. 08. 31	무안 해제	과학과도지정연구
19대	강길성	姜吉聲	76. 09. 01	81. 03. 31	영광 불갑	체육과도지정연구
20대	나종문	羅鐘文	81. 09. 01	83. 02. 28	나주	
21대	김광용	金光用	83. 03. 01	86. 02. 28	광주	´85 과학교육도지정연구
22대	전남호	全南浩	86. 03. 01	90. 08. 31	광주	´88 새마을교육도지정연구
23대	정용진	丁用鎭	90. 09. 01	94. 02. 28	함평읍	´93 환경교육군지정연구
24대	박기춘	朴期春	94. 03. 01	98. 02. 28	함평 학교	´95 표준학교가꾸기도지정 ´97 열린교육도지정
25대	이재문	李載文	98. 03. 01	99. 08. 31		´98 방과후교육활동군지정
26대	정준석	丁俊碩	99. 09. 01	00. 08. 31		´00 인성교육시범학교군지정 ´01 교육정보화도지정
27대	이종일	李鍾一	02. 09. 01	04. 02. 29	함평엄다	
28대	장내목	張來木	04. 03. 01	06. 08. 31		´05 소규모학교협동교육도지정
29대	모효일	牟孝一	06. 09. 01	09. 08. 31	함평신광	´06 소규모학교협동교육도지정 ´08 소규모학교협동교육도지정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30대	고재문	高在文	09. 09. 01	현재	함평학교	

6) 학다리중앙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

(2) 학구범위 :

학교면 복천리, 고막리, 석정리, 금송리, 월호리, 곡창리, 학교리, 죽정리, 마산리, 월산리(송정, 월봉, 반암, 화산)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8,698㎡ 건평 -1,454㎡
건축양식 - 슬라브

(4) 부대시설 :

관 사 1동, 창 고 1동, 차 고 1동

(5) 졸업상황 :

2008년도까지 82회 졸업생수 6,474명

(6) 연 혁

•1923.08.01 : 학교공립 보통학교 설립인가 •1923.11.01 : 학교공립 보통학교 개교
•1938.03.31 : 학교동공립심상학교(교명개칭 16학급 인가)
•1941.04.31 : 학교동공립국민학교(교명개칭) •1943.04.01 : 월송국민학교 분리
•1945.09.01 : 학교남국민학교 분리 •1946.04.01 : 학교북국민학교 분리
•1949.03.02 : 학다리중앙공립국민학교(교명개칭)
•1950.04.01 : 학다리중앙국민학교 (교명개칭) •1952.05.01 : 학다리국민학교 분리
•1957.06.01 : 학다리동국민학교 분리 •1970.03.01 : 영창국민학교 분리
•1984.06.08 : 학다리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03.01 : 학다리중앙초등학교(교명개칭)
•2000.03.01 :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 환교 통합
•2003.02.28 :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폐교
•2008.09.01 : 학다리초등학교통폐합(8학급) •2009.02.18 : 제82회 졸업식

(7) 중요교육 실적

•1996.03.01 : 도지정 과학교육시범학교 운영

•1981.10.17 : 도 제26회 과학작품 전시회 장려상

•1989.10.30 : 도 우수저축 표창 •1989.10.31 : 도 우수독서 표창

•1992.01.28 : 도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1992.06.29 : 도 제14회 전남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

•1992.08.19 : 도 국민학교 우수학생 수월성 교육 최고상

•1992.08.21 : 도 청소년 과학경진대회(항공기) 은상

•1992.08.02 : 도 청소년 과학경진대회(과학상자조립) 동상

•1993.05.20 : 군 농협 제4회 어린이그림글짓기대회참가 금상4 은상2

•1995.11.20 : 도 영어듣기경시대회참가:은상1, 동상1.

•1996.10.23 : 도 지정과학교육시범연구발표회 개최

•1998.11.20 : 표준학교가꾸기 완료 보고회

•1999.12.05 : 소규모학교간 연계학교 운영(군지정)보고회

•2000.11.21 : 도지정보화교육연구학교 보고회

•2003.11.14 : 군지정소규모학교협동교육보고회(학중앙, 엄다)

•2005.10.17 : 군지정유아교육운영보고회 •2005.11.02 : 군특기적성발표회 참가

(8) 학생 수와 교직원 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6	361	382	743	1993	6	55	41	96
1977	15	340	368	708	1994	6	61	54	115
1978	14	308	325	633	1995	6	49	35	84
1979	12	255	286	541	1996	5	43	31	74
1980	12	222	219	441	1997	6	39	29	68
1981	12	200	205	405	1998	5	36	22	58
1982	11	210	231	441	1999	6	35	23	58
1983	11	209	228	437	2000	6	43	33	76
1984	9	147	137	285	2001	6	42	39	81
1985	9	129	125	154	2002	6	45	46	91
1986	7	109	106	215	2003	6	43	55	98
1987	7	90	96	186	2004	6	41	51	92
1988	7	80	88	168	2005	6	41	50	91
1989	6	81	80	161	2006	6			93
1990	6	85	77	162	2007	6			85
1991	6	68	57	125	2008	8	83	65	148
1992	6	67	50	117					

(9) 역대 교장

구분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정선규	鄭鮮奎	1945. 9.13	1947. 9.13	전 남	부지확보 학교개설
2	조현근	趙顯根	1947.10.13	1948.11.30	전 남	교육여건시설
3	손대벽	孫大碧	1948.11.30	1949. 4. 7	전 남	교육여건시설
4	양인묵	梁仁默	1949. 4. 7	1951. 4. 7	전 남	교육시설
5	김용선	金龍善	1951. 4. 7	1952. 8.31	전 남	교육시설
6	송한균	宋漢均	1952. 8.31	1953. 9.30	전 남	교육환경조성
7	노근후	魯根厚	1953. 9.30	1955. 9.15	전 남	실습지 운영
8	박진영	朴珍英	1955. 9.15	1956. 8.31	전 남	교실 조성
9	노근후	魯根厚	1956. 8.31	1960. 7.31	전 남	교실 증축
10	김용수	金龍洙	1960. 8.26	1961. 8.26	전 남	실과연구
11	황순모	黃淳模	1961. 8.26	1964. 4. 2	전 남	실과연구
12	정종기	鄭宗基	1964. 4. 1	1973. 9. 1	전 남	자활학교운영
13	장남규	張南圭	1973. 9. 1	1974.12. 1	전 남	실력양성
14	황보주홍	黃甫朱洪	1974.12. 1	1976. 9. 1	전 남	묘포장설치
15	정종기	鄭宗基	1976. 9. 1	1977. 2.28	전 남	학습환경조성
16	윤석언	尹錫彦	1977. 3. 1	1981. 8.31	전 남	학교조경사업
17	박인재	朴仁載	1981. 9. 1	1983. 2.28	전 남	교수학습개선
18	김상현	金常鉉	1983. 3. 1	1987. 2.28	전 남	학습지도
19	노종기	魯宗基	1987. 3. 1	1989. 8.31	전 남	학습환경조성
20	최석만	崔錫萬	1989. 9. 1	1992. 2.28	전 남	학교경영우수
21	조병연	趙炳然	1992. 3. 1	1994. 2.28	전 남	학습환경구성
22	조용성	趙用成	1994. 3. 1	1998. 2.28	전 남	급식학교 지정
23	장병석	張炳錫	1998. 3. 1	1998. 8.31	전 남	컴퓨터실 설치
24	김순겸	金順兼	1998. 9. 1	2002. 2.28	전 남	정보화시설
25	최종강	崔鍾江	2002. 3. 1	2004. 2.28	전 남	도서관설치
26	정용식	鄭龍植	2004. 3. 1	2007. 2.28	전 남	과학실현대화
27	최영주	崔永周	2007. 3. 1	현재	전 남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 학교통폐합

7) 영창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72

(2) 학구범위 :

학교면 사거리, 월산리(송산, 신흥, 화산마을)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4,638㎡
•건　　평 – 2,026㎡
•건축양식 – 슬라브2층

(4) 부대시설 :

관 사 2동, 화장실 2동, 숙직실 1동, 창 고 1동

(5) 졸업상황 :

2008년도까지 38회 졸업생수 : 남-957명 여-861명 : 계-1,818명

(6) 연　　혁

•1969.03.01 : 학다리국민학교 영창분교 설립인가
•1970.03.01 : 영창국민학교 설립인가
•1987.03.15 : 영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2.10.25 : 도 지정 과학교육 시범학교 발표회
•1996.01.01 : 영창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04.10.31 : 군지정 소규모 협동교육 시범학교 발표회
•2009.03.01 : 제 15대 최봉초 교장 부임

(7) 중요교육 실적

•1991.11.04 : 도산수경시대회 동상수상　　•1992.11.13 : 과학시범학교 운영보고회
•1994.05.21 : 전국소년편지쓰기대회 장려상　•1994.06.28 : 도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노력상
•1995.11.20 : 도 주장하는 글쓰기대회 동상　•1996.11.09 : 도 주장하는 글쓰기대회 금상
•1996.11.14 : 독서상 발표대회 최우수　　•1996.12.04 : 상설과학반 탐구활동 금상
•1996.12.05 : 전국어린이 글짓기대회 장려상 •1997.02.05 : 도 생활질서의식 독후감발표 은상
•2001.12.12 : 군 경필쓰기 대회 최우수상　•2002.12.21 : 군 학습 결과물 전시회 금상
•2003.11.18 : 군 독서토론회 우수상　•2004.02.05 : 도 생활질서의식 독후감발표 은상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2	284	260	544	15	1993	6	73	84	157	12
1977	12	275	251	526	15	1994	6	68	71	139	12
1978	12	275	245	520	15	1995	6	70	67	139	15
1979	12	275	256	531	15	1996	6	53	66	119	15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80	12	285	253	538	15	1997	6	53	63	116	15
1981	12	273	251	524	15	1998	6	50	58	108	14
1982	12	248	231	479	15	1999	6	49	53	102	13
1983	11	183	165	348	15	2000	6	51	55	106	13
1984	11	182	162	344	15	2001	6	62	53	115	13
1985	10	149	141	290	14	2002	6	60	40	100	13
1986	10	158	130	288	15	2003	6	51	43	94	13
1987	7	130	130	260	12	2004	6	57	38	95	13
1988	7	125	120	245	13	2005	6	56	41	97	13
1989	6	114	92	206	13	2006	6	60	42	102	13
1990	6	110	100	210	13	2007	6	51	43	94	13
1991	6	130	102	232	13	2008	6	51	44	95	14
1992	6	88	93	179	12	2009	6	45	32	77	13

(9)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중요공적
		취임	퇴임	
1	박 인 재	1969. 03. 01	1973. 08.31	학교 시설 사업
2	정 종 기	1973. 09. 01	1976. 02.28	학교 시설 사업
3	송 구 랑	1976. 03. 01	1981. 07.31	학교주변 조경사업
4	나 영 부	1981. 09. 01	1983. 04.30	학교주변 조경사업
5	권 학 석	1983. 05. 01	1988. 08.31	학교 시설 사업
6	조 병 연	1988. 09. 01	1989. 02.28	학교 시설 사업
7	김 재 옥	1989. 03. 01	1992. 02.28	학교주변 조경사업
8	조 몽 기	1992. 03. 01	1996. 08.31	도과학교육시범학교운영
9	이 행 만	1996. 09. 01	1999.08.31	기본학력정착 표준학교가꾸기
10	고 동 선	1999.09.01	2000.08.31	학교 시설 사업
11	서 금 종	2000.09.01	2002.08.31	학교주변 조경사업
12	정 준 석	2002.09.01	2004.02.29	학교주변 조경사업
13	여 인 성	2004.03.01	2006.02.28	군 지정 소규모 협동교육 시범학교
14	김 용 영	2006.03.01	2009.02.28	학교주변 조경사업
15	최 봉 초	2009.03.01	2009.08.31	

<자료 제공자 : 교감 선병효>

8) 엄다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11-1

(2) 학구 범위

○ 엄다면 엄다1리(성산), 엄다2리(번동), 엄다3리(불암), 엄다4리(정동, 제동), 엄다5리(신양동) 송로1리(노상), 송로2리(해정, 비석동), 송로3리(송촌), 송로4리(베다니, 담안), 신계1리(화계), 신계2리(장동, 생곡), 신계3리(우평), 삼정1리(원삼정, 수정동), 삼정2리(송정, 영화정, 벽유정), 영흥1리(용호동, 영천, 송현), 영흥2리(흥용동, 월산), 학야1리(토교, 야리), 학야2리(대천동, 죽월촌), 성천1리(성암), 성천2리(와촌, 용동)

(3) 시설현황 :

부지면적-28,465㎡ 건평-12,394㎡ 건축양식-콘크리트, 벽돌조

(4) 부대시설 :

관사 2동, 실습지 농장1,896㎡

(5) 졸업상황 :

2008학년도 2월까지 80회 졸업. 졸업생 수 7,476명

(6) 연 혁

년도	연혁 현황
1926.08.24	엄다공립보통학교 인가
1926.09.25	4년제 엄다공립보통학교 개교
1938.03.15	엄다공립심상소학교
1941.03.31	엄다공립국민학교
1950.04.01	엄다초등학교 개칭
1954.09.01	엄다남국민학교를 설립 분리
1981.03.01	유치원 1학급 편성 운영

1985.03.01	특수학급을 설립 운영
1986.03.01	영흥분교장으로 격하(엄다남교)
1992.03.01	영흥분교장 통합
1996.03.01	엄다초등학교 개칭
2009.02.19	제80회 졸업(7,476명 배출), 제일 학급편성이 많았을 때는 1969년 28학급으로 운영하다 점점 감축되어 2009년 현재 6학급으로 운영

(7) 학교 상징

교 훈	**뜻은 크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교 목 교 화 교 색			
	소나무(투지, 기상)	장미(정열, 협동)	녹색(푸른꿈, 희망)
특색 교육	엄반자반(嚴半慈半) 교육, 도전활동 5품제		
육성 종목	풋살, 육상		

(8) 주요 교육 실적

- ○ 1984 : 과학 시범학교 운영과 89년 체육시범 연구학교
- ○ 1992 : 표준학교 가꾸기 3개년 지정운영
- ○ 1993 : 급식학교 운영보고회 도지정 운영
- ○ 1999 : 도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 ○ 2003 : 군지정 소규모 협동교육 연구학교
- ○ 2004 : 체육관 신축(칠성관)
- ○ 2005 :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
- ○ 2008 : 급식실 개축 및 도서관, 방송실, 어학실 리모델링
- ○ 2009 : 보육교실 설치운영, 열린 담장 시설

(9)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24	627	634	1,261	27	1993	9	159	178	337	12
1977	24	632	648	1,280	27	1994	8	103	152	255	12
1978	24	630	647	1,277	27	1995	8	92	90	182	12
1979	24	606	630	1,237	27	1996	8	94	75	169	12
1980	20	593	597	1,190	23	1997	7	72	59	141	11

1981	22	581	564	1,145	25	1998	6	72	68	140	17
1982	21	578	549	1,127	24	1999	6	76	70	146	15
1983	21	547	520	1,067	24	2000	6	68	64	132	15
1984	20	527	482	1,009	23	2001	6	69	61	130	15
1985	20	491	460	951	23	2002	6	71	61	132	14
1986	19	463	434	897	22	2003	6	61	59	120	15
1987	19	378	404	782	22	2004	6	52	42	94	14
1988	19	328	362	690	22	2005	6	54	43	97	14
1989	18	274	298	572	21	2006	6	58	44	102	13
1990	16	256	259	515	19	2007	6	53	37	90	14
1991	14	222	237	459	17	2008	6	48	34	82	14
1992	10	193	201	394	13	2009	6	50	31	81	16

(10)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공 적
	한 글	취 임	퇴 임	
1	김 기 천	'45. 10. 01	'47. 09. 30	
2	김 정 술	'47. 10. 01	'48. 11. 19	
3	조 근 재	'48. 11. 20	'51. 04. 29	
4	박 기 수	'51. 04. 30	'52. 03. 30	
5	이 용 화	'52. 03. 31	'53. 01. 14	
6	박 말 갑	'53. 01. 15	'54. 05. 23	
7	양 규 철	'54. 05. 24	'55. 12. 30	
8	박 말 갑	'55. 12. 31	'58. 11. 07	
9	조 한 영	'58. 11. 08	'61. 08. 25	
10	김 용 수	'61. 08. 26	'64. 04. 01	교사 2동 신축
11	조 한 영	'64. 04. 02	'71. 02. 28	교사 6동 신축
12	박 형 태	'71. 03. 01	'73. 02. 25	운동장 확장, 교사2동, 화장실1동 신축
13	정 영 오	'73. 03. 01	'79. 02. 28	화단조성, 교단2동 신축
14	오 영 호	'79. 03. 01	'84. 02. 28	우천도로시설, 유치원 화장실 신축
15	김 성 수	'84. 03. 01	'86. 11. 06	도지정 과학시범운영공개
16	김 용 수	'86. 11. 07	'89. 03. 01	
17	박 만 신	'89. 03. 01	'89. 12. 08	
18	김 향 곤	'90. 01.15	'92. 03. 01	도지정체육과 연구학교 공개
19	김 일 룡	'92. 03. 01	'95. 03. 01	도지정 급식연구학교 공개
20	박 종 호	'95. 03. 01		표준유치원가꾸기, 종합관 신축
21	박 선 근	'99. 03. 01	'01. 08. 31	도지정열린교육 시범학교
22	김 영 준	'01. 09. 01	'03. 08. 31	군지정 소규모협동교육 연구학교
23	김 대 용	'03. 09. 01	'06. 02. 28	군지정연구발표
24	최 병 구	'06. 03. 01	'09. 02. 28	급식실개축 및 도서관 리모델링
25	최 병 구	'09. 03. 01		보육실 설치, 열린담장 사업

9) 대동향교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06

(2) 학구 범위 :



(대동면) 향교1,2,3,4리, 강운1,2,3리, 덕산1,2,3,4리, 백호1,2,3리, 월송리, 금곡1,2리, 상옥리, 용성1,2,3,4,5리, 운교1,2리, 서호리, 연암1,2리, 금산1,2리
(신광면) 가덕리(매산,가덕), 유천1리(벽류), 유천2리(미출), 유천3리(학천)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14,886㎡ · 건 평- 2,413㎡ 건축양식

(4) 부대시설 :

· 잔디운동장 3,526.5㎡, · 급식실1동, · 관사1동, · 숙직실1동,
· 창고2동,· 차고2동, · 체육관1동, · 미니골프연습장1개소

(5)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59회 졸업, 남18, 여13, 계 : 3,898명

(6) 연혁

① 역사적 연혁

◦삼국시대 ·백제 : 함풍현, ·신라 : 다구현 - 다시현 - 무안에 속함 - 함풍현
◦고려시대 ·영광에 속함
◦이조시대 : ·태종 9년 --- 함풍현으로 독립 ·고종 32년 ------함평이라 개칭

향교리는 지금부터 360여년전 임진왜란때 함평읍에 현감 박정원이 향교를 본 학구 명교마을에 건립함으로써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산 것을 계기로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뒤 60여년 후에 호란으로 향교건물이 불타게 되니 풍수지리학설로 향교가 화산이 보여 불이 잘난다하여 향교 앞에 조림을 하여 화산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장병, 이덕일 양씨가 나무를 심어 자란 것이 오늘날 보존된 천연 기념물(108호)의 향교림이 된 것으로 마을 분들이 뜻을 모아 향교숲쟁이 바로 옆에 학교를 세워 후학들의 요람이 되게 하였다.

② 연도별 주요 개요

•1945.06.01 : 향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45.09.01 : 향교국민학교 개교
•1991.03.01 : 2개교 분교(동암, 금곡) 본교에 편입 •1993.03.01 : 동암분교장 폐지
•1996.03.01 : 향교국민학교를 향교초등학교로 개칭 •1996.03.01 : 금곡분교장 폐지
•1999.09.01 : 대동초등학교 본교로 통합 •1999.09.01 : 대신분교장 본교로 편입
•2006.03.01 : 향교초등학교를 대동향교초등학교로 개칭•2008. 3. 1 : 대신분교장 폐지

(7) 교훈 :

맑은 품성, 밝은 슬기, 튼튼한 몸

(8) 학교 상징

		
- 교목 : 느티나무 큰 뜻을 품은 인재 양성을 상징함	- 교화 : 장미 굳은 의지와 사랑을 상징함.	-교색 : 녹색 젊음, 푸르름, 도약을 상징함.

(9)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지정년월일	분 야	지정구분	적 요
1970. 03. 10	가창력 신장을 위한 단계적 지도	군교육청지정	1970.11.5 연구발표
1971. 03. 05	기악의 기초 기능 향상을 위한 합주지도	군교육청지정	1971.11.12 연구발표
1972. 03. 08	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기악 지도 방법(1차)	군교육청지정	1972.12.8 연구발표
1973. 03. 05	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기악 지도 방법의 심화(2차)	군교육청지정	1973.11.10 연구발표
1989. 11. 30	학습지를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 공개	군교육청지정	1989.11.30 관내 교사,교장 참석 공개
1994. 03. 01	도지정 과학시범학교 공개	도교육청지정	1994.3.1~1995.2.28 관내 교장, 과학주임
1996. 03. 01	도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도교육청지정	1996.3.1~1998.2.28
1997. 03. 01	표준학교 가꾸기	교육부지정	1997.3.1~1998.2.28
1998. 03. 01	인성교육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고운마음 바른생활의 내면화	교육부지정	1998.3.1~2000.2.29
2004. 03. 01	영화교육 연구학교	문화관광부, 도교육청지정	2004.3.1~2005.2.28
2005. 03. 01	과학교육연구학교	군교육청지정	2005.3.1~2006.2.28
2006. 03. 01	유아교육연구학교	군교육청지정	2006.3.1~2007.2.28
2007. 03. 05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지정	2007.3.5~2008.2.28
2008. 03. 01	방과후학교 연구학교	교육과학기술부지정	2008.3.1~2009.2.28

② 학교수상현황

년 월 일	종 목	등 급	적 요
1970. 04. 29	함평교육청 주최 제6회 연합체육대회	1등	함평군교육장
1970. 05. 16	종합체육대회	우승	전남교육위원회
1971. 12. 05	국민교육헌장이념구현지도실적 우수	우수	전남교육위원회
1973. 10. 30	제3회 스포츠 소년대회(야구부)	우승	전라남도교육감
1980. 05. 14	소년 체전(배드민턴)	우승	전라남도교육감
1985. 10. 04	85 특활경연대회	종합우수상	함평군교육장
1986. 05. 08	주산경기대회	종합우승	전라남도교육감

1986. 10. 28	'86함평군종합예술제	종합장려	함평군교육장
1987. 10. 21	교육장기쟁탈태권도대회	종합3위	함평군교육장
1987. 10. 24	교육장기쟁탈주산경기대회	종합1위	함평군교육장
1988. 10. 10	학교체육교육우수학교	표창	전남도교육감
1988. 10. 14	교육장기쟁탈주산경기대회	단체1위	함평군교육장
1988. 12. 06	온종일학교운영우수학교	표창	전남도교육감
1998. 12. 31	98학년도 학교평가우수학교	표창	전남도교육감
1999. 09. 14	99전통문화 자랑발표대회(농악)	우수상	함평교육청교육장
1999. 11. 13	99함평지역 종합예술제(합창, 45명)	금상	함평교육청교육장
1999. 11. 13	99함평지역 종합예술제 (농악, 38명)	금상	함평교육청교육장
1999. 11. 13	99함평지역 종합예술제 (사물놀이, 12명)	금상	함평교육청교육장
2000. 06. 21	제46회 과학전람회 입상	우수학교상	전라남도교육감
2000. 10. 17	남도전통문화 자랑발표대회(농악분야)	은상	전라남도교육감
2000. 10. 17	남도전통문화 자랑발표대회(사물분야)	동상	전라남도교육감
2002. 12. 07	남도전통문화 자랑발표대회(농악분야)	은상	전라남도교육감
2004. 02. 20	실력전남구현 및 학교문집 전시회	우수상	전라남도교육감
2004. 04. 14	학교달력 전시회	우수상	전라남도교육감
2005. 02. 18	실력전남 구현 및 학교신문 전시회	최우수상	함평교육청교육장
2005. 02. 18	실력전남 구현 및 학교문집 전시회	최우수상	전라남도교육감

(10)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6				761	1993	6	48	46	94	23
1977	17				773	1994	7	50	57	107	19
1978	16					1995	7	64	60	124	18
1979	17				729	1996	7	59	51	110	20
1980	15				664	1997	7	59	47	106	17
1981	13				608	1998	7			111	17
1982	12				537	1999	7			168	16
1983	12				489	2000	7			171	16
1984	11				411	2001	7			157	16
1985	11				386	2002	7			159	16
1986	10				352	2003	7			175	16
1987	10	180	155	335	16	2004	7			173	18
1988	8	148	152	300	13	2005	7	95	81	176	18
1989	7				13	2006	7	95	71	166	18
1990	7	125	116	241	13	2007	7	88	70	158	18
1991	6	98	90	188	12	2008	7	70	73	143	18
1992	6	72	97	169	23	2009	7	61	72	133	18

(11)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장남규		45. 09. 01	50. 02. 14		
2	박판석		50. 02. 15	52. 08. 30		
3	윤상래		52. 08. 31	53. 08. 29		
4	김한경		53. 09. 01	54. 11. 14		
5	김용선		54. 11. 15	61. 08. 30		
6	정강옥		61. 08. 31	64. 03. 31		
7	안희수		64. 04. 01	73. 08. 01		
8	리정남		73. 09. 01	77. 09. 01		
9	정상기		77. 09. 01	80. 08. 31		
10	오병탁		80. 09. 01	85. 08. 31		
11	박균상	朴均相	85. 09. 01	89. 02. 28		
12	김태현		89. 03. 01	92. 02. 28		은행녹음지조성,현과개설
13	최창균		92. 03. 01	95. 08. 31	함평 학교	이루리 학습원 조성
14	임진곤	林進坤	95. 09. 01	99. 02. 28	광 주	신관교사5실 개축, 담장 300m 개축
15	이계남		99. 03. 01	01. 02. 28		
16	노회경	魯會擎	01. 03. 01	03. 02. 28	함평해보	
17	박광웅	朴光雄	03. 03. 01	06. 08. 31	함평학교	체육관 신축, 운동장부지확충
18	홍원표	洪源杓	06. 09. 31	헌 재	무안일로	운동장인조잔디,골프연습장신축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10) 나산초등학교



⑴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89-5

⑵ 학구 범위 :

나산면 ○삼축1리(하장기) ○삼축2리(하축, 동축) ○삼축3리(상장기, 문화마을) ○삼축4리(분토, 상축) ○수하1리(화전, 마산) ○수하2리(백인, 장제) ○나산1리(대정, 동신) ○나산2리(방하) ○월봉1리(용산, 안영, 관동) ○월봉2리(월평, 생동, 쌍영) ○이문1리(석지) ○이문2리(원이문) ○이문3리(사정) ○ 송암1리(죽말, 원송암) ○송암2리(송계, 상촌, 음지, 양지) ○신평리(신촌, 죽사, 고려) ○덕림리(백양, 죽림, 귀암) ○구산1리(냉천, 원구산, 내동) ○구산2리(광영, 삼성, 삼구동, 주봉) ○원선리(유촌, 원선) ○초포1리(원초포, 환곡, 사촌) ○초포2리(사산, 입석) ○우치1리(원우치, 신촌, 화정) ○우치2리(계동) ○용두1리(용수, 오수, 선창) ○용두2리(회룡동, 회화정, 괴정, 석현) ○용두3리(선박) ○수상1리(유덕, 대한, 성재) ○수상2리(월현)

대동면 ○ 대동면 상옥리(매동)

⑶ 시설 현황 :

·학교부지－20,635㎡,　·건평－3,690㎡　·건축양식－철근 슬라브

⑷ 부대시설 :

관사 2동, 급식실 2실, 체육관 1동, 도서관 1동, 창고 1동, 차고 2동

⑸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 86회 졸업, 남 5,193명, 여 2,911명, 계 8,104명

⑹ 연혁

① 역사적 배경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일찌기 함평군 동삼면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본 면 나산리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기 함평군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학교이다.

② 주요 개요

•1920.09.13 : 나산공립보통학교(4년제)인가　•1928.04.01 :나산공립보통학교(6년제)인가
•1938.06.01 : 나산동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0.06.10 : 나산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
•1995.03.01 : 나산북교, 구산분교, 송암분교가 통합
•1996.03.01 : 이문초등학교가 본교에 통합　•1996.03.01 : 나산초등학교로 개칭
•2006.10.15 : 다목적 강당 나산관 개관　•2007.10.17 : 도서관「지혜의 샘터」개관
•2009.02.19 : 제 86회 졸업 (총 졸업생 8,104명)
•2009.03.25 : 영어체험교실 개관

⑺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1997.10.22 : 교육부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 보고회 개최
•2003.07.09 : 도 지정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보고회 개최
•2007.10.31 : 군 지정 독서교육 연구학교 보고회 개최
•2008.11.05 : 군 지정 인성교육 연구학교 보고회 개최

② 학교 수상현황

•2005.12.30 : 2005. 학교평가 우수학교
•2008.09.10 : 제2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댄스 1위

•2008.12.26 : 2008. 학교평가 우수학교

⑻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학년도	학생	학년도	학생	학년도	학생	학년도	학생	학년도	학생	교직원
1959	1,362	1970	1,331	1981	736	1992	174	2003	166	19
1960	1,461	1971	1,238	1982	676	1993	159	2004	156	19
1961	1,465	1972	1,156	1983	598	1994	142	2005	140	19
1962	1,536	1973	1,100	1984	514	1995	209	2006	131	20
1963	1,631	1974	1,093	1985	451	1996	244	2007	128	20
1964	1,725	1975	1,076	1986	395	1997	225	2008	132	23
1965	1,858	1976	1,009	1987	320	1998	204	2009	113	26
1966	1,818	1977	996	1988	311	1999	191			
1967	1,695	1978	972	1989	276	2000	188			
1968	1,442	1979	878	1990	258	2001	180			
1969	1,328	1980	809	1991	191	2002	180			

⑼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부 임 일	이 임 일	기간	이 동 내 용
1	원전선육(原田善六)	1920. 09. 13	1922. 03. 31	2.0	
2	일구삼랑(一鬼三郞)	1922. 04. 01	1926. 02. 10	4.0	
2	심굴선차랑(深掘善次郞)	1926. 02. 11	1931. 30. 21	5.0	
4	정야조부(井野朝夫)	1931. 04. 01	1933. 10. 24	2.5	
5	산구계일(山口啓一)	1933. 10. 25	1942. 05. 14	8.6	
6	진소십랑(進小十郞)	1942. 05. 15	1945. 08. 14	3.2	
7	이 용 근 (李 龍 根)	1945. 10. 01	1946. 02. 28	0.5	전남 잠사중학교
8	이 상 탁 (李 相 卓)	1946. 03. 01	1947. 07. 31	1.3	영광초등학교
9	김 광 섭 (金 廣 燮)	1947. 08. 01	1948. 09. 15	1.0	함평초등학교
10	송 희 팔 (宋 熹 八)	1948. 09. 16	1950. 03. 20	1.5	담양동초등학교
11	안 종 열 (安 鍾 烈)	1950. 03. 21	1951. 09. 30	1.5	사임
12	안 태 종 (安 泰 鍾)	1951. 10. 01	1961. 08. 26	10.0	해보초등학교
13	박 삼 철 (朴 三 喆)	1961. 08. 26	1964. 04. 10	2.5	해보초등학교
14	안 태 종 (安 笞 鐘)	1964. 04. 11	1973. 08. 31	9.5	월야초등학교
15	안 희 수 (安 熙 洙)	1973. 09. 01	1979. 08. 31	6.0	손불초등학교
16	정 용 복 (鄭 龍 卜)	1979. 09. 01	1982. 05. 08	2.8	정년퇴직
17	강 복 원 (姜 福 遠)	1982. 05. 28	1986. 07. 31	4.3	해보초등학교
18	안 성 수 (安 晟 洙)	1986. 09. 01	1991. 09. 01	5.0	나주남초등학교
19	송 진 석 (宋 振 錫)	1991. 09. 01	1995. 08. 31	4.0	남평동초등학교
20	안 성 수 (安 晟 洙)	1995. 09. 01	1998. 02. 28	2.5	정년퇴직
21	이 수 년 (李 修 年)	1998. 03. 01	1999. 08. 31	1.5	
22	김 명 규 (金 命 圭)	1999. 09. 01	2003. 08. 31	4.0	정년퇴직
23	이 주 헌 (李 胄 憲)	2003. 09. 01	2006. 02. 28	2.6	정년퇴직
24	신 광 수 (申 珖 洙)	2006. 03. 01	2007. 02. 28	1.0	정년퇴직
25	정 기 정 (丁 棋 正)	2007. 03. 01			현재 재직 중

※ 자료제공자 : 나산초등학교 교감 김두희

11) 해보초등학교

(1) 소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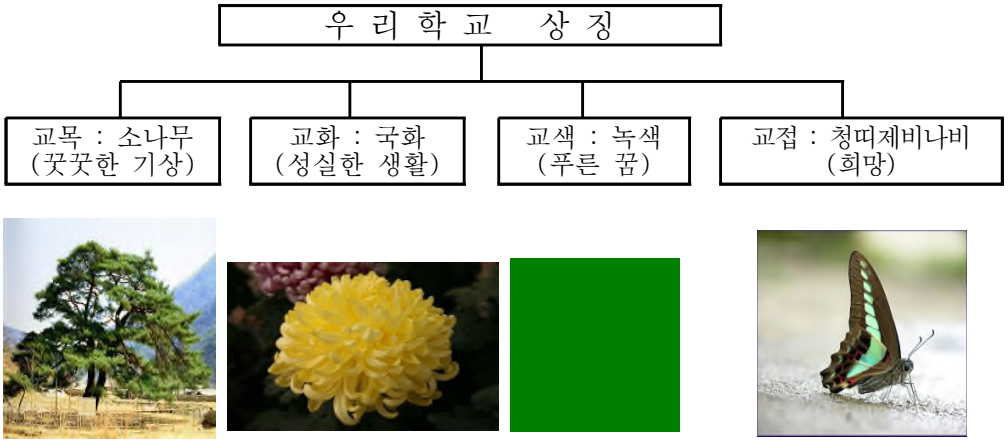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77



(2) 교훈 :

큰 꿈과 지혜를 가꾸자.

(3) 학교 상징



(4) 특색교육 :

음악줄넘기로 건강을 다지는 행복한 학교

(5) 학구범위 :

금계리 : 금산마을, 산내리 : 원산마을, 광암리 : 광암마을, 대창리 : 창서, 성대마을,
대각리 : 오두, 각궁마을, 상곡리 : 상모, 하모, 운곡마을, 용산리 : 주현, 소성, 대성, 백토마을
문장리 : 문암, 상귀, 중귀, 하귀마을, 해보리 : 모산, 발미, 가작, 월현마을
금덕리 : 시장, 유정, 금곡, 고두, 구계, 만년마을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24,286㎡ 건평-3,394.51㎡ ·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 부대시설 :

· 관사 1동 47.3㎡ · 창고 2동 80.0㎡ · 화장실 1동 77.6㎡
· 차고 118.0㎡ · 숙직실 28.0㎡

(5)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 77회 졸업 남-11명 여-17명 계-25명 (2009.02.19. 졸업식)

(6) 연혁

① 역사적 배경

삼국시대의 백제 때는 함풍현. 고구려시대에는 영광에 속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 9년 함풍현으로 독립된 후 고종3년 함평군으로 개칭되어 본 면은 1읍8면 중 북동쪽에 위치하였으며 1919년 4월 8일 기미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지역민들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나라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였다.

② 주요 개요

연 월 일	연 혁 개 요
1927. 04. 01.	○ 해보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1930. 09. 05.	○ 개교
1950. 12. 05.	○ 공비방화로 인한 전소
1960. 04. 01.	○ 17학급 편성
1969. 03. 01.	○ 31학급 편성
1969. 11. 15.	○ 해보국민학교 중앙분교 설치
1981. 03. 10.	○ 해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9. 03. 01.	○ 오두분교 본교에 편입 - 전 해보서초등학교
1994. 03. 01.	○ 오두분교장 폐교 통폐합
1996. 03. 01.	○ 해보초등학교로 개명
1997. 03. 01.	○ 해보중앙초등학교 본교에 통폐합
2002. 03. 19.	○ 다목적 강당 증축 1준공
2004. 03. 01.	○ 7학급 편성(특수학급 1학급 포함) - (유치원 2학급 편성)
2005. 10. 21.	○ 학교도서관(리모델링,현대화)개관
2006. 06. 20.	○ 급식실(조리실 트렌치 교체 공사)
2007. 03. 01.	○ 전라남도교육청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2007. 08. 30.	○ 보육교실 설치 공사
2007. 08. 30.	○ 실내골프 연습장 설치

(7)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지정연월일	분 야	지정구분	적 요
`68. 03. 01	산수과	군 지정	`69. 12. 12 연구 발표
`70. 03. 01	교과 담임제	〃	서면보고
`72. 03. 01	산수과	〃	〃
`73. 03. 01	산수과	〃	`73. 11. 21 보고 발표
`79. 03. 01	새마음 시범학교	〃	

`80. 03. 01	〃	〃	
`81. 03. 01	유치원 시범학교	〃	
`82. 03. 01	새교육과정, 새수업체제	〃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연구
`82. 03. 01	유치원 운영 시범 공개회	〃	
`83. 03. 01	국 어 과	〃	
`84. 03. 01	〃	〃	`84. 11. 21 공개 발표
`86. 03. 01	과학과 시범학교	도 지정	`86. 11. 12 공개 발표
`87. 03. 01	온종일 학교 시범학교	군 지정	`87. 12. 04 공개 발표
`88. 03. 01	〃	〃	
`90. 03. 01	영어특활 시범학교	〃	`90. 10. 12 공개 발표
`92. 03. 01	학습지도 시범학교	〃	
`94. 03. 01	진로교육 시범학교	도 지정	94. 10. 25 1차년도 보고 95. 09. 28 2차년도 보고
`97. 03. 01	유치원 시범학교	군 지정	97. 10. 09 보고회
`97. 03. 01	표준학교 가꾸기	군 지정	97. 11. 05 보고회
`98. 03. 01	부진아 연구학교	군 지정	98. 11. 보고회
02.03.1-03.02.28	환경보전선도중심학교	도 지정	02. 11. 06 보고회
05.03.01-06.02.28	한자교육연구학교	군 지정	05. 11. 18 보고회
06.03.01-07.02.28	방과후학교연구학교	도 지정	06. 11. 31 보고회
07.03.01-08.02.28	교원능력개발연구학교	도 지정	07. 11. 18 보고회
08.03.01-09.02.28	교원능력개발연구학교	도 지정	08. 12. 09 보고회
08.03.01-09.02.28	교원능력개발연구학교	도 지정	

② 학교 수상현황

년 월 일	종 목	등 위	주 최
65. 11. 16	학술경시대회	단체1등, 개인1.2.3등	함평군교육청
66. 10. 25	6학년 학력경시대회	단체2등, 개인1.2.3등	학다리중·고교
67. 05. 23	동화 대회	2등	함평군교육청
69. 11. 12	학술경연대회	단체 2등	〃
70. 04. 29	연합체육대회	종합 2등	〃
71. 05. 13	체육대회 핸드볼부	우 승	도 교육위원회
71. 07. 15	글짓기 대회	특 상	함평군교육청
72. 09. 18	음악·무용 경연대회	무용 입선	〃
73. 09. 29	고전 읽기 경시대회	종합 3등	〃
73. 11. 28	소년 스포츠대회(육상부)	우 승	〃
75. 11. 28	군 태권도 경연대회	3등	〃
77. 05. 12	해보 운동권역 체육대회	종합 1위	해보중학교
77. 05. 20	체육대회 육상부	종합 1등	함평군교육청
77. 05. 20	〃 핸드볼부	남자 3등	〃
77. 05. 20	〃 육상부400계주	여자 1등	〃
78. 09. 05	군 경연대회 한국무용 군무	1등	〃
79. 01. 31	새 학교 가꾸기 우수	우수상	〃
79. 05. 12	군 배구대회	우승	〃
79. 05. 24	군 탁구대회 여자부	3위	〃
79. 05. 24	교육장기쟁탈 남자배구	1위	〃
79. 06. 29	도 배구대회 남자배구	1위	도 교육위원회
79. 10.	호남예술제 우수	우 승	목포지구대회
79. 02. 16	학습공원화 최우수교	우 승	문교부장관
80. 05.	문교부장관기쟁탈 배구대회	우 승	전남매일신문사
80.	내고장 내나라 자랑발표회	우 승	함평군교육청
80. 11.	군 학력 경시대회	개인1.3위, 종합3위	〃

년 월 일	종 목	등 위	주 최
81. 03. 20	도교위 주체 일제고사	준우승	도 교육위원회
81. 05. 12	광주일보사주최 배구대회	준우승	광주일보사
81. 10. 27	내고장 내나라 자랑발표회	우 승	함평군교육청
81. 11. 02	전국소년체전 도 대표팀	배구팀 도 대표 확정	도 교육위원회
81. 11. 15	전남 초중학생 주산경시대회	〃	전남주산학회
82. 04. 13	제9회 교육장기 쟁탈	배구(남) 우 승	함평군교육장
82. 05. 23	제11회 전국소년체전	베구(남) 3위	대한체육회장
82. 12. 31	학교경영 우수교	상 패	함평군교육장
83. 04.	제1회 학년별 수영대회	우 승	교육감
83. 08.	제3회 도지사기쟁탈대회	준우승	전남도지사
83. 10.	제13회 체전1차 평가전	준우승	
83. 10.	83.특별활동 경연대회	우수상	교육장
86.	학교경영 우수교		교육감
87. 12. 10	특별활동 경연대회(영어)	2위	교육감
87. 12. 21	온종일학교 운영학교표창	상 장	〃
87. 12. 25	자료실 운영 우수학교 표창	〃	〃
89. 12. 25	학교경영 우수학교 표창	〃	〃
05. 04. 26	제 15회 학년별 육상대회	준우승	교육장
05. 12. 31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우수	표창장	교육감
06. 02. 20.	학교문집·신문전시회우수	표창장	〃
06. 02. 20.	학교문집·신문전시회우수	표창장	〃
06. 12. 31.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우수	표창장	〃
07. 11. 16.	음악줄넘기 클럽대회	2위	〃
07. 12. 03.	방과후학교 성과발표(음줄)	표창장	〃
08. 05. 16.	학년별육상경기대회	남초 종합우승	교육장
08. 09. 10.	스포츠클럽대회(음줄)	1위	〃

(8)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58	14			896		1984	17	338	332	670	20
1959	15			958		1985	16	272	251	523	19
1960	17			1,052		1986	15	268	259	527	18
1961	18			1,026		1987	13	250	255	505	16
1962	21			1,298		1988	12	233	237	470	15
1963	21			1,403		1989	12	235	230	465	15
1964	22			1,502		1990	13	248	238	486	16
1965	25			1,578		1991	13	251	240	491	16
1966	27			1,548		1992	13	245	236	481	16
1967	28			1,656		1993	9	141	134	275	12
1968	28			1,810		1994	9	126	120	246	12
1969	31			1,801		1995	7	103	104	207	10
1970	26			1,484		1996	7	91	87	178	10
1971	26			1,414		1997	9	116	104	220	12
1972	24			1,294		1998	7	107	99	206	
1973	24			1,231		1999	7	110	88	198	
1974	24			1,186		2000	7	121	72	193	17
1975	23			1,173		2001	8	115	81	196	17
1976	22	563	258	1,131	25	2002	7	106	77	183	17

1977	23	585	568	1,153	26	2003	7	105	78	183	16
1978	22	562	578	1,140	26	2004	7	87	81	168	18
1979	21	542	555	1,097	24	2005	7	89	89	178	18
1980	22	537	547	1,084	25	2006	8	87	95	182	18
1981	21	471	485	956	24	2007	7	76	74	150	18
1982	20	450	458	908	23	2008	7	71	68	139	18
1983	20	425	411	836	23	2009	7	67	58	125	19

(9) 역대 교장

(`1930 ~`1951년까지 확인불가 (화재로 소실))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중 요 공 적
		취 임	퇴 임	
11대	이 용 근	1952. 03. 1	1953. 08. 31	
12대	김 삼 금	1953. 09. 1	1959. 05. 15	정완모씨공로비입비
13대	윤 우 중	1959. 05. 15	1961. 08. 26	목조5교실 신축
14대	안 태 종	1961. 08. 27	1964. 04. 02	벽돌스레트6교실 신축
15대	박 삼 철	1964. 04. 03	1965. 02. 28	군학술경시대회1등
16대	손 갑 수	1965. 03. 01	1966. 02. 28	학력경시대회1등
17대	조 면 택	1966. 03. 01	1967. 02. 28	스레트5개교실 신축
18대	이 영 제	1967. 03. 01	1972. 08. 31	도체육대회핸드볼 우승
19대	나 영 부	1972. 09. 01	1976. 08. 31	군소년체전 육상 우승
20대	장 호 상	1976. 09. 01	1981. 08. 31	학습공원화최우수상수상
21대	노 동 훈	1981. 09. 01	1986. 08. 31	전국소년체전 2위
22대	강 복 원	1986. 09. 01	1991. 08. 31	즐거운학교건설에 역점
23대	임 동 엽	1991. 09. 01	1994. 02. 28	새학교 가꾸기
24대	이 수 년	1994. 03. 01	1998. 02. 28	표준학교 가꾸기
25대	박 기 춘	1998. 03. 01	1999. 08. 31	
26대	이 행 만	1999. 09. 01	2002. 02. 28	
27대	박 진 식	2002. 03. 01	2004. 08. 31	
28대	노 동 수	2004. 09. 01	2007. 08. 31	
29대	김 명 선	2007. 09. 01	현재	

12) 월야초등학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240

(2) 학구 범위 :

월야면 월야1리(전하), 월야2리(순촌, 송계, 괘정, 동산), 월야3리(평촌, 장동), 월야4 리(금석), 월야5리(전하, 입구), 월악1리(지변, 내동, 성주), 월악2리(봉덕, 노동), 월악3리(연당, 죽산), 외치1리(백야), 외치2리(외치), 영월1리(덕령), 영월2리(석보, 근뫼), 양정1리(양지), 양정2리(고정, 기전, 방

축), 용월1리(내세, 외세), 용월2리(월봉, 조장), 용월3리(용두), 계림1리(시복, 주전, 가차), 계림2리(죽림, 금치), 예덕1리(예동, 신촌), 예덕2리(신덕, 만가, 발산, 무봉), 월계1리(석계, 용강), 월계2리(역산, 월계), 용암1리(연화, 방하), 용암2리(신성, 은암, 용산), 용정1리(송정, 용수), 용정2리(복용), 정산1리(내정, 화산), 정산2리(동촌), 정산3리(서촌, 장교, 교실, 영가), 정산4리(신기)

(3) 교훈 :

푸른 꿈을 알차게 가꾸자

(4) 학교 상징

교목 : 향나무 – 인간다운 향기, 교화 : 철쭉 – 협동, 봉사,
교색 : 녹색 – 항상 푸른 꿈

(5) 특색교육 :

– 이것만은 꼭!(수학, 영어, 한자), – 목요 열린 무대

(6) 시설현황 :

부지면적-25.153㎡ 건평-2,400㎡ 건축양식-콘크리트 슬라브

(7) 부대시설 :

관사2동, 체육관 1동, 다목적 강당 1동, 미술관 1동

(8)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81회 졸업, 남17명, 여15명, 계32명(2009. 02. 18. 졸업식)

(9) 연혁

•1925.06.03 월야공립 보통학교 인가 •1925.10.20 월야공립 보통학교 개교
•1941.04.01 월야국민학교로 개칭 •1951.10.20 현 위치로 이거(현 월야중학교에서)
•1971.03.05 월야남 분교 개교
•1975.03.01 월야남분교장을 월야남국민학교로 분리 승격
•1981.03.05 월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4.03.01 월야남교(유치원) 본교 격하로 본교에 소속(양정분교)

광동교(유치원) 본교 격하로 본교에 소속(광동분교)

•1996.03.01 양정분교, 광동분교 본교로 통폐합(유치원 포함)

•1996.03.01 월야초등학교로 개칭

•1997.11.27 도 지정 컴퓨터교육시범학교 보고회

•1999.07.14 도 지정 유아교육 연구학교 2/2년 보고회

•1999.09.01 월야북초등학교 통폐합으로 본교에 귀속

•2007.09.01 제23대 노동수 교장 취임

•2008.11.21 도 지정 문화유산연구학교 중간 보고회(1/2)

•2009.02.18 제81회 졸업식(졸업생 총 수 8,313명)

(10) 주요교육 실적 :

•1970.03.01 ~ 1975.02.28 도지정 시청각 교육 연구 학교

•1979.03.01 ~ 1981.02.28 교육부지정 자연과 연구학교

•1981.03.01 ~ 1982.02.28 교육부지정 교육방송 연구학교

•1989.03.01 ~ 1991.02.28 도지정 산수과 연구학교

•1995.03.01 ~ 1996.02.28 도지정 자연과 연구학교. 표준학교 가꾸기

•1997.03.01 ~ 1998.02.28 도지정 컴퓨터 교육 시범학교

•1998.03.01 ~ 2000.02.28 도지정 유아교육 연구학교

•2008.03.01 ~ 2010.02.28 도지정 문화유산 연구학교

(11)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23	599	588	1,187		1993	9	142	115	253	18
1977	23	586	544	1,130	28	1994	9	119	96	215	30
1978	24	600	562	1,162	28	1995	8	98	90	188	30
1979	23	576	516	1,092	27	1996	9	114	107	221	22
1980	22	556	512	1,068	27	1997	8	112	102	214	21
1981	22	530	492	1,022	30	1998	8	101	96	197	19
1982	21	460	452	912	28	1999	8	126	127	253	24
1983	20	397	405	802	27	2000	10	125	119	244	25
1984	18	361	358	719	29	2001	9	120	116	236	24
1985	16	309	328	637	23	2002	9	136	96	232	24
1986	16	299	289	588	23	2003	8	130	100	230	20
1987	15	284	249	533	22	2004	10	121	97	218	25
1988	13	236	198	434	20	2005	11	117	96	213	28
1989	13	225	179	404	23	2006	10	116	86	202	28
1990	12	196	148	344	20	2007	11	121	86	207	23
1991	13	223	170	393	20	2008	10	108	82	190	23
1992	11	155	119	274	19	2009	9	113	98	191	22

(12)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임기간		주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김 정 술	金 正 述	45. 03. 01	46. 02. 28	학교시설 정비
2	김 용 선	金 容 善	46. 03. 01	50. 08. 31	학교시설 및 주위정비
3	김 규 동	金 圭 同	50. 09. 01	51. 02. 28	학교교지 정리
4	정 강 욱	鄭 康 旭	51. 03. 01	54. 02. 28	건강교육 및 안전교육
5	박 말 갑	朴 末 甲	54. 03. 01	58. 02. 28	교직원의 협동과 인화
6	이 용 근	李 龍 根	58. 03. 01	62. 08. 31	정서 순화교육
7	김 삼 금	金 三 錦	62. 09. 01	64. 02. 28	예절교육
8	윤 우 중	尹 雨 重	64. 03. 01	66. 02. 28	체육진흥
9	박 문 수	朴 文 洙	66. 03. 01	69. 02. 28	환경정화
10	정 충 섭	鄭 忠 燮	69. 03. 01	73. 08. 31	연구풍토조성
11	안 태 종	安 泰 鐘	73. 09. 01	75. 08. 31	교재원 완성
12	김 영 수	金 永 洙	75. 09. 01	76. 01. 31	교육조건 정비
13	정 충 섭	鄭 忠 燮	76. 02. 01	81. 08. 31	학습공원 조성
14	조 상 익	趙 相 翊	81. 09. 01	86. 02. 28	질서교육의 생활화, 어학실 설치
15	김 탑 용	金 塔 溶	86. 03. 01	89. 02. 28	본관 8개교실 신축
16	김 용 수	金 龍 洙	89. 03. 01	93. 08. 31	양습관 형성, 수영장 건립
17	강 복 원	姜 福 遠	93. 09. 01	95. 02. 28	도서관, 급식실 시설, 방송실 설치
18	김 시 원	金 時 元	95. 03. 01	99. 08. 31	표준학교 가꾸기, 컴퓨터실 완성
19	백 국 심	白 菊 心	99. 09. 01	00. 08. 31	열린교육, 인성교육
20	주 영 후	朱 榮 厚	00. 09. 01	02. 08. 31	후관교실 3칸 증축,수업방법 개선
21	이 원 범	李 元 範	02. 09. 01	05. 02. 28	농어촌 현대화 학교 조성사업
22	김 명 선	金 名 善	05. 03. 01	07. 08. 31	학교울타리, 잔디 조성
23	노 동 수	魯 東 洙	07. 09. 01	09. 08. 31	도서관 리모델링, 과학실 현대화
24	모 효 일	牟 孝 一	09. 09. 01		

2. 폐교된 초·중등학교

1-1) 함평서초등학교(장년분교장)

(1) 소 재 지 :

함평읍 장년리 726번지

(2) 학구범위 :

(3) 시설현황 :

부지 면적 15,054㎡. 건평 1,486㎡. 벽돌 콘크리트

(4) 부대시설 :

· 관 사 : 1동, 1988. 08. 09 건립
· 사 택 : 1동, 1994. 11. 22 건립

· 화장실(수세식) : 1동, 1992. 02. 29 건립

(5) 졸업생수 :

1996년까지 47회. 남 2,448명 여 2,121명 계 4,969명

(6) 연 혁

•1937.04.01 : 장년리 백년사립학원 설립
•1946.04.01 : 함평서공립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46.09.01 : 함평서국민학교로 개교
•1973.03.01 : 함평서국민학교 석성분교장 개설
•1979.02.28 : 함평서초등학교 석성분교장을 석성국민학교로 승격 분리 개교
•1981.09.01 : 함평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03.01 : 함평서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00.03.01 : 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장으로 격하
•2004.03.01 :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폐교)

(7) 주요교육실적 :

(8)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21	583	531	1,114	25	1989	6	108	102	210	11
1977	20	574	517	1,081	24	1990	6	104	83	187	11
1978	19	503	486	889	23	1991	6	88	83	171	11
1979	18	439	416	855	22	1992	6	73	71	144	11
1980	16	460	378	778	20	1993	6	53	52	105	11
1981	14	356	330	688	18	1994	6	64	54	118	11
1982	13	355	241	596	17	1995	5	32	40	72	11
1983	12	250	248	498	16	1996	5	26	31	57	10
1984	11	244	254	498	15	1997	5	19	26	45	10
1985	11	219	202	421	15	1998	4			50	
1986	10	174	183	357	14	1999	4			39	
1987	10	149	164	313	14						
1988	9	152	147	299	14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취 임	퇴 임	본 적	주 요 공 적
1	박 말 갑	朴 末 甲	'47. 4. 1	'51. 2. 14	전 남	5개 교실 증축
2	정 상 기	鄭 相 基	'51. 2. 15	'52. 3. 31	〃	
3	장 남 규	張 南 圭	'52. 4. 1	'53. 8. 10	〃	2개 교실 증축

4	이 동 근	李 童 根	'53. 8. 31	'66. 2. 28	〃	
5	장 남 규	張 南 圭	'56. 3. 1	'59. 8. 8	〃	
6	김 용 수	金 庸 洙	'59. 8. 9	'60. 7. 31	〃	
7	노 근 후	魯 根 厚	'60. 8. 1	'61. 8. 25	〃	
8	이 길 재	李 佶 宰	'61. 8. 21	'64. 11. 30	전 남	
9	김 영 삼	金 永 三	'64. 12. 1	'68. 10. 20	〃	
10	장 수 복	張 壽 福	'68. 10. 21	'70. 2. 28	〃	
11	이 길 재	李 佶 宰	'70. 3. 1	'71. 3. 31	〃	
12	나 병 연	羅 炳 連	'71. 3. 2	'72. 3. 1	〃	
13	박 남 규	朴 南 圭	'72. 3. 2	'75. 8. 31	〃	
14	김 재 평	金 在 平	'75. 9. 1	'78. 8. 30	〃	새학교 가꾸기
15	김 병 학	金 炳 鶴	'78. 10. 1	'83. 2. 28	〃	
16	박 태 삼	朴 台 三	'83. 3. 1	'88. 8. 30	〃	
17	권 학 석	權 學 錫	'88. 9. 1	'94. 2. 28	〃	
18	안 국 섭	安 國 燮	'94. 3. 1	'97. 8. 31	〃	
19	김 성 수	金 性 洙	'97. 9. 1	99. 8. 31	〃	
20	심 청 무	沈 靑 茂	'99. 9. 1	2000. 2.28	〃	

<자료 제공자. 교감 신한균>

1-2) 함평북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13번지

(2) 학구범위 :

대덕리, 진양리,

(3) 시설현황 :

14,286㎡(학구민 박행석 기증)

(4) 부대시설 :

단층 스라브 2동 10실

(5) 졸업상황 :

(6) 연 혁 :

•1962.12.31 함평초등학교 영풍분교장 격

•1964. 4. 7 함평북초등학교 승

•1967. 3. 1 12학급 편성

•1997 .3. 1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자료 제공자 : 교감 신한균(申漢均)

1-3) 성남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15

(2) 학구범위 :

함평군 소재지에서 서남방 5㎞쯤 되는
함평읍 성남리에 위치하며 학구는 성남, 자풍, 만흥외 장교리 1부(월봉, 작동)
수호리 1부로 13개 자연마을로 호수 573호, 인구 3,688명이다.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564.24㎡,
•건 평 - 115.6㎡, •건축양식 - 단층슬라브

(4) 부대시설 :

관사 - 1동 사택 -1동

(5) 졸업상황 :

1996년도까지 48회 졸업생수 남-1,701명, 여-1,367명, 계-3,068명

(6) 연 혁 :

•1936.4.1 성남공립보통학교부설 성남간이학교 설립
•1950.4.1 성남국민학교로 개칭 •2002년 3월 1일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7) 중요교육 실적

•1966.09.09 : 과학전람회 우수상 •1970.09.08 : 과학전람회 우수상
•1974.09.08 : 과학전람회 우수상 •1977.06.11 : 목포시 육상연맹회 종합 3위
•1978.11.10 : 전남교육감기쟁탈 초등(축구) 축구 우승
•1978.10.24 : 대한민국정부수립 30주년 기념 종합학도 예술제 입상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2	308	311	619		1987		113	108	221	
1977	12	305	304	609		1988	6	103	97	190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8	12	298	298	596		1989	6	86	91	177	
1979	12	287	268	555		1990	6	83	78	161	
1980	12	276	270	546		1991	6	66	63	129	
1981	12	258	234	492		1992	6	57	52	109	10
1982		251	206	457		1993	6	52	48	100	9
1983		214	182	396		1994	6	47	42	89	10
1984		162	151	313		1995	5	38	37	75	10
1985		152	146	298		1996	5	25	36	61	11
1986		125	130	255		1997	6	26	34	60	11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박제구		'46.09.10	'48.11.19		시설
2	김정술		'48.11.20	'50.06.14		
3	박기수		'50.06.15	'51.04.29		
4	조근재		'51.04.30	'52.01.14		
5	박봉주		'52.01.15	'53.08.02		
6	김행태		'53.08.03	'56.08.30		
7	조근재		'56.08.31	'59.07.14		학교주변식수
8	리길재		'59.07.15	'61.08.30		교사신축
9	윤용혁		'61.08.31	'65.05.09		관사 및 4개교실 증축
10	조근재		'65.05.10	'71.02.28		교실10칸 증축 및 운동장확장
11	리길재		'71.03.01	'76.08.30		시설, 실력양성
12	나영부		'76.09.01	'81.08.31		학습공원화,운동장 확장
13	김갑병		'81.09.01	'86.08.31		교사 개축
14	고정륜		'86.09.01	'90.08.31		학력향상,정문통로 포장
15	최병록		'90.09.01	'96.08.31	함평 학교	전교실 전기가설, 4교실 개축, 배수로 시설
16	정규종	丁奎鐘	'96.09.01		함평 엄다	

<자료 제공자 : 교감 신한균(申漢均)>

1-4) 석성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00-14

(2) 학구범위 :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5,245㎡, •건 평 – 467㎡,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

(4) 부대시설 :

관사 – 2동, 교사 – 1동, 변소 – 1동, 기타 – 1동

(5) 졸업상황 :

1999년도까지 20회 졸업생수 남331명, 여354명 계685명

(6) 연 혁

•1977.06.05 : 함평서국민학교 석성분교장 설립 •1979.03.03 : 석성국민학교 개교
•1984.06.12 : 병설유치원 설립 •1999.02.19 : 제20회 졸업 (총 졸업생 559명)
•1999.09.01 :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

(7) 주요 교육실적 :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988	6	75	77	152	10
1977						1989	6	77	62	133	10
1978						1990	6	69	64	133	11
1979		125	121	246	10	1991	6	70	53	123	11
1980		134	117	251	10	1992	6	65	48	113	11
1981		129	123	252	11	1993	6	52	45	97	11
1982		142	135	277	11	1994	5	37	41	78	11
1983		134	141	275	11	1995	5	31	39	70	11
1984		128	123	255	11	1996	5	27	25	52	10
1985		103	65	208	10	1997	5	23	29	52	10
1986		102	87	199	10	1998	4	20	25	45	6
1987		85	84	169	10	1999	4	21	25	46	6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조병연	趙炳然	79. 3. 1	84. 2.28	함평군	신설학교시설정비확충
2	조희출	曺喜出	84. 3. 1	88. 8.31	광주시	학교운영내실충실
3	이행만	李行萬	88. 9. 1	90. 4.11	함평군	교육환경여건개선
4	임진곤	林進坤	90. 4.12	95. 8.31	광주시	교정스탠드구축,휴게실시설
5	김준석	金俊錫	95. 9. 1	97. 3.25	장성군	교장관사수리
6	이채호	李採鎬	97. 3.25	1999.8.31	광주시	정년퇴임

〈 자료 제공자 : 교감 신한균(申漢均) 〉

3-1) 손불남초등학교

(1)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425번지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9,362㎡ 건평-1,559㎡ 건축양식-슬라브 및 스레트

(3) 부대시설 :

교장관사 1동 교감관사1동 직원관사1동

(4) 졸업상황 :

1998년까지 27회 졸업생수 남-855명 여-827명 계-1,682명

(5) 연혁

• 호남의 서해안에 위치하고 손불과 주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가지고 있다

• 강남의 전씨와 석계의 최씨와의 주민은 40년전 간척 농장과 더불어 이주해 온 주민인다.

• 농업이 주업이고 옛날에는 바다의 갯지렁이 간척 논바닥에서 나오는 고령토 등 취역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린바 있으나 지금은 전무하여 바다에서의 소독은 없는 편이다.

• 버스가 1일 8회정도 드나드나 정기적이지 못하여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학부형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이다.

• 연혁 개요

• 1967. 9. 1 손불초등학교 석산분교장 인가 • 1968. 9. 18 손불초등학교 석산분교 개교

• 1969. 9. 8 손불남초등학교 인가 • 1999. 3. 1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6) 중요교육 실적

• 1988. 10. 29 새마을교육 우수교 표창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3	311	324	635	17	1988	7	89	90	179	11	
1977	13	382	287	569	17	1989	6	100	83	183	11	
1978	13	316	286	602	17	1990	6	102	80	182	11	
1979	13	319	276	595	17	1991	6	86	71	157	11	
1980	13	302	264	566	17	1992	6	69	65	144	11	
1981	13	291	264	555	17	1993	6	51	48	99	11	
1982	13	279	271	550	17	1994	6	46	45	91	11	
1983	13	266	256	522	17	1995	5	37	34	71	10	
1984	12	205	212	417	16	1996	4	34	29	63	10	
1985	10	173	174	347	14	1997	5	28	26	54	10	
1986	9	158	131	289	13	1998	5	25	20	45	9	
1987	8	118	103	221	12							

(8)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 글	한 문	취임	퇴임			
1	김자현	金資鉉	'70. 3. 1	'75. 9. 1	전남	교지정리, 초장기 건설	
2	김상만	金相滿	'75. 9. 1	'77. 8.31	잔남함평	교문통시멘트포장40m	
3	서철수	徐喆洙	'77. 9. 1	'79. 8.31	전남장성		
4	홍구표	洪球杓	'79. 9. 1	'81. 8.31	전남장흥	관사1동,도서296권,후문개설	
5	곽충로	郭忠魯	'81. 9. 1	'86. 8.31	광주	우천로신설, 교문설치	
6	조기근	曺基根	'86. 9. 1	'90. 2.28	전남함평	스탠드시설, 화단조성	
7	최상만	崔相滿	'90. 3. 1	'92. 2.28			
8	이재문	李載文	'92. 3. 1	'94. 2.28	전남나주	운동장배수로시설172m	
9	윤계홍	尹桂洪	'94. 3. 1	'98. 2.28	광주		
10	이계남	李桂南	'98. 3. 1	'99. 2.28			

3-2) 손불동초등학교 (용암분교)

(1)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709번지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9,655㎡, 건평-495.87㎡,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

(3) 부대시설 :

숙직실, 창고, 샤워실, 화장실, 사택2동, 급식실

(4) 졸업상황 :

1996년까지 31회 졸업생수 남-712명 여-681명 계-1,393명
1997~2004년 까지 분교장 졸업생수 남-22명 여-9명 계-31명

총 졸업생 합계 남-734명, 여-690명 계-1,424명

(5) 연혁

•1963.06.30 : 손불동초등학교 인가 •1963.10.10 : 손불동초등학교 개교

•1984.06.11 : 병설유치원 개원 •1988.01.01 :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인가

•1994.09.01 :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로 편입

•1996.03.01 :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로 명칭 변경

•2005.03.01 :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6) 중요교육 실적

년 월 일	종 류	등위	입상자	주 최	적 요
'80.10.17	포지구체육대회 니스)	준우승	년 편기법 년 나병진, 정유중, 박기종	남학도체육대회	
'81.12.15	육보건환경관리	우수		남교육위원회교육감	
'82.06.22	회 전남 체육대회 령지역(탁구)	1등	성옥, 이연희, 김경희, 조희경	남교육위원회교육감	불동:임자남=4:0 불동:목표대성=4:3
'93.04.21	수과학어린이상		윤환	학기술처	7341호
'93.08.05	남과학전람회	장려상	미지, 김상권	남교육감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8	209	198	407	10	1991	6	49	60	109	8
1977	12	213	205	418	14	1992	6	39	39	78	8
1978	12	183	182	365	14	1993	5	26	26	52	7
1979	12	210	204	414	14	1994	3	22	11	33	3
1980	11	205	195	400	13	1995	3	18	11	29	3
1981	11	190	160	350	13	1996	3	16	5	21	3
1982	10	176	152	328	13	1997	3	14	5	19	3
1983	9	136	120	256	11	1998	3	13	6	19	5
1984	7	121	104	225	9	1999	3	13	10	23	5
1985	7	92	90	182	9	2000	3	13	16	29	5
1986	6	75	72	147	8	2001	3	15	16	31	5
1987	6	74	69	143	8	2002	3	13	15	28	5
1988	6	57	61	118	8	2003	3	10	9	19	5
1989	6	57	71	128	8	2004	3	7	8	15	5
1990	6	57	68	125	8						

(8)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 글	한 문	취임	퇴임		
1	김흔두	金炘斗	'64. 4. 2	'64. 8.31		
2	나보현	羅寶鉉	'64. 9. 1	'65.10. 4		
3	곽충노	郭忠魯	'65.12. 5	'66. 9.14		
4	고재길	高在吉	'66. 9.15	'73. 8.31		
5	강길성	姜吉聲	'73. 9. 1	'76. 8.31	영광묘량	
6	이영창	李英昌	'76. 9. 1	'80. 8.30		우물시설
7	김영숙	金永淑	'80. 9. 1	'85. 2.28	함평	간이샤워장
8	박용완	朴用浣	'85. 3. 1	'88. 8.31	진도	급식학교
9	윤석언	尹錫彦	'88. 9. 1	'92. 8.31	함평해보	생울타리조성
10	이재승	李載承	'92. 9. 1	'93. 8.31	함평나산	
11	천채욱	千彩旭	'93. 9. 1	'94. 8.31	함평엄다	손불교 겸임
12	최상만	崔相滿	'94. 9. 1	'96. 2.28	함평나산	손불교 겸임
13	최석만	崔石滿	'96. 3. 1	'98. 2.28	함평	정년퇴임
14	윤계홍	尹桂洪	'98. 3. 1	'98. 8.31		손불교 겸임
15	이영실	李永實	'98. 3. 1	'02. 8.31		손불교 겸임
16	노강수	魯康洙	'02. 9. 1	'04. 8.31		손불교 겸임
17	정형수	丁炯秀	'04. 9. 1	'05. 2.28		손불교 겸임

5-1) 신광북초등학교

(1) 소 재 지 :

신광면 함정리 160-12

(2) 부지면적 :

8,082㎡

(3) 연　　혁

•1963.10.11 : 함정분교장　　•1964.10.10 : 신광국민학교 함정분교장 개설
•1970.03.01 : 신광북국민학교로 승격 •1987.03.01 : 신광국민학교 함정분교장으로 격하
•1988.03.01 : 신광국민학교로 통폐합

(4) 졸업상황 :

1996년도까지 회　졸업생수　남-명　여-명　계-　명

(5)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1	6	92	112	204		1980					
1972	6	109	106	215		1981	6	86	79	165	
1973	6	105	119	224		1982	6	81	70	151	
1974	6	104	113	217		1983	6	61	68	129	

1975	6	105	117	222		1984				114	
1976	6	96	105	201		1985				102	
1977	6					1986				87	
1978	6					1987				66	
1979	6	85	83	168		1988				53	

(6)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중 요 공 적
	한글	한문	취 임	퇴 임		
1대	김 성 덕	金成德	1970.3.1	1975.3.1		
2대	김 천 수		1975.3.1	1977.9.1		
3대	김 동 희	金東喜	1977.9.1	1977.9.1		
4대	오 병 렬		1979.9.1	1982.3.1		
5대	노 종 기		1982.3.1	1987.3.1		

5-2) 신광서초등학교

(1) 소 재 지 :

신광면 동정리 296번지

(2) 부지면적 :

9,778㎡

(3) 연 혁

•1939.04.01 : 설립인가 •1939.06.01 : 신광공립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개교
•1945.08.15 : 신광서국민학교로 승격 •1950.11.30 : 6·25 전쟁으로 교실 전소
•1959.04.25 : 전 교사 보수 공사 •1968.01.15 : 부지 3,185㎡ 구입 확장
•1991.03.01 : 신광국민학교 동전분교로 격하 •1995.03.01 : 신광초등학교로 통폐합

(4) 졸업상황 :

1995년도까지 33회 졸업생수 10,327명

(5)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61	6	147	68	215		1968	8	226	190	416	
1962	6	163	85	248		1969	8	190	202	392	
1963	7	206	134	340		1970	9	244	209	453	

1964	7	185	152	337		1971	9	294	240	534	
1965	7	181	135	316		1972	10	288	282	570	
1966	7	196	139	335		1973	11	312	240	552	
1967	7	176	144	320		1974	11	308	289	597	
1975	12	284	274	558		1981	11			351	
1976	12	251	230	481		1982	10			319	
1977	12			487		1983	9			269	
1978	12			468		1984	6			201	
1979	12			434		1985	6			157	
1980	12			395		1986	6			124	
1987	6			100		1993				31	
1988	6			85		1991				57	
1989	6			67		1992				33	
1990	4			62		1994				23	

(6) 역대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중 요 공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대	리 영 창		1948.04.15	1950.09.25		
2대	김 형 태					
3대	노 상 원					
4대	양 재 근					
5대	정 희		1953.08.25	1957.04.30		
6대	정 승 호		1957.05.01	1958.03.30		
7대	정 충 섭		1958.03.31	1959.10.30		
8대	이 원 중		1959.03.31	1961.09.29		
9대	이 용 근		1961.09.30	1964.04.30		
10대	정 강 옥		1964.05.01	1965.07.09		
11대	김 규 동		1965.07.10	1071.08.31		
12대	리 영 창		1971.09.01	1976.08.31		
13대	박 인 재		1976.09.01	1978.10.01		
14대	김 영 태		1978.10.01	1983.02.28		
15대	박 윤 택		1983.03.01	1986.02.28		
16대	오 종 남	吳鍾楠	1986.03.01	1989.02.28		현대식 조리실, 식당 구축
17대	이 석 행	李鈺行	1989.03.01	1991.02.28		교실 개축(4교실) 신축교실과 구교실 통로

6-1) 학교남초등학교 (금송분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271번지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2,650㎡ 건평-1,531.9㎡ 건축양식-연화슬레, 벽슬라

(3) 부대시설 :

관사 2동

(4) 졸업상황 : 2

000년도까지 51회　　졸업생수 3,435명

(5) 연　　혁

•1938.07.01 : 금송간이학교 설립인가　•1944.04.01 : 학교남공립학교로 개칭
•1950.06.01 : 학교남국민학교로 개칭　•1984.03.03 : 학교남병설유치원 인가
•1989.09.01 : 벽지학교 지정　•1991.02.04 : 급식학교 지정
•1996.03.01 : 학교남초등학교로 개칭　•1997.03.01 :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

(6)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3	307	292	599	17	1989	6	73	87	160	13
1977	13	310	305	615	17	1990	6	68	85	153	13
1978	13	278	289	567	17	1991	6	58	61	119	13
1979	12	284	264	548	16	1992	6	50	58	108	13
1980	12	230	246	476	16	1993	6	47	42	89	13
1981	12	219	227	446	16	1994	5	34	35	69	12
1982	11	183	199	382	15	1995	4	32	26	58	12
1983	10	165	164	329	15	1996	4	24	22	46	9
1984	9	140	132	272	14	1997	3	12	17	29	6
1985	8	123	119	242	13	1998	3	10	13	23	
1986	7	102	104	206	13	1999	3	8	11	19	
1987	6	100	86	186	13						
1988	6	79	94	173	13						

(7)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중 요 공 적
	한 글	취 임	퇴 임	
1	정 종 기	46. 5.10	48.11.30	
2	구 재 학	48.11.30	55.10.15	교실 2칸 증축
3	김 종 현	55.10.15	57.10.15	
4	윤 상 래	57.11.15	64. 6.29	운동장확장, 교실4칸 증축
5	정 병 세	64. 6.29	66. 4.14	운동장 확장
6	박 진 영	66. 4.15	67. 8.30	
7	윤 상 래	67. 8.30	68. 5. 1	교실4칸 증축
8	손 두 헌	68. 5. 1	73. 8.30	교실7칸 증축
9	박 인 제	73. 9. 1	76. 9. 1	상수도시설 교실 개축
10	김 갑 병	76. 9. 1	81. 8.31	담장울시설, 운동장 확장
11	최 영 례	81. 9. 1	86. 3. 1	
12	이 기 헌	86. 3. 1	91. 2.28	
13	이 석 행	91. 3. 1	93. 2.28	
14	윤 경 삼	93. 3. 1	94. 8.31	
15	전 정 주	94. 9. 1	97. 2.28	
16	김 원 조	97. 3. 1	98. 2.28	금송분교장
17	김 중 전	98. 3. 1	2000.2.29	금송분교장

6-2) 학다리초등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85번지



학다리초등학교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16,302㎡,
- 건 평 - 2,136㎡,
- 건축양식 - 슬라브2층

(3) 부대시설 :

관사3동, 급식소 1동 3칸

(4) 졸업상황 :

2007년도까지 56회 졸업 졸업생수 : 남-3,015명, 여-2,382명 계-5,397명

(5) 연 혁

•1946.06.01 : 학다리서공립학교 인가 •1946.06.04 : 개교. 학교면 학교리 445번지
•1947.05.01 : 학교면 사거리 467번지로 학교 위치 변경

•1949.02.15 : 학다리중앙국민학교와 병합 •1952.05.01 : 학다리서국민학교로 재인가
•1952.06.01 : 학교면 학교리 585번지에 재개교
•1966.01.10 : 학다리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81.03.01 : 학다리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1981.03.10 : 병설유치원 개원 •1983.03.01 : 특수학급 설치
•1996.03.01 ; 학다리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1997.03.01 : 학다리남초등학교를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로 교명 개칭
•2000.03.01 :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2008.09.01 :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6) 중요교육 실적

•1960.09.20 : 특별활동 도지정 발표 •1989.11.07 : 도지정 과학교육 시범학교 발표
•1996.11.13 : 표준학교(유치원) 가꾸기 실적 보고회
•2001.03.01 : 학습지도 시범 학교 •2004.03.01 : 군지정소규모학교간 협동교육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9	476	467	943	21	1993	9	104	85	189	17
1977	19	465	457	922	21	1994	9	115	86	201	17
1978	18	446	447	893	20	1995	8	89	76	175	15
1979	18	409	426	835	20	1996	7	81	55	136	16
1980	18	394	388	782	20	1997	7	83	45	128	15
1981	18	364	372	736	20	1998	7	58	48	106	20
1982	17	337	334	671	23	1999	7	68	51	119	18
1983	16	313	319	632	22	2000	7	48	48	94	13
1984	14	272	267	539	19	2001	7	51	47	98	13
1985	14	247	241	488	20	2002	7	51	49	100	12
1986	12	232	218	450	19	2003	7			100	12
1987	12	192	182	374	20	2004	7			94	13
1988	12	186	175	361	20	2005	7	44	37	81	13
1989	12	169	147	316	20	2006	7	44	29	73	14
1990	12	182	158	340	21	2007					
1991	11	163	137	300	19	2008					
1992	9	115	86	201	19						

(8)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나채환		52. 3.31	53. 4.15		연구발표
2	조근재		53. 4.15	56. 8.31		운동장확장
3	정강옥	丁康玉	56. 8.31	61. 8.26	함 평	담장구축
4	정종기	鄭宗基	61. 8.26	64. 4. 2	함 평	시설확충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5	정화	鄭火	64. 4. 2	64.10.30	광주	시설확충
6	이길재	李佶宰	64.12. 1	66. 4.15	함평 엄다	교정식목,주산교육
7	박문수	朴汶洙	66. 4.15	68. 5. 1	전남 여천	축대완공 및 시설 확충
8	윤상래	尹相來	68. 5. 1	70. 9.16	함평	운동장용지 환치
9	김영철	金泳喆	70. 9.16	72. 9. 1		시청각기교재 확충
10	박우규	朴佑圭	72. 9. 1	76. 9. 1		
11	채규상	蔡奎相	76. 9. 1	78. 8.31		우물시설
12	박인재	朴仁載	78.10. 1	81. 8.31		스탠드,교문시설
13	송구락	宋龜洛	81. 9. 1	86. 2.28	나주 문평	
14	김기동	金基銅	86. 3. 1	87. 8.31	나주 문평	피아노기증
15	김성덕	金成德	87. 9. 1	91. 2.28		컴퓨터실설치
16	김상길	金相吉	91. 3. 1	93. 8.31	목포 산정	어학실 배수로 시설
17	최철순	崔哲淳	93. 9. 1	97. 8.31	해남 옥천	표준학교완료 후관교실6칸
18	서금종	徐金鍾	97. 9. 1	00.8.31	광주	
19	정일성	丁壹聲	00.9.1	02.2.28		교문신축외 8건
20	송정수	宋貞秀	03.3.1	04.8.31		계단보수공사외 10건
21	신적현	申籍鉉	04.9.1	07.2.28		파고라시설외 11건
22	박병조	朴昞祚	07.3.1	08.8.31		

6-3) 학다리동초등학교(복천분교장)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425번지

(2) 시설현황 :

•부지면적- 7,907㎡, •건평-1,260㎡, •건축양식-슬라브

(3) 부대시설 :

숙직실1동, 변소 1동

(4) 졸업상황 :

1994년도까지 38회 졸업생수 남-2,523명 여-847명 계-3,370명

(5) 연 혁

•1957.04.07 : 학다리동국민학교 인가
•1957.06.11 :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부터 1,2,3학년 3학급 인수
•1958.04.01 :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부터 5,6학년 2학급 인수
•1976.03.02 : 학다리동초등학교 신성분교장 설립
•1992.09.01 : 학다리중앙국민학교 복천분교장으로 격하
•1994.03.01 : 복천분교장 폐교, 학다리중앙국교에 통합

(6) 중요교육 실적

•1974.03.01 ~ 1975.02.28 : 도 지정 자활학교 운영
•1976.12.05 : 새 학교 가꾸기 장려상 전남교육위원회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6	154	154	308	1987	5	88	75	163
1977	6	148	138	286	1988	5	80	70	150
1978	6	140	135	275	1989	5	70	58	128
1979	6	138	145	283	1990	5	40	45	85
1980	6	120	135	255	1991	4	35	30	75
1981	6	118	125	243	1992	4	24	20	44
1982	6	115	114	229	1993	4	20	17	37
1983	6	110	109	219					
1984	6	110	105	215					
1985	6	109	95	205					
1986	6	98	97	195					

(8)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임기간		본 적	중요공적
		취 임	퇴 임		
1	윤 용 혁	1957. 5.25	1961. 8.26	전 남	창설학교 교지정리
2	노 근 후	1961. 8.26	1973. 2.28	전남 함평	자활학교 터전 마련
3	임 장 옥	1973. 9. 1	1979. 8.31	전 남	시설환경 확충
4	이 경 형	1979. 9. 1	1984. 2.28	전 남	공원환경조성
5	조 병 연	1984. 3. 1	1988. 8.31	전 남	환경조성
6	이 한 국	1988. 9. 1	1992. 8.31	전 남	우물설치

6-4)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신성분교장

(1)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7-6

(2) 음성 나환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특수 목적으로 1976. 3. 1에 개교하였다.

(3) 2003. 2. 28에 재학생 1명이 졸업과 동시에 폐교하였다.

8-1) 엄다남초등학교

(1) 소 재 지 :

엄다면 영흥리 890번지

(2) 부지면적 :

11,431㎡

(3) 연 혁

•1955.09.20 : 엄다국민학교 영흥분교장 인가 •1955.11.19 : 분교장 1학급 개교
•1956.11.09 : 엄다남국민학교로 승격 •1992.03.01 : 엄다국민학교로 통폐합

9-1) 대동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689



대동초등학교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3872㎡,
•건평-1,240㎡, •건축양식-시멘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관 사 1동, 숙직실 1동,
창 고 1동, 급식실 1동

(4) 졸업현황 :

1998학년도 제53회 졸업, 남10명, 여7명, 계17명 (졸업생누계:3,742명)

(5) 연혁

① 학교설립동기 :

대동초등학교는 노령산맥에서 맺는 고산봉의 산지가 남북으로 길게 연이어 해보면 나산면과 면계를 이루고 이 산 기슭을 따라 단일로로 함평읍에서 6km쯤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② 연도별 주요 개요

•1932.03.25 : 함평 공립 보통학교 용성간이 학교 인가
•1932.06.01 : 함평 공립 보통학교 용성간이 학교 개교
•1943.04.01 : 대동북 공립 국민학교로 승격
•1946.04.01 : 대동북 국민학교 교명 개칭 •1950.10.15 : 6.25 동란으로 전교사 소실
•1951.06.01 : 대동 남·북교 병합, 대동국민학교 교명 개칭
•1962.12.30 : 서호 연암 분교장 설치 •1963.11.01 : 대광국민학교로 승격
•1964.03.01 : 서호 연암분교장 한골국민학교로 승격
•1967.09.01 : 대광국민학교로 승격
•1982.03.01 : 한골국민학교 수몰로 대동국민학교 서호분교장 설치
•1983.03.05 : 대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
•1992.03.01 : 대동초등학교 서호분교장 통폐합
•1998.03.01 : 대광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대신분교장으로 격하 편입 설치
•1999.09.01 : 대동초등학교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6) 학교 상징loby

① 교목 : 배롱나무 – 푸른 하늘을 향하여 아름답게 뻗어가는 기운과 고운 마음을 지니고 어려움

t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끈기있게 행동하는 대동 어린이 투지의 상징

② 교화 : 장미 – 매서운 가시틈으로 고상하고 기품있는 꽃망울을 잉태하여 맑고 환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들어내는 장미의 향기는 대동 어린이의 마음의 상징

③ 교색 : 녹색 – 천지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력의 근원인 녹색은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를 창조해가는 대동어린이의 상징

(7)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1997.03.01 : 환경교육연구학교 함평군교육청지정

② 학교수상현황
•1971.05.15 : 목포지구 여자배구 우승 전남도 주최
•1973.03.21 : 스포츠소년대회 여자배구 우승 전남도 주최
•1983.08.13 : 수영대회 입상 2 전남교육위원회
•1998.10.29 : 농악경연대회(목포지역) 은상 도 교육감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46	4	218	17	235		1973	15	427	367	794	
1947	4	211	27	238		1974	15	423	353	776	
1948	4	203	31	234		1975	14	414	339	753	
1949	4	207	33	240		1976	13	357	336	693	17
1950	4	213	41	254		1977	14	355	334	689	18
1951	4	225	47	272		1978	13	327	318	645	17
1952	5	220	66	286		1979	13	324	280	604	17
1953	5	236	69	305		1980	12	246	228	474	16
1954	5	271	78	349		1981	11	212	220	432	15
1955	7	296	108	404		1982	11	229	229	458	15
1956	7	307	109	416		1983	11	192	198	390	15
1957	9	356	152	508		1984	8	164	159	323	12
1958	9	378	162	540		1985	9	133	141	274	13
1959	10	395	181	576		1986	7	122	125	247	12
1960	10	382	218	600		1987	7	103	115	218	12
1961	10	375	223	598		1988	6	75	81	156	12
1962	11	387	266	653		1989	6	64	67	131	12
1963	11	375	289	664		1990	6	68	65	133	12
1964	13	358	317	675		1991	6	72	65	137	12
1965	13	359	334	693		1992	6	66	59	125	12
1966	13	380	324	704		1993	6	63	53	116	12
1967	13	387	336	723		1994	6	45	41	86	13
1968	13	390	334	724		1995	6	49	42	91	13
1969	13	375	308	683		1996	6	42	31	73	13
1970	13	413	323	736		1997	6	37	31	68	12
1971	13	414	329	743		1998	6	37	27	64	12
1972	14	408	344	752		1999	6	31	30	61	12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백전태랑	栢田太郎	32. 4. 1	36. 3.31
2	도변차랑	渡邊叉郎	36. 3. 1	41. 3.30
3	안승후	安勝厚	41. 3.31	43. 3.31
4	김강섭	金康燮	43. 4. 1	46. 3.31
5	김형태	金珩泰	46. 4. 1	46. 8.30
6	윤상래	尹相來	46. 8.31	47. 3.30
7	조근재	趙根才	47. 3.31	48. 9.29
8	강승원	姜承源	48. 9.30	49. 3.30
9	김순완	金純完	49. 3.31	50. 3.30
10	김삼금	金三今	50. 3.31	51. 2.14
11	양재건	梁在健	51. 2.15	51. 3.31
12	장남규	張南圭	51. 4. 1	52. 3.31
13	박말갑	朴末甲	52. 4. 1	53. 3.30

14	장 수 복	張 秀 福	53. 3.31	56.12.30
15	허 령	許 鈴	56.12.31	58. 8.30
16	이 정 남	李 廷 南	58. 8.31	59. 3.30
17	김 상 만	金 相 滿	59. 3.31	61. 8.25
18	김 종 현	金 宗 鉉	61. 8.26	64. 6.21
19	장 남 규	張 南 圭	64. 6.22	73. 8.30
20	나 병 련	羅 炳 連	73. 9. 1	75. 8.30
21	조 기 근	曺 基 根	75. 9. 1	80. 8.31
22	김 자 현	金 資 鉉	80. 9. 1	83. 2.28
23	김 양 현	金 陽 炫	83. 3. 1	88. 2.28
24	김 동 희	金 東 喜	88. 3. 1	93. 2.28
25	이 준 렬	李 濬 烈	93. 3. 1	97. 2.28
26	윤 석 택	尹 錫 澤	97. 3. 1	99. 2.28
27	김 명 규	金 命 圭	99. 3. 1	99. 8.31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9-2) 한골초등학교(서호분교장)

(1) 소 재 지 :

대동면 서호리 243

(2) 졸업현황 :

1992학년도 제27회 졸업, 남3명, 여3명, 계6명 (졸업생누계 867명)

(3) 연 혁

① 학교설립동기 :

농촌지대이지만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문화시설이 빈약하여 아동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학교를 설립함.

② 연도별 주요사안

•1963.03.01 : 대동국민학교 연암분교장 설립(인가)
•1963.07.01 : 대동국민학교 연암분교장 개교 •1964.04.01 : 한골국민학교로 승격
•1982.03.01 : 수물로 서호분교장으로 격하 •1992.03.01 : 대동초등학교로 통폐합

(4)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1978. 3. 2 아동저축생활화운동 군지정

② 학교수상현황

•1968.09.25 : 학생저축우수상 •1972.09.25 : 저축교육우수상

•1973.09.25 : 학생저축우수상　　•1976.05.26 : 연합체육대회노력상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9-3) 대광초등학교(대신분교장)



(1)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422-7

(2) 학구 범위 :

(대동면) 금산1,2리 (신광면) 가덕리(매산, 가덕), 유천1리 (벽류), 유천2리(미출), 유천3리(학천)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16,229㎡, •건 평- 1,164㎡, 건축양식- 시멘트 슬라브

(4) 부대시설 :

과학실 1실. 컴퓨터실 1실. 급식실 1동. 창고 2동. 숙직실 1동. 사 택 1동

(5) 졸업상황 :

1997학년도까지 27회 졸업생수 남-666명 여-657명 계-1,323명

(6) 연 혁

① 학교설립동기 :

대동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에 취학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대동과 신광의 경계인 현 위치에 설립하게 됨. 대동의 "대" 자와 신광의 "광"을 따서 "대광"이라고 지었으며 온 세상에 크게 빛나라는 뜻이다.

② 연도별 주요사안

•1967.09.09 : 대동국민학교 대광분교로 개설　•1968.07.23 : 대광국민학교 설립 인가
•1984.06.05 : 대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1992.11.30 : 군지정 국제 이해교육 시범학교 보고회
•1993.10.14 : 도지정 과학교육 시범학교 보고회 •1996.06.05 : 급식학교 인가
•1998.02.16 : 제27회 최종졸업 (1323명 배출)
•1998.03.01 : 대동초등학교 대신분교장으로 격하
•1999.09.01 : 향교초등학교 대신분교장으로 변경

•2006.03.01 : 대동향교초등학교 대신분교장으로 개칭
•2008.03.01 : 대동향교초등학교 대신분교장 폐지

(7) 학교 상징

•교목 : **동백나무** – 사철 동백나무와 같이 파랗고 굳센 어린이

•교화 : **국화** – 찬서리에 피어난 국화처럼 굳센 의지와 성실한 어린이

•교색 : **녹색** – •푸른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꿈을 가꾸는 어린이

•울창한 숲풀처럼 평화롭고 튼튼하고 건강한 어린이

(8)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1992.03.01 : 국제이해교육시범학교 운영 군교육청지정
•1993.03.01 : 과학교육시범학교운영 도교육청지정

② 학교수상현황

•1981.07.09 : 전남학도 체육대회 영광지역 축구 우승
•1989.11.30 : 근검협동 생활교육 우수상 교육감
•1993.12.24 : 과학교육시범학교운영 우수상 교육감

(9)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1	398	115	413	16	1992	6	75	21	96	11
1977	11	275	129	404	16	1993	6	52	23	80	11
1978	12	272	130	402	17	1994	5	40	25	65	10
1979	12	262	132	394	17	1995	5	40	25	65	10
1980	11	257	121	378	16	1996	5	35	22	57	10
1981	10	241	111	352	15	1997	4	27	15	42	9
1982	9	204	90	294	14	1998				42	5
1983	8	213	83	296	13	1999				38	5
1984	7	183	75	258	12	2000				36	4
1985	6	117	59	176	11	2001				22	4
1986	6	112	42	154	11	2002				22	4
1987	6	107	34	141	11	2003				19	4
1988	6	101	30	131	11	2004				15	4
1989	6	97	29	126	11	2005				11	4
1990	6	92	28	120	11	2006				7	3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91	6	91	27	118	11	2007				7	3

(10)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노병호	盧柄鎬	1968.12. 1	1971. 2.28	광주	학교교지 정리
2	박인수	朴仁守	1971. 3. 1	1976. 8.31	광주	학교경영 우수
3	리길재	李佶宰	1976. 9. 1	1981. 8.31	함평	학교경영 우수
4	고정륜	高正倫	1981. 9. 1	1986. 8.31	목포	대광초등병설유치원개원
5	박병규	朴炳圭	1986. 9. 1	1988. 8.31	광주	학생체육지도 우수
6	임동엽	林東燁	1988. 9. 1	1991. 8.31	광산군	예체능교육 활성화
7	조용성	趙用成	1991. 9. 1	1994. 2.28	함평	도지정과학시범학교운영
8	장병석	張炳錫	1994. 3. 1	1998. 2.28	광주	농악 및 사물놀이 활성화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9-4) 월송초등학교(동암분교장)

(1) 소 재 지 :

대동면 월송리 424번지

(2) 부지면적 :

13,078㎡

(3) 졸업현황 :

1991학년도 제45회 졸업, 남5명, 여6명, 계11명 (졸업생누계:1,437명)

(4) 연 혁

① 학교설립동기 :

학다리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본고장의 교육가인 오원거씨가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암에 사재를 털어 월송공립국민학교를 세웠다. 해방후 월송초등학교로 개칭되면서 국가에 헌납하였음.

② 연도별 주요사안

•1941.06.13 : 월송국민학교 설립 인가 •1941.06.16 : 월송공립국민학교 개교
•1988.03.01 : 철성초등학교 격하로 금곡분교장 설치
•1991.03.01 : 향교국민학교 동암분교로 격하 •1993.03.01 : 향교국민학교로 통폐합

(5)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한글	한문	부임	이임
1	오유길		45. 09. 30	47. 01. 15
2	김한경		47. 03. 01	48. 11. 15
3	박찬석		48. 11. 30	50. 02. 15
4	임민식		50. 02. 15	52. 03. 15
5	장수복		52. 04. 30	53. 01. 15
6	김용선		53. 01. 15	54. 10. 15
7	김한경		54. 10. 15	55. 07. 15
8	이길재		55. 07. 15	59. 07. 15
9	조근재		59. 07. 15	65. 06. 01
10	정강옥		65. 06. 01	68. 06. 16
11	이진우		68. 09. 01	70. 03. 01
12	나병연		70. 03. 01	71. 03. 01
13	유성희		71. 03. 01	73. 09. 01
14	박병기		73. 09. 01	76. 08. 30
15	이기헌		76. 09. 09	81. 08. 30
16	박병규		81. 09. 01	86. 08. 31
17	김도수		86. 09. 01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9-5) 철성초등학교(금곡분교장)

(1) 소 재 지 :

대동면 금곡리 389-5번지

(2) 졸업현황 :

1996학년도 제47회 졸업, 남3명, 여5명, 계7명 (졸업생누계:1,176명)

(3) 연 혁

① 학교설립동기 :

금곡상옥리 학구민의 요청에 다라 1934년 4월 30일에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로 인가를 받아 1947년 3월 31일에 학교북국민학교로 승격되고 1973년 7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학교면에서 대동면으로 편입되지 동년 10월 10일자로 철성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② 연도별 주요사안

•1934.04.30 :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 설립 인가
•1934.07.30 :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 개교

•1947.03.31 : 학교북국민학교로 승격
•1973.10.10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동면에 편입되고 철성국민학교로 개칭
•1989.03.01 : 월송국민학교 금곡분교장으로 격하
•1991.03.01 : 학교초등학교로 소속(금곡분교장)
•1996.03.01 :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4)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1973.03.01 : 자활학교 군지정
•1974.03.01 : 자활학교 군지정
•1975.03.01 : 자활학교 군지정

② 학교수상현황

•1971.12.31 : 도서벽지학교 경영 우량
•1972.10.04 : 저축우수상
•1972.10.10 : 새마을 우
•1973.09.25 : 저축우수상
•1973.10.15 : 새마을교육 우수교
•1978.02.13 : 실과교육 우수상
•1978.05.08 : 문교부장관기쟁탈 전매주최 배구대회 : 준우승
•1978.04.27 : 목포자구 배구대회 : 우승
•1980 : 교육장기쟁탈 소년체육대회 배구(여자) : 우승(2연패)
•1980 : 제6회 전남학도체육대회 배구(여자) : 우승
•1981 : 군 학력평가 : 1위
•1981 : 교육장기쟁탈 배구대회 : 준우승
•1982 : 군 교육장기쟁탈 배구대회 : 준우승
•1983 : 군 교육장기쟁탈 배드민턴대회 : 준우승

(5)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한 글	한 문	부 임	이 임
1	노 근 후	魯 根 厚	49. 11. 30	49. 9. 15
2	김 은 식	金 恩 式	49. 11. 1	51. 3. 31
3	박 홍 기	朴 洪 基	51. 3. 31	51. 7. 1
4	윤 기 술	尹 奇 述	51. 7. 10	60. 11. 30
5	김 명 옥	金 明 玉	60. 11. 30	62. 3. 10
6	김 규 동	金 奎 東	62. 3. 10	65. 4. 1
7	윤 용 혁	尹 用 爀	65. 4. 1	71. 3. 1
8	나 종 문	羅 鐘 文	71. 3. 1	76. 2. 1
9	박 병 규	朴 炳 圭	76. 2. 1	89. 9. 1
10	이 기 헌	李 奇 憲	81. 9. 1	83. 3. 1
11	조 윤 국	趙 潤 局	83. 3. 1	

<자료 제공자 : 교감 김길중(金吉中)>

10-1) 나산동초등학교(송암분교장)

(1) 소 재 지 :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750

(2) 시설현황 :

부지면적-7,650㎡, 건평- ㎡, 건축양식-시멘트슬라브 및 슬레트

(3) 부대시설 :

숙직실 및 창고 2동

(4) 역대교장

대 \ 구분	성 명	재 임 기 간		중 요 공 적
		취 임	퇴 임	
1	이 영 창	'67.11.15	'71. 8. 31	
2	김 행 수	'71. 9. 1	'76. 8. 31	
3	최 영 례	'76. 9. 1	'81. 9. 1	
4	홍 성 진	'81. 9. 1	'86. 8. 31	
5	김 갑 병	'86. 9. 1	'88. 8. 31	분교장 격하(정년퇴임)
6	안 성 수	'88. 9. 1	'91. 8. 31	나산초등교산하분교장
7	송 진 석	'91. 9. 1	'95. 2. 28	'95.3.1 통폐합

10-2) 나산서초등학교(구산분교장)

(1) 소 재 지 :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315

(2) 시설현황 :

부지면적- 12144㎡

(3) 부대시설 :

관사 2동, 창고 2동, 실외 화장실 1동

(4) 연 혁

•1961.05.08 : 구산분교장 설립인가 •1963.03.15 : 나산서국민학교 개교
•1995.03.01 : 나산교로 통폐합

(5)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퇴 임
1	김 영 삼	63. 2.16	64.11.30
2	안 영 덕	64.12. 1	65. 5. 1
3	김 경 석	65. 5. 2	66. 6.10
4	김 경 선	66. 6.11	69. 2.28
5	황보주홍	69. 3. 1	74.11.30
6	장 남 규	74.12. 1	78. 2.28
7	김 형 수	78. 3. 1	80. 8.31
8	차 정 동	80. 9. 1	83. 8.31
9	신 경 섭	83. 9. 1	88. 8.31
10	나 학 주	88. 9. 1	93. 8.31
11	송 진 석	93. 9. 1	95. 8.31

10-3) 나산북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376

(2) 시설현황 :

부지면적- 14,112㎡

(3) 연 혁

•1968.05.23 : 나산국민학교 초포분교 개교 •1969.03.01 : 나산북국민학교 개교
•1995.03.01 : 나산교로 통폐합

(4)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중 요 공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이 기 헌	李 奇 憲	69. 3. 1	70. 3. 1	함평 대동	학교부지 확장
2	나 종 문	羅 鐘 文	70. 3. 1	71. 3. 1	나 주	체육장 부지정리
3	노 병 호	盧 炳 鎬	71. 3. 1	76. 8.31	광 주	생울타리 조성
4	정 성 화	丁 星 華	76. 9. 1	79. 8.31	광 주	간이수도시설
5	김 종 원	金 鐘 沅	79. 9. 1			
6						자료없음
7						〃
8						〃
9						〃
10	정 성 균					

10-4) 이문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763

(2) 시설현황 :

부지면적- 1,193㎡

(3) 연 혁

•1934.04.15 : 이문간이학교 인가 •1946.04.15 : 이문국민학교 인가
•1996.03.01 : 나산초등학교로 통폐합

(4) 역대 교장

구분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기노시다		34. 4.15	40. 7.31	일본	
2	김형택		40. 8. 1	46. 3.31	함평	
3	김관남		46. 4. 1	54. 3.31	함평	
4	박봉주		54. 4. 1	62. 8.31	무안	
5	김상만		62. 9. 1	64. 3.31	함평	
6	이용근	李龍根	64. 4. 1	74. 8.31	〃	
7	안성수	安星洙	74. 9. 1	80. 8.31	나산	
8	임장옥	林章玉	80. 9. 1	85. 2.28	광산군	운동장 구축
9	차정동	車定東	85. 3. 1	85. 8.31		
10	곽병열	郭炳烈	85. 9. 1	88. 8.31		
11	장형록		88. 9. 1	92. 2.28		
12	김형철		92. 3. 1	93. 2.28		정년
13	기희철		93. 3. 1	96. 2.28		

11-1) 해보중앙초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49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4468㎡ 건평-1,260㎡ 건축양식-철근콘리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관사 1동 창고 1동

(4) 졸업상황 :

1996년도까지 25회 졸업생수 남-689명 여-679명 계-1,368명

(5) 연 혁

① 역사적 배경

노령산 줄기를 이어온 인천산 기슭에 자리 잡은 본 학구는 함평군의 북동방에 위치하여 고려 때 모평현의 소재지로 지금까지 모평부락이라 불리어 왔으며 일제시대에는 행정구역을 상곡리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름

② 주요 개요

- •1969.03.05 : 해보국민학교 분교로 설립
- •1969.10.25 : 개교 6학급
- •1971.03.01 : 해보중앙국민학교로 승격
- •1982.03.01 :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 •1997.03.01 : 해보초등학교에 통폐합

(6) 주요 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년 월 일	분 야	지정구분	적 요
1973. 3. 2	안전교육지도 연구	군지정	1973. 12. 10 서면보고
1983. 2. 1	지역사회 학교 운영 방안	군실험	
1984. 3. 1	지역사회 학교 운영 방안	군실험	
1986. 3. 1	온종일 선도학교 운영	군실험	
1989. 3. 1	군지정 시범학교 새학교 새교실 가꾸기	군지정	

② 학교 수상 현황

년 월 일	종 류	등 위	주 최	적 요
1972. 9. 19	음악경연 합주	입선	함평군교육청	
1973. 9. 20	여자 핸드볼	준우승	〃	
1973. 9. 25	저축상	3등	〃	
1974. 9. 25	핸드볼(남자)	1등	〃	
1974. 9. 25	핸드볼(여자)	1등	〃	
1974. 9. 25	400m계주(남자)	3등	〃	
1974. 9. 25	400m계주(여자)	3등	〃	
1974. 9. 25	교육장기쟁탈제1회 소년대회 종합우승	3등	〃	
1984. 2. 10	학교경영우수상		〃	
1984. 10. 4	84.함평학생예술제	노력상	〃	우승컵
1986. 10. 23	86.함평학생예술제	종합우수	〃	〃
1986. 12. 31	온종일학교운영	표창	전라남도교육청	표창장
1989. 11. 30	새학교새교실가꾸기	표창	〃	〃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3	334	299	633	16	1987	6	64	70	134	9
1977	13	281	253	534	16	1988	6	65	55	120	9
1978	13	285	274	559	16	1989	6	48	53	101	9
1979	12	240	236	476	15	1990	6	53	50	103	9
1980	12	221	226	447	15	1991	6	42	51	93	9
1981	12	201	213	414	15	1992	6	38	48	86	9
1982	11	176	195	371	14	1993	6	39	38	77	9
1983	9	151	154	305	12	1994	6	35	36	71	9
1984	8	120	126	246	11	1995	5	33	24	57	8
1985	7	98	101	199	10	1996	3	24	19	43	6
1986	7	85	78	163	10	1997	3월 1일 폐합				

(8)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대	김삼금	金三今	1971. 3. 1	1974. 8.31	교실신축 7개교
2대	이경형	李京炯	1974. 9. 1	1979. 8.31	스탠드공사
3대	안성수	安晟洙	1979. 9. 1	1980. 8.31	학습원조성
4대	고정륜	高正倫	1980. 9. 1	1981. 8.31	무궁화동산구축
5대	김천수	金千洙	1981. 9. 1	1986. 9. 1	창작력 신장
6대	홍성진	洪性鎭	1986. 9. 1	1989. 9. 1	샤워장 시설
7대	홍성민	洪性珉	1989. 9. 1	1992. 8.31	운동장체육시설
8대	신정식	申井植	1992. 9. 1	1996. 2.28	우천로 공사 150m
9대	윤석택	尹錫澤	1996. 3. 1	1997. 2.28	인성교육 강조

11-2) 해보서초등학교(오두분교장)

(1) 소 재 지 :

함평군 해보면 대각1리 538

(2) 시설현황 :

부지면적-8,492㎡ 건평-650.5㎡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관사 106.85㎡ 창고 19.80㎡ 변소 78.20㎡

(4) 졸업상황 :

1992년도까지 32회 졸업생수 남-572명 여-472명 계-1,044명

(5) 연　　혁

① 역사적 배경

함평읍으로 부터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060m나 되는 불갑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200호 미만의 작은 학구이며 3개 리 7개 마을로 산전에 생업을 의지하고 사는 산촌에 순박한 인심 속에 1940년 4월 1일 개교로부터 19년 만인 1949년 공비의 만행으로 교사의 전소와 더불어 휴교하여 6년만에 다시 복교하여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임

② 주요 개요

•1940.04.01 : 오두간이학교 개교 인가
•1945.04.01 : 해보서국민학교 승격
•1949.10.01 : 공비방화로 인한 전소
•1955.03.05 : 복교 (6년 5개월 만에 복교)
•1961.02.10 : 교실 신축 정상 수업
•1991.03.01 : 해보초등학교 오두분교장 인가
•1993.03.01 : 해보초등학교에 통폐합

(6) 주요 교육 실적 - 학교 수상 현황

년 월 일	종　류	등 위	주 최	적 요
1971. 12. 31	저축우수 학교	1위	함평군교육청	우승패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6	122	109	231	8	1985	6	135	123	258	9
1977	6	125	112	237	8	1986	6	134	125	259	9
1978	6	128	115	243	9	1987	6	76	54	130	9
1979	6	127	116	243	9	1988	6	74	53	127	9
1980	6	130	121	251	9	1989	6	75	49	124	9
1981	6	132	123	255	9	1990	6	73	48	121	9
1982	6	133	121	254	9	1991	4	56	52	108	7
1983	6	134	122	257	9	1992	3	45	36	81	5
1984	6	136	124	260	9	1993	폐교 통폐합				

(8)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중　요　공　적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안 태 종	安 泰 鐘	1945. 4. 1	1946. 4. 1	
2	장 명 기	張 明 基	1946. 4. 1	1953. 4. 1	
3	김 삼 금	金 三 今	1953. 4. 1	1955. 6.10	학교 정원수 정비
4	신 상 휴	申 相 休	1955. 6.10	1959. 8. 8	
5	이 상 진	李 相 振	1959. 8. 8	1963. 4.25	
6	양 희 탁	梁 熙 鐸	1963. 4.25	1966. 4. 5	

7	이 기 헌	李 奇 憲	1966. 4. 5	1969.12. 1	반공교육 강화
8	김 귀 수	金 貴 洙	1969.12. 1	1970. 9.16	운동장 확장
9	손 창 주	孫 昌 珠	1970. 9.16	1973. 3. 7	교실 증축
10	윤 석 언	尹 錫 彦	1973. 3. 1	1977. 3. 1	학교 공원화
11	홍 성 진	洪 性 鎭	1977. 3. 1	1981. 8.31	새학교 가꾸기 사업
12	김 용 섭	金 容 燮	1981. 9. 1	1984. 8.31	
13	이하 확인 불능				

11-1) 월야남초등학교(양정분교장)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333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3014㎡ 건평-1270㎡ 건축양식-콘크리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숙직실 1동 사택 2동

(4) 졸업현황 :

1995년까지 19회 졸업생수 남 391명, 여 387명, 계 778명

(5) 연혁

•1970.07.21 월야국민학교 월야남 분교장 인가
•1971.03.5 월야국민학교 월야남 분교장 개교
•1975.03.01 월야남국민학교 승격 •1994.03.01 월야초등학교 양정분교장 격하
•1996.03.0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6)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1	263	232	495	14	1987	6	46	71	116	11
1977	12	212	194	406	14	1988	6	54	66	120	11
1978	12	207	183	390	16	1989	6	46	54	100	11
1979	12	162	165	327	16	1990	6	46	54	100	10
1980	11	184	189	373	13	1991	6	45	44	89	11
1981	9	167	159	326	10	1992	6	42	37	79	11
1982	9	159	148	307	11	1993	5	37	27	64	10
1983	8	130	126	256	11	1994	5	27	20	47	7

1984	6	106	105	211	11	1995	3	20	17	37	5
1985	6	85	79	164	11						
1986	6	76	89	165	11						

(7) 역대 교장 :

구분 / 대	성 명		재임기간		주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이태웅	李泰雄	75.3.1	80.8.31	교지확장 및 공원화 사업
2	이영창	李永昌	80.9.1	82.2.28	교실증축 및 운동장 정비
3	김기동	金基東	82.3.1	86.2.28	수도시설 및 학습자료 확충
4	이길재	李佶宰	86.3.1	88.2.28	예절교육의 강화
5	송진석	宋榛錫	88.3.1	91.8.31	시청각교구 확장
6	장병석	張炳錫	91.9.1	94.2.28	학습지도 및 자료 확충

12-2) 월야북초등학교



월야북초등학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용암리 86-5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79,978, · 건평-1,583,82㎡

· 건축양-벽돌조 슬라브1동, 벽돌조 슬레트 3동

(3) 부대시설 :

사택 1동

(4) 졸업현황 :

1996년도까지 49회

졸업생수 : 남 2,546명, 여 1,913명, 계 4,459명

(5) 연혁

•1933.3.10 월야공립보통학교 부설대야간이 학교 개교

•1943.4.1 월야공립심상소학교 부설대야간이 학교로 개칭

•1949.10.1 월야북국민학교로 개칭 •1971.3.1 2개리 광동분교로 분할 2학급 분리

•1976.3.1 광동국민학교로 분리 •1996.3.1 월야북초등학교로 개칭

•1999.9.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6)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7	411	418	829		1991	6	82	72	154	11
1977	18	431	435	866		1992	5	57	62	119	11
1978	19	446	464	910		1993	6	54	63	117	11
1987	9	148	103	251	12	1994	6	49	49	98	13
1988	8	119	00	219	12	1995	6	42	37	79	13
1989	7	101	90	191	13	1996	5	31	34	65	14
1990	6	95	85	180	12	1997	6	33	33	66	13

(7)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임기간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박규성		1945.09.30	1948.04.30
2	유 윤		1948.05.01	1951.05.30
3	김종현		1951.05.30	1952.05.20
4	윤우중		1952.05.21	1955.10.20
5	구제학		1955.10.21	1957.03.31
6	김상만		1957.04.01	1959.07.15
7	정충섭		1959.07.16	1966.04.15
8	정진팔		1966.04.16	1971.09.15
9	이정남		1971.09.15	1973.09.01
10	정충섭		1973.09.02	1976.02.01
11	나종문		1976.02.02	1981.09.01
12	안성수		1981.09.01	1986.08.31
13	김천수		1986.09.01	1988.08.31
14	박태삼		1988.09.01	1994.08.31
15	천채욱	千彩旭	1994.09.01	1997.08.31
16	백국심	白菊心	1997.09.01	1999.08.31

11-3) 광동초등학교(광동분교장)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581-1

(2) 시설현황 :

부지면적-11.388㎡ 건평-1,089㎡ 건축양식-콘크리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숙직실1동 사택 1동

(4) 졸업현황 :

1995년도까지 19회 졸업생수

남 -341명 여-356명 계-697명

(5) 연혁

•1971.03.06 월야북초등학교 광동분교장 개교 •1976.03.01 광동초등학교 개교

•1994.03.01 월야초등학교 광동분교장 격하 •1996.03.0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6)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7	165	183	348	8	1987	6	75	75	154	11
1977	9	181	202	383	10	1988	6	69	63	132	11
1978	9	167	176	343	10	1989	6	64	62	126	11
1979	9	154	168	322	11	1990	6	68	48	116	9
1980	9	156	164	320	12	1991	6	54	38	92	11
1981	10	163	156	319	11	1992	6	48	28	76	11
1982	9	144	137	281	10	1993	5	23	35	58	10
1983	8	130	113	243	9	1994	3	26	19	45	5
1984	6	98	101	199	11	1995	3	17	13	30	5
1985	6	104	103	207	11						
1986	6	79	75	154	11						

(7) 역대 교장 :

구분 / 대	성 명		재임기간		주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윤가득	尹嘉得	76.3.1	80.8.31	학교정비 작업
2	김상경	金相炅	80.9.1	83.2.28	외부환경 조성
3	홍승룡	洪承龍	83.3.1	86.2.28	체육교육 강화
4	박윤택	朴允澤	86.3.1	87.3.31	산수과교육의 실내화
5	이경홍	李京洪	87.3.1	90.8.31	예절교육의 실천
6	안국섭	安國涉	90.9.1	94.2.28	학교 환경 정화

7-1) 엄다중학교


엄다중학교

(1) 소 재 지 :

엄다면 송로리 710-10번지

(2) 학구범위 :

엄다리. 엄다4리 제동, 정동. 영흥2리 월산. 송로4리. 송로2리 해정. 성천1리 성암. 학야1리 야리. 학야2리 대천동. 신계리 생곡, 장동. 삼정리 벽유정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23,525㎡.
· 건 평 2,220㎡. · 시멘트 벽돌조

(4) 부대시설 : ·

본관 1동 1,889㎡. · 관사 1동 83㎡. · 강당 1동 248㎡

(5) 졸업생 상황 :

2002학년도 29회. 남 1,774명. 여 1,653명 계 3,427명

(6) 연 혁

설립자이신 김 만 여사는 1914년 태어나시어 1973.8.16. 생애를 마치시고, 그의 부군이신 학산 천보배 선생은 1903.1.10.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우는 것만이 사람된 길이라 여기시어 일 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시면서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많은 식견을 쌓고 귀국하시어 김 만 여사 와 함께 평소 소망이던 사회사업과 육영사업을 펼쳐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보람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37,500㎡ 땅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강과 민족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근면·성실·창조를 교육이념으로 설립함.

•1971.04.24 : 학교법인 학산학원 설립 인가
•1971.12.29 : 엄다중학교 설립 인가 (설립자 김만)
•1972.03.06 : 개교 •2003.03.01 : 폐교(학다리중학교로 통·폐합)

(7) 주요교육 실적

년월일	종목	수상등급	주관처
1972. 4.28	군내 시국타개 웅변대회	중등부1위	함평문화원

년월일	종목	수상등급	주관처
1972. 5.20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웅변대회	중등부1위	함평경찰서
1976. 7.23	화랑기쟁탈 제2회 육상경기대회(3000M)	중등부1위	목포시
1992. 9.16	독후감 발표대회	최고상	함평군교육청
1997. 6.19	학생 논술경시대회	최우수상	함평군교육청
1999. 5.28	제1회 나비축제 글짓기대회	최우수상	함평군교육청
2002. 6.18	청소년과학정진대회 전자과학실험, 기계과학공작부분	각각 금상	함평군교육청

(8) 학생 수와 교직원 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8	281	268	549	17	1990	5	119	99	218	19
1977	10	321	291	612	19	1991	5	94	87	181	18
1978	11	323	311	634	18	1992	5	88	86	174	17
1979	11	335	323	658	19	1993	6	95	91	186	18
1980	11	327	330	637	19	1994	6	92	87	179	18
1981	10	326	307	633	18	1995	5	75	69	144	17
1982	9	317	272	589	17	1996	4	59	70	129	17
1983	9	323	262	585	17	1997	3	49	63	112	17
1984	9	291	260	551	19	1998	3	57	58	115	16
1985	9	268	256	523	19	1999	3	57	39	96	14
1986	9	225	235	460	19	2000	3	51	31	82	13
1987	9	212	207	419	19	2001	3	36	30	66	13
1988	8	189	175	364	19	2002	3	38	32	70	13
1989	7	165	144	309	20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취임	이임	본적
1	천 갑 록	千 甲 錄	'72. 3. 2	'74. 2. 27	전 남
2	정 인 수	鄭 寅 洙	'74. 3. 14	'75. 12. 6	〃
3	최 민 규	崔 珉 奎	'75. 12. 8	'78. 4. 1	〃
4	강 명 수	姜 命 壽	'78. 4. 7	'78. 10. 1	전 북
5	이 장 영	李 長 英	'78. 10. 13	'89. 9. 5	전 남
6	오 준 식	吳 駿 湜	'89. 9. 5	'99. 8. 31	〃
7	이 형 헌	李 亨 憲	'99. 9. 1	'03. 2. 28	〃

<자료 제공자 : 행정실장 권영식(權永植)>

제5절 함평군의 중·고등학교

1. 중학교

1)함평중학교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내
교리 518번지

(2) 학구 범위 :

함평읍과 엄다면 신계리, 성천리

(3) 시설현황

· 학교부지 1586㎡ · 건평 3225.38㎡
·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

(4) 부대시설 :

관사 1, 선수합숙소 1, 창고 2동

(5)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79회 졸업 남83명(2009.02.12.졸업식) <총 14,804명 배출>

(6) 연혁

•1929.09.25 : 공립농잠실수학교 개교 •1951.09.25 : 함평중학교로 교명 변경
•1994.09.01 : 함평중, 함평실고 통합 •1996.09.01 : 함평중, 함평실고 분리
•2006.09.01 : 제24대 전용희 교장 부임
•2009.02.12 : 제79회 83명 졸업 (총 14,804명 배출)

(7) 교훈 :

성실

(8) 학교 상징

•교 목 : 향나무 - 푸른 희망, •교 화 : 동백꽃 - 높은 인격,
•교 색 : 남 색 - 평화 안정

(9) 특색교육

· 함평문화축제 체험을 통한 애향심 기르기

가. 목 표

함평 문화축제 체험을 통해 축제의 정신을 이어받고 축제 참여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함평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내 고장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 학교와 지역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애향심을 드높인다.

나. 방 침

1) 함평문화축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2)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고장의 얼을 계승 발전시킨다.
3) 내 고장 환경과 문화축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4)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유한다.
5) 축제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타 지역에 홍보한다.

다. 세부 활동내용

1) 축제 홍보물 제작 대회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
3) 축제 행사 전시장 및 행사 마당 견학
4) 축제 도우미 봉사 활동 참가
5) 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 체험학습

(10) 육성종목

- 레슬링

가. 목표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과 체육영재를 육성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자부심을 함양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나. 방침

1)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과 후에 훈련한다.
2)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하여 새벽 및 야간훈련을 활성화 한다.
3)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4) 개인별 카드를 작성, 활용하여 경기력 향상과 생활지도에 활용한다.
5) 투명한 운영으로 건전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형성한다.

다. 세부 활동내용

1) 팀 구성 및 선수 수급 계획 수립
2)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
3) 기초체력 강화훈련, 근력, 강화훈련, 충분한 영양섭취
4) 세부기술 습득훈련, 시범경기로 기술 향상
5) 전지훈련 실시로 실전대비 및 타 시도 전력 파악

(11) 수상실적

년도	종별	발행처	수상내용	비고
2003	제13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	3위-2명	
〃	제32회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대한체육회장	금상	
〃	제3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3위	
〃	제28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1위	
〃	제28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7명, 2위-3명, 3위-5명	
2004	제29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4명, 2위-3명, 3위-4명	
〃	제3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1위-1명,3위-2명	
2005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전라남도교육감	1위-12명, 2위-3명, 3위-4명	
〃	제15회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	3위-2명	
〃	제27회 전라남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라남도교육감	은상,동상	
〃	제30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9명, 2위-2명, 3위-1명	
〃	제30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1위-1명, 3위-3명	
〃	제31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2위-1명,3위-2명	
〃	제33회 문화관광부장관기레슬링	대한레슬링협회장	금상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레슬링	전국소년체육대회장	은상	
2006	제31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금상	
〃	제32회 대통령기전국레슬링시도대항	대한레슬링협회장	3위	
〃	제34회 전국문화관광부장관기배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장	1위-1명, 3위-2명	
〃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대한체육회회장	은상	
〃	2006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금상-6명, 은상-6명	
〃	제16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10mH)	전라남도교육감	2위,3위	
〃	제16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멀리뛰기)	전라남도교육감	2위	
〃	제17회중고등학교외국어표현력경시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동상	
〃	제31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전라남도교육감	1위-7명, 2위-1명, 3위-1명	
2007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레슬링	대한체육회 회장	2위	
〃	2007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4명, 2위-3명, 3위-1명	
〃	제18회 중고등학생외국어표현력경시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동상-2명	
〃	제26회 전라남도중고등학교수학경시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동상	
〃	제3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7명,2위-5명,3위-1명	
2008	제18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대한레슬링협회	1위	
〃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레슬링	대한체육회 회장	1위-1명,3위-2명	
〃	2008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7명, 2위-2명, 3위-5명	
〃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레슬링	전라남도교육감	1위-7명,3위-2명	

(12)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계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계	교직원
1976				1993	16	534	34
1977	10	539	27	1994	15	488	33
1978	19	1,100	36	1995	11	302	31
1979	19	1,094	36	1996	12	374	31
1980	22	1,544	38	1997	11	351	30
1981	19	1,020	36	1998	9	298	26
1982	19	990	36	1999	9	273	25
1983	22	1,434	41	2000	8	256	21
1984	19	891	37	2001	8	243	22
1985	18	820	37	2002	8	235	22
1986	20	1,123	39	2003	9	240	24
1987	16	613	34	2004	9	264	24
1988	15	546	34	2005	9	255	24
1989	19	775	37	2006	9	252	24
1990	17	627	35	2007	9	244	24
1991	16	560	34	2008	9	268	24
1992	13	385	33	2009	9	254	24

(13) 역대 교장

작성자 - 교사 김 옥 (061-322-2583)

구분 / 대	성명 한글	성명 한문	재임기간 취임	재임기간 퇴임
1	양봉엽	樣鳳葉		47. 10. 10
2	고재천	高在千	47. 10. 11	48. 06. 01
3	김종혁	金鐘赫	48. 06. 01	48. 12. 01
4	정종보	鄭宗寶	48. 12. 01	48. 12. 23
5	김동석	金東石	48. 12. 23	53. 07. 16
6	권세일	權勢一	53. 07. 17	57. 11. 11
7	서원삼	徐源三	57. 11. 12	61. 05. 04
8	한이직	韓利職	61. 05. 05	61. 09. 03
9	김하설	金河雪	61. 09. 04	64. 10. 31
10	임동춘	林東春	64. 11. 01	68. 05. 20
11	김태진	金泰珍	68. 05. 21	72. 09. 12
12	문경철	文敬喆	72. 10. 27	75. 08. 23
13	김철환	金喆煥	75. 09. 01	80. 02. 29
14	한안숙	韓安淑	80. 03. 01	86. 02. 28
15	윤우중	尹雨重	86. 03. 01	88. 08. 31
16	오경오	吳景午	88. 09. 01	92. 02. 29
17	정종택	鄭宗澤	92. 03. 01	93. 02. 28
18	윤우중	尹雨重	93. 03. 01	94. 08. 31
19	윤동진	尹動璡	94. 09. 01	96. 08. 31
20	유은상	劉隱相	96. 09. 01	99. 08. 31
21	김사명	金四明	99. 09. 01	02. 08. 31
22	백무웅	백무웅	02. 09. 01	04. 08. 31
23	나승표	羅承杓	04. 09. 01	06. 08. 31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24	전 용 희	田 勇 熙	06. 09. 01	현재

2) 함평여자중학교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9-2 번지

(2) 학구범위 :

함평읍, 해보(각궁, 회화마을), 대동향교, 손불(죽암리 죽림마을, 궁산리, 목교, 덕산마을), 엄다(신계리, 성천리, 와촌, 용동마을)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18.238㎡ · 건 평 - 2.819㎡ · 건축양식-2층 슬라브 콘크리트조

(4) 부대시설 :

가사실 78㎡, 숙직실 30㎡, 창고 28㎡, 관사 47㎡,

펜싱훈련장 180㎡, 변소 9㎡,

다목적교실 717㎡

(5) 졸업상황 :

2009년도까지 54회

졸업생수 남- 명 여-10,441명 계-10,441명

(6) 연 혁

•1955.10.05 : 함평여자중학교 개교 (학년당 2학급, 계 6학급)
•1979.12.28 : 함평여자중학교 학급 증설 (학년당 7학급, 계 18학급)
•1990.05.26 : 함평여자중학교 학급 감축 (학년당 6학급, 계 18학급)

(7) 중요교육 실적

•1978.12.08 : 제6회 전남교육감기 쟁탈 여자중등부 핸드볼대회 우승
•1979.12.13 : 제7회 전남교육감기 쟁탈 여자중등부 핸드볼대회 우승
•1982.09.10 : 전남 학도종합예술제 우승
•1984.09.26 : 인구문제 전남학생웅변대회 중등부 우승
•1995.10.15 : 도지정 과학시범학교 연구 발표
•1995.12.31 : 도지정 열린교육 실현을 위한 우수한 인터넷의(멀티미디어) 연구 발표
•2003. : 전국 소년체전(펜싱부) 장려상
•2004. : 전국 과학탐구올림픽대회 은상, 도 기술기능경진대회 장려상
•2004. : 전국 소년체전(펜싱부) 1위, 군 외국어 경시대회 금상
•2005. : 도 기술기능경진대회 서양요리 동상, 과학전람회 금상
•2006. : 도 중고생 수학경시대회 우승
•2007. : 도지정 교실수업목표 설정을 통한 학력 증진 방안 연구 발표
•2008. : 도 외국어 표현력 경시대회 은, 도 소년체육대회 펜싱에뻬 1위, 도 서양요리분야 은상

(8) 교훈, 교목, 교화, 교색 특색교육 및 육성종목

•**교훈** – 성실(誠實), •**교목** – 동백나무 : 절개를 상징
•**교화** – 난(蘭) : 정숙을 상징 •**교색** – 초록 : 평화를 상징
•**특색교육** – 실용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생활영어, 상용한자, 일어반)
•**육성종목** – 펜싱

(9)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1981	19	1,340	39	1986	21	1,251	
1982	19	1,409	39	1987	20	1,099	38
1983	20	1,440	40	1988	20	1,018	40
1984	21	1,440	42	1989	17	871	40
1985	21	1,337	42	1990	14	669	43
1991	13	593	42	1994	12	564	40
1992	13	539	40	1995	12	508	35
1993	13	608	40	1996	11	436	32
1997	10	364	31	2004	9	229	26
1998	8	300	26	2005	9	233	27
1999	9	283	24	2006	9	226	29
2000	7	243	22	2007	8	222	27
2001	8	238	23	2008	9	216	27
2002	8	235	23	2009	7	201	22
2003	9	250	25			18,362	

(10)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김경태	金敬泰	55. 05. 03	59. 06. 14		
2	정인수	鄭寅洙	59. 06. 15	60. 07. 12		
3	서병열	徐丙烈	60. 07. 13	61. 09.		
4	전병곤	田炳坤	61. 09. 03	65. 11. 24	고흥	
5	이희갑	李喜甲	65. 11. 25	68. 10. 21		
6	조규초	曺圭抄	68. 10. 22	70. 03. 09	영광	
7	주찬애	朱贊愛	70. 03. 10	70. 10. 20	목포	
8	심홍준	沈洪俊	70. 10. 21	72. 02. 28		
9	양윤섭	梁玧葉	72. 03. 01	73. 08. 31		
10	박종무	朴鐘武	73. 09. 01	75. 08. 31	광산	
11	한안숙	韓安淑	75. 09. 01	80. 08. 31		사격시범학교x
12	임행모	任行模	80. 09. 01	84. 02. 28		
13	정해민	丁海珉	84. 03. 01	90. 02. 28	나주	
14	곽규	郭圭	90. 03. 01	94. 02. 28		
15	안경	安經	94. 03. 01	96. 02. 28	나주	표준학교 시범
16	김인걸	金仁杰	96. 03. 01	99. 02. 28	광주	멀티미디어 시범학교
17	신장섭	申仗燮	99. 03. 01	2000. 02. 29		
18	최영명	崔永明	2000. 03. 01	2003. 08. 31		
19	임주섭	林朱燮	2003. 09. 01	2006. 08. 31		
20	나승표	羅承杓	2006. 09. 01	2009. 08. 31		
21	이인섭	李仁燮	2009. 09. 01	현재		

3) 함평월야중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612-4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 22,787,00㎡
· 건 평- 2,287.49㎡
· 건축양식-서양식

(3) 부대시설 :

관사 1동, 창고 2동, 숙직실 1동

(4) 졸업현황 :

2008년도까지 55회
졸업생수 남,여-8,703명

(5) 연　　혁

•1953.04.07 : 월야중학교 인가
•1953.04.15 : 초대교장 김정수 취임 및 개교
•1958.03.29 : 함평동중학교 교명 변경
•1964.12.30 : 각 학년 3학급씩 9학급으로 학칙 변경 인가
•1971.01.26 : 함평월야중학교로 교명 변경
•1971.01.30 : 각 학년 5학급식 15학급으로 학칙 변경 인가
•1973.03.01 : 학구제 실시
•1974.03.30 : 학칙 변경 인가
•1978.03.01 : 각 학년 7학급씩 21학급으로 학칙 변경 인가
•1983.03.01 : 중, 고등학교 분리

(6) 교훈 :

學　行　一　致

(7) 학교 상징

•교 목 – 소나무 – 기상·절개,　　•교 화 – 철 쭉 – 인내·굳센 의지
•교 색 – 노 랑 – 희망·광명·명랑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3	480	401	881		1993	9	191	158	349	23
1977	14	535	410	945		1994	9	175	141	316	23
1978	15	587	485	1,072		1995	6	108	91	199	21
1979	19	613	569	1,182		1996	6	89	83	172	21
1980	19	607	568	1,175		1997	6	100	80	180	19
1981	19	603	572	1,175		1998	6	84	70	154	20
1982	17	601	523	1,124		1999	6	77	71	148	20
1983	19	610	572	1,182		2000	6	75	67	142	20
1984	19	602	560	1,162		2001	5	58	57	115	16
1985	19	604	549	1,153		2002	4	41	56	97	14
1986	19	543	507	1,050		2003	4	44	49	93	15
1987	18	480	421	901	32	2004	3	49	50	99	14
1988	16	395	362	757	30	2005	4	55	41	96	15
1989	13	301	288	589	27	2006	4	50	34	84	15
1990	10	250	218	468	24	2007	4	47	34	81	15
1991	9	202	185	387	23	2008	4	49	33	82	14
1992	9	172	168	340	23						

(9)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한글	취임	퇴임	
1	김정수	1953. 04. 15	1957. 05. 09	
2	박영록	1957. 05. 10	1958. 09. 24	
3	김우복	1958. 09. 25	1961. 09. 04	
4	이병석	1961. 09. 05	1962. 11. 12	
5	김양범	1962. 11. 13	1968. 10. 21	
6	이희갑	1968. 10. 21	1970. 02. 28	
7	양윤섭	1971. 03. 01	1972. 02. 28	
8	심홍준	1972. 03. 01	1976. 02. 28	
9	조기남	1976. 03. 01	1980. 02. 28	
10	박동호	1980. 03. 01	1982. 02. 28	
11	양동준	1983. 03. 01	1987. 02. 28	
12	박현경	1987. 03. 01	1991. 02. 28	
13	김영회	1991. 03. 01	1995. 02. 28	
14	장홍돈	1995. 03. 01	1998. 08. 31	
15	정상호	1998. 09. 01	2001. 02. 28	
16	김병국	2001. 03. 01	2002. 08. 31	
17	송건식	2002. 09. 01	2004. 02. 29	
18	강우곤	2004. 03. 01	2006. 08. 31	
19	정종일	2006. 09. 01	2008. 02. 28	
20	박순만	2008. 03. 03	현재	

4) 함평손불중학교



(1) 소 재 지 :

손불면 대전리 636번지

(2) 학구범위 :

학산리 , 양재리, 북성리, 월천리, 대전리, 동암리, 죽장리, 석장리, 산남리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21,401㎡.
· 건 평 3,618㎡. 벽돌 조석조

(4) 부대시설 :

관사 200㎡

(5) 교훈 :

부지런히 · 참되게

(6) 학교 상징 :

· **교화** : 국화(절개·청초) · **교목** : 히말라야시다(의지·기상) · **교색** : 녹색(안정·평화)

(5) 졸업생 상황 :

2008년까지 40회 : 남 3,467명. 여 2,970명. 계 6,437명

(6) 연 혁

- •1966.12.15 : 함평서중학교 인가
- •1967.03.07 : 함평서중학교 개교
- •1971.03.15 : 함평손불중학교로 면칭 변경
- •1974.03.15 : 효행지도에 관한 현장연구
- •1982.03.01 : 해양 탐구 시범학교
- •1983.03.01 : 과학교육 시범학교
- •1997.03.01 : 도지정 방송 연구학교
- •1998.03.01 : 도지정 방송 연구학교
- •1999.12.13 : 도지정 정보화교육 시범학교
- •2002.11.14 : 군지정 수준별 궁금증 해결 탐구활동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연구학교
- •2006.03.01 군지정 소규모학교 협동교육 연구학교

(7) 중요 교육 실적

- 레슬링부 전남도대회, 전국대회 입상 실적 <대한민국시대 제13장 체육을 볼것>
-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항공과학분야 전남도대회 동상
- 독후감작성대회 전남도대회 은상
- 수학경시대회 전남도대회 동상
- 제16회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은상

(8) 학생수와 교직원 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1998	6	108	98	206	18
1999	6	83	68	151	18
2000	6	78	69	147	18
2001	6	58	56(1)	114(1)	17
2002	5	56	61	117	17
2003	4	43	57	100	14
2004	4	46	52	98	20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2005	3	34	42	76	19
2006	3	33	43	77	18
2007	3	36	48	84	18
2008	4	49	45	94	18
2009	4	47	44	91	18

(9)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명		취임	이임	본적
1	서원삼	徐源三	'67. 03. 20	'69. 12. 31	전남
2	양배근	梁培根	'70. 03. 10	'75. 08. 31	〃
3	최금환	崔金煥	'75. 09. 01	'78. 03. 05	〃
4	김인두	金仁斗	'78. 03. 06	'83. 02. 28	〃
5	김융평	金隆平	'83. 03. 01	'88. 02. 28	〃
6	윤재기	尹在記	'88. 03. 01	'92. 08. 31	〃
7	조규현	曺圭賢	'92. 09. 02	'96. 08. 31	〃
8	신장섭	申璋燮	'96. 09. 01	'99. 02. 28	〃
9	윤원택	尹元澤	'99. 03. 01	'00. 02. 28	〃
10	김석구	金石九	'00. 03. 01	'03. 02. 28	〃
11	이영헌	李亨憲	'03. 03. 01	'06. 02. 28	〃
12	윤길웅	尹吉雄	'06. 03. 01	'07. 02. 28	〃
13	김명호	金明浩	'07. 03. 01	현재	〃

5) 함평신광중학교



(1) 소 재 지 :

신광면 월암리 232-1번지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16,184㎡
- 건 평 : 1,934㎡
-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

(3) 졸업생 상황 :

2008학년도 제 36회 14명 졸업,
총 4,167명(2009. 02. 13.졸업식)

(4) 연 혁

•1971.01.16 : 함평신광중학교 설립 9학급 인가

•1971.03.09 : 개교
•2009.02.13 : 제 36회 졸업생 14명 배출(졸업생 총수 4,167명)

(5) 교 훈 :

"성 실"

(6) 학교 상징

• 교목-소나무(성실, 끈기), • 교화-국화(평화, 청순), • 교색-녹색(희망,풍요)

(7) 특색교육 및 육성종목

•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

(8) 중요 교육실적

•1996년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컴퓨터 시범학교 운영
•1997년 8월 자연환경 탐구대회 은상수상(도대회)
9월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장려상 수상(도대회)
11월 영어대화대회 우수상(도대회)
•2008년 5월 제30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은상(도대회)
6월 전라남도기능경진대회 은상(도대회), 전자과학 장려상(도대회)
8월 2008. 동영상발표대회 우수상(도대회)
•2009년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진로지도 연구 시범학교 운영

(9) 학생수와 교직원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1988	9	207	255	462	1999	3	40	40	80
1989	8	165	210	375	2000	3	32	32	64
1990	6	126	148	274	2001	3	30	29	59
1991	5	83	98	181	2002	3	27	25	52
1992	6	96	96	192	2003	3	34	25	60
1993	6	98	99	196	2004	3	25	24	49
1994	5	108	93	201	2005	3	25	23	49
1995	5	78	76	154	2006	3	22	19	41
1996	5	74	74	148	2007	3	23	17	40
1997	3	51	61	112	2008	3	28	15	43
1998	3	48	49	97	2009	3	25	15	40

(10)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취 임	이 임	비 고

구분 / 대	성 명	취 임	이 임	비 고
1	정 진 감	'71. 02. 02	'76. 08. 31	
2	오 종 수	'76. 09. 01	'81. 08. 31	
3	임 형 철	'81. 09. 01	'86. 07. 31	
4	김 중 환	'86. 09. 01	'88. 08. 31	
5	유 규 선	'88. 09. 01	'90. 08. 31	
6	임 원 종	'90. 09. 01	'94. 08. 31	
7	문 병 탁	'94. 09. 01	'98. 02. 28	
8	성 양 실	'98. 03. 01	'99. 08. 31	
9	백 무 웅	'99. 09. 01	'02. 08. 31	
10	정 인 채	'02. 09. 01	'05. 02. 28	
11	이 재 현	'05. 03. 01	'07. 08. 31	
12	이 일 순	'07. 09. 01	현재까지	

7) 학다리중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67

(2) 학구범위:

송로리 송촌, 송로리 해정, 엄다리, 엄다리 번동, 영흥리, 영흥리 흥용부락, 사거리, 사거리 율동마을, 월산리, 월산리 문화마을, 마산리 청수원, 죽정리, 죽정리 덕산, 학교리, 금곡리, 월호리, 금송리, 곡창리, 고막리, 내교리, 석정리. 복천리, 진양리, 학야리, 성천리, 강운리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10,128㎡
- 건 평 – 2,042㎡
- 건축양식 –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 부대시설 :

본관, 창고

(5) 졸업상황 :

2008학년도 제62회 졸업, (졸업생 수 : 남 8,331명, 여 4,729명, 계13,060명)

(6) 연　　혁

①역사적 배경

일제의 억압 아래서 갖은 핍박과 서러움에 시달렸던 우리 동포는 조국의 광복을 되찾고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거리에서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그러한 기쁨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본의 잔혹한 억압을 받았던 것은 지식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은 선각자들과 애향 군민들은 새롭게 발전해 나갈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양성의 절실함을 통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과 인근에는 초등학교만 있을 뿐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중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광주나 목포 등지의 도시로 유학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일지라도 도시로 자식을 유학시킨다는 것은 집안 살림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독지가들은 자식을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해도 진학시키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주민 모두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산을 헌납하여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뜻 있는 독지가들과 쥔들이 앞 다투어 논과 밭을 제공하거나 곡식 등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5일 학교 초급 중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세운 진정한 민립(民立) 학교였던 것이다. "조선 교육 근본 이념에 기(基)하여 국가에 유위(有爲)한 중견 공민(公民)을 육성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여 수업 연한 3년의 초급 중학교로 1946년도 1학년 2학급(100명), 2학년 2학급(100명)으로 출발하였다.

학교 초급 중학교는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조국을 수호하고 사랑하며 국가 장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과 모든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는 중견 국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초대 이사장에는 지역주민이 뽑은 김태일(金太一) 선생이 추대 되었고, 초대 교장은 오만식(吳萬植) 선생이 취임하였다.

②주요개요

•1945.12.05 : 학교 초급중학교 개교
•1946.09.30 : 학교 초급중학교 설립인가, 수학연한 3년
•1947.08.18 : 재단법인 학교의숙 설립인가
　　교명 및 학칙 변경 인가. 학다리중학교 수학연한 6년
•1950.05.27 : 학다리중학교 학칙 변경 인가. 수학연한 4년

•1951.08.31 : 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개편.
학다리 중학교 6학급 편성. 수학년한 3년
•1978.10.14 : 24학급 편성 •1982.02.03 : 21학급 편성

(7) 교훈

•바른 사고 : 올바른 사고와 능동적인 태도로 미래지향적 학생을 양성한다.
•바른 예절 :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배운다.
•알찬 학습 : 스스로 배우고 익혀 자기 진로를 개척한다.

(8) 학교 상징

구 분	명 칭	설 명
교 목 (校木)	**소 나 무**	청렴 · 결백 · 지조
교 화 (校花)	**코스모스**	우아 · 순박 · 자생력
교 색 (校色)	**초 록**	청순 · 안정 · 청초 · 평화 · 희망

(9) 특색교육 및 육성종목

○ 특색 사업
• 내 고장 환경· 문화· 축제 알리기

(10) 주요교육실적

◆ 육상 부문
• 2004.04.28. 함평교육청 주최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1위
– 800m 1위 2명, 1500m 1위 2명, 멀리뛰기 1위 1명, 1500m 2위 1명, 100m 2위 1명, 400m 2위 1명
• 2007.04.30. 함평교육청 주최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1위
– 800m 1위 1명, 1500m 2위 1명, 포환던지기 2위 1명
• 2007.09.20. 전라남도 주최 제17회 교육감기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위 1명
• 2008.03.30. 2008년도 전라남도 주최 – 2008년도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육상 5000mw 2위 1명, 3위 1명, 육상 100m 3위 1명
• 2008.11.01. 전라남도 주최
– 제33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육상 400m 1위 1명, 육상 5000mw 2위 1명, 육상 100m 1명

◆ 외국어 부문
• 2004.5.21. 함평교육청 주최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 은상 2명, 동상 3명
• 2007.12.26. 한국외국어평가원 주최 모범상 1명
• 2007.12.26. 함평군 주최 – 2007년 함평군 초,중,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중등부 3위
• 2008.12.03. 함평군 주최 – 2008년 함평군 중·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우수상 2명, 장려상 1명

◆ 수학 부문

• 2004.05.25 함평교육청 주최 수학경시대회 – 금상 2명, 장려상 1명
• 2004.07.14. 전라남도 주최 수학경시대회 동상 1명

◆ 과학 부문

• 2006.01.25. 전라남도 주최 과학영재교육 우수상 1명
• 2007.04.01. 한국추진공학회 주최 모형로켓 경진대회 특별상 1명
• 2007.06.21. 전남발명교육회 주최 전남학생발명이야기 글 공모전 장려상 1명
• 2007.06.22. 동아사이언스 주최 제6회 전국학생과학 논술대회 우수상 1명
• 2007.06.25. 전라남도 주최 – 2007년도 전라남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동상 3명
• 2008.01.31. 전라남도 주최 영재교육과정 참가학생 표창
• 2008.01.3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주최 – 제1회 전국학생 바이오 안전성 논술대회 장려상 1명
• 2008.11.27. 전남발명교육연구회 주최 – 전남학생발명기록장쓰기대회 장려상 2명
• 2008.11.1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최 – 제60기 주니어발명리더과정 표창장 1명
• 2008.12.12. 전라남도 주최 발명활동 표창 1명, 상설과학반 활동 1명

◆ 정보 부문

• 2004.05.20 함평교육청 주최 제5회 홈페이지 경연대회 동상 1명
• 2004.05.20 함평교육청 주최 제5회 정보검색대회 은상 1명
• 2004.11.01. 함평군 주최 군민 pc 이용 경진대회 우수상 1명
• 2005.06.02. 함평교육청 주최 제6회 학생정보검색 군대회 동상 1명
• 2005.11.01. 함평군 주최 군민 pc 경진대회 장려상 1명
• 2007.10.17. 전라남도 주최 제8회 학생정보화경시대회 동상 1명

◆ 글짓기 부문

• 2004.06.15. 목포해양대학교 주최 – 제 9회 "바다로, 세계로"전국 글짓기 대회 은상 1, 동상 2명
• 2004.11.22. 전라남도 주최 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전 동상 1명
• 2005.06.08. 목포해양대학교 주최 전국 글짓기대회 산문 부문 금상 1명
• 2005.06.10. 목포해양대학교 주최 – 제 10회 "바다로, 세계로"전국 글짓기 대회 운문 부분 특별상 1명
• 2005.10.20. 함평교육청 주최 제11회 독후감 작성대회 동상 1명
• 2007.05.18. 농협중앙회 군지부 주최 – 제9회 함평나비축제기념 환경 그림/글짓기 대회 장려상 1명
• 2007.05.18. 함평교육청 주최 – 제9회 함평나비축제기념 환경 그림/글짓기 대회 동상 1명
• 2007.06.15.목포해양대학교 주최 –"바다로, 세계로"전국 글짓기 대회 동상 1명, 장려상 1명
• 2007.11.08. 함평교육청 주최
– 제20회 함평문화제 행사의 학생 백일장, 사생대회 공모전 사생부 중등 최우수상 1명
• 2008.06.18. 목포해양대학교 주최 – "바다로, 세계로"전국 글짓기 대회 장려상 1명
• 2008.12.31.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주최 제16회 독서왕 선발대회 우수상 1명

◆ 미술 부문

• 2004.10.20. 전라남도 주최 – 제3회 전라남도 중등미술 실기대회(조소분야) 동상 1명
• 2008.06.12. 전라남도 주최 – 2008년도 전라남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그림 부문 동상 3위 1명

◆ **표창장 부문**

• 2004.05.15.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 1명
• 2004.05.15. 함평교육청 주최 모범학생 표창 2명
• 2004.11.03.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 1명
• 2005.05.07.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 1명
• 2005.11.03.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 1명
• 2008.05.08.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 1명
• 2008.02.15. 함평군수 표창 1명
• 2008.11.28.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주최 지도력 배양과정 표창 1명

(11)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1976	21	1,359	34	1993	10	447	27
1977	21	1,319	34	1994	11	449	27
1978	21	1,309	34	1995	9	395	28
1979	21	1,274	35	1996	9	386	24
1980	20	1,265	34	1997	9	319	23
1981	19	1,254	33	1998	8	279	21
1982	19	1,269	31	1999	7	226	20
1983	20	1,307	32	2000	7	211	20
1984	20	1,240	34	2001	6	165	15
1985	19	1,144	33	2002	6	154	14
1986	18	990	32	2003	6	157	13
1987	17	882	31	2004	6	162	15
1988	16	807	31	2005	6	167	15
1989	14	696	32	2006	6	163	15
1990	12	551	32	2007	7	183	17
1991	11	446	29	2008	7	184	15
1992	9	421	28	2009	7	190	14

(12)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취 임	이 임	대	성 명	취 임	이 임
1	오 만 식	'45. 12. 05	'49. 08. 31	7	고 일 석	'97. 03. 01	'03. 08. 31
2	김 재 란	'50. 03.16	'83. 02. 28	8	전 계 방	'03. 09. 01	'04. 08. 31
3	심 상 필	'83. 03. 01	'87. 02. 28	9	나 종 기	'04. 11. 02	'06. 08. 31
4	김 재 정	'87. 03. 01	'88. 08. 31	10	문 태 정	'06. 09. 01	'07. 02. 28
5	전 창 근	'88. 10. 06	'93. 08. 30	11	나 종 기	'07. 03. 01	현 재
6	노 영 균	'93. 09. 01	'97. 03. 1				

<자료 제공자 : 행정실장 권영식(權永植>

8) 나산중학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184번지

(2) 학구범위 :

나산면 삼축리, 수상리, 수하리, 월봉리, 용두리, 덕림리, 구산리, 원선리, 우치리, 신평리, 초포리

(3) 시설현황 :

· 부지 : 16,113㎡,
· 건평:1,962㎡. · 건축양식:철근 콘크리트

(4) 부대시설 :

관사 83.65㎡

(5)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 46회 졸업, 계5,965명(2009. 02. 11 졸업식)

(6) 연혁

① 역사적 배경 :

② 주요개요 :

* 1961.04.20 : 나산중학교 개교 – 초대교장 김동식 선생 취임
* 1966.11.19 : 학교법인 실림학원 설립인가 – 초대 이사장 나승옥 여사 취임
*1978.02.03 : 제2대 이사장 김동균 선생 취임
*2006.09.01 : 제6대 교장 나병구 선생 취임

(7) 주요 교육 실적

* 1984.07.05 : 호남예술제(광주일보) 나산중학교 음악부 최고상
* 1984.10.04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주최 나산중학교 음악부 최우수상
* 1985.06.20 : 호남예술제 나산중학교 음악부 우수상
* 1985.10.06 : 문화공보부 주최 나산중학교 음악부 최우수상
* 1985.10.11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주최 나산중학교 음악부 최우수상

* 1994.05.06 : 임선화. 전남교육감 표창장 * 1994.05.14 : 손미진. MRA 표창장
* 1994.05.31 : 안상훈. 사단법인 한국 BBS 모범소년상
* 1994.05.31 : 안상훈. 사단법인 한국 BBS 모범소년상
* 1994.05.31 : 안상훈. 사단법인 한국 BBS 모범소년상
* 1994.06.20 : 한국기초과학지도회 최우수상 진정희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수상
* 1994.06.24 : 유차근. 호남예술제 은상 수상
* 1994.08.02 : 노진용. 전라남도교육청 주최 모형 자동차 경진대회 금상 수상
* 1996.06.28 : 신탁연. 호남예술제 서화 동상 수상
* 1997.05. : 박정석.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조선대) 특선 수상
* 2004. : 조언약 정보올림피아드 PC 경진대회 은상 : 김하정 함평문화백일장 대회 산문부 최우수상
: 정은영외 1명 독후감 작성대회 은상 : 이귀자 전라남도 중등학생미술실기대회 은상
: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그림부문) 금상 : 함평나비축제 그림대회 금상
: 김주의외 3명 영어대회대회 은상 : 김주의 국어경시대회 금상
: 정다정 함평나비축제 글짓기 대회 우수상 : 서동균 전라남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은상
* 2005 : 김난희 함평문화제(사생) 최우수상 : 김보람 함평문화제(산문) 대상
: 최영훈 정보화경시대회 은상 : 정은영 청소년예방선도문예백일장(산문)금상
: 이지은, 윤성호 자연관찰탐구대회 은상
: 이지은, 송동준 함평군 학년별 육상 경기대회(400M, 800M)
* 2006 : 이지은 함평군 여름 영어캠프 최우수상 : 문경렬 군 학생정보검색대회 은상
: 유지선, 서동균 청소년과학탐구대회(과학그림, 기계과학, 고무동력, 로켓과학) 은상
: 김샘, 이건창, 최민수 제25회 전남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은상, 동상
: 김지민 학년별 육상 경기대회 100M, 200M 1위
* 2007 : 이지은 함평나비대축제기념 글짓기 대회 금상
: 이사랑 함평군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 양혜림 군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금상(과학그림부문)
: 이사랑 군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금상(항공과학글라이더부문)
: 이지은, 정상연 군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금상
*2008 : 강애란 전남 중학생 가정기능경진대회 한국요리분야 금상

(8) 학생수와 교직원 수

*1999년 : 121명, 17명 *2000학년도 117명, 17명 *2001학년도 112명, 10명

*2002년 : 92명, 10명 *2003학년도 77명, 9명 *2004학년도 74명, 9명
*2005년 : 79명, 9명 *2006학년도 88명, 9명 *2007학년도 71명, 8명

(9)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취임	이임	본적
1	김 동 식	金 東 植	1961. 04. 20	1988. 09. 19	함평군
2	이 기 순	李 基 順	1989. 03. 13	1989. 09. 14	승주군
3	남 창 원	南 昌 元	1989. 10. 23	1993. 10. 31	순천시
4	백 길 성	白 吉 成	1993. 11. 01	2000. 08. 31	함평군
5	문 대 현	文 大 現	2000. 09. 01	2006. 08. 31	함평군
6	나 병 구	羅 炳 丘	2006. 09. 01	현재	함평군

(10) 교훈 :

*슬기로운 사람(知), 예의바른 사람(德), 튼튼한 사람(體)
*교목 : 향나무- 강인한 의지, *교화 : 개나리 꽃- 청순함, *교색 : 청색- 희망과 웅지

(11) 특색교육 :

Talk, Talk, English!

2. 고등학교

1) 함평여자고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9-2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18,238㎡,
· 교육장-2,302.72㎡

(3) 부대시설 :

생활관(기숙사)

(4) 졸업상황 :

2009년 2월 13일 제 40회 졸업 (졸업생 총 수 4,939명)

(5) 연　　혁

- •1967.03.05 :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3학급)
- •1975.03.01 : 함평여자고등학교로 교명 변경(9학급)
- •1995.03.01 : 함평여중·고등학교 병설 인가
- •1996.03.01 : 함평여중·고등학교 분리
- •2008.09.01 : 제17대 최유선 교장선생님 부임
- •2009.02.13 : 제 40회 39명 졸업(총 4,939명 졸업)

(6) 교훈

※ 알찬 知識 (知),　높은 德望 (德),　굳센 體力 (體)

(7) 學校 象徵

가. 校旗	解 說
	바탕의 녹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아래 중앙 펜은 학문을 상징하며 '女'는 여학교를 나타낸다. 둘레의 삼각 테두리는 지덕체의 균형 있는 인간 교육을 뜻하며, 바깥 큰 원은 조화로운 원만한 성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나타낸다.

나. 校 花	다. 校 木	라. 校 色
		
개나리 – 希望, 光明, 快活	향나무 – 節槪, 志操, 意志	녹색 – 平和, 繁榮, 安定

(8) 노력중점

– 도서관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생활화

(9) 특색교육

– 함평 나비 대축제 체험을 통한 환경 친화력 배양

(10) 운동 육성 종목 :

펜싱 에뻬

(11) 주요교육 실적

- •1995 ~ 1996 :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운영 연구학교(교육부 주관)
- •1990.3.1~1992. 2.28 : 가정과 시범학교(전남교육위원회 지정)
- •1991.3.1~1992. 2.28 : 직업과정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직업선택 능력 배양(도지정)
- •2006학년도 : 과학실 현대화 사업
- •2007.3.1~2009.2.28 : 안전교육연구학교(전라남도교육청지정)
- •2008학년도 : 본관외벽 도색사업, 도서관 리모델링, 어학실현대화
- •2009학년도 :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건립

(12)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1976	6	74	14	1987	13	232		1998	9	350	28
1977	7	105	18	1988	13	223		1999	9	326	28
1978	8	102	25	1989	14	224		2000	9	266	28
1979	10	150		1990	13	232		2001	7	216	21
1980	11	146	29	1991	14	215	39	2002	6	158	21
1981	12	166	31	1992	12	496		2003	6	136	21
1982	12	238	31	1993	10	389	32	2004	6	119	21
1983	12	217	31	1994	8	338	29	2005	6	116	21
1984	12	221		1995	8	347	23	2006	6	114	21
1985	12	210		1996	9	391	28	2007	6	127	20
1986	12	205	34	1997	9	337	28	2008	6	145	26

(13) 역대교장

구분 / 대	성명		재임기간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이희갑	李喜甲	1967. 03. 15	1968.10. 22	
2	조규조	曺圭祚	1968. 10. 22	1970. 03. 10	
3	주찬애	走贊愛	1970. 03. 10	1970.10. 20	
4	심홍준	沈鴻俊	1970. 10. 20	1972. 03. 01	
5	양윤섭	梁鈗燮	1972. 03. 01	1973. 09. 01	
6	박종무	朴鐘武	1973. 09. 01	1975. 09. 01	
7	한안숙	韓安淑	1975. 09. 01	1980. 03. 01	
8	임행모	任行模	1980. 03. 01	1984. 03. 01	
9	이연우	李年佑	1984. 03. 01	1990. 08. 31	
10	정인국	鄭寅局	1990. 09. 01	1995. 02. 28	도지정시범학교 운영
11	안 경	安 經	1995. 03. 01	1998. 02. 28	교육부지정시범학교 운영
12	양순희	梁順姬	1998. 03. 01	1999. 08. 31	
13	유원상	柳元相	1999. 09. 01	2000. 08. 30	
14	정영도	丁永道	2000. 09. 01	2003. 02. 28	
15	박 광	朴 廣	2003. 03. 01	2005. 08. 30	
16	채광은	蔡光殷	2005. 09. 01	2008. 08. 31	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
17	최유선	崔侑繕	2008. 09. 01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 기숙형공립고

(조사자 교무부장 이생옥)

2) 전남보건고등학교

(1)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627-5

(2)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9,587㎡

· 건 평 – 6,232㎡
·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부대시설 :

관사 58.14㎡. 창고 1동 90㎡.

(4) 졸업상황 :

2008년학년도 34회 43명 졸업 (2009.02.11. 졸업식), 졸업생수 4,076명

(5) 연 혁

＊1972. 12. 26 : 월야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 ＊1973. 03. 06 : 개교
＊1974. 03. 01 : 함평월야고등학교 교명 변경 ＊1983. 03. 01 : 중학교와 분리
＊1989. 10. 15 : 교문 건립 ＊1992. 10. 23 : 어학실 신설
＊1993. 01. 07 : 월야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3. 02. 05 : 전자계산기과 실험실 2실 및 특별실 2층 증축
＊1993. 12 : 급식소개설 ＊1994. 12 : 담장축조(92m)
＊1995. 10 : 11개교실 바닥 데코타일 시설 공사 ＊1997. 06 : 배수로공사(270m)
＊1993. 03 : 멀티미어실 개설, 학내전산망 구축, 도교육청 컴퓨터시범학교 운영
＊1999. 10 : 기숙사준공 및 진입로 포장, 다목적실 칸막이 시설
＊2001. 03 : 전산실교육용 PC구입, 도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운영
＊2002. 07 : 임간교실설치,다목적 강당 증축
＊2003. 08 : 실습동 냉·난방 설치, 구령대·급수대시설
＊2004. 06 : 진입로 포장, 교사 휴게실 설치
＊2005. 08 : 교실내외 도색, 기숙사 환경개선
＊2006. 08 : 과학실현대화(1실), 관리실 및 보통교실 냉·난방시설(11실)
＊2007. 09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실), 학과 개편(보건간호과 6학급, 의료전자과 3학급)
＊2008. 09 : 화장실 증·개축(6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전국단위)
＊2009. 03 : 전남보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기숙사증축(100명), 전라남도지정 진로교육시범학교 운영

(6) 주요교육 실적

＊91도내 영어 대화대회 최우수상 수상 ·도내 제2외국어(불어)대화대회 최우수상
·도내 불어 학력 경시대회 동상 수상, ·도내 과학 경시대회 동상 수상
＊92도내 영어대화대회 우수상 수상, ·도내 제2외국어(불어)대화 최우수상 수상

·도내 수학 학력경시대회 은상 수상　　·도내 불어 학력경시대회 동상 수상
·도내 과학 경시대회 동상 수상
＊93도내 영어 대화대회 최우수상·우량상　·도내 불어 학력경시대회 금상 및 은상 수상,

·도내 수학 학력경시대회 동상 수상,　　·도내 영어 학력경시대회 장려상 수상
＊94퍼스널 컴퓨터 광주·전남 경진대회 고등부 동상 입상
·도내 불어 학력 경시대회 동상 수상,　　·도내 과학 학력 경시대회 동상 수상
＊95도내 독후감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도내 영어 대화대회 최우수상 수상
＊96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컴퓨터 조립분야) 금상 및 동상 수상
＊97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컴퓨터 조립분야) 은상 수상
＊99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99 광주·전남 학생서예 한마당 대회 특선
＊99 한글날서예공모전 특선　　＊00 제 8회 대한민국학생서화대회 특선
＊00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컴퓨터조립)장려상
＊01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컴퓨터조립)장려상
＊01 한글날 기념 제20회 전국학생 서예작품공모전 특선
＊01 고등학생 영어대화대회 장려상　　＊02 신춘휘호대전 특선
＊02 통일글짓기 대회 입선　　＊03 제9회 국어경시대회 동상
＊03 제9회 독후감작성대회 장려상　　＊04 제9회 통일글짓기 대회 장려상
＊04 호국보훈의달 글짓기 대회 최우수　　＊04 제5회 정보검색대회 동상
＊05 남도전통문화자랑발표대회(사물놀이) 동상　＊06 전남양성평등글짓기 동상
＊06 호국보훈의 달 통일 문예행사 우수상　　＊06 제9회 통일글짓기 대회 장려상
＊06 제16회 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 금메달
＊07 제2회 효도 및 경로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 우수상
＊08 장원청소년대상예능계발상

(7)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6	114	42	156	15	1993	8	162	162	324	33
1977	6	134	81	215	15	1994	8	160	196	356	30
1978	6	146	134	280	14	1995	9	188	215	403	31
1979	6	143	145	288	14	1996	9	188	193	381	31
1980	7	213	163	376	18	1997	9	181	146	327	30
1981	9	309	190	499	22	1998	9	134	122	256	30
1982	12	399	259	658	25	1999	9	143	122	265	30
1983	13	387	283	670	28	2000	9	120	127	257	30
1984	14	409	326	735	30	2001	9	142	116	258	30
1985	14	380	328	708	33	2002	9	131	102	233	29
1986	15	432	345	777	33	2003	9	144	87	231	31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87	15	416	320	736	37	2004	9	114	84	198	30
1988	14	406	306	712	39	2005	9	100	73	173	30
1989	12	340	296	636	38	2006	9	86	67	153	28
1990	12	284	288	572	35	2007	9	91	56	147	27
1991	11	216	236	452	36	2008	9	91	75	166	25
1992	9	185	169	354	35	2009	8	84	98	182	25

(8) 역대 교장

구분 대	성명		재임기간		본적	중요공적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심홍준	沈鴻俊	'72.12.26	'76. 3.20		교실신축, 무기고설치
2	조기남	曺基南	'76. 3.20	'81. 2.28		운동장정비, 교실증축
3	박동호	朴東鎬	'81. 3. 1	'84. 8.30	전남 광산	교실증축,화장실,숙직실,관사 신축
4	이양훤	李洋煊	'84. 9. 1	'86. 2.28	전남 구례	도서실확충, 환경정비
5	곽병탁	郭炳鐸	'86. 3. 1	'91. 2.28	전남 무안	교문신설, 운동장확장, 화단조성
6	최태정	崔兌定	'91. 3. 1	'94. 8.31	전남 여천	전자계산기과 설치 및 실습동건립
7	이정돈	李廷敦	'94. 9 .1	'98. 2.28	광주시	가사실설치 실습동 증축
8	정재석	鄭在淅	'98. 3. 1	'99. 8.31	전남 함평	멀티미디어실개설, 학내전산망구축
9	김영규	金永奎	'99. 9. 1	'03. 2.28	전남 광산	기숙사준공, 다목적실칸막이 시설
10	정영도	丁永道	'03. 3. 1	'04. 8.31	광주시	실습동 냉·난방시설, 구령대시설
11	김성대	金成大	'04. 9. 1	'06. 8.31	전남 나주	교실내외 도색, 기숙사환경개선
12	임동현	任東炫	'09. 9. 1	'09. 8.31	전남 나주	특성화고지정, 기숙사증축

<자료 제공자 : 교사 양광섭(楊光燮)>

3) 함평골프고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18

(2) 학구범위 :

전국(현재 재학생 현황 : 여수시,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함평군,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영광군, 고흥군, 신안군, 무안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영주시, 구미시, 진해시, 시흥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가평군, 과천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성남시, 천안시, 청주시, 서천시, 서산시, 계룡시, 논산시, 홍성군, 고창군, 군산시, 춘천시, 평창군, 중국, 뉴질랜드)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44,250㎡, · 건 평- 7,052.52㎡, · 건축양식-철근 콘크리트슬라브

(4) 부대시설

건축물 명칭	건축물구조	층 수	연면적(㎡)	비 고
본관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	2,678	
기 숙 사	철근콘크리트	3	1,487	
사 택	벽돌/블럭조	1	52	
사 택	벽돌/블럭조	1	58	
골프휘트니실	철근콘크리트조	1	297	
스윙연습장	철 골 조	2	1,096	
제3스윙연습장	철 골 조	1	359	하우스
골프클럽제작실	철근콘크리트	1	149	
골프스윙분석실	철근콘크리트조	1	198	
코스관리실	철근콘크리트조	1	144	
급 식 실	철근콘크리트조	1	114	
숙 직 실	벽돌/스라브	1	43	
체 육 관	철근콘크리트조	1	588	
관리기하치장	기 타	1	312	창고
기 계 실	조립식판넬	1	102	
창 고	시멘트벽돌조	1	165	
계			7,842	

(5) 졸업상황 :

2008학년도 제 58회 졸업, 남 37. 여 6, 계 43명(2009. 2. 14 졸업식)

(6) 연 혁

•1929.09.18 : 함평공립농잠실수학교 설립인가 •1935.04.25 : 함평공립농잠실수학교 교명변경
•1937.03.04 : 함평공립농잠실수학교 교사이전 •1946.09.30 : 함평공립농립중학교 교명변경
•1951.09.25 : 함평농업고등학교 교명변경 •1992.03.01 : 함평실업고등학교 교명변경
•2002.03.01 : 함평골프고등학교 교명변경 •2005.03.01 : 전라남도교육청지정 자율학교 지정
•2008.09.01 : 제24대 임경배 교장 선생님 부임 •2009.02.14 :제58회 43명 졸업식

(7) 중요교육 실적

•69.04.04 : 도지정 향토개발 - 조기재배 •76.05.07 : 제57회 전남예선대회(씨름) 3위
•94.10.30 : 제22년차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우수상
•97.01.30 : '96학년도 학교경영 우수학교 표창 •84년 :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김원기
•88년 : 서울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김영남, •88년 : 서울올림픽 레슬링 동메달 노경선
•89년 : 세계선수권대회 레슬링 금메달 김종신 •92년 : 바르셀로나올림픽 레슬링 은메달 김종신

•96년 : 제14회 전국회장기레슬링대회
－자유형 : 금메달(이길수), 은메달(정경호, 박남택, 이용만)
－그레고로만형 : 은메달(이용만), 동메달(송인기)
•96년 세계주니어선수권 레슬링 파견선발대회
－자유형 : 금메달(조현완), 동메달(이길수),
－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송인기), 동메달(이용만)
•96년 제2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레슬링대회
－자유형 : 금메달(조현완, 이길수)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송인기), 은메달(이용만), 동메달(강형수)
•96년 제21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그레고로만형 : 동메달(윤성수)
•96년 제77회 전국체육대회(레슬링)
－자유형 : 금메달(이길수), 은메달(송문관), 동메달(조현완, 정경호)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송인기), 은메달(정형수), 동메달(조현완, 이원행, 윤성수)
•96년 제22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자유형 : 금메달(조현완), 동메달(황지만, 박남택, 조광현, 조용필)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정경호, 이인성) 동메달(김용신, 채희영)
•97년 세계주니어 레슬링 선발전대회
－자유형 : 동메달(송문관) －그레고로만형 : 동메달(송인기)
•97년 제2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자유형 : 은메달(최점호), 동메달(조현완,조광현)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송인기), 동메달(김용신)
•97년 제22회 양정모 올림픽재패기념 KBS배 레슬링대회
－종합우승, 최우수상(조현완), 우수상(송인기), 지도자상(홍준희)
－자유형 : 금메달(조현완, 박남택, 조광현), 은메달(송문관), 동메달(조용필, 최점호)
－그레고로만형 : 금메달(송인기,유용주), 동메달(정경호, 채희영)
•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금메달 (송인기, 조현완, 정경호), 은메달(송문관), 동메달(조광현, 김용신, 조용필)

① 연구·시범학교운영현황

•2001. 7. 13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 고시 •2005. 3. 1 자율학교 지정

② 수상실적

년도	종별	발행처	수상내용	비고
2004	전남영농학생전진대회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라남도지부	우수상	
〃	전남기능경기대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금, 은	
〃	전남 학생 종합 체육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레슬링 1위－3명, 2위－5명, 3위 8명	

년도	종별	발행처	수상내용	비고
〃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레슬링협회	2위-2명, 3위 2명	
〃	전국 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	교육인적자원부	1위, 2위, 3위	
〃	전국 체육대회 고등부	교육인적자원부	3위	
〃	경희대학교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경희대학교총장	여고부 1위	
〃	전국체육대회 골프 여자일반부	문화관광부	개인전 금메달	
2005	첼린지 투어 9회대회		우승	
〃	영농학생전진대회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라남도지부	우수상-2명	
〃	전남기능경기대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장려상	
〃	전남학생체육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레슬링1위-7명, 3위-2명	
〃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	레슬링협회	1위, 3위	
〃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문화관광부 장관	1위, 3위	
〃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 대회	문화관광부 장관	1위, 2위-2명, 3위	
〃	전국 파맥스배 골프대회		여자부 1위	
〃	경희대 총장배 골프대회	경희대학교총장	우승	
〃	전국 스포츠 조선 투어스테이지배 골프 대회	스포츠조선	여자부 2위	
〃	한국여자아마츄어선수권대회	골프협회	여자부 1위	
2006	전국파맥스배 골프대회		여자부 1위	
〃	경희대총장배	경희대 총장	우승	
〃	전국스포츠조선투어스테이지배	조선일보사	여자부 2위	
〃	한국여자 아마츄어 골프선수권대회	골프협회	여자부 1위	
〃	전국 일송배 골프선수권대회		여자부 1위	
〃	제12회 전국 송암배		여자부 1위	
〃	제10회 SK엔크린 골프선수권대회	SK엔크린	우승	
〃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협회장	1위, 3위	
〃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문화관광부장관	1위, 3위	
〃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 대회	문화관광부	1위, 2위-2명, 3위	
2007	회장기 전국레슬링 대회	레슬링협회	2위	
〃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 대회	문확부장관	1위, 2위, 3위	
〃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교육인적자원부	2위	
〃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전라남도교육감	종합우승	
〃	전국체육대회	문화관광부	2위, 3위	
〃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KBS사장	2위	
〃	전라남도지사 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전라남도지사	1위	
〃	전라남도지사배 학생골프대회	전라남도지사	1위	
〃	전라남도교육감배 골프대회	전라남도교육감	1위	
〃	전라남도골프협회장배	전남골프협회장	단체우승	
2008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레꼬 58kg, 97kg-1위, 54kg, 76kg-3위 자유형 85kg-2위, 97kg-3위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	골프남자 일반부 개인전 2위	
〃	제10회 전라남도지사배 학생골프대회	전라남도지사	남고부-1위, 2위 여고부-1위, 2위, 3위, 남녀학생전체 1위	
〃	용인대학교총장배, 대불대학교총장배, 호서대학교와USGTF골프대회,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총장배	1위, 2위, 4위 외 다수입상	
〃	제19회 그린국제골프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남고부 1위	
〃	제36회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레꼬58kg, 97kg-1위, 50kg-2위	

년도	종별	발행처	수상내용	비고
〃	제3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KBS사장	그레꼬50kg, 58kg-2위, 69kg, 97kg-3위	
〃	제3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레꼬76kg, 97kg-1위	
〃	제11회 전남교육감배 학생골프대회	전라남도교육감	남,여 1위, 2위	
〃	2008년함평군 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함평교육장	1위, 2위	
〃	제14회 전라남도 골프협회장배 학생골프대회	전라남도 골프협회장	남·여 각1위, 2위	
〃	제10회 전라남도골프협회장 종합선수권대회	전라남도 골프협회장	1위, 2위	
〃	제2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		2위	
〃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대회	전라남도지사	2위(2명)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9	472		472	24	1993	9	316	16	332	28
1977	9	502		502	27	1994	10	340	15	355	31
1978	9	510		510	28	1995	10	342	26	368	29
1979	9	561		561	28	1996	12	375	35	410	33
1980	13	716		716	32	1997	12	343	35	378	34
1981	16	861		861	40	1998	12	292	29	321	34
1982	18	880		880	45	1999	11	244	21	265	
1983	18	895	21	895	48	2000	9	182	22	204	35
1984	18	793	36	829	51	2001	9	141	24	165	34
1985	18	750	48	798	52	2002	9	124	37	161	34
1986	18	655	41	696	52	2003	8	112	32	144	34
1987	18	571	37	608	55	2004	8	114	30	144	34
1988	15	493	38	531	54	2005	9	111	21	132	28
1989	13	442	28	470	52	2006	9	127	24	151	28
1990	12	355	28	383	51	2007	9	131	28	159	27
1991	12	309	25	334	37	2008	9	147	35	182	27
1992	10	334	25	359	30	2009	9	139	44	183	27

(9) 역대 교장

구분/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양봉화	梁鳳華		1947.10. 10	
2	고재천	高在天	1947.10.11	1948. 5. 31	
3	김종혁	金鐘赫	1948. 6. 1	1948.11. 30	
4	정종실	鄭宗實	1948.12. 1	1948.12. 22	
5	김동석	金東石	1948.12.23	1953. 7. 16	
6	권세일	權勢一	1953. 7.17	1957.11. 11	
7	서원삼	徐源三	1957.11.12	1961. 5. 4	
8	한판직	韓判職	1961. 5. 5	1961. 9. 13	
9	김하선	金河善	1961. 9.14	1964.10. 31	
10	임동춘	林東春	1964.11. 1	1968. 5. 20	

구분 /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1	김 태 진	金 泰 珍	1968. 5.21	1972. 9. 12	
12	문 경 철	文 敬 喆	1972.10.27	1975. 8. 23	
13	김 철 환	金 喆 煥	1975. 9. 1	1980. 2. 29	
14	한 안 숙	韓 安 淑	1980. 3. 1	1983. 2. 29	
15	황 용 구	黃 龍 九	1983. 3. 1	1987. 8. 31	
16	천 영 복	千 英 福	1987. 9. 1	1990. 8. 31	
17	정 형 덕	鄭 炯 德	1990. 9. 1	1994. 8. 31	
18	윤 동 진	尹 銅 璡	1994. 9. 1	1998. 8. 31	
19	조 규 남	조 규 남	1998. 3. 1	1999. 8. 31	
20	조 홍 성	趙 洪 成	1999. 9. 1	2003. 2. 28	
21	장 재 익	張 在 翊	2003. 3. 1	2005. 2. 28	
22	이 재 술	李 在 述	2005. 3. 1	2006. 2. 28	
23	이 해 관	李 海 官	2006. 3. 1	2008. 8. 31	
24	임 경 배	任 炅 培	2008. 9. 1	현재	

4) 함평고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753번지



(2) 학구범위 :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대동면, 신광면, 엄다면, 해보면,
장성군- 장성읍, 삼서, 삼계, 무안군- 무안읍, 해제, 영광군- 영광읍, 불갑면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36,353㎡,
- 교사동건축연면적- 3,686.31㎡
- 교사동 건축양식-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교사동 층 수 - 4층

(4) 부대시설:

건축물 명칭	건축물구조	층 수	연면적(㎡)	비 고
기숙사동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3	970	1층 식당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	2	975	체육시설
관사/음악실	조적조	1	176	
샤워장	조적조	1	28	
옥외화장실	조적조	1	21	

(5) 졸업현황 :

:2008학년도 제22회 졸업, 남:64명, 여:46명, 계:110명(2009.2.11.졸업식)

(6) 연 혁

•1984. 11. 27 : 함평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5. 3. 2 : 함평고등학교 개교
•1990. 3. 31 : 학교법인 동인학원으로 설립자 변경
•1990. 4. 14 : 동인학원 초대 박상복 이사장 취임
•2005. 3. 07 : 동인학원 제2대 조정숙 이사장 취임
•2009. 3. 01 : 제8대 하민호 교장 부임

(7)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2003 :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지정운영(전라남도교육청)

•2005 :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지정운영(전라남도교육청)

•2006 :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지정운영(전라남도교육청) 제3회 학교 홈페지 평가 우수학교(전라남도교육청)

•2007 :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교육과학인적자원부)

② 학교수상현황

년 도	종 별	발 행 처	수상내용	년 월 일	비 고
1987	전남육상경기대회	전남지역개발협의회장	500m 2위		
1994	학생영어회화대회	전남 교육감	우 량 상	9.30	
	제12회전국고교생 백일장대회	목포대학	시부최고상	10.21	본대학 입학시 4년간 장학특혜
	제2회독서왕선발대회	전남 도지사	장 려 상	11.13	상금 십만원
	제2회 독서왕 선발대회	전남 도지사	최 고 상	11. 3	
	전남대학교 용봉백일장	전남대학교	장 려 상	10.29	
	소영 백화선생 기념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백일장대회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입 상	11.19	
	제12회 건전청소년상 정립 웅변대회	청소년 선도 위원회	장 려 상	11.26	
	논설문 작성대회	전남 교육감	입 선	12.28	
1995	전국고교 백일장대회	목포대학교	시 부 가 작	10.19	
	전국 백일장 대회	전주대학교	산문부 차하	10.20	
	영어회회대회	전남교육감	우 량 상	11.13	

년 도	종 별	발 행 처	수상내용	년 월 일	비 고
1996	전남과학 경시대회	전남교육감	동 상	6.19	
	개도100주년기념 제6회 전남도민 합창경연대회	전남도지사	우 수 상	8. 5	상금 50만원
	전남학생음악경연대회	한국음악협회전남지회	독창부 금상	10.20	
	전남학생음악경연대회	한국음악협회전남지회	독창부 은상	10.20	
	전남학생음악경연대회	한국음악협회전남지회	독창부 은상	10.20	
	전국 백일장 대회	목포대학교	산문부장려상	10.30	
	제25회한경학생음악경연대회	한국경제신문광주지부	독창부최고상	11.10	
1997	제7회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	전남 도지사	우 수 상	5. 9	상금 50만원
	영어회화 대회	전남교육감	우 수 상	9.29	
1998	제8회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	전남 도지사	우 수 상	9. 9	
2000	제19회 전라남도 중.고 수학경시대회 동상	전남교육감	동 상	5,20	
	제11회 전라남도 중.고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전남교육감	동 상	9.10	
	시사경연대회	서울대학교	장려상	11.1	
2001	제20회 전라남도 중.고 수학경시대회	전남교육감	금상, 은상	4. 20	상금 50만원
	제12회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전남교육감	금 상	5. 20	
2004	제23회 중.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전남교육감	동 상	5. 9	상금 50만원
	제15회 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전남교육감	장려상	7. 10	
2005	고등학교 외국어(영어)경시대회	전남교육감	동 상	5,10	
	제11회 중.고등학생 독후감 대회	전남교육감	동 상	9.05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문화관광부	장관상	10.15	
2006	제8회 나비사랑 전국환경 글짓기대히	문화관광부	장관상	5,10	
	전국문예 공모대회 소설부문	목포대학교	최우수상	6.10	
	제6회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림청	은 상	9. 23	
	고등학교 외국어(영어) 표현력경시대회	전남교육유감	동 상	10. 9	
2007	제15회 독서왕 선발대회	전남 도지사	장 려 상	5.10	

(8) 학생수와 교직원수의 변화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85	5	165	126	291	14	1998	14	283	239	522	34
1986	12	329	282	611	25	1999	12	275	220	495	34
1987	15	424	376	800	33	2000	12	253	219	472	33
1988	14	414	301	715	31	2001	12	263	181	444	32
1989	14	372	294	666	33	2002	14	233	176	409	32
1990	13	347	273	620	34	2003	13	213	166	379	32
1991	14	351	299	650	36	2004	12	183	171	354	32
1992	14	342	269	611	36	2005	12	200	159	359	32
1993	13	308	226	534	36	2006	12	197	158	355	32
1994	12	266	236	502	36	2007	12	197	151	348	32
1995	12	266	255	521	36	2008	12	185	153	338	32
1996	12	268	271	539	34	2009	12	180	157	337	32
1997	12	285	251	536	34						

(9) 역대 교장

구 분	성명		재임기간		본 적	비 고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대	이 두 현	李 斗 鉉	1985. 3. 1	1987. 8. 31	전남 해남	
2대	김 양 수	金 楊 洙	1987. 9. 7	1992. 2. 29	전북 익산	
3대	허 낙 만	許 落 萬	1992. 3. 1	1998. 2. 28	순 천 시	
4대	오 광 윤	吳 廣 潤	1998. 3. 1	2000. 4. 10	목 포 시	
5대	이 재 휴	李 載 休	2000. 4. 18	2003. 2. 28	광주광역시	
6대	박 종 일	朴 鍾 一	2003. 3. 1	2005. 2. 28	광주광역시	
7대	손 규 홍	孫 圭 烘	2005. 3 .1	2009. 2. 28	광주광역시	
8대	하 민 호	河 珉 鎬	2009. 3. 1	2009.4.현재	목 포 시	

<자료 제공자:사무원 하종근>



5) 학다리고등학교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67번지

(2) 학구범위 :

전라남도 일원

(3) 시설현황 :

- 부지면적- 45,715 ㎡
- 건 평- 4,749 ㎡

· 건축양식- 철근콘크리트

(4) 부대시설 :

본관, 별관, 다목적강당, 도서관,
과학실동, 청운학사, 우정학사, 예지학사.

(5) 졸업상황 :

2009학년도 제58회 졸업, 남82명, 여52명, 계134명(2009.02.19.졸업식)

(6) 연　　혁

①역사적 배경

일제의 억압 아래서 갖은 핍박과 서러움에 시달렸던 우리 동포는 조국의 광복을 되찾고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거리에서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그러한 기쁨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본의 잔혹한 억압을 받았던 것은 지식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은 선각자들과 애향 군민들은 새롭게 발전해 나갈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양의 절실함을 통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과 인근에는 초등학교만 있을 뿐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중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광주나 목포 등지의 도시로 유학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일지라도 도시로 자식을 유학시킨다는 것은 집안 살림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독지가들은 자식을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해도 진학시키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주민 모두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산을 헌납하여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뜻 있는 독지가들과 권들이 앞 다투어 논과 밭을 제공하거나 곡식 등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5일 학교 초급 중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세운 진정한 민립(民立) 학교였던 것이다. "조선 교육 근본이념에 기(基)하여 국가에 유위(有爲)한 중견 공민(公民)을 육성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여 수업 연한 3년의 초급 중학교로 1946년도 1학년 2학급(100명), 2학년 2학급(100명)으로 출발하였다.

학교 초급 중학교는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조국을 수호하고 사랑하며 국가 장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과 모든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는 중견 국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초대 이사에는 지역주민이 뽑은 김태일(金太一) 선생이 추대 되었고, 초대 교장은 오만식(吳萬植) 선생이 취임하였다.

②주요개요

•1943.12.05 :학교초급 중학교 개교 •1947.08.18 :재단법인 학교의숙 설립인가
•1951.08.31 :학다리고등학교 설립인가•1951.09.01 :학다리고등학교 개교
•1981.12.16 :학칙 변경 24학급 편성 •2002.10.15 :학칙 변경 15학급 편성

(7) 교훈

가. **창조하는 정신**-항상 능동적이고 창조하는 생활을

나. **신의 있는 생활**-친구 사이에나 선생님께 항상 믿음을 주는 신의있는 생활을

다. **예의바른 태도**-웃어른을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공경하라는 의미

(8) 학교 상징

구 분	교 목	교 화	교 색
내 용	소 나 무	코스모스	백 색
상 징	청렴, 결백, 지조	우아, 순박, 자생력	맑고 선한 마음

(9) 특색 교육

가. 노력 중점 : ·독서교육의 활성화 ·영어 어휘 급수제 운영

나. 특색사업 : ·즐거운 노래 부르기

(10) 주요교육 실적

문예부(지도교사 : 민진국) 활동

◈ 1981. 06 - 국무총리기쟁탈 전국백일장대회(목포) : 우수 1, 특선 1, 장려 1명
◈ 1981.10.10 - 함평문화원 주최 제4회 백일장 대회
-(고등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중등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 1994.10.12 - 함평군청 주최 제7회 함평문화제 :산문 은상 1, 시 최우수 1명
◈ 1994.10.14 - 대통령기 제14회 국민독서경진 함평군예선대회 :
: 단체 최우수상, 개인 최우수상
◈ 1994.10.15 - 제34회 목포 예술제 : 우수상 1명
◈ 1994.10.27 - 함평문화원 주최 학생 독서 대회 : 최고상 1명
◈ 1994.12.04 -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주최 제50회 전국학생글짓기대회:특선 2명
◈ 1995.03 - 함평군 주최 제6회 백일장 대회 : 대상 1명
◈ 1995.11.04 - 광주지방경찰청주최 제11회청소년예방선도 송원문예백일장대회 :
: 시부문 대상 1명

◈ 1996.02.25 –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환경도서독후감 공모 : 단체부문 동상, : 개인 : 우수상 1, 동상 1
◈ 1996.08.10 – 제1회 전국 고교 북한 논설문 쓰기 운동 : 용감상 1명
◈ 1996.11.15 – 새마을문고중앙회 대통령기 제16회 국민독서경진함평예선대회 : 고등부 : 우수상 1명, 고등부 : 단체 우수상
◈ 1997.10.16 – 함평군 중·고 학생 독후감 쓰기 대회 : 최우수상 1명
◈ 1997.10.30 – 함평문화원주최 함평문화제 : 시 : 최고상 1명, 시: 최우수 1명
◈ 1997.10.30 – 전남 중 ·고등학생 독후감 쓰기 대회 : 우수상 1명
◈ 1998.05.13 – 광주지방검찰청 주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글짓기대회 : 표어부문 우수상 1명
◈ 1998.06.19 – 대한적십자사 주최 RCY제재 제35회 스승의날기념 문예작품공모 : 운문부문 대상 1명
◈ 1998.07.08 – 함평경찰서주최 대공홍보문예작품 백일장대회 : 산문부 우수 1, 함평교육청 주최 중·고등학생 독후감 작성 대회 : 금상 1명
◈ 1998.09.29 – 함평교육청 주최 중·고등학생 독후감 작성 대회 : 금상 1명
◈ 1998.11.30 – 철도청 주최 교통안전 계몽 문예작품 공모전 : 우수상 2명
★ 서희환(중5회) – 대한민국 미술 대전 : 대통령상
★ 박명희(고22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은상
★ 박문옥(고23회) – 조선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최우수상 및 전국 대회 : 금상, 은상
★ 김양진(고23회) – 홍익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금상
★ 김옥희(고23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금상
★ 김홍표(고24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상 및 전국 대회 : 금상, 은상
★ 백춘님(고24회) – 청주여자사범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 김병기(고25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2위 및 전국 대회 : 금상, 은상
★ 김희옥(고25회)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 강영란(고27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은상
★ 송원훈(고26회) –청주여자사범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최우수상
★ 이종화(고26회) – 조선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및 전국 대회 : 금상, 은상
★ 박덕희(고26회)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 한경자(고27회) – 홍익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은상
★ 김영진(고28회) – 원광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및 전국 대회 : 금상, 은상

★ 김창식(고28회) – 목원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금상 및
전국 대회 : 우수상
★ 박종순(고28회) – 청주여자사범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은상
★ 양향남(고29회) –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최우수상, 호남지역카니발대회 :
: 최우수상, 전국실기대회 : 우수상, 금상
★ 김성양 (고29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금상 및
전국 대회 : 우수상
★ 백정윤 (고30회) – 경희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 금상,
조선대학교 주최 : 우수상
★ 이숙자 (고30회) – 호남예술제 : 최우수상(1979년),원광대학교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 정미숙 (고31회) –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최우수상, 목원대학교주최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 : 우수상
★ 문선희 (고31회) – 호암예술제 미술 실기 대회 : 최우수상
★ 국중선 (고32회) – 청소년 지도자 대회 : 우수상
★ 박점석 (고32회) – 청소년 지도자 대회 : 최우수상
★ 임현주 (고33회) – 청소년 지도자 대회 : 최우수상
★ 신혜정 (고33회) – 청소년 지도자 대회 : 최우수상
★ 1971년 4월 19일 – 호남 웅변대회 : 고등부 1등
★ 1978년 5월 16일 – 전국 학생남녀웅변대회 국민총화기쟁탈 : 단체 우승,
개인 : 특상, 개인 : 우수상
★ 1979년 5월 16일 – 전국 학생남녀웅변대회 국민총화기쟁탈: 단체 우승,
개인 : 최우수상, 개인 : 우수상
★ 1980년 5월 16일 – 전국 학생남녀웅변대회 국민총화기 쟁탈 : 단체 특상,
개인 : 최우수상
★ 1980년 5월 18일 – 전국 남녀웅변대회 멸공통일기쟁탈 : 개인 : 특상,
개인 : 최우수상, 개인 : 우수상
★ 1981년 9월 27일 – 전국 남녀웅변대회 평화통일기쟁탈 : 단체 우승

마라톤<김연범 동문>

1952년 3월 26일 제15회 세계 올림픽 대회 한국 대표 최종 선발 대회(개최지: 대구) 2위
1955년 12월 전국 최우수 선수상 수상 (대한 체육회장상)
1962년 10월 제43회 전국 체육 대회(개최지: 대구) 우승(한국 신기록 수립)
1962년 12월 국제 마라톤 대회(개최지: 교또) 우승

배구

1959년 10월 제40회 전국 체육 대회(개최지: 서울) 3위
1968년 5월 24일 ~ 30일 TBC 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
(개최지: 부산) 우승(최우수선수상 장경호)
1968년 6월 7일 ~ 12일 전국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개최지: 서울) 우승
1968년 11월 조선대학교 총장기쟁탈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개최지: 광주) 우승

싸이클

1979.06 : 제9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학생 싸이클대회(개최지:서울) 고등부 종합우승
1980.06 : 제10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학생 싸이클대회(개최지:서울) 고등부 종합우승
1981.06 : 제11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학생 싸이클대회(개최지:서울) 중등부 종합우승
1981 : 아시안 게임 도로경기 한국 대표 선발전(개최지:서울) 1위 1명, 2위 1명, 3위 1명
1982 : 아시안 게임 도로경기(개최지:도꾜) 금메달
1982 : 11월 전국 싸이클 대회(개최지:서울) 고등부 종합우승
1983 : 제64회 전국 체육대회 3000m 단체 출발(개최지:서울) 1위 1명

태권도

1979.10 : 제60회전국체육대회(개최지: 대전) 핀급 금메달 1명
1980.10 : 제61회전국체육대회(개최지: 전주) 반탐급 금메달 1명
1981.10 : 제62회전국체육대회 반탐급 금메달 1명
1984 :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 1명
1986 :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 1명
1987 :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1명
1988 : 서울 올림픽 대회(개최지: 서울) 금메달 1명

무용부 활동

1997.08.03 : 8·15 광복절 기념 전국 학생 예능 실기 대회
(주최: 국제친선예술문화교류협회) 한국 고전무용 부문 금상 1명
1997.03.13 : 제3회 전국 초·중·고 남녀학생 무용 경진 대회 한국 전통 독무 3위 1명
1997년 11월 2일 : 제20회 한국 문화예술제 전국 무용 대회
(주최 : 한국문화예술연구회) 한국 무용 부문 금상 1명

(8)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
		남	여	계				남	여	계	
1976	15			897	31	1993	17	396	324	720	53
1977	15			882	30	1994	16	345	328	673	52
1978	15			881	31	1995	17	367	367	734	51
1979	16			966	34	1996	20	421	458	879	50
1980	17			987	34	1997	21	443	456	899	52
1981	18			995	36	1998	20	425	434	859	50
1982	20			1,103	40	1999	19	407	376	783	48
1983	22			1,250	44	2000	17	353	289	642	46
1984	24			1,359	48	2001	16	300	225	525	44
1985	24			1,328	48	2002	15	282	169	451	43
1986	24			1,363	48	2003	15	278	147	425	40
1987	24			1,320	49	2004	15	266	158	424	40
1988	24			1,318	56	2005	15	251	184	435	40
1989	24			1,288	58	2006	15	225	204	429	40
1990	23			1,168	56	2007	15	229	199	428	40
1991	22			1,062	54	2008	15	227	192	419	40
1992	20			913	54	2009	15	208	220	428	40

(9) 역대교장

구분 / 연도	성명		재임기간		본적	비고
	한글	한문	취임	퇴임		
1	김재란	金在鸞	1951. 9. 1	1983. 2.28	전남 함평	
2	심상필	沈相泌	1983. 3. 1	1987. 9. 5	전남 순천	
3	남창원	南昌元	1987. 9.15	1988. 8. 1	전남 순천	
4	김안달	金安達	1988. 9.29	1997. 2.28	전남 나주	
5	노영균	盧永均	1997. 3. 1	2000. 2.28	전남 함평	
6	김준기	金俊基	2000. 3. 1	2006. 8.31	전남 함평	
7	나종기	羅鍾杞	2006. 9. 1	2007. 2.28	전남 나주	
8	서광수	徐光洙	2007. 3. 1	2009. 2.29	전남 함평	
9	장철진	張哲鎭	2009. 3. 1	현재	전남 함평	

<자료 제공자 : 행정실 담당자 (권정선)>

6) 나산고등학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184번지

(2) 학구범위 :

함평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모든 학구

(3) 시설현황 :

- 학교부지 : 17,729㎡
- 건 평 : 6,169㎡
- 건축양식 : 콘크리트 슬라브

(4) 부대시설 :

구분	보통교실	관리실	어학실	컴퓨터실	가사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보건실	체육관	기숙사	상담실	화장실	자료실	창고	진학실	교지	운동장	실습실	도서관
수량	9실	4실	1실	1실	1실	1실	2실	1실	1실	1동	2동	1실	3동	1실	1칸	1실	7,232㎡	8,881㎡	7,563㎡	1실

(5) 졸업현황 :

2009. 02. 11. 제 22회 졸업식 거행 (총 1,822명 배출)

(6) 연혁 :

▲1961.04.20. 나산중학교 개교 ▲1961.04.20. 초대 교장 김동식선생 취임
▲1966.11.19. 학교법인 실림학원 설립인가 ▲1978.02.03. 제2대 이사장 김동균선생 취임
▲1984.11.27. 나산고등학교 설립 인가 ▲2006.09.01. 제6대 교장 나병구선생 취임
▲2009.02.11. 제22회 졸업식 거행 (총 1,822명 배출)

(7) 교훈 :

· 슬기로운 사람 (知), · 예의바른 사람 (德), · 튼튼한 사람 (體)

(8) 학교 상징

교목	교화	교색
향나무	개나리	청색
청순함	강인한 의지	소망과 웅지

· **노력중점** : 가. 연간 60권이상의 양서읽기. 나. NAVI(Nasan High School Vision) Project
· **특색사업** : 1인 1특기 지도
· **육성종목** : 악대부(나비오케스트라) 육성

(9) 주요 교육 실적

·1986 호남예술제 음악부 최고상 수상　·1987 호남예술제 음악부 금상 수상
·1989 호남예술제 음악부 최고상 수상　·1991 한국음악 협회 음악부 우수상 수상
·1992 호남예술제 음악부 금상 수상　·1994 한국음악 협회 악대부 최우수상 수상
·1997 호남예술제 음악부 우수상 수상　·2000 전국학생음악 경진대회(관악부문) 금상
·2002 전국학생음악콩쿨대회(관현악부문) 1등　·2006 호남예술제 (관악합주) 금상
·2007 호남예술제 (관악합주) 은상　·2008전국중고 자원봉사대회 은상
·제44회 4-H경진대회 단체 최우수상

(10) 학생수와 교직원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구분 / 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1985	3	174	11	1998	9	311	26
1986	6	211	16	1999	9	283	26
1987	7	358	22	2000	9	274	26
1988	7	346	22	2001	9	267	26
1989	6	279	22	2002	9	269	26
1990	7	280	22	2003	9	255	26
1991	6	244	20	2004	9	225	26
1992	6	247	20	2005	8	181	24
1993	6	208	20	2006	6	136	22
1994	6	218	20	2007	7	160	22
1995	7	280	22	2008	8	181	22
1996	8	346	24	2009	9	205	24
1997	9	329	26				

(11) 역대 교장

구분 / 대	성 명		재임 기간		비 고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김 동 식	金 東 植	1985. 03. 01	1988. 09. 19	
2	이 기 순	李 基 順	1989. 03. 13	1989. 09. 14	
3	남 창 원	南 昌 元	1989. 10. 23	1993. 10. 31	
4	백 길 성	白 吉 成	1993. 11. 01	2000. 08. 31	
5	문 대 현	文 大 現	2000. 09. 01	2006. 08. 31	
6	나 병 구	羅 炳 丘	2006. 09. 01	2009년 현재	

조사자 : 교무부장 최유순

제 6 절 함평군의 기타 학교

1. 특수학교

1) 함평영화학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744-2

(2) 학구범위

① 현재 재학생 거주지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월봉리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반안리, 동간리, 설매리
	대동면	용성리, 운고리, 향교리		군서면	만곡리
	월야면	월악리, 외치리, 월악리, 월계리		대마면	화평리
	엄다면	신계리, 송로리		법성면	법성리, 덕흥리, 진내리
	신광면	함정리, 삼덕리, 유철리		백수읍	지산리
	손불면	석창리, 월천리		영광읍	단주리, 녹사리, 학정리, 남천리, 무령리, 도동리 ,교촌리
	함평읍	대덕리, 기각리		염산면	봉남리, 옥실리, 축동리
	학교면	학교리, 월산리		홍농읍	상하리, 신석리, 성산리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생초리, 월연리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 성동리, 평용리, 성남리
	황룡면	금호리		망운면	목동리
	나산면	덕림리		청계면	남안리
	삼서면	금산리		해제면	양매리, 산길리
	동화면	용정리		현경면	해운리, 송정리, 외반리, 용정리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남평읍	대교리			

(3) 시설현황

① 교 지(校 地)

구 분	대 지	연 건 평
면 적	26,212㎡(7,943.03평)	6,197,47(1,878.02평)

② 체육시설

구 분	재활센터 (다목적강당)	인조잔디 운동장		
		풋살 경기장	우레탄 트렉	우레탄 피구장
면 적	1824㎡	1600㎡	624㎡	117㎡

(4) 부대시설

① 주요 시설

구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통교실	감각운동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자료실	방송실	직업보도실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정보처리실	생활관	보건실	구강치료실	가사실습실	도서실	창고	당직실	목욕실	교내식당	화장실	재활센터	사육장
수량(실)	1	1	1	13	1	1	1	3	1	6	1	1	1	1	1 (5)	1	1	1	1	5	1	1	1	14	1	1,469㎡

② 주요 교재 교구

품목		컴퓨터	피아노	오르간	실물화상기	프로젝션TV	판별도구	학습자료	OHP	VTR	체육시설						운동기자재		
											핸드볼대	배구대	탁구대	배드민턴	농구대	샌드백	런닝머신	고정자전거	벨트마사지
수량	종	2	1	1	1	3	21	614	1	1	1	1	1	1	1	1	2	1	1
	점	64	1	5	17	15	25	2,139	3	3	1	1	2	2	1	1	4	4	1

③ 치료지원 및 직업보도 기자재

품목		치료지원기자재										직업보도자료							
		스피치뷰어	전기치료	볼욕조	디지털캠코더	발성발어촉진기	작업치료	종합놀이기구	감각운동자료	언어치료자료	재활기자재	목공예부	농업부	수예부	도예부	금속공예부	조립포장부	가사실	농기구
수량	종	1	1	1	1	1	1	1	21	28	96	52	7	10	14	10	8	5	87
	점	1	1	1	1	4	1	1	22	33	591	249	28	40	52	40	18	30	422

(5) 역사적 배경

설 립 목 적

본교는 1984년 교육법(제143조) 및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거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학교법인 정양학원(正養學園)으로 설립을 인가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음.

건학 3대 교육 이념

전 인 생 활 의 교 육 (全 人 生 活의 敎 育)
양 지 양 능 의 교 육 (良 知 良 能의 敎 育)
궁 행 실 천 의 교 육 (躬 行 實 踐의 敎 育)

학교장 경영관

信 : 믿음을 주고 禮 : 예절을 지키며 道 : 바르게 살자.

(6)교훈 :

성 실(誠 實)

(7) 학교 상징

교목 : 은행나무 (건강·장수)	교조 : 비둘기 (사랑과 평화)	교화 : 동백 (우애와 사랑)	교색 : 녹색 (꿈과 희망)
			

(8) 연 혁

부별 구분 / 학년도	유 치 부	초 등 부	중 학 부	고 등 부	계 (명)	누계 (명)
1988. 02. 15.	·	·	1회 12명	·	12	12
1989. 02. 21.	·	·	2회 11명	·	11	23
1990. 02. 14.	·	·	3회 7명	·	7	30
1991. 02. 23.	·	1회 13명	4회 6명	·	19	49
1992. 02. 21.	·	2회 9명	5회 5명	·	14	63
1993. 02. 25.	·	3회 10명	6회 10명	·	20	83
1994. 02. 23.	·	4회 9명	7회 11명	·	20	103
1995. 02. 17.	·	5회 4명	8회 7명	·	11	114
1996. 02. 16.	·	6회 5명	9회 8명	·	13	127
1997. 02. 27.	·	7회 7명	10회 8명	·	15	142
1998. 02. 19.	·	8회 10명	11회 9명	1회 18명	37	179
1999. 02. 13.	·	9회 12명	12회 11명	2회 13명	36	215
2000. 02. 22	·	10회 11명	13회 10명	3회 13명	34	249
2001. 02. 16	1회 7명	11회 7명	14회 14명	4회 15명	43	292
2002. 02. 21	2회 10명	12회 9명	15회 11명	5회 11명	41	333
2003. 02. 19	3회 4명	13회 10명	16회 14명	6회 11명	39	372
2004. 02. 19	4회 6명	14회 8명	17회 12명	7회 12명	38	410
2005. 02. 18	5회 7명	15회 12명	18회 11명	8회 13명	43	453
2006. 02. 21	6회 2명	16회 10명	19회 14명	9회 12명	38	491
2007. 02 15	7회 5명	17회 10명	20회 9명	10회 11명	35	526
2008. 02 22	8회 1명	18회 14명	21회 14명	11회 10명	39	565
2009. 02. 20	9회 3명	19회 7명	22회 12명	12회 19명	41	606

(9) 졸업현황

년 월 일	연 혁 개 요	비 고
1984. 03 . 19 .	○ 학교법인 정양학원(正養學園) 설립 인가	
1984. 11 . 05 .	○ 함평영화학교(咸平永和學校) 설립 인가	
1985. 01 . 12 .	○ 초등부 정신지체(精神遲滯), 청각장애(聽覺障碍) 학급 인가	
1985. 03 . 01 .	○ 초대 나종학 (羅鍾學) 교장 취임	
1985. 03 . 05 .	○ 제1회 입학식(초등부 2학급,중학부 1학급)	
1985. 03 . 16 .	○ 중학부 정신지체(精神遲滯)학급 인가	
1992. 03 . 01 .	○ 제 2 대 전명남(全明男) 교장 취임	
1994. 03 . 31 .	○ 고등부 정신지체(精神遲滯)학급 인가	
1997. 03 . 01 .	○ 순회(재택)학급 인가	
1999. 05 . 03 .	○ 유치부 정신지체(精神遲滯)학급 인가	
2009. 02 . 20 .	○ 2009. 02. 20. 졸업 ·유 치 원 제 9회 : 3명(총45명) ·초등학교 제19회 : 7명(총177명) ·중 학 교 제22회 : 12명(총226명) ·고등학교 제12회 : 19명(총158명), 전체졸업생(606명)	
2009. 03 . 02 .	○ 유치원 제 10회, 초등학교 제 25회, 중학교 제 25회, 고등학교 제 15회 입학	

(10) 학생 수와 교직원수 현황

1) 연도별 재학생수 현황

부별 구분 / 학년도	유 치 부	초 등 부	중 학 부	고 등 부	전 공 과	계	비고
1985. 04. 01.	·	36	18	·		54	
1986. 04. 01.	·	71	37	·		108	
1987. 04. 01.	·	72	37	·		109	
1988. 04. 01.	·	74	38	·		112	
1989. 04. 01.	·	71	34	·		105	
1990. 04. 01.	·	79	32	·		111	
1991. 04. 01.	·	61	33	·		94	
1992. 04. 01.	·	64	37	·		101	
1993. 04. 01.	·	64	39	·		103	
1994. 04. 01.	·	62	34	·		96	
1995. 04. 01.	·	51	27	18		96	
1996. 04. 01.	·	55	29	31		115	
1997. 04. 01.	·	60	29	46		135	
1998. 04. 01.	·	60	35	41		136	
1999. 04. 01.	·	58	36	40		134	
2000. 04. 01.	7	57	38	38		140	
2001. 04. 01.	10	58	38	34		140	
2002. 04. 01.	4	58	38	35		135	
2003. 04. 01.	6	59	38	37		140	
2004. 04. 01.	7	62	38	37		144	
2005. 04. 01.	5	51	40	32		128	
2006. 04. 01.	5	47	37	37		126	
2007. 04. 01.	3	48	40	38		129	
2008. 04. 01.	6	40	41	44		131	
2009. 04. 01.	6	43	43	41		133	

2) 2009학년도 학생수 현황 (2009. 04. 15. 현재)

부별 / 구분 / 학년	유치부	재택순회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합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학급수	1	1	1	1	1	1	1	1	6	1	1	1	3	1	1	1	3	14
남	5	2	3	3	6	6	4	6	28	9	11	8	28	10	9	11	30	93
여	1	2	3	1	3	4	1	2	14	2	6	5	13	3	6	1	10	40
계	6	4	6	4	9	10	5	8	42	11	17	13	41	13	15	12	40	133

* 재택순회학급(초 : 남 1, 여 1, 중 : 여 1, 고 : 남 1 합계: 남2, 여2 총계: 4명) (2009. 03. 02. 현재)

3)연도별 직원 현황

* ( )안의 숫자는 일반교사와 중복된 부장교사 인원수 임 (2009. 04. 15. 현재)

직급 / 연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계	행정실장	행정계장	기능직			계	총계
				유치	순회	초등	중고	양호	치료교육				행정보조	운전원	급식종사		
1985	1	·	·	·	·	3	2	1	1	8	·	1	·	·	·	1	9
1986	1	·	·	·	·	4	3	1	1	10	1	·	2	3	·	6	16
1987	1	·	·	·	·	5	4	1	1	12	1	·	2	3	·	6	18
1988	1	·	·	·	·	6	5	1	1	14	1	·	2	2	·	5	19
1989	1	·	(3)	·	·	6	5	1	1	14	1	·	2	2	·	5	19
1990	1	1	(3)	·	·	6	5	1	1	15	1	·	2	2	·	5	20
1991	1	1	(3)	·	·	6	5	1	1	15	1	·	2	2	·	5	20
1992	1	1	(3)	·	·	6	5	1	1	15	1	·	2	3	·	6	21
1993	1	1	(3)	·	·	6	5	1	1	15	1	·	2	3	1	7	22
1994	1	1	(4)	·	·	7	6	1	1	17	1	·	2	3	1	7	24
1995	1	1	(4)	·	·	7	8	1	1	19	1	1	2	3	2	9	28
1996	1	1	(4)	·	·	7	10	1	1	21	1	1	2	3	2	9	30
1997	1	1	(4)	.	1	7	12	1	2	25	1	1	2	3	2	9	33
1998	1	1	(4)	.	1	7	12	1	2	25	1	1	2	3	2	9	34
1999	1	1	(4)	·	1	7	12	1	2	25	1	1	3	3	2	10	35
2000	1	1	(4)	1	1	7	12	1	2	26	1	1	3	3	2	10	36
2001	1	1	(6)	1	1	7	12	1	2	26	1	1	3	3	2	10	36
2002	1	1	(5)	1	1	7	12	1	2	26	1	1	3	3	2	10	36

2003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직급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교무보조	소계	행정실장	행정계장	영양사	기능직			조리보	소계	합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고등	보건	치료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남	1	1	(4)	1	4	1	1	6	.	2	.	17	1	1	.	2	3	.	.	7	24
여	.	.	(1)	.	2	.	.	7	1	.	1	11	.	.	1	1	.	1	2	5	16
계	1	1	(5)	1	6	1	1	13	1	2	1	28	1	1	1	3	3	1	2	12	40

2004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직급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교무보조	계	기능직							계	합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학	고등	보건	치료교육			행정실장	행정계장	영양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조리보		
남	1	1	(4)	·	4	1	1	2	4	·	2	·	16	1	1	·	2	3	·	·	7	23
여	·	·	(1)	1	2	·	·	5	2	1	·	1	12	·	·	1	1	·	1	2	5	17
계	1	1	(5)	1	6	1	1	7	6	1	2	1	28	1	1	1	3	3	1	2	12	40

2005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직급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소계	기능직					기능직		소계	합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고등	보건	치료				행정실장	행정계장	영양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조리보조		
남	1	1	(3)	1	3	1	1	7	·	2	·	·	17	1	1		2	3			7	24
여	·	·	(2)	·	3	·	·	6	1	·	1	2	13			1	1		1	2	5	18
계	1	1	(5)	1	6	1	1	13	1	2	1	2	30	1	1	1	3	3	1	2	12	42

2006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구분 / 인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유치부종일반	특수교육보조원	교무보조	소계	기능직					기능직		소계	합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고등	보건	치료					행정실장	행정계장	영양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조리보조		
현	남	1	1	(4)	1	3	1	1	7	−	2	−	−	−	17	1	1	−	3	3	−	−	8	25
	여	−	−	(2)	−	3	−	−	6	1	−	1	3	1	15	−	−	1	−	−	1	2	4	19
원	계	1	1	(6)	1	6	1	1	13	1	2	1	3	1	32	1	1	1	3	3	1	2	12	44

2007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구분 / 인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종일반	특수교육보조원	교무보조	계	기능직				기능직			조리,통학보조	계	합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학	고등	보건	치료교육					행정실장	행정계장	영양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현	남	1	1	(4)	1	3	1	1	4	3	·	2	1	·	·	18	1	1	·	3	3	·	1	9	27
	여	·	·	(2)	·	3	·	·	3	3	1	·	2	3	1	16	·	·	1	·	·	1	2	4	20
원	계	1	1	(6)	1	6	1	1	7	6	1	2	3	3	1	34	1	1	1	3	3	1	3	13	47

2008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구분 / 인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종일반	특수교육보조원	교원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계	행정실장	행정계장	기능직			조리 및 통학보조	계	총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학	고등	보건	치료교육	영양교사	계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현원	남	1	1	(5)	·	2	1	·	3	4	·	2	·	14	·	1	·	3	18	1	1	3	3	·	2	10	28
	여	·	·	(1)	1	4	·	2	3	2	1	·	1	14	4	2	1	·	21	·	·	·	·	1	2	3	24
	계	1	1	(6)	1	6	1	2	6	6	1	2	1	28	4	3	1	3	39	1	1	3	3	1	3	13	52

2009년도

*( )안의 숫자는 교사 수에 포함됨

구분 / 인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종일반/보육교실	특수교육보조원	교원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계	행정실장	행정계장	기능직			조리및통학보조	계	총계
					유치	초등	순회	교담	중학	고등	보건	치료지원	영양교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03년도	현원	남 1	1	(5)	·	2	1	1	4	3	·	1	·	·	0	·	1	14	1	1	3	3	·	3	11	25
		여 ·	·	(1)	1	4	·	1	3	3	1	1	1	4	3	1	·	24	·	·	·	·	1	2	3	27
		계 1	1	(6)	1	6	1	2	6	6	1	2	1	4	3	1	3	38	1	1	3	3	1	5	14	52

(11) 역대 교장

구 분	성 명	부 임	이 임	기 간	이동사항
초 대	나종학 (羅鍾學)	'85. 03. 01.	'90. 03. 10.	5 년	전임:전남농아학교 전출:호남영명학교
2 대	전명남 (全明男)	'92. 03. 01.	-	현 재	전임: 전출:

(12) 본교 특색 교육 활동

항 목	목 적	방 침	전 망
1.기능적 생활중심·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 역할 및 놀이 학습을 통해 일상 생활의 적응력을 기른다.	가. 가정과 학교에서 전환교육에 관련된 필수적인 기능 요소를 색출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 속에 최대한 반영한다. 나.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중심 전환교육으로 자활인을 육성한다.	*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 역할 및 놀이학습을 할 수 있다.
2. 각종 행사 교육 강조	* 학예회, 운동회 등에 참여하면서 생활예절을 실천한다.	가.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협동심, 경쟁심, 적극성, 인내심, 단결력 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나. 노인 회원을 초빙 1일 교사로 활용한다. ('99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 전시회, 야영대회,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 생활 예절을 실천 할 수 있다.
3. 현장체험 및 적응활동 충실 이행	* 현장적응활동의 강화로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체력 을 기른다.	가. 현장 체험 학습 강화한다. 나. 체력단련 및 인내심 기르기를 한다.	* 현장체험학습의 충실로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4. 능력별 개별화 교육운영	* 수업의 질을 제고하여 학생의 소질과 잔존능력을 개발한다.	가. 개별화 교육계획(IEP) 작성 운영한다. 나. 개별화 수업 계획(IPD) 작성 활용한다.	* 학생 개인별 소질과 능력에 따라 교육의 효과를 향상 할 수 있다. *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 치료교육 활동 철저	* 중복장애 학생들의 신변처리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가. 언어 치료 교육을 강화한다. 나. 감각·운동 치료지원을 강화한다.	*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중복장애 학생들이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

6. 직업교육 강화	* 작업의 기능을 높이고 진로를 결 정하여 소질과 능 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한다.	가. 직업 교육을 위한 기초 기능 지도를 강화한다. 나. 전환교육의 활성화한다. 다. 동물사육장 운영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작업 기능을 강화한다.	* 기초적인 작업 기능 을 향상 할 수 있다. * 진로방향 결정으로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한다. * 동물 애호 정신을 함양하고, 장래 직업인으로서 소양을 육성한다.

2. 장애인직업훈련학교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로 30



(2) 학구범위 :

전국 일원(직종에 따라 피교육생이 선택)

(3) 시설현황 :

현재 관리중인 · 학교부지 : 47,107㎡, · 건평 : 9,965㎡, ·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4) 부대시설 :

본관동, 실습동, 생활관, 강당,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5) 졸업현황 :

2008학년말 현재 남463명, 여110명 ,계 573명 수료

※ 단기과정 운영에 따른 수시 입학·수료로 인해 졸업식 미개최

(6) 연 혁

① 설립목적 :

호남권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

② 운영방침

– 최상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교육의 국제화

-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확대 -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도 제고

③ 주요 연혁

- 1997. 12. 22 : 전남직업전문학교 건립계획 노동부 승인
- 2000. 9. 26 : 전남직업전문학교 기공식
- 2002. 6. 12 : 준 공 - 2002. 9. 26 : 개 교 식
- 2004. 11. 3 :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로 명칭변경

(7) 주요교육 실적

①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종 위주 운영

- 주요직종 : 기계,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실무작업, 디자인, 애니메이션, 공무원 분야 등

② 학교수상현황 :

2008년도 공단내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8) 학생수와 교직원수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학생수	0	47	107	99	99	114	107
교직원 수	34	34	34	34	38	38	38

(9) 역대 기관장

구분	1대 (‘02.1~ ‘03. 12)	2대 (‘04. 1 ~ ’07. 1)	3대 (‘07. 1 ~ 현재)	비고
원장	송태근(宋泰根)	김옥주(金沃柱)	배진홍(裵鎭洪)	

※ 자료작성자 : 전남센터 지원팀장 고동필(☎320-7022)

3. 함평군평생교육학교

1) 함평문화학교

함평문화원은 1998년 3월 6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문화관광부장관)받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어르신 문화학교를 2006년부터 개설하여 “영상으로 쓰는

내고향이야기”와 “함평천지 에코도예가”를 운영하면서 노년층 문화예술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 운영 목표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로 문화 복지 실현·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 능력제고
·지역간, 계층간 문화 불균형 해소로 문화 균점화 도모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

2. 운영개요

가) 강좌 운영 기간

·2009년 2월 1일 ~ 12월 30일(혹서기 및 농번기는 휴강)

나) 강좌 운영 장소

·함평문화의집 ·관내 전통마을 및 특색마을
·관내 문화유적지 ·나비고을예술인촌

다) 강좌 수강 대상 : 개설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

라) 기대효과

·수강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
·계층간, 세대간 문화 불균형 해소로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향토문화예술의 이해로 향토애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3. 2009년도 강좌

가) 개설강좌 및 운영 계획

강 좌 명	강 좌 내 용	운영기간	예상인원	대 상	비 고
김순중의 사진강좌	·사진촬영의 기초 ·실기위주의 교육 ·문화유적촬영의 실제	2.1 ~ 12.30	20	성인	
함평도예교실	·흙과 성형의 기초 ·생활소품 만들기	6.1 ~ 12.30	30	성인	
화요시네마	·영화 감상의 이해 ·영화의 기본구조 ·영화 감상과 토론 ·영화와 현실	10.1 ~ 12.30	30	성인	
함평천지 문인화교실	·사군자 · 서예 기초	2.1 ~ 12.30	15	성인	
색소폰 강좌	·색소폰연주 이론과 실제 ·초급반, 중급반 운영	10.1 ~ 12.30	15	성인	

나) 초빙 예정강사 프로필

강 좌 명	강 사 명	주 요 경 력
김순중의 사진교실	김 순 중	·한국사진협회이사역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촬영대회 지도위원(51회) ·무안문화원 목포노인회관 사진강사(현)

강 좌 명	강 사 명	주 요 경 력
함평 도예교실	김 한 섭	·서해요 대표(현) ·소사벌 공예대전 특선 ·동아 공예대전 특선 ·국제 다구 공모전 입선
화요 시네마	모 지 환	·조선대 철학과 ·전남대 언론대학원 ·함평 중앙신문 편집부장
함평천지 문인화	이 진 행	·제19회 서예대전대상 등 초대작가 ·무등 미술대전 추천 작가 ·함평유도회장(현)
색소폰 강좌	나 영 수	·색소폰 연주자 ·나산중학교 음악교사 (전) ·초급반, 중급반 운영

2)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

1. 학교연혁

- 2006.03.09 : 전남대학교와 함평군간 협약 체결
- 2006.03.13 :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 개강
- 2009.11 : 현재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 8학기 48개 강좌 운영

2. 개설장소 :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교육장(구, 보건소2층)

3. 교육대상 :

희망하는 함평군민 누구나

4. 개설강좌 현황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8	11	12	14	11
제1학기	22	5	5	6	6
제2학기	26	6	7	8	5

5. 개설강좌별 프로그램 및 지도교수

연도별		프로그램명	지도교수	비 고
계		48		
2006년	제1학기	논술지도사	박 중 렬	
		독서교육지도사	장 우 권	
		생태환경	정 선 용	
		수지침	전 송 희	

연도별		프로그램명	지도교수	비 고
		현공풍수지리	백 창 권	
	제2학기	논술지도사	위 상 복	
		독서교육지도사	장 우 권	
		생태환경	정 선 용	
		수지침	전 송 희	
		현공풍수지리	백 창 권	
		정보문화큐레이터	장 우 권	
2007년	제1학기	논술지도자 I	박 중 렬	
		닥종이인형지도자	한 경 희	
		정보문화큐레이터	장 우 권	
		독서교육지도자 I	장 우 권	
		현공풍수지리	백 창 권	
	제2학기	논술교육지도자Ⅱ	위 상 복	
		메밀과 전통요리	손 주 영	
		유리공예지도자	김 성 은	
		영어동화독서지도자	이 수 진	
		닥종이인형지도자	한 경 희	
		독서교육지도자Ⅱ	장 우 권	
		현대인의 건강관리	민 제 호	
2008년	제1학기	메밀요리	한 임 자	
		영어동화 독서지도사	이 수 진	
		유리공예	김 성 은	
		닥종이인형지도자	한 경 희	
		나비곤충 큐레이터	정 헌 천	
		비즈공예	김 선 자	
	제2학기	유리공예	김 성 은	
		천연비누와 화장품	안 현 정	
		닥종이인형지도사	한 경 희	
		한지공예	한 경 희	
		나비곤충큐레이터	정 헌 천	
		디지털사진과 포토샵	한 호	
		동화구연동극지도사	양 소 영	
		도서관과 생활	장 우 권	
2009년	제1학기	집중속독교육지도사	정 재 천	
		꽃꽂이	남 영 숙	
		유리공예	김 성 은	
		한지공예	한 경 희	
		퀼트와 생활	이 수 부	
		동화구연동극지도사	양 소 영	
	제2학기	유리공예	김 성 은	

연도별		프로그램명	지도교수	비 고
		천연비누와 화장품	이 미 애	
		한지공예	한 경 희	
		사진촬영	한 호	
		동화구연동극지도사	양 소 영	

6. 개설강좌별 이수현황

(2006년~2009년 1학기)

구분	계	독서교육지도사	현공 풍수지리	논술 지도사	생태환경	닥종이인형 지도사	유리공예	수지침
인원	883	135	84	83	81	64	61	52

구분	정보문화 큐레이터	메밀과 전통요리	동화구연 동극지도사	디지털사진과 포토샵	나비곤충 큐레이터	현대인의 건강관리	천연비누 및 화장품
인원	45	40	33	31	28	27	21

구분	한지공예	도서관과 생활	영어동화 독서지도사	퀼트와 생활	꽃꽂이	비즈공예	속독교육
인원	19	19	19	15	10	9	7







제 7 절 함평군의 도서관(圖書館)

군내에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해 독서를 생활화하는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남 학생의 실력향상의 밑거름이 될 학교도서관을 전 초·중·고등학교에 미래설계를 위한 디지털자료실과 학생 1인당 25권 이상의 장서가 확보된 도서관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독서 의무화 시책을 추진하여 학생 개인별 독서 이력쓰기와 발표중심의 독서행사, 이메일을 활용한 독후감 주고받기, 학교홈페이지에 독서 감상문 올리기 등을 권장하

고 전 군민이 자녀에게 책 선물하기와 TV시청 30분줄이고 자녀와 함께 독서하기, 읽은 책 학교도서관에 기증하기, 가족과 함께 서점 나들이하기를 통하여 건전한 독서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독서하는 모습 보여드리기를 적극 권장하는 풍토조성의 일환으로 도서관 설치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존의 함평공공도서관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하면 해보면에서의 내용이 알찬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는가 하면 함평읍 화양근린 공원 내에 함평나비도서관을 개관하여 연중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배우면서 변화의 즐거움을 찾는 군민으로 거듭나고 있다.

1) 함평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함평인의 샘터

· 도서관 설치 배경 :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독서교육 기반 조성 및 건전한 독서습관 정착을 기하고 독서 친화적 분위기와 독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함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근무조	인 원	근무일	비고
순회 사서보조	1	월, 화, 토	
학부모독서도우미	36명이 오전, 오후팀 윤번제	수, 목, 금 오전팀, 오후팀	

· 연혁 : 2005년 리모델링

· 설치면적 : 171 ㎡

· 열람석 수 : 72석

· 장서수 : 1,4531권

· 교재 교구 : 컴퓨터 11(7대 불능), 방송시설 및 스크린, 북트럭, 사전대, 바코드스캐너,

· 개관 시간 : 09:00~ 17:00

· 이용 대상 : 학생(1-6학년), 교사, 학부모

· 특별강좌 개설 실적 :

강좌명	횟 수	대 상	강좌내용	비고
평생교육	1회	학부모 20명	아이클레이를 활용한 인형, 액자 조형 활동	
독서도우미 연찬회	1회	독서도우미 26명 교사 5명	디지털 도서관 이용방법 및 대출, 반납 방법 안내	

2) 기산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글마루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 독서를 통한 교과 학습 보완, 정서함양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도우미 활용
· 연혁 : 2008.09 리모델링 후 현 글마루 도서관 개관
· 설치면적 : 66m² · 열람석 수 : 23석
· 장서수 : 도서 8,216권, 비도서 0권
· 교재 교구 : 컴퓨터 4대(사서용 1, 교사용 1, 학생용 2), 프로젝션 TV
· 개관 시간 : 월-금요일 08:30-16:30
· 이용 대상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3) 손불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지혜의 샘
· 도서관 설치 배경 : 독서 생활화, 독서 습관 형성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담당교사 1인, 학부모 도우미 3인, 학생 도우미 3인
· 연혁 : 2006년 9월 19. 준공
· 설치면적 : 144㎡ · 열람석 수 : 50석
· 장서수 : 2009.6.1.현재, 도서 8,647, 비도서 131(비디오, DVD)
· 교재 교구 : 49종 125점, · 개관 시간 : 08:30~16:30
· 이용 대상 : 학생, 교사, 학부모 · 특별강좌 개설실적 : 도서관 활용수업

4) 손불서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푸른빛 도서관
· 도서관의 필요성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물(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폭넓은 사고력과 풍부한 창의성을 계발시켜 주기 위해 학교도서관(푸른빛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교도서관 규모 : 90 ㎡(복도 포함 1실)
· 도서관 공간 구성 : 학습·열람, 토론·독후 활동, 휴게·열람, 정보검색, 문헌자료, 대출반납 등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됨.
· 도서관 활용 시간 및 담당자

구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고
아침 독서	전교생						사제 동행 활동 교사

08:30~08:50	박성완	김옥남	최지애	윤순주	김남균	김경란	
1~4교시	1학년 정규 교과 활동						김경란
5교시		2학년		1학년	6학년		도서관 이용 시간
6교시				3학년	4학년		
7교시		유치원		5학년	유치원		

· 도서관의 야간 개방

· 개방 시간 :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 도서관 근무 : 학교도서관 학부모독서도우미의 자원 봉사활동

· 효과 :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5) 신광초등학교



· 도서관명 : 새 빛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리모델링 사업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자체 년중계획에 의함

· 연혁 : 2006년 설치

· 설치면적 : 132㎡ · 열람석 수 : 45석

· 장서수 : 도서자료 6,090권, 비도서 자료 57

분류기호	권수	분류기호	권수	비 고
000-099	273	100-199	216	
200-299	110	300-399	446	
400-499	897	500-599	230	
600-699	120	700-799	248	
800-899	3,550	합계	6,090	

· 교재 교구 : 컴퓨터 5대, 전자칠판1개

· 개관시간 : 08:30-17:00 · 이용대상 : 학생, 학부모, 지역민

6) 학다리중앙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학중앙 디지털도서관
· 도서관 설치배경 :
· 도서관 설치로 아동들에게 좋은 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전 도서를 바코드화하여 열람과 대출을 전자화함으로써 대출과 반납업무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도서관 근무조직 구조 : 도서관담당교사 1명,
학부모도서도우미 1명.

· 연혁 : · 2002. 05. 05 :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미래설계 디지털도서관 개관
· 2009. 12. 18 :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이전교 전자도서관 개관
· 설치면적 : 112.5㎡ · 열람석수 : 50석 · 장서수 : 5,800권
· 교재교구 :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자료검색용 컴퓨터 5대
· 개관시간 : 08:20 ~ 17:00
· 이용대상 :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7) 엄다초등학교


엄다초

· 도서관 이름 : 「꿈나래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독서교육 기반 조성 및 건전한 독서습관 정착을 기하며 독서 친화적 분위기와 독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전인적인 인간교육 실현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근무조	인 원	근무일	비고
순회 사서보조	1명	4월 1-3일, 7월 31일 11월 4-6일, 12월 17-18일	
학부모독서도우미	10명	월~금요일, 토요휴무일	

· 연혁 : 2008년 리모델링 · 설치면적 : 190 ㎡ · 열람석 수 : 42석

· 장서수 : 5023권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권수	155	146	30	344	547	169	54	116	2488	974	4,049

· 교재 교구 : 컴퓨터 3대, 방송시설 및 전자칠판, 책장, 열람석, 북트럭, 바코드 스캐너
· 개관 시간 : 08:00~ 16:40

· 이용 대상 : 학생(유치원, 1-6학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 특별강좌 개설 실적 :

강좌명	횟 수	대 상	강좌내용	비고
독서도우미 연찬회	1회	독서도우미 10명 교사 1명	디지털 도서관 이용방법 및 대출,반납 방법 안내	

8) 대동향교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푸른 숲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독서교육 기반 조성 및 건전한 독서습관 정착을 기하며 독서 친화적 분위기와 독서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전인적인 인간교육 실현을 바탕으로 함 (2005년 리모델링)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근무조	인 원	근무일	비고
순회 사서보조	1명	4월, 7월, 11월, 12월	파견
학부모독서도우미	16명	월~금요일,	

· 연 혁 : 2005년 학교 현대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5년 리모델링 실시하였음
· 설치면적 : 190 ㎡ · 열람석 수 : 50석
· 장서수 : 9,921권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권수	730	301	214	771	1392	206	85	350	4657	1215	8,706

· 교재 교구 : 컴퓨터 2대, 방송시설 및 전자칠판, 책장, 열람석, 바코드 스캐너
· 개관 시간 : 08:00~ 16:50
· 이용 대상 : 학생(유치원, 1-6학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 특별강좌 개설실적 :

강좌명	횟 수	대 상	강좌내용	비고
독서도우미 연찬회	1회	독서도우미 16명 교사 1명	디지털 도서관 이용방법 및 대출, 반납 방법 안내	

9) 나산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지혜의 샘터



· 도서관 설치 배경 :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적극 활용중임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담당교사, 사서도우미(돌봄 학교 지원)
· 연혁 : 2007. 10. 17.(개관일)
· 설치 면적 : 279.7㎡ · 열람석 수 : 30석
· 장서수 : 6.444

분류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 과학 (300)-	순수 과학 (400)-	기술 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권수	283	205	62	365	699	225	46	1,058	2,760	741

· 교재교구 : 전자칠판, 컴퓨터 4대, TV1대
· 개관시간 : 09:00~17:00, 19:00~20:00(월~금), 09:00~12:00(토)
· 이용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

10) 해보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꿈자람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활용중임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담당교사, 학부모 도우미
· 연혁 : 2005. 10. 21 (개관일)
· 설치 면적 : 160㎡ · 열람석 수 : 36석
· 장서수 : 8,146

분류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 과학 (300)-	순수 과학 (400)-	기술 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권수	464	290	38	583	1,285	370	61	329	3,458	1,268

· 교재교구 : 빔 프로젝트, 컴퓨터 5대
· 개관시간 : 13:00~16:00(월~금)

11) 월야초등학교



· 도서관 이름 : 책마루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학생들의 학력 향상, 독서 의식 고취 및 독서습관 형성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학부모 도우미 활용
· 연혁 : · 1968.3.12 : 도서관 신축
· 2007.10.16 : 리모델링 후 현 책마루 도서관 개관
· 설치면적 : 131m^2 · 열람석 수 : 30석
· 장서수

분류번호	장르	장서수	분류번호	장르	장서수
000		333권	600		93권
100		239권	700		283권
200		59권	800		3,111권
300		417권	900		1,332권
400		683권			
500		223권	계	6,773권	

· 교재 교구 : 컴퓨터 5대(사서용 1, 교사용 1, 학생용 3), 전자칠판 1대
· 개관 시간 : 월-금요일 : 13:00-16:00
· 이용 대상 : 학생, 교직원

12) 함평중학교



· 도서관 이름 : 함평중학교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
· 학습 활동에 있어 자료 활용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자율적 학습 능력을 길러 준다.
· 독서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돕는다.
· 휴식 공간의 제공으로 심신의 여유를 갖게 한다.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일반 교과 교사가 담당(정규 사서 교사 없음)
· 연 혁 : 2003년 10월 리모델링 사업
· 설치면적 : 132㎡ · 열람석 수 : 80석
· 장서수 :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권수	452	216	97	403	584	162	132	274	2,849	680	**5,169**

· 교재 교구 : 비디오 tape 118점, DVD및CD 28점, 카세트 tape 36점
· 개관 시간 : 매일 2교시 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종례 후부터 16시 50분까지
· 이용 대상 : 본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13) 함평여자중학교



· 도서실 이름 : 글뫼
· 도서실 설치 배경 : 현 도서실은 2004년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리모델링하엿음.
· 도서실 근무 조직 구조 : 도서 담당 교사 1인, 도서실 도우미 학생 6명
· 연혁 : 학교 도서실이 언제 맨 처음 설치된 년도는 알 수 없고, 2004년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름.
· 설치 면적 : 190㎡ · 열람석 수 : 50석
· 장서수 : 7,385권

분류	총류 (000)-	철학 사상 (100)-	종교 신화 (200)-	사회 과학 (300)-	순수 과학 (400)-	기술 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권수	543	239	84	463	457	132	237	156	4,452	619

· 교재 교구 : 빔프로젝트 1대, 컴퓨터 6대, 프린터기 2대, 이동식 칠판
· 개관 시간 : 아침 7시 50분- 8시 10분, 점심시간, 청소시간
· 이용 대상 : 본교 재학생

14) 함평월야중학교



· 도서관 이름 : 월야중도서관
· 주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612-4
· 도서관 설치 및 규모 : 리모델링, 교실 2칸
· 도서 보유 권수 : 4,000권

학교도서관 지원연도	2007년도	학교도서관 지원연도	2007년도
1일 평균 이용자수	60명	1일 평균 대출자수	12명
1일 평균 대출 책 수	15권	연간 도서관 활용수업 횟수	200회
연간 도서관 이용지도 횟수	10회	연간 독서교육 횟수	10회
연간 기타 활동 횟수	10회		

15) 손불중학교



· 도서관이름 : 군유산 서당
· 도서관 설치 배경 : 독서의 생활화와 독서습관형성의 요람
· 도서관 조직 및 구조 : 담당교사 1인, 학부모도우미 2인, 학생도우미 4인
· 연혁 : 1998. 11. 14 준공, 2008. 11. 10 리모델링
· 설치면적 : 100㎡ · 열람석 수 : 36석
· 장서수 : 2009. 6. 1 현재 총 5,422권
· 개관시간 : 08:00 – 17:00 · 이용대상 : 학생, 교사, 학부모
· 특별강좌 개설실적 : 정상적인 도서관 활용수업

16) 함평신광중학교



· 도서관 이름 : 월암관(글숲)
· 도서관 설치 배경 :
▶2008학년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설치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국어과교사(1명), 학년별 도서부원(6명)
· 연혁 : 2008년 11월 11일 개관
· 설치 면적 : 132㎡ · 열람석 수 : 49석
· 장서수 :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미등록	합계
권수	118	200	57	356	292	125	142	220	2,314	400	1,024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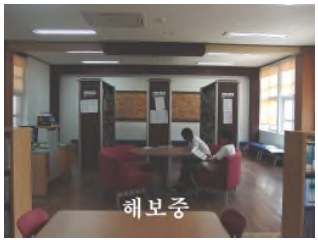
· 교재 교구 :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서가	22	빔프로젝터	1
학습용 및 열람용 책상	12	컴퓨터	4
학습용 및 열람용 의자	49	복합기	2
북카페 책상	7	MP 3	4
컴퓨터 검색대	2	PDP TV	1
사전 열람대	2	원형 소파	1

· 개관 시간 : ▶ 월-금 : 08:30 – 16:50 ▶ 토요일 : 08:30-12:30
· 이용 대상 : 재학생 및 학부모

· 특별 강좌 개설 실적 : 명사 초빙 2 회
▶ 2008. 12.10(수)
시인 오영순 : 아름다운 몰입 그리고 황홀한 즐거움, 시낭송
▶ 2009. 04.18(수)
아나운서 나선희 : 나의 꿈을 찾아서

17) 함평해보중학교



· 도서관 이름 : 천재들의 무지개
· 도서관 설치 배경 : ▶2007학년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지정되어 설치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국어과 교사(1명), 학년별 도서실 도우미(7명)
· 연혁 : 2007년 12월 26일 개관
· 설치 면적 : 135㎡ · 열람석 수 : 60석
· 장서수 :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권수	100	208	150	350	300	270	238	300	3,323	559	5,798

· 교재 교구 :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서가	17	전자칠판	1
학습용 및 열람용 책상	8	컴퓨터	5
학습용 및 열람용 의자	45	프린트기	1
북카페 책상	2	바코드시스템	1
컴퓨터 검색대	6	회의용 탁자	1
열람대	5	원형 소파	1

· 개관 시간 : ▶ 월-금 : 08:30 - 16:50 ▶ 토요일 : 08:30-12:30
· 이용 대상 : 교사, 재학생 및 학부모

18) 나산중학교

· 도서관 이름 : 실림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고 독서친화적 분위기조성 및 폭넓은 독서활동을 조장하여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실현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도서실 담당교사- 도서부장→3, 2, 1학년 도서부
· 연혁 : 2008년도 리모델링



· 설치 면적 : 90㎡ · 열람석 수 : 24석
· 장서수 :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권수	95	245	87	227	592	108	82	65	2,123	443	4,067

· 교재 교구 : ·전자칠판, ·정보검색컴퓨터4대,
· 개관 시간 : 09:00~17:00
· 이용대상 : 나산중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19) 함평여자고등학교



· 도서관 이름 : 다솜이 글샘
· 도서관 설치 배경 : 2008.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일환으로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교실 2칸에 설치
· 도서관 근무 조직도 : 일반 교사가 도서계 담당
· 연혁 : 2008. 08 리모델링 시작~ 2008. 9. 30 개관
· 설치면적 : 교실 2칸 이용, 132㎡
· 열람석수 : 54석 · 장서수 : 6,178권
· 교재교구 :

▵화이트보드와 전동식 스크린을 장착, 전자 교탁 설치, 교사용 PC 1대, 대출용 pc 1대, 학생 검색용 2대, 빔 프로젝트를 자동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영상자료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음.

▵정 중앙에는 강연대를 놓아 수업과 회의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방송 시설 공간 -학생들의 EBS 방송수업과 교사들이 연수 및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완비, 도서실 벽면에 4개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유, 무선 마이크 비치

· 개관시간 : 9: 00 ~ 17: 00 · 이용 대상 : 전학년 학생 및 교직원
· 특별 강사 개설 실적 : 외부 강사 초빙 강연 연 4회 실시.

20) 전남보건고등학교

· 도서관 이름 : 월야 책누리방



· 도서관 설치 배경 :
가. 학생들의 독서 활동 습관을 정착시켜 평생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독서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나. 간접 경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정서 순화를 도모하기 위함.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담당 교사 1인과 학생 도우미 6명이 활동하고 있음.
· 연 혁 :
· 1973년 3월 개교와 함께 1개 교실에 도서실 설치
· 2007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2개 교실 180㎡ 규모로 확장함.
· 설치 면적 : 180㎡ · 열람석 수 : 36 석
· 장서 수 : 6,128권
총류(000) : 130권, 철학(100) : 386권, 종교(200) : 178권,
사회과학(300) : 671권, 순수과학(400) : 355권, 기술과학(500) : 246권
예술(600) : 321권, 언어(700) : 193권, 문학(800) : 3,091권
역사(900) : 557권
· 교재 교구 : 컴퓨터 28대, 세계지도, 빔 프로젝터, 스크린
· 개관 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9:00 ~ 16:50
· 이용 대상 : 본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21) 함평골프고등학교



· 도서관이름 : 함평골프고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2003년 리모델링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담당교사
· 연 혁 : 2003 리모델링
· 설치면적 : 교실 2칸 · 열람석 수 : 7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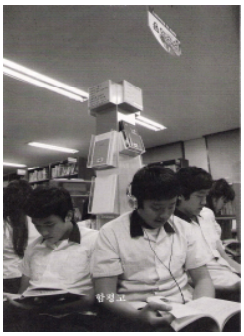
· 장서수 :

분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권수	160	124	411	393	155	217	503	114	4,074	735	6,886

· 교재 교구 : DVD,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빔프로젝트
·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대여시간 점심시간, 오후 4시 이후)
· 이용대상 :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 특별강좌 개설실적 : 학생대상 각종 교육프로그램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등)

22) 함평고등학교



· 도서관이름 : 책사랑
· 도서관 설치 배경 : 본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종합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사서교사 1인, 도서부원 4인
· 연 혁 : · 1985년 3월 도서관 개소
· 1993년 5월 도서관 개조사업 실시
· 2006년 10월 도서관 현대화 사업 실시
· 설치면적 : 168㎡ · 열람석 수 : 68석
· 장서수 :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총권수
장서수	431	798	115	478	367	241	279	87	1,737	613	5,146

· 교재 교구 :

	전자 칠판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TV	DVD`비디오 복합기기	DVD 타이틀	비디오테입
수량	1	7	1	1	1	387	337

· 개관 시간 : 매일 07:30 ~ 17:00
· 이용 대상 : 본교 학생과 지역 주민 전원
· 특별강좌 개설실적 :
· 원동연 박사 초빙 저자 강연(2006년)
· 김용택 시인 초빙 저자 강연(2008년)

23) 학다리중·고등학교



· 도서관 이름 : 운학관(雲鶴館)
· 도서관 설치 배경 :

1945년, 숨 막히던 일제치하의 질곡에서 해방되던 그 감격스런 기쁨을 보듬고, 다시는 그런 민족적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뜻있는 이 고장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 학의 벌판에 학다리중·고등학교라는 힘찬 기둥을 세운지도 어언 6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이 지역과 인근에는 중등학교가 없었다. 그러므로 가난한 농민들이었던 학부모들은

아무리 교육열이 높을지라도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을 시킬만한 여유가 없어 상급학교 진학은 꿈을 꾸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뜻있는 독지가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이 지역 발전은 물론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 다투어 논과 밭을 제공하였고 주민들 또한 곡식 등을 내어놓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945년 12월 5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세운 진정한 민립(民立) 학교인 '학교 초급중학교(鶴橋 初級中學校)가 1학년 2학급(100 명), 2학년 2학급(100 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청운의 꿈을 품고 본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함평읍은 물론이고 손불면, 신광면, 나산면, 엄다면과 무안군, 나주군 그리고 목포에서까지 학생들이 몰려와 1982년도에는 학생수가 1,440명으로 늘어났고 학급수도 24학급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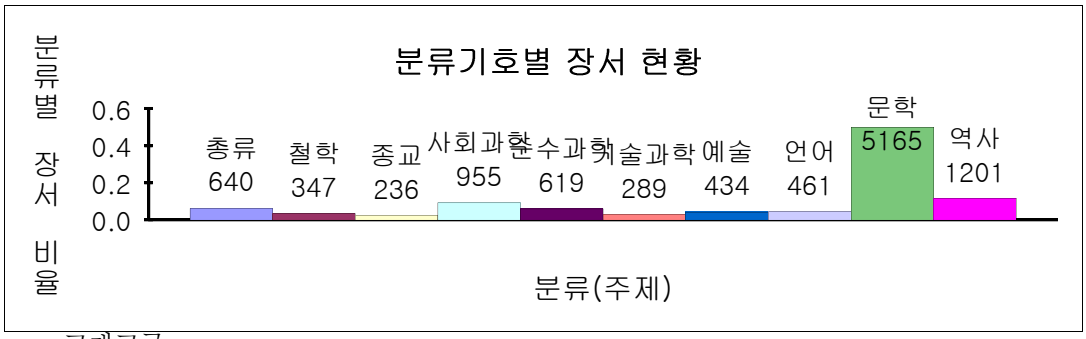
1973년 11월 27일엔 뜻하지 않은 화재로 전교실이 소실되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동문들과 각계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1년만인 1974년에 14개 교실을 복구하고, 곧이어 1976년에는 7개 교실을 더 만들어서 새로운 기틀을 다져 나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이농 현상은 1960년대 말에 비해 1990년대의 농촌 인구를 2/3 가깝게 감소 시켰고, 따라서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본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2년 당시 1,440명이었던 학생수가 1997년도에는 880명으로 줄어들고 그 후 3년 동안은 해마다 한 학급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본교는 1973년 화재 이후 1976년에 지었던 전관 바로 뒷 편에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1996년 현대식 신축교사 3층 18교실을 완공하였고, 1997년에는 1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장거리 통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층 더 분발하여 이 지역의 발전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3년 3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운학관(雲鶴館)이라고 이름 한 것은 아주 작은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이지만 60여 년 전 청운의 꿈을 품고 각지에서 본교를 찾아와 향학열을 불태우며 전국에 이름을 떨치던 동문 제위님들을 기리고, 그 때의 꿈을 되살려 다시 한 번 명문고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그 비전에 힘입어 운학관은 본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며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 되고 있다.

· 연　　혁
  · 1973년 : 교실을 활용한 작은 도서실이 있었으나 화재로 전소됨.
  · 1978년 : 2층 다목적 체육관인 삼락관(三樂館) 1층에 교실 반 칸의 서고와 교실 한 칸의 열람실로 이루어진 도서실을 꾸밈.
  · 1995년 : 1976년 지어진 전관 2층 끝 교실로 이사(현재 어학실).
  · 1998년 : 바로 밑에 있는 1층으로 이사함(현재 양호실).
  · 1999년 : 도서관 자료 전산화.
  · 2003년 : 운학관(雲鶴館) 건립.
· 설치면적 : 연면적 795㎡

· 열람석수 : 292석, 1층 12석, 2층 140석, 3층 140석

· 장 서 수 : 총 10,347 권



· 교재교구

항목	내용	수량
비품	서가 (2연 6단 복식)	12
	서가 (2연 3단 복식)	3
	테이블 (6인용)	2
	회의의자(컴퓨터의자 포함)	50
	대기의자 등받이형	10
	열람의자	280
	칸막이 책상	44
	잡지가	1
	북트럭	2
	전자·영상 자료 보관함	9
	컴퓨터 책상	8
	카운타(대출대)	1
	화이트보드	1
	한국십진분류 표지판	1
	정수기	2
전자 영상 기기	개인용 컴퓨터(586 펜티엄 Ⅳ)	8
	노트북	1
	전자복사기/디지털 AFIC	1
	레이저프린터	1
	LCD 프로젝트	1
	스크린/영사막 천정부착형 전동식	1
	DVD 플레이어	1
	비디오 프로젝터	3
냉난방 시설	냉난방기(실외기, 압축기 정격냉방용)	12

· 개관 시간 : · 월요일~금요일: 8:30~17:00 · 토요일: 9:00~12:00

· 이용 대상 : 본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24) 나산고등학교



· 도서관 이름 : 나산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독서는 글 읽기를 통해 지식을 얻고 깨달음과 감동, 즐거움을 누려 삶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다라서 학생들에게 현대식 구loby조를 갖춘 도서관을 이용하여 이러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독서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치 배경을 두었다.
· 도서관 근무 조직도 : 일반 교사 1명 · 연혁 : 2007. 11월 리모델링
· 설치면적 : 201㎡ · 열람석수 : 40석
· 장서수 : 7,034
총류(000) : 530권, 철학(100) : 461권, 종교(200) : 179권,
사회과학(300) : 1016권, 순수과학(400) : 675권, 기술과학(500) : 251권
예술(600) : 307권, 어학(700) : 283권, 문학(800) : 2,737권
역사(900) : 504권
· 교재교구 : ▵전자칠판, 컴퓨터, 프린트, 프로젝션 TV
· 개관시간 : 09: 00 ~ 17: 00 · 이용 대상 : 전학년 학생 및 교직원

25) 전남직업능력개발센타



· 도서관 이름 :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센터 재학생들의 여가 활용 및 독서 습관 고취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특화훈련팀 내 직원(2명)
· 연 혁 : 2002년부터~
· 설치면적 : 약 35㎡ · 열람석 : 12석
· 장서 수 : 약 1천 권

분류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과학 300	순수과학 400	기술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합계
권수	100	50	50	50	30	20	200	100	300	100	900

· 개관 시간 : 월요일 ~ 일요일 (09 : 00 ~ 21 : 00까지)
단, 방학 및 명절 등의 특별 기간 제외
· 이용 대상 : 센터 재학생 및 교직원

26) 함평나비·곤충도서관



· 도서관 이름 : 함평나비·곤충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함평나비·곤충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반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유용정보센터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전산직 1명, 행정·사서직 1명, 사무원 2명
· 연 혁 : 2008년 8월 19일 개관
· 설치면적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98㎡
  · 지하1층(88㎡) : 기계실, 장비실, 창고, 등
  · 지상1층(370㎡) : 열람실(162㎡), 가족열람실(30.7㎡) 등
  · 지상2층(370㎡) : 미디어실(7.2㎡), 디지털정보검색실(160㎡, 33석), 어학실/음악감상실(18.33㎡, 10석) 등
  · 지상3층(370㎡) : 세미나실(69㎡), 행정실(69㎡), 전산실(33㎡)
· 열람석 수 : 82석
· 장 서 수 (09.03.19. 현재)

분류기호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290	429	215	1,527	1,321	472	273	234	6,879	888	12,528

· 교재 교구 : 이용객 컴퓨터 43대, 전자교탁 및 칠판 등
· 개관 시간 : 매주 월요일 휴관 (1층)열람실 : 08:00 ~ 22:00
(2층)자료실 : 09:00 ~ 18:00
· 이용 대상 : 함평 군민

· 특별 강좌 개설 실적 : 역사논술, 구연동화, 엄마랑 도예교실, 이야기 책방 등

27) 해보나비골 작은도서관

· 도서관 이름 : 해보 나비골 작은 도서관
· 도서관 설치 배경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친화적 도서관 조성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사랑방 역할 제공 및 지식정보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구 해보면사무소 2층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 설치하게 되었음.

· 도서관 근무 조직 구조 : 관장 외 자원봉사자 2명
· 연 혁 : 2008. 9. 5. 개관
· 설치면적 : 150,66㎡ (·유아실 10,88㎡, ·열람실 87,40㎡, ·모듬학습공간 25,54㎡, ·화장실)
· 열람석 수 : 20석
· 장서수 (2009. 3. 19. 현재)

분류기호별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47	155	52	576	141	146	76	62	138	337	3,550

· 개관 시간 : 09 : 30 ~ 22 : 00
· 이용 대상 : 해보 초·중등학교 학생 및 해보면민
· 특별강좌 개설실적 : 마인드 맵, POP(예쁜글씨), 진로탐색, 수학이랑 놀자 등

28) 함평공공도서관



· 도서관 이름 : 함평공공도서관
· 도서실 설치 배경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함평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와 교육의 평등한 향유와 접근권을 제공하는 공적 사회영역으로써. 경제발전과 입시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해 소홀함이 적지 않은바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로 인해 주변생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문화·정보·교육생활의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바.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지역의 사회기구이므로 공공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진정한 지역의 사랑방, 정보보고의 역할을 다하자 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식정보화의 장의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함평 지역민의 지적 욕구를 위한 자료 확충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이용군민 모두에게 생활 속의 소중한 열린 공간으로 많은 이용을 통해 선진문화군민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 도서실 근무 조직 구조 : 사서직 3명, 기능직 2명

· 연혁 : · 1988.07.11. 함평공공도서관 개관
· 2003.07.28. 문화강좌실 및 디지털자료실 증축
· 2004.02.17. 디지털자료실 개실
· 설치 면적 : 부지 1,630㎡ 건물 643㎡(종합자료실151.5㎡, 열람실151.5㎡,
문화강좌실92.4㎡, 디지털자료실92.4㎡, 기타155.2㎡)
· 열람석 수 : 250석
· 장서수 : 59,956권
총론(2,429권) / 철학사상(2,335권) / 종교신화(1,214권) / 사회과학(6,955권) /
순수과학(3,367권) / 기술과학(2,539권) / 예술(2,870권) / 언어(1,744권) /
문학(27,904권) / 역사(3,842권) 비도서(4,757)
· 교재 교구 : 빔 프로젝트 1대, 컴퓨터 16대, 프린터기 2대
· 개관 시간 : 09:00~18:00-하절기 09:00~17:00-동절기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7:30~22:00-하절기 08:30~21:00-동절기 (열람실)
· 이용 대상 : 함평군민
· 실별 이용안내 :

종합자료실

· 비치도서 : 일반도서, 참고도서, 어린이도서, 향토자료, 연속간행물
· 자료검색코너 : 1대
· 이용시간: 평일(09:00-19:00), 토.일(09:00-17:00)

디지털자료실

· 비치자료 : DVD, CD, VIDEOTAPE등
· 인터넷검색, 원문DB검색, 영한·일한번역서비스, DVD·Viedo 영상코너,
· 디지털실예약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평일(09:00-18:00), 토·일(09:00-17:00)

· 특별 강좌 개설 실적

· 독서교실운영 : 독후활동, 독서지도, 동화구연, 작은 책 만들기, 사고 논술 지도 연2회 7개교(수료72명, 시상 20명)
· 독서회운영(주부독서회) : 독서토론을 통한 자아발견 및 자녀의 올바른 독서지도력 배양 (매월1회 회원15명)
·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 모범이용자 12명시상, 모범 독서가족 3가족시상,
· 평생학습프로그램 13강좌 연2회 운영 - 학생대상(1,380명 96회),주민대상 (1,220명 90회), 소외계층대상-시온원, 장애인복지(400명 20회), 다문화가정대상(325명 20회)

제8절 함평군의 체험시설

1) 함평엑스포공원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 1152-1

- 개관일 :

  2008년 4월 18일

- 면 적 :

  734,682㎡

- 비전과 목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함평군의 자연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미래발전을 이끌어내는 나비와 곤충이라는 엑스포 소재로 비옥한 땅과 온난한 기후,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함평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엑스포를 통해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엑스포를 범국민적 축제로, 그리고 전 세계적 모델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곤충생명산업의 메카로 부상해 나가는 비전을 담고 있다.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미래를 향한 함평군의 무한도전의 출발점으로 '작은 세계 속의 이야기'라는 자그마한 날갯짓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나비효과'의 발원지로서의 함평을 구체화하는 단초가 되었다.

① "2008년 함평에 나비효과가 일어난다."

함평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온 세계에 광풍을 일으킨다. 세계 최초의 곤충문화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곤충 엑스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

② "함평만이 가능하다."

함평의 지역축제인 나비 대축제를 범국민적 축제로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비옥한 땅과 온난한 기후, 천혜의 생태환경은 곤충생명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③ “다른 지역 엑스포와 차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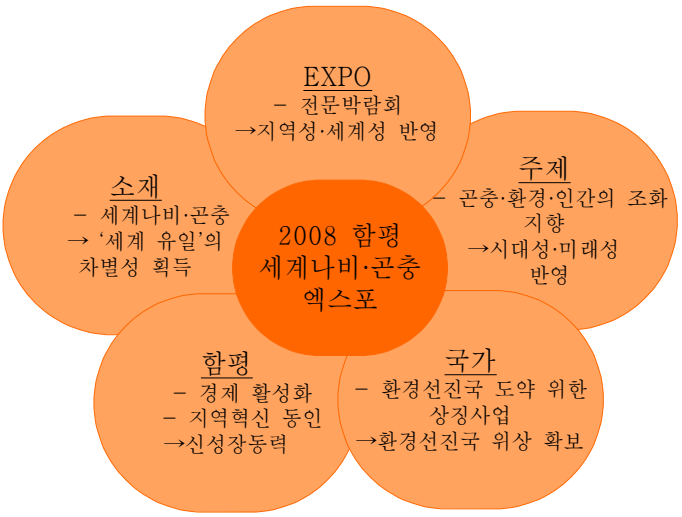
함평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작은 세계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전 세계에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비전과 목표

	곤충을 기반으로 한 세계 유일의 환경엑스포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비전	▶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 ▶ 지역혁신의 전환점 ▶ 획기적인 주민소득증대의 출발점
목표	△ 환경 및 곤충산업의 세계적 집결지화 △ 국내·외 방문객을 통한 관광수익 획기적 증대 △ 사업투자를 통한 고용효과 창출 △ 지역브랜드화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
효과	• 국가적 차원 – 세계적인 환경선진국의 위상 확립 • 지역적 차원 – 21세기 함평의 위상 확립과 새로운 문화관광 이미지 형성

주제를 통해 보면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와 ‘기적을 찾아서(곤충), 미래의 꿈(인간), 작은 세계의 메커니즘(환경)’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곤충과 인간 그리고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전문박람회로서 지역성을 반영한 소재와 세계성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세계 유일’이라는 소재적 측면의 위상과 맞물려 함평엑스포의 위상을 드러내는 주요한 요소이다.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위상

• 엑스포공원 조성현황

① 조성 면적

대 상		면적(㎡)	사업별	주관 부서
계		734,682		
EXPO공원	엑스포시설	147,108	◦함평나비산업특구	조직위원회
	제1주차장	30,090		
화양근린공원		191,050	◦황금박쥐생태전시관 ◦곤충생태체험타운조성 ◦농어촌공공도서관	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생태습지공원		309,092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재난안전관리과
태양광발전소 (제2주차장)		57,342	◦태양광발전시설, 주차장	지역경제과

• 시설현황

① 전시시설

구분	시 설 명		규 모	내 용	비 고
1	주제관	소 계	2,966㎡		나비특구
		영 상 관	306㎡	207석규모 3D입체영상관	
		하 천 홍 보 관	375㎡	함평천이야기를 주제로한 5개 테마관	
		프 리 쇼 룸	148㎡	나비곤충을 주제로 한 프리쇼공간	
		R & D 관	94㎡	곤충 게놈프로젝트 테마관	
		사 무 실 등 기 타	2,073㎡	사무실, 화장실, 모유수유실 등	
2	금호관	**소 계**	**1,471㎡**		**나비특구**
		화 석 관	80㎡	화석으로 본 곤충의 진화와 출연	
		표 본 전 시 관	282㎡	국내외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토 종 민 물 고 기 관	282㎡	국내토종민물고기 112종 1,966마리 전시	
		휴 게 실 등	827㎡	휴게실, 화장실 등(2층)	
3	생태관	**소 계**	**5,794㎡**		**나비특구**
		국 제 나 비 관	1,844㎡	국제나비생태관	벤로형유리온실
		국 제 곤 충 관	1,980㎡	국제곤충생태관	와이드스판형 비닐온실
		원 예 치 료 관	1,322㎡	친환경농업생태관, 다육식물관	벤로형유리온실
		준 비 실	648㎡	나비곤충에 필요한 초화류 보관소	비닐하우스
4	테마전시관	**소 계**	**1,369㎡**		**화양근린공원**
		숲 속 의 곤 충 마 을	676㎡	나비곤충 모형을 통한 곤충마을 테마관	
		황 금 박 쥐 테 마 관	693㎡	순금 162kg의 황금박쥐모형 등 테마관	
5	친 환 경 농 산 물 전 시 관		99㎡	우리군 친환경 브랜드 전시관	나비특구
6	육 아 휴 게 실		50㎡	모유수유실, 휴게실	〃
7	일 러 스 트 작 품 관		645㎡	일러스트공모 작품 전시	천막구조
8	운 영 관		1,656㎡	행사기간 운영관 및 창고 활용	
9	중 국 관		398㎡	중국 음식 판매 및 전시(휴게시설)	
10	민 속 주 점		51㎡	한국 전통 음식 판매 식당	
11	남 이 나 라 홍 보 관		27㎡	남이섬 홍보관 및 휴게시설	
12	함 평 나 비 랜 드		3,960㎡	12종 놀이시설	민간위탁

② 야외시설

시 설 명	계	EXPO회장	근린공원	생태습지공원

시 설 명		계	EXPO회장	근린공원	생태습지공원
시설물	야 외 화 장 실	6개소	3개소	3개소	
	야 외 공 연 장	2개소	1개소	1개소	
	목 재 데 크	1개소			1개소
	어 린 이 놀 이 터	1개소		1개소	
	체 육 시 설	2개소	1개소	1개소	
	게 이 트	3개소	3개소		
	기 념 비	3개소	2개소	1개소	
	가 로 등	246개	160개	85개	1개
	웨 건 판 매 대	25개소	25개소		
	포 도 비 가 림 막	2개소	2개소		
전시물	포 토 스 팟	3개소	3개소		
	거 대 곤 충	15개	15개		
	상 징 조 형 물	1개소	1개소		
	미 로 원	1개소		1개소	
편의시설	의 자	147개	24개	113개	10개
	정 자	10개소	5개소	4개소	1개소
	음 수 대	9개	2개	7개	
교량	목 재	10개소	5개소		5개소
	암 거	2개소	1개소		1개소
산책로		4,050m	650m	500m	2,900m
분수		7개소	6개소		1개소
주차장		89,032㎡	87,432㎡	1,600㎡	

• 관별 안내 현황

① **나비곤충생태관** : 나비·곤충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습을 시대 순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화석을 통해 곤충의 출현과 진화의 과정을 엿볼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화석전시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포나비, 세계에서 가장 큰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등 국내외 454종 7천여마리의 나비·곤충을 전시한 나비곤충표본관과 40여종의 살아 있는 나비와 곤충으로 호랑나비, 부전나비, 흰나비 등 살아있는 나비방사, 나비의 일대기 표현과 장수풍뎅이, 여치, 수서곤충 등 곤충을 전시한 나비곤충생태관,

100여종의 한국 고유종 민물고기 및 천연기념물을 전시한 민물고기과학관으로 연출되어 있음

② **황금박쥐생태전시관 :** 함평에서 서식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박쥐의 생태체험 및 자연생 태 보존과 야생 희귀동물 보존 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동굴디자인의 전시관을 비 롯하여 함평의 야산 동굴에 162마리의 황금박쥐가 발견된 점을 착안하여 만든 순금 162kg 의 황금박쥐 조형물은 세계 어디에서도 불 수 없는 함평만의 볼거리와 박쥐의 분류와 생태, 박쥐의 응용분야 및 전통속의 박쥐 등 박쥐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③ **원예치료관 :** 허브를 비롯한 국내외 초화류 및 야생화 등의 식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며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향상 시키고, 집중력이나 창조력 및 탐구력 등을 배양하기 위한 자연 환경적 공간으로 조성 대형 금강산경을 조성하여 수석 및 분재를 이용한 한국적 명산의 심산유 곡 모습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시냇가와 호수 등을 설치하는 자연풍경 연출과 친환

경 농작물, 전통 과수, 약초, 채소류 등 100여종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정취를 맛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현장 학습이 되도록 조성 하였으며, 2009년부터 친환경 농업관 일부에 선인장 및 다육식물 2,300여종(9,000본)을 재배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식물분야에
대한 새로운 학습장 마련과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에는 친환경농업관 입구에 30여종의 관상 용 호박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호박세계를 만들어 냄.

그 외 관찰원, 수서곤충 관찰원, 허브 관련 차 제품 전시 및 시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음.

2) 자연생태공원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 일원

- 부 지 :

  410,465㎡ (대동호 1,082,000㎡ 미포함)

- 설립추진경위 :

•1996. 06. 23~12. 20 : 농림수산부 방문시 발의 및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육성」확정
•1998. 06. 27~2001.01. 01 : 「함평 난 공원조성사업」 착공 및 사업소 개소
•2002. 04. 06~05. 15 : 「산림욕장」「무궁화동산」「우리꽃 생태학습장」 준공
•2003. 04. 22 : 「자연생태과학관」 등록 (과학기술부 제09호)
•2004. 12. 30~2005. 01. 14 : 「호반도로개설공사」「청소년야영장」 준공
•2005. 01. 31 :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준공
•2006. 07. 03 : 「자연생태공원」 개원

- 설립 목적

1990년대부터 자생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은 이 고장 함평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종의 난이 채취되면서 차츰 재배, 번식, 배양하기 시작하여 한국난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함평군이 특화사업으로 자생난 보존육성사업에 앞장서면서 전국의 이목을 끌어들여 사계절 탐방학습과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함평나비대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 서남권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게 되어 매년 봄철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과 가을철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전국최고의 명품축제로 치루는 명소가 되었다.

□ 전시 시설 현황

구 분	단위 시설	규 모	비 고
전시관	한국춘란부류관	166.32㎡(50평)	난전시·판매
	나비·곤충표본전시관	1,158㎡(350평)	나비·곤충 표본전시
	풍란·새우란관	231㎡(70평)	풍란 및 새우란
	동양란관	330㎡(100평)	혜란
	나비·곤충생태관	665㎡(200평)	관엽식물 등 66종
	자생란관	231㎡(70평)	자생란 및 야생화
관람시설	반달가슴곰관찰원	900㎡(건축물 196㎡)	반달곰 13마리
	수서곤충관찰학습장	2,418㎡(732평)	
	우리꽃생태학습장	24,001㎡(7,260평)	107종 133,000본
	장 미 원	600㎡(180평)	45종 1,320주
	목 단 원	430㎡(130평)	48종 259주
	괴 석 원	676㎡(205평)	괴석 28점
	무궁화동산·수목원	33,000㎡(10,000평)	4종 19,000주
	생태녹지섬	3,600㎡(1,089평)	국화원조성
	수변관찰데크	데크 270m, 분수 등	수련 등 200종
편익시설	인공·노천폭포	폭포 2개소	
	음 수 대	3개소	
	주 차 장	7,863㎡(2,380평)	대형 20, 소형 135
	생태화장실	79.2㎡(23평)	남, 여, 장애인
	전 망 대	64㎡	1개소
	파고라 및 원두막	8개소	
	바닥·부력분수	2개소	
	산책로·호반도로	연장 3,000m	

※ 청소년야영장 : 관리동 체력단련시설, 캠프파이어장 등 9종

3)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 소재지 :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546-2번지



• 시설현황

시설부지면적	연면적
10,770㎡	231.40㎡
건축양식	부대시설
목 조	관리사1동(66㎡)
특기사항	비 고
2003.6월 준공	

• 설립배경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신 일강 김철선생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의 나라

사랑의식 함양 및 역사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관 진입구의 숭모비를 비롯하여 구국의 숭고한 뜻이 서린 독립운동 역사관으로 연중 참배객이 많은 곳이다.

• 주요 체험 프로그램

인근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관과 연계하여 선생의 업적은 물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음.

•일강 김철선생 동상 – 일대기 •일강 기념관 – 독립운동활동의 이모저모

•일강 수련관 – 나라사랑 수련 도장 •일강 김철선생 사당 – 구봉사

•단심송 – 일강 김철선생의 김해김씨 부인이 자결한 소나무

• 총 체험실적 :

연도별	체험 내용	관람객	비고
계		21,219명	
2004	탐방	650명	
2005	탐방	4,980명	
2006	탐방	5,527명	
2007	탐방	5,110명	
2008	탐방	4,952명	

• 근무 직원 현황 :

관리인 1명

4)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관

• 소재지 :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605-1번지 일원









• 시설현황

시설부지면적	연면적
1,524㎡	876.59㎡
건축양식	특기사항
철근 콘크리트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재현

• 설립배경

1886년 신광면 함정리에서 부농의 집안에서 태어난 일강 김철 선생은 일제의 강제합병에 의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으며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을 시작으로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아 오직 나라를 구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고군분투하셨던 역사의 현장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하여 대한민국의 상해임시정부의 역사적 현장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자함이다.

김구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적 증인이신 선생은 중국 절강성의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48세를 일기로 타계하는 그날까지 오직 조국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었기에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업적을 재조명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의 역사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 주요 체험 프로그램

인근에 있는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및 사당과 연계하여 선생의 업적은 물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 상해임시정부 청사 재현

1층 : 상해임시정부청사 회의실　　2층 : 상해임시정부 김구선생 집무실

3층 : 상해임시정부 최고위원 침실

◆ 전시관

3층 : 함평군 출신 해외 및 국내 활동 애국지사　2층 : 일본인의 고문만행 수법 재현

1층 : 중국에서 활동한 임시정부 이동 경로

- 근무 직원 현황 :

일일 2명

5) 함평생활유물전시관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84-3

- 개관일 :

2007년 5월 3일

- 면 적 :

764.48㎡

• 건물 규모 :

지상 4층, 지하(별동) 1층, 에어돔구조

• 전시유물 :

쟁기, 물레 등 선조들의 생활유물 1,225점

• 관람 시간 :

09:00 – 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입장 요금 :

어른– 2,000원, 청소년 어린이– 1,000원

• 설립배경 :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은 나산면 삼축리 박현순(1945년생)씨께서 30여년간 새마을운동 당시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생활 속의 유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땅 속에 묻히는 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수집하여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점 두 점씩 수집하여 평생을 개인이 소장해 오던 함평지역의 생활유물을 함평군에 유상·기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07년 함평군의 전시관 건립계획에 의해 나산면 삼축리에서 운영 중이던 상설전시관을 나산면 이문리 (구)이문초등학교 부지로 확대 이전하였다.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은 선현들의 얼과 지혜가 담긴 생활유물을 통해 전통문화의 뿌리를 알게 하는 학습공간으로 자라는 학생들은 선조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은 유년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이기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의 전체 형상은 커다란 호박덩이에 장수풍뎅이가 기어 올라가는 모습의 형상화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돔형 박물관 내에는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생활양식별로 전시하고 있다.

• **우리 민족의 생활** (생활유물전시관 1층)

조상들이 신분에 따라 입었던 복식과 관모, 신발을 비롯, 옷을 짓고 수선하는데 쓰인 침선구, 장신구 등 의류 및 식생활 도구, 건물 내외부에 놓아두었던 각종 용구, 건축도구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문화에 따라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로 나누어 전시한 첫 번째 방이다.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가재도구를 이용해 살아왔으며(주생활), 전통 음식과 일반음식문화

는 어떠하였고(식생활), 또 우리 민족의 옷차림(의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곳이다.
1층 전시관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의식주 관련 유인물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우리 민족의 생업** (생활유물전시관 2층)

우리 민족의 생업 중심이 되었던 농사일(農業)을 할 때 사용했던 쟁기와 가래, 따비, 고무래 등 다양한 농기구를 볼 수 있고 고기잡이(漁業)에 관련된 도구, 수렵과 채집(狩獵, 採集)에사용 된 전통 어구등과 물레와 얼레 등 길쌈도구, 공예품 등 생업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遺物)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민족의 다양한 노동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 **우리 민족의 문화** (생활유물전시관 3층)

혼례와 제례 등 의례용구, 전통 놀이기구 및 악기, 문방사우, 마구와 무기, 해시계, 도자기 등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민족이 생활에서 향유해 온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배하였던 의례행위(제례, 신앙, 혼인 등)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문화, 문방구 용품 등을 전시하여 우리 민족이 생활하면서 향유해 온 다양한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6) 돌머리해변 갯벌생태체험학습장



다양한 체험과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해변운영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살아 숨쉬는 체험학습장으로 어린이 중심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인 갯벌생태체험학습장이면서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돌머리해변이 있는 함평만은 세계5대 갯벌중 하나이고 서해안 중 내륙 깊숙이 만입해 들어온 주머니 모양의 반폐쇄적인 유형과 큰 하천이 없이 만이 형성된 독특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있어 학생들의 탐구활동과 자연학습장으로 가치가 큰 곳으로 함평군에서는 갯벌의 생성·변화, 자연정화 능력과 갯벌생물의 신기한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평만의 돌머리해변 갯벌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

•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03번지

• 운영기간 :

6월 말 ~ 8월 말 (59일간)

• 체험시설 :

– 인공 풀장 : 7,900㎡

· 갯벌생태체험 탐방로 : 250m · 원두막 : 14개소 (대형 2동, 소형 12동)

· 개매기 체험장 : 1 개소 · 바지락캐기장 : 10,000㎡

· 무항생제 뱀장어잡기체험 : 매주 토요일 4회 · 어린이전용 풀장 : 10m×10m

• 기타시설 :

종합안내소, 음수대, 샤워장, 화장실

• 주요 생태체험프로그램 :

· 갯벌 수족관 전시 : 30종 · 갯벌 및 갯벌생물에 대한 큐레이터 상주

· 갯벌체험데크 산책 : 250m · 갯벌생물채집 관찰 및 다시 놓아주기

• 운영개요 :

·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기간 : 6월 말 ~ 8월 중순 (약 45일간)

· 장소 :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변 갯벌생태체험학습장

· 운영시간 : 매일 09:00 ~ 18:00 (조수간만의 차를 감안하여 운영함)

· 준비물 : 도시락, 장화, 장갑, 모종삽, 돋보기, 모자, 휴대용 수조, 필기도구, 사진기

• 참가방법 :

· 참가 신청서 제출 : 함평군 홈페이지 참고할 것

· 돌머리해변 직접 방문 : 조석표 및 강의시간 참고할 것

• 갯벌에서의 관찰생물 :

· 조개류 : 연체동물 가운데 조가비를 가진 동물을 통틀어 조개류라고 합니다. 조개, 고둥, 고막들을 연체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석회질 껍질속의 속살이 부드럽고 연한 가무락조개, 바지락 등이 많이 있다.

· 고둥류 : 배로 기어 다니는 동물 중 나사형 껍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등 위에 비틀린 껍데기가 있다. 연체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포함하며 테두리고둥, 갈고둥, 눈알고둥, 큰 구슬 우렁이 등이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 게류 : 단단한 껍데기가 있는 갑각류이다. 게의 다리는 10개이며 대체로 발이 큰 것

이 수컷으로 칠게, 농게, 도둑게, 밤게 등이 살고 있다.

• 유의사항 :

· 조석표와 강의시간에 맞추어 참가하여야 한다.
· 갯벌체험데크를 벗어나 어촌계 소유의 갯벌을 함부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
· 채집한 생물은 조심히 수조에 넣고 관찰한 후 다시 갯벌에 놓아주시기 바란다.

7)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양서·파충류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테마관광 명소로러 인근의 자연생태공원, 함평엑스포공원,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및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있는 독립운동 역사관 등의 코스별 순회 관광을 유도하여 관광객이 머물러가는 관광으로 보람을 찾으며 휴식공간을 제배치하여 재충전의 명소로 인식시키는 특색있는 코너로 부각되게 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케 한다.

1.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2. 면적 :

85,000㎡

3. 개장예정 :

2011년 03월

3. 주요시설 :

· 양서·파충류 전시생태관 : 1,900㎡ · 악어 공연장 : 431㎡ – 120석
· 악어 연못 : 30 ㎡ · 양서·파충류 놀이시설 : 2개소

4. 주요 체험프로그램 :

8) 함평학생의 집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24번지

• 부 지 :

13,736㎡

• 관 리 :

전라남도함평교육청 사회체육담당

• 입소대상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초·중등학생

• 설립목적 :

① 청소년들이 야영수련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自我)를 발견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

② 대자연 속에서 심신단련으로 호연지기를 기르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③ 자주적인 사고방식과 바른 생활태도를 길러 진취적인 기상과 성취의욕을 고취시킨다.

• 연 혁

날 짜	세 부 사 항	비 고
1994.10.12.	전라남도함평교육청 부설 함평학생의 집 설치	
1994.11. 8.	향교초등학교 동암분교장 개조 및 보수	
1995. 6.10.	학생의 집 개소식	
1998. 9.28.	극기 훈련장 설치(7종)	
2002. 9.14.	전통예절실 설치	
2006. 2.27.	예절실, 강당, 다목적실 개축	
2008. 5.	극기훈련장, 취사장, 보건실 개보수	

• 시설현황

① 건물및 부대시설

시설명	수량	면적	시설명	수량	면적
관리실	1실	33	화장실	2실	51
강 당	1실	180	샤워장	2실	51
보건실	1실	33	취사장	1실	165
다목적실	1실	66	장비보관실	1실	66
숙직실	1실	27	수 도	1개소	지하수
예절실	1실	90	관 사	1동	117.9

② 수련및 체육시설

품명	수량	시설명	수량
철봉대	2조	그물타기	1조
구름사다리	1조	통나무건너기	1조
배 구 대	1조	외줄오르기	1조
타이어 통과	1조	징검다리건너기	1조
복합장벽오르기	1조	새처럼날아서	1조

- 장비현황

① 야영장비

품명	수량	비고	시설명	수량	비고
천 막	25	10인용	메트리스	45	10인용
버 너	30		깔 판	30	
코 펠	30		식 판	150	
모 포	150		에어베개	150	
자전거	15		구명승	30	

② 일반장비

품명	수량	비고	시설명	수량	비고
사무용 책상	2		옷장캐비넷	8	
사무용 의자	3		소 화 기	4	
사무용 캐비넷	2		연막소독기	1	
세탁기	1		냉방기	3	
방송시설	1		선 풍기	15	
냉 장 고	2		TV	2	
식 탁	15		사 진 기	1	
정수기	2		노래방기기	1	
컴퓨터	1		프린터	1	

- 함평학생의 집 운영 프로그램

시 간	제 1 일	제 2 일
-07:00	학교 출발	기상 및 침구정리
07:00-07:30		건강체조 및 산책
07:3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0:00	학생의 집 도착(짐정리, 강당입실)	(제2과정) 심성개발훈련
10:00-10:30	입소식, 오리엔테이션, 생활안내 및 숙소배정	
10:30-11:00	반이름, 반가, 깃발만들기	
11:00-12:00		소감록 작성 및 퇴소식
12:00-13:00	점 심 식 사	귀 가
13:00-14:00	비상사태시 대피교육 및 훈련 만남의 시간, 노래와 게임	
14:00-15:00	(제1과정) 공동체 놀이, 극기훈련 레크레이션, 예절교육 등	
15:00-16:00		
16:00-17:00		
17:00-18:00	자연과의 대화, 취사활동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	캠프파이어 준비	
20:00-21:00	모닥불 놀이, 장기자랑	
21:00-22:00	촛불의식, 부모님께 엽서쓰기	
22:00-	지도자 회의, 취침	

9) 함평곤충생태학교



△ 함평곤충생태학교



△ 생태학교체험학습 동선코스

개 요

○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엑스포회장내
○ 학교 규모 : •본관 307.58㎡-2층철근콘크리트,
•제1 학습관 738.58㎡
•제2 학습관 418.00㎡-텐트)
•야외 학습관 6,000㎡ (생태하천을 따라 모형·전시물 등으로 조성)

□ 설립목적

○ 엑스포회장의 사후 활용 측면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학생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연중 엑스포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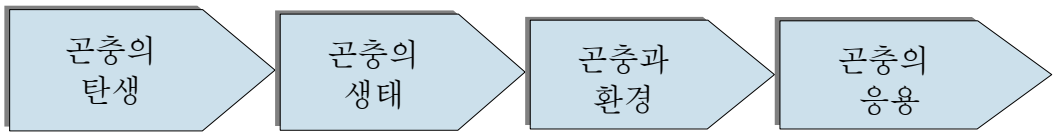
○ 운영계획

주제 전달	엑스포공원내 "미래를 만드는 작은세계"라는 주제에 걸맞는 곤충과 환경의 명확한 주제의식을 공유
교육학습 공간	곤충과 환경을 배경으로 생태계의 가치와 필요성,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생생한 자연체험 학습활동 공간
엔터테인먼트	오감을 만족하는 비일상적인 체험아이템과 첨단매체를 활용한 영상테마전시로, 재미있게 관람하며 활동하는 공간

○ 체험학습 전시물

곤충이라는 작은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공존해야할 생태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

명할 수 있는 공간 창출



○ 학습 코스

전시 Zone	내용	전시목적	시설물
곤충학교	곤충의 탄생	곤충학교 입학 곤충의 과거사 생태계의 곤충역할 곤충과 인간관계	건축물, 모형 게이트
야외전시	곤충의 생태	곤충학교 설명 즐거운 건축시간 서바이벌 아자아자 신비한 생물시간	모형, 패널
주제관	곤충의 응용	곤충의 현재와 미래	모형, 패널 (R&D관 보완)

제 9 절 함평군의 미술관

1) 함평군립미술관

•설립배경 :

나비·곤충 등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미술관 조성으로 문화 예술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엑스포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 타운의 조성으로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장소 제공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4-1(엑스포공원 내)

•건립일 :

2009. 12. 31

•주요시설

- 지하1층 : 340㎡(기계실, 물탱크실, 전기실, 소화가스실)
- 지상1층 : 1,747㎡(제1전시실, 제3전시실, 강당, 강의실, 어린이창작실, 일반실습실, 학예연구실)
- 지상2층 : 1,668㎡(제2전시실, 제4전시실, 수장고, 해체/포장실, 관장실, 사무실, 관리사무실, 경비관리실)

•전 시

- 유명작가 작품 상설전 및 특별전
- 나비축제를 테마로 하는 환경 및 저탄소 관련 전시기획전

•시설 활용 계획

- 나비·꽃·곤충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미술실습실 운영
- 다문화가정 교육 및 일반인, 청소년의 관심 유발 및 수익창출
- 관내 초·중등학생 미술전람회 장소 제공 및 학예발표회장으로 제공
- 필리핀 등 다문화 국가의 문화예술 교류 장소로 활용

2) 함평갯벌미술관



• 미술관이름 :

갯벌미술관

• 설립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00-19 구, 함평석성초등학교

• 연면적 :

1,000㎡

• 설립배경 :

갯벌미술관은 함평 돌 머리(石頭)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00-19 나비고을 예술인촌에 2005년 3월 입주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예술창작의 기초교육, 지체장애자 교육, 다문화여성 교육 ,노인 교육 등 문화예술소외지역의 미술교육으로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연중 상설전시를 하여오다 2008년 10월에 갯벌미술관으로 사립미술관 등록을 마치고 2009년 4월 17일 개관전을 가짐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미술관 건물은 함평군에서 석성초등학교 폐교건물을 개축하여 '나비고을예술인촌'이라는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여기에 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2층 연면적 약 1,000제곱미터로 전시장, 사무실, 교육실, 도자기공예실, 도자기 가마, 창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통 미술관 하면 벽에 걸려있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이곳 갯벌미술관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관 옆의 갯벌에 나가면 작품으로 보았던 그림이 실재로 갯벌에서 굴을 까는 아낙네들의 살아서 움직이는 실물로 볼 수가 있어 갯벌이 미술관으로, 미술관이 갯벌로 둔갑하는 것처럼 감동을 주기도 하는 곳으로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미술관이다..

- 주요시설 :

  - 전시장, - 교육실, - 도자기 공예실,
  - 도자기 가마, - 창작실, - 사무실

- 주요 전시현황 :

  - 남도 땅, 갯벌에 살다 - 2005.3 ~ 2008.10 - 상설전시
  - 2008년 10월 20일 사립미술관 전남 제10호 등록 이후 전시
  - 에꼴 드 목포 - 2008. 11. 22 ~11. 29
  - 갯벌미술관 개관 전 -2009. 4.17 ~ 4. 30

-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전시명	기간	전시개요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계획
함평천지 찾아서 -갯벌미술관 개관전-	4. 15 ~ ~ 4. 29	갯벌미술관 개관기념전으로 이 지역 토박이 작가들과 지역출신 작가로서 광주, 서울등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함께 전시회와 지역미술의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지역 미술발전에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문화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활동을 풍요롭게 하며 지역 내에서 문화행사를 벌이고 주민들을 끌어들여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예술적 역량을 직접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역 예술문화활동을 풍성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세미나 주제: 지역미술의 활성화 방안** 1. 지역미술의 중요성 2. 함평 미술의 현황과 전망 3. 함평 미술의 발전 방안
한국의 화풍 -나비되어 날다-	5. 2 ~ ~ 5. 9	전국 작가40명 (전남, 북20명 경남15명, 서울 4명, 청주1명) 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한국의 화풍의 작품을 전시하여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미술관에 경유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관람객을 유치하여 나비축제와 미술전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광주 한국화	5. 11	한국화를 전공하며 사생을 위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생회 회원들의 작품

사생회전	~ ~ 5. 23	40여점을 전시하여 한국화의 실경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다.
韓國 80年代 時代精神展 -개관기념 기획전-	6. 1 ~ ~ 7. 30	한국 미술사에 뚜렷한 괴적을 남긴 80년대 대두된 민중미술은 80년대의 시대성신을 반영하고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표현되는 작가정신을 볼 수 있게 한다. **세미나 주제: 작품에 표현되는 시대정신**
Ecole de Mokpo	10. 21 ~ ~ 10. 28	국립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출신으로 구성하여 1996년 파리 실브 화랑에서 창립전을 시작으로 제2회전은 파리 피압 장모네 초대전으로 한국미술을 프랑스에서 미술계인사들과 교민들의 환대속 에 개최되었고, 일본에서는 오사카 한국문화원 초청전, 나고야대학 초전에서는 국제학술대회도 함께하여 그곳에 한국미술을 알리며 학, 예술교류도 하였고, 한국전에서는 광주, 전남 각지에서 13회의 전시를 하였으며 다양한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회다.
나비고을예술 인촌 회원 전	11.18 ~ ~11. 25	나비고을예술인촌에서 지역주민 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토박이 주민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예술적 역량을 직접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역 예술문화활동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전시이다.,

3) 월야기산미술관



- 미술관이름 :

  월야기산미술관 (공립)

- 설치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240
  월야초등학교 내

- 설립목적 및 주요특징 :

월야기산미술관은 안종일 전 광주시교육감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모교에 기증하면서 개관하게 됐다. 이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 초등학교에 미술관이 들어서 문화예술의 보급확대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평월야초등학교는 '월야기산미술관'을 신축하고 2009년 5월 22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본관 앞에 신축된 미술관은 191㎡로 전시공간과 함께 미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들어섰다. 명칭이 '월야기산미술관'으로 정해진 것은 옛 부터 함평을 뜻했던 '기산영수'에서 따왔고, 미술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안종일 전 교육감의 호가 '기산'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농촌지역인 월야초등학교에 미술관이 들어선 것은 이 학교를 졸업한 안종일 전 광주시교육감의 역할이 컸으며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며 광주시 초대교육감을 지낸 그가 평생 모아온 미술작품을 모교인 월야초등학교에 기증했다. 기증된 미술작품은 서양화와 한국화, 서예, 도자기를 비롯해 사진, 공예 작품까지 총 129점에 이르고 있다.

• 직원현황 :

관장 → 운영위원 → 학예사 1명, 사무원 1명

• 개 관 일 :

2009. 5. 22

• 시설현황 :

시설종합	구 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 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부지면적	3135 ㎡				연 구 실									
	건물연면적	191 ㎡				자 료 실									
	전 시 실					도 서 실									
	야외전시장					강 당									
	수 장 고	22.80 ㎡				장애인 편의시설									
	사 무 실					기타									
전시실 별 현 황	구 분	면적(m) (가로×세로)	높이(m)	설치시스템		조명시스템		온도조절시스템							
	전시실	20×10	4~5			○		○							
수장고 별 현 황	구분	CC TV 설치여부		열 추적장치 설치여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여부									
	수장고					○									
	전시실	○				○									
소 장 작품현황	구분 (류)	계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미디어 아 트	설치	디자인	건축	기타	
	수 량	129	34	47		6	5	30	7						

작가명	작품명	재료	제작연도	규격(㎝)
오승우	십장생도	켄버스에 유채	2008	71×60
김행신	가족	브론즈	2007	45×20×80
조방원	가을산하	수묵담채		75×23
허건	추경	수묵담채		65×42

기 타 소장자료	구분	계	도서자료	필름자료	기 타										
	수량	400권	400권												
	<주요 소장자료현황 기재>														
DB구축 현 황	소장작품			소장자료											
개관시간	·하절기 : 09시- 18시 ·동절기 : 09시-17시			관람료	구 분	금 액	대 상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2월 휴관)				개 인										
주차시설	30대이상				단 체										
사진촬영	■ 가능 □ 불가능				할 인										
					무 료	○									

•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월야기산미술관 개관 전

○함평출향작가 기획 전

4) 잠월미술관



• 미술관명 :

잠월미술관

• 설치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000번지
(홈페이지 주소 : www.zamworl.com)

• 설립 목적 및 주요 특징 :

잠월미술관은 2006년 10월 광주에서 교직에 있으면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옥, 임혜숙 부부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미술관으로서 -뒷산의 모양이 누에를 닮아 누에잠(蠶)자를 사용하고 미술관 부지를 매입하던 날 동그랗게 뜬 보름달의 모습에 반하여 달월(月) 잠월미술관이라 명칭을 붙였으며 미술관에는 한국화단의 거목이신 아산 조방원 선생님의 산수화 작품을 비롯하여 한국화, 서양화 , 공예, 서예, 사진 등 200여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다양한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시골미술관 의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잇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을 즐기고 미술작품을 함께 제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쑥체험, 오디체험, 콩체험 등 미술관 주변의 자연 산물 등을 직접관찰하고 채취하여 미술작품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하고 있으며 지역을 소재로 한 전시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 개관기념 꽃과 나비 전 이후 우리마을 산내리전, 산내리에서 달을 보다, 산내리에서 시작 그리고 희망전 등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테마로 하는 전시와 지역작가를 발굴하는 "함평천지에서-열정과 고집전"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교류전을 실시하여 중국작가 쉬정리, 함경락 전 등의 초대전시를 통해 지역미술문화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문화예술적 소통을 위해 다문화감성교류프로그램 "클레이놀이터 만지작책방", 사회문화예술교육인 나비골작은도서관아이들과 함께하는 "꿈꾸는 클레이창고", 국군함평병원과 도예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9월

까지 미술관이 위치한 산내리 마을에서 작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 “선돌할매의 산내리별곡”이 진행된다.

● 직원현황 :

학예사 1명, 사무원 1명

●·시설현황 :

	구 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 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시설종합	부지면적	3135 ㎡		연 구 실	실 ㎡	
	건물연면적	232.29 ㎡		자 료 실	1 실 20.92 ㎡	
	전 시 실	1실 120.2 ㎡		도 서 실	실 ㎡	
	야외전시장	㎡		강 당	실 ㎡	
	수 장 고	1실 22.80 ㎡		장애인 편의시설		
	사 무 실	1 실 46.26 ㎡		기타	관리동 1동	

	구 분	면적(m) (가로×세로)	높이(m)	설치시스템	조명시스템	온도조절시스템
전시실 별 현 황	제1전시실	25.6×5	5		○	

	구분	CC TV 설치여부	열 추적장치 설치여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여부
수장고 별 현황	제1수장고			○

	구분(류)	계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	디자인	건축	기타
소 장 작품현황	수 량	200	146	20		2	20	10	2					

작가명	작품명	재료	제작연도	규격(㎝)
조방원	산수	수묵담채	2006	140×70
박철교	설악풍경	수채	2004	70×60
박은용	휴식	수묵담채	2006	140×26
하남호	서예	수묵	1995	140×20

	구분	계	도서자료	필름자료	기 타
기 타 소장자료	수량	1,000권	1,000권		
	<주요 소장 자료현황 기재>				

DB구축 현 황	소장 작품	소장 자료

			구 분	금 액	대 상
개관시간	하절기 : 10시 – 18시 동절기 : 10시 – 17시	관	개 인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2월 휴관)	람	단 체		
주차시설	10대		할 인		
사진촬영	■ 가능 □ 불가능	료	무 료	○	

● 2008년도 사업 내용

	기획전시명	주요내용	기 간	관람인원	기타사항 (도록발간등)
전 시	나점수 전	중앙대 강사인 작가를 초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4. 5 – 26	550명	○
	꽃과 나비전 그리고 나도 화가	2008 사립뮤지엄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체험과 전시를 병행	5. 1 – 31	700여명	○

		하는 교육 및 전시			
	열정과 고집 전	함평에서 고집스럽게 작업만 하는 작가들의 전시 및 워크샵	6. 21 – 7.10	600여명	○
	김정숙 전	꽃무릇 축제에 맞춘 작가의 전시	9. 20 – 26	700여명	○
	우리마을 산내리 –두번째 전	미술관 이 소재한 산내리의 역사와 삶을 전시	9.27 – 10.15	500여명	○
	산내리에서 시작 그리고 희망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전시	10. 18 – 30	400여명	○
	함경락 전	중국에 거주하는 작가 초청	11.1 – 12.30	400여명	○
	상설 전시명	주요내용	기간	관람인원	기타사항 (도록 발간등)
	여름스케치	소장 작품전시	7.13 – 9.18	800여명	
	합 계	전시 횟수	**10건**	**총 관람인원**	**5,000여명**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기 간	참가자 수	기타
	도예강좌	국군함평병원을 대상으로 한 도예강좌	4월–현재 매주 월요일	10명	
	합 계	교육프로그램 수	1개	총 참가인원	10명

자료발간	자 료 명	종 류	발간 수량	비 고
	합 계	**자료발간 건수**	**건**	**총 발간 수량**	**권**
기타사업	※학술행사 등 기타 사업추진실적 상술				

• 2009. 주요사업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 박은용전–못다한 삶에의 이야기 (3.1 – 31) ○ 열정과 고집전 – 두번째 김현덕전(4.1 – 30) ○ 사립뮤지엄 페스티벌(5.1 – 30) ○ 사회문화예술교육 “꿈꾸는 클레이창고” 해보면 나비골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여름 방학 중) ○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선돌할매의 산내리별곡” (7 – 9월)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랑더하기”(8 – 9월) ○ 우리 마을 산내리 – 세번째(9.1 – 30) 외 다수

제10절 교육위원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기초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 2인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여 도의회에 진달하면 도의회에서 1군에서 1인을 최종 선출했는데, 1991년에 선출한 임기 4년의 1대 교육위원은 박인숙, 1995년에 선출한 임기 3년의 2대 교육위원은 김영진이 선출되었다.

제3대 교육위원은 1998년에 선출 규정이 바뀌어 우리군은 전라남도 제1선거구(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담양군, 장성군)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교육위원으로 함평군을 대표한 1~2대 전라남도교육위원의 약력과 제5대(2006년) 함평군 출신 교육위원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1. 박인숙(朴仁淑)

본관 무안. 1954. 8. 28. 함평읍 함평리에서 태어났으며 함평초등학교(55회), 전남여자고등학교(17회),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1978~1989년까지 함평중, 함평여고, 무안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89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해직되었고 199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수석 부의장을 지내던 중 1대 전남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임기를 마친 후 전남교육연구원에 재직하였고, 현재 함평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선생님 정답이 틀려요' (들불). '참교육의 함성으로' 가 있다.

2. 김영진(金永鎭)

본관 광산. 1932. 7. 10. 손불면 죽암리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하였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Saint Thomas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목포교육대학학장, 목포대학교 학장을 역임하였고 제2대 전남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현재 광주평화방송 이사,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성신간호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3. 나승옥(羅承玉)

본관 금성(錦城) 1942. 9. 15생으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초·중학교, 목포사범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구 우석대학)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전라남도장성교육청장학사, 전라남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전라남도여수교육청교육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미래를 생각하는 교단메모'가 있다.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제1선거구(나주, 영광, 함평, 무안, 장성, 담양)에서 제5대 전라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학교특색에 따른 학교예산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농어촌학교 예산확보에 힘썼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어촌교육진흥 조례 제정에 앞장섰으며 실

속있는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교육복지 증진에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교원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다.

4. 김 목(金 穆)

본관 김해(金海) 1951년생으로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을 졸업 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로 1975년 문단에 등단하여 전남아동문학가협회장과 남도문학회장,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날개달린 장사' 외 15편의 동화집, 시집이 있다.

2009년도에 전남 제1지구(나주, 영광, 함평, 무안, 담양, 장성) 나승옥 교육위원의 사퇴로 그 직을 승계하여 2010년 6월까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전남교육을 위해 농산어촌으로 이루어진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질 높은 교육발전을 위하고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 건설을 위해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여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급식재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순천·여수지역의 학교평준화를 이루어냈으며 농산어촌 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으로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제11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1. 조성계획

1) 조성기간 : 1993~2009년까지 17년간

2) 조성목표 : 29억원(군비 24억원, 성금 5억원 등)

2. 추진경위

•1996. 04. 15 : '96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1996. 05. 18 : 개정 조례 공포 (조례 제1433호-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7. 03. 28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473호)
•1997. 04. 15 : '97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1998. 04. 15 : '98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1998. 09. 04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542호)
•1998. 09. 04 : 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560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04. 15 :'99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1999. 07. 31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593호)
•1999. 08. 02 : 조례 개정 조례 공포(조례 1609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0. 05. 04 : 2000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0. 12. 15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677호)
•2001. 05. 04 : 2001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2. 05. 04 : 2002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3. 05. 04 : 2003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3. 08. 05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732호)
•2004. 05. 04 : 2004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5. 05. 04 : 2005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6. 05. 04 : 2006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6. 09. 12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837호)
•2007. 05. 04 : 2007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8. 04. 21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897호)
•2008. 05. 04 : 2008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8. 07. 22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901호)
•2009. 05. 04 : 2009 인재양성 장학금 등 지원(군민의 날)
•2009. 10. 05 : 일부개정 조례 공포(조례 제1946호)

3. 조성실적

(단위 : 원)

합 계	군비출연금	성금 등	비 고
2,973,000,000	2,461,000,000	512,000,000	3,224명 참여

4. 이자와 지출

(단위 : 원)

총이자	지 출	잔 액	비 고
1,499,671,462	1,362,200,000	137,471,462	

5. 장학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단위: 명, 천원)

구 분	일 반 장 학 생					
	계		고등학생		대 학 생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904**	**1,195,100**	**1,270**	**440,000**	**634**	**755,100**
'95~'99	375	312,700	208	73,000	167	239,700
2000	96	87,600	55	22,000	41	65,600
2001	165	99,000	110	33,000	55	66,000
2002	199	98,400	156	46,800	43	51,600
2003	187	95,300	131	39,300	56	56,000
2004	203	99,400	148	44,400	55	55,000
2005	195	90,100	143	42,900	52	47,200
2006	147	67,600	109	32,700	38	34,900
2007	102	76,400	60	30,900	42	45,500
2008	123	82,500	81	40,500	42	42,000
2009	112	86,100	69	34,500	43	51,600

구 분	특 기 자 등									
	계		체육		예술		과학		기타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248**	**167,100**	**211**	**134,900**	**3**	**900**	**2**	**1,900**	**32**	**29,400**
'95~'99	45	27,700	45	27,700						
2000	12	11,900	12	11,900						
2001	16	11,300	16	11,300						
2002	22	15,500	17	9,200					5	6,300
2003	21	16,800	21	16,800						
2004	25	20,100	23	18,100					2	2,000
2005	20	10,100	17	7,800	1	300			2	2,000
2006	23	14,900	13	6,400	2	600	1	900	7	7,000
2007	21	13,500	17	9,500			1	1,000	3	3,000
2008	21	12,200	15	8,000	–	–	–	–	6	4,200
2009	22	13,100	15	8,200	–	–	–	–	7	4,900

제12절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위원회

1. 사업목적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지역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활동 내용

-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심의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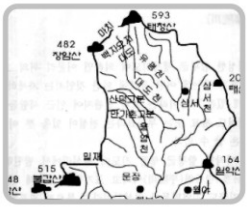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 사교육비 경감,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우리 지역학교 공교육 활력화에 기여

4. 교육환경발전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단계별 지원현황	합 계	학력증진 사업	환경개선 사업	인재유치	특성화사업	기타 분야
2010년	•고등학교(6개교) : 370,000 •중 학 교(8개교) : 130,000	500,000	303,707	10,500	40,459	145,334	
2009년	•고등학교(6개교) : 350,000 •중 학 교(8개교) : 150,000	500,000	272,582	18,394	14,300	187,524	7,200
2008년	•고등학교(6개교) : 404,899 •중 학 교(8개교) : 86,171	491,070	282,240	108,830		100,000	

제7장 사법(司法)과 치안(治安)



제1절 사 법

1. 우리 나라의 사법제도

사법제도란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나누고, 각기 담당기관을 분리, 독립시켜 서로 견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생활권, 수익권 등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사법작용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이미 고대 부족국가부터 부족 통치수단의 일환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초기 부족사회에서는 민중집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5월과 10월 집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행사는 부족들의 연중 대회로 가무와 향연을 즐기며, 제천의 종교적 행사와 아울러 부족적 중대사를 결정했다. 부족의 공통되는 법의 제정이나 재판을 부족 집회 또는 부족평의회라는 회의제적 요소를 통해 진행했던 것이다.

1) 고대의 사법제도

삼국시대에는 율령체적 통치체제의 확립으로 최고의 재판권은 왕에게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 아래 어떻게 재판권이 행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고구려부터 살펴보면 고구려는 초기에 감옥이 없었으며, 부족장들의 모임인 가의회의에서 평의하여 처결했다. 이는 당시의 최고 재판기관이었으며, 각 부족에서는 부족장인 가가 재판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백제는 고이왕(古爾王·234~286)때 6좌평 중에 형옥을 주관하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는 사법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지방관이 독단적으로 처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앙에서 신중히 심리하고 5회에 걸쳐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결정하도록 했다. 신라시대도 일찍부터 커다란 사건은 여러 관리들이 평의하여 처결했으며, 화백이나 남당에서 국왕의 임석하에 재판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방의 사건 가운데 중대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중앙의 남당에서 합의하여 처결했으며, 특히 중대한 죄는 왕의 재가를 얻도록 했다.

고려시대에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청이 민사형사사건을 재판했다. 중앙정부의 재판기관을 보면, 태조때에 태봉의 제도에 따라 의형대(義刑台)를 두었다가 뒤에

형관(刑官)으로 고쳤고, 다시 성종때의 개혁으로 형부(刑部)라 고쳤다. 이 형부는 뒤에 전법사(典法司), 형조, 언부, 이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편 중앙의 재판기구로 형조외에도 필요 따라 특수한 사건을 관장, 재판하는 임시관청이 있었다.

지방재판기관으로서는 수도인 개성에서는 개성부윤이 공양왕때부터 일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서경은 분대(分臺), 기타는 수령인 유수관(留守官), 부사, 목사·목사·지주군사(知州郡事)·현령·감무(監務), 동서의 주진(州鎭)에는 각계의 병마사가 초심기관이었으며, 안렴사(按廉使, 按察使)와 계수관(界首官)은 관내 수령의 형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2심 재판기관이었다. 이들 재판에 적용되던 실체법은 대부분이 확립된 판례법이나 관습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민사와 형사의 완전한 구별은 없었다. 이에 따라 모든 재판은 무겁고 가벼운 차는 있으나 형벌을 결과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은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된다. 옥송은 오늘날의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으로 재판의 궁극적 목적이 공형벌을 다루는데 있었으며, 사송은 오늘날 개인간의 생활관계인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으로 분쟁 해결이 재판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재판기구에 있어서는 근대적 삼권분립이 없었으므로 국가의 행정기관이 재판을 관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이고 전체적인 통치기구에서 사법적·행정적 통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궁극적으로 국왕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되고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관료에 의해 행해졌다.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특색은 기본적으로 제도로서 특색을 가지지 못했으며, 사법권의 내용이 광범하여 행정권을 포함했다기 보다는 행정권의 내용에 재판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모든 사법권이 행정권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사법권이 행정에서 분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마련된 것은 1894년의 갑오개혁부터이다. 오직 권한 있는 사법관의 합법적인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형벌을 과하고 민사분쟁을 처결하도록 했다. 먼저 중앙에서부터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형식적 분리를 실현하고 재판소라는 새로운 명칭과 제도를 창설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사법제도의 근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 근대의 사법제도

수많은 갑오개혁의 법령중에서 법률 제1호가 <재판소구성법>이었다. 당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을 설치키로 하고 직원으로는 판사, 검사, 재판소 서기와 정리를 두었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 법부령 제1호로 한성재판소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5월 10일 칙령 114호로 전국의 22개 도시에 개항장재판소 혹은 지방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종래 감영(監營)이나 유수(留守),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상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관찰사, 부윤, 군수가 각각 소송을 관할하였으며, 재판소로는 한성재판소가 유일무이하였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후 1897년과 1899년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친 기구의 개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제도의 개혁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일제는 한국의 재판사무를 장악하였고, 이어 1907년 재판소에 관한 각종 법률을 공포하는데 일본법을 모방하여 이심제를 삼심제로 하는 등,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區裁判所)를 설치하고 기존의 각 재판소를 폐지했다.

당시 설치된 전남지방의 지방재판소는 광주지방재판소가 있었고, 구재판소가 설치된 곳은 광주, 제주, 목포, 나주, 전주 등으로 제주와 전주의 구 재판소는 광주의 관할에 속해 있었다.

이어 1909년 7월 12일에는 이른바 「한일 양정부의 각서」에 의해 한국의 사법권이 일본 정부에 명실공히 완전 이양되었다. 이것이 통감부재판소령으로, 이에 의해 재판소는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로 구분되어졌으며, 전남의 경우 지방재판소로 광주지방재판소가 있었고, 구재판소로는 광주, 나주, 목포, 장흥, 순천, 제주, 전주, 군산, 고부, 흥덕, 남원, 금산 등지에 있어 모두 광주재판소의 관할에 있었다. 이때 시행된 관할구역제에 따라 함평지역은 광주에 속해 있었으나, 1910년부터 목포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법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고, 1917년 8월 2일 총독부령 제51호에 의해 함평에도 광주지방법원 함평출장소가 설립되어 등기 및 각종 공증(公證) 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이 출장소는 1947년 1월 1일 사법령을 제258호에 의해 광주지방 심리원 함평등기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48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3년 9월 1일 함평등기소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순회심판소(1973. 2.24 법률 제2547호)를 병설하였고, 다시 1995년 9월 1일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제4765호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5개의 고등법원과 1개의 특허법원, 18개의 지방법원과 40개의 지원, 1개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그리고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이 있다. 이외에 법원행정처와 행정처의 지원, 소년부지원 등이 있고 시·군·구 관할의 등기소, 등기소에 있는 군단위 법원 등이 있다.

2.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987-3

2) 시설현황

(1) 대 지 :

2,196㎡(665평)

(2) 건 물 :

* 청 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 411.7㎡(124평)
•2층 : 408.06㎡(123평)
•지하실 :
* 관 사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69.31㎡(21평)

3) 연 혁

•1917.08.02 : 조선총독부령 제50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함평출장소로 개청
•1947.01.01 : 군정청사법부령 제258호에 의거 광주지방심리원 함평등기소로 명칭 변경
•1948.06.01 : 남조선과도정부령 제192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로 명칭 변경
•2003.08.26 : 현 등기소로 이전

4) 2008년도 함평등기소 업무 현황

<부동산·법인등초본·열람·인감증명·확정일자>

등·초본	열람	인감증명	확정 일자
29,305통	3,468건	6,342통	189건

<부동산 등기사건>

총 접 수		취하·각하		등기신청수수료
건수	개수	건수	개수	
20,512	40,361	198	462	146,048,000원

5) 직원현황 :

등기소장 고영규외 3인 등 총 4명 근무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987-3

2) 연　　혁

•1993.09.0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순회심판소(1973.02.24 법률 제2547호)

•1995.09.0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으로 명칭변경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 제4765호)

•2003.08.26 : 현 법원으로 이전

3) 관할 구역

•전라남도 함평군 전역(1읍 8면 : 함평읍, 나산면, 나산면, 대동면,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월야면, 학교면, 해보면)

•인구수 : 36,967명(남 18, 329명 여 18,638명 2009. 9 현재)

•면　적 : 393㎡

4) 직원 현황

직　　급	성　　명	전 입 일 자	참　고
판　　사	김　동　주	2001. 07. 09	나주시 법원 상주
법 원 주 사	윤　재　필	2009. 07. 11	
사　무　원	박　연　숙	2009. 02. 21	
계(현원)　3명			

5) 법무사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인 가 년 월 일	설　치　장　소	참　　고
장　　록	1935. 02. 28	1961. 04. 01	함평읍 기각리 791-3	
임 수 철	1945. 09. 16	1992. 01. 31	함평읍 내교리 183	지 부 장
장 우 영	1962. 01. 26	2002. 04. 11	함평읍 함평리 139-11	

6) 조정위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참 고
이 석 형	1958. 11. 07	함 평 군 수	함평읍 함평리 123-1	명예 조정위원
윤 한 식	1927. 05. 15	삼애원 원장	함평읍 내교리 379	〃
이 승 동	1951. 08. 08	산림 조합장	함평읍 내교리 215	
서 복 실	1930. 06. 09	농 업	함평읍 내교리 214	회 장
이 재 연	1933. 06. 28	사 업	함평읍 만흥리 2	
진 수 복	1948. 04. 04	태권도 협회장	함평읍 함평리 174	
장 록	1934. 12. 28	법 무 사	함평읍 기각리 318	
김 민 수	1937. 11. 26	건 설 업	학교면 학교리 172	
김 광 정	1940. 10. 28	국민건강 보험위원	함평읍 기각리 704	
임 수 철	1945. 09. 16	법 무 사	함평읍 함평리 123-4	
조 관 순	1954. 12. 26	가정상담 센터장	내교리 주공아파트 102-1104	
김 국 진	1943. 09. 01	주부교실 이사	함평읍 함평리 144	
문 덕 수	1943. 11. 25	탁구 협회장	함평리 라뷔랑아파트 101-505	
장 우 영	1962. 01. 26	법 무 사	함평읍 내교리 179-7	총무

7) 2009. 9. 30 현재 함평군법원 업무 현황

과 목	전년 미제	금년 접수	처 리	미 제
민사소액	43	201	182	62
조정(신청)	0	3	3	0
신 청	0	188	188	0
독 촉	14	674	685	3
즉 결	0	10	10	0
협의이혼	0	1	1	0

제2절 치안제도와 함평경찰서(咸平警察署)

1. 우리나라의 치안제도

치안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치안행정 실시는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경찰작용은 있었으나 조직이 아직 독립되지 못하고 6부에 각각 분산, 혼입되어 각 부의 업무와 불가분의 기능을 유지했다. 당시는 치안행정과 군사행정의 개념이 혼용되어 있어 중앙에서는 병무에서 이군육위를 두어 군사행정과 함께 경찰행정도 관장했다. 한편 지방은 지방장관인 지주사·부사·현령 등이 일반 지방행정업무와 함께 치안·사법·군사·세정 등 국가지방행정의 전부를 통합,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의 치안행정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적이었다. 즉 국가의 행정기관은 각기 그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 처벌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므로 각 관아가 거

의 치안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특기할만한 중앙 치안기구로는 형조와 의금부·사헌부·한성부의 위장과 부장이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각급 지방행정의 장인 관찰사·부윤·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이 지방행정과 사법업무 일체를 관장했으므로 지방의 치안은 모두 이들의 전권하에 있었다. 그리고 포도청이 설치될 때까지는 병방과 형방에서 경찰사무를 분담한 듯 하며 지방에 배치된 병영(兵營)·수영(水營)과 진영(鎭營) 등 군 기관과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문직 경찰기관으로는 포도청·암행어사가 있었으며, 특수경찰작용으로는 야간의 통행을 제한한 야금제(夜禁制)와 호패제가 있었다.

2.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은 여러 영역에서 서양의 근대사상과 제도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치안제도 또한 근대경찰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나라 경찰사상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루었다. 1894년(고종 31) 7월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및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에 의거 좌·우포도청이 폐지되고 서울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내무아문(內務衙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다음해인 1895년에는 칙령 제85호로 경무청관제를 제정했다. 또한 1906년(광무 10) 2월 칙령 제8호로 경무청관제 개정건을 반포함으로써 수도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직제 개편을 거친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1910년(융희 4) 6월 24일 '한국의 경찰사무에 관한 각서'가 한·일간에 조인, 성립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나라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의 경찰업무를 일본의 통감부에 흡수시킨 것이다. 이러한 통감부 경찰은 일본의 우리 나라 강점을 위한 제국주의적 야망실현의 1단계로 볼 수 있다.

1910년 10월 일제에 의한 우리 나라의 침탈이 강행되자 일본 통감부는 폐지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통감부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칭되었다. 아울러 경찰제도를 무단통치총독부란 헌병통합제도로 단행하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를 탄압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후 3·1운동 등을 계기로 일제는 통치방법을 바꾸어 1919년에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함으로써 경무국을 설치하고 경찰관서제를 폐지하게 된다.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하여 경찰사무를 경찰관서 단일체제로 전담하는 보통경찰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을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광복은 찾아오게 된다.

1910년 전남의 경찰서와 주재소

경 찰 서	소 속 주 재 소
광 주	서창, 장성, 담양, 창평, 옥과, 곡성, 동복
나 주	영산, 몽탄, 법성, 영광, 함평, 남평, 능주, 화순
목 포	학교, 영암, 무안, 지도
해 남	완도, 지도
장 흥	강진, 보성, 벌교
순 천	구례, 광양, 여수, 돌산, 거문도, 나로도, 흥양, 낙양
제 주	대정, 서귀, 정의

3. 광복후의 치안제도(治安制度)와 치안상태(治安狀態)

일제의 패망으로 총독부의 통치기능이 와해되자 조선민족을 탄압하던 경찰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국내의 치안유지 문제는 조선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45년 9월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이 군정경찰의 재조직에 착수하기까지 일본인 경찰관의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본국으로의 송환 등의 업무만을 맡았을 뿐 조선 내부의 치안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른 해방직후의 국내 치안은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공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산하의 자치적인 치안대에 의해 유지되었다. 건준은 총독부 경찰 기능이 와해된 상태에서 국내 치안을 확보지되었다해 건준 직속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치안 조직을 흡수하여 치안대, 학도대, 청년대, 노동자의 직장자위대 등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치안대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62개에 달했는데, 함평에도 치안대와 9개면에 치안분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45년 9월에 진주한 미군과 미군정은 총독기구의 온존과 총독부 관료의 유임을 선포하고 군정법령 28호로 자치적 치안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건준 소속 치안대의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중단되고 만다. 그후 일제강점하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경찰들이 유임되었다. 이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의 경찰활동이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민중의 지팡이로 지역단위 치안에 중점을 둔 경찰활동보다는 집권자들의 정권 연장을 위한 국민 억압 행정과 경찰 스스로를 위해 반민중 치안 행정의 폐단이 연계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제 함평의 상황을 살펴보자.

광복과 더불어 함평에도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가 조직되어 위원장에 이재혁(李載爀)을 선출하고, 진공상태에 있는 치안을 위해 별도체계의 치안대를 편성하고 9개면에 치안분대를 조직했다. 그러나 해방의 감격에 들뜬 민심은 자유보다는 방종으로 흘러 친일파에 대한 보복과 일본인의 재산몰수 등 치안(治安)의 무질서한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진주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자치적 치안단체의 해산으로 치안대의 활동이 불법화됨에 따라 함평의 치안대 조직 또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4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함에 따라 전국적인 경찰조직이 정비되기 시작한다. 이 날이 바로 국립경찰의 창립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

는 날이다. 당시 함평에는 경찰망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립경찰이 창립된지 4개월여가 지난 1946년 2월 13일 함평경찰서도 개소되기에 이른다. 초대 서장으로는 함평읍 함평리 출신의 최원수(崔元水) 경감이 부임하고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차출된 특경대원 30명이 함평의 치안을 담당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중앙정국은 정치구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한층 불안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함평 또한 그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치안상태 또한 극도의 불안한 상황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함평에서 발생했던 좌·우익의 대립 상황을 살펴보자.

- •1946년11월 추수봉기라 불리는 농민 소요사건.
- •1948년 3월 1일부터 8일 사이의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 투쟁.
- •1948년 5월 10일 손불면 월천리 저수마을에 설치된 투표소 투표함 탈취 미수사건
- •1948년 10월 이후 14연대 여순사건에 가담했던 반란군의 잔당 100여명의 계속된 출몰.
- •1949년 1월 17일 나산면 덕림리 백양골 계곡에서의 빨치산과 경찰지원부대와의 전투.
- •1949년 4월 24일 1시경 70여명의 빨치산에 의한 손불지서 습격사건.(이 사건으로 지서주임 최차현(崔且玄)경위, 손불부면장 김갑수(金甲守)와 한청단원 11명이 피살되고 지서가 소실됨)
- •1949년 이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피해.

한편 이들 사건 이외에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동족끼리의 다툼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50년 6월 25일을 맞게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세는 더욱 악화되어 같은해 7월 23일 인민군이 영광을 넘어 함평으로 들어오게 된다. 인민군 선발대는 7월 23일 새벽 2~3시 김제와 고창을 거쳐 영광으로 진격해왔고, 영광의 경찰 5개중대 병력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영광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함평도 이와 같은 날짜에 인민군이 들어왔던 것이다.

후퇴를 거듭하던 함평의 경찰은 영암의 덕진 작전 도중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으며, 일부는 순천을 거쳐 부산에서 전남도경과 합류하고 일부는 완도, 거문도까지 후퇴하여 수복될 때까지 치안담당과 전투를 병행한다.

1950년 10월 19일 경찰기동대 이철호(李哲浩) 중대장은 대원과 함평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인솔하고 열차편으로 학교역에 도착하여 함평에 입성했으나 무안으로 다시 퇴각을 결행한다.

1950년 10월 23일 전력을 정비한 함평경찰과 군부대는 함평을 수복한다. 그리고 소실된 경찰서 건물을 대신해 지금의 교육청 자리인 함평여자중학교 교사(校舍)를 임시 경찰서로 사용해 치안을 담당했다.

이어 손불면을 제외한 8개면의 경찰관 지·파출소를 수복하기에 이른다. 한편 다른 면(面)과 함께 수복되지 못했던 손불면은 1951년 2월 19일 경찰국 기동대의 지원을 받은 함평경찰에 의해 완전히 수복 치안을 장악한다.

함평이 완전히 수복되고 북한인민군이 퇴각하였지만 퇴각하지 못했던 인민군 일부 병력과 지방 빨치산들은 주로 산악지대에 아지트를 형성하고 인근 산촌과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불갑산을 중심으로 군유산, 해보면 대각리, 나산면 원선리 등지를 옮겨다니며 군경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방해는 물론 군경에 협조한 우익인사에 대한 살인·방화 등을 자행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함평의 많은 지역이 국군에 의해 장기간 소개(疏開)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당시 소개된 지역은 대동면 서호리·연암리, 해보면 광암리·대각리·산내리, 나산면 원선리, 신광면 송사리, 손불면 북성리·양재리 등이었다.

함평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전남지역에 주둔하면서 빨치산 소탕작전을 벌였던 11사단 20연대의 일부 병력(1951년 4월 8사단으로 교체됨)과 함평의 경찰들에 의한 2년여에 걸친 토벌작전 끝에 완전 섬멸되었다.

이로써 사실상의 함평지방에서의 한국전쟁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동안 인민군에 의한 직접적인 전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함평지역은 인민군의 주둔상태에서의 좌익세력에 의한 우익세력의 탄압, 그리고 인민군이 퇴각한 후의 우익세력에 의한 좌익세력에 대한 보복 등으로 군민간의 불신감만이 팽배해져 갔다. 여기에 공비 토벌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졌던 11사단 20연대 5중대의 월야·나산·해보 양민들의 학살, 신광·손불 지역 주민들의 포 사격에 의한 죽음 등은 함평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로 얼룩진 한국전쟁의 결과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빨치산이 완전히 소탕된 1953년 초부터는 치안 역시 완전 회복되어 경찰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이후 함평경찰서는 다른 지역의 경찰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의 한국의 현대사는 함평경찰서 또한 가만 두지 않았다.

민족적 비극이었던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함평경찰서를 비켜가지 않았던 것이다.

군부독재의 정권 탈취 야욕에 분개한 광주시민들에 의해 일어난 이 항쟁은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광주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함평의 경찰관들은 대부분이 광주로 동원됐고 이들은 도청의 외곽 노동청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중이었다. 그리고 시위대의 버스가 경찰쪽으로 돌진, 이 버스에 경관 4명이 순직한 것이다. 함평에서도 시대의 아픔에 젊은 넋이 희생된 것이다. 당시 순직 경관들은 정충길(경장), 강정웅(순경), 박기웅(순경), 이세홍(순경) 등이었다.

이렇듯 많은 굴곡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평경찰서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함평경찰서

1)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0번지

2) 연 혁



•1908.03.05 : 일제의 통감부 헌병정치시대에 함평읍 기각리에 순검청 (巡檢廳)을 설치, 수석이하 5명이 주둔하면서 경찰업무를 취급.

•1910.05.10 : 순검청을 폐지하고 함평경찰서로 변경 설치한 후 일인 서장 경부(警部)이하 5명이 배치되어 경찰업무를 집행.

•1910.05.10 : 학교면 주재소(駐在所) 설치.

•1918. : 손불, 신광, 월야, 해보면에 경찰관 주재소 설치

•1924.03.15 : 대동면 경찰관 출장소 설치.

•1932.10. : 나산면 주재소 설치.

•1946.02.13 :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이 창립되자 함평경찰서도 개소했고 초대서장이 부임하게 된다. 당시 경찰서 기구는 총무계, 경리계, 공안계,경비계, 수사계, 사찰계, 통신계, 지서 8개소, 직할파출소 1개소, 출장소 1개소로 조직되었다. 초대 서장에는 최원수(崔元水·一名崔康潤)경감이었고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특경대원 30명을 인솔하여 함평의 치안을 담당했다.

•1946. : 엄다경찰관 지서 설치, 주포경찰관 출장소 설치.

•1948. : 총무계와 경리계를 병합 경무계로, 공안계를 보안계로 각각 개칭.

•1948~1949 : 여수·순천의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관내 불갑산, 군유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빨치산 소탕작전에 경위 1명 순경 17명이 순국.

•1950.07.23 :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부는 순천 경우 부산으로, 일부는 거문도로 후퇴.

•1950.10.26 : 경찰서 수복 진주(당시 청사는 소실)

•1954.11. : 한국전쟁 중 소실된 경찰청사를 지금의 위치인 함평읍 함평리 120번지에 착공. 1955년 4월 25일 완공.(109평)

•1961. : 사찰계를 정보계로 개칭

•1964. : 경비계와 통신계를 병합, 경통계로 개칭.

•1967. : 계를 과로 승격하면서 경무과, 보안과, 경비과, 수사과, 정보과 등 5개과로 되면서 경통계도 경비과로 개칭.

•1969.08.01 : 재일교포 이영신(李永信)의 희사로 슬라브 30평 건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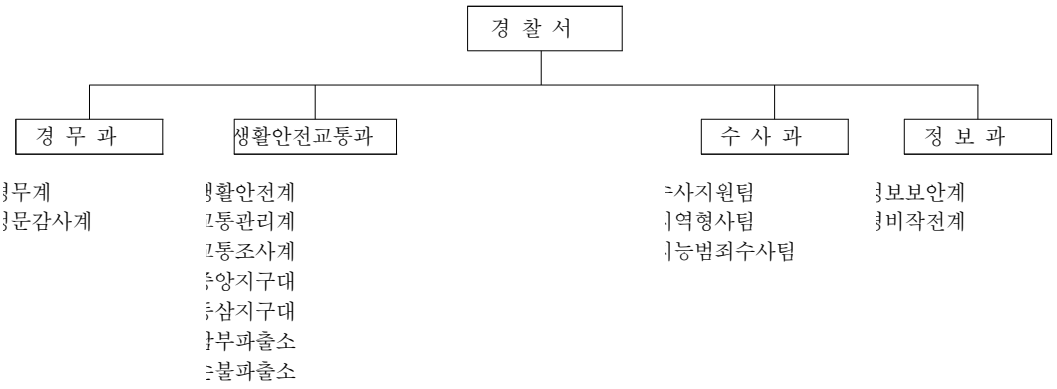
•1987.01.27 : 현재의 청사 준공.(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818.2평)

•2003.08.01 :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
(중앙지구대, 남부지구대, 동삼지구대)
•2006.04.20 : 지역경찰관서 개편으로 중앙지구대 소속 손불치안센터를 손불
파출소로 전환
•2008.03.05 : 지역경찰관서 개편으로 남부지구대(학교, 엄다, 대동)를 남부
파출소로 전환, 대동은 중앙지구대 관할구역으로 편제

2) 시설 현황

- 부지면적 : 1,644평
- 건평 : 550평
-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2008년말 현재 함평경찰서 기구표>



3) 역대 서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참 고
					부임일자	전출일자	
1	경 감	최원수	崔元水	전남	1946.02.13	1947.05.10	함평출신
2	〃	남정수	南廷秀	〃	1947.05.10	1947.12.01	
3	〃	김영봉	金永奉	〃	1947.12.01	1948.09.15	
4	〃	신공식	申孔植	〃	1948.09.05	1949.03.15	
5	〃	최신방	崔新芳	〃	1949.03.15	1949.10.28	
6	〃	김판수	金判守	〃	1949.10.28	1950.07.18	
7	〃	김상효	金相孝	〃	1950.07.18	1950.10.15	
8	〃	김인배	金仁培	〃	1950.10.15	1951.01.28	
9	〃	이철호	李哲鎬	〃	1951.01.28	1951.06.04	
10	〃	박사기	朴史基	〃	1951.06.04	1951.08.28	
11	〃	이철호	李哲鎬	〃	1951.08.28	1951.10.15	
12	경 감	손병표	孫炳杓	전 남	1951.10.15	1952.01.08	
13	〃	김용래	金容來	〃	1952.01.08	1952.03.06	
14	〃	정동식	鄭東植	〃	1952.03.06	1953.01.12	

대 수	계 급	성	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참 고
					부임일자	전출일자	
15	〃	정순석	鄭淳石	〃	1953.01.12	1953.11.10	
16	〃	이봉하	李鳳河	〃	1953.11.10	1954.04.07	
17	〃	황치호	黃致虎	〃	1954.04.07	1954.09.07	
18	〃	서광재	徐光才	〃	1954.09.07	1955.07.06	
19	〃	정규선	鄭圭善	〃	1955.07.06	1957.02.12	
20	〃	장수기	張壽基	〃	1957.02.12	1957.07.15	
21	〃	최종섭	崔鍾燮	〃	1957.07.15	1958.11.24	
22	〃	차석태	車錫台	〃	1958.11.24	1959.05.05	
23	〃	이건영	李建榮	〃	1959.05.05	1959.09.23	함평출신
24	〃	김팔봉	金八奉	〃	1959.09.23	1960.05.10	
25	〃	차동격	車東格	〃	1960.05.10	1960.09.27	
26	〃	김병훈	金炳勳	〃	1960.09.27	1961.06.21	
27	〃	함윤해	咸潤海	〃	1961.06.21	1961.08.07	
28	〃	장재영	張在英	〃	1961.08.07	1962.11.02	
29	〃	송무강	宋茂康	전 북	1962.11.02	1964.04.25	
30	〃	이영복	李榮馥	황 해	1964.04.25	1965.06.10	
31	〃	박명주	朴明柱	전 남	1965.06.10	1967.10.12	
32	〃	김형수	金亨洙	〃	1967.10.12	1968.11.09	
33	〃	차상록	車相錄	〃	1968.11.09	1970.04.04	
34	경 정	양성우	梁成宇	전 남	1970.04.04	1970.11.06	
35	〃	한경석	韓敬錫	〃	1970.11.06	1971.08.20	
36	총 경	윤형용	尹炯龍	〃	1971.08.20	1973.06.27	
37	〃	심만섭	沈萬燮	부 산	1973.06.27	1975.06.28	
38	〃	이재훈	李在勳	서 울	1975.06.28	1976.04.10	
39	경 정	현두영	玄斗榮	함 북	1976.04.10	1976.02.20	
40	〃	김호준	金滈俊	광 주	1979.02.20	1979.09.15	
41	총 경	김창기	金昌奇	전 주	1979.09.15	1980.07.22	
42	경 정	김준봉	金埈鋒	광 주	1980.07.22	1980.11.17	
43	총 경	정인대	鄭寅泰	대 전	1980.11.17	1983.01.01	
44	〃	김재의	金載毅	평 북	1983.01.01	1983.12.12	
45	경 감	김덕순	金德淳	서 울	1983.12.12	1986.01.28	
46	〃	정운경	鄭雲京	충 북	1986.01.28	1987.08.05	
47	경 정	유귀태	柳貴泰	광 주	1987.08.05	1988.02.02	
48	총 경	김충원	金沖元	전 남	1988.02.02	1988.06.02	
49	경 정	김규봉	金圭奉	전 남	1988.06.02	1989.09.03	
50	총 경	최상봉	崔祥鳳	충 남	1989.09.03	1991.01.03	
51	〃	조기홍	趙基洪	전 남	1991.01.03	1991.08.14	
52	〃	신현길	申鉉吉	충 남	1991.08.14	1992.07.29	
53	〃	김용재	金容在	전 남	1992.07.29	1993.11.08	
54	〃	곽영석	郭泳石	경 기	1993.11.08	1995.01.25	
55	〃	이준재	李浚載	전 남	1995.01.25	1996.07.08	
56	〃	정광섭	鄭光燮	전 남	1996.07.08	1998.03.24	
57	〃	최영중	崔永仲	〃	1998.03.24	1998.11.14	
58	〃	김평규	金平圭	〃	1998.11.14	2000.01.04	
59	〃	김길영	金桔永	서울	2000.01.04	2001.01.11	
60	〃	이정근	李定根	서울	2001.01.11	2002.01.13	
61	〃	박웅규	朴雄圭	전북	2002.01.13	2003.04.07	
62	〃	전석종	全錫鍾	전남	2003.04.07	2004.07.08	
63	〃	박승주	朴承柱	〃	2004.07.08	2005.07.15	
64	〃	김칠성	金七星	〃	2005.07.15	2006.07.13	

대 수	계 급	성 명		출신도	재 임 기 간		참 고
					부임일자	전출일자	
65	〃	한재숙	韓在淑	〃	2006.07.13	2007.07.02	
66	〃	신경문	申京文	〃	2007.07.02	2009.03.23	
67	〃	박찬흥	朴贊興	〃	2009.03.23	현 재	

자료 제공자 :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사 오세근

5. 지구대 및 파출소 연혁

1) 중앙지구대(中央地區隊)

(1) 소 재 지 :

함평읍(咸平邑) 기각리(箕閣里) 151 -4번지



(2) 연 혁

•1956.09.27 : 함평읍 함평리 153 -1번지(경찰서 앞)에 전라남도 규칙 제162호에 의거 함평경찰소 직할파출소 신설

•1963.07.19 : 규칙 제163호에 의거 직할파출소를 읍내 경찰관 파출소로 개칭

•1968.11.10 : 현 위치의 하천 부지(농조 소유)를 매립, 국비 150만원으로 대지 35평에 건평 33평의 벽돌 슬라브로 신축 이전

•2000.06.12 : 함평읍 석성리 등을 관할하던 주포파출소가 주포분소로 개편되어 관할을 읍내 파출소로 통합

•2003.08.01 :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라 지구대로 편입

•2004.10.30 : 함평읍 기각리 151-4 중앙지구대 신청사 이전
(대지 : 660㎡ 200평, 198㎡ 60평)

•2006.04.20 : 중앙지구대에서 관할하던 손불치안센터가 손불파출소로 개소

•2008.09.01 : 기구 개편에 따른 대동치안센터가 남부지구대에서 중앙지구대로 편입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600㎡(200건평) 건축양식 벽돌 양식

(4) 역대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사	고 광 용	1956. 12. 22	1958. 06. 10	
2	〃	김 정 옥	1958 06. 11	1958. 11. 12	
3	〃	김 토 순	1958. 11. 13	1959. 03. 01	
4	〃	이 점 호	1959. 03. 02	1959. 05. 29	
5	〃	박 정 환	1959. 05. 30	1960. 05. 12	
6	경 사	박 진 호	1960. 05. 13	1961. 03. 03	
7	〃	설 수 종	1961. 03. 04	1961. 07. 25	
8	〃	이 도 재	1961. 07. 26	1962. 08. 17	
9	〃	김 춘 배	1962. 08. 18	1963. 03. 12	
10	〃	윤 병 도	1963. 03. 13	1963. 07. 28	
11	〃	김 봉 옥	1963. 07. 29	1964. 03. 30	
12	〃	서 화 준	1964. 03. 31	1964. 06. 28	
13	〃	문 정 환	1964. 06. 29	1965. 06. 01	
14	〃	전 진 표	1965. 06. 02	1966. 03. 20	
15	〃	조 강 현	1966. 03. 21	1966. 09. 25	
16	〃	김 춘 배	1966. 09. 26	1968. 11. 19	
17	〃	유 재 홍	1968. 11. 20	1971. 06. 20	
18	〃	이 재 필	1971. 06. 21	1971. 08. 24	
19	〃	나 윤 승	1971. 08. 25	1971. 11. 07	
20	〃	이 상 대	1971. 11. 08	1972. 04. 16	
21	〃	박 일 규	1972. 04. 17	1973. 01. 07	
22	〃	최 홍 식	1973. 01. 08	1975. 11. 17	
23	〃	오 수 섭	1975. 11. 18	1976. 04. 23	
24	〃	박 일 규	1976. 04. 24	1977. 04. 10	
25	〃	손 종 무	1977. 04. 11	1978. 05. 20	
26	〃	박 락 기	1978. 05. 21	1979. 03. 30	
27	〃	문 국 남	1979. 03. 31	1980. 04. 24	
28	경 위	김 영 주	1980. 04. 25	1980. 06. 05	
29	〃	오 수 섭	1980. 06. 05	1980. 06. 15	
30	경 사	이 기 철	1980. 06. 16	1980. 11. 27	
31	경 위	정 순 문	1980. 11. 28	1982. 11. 04	
32	〃	김 춘 배	1982. 11. 05	1983. 07. 10	
33	경 사	신 용 길	1983. 07. 11	1983. 10. 25	
34	경 위	한 상 기	1983. 10. 27	1985. 12. 07	
35	경 사	박 현 길	1985. 05. 27	1985. 07. 11	
36	〃	최 석 윤	1985. 07. 11	1985. 12. 07	
37	경 위	이 동 범	1985. 12. 07	1987. 11. 04	
38	경 사	나 성 수	1987. 11. 04	1988. 06. 17	
39	〃	신 용 길	1988. 06. 17	1989. 02. 24	
40	경 위	문 영 주	1989. 02. 24	1989. 08. 17	
41	〃	정 찬 명	1989. 08. 21	1990. 02. 10	
42	경 사	노 광 섭	1990. 09. 01	1990. 09. 28	
43	경 위	정 관 영	1991. 03. 01	1993. 04. 24	
44	〃	이 선 호	1993. 04. 24	1994. 04. 29	
45	〃	김 정 길	1994. 04. 30	1995. 03. 31	
46	경 위	박 현 길	1995. 04. 01	1995. 11. 30	
47	〃	정 경 채	1995. 12. 01	1996. 05. 20	
48	〃	김 서 규	1996. 05. 21	1996. 11. 11	
49	〃	이 형 규	1996. 11. 12	1997. 03. 05	
50	〃	오 국 진	1997. 03. 05	1998. 07. 18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51	〃	박 영 수	1998. 07. 20	1999. 02. 27	
52	〃	이 선 호	1999. 03. 20	2000. 07. 05	
53	〃	이 한 우	2000. 07. 06	2001. 11. 30	
54	〃	이 선 호	2001. 11. 30	2002. 02. 01	
55	〃	정 종 환	2002. 02. 01	2003. 02. 18	
56	〃	나 성 수	2003. 02. 18	2003. 08. 01	
57	경위	전 수 헌	2003. 08. 01	2004. 02. 13	지구대장
58	경감	성 봉 섭	2004. 02. 18	2005. 02. 17	〃
59	〃	정 대 수	2005. 02. 18	2006. 03. 14	〃
60	〃	이 기 완	2006. 03. 14	2007. 07. 13	〃
61	〃	정 명 수	2007. 07. 16	2009. 02. 10	〃
62	〃	김 성 철	2009. 02. 10		〃

◎ 신광치안(新光治安)센터

(1) 소 재 지 :

신광면(新光面) 백운리(白雲里) 377 - 4번지



(2) 연 혁

•1908.03.05 : 신광면 월암리 199번지에 영산포 헌병대 신광분견대 설치
•1918. : 함평경찰서 신광주재소
•1945.08.15 : 해방과 더불어 자위대 조직 치안업무 처리, 그후 보안서로 발족
•1945.10.21 : 국립경찰 창설로 함평경찰서 신광지서로 개칭하고 치안 담당
•1950.07.23 :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의 분주소 청사로 이용됨
•1950.12.19 : 수복후 옛 지서 청사에서 다시 집무
•1961.07.30 : 지금의 자리에 대지 255평과 건평 16평의 청사를 신축 이전
•1992.05.10 : 경무 22400 - (92. 5. 6)에 의거 청사 신축공사 착공
•1992.10.31 : 청사 증축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신광지서에서 신광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3.08.01 :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신광파출소가 함평읍을중 심으로 하여 지구대로 로 통합됨에 따라 신광치안센터로 개칭, 중앙지구대가 총괄 관장하게 됨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122평 건평 46평 건축양식 벽돌 슬라브

(4) 중요업적 :

(5)역대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나 성 남	1950. 11. 30	1951. 10. 18
2	〃	최 남 진	1951. 10. 19	1952. 07. 07
3	〃	이 은 하	1952. 07. 08	1953. 06. 26
4	경 사	이 상 붕	1953. 06. 27	1953. 09. 14
5	〃	강 태 순	1953. 09. 15	1954. 03. 16
6	경 위	장 국 현	1954. 03. 17	1955. 05. 24
7	경 사	최 문 식	1955. 05. 25	1955. 07. 10
8	경 위	주 기 동	1955. 07. 11	1956. 05. 25
9	〃	윤 세 준	1956. 05. 26	1956. 10. 24
10	경 사	이 영 술	1956. 10. 25	1956. 12. 11
11	〃	장 옥 남	1956. 12. 12	1958. 12. 17
12	〃	김 영 상	1958. 12. 18	1959. 05. 27
13	경 위	이 영 묵	1959. 05. 28	1960. 05. 13
14	〃	장 유 남	1960. 05. 14	1960. 06. 12
15	〃	신 창 우	1960. 06. 13	1960. 06. 30
16	경 사	김 환 춘	1960. 07. 01	1960. 09. 09
17	경 위	김 동 선	1960. 09. 10	1960. 11. 18
18	경 사	김 영 상	1960. 11. 19	1961. 01. 08
19	〃	김 석 규	1961. 01. 09	1961. 07. 25
20	〃	김 영 조	1961. 07. 26	1961. 08. 29
21	〃	김 영 상	1961. 08. 30	1962. 07. 27
22	〃	문 정 환	1962. 07. 28	1963. 06. 11
23	〃	유 영 태	1963. 06. 12	1963. 06. 12
24	〃	이 도 재	1963. 06. 13	1964. 05. 09
25	〃	윤 적 선	1964. 05. 10	1965. 06. 01
26	〃	신 경 섭	1965. 06. 02	1966. 03. 20
27	〃	유 재 홍	1966. 03. 21	1967. 11. 08
28	〃	김 인 천	1967. 11. 09	1968. 11. 19
29	〃	박 춘 원	1968. 11. 20	1969. 08. 03
30	〃	노 병 도	1969. 08. 04	1971. 11. 07
31	〃	양 문 승	1971. 11. 08	1972. 04. 17
32	〃	나 윤 승	1972. 04. 18	1971. 11. 07
33	경 위	노 한 수	1971. 11. 08	1972. 08. 07
34	〃	이 동 주	1972. 08. 09	1973. 07. 05
35	경 사	서 화 준	1973. 07. 06	1974. 04. 03
36	〃	박 경 식	1974. 04. 04	1974. 10. 03
37	〃	방 동 열	1974. 10. 04	1975. 08. 29
38	〃	전 영 회	1975. 08. 30	1977. 04. 10
39	〃	방 동 열	1977. 04. 11	1980. 04. 24
40	〃	정 시 균	1980. 04. 25	1980. 05. 06
41	경 위	이 귀 현	1980. 05. 07	1980. 06. 08
42	경 사	정 시 균	1980. 06. 09	1981. 01. 13
43	〃	이 계 일	1981. 01. 14	1981. 12. 09
44	〃	나 윤 승	1981. 12. 10	1982. 07. 05
45	〃	이 화 석	1982. 07. 06	1983. 06. 16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46	〃	정 찬 명	1983. 06. 17	1984. 03. 12
47	〃	곽 근 용	1984. 03. 12	1984. 04. 19
48	〃	이 원 희	1984. 04. 19	1985. 08. 29
49	〃	김 인 동	1985. 08. 30	1985. 10. 17
50	〃	최 석 윤	1985. 10. 17	1985. 12. 26
51	〃	김 천 수	1985. 12. 26	1987. 02. 25
52	〃	박 종 갑	1987. 02. 25	1987. 07. 29
53	〃	조 성 범	1987. 07. 30	1988. 07. 30
54	〃	기 노 일	1988. 07. 30	1990. 09. 01
55	〃	나 성 수	1990. 09. 01	1993. 04. 24
56	〃	이 삼 형	1993. 04. 24	1993. 11. 18
57	경 사	김 행 안	1993. 11. 18	1994. 08. 14
58	〃	권 민 희	1994. 08. 14	1995. 12. 02
59	〃	최 영 하	1995. 12. 13	1997. 08. 21
60	〃	주 일 남	1997. 08. 21	1998. 09. 14
61	〃	박 영 렬	1998. 09. 12	1999. 09. 11
62	〃	윤 안 식	1999. 09. 13	2001. 02. 03
63	〃	임 영 재	2001. 02. 03	2002. 02. 01
64	〃	김 선 호	2002. 02. 01	2003. 02. 01
65	경 위	이 봉 석	2003. 02. 18	2003. 04. 28
66	경 사	정 자 복	2003. 04. 28	2003. 07. 31
67	〃	김 영 권	2003. 08. 01	2003. 10. 13
68	〃	조 점 하	2003. 10. 31	2004. 04. 01
69	경 장	설 동 인	2004. 04. 01	2005. 02. 24
70	경 사	천 명 환	2005. 02. 24	2006. 03. 14
71	경 위	정 광 술	2006. 03. 14	2008. 06. 25
72	경 위	박 영 춘	2009. 05. 14	

◎ 주포치안(酒浦治安)센터

(1) 소 재 지 :

함평읍(咸平邑) 석성리(石城里) 313 - 16번지



(2) 연 혁

•1946.02.28 : 함평경찰서 주포출장소 신설

•1950.07.23 :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에 의해 방 화 소실

•1950.11.19 : 수복후 신설포 후면 고지에 가청사 신축

•1953.05.04 : 장년리, 석성리, 가동리 3개리에서 진양리의 2개리를 영입, 5개리 19개 마을 관할

•1954.11.17 : 주포출장소가 주포파출소로 승격

•1954.12.15 : 청사를 보수하여 파출소로 사용

•1963.05.20 : 청사 초가지붕을 기와로 신축

•1972.08.20 : 청사의 노후로 바닷가에 현대식 청사를 신축 이전

•1997.03.25 : 지상 2층의 신청사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00.06.01 : 파출소 통폐합으로 종전 주포파출소에서 주포분소로 개칭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273.0㎡ 건평 138.33㎡ 건축양식 벽돌 슬라브

(4) 역대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나 복 균	1952. 10. 13	1953. 06. 26	
2	〃	송 기 열	1953. 06. 27	1953. 09. 16	
3	〃	한 창 관	1953. 09. 17	1954. 04. 04	
4	경 위	주 봉 배	1954. 04. 05	1954. 06. 02	
5	〃	한 창 관	1954. 06. 03	1954. 12. 20	
6	〃	강 태 순	1954. 12. 21	1955. 05. 24	
7	〃	선 채 규	1955. 05. 25	1955. 07. 13	
8	〃	황 용 준	1955. 07. 14	1955. 08. 21	
9	〃	강 태 순	1955. 08. 22	1955. 11. 24	
10	〃	박 희 운	1955. 11. 25	1956. 01. 22	
11	〃	강 신 정	1956. 01. 23	1956. 05. 16	
12	〃	김 재 원	1956. 05. 17	1956. 12. 11	
13	〃	김 정 옥	1956. 12. 12	1958. 02. 07	
14	〃	김 재 원	1958. 02. 08	1959. 03. 27	
15	경 사	설 수 종	1959. 03. 28	1959. 05. 29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6	〃	김 영 상	1959. 05. 30	1959. 09. 20	
17	〃	김 만 현	1959. 09. 21	1960. 05. 12	
18	〃	오 기 탁	1960. 05. 13	1961. 01. 08	
19	〃	김 만 현	1961. 01. 09	1961. 03. 03	
20	〃	윤 병 도	1961. 03. 04	1962. 01. 07	
21	〃	임 성 춘	1962. 01. 08	1963. 06. 18	
22	〃	김 인 형	1963. 06. 17	1964. 04. 15	
23	〃	최 홍 식	1964. 04. 14	1965. 04. 14	
24	〃	현 상 호	1965. 04. 15	1966. 03. 20	
25	〃	전 진 표	1966. 03. 21	1967. 10. 02	
26	〃	김 진 숙	1967. 10. 03	1968. 09. 12	
27	〃	나 윤 승	1968. 09. 13	1969. 05. 29	
28	〃	전 수 홍	1969. 05. 30	1971. 06. 04	
29	〃	한 석 우	1971. 06. 05	1971. 11. 07	
30	〃	박 일 규	1971. 11. 08	1972. 04. 17	
31	〃	이 상 대	1972. 04. 18	1973. 10. 30	
32	〃	방 동 열	1973. 10. 31	1974. 02. 26	
33	〃	김 기 훈	1974. 02. 27	1974. 10. 02	
34	〃	안 금 환	1974. 10. 04	1975. 09. 11	
35	〃	이 병 수	1975. 09. 12	1976. 01. 19	
36	〃	김 금 출	1976. 01. 20	1977. 05. 30	
37	〃	김 병 념	1977. 06. 01	1977. 02. 24	
38	〃	손 종 무	1977. 02. 25	1977. 04. 10	
39	〃	김 재 술	1977. 04. 11	1977. 10. 06	
40	〃	정 시 균	1977. 10. 07	1980. 04. 24	
41	〃	방 동 열	1980. 04. 25	1980. 07. 13	
42	〃	이 계 일	1980. 07. 14	1981. 01. 13	
43	〃	김 태 민	1981. 01. 14	1981. 12. 01	
44	경 사	이 동 진	1981. 12. 02	1982. 06. 22	
45	〃	김 정 수	1982. 06. 23	1984. 06. 30	
46	〃	김 재 술	1984. 07. 04	1984. 08. 11	
47	〃	김 인 동	1984. 08. 11	1985. 01. 02	
48	〃	김 태 민	1985. 01. 02	1985. 04. 21	
49	〃	김 재 술	1985. 04. 21	1985. 12. 27	
50	〃	이 원 희	1985. 12. 27	1987. 03. 06	
51	〃	김 용 원	1987. 03. 06	1988. 06. 17	
52	〃	이 선 호	1988. 06. 17	1990. 09. 01	
53	〃	정 영 선	1990. 09. 01	1991. 11. 07	
54	〃	강 유 상	1991. 11. 07	1993. 05. 20	
55	〃	정 영 선	1993. 05. 20	1994. 07. 28	
56	〃	김 천 수	1994. 07. 28	1995. 12. 02	
57	〃	지 형 근	1995. 12. 02	1997. 03. 06	
58	〃	김 선 호	1997. 03. 06	1998. 09. 14	
59	〃	손 성 민	1998. 09. 14	1999. 03. 02	
60	〃	배 귀 동	1999. 03. 02	2000. 07. 07	
61	경 장	박 인 천	2000. 07. 07	2002. 04. 12	
62	순 경	두 성 민	2002. 04. 12	2005. 07. 29	민원담당관
63	경 사	김 종 헌	2005. 08. 01	2007. 02. 07	
64	경 사	박 인 천	2007. 02. 07		

◎ 대동치안(大洞治安)센터

(1) 소재지 :

대동면(大洞面) 향교리(鄕校里) 863-3



(2) 연 혁

•1915.03.15 : 함평헌병대 대동분대를 경찰 행정으로 개편. 함평헌병대 설치이후 8개리 관할 (강운리, 덕산리, 용성리, 금산리, 서호리, 연암리, 운교리)

•1925. : 대동면 주재소로 승격

•1941. : 함평경찰서 대동출장소로 신설

•1945.08.15 : 해방후 자위대 치안대로 가칭타가 보안서로 신설

•1945.11.21 : 국립경찰의 창설로 함평경찰서 대동지서로 개칭

•1946.10.10 : 대동면 덕산리 297번지에 3칸 목조와가 건립

•1950. :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구청사 소실

•1950.09.10 : 수복과 함께 민간인 김영환 소유의 가옥을 면재산으로 구입 개수후 지서청사로 사용

•1973.07.01 : 행정구역 일부 변경으로 학교면의 백호, 금곡, 월송, 상옥 등 4개리가 대동면으로 편입

•1976.10.05 : 대동면 향교리 859-4번지에 신청사 신축 이전

•1976.10.12 : 구청사 폐소와 동시 덕산무기고로 편입

•1992.11.16 : 함평경찰서 화보 제132호(92. 11. 16)에 의거 소재지 향교리 859-4번지에서 857-3번지로 변경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대동지서에서 대동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1.12.27 : 향교리 857-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2층 슬라브로 신축

•2002.03.08 : 신축공사로 인해 향교리 857-3번지에서 향교리 863-3번지로 지번 변경

•2003.08.01 : 지역 경찰제 시행으로 학교 · 엄다 · 대동파출소가 학교면을 중심으로 지구대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 남부지구대, 엄다, 대동치안센터로 개칭하고3개면의 치안을 남부지구대에서 총괄 관장하게 됨

•2008.09.01 : 직제 개편에 따라 대동치안센터가 남부지구대에서 중앙지구대로 변경 관할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건평 건축양식

(4) 역대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김근진	金近鎭	1951. 04. 05	1951. 10. 18
2	〃	고재길	高濟吉	1951. 10. 19	1951. 07. 25
3	〃	조재호	趙在浩	1951. 07. 26	1952. 07. 25
4	〃	이경득	李庚得	1952. 07. 26	1952. 11. 03
5	〃	이송백	李松栢	1952. 11. 04	1953. 02. 23
6	〃	송지웅	宋志雄	1953. 02. 24	1953. 05. 31
7	경 사	윤세준	尹世俊	1953. 06. 01	1953. 12. 04
8	〃	기종국	奇鍾國	1953. 12. 05	1954. 01. 12
9	〃	이행범	李幸範	1954. 01. 13	1954. 03. 19
10	〃	기노천	奇老天	1954. 03. 20	1954. 06. 02
11	〃	주봉배	朱奉培	1954. 06. 03	1956. 05. 20
12	〃	기노천	奇老天	1956. 05. 21	1956. 12. 11
13	〃	박근동	朴根同	1956. 12. 12	1958. 12. 11
14	〃	강신정	姜信禎	1958. 12. 12	1959. 12. 17
15	경 위	장옥남	張玉男	1959. 12. 18	1959. 07. 23
16	경 사	이점호	李點鎬	1959. 07. 24	1959. 09. 20
17	〃	김토순	金土順	1959. 09. 21	1959. 11. 23
18	〃	장옥남	張玉男	1959. 11. 24	1960. 05. 12
19	〃	설수종	薛洙淙	1960. 05. 13	1961. 01. 08
20	〃	김영상	金永祥	1961. 01. 09	1961. 07. 25
21	〃	윤영한	尹永漢	1961. 07. 26	1961. 08. 07
22	〃	김방현	金芳鉉	1961. 08. 08	1961. 08. 25
23	〃	유대성	柳大成	1961. 08. 26	1961. 10. 07
24	〃	설수종	薛洙淙	1961. 10. 08	1962. 01. 07
25	〃	윤병도	尹炳道	1962. 01. 08	1962. 10. 07
26	〃	윤적선	尹籍銑	1962. 10. 08	1964. 05. 09
27	〃	유재홍	劉在洪	1964. 05. 10	1964. 11. 29
28	〃	안종열	安鍾烈	1964. 11. 30	1965. 03. 28
29	〃	조강현	趙江鉉	1965. 03. 27	1965. 11. 15
30	〃	김춘배	金椿培	1965. 11. 16	1966. 03. 20
31	〃	유영태	兪永泰	1966. 03. 21	1967. 11. 08
32	〃	신경섭	申景燮	1967. 11. 09	1969. 02. 18
33	〃	최홍식	崔洪植	1969. 02. 19	1971. 02. 18
34	〃	정경섭	鄭慶燮	1971. 02. 20	1971. 11. 17
35	경 사	윤적선	尹籍銑	1971. 11. 18	1973. 09. 21
36	〃	윤영한	尹永漢	1973. 09. 22	1974. 01. 04
37	〃	조재원	趙再元	1974. 01. 05	1974. 10. 03
38	〃	박형식	朴炯植	1974. 10. 04	1975. 11. 17
39	〃	나윤승	羅潤承	1975. 11.18	1976. 11. 18
40	〃	이영기	李永起	1976. 11.19	1977. 11. 11
41	〃	노병도	魯炳道	1977. 11. 12	1978. 02. 22
42	〃	노광섭	盧廣燮	1978. 02. 23	1979. 03. 30
43	〃	손종무	孫縱茂	1979. 03. 31	1980. 02. 04
44	〃	기노일	奇老一	1980. 02. 05	1982. 06. 22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45	〃	이기철	李基喆	1982. 06. 23	1983. 07. 10
46	〃	김용구	金容球	1983. 07. 11	1984. 09. 17
47	〃	김태수	金泰洙	1984. 09. 18	1985. 08. 30
48	〃	오국진	吳國珍	1985. 08. 31	1986. 06. 15
49	경 위	김용석	金容錫	1986. 06. 16	1987. 05. 27
50	경 사	임사윤	任思允	1987. 05. 28	1987. 08. 20
51	〃	김화성	金和盛	1987. 08. 21	1989. 02. 24
52	〃	신용길	辛容吉	1989. 02. 25	1990. 09. 03
53	〃	김천수	金千水	1990. 09. 04	1991. 10. 15
54	〃	신용길	辛容吉	1991. 10. 15	1993. 04. 24
55	〃	노광섭	盧廣燮	1993. 04. 24	1994. 04. 29
56	〃	김채석	金采碩	1994. 04. 29	1995. 04. 01
57	〃	윤안식	尹安息	1995. 04. 02	1995. 12. 02
58	〃	김상현	金相鉉	1995. 12. 02	1997. 03. 06
59	〃	정광술	丁廣述	1997. 03. 06	
60	〃	지형근			
61	〃	김채석			
62	〃	배귀동		2000. 07. 06	2001. 07. 13
63	〃	이현구		2001. 07. 13	2001. 10. 10
64	〃	조제민		2001. 10. 10	2002. 03. 26
65	〃	전덕만		2002. 03. 26	2003. 04. 29
66	〃	김상현		2003. 04. 29	2003. 07. 31
67	〃	전덕만		2003. 07. 31	2003. 09. 19
68	〃	박형남		2003. 09. 19	2004. 09. 16
69	〃	이민창		2004. 09. 16	2005. 05. 04
70	〃	임영재		2005. 05. 04	2006. 05. 10
71	〃	전덕만		2006. 05. 10	2006. 07. 02
72	경 위	김행안		2006. 07. 02	2008. 07. 01
73	〃	김선호		2009. 05. 25	

2) 동삼지구대

(1) 소 재 지 :

해보면(海保面) 금덕리(琴德里) 364 – 1번지



(2) 연 혁

•1913.04.01 : 해보면 문장리에 함평헌병대 해보주재소 설치. 해보, 월야 양면을 관할

•1919.04.10 : 월야면 월야리 평촌마을에 함평경찰관 월야주재소로 설치,

월야면을 분할

•1921.06.02 : 해보면 금덕리에 함평경찰 관 주재소 설치, 해보면 행정구역 10개리관할

•1944.04.10 : 해보면 금덕리에 신청사 신축

•1945.08.15 : 해방과 더불어 해보면 자위대에서 치안업무 담당

•1945.10.21 : 국립경찰 창설로 함평경찰서 해보지서로 개칭하고 치안 담당

•1950.07.25 :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의 분주소로 이용됨.

•1950.10.28 : 인민군이 도주하면서 청사를 전소.

•1956.04.15 : 국고금 11만원으로 신청사 기공.

•1970.09.10 : 법정, 행정리 10개리를 군조례에 의해 2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

•1985.01.04 : 도비 2,650만원으로 신청사 기공.

•1985.05.18 : 지금의 자리에 청사 준공(35.28평).

•1995.02.07 : 직제 변경으로 해보지서에서 해보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3.08.01 :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해보파출소에서 함평경찰서 동부지구대로 명칭 변경, 해보, 월야, 나산면 관할.

•2004.03.19 : 함평경찰서 동부지구대에서 동삼지구대로 명칭 변경(주민 설문조사 결과 반영)

•2009.07.20 : 동삼지구대 청사 개축공사 착공(국비 4억9343만원). 장소 현위치

•2009.11.16 : 완공. 대지면적 1,167㎡(353평), 연면적 지상2층 100평

•2009.12.01 : 입주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353평　건평 100평　건축양식 벽돌단층 슬라브

(4) 역대 파출소장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이민순	李敏淳	1950. 11. 30	1951. 02. 10	
2	〃	김형동	金炯童	1951. 02. 11	1951. 08. 21	
3	〃	강원흥	姜遠興	1951. 08. 22	1952. 03. 24	
4	〃	김병태	金炳台	1952. 03. 25	1953. 03. 08	
5	〃	최은규	崔殷圭	1953. 03. 09	1953. 12. 04	
6	경 사	최준철	崔晙哲	1953. 12. 05	1954. 03. 16	
7	경 위	이상갑	李相甲	1954. 03. 17	1955. 11. 18	
8	경 사	이주형	李周炯	1955. 11. 19	1956. 05. 20	
9	〃	기노천	奇老天	1956. 05. 21	1958. 03. 31	
10	경 위	김창운	金昌雲	1958. 04. 01	1958. 12. 17	
11	경 위	손달대	孫達大	1958. 12. 18	1960. 05. 13	
12	〃	정계채	鄭季埰	1960. 05. 14	1960. 11. 18	
13	경 사	박창환	朴唱煥	1960. 11. 19	1961. 03. 03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4	〃	나승원	羅承元	1961. 03. 04	1961. 07. 25	
15	〃	이기범	李基範	1961. 07. 26	1962. 07. 08	
16	〃	설수종	薛洙淙	1962. 07. 09	1964. 03. 30	
17	〃	유대성	柳大成	1964. 03. 31	1965. 03. 20	
18	〃	정광섭	鄭廣燮	1965. 03. 21	1967. 11. 08	
19	〃	서화준	徐化俊	1967. 11. 09	1968. 11. 19	
20	〃	윤적선	尹籍銑	1968. 11. 20	1971. 11. 07	
21	경 위	노한수	盧漢洙	1971. 11. 08	1972. 04. 16	
22	경 사	최홍식	崔洪植	1972. 04. 17	1972. 08. 08	
23	경 위	진춘웅	陣春雄	1972. 08. 09	1973. 07. 05	
24	〃	김은수	金銀洙	1973. 07. 06	1974. 02. 26	
25	경 사	노병도	盧炳道	1974. 02. 27	1974. 10. 03	
26	〃	서화준	徐化俊	1974. 10. 04	1976. 04. 23	
27	〃	방동열	方東烈	1976. 04. 24	1977. 04. 10	
28	〃	박일규	朴日圭	1977. 04. 11	1977. 05. 28	
29	경 위	오수섭	吳壽燮	1977. 05. 29	1978. 09. 20	
30	〃	김종안	金鍾安	1978. 09. 21	1980. 07. 13	
31	경 사	심균섭	沈均燮	1980. 07. 14	1981. 03. 06	
32	경 위	김주석	金周奭	1981. 03. 07		
33						
34						
35	경 위	홍여표	洪麗標	1984. 07. 04	1984. 10. 27	
36	경 사	이동범	李東範	1984. 10. 27	1985. 02. 26	
37	경 위	김태민	金太珉	1985. 12. 07	1987. 02. 23	
38	경 사	노광섭	盧廣燮	1987. 02. 25	1988. 06. 17	
39	〃	김천수	金千水	1988. 06. 17	1990. 09. 01	
40	경 위	김재술	金在述	1990. 09. 01	1990. 11. 07	
41	경 사	신용길	申容吉	1990. 11. 07	1991. 02. 28	
42	경 위	이선호	李宣護	1991. 03. 01	1993. 04. 24	
43	〃	정관영	鄭管永	1993. 04. 24	1994. 04. 29	
44	〃	이두철	李斗哲	1994. 04. 29	1995. 12. 01	
45	경 사	장학기	張學氣	1995. 12. 01	1996. 05. 20	
46	경 위	최재열	崔在烈	1996. 05. 22	1997. 03. 04	
47	〃	김영완	金榮完	1997. 03. 07	1998. 03. 02	
48	〃	양병호		1998. 03. 02	1999. 03. 01	
49	〃	나성수	羅聖洙	1999. 03. 01	1999. 06. 02	
50	〃	전덕만	全德萬	1999. 06. 02	1999. 11. 06	
51	〃	홍용길	洪用吉	1999. 11. 06	2001. 02. 03	
52	〃	나성수	羅聖洙	2001. 02. 03	2002. 03. 26	
53	경 사	천명환	千命煥	2002. 03. 26	2003. 04. 29	
54	경 위	김길제	金桔濟	2003. 04. 29	2003. 07. 31	
55	〃	이봉석		2003. 07. 31	2003. 11. 21	
56	경 사	조제년		2003. 11. 21	2004. 02. 19	
57	경 위	전수헌		2004. 02. 19	2005. 02. 24	퇴직
58	〃	이선호		2005. 02. 24	2006. 06. 30	광주북부서전출
59	〃	이상경		2006. 03. 14	2006. 05. 10	
60	〃	이민창		2006. 05. 10	2007. 06. 13	
61	〃	임재진		2006. 07. 31	2007. 04. 03	

(5) 역대 지구대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감	김용택		2004. 02. 14	2005. 02. 16	
2	〃	장금배		2005. 02. 16	2006. 03. 14	
3	〃	정대수		2006. 03. 14	2006. 07. 24	
4	〃	김재수		2006. 07. 24	2007. 02. 06	
5	〃	조인규		2007. 02. 06	2009. 02. 10	
6	〃	박규정		2009. 02. 10		

◎ 나산치안(羅山治安)센터

(1) 소재지 :

나산면(羅山面) 삼축리(三柷里) 334 - 2번지



(2) 연 혁

•1910.08.29 :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 식지면 나산리 대정마을에 입본헌병대 파견소를 설치 식지면과 평릉면의 치안을 유지

•1919.08.20 : 식지면 나산리 대정마을과 평릉면 삼축리 상장기마을에 각각 경찰관 주재소로 설치

•1932.10.28 : 전라남도 "령" 제20호에 의하여 식지면과 평릉면을 합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나산면이라 개칭하고 나산면 삼축리 상장기마을에 주재소 설치

•1945.08.15 : 해방후 나산면 삼축리 334번지에 나산면 치안대로 개칭, 같은 해 10월 나산면 경찰지서로 개칭

•1950.07.24 : 한국전쟁 발발후 같은 해 7월 23일부터 인민군 치하의 분주소로 이용됨

•1950.10.27 :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지서를 소각하였으므로 나산면 삼축리 334번지의 나산면 금융조합 이사 이창규가 거주하던 7.2평의 적산가옥을 경찰후원회에
서 매입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

•1962.05.30 : 만환을 들여 청사 재수리

•1971.05.13 : 구 건물의 노후로 정부보조 100만원과 지방부담 30만원으로 현재의
위치에 건물을 신축 이전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나산지서에서 나산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3.08.01 : 지역 경찰제 시행으로 나산파출소에서 나산치안센터로 변경

(3) 중요업적 :

84년이후 현재까지 강·절도 및 기타 사범 검거가 200여회 이루어졌음.

(4) 나산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나병오	羅炳五	1950. 11. 30	1951. 06. 01
2	〃	강원흥	姜遠興	1951. 06. 02	1951. 08. 21
3	〃	김상동	金尙童	1951. 08. 22	1952. 06. 06
4	〃	최남현	崔南鉉	1952. 06. 07	1953. 02. 23
5	〃	송정웅	宋正雄	1953. 02. 24	1953. 12. 04
6	경 사	이복남	李福南	1953. 12. 05	1954. 03. 16
7	경 위	전광식	全光植	1954. 03. 17	1956. 01. 06
8	〃	정태헌	鄭泰憲	1956. 01. 07	1958. 12. 05
9	〃	나병길	羅炳吉	1958. 12. 06	1959. 05. 27
10	〃	조공선	曺公善	1959. 05. 28	1959. 07. 23
11	경 사	윤병도	尹炳道	1959. 07. 24	1959. 12. 06
12	경 사	여채구	呂彩九	1959. 12. 07	1960. 05. 13
13	〃	김영율	金榮律	1960. 05. 14	1961. 07. 25
14	〃	김동진	金東鎭	1961. 07. 26	1961. 10. 01
15	경 위	홍창덕	洪昌德	1961. 10. 02	1961. 11. 13
16	경 사	박용석	朴龍錫	1961. 11. 14	1962. 01. 07
17	경 위	유대성	柳大成	1962. 01. 08	1964. 03. 30
18	〃	이기범	李起範	1964. 03. 31	1964. 11. 29
19	〃	박동현	朴銅鉉	1964. 11. 30	1965. 05. 27
20	경 사	박춘원	朴春元	1965. 05. 28	1967. 11. 08
21	〃	정경섭	鄭慶燮	1967. 11. 09	1969. 03. 30
22	〃	박춘원	朴春元	1969. 03. 31	1972. 08. 08
23	〃	노한수	盧漢洙	1972. 08. 09	1973. 07. 05
24	〃	김춘배	金椿培	1973. 07. 06	1973. 10. 30
25	〃	이돈형	李敦衡	1973. 10. 31	1975. 11. 17
26	〃	조재원	趙再元	1975. 11. 18	1976. 08. 19
27	〃	정곤동	丁昆東	1976. 08. 20	1976. 11. 17
28	〃	손종무	孫縱茂	1976. 11. 18	1977. 04. 10
29	〃	최홍식	崔洪植	1977. 04. 11	1978. 05. 15
30	〃	이명석	李明石	1978. 05. 16	1979. 03. 30
31	〃	노광섭	盧廣燮	1979. 03. 31	1984. 07. 29
32	〃	장문규	張文奎	1984. 07. 30	1985. 07. 10
33	〃	임사윤	林思允	1985. 07. 11	1986. 07. 10
34	〃	기노일	奇老一	1986. 07. 10	1988. 06. 15
35	〃	오국진	吳國珍	1988. 06. 15	1989. 07. 21
36	〃	이두철	李斗哲	1989. 07. 21	1991. 02. 27
37	〃	고유철	高有喆	1991. 04. 21	1991. 07. 14
38	〃	노광섭	盧廣燮	1991. 07. 14	1993. 04. 24
39	〃	나성수	羅聖洙	1993. 04. 24	1993. 10. 06
40	〃	강유상	康柳想	1993. 10. 06	1995. 07. 06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41	〃	정영선	鄭榮善	1995. 07. 06	1996. 05. 21
42	〃	윤안식	尹安息	1996. 05. 21	1997. 08. 21
43	〃	천명환	千命煥	1997. 08. 21	1999. 07. 02
44	경 위	김길제	金桔濟	1999. 07. 02	2000. 07. 06
45	〃	정병욱	鄭炳旭	2000. 07. 06	2002. 02. 01
46	〃	김길제	金桔濟	2002. 02. 01	2003. 04. 28
47	〃	이창섭		2003. 04. 28	

◎ 월야치안(月也治安)센터

(1) 소재지 :

월야면(月也面) 월야리(月也里) 471-120번지



(2) 연 혁

•1913.04.01 : 해보면 문장리에 함평 헌병대 해보주재소 설치. 월야면까지 관할

•1919.04.10 : 월야면 월야리 평촌마을에 함평경찰관 월야주재소 설치 해보주재소에서 분할

•1945.08.15 : 해방과 더불어 월야면 치안대에서 치안업무 처리

•1945.10.21 : 국립경찰 창설로 함평경찰서 월야지서로 개칭하고 치안 담당

•1950.07.25 :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의 분주소로 이용됨

•1950.10.05 : 인민군이 도주하면서 청사가 전소되어 현 위치로 이건하면서 가청사를 신축

•1960.07.25 : 가청사를 없애고 신청사 착공

•1960.08.26 : 청사 완공

•1987.10.05 : 국비 35,850,000원을 들여 청사 착공

•1987.12.20 : 청사 준공(45평)

•1995.02.07 : 직제 변경으로 월야지서에서 월야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3.08.01 :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월야파출소에서 월야치안센터로 변견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562.94㎡　　건평 45㎡　　건축양식 슬라브 기와

(4) 역대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송 정 웅	1952.02.12	1952.09.29
2	〃	박 세 철	1952.09.30	1953.02.23
3	〃	박 인 용	1953.02.24	1953.06.26
4	경 사	송 영 락	1953.06.27	1954.02.20
5	〃	기 노 천	1954.02.21	1954.03.16
6	경 위	한 태 철	1954.03.17	1954.05.12
7	〃	박 성 필	1954.05.13	1954.08.30
8	〃	유 상 흠	1954.08.31	1955.05.10
9	경 사	윤 세 준	1955.05.11	1955.07.13
10	〃	김 재 원	1955.07.14	1956.01.06
11	경 위	전 광 석	1956.01.07	1958.03.04
12	〃	나 복 균	1958.03.05	1958.04.03
13	〃	이 주 형	1958.04.04	1958.12.05
14	〃	이 만 두	1958.12.06	1958.12.17
15	〃	기 노 천	1958.12.18	1960.05.13
16	〃	강 달 원	1960.05.14	1961.07.25
17	경 사	오 기 택	1961.07.26	1961.08.29
18	〃	김 방 현	1961.08.30	1961.11.13
19	〃	김 석 곤	1961.11.14	1962.07.08
20	〃	이 기 범	1962.07.09	1964.03.30
21	〃	윤 지 병	1964.03.31	1965.07.30
22	〃	유 재 홍	1965.07.31	1966.03.20
23	〃	최 홍 식	1966.03.21	1967.11.08
24	〃	우 홍 만	1967.11.09	1971.08.24
25	〃	서 화 준	1971.08.25	1973.07.05
26	경 위	임 채 휴	1973.07.06	1974.02.26
27	경 사	방 동 열	1974.02.27	1974.10.03
28	〃	김 병 념	1974.10.04	1975.11.17
29	〃	이 돈 형	1975.11.18	1977.04.10
30	〃	서 화 준	1977.04.11	1980.04.24
31	〃	전 영 희	1980.04.25	1982.06.22
32	〃	기 노 일	1982.06.23	1983.08.08
33	〃	이 화 석	1983.08.09	1984.05.11
34	〃	이 선 호	1984.05.11	1985.04.15
35	〃	노 광 섭	1985.04.16	1987.02.05
36	〃	김 천 수	1987.02.25	1988.06.16
37	〃	정 영 선	1988.06.17	1990.09.05
38	〃	이 원 희	1990.09.05	1991.10.15
39	〃	김 화 성	1991.10.15	1992.02.10
40	〃	김 천 수	1992.02.10	1992.05.12
41	〃	이 두 철	1992.05.12	1993.05.19
42	〃	정 종 환	1993.05.19	1994.07.08
43	〃	장 학 기	1994.07.08	1995.12.08
44	〃	임 영 재	1995.12.08	1997.03.06
45	〃	김 천 수	1997.03.06	1997.11.04
46	〃	조 형 남	1997.11.04	1998.09.12
47	경 위	김 선 호	1998.09.12	1999.03.01
48	〃	정 병 욱	1998.09.12	2000.07.06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49	〃	김 행 안	2000.07.06	2002.02.01
50	〃	손 성 민	2002.02.01	

3) 남부파출소(南部派出所)

(1) 소재지 :

학교면(鶴橋面) 학교리(鶴橋里) 467-3번지



(2) 연 혁

- •1910.05.10 : 일제강점기에 함평군 순검청 학교면 병참소 동면 사거리에 설치
- •1920.04.01 : 순검청이 폐지되고 경찰로 대체 됨에 따라 경찰관 학교주재소로 개칭. 학교 · 엄다 두 개 면을 관할
- •1945.08.15 : 해방이 되자 주재소를 지서로 개칭
- •1946. : 학교면과 엄다면을 분리하고 엄다지서 설치
- •1950. : 한국전쟁의 발발로 학교면 학교리 878번지에 소재하던 구청사 소실
- •1950.09.28 : 수복과 함께 학교면 학교리 소재 백양사 부속 건물을 임시 지서 청사로 사용
- •1959.09.29 : 현재의 자리에 국고금 228,500원을 지원받아 지서 청사 신축
- •1973.07.01 : 행정구역 일부 변경으로 학교면의 백호, 금곡, 월송, 상옥 등 4개리가 대동면으로 이관
- •1978.03.25 : 건물 노후로 국고금 570만원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면을 남향으로 변경, 단층 슬라브 27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학교지서에서 학교파출소로 명칭 변경.
- •1997.09.03 : 구청사가 낡아 국고금 77,168,190원으로 현대식 2층 건물로 개축 (면적 1층 64.02㎡, 2층 60.21㎡, 국탑 14.10㎡, 계 138.33㎡)
- •2003.08.01 : 지역경찰 시행으로 학교 · 엄다 · 대동파출소가 학교를 중심으로 지구대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 남부지구대, 엄다치안센터, 대동치안센터로 개칭하고 3개면의 치안을 남부지구대에서 총괄 관장하게 됨.
- •2008.09.01 : 지구대가 파출소 체재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관할 구역 중 대동면이중앙지구대로 편입되고, 대동면을 제외한 학교면과 엄다면을 관할.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1,106.64㎡ 건평 138.33㎡ 건축양식 2층 양옥(현대식)

(4) 중요업적

함평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파출소로 광주 - 목포간 군도 1호선과 나주 - 영광을 경유하는 국도 2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거리 및 학교역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많아 여행성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5) 역대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김수동	金壽童	1950. 11. 30	1950. 12. 17	
2	〃	김경무	金慶務	1950. 12. 18	1951. 06. 07	
3	〃	김병섭	金炳燮	1951. 06. 02	1951. 10. 18	
4	〃	이용기	李容基	1951. 10. 19	1952. 03. 18	
5	〃	박갑수	朴甲洙	1952. 03. 19	1952. 10. 09	
6	〃	최형오	崔炯午	1952. 10. 10	1952. 12. 11	
7	〃	정문원	鄭文源	1952. 12. 12	1953. 12. 15	
8	〃	박재복	朴在福	1953. 12. 16	1954. 03. 13	
9	〃	박경호	朴景鎬	1954. 03. 14	1955. 08. 28	
10	〃	이락천	李洛千	1955. 08. 29	1955. 11. 18	
11	〃	이상갑	李相甲	1955. 11. 19	1960. 05. 13	
12	〃	신창우	申昌雨	1960. 05. 14	1960. 06. 12	
13	〃	정찬용	鄭燦用	1960. 06. 13	1961. 11. 18	
14	경 위	김영문	金永汶	1961. 11. 19	1961. 07. 29	
15	〃	김영진	金永津	1961. 07. 30	1961. 10. 01	
16	〃	임병옥	任炳玉	1961. 10. 02	1961.11. 01	
17	〃	오영섭	吳永燮	1961. 11. 02	1962. 02. 06	
18	〃	박권성	朴權聲	1962. 02. 07	1962. 03. 15	
19	〃	권병남	權炳男	1962. 03. 16	1962. 07. 24	
20	〃	김영상	金永祥	1962. 07. 25	1963. 08. 07	
21	〃	장인창	張仁昌	1963. 08. 08	1963. 12. 04	
22	〃	정성대	丁星大	1963. 12. 05	1964. 08. 19	
23	〃	권병남	權炳男	1964. 08. 20	1965. 11. 01	
24	〃	김곤근	金坤根	1965. 11. 02	1966. 11. 04	
25	〃	김근수	金根洙	1966. 11. 05	1967. 04. 07	
26	〃	조수원	趙壽元	1967. 04. 08	1968. 07. 19	
27	〃	정봉진	鄭俸鎭	1968. 07. 20	1969. 08. 03	
28	〃	이상기	李相基	1969. 08. 04	1971. 08. 24	
29	〃	노정환	盧鉦煥	1971. 08. 25	1974. 03. 10	
30	〃	박경식	朴景植	1974. 03. 11	1974. 10. 07	
31	〃	김춘배	金椿培	1974. 10. 08	1976. 01. 12	
32	〃	박배환	朴培煥	1976. 01. 13	1978. 09. 19	
33	〃	오수섭	吳壽燮	1978. 09. 20	1980. 06. 07	
34	〃	이귀현	李貴鉉	1980. 06. 09	1981. 05. 20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35	〃	김명중	金明中	1981. 05. 21	1983. 07. 10	
36	〃	김춘배	金春培	1983. 7. 11	1983. 09. 05	
37	〃	최재환	崔在煥	1983. 09. 05	1984. 07. 02	
38	〃	김주석	金周奭	1984. 07. 05	1985. 04. 21	
39	〃	김태민	金太珉	1985. 04. 23	1985. 12. 07	
40	〃	한상기	韓相基	1985. 12. 09	1986. 08. 06	
41	〃	유병상	庾病相	1986. 08. 09	1987. 03. 04	
42	〃	이원희	李原熙	1987. 03. 06	1987. 12. 04	
43	〃	이동범	李東範	1987. 12. 06	1988. 11. 08	
44	〃	박기언	朴基彦	1988. 11. 10	1990. 03. 13	
45	〃	정관영	鄭官永	1990. 03. 15	1991. 03. 01	
46	〃	고유철	高有喆	1991. 03. 04	1991. 11. 07	
47	〃	김용구	金容球	1991. 11. 09	1993. 04. 21	
48	〃	신용길	辛容吉	1993. 04. 23	1994. 04. 29	
49	〃	오국진	吳國珍	1994. 04. 30	1995. 04. 01	
50	〃	정경채	鄭京采	1995. 04. 01	1995. 07. 20	
51	〃	김정길	金政吉	1995. 07. 22	1995. 08. 13	
52	〃	이선호	李宣澔	1996. 08. 15	1999. 02. 28	
53	〃	김행안	金幸安	1999. 03. 01	2000. 07. 06	
54	〃	정종환	鄭鐘煥	2000. 07. 07	2002. 02. 01	
55	〃	정광술	丁廣術	2002. 02. 02	2003. 04. 29	
56	〃	손성민	孫聖珉	2003. 04. 30	2004. 02. 13	지구대 체재
57	경 감	김종태	金鍾泰	2004. 02. 14	2005. 02. 15	
58	〃	이홍섭	李洪燮	2005. 02. 16	2007. 02. 15	
59	〃	임병율	任炳律	2007. 02. 16	2008. 07. 25	
60	〃	나경록	羅京綠	2008. 07. 26	2008. 08. 31	
61	경 위	임영재	任暎才	2008. 09. 01		파출소 체재

◎ 엄다치안(嚴多治安)센터

(1) 소재지 :

엄다면(嚴多面) 송노리(松路里) 712-15



(2) 연 혁

- •1910.05.10 : 학교 주재소 설치 학교면 엄다면 관할
- •1913.12.31 : 함평군 엄다면으로 개칭과 동시 8개리를 학교면 주재소에서 치안유지
- •1919. : 엄다면 학야리(鶴野里)에 엄다면 경찰관 주재소 설치
- •1921. : 엄다면 주재소를 폐지하고 학교 주재소에 병합

•1945.10.20 : 국립 경찰 창립과 동시 엄다면 학야리 에 지서 설치 치안 유지

•1946. : 학교면과 엄다면을 분리하고 엄다지서 설치

•1950. : 한국전쟁의 발발로 구청사 소실

•1950.12.28 : 수복과 함께 엄다면 엄다리 803-3번지에 면 재정으로 일제강점기 시 사용하던 엄다면 학야리 토교마을 소재 고려농장 건물을 옮겨 청사 신축

•1972.01.25 : 현재의 자리에 국고금 1,000,000원의 지원과 엄다면민의 성원으로 밭 300평을 희사받아 지서 청사 신축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엄다지서에서 엄다파출소로 명칭 변경

•1995.11.10 : 구청사가 낡아 국고금 84,880,000원을 지원받아 구청사 철거와 동시 현 건물을 개축 준공

·2003.08.01 : 지역경찰 시행으로 학교 · 엄다 · 대동파출소가 학교를 중심으로 지구대로 통합됨에 따라 엄다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명칭 변경

·2008.09.01 : 지구대 파출소제재로 개편되메 따라 남부파출소 관할로 변경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1,028㎡ 건평 138.33㎡(1, 2, 3층 포함) 건축양식 조석조 슬라브

(4) 역대 엄다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김상일	金相一	1952. 10. 13	1953. 06. 26	
2	경 사	이복남	李福南	1953. 06. 27	1953. 12. 04	
3	〃	윤세준	尹世俊	1953. 12. 05	1953. 12. 15	
4	경 사	이성기	李成基	1953. 12. 16	1945. 04. 04	
5	〃	한창관	韓昌寬	1945. 04. 05	1954. 06. 02	
6	〃	윤세준	尹世俊	1954. 06. 03	1955. 05. 10	
7	〃	장삼동	張三童	1955. 05. 11	1955. 07. 13	
8	〃	이사형	李四衡	1955. 07. 14	1955. 11. 24	
9	〃	강태순	姜太淳	1955. 11. 25	1956. 05. 21	
10	〃	박춘원	朴春元	1956. 05. 22	1956. 10. 22	
11	〃	정순기	鄭順基	1956. 10. 23	1958. 12. 17	
12	〃	박춘원	朴春元	1958. 12. 18	1959. 07. 23	
13	〃	김무열	金武烈	1959. 07. 24	1960. 05. 12	
14	〃	김영상	金永祥	1960. 05. 13	1961. 07. 25	
15	〃	박정환	朴晶煥	1961. 07. 26	1961. 08. 25	
16	〃	김영조	金永祚	1961. 08. 26	1962. 07. 08	
17	〃	조송안	趙松安	1962. 07. 09	1963. 03. 12	
18	〃	김춘배	金椿培	1963. 03. 13	1964. 06. 28	
19	〃	나윤승	羅潤承	1964. 06. 29	1964. 11. 29	
20	〃	유재홍	劉在洪	1964. 11. 30	1965. 07. 30	
21	〃	윤지병	尹旨炳	1965. 07. 31	1966. 03. 20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22	〃	정병열	鄭炳烈	1966. 03. 21	1967. 10. 02	
23	〃	서재연	徐在衍	1967. 10. 03	1969. 08. 03	
24	〃	김춘배	金椿培	1969. 08. 04	1971. 06. 20	
25	〃	이상대	李相大	1971. 06. 21	1971. 11. 07	
26	〃	조재원	趙再元	1971. 11. 08	1973. 01. 07	
27	〃	김병념	金炳念	1973. 01. 08	1974. 10. 03	
28	〃	박형식	朴亨植	1974. 10. 04	1975. 03. 23	
29	〃	설수종	薛洙淙	1975. 03. 24	1977. 11. 06	
30	〃	전영희	全永熙	1977. 11. 07	1980. 04. 24	
31	〃	나윤승	羅潤承	1980. 04. 25	1981. 12. 10	
32	〃	이계일	李啓日	1981. 12. 11	1982. 06. 22	
33	〃	신용길	辛容吉	1982. 06. 23	1983. 07. 10	
34	〃	정영선	鄭榮善	1983. 07. 12	1985. 07. 10	
35	〃	김현진	金賢珍	1985. 07. 12	1986. 03. 21	
36	〃	정찬명	鄭燦明	1986. 03. 22	1986. 08. 09	
37	경 사	김용구	金容球	1986. 08. 09	1988. 06. 17	
38	〃	박문길	朴文吉	1988. 06. 17	1990. 03. 13	
39	〃	정종환	鄭鍾煥	1990. 03. 13	1991. 12. 21	
40	〃	임영재	任暎才	1991. 12. 21	1993. 05. 19	
41	〃	김천수	金千水	1993. 05. 19	1994. 07. 28	
42	〃	임영재	任暎才	1994. 12. 01	1995. 12. 01	
43	〃	김채석	金采碩	1995. 12. 01	1998. 02. 02	
44	〃	임영재	任暎才	1998. 02. 03	1999. 11. 06	
45	〃	전덕만	全德萬	1999. 11. 07	2001. 02. 03	
46	〃	천명환	千命煥	2001. 02. 04	2002. 03 26	
47	〃	조재민	曺齋民	2002. 03. 27	2003. 04. 28	
48	〃	배귀동	裵貴童	2003. 04. 29	2004. 09. 17	치안센터장
49	〃	김행남	金幸南	2005. 02. 24	2007. 06. 13	〃
50	〃	임영재	任暎才	2008. 03. 05	2008. 06. 27	〃

4) 손불파출소(孫佛派出所)

(1) 소 재 지 :

손불면(孫佛面) 대전리(大田里) 189 - 3번지



(2) 연 혁

•1919.04. : 손불면 동암리에 함평경찰서 손불주재소 설치

•1920.04. : 손불면 대전리 636번지에 청사

신축 이전

•1945.08.15 : 해방과 더불어 손불 치안대를 조직
치안업무 처리, 그후 보안서로 개칭

•1945.10.21 : 국립경찰 창설로 함평경찰서 손불지서로 개칭하고 치안 담당

•1949.04.24 : 군유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에 의해 지서가 피습되고 당시 지서장이던 최긍현 경위가 사망하자 대전리 294 - 6번지에 위치한 대한청년단 청사를 임시 지서로 사용

•1950.07.23 : 한국전쟁 발발로 인민군의 분주소 청사로 이용됨

•1950.10.23 :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옛 청사는 소각되고 손불초등학교 교장관사를 임시 청사로 사용

•1951.01.14 : 손불면 산남리(山南里) 남산 고지에 임시 지서를, 학산리(鶴山里) 복학(伏鶴) 고지에 학산출장소를 설치

•1951.10.23 : 손불면 대전리 273번지에 손불지서를 신축 이전

•1957.09.15 : 지금의 위치에 대전리 거주하던 이우만이 대지 452평을 희사하고, 국비로 목조건물 27.35평을 신축하여 학산리 출장소를 통합

•1989.12.20 : 청사 노후로 건물 신축 이전

•1995.01.27 : 직제 변경으로 손불지서에서 손불파출소로 명칭 변경

·2003.10.15 : 지역경찰 시행으로 손불치안센터로 전환

·2006.04.24 : 지구대가 파출소 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손불파출소로 전환

(3) 시설현황 :

부지면적 163.3㎡ 건평 148.6㎡ 건축양식 벽돌 슬라브

(4) 역대 파출소장 명단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	경 위	한 길 수	1950. 11. 30	1951. 10. 25
2	〃	황 인 찬	1951. 10. 26	1952. 08. 31
3	〃	김 태 원	1952. 09. 01	1952. 10. 09
4	〃	이 성 재	1952. 10. 10	1953. 09. 14
5	경 사	기 노 천	1953. 09. 15	1954. 02. 20
6	〃	이 계 인	1954. 02. 21	1954. 03. 16
7	경 위	진 병 준	1954. 03. 17	1955. 06. 05
8	〃	황 범 수	1955. 06. 06	1955. 07. 10
9	〃	윤 원 균	1955. 07. 11	1958. 12. 17
10	〃	김 창 운	1958. 12. 18	1959. 05. 27
11	〃	최 병 길	1959. 05. 28	1959. 12. 06
12	〃	이 득 용	1959. 12. 07	1960. 05. 13
13	〃	김 태 봉	1960. 05. 14	1960. 11. 18
14	〃	천 만 식	1960. 11. 19	1961. 10. 01

대 수	계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부 임 일 자	전 출 일 자
15	〃	오 영 섭	1961. 10. 02	1961. 11. 01
16	경 사	김 석 두	1961. 11. 02	1962. 12. 13
17	〃	안 종 열	1962. 12. 14	1962. 12. 17
18	〃	이 보 의	1962. 12. 18	1963. 06. 04
19	〃	문 정 환	1963. 06. 05	1964. 06. 28
20	〃	김 춘 배	1964. 06. 29	1965. 11. 15
21	〃	조 강 현	1965. 11. 16	1966. 03. 20
22	〃	유 대 성	1966. 03. 21	1967. 10. 29
23	〃	윤 적 선	1967. 10. 30	1968. 11. 19
24	〃	김 춘 배	1968. 11. 20	1969. 08. 03
25	〃	서 원 상	1969. 08. 04	1969. 11. 30
26	〃	전 복 만	1969. 12. 01	1972. 06. 25
27	경 위	문 재 철	1972. 06. 26	1972. 09. 15
28	〃	김 권 수	1972. 09. 16	1973. 10. 30
29	〃	김 춘 배	1973. 10. 31	1974. 10. 07
30	〃	최 성 웅	1974. 10. 08	1975. 11. 17
31	경 사	이 돈 형	1975. 11. 18	1976. 05. 30
32	〃	김 금 출	1976. 06. 01	1976. 11. 18
33	〃	윤 지 병	1976. 11. 19	1978. 03. 04
34	경 위	이 봉 균	1978. 03. 06	1979. 05. 09
35	〃	김 영 주	1979. 05. 10	1980. 04. 24
36	경 사	서 화 준	1980. 04. 25	1981. 04. 28
37	〃	심 균 섭	1981. 04. 29	1982. 07. 05
38	〃	나 윤 승	1982. 07. 06	1983. 08. 08
39	경 사	기 노 일	1983. 08. 09	1985. 07. 10
40	〃	박 현 길	1985. 07. 11	1985. 12. 27
41	〃	신 용 길	1985. 12. 27	1988. 06. 16
42	경 위	노 광 섭	1988. 06. 16	1990. 09. 01
43	〃	김 용 구	1990. 09. 01	1991. 11. 06
44	경 사	정 영 선	1991. 11. 06	1993. 05. 20
45	〃	이 원 희	1993. 05. 20	1994. 03. 08
46	〃	정 영 후	1994. 03. 14	1995. 07. 06
47	〃	강 유 상	1995. 07. 06	1996. 05. 21
48	〃	나 성 수	1996. 05. 21	1997. 08. 22
49	〃	박 영 수	1997. 08. 22	1998. 07. 18
50	〃	김 행 안	1998. 07. 18	1999. 03. 01
51	〃	조 형 남	1999. 03. 01	2000. 07. 06
52	〃	정 광 술	2000. 07. 06	2002. 02. 01
53	〃	임 영 재	2002. 02. 01	2003. 04. 28
54	〃	조 형 남	2003. 04. 28	2003. 08. 01
55	경 위	전 수 헌	2003. 08. 01	2006. 04. 20
56	〃	김 금 우	2006. 04. 20	2007. 12. 31
57	〃	김 상 현	2007. 12. 31	

제3절 민방위(民防衛)와 소방

1. 의의(意義)

민방위란 말은 민간방위(民間防衛)의 약어(略語)로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국가방위를 군인만이 아닌 전 국민이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민방위 활동에는 국가가 재난에 처해 있을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 복구,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自衛)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와 조직은 오늘날 민방위와 다르지만 우리 역사속에는 오늘날 민방위에 비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신라 헌안왕(憲安王)때 영동지방 일대에 큰 물이 나 그 복구사업을 주민들의 힘에 의해 복구했으며 임진란 중 행주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한 민간의 협조, 항일의병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민방위 조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1948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1951년, 불란서는 1952년, 스웨덴과 스위스는 1960년대에 들어 강력한 민방위대 조직을 가졌다.

민방위백서(民防衛白書)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방위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51. 01. : 계엄사령부에 민방위 본부 및 각 시도에 지부 설치
- •1951. 01. 26 : 민방공 업무 내무부(치안국) 관장
- •1951. 03. 22 : 방공법(防空法) 공포
- •1971. 12. 31 : 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 •1972. 01. 15 : 제1차 「민방공소방(民防空消防)의 날」 훈련 실시
- •1975. 07. 25 : 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동년 8월 26일 시행
- •1975. 08. 26~9. 15 : 민방위 편성 대상자 신고 및 편성
- •1975. 08. 29 :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기구 설치
- •1975. 09. 22~9. 30 : 각급 민방위대 발족

2. 함평군의 민방위대 편성

함평군의 각급 민방위대는 1975년 9월 30일에 발대식을 가졌다.

각급 민방위대란 지역민방위대(주소지 단위),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를 말한다.

민방위대에는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4세까지의 남자 그리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다.

의무대상자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矯正職)공무원, 보도직공무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소집대상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학교 교원, 학생은 제외되며 3급 이상인 상이군경과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자 그리고 만성허약자는 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외

된다.

함평군 관내의 민방위대 운영은 전반적으로 군수가 총관하고 지역민방위는 이장, 기술지원대는 읍·면장이 관할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이 위촉한 교관이 순회하면서 정신교육과 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민방위대원 훈련은 연 2차례 실시하고 있다.

3. 소방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20호로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로 승인이 났다. 그 이전까지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예방 및 구조 구급을 하였으나 1992년 12월 31일부로 정식 인가가 난 것이다.

그리고 2005년 8월 11일 영광소방서가 개서되자 관할 구역이 영광소방서로 변경되었고, 명칭 또한 영광소방서 함평파출소로 변경되었다. 다시 2007년 7월 1일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로 명칭은 재차 변경된다.

또한 그동안 소방위가 파견되어 파출소장직을 맡았던 것을 2009년 3월 16일부로 일계급 진급된 소방경이 파견되어 현재 파출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의 주요업무는 화재예방과 진압 그리고 인명의 구조 구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함평군이 하나의 군(郡)단위이고, 40여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상 파출소보다 승격된 소방서가 개서되어 소방업무를 담당하기를 함평군민이나 함평119안전센터 대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1) 명　칭 :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함평안전센타

2) 소재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304-5번지

3) 시설현황

(1) 연 면 적 :

347.7㎡

(2) 건축양식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2층

4) 부대시설 :

창고 (소방장비품 보관)

5) 연혁

•1992. 12. 31 :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 승인(대통령령 제13820호)
•1992. 12. 31 : 나주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전라남도 소방서 규칙 제2133호)
•1993. 02. 26 :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 개소
•2005. 08. 11 : 영광소방서 개서
•2005. 08. 11 : 영광소방서 함평파출소로 관할구역 조정
•2007. 07. 01 :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명칭변경

6) 중요사업 실적(2008년도)

(1) 화재건수 : 116건

(2) 인명구조·구급건수 : 1,307건

7) 직원현황

소 속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기 능 직	참고(총원)
함평파출소	1	2	12	20	1	0	36

(1) 역대 소장

대수	이 름		재 임 기 간		본 적	계 급
	한 글	한 문	취 임	이 임		
1	박 해 만	朴 海 萬	1992. 11. 28	1993. 01. 03	전남 담양	소 방 위
2	박 성 기	朴 盛 基	1993. 01. 04	1995. 04. 03	전남 무안	〃
3	박 해 만	朴 海 萬	1995. 04. 05	1996. 06. 07	전남 담양	〃
4	박 진	朴 進	1996. 06. 08	1997. 10. 31	전남 영암	〃
5	오 구 근	吳 求 根	1997. 11. 01	1999. 03. 02	광주광역시	〃
6	설 동 진	薛 東 鎭	1999. 03. 03	2000. 04. 13	전남 담양	〃
7	임 영 택	林 暎 澤	2000. 04. 14	2001. 01. 02	전남 나주	〃
8	이 상 선		2001. 01. 03	2002. 02. 19	전남 나주	〃
9	이 관 민		2002. 02. 20	2003. 09. 07	전남 장성	〃
10	심 재 풍		2003. 09. 08	2005. 07. 03	전남 장성	〃
11	윤 예 심		2005. 07. 04	2007. 10. 05	전남 무안	〃
12	고 현 석		2007. 10. 06	2009. 03. 15	전남 영암	〃
13	최 윤 호	崔 允 浩	2009. 03. 16	2009. 07. 29	전남 신안	소 방 경
14	박 병 찬	朴 炳 燦	2009. 07. 30	현재	광주광역시	〃

자료 제공자 : 함평119안전센터

8)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타 지역대 현황

지역대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일	소방장비	물탱크 폼탱크)L	비 고
학교지역대	학교면 사거리 581-5	철콘조, 스라브 1층	(218㎡) 991㎡	2008.02.28	소형펌프차 (이엔쓰리)	1,300 (100)	
엄다지역대	엄다면 엄다리 837-1	벽돌조, 스라브 1층	(66.96㎡) 397㎡	1994.10.25	소형펌프차 (에스아이테코)	1,400 (100)	
손불지역대	손불면 대전리 290-9	철콘조, 스라브 1층	(144㎡) 763㎡	2007.08.13	소형펌프차 (삼일)	1,400 (100)	
신광지역대	신광면 백운리 377-7	조적조, 스라브 1층	(65.57㎡) 178㎡	1992.07.20	소형펌프차 (삼일)	1,150 (200)	
나산지역대	나산면 삼축리 325-3	조적조, 스라브 1층	(94.93㎡) 170㎡	1999.10.25	중형펌프차 (광림)	2,800 (200)	
해보지역대	해보면 금덕리 495-13	철콘조, 스라브 1층	(96.9㎡) 696㎡	2000.12.30	중형펌프차 (에스아이테코)	3,000 (200)	
월야지역대	월야면 월야리 1095	철콘조, 스라브 1층	(86.86㎡) 777㎡	1994.02.07	소형펌프차 (광림) 구급차 (오텍)	1,200 (200)	


원야지역대


119의약속 Safe Korea
손불지역대


엄다지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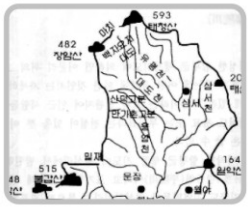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나산지역대


신광지역대


해보지역대


119의약속 Safe Korea
학교지역대

제8장 교통(交通)



제1절 도 로

1. 함평군의 도로

1) 옛 도로 개황

고려조와 조선조의 국도에는 역(驛)과 원(院)이 있었는데 고려조에는 현 함평군 관내에 가풍역(街豊驛)[366]과 덕수역(德樹驛)[367]이 있었고 조선조에는 가리역(嘉里驛-加里驛)만 존속되었다.

조선조 때 함평현 관내에 있던 원은 사기원(四岐院. 현 월야면 외치리 백야 마을 동쪽), 옹산원(瓮山院. 현 무안군 현경면 옹산), 유현원(柳峴원-杻峴院. 현 신광면 삼덕리원골), 고막원(古幕院. 현 학교면 고막리 고막돌다리 옆), 구미원(龜尾院-求密院-歸密院. 현 해보면 문장리 상귀밀)이며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淸水院)에도 지명으로 보아 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 역원제에 대한 것과 수운(水運)에 관한 것은 고려조와 조선조 편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조선조 중기까지는 명색이 국도라고 이름 붙여진 도로도 오솔길에 불과 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중기 이후에야 어느 정도 도로가 정비되고 다리도 놓여져 주요 지역간에는 도로를 이용한 교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 정비된 도로도 오늘날 농도(農道)만도 못했다.

도로가 근대화하기 시작한 것은 한일합방 직전이다.

산업개발을 위해 시가(市街)와 도로 개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1906년에 시작하여 1910년에 끝낸 국도 확장 개수는 민간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하고 인력도 부역으로 충당했다.

---

366) 함풍현(咸豊縣) 관내에 있던 역으로 조선조에는 가리역이라 하였고 지금의 신광면 가덕리 가덕 마을 남쪽에 있었다.

367) 모평현 관내에 있던 역으로 지금의 나산면 덕림리(德林里) 북쪽 경계를 약간 벗어나 자리하고 있는 원선리(元仙里)의 쌍령재 아래 원선 마을로 추정할 뿐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1911년 4월에는 도로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령으로 도로 규칙을 제정하고 1917년까지를 제1기 도로 수축(修築) 기간으로 확정했다.

이 때 제정된 도로 규칙을 보면,

① 도로를 1, 2, 3등(등), 등외 4종으로 구분하며

② 1. 2등 도로는 총독부에서, 3등 도로는 도청에서, 등외 도로는 부(府), 군청에서 관리하고

③ 도로의 축조 및 유지수선(維持修繕)은 1, 2등 도로는 총독부, 3등 도로는 지방청, 등외 도로는 관계 마을에서 시행하며

④ 도로 폭은 1등 도로는 4간(間)[368], 2등 도로는 3간 이상, 3등 도로는 2간 이상으로 하였다.

당시 1등 도로는 18개 노선에 790여리(里), 2등 도로는 73개 노선에 2,360리, 3등 도로는 48개 노선에 연장 3,269리였다.

1917년부터 제 2기 계획으로 26개 노선 478여리 개수 공사를 착수했으나 이 계획은 재정 궁핍으로 여러번 계획을 변경하였다.

1926년말까지 완료된 1, 2등 도로는 9,396㎞, 3등 도로는 7,540㎞, 영업용 자동차 운전구간은 10,950㎞였다.

당시 함평을 통과하는 1등 도로는 국도 1호선(목포에서 신의주)으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학교면 고막리 구간과 2등 도로는 함평에서 영광간, 그리고 광주에서 법성포간 도로로 함평은 월야면에서 해보면까지였다.

1933년 1월 기준 전국의 영업도로 연장은 35,000㎞에 달했다.

1907년에 간행한 「함평군지」에서 그대로 옮긴 1930년 간행의 속수 함평지(續修咸平誌)에 수록된 도로 지계(道路地界)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문(官門. 함평군청)에서 나주군 경계까지 동쪽으로 20리,
서쪽으로 해안까지 40리(무안군 운남면 성내리까지),
남쪽으로 무안 경계까지는 5리(고두재 넘어 엄다면 화양리까지 거리임),
북으로 영광 경계까지 35리,
전주 감영까지는 북으로 270리,
전 병영(兵營. 강진군 병영)까지는 남쪽으로 120리,
전 좌수영은 동쪽으로 330리,
전 여산후영(礪山後營)은 북쪽으로 340리,
운봉좌영(運峰左營. 현 남원시 운봉)은 북쪽으로 300리,
전주중영(全州中營)까지는 270리이다.
서울은 북으로 770리,
광주 도청은 동쪽으로 110리
우수영은 남쪽으로 240리,
통영은 동쪽으로 660리
순천부영은 동쪽으로 290리
전 나주우영 동쪽으로 50리

2) 현대의 도로

도로 수송의 증대, 전국의 1일 생활권화,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로망의 확충

368) 1간은 6자(尺) : 약 1.8m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국토의 대동맥을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하였다.

경인, 경부, 호남, 남해, 영동, 구마, 중부 88고속도로 등이 이미 개통되었고 서해안, 중앙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에 완공하였고 우리 함평관내는 엄다면, 함평읍, 신광면을 거치는데 19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함평의 교차로 인터체인지는 함평읍 장년리에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2009년 말 현재 41개 노선에 3,706㎞이다.

함평관내를 통과하는 일반국도 1호선은 1980년대에 고속화도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고 일반국도 22호선, 23호선, 24호선은 2차선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3호선 중 학교 사거리 함평읍간은 4차선 농어촌 시범도로로 확포장 중에 있고 22호선 해보면, 월야면 구간 또한 4차선으로 확장하여 포장된다. 함평군 관내의 국도, 지방도, 군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함평군의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현황>

(읍면별 도로 현황)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로 현황 (2009. 12. 31 현재)

도로등급	노선번호	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전국대비	전남대비
총계	총연장(km)	346.659	54.679	51.250	34.732	44.630	23.120	34.160	44.981	31.050	28.057	58,368	7,893
	포장연장	280.869	48.979	42.150	25.532	42.590	19.120	27.760	25.911	25.250	23.577	40,086	5,430
	포장율	81.02	89.57	82.24	73.51	95.42	82.69	81.26	57.6	81.32	84.03	0.5	68.79
고속국도	**총연장(km)**	**32.96**	**13.63**	**2.45**	**6.60**	**6.46**	**3.82**					**2,923**	**208.0**
	포장연장	**32.96**	**13.63**	**2.45**	**6.60**	**6.46**	**3.82**						
	포장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7**	**4.4**
	15호선 (서해안선)	20.59	9.13	2.45	6.60		2.41						
		20.59	9.13	2.45	6.60		2.41						
	12호선 (광주~무안)	12.37	4.5			6.46	1.41						
		12.37	4.5			6.46	1.41						
국도	**총연장(km)**	**76.624**	**15.944**		**7.382**	**14.980**	**3.000**	**6.500**	**11.091**	**9.250**	**8.477**	**14,246**	**2,012**
	포장연장	**76.624**	**15.944**		**7.382**	**14.980**	**3.000**	**6.500**	**11.091**	**9.250**	**8.477**	**13,869**	**1,897**
	포장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6**	**0.8**
	1호선 (목포~신의주)	9.83				6.83	3.00						
		9.83				6.83	3.00						
	22호선 (정읍~순천)	9.557								4.3	5.257		
		9.557								4.3	5.257		
	23호선 (강진~천안)	25.96	8.23		7.382	8.15		2.2					
		25.96	8.23		7.382	8.15		2.2					
	24호선 (정읍~순천)	31.275	7.714					4.3	11.091	4.95	3.22		
		31.275	7.714					4.3	11.091	4.95	3.22		

(읍면별 도로 현황)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로 현황 (2009. 12. 31 현재)

도로등급	노선번호	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전국대비	전남대비
지방도	**총연장(km)**	**76.975**	**16.2**	**24.5**	**6.0**		**4.0**		**16.0**	**7.3**	**3.0**	**17,476**	**2,293**
	포장연장	**60.125**	**11.7**	**18.4**	**6.0**		**0.0**		**13.8**	**7.3**	**3.0**	**13,698**	**1,591**
	포장율	**97.2**	**72.1**	**75.1**	**100.0**		**0.0**		**86.0**	**100.0**	**100.0**	**0.4**	**0.7**
	801호선 (가학~나산)	5.75							5.75				
		3.50							3.50				
	808호선	8.800		8.8									
	(함평~영광)	8.800		8.8									
	811호선	27.40	12.50	10.9			4.0						
	(몽탄~무안)	12.80	8.00	4.8			0.0						
	815호선	3.655	3.655										
	(일로~함평)	3.655	3.655										
	825호선 (문평~나산)	7.67							7.67				
		7.67							7.67				
	838호선	23.70		4.8	6.0				2.60	7.30	3.00		
	(손불~나산)	23.70		4.8	6.0				2.60	7.30	3.00		
군도	**총연장(km)**	**160.100**	**8.95**	**24.30**	**14.75**	**23.19**	**12.30**	**27.66**	**17.87**	**14.50**	**16.58**	**23,723**	**3,380**
	포장연장	**111.160**	**7.75**	**21.30**	**5.55**	**21.15**	**12.30**	**21.26**	**1.05**	**8.70**	**12.10**	**12,519**	**1,942**
	포장율	**69.4**	**86.59**	**87.65**	**37.62**	**91.20**	**100.0**	**76.86**	**5.87**	**60.00**	**72.97**	**0.6**	**0.3**
	1호선 (영흥—가동)	14.5	5.0				9.5						
		14.5	5.0				9.5						
	2호선 (진양—광암)	12.9	1.2					9.0		2.7			
		11.3	0.0					8.6		2.7			
	3호선 (죽정—가덕)	15.5			0.4	6.4		8.7					
		13.5			0.4	4.4		8.7					
	5호선 (영흥—덕림)	17.3				12.4		3.9	1.1				
		17.3				12.3		3.9	1.1				
	7호선 (월야—월계)	8.1									8.1		
		8.1									8.1		
	8호선 (서호—용두)	15.0							15.0				
		0.0							0.0				
	9호선 (석창—보여)	12.0		6.5	5.5								
		6.5		6.5	0.0								
	10호선 (학교—죽정)	4.4				4.4							
		4.4				4.4							
	11호선 (월야—월악)	3.7									3.7		
		3.1									3.1		
	13호선 (광암—용월)	8.5								7.2	1.3		
		6.0								6.0			
	14호선 (신계—수호)	4.7	1.9				2.8						
		4.7	1.9				2.8						
	16호선 (대전—함정)	8.7		2.3	6.4								
		7.5		2.3	5.2								
	17호선 (나산—계림)	9.9							1.8	4.6	3.5		
		0.9							0.0	0.0	0.9		
	18호선 (계천—용성)	8.5			2.5			6.0					
		0.0			0.0			0.0					
	19호선	9.1		9.1									

(읍면별 도로 현황)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로 현황 (2009. 12. 31 현재)

도로등급	노선번호	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전국대비	전남대비
	(해안—양재)	6.1		6.1									
	20호선	7.3	0.9	6.4				0.1					
	(금산—대전)	7.3	0.9	6.4				0.1					

군도 이하의 도로는 농어촌도로라 부르며 이를 면도, 이도(里道), 농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함평군의 2009년도말 현재 포장률은 면도 57.5%, 이도 39.3%, 농도 17.3% 전체 평균 38.0%이다.

구 분	농 도	리 도	면 도	계
포 장	59.4	67.4	50.5	177.3
미포장	149.3	95.9	44.0	289.2

<함평군의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2009. 12. 31

함평군의 군도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 연장							미포장도 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계	16				160.095	95.576	4.48	91.10	0.0	0.0	0.0	0	64.519	64.52	0.0	0.0	0.0	0.0	0
1	영흥~가동	군도1	엄다 영흥	함평 가동	14.50	14.50		14.50					0.00	0.00					
2	진양~광암	군도2	함평 진양	해보 광암	12.90	11.30		11.30					1.60	1.60					
3	죽정~가덕	군도3	학교 죽정	신광 가덕	15.50	13.50		13.50					2.00	2.00					
4	영흥~덕림	군도5	엄다 영흥	나산 덕림	17.30	10.96	0.85	10.11					6.34	6.34					
5	월야~월계	군도7	월야 월야	월야 월계	8.10	5.37		5.37					2.74	2.74					
6	서호~용두	군도8	대동 서호	나산 용두	15.00	0.00		0.00					15.00	15.00					
7	석창~보여	군도9	손불 석창	신광 보영	12.00	2.44		2.44					9.56	9.56					
8	학교~죽정	군도10	학교 학교	학교 죽정	4.40	4.40		4.40					0.00	0.00					
9	월야~월악	군도11	월야 월야	월야 월악	3.70	1.50		1.50					2.20	2.20					
10	광암~용월	군도13	해보 광암	월야 용월	8.50	6.00	3.63	2.37					2.50	2.50					
11	신계~수호	군도14	엄다 신계	함평 수호	4.70	4.70		4.70					0.00	0.00					
12	대전~함정	군도16	손불 대전	신광 함정	8.70	7.52		7.52					1.18	1.18					

13	나산~계림	군도17	나산초포	월야계림	9.90	0.00		0.00					9.90	9.90				
14	계천~용성	군도18	신광계천	대동용성	8.50	0.00		0.00					8.50	8.50				
15	해안~양재	군도19	손불해안	손불양재	9.10	6.10		6.10					3.00	3.00				
16	금산~대전	군도20	대동금산	손불대전	7.30	7.30		7.30					0.00	0.0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212				466.50	466.50	177.30	114.80	62.50	0.00	289.20	285.20	4.00	0.00
1	고신선	함평102	1	진양리310-4	석성리595-3	3.90	3.90		3.90		0.00			
2	백화선	함평105	1	장년리659-1	대덕리1391-1	3.50	3.50		3.50		0.00	0.00		
3	가가선	함평107	1	가동리385-15	장교리945	1.00	0.80	0.80			0.20	0.20		
4	장백선	함평201	2	장년리23	장년리529	2.00	1.00		1.00		1.00	1.00		
5	덕성선	함평202	2	석성리630-2	석성리43-19	2.50	1.40		1.40		1.10	1.10		
6	작옥선	함평203	2	장교리508-2	옥산리389-9	3.30	1.70		1.70		1.60	1.60		
7	소등선	함평204	2	성남리72-5	수호리949-4	2.00	0.50		0.50		1.50	1.50		
8	월국선	함평205	2	장교리704-8	수호리산59-8	3.70	1.20		1.20		2.50	2.50		
9	성자선	함평206	2	석성리56	가동리453-4	2.20	0.60		0.60		1.60	1.60		
10	가덕선	함평207	2	가동리산47-3	석성리744	1.50	1.30		1.30		0.20		0.20	
11	장가선	함평208	2	장교리952	가동리364	3.00	0.00				3.00		3.00	
12	자백선	함평209	2	가동리9-1	장년리588-5	0.80	0.00				0.80		0.80	
13	거표선	함평210	2	내교리 거멍	월산리 신흥	1.30	1.30		1.30		0.00			
14	송성선	함평301	3	수호리682-2	성남리1165	1.20	0.60	0.60			0.60	0.60		
15	성월선	함평302	3	성남리204-3	장교리477-1	2.60	1.00	1.00			1.60	1.60		
16	초칠선	함평303	3	만흥리19-4	장교리38-2	1.20	1.20	1.20			0.00			
17	가지선	함평304	3	옥산리171-1	장교리731-1	1.20	0.40		0.40		0.80	0.80		
18	성성선	함평306	3	석성리518-3	석성리497	0.70	0.00				0.70	0.70		
19	신백선	함평307	3	장년리1170-2	장년리710-2	0.80	0.60	0.60			0.20	0.20		
20	고아선	함평308	3	대덕리291-2	덕산리548-6	1.40	0.00				1.40	1.40		
21	백아선	함평309	3	대덕리134-39	덕산리869-1	1.40	0.00				1.40	1.40		
22	거향선	함평310	3	대덕리16205	향교리1371-5	1.10	0.00				1.10	1.10		
23	함고선	함평311	3	수호리59-1	향교리1574	1.30	0.70	0.70			0.60	0.60		
24	시서선	함평312	3	기각리1043-2	향교리830-1	0.80	0.80	0.80			0.00			
25	석성선	함평313	3	석성리산223	석성리957	3.00	0.00				3.00	3.00		
26	금국선	함평314	3	자풍리553-2	자풍리36-2	1.40	0.00				1.40	1.40		
27	소장선	함평315	3	성남리206-3	성남리1103-1	1.30	0.00				1.30	1.30		
28	흥양선	함평316	3	옥산리 흥룡	옥산리 고양	1.10	0.00				1.10	1.10		
29	비차선	손불102	1	월천리460-2	북성리산37	3.00	2.00		2.00		1.00	1.00		
30	내죽선	손불103	1	산남리1848-8	죽암리91	7.50	7.50		7.50		0.00			
31	금신선	손불104	1	학산리 485-1	월천리1915	6.60	3.30	3.30			3.30	3.30		
32	신옥선	손불201	2	월천리701-2	산남리2773	5.70	1.10		1.10		4.60	4.60		
33	유수선	손불202	2	산남리1293-4	죽장리837-2	2.00	1.40		1.40		0.60	0.60		
34	초우선	손불203	2	동암리358	동암리182-5	1.10	0.00				1.10	1.1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35	장승선	손불204	2	양재리737-1	북성리404	2.80	1.00	1.00			1.80	1.80		
36	소신선	손불206	2	학산리13-2	학산리1915	1.50	1.50		1.50		0.00	0.00		
37	수영선	손불207	2	월천리1480	월천리1491	1.10	0.50		0.50		0.60	0.60		
38	묘소선	손불208	2	궁산리867	죽암리1	1.80	0.00				1.80	1.80		
39	사연선	손불210	2	양재리534-2	양재리산7-2	1.30	0.00				1.30	1.30		
40	해비선	손불301	3	석창리304	궁산리888	1.70	0.00				1.70	1.70		
41	소신선	손불302	3	학산리228-7	월천리844-1	1.40	0.50		0.50		0.90	0.90		
42	백교선	손불303	3	월천리721-9	산남리1958-1	4.20	2.20		2.20		2.00	2.00		
43	대석선	손불304	3	석창리699-1	석창리800	1.40	0.00				1.40	1.40		
44	교간선	손불305	3	산남리2050	산남리2231	0.80	0.00				0.80	0.80		
45	강간선	손불306	3	산남리2502	산남리1692	0.70	0.00				0.70	0.70		
46	영간선	손불307	3	월천리1494	월천리1703	1.20	0.00				1.20	1.20		
47	저신선	손불308	3	월천리189	월천리1253	1.10	0.50	0.50			0.60	0.60		
48	안간선	손불309	3	월천리1159-3	월천리1813	0.80	0.00				0.80	0.80		
49	신호선	손불310	3	양재리1213-1	양재리487-2	1.60	0.30	0.30			1.30	1.30		
50	청청선	손불311	3	산남리1426	산남리1343	0.60	0.00				0.60	0.60		
51	금상선	손불312	3	학산리814-1	학산리1223	1.40	0.00				1.40	1.40		
52	복해선	손불313	3	학산리1071	학산리1198	1.00	0.00				1.00	1.00		
53	복석선	손불314	3	동암리631	죽장리785-5	2.60	0.30		0.30		2.30	2.30		
54	교용선	손불315	3	산남리2421-1	산남리389	2.30	0.30	0.30			2.00	2.00		
55	대목선	손불316	3	석창리34-8	궁산리360-9	1.80	0.50	0.50			1.30	1.30		
56	금세선	손불317	3	학산리12-33	학산리246-5	3.10	0.70	0.70			2.40	2.40		
57	계석선	신광101	1	계천리206-3	계천리641-1	2.80	2.20	2.20			0.60	0.60		
58	서해선	신광102	1	송사리118-1	송사리554	3.00	0.60	0.60			2.40	2.40		
59	삼차선	신광103	1	송사리619-1	송사리138-2	0.50	0.00				0.50	0.50		
60	가개선	신광105	1	월암리357-1	월암리710	2.30	0.30	0.30			2.00	2.00		
61	가괴선	신광201	2	백운리325	복흥리470-1	2.30	0.00				2.30	2.30		
62	소가선	신광202	2	가덕리357-3	가덕리718	1.40	0.20	0.20			1.20	1.20		
63	해수선	신광203	2	송사리853-2	동정리771-6	2.80	0.00				2.80	2.80		
64	가덕선	신광204	2	삼덕리629-3	삼덕리113	2.80	0.30	0.30			2.50	2.50		
65	벽벽선	신광205	2	유천리229-3	유천리381	1.30	0.50	0.50			0.80	0.80		
66	신백선	신광206	2	백운리245-1	백운리386-3	1.80	1.00	1.00			0.80	0.80		
67	미백선	신광207	2	유천리906-3	유천리703-2	2.50	0.50	0.50			2.00	2.00		
68	삼무선	신광301	3	동정리362-2	함정리770-9	2.90	2.90	2.90			0.00			
69	원화선	신광303	3	원산리752-1	원산리570	1.50	0.50	0.50			1.00	1.00		
70	학덕선	신광304	3	원산리304	원산리77	1.40	0.50	0.50			0.90	0.90		
71	신운선	신광305	3	백운리134	백운리61	1.40	0.90	0.90			0.50	0.50		
72	실사선	신광306	3	계천리120-2	계천리442-2	1.40	0.40	0.40			1.00	1.00		
73	실석선	신광307	3	계천리119-1	계천리73-1	2.10	0.00				2.10	2.10		
74	신송선	신광308	3	송사리3081	송사리443	1.30	0.30	0.30			1.00	1.00		
75	가복선	신광309	3	삼덕리969-1	복흥리483-1	2.10	1.10	1.10			1.00	1.00		
76	덕연천	신광310	3	삼덕리205-2	월암리102-7	2.20	0.20	0.20			2.00	2.00		
77	석수선	신광311	3	복흥리633	동정리622	1.50	0.20	0.20			1.30	1.30		
78	매신선	신광312	3	월암리828-1	월암리628	1.20	0.50	0.50			0.70	0.70		
79	미매선	신광313	3	유천리148-2	유천리293-2	3.00	0.00				3.00	3.0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80	청내선	학교101	1	마산리 699-3	복천리957-3	4.00	1.50		1.50		2.50	2.50		
81	토회선	학교102	1	사거리599-1	월산리1592	4.00	4.00		4.00		0.00			
82	쌍고선	학교103	1	학교리524-1	고막리산17-7	7.00	0.00				7.00	7.00		
83	용후선	학교201	2	월호리433-1	석정리1164	3.60	0.80	0.80			2.80	2.80		
84	월함선	학교202	2	사거리1463	월산리328-2	1.60	0.80	0.80			0.80	0.80		
85	신회선	학교203	2	월산리산51	월산리1446	2.60	2.60	2.60			0.00			
86	농옥선	학교204	2	죽정리1126-1	마산리176-3	1.30	0.50	0.50			0.80	0.80		
87	쌍회선	학교205	2	학교리524-1	학교리215-8	1.20	0.30	0.30			0.90	0.90		
88	선반선	학교206	2	죽정리197	금송리656-6	2.20	0.40	0.40			1.80	1.80		
89	외나선	학교207	2	복천리1020	복천리1165	2.00	0.00				2.00	2.00		
90	고선선	학교208	2	고막리643	금송리957-35	3.20	1.00	1.00			2.20	2.20		
91	신백선	학교209	2	월산리633-18	월산리461-2	1.30	0.30	0.30			1.00	1.00		
92	서망선	학교301	3	곡창리42-12	곡창리산7-1	2.50	2.50		2.50		0.00			
93	이원선	학교302	3	학교리634-1	학교리175	3.30	0.60	0.60			2.70	2.70		
94	금원선	학교303	3	금송리529-4	석정리148	1.60	0.00				1.60	1.60		
95	향석선	학교304	3	금송리162-3	석정리249-4	3.20	0.00				3.20	3.20		
96	향동성	학교305	3	금송리1188	석정리1164	1.00	0.00				1.00	1.00		
97	용고선	학교306	3	월호리610-2	월호리541-2	1.00	0.70	0.70			0.30	0.30		
98	국금선	학교307	3	고막리631-3	복천리850-3	3.00	1.80	1.80			1.20	1.20		
99	두고선	학교308	3	복천리510	복천리101-3	1.10	0.00				1.10	1.10		
100	원서선	학교309	3	곡창리390-3	곡창리33-8	1.80	0.50	0.50			1.30	1.30		
101	행방선	학교310	3	월호리610-2	방우동	3.80	2.50	2.50			1.30	1.30		
102	국제선	엄다201	2	엄다리472-1	엄다리495-5	2.20	1.20	1.20			1.00	1.00		
103	송사선	엄다202	2	성남리1044	사거리180	3.00	1.50	1.50			1.50	1.50		
104	해쌍촌	엄다203	2	수호리860-1	화양리171	1.90	1.00	1.00			0.90	0.90		
105	정함선	엄다204	2	화양리513-1	화양리1028-1	1.40	1.40	0.80	0.60		0.00	0.00		
106	성노선	엄다205	2	성남리889-1	송노리407-2	1.20	0.00				1.20	1.20		
107	해월선	엄다206	2	송노리17-1	송노리952-1	2.30	1.00	1.00			1.30	1.30		
108	송영선	엄다207	2	엄다리885	삼정리 산4-1	1.80	1.50	1.50			0.30	0.30		
109	엄토선	엄다208	2	학야리1230	송노리718	2.10	1.50	1.50			0.60	0.60		
110	용함선	엄다301	3	영흥리1041-11	내교리1030-1	7.10	1.50	1.50			5.60	5.60		
111	토쌍선	엄다302	3	학야리104-7	화양리173-5	2.50	2.00	2.00			0.50	0.50		
112	농신선	엄다303	3	화양리1013-1	원산리1026-2	1.60	1.00	1.00			0.60	0.60		
113	성원선	엄다304	3	신계리939-3	사거리108-2	3.00	0.50	0.50			2.50	2.50		
114	장담선	엄다305	3	성남리749	금송리656-6	2.80	1.80	1.80			1.00	1.00		
115	비배선	엄다306	3	엄다리169-35	엄다리322-1	1.00	0.00				1.00	1.00		
116	정불선	엄다307	3	엄다리178-16	엄다리158-1	1.00	0.20	0.20			0.80	0.80		
117	제쓰선	엄다308	3	엄다리1258-1	곡창리1075-8	2.10	0.00				2.10	2.10		
118	용호선	엄다309	3	영흥리814-2	곡창리1165-2	2.70	0.20	0.20			2.50	2.50		
119	제송선	엄다310	3	엄다리1187	엄다리476	1.60	1.60	1.60			0.0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120	와율선	엄다311	3	화양리184-23	화양리174	1.90	0.00				1.90	1.90		
121	송영선	엄다312	3	삼정리482-4	삼정리304	1.30	0.00				1.30	1.30		
122	동보선	대동101	1	향교리36	백호리산77-1	4.00	4.00		4.00		0.00			
123	운함선	대동104	1	금산리651-1	운교리1213-8	1.00	1.00		1.00		0.00	0.00		
124	시상선	대동105	1	기각리 신기산	강운리 상강	2.90	2.90		2.90		0.00			
125	홍옥선	대동201	2	강운리1053-1	상옥리625-6	4.90	2.00	2.00			2.90	2.90		
126	구장선	대동202	2	연암리850-1	연암리산64-1	2.40	0.00				2.40	2.40		
127	용정정	대동203	2	진양리981-2	용성리273-18	4.00	1.20	1.20			2.80	2.80		
128	외고선	대동204	2	덕산리	덕산리10-1	2.50	1.00	1.00			1.50	1.50		
129	홍시선	대동205	2	강운리1062-1	월송리587-1	1.00	0.00				1.00	1.00		
130	향서선	대동206	2	향교리29-1	상옥리1036-1	4.50	4.50	4.50			0.00			
131	백금선	대동207	2	백호리207-6	상옥리1026-1	2.00	0.00				2.00	2.00		
132	복백선	대동208	2	복천리538	백호리산19-1	1.50	0.00				1.50	1.50		
133	노금선	대동209	2	금산리797-1	금산리33-4	2.00	2.00	2.00			0.00			
134	명노선	대동301	3	향교리825-5	금산리127-1	6.00	0.00				6.00	6.00		
135	괴감선	대동302	3	용성리1067-1	금산리810-1	1.50	0.00				1.50	1.50		
136	주석선	대동304	3	강운리1069-1	백호리680-1	2.50	1.00	1.00			1.50	1.50		
137	주시선	대동305	3	강운리924-1	월송리873-4	1.60	0.00				1.60	1.60		
138	동법선	대동306	3	월송리930-6	월송리1	1.00	0.60	0.60			0.40	0.40		
139	매구선	대동307	3	상옥리산25-1	상옥리561	0.80	0.30	0.30			0.50	0.50		
140	금옥선	대동308	3	금곡리1046-1	상옥리625-3	1.20	0.00				1.20	1.20		
141	보백선	대동309	3	백호리355-1	백호리494	1.00	0.00				1.00	1.00		
142	감학선	대동310	3	운교리254-1	운교리422-1	1.10	0.50	0.50			0.60	0.60		
143	미매선	대동311	3	운교리712-1	운교리382	1.10	0.20	0.20			0.90	0.90		
144	대동선	대동312	3	서호리390-1	서호리산65	1.00	0.00				1.00	1.00		
145	송용선	대동313	3	강운리358-1	용성리273-18	3.90	0.50	0.50			3.40	3.40		
146	남향선	대동314	3	향교리산61	향교리산1-1	3.40	1.00	1.00			2.40	2.40		
147	동백선	대동315	3	백호리157-1	월송리927-1	2.00	0.00				2.00	2.00		
148	운운선	대동316	3	운교리684-3	금산리1205-1	1.70	0.00				1.70	1.70		
149	송도선	나산102	1	송암리866-7	신평리673	2.90	1.20	1.20			1.70	1.70		
150	대석선	나산103	1	용두리505-2	용두리1134	1.00	0.00				1.00	1.00		
151	쌍국선	나산104	1	원선리475	원선리산1	1.50	0.00				1.50	1.50		
152	나생선	나산201	2	삼축리389-7	월봉리557-2	2.00	1.00	1.00			1.00	1.00		
153	회대선	나산202	2	용두리557	수상리927	2.20	0.50	0.50			1.70	1.70		
154	화내선	나산203	2	수하리792-3	수하리20	2.40	1.00	1.00			1.40	1.40		
155	구원선	나산204	2	구산리1002-6	원선리507	2.40	2.00	2.00			0.40	0.40		
156	월화선	나산205	2	월봉리1213-1	우치리974	4.40	2.00	2.00			2.40	2.40		
157	선월선	나산206	2	용두리1153	수상리1019	0.70	0.70	0.70			0.0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158	오계선	나산207	2	우치리279	용두리881-7	2.30	1.00	1.00			1.30	1.30		
159	냉주선	나산208	2	구산리1048-6	구산리246	1.00	1.00	1.00			0.00			
160	백관선	나산209	2	덕림리736-2	월봉리538	3.30	0.30	0.30			3.00	3.00		
161	신계선	나산210	2	우치리645-38	우치리971-3	1.40	0.00				1.40	1.40		
162	백백선	나산211	2	덕림리 백양동	수하리 백인동	1.00	0.00				1.00	1.00		
163	삼분선	나산301	3	삼축리1227-2	삼축리646-2	3.30	3.30	3.30			0.00			
164	이환선	나산302	3	이문리644-4	초포리265-6	1.20	0.30	0.30			0.90	0.90		
165	석초선	나산303	3	초포리936	우치리35	1.60	1.60	1.60			0.00			
166	회돌선	나산304	3	용두리1115-9	용두리662-1	0.70	0.40	0.40			0.30	0.30		
167	석죽선	나산305	3	이문리376-3	송암리866-6	1.10	0.50	0.50			0.60	0.60		
168	수음선	나산306	3	수하리811-3	송암리840	3.20	0.10	0.10			3.10	3.10		
169	선박선	나산307	3	용두리100-1	용두리123	0.80	0.00				0.80	0.80		
170	신도선	나산308	3	신평리707-1	신평리123	1.90	0.20	0.20			1.70	1.70		
171	광구선	나산309	3	구산리1089	구산리 산40	2.30	0.20	0.20			2.10	2.10		
172	동회선	나산310	3	삼축리519-3	월봉리1037	2.10	0.00				2.10	2.10		
173	원강선	나산311	3	우치리1020-1	우치리산13-1	2.00	0.80	0.80			1.20	1.20		
174	방용선	해보101	1	대창리439-8	대창리71-22	1.40	0.00				1.40	1.40		
175	금백선	해보102	1	금계리402	용산리22-13	5.60	1.20	1.20			4.40	4.40		
176	하계선	해보103	1	상곡리485-9	상곡리529-1	1.20	0.00				1.20	1.20		
177	노국선	해보104	1	상곡리1019	상곡리산9-1	2.30	0.00				2.30	2.30		
178	성문선	해보105	1	대창리439-8	문장리 문암	5.40	5.40		5.40		0.00			
179	하창선	해보201	2	문장리65-9	대창리198	1.40	0.60	0.60			0.80	0.80		
180	금구선	해보202	2	금덕리48-8	금덕리686-1	3.20	1.50	0.30	1.20		1.70	1.70		
181	상월선	해보203	2	상곡리635	상곡리1062-5	1.00	0.00				1.00	1.00		
182	대용선	해보204	2	광암리133-1	광암리415	2.00	2.00		2.00		0.00			
183	하만선	해보206	2	문장리61-1	금덕리193	3.10	3.10	3.10			0.00			
184	백신선	해보207	2	금덕리488-5	금덕리233-1	1.50	1.10	1.10			0.40	0.40		
185	금용선	해보208	2	금계리413	금계리 산34	1.80	0.50	0.50			1.30	1.30		
186	상영선	해보301	3	문장리346-2	문장리41-9	1.30	0.30	0.30			1.00	1.00		
187	주고선	해보302	3	문장리671	문장리77-9	1.80	0.30	0.30			1.50	1.50		
188	창대선	해보303	3	대창리73-6	대창리77-12	2.30	0.70	0.70			1.60	1.60		
189	월신선	해보304	3	해보리850	해보리632	0.80	0.80	0.80			0.00			
190	돌하선	해보305	3	대각리26	대각리195	1.20	0.20	0.20			1.00	1.00		
191	가아선	해보306	3	대각리584-1	대각리644	3.80	2.30	2.30			1.50	1.50		
192	운월선	해보307	3	상옥리984	해보리952-2	1.70	0.30	0.30			1.40	1.40		
193	금고선	월야101	1	월악리365-14	양정리936-1	2.60	0.00				2.60	2.60		
194	내야선	월야102	1	월악리734-64	예덕리639-4	5.80	0.60	0.60			5.20	5.20		
195	석내선	월야103	1	영월리산12	용월리315-4	4.20	1.00	1.00			3.20	3.20		
196	서가선	월야104	1	정산리 서촌	계림리 가차	3.60	3.60		3.60		0.00			
197	월송선	월야201	2	월야리884	용월리464	3.50	1.50	1.50			2.00	2.00		
198	석복선	월야202	2	월계리35-1	용정리115-4	3.00	0.00				3.00	3.00		
199	국백선	월야203	2	월야리756-11	외치리42-1	1.90	0.90	0.90			1.00	1.00		
200	장발선	월야204	2	정산리606-2	예덕리688-2	3.60	3.20	3.20			0.40	0.40		
201	내덕선	월야301	3	용월리485-1	영월리150-2	2.30	2.30	2.30			0.00			

함평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관리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지정일	기점	종점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포장도연장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계	1차선	2차선	4차선이상
202	월백선	월야302	3	월야리365-24	외치리538-6	1.90	0.40	0.40			1.50	1.50		
203	평신선	월야303	3	월야리873	계림리548-11	3.90	0.00				3.90	3.90		
204	용월선	월야304	3	용월리677	양정리936-1	1.30	0.00				1.30	1.30		
205	전중선	월야305	3	월야리347-3	월야리254	2.30	0.90	0.90			1.40	1.40		
206	평월선	월야306	3	월야리1047	월악리254	3.20	1.10	1.10			2.10	2.10		
207	내신선	월야307	3	정산리347-3	예덕리254	2.60	0.30	0.30			2.30	2.30		
208	신고선	월야308	3	정산리313-3	정산리920	1.40	0.90	0.90			0.50	0.50		
209	무발선	월야309	3	예덕리770	예덕리787-1	0.80	0.00				0.80	0.80		
210	덕발선	월야310	3	월계리21-3	예덕리787-1	1.20	0.40	0.40			0.80	0.80		
211	양선선	월야311	3	양정리457-2	양정리96-6	1.00	0.00				1.00	1.00		
212	평노선	월야312	3	월야리75	월악리124	2.80	1.20	1.20			1.60	1.60		

제2절 교량(橋梁. 다리)

1. 옛 교량 개황



1871년에 간행한 「함평현읍지」에 수록된 교량을 보면,

•대 교(大 橋) 동쪽으로 2리에 있다.(현 영수교)

•장성교(長城橋) 북쪽으로 20리 신광면에 있다.(현 장산교)

•도천교(道川橋) 동쪽으로 30리(현 나산교)

•작천교(鵲川橋) 동쪽으로 40리(현 해보 구미교. 까치내 다리)가 수록되어 있다.

1906년에 간행한 「함평군지」에는 대교, 도천교는 앞서 간행한 현읍지의 내용과 같고 작천교는 수박교(水泊橋. 동쪽으로 40리. 해보면)로, 장성교는 장승교(長承橋. 북으로 20리. 신광면)로 이름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다.

위의 4개소 다리 외에 아래의 다리가 추가 기록되어 있다.

•한천교(鶾川橋) 동쪽으로 40리. 해보에 있다.(현 대창교)

•지연교(支延橋) 동쪽으로 40리. 대야에 있다.(현 정산교)
•팔음교(八音橋) 대야면에 있고 영광과 경계 표시의 돌이 있다. (현 영광군 묘량면 의 팔음교)

일본 사람들에 의해 도로가 신작로란 이름으로 일단 정비된 1930년 간행 속수 함평지에는 다음과 같은 다리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다리는 모두 나무로 놓은 목교였음을 밝혀둔다.

•영천교(潁川橋) 동쪽으로 2리. 함평면(옛 대교가 영천교로 바뀌어 기록되었다.)
•함평교(咸平橋) 동쪽으로 3리. 함평면(일명 거멍다리)
•육십교(六十橋) 북쪽으로 3리. 함평면(전 함평북초등학교 앞에 있는 다리)
•나산교(羅山橋) 동쪽으로 20리. 나산면(옛 도천교)
•학 교(鶴 橋) 남쪽으로 15리. 학교면(현 학야교)
•한천교(鵰川橋) 동쪽으로 30리. 해보면(현 대창교)
•고막교(古幕橋) 동쪽으로 20리. 학교면(고막돌다리가 아닌 현 고막교)
•쌍 교(雙 橋) 동쪽으로 15리. 학교면(현 시장 앞과 면사무소 앞에 있는 두 다리)
•수박교(水泊橋) 동쪽으로 40리. 해보면(현 우시장 앞의 다리)
•지연교(支延橋) 동쪽으로 40리. 월야면(현 정산교)
•두매교(杜梅橋) 서쪽으로 10리. 구 영풍면(현 성남교)
•장승교(長承橋) 북쪽으로 20리. 신광면(현 장산교)
•서군교(誓軍橋) 북쪽으로 20리. 신광면(현 삼덕교)
•표 교(瓢 橋) 남쪽으로 5리. 구 영풍면(현 함평읍 수호리의 쪼박다리, 조박다리)
•한문교(捍門橋) 남쪽으로 20리. 엄다면(엄다리 제동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옛 하마교-下馬橋)
•구밀교(求密橋) 동쪽으로 40리. 해보면(전에는 구-귀미교-龜尾橋라함)
•가마교(加馬橋) 남쪽으로 10리. 학교면(현 중앙초등학교 서쪽의 구도에 있는 다리)
•팔음교(八音橋) 동쪽으로 40리. 해보면(현 영광군 묘량면)

2. 현재의 교량

전항에서 언급한 옛 다리는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개조했다가 1970년대 이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모두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의 다리들은 거의 암거식 다리, 소위 박스교(橋)로 형태를 바꾸었다.

1997년말 현재의 함평군 교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함평나비곤충엑스포 이미지다리

<함평군의 국도와 지방도에 놓인 교량 현황>

단위 : m. 규모는 1차 준공 때임

도로 구분	고유 번호	다리이름	소 재 지	규 모			준공년	참 고
				길이	폭	높이		
국 도	1	학 야 교	엄다면 학야리	120.0	16.0	2.8	1969	2차 확장 신설 1996년
		동 창 교	학교면 죽정리	12.3	16.0	4.0	1978	〃 1996년. 신, 구 2개교
		고 막 교	〃 고막리	200.0	16.0	8.0	1983	확장 신설
	22	구 밀 교	해보면 문장리	60.0	10.0	6.0	1976	1990년대 초 확장 신설
		석 보 교	월야면 월야리	8.0	10.3	4.5	1969	〃
	23	동강대교	학교면 곡창리				1995	신설. 동강면과 연결 다리
		소곡창교	〃 〃	9.0	4.5	1.5	1965	2차 확장 신설 1994년
		함 평 교	함평읍 기각리	112.5	7.5	4.5	1954	3차 확장 신설 1996년
		장 산 교	신광면 계천리	30.0	10.0	3.0	1980	옛 장성, 장승교
		사 천 교	〃 월암리	35.1	10.0	3.5	1980	
	24	영 수 교	함평읍 기각리	50.0	6.5	4.7	1954	2차 확장 신설 1994년. 옛 대교
		소강운교	대동면 강운리	5.5	6.5	1.9	1963	〃 1990년대 초 상강 앞
		대강운교	〃 〃	10.5	6.5	2.4	1958	〃 〃 저수지 앞
		구 산 교	나산면 구산리	12.0	6.0	3.2	1958	〃 1997년
		덕 림 교	〃 덕림리	24.0	6.0	4.7	1958	〃 1996년
		월 봉 교	〃 월봉리	8.0	6.0	2.0	1963	1990년대 초 확장 신설
		대 창 교	해보면 대창리	60.0	7.5	5.2	1965	2차 확장 신설 1995년. 옛 한천교
지방도	808	궁 산 교	손불면 궁산리	12.0	8.5	3.5	1969	2차 확장 신설 1980년
		산 남 교	〃 산남리	10.0	7.8	3.5	1970	〃 1970년
		대전 1교	〃 대전리	8.0	6.0	3.5	1955	〃 1955년 3차 1990년대 초
		대전 2교	손불면 대전리	8.0	6.0	2.5	1955	2차 확장 신설 1982
		월 천 교	〃 월천리	14.0	3.5	2.5	1968	
		학산 1교	〃 학산리	6.0	5.0	1.5	1972	
		학산 2교	〃 〃	6.5	3.5	2.5	1960	
	825	수 하 교	나산면 수하리	11.0	5.0	2.2	1969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와 연결
		송 암 교	〃 송암리	24.0	7.5	3.0	1967	
		수 상 교	〃 수상리	8.0	5.0	2.0	1965	

<읍·면별 군도에 놓인 다리 현황>

단위 : m

읍·면별 군도 교량 현황 2004. 12. 현재

교량명	노선 번호	위 치		제 원						구 조			준공 연도	교통량	등급	비 고
		읍 면	리	연장	총 폭	유효 폭	교 고	경간 수	최대 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 하중				
계				**1080.4**												
죽림교	군도5	나산	덕림	40.0	7.5	7.0	4.0	4.0	10.0	RCS	GP	18	1992	577	B	
선박좌교	군도8	나산	용두	30.0	6.5	5.5	4.0	2.0	15.0	RCS	TP	18	1999	78	A	
사정교	군도8	나산	이문	70.0	9.0	8.0	8.6	5.0	15.0	RCS	TP	24	2001	78	A	
초포교	군도8	나산	초포	36.0	4.0	3.0	3.0	4.0	9.0	RCS	GP	13.5	1975	78	C	

정창교	군도2	대동	용성	50.0	9.0	8.0	4.0	4.0	13.0	RCS	GP	24	1997	567	A	
금운교	군도3	대동	용성	37.0	7.5	7.0	5.0	3.0	13.0	RCS	GA	18	1981	1,622	B	
용성교	군도3	대동	용성	90.0	9.0	7.0	8.0	6.0	15.0	RCS	TP	24	1999	1,622	A	
옥동교	군도5	대동	상옥	150.4	8.0	7.0	8.0	5.0	30.0	PSCS	RAP	24	2002	577	B	재가설
교촌1교	군도19	손불	산남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3	2,054	B	
교촌교	군도19	손불	월천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7	2,054	B	
월천교	군도19	손불	월천	21.1	9.0	8.0	3.0	2.0	10.5	RA	RAP	18	1997	2,054	B	
궁산교	군도20	손불	궁산	12.2	8.5	7.1	4.7	1.0	12.2	RCT	GA	18	1981	1,592	B	
산남교	군도20	손불	산남	10.0	8.6	7.1	4.7	1.0	10.0	RCT	GA	18	1983	1,592	D	
동정교	군도9	신광	동정	24.0	9.0	8.0	2.0	2.0	12.0	RCS	GP	24	1997	668	A	
하문교	군도1	엄다	삼정	75.0	8.0	7.2	7.2	6.0	13.0	RCS	GP	24	1999	2,054	A	
송천교	군도1	엄다	송로	68.0	7.9	7.5	2.0	4.0	17.0	RCS	GP	13.5	1965	2,054	C	
사다리교	군도14	엄다	신계	28.7	9.0	8.1	6.5	2.0	14.4	RCS	RAP	24	2004	251	A	재가설
등잔교	군도14	엄다	엄다	40.0	8.0	7.0	3.0	4.0	10.0	RCS	GP	13.5	1993	75	B	
주전교	군도17	월야	계림	40.0	9.0	8.0	4.0	4.0	10.0	RCS	GP	24	2002	78	A	재가설
춘부교	군도17	월야	정산	23.0	9.0	8.0	4.0	2.0	11.5	RA	ETC	24	2001	78	A	
평촌교	군도7	월야	월야	33.0	8.8	8.3	6.2	3.0	11.0	RCS	GP	24	2003	2,697	A	재가설 (전남도)
군정교	군도3	학교	마산	36.0	8.0	7.5	5.0	4.0	9.0	RCS	RAP	24	1992	1,622	B	
죽정교	군도3	학교	죽정	9.0	8.0	7.0	4.0	1.0	9.0	RCS	GP	24	2000	1,622	A	
상모교	군도13	해보	상곡	25.0	9.0	8.0	4.5	2.0	12.5	RCS	RAP	24	2000	251	A	
대성교	군도13	해보	용산	84.0	8.0	7.0	8.3	6.0	14.0	RCS	RAP	24	2000	251	A	
	읍면별	교량수		연장												
	함평															
	손불	5		91.3												
	신광	1		24.0												
	학교	2		45.0												
	엄다	4		211.7												
	대동	4		327.4												
	나산	4		176.0												
	해보	2		109.0												
	월야	3		96.0												

	총계	25		1080.4												

<함평군 교량(등급별) 현황>

함평군 교량(등급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계				**2492.6**												
하문교	군도1	엄다	삼정	75.0	8.0	7.2	7.2	6.0	13.0	RCS	GP	24	1999	2,054	A	
송천교	군도1	엄다	송로	68.0	7.9	7.5	2.0	4.0	17.0	RCS	GP	13.5	1965	2,054	C	
정창교	군도2	대동	용성	50.0	9.0	8.0	4.0	4.0	13.0	RCS	GP	24	1997	567	A	
금운교	군도3	대동	용성	37.0	7.5	7.0	5.0	3.0	13.0	RCS	GA	18	1981	1,622	B	
용성교	군도3	대동	용성	90.0	9.0	7.0	8.0	6.0	15.0	RCS	TP	24	1999	1,622	A	
군정교	군도3	학교	마산	36.0	8.0	7.5	5.0	4.0	9.0	RCS	RAP	24	1992	1,622	B	
죽정교	군도3	학교	죽정	9.0	8.0	7.0	4.0	1.0	9.0	RCS	GP	24	2000	1,622	A	
죽림교	군도5	나산	덕림	40.0	7.5	7.0	4.0	4.0	10.0	RCS	GP	18	1992	577	B	
옥동교	군도5	대동	상옥	150.4	8.0	7.0	8.0	5.0	30.0	PSCS	RAP	24	2002	577	B	재가설
평촌교	군도7	월야	월야	33.0	8.8	8.3	6.2	3.0	11.0	RCS	GP	24	2003	2,697	A	재가설(전남도)
선박좌교	군도8	나산	용두	30.0	6.5	5.5	4.0	2.0	15.0	RCS	TP	18	1999	78	A	
사정교	군도8	나산	이문	70.0	9.0	8.0	8.6	5.0	15.0	RCS	TP	24	2001	78	A	
초포교	군도8	나산	초포	36.0	4.0	3.0	3.0	4.0	9.0	RCS	GP	13.5	1975	78	C	
동정교	군도9	신광	동정	24.0	9.0	8.0	2.0	2.0	12.0	RCS	GP	24	1997	668	A	
상모교	군도13	해보	상곡	25.0	9.0	8.0	4.5	2.0	12.5	RCS	RAP	24	2000	251	A	
대성교	군도13	해보	용산	84.0	8.0	7.0	8.3	6.0	14.0	RCS	RAP	24	2000	251	A	
사다리교	군도14	엄다	신계	28.7	9.0	8.1	6.5	2.0	14.4	RCS	RAP	24	2004	251	A	재가설
등잔교	군도14	엄다	엄다	40.0	8.0	7.0	3.0	4.0	10.0	RCS	GP	13.5	1993	75	B	농어촌
주전교	군도17	월야	계림	40.0	9.0	8.0	4.0	4.0	10.0	RCS	GP	24	2002	78	A	재가설
춘부교	군도17	월야	정산	23.0	9.0	8.0	4.0	2.0	11.5	RA	ETC	24	2001	78	A	
교촌1교	군도19	손불	산남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3	2,054	B	
교촌교	군도19	손불	월천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7	2,054	B	
월천교	군도19	손불	월천	21.1	9.0	8.0	3.0	2.0	10.5	RA	RAP	18	1997	2,054	B	
궁산교	군도20	손불	궁산	12.2	8.5	7.1	4.7	1.0	12.2	RCT	GA	18	1981	1,592	B	
산남교	군도20	손불	산남	10.0	8.6	7.1	4.7	1.0	10.0	RCT	GA	18	1983	1,592	D	
송암1교	나산102	나산	송암	14.4	6.0							13.5	1900		C	
용두2교	나산103	나산	용두	27.0	5.0							18	1989		B	
안영교	나산201	나산	월봉	9.4	4.3							13.5	1945		C	
회룡동교	나산202	나산	용두	37.0	6.5							18	1998		A	
환곡교	나산203	나산	이문	100.0	7.0							18	1994		A	
구산1교	나산204	나산	구산	33.5	6.4							6	1900		B	2002 보수

함평군 교량(등급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원선교	나산204	나산	원선	30.0	4.7							13.5	1900		C	2002 보수
유촌교	나산204	나산	원선	33.0	6.4							13.5	1992		B	
용두3교	나산206	나산	용두	30.3	6.5							18	1999		A	
오수교	나산207	나산	이문	70.0	9.0							24	2001		A	
삼구동교	나산208	나산	구산	26.2	6.4							13.5	1900		C	
원이문교	나산302	나산	이문	93.5	5.0							13.5	1985		C	
회화정교	나산304	나산	이문	35.0	6.5							18	1998		A	
석호교	대동101	대동	백호	16.0	9.0							24	1996		A	
주평교	대동206	대동	강운	16.0	8.7							18	1992		B	
유록2교	손불201	손불	산남	16.0	8.6							18	1997		D	
유록1교	손불202	손불	산남	15.0	2.0							13.5	1900		D	
유록3교	손불207	손불	산남	16.0	8.0							13.5	1900		C	
계천1교	신광101	신광	계천	39.0	4.5							18	2001		A	
계천2교	신광101	신광	계천	40.6	4.0							13.5	1900		B	
괴치교	신광101	신광	복흥	27.0	4.0							13.5	1900		B	
복흥2교	신광101	신광	복흥	31.7	4.0							13.5	1984		B	
복흥교	신광101	신광	복흥	32.0	4.0							13.5	1984		B	
수정교	신광102	신광	동정	27.0	6.0							13.5	1900		B	
삼향교	신광201	신광	동정	27.0	3.3							13.5	1984		B	
가야교	신광201	신광	백운	32.0	6.0							18	1994		D	
저동교	신광305	신광	백운	26.0	7.3							13.5	1984		C	
석계교	신광307	신광	복흥	27.0	4.9							13.5	1900		B	
세월교	엄다203	엄다	화양	46.4	7.0							24	1999		A	
중배1교	엄다301	함평	내교	10.2	4.5							18	1997		A	
중배2교	엄다301	엄다	화양	10.2	4.5							18	1997		A	
중배3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18	1997		A	
중배4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18	1997		A	
중배5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18	1997		A	

함평군 교량(등급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중배6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18	1997		A	
중배7교	엄다301	엄다	성천	20.0	4.5							18	1997		A	
중배8교	엄다301	엄다	성천	20.0	4.5							18	1997		A	
중배9교	엄다301	엄다	성천	22.0	4.5							18	1997		A	
중배10교	엄다301	엄다	성천	22.0	4.5							18	1997		A	
중배11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18	1997		A	
중배12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18	1997		A	
중배13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18	1997		A	
시목교	월야102	월야	계림	40.0	4.3							13.5	2003		A	
정산교	월야308	월야	정산	23.0	7.0							24	1999		A	
평정교	학교203	학교	마산	24.0	5.5							13.5	1997		A	
가금교	함평203	함평	진양	60.0	5.0							13.5	1900		B	
만년교	함평302	함평	만흥	16.0	5.5							13.5	1993		B	2002 보수
주현교	해보201	해보	문장	8.8	7.0							18	2002		A	
구계교	해보202	해보	금덕	7.0	4.5							4	1999		A	
문암교	해보301	해보	문장	9.0	5.2							24	1998		A	

함평군 교량(년도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계	**75**	**개소**		**2492.6**												
사다리교	군도14	엄다	신계	28.7	9.0	8.1	6.5	2.0	14.4	RCS	RAP	24	2004	251	A	재가설
평촌교	군도7	월야	월야	33.0	8.8	8.3	6.2	3.0	11.0	RCS	GP	24	2003	2,697	A	재가설(전남도)
주전교	군도17	월야	계림	40.0	9.0	8.0	4.0	4.0	10.0	RCS	GP	24	2002	78	A	재가설
옥동교	군도5	대동	상옥	150.4	8.0	7.0	8.0	5.0	30.0	PSCS	RAP	24	2002	577	B	재가설
춘부교	군도17	월야	정산	23.0	9.0	8.0	4.0	2.0	11.5	RA	ETC	24	2001	78	A	
사정교	군도8	나산	이문	70.0	9.0	8.0	8.6	5.0	15.0	RCS	TP	24	2001	78	A	
대성교	군도13	해보	용산	84.0	8.0	7.0	8.3	6.0	14.0	RCS	RAP	24	2000	251	A	
상모교	군도13	해보	상곡	25.0	9.0	8.0	4.5	2.0	12.5	RCS	RAP	24	2000	251	A	
죽정교	군도3	학교	죽정	9.0	8.0	7.0	4.0	1.0	9.0	RCS	GP	24	2000	1,622	A	
하문교	군도1	엄다	삼정	75.0	8.0	7.2	7.2	6.0	13.0	RCS	GP	24	1999	2,054	A	
용성교	군도3	대동	용성	90.0	9.0	7.0	8.0	6.0	15.0	RCS	TP	24	1999	1,622	A	

함평군 교량(년도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선박좌교	군도8	나산	용두	30.0	6.5	5.5	4.0	2.0	15.0	RCS	TP	18	1999	78	A	
교촌교	군도19	손불	월천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7	2,054	B	
월천교	군도19	손불	월천	21.1	9.0	8.0	3.0	2.0	10.5	RA	RAP	18	1997	2,054	B	
정창교	군도2	대동	용성	50.0	9.0	8.0	4.0	4.0	13.0	RCS	GP	24	1997	567	A	
동정교	군도9	신광	동정	24.0	9.0	8.0	2.0	2.0	12.0	RCS	GP	24	1997	668	A	
등잔교	군도14	엄다	엄다	40.0	8.0	7.0	3.0	4.0	10.0	RCS	GP	13.5	1993	75	B	
교촌1교	군도19	손불	산남	24.0	9.0	8.0	3.0	2.0	12.0	RCS	GP	18	1993	2,054	B	
군정교	군도3	학교	마산	36.0	8.0	7.5	5.0	4.0	9.0	RCS	RAP	24	1992	1,622	B	
죽림교	군도5	나산	덕림	40.0	7.5	7.0	4.0	4.0	10.0	RCS	GP	18	1992	577	B	
산남교	군도20	손불	산남	10.0	8.6	7.1	4.7	1.0	10.0	RCT	GA	18	1983	1,592	D	
궁산교	군도20	손불	궁산	12.2	8.5	7.1	4.7	1.0	12.2	RCT	GA	18	1981	1,592	B	
금운교	군도3	대동	용성	37.0	7.5	7.0	5.0	3.0	13.0	RCS	GA	18	1981	1,622	B	
초포교	군도8	나산	초포	36.0	4.0	3.0	3.0	4.0	9.0	RCS	GP	13.5	1975	78	C	2007
송천교	군도1	엄다	송로	68.0	7.9	7.5	2.0	4.0	17.0	RCS	GP	13.5	1965	2,054	C	
시목교	월야102	월야	계림	40.0	4.3							13.5	2003		A	
주현교	해보201	해보	문장	8.8	7.0							18	2002		A	
오수교	나산207	나산	이문	70.0	9.0							24	2001		A	
계천1교	신광101	신광	계천	39.0	4.5							18	2001		A	
용두3교	나산206	나산	용두	30.3	6.5							18	1999		A	
세월교	엄다203	엄다	화양	46.4	7.0							24	1999		A	
정산교	월야308	월야	정산	23.0	7.0							24	1999		A	
구계교	해보202	해보	금덕	7.0	4.5							4	1999		A	
회룡동교	나산202	나산	용두	37.0	6.5							18	1998		A	
회화정교	나산304	나산	이문	35.0	6.5							18	1998		A	
문암교	해보301	해보	문장	9.0	5.2							24	1998		A	
환곡교	나산203	나산	이문	100.0	7.0							18	1994		A	
원이문교	나산302	나산	이문	93.5	5.0							13.5	1985		C	
가금교	함평203	함평	진양	60.0	5.0							13.5	1900		B	
계천2교	신광101	신광	계천	40.6	4.0							13.5	1900		B	
구산1교	나산204	나산	구산	33.5	6.4							6	1900		B	2002 보수
유촌교	나산204	나산	원선	33.0	6.4							13.5	1992		B	
복흥교	신광101	신광	복흥	32.0	4.0							13.5	1984		B	
가야교	신광201	신광	백운	32.0	6.0							18	1994		D	
복흥2교	신광101	신광	복흥	31.7	4.0							13.5	1984		B	
원선교	나산204	나산	원선	30.0	4.7							13.5	1900		C	2002 보수
용두2교	나산103	나산	용두	27.0	5.0							18	1989		B	
괴치교	신광101	신광	복흥	27.0	4.0							13.5	1900		B	
수정교	신광102	신광	동정	27.0	6.0							13.5	1900		B	
삼향교	신광201	신광	동정	27.0	3.3							13.5	1984		B	

함평군 교량(년도별) 현황 2009. 12. 현재

교량명	노선번호	위치		제원						구조			준공연도	교통량	등급	비고
		읍면	리	연장	총폭	유효폭	교고	경간수	최대경간장	상부	하부	설계하중				
석계교	신광307	신광	복흥	27.0	4.9							13.5	1900		B	
삼구동교	나산208	나산	구산	26.2	6.4							13.5	1900		C	
저동교	신광305	신광	백운	26.0	7.3							13.5	1984		C	
평정교	학교203	학교	마산	24.0	5.5							13.5	1997		A	
중배10교	엄다301	엄다	성천	22.0	4.5			2.0				18	1997		A	
중배11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2.0				18	1997		A	
중배12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2.0				18	1997		A	
중배13교	엄다301	엄다	학야	22.0	4.5			2.0				18	1997		A	
중배9교	엄다301	엄다	성천	22.0	4.5			2.0				18	1997		A	
중배3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2.0				18	1997		A	
중배4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2.0				18	1997		A	
중배5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2.0				18	1997		A	
중배6교	엄다301	엄다	화양	20.0	4.5			2.0				18	1997		A	
중배7교	엄다301	엄다	성천	20.0	4.5			2.0				18	1997		A	
중배8교	엄다301	엄다	성천	20.0	4.5			2.0				18	1997		A	
석호교	대동101	대동	백호	16.0	9.0							24	1996		A	
주평교	대동206	대동	강운	16.0	8.7							18	1992		B	
유록2교	손불201	손불	산남	16.0	8.6							18	1997		D	
유록3교	손불207	손불	산남	16.0	8.0							13.5	1900		C	
만년교	함평302	함평	만흥	16.0	5.5							13.5	1993		B	2002 보수
유록1교	손불202	손불	산남	15.0	2.0							13.5	1900		D	
송암1교	나산102	나산	송암	14.4	6.0							13.5	1900		C	
중배1교	엄다301	함평	내교	10.2	4.5			1.0				18	1997		A	
중배2교	엄다301	엄다	화양	10.2	4.5			1.0				18	1997		A	
안영교	나산201	나산	월봉	9.4	4.3							13.5	1945		C	

이상 소개한 다리 중 몇 개의 다리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영수교(潁水橋)

-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1530년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교량조에 대교(大橋)로 수록되어 있는 다리로 대천(大川. 영수천의 원래 이름)에 있는 다리라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당시 이 다리에 대한 규모나 건재 등에 대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으나 함평군에서 먼저 놓인 다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함평교가 개통되기 전인 1920년대 초에 목조로 놓은 다리는 함평천(원래 영수천)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였다.



함평에서 영산포나 광주쪽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 나산선으로, 영산포쪽은 향교 느티나무 숲을 지나 학교면 마산리쪽으로 갔다.

1930년에 간행한 속수 함평지 교량조에는 영천교(潁川橋)라 기록되어 있고 1953년 홍수로 인해 목조 다리가 유실되고 1954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신설하여 영수교라 이름 하였는데 이 다리가 낡고 좁아 1994년에 현재의 다리를 준공하였으며 당시 교량을 설치하면서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건너다닐 때에 위험성이 내포된 채 수년이 지난 2008년에 다리의 남쪽 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다리에 붙여 설치하였다.

2) 함평교(咸平橋)

-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거멍다리"로 널리 알려진 다리다.

1925년 함평에 궤도차가 운행되면서 개통되었던 이 다리는 목조였고 나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를 칠해 거멓게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함평교(咸平橋, 거멍다리, 1983)

목조의 다리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 7월 22일 밤에 공산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폭파하였고 1954년에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가설하였으나 그 다리가 낡고 폭이 좁아 1996년에 현재의 다리를 준공하였다.

3) 장산교(長山橋)

- **소재지** : 신광면 계천리

이 다리는 1871년에 간행한 「함평현지」에는 장성교(長城橋), 고종 때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에는 장생교(長生橋), 1907년 「함평군지」에는 장승교(長承橋)로 표기되었다.

현재의 다리는 함평과 영광간의 국도를 포장하면서 1980년에 준공하였는데 장산교(長山橋)라 이름 붙여 있다.

전에 이 다리 앞에 목장승이 서 있었다.

장승은 장생(長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민속신앙에서는 마을 수호신으로 신격화 되었고 잇수(里數)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 다리의 이름은 장승에서 유래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장산교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승의 뜻이 담긴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4) 학야교(鶴野橋)

• **소재지** : 엄다면 학야리

1530년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제교(泥梯橋)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제포에 있는 다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후에 이제포는 토교포로 바뀌고 이제교는 토교(土橋)로 바뀌어 1925년 나무다리를 놓을 때까지 있었다.

1925년에 가설된 목교는 1969년에 철거되고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으며 이 다리는 광주 목포간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해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 1996년에 완공하였다. 학야교라는 이름은 이 다리가 학야리에 소재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막교

5) 고막교(古幕橋)

• **소재지** : 학교면 고막리

함평에 있는 다리 중 길이가 제일 길다.

1974년에 준공한 콘크리트 다리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홍수 때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영산강 직강 공사와 함께 1983년에 교각의 높이를 올려 준공 했고, 그 뒤 광주 목포간 4차선 확장 포장 때 재시공하여 지금의 다리를 놓았다.

6) 고막석교(古幕石橋)

• **소재지** : 학교면 고막리

고려 원종 때 고막대사가 신술을 부려 놓았다는 전설이 있는 이 다리는 한국에서 옛 국도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돌다리며 1481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 나주목 교량조에 고막교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려 원종 때 놓았다는 전설이 사실이 아닐까 여겨진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다.

<이하 자세한 것은 고려시대의 유적 유물항을 볼 것>

7) 나산교(羅山橋)

• **소재지** : 나산면 나산리

1871년 「함평현읍지」에 도천교(道川橋)로 나와 있는 이 다리의 이름은 도천(道川)에 있는 다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도천은 우리말 돛내가 한자로 바뀌면서 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59년에 목조 다리를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며 나산교로 이름 붙였는데 그 다리가 난간도 없고 비좁으며 높이가 낮아 잠수교 상태여서 1980년에 위치를 약간 바꾸어 지금의 다리를 놓았다.



나산교

8) 대창교(大倉橋)

• **소재지** : 해보면 대창리

「여지도서」(여地도서. 1757~1765 발간)에는 저천교(猪川橋)로, 1906년 그리고 1930년에 발간한 함평군지에는 한천교(鶾川橋)로 기록되어 있다.

1965년에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며 대창리에 소재하는 다리라하여 대창교로 이름 하였고 1995년에 지금의 다리를 재 준공하였다.



대창교

9) 구밀교(求密橋)

• **소재지** : 해보면 문장리

여지도서와 1871년에 간행한 「함평현읍지」에는 작천교(鵲川橋. 까치내다리), 1907년 「함평군지」에는 수박교(水泊橋), 1930년 간행 「함평군지」에는 구밀교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다리 이름이기도한 구밀교는 마을 이름에서 고량명이 유래한다.

현재 문장리의 귀밀 지명은 마을 형국이 거북의 꼬리와 같다하여 "구(귀)미-龜尾)라 하였다. "龜"자가 구 또는 귀로 읽는데서 구미(龜尾)→구밀(求密)로 표기되었는데 현재는 귀밀(歸密)로 쓰고 있다.

이는 귀미(龜尾)→귀밀(歸密)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

현재는 마을 이름이 귀밀로 바뀌었지만 일제강점때인 1919년 목조다리를 놓을 때 붙여진 구밀교로 그대로 쓰고 있다.

목조다리는 1976년 영광과 송정리 사이의 국도가 정비될 때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고 1990년대 초에 지금의 다리를 재 준공하였다.

10) 동강대교(東江大橋)

• **소재지** :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사포나루)



영산강의 중간부에 있는 함평에 있는 다리 중 길이가 제일 긴 다리로 옛날의 사포나루터에 놓여 함평과 나주를 오가는 사람이 빈번했던 곳 국도 23호선을 연결한 곳이다

1990년에 준공한 콘크리트 다리로 길이가 무려 500m이며 경간만도 10개인 2차선 도로로 하루 교통량만도 4,500여회에 이르며 나주시를 비롯한 저멀리 완도군까지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이 다리를 통과하고 있다.

제3절 함평군의 철도(鐵道)

1. 호남선(湖南線)



1900년 7월 경인선 개통(1897년 착공), 1905년 경부선 개통(1901년 착공), 1906년 경의선 개통으로 우리 나라는 철도 운송시대에 접어들었다.

함평군 관내 역을 통과하는 철도는 호남선이다.

호남선 부설권은 1904년 호남철도주식회사라는 민간 회사에 부여되었다.

이 회사는 1904년 5월 당시 한국철도원(韓國鐵道院)[369] 총재였던 신기선(申箕善)이 주선하여 국내부 고문이었던 이윤용(李允用)을 사장으로 하고 운수회사 총사무장 서오순(徐午淳)을 전무로 하여 구성한 회사였다.

허가 조건을 보면,

① 자본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 할 것

②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인가를 취소함은 물론 청원인을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③ 준공 기일 등 상세한 규정을 정하여 계출(屆出)할 것

이 인가서를 볼 때 정부가 얼마나 민족 자영(民族自營)의 뜻을 갈망했는가 짐작할 수 있다.

호남철도주식회사 설립이 공포되자 거국적인 후원운동이 일어나 모금운동을 전개하기까지 하였고, 이 열화 같은 호응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기점(起點)을 충남 괴산(槐山)에서 조치원(鳥致院)으로 변경하고 철도 답사를 착수 1906년 10월까지 조치원에서 강경구간의 측량을 끝내고 노반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인 거류민 단체가 구성되자 황금 알을 낳는 이 공사를 한국인에게 맡겨둘리가 없었다.

일본인들은 독자적으로 1906년 겨울부터 1908년 1월까지 전구간의 측량을 마친 후 통감부에 군사상, 국방상 중대한 철도 부설권을 개인에게 인가함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유했다.

조선 정부는 그들의 압력에 의해 1909년 호남철도주식회사에게 인가장을 회수하는 대가로 12만 9천여원을 보상했다.

전 국민의 바램이었던 호남선 자영이라는 꿈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10월 대전과 목포에서 호남선 철도 기공식이

369) 궁내부(宮內部)에 설치된 철도사무 관장 부서.

거행되었다.

목포에서 정읍까지의 호남선 철도 선로공사는 구간 구간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기별	공 사 구 간	거리(㎞)	착 공	개 통	참 고
제1기	목포역 - 학교역	35.2	1910.10	1913. 5.15	엄다면 영흥리 - 학교면 고막리 10.8㎞
제2기	학교역 - 나주역	13.3	1912. 4	1913. 7. 1	
제3기	나주역 - 송정리	8.7	1912.10	1913.10. 1	
제4기	송정리 - 정읍역	35.5	1912.	1914. 1.11	호남선 전구간 개통식 1914. 1. 22

호남선 송정리 - 목포간 복선화 공사가 2001년에 끝났으며, 학교역은 사거리로 옮겨지고 역 이름도 함평역으로 바뀌었다.

2. 함평역(咸平驛)

(1) 소 재 지 :

학교면 학교리 492-1번지



(2) 역사현황 :

• 건 물

- 함평역사 : 1,232.99㎡.
- 화물취급소 : 87㎡.

• 토 지

- 역사 및 광장부지 : 5,400㎡
- 화물상옥부지 : 4,300㎡

(3) 연 혁

•1913. 05. 15 : 광주 - 목포간 열차 개통,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1928. 12. 25 : 전기 가설로 색등화
•1982. 10. 20 : 역사 신축 준공
•1985. 10. 26 : 건널목 2종 수동에서 1종 자동으로 승격
•1986. 12. 17 : 선로 변경(상, 하 본선에서 주, 부본선으로) 및 홈 40m 연장
•1992. 08. 10 : 건널목 신역사 준공
•2000. 12. 18 : 건널목 무인1종화
•2001. 12. 05 : 신 역사 이전 및 영업개시, 함평역으로 이전과 동시 개칭
새마을호 왕복3개 열차 정차
•2003. 10. 24 : 자동폐색시 변경(CTC취급)
•2004. 04. 01 : KTX운행영업개시(통과)

(4) 철도 운송 실적

아래 표를 살펴보면 학교역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타고 내린 해는 1977년으로 백만 명을 넘었었다.

그리고 여객이 많았던 1980년대 초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서 오는 까닭도 있으나 시간상 제약을 덜 받는 공용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연유할 것이다.

화물 운송 실적 중 발송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2천톤 이하로 급격히 줄었고 특히 1996년에는 317t에 머무는 저조를 보였다.

발송화물 역시 자동차 운송이 많아진 까닭으로 보며 도착화물은 1990년대 이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소화물 발송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1990년대 이후 4만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

<학교역의 철도 운송 실적>

단위 : 금액 천원. 인원 명. 화물 M/t. 소화물 개

구분 / 연도	총수입액	여객운송			화물운송			소화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	도착	화물수입	발송	수입
1970	79,352	321,264	304,885	57,285	18,858	15,864	22,067		
1975	172,830	322,000	318,400	156,666	14	25	16,164		
1977	207,158	697,691	351,400	183,442	11,751	31,580	23,716		
1980	498,039	344,421	351,004	365,738	31,560	34,895	133,025		
1981	529,865	339,421	328,909	468,531	9,620	39,381	60,712		
1982	526,920	332,502	335,055	463,055	16,200	40,939	90,915		
1983	711,875	276,387	265,075	555,876	21,258	39,063	126,428	29,172	29,571
1984	743,474	251,393	241,293	574,802	21,133	31,428	137,600	26,814	31,072
1985	757,182	250,560	247,747	592,967	19,980	25,669	132,166	26,782	32,049
1986	666,595	231,363	235,043	581,457	7,109	29,345	52,734	26,790	32,404
1987	628,523	212,385	205,737	570,721	3,544	25,592	25,570	26,539	32,232
1988	655,060	218,539	202,416	582,497	4,638	23,509	35,554	31,979	37,009
1989	690,524	205,934	185,508	579,902	6,502	28,416	48,836	34,711	43,786
1990	704,308	205,619	177,323	642,739	2,341	26,777	18,741	38,177	42,828
1991	771,167	193,906	199,416	696,565	1,647	23,556	16,336	44,842	57,266
1992	752,052	190,803	199,277	676,657	476	26,482	6,703	46,640	68,692
1993	780,271	173,426	177,079	681,449	823	24,139	24,239	43,115	74,583
1994	828,530	163,249	164,443	732,040	1,652	25,820	15,530	45,414	80,960
1995	853,227	143,566	140,720	757,486	1,397	28,105	16,430	41,671	79,312
1996	862,736	141,153	131,684	768,084	317	23,647	5,080	42,594	89,572
1997	936,561	141,894	120,242	848,630	117	23,164	4,844	38,669	83,086
1998	969,217	126,715	120,062	890,123	1,230	19,393	9,594	30,423	69,500
1999	1,045,072	123,882	107,187	988,610	510	16,755	7,583	20,315	48,880
2000	1,018,202	117,216	130,164	975,820	392	30,015	7,662	14,061	34,730
2001	1,030,695	116,032	113,840	1,003,364	189	98,074	4,461	8,275	22,870
2002	1,061,813	99,958	97,917	1,036,693	1,514	14,843	10,528	4,528	14,592
2003	1,098,501	104,378	98,877	1,082,021	400	8,709	3,645	4,098	12,835
2004	961,013	77,610	80,216	940,808	664	14,117	9,369	539	10,836
2005	936,467	75,282	80,670	922,738	0	9,472	3,911	2,843	9,817
2006	931,933	73,100	78,430	925,686	0	5,158	4,843	512	1,403
2007	899,766	63,270	66,348	895,116	43	1,179	4,649	–	–
2008	941,835	66,442	70,215	937,715	32	13,852	4,119	–	–

(6) 역대 역장

대	성	명	취임	이임	대	성	명	취임	이임
1	노동래	盧東來	1945. 10. 01	1946. 08. 24	19	박영진	朴永鎭	1972. 07. 25	1974. 06. 23
2	고재휴	高在休	1946. 08. 25	1949. 04. 26	20	최영봉	崔泳鳳	1974. 06. 24	1975. 11. 30
3	이봉대	李鳳大	1949. 04. 27	1951. 11. 21	21	이규환	李圭桓	1975. 12. 01	1976. 06. 10
4	오광선	吳光鮮	1951. 11. 22	1953. 04. 02	22	문기식	文基植	1976. 06. 11	1980. 08. 05
5	신봉균	申鳳均	1953. 04. 03	1960. 06. 07	23	김창진	金昌進	1980. 08. 06	1984. 06. 26
6	기판복	奇判福	1960. 06. 08	1960. 12. 20	24	안창평	安昌平	1984. 06. 27	1986. 01. 08
7	박일량	朴一亮	1960. 12. 21	1961. 03. 15	25	김경섭	金庚燮	1986. 01. 09	1990. 06. 30
8	곽남영	郭南榮	1961. 03. 16	1962. 04. 04	26	정금래	鄭今來	1990. 07. 01	1994. 06. 30
9	한병욱	韓炳旭	1962. 04. 05	1962. 11. 26	27	강대준	姜大俊	1994. 07. 01	1996. 12. 30
10	강상수	姜湘洙	1962. 11. 27	1963. 05. 09	28	진용국	陳庸國	1996. 12. 31	1998. 12. 30
11	범주식	范周植	1963. 05. 10	1964. 05. 09	29	오백윤	吳栢閏	1998. 12. 30	2000. 12. 31

12	변태선	卞泰善	1964. 05. 10	1965. 04. 01	30	김병기	金炳基	2001. 01. 01	2004. 06. 30
13	장병남	張炳南	1965. 04. 02	1967. 09. 25	31	송용훈	宋鎔熏	2004. 06. 30	2006. 05. 18
14	최태현	崔泰鉉	1967. 09. 26	1968. 06. 30	32	안종옥	安鍾玉	2006. 05. 18	2006. 06. 30
15	유민상	劉珉祥	1968. 07. 01	1968. 12. 04	33	김경태	金京泰	2006. 06. 30	2006. 12. 14
16	한병욱	韓炳旭	1968. 12. 05	1970. 03. 14	34	정행주	鄭倖州	2006. 12. 15	2009. 01. 01
17	국재호	鞠在鎬	1970. 03. 15	1970. 12. 06	35	정대천	鄭大川	2009. 01. 02	현재
18	장동길	張東吉	1970. 12. 07	1972. 07. 24	36				

3. 함평궤도회사(咸平軌道會社)

1925년 지방 유지들의 발의로 학교역과 함평읍을 연결하는 6.8㎞에 궤도를 부설하고 궤도차(軌道車)가 함평읍과 학교역간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며 함평과 영광간의 버스 여객을 연결시켜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함평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제강점 말년에 접어들면서 물자 궁핍과 함평교(咸平橋. 거멍다리) 보수공사 중단으로 해방 직후까지 운행을 중단한 적이 있다.

광복이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봉주(崔鳳主)의 주선으로 미군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운행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함평의 교통 편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궤도 노선의 노후와 궤도차의 수명 한계, 또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노선 협소는 물론 여객과 화물의 감소로 1960년 12월 20일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철로는 철거되어 경기도의 궤도 노선을 수리 보강하는데 쓰였다.

이리하여 서울 남쪽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이 고장의 명물 궤도차는 아쉽게도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궤도차

4. 대한통운(주) 학교출장소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74-55번지

2) 연 혁

- •1914.01.01 : 조선운송주식회사 학교출장소 개업
- •1945.08.15 : 한국운송주식회사 학교출장소로 개칭
- •1962.01.01 :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함평출장소로 개칭
- •1963.01.01 : 대한통운주식회사 학교출장소로 개칭

•2001.12.05 : 학교면 사거리 함평신역으로 이전

3) 구비장비

: 차량 – 11톤 트럭 1대, 25톤 트럭 3대, 컨베이어 1대, 지게차 1대

4) 역대 출장소장(광복 이후)

•1대 지승만(池承萬) 1945. ~ 1964.
•2대 이재욱(李載郁) 1964. ~ 1972. 04. 09
•3대 박종탁(朴鍾卓) 1972. 04. 10 ~ 2002. 10
•4대 정경원 2002. 10. ~ 현 재

5) 취급 물량

단위 :톤

연 도	양 곡	비 료	양 회	비 고
2003		4,163	2,116	
2004	4,178	7,098	2,377	
2005	15,745	6,090		
2006	6,135	4,557		
2007	11,756	10,028		
2008	9,983	12,277		
2009	7,315	14,402		

제4절 운수업(運輸業)

1. 차량(車輛) 보유 현황

1962년과 1996년의 군내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자가용 승용차는 1962년에는 1대도 없었고 1967년에야 겨우 2대였는데 1996년말에는 3,106대, 자가용 승합차도 역시 1대도 없었으나 466대가 되었었으며, 1962년에 군내 전체 보유차량 대수가 22대 뿐이던 것이 1996년말에 6,547로 2.6세대당 1대, 8.9인당 1대 꼴이 되었으니 실로 엄청나게 불었다.

1992년부터는 1년에 1천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업용 화물차는 17대에서 129대가 되었고, 자가용 화물차는 1대도 없었으나 1996년말에는 2,565대, 관용 화물차도 2대에서 34대로 늘었다.

지금은 운송의 주역을 화물 자동차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생기는 등 도로 확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62년에 264대이던 우마차(牛馬車)는 증가 추세를 보여 1969년에는 800대로 늘어나 운송의 주역을 담당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동력경운기[370]가 농촌의 화물을 거의 운반하게 되어 우마차는 1975년경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영업용 버스는 함평여객 때인 1961년에 단 1대였으나 광진교통으로 회사명이 바뀐 1971년에는 28대, 1983년말에는 67대를 보유했었다.

택시는 1966년까지 광주의 신흥택시가 함평에 영업소를 개설해 4대를 운행했었고 1967년에 함평택시회사가 설립되어 11대를 보유했으며 1970년대 말에 한시택시와 개인택시제가 생겼고 이제는 함평읍을 위시하여 각 면마다 택시회사가 설립되어 영업 중이며 개인택시 또한 불어나 1996년말 현재 영업용 택시는 131대가 등록되어 있다.

함평군의 차량보유 변화 현황은 <표 1-1, 1-2, 1-3>와 같다.

<표 1-1> 함평군의 차량 보유 현황 (1962~1982)

( ) 숫자는 함평군에서 영업하는 댓수임. 화물차는 제일화물의 다른 회사차까지 포함됨
버스 : 1970년까지 함평여객. 그 후 광진교통
화물 : 함평제일화물
우마차 통계는 경운기 등장으로 감소되어 1974년 이후 기록이 없음

구분 / 연별	화물차		버스		택시		우마차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소	말
1962	17		(1)		1	4		264
1963	17		(1)		1	4		264
1967	17(5)	3	(1)		11	2	473	82
1968	17(9)	3	(2)		9		446	176
1969	17(13)	7	(2)		14	1	693	114
1970	17(11)	10	(2)		16	1	543	95

370) 동력경운기 : 1966년 군내 보유 2대. 1982년말 2,051대. 농용 트랙터 37대 보유.

구분 / 연별	화물차		버스		택시		우마차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소	말
1971	33(11)	7	28(4)		21	4	527	46
1972	33(20)	9	28(4)		25	4	564	47
1973	52(20)	12	33		25	4	567	54
1974	52(12)	13	47		23	7		
1975	69(12)	37	59	1	23	17		
1976	69(12)	37	57		21	15		
1977	69(12)	89	48	1	23	31		
1978	78(12)	89	58	1	27	54		
1979	78(22)	139	58	2	38	68		
1980	78(20)	177	58	2	39	62		
1981	78(27)	181	58	2	46	49		
1982	78(27)	203	58	10	56	55		

<표 1-2> 함평군의 차량 보유 현황 (1983~1996)

구분 / 연별	총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83	460	44	314	102	151	13	72	66	23	2	21		286	29	221	36				
'84	520	27	384	109	173	11	93	69	25	3	22		322	13	269	40				
'85	628	27	487	114	194	11	111	72	42	3	39		392	13	337	42				
'86	715	34	542	139	208	12	120	76	69	3	48	18	438	19	374	45				
'87	828	42	634	152	228	13	132	83	103	4	82	17	497	25	420	52				
'88	1,004	46	795	163	268	15	168	85	144	4	122	18	592	27	505	60				
'89	1,279	49	1,032	198	397	17	279	101	181	4	159	18	701	28	594	79				
'90	1,728	55	1,463	210	581	20	450	111	264	5	234	25	883	30	779	74				
'91	2,158	61	1,872	225	764	21	632	111	315	5	283	27	1,079	35	957	87				
'92	2,705	74	2,375	256	1,044	17	905	122	369	15	326	28	1,283	36	1,144	103	9	6		3
'93	3,518	77	3,154	287	1,457	20	1,306	131	409	16	363	30	1,641	38	1,481	122	11	3	4	4
'94	4,401	81	4,092	293	1,951	19	1,798	134	454	20	401	33	1,986	39	1,820	127	10	3	3	4
'95	5,508	80	5,106	322	2,615	17	2,488	130	492	23	415	54	2,388	37	2,218	133	13	3	5	5
'96	6,547	77	6,141	329	3,257	16	3,106	135	550	27	466	57	2,728	34	2,565	129	12	-	4	8

<표 1-3> 함평군의 차량 보유 현황 (1997~2008)

구분 / 연별	총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97	7,390	88	6,980	322	3,806	24	3,653	129	611	29	522	60	2,959	35	2,799	125	14	-	6	8	6,873	199	6,674
'98	8,821	89	8,425	307	4,805	26	4,652	127	697	28	609	60	3,306	35	3,157	114	13	-	7	6	7,011	183	6,828
'99	8,793	89	8,394	310	4,443	23	4,294	126	814	31	729	54	3,517	35	3,359	123	19	-	12	7	-	-	-
'00	9,223	94	8,784	345	4,356	26	4,208	122	1,085	32	978	75	3,752	35	3,587	130	30	1	11	18	4,330	68	4,262

구분 / 연별	총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영업	계	관용	자가
'01	9,612	97	9,180	335	4,669	29	4,522	118	931	33	829	69	3,987	34	3,819	134	25	1	10	14	4,741	73	4,668
'02	10,083	101	9,646	336	4,919	29	4,768	122	939	34	843	62	4,189	38	4,020	131	36	–	15	21	4,708	66	4,642
'03	10,472	105	10,025	342	5,187	29	5,037	121	926	32	832	62	4,318	44	4,148	126	41	–	8	33	4,674	61	4,613
'04	10,806	110	10,360	336	5,459	32	5,309	118	892	33	799	60	4,408	45	4,238	125	47	–	14	33	4,666	58	4,608
'05	11,260	108	10,821	331	5,869	29	5,724	116	848	32	754	62	4,496	47	4,327	122	47	–	16	31	4,646	50	4,596
'06	12,173	100	11,696	377	6,436	22	6,285	129	881	29	790	62	4,810	49	4,607	154	46	–	14	32	4,629	46	4,583
'07	12,836	105	12,443	288	7,058	32	6,919	107	855	32	772	51	4,869	41	4,723	105	54	–	29	25	4,487	40	4,447
'08	12,922	104	12,532	286	7,162	31	7,027	104	859	30	777	52	4,850	43	4,698	109	51	–	30	21	4,496	47	4,449
함평	3,303	97	3,107	99	1,940	27	1,878	35	294	29	224	41	1,056	41	996	19	12	–	8	4			
손불	1,336	–	1,326	10	621	–	616	5	75	–	75	–	639	–	634	5	1	–	1	–			
신광	598	–	591	7	303	–	298	5	35	–	35	–	260	–	258	2	–	–	–	–			
학교	1,651	1	1,583	67	876	–	863	13	109	–	109	–	648	1	604	43	18	–	7	11			
엄다	733	1	721	11	370	1	363	6	40	–	40	–	323	–	318	5	–	–	–	–			
대동	903	1	888	14	471	1	464	6	51	–	51	–	379	–	372	7	2	–	1	1			
나산	1,002	–	986	16	545	–	536	9	59	–	59	–	397	–	391	6	1	–	–	1			
해보	1,118	2	1,075	41	600	1	584	15	67	1	55	11	440	–	429	11	11	–	7	4			
월야	2,278	2	2,255	21	1,436	1	1,425	10	129	–	129	–	707	1	695	11	6	–	6	–			

2. 운수회사(運輸會社)

1) 여객회사 광진교통

광진교통의 전신은 함평여객(주)이다. 함평여객은 함평궤도회사가 1960년 12월에 폐업함으로 인하여 함평읍과 학교간의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며 초대 사장은 함평궤도회사 대표였던 최봉주(崔鳳主)였다.

함평 장날을 제외하고는 학교역의 기차 시간에 맞추어 차를 운행하였다.

(1) 연　　혁

- •1961. 2. 9　　면허 취득
- •1961. 2. 28　　노선 허가
- •1970.　　광진교통으로 개명 (1983년말 차량 보유대수 67대)
  사무실 : 광주여객(주) 내
- •1986.　　함평교통의 영업 개시와 함께 함평과의 연고가 끊겼다.

(2) 역대 사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최봉주	1961. 02. ~ 1961. 08. 30		8	이승부	1971. 12. 06 ~ 1977. 10. 17	
2	김선암	1961. 09. 01 ~ 1964. 12. 20		9	이동기	1977. 10. 18 ~ 1977. 11. 09	
3	양동술	1964. 12. 25 ~ 1965. 11. 05		10	이건영	1977. 11. 10 ~ 1979. 02. 20	
4	노용우	1965. 11. 06 ~ 1966. 05. 05		11	조광섭	1979. 02. 21 ~ 1980. 02. 20	
5	양동술	1966. 05. 06 ~ 1968. 04. 25		12	이건영	1980. 02. 21 ~ 1983.	
6	강용성	1968. 04. 26 ~ 1970. 10. 01		13	김익수	1983.	
7	이성기	1970. 10. 02 ~ 1971. 12. 05		<이후 자료 제공 없음>			

2) 유한회사 함평교통

(1) 사 무 소 :

함평읍 기각리 971-1

(2) 사 업 명 :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3) 차량 보유대수 :

1998년 3월말 현재 38대

(4) 연 혁

•1986. 11. 29 등록
•1987. 8. 10 영업 개시

(5) 역대 대표이사

•1대	김영진	1987. 08. 10 ~ 1992. 12. 31
•2대	박행용	1993. 01. 01 ~ 1993. 06. 24
•3대	최종만	1993. 06. 25 ~ 1995. 12. 09
•4대	최금철	1995. 12. 10 ~ 2005. 12. 09
•5대	최금철	2005. 12. 10 ~ 현 재

3) 화물회사 제일화물

(1) 차 고 지 :

학교면 사거리 878번지

(2) 영업개시 :

1961. 12. 13

(3) 차량 보유대수 :

1983년말 차량 보유대수 78대

2010년 5월말 현재 29대

(4) 역대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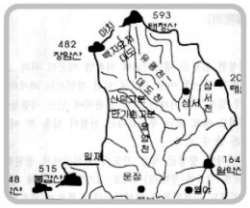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1대	지승만	1961. 12. 13 ~ 1962. 9. 17
•2대	강용성	1962. 9. 18 ~ 2001. 04. 04
•3대	강창우	2001. 04. 05 ~ 2008. 06. 04
•4대	김성윤	2008. 06. 05 ~ 현 재

4) 운수사업 및 관리사업 인가 현황

2010. 3. 30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차량대수	주 소	업 체 명	대표자	차량대수	주 소
함평교통(유)	하 종 갑	28	해보면 용산리 1-16	엄다개인택시	김광문 외	4	엄다면 엄다리 381-10
(유)함평군민교통	김 영 남	10	함평읍 대덕리 458-32	대동개인택시	이년강 외	3	대동면 금산리 304
(주)코리아나관광	김 영 렬	20	해보면 문장리 822-1	나산개인택시	김영현 외	6	나산면 월봉리 406-1
함평택시(자)	김 성 렬	9	함평읍 내교리 182-4	해보개인택시	조한기 외	6	해보면 금덕리 407-51
영수택시(자)	이 미 순	5	함평읍 기각리 915-1	월야개인택시	임범수 외	4	월야면 월야리 608-1
(합)신광택시	박 정 숙	1	신광면 백운리 371-12	(유)에스케이엘	김 영 준	10	해보면 금덕리 475-21
(합)학교택시	김 금 순	5	학교면 학교리 878-12	(유)미래운수	김 성 윤	29	함평읍 기각리 192-3
(합)천지택시	정 용 성	1	엄다면 엄다리 904-1	함평개별화물	신승국 외	37	함평읍 내교리 327
고산택시	박 점 용	2	대동면 향교리 844-7	함평개별용달	이재기 외	35	함평읍 함평리 268
나산택시	이 현 순	1	나산면 삼축리 340-8	함평농협장의사	김 형 모	3	함평읍 내교리 193-1
문장택시	장 은 순	5	해보면 문장리 822-25	안전종합자동차공업사	김 동 수	1급	함평읍 기각리 1095-1
월야택시	장 연 하	2	월야면 정산리 300	제일자동차공업사	이 윤 행	1급	함평읍 기각리 192-4
함평개인택시	정용현 외	22	함평읍 기각리 997-14	(유)광속	추 항 석	1급	학교면 죽정리 853
손불개인택시	송정선 외	5	손불면 대전리 652-9	(주)국도	김 영 판	1급	학교면 사거리 625-1
신광개인택시	김지수 외	4	신광면 백운리 377-15	문장자동차공업사	이 순 선	1급	해보면 금덕리 8
학교개인택시	김광옥 외	7	학교면 학교리 498	자동차부분정비(3급)	광성카센터 외	28	함평읍 기각리 1097

제9장 통 신 (通信)



제1절 한국의 통신 발전 개요

고대의 통신은 역원(驛院), 봉수(烽燧)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제도는 대한제국시기까지 지속했었다.

역원과 봉수에 대해서는 고려, 조선시대에서 상세히 언급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현대적인 통신제도는 고종 28년(1884) 3월 우정총국(郵政總局) 신설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우정총국은 설치 7개월만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을 맞아 일시 철폐되었다가 1885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였고 그해 8월에는 청국(淸國)정부에 의해 한성(漢城)↔봉황성(鳳凰城), 한성↔인천간에 전화선 가설이 완료되었다.

1888년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우체사(郵遞司)를 설치하고 서울 부산간의 전화선을 가설했다.

이어 1891년에는 서울 원산간의 전화선을 가설했으며, 1895년 3월 25일(음력)에는 농상공부 산하에 통신국을 설치하고 7월에는 전보사(電報司) 우체국제를 공포하였다.

1897년에는 서울 인천간의 정부 직속 전화선 개통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직속선이 보급되었으며 1898년에는 만국우편연합(萬國郵便聯合)에 가입하고 1900년에는 농상공부 산하에서 분리하여 통신원(通信院)을 신설하고 전신, 전화, 해원(海員)의 업무를 관장했다.

1903년에는 서울 시내와 서울 개성간의 전화선이 가설되고 6월에는 서울 인천 간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에 따라 통신기관 모두가 일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

전라남도의 통신 발전 과정을 보면 1896년 2월 16일에 나주우체사가 업무를 개시했으며, 1897년 10월 23일에는 서울 무안(목포)간 전선 가설과 무안전보사 설치가 공고되었고 12월 29일에는 무안우체사가 업무를 개시했다.

1902년 1월 23일에 무안(목포) 광주간의 전선 가설이 준공되었고 무안전보사 광주지사가 개업하였다.

1905년 일인들이 접수한 전라남도의 우체국, 우편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우편국

목포, 광주, 제주, 순천, 여수

2. 우편소

함평, 나산, 학교, 영암, 영광, 담양, 장성, 고흥, 곡성, 진도, 완도, 목포 순라선 내(木浦巡邏船內), 목포 창평정(昌平町), 광주 본정(本町), 영산포, 거문도, 나주, 남평, 나로도, 법성포, 벌교, 광양, 보성, 강진, 구례, 돌산, 동복, 창평, 지도, 금녕(金寧),모슬포, 성산포, 기좌도(箕佐島), 송정리, 화순, 추자도, 서귀포, 우수영, 능주, 옥과, 수문포(水門浦), 대치(大峙), 해남, 장흥, 주암, 병영, 죽교, 서창(西倉)

3. 청원(請願) 우편소

송지(松旨), 사거리, 조천(朝天), 한림, 목포 남교동, 광주 금정(錦町), 광주 대정정(大正町)

이 후의 통신 발달 과정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908. 06.　: 경성우체국 공전식 및 복식 교환기 설치
•1910. 10. 01 : 조선총독부 통신국 설치
•1911. 04. 01 : 광주 특설전화를 보통전화로 바꿈
•1912. 01.　: 나주, 영산포우체국 보통전화 교환 업무 개시
•1924. 05. 01 : 목포무선국 개통
•1935. 10. 01 : 자동전화 신설(ST 중앙전화국)
•1938. 03. 12 : 목포우체국 소형 복식 교환기 설치
•1939. 03.　: 광주우편국 소형 복식 교환기 설치
•1946. 05. 06 : 광주전신전화건설국 설치. 동년 9월 조선체신공사 설치
•1948. 08. 15 : 대한민국 체신부 설치
•1950. 01. 12 : 우편국을 우체국으로 개칭
•1979. 12. 16 : 전자교환 방식 자동전화 개통
•1982. 01. 01 :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
•1983. 01. 01 : 전신 전화 업무 우체국에서 분리 전신 전화국으로 이관
•1987. 09. 30 : 전국 전화 1,000만 회선 돌파
•1993. 11. 30 : 전국 전화 2,000만 회선 돌파
•1995. 08. 05 : 무궁화 위성 1호 발사. 위성중계 실시
•1996. 01. 01 : 시외 통화 경쟁 시작
•1996. 01. 14 : 무궁화 위성 2호 발사

제2절　함평군의 통신 발전

1. 읍·면 우체국

1905년에 함평, 학교, 나산에 임시 우편소가 설치되었다.

1956년에 월야우체국이 설립되고 1960년대에 들어서 손불, 해보, 신광, 엄다, 대동우체국이 개설되었으며 1968년에 함평우체국 주포분국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주포분국은 1984년에 주포우체국으로 승격되었고 2001.7.31로 폐국되었다

신광, 엄다, 해보우체국은 별정 우체국이다.

1) 함평우체국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45번지

(2) 시설현황 :

대 지 1,608㎡.
건 평 1,385㎡.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3) 연 혁

•1905. 05. 27 : 함평임시우편소 개업 •1908. 02. 09 : 함평우편취급소 개설
•1910. 10. 01 : 함평우편국으로 개칭 •1949. 11. 23 : 함평우체국으로 개칭
•1968. 12. 31 : 함평리 청사 개축(구청사) •1972. 02. 01 : 사무관 관서로 승격
•1983. 01. 01 : 전신 전화 업무 한국통신공사로 이관 분리
•1989. 12. 30 : 현 청사 준공과 함께 함평리에서 이전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임 태 섭	任泰燮	45. 10. 30	46. 11. 14		16	김 재 윤	金在允	79. 05. 10	83. 01. 13	
2	이 성 학	李成學	46. 11. 15	49. 08. 10		17	노 길 원	盧吉源	83. 01. 13	86. 01. 01	
3	노 현 덕	魯賢德	49. 08. 10	50. 10. 02		18	양 태 룡	梁泰龍	86. 01. 01	90. 02. 01	
4	홍 순 일	洪順日	50. 12. 14	51. 12. 20		19	나 승 년	羅承年	90. 02. 01	92. 10. 21	
5	이 인 찬	李寅燦	51. 12. 20	52. 08. 29		20	서 강 수	徐康壽	92. 10. 21	94. 11. 03	
6	이 정 식	李正植	52. 08. 29	57. 04. 30		21	서 해 봉	徐海奉	94. 11. 03	97. 06. 30	
7	박 동 천	朴東天	57. 04. 30	59. 01. 07		22	이 철 남	李鐵南	97. 07. 01	98. 12. 30	
8	손 계 용	孫桂龍	59. 01. 07	62. 12. 22		23	이 용 린	李容麟	98. 12. 31	99. 12. 30	
9	임 봉 기	林奉起	62. 12. 22	63. 05. 06		24	김 종 우	金種雨	99. 12. 31	01. 06. 29	
10	김 학 필	金鶴弼	63. 05. 06	63. 12. 30		25	김 종 석	金種石	01. 06. 30	02. 12. 30	
11	손 계 용	孫桂龍	64. 01. 01	69. 05. 11		26	조 병 만	造炳萬	02. 12. 31	04. 11. 09	
12	이 춘 근	李春根	69. 05. 11	72. 05. 10		27	정 해 호	鄭海鎬	04. 11. 10	05. 12. 30	
13	이 용 장	李容章	72. 05. 10	74. 10. 26		28	박 한 구	朴漢求	05. 12. 31	08. 12. 30	
14	이 영 남	李永南	74. 10. 26	77. 03. 30		29	김 안 숙	金安淑	08. 12. 31	현 재	
15	김 태 봉	金泰奉	77. 03. 30	79. 05. 10							

2) 주포우체국

(1) 소 재 지 :

함평읍 석성리 630-21

(2) 연 혁

•1968. 12. 20 : 함평우체국 주포분국 개국
•1977. 12. 10 : 함평읍 석성리 630-1번지에 청사 신축 이전
•1984. 04. 01 : 주포우체국으로 명칭 변경
•2001. 07. 31 : 주포우체국 폐국

(3) 역대 우체국장

분 : 분국장 우 :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분1	차 상 섭	68. 12. 20	70. 10. 01	우3	안 종 실	86. 12. 31	87. 12. 31
2	기 명 도	70. 10. 01	71. 06. 10	4	김 인 태	88. 01. 01	89. 01. 09
3	나 승 기	71. 06. 10	73. 04. 30	5	최 영 기	89. 01. 09	90. 01. 09
4	이 철 남	73. 04. 30	73. 12. 05	6	노 장 근	90. 01. 09	91. 06. 01
5	안 식	73. 12. 05	74. 07. 25	7	문 양 래	91. 06. 01	92. 11. 18
6	조 동 민	74. 07. 25	76. 03. 31	8	최 경 남	92. 11. 18	95. 08. 12
7	박 태 웅	76. 03. 31	83. 06. 30	9	윤 오 중	95. 08. 12	97. 07. 01
우1	김 추 일	83. 07. 04	85. 07. 19	10	장 윤 상	97. 07. 01	97. 10. 01
2	박 철 우	85. 07. 19	86. 12. 31	11	김 관	97. 10. 01	98. 12. 31
				12	정 병 일	99. 01. 01	2001. 07. 31

3) 손불우체국



(1) 소 재 지 :

손불면 대전리 223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840㎡. 건평 170㎡.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연 혁

•1961. 12. 15 : 손불우체국 개국(우편환,
저금, 보험, 연금 사무 취급)
•1969. 08. 20 : 전화 교환업무 개시
•1977. 03. 01 : 저금, 보험업무 중지

•1982. 06. 01 : 저금, 보험업무 부활
•1986. 06. 30 : 전신, 전화 영업 및 전화 교환업무 중지
•1989. 05. 11 : 온라인 업무 개시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이 승 룡	61. 12. 15	63. 09. 03	11	정 경 국	88. 01. 01	89. 12. 31
2	박 동 호	63. 09. 04	64. 04. 19	12	나 기 용	90. 01. 01	93. 01. 06
3	박 희 민	64. 04. 20	66. 05. 31	13	김 일 섭	93. 01. 07	94. 01. 07
4	유 종 섭	66. 06. 01	69. 11. 09	14	김 대 기	94. 01. 08	97. 05. 31
5	양 규 승	69. 11. 10	70. 11. 30	15	정 재 귀	97. 06. 01	99. 03. 31
6	조 복 윤	70. 12. 01	79. 08. 06	16	정 희 자	99. 04. 01	01. 01 28
7	송 성 태	79. 08. 06	82. 12. 31	17	최 준 범	01. 01. 29	03. 11. 23
8	김 희 연	83. 01. 01	84. 12. 31	18	김 승 현	03. 11. 24	06. 06. 30
9	배 경 렬	85. 01. 01	86. 07. 07	19	김 승 철	06. 07. 01	07. 12. 31
10	김 오 덕	86. 07. 08	87. 12. 31	20	정 병 일	08. 01. 01	현재

4) 신광우체국



(1) 소 재 지 :

신광면 월암리 255-3

(2) 시설현황 :

대지 482㎡. 건평 144㎡.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연 혁

•1963. 05. 24 : 청사 개축
•1963. 05. 31 : 개국
•1974. 07. 25 : 전화 업무 개시
•1983. 03. 10 : 금융 업무 개시
•1989. 11. 24 : 현 청사 개축
•1989. 12. 22 : 온라인 업무 개시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 적
			취 임	이 임	
1	이 병 남	李 炳 南	63. 05. 31	73. 07. 22	신 광
2	김 옥 진	金 玉 鎭	73. 08. 01	89. 04. 15	해 남
3	오 달 면	吳 達 冕	89. 04. 15	99. 04. 01	나 주
4	오 태 호	吳 泰 鎬	99. 04. 01	현 재	

5) 학교우체국



(1) 소 재 지 :

학교면 학교리 478번지

(2) 시설현황 :

부지 1,140㎡. 건평 167㎡.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연 혁

- •1920. 02. 19 : 학교우편소로 개국
- •1920. 03. 20 : 학교우편취급소(우편 및 우편환 업무 개시)
- •1950. 01. 12 : 학교우체국으로 개칭
- •1971. 07. 25 : 현 청사 신축
- •1976. 12. 25 : 기계실, 관사 등 부속 시설 증축
- •1987. 05. 09 : 영업대 카운터 확장
- •2008. 12. 01 : 학교우체국 사거리로 이전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정 윤 기	54. 03. 31	62. 05. 31	11	김 희 연	89. 08. 10	90. 12. 31
2	김 용 균	62. 06. 01	63. 01. 04	12	이 창 규	90. 12. 31	95. 01. 08
3	정 윤 기	63. 01. 05	69. 03. 15	13	나 기 용	95. 01. 08	97. 05. 31
4	송 성 태	69. 03. 15	70. 03. 15	14	이 창 규	97. 05. 31	98. 07. 01
5	이 정 윤	70. 03. 15	72. 02. 12	15	임 종 심	98. 07. 01	03. 11. 24
6	손 계 용	72. 02. 12	74. 02. 01	16	최 준 범	03. 11. 24	05. 07. 01
7	조 규 채	74. 02. 01	75. 12. 03	17	나 광 숙	05. 07. 01	07. 01. 01
8	최 영 철	75. 12. 03	83. 01. 13	18	김 미 숙	07. 01. 01	10. 01. 01
9	조 복 윤	83. 01. 13	88. 06. 30	19	심 순 덕	10. 01. 01	현 재
10	김 추 일	88. 06. 30	89. 08. 10				

6) 엄다우체국



(1) 소 재 지 :

엄다면 엄다리 760-18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554㎡. 건평 145.4㎡.
조적조 슬라브

(3) 연 혁

•1964. 11. 25 : 엄다우체국 개국
(국기호 : 사 194)
•1986. 06. 30 : 전국 전화 광역화 사업으로 교환 업무 폐지
•1989. 12. 18 : 예금 온라인 업무 개시
•1991. 12. 05 : 기존 주소지에 현청사 개축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1	천 갑 수	64. 11. 25	72. 10. 16
2	천 경 열	72. 10. 17	78. 04. 15
3	천 만 식	78. 04. 16	79. 10. 28
4	김 옥 금	79. 10. 29	80. 03. 29
5	천 병 수	80. 03. 30	현재

7) 함평대동우체국



(1) 소 재 지 :

대동면 향교리 877-2

(2) 시설현황 :

대지 469㎡. 건평 179㎡.

콘크리드 슬라브 2층

(3) 연 혁

•1966. 12. 31 : 함평우체국 대동분국 개국
(대동면 덕산리)

•1970. 05. 01 : 주사국으로 승격. 대동우체국으로 개칭
•1988. 10. 22 : 현 청사 신축 이전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정 경 락	79. 10. 02	83. 07. 09	10	조 봉 태	95. 11. 20	97. 12. 31
2	오 일 원	83. 07. 09	85. 12. 31	11	김 종 태	98. 01. 01	00. 01. 01
3	민 영 삼	85. 12. 31	86. 12. 31	12	고 금 희	00. 01. 01	01. 01. 29
4	오 청 렬	86. 12. 31	87. 12. 31	13	최 경 남	01. 01. 29	03. 02. 10
5	김 준 연	87. 12. 31	89. 08. 10	14	하 수 자	03. 02. 10	04. 07. 05
6	김 추 일	89. 08. 10	90. 12. 31	15	김 승 철	04. 07. 05	06. 07. 01
7	임 금 택	91. 01. 01	92. 11. 16	16	김 승 현	06. 07. 01	08. 01. 01
8	정 해 호	92. 11. 16	93. 12. 30	17	김 종 승	08. 01. 01	08. 09. 22
9	조 영 학	93. 12. 30	95. 11. 20	18	이 영 숙	08. 09. 22	현재

8) 나산우체국



(1) 소 재 지 :

나산면 삼축리 278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757㎡. 건평 137㎡.
시멘트 벽돌 슬라브

(3) 연 혁

•1917. 01. 26 : 나산우편소 사설국 개국
•1945. 11. 14 : 일반국 나산우체국으로 개국
•1956. 06. 25 : 청사 신축
•1980. 09. 08 : 현 청사 신축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김 석 환	45. 11. 14	47. 12. 15	15	정 진 섭	77. 10. 05	79. 10. 02
2	임 태 섭	47. 12. 15	48. 10. 01	16	이 경 범	79. 10. 02	84. 12. 31
3	이 정 식	48. 10. 01	49. 03. 19	17	김 희 연	84. 12. 31	89. 08. 10
4	김 인 주	49. 03. 19	49. 10. 19	18	박 용 주	89. 08. 10	93. 01. 07
5	이 영 철	49. 10. 19	58. 06. 21	19	오 남 식	93. 01. 07	95. 01. 09
6	이 재 우	58. 06. 21	60. 09. 08	20	이 창 규	95. 01. 09	97. 06. 01
7	이 인 규	60. 09. 08	60. 09. 15	21	김 대 기	97. 06. 01	98. 07. 01
8	임 기 봉	60. 09. 15	63. 03. 23	22	최 준 범	98. 07. 01	01. 01. 29
9	이 현 재	63. 03. 23	65. 07. 21	23	김 선 희	01. 01. 29	03. 02. 10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0	김 용 균	65. 07. 25	66. 06. 01	24	최 경 남	03. 02. 10	06. 07. 01
11	장 복 열	66. 06. 01	66. 12. 31	25	윤 오 중	06. 07. 01	07. 01. 01
12	이 현 재	66. 12. 31	68. 07. 15	26	심 순 덕	07. 01. 01	10. 01. 01
13	장 석 만	68. 07. 15	75. 08. 28	27	김 종 승	10. 01. 01	현재
14	전 병 용	75. 08. 28	77. 10. 05				

9) 함평해보우체국



(1) 소 재 지 :

해보면 문장리 794-8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515㎡. 건평 274.55㎡.

브럭 벽돌조

(3) 연 혁

•1964. 12. 15 : 문장우체국 개국
•1980. 10. 03 : 현 청사 개축
•1993. 09. 10 : 현 청사 증축 및 2층 관사 개축
•1996. 11. 01 : 전남해보우체국으로 명칭 변경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1	정 정 근	63. 12. 15	69. 12. 31
2	서 기 춘	69. 12. 31	73. 12. 07
3	정 남	74. 01. 05	77. 08. 19
4	김 석 환	77. 08. 19	99. 06. 08
5	김 정 규	99. 06. 08	05. 12. 31
6	박 미 애	06. 03 .13	현 재

9) 월야우체국



(1) 소 재 지 :

월야면 월야리 494-28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840㎡. 건평 230㎡.
콘크리트 슬라브

(3) 연　　혁

•1956. 10. 01 : 월야면 월야리 69-3번지에서 개국
•1960. 10. 30 : 월야면 월야리 205-71번지로 이전
•1984. 11. 05 : 현 청사로 이전 개축

(4) 역대 우체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이 현 재	1956.	1958.	11	정 재 귀	95. 04. 01	97. 06. 01
2	김 석 환	1958.	1962.	12	나 기 용	97. 06. 01	98. 07. 01
3	김 종 수	1962.	1962.	13	강 애 선	98. 07. 01	99. 04. 01
4	이 한 국	1962.	1963.	14	정 재 귀	99. 04. 01	99. 09. 30
5	김 천 수	1963.	1977.	15	김 선 희	99. 09. 30	01. 01. 29
6	전 병 용	1977.	1983.	16	고 금 희	01. 01. 29	02. 01. 21
7	이 경 범	84. 12. 31	89. 06. 30	17	김 승 철	02. 01. 21	04. 07. 05
8	오 남 식	89. 08. 10	93. 01. 07	18	윤 오 중	04. 07. 05	06. 07. 01
9	나 기 용	93. 01. 07	95. 01. 09	19	최 경 남	06. 07. 01	07. 01. 01
10	오 남 식	95. 01. 09	95. 04. 01	20	하 수 자	07. 01. 01	10. 01. 01
				21	홍 열 표	10. 01. 01	현재

2. 우편물 취급 현황

1961년부터 함평군통계연보에 우편물 취급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961년에 20만건 미만이던 국내 편지는 1987년에 무려 1,300만건을 넘어 섰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인구감소 등 편지 취급량이 줄어들 원인이 있지만 500만건을 웃돌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 외국 우편이 연평균 1천만건 이상인 것은 건설 현장 등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일했기 때문이다.

최고치를 나타낸 1984년의 외국 보통우편 취급량은 3천만건을 넘어 섰었다.

<표 1-1> 함평군의 우편물 취급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 연별	국내								국외							
	계		보통		특수		소포		계		보통		특수		소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83	1,837	2,457	1,748	2,357	83	84	6	16	11,772	12,401	11,656	11,858	45	497	71	46
1984	2,112	2,815	1,970	2,694	134	101	8	20	14,515	18,378	14,402	17,504	23	805	90	69
1985	1,899	2,646	1,801	2,545	92	86	6	15	10,480	9,408	10,377	8,978	20	401	83	29
1986	1,844	2,496	1,742	2,388	96	92	6	16	7,957	8,867	7,855	8,511	38	297	64	49
1987	7,202	6,537	7,103	6,320	19	180	80	37	7,202	6,537	7,103	6,320	19	180	80	37
1988	5,520	5,420	5,420	5,600	25	159	75	35	5,520	5,420	5,420	5,600	25	159	75	35

구분 / 연별	국내								국외							
	계		보통		특수		소포		계		보통		특수		소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89	4,087	5,063	3,971	4,955	34	80	82	28	4,087	5,063	3,971	4,955	34	80	82	28
1990	3,122	3,362	3,019	3,157	47	156	56	49	3,122	3,362	3,019	3,157	47	156	56	49
1991	2,223	3,631	2,097	3,500	119	114	7	17	2,433	2,612	2,335	2,448	36	130	62	34
1992	2,240	3,366	2,118	3,235	113	113	9	18	2,204	2,781	2,094	2,571	41	158	69	52
1993	2,335	3,726	2,214	3,593	112	114	9	19	3,083	2,643	2,893	2,487	53	117	137	39
1994	2,310	3,567	2,197	3,430	104	117	9	20	2,263	2,644	2,061	2,461	61	139	141	44
1995	2,182	3,385	2,082	3,249	85	116	15	20	3	3	3	3				
1996	2,115	3,493	2,016	3,352	85	121	14	20	3	3	3	3		0.2	0.2	0.1
1997	2,131	3,354	2,361	3,208	81	125	14	21	4,201	3,821	3,961	3,470	60	160	180	191
1998	2,156	3,876	2,062	3,725	82	124	12	27	3,164	7,909	2,819	7,599	128	155	217	155
1999	2,596	4,457	2,489	4,302	88	131	12	24	2,704	5,250	2,184	4,784	253	264	267	202
2000	2,774	5,043	2,651	4,866	89	146	33	28	3,145	2,923	2,352	2,463	425	280	368	180
2001	3,035	6,365	2,887	6,137	89	181	59	44	2,922	5,064	2,095	4,467	552	365	275	222
2002	2,800	6,201	2,646	5,932	99	189	55	80	1,821	2,731	964	2,256	692	206	165	269
2003	2,383	5,250	2,233	5,012	92	177	58	61	1,536	4,262	698	3,764	656	231	182	267
2004	1,851	4,927	1,705	4,692	91	177	55	58	1,639	4,940	790	4,242	703	387	146	311
2005	1,621	4,708	1,482	4,470	83	182	56	56	1,883	7,890	1,048	7,122	25	575	810	193
2006	1,735	4,262	1,555	4,021	93	181	87	60	2,284	8,558	1,481	7,793	11	510	792	225
2007	1,708	4,339	1,508	4,079	89	194	111	66	4,168	3,607	3,210	2,586	14	695	944	326
2008	1,689	4,454	1,468	4,172	97	212	124	70	1,866	4,877	852	4,016	10	630	1,004	231
2009	1,728	4,544	1,502	4,249	96	215	129	78	1,619	3,628	338	2,971	61	444	1,220	213

3. 전신, 전화

1) 전　　신

함평군통계연보에 수록된 함평군의 국내전보 취급 상황을 보면 <표 1-1>에서 보듯이 1961년에는 9천건 미만이었고 1982년에 4만건에 가깝게 이용한 이후 <표 2>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는 1986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1990년대에 들어 이용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에 8만건에 가까운 최고치를 보이는데 이는 1996년에 실시한 지방자치제 완전 부활과 함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 축하와 위로의 전문이 많았던 까닭이라고 여겨진다.

<표 2> 국내전보 취급상황

단위 : 건

구분 / 연별	총계	발신			수신			구분 / 연별	총계	발신			수신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1983	34,410	13,079	12,488	591	21,331	20,564	767	1990	28,557	10,251	10,111	140	18,306	18,022	284
1984	33,829	12,338	11,847	491	21,491	20,784	707	1991	26,282	13,396	13,271	125	12,886	12,635	251

구분 / 연별	총계	발신			수신			구분 / 연별	총계	발신			수신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1985	35,272	13,036	12,700	336	22,236	21,754	472	1992	18,104	5,631	5,533	98	12,473	12,305	168
1986	56,096	12,347	12,034	313	43,749	43,400	349	1993	18,408	5,373	5,287	86	13,035	12,967	68
1987	38,109	13,489	13,127	362	24,620	24,190	430	1994	19,077	5,189	5,151	38	13,888	13,888	
1988	40,450	14,351	14,129	222	26,109	25,887	222	1995	25,688	11,255	11,202	53	14,433	14,433	
1989	30,282	11,159	10,854	305	19,123	18,960	163	1996	79,159	72,509	72,509		6,650	6,650	

2) 함평군의 전화 발전 개요와 가입자 수

1968년까지는 함평, 학교우체국에만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었으며 1971년에 손불, 나산, 해보, 월야우체국에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어 6개국이 되었고, 1974년에 신광우체국, 1975년에 엄다우체국, 1978년 7월 14일에 함평우체국 주포분국의 간이 자동 교환대가 업무를 개시했고 1982년에 대동우체국 자석식 교환 업무가 함평 자동국으로 통합되었으며 1976년 함평우체국에 전신 전화분실이 신축되고 자석식 전화가 자동식 전화로 바뀌었다.

1983년에 한국통신공사 함평전신전화국이 개국하여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전화 업무를 인계받았고 1984년에 장거리 자동전화가 확장 개통되었으며 1986년에 광역화 전자식자동전화가 개통되어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전화 가입자 상황을 함평군 통계연보에 의해 살펴보면 1961년에는 군내 전체에 95대, 1965년에 209대, 이를 읍면별로 보면 함평국 157대, 학교국 50대, 월야국 2대였다.

1982년말 가입자는 4,130대로 용도별로는 업무용 1,578대, 주택용 2,552대, 공중전화 27대였다.

1987년에 1만대를 돌파한 후 1997년말 현재 19,609대로 산간벽지 마을에서도 전화가 없는 집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표 3-1> 연도별 전화 가입자수

단위 : 명. %

연 별	가입자수	전년대비	연 별	가입자수	전년대비	연 별	가입자수	전년대비
1961	95		1969	429	35	1977	1,557	5
1962	100	5	1970	482	12	1978	2,154	38
1963	133	33	1971	692	44	1979	2,384	11
1964	158	19	1972	747	8	1980	3,069	29
1965	209	32	1973	861	15	1981	3,199	4
1966	235	12	1974	979	14	1982	4,130	29
1967	315	34	1975	1,236	26	1983	4,749	15
1968	317	0.6	1976	1,477	19	1984	5,014	6

<표 3-2> 연도별 전화 가입자수

단위 : 가입자-명. 대비-%

구별 / 연,읍면	시 설 수	가 입 자 수			공중전화	전년대비
		계	업 무 용	주 택 용		
1985	5,150	5,082	1,668	3,414	74	1
1986	12,032	9,143	2,607	6,536	122	80
1987	13,392	10,194	2,718	7,476	183	12
1988	13,392	12,912	2,820	9,831	261	27
1989	16,424	14,749	3,028	11,741	370	14
1990	21,164	16,280	3,186	13,094	452	10
1991	21,160	16,913	3,425	13,488	481	4
1992	21,160	17,250	1,296	15,954	475	2
1993	21,288	17,713	1,785	15,928	481	3
1994	21,288	17,976	1,998	15,978	483	1
1995	21,292	18,309	2,262	16,047	450	2

구별 / 연,읍면	시 설 수	가 입 자 수			공중전화	전년대비	참 고
		계	업 무 용	주 택 용			
1996	21,292	18,501	2,510	15,991	407	1	97년말 19,609대
함 평 읍	7,852	4,694	1,152	3,542	146		
손 불 면	1,792	2,022	139	1,883	32		
신 광 면	896	1,070	81	989	18		
학 교 면	3,584	2,610	357	2,253	60		
엄 다 면	700	1,225	102	1,123	18		
대 동 면	1,408	1,579	114	1,465	16		
나 산 면	1,792	1,695	115	1,580	28		
해 보 면	2,048	1,641	260	1,381	47		
월 야 면	1,920	1,965	190	1,775	42		

구별 / 연,읍면	시 설 수	가 입 자 수			공중전화	전년대비	참 고
		계	업 무 용	주 택 용			
2004							이전 자료 없음
2005		18,144					
2006		18,061					
2007		18,032					
2008		18,023					
2009		17,820					
함 평 읍		4,908					
손 불 면		1,908					
신 광 면		1,009					
학 교 면		2,358					
엄 다 면		1,147					
대 동 면		1,505					
나 산 면		1,537					
해 보 면		1,487					
월 야 면		1,961					

3) 한국전기통신공사 함평전화국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994-1번지

(2) 시설현황 :

대지 4,969㎡. 건평 1,900㎡.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 연 혁

- •1982. 01. 01 : 한국전기통신공사 함평사업소 발족
- •1983. 01. 01 : 함평전신전화국 개국
- •1984. 10. 03 : 장거리 자동전화(D.D.D) 확장 개통
- •1986. 07. 06 : 광역화 전자식 자동전화 개통(AXE-10. 12,032 회선)
- •1987. 08. 20 : 전자식 자동전화 개통(TDX-1a. 1,380 회선)
- •1997. 10. 01 : 정부 투자 기관에서 출자회사로 전환

(4) 역대 전화국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본적	대	직 명	성 명		재 임 기 간		본적
			취 임	이 임						취 임	이 임	
1	반영호	潘英浩	82. 01. 01	83. 01. 01	화순	9	국 장	김경수	金京洙	97. 01. 01	97. 10. 01	장성
2	김의준	金義俊	83. 01. 01	85. 09. 09		10	국 장	이 현	李 炫	97. 10. 01	00. 12. 31	함평
3	이희범	李熙範	85. 09. 09	88. 05. 02	함평	11	국 장	한석호		01. 01. 10	02. 12. 31	광주
4	김규화	金奎和	88. 05. 02	89. 05. 08		12	지점장	박기선		03. 01. 01	04. 12. 31	광주
5	한봉석	韓奉錫	89. 05. 08	90. 01. 05	장흥	13	지점장	조홍기		05. 01. 01	06. 12. 31	장흥
6	정병태	鄭炳泰	90. 01. 05	94. 02. 21	광주	14	지점장	정찬웅		07. 01. 01	07. 12. 31	해남
7	황기주	黃祺周	94. 02. 21	95. 07. 03	〃	15	지점장	황안석		08. 01. 01	10. 02. 01	화순
8	최병추	崔炳秋	95. 07. 03	96. 12. 30	〃	16	지점장	최영달		10. 02. 01	현 재	화순

4). 국토해양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광주해상무선표지소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642번지

(2) 설립목적 :

• 한반도 및 일본, 중국, 러시아 지역의 중·장거리 무선항법장치(Loan-C) 제공 및 운영
• 해상교통 안전도모 및 선박운항의 능률 증진
•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고장 및 서비스 중단 시 백업시스템으로 Loran-C 운영

(3) 연　　혁

• 1979. 04.　: 미 공군에서 전술적으로 Loran-C체인 설치(COMMANDO LION CHAIN)
　- 한국 : 광주 및 포항송신국
　- 일본 : 요코다 통제·감시국 및 토카치부토, 게사시송신국
• 1980. 02.　: 전파발사 시작
• 1980. 08.　: 미해안경비대에 의하여 동아시아 로란체인 가동
• 1987. 10.　: 미 공군 Loran-C 철수계획 통보 및 미측에서 우리측에 인수제의
• 1988. 11. 22 : 광주 및 포항해상무선표지소 개소(대통령령 제12549호)
• 1989. 02. 17 : 광주해상무선표지소 개소(한,미 합동근무)
• 1989. 10. 01 : 동아시아 Loran-C 체인의 광주 및 포항송신국 인수 독자운영
• 1993. 07. 01 : 동 체인의 한,일 공동운영(일본해상보안청 일본내 2개 송신국인수)
　- 한,일간 Loran-C 운영에 관한 토의 인사록 및 기술합의서
• 1994. 05. 01 : 해운항만청 목포지방해운항만청소속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239호)
• 1996. 08. 08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관서명칭 변경
• 1997. 05. 24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로 관서명칭 변경
• 2005. 05. 04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광주해상무선표지소(소속변경)
• 2006. 01. 03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광주해상무선표지소 (직제개편)
• 2008. 03. 18 :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광주해상무선표지소(직제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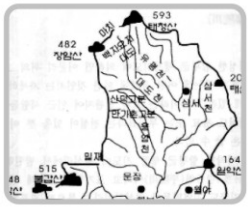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4) 인 원 수 :

5명

(5) 주요활동실적

• 선박, 항공기, 차량등의 전파항법시스템을 위한 정보방송
• 군부대 및 기상청 기상관측업무를 위한 전파제공
• 세계표준시(UTC) 동기를 위한 정밀 주파수 제공

제10장 함평군의 산업 · 경제



제1절 농 업

1. 농업의 자연여건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생산지의 위치와 기후, 그리고 토양, 지형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함평군의 농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자연여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함평군은 한반도의 남서단, 전남 서해안의 북서부 지역에 있다. 상대적 위치는 동쪽이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고막천이 경계), 서쪽으로는 황해인 함평만을 끼고 무안군과 접해있다. 남쪽은 나주시(영산강 하류인 사호-沙湖-가 경계)와 무안군, 북쪽으로는 영광군(군유산과 불갑산이 경계)과 장성군에 접해있다. 수리 상으로는 동경 126°21 ~ 126°40′, 북위 34°58′~ 35°14′지점이다. 동서간의 경도 차이는 약 18′, 남북 간의 위도 차는 약 16′에 달한다.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열대의 더위에 못지 않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날씨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은 13.1℃로 비교적 온난하다. 1월 기온은 2.6℃, 8월 기온은 27.2℃이다. 따라서 연교차가 24.6℃에 이른다. 연평균 강수량은 1,296.1㎜인데 7~9월에 집중 호우를 보인다. 특히 8월과 9월의 강수량이 가장 많아서 222.6㎜와 426.5㎜를 나타낸다. 연평균 습도는 74.9%로 1월(66.8%)이 가장 건조하고 7월(87.6%)의 습도가 가장 높다. 연평균 풍속은 2.7m/초로 북풍이 많다. 연평균 무상기일은 300일, 연평균 일조시간은 2,185.3시간이다. 이밖에 연평균 천기일수는 맑음 75일, 흐림 125일, 안개 36일, 비 114일, 눈 29일로 나타났다.(연평균은 1962년~2007년 통계 평균치, 그 외는 2007년 통계치)

토양은 그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른데 함평군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양은 고산통(高山統)의 자갈과 침식이 있는 양토로 임지나 자연초지로 쓰이고, 다음이 태화통(太和統)의 자갈과 침식이 있는 미사질 양토로 감·밤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지산통(芝山統)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송정통(松汀統)은 임지나 밭으로 쓰인다. 제일 적은 면적의 토양은 논으로 쓰이고 있는 가곡통(佳谷統)의 미사질 양토이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경동성 지형을 이루는 한반도의 남쪽 서부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한 평야지대에 해당한다. 국지적으로 해발 300~400m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이들이 남북방향의 주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야가 우세한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으며 남부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대체로 100m 이하를 보인다. 따라서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부산간에서 발원한 주요 하천들도 남쪽으로 유로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동서방향의 해발고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룬다.[371]

주요 하천과 평야는 대체로 남북방향을 따라 분포하는데, 먼저 하천의 경우 크게 2개의 수계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군의 중앙을 남북방향으로 관류하는 함평천 중심의 수계이고 다른 하나는 군의 동부를 남북방향으로 관류하는 고막원천 중심의 수계이다. 그밖에도 함평만으로 직접 유입되는 다수의 소지류들이 분포하는데, 비교적 넓은 평야는 이들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연안을 대상으로 발달하고 있다. 즉 함평군의 평야는 대동저수지 하류의 대동면 남서부-함평읍 동부-엄다면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대상지역과, 월야면 북서부-해보면 동부-나산면 중앙부를 연결하는 고막천 연안에 발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함평평야, 학교평야, 월야평야,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해안지역에는 소규모의 간척평야가 분포하는데, 손불면 서부해안의 월천리에 조성되어 있는 월천(月川) 간척지와 산남리에 조성되어 있는 삼양사(三養社) 간척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손불면 북서단의 영광군 접경 해안지역에도 소규모의 간척지가 조성되어 있다.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함평군의 해안선은 극히 단조로운 형태로 변모되었다.[372]

2. 농가구와 농가인구

1) 농가구

함평군의 2007년말 총가구는 17,434가구이다. 이 가운데 비농가는 10,257가구이고 농가는 7,177가구로 농가의 비율이 절반이 못미치는 41.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전남 전체의 24.9% 보다 높은 비율로 농업 비중이 높은 군임을 알 수 있다. 농가구는 전남의 190,387에 비하면 3.8% 수준이다.

연도별 농가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961년에는 총 21,673가구에 비하여 농가가 18,385가구로 84.8%의 비율이었다. 1965년에는 84.5%, 1970년에는 88.5%, 1975년에는 82.6%, 1980년에는 81.4%, 1985년에는 80.7%, 1990년에는 71.1%, 1995년에는 58.2%, 2000년에는 54.9%, 2005년에는 43.8%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도별 농가구

(단위 : 가구, %)

1) 이상석(李相石), 「함평군의 지리적 환경」,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제삼십책, 1993.

372) 앞글

구분 / 연도	총가구(A)	농가구(B)				B/A(%)
		합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1961	21,673	18,385	–	–	–	84.8
1962	22,176	19,177	17,966	–	–	86.5
1963	22,667	18,353	17,554	–	–	81.0
1964	22,709	18,996	18,210	–	–	83.6
1965	22,716	19,197	18,305	–	–	84.5
1966	23,363	19,284	18,150	–	–	82.5
1967	23,159	19,879	19,038	–	–	85.8
1968	22,628	20,137	18,475	908	754	89.0
1969	22,628	20,059	18,201	889	969	88.6
1970	22,545	19,956	18,372	767	817	88.5
1971	21,592	19,369	17,946	883	540	89.7
1972	21,452	19,188	17,566	961	661	89.4
1973	21,460	19,223	–	–	–	89.6
1974	21,274	17,574	15,184	1,271	1,119	82.6
1975	21,684	18,910	16,058	1,682	1,170	87.2
1976	21,235	18,647	16,013	1,384	1,250	87.8
1977	20,931	18,256	15,925	1,161	1,170	87.2
1978	20,656	17,829	15,388	991	1,450	86.3
1979	20,383	16,962	15,490	662	810	83.3
1980	20,001	16,290	14,660	800	830	81.5
1981	19,180	15,408	–	–	–	80.3
1982	18,899	14,892	–	–	–	78.8
1983	18,754	–	–	–	–	–
1984	18,561	14,360	12,900	630	830	77.4
1985	18,906	15,252	12,295	2,035	922	80.7
1986	18,342	14,961	12,219	1,895	847	81.6
1987	17,855	14,709	11,575	2,123	1,011	82.4
1988	17,411	14,317	11,221	2,211	885	82.2
1989	17,351	14,064	11,183	1,756	1,125	81.1
1990	17,304	12,304	8,731	2,217	1,356	71.1
1991	17,531	13,494	9,659	2,431	1,404	77.0
1992	17,312	11,406	8,098	2,076	1,232	65.9
1993	17,427	11,000	9,163	1,014	823	63.1
1994	17,170	10,666	8,881	974	811	62.1
1995	17,276	10,052	–	–	–	58.2
1996	17,170	10,210	8,265	799	1,146	59.5
1997	17,244	9,979	–	–	–	57.9
1998	18,372	9,490	–	–	–	51.7
1999	17,528	8,877	–	–	–	50.6
2000	17,398	9,554	7,554	1,178	822	54.9
2001	17,255	8,889	–	–	–	51.5
2002	17,114	8,337	–	–	–	48.7
2003	17,312	8,258	–	–	–	47.7
2004	17,153	7,921	–	–	–	46.2
2005	17,553	7,680	5,772	976	932	43.8
2006	17,412	7,612	–	–	–	43.7
2007	17,434	7,177	–	–	–	41.2

자료 : 함평군통계연보

농가의 비율이 1961년부터 1985년까지는 변화의 폭이 미미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던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연감소 평균치는 2.58%이다. 농가의 수 역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곧 197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1년 18,385가구였던 것이 2007년에는 7,177가구로 11,208여 가구가 줄었다.

9개 읍면 가운데 2007년 농가의 비율은 1,502가구의 함평읍이 14.9%로 가장 높고, 715가구의 신광면이 7.1%로 가장 낮다.

농가형태별 가구는 1965년에 전업농가가 18,305가구로 전체농가 19,197가구의 95.4%, 겸업농가가 892가구로 4.7%이었다. 1970년에는 전업농가 91.8% 겸업농가 7.9%, 1975년에는 전업농가 84.9% 겸업농가 15.1%, 1980년에는 전업농가 89.9% 겸업농가 10.0%, 1985년에는 전업농가 80.6% 겸업농가 19.4%, 1990년에는 전업농가 71.0% 겸업농가 29.0%, 1994년에는 전업농가 83.3% 겸업농가 16.7%, 1996년에는 전업농가 81.0% 겸업농가 19.0%, 2000년에는 전업농가 79.1% 겸업농가 20.9%, 2005년에는 전업농가 75.2% 겸업농가 24.8%를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로써는 농가형태별 추이의 특징을 찾아낼 수는 없으나 겸업농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한해 전남전체의 전업농가 66.8%, 겸업농가 33.2%와 비교해 보면 함평군이 전업농가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겸업농가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수는 <표 2>와 같다. 1965년에 총 19,197가구에서 0.1ha~0.3ha미만인 농가는 2,855가구로 14.9%이고, 0.3ha~0.5ha미만 농가는 3,559가구로 18.5%, 0.5ha~1ha미만 농가는 6,535가구로 34.0%, 1ha~2ha미만 농가는

<표 2>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 가구)

구분 \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2000	2005
경지없는 농가구수	-	576	-	360	-	85	64	90	101
0.1ha미만	-	712	-	50	-	63	-	193	104
0.1ha이상 ~ 0.3ha미만	2,865	2,892	2,502	1,720	-	1,105	1,146	2,466	1,824
0.3ha이상 ~ 0.5ha미만	3,559	3,821	2,931	2,420	-	1,493	1,146		
0.5ha이상 ~ 1ha미만	6,535	5,455	6,758	6,390	-	3,815	2,904	2,486	2,023
1ha이상 ~ 2ha미만	5,051	5,167	5,096	4,700	-	4,558	3,598	2,702	2,095
2ha이상 ~ 3ha미만	1,153	1,077	750	570	-	985	1,340	988	773
3ha이상	34	256	171	80	-	200	575	629	760

자료 : 함평군통계연보, 1985년·1995년 통계없음

5,051가구로 26.3%, 2ha~3ha미만 농가는 1,153가구로 6.0%, 3ha이상인 농가는 34가구로 0.2%이었다. 40년 뒤인 2005년에는 총 7,680가구에서 경지없는 농가가 101가구로 1.3%, 0.1ha미만 농가가 104가구로 1.4%, 0.1ha~0.5ha미만 농가가 1,824가구로 23.7%, 0.5ha~1ha미만 농가가 2,023가구로 26.3%, 1ha~2ha미만 농가가 2.095가구로 27.3%, 2ha~3ha미만 농가가 773가구로 10.1%, 3ha이상인 농가는 760가구로 9.9%를 보이고 있다. 40년 동안 농가구수가 절반이상 준 영향으로 1ha~3ha미만의 농가비율은 1965년 보다 2005년도가 높고 1ha미만의 농가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ha이상의 대농은 726가구가 늘었다. 경지가 없는 농가구수는 1970년 576가구였던 것이 1980년 360가구로, 1990년 85가구로, 1994년에는 64가구로 점차 줄어들다가, 2000년 90가구, 2005년 101가구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농업 인구

농업인구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표 3>과 같다. 2007년말 함평군의 총인구는 38,402(남 19,054, 여 19,348)명이다. 이 가운데 농업인구는 17,469(남 8,236, 여 9,233)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45.5%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의 23.3%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구는 전남의 452,324명에 비하면 3.9% 수준이다.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농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1년에는 88.3%, 1965년에는 87.7%, 1970년에는 91.6%, 1975년에는 85.7%, 1980년에는 77.7%, 1990년에는 68.6%, 1995년에는 54.5%, 2000년에는 51.6%, 2005년에는 45.1%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농업인구의 비율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증가했으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연감소 평균치는 2.82%이다. 농업인구수 또한 큰 폭으로 줄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감소 평균치는 4.07%로 차츰 더해가는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다. 곧 1961년 112,340명에서 2007년에는 17,469명으로 84% 가량이 줄었다. 변화의 폭은 1970년대 초반까지 미미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9개 읍면 가운데 농업인구의 비율은 4,329(남 2,054, 여 2,275)명의 함평읍이 전체 15.4%로 가장 높고, 1,916(남 940, 여 976)명의 신광면이 전체 6.8%로 가장 낮다.

가구당 농업인구는 1961년에 6.1명이었던 것이 1965년에는 6.5명, 1970년에는 5.9명, 1975년에는 5.4명, 1980년에는 4.6명, 1985년에는 명, 1990년에는 3.5명, 1995년에는 2.8명, 2000년에는 2.5명, 2005년에는 2.4명, 2007년에는 2.43명으로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7년 가구당 농업인구는 2.38명이었다.

연령별·성별 농업인구 변화의 추이는 <표 4>와 같다. 연령별 농업인구는 15세미만이 1965년 44.7%(55,664명)에서 2007년에는 12.1%(4,599명)으로, 15세이상 20미만이 1965년 11.8%(14,620명)에서 2007년에는 5.0%(1,908명)으로, 20세이상 50세미만이 1965년 30.3%(37,696명)에서 2007년에는 34.9%(13,289명)으로, 50세이상 60세미만이 1965년 8.9%(11,079명)에서 2007년에는 13.2%(5,047명)으로, 60세이상이 1965년 4.3%(5,338명)에서 2007년에는 34.8%(13,167명)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47년간 변화의 추이는 표의 B/A항의 연령별 구성비와 같이 15세미만은 1980년까지 소폭으로 줄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했다. 15세이상 20세미만과 20세이상 50세미만은 변화의 폭이 미미하다.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은 15세미만과 반대로 1980년까지 소폭의 증가를 보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급증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농가인구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총 인 구(A)	농 업 인 구(B)			가 구 당 농가인구	B/A(%)
		합 계	남	여		
1 9 6 1	127,272	112,340	–	–	6.1	88.3
1 9 6 2	131,991	116,160	57,866	58,294	6.1	88.0
1 9 6 3	135,855	114,757	–	–	6.3	84.5
1 9 6 4	139,547	123,951	–	–	6.6	88.8

구분 / 연도	총 인 구(A)	농 업 인 구(B)			가 구 당 농가인구	B/A(%)
		합 계	남	여		
1 9 6 5	141,845	124,392	62,640	61,752	6.5	87.7
1 9 6 6	138,818	122,315	61,065	61,250	6.3	88.1
1 9 6 7	141,177	122,771	61,429	61,342	6.2	87.0
1 9 6 8	137,337	123,140	61,928	61,212	6.2	89.7
1 9 6 9	137,337	123,366	62,318	61,048	6.2	89.8
1 9 7 0	127,240	116,490	58,047	58,443	5.8	91.6
1 9 7 1	126,139	113,828	56,971	56,857	5.9	90.2
1 9 7 2	128,197	114,728	57,303	57,425	6.0	89.5
1 9 7 3	127,621	116,084	57,856	58,228	6.4	91.0
1 9 7 4	126,636	100,714	49,560	51,154	5.7	79.5
1 9 7 5	119,237	102,143	50,666	51,477	5.4	85.7
1 9 7 6	118,087	98,308	49,203	49,105	5.3	83.3
1 9 7 7	116,555	95,576	47,448	48,128	5.2	82.0
1 9 7 8	114,913	92,605	45,964	46,615	5.2	80.6
1 9 7 9	112,924	81,337	40,159	41,178	4.8	72.0
1 9 8 0	96,344	74,822	36,884	37,938	4.6	77.7
1 9 8 1	92,960	74,368	–	–	4.8	80.0
1 9 8 2	91,417	71,233	–	–	4.7	77.9
1 9 8 3	86,357	–	–	–	–	–
1 9 8 4	85,004	–	–	–	–	–
1 9 8 5	78,173	–	–	–	–	–
1 9 8 6	75,720	–	–	–	–	–
1 9 8 7	72,023	–	–	–	–	–
1 9 8 8	69,550	–	–	–	–	–
1 9 8 9	69,728	–	–	–	–	–
1 9 9 0	63,081	43,301	21,047	22,254	3.5	68.6
1 9 9 1	62,098	–	–	–	–	–
1 9 9 2	58,215	33,940	–	–	3.0	58.3
1 9 9 3	55,684	31,605	–	–	2.9	56.8
1 9 9 4	52,819	29,586	13,487	16,099	2.8	56.0
1 9 9 5	51,703	28,183	13,459	14,724	2.8	54.5
1 9 9 6	49,733	27,918	13,031	14,887	2.7	56.1
1 9 9 7	48,304	26,064	12,231	13,833	2.6	54.0
1 9 9 8	50,929	24,964	11,506	13,458	2.6	49.0
1 9 9 9	46,929	21,982	10,056	11,925	2.5	46.8
2 0 0 0	45,369	23,414	11,078	12,336	2.5	51.6
2 0 0 1	43,677	21,511	9,637	11,874	2.4	49.3
2 0 0 2	42,123	20,489	9,505	10,985	2.5	48.6
2 0 0 3	42,338	19,933	9,278	10,655	2.4	47.1
2 0 0 4	40,486	19,064	8,841	10,223	2.4	47.1
2 0 0 5	40,437	18,236	8,602	9,634	2.4	45.1
2 0 0 6	38,956	18,032	8,381	9,651	2.4	46.3
2 0 0 7	38,402	17,469	8,236	9,233	2.4	45.5

자료 : 함평군통계연보

<표 4> 연령별·성별 농업인구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농 업 인 구(A)		124,392	116,490	102,143	74,822	–	43,301	28,183	23,414	18,236
15세미만	남	28,667	25,771	19,902	13,192	–	4,376	1,883		
	여	26,997	24,122	18,709	12,374	–	4,023	1,667		
	계(B)	55,664	49,893	38,611	25,566	–	8,399	3,550		
	B/A	44.7%	42.8%	37.5%	34.2%	–	19.4%	12.6%		
15세이상~	남	7,513	7,569	8,063	6,106	–	2,783	1,263		

구 분 \ 연 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세미만	여	7,107	6,536	7,287	5,222	-	2,675	1,240		
	계(B)	14,620	14,105	15,350	11,328	-	5,458	2,503		
	B/A	11.8%	12.1%	15.0%	15.1%	-	12.6%	8.9%		
20세이상~50세미만	남	18,998	17,591	15,291	10,241	-	6,842	3,788		
	여	18,698	17,609	16,180	11,352	-	6,441	3,638		
	계(B)	37,696	35,200	31,471	21,593	-	13,283	7,426		
	B/A	30.3%	30.2%	30.8%	28.9%	-	30.7%	26.4%		
50세이상~60세미만	남	5,070	3,881	4,027	4,094	-	3,506	2,629		
	여	6,009	4,984	4,358	4,097	-	4,315	3,310		
	계(B)	11,079	8,865	8,385	8,191	-	7,821	5,939		
	B/A	8.9%	7.6%	8.2%	11.0%	-	18.1%	21.1%		
60세이상	남	2,392	3,235	3,383	3,251	-	3,540	3,847		
	여	2,946	5,912	4,943	4,293	-	4,800	4,823		
	계(B)	5,338	9,147	8,326	7,544	-	8,340	8,670		
	B/A	4.3%	7.9%	8.2%	10.1%	-	19.3%	30.9%		

자료 : 함평군통계연보, 1995년 수치는 1995 농업총조사
※ 1965년 : 1~15, 16~20, 21~50, 51~65, 66세이상
1970~1980 : 1~13, 14~19, 20~49, 50~59, 60세이상

농업인구의 남녀 구성비는 47여년 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였던 농가구나 농업인구와는 달리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나 여성의 비율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곧 연도별 남녀의 구성비가 각각 1965년에 50.4%·49.6%, 1970년에 49.8%·50.2%, 1975년에 49.6%·50.4%, 1980년에 49.3%·50.7%, 1990년에 48.6%·51.4%, 1995년에 47.8%·52.2%, 2000년에 47.3%·52.7%, 2005년에 47.2%·52.8%, 2007년에 47.1%·52.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경지면적

1) 토지이용

2007년 함평군의 총면적은 전남의 3.24%인 39,276ha로서 농경지 14,163ha(36.1%), 과수원 49.2ha(0.1%), 목장용지 313.2ha(0.8%), 임야 18,677ha(47.5%), 기타 6,073ha(15.5%)로 구성된 평야지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 토지이용율을 전남도와 비교하여 보면 농경지의 비율이 높고, 목장용지와 임야, 과수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각 읍면별 토지이용 현황은 <표 5>와 같다. 함평군 전체의 경지율 36.1% 보다 높은 읍면은 엄다면(55.0%), 월야면(52.6%), 함평읍(47.6%), 손불면(41.1%)순이며 낮은 읍면은 대동면(24.7%), 신광면(27.5%), 나산면(28.2%), 해보면(29.5%), 학교면(34.7%)순이다. 함평군 전체의 농경지 가운데 논 비율 65.1% 보다 높은 읍면은 엄다면(73.0%), 월야면(72.5%), 해보면(71.4), 학교면(67.4%), 나산면(66.9%), 대동면(65.2%)순이며 낮은 읍면은 함평읍(55.1%), 손불면(59.5%), 신광면(60.6), 순이다.

<표 5> 읍면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ha, %)

구분 / 읍면별	총면적 (A)	경 지 면 적			임야(D)	경지율 (C/A)	답율 (B/C)	임야률 (D/A)
		전	답(B)	소계(C)				
전남도	1,212,144	118,035	208,172	326,207	709,262	26.9	63.8	58.5
함평군	39,276	4,939	9,225	14,164	18,677	36.1	65.1	47.6
함평읍	4,025	860	1,055	1,915	1,306	47.6	55.1	32.4
손불면	5,528	922	1,352	2,274	2,395	41.1	59.5	43.3
신광면	4,108	445	684	1,129	2,455	27.5	60.6	59.8
학교면	4,643	525	1,086	1,611	2,074	34.7	67.4	44.7
엄다면	2,331	346	937	1,283	551	55.0	73.0	23.6
대동면	5,651	486	910	1,396	3,433	24.7	65.2	60.8
나산면	5,588	522	1,053	1,575	3,280	28.2	66.9	58.7
해보면	3,952	333	832	1,165	2,234	29.5	71.4	56.5
월야면	3,450	500	1,316	1,816	949	52.6	72.5	27.5

자료 : 함평통계연보

2) 연도별 경지면적

함평군의 연도별 경지면적 추이는 <표 6>과 같다. 총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

<표 6> 연도별 경지면적

(단위 : ha)

구분 / 연도	총면적(A)	경 지 면 적				가구당경지면적		
		계(B)	논	밭	B/A(%)	계	논	밭
1961	38,107	15,236.5	9,411.4	5,825.1	40.0	0.83	0.51	0.32
1962	38,107	15,138.2	9,245.8	5,892.4	39.7	0.79	0.48	0.31
1963	38,107	15,468.9	9,430.5	6,038.4	40.6	0.84	0.51	0.33
1964	38,107	16,218.3	9,585.8	6,632.5	42.6	0.85	0.50	0.35
1965	38,529	18,081.5	10,243.3	7,838.2	46.9	0.94	0.53	0.41
1966	38,529	17,965.8	10,040.5	7,920.3	46.6	0.93	0.52	0.41
1967	38,529	17,909.7	9,891.2	8,018.5	46.5	0.90	0.50	0.40
1968	38,529	17,893.9	9,823.0	8,017.9	46.4	0.89	0.49	0.40
1969	38,488	17,894.5	9,874.2	8,020.3	46.5	0.89	0.49	0.40
1970	38,535	17,853.4	9,840.7	8,012.7	46.3	0.89	0.49	0.40
1971	38,559	18,173.8	9,560.9	8,612.9	47.1	0.94	0.49	0.45
1972	38,557	16,458.5	9,367.6	7,091.9	42.7	0.86	0.49	0.37
1973	38,558	16,194.8	9,249.3	6,945.5	42.0	0.84	0.48	0.36
1974	38,532	16,212.2	9,240.0	6,918.2	42.1	0.83	0.47	0.36
1975	38,551	16,223.4	9,395.1	6,828.3	42.1	0.86	0.50	0.36
1976	38,562	16,385.5	9,575.2	6,810.3	42.5	0.99	0.58	0.41
1977	38,587	16,411.7	9,817.7	5,540.0	42.5	1.00	0.60	0.40
1978	38,596	16,372.9	9,989.2	6,383.7	42.4	0.99	0.61	0.38
1979	38,652	16,370.1	10,083.2	6,286.9	42.4	0.99	0.61	0.38
1980	38,666	16,356.0	10,113.4	6,242.6	42.3	0.99	0.61	0.38
1981	38,671	16,333.0	10,145.0	6,188.0	42.2	1.06	0.66	0.40
1982	38,731	16,233.0	10,238.0	5,995.0	41.9	1.09	0.69	0.40
1983	38,750	16,225.0	10,407.0	5,818.0	42.0	–	–	–
1984	38,700	16,202	10,817	5,385	41.9	1.13	0.75	0.38
1985	38,788	16,153	11,094	5,059	41.6	1.06	0.73	0.33
1986	38,782	16,164	11,343	4,821	41.7	1.08	0.76	0.32
1987	38,771	15,723	10,537	5,186	40.6	1.07	0.72	0.35
1988	38,767	15,701	10,820	4,881	40.5	1.10	0.76	0.34
1989	38,770	15,669	10,884	4,785	40.4	1.11	0.77	0.34
1990	38,758	15,605	10,950	4,655	40.3	1.27	0.89	0.38

구분 / 연도	총면적(A)	경 지 면 적				가구당경지면적		
		계(B)	논	밭	B/A(%)	계	논	밭
1 9 9 1	38,717	15,561	11,010	4,551	40.2	1.15	0.82	0.34
1 9 9 2	38,712	14,949	10,574	4,375	38.6	1.31	0.93	0.38
1 9 9 3	38,705	15,394	11,009	4,385	39.8	1.40	1.00	0.40
1 9 9 4	38,663	15,003	10,622	4,381	38.8	1.41	1.00	0.41
1 9 9 5	39,228	14,881	10,140	4,741	37.9	1.48	1.01	0.47
1 9 9 6	39,225	14,833	9,438	5,395	37.8	1.45	0.92	0.53
1 9 9 7	39,270	14,768	9,412	5,356	37.6	1.48	0.94	0.54
1 9 9 8	39,280	14,707	9,384	5,323	37.4	1.55	0.99	0.56
1 9 9 9	39,277	14,642	9,376	5,266	37.3	1.65	1.06	0.59
2 0 0 0	39,277	14,590	9,364	5,226	37.1	1.53	0.98	0.55
2 0 0 1	39,274	14,492	9,310	5,182	36.9	1.63	1.05	0.58
2 0 0 2	39,272	14,427	9,309	5,118	36.7	1.73	1.12	0.61
2 0 0 3	39,272	14,380	9,305	5,075	36.6	1.74	1.13	0.61
2 0 0 4	39,272	14,262	9,244	5,018	36.3	1.80	1.17	0.63
2 0 0 5	39,273	14,239	9,248	4,991	36.3	1.85	1.20	0.65
2 0 0 6	39,272	14,195	9,232	4,963	36.1	1.86	1.21	0.65
2 0 0 7	39,276	14,164	9,225	4,939	36.1	1.97	1.29	0.69

자 료 : 함평군통계연보

은 1961년 40.0%이었던 것이 농경지의 확대로 1965년에는 46.9%로 증가했다. 이후 1970년 46.4%, 1975년 42.1%, 1980년 42.3%, 1985년 41.6%, 1990년40.3%, 1995년 37.9%, 2002년 36.7%, 2007년 36.1%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지면적이 14,164ha인 2007년은 경지면적이 가장 넓었던 1971년의 18,173.8ha에 비하여 4,009.8ha가 줄어들었다

경지면적에 대한 논과 밭의 비율은 1961년 논 61.8%·밭 38.2%, 1965년 논 56.7%·밭 43.3%, 1970년 논 55.1%·밭 44.9%, 1975년 논 57.9%·밭 42.1%, 1980년 논 61.8%· 밭 38.2%, 1985년 논 68.7%·밭 31.3%, 1990년 논 70.2%·밭 29.8%, 1995년 논 68.1%·밭 31.9%, 2000년 논 64.2%·밭 35.8%, 2005년 논 65.0%·밭 35.0%, 2007년 논 65.1%·밭 34.9%이다. 논과 밭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까지 밭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197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반대로 논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1990년도 초반을 고비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함평군의 2007년 가구당 경지면적은 1.97ha(논 1.29, 밭 0.69)로 전남의 1.71ha(논 1.09, 밭 0.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1년 0.83ha(논 0.51, 밭 0.32), 1965년 0.94ha(논 0.53, 밭 0.41), 1970년, 1975년 0.86ha(논 0.50, 밭 0.36), 1980년 1.0ha(논 0.62, 밭 0.38), 1985년 1.06ha(논 0.73, 밭 0.33), 1990년 1.27ha(논 0.89, 밭 0.38), 1995년 1.48ha(논 1.01, 밭 0.47), 2000년 1.53ha(논 0.98, 밭 0.58), 2005년 1.85ha(논 1.20, 밭 0.65)로 나타났다. 이렇듯 총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경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농업가구의 감소가 더 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5년말 현재 함평군의 경지정리 및 수리답면적 현황은 <표 7>과 같다. 총 농지면적은 14,379.0ha이고, 경지정리가능면적 8,980.0ha 가운데 경지정리면적은 7,520.1ha로 경지정리율은 83.7%이다. 읍면별 경지정리율은 월야면, 해보면, 신광면, 학교면, 손불면, 함

평읍, 엄다면, 나산면, 대동면 순이다. 또한 경지답면적 10,113.9ha 가운데 수리답면적은 8,629.0ha로 수리답율은 85.3.%이다. 읍면별 수리답율은 해보면,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엄다면, 월야면, 학교면, 나산면, 함평읍 순이다.

<표 7> 경지정리 및 수리답면적 현황

(단위 : ha, %)

읍면별	총 농지면적	경지정리(ha)				수리답(ha)			비고
		경지정리가능면적	기경지 가능면적	경지 정리율	요정리 면 적	경지면적 (답)	수 리 답면적	수리답율	
소 계	14,379.0	8,980.0	7,520.1	83.7	1,459.9	10,113.9	8,629.0	85.3	
함 평	1,985	1,057	883	83.5	174.50	1,194.5	882.0	73.8	
손 불	2,309	1,278	1,090	85.3	188.40	1,330.7	1,224.0	92.0	
신 광	1,154	621	550	88.6	71.00	744.7	683.0	91.7	
학 교	1,635	1,080	950	88.0	130.00	1,361.4	1,113.0	81.8	
엄 다	1,294	1,004	793	79.0	211.00	1,095.9	980.0	89.4	
대 동	1,407	826	563	68.2	263.00	917.7	837.0	91.2	
나 산	1,586	910	644	70.8	266.00	1,108.7	878.0	79.2	
해 보	1,173	1,019	930	91.3	89.00	928.8	857.0	92.3	
월 야	1,836	1,185	1,118	94.3	67.00	1,431.5	1,175.0	82.1	

자료 : 함평군 건설과

4. 농지개량

1) 농업수리 현황

농업수리가 농업경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천수답과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바꿈으로써 농경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농업수리에는 관개·배수시설이 있다.

관개시설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경지에 공급하고자 용수원을 확보하는 시설로써 하천의 보, 저수지, 도수로, 양수장, 지하수 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함평군과 같이 수도작 위주의 농업구조 지역에서는 자연의 강우만으로는 제때에 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조성은 옛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제1과제이었을 것이다.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땅의 온도를 높혀 냉해를 막아주며 경운작업, 제초작업을 손쉽게 하기도 한다.

배수시설은 관개시설과 반대로 강우 등으로 작물이 침수된 농경지, 지하수위가 높은 습답(濕畓)의 필요없는 물을 인공적으로 빼주는 시설로써 자연경사를 이용한 도랑, 집수정 등이 있다. 이렇듯 관개시설과 배수시설은 방법은 다르지만 작물생육에 적합한 수분을 조절하는 목적이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 저수지

함평군내 저수지는 총 158개소로 수혜면적이 4,482.1ha이다. 그 관리는 함평군 건설재난관리과 농업기반계와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소가 나눠맡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소 관리 저수지는 <표 8>과 같다. 이 공사 관리 저수지는 총 37개소이다. 읍면별로는 월야면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나산면 6개소, 해보면 6개소, 학교면 5개소, 손불면 3개소, 대동면 3개소, 신광면 1개소, 엄다면 1개소 순이다. 함평읍은 관리 저수지가 없다.

<표 8>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관리 저수지

(단위 : ha, M/T, m)

저수지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유역 면적	수혜 면적	만수 면적	유효저수량 (천톤)	시 설 규 모	
							둑높이	둑길이
대 동 제	대동 운교	1946	4,390.0	992.0	108.2	4,281.3	16	325
강 운 제	대동 강운	1973	160.0	72.0	6.6	280.5	15.0	297
용 성 제	대동 용성	1975	171.0	44.0	7.5	130.6	1.8	125
목 교 제	손불 궁산	1929	1,125.0	89.0	34.8	325.3	6.5	476
월 천 제	손불 월천	1926	1,308.0	362.0	50.7	1,251.0	7.8	670
산 남 제	손불 산남	1961	260.0	99.0	13.0	447.0	6	440
동 정 제	신광 동정	1968	525.0	155.0	28.1	852.5	15	196
청 수 제	학교 마산	1942	108.0	39.0	3.2	152.1	8.6	156
반 곡 제	학교 금송	1957	170.0	32.0	7.0	216.0	5.5	210
송 림 제	학교 죽정	1945	24.0	33.0	0.2	21.2	7.5	88
원곡 1제	학교 곡창	1945	37.0	18.0	0.7	1.9	2.5	117
원곡 2제	학교 곡창	1945	4.0	15.0	0.1	8.4	5.5	72
계 동 제	나산 우치	1945	50.0	1.0	1.9	27.9	7.2	105
강 천 제	나산 우치	1945	80.0	6.0	6.4	197.0	11	204
초 포 제	나산 초포	1945	80.0	2.0	1.8	8.5	3.5	160
월 봉 제	나산 월봉	1945	50.0	39.0	3.0	59.0	6	224
수 양 제	나산 용두	1969	140.0	4.0	2.4	95.6	7	117
석 지 제	나산 이문	1945	50.0	3.0	1.0	22.2	6	81
금 계 제	해보 금계	1956	508.0	113.0	10.5	633.0	12	260
송 산 제	해보 산내	2001	476.0	177.0	26.9	2,233.0	34.4	226
문 암 제	해보 문장	1945	50.0	22.0	3.1	47.0	2.8	280
모 산 제	해보 해보	1945	70.0	7.0	4.9	40.7	2.7	253
금 덕 제	해보 금덕	1945	110.0	26.0	6.9	90.0	5.2	186
대 창 제	해보 대창	1945	40.0	12.0	3.4	19.7	2.3	285
예 덕 제	월야 예덕	1945	60.0	14.0	3.1	47.0	5.4	149
용 암 제	월야 용암	1945	120.0	39.0	8.8	104.0	7	231
용 강 제	월야 월계	1940	60.0	12.0	4.1	45.1	5	199
용 정 제	월야 용정	1962	50.0	17.0	3.0	26.0	5.9	160
연 당 제	월야 월악	1945	50.0	19.0	2.6	19.6	5.7	136
순 촌 제	월야 월야	1940	50.0	19.0	1.6	44.5	4	230
외치 제1	월야 외치	1945	30.0	20.0	1.5	21.7	6.2	123
외치 제2	월야 외치	1945	50.0	6.0	0.9	18.2	5	175
백 야 제	월야 외치	1945	60.0	28.0	2.4	18.5	5	120
덕 령 제	월야 영월	1945	60.0	12.0	1.5	21.6	5.4	188
내 세 제	월야 용월	1945	70.0	11.0	1.6	10.1	4.7	145
방 축 제	월야 양정	1945	95.0	7.0	4.5	59.5	3.5	213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함평군 건설재난관리과 농업기반계 관리 저수지는 <표 9>와 같다. 농업기반계 관리 저수지는 총 121개소이다. 읍면별로는 신광면이 22개소로 가장 많고, 함평읍 21개소, 손불면 21개소, 나산면 14개소, 대동면 13개소, 학교면 11개소, 엄다면 10개소, 해보면 7개소,

월야면 2개소 순이다.

<표 9> 함평군청 관리 저수지

(단위 : ha, M/T, m)

저수지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유역 면적	수혜 면적	만수 면적	유효저수량 (천톤)	시설규모(m)	
							둑높이	둑길이
옥 산 제	함평 옥산	1945	4.0	8.0	12.0	45.0	6.0	128.0
중 량 제	함평 진양	1945	76.0	10.0	–	15.6	2.3	31.0
양 림 제	함평 진양	1945	8.0	10.0	–	18.5	2.3	152.0
백 곡 제	함평 대덕	1945	20.0	13.0	–	10.4	2.8	175.0
가 동 제	함평 가동	1945	15.0	7.0	–	7.0	3.5	65.0
성 덕 제	함평 석성	1960	15.0	5.0	–	2.3	2.5	76.0
외대화제	함평 내교	1961	30.0	7.0	–	13.8	8.5	77.0
내대화제	함평 내교	1945	8.0	3.0	–	8.0	10.0	68.0
평 호 제	함평 수호	1960	12.0	8.0	–	6.0	7.2	48.0
수 호 제	함평 수호	1962	10.0	10.0	–	15.4	9.7	79.0
초 동 제	함평 만흥	1945	42.0	23.8	–	7.5	5.0	140.0
송 풍 제	함평 자풍	1956	60.0	12.4	–	19.2	5.5	132.0
자 풍 제	함평 자풍	1945	35.0	15.0	–	22.6	6.9	69.0
금 곡 제	함평 자풍	1951	30.0	13.0	–	11.0	6.2	42.0
만 년 제	함평 만흥	1945	150.0	11.1	–	6.1	2.5	116.0
국 산 제	함평 만흥	1961	25.0	18.0	–	21.7	7.2	120.0
산 음 제	함평 장교	1945	18.0	5.0	–	6.2	6.0	57.0
대 천 제	함평 대덕	1945	56.0	23.0	–	15.9	2.5	149.0
자 명 제	함평 장교	1945	4.0	8.0	–	48.0	5.5	140.0
장 년 제	함평 장년	1945	30.0	18.0	–	30.8	5.0	120.0
백 년 제	함평 장년	1945	8.0	5.0	–	2.9	4.0	61.0
평 산 제	손불 학산	1945	80.0	28.0	–	40.3	3.1	233.0
석 포 제	손불 학산	1970	15.0	19.0	–	34.3	5.0	155.0
호 암 제	손불 양재	1968	70.0	33.95	–	46.7	10.0	136.0
사 기 제	손불 북성	1968	27.0	24.0	–	17.0	6.0	87.0
승 선 제	손불 북성	1940	25.0	23.0	–	24.6	9.1	104.0
동 편 제	손불 월천	1945	16.0	8.5	–	3.8	5.8	33.0
어 전 제	손불 월천	1968	35.0	15.0	–	11.0	6.9	115.0
은 곡 제	손불 대전	1945	103.0	28.0	–	44.0	8.3	118.0
저 전 제	손불 대전	1945	26.0	14.0	–	18.0	6.1	97.0
복 암 제	손불 동암	1945	1.0	53.0	–	144.7	8.8	115.0
복 흥 제	손불 동암	1960	29.0	18.0	–	4.1	6.7	66.0
죽 사 제	손불 죽장	1945	42.0	13.0	–	26.3	6.3	126.0
수 철 제	손불 죽장	1968	3.0	11.0	–	1.8	3.2	39.0
용 흥 제	손불 산남	1968	80.0	13.0	–	20.0	7.2	167.0
비 룡 제	손불 궁산	1945	88.0	33.0	–	181.9	12.6	85.0
석 령 제	손불 죽암	1945	28.0	12.0	–	25.3	6.7	131.0
하대발제	손불 석창	1945	16.0	14.7	–	9.3	4.5	100.0
상대발제	손불 석창	1945	32.0	10.0	–	25.1	6.0	160.0
새 낱 제	손불 죽암	1977	73.0	18.0	–	88.0	7.0	163.0
금 천 제	손불 궁산	1968	75.0	13.0	–	8.2	3.5	100.0
북 성 제	손불 북성	1992	–	30.0	–	13.7	12.6	241.0
매 산 제	신광 가덕	1945	10.0	13.3	–	15.8	3.3	135.0
연 화 제	신광 함정	1945	150.0	39.6	–	82.3	5.6	172.0
덕동 3제	신광 원산	1964	27.0	8.0	–	10.6	7.0	89.0
덕동 2제	신광 원산	1965	29.0	4.3	–	4.9	5.8	43.0

저수지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유역 면적	수혜 면적	만수 면적	유효저수량 (천톤)	시설규모(m)	
							둑높이	둑길이
학 동 제	신광 원산	1964	30.0	4.6	−	14.6	5.7	113.0
덕 암 제	신광 삼덕	1962	26.0	2.7	−	8.9	6.8	49.0
덕 산 제	신광 삼덕	1964	25.0	3.1	−	10.8	6.7	90.9
덕 천 제	신광 삼덕	1962	8.4	9.2	−	4.7	7.6	58.0
월 암 제	신광 월암	1962	40.0	31.0	−	28.8	6.8	123.0
운 제 제	신광 백운	1961	50.0	14.8	−	18.3	3.8	88.0
신 기 제	신광 백운	1962	50.0	13.2	−	14.4	5.0	105.0
복 치 제	신광 복흥	1964	90.0	11.0	−	12.9	5.8	61.0
미 출 제	신광 유천	1961	50.0	3.3	−	9.8	4.5	81.0
학 천 제	신광 유천	1961	30.0	10.0	−	11.2	4.0	143.0
호 덕 제	신광 가덕	1945	25.0	7.8	−	10.4	4.1	143.0
냉 천 제	신광 동정	1946	60.0	3.3	−	6.2	5.5	39.0
수 정 제	신광 송사	1963	25.0	11.0	−	6.0	5.0	65.0
석 계 제	신광 복흥	1965	30.0	10.0	−	10.0	6.0	77.0
보 여 제	신광 보여	1968	32.0	13.3	−	31.5	8.0	142.0
바 금 제	신광 함정	1977	25.0	15.3	−	48.0	4.5	81.0
원 남 제	신광 원산	1966	40.0	22.8	−	17.5	5.0	80.0
해 산 제	신광 원산	1964	30.0	2.5	−	8.0	6.0	55.0
대 곡 제	학교 곡창	1959	30.0	12.0	−	9.4	6.3	55.0
곡 창 제	학교 곡창	1946	19.0	8.0	−	12.5	5.8	90.0
세 동 제	학교 곡창	1945	80.0	31.0	−	26.3	4.7	110.0
광 진 제	학교 고막	1967	32.0	12.0	0.5	15.9	6.3	76.0
방 우 제	학교 금송	1968	30.0	10.5	−	19.0	6.0	95.0
선 암 제	학교 죽정	1945	58.0	40.0	−	62.8	8.0	75.0
정자동제	학교 죽정	1945	5.0	8.0	−	3.9	5.0	63.0
죽 정 제	학교 죽정	1970	30.0	8.0	−	11.5	2.2	44.0
호 암 제	학교 죽정	1945	60.0	15.0	−	32.8	5.4	117.0
표 산 제	학교 마산	1968	15.0	4.2	−	7.4	6.0	58.0
동 림 제	학교 석정	1968	−	16.0	−	−	10.0	157.0
용 호 제	엄다 영흥	1959	55.0	14.0	−	6.8	1.2	100.0
영화정제	엄다 삼정	1968	15.0	18.0	−	26.5	9.6	74.0
성 산 제	엄다 엄다	1952	50.0	12.0	−	2.6	2.5	59.0
송 촌 제	송로	1969	13.0	6.0	−	4.2	3.3	59.0
노 상 제	엄다 송로	1962	25.0	5.0	−	0.9	1.8	22.0
일 재 제	엄다 송로	1962	6.0	7.0	−	17.0	5.0	49.0
성 남 제	엄다 신계	1952	50.0	18.0	−	9.8	4.0	96.0
신 계 제	엄다 신계	1951	21.0	10.0	−	25.5	6.0	57.0
화 계 제	엄다 신계	1945	50.0	15.0	−	13.1	2.2	211.0
용 동 제	엄다 성천	1945	60.0	17.0	−	9.3	3.3	79.0
상 옥 제	대동 상옥	1968	11.0	16.0	−	1.3	2.8	36.0
남 악 제	대동 금곡	1968	18.0	13.0	−	23.8	8.3	86.0
금 곡 제	대동 금곡	1968	20.0	10.0	−	5.0	7.8	91.0
동 암 제	대동 월송	1968	45.0	26.0	−	36.0	8.0	123.0
백 년 제	대동 백호	1968	7.0	19.0	−	26.1	9.0	73.0
백 호 제	대동 백호	1945	200.0	56.0	−	113.9	7.5	228.0
보 화 제	대동 백호	1968	12.0	22.0	−	8.5	12.0	90.0
상 강 제	대동 강운	1968	20.0	9.0	−	3.7	7.2	72.0
향 교 제	대동 향교	1968	150.0	32.0	−	98.7	8.5	143.0
남 교 제	대동 향교	1945	22.0	8.0	−	6.6	4.0	70.0
운 교 제	대동 운교	1968	4.0	11.0	−	3.8	4.4	65.0
금 산 제	대동 금산	1968	6.0	7.0	−	4.6	6.5	44.0
수 암 제	대동 연암	1968	78.0	2.0	3.50	4.20	77.0	77.0
연 암 제	대동 연암	1968	205.0	20.0	−	37.2	7.0	106.0
수하 1제	나산 수하	1945	50.0	9.5	−	9.9	5.3	119.0
수하 2제	나산 수하	1974	−	6.2	−	34.6	12.7	92.0
신 평 제	나산 신평	1945	55.0	20.9	−	31.4	6.0	160.0

저수지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유역 면적	수혜 면적	만수 면적	유효저수량 (천톤)	시설규모(m)	
							둑높이	둑길이
송 암 제	나산 송암	1945	7.0	44.1	–	25.8	9.3	97.0
월 현 제	나산 수상	1968	20.0	6.7	–	13.5	7.8	62.0
유 덕 제	나산 수상	1968	11.0	5.6	–	3.9	5.0	57.0
나 산 제	나산 나산	1968	19.0	11.3	–	16.8	8.0	103.0
구 산 제	나산 구산	1967	224.0	61.5	8.97	67.6	19.0	163.0
덕 림 제	나산 덕림	1945	32.0	16.4	–	27.0	6.0	93.0
원선 1제	나산 원선	1969	48.0	10.0	–	7.1	6.0	57.0
원선 2제	나산 원선	1985	366.0	80.0	–	440.0	1.9	186.0
삼 구 제	나산 구산	1945	30.0	18.2	–	19.4	6.0	196.0
용 두 제	나산 용두	1945	13.0	10.0	–	11.8	6.3	85.0
대 안 제	나산 수상	1986	–	20.0	–	115.4	13.3	144.0
구 계 제	해보 금덕	1969	45.0	4.6	–	9.3	5.5	116.0
탑 치 제	해보 해보	1945	8.0	1.0	–	14.6	7.0	80.0
금 산 제	해보 금계	1969	85.0	17.3	–	21.1	7.0	140.0
송 산 제	해보 산내	1968	150.0	16.0	–	29.4	6.6	88.0
광 암 제	해보 광암	1945	70.0	24.6	–	31.0	9.0	105.0
가 점 제	해보 광암	1945	63.0	28.0	–	18.6	8.3	74.0
대 각 제	해보 대각	1970	70.0	14.0	–	46.0	10.8	89.0
무 봉 제	월야 예덕	1959	–	6.8	–	24.0	10.0	110.0
월 계 제	월야 월계	1945	43.0	14.2	–	23.3	7.0	83.0

자료 :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2) 보(洑)



대경보·함평읍 내교리

함평군 내 보는 총 37개소로 함평군이 관리하는 보 13개와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가 보 24개를 관리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나산면이 9개소로 가장 많고, 함평읍과 학교면이 6개소, 대동면 5개소, 해보면 4개소, 월야면 3개소, 손불면 2개소, 엄다면 1개소 순이다. 1984년 간행 함평군사에 기록되어 있던 학교면 학교리 소재의 앞보 후보 · 객기보는 하천 복개공사로 없어졌다. 함평군과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의 관리 보는 다음<표10>와 같다.



도천보·나산면 이문리

<표 10> 함평군관리 취입 보 현황

(단위 : M/T, m)

보 이름	소 재 지	시설년도	수혜면적 (ha)	시 설 규 모(m)	
				둑길이(L)	둑높이(H)
금 성 보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313	1968	6.0	45.0	1.5
다 리 보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3	1964	112.0	130.0	1.5
덕 림 보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1-2	1987	40.0	85.0	3.0
백 호 보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955	1968	5.0	11.0	1.0
성남 1보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1060	1969	14.0	8.0	0.8
성남 2보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1060	1970	18.0	8.0	0.8
용 두 보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367	1968	4.0	85.0	2.0
월천 1보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701	1968	3.0	10.0	1.2
월천 2보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904	1968	10.0	10.0	1.2
이 암 보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76	1959	15.0	20.0	1.5
진 양 보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19	1979	8.0	100.0	2.0
상 옥 보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124	1983	53.0	120.0	1.5
삼 축 보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983	55.0	120.0	1.5

<표 11>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관리 보 현황

보 이름	소 재 지	시설년도	수취량 (㎥/sec)	시 설 규 모(m)		
				둑높이	둑길이	둑두께
감 미 보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956-05-20	0.04	1.5	18	0.6
강 정 보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956-04-30	0.02	1.5	65	1.2
금 구 보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1969-05-10	0.05	1.5	40	1.0
금 석 보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1979-05-10	0.2	2.0	10	0.8
기 와 보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1971-05-14	0.02	1.2	53	1.0
대 경 보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997-12-30	0.29	1.7	91	1.7
덕 산 보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962-05-11	0.04	1.0	36	2.1
도 천 보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1968-05-20	0.1	1.5	121	1.2
동 창 보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961-05-17	0.06	1.35	17	1.5
불 로 보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1966-04-12	0.1	1.2	36	0.4
불 암 보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961-01-01	0.01	3.0	6	1.0
새마을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1990-04-30	0.1	1.25	25	1.25
선 박 보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969-04-30	0.1	1.3	21	0.5
안 영 보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982-05-10	0.1	1.2	8	1.8
양 림 보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961-05-10	0.05	1.2	60	0.8
영 수 보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49-05-17	1.15	1.6	100	0.7
우 치 보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1991-05-12	0.1	1.2	80	1.0
월 야 보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959-05-15	0.14	1.7	37	0.6
일 음 보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1969-04-10	0.1	1.0	50	2.2
치카리보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1962-05-20	0.03	1.2	20	0.7
토 보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962-05-25	0.06	0.7	10	1.0
토 교 보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969-05-24	0.05	2.0	75	1.3
평 능 보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1959-05-17	0.1	1.1	41	1.2
학 교 보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950-01-01	0.02	1.0	15	2.0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3) 양수장

함평군내 양수장은 총 39개소로 함평군이 관리하는 양수장 21개소와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18개소라 있다. 읍면별로는 나산면이 10개소, 학교면이 9개소, 엄다면이 6개소, 대동면과 신광면이 각각 4개소, 함평읍과 해보면이 각각 2개소, 손불면과 월야면이 각각 1개소씩이다. 현재 1997년도 함평군사 기록의 15개소 보다 24개소가 늘었다. 함평군과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다음<표12><표13>과 같다.

<표 12> 함평군이 관리하는 양수장

양수장 명	소 재 지	설치년도	규 모	수혜면적 (단위:ha)	비 고
삼덕양수장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88-1	1990	15HP×75㎜×1대 30HP×200㎜×1대	7.0	
고막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6	1968	40HP×125㎜×1대	17.0	
광진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259	1979	20HP×105㎜×1대	12.0	
금산양수장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100	1968	20HP×125㎜×1대	15.0	
나산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903	1979	40HP×150㎜×1대	10.0	
덕림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396-2	1978	70HP×194㎜×1대	28.0	
선박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112-1	1987	50HP×150㎜×1대	20.0	
송암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755-5	1991	30HP×150㎜×1대	25.0	
수하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049-21	1968	30HP×150㎜×1대 25HP×150㎜×1대 25HP×250㎜×1대	33.0	
옥동양수장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26-10	1997	60HP×150㎜×1대	25.0	
회화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84	1979	40HP×150㎜×1대	38.5	
월현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21-2	1990	40HP×150㎜×1대	20.0	
사정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67-6	1979	20HP×150㎜×1대	14.0	
진양양수장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679-1	1969	20HP×200㎜×1대	15.0	
표산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3-4	1969	10HP×100㎜×1대	12.0	
화지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42-14	1962	100HP×255㎜×2대	20.0	
용정양수장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31-1	2002	7.5HP×75㎜×1대	11.0	
내동양수장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94(학교)	2002	40HP×100㎜×1대	12.0	
매동양수장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85-21	2002	40HP×200㎜×1대	7.5	
월암양수장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90-2	1984	7.5HP×75㎜×1대	29.0	
두동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129	2002	15HP×200㎜×1대	20.0	

<표 13>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양수장 명	소 재 지	설치년도	전동기 마력수	펌프규격	비 고
계천양수장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1984	60HP×1대	250×1	
금송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1984	20HP×1대 30HP×1대	200×1 150×1	
대창양수장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1969	15HP×1대 60HP×1대	150×1 200×1	
불암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996	3HP×2대	100×2	
사거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974	30HP×1대	250×1	
산남양수장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1969	60HP×1대	300×1	
삼축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990	75HP×1대	250×1	
석계양수장	함평군 신광면 복흥리	1990	20HP×1대	250×1	
송암양수장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1978	25HP×2대	200×2	
쌍천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1988	25HP×1대	250×1	
엄다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996	20HP×2대	200×2	
영수양수장	함평군 함평면 수호리	1997	100HP×3대	500×3	
용산양수장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1996	40HP×2대	250×2	
월산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997	30HP×1대	250×1	
월호양수장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1984	100HP×2대	400×2	
학야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1976	20HP×1대	250×1	
학야간이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1998	10HP×1대	125×1	
해정양수장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994	75HP×1대	200×1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2) 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은 분산된 형태의 농경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 불규칙한 형상의 논배미를 표준화하고, 농로·용수로·배수로를 농경지와 연결되게 하여 영농장비의 출입, 농약·비료·퇴비 등의 운반, 관개와 배수의 물관리 등을 손쉽게 하려는데 있다. 또한 토층이 섞이므로써 지력(地力)을 돋우고, 토지이용율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

함평군의 경지정리사업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65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까지 함평천을 끼고 펼쳐진 대동·학교·엄다면, 고막천을 끼고 펼쳐진 월야·해보·나산면의 면적이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23개 사업장에서 완료된 경지정리 면적은 대략 4,000ha에 이른다.

2007년말 현재 함평군의 총 경지정리가능면적 8,132.0ha 가운데 경지정리 면적은 7,524.0ha로 경지정리율이 92.5%이다. 이는 전남의 총 경지정리가능면적 165,589ha 가운데 경지정리 면적 147,696ha로 경지정리율 89.2% 보다 높은 비율이다.

3) 객토사업

객토사업은 농경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토양의 성질을 개선(지력-地力- 증진)하는 일이다. 옛 농서(農書)에도 객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월에 얼음이 풀리거든 갈고, 거름을 넣거나 혹은 새 흙을 넣음이 또한 득이 된다(정초-鄭招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종도조-種稻條)."

그 방법은 사질토양(砂質土壤)는 점토질토양(粘土質土壤)으로 객토하고, 노후답(老朽畓)에는 규산·철·망간 등을 고루 함유한 염기성 안산암이나 현무암이 풍화된 토양을 넣어준다. 밑바닥이 자갈과 모래가 들어있어 깊이갈이를 할 수 없는 경지에도 그 곳에 적당한 객토를 한다. 2007년 현재 함평군의 객토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4) 퇴비(堆肥)생산과 금비수급(金肥需給)

(1) 퇴비생산

퇴비는 농경지의 산성화를 막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퇴비감으로는 외양간, 마굿간, 돼지막 등 가축의 우리 바닥에 깔았던 짚을 으뜸으로 쳤다. 그밖에 부엌 아궁이의 재·인분뇨·녹비(綠肥)·산야초·쌀겨 등이 퇴비로 쓰였다.

이 퇴비의 확보는 고래로부터 화학비료인 금비가 보급되기 전까지 중요시 했던 농사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주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주지 않는다.'는 속담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1960년대 말에는 나라에서 퇴비증산을 독려해 퇴비증산왕을 뽑은 일도 있다. 2007년 현재 함평군의 퇴비생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금비수급

화학적 제조법에 의해 상품화된 금비는 그 성분에 따라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

비료, 복합비료 등으로 나뉜다.

함평군의 연도별 화학비료 사용현황은 <표 13>과 같다. 1961년에 6,193톤을 사용했던 것이 1965에는 8,087톤, 1970년에는 10,029톤, 1976년에는 14,779톤, 1980년에는 15,256톤, 1985년에는 14,474톤, 1990년에는 20,537톤, 1995년에는 15,501톤, 2000년에는 19,089톤, 2005년에는 8,508톤, 2007년에는 14,085톤을 사용했다.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1997년은 21,577톤으로 1961년보다 무려 15,384톤의 증가를 보였다. 2007년 사용량 14,085톤은 전라남도의 사용량 305,030천톤의 5.1%에 해당한다(복합이 없다).

성분별 사용비율은 1966년에 질소 51.7%·인산 32.7%·칼리 15.5%이던 것이 1970년에는 질소 57.0%·인산 25.7%·칼리 17.3%, 1976년에는 질소 59.4%·인산 20.0%·칼리 20.6%, 1980년에는 질소 55.6%·인산 23.0%·칼리 21.4%, 1985년에는 질소 55.0%·인산 22.2%·칼리 22.8%, 1990년에는 질소 55.4%·인산 21.9%·칼리 22.8%, 1995년에는 질소 53.2%·인산 22.2%·칼리 24.7%, 2000년에는 질소 57.5%·인산 18.5%·칼리 24.0%, 2005년에는 질소 49.7%·인산 21.3%·칼리 29.0%, 2007년에는 질소 16.0%·인산 60.7%·칼리 23.3%,의 변화를 보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는 질소 · 인산 · 칼리 중 2종 이상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비료와 요소이다.

5.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

농업의 기계화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

첫째 적기적작(適期適作), 트렉터 경운에 의한 깊이갈이(深耕), 효율적인 농약살포에 의한 병충해 방제, 양수기에 의한 가뭄극복, 수확작업의 능률화를 통한 손실방지 등으로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노동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또는 소나 말의 축력(畜力)을 이용했던 전통 노동방법은 능률적인 기계를 이용하는 노동방법과는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격차는 단위 노동력이 부담할 수 있는 생산규모가 확대된 데서 기인한다.

셋째 고역노동(苦役勞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덥고 추운 날씨에 흙과 살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힘든 작업인데, 편리한 농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이 줄게 된다.

<표 13> 화학비료 사용현황

(단위 : M/T)

구분 / 연도	성분			종류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유안	요소	중과석	용성인비	염화가리	용과린	복합비료
1961	-	-	-	2,746	959	1,005	-	136	-	-
1962	-	-	-	677	-	316	-	-	-	-
1963	-	-	-	4,420	259	1,264	-	279	-	-
1964	-	-	-	416	1,738	1,499	-	267	-	-
1965	-	-	-	1,214	2,591	-	-	404	-	829
1966	2,723	1,439	683	937	3,416	1,416	-	-	-	882

구분 / 연도	성분			종류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유안	요소	중과석	용성인비	염화가리	용과린	복합비료
1967	2,596	1,491	820	428	5,430	2,568	–	962	–	248
1968	2,614	1,103	659	2,055	3,780	1,000	497	592	–	1,192
1969	2,973	1,183	768	–	4,825	664	–	661	–	3,216
1970	2,766	1,248	838	1	4,675	423	825	661	–	3,219
1971	2,890	1,484	722	10	4,230	272	1,164	247	–	4,426
1972	3,933	1,762	805	1	6,218	374	2,189	295	–	4,917
1973	4,009	2,221	1,186	–	5,912	–	3,863	619	–	6,202
1974	3,837	2,047	1,360	–	6,046	1,731	931	1,146	–	5,117
1975	–	–	–	–	–	–	–	–	–	–
1976	4,395	1,481	1,521	327	6,198	–	1,021	1,279	69	5,683
1977	3,879	2,174	1,131	252	5,335	–	2,075	319	1,675	7,034
1978	4,184	2,134	1,636	113	5,609	–	1,395	722	2,322	7,165
1979	3,797	1,999	1,560	85	4,564	–	240	422	998	8,857
1980	4,237	1,754	1,627	186	5,391	–	181	149	93	8,246
1981	4,312	1,710	1,738	180	5,247	–	187	162	129	9,535
1982	2,996	1,256	1,263	76	3,577	–	182	132	138	6,946
1983	3,059	1,291	1,319	281	3,650	19	129	109	88	7,401
1984	3,667	1,454	1,506	169	4,490	–	127	166	125	8,370
1985	3,954	1,596	1,640	53	4,713	–	206	173	189	9,060
1986	3,895	1,645	1,711	88	4,518	–	170	198	176	9,512
1987	4,112	1,673	1,769	75	4,930	–	253	261	105	9,656
1988	4,148	1,679	1,803	33	4,928	–	189	312	101	9,458
1989	4,462	1,801	1,925	56	5,114	–	580	257	109	10,117
1990	5,649	2,232	2,325	17	6,562	130	724	281	56	12,767
1991	2,802	1,218	1,292	24	3,070	34	517	180	74	7,026
1992	3,937	1,686	1,794	26	4,208	3	514	169	15	10,030
1993	4,105	1,694	1,806	40	4,448	28	540	216	49	10,015
1994	3,853	1,663	1,820	41	3,938	–	553	150	20	10,214
1995	4,023	1,678	1,865	41	4,238	–	512	151	33	10,525
1996	4,179	1,600	1,857	62	4,535	–	473	109	5	10,598
1997	5,588	2,154	2,496	554	5,958	–	499	117	22	14,427
1998	4,926	1,833	2,231	79	5,128	–	497	148	–	13,545
1999	4,286	1,378	1,827	48	4,454	–	259	81	–	14,958
2000	3,772	1,216	1,575	42	3,867	–	175	42	–	14,963
2001	3,649	1,172	1,482	41	3,772	–	141	61	2	10,848
2002	3,494	1,073	1,391	38	3,656	–	89	33	36	8,988
2003	3,542	1,103	1,459	44	426	–	169	41	12	9,098
2004	4,796	1,679	1,289	51	5,638	–	244	67	149	8,309
2005	2,741	1,172	1,598	41	1,360	–	140	34	15	6,918
2006	2,212	663	896	83	2,249	–	111	35	10	6,253
2007	1,009	3,837	1,471	54	4,095	–	68	58	4	9,806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마지막으로 앞에 든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오늘날 농업에 있어서 기계화는 농가 존립의 문제에서 절실한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농업노동력의 누수현상을 가져왔고,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은 노동력은 매년 노령화·부녀화되어 질적으로 저하된 반면 농촌의 노임은 농산물 가격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 노임의 상승은 농산물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농가수입이 줄게 되어 농업기피를 야기시키고 있다.

함평군의 농기구 및 농기계 보급현황은 <표 14>, <표 15>와 같다. 편의상 1981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 표를 작성했다.

<표 14> 1961년~1980년까지의 주요 농기구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 연도	경운 정지용 기구			분무기		탈곡기		양수기		발동기		제초기 (인력)	파종기 (동력)
	쟁기	경운기	트렉터	인력	동력	인력	동력	인력	동력	동력	전기		
1961	2,263	–	–	102	–	916	5	–	–	–	–	101	–
1962	2,451	–	–	183	1	1,121	5	–	–	–	–	145	–
1963	2,752	–	–	382	18	1,352	5	–	–	–	–	308	–
1964	2,752	–	–	399	18	1,165	5	–	–	–	–	308	–
1965	2,448	2	–	671	22	1,167	122	1,225	105	191	–	412	–
1966	2,407	4	–	1,156	38	1,224	163	1,241	126	207	–	481	–
1967	2,732	28	–	1,506	48	1,323	85	1,229	158	269	–	595	–
1968	3,005	42	–	2,023	52	1,505	95	1,453	289	338	–	1,003	–
1969	2,961	62	–	2,155	103	1,457	104	1,245	225	283	–	623	1
1970	3,406	73	–	4,116	281	1,785	765	1,286	387	311	–	583	2
1971	3,774	115	–	4.766	597	2,144	333	1,114	387	314	–	577	2
1972	4,780	195	–	4,596	636	2,846	425	1,118	407	316	–	540	–
1973	4,679	333	–	6,231	817	5,528	473	1,118	220	353	–	344	–
1974	4,386	494	1	7,214	973	3,137	638	587	320	333	–	504	1
1975	4,436	710	2	7,487	1,127	5,903	693	–	321	307	53	499	5
1976	4,291	1,004	4	8,349	1,308	6,512	1,006	–	361	347	63	483	–
1977	–	1,062	10	9,422	1,670	3,230	1,083	–	613	291	70	349	28
1978	–	1,140	14	9,589	1,704	3,153	1,175	–	738	253	54	–	38
1979	–	1,325	14	8,009	2,263	2,608	1,221	–	887	303	113	–	21
1980	–	1,455	17	8,767	2,507	2,529	1,338	–	939	310	120	–	23

자 료 : 함평군 통계연보

<표 15> 1981년~2007년까지의 주요 농기구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 연도	경운정지용기구		수확탈곡기		동 력 방 제 기			이앙기	양수기	동 력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경운기	트렉터	바인더	콤바인	주행식	분무기	살분무기					
1981	1,773	26	29	16	–	803	803	50	1,145	1,555	7	23
1982	2,051	37	26	33	7	803	2,198	63	1,387	1,485	7	25
1983	2,432	55	26	57	7	1,154	2,084	76	1,524	1,603	6	25
1984	2,875	74	19	105	3	1,312	2,147	127	1,773	1,735	7	25
1985	3,131	87	22	137	4	1,606	2,330	159	1,846	1,802	42	25
1986	3,548	109	22	177	7	1,859	2,486	228	1,883	1,832	621	28
1987	3,749	129	33	230	7	2,037	2,540	355	1,888	2,001	81	29
1988	4,056	162	45	267	7	2,263	2,514	498	1,976	2,057	40	35
1989	4,199	300	42	317	7	2,332	2,224	781	2,061	1,871	23	–
1990	4,397	456	80	474	43	2,359	2,186	1,175	2,211	1,865	139	11
1991	4,489	616	93	663	46	2,331	1,824	1,439	1,769	1,474	151	14
1992	4,521	686	79	715	16	2,839	1,290	1,499	2,121	807	286	25
1993	4,903	782	102	811	9	2,975	866	1,560	2,055	500	435	369
1994	4,794	761	82	667	8	3,123	625	1,601	2,403	496	554	40
1995	4,994	752	84	539	–	3,382	607	1,719	2,310	183	673	36
1996	5,233	819	60	511	325	3,656	438	1,854	2,647	168	912	57

구분 / 연도	경운정지용기구		수확탈곡기		동 력 방 제 기			이앙기	양수기	동 력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경운기	트렉터	바인더	콤바인	주행식	분무기	살분무기					
1997	5,835	918	40	520	323	3,466	647	2,099	2,430	104	1,087	61
1998	6,228	1,066	44	606	41	3,421	1,053	2,338	1,854	156	1,170	111
1999	6,211	1,298	57	679	272	2,246	1,646	2,634	1,463	75	1,344	259
2000	5,931	1,348	101	671	234	2,793	1,926	2,500	1,634	80	1,270	293
2001	5,756	1,391	159	706	296	2,854	2,059	2,499	1,635	61	1,355	315
2002	5,569	1,440	155	716	284	2,782	2,091	2,547	1,887	66	1,401	105
2003	5,360	1,461	47	741	363	–	–	2,351	–	–	1,688	–
2004	5,186	1,411	43	672	656	–	–	2,122	–	–	1,474	–
2005	5,089	1,437	51	654	653	–	–	2,402	–	–	1,490	–
2006	4,937	1,452	54	682	1,522	–	–	2,131	–	–	1,587	–
2007	4,909	1,535	32	646	1,425	–	–	1,917	–	–	1,684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농기계 위주로 보급현황 살펴보면 먼저 경운정지용기계는 경운기가 1965년 처음 보급되어 2대 있던 것이 1970년 73대, 1975년 710대, 1980년 1,455대, 1985년 3,131대, 1990년 4,397대, 1995년 4,994대, 2000년 5,931대, 2005년 1,437대, 2007년 4,909대로 크게 증가했다. 보급된 경운기가 가장 많았던 1998년의 6,228대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7년 기준으로 가구당 0.68대가 있는 셈이다. 1974년 처음 1대가 보급되었던 트렉터는 1980년 17대, 1985년 87대, 1990년 456대, 1995년 752대, 2000년 1,348대, 2005년 1,437대로 증가했다. 2007년에는 1,535대로 5가구당 1대꼴이 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한 보급율을 전남과 비교하면 경운기는 함평군이 68.4%로 전남의 64.4% 보다 높다. 트렉터 역시 함평군이 21.4%로 전남의 18.2% 보다 보급율이 높았다. 재래농기구인 쟁기는 1961년 2,263대이던 것이 1972년에 최고치를 기록 4,780대로 늘었다. 이 쟁기는 1976년 4,291대를 마지막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그 뒤로는 급격히 감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확탈곡용기계로 바인더는 1980년 29대가 처음 보급되었던 것이 1985년 22대, 1990년 80대, 1995년 84대, 2000년 101대, 2001년 159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5년 51대, 2007년 32대로 줄었다. 콤바인은 1980년 7대가 처음 보급되었던 것이 1985년 137대, 1990년 474대, 1993년에는 811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95년 539대, 2002년 716대, 2007년 646대로 줄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한 보급율을 전남과 비교하면 바인더는 전남의 0.38%에 비해 함평군은 0.45%, 콤바인은 전남의 7.1%에 비해 함평군은 9.0%로 보급율이 앞서있다. 1961년 5대가 처음 보급되었던 동력탈곡기는 1965년 122대,1970년 765대, 1975년 693대, 1980년 1,338대, 최고치를 기록한 1988년에는 2,057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동력탈곡기는 바인더와 콤바인의 보급이 일반화된 1990년 이후 보급율이 급격히 떨어져 1995년에는 183대, 2000년에는 80대, 2002년에는 66대가 조사된 이후로 더 이상 기록이 없다.

병충해 방제용 기계인 동력분무기·동력살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주행식분무기)를 보면 동력분무기는 1962년에 처음으로 1대가 보급된 후 1965년 22대, 1975년 98대, 1980년 569대, 1985년 1,606대, 1990년 2,359대, 1995년 3,382대, 1996년 3,656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0년 2,793대, 2002년 2,872대로 줄었다. 동력살분무기는 1980년 569대이

었던 것이 1985년에 2,330대로 보급이 급증했고, 1990년 2,186대, 1995년에는 607대로 줄었다가 2000년 1,926대, 2002년에는 2,091대로 다시 증가했다. 동력분무기와 동력살분무기는 2002년 이후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1982년 처음으로 7대가 보급된 스피드스프레이어는 1996년 325대로 증가한 이후 줄었다가, 2000년 234대, 2005년 653대, 2007년 1,425대로 다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앙기는 1980년에 39대가 처음으로 보급되어 1985년에는 159대, 1990년에는 1,175대, 1995년에는 1,719대, 1999년에는 2,634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0년 2,500대, 2005년 2,402대, 2007년 1,917대로 감소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 보급율을 전남과 비교하면 26.7%의 함평이 전남의 2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밖의 농기계는 2007년 현재 건조기만 1,684대로 조사되었고, 양수기와 파종기는 조사된 기록이 없다.

6. 농업생산물 현황

1) 식량작물의 생산

식량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 추이는 <표 16>과 같다. 1963년 23,222ha에 30,892M/T이었던 것이 1970년은 26,741ha에 71,265M/T, 1975년은 26,491ha에 80,394M/T, 1980년은 19,419ha에 57,123M/T, 1985년은 19,686ha에 66,757M/T, 1990년은 17,706ha에 70,362M/T, 1995년은 15,157ha에 58,617M/T, 2000년은 12,831ha, 2005년은 11,480ha에 48,706M/T, 2007년은 10,160ha에 55,090M/T로 나타났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생산면적이 250,687ha이고 생산량이 972,901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4.1%와 5.7% 수준이다.

<표 16> 연도별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잡 곡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3	23,222	30,892	9,018	24,229	10,865	3,159	1,322	856	-	-	2,017	2,648
1964	26,592	32,381	9,608	27,450	11,289	1,156	1,612	1,045	-	-	4,083	2,730
1965	24,654	46,286	9,700	31,886	10,903	11,932	1,972	1,198	-	-	2,079	1,270
1966	26,052	63,570	9,910	31,514	11,161	26,690	1,415	940	1,477	2,495	2,092	1,931
1967	26,431	52,294	9,692	22,213	10,707	24,780	1,823	494	1,497	3,854	2,712	953
1968	25,788	54,070	6,731	13,228	12,31711,	31,445	1,722	826	1,378	5,803	3,640	2,768
1969	28,259	72,362	9,372	34,695	947	24,138	1,899	1,293	1,700	8,828	3,341	3,408
1970	26,741	71,265	9,292	30,218	11,884	29,371	2,380	1,831	1,449	8,157	1,736	1,687
1971	26,348	94,458	9,288	34,633	11,884	49,024	2,363	1,784	1,293	7,369	1,520	1,648
1972	28,057	76,595	8,920	32,591	14,026	35,586	2,426	1,835	971	4,658	1,714	1,925
1973	26,535	80,240	8,750	35,061	12,404	32,564	2,328	1,744	1,448	8,912	1,605	1,959
1974	25,304	67,940	8,967	29,899	12,203	28,439	1,880	2,312	875	5,634	1,379	1,656
1975	26,491	80,394	8,875	31,526	12,369	33,240	2,224	2,355	1,352	11,745	1,671	1,528
1976	23,520	86,396	8,901	42,005	9,733	26,535	2,037	3,067	1,694	13,118	1,155	1,671
1977	21,619	76,137	9,088	47,222	7,997	17,204	2,601	4,000	1,033	6,603	900	1,108
1978	21,134	68,887	9,457	42,753	7,874	22,459	2,422	2,919	952	274	429	482

구분 / 연도	합 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잡 곡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9	20,395	80,401	9,550	48,818	7,554	25,822	2,399	2,827	653	865	239	266
1980	19,419	57,123	9,749	36,078	6,247	16,672	2,581	3,448	671	738	171	187
1981	19,433	68,352	9,625	44,660	6,091	15,755	2,788	3,516	655	326	274	318
1982	19,391	67,465	9,625	43,905	6,094	15,820	2,743	3,362	655	323	274	308
1983	19,607	65,946	9,625	45,216	6,379	16,494	2,761	3,621	613	293	279	322
1984	20,770	74,559	9,625	45,526	7,307	21,556	3,061	3,704	571	3,512	206	261
1985	19,686	66,757	9,625	45,815	6,396	13,076	2,920	3,652	583	4,009	162	205
1986	17,150	64,641	9,778	45,761	3,562	10,686	2,992	3,819	594	4,111	224	264
1987	16,775	60,186	9,778	43,922	3,759	9,125	2,539	3,516	483	3,389	216	234
1988	19,651	78,830	9,910	53,514	5,888	15,835	3,210	6,025	460	3,239	183	217
1989	19,387	72,285	9,910	46,705	5,833	17,638	3,106	5,087	387	2,669	151	186
1990	17,706	70,362	10,431	50,951	4,203	11,995	2,708	4,213	202	3,008	162	195
1991	17,709	68,761	10,071	45,823	4,702	13,008	2,520	3,822	318	5,985	98	123
1992	17,028	69,132	10,012	45,655	4,182	11,666	2,474	3,685	280	8,026	80	100
1993	15,666	63,168	10,143	43,073	3,804	11,658	1,399	1,995	233	6,331	87	111
1994	14,335	55,861	10,030	45,789	2,090	6,293	2,130	3,364	85	415	–	–
1995	15,157	58,617	9,371	44,173	3,110	10,115	2,478	3,899	71	264	127	165
1996	13,999	63,242.7	9,543	50,060	3,110	11,037.9	1,299	2,013	47	132	–	–
1997	–	–	9,508	51,085	1,817	52,555	1,532	2,359	72	–	–	–
1998	–	–	9,519	46,516	3,041	5,994	1,511	1,418	95	544	–	–
1999	13,695	–	9,817	46,600	2,630	8,242	1,081	–	104	–	63	–
2000	12,831	–	10,166	51,033	1,525	3,152	973	–	85	–	82	–
2001	13,270	–	10,165	50,681	1,865	3,916	1,089	–	66	–	85	–
2002	12,814	47,340	9,385	40,313	2,335	5,428	966	1,233	65	220	63	146
2003	12,192	48,776	9,059	40,112	2,018	6,878	962	1,399	67	235	86	152
2004	12,086	51,493	8,966	42,444	2,105	6,758	924	1,338	65	905	26	48
2005	11,480	48,706	8,701	40,810	1,721	6,140	995	1,469	15	224	48	63
2006	10,966	48,509	8,671	40,789	1,499	6,107	660	974	38	567	98	72
2007	10,160	55,090	8,238	48,934	1,066	4,210	708	997	51	793.4	97	156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 미곡(米穀)

미곡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17>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1년 9,288ha에 34,633M/T이던 것이 1975년은 8,875ha에 31,526M/T, 1980년은 9,749ha에 36,078M/T, 1985년은 9,625ha에 45,815M/T, 1990년은 10,431ha에 50,951M/T, 1995년은 9,371ha에 44,173M/T, 2000년은 10,166ha에 51,033M/T, 2005년은 8,701ha에 40,810M/T, 2007년은 8,238ha에 48,934M/T로 나타났다. 미곡은 논벼와 밭벼가 있으나 함평군은 거의 논벼 위주로 재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미곡 생산면적이나 생산량도 증감의 폭이 크지 않다. 최고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990년의 10,431ha와 1988년의 53,514M/T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식량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이 작물의 비율은 81.1%와 88.8%를 차지한다. 생산면적이 193,064ha이고 생산량이 816,147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4.3%와 6.0% 수준이다.

<표 17> 미곡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수 도(논 벼)			육 도(밭 벼)		
	면 적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구분 / 연도	합 계		수 도(논 벼)			육 도(밭 벼)		
	면 적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1 9 7 1	9,288	34,633	–	–	–	–	–	–
1 9 7 2	8,920	32,591	–	–	–	–	–	–
1 9 7 3	8,750	35,061	8,743	401	35,049	7	178	12
1 9 7 4	8,967	29,899	8,908	335	29,839	59	102	60
1 9 7 5	8,875	31,526	8,853	356	31,482	22	195	44
1 9 7 6	8,901	42,005	8,871	473	41,945	99	204	60
1 9 7 7	9,088	47,222	9,032	521	47,042	56	317	180
1 9 7 8	9,457	42,753	9,388	454	42,624	69	187	129
1 9 7 9	9,550	48,818	9,477	513	48,621	72	273	197
1 9 8 0	9,749	36,078	9,607	339	35,656	141	299	422
1 9 8 1	9,625	44,660	9,625	464	44,660	–	–	–
1 9 8 2	9,625	43,905	9,625	456	43,905	–	–	–
1 9 8 3	9,625	45,216	9,625	469	45,216	–	–	–
1 9 8 4	9,625	45,526	9,625	473	45,526	–	–	–
1 9 8 5	9,625	45,815	9,625	476	45,815	–	–	–
1 9 8 6	9,778	45,761	9,778	468	45,761	–	–	–
1 9 8 7	9,778	43,922	9,778	449	43,922	–	–	–
1 9 8 8	9,910	53,514	9,910	540	53,514	–	–	–
1 9 8 9	9,910	46,705	9,910	471	46,705	–	–	–
1 9 9 0	10,431	50,951	10,362	490	50,774	69	256	177
1 9 9 1	10,071	45,823	10,010	455	45,688	61	221	135
1 9 9 2	10,012	45,655	9,956	456	45,521	56	239	134
1 9 9 3	10,143	43,073	10,119	425	43,006	24	279	67
1 9 9 4	10,030	45,789	10,014	457	45,752	16	223	37
1 9 9 5	9,371	44,173	9,356	472	44,160	15	85	13
1 9 9 6	9,543	50,060	9,543	525	50,033	13	204	27
1 9 9 7	9,508	51,085	9,484	538	21,041	24	182	44
1 9 9 8	9,519	46,516	9,468	489	46,299	51	425	217
1 9 9 9	9,817	46,600	9,460	480	45,408	357	334	1,192
2 0 0 0	10,166	51,033	9,492	512	48,599	674	303	2,042
2 0 0 1	10,165	50,681	9,426	514	48,449	739	302	2,232
2 0 0 2	9,385	40,313	9,166	433	39,689	219	285	624
2 0 0 3	9,059	40,112	8,918	445	39,685	141	303	427
2 0 0 4	8,966	42,444	8,881	475	42,185	85	305	259
2 0 0 5	8,701	40,810	8,680	470	40,748	21	297	62
2 0 0 6	8,671	40,821	8,660	471	40,789	11	287	32
2 0 0 7	8,238	48,934	8,238	594	48,934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맥류(麥類)

맥류에는 쌀보리·밀·맥주보리 등이 있는데, 함평군은 쌀보리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맥주보리는 1980년대 이후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 평가되어 재배가 확대되었고, 밀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근래까지 거의 재배가 중단되었다가 1995년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다시 재배되고 있다.

맥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18>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1년은 11,884ha에 49,024M/T, 1975년은 12,369ha에 33,240M/T, 1980년은 6,247ha에 16,672M/T, 1985년은 6,396ha에 13,076M/T, 1990년은 4,203ha에 11,995M/T, 1995년은 3,110ha에 10,115M/T, 2000년은 1,525ha에 3,152M/T, 2005년은 1,721ha에 6,140M/T, 2007년은 1,066ha에 4,210M/T이다. 대체적으로 맥류는 생산면적이나 생산량이 모두 크게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면 1972년 14,026ha이던 것이 2007년

1,066ha, 1971년 49,024M/T이던 것이 2007년 4,210M/T로 큰 차이가 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식량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이 작물의 비율은 10.5%와 7.6%를 차지한다. 생산면적이 28,594ha이고 생산량이 87,497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7%와 4.8%수준이다.

<표 18> 맥류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쌀 보 리		밀		맥 주 보 리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71	11,884	49,024	–	–	–	–	–	–
1972	14,026	35,586	–	–	–	–	–	–
1973	12,404	32,564	11,751	31,012	630	1,526	23	26
1974	12,203	28,439	11,530	27,064	633	1,329	40	46
1975	12,369	33,240	11,739	32,028	594	1,200	35	12
1976	9,733	26,535	9,625	26,309	108	227	–	–
1977	7,997	17,204	7,908	17,023	89	181	–	–
1978	7,874	22,459	7,844	22,412	30	47	–	–
1979	7,554	25,822	7,538	25,780	16	42	–	–
1980	6,247	16,672	6,119	16,351	128	321	–	–
1981	6,091	15,755	5,954	15,421	132	324	5	10
1982	6,094	15,820	5,954	15,480	132	327	8	13
1983	6,379	16,494	6,244	16,172	125	306	10	16
1984	7,307	21,556	7,157	21,128	–	–	150	428
1985	6,396	13,076	5,581	10,827	–	–	815	2,249
1986	3,562	10,686	3,037	9,111	–	–	525	1,575
1987	3,759	9,125	3,446	8,236	–	–	313	889
1988	5,888	15,835	5,558	14,895	–	–	330	940
1989	5,833	17,638	5,365	16,002	–	–	468	1,636
1990	4,203	11,995	3,850	10,742	–	–	353	1,253
1991	4,702	13,008	4,125	11,179	–	–	577	1,829
1992	4,182	11,666	3,534	9,612	–	–	648	2,054
1993	3,804	11,658	2,986	8,689	–	–	818	2,969
1994	2,090	6,293	1,375	3,712	–	–	715	2,581
1995	3,110	10,115	2,473	8,136	20	103	617	1,876
1996	3,110	11,039.9	2,473	8,136	20	1,026	617	1,875.7
1997	–	–	1,383	37,617	–	–	434	13,280
1998	3,069	–	2,573	4,992	28	–	468	1,002
1999	2,681	–	2,300	7,130	51	–	330	1,112
2000	1,525	3,152	1,227	2,589	–	–	298	563
2001	2,032	5,535	1,580	4,219	–	–	452	1,315
2002	2,335	5,428	1,573	3,775	101	225	661	1,428
2003	2,018	6,878	1,261	4,590	164	379	593	1,909
2004	2,105	6,758	663	2,559	158	360	1,284	3,839
2005	1,721	6,140	593	2,359	83	186	1,045	3,595
2006	1,499	5,735.8	906	3,759.9	50	153	537	1,798.9
2007	1,066	4,210	716	3,150	50	156	296	888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3) 두류(斗類)

두류는 콩·팥·녹두·채두·완두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함평군에서는 콩과 팥이 주종을 이룬다. 대체적으로 이 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두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19>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1년 2,363ha에 1,784M/T이던 것이 1975년은 2,224ha에 2,355M/T, 1980년은 2,581ha에 3,448M/T, 1985년은 2,920ha에 3,652M/T, 1990년은 2,708ha에 4,213M/T, 1995년에는 2,478ha에 3,899M/T, 2000년은 973ha, 2005년은 995ha에 1,469M/T, 2007년은 708ha에 997M/T로 나타났다. 최고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1988년의 3,210ha와 6,025M/T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식량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이 작물의 비율은 7.0%와 1.8%이다. 생산면적이 19,349ha이고 생산량이 26,864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7%와 3.7%수준이다.

<표 19> 두류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콩		팥		녹 두		기 타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71	2,363	1,784	–	–	–	–	–	–	–	–
1972	2,426	1,835	–	–	–	–	–	–	–	–
1973	2,328	1,744	2,052	1,598	160	92	66	30	50	24
1974	1,880	2,312	1,614	2,113	161	132	49	32	56	35
1975	2,224	2,355	1,759	2,087	183	146	173	56	109	65
1976	2,037	3,067	1,564	2,506	214	227	68	85	191	248
1977	2,601	4,000	1,953	3,314	218	230	207	242	223	214
1978	2,422	2,919	2,105	2,631	208	173	47	51	62	64
1979	2,399	2,827	1,960	2,410	258	243	84	75	97	100
1980	2,581	3,448	2,109	2,995	302	302	93	80	78	71
1981	2,788	3,516	2,156	2,867	342	349	100	104	190	196
1982	2,743	3,362	2,156	2,803	342	342	100	100	145	117
1983	2,761	3,621	2,189	2,991	370	391	100	106	102	133
1984	3,061	3,704	2,530	3,211	354	322	75	78	102	93
1985	2,920	3,652	2,530	3,263	255	260	58	61	77	68
1986	2,992	3,819	2,627	3,441	252	257	63	67	50	54
1987	2,539	3,516	2,144	3,087	251	274	93	101	51	54
1988	3,210	6,025	2,786	5,544	270	319	93	95	61	67
1989	3,106	5,087	2,387	4,129	249	318	93	92	377	549
1990	2,708	4,213	2,155	3,491	88	74	88	101	377	547
1991	2,520	3,822	2,240	3,539	164	148	67	73	49	62
1992	2,474	3,685	2,232	3,415	144	160	62	69	36	41
1993	1,399	1,995	1,147	1,709	153	173	67	77	32	36
1994	2,130	3,364	2,059	3,294	71	70	–	–	–	–
1995	2,478	3,899	2,189	3,520	155	165	87	165	47	48
1996	–	–	1,299	2,013	–	–	–	–	–	–
1997	–	–	1,413	2,006	119	142	125	–	26	–
1998	1,511	–	1,201	1,273	151	145	126	–	33	–
1999	1,081	–	903	1,147	105	119	50	–	23	–
2000	973	–	801	1,216	104	101	48	–	20	–
2001	1,089	–	935	1,403	85	80	48	–	21	–
2002	966	1,233	885	1,168	45	41	24	16	12	8
2003	962	1,399	870	1,279	62	61	22	15	8	6
2004	924	1,338	840	1,260	57	58	19	14	8	6
2005	995	1,469	920	1,398	58	52	8	10	9	9
2006	653	949.9	623	915.8	15	13.8	13	16.3	2	4
2007	708	997	658	948	20	21	14	13	16	15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4) 서류(薯類)

서류는 고구마와 감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기근(饑饉)·구황(救荒) 작물로도 불린다. 함평군에서는 감자보다 고구마의 재배가 많다. 이 작물도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다.

서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0>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1년 1,293ha에 7,369M/T이던 것이 1975년은 1,352ha에 38,421M/T, 1980년은 671ha에 4,120M/T, 1985년은 583ha에 13,628M/T, 1990년은 202ha에 2,385M/T,

<표 20> 연도별 서류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고 구 마			감 자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생 서	정 곡		생 서	정 곡		생 서	정 곡
1971	1,293	–	7,369	–	–	–	–	–	–
1972	971	–	4,658	–	–	–	–	–	–
1973	1,448	29,032	8,912	1,352	28,229	8,751	96	805	161
1974	875	18,580	5,634	768	17,434	5,405	106	1,148	230
1975	1,352	38,421	11,745	1,242	36,914	11,443	110	1,507	302
1976	1,694	42,768	13,118	1,600	41,496	12,864	94	1,273	255
1977	1,033	21,628	6,603	946	20,645	6,406	87	985	197
1978	952	2,139	274	924	1,969	213	28	170	61
1979	653	4,822	865	610	4,549	746	44	273	119
1980	671	4,120	738	547	3,883	709	124	237	29
1981	655	4,113	326	515	3,734	–	140	379	–
1982	655	4,083	323	515	3,708	–	140	375	–
1983	613	3,790	293	457	3,363	258	156	427	35
1984	571	12,063	3,512	425	9,988	3,097	146	2,075	415
1985	583	13,628	4,009	448	11,658	3,615	135	1,970	394
1986	594	14,076	4,111	442	11,788	3,654	152	2,288	457
1987	483	11,843	3,389	337	9,273	2,875	146	2,570	514
1988	460	10,908	3,239	337	9,608	2,979	123	1,300	260
1989	387	9,318	2,669	267	7,318	2,269	120	2,000	400
1990	202	2,385	623	103	1,336	414	99	1,049	209
1991	318	4,636	1,349	233	3,833	1,188	85	803	161
1992	280	6,286	1,740	182	4,392	1,361	98	1,894	379
1993	233	5,013	1,318	120	2,854	886	113	2,159	432
1994	85	1,460	415	69	1,107	344	16	353	71
1995	71	2,640	225	56	570	176	15	243	49
1996	–	–	–	–	–	–	47	661	132
1997	–	–	–	61	915	283	–	–	–
1998	95	–	–	65	1,755	544	30	–	–
1999	104	–	–	85	1,431	444	19	–	–
2000	85	–	–	82	1,493	450	3	–	–
2001	64	–	–	30	535	161	34	532	106
2002	65	–	–	25	411	1,645	40	494	1,234
2003	67	–	–	28	442	1,580	39	472	1,210
2004	65	905	234	28	440	1,575	37	465	1,210
2005	15	224	–	6	83	1,500	9	141	1,600
2006	38	563.4	149.2	21	332.2	1,582	17	231.2	1,360
2007	51	793.4	–	32	485	1,516	19	308.4	1,632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995년은 71ha에 2,640M/T, 2000년은 85ha, 2005년은 15ha에 224M/T, 2007년은 51ha에 793.4M/T로 나타났다. 최고생산면적과 생산량은 1976년의 1,694ha와 13,118M/T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식량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이 작물의 비율은 0.5%와 1.4%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면적이 6,437ha이고 생산량이 36,472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0.8%와 2.2% 수준이다.

(5) 잡곡(雜穀)

잡곡에는 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 등이 있다. 함평군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조 위주로 재배했으나 그 이후로 1990년대 중반까지 조의 생산면적이 줄어들다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1970년도 말까지 재배면적의 변화가 적었던 옥수수와 메밀은 1990년도 중반까지 생산면적이 증가하다가 근래에는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이다.

잡곡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1>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1년은 1,520ha에 1,648M/T, 1975년은 1,671ha에 1,528M/T, 1980년은 274ha에

<표 21> 잡곡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합 계		조		수 수		옥 수 수		메 밀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1	1,520	1,648	–	–	–	–	–	–	–	–	–	–
1972	1,714	1,925	–	–	–	–	–	–	–	–	–	–
1973	1,605	1,959	1,503	1,892	41	29	24	16	37	22	–	–
1974	1,379	1,656	1,319	1,615	28	15	13	9	19	17	–	–
1975	1,671	1,528	1,603	1,476	18	13	30	25	20	14	–	–
1976	1,155	1,671	1,080	1,602	25	21	31	31	19	16	–	–
1977	900	1,108	841	1,058	16	11	27	26	16	13	–	–
1978	429	482	314	370	39	38	33	38	43	36	–	–
1979	239	266	137	151	20	22	20	29	62	65	–	–
1980	171	187	77	71	33	34	55	76	7	7	–	–
1981	274	318	90	92	–	–	58	90	92	10	34	35
1982	274	308	90	90	–	–	58	87	92	97	34	34
1983	279	322	90	92	–	–	55	87	109	116	25	26
1984	206	261	60	62	4	6	82	126	35	36	24	31
1985	162	205	43	45	17	21	59	93	42	45	1	1
1986	224	264	116	124	13	15	49	77	45	47	1	1
1987	216	234	87	93	18	19	50	75	61	48	–	–
1988	183	217	58	62	12	14	50	80	60	59	3	3
1989	151	186	46	50	11	13	47	74	47	48	1	1
1990	161	195	60	67	8	10	45	70	47	47	1	1
1991	98	123	45	48	3	4	34	54	16	17	–	–
1992	80	100	22	24	4	6	28	43	26	27	–	–
1993	87	111	10	10	6	8	32	54	39	39	–	–
1994	–	–	–	–	–	–	–	–	–	–	–	–
1995	127	165	9	9	4	5	57	91	57	58	1	3
1996	–	–	–	–	–	–	–	–	–	–	–	–
1997	–	–	–	–	–	–	–	–	–	–	–	–
1998	–	–	40	–	–	–	–	–	39	–	–	–
1999	63	–	29	–	5	–	11	–	15	–	3	–

구분 / 연도	합 계		조		수 수		옥 수 수		메 밀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82	-	40	-	4	-	20	-	16	-	2	-
2001	85	-	35	-	3	-	26	-	8	-	13	-
2002	63	146	37	-	3	-	13	-	4	-	6	-
2003	86	152	52	-	4	-	18	-	5	-	7	-
2004	26	48	9	-	3	-	7	-	3	-	4	-
2005	48	63	28	36	5	6	6	16	5	5	4	-
2006	101	132.3	77	98.6	7	8.4	8	21.3	4	4	5	-
2007	97	156	74	83	10	9	13	64	-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87M/T, 1985년은 162ha에 205M/T, 1990년은 161ha에 195M/T, 1995년은 127ha에 165M/T, 2000년은 82ha, 2005년은 48ha에 63M/T, 2007년은 97ha에 156M/T이다. 대체적으로 잡곡은 생산면적이나 생산량이 모두 크게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면 1964년 4,083ha이던 것이 2004년 26ha, 1969년 3,408M/T이던 것이 2004년 48M/T로 큰 차이가 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총 식량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이 작물의 비율은 1.0%와 0.3%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면적이 3,243ha이고 생산량이 5,922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0%와 2.6%수준이다.

2) 채소의 생산

채소는 크게 근채(根菜)·엽채(葉菜)·과채(果菜)·조미채소(助味菜蔬)로 구분된다. 함평군의 총 채소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544ha에 6,179M/T이던 것이 1970년은 1,312ha에 13,190M/T, 1975년은 1,845ha에 23,512M/T, 1980년은 2,001ha에 47,476M/T, 1985년은 2,104ha에 48,742M/T, 1990년은 1,954ha에 46,259M/T, 1995년은 2,931ha에 111,132M/T, 2000년은 2,473ha에 75,555M/T, 2005년은 1,786ha에 59,662M/T, 2007년은 1,599ha에 69,078M/T로 나타났다.

이 작물은 식량작물과 달리 생산면적이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채소는 기상 등 자연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의 차가 심한 특징이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생산면적이 55,460ha이고 생산량은 2,116,985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2.9%와 3.3% 수준이다.

(1) 근채류(根菜類)

근채류에는 무와 당근이 있다. 함평군에서는 당근 보다는 무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근채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2>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71ha에 876M/T이던 것이 1970년은 394ha에 3,502M/T, 1975년은 379ha에 4,923M/T, 1980년은 170ha에 5,715M/T, 1985년은 172ha에 6,136M/T, 1990년은 128ha에 5,079M/T, 1995년은 136ha에 9,525M/T, 2000년은 64ha에 3,484M/T, 2005년은 5ha에 230M/T, 2007년은 14ha에 1,012M/T로 나타났다.

무는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으나 생산량은 비교적 변화가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현

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당근은 198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많았고, 그 이전과 이후는 시들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근채류의 생산면적이 2,617ha이고 생산량은 139,408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0.5%와 0.7% 수준이다.

(2) 엽채류(葉菜類)

엽채류에는 배추·상추·시금치·양배추 등이 있다. 함평군에서는 배추 위주의 재배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추는 통계상으로 1970년대 말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밖에 양배추도 재배되고는 있으나 수량화하기는 어렵다. 엽채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2>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92ha에 792M/T이던 것이 1970년

<표 22> 채소 생산량(근채류, 엽채류)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무		당 근		배 추		상 추		시 금 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63	–	–	–	–	–	–	–	–	11	20
1964	22	212	–	–	75	285	–	–	–	–
1965	71	876	–	–	73	777	–	–	19	15
1966	89	1,118	–	–	93	1,027	–	–	–	–
1967	171	1,678	1	5	186	1,415	–	–	3	35
1968	847	5,294	–	–	295	2,429	–	–	–	–
1969	325	4,507	–	–	260	3,427	–	–	11	99
1970	394	3,502	–	–	296	3,040	–	–	11	81
1971	267	3,891	–	–	198	2,478	–	–	19	139
1972	374	3,564	4	41	274	2,778	–	–	28	220
1973	392	4,324	5	43	265	2,961	–	–	–	–
1974	409	4,563	7	58	301	3,310	–	–	–	–
1975	372	4,855	7	68	295	3,324	–	–	–	–
1976	342	5,046	9	106	255	3,101	–	–	–	–
1977	298	2,317	16	171	331	2,267	–	–	–	–
1978	195	4,861	18	199	236	2,267	–	–	20	169
1979	336	4,007	30	338	330	19,683	3	40	2	39
1980	152	4,802	18	913	154	9,305	–	–	7	63
1981	133	4,801	85	1,498	145	7,885	3	33	5	43
1982	104	3,910	60	757	110	2,689	6	107	21	232
1983	89	3,974	84	1,509	107	7,451	3	57	18	217
1984	101	4,569	77	1,318	124	9,199	8	106	–	–
1985	109	5,002	63	1,134	131	10,753	5	94	18	221
1986	112	4,657	35	524	113	6,859	5	81	16	188
1987	79	3,626	27	475	104	7,660	9	155	23	247
1988	76	4,024	27	475	94	7,234	10	172	23	247
1989	123	7,351	10	181	140	12,309	11	209	39	477
1990	121	4,951	7	128	118	8,228	16	285	44	579
1991	130	4,379	7	90	135	8,382	18	243	42	545
1992	113	6,353	5	103	117	9,911	17	316	28	369
1993	108	6,135	6	123	112	11,362	12	222	15	191
1994	82	4,310	5	131	133	11,085	120	550	6	81
1995	133	9,455	3	70	75	7,178	16	283	14	174
1996	91.0	6,790.0	6.3	122.7	47	5,664	14.5	267	12.4	158
1997	69.0	4,168.0	6.1	145.3	77.6	6,550.5	14.8	270.6	9	114.6

구분 / 연도	무		당 근		배 추		상 추		시 금 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 9 9 8	74.8	4,314.0	3.2	80.0	93.7	8,809	16.3	277	6.5	81
1 9 9 9	75.7	4,091.3	8.0	149.8	86	7,849.6	24.6	612.6	7.2	97.3
2 0 0 0	60.0	3,405	4.2	79.2	51	4,438	13.2	271.2	6.8	87.2
2 0 0 1	22.7	900.8	2.6	72.2	14	4,961	3.0	72.9	3.2	40
2 0 0 2	57.8	3,212.4	1.3	32.7	52.6	5,961	2.6	41.5	4.0	38.5
2 0 0 3	10.8	479.6	1.0	30.0	19.7	783.1	13.1	226.6	3.0	24.2
2 0 0 4	21.8	1,214.0	1.0	30.0	35.6	2,993	12.7	321.5	3.0	24.2
2 0 0 5	4.46	214.1	0.94	15.8	5.54	395.6	6.87	305.8	8.07	104.3
2 0 0 6	12.7	574	0.8	11.5	56.7	4,090	3.0	117	6.4	82.7
2 0 0 7	13.0	988.0	1.0	23.5	51.9	4,205	1.0	41.0	1.0	10.2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은 307ha에 3,121M/T, 1975년은 295ha에 3,324M/T, 1980년은 161ha에 9,368M/T, 1985년은 154ha에 11,068M/T, 1990년은 178ha에 9,092M/T, 1995년은 105ha에 7,635M/T, 2000년은 71.0ha에 4,796M/T, 2005년은 20.5ha에 806M/T, 2007년은 53.9ha에 4,256M/T로 나타났다.

배추는 1970년대에 비해 대체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었으나 생산량은 재배기술의 보급, 비료공급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상추와 시금치는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2007년을 기준으로 엽채류의 생산면적이 11,009ha이고 생산량은 679,956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0.5%와 0.6%에 지나지 않는다.

(3) 과채류(果菜類)

과채류에는 수박·참외·딸기·오이·호박·토마토·가지 등이 있다. 함평군에서는 이 과채류 가운데 대표될만한 작물이 없다. 다만 1977년 이후 통계에서 빠졌다가 다시 1993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딸기를 비롯해 오이, 호박, 토마토의 생산량이 1999년 이후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지가 재배되고는 있으나 수량화하기는 어렵다. 과채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3>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74ha에 511M/T이던 것이 1970년은 95ha에 1,123M/T, 1975년은 197ha에 2,356M/T, 1980년은 37ha에 765M/T, 1985년은 56ha에 1,129M/T, 1990년은 35ha에 788M/T, 1995년은 102ha에 1,943M/T, 2000년은 192ha에 7,242M/T, 2005년은 119ha에 4,347M/T, 2007년은 196ha에 5,160M/T로 나타났다.

<표 23> 채소 생산량 속(과채류)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오 이		호 박		참 외		수 박		토 마 토		딸 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 9 6 3	–	–	3	23	–	–	13	40	4	11	–	–
1 9 6 4	3	17	78	975	2	16	5	59	2	40	–	–

구분 / 연도	오 이		호 박		참 외		수 박		토 마 토		딸 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5	30	27	10	107	12	110	16	200	6	67	–	–
1966	16	202	21	182	12	129	10	117	7	88	–	–
1967	12	125	22	220	22	200	22	238	7	86	–	–
1968	12	104	–	–	–	–	–	–	–	–	–	–
1969	14	124	38	420	–	–	32	299	12	109	6	7
1970	14	180	36	372	4	43	30	304	10	222	1	2
1971	16	135	37	402	9	108	31	355	15	151	8	29
1972	23	249	110	1,172	13	142	40	646	14	224	8	34
1973	24	285	104	1,849	10	106	38	477	18	289	6	65
1974	21	302	86	976	9	91	47	632	12	218	4	34
1975	23	319	135	539	1	963	24	365	10	170	4	–
1976	19	305	132	2,376	9	93	15	190	10	121	4	–
1977	29	252	169	1,990	5	56	15	158	5	38	4	31
1978	32	284	188	2,075	6	62	1	177	6	49	–	–
1979	35	205	253	3,565	6	91	1	301	10	124	–	–
1980	15	335	3	67	8	104	8	192	3	67	–	–
1981	15	263	12	236	8	146	12	236	3	55	–	–
1982	10	201	14	186	18	349	16	326	1	46	–	–
1983	7	165	5	104	11	196	12	299	2	67	–	–
1984	5	137	14	242	10	188	17	419	1	45	–	–
1985	4	94	6	110	15	189	29	669	2	67	–	–
1986	7	250	6	111	15	302	24	507	2	60	–	–
1987	4	122	3	65	12	236	19	398	1	23	–	–
1988	4	122	3	65	12	236	19	398	1	24	–	–
1989	2	61	20	338	12	230	24	491	2	86	–	–
1990	3	93	18	315	13	289	–	–	1	91	–	–
1991	3	137	9	162	10	231	–	–	1	91	–	–
1992	6	203	9	158	12	223	–	–	4	151	–	–
1993	6	179	9	158	23	428	22	429	3	90	112	1,297
1994	4	195	8	300	36	920	10	275	4	191	117	2,203
1995	4	136	8	207	9	178	38	766	2	87	41	569
1996	4.2	137	6.2	150	8.3	193.0	22.0	274.0	2.2	77.0	39.1	571.0
1997	2.6	86.9	6.6	155.6	7.4	183.7	25.2	524.9	21.9	1,532.0	21.4	308.5
1998	22.1	1,369	1.7	59	28.9	868.0	7.6	203.0	17.9	1,034.0	92.8	1,928.0
1999	22.4	1,811.8	19	431.4	37.3	1,007.9	32.0	565.2	31.3	1,960.9	86.1	2,119.8
2000	18.0	1,677.0	33.1	695.2	28.3	830.0	9.5	201.9	33.1	1,961.0	70.3	1,877.0
2001	9.4	929.6	19.0	430.6	9.0	240.7	4.0	115.0	30.1	1,849.3	68.8	1,937.7
2002	9.2	855.6	13.3	359.5	4.5	127.3	3.5	87.0	16.3	950.2	60.5	1,651.6
2003	9.1	796.0	8.9	188.4	1.7	32.0	2.1	46.0	11.2	706	48.8	1,592.0
2004	5.9	581.4	45.5	1,001	0.8	27.0	4.5	161.6	11.6	832.2	39.9	974.1
2005	5.4	706.1	57.5	1,628.2	2.8	68.9	2.8	78.9	7.71	590.2	43.0	1,275.1
2006	5.4	699.5	112	2,653.2	1.0	27.0	1.8	34.4	7.7	557.7	41.4	1,231.2
2007	2.0	242.2	139	2,642	–	–	3.0	84	9.0	946.5	43.0	1,245.1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오이·호박·토마토는 대체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참외와 수박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호박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과채류의 생산면적이 5,734ha이고 생산량은 253,144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4%와 2.0%

수준이다.

(4) 조미채소류(助味菜蔬類)

조미채소류에는 고추·마늘·파·양파·생강 등이 있다. 함평군에서의 재배양상은 양파가 주를 이루고 마늘, 파, 고추 순으로 그 뒤를 따른다. 생강은 생산량이 미미하다. 조미채소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4>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332ha에 4,076M/T이던 것이 1970년은 490ha에 5,216M/T, 1975년은 896ha에 12,323M/T, 1980년은 1,580ha에 30,633M/T, 1985년은 1,703ha에 30,083M/T, 1990년은 1,610ha에 31,297M/T, 1995년은 2,583ha에 92,018M/T, 2000년은 2,145ha에 60,032M/T, 2005년은 1,641ha에 54,279M/T, 2007년은 1,335ha에 58,650M/T로 나타났다.

<표 24> 채소 생산량 속(조미채소류)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파		양 파		고 추		마 늘		생 강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63	–	–	9	30	8	55	53	64	–	–
1964	–	–	18	746	13	32	18	208	–	–
1965	13	118	200	3,000	96	773	23	185	–	–
1966	13	118	97	2,390	42	136	32	334	–	–
1967	7	59	127	1,573	161	195	56	259	–	–
1968	10	78	307	3,418	–	–	–	–	–	–
1969	4	42	267	3,229	–	–	–	–	–	–
1970	11	126	267	4,735	154	131	58	224	–	–
1971	18	176	313	5,881	194	285	60	257	–	–
1972	19	212	389	6,906	177	242	60	261	1	7
1973	16	182	388	6,985	175	254	58	281	–	–
1974	14	167	445	8,547	165	224	51	230	–	–
1975	14	177	561	11,598	272	327	49	221	–	–
1976	23	297	628	12,627	490	747	92	425	–	–
1977	20	233	1,373	29,938	542	767	163	704	–	–
1978	30	392	750	12,498	980	184	66	251	–	–
1979	20	270	1,037	30,923	816	938	75	167	1	1
1980	20	572	850	28,730	599	637	111	694	–	–
1981	13	149	928	32,828	611	668	95	675	1	12
1982	25	524	1,240	31,221	880	973	123	922	1	11
1983	136	3,159	1,128	32,244	657	1,079	143	999	3	32
1984	193	4,410	420	12,847	585	647	154	1,061	–	–
1985	93	2,448	887	26,117	566	534	156	976	1	8
1986	89	2,130	976	27,749	615	584	252	1,715	1	6
1987	78	1,881	1,033	32,701	667	958	297	2,204	1	7
1988	78	2,056	1,063	39,830	750	1,350	307	2,465	1	7
1989	45	725	1,895	67,558	544	620	307	2,595	3	28
1990	54	1,501	689	25,803	510	933	352	3,006	5	54
1991	53	1,336	657	23,205	526	1,230	474	5,389	4	34
1992	29	848	658	37,703	580	1,200	534	6,141	1	6
1993	17	458	534	30,705	616	1,263	511	5,161	1	6
1994	15	413	607	32,171	576	1,180	526	5,260	1	2
1995	25	704	1,189	76,916	648	1,464	720	12,931	1	3
1996	–	–	741.0	46,645	697	1,631.0	757	7,933.0	–	–

구분 / 연도	파		양 파		고 추		마 늘		생 강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 9 9 7	13.9	378.7	811.0	47,334	578	1,234.6	655	8,157.5	0.2	2.2
1 9 9 8	16.2	439.0	920.0	52,742	472.2	1,081.0	626	7,548.0	1.7	21.0
1 9 9 9	20.0	517.5	949.6	54,826	508.6	1,210.9	645.6	7,556.6	2.0	29.3
2 0 0 0	19.0	498.6	960.2	50,708	443.3	1,041.8	720.9	7,760.0	1.9	23.5
2 0 0 1	14.3	370.0	996.0	55,218	428.6	1,800.0	597.6	6,543.7	0.4	5.2
2 0 0 2	10.7	267.4	857.8	52,266	407.3	1,515.2	496.6	5,909.5	0.5	5.0
2 0 0 3	29.8	413.3	844.1	51,132	375.2	1,213.0	510.0	6,120.3	0.5	5.0
2 0 0 4	17.4	449.5	841.8	47,587	401.1	1,022.8	438.8	4,804.9	–	–
2 0 0 5	1.2	46.2	784.5	47,776	392.1	980	463.0	5,477.0	–	–
2 0 0 6	17.6	525.4	807.2	49,066	344.9	748.4	421.0	4,698.4	–	–
2 0 0 7	24.0	869.3	802.1	54,142	227.1	492.8	281.9	3,146.0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양파와 고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었는데, 특히 생산량의 증가가 눈에 띈다. 마늘은 1980년대 이후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꾸준히 증가 하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파는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1990년대 초까지 성황을 이루다 근래에는 주춤한 양상이다. 생강은 생산량이 미미해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2007년을 기준으로 조미채소류의 생산면적이 36,100ha이고 생산량은 1,044,477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7%와 5.6% 수준이다.

3) 과실(果實)의 생산

함평군에서 재배되는 과실은 사과·배·복숭아·포도·감이 있다. 이 가운데 감과 배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과실이 재배되고는 있으나 생산량이 미미해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과실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5>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6년 134ha에 1,348M/T이던 것이 1970년은 172ha에 885M/T, 1975년은 83ha에 743M/T, 1980년은 173ha에 588M/T, 1985년은 168ha에 955M/T, 1990년은 254ha에 2,994M/T, 1995년은 314ha에 1,581M/T, 2000년은 337ha에 2,576M/T, 2005년은 244ha에 3,235M/T, 2007년은 295ha에 3,201M/T로 나타났다.

복숭아와 포도는 대체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말까지 소폭 증가했고 그 뒤로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의 주 과실작물 중의 하나인 감은 연도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이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생산면적이 16,750ha이고 생산량은 246,103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1.8%와 1.3% 수준이다.

<표 25> 과실류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 연도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감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구분 / 연도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감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6	5	44	35	455	35	455	30	246	29	148	–	–
1967	–	–	32	159	58	255	30	171	29	107	26	37
1968	5	36	30	82	61	221	30	171	25	80	–	–
1969	5	1	30	256	62	463	28	81	21	146	–	–
1970	5	25	31	198	62	348	52	156	22	158	–	–
1971	1	6	20	369	38	410	54	342	10	71	–	–
1972	1	6	11	94	36	299	29	158	12	42	3	14
1973	1	6	11	95	43	330	29	161	12	56	3	15
1974	1	2	25	231	35	227	38	189	15	–	–	–
1975	1	5	24	336	20	159	27	238	10	–	1	5
1976	1	4	24	131	15	73	27	99	6	–	1	1
1977	7	22	16	54	22	53	16	37	56	80	32	6
1978	8	33	17	57	23	60	17	46	66	30	30	10
1979	9	38	17	135	23	177	17	85	101	28	30	11
1980	9	29	17	136	22	186	17	60	105	176	3	1
1981	10	20	5	35	39	36	10	35	19	25	42	105
1982	24	49	12	89	5	64	4	13	74	13	2	4
1983	10	36	14	175	6	60	40	28	83	256	48	300
1984	22	126	11	46	6	55	8	48	177	412	23	95
1985	17	102	6	44	5	56	10	49	116	605	14	99
1986	19	295	10	166	7	81	–	–	180	1,589	27	194
1987	12	214	11	136	4	37	6	69	53	442	45	440
1988	11	174	13	253	10	90	26	324	219	1,727	51	466
1989	16	276	11	215	3	33	3	44	48	384	51	458
1990	16	177	11	185	5	38	5	56	165	2,081	52	457
1991	21	263	12	196	6	51	7	84	171	1,389	55	399
1992	21	183	5	71	1	14	1	2	165	773	42	228
1993	29	245	15	207	1	17	1	12	173	1,122	23	133
1994	29	219	25	195	1	16	1	10	188	1,063	38	240
1995	29	237	75	246	1	11	2	12	184	957	23	118
1996	29	241	81	341	1	5	2	16	214	1,098	17	73
1997	29	221	112	361	1	4	2	22	191	989	16	95
1998	17	145	139	517	1	5	3	30	186	1,118	12	739
1999	17	132	144	621	1	1	5	46	198	1,012	12	50
2000	13	112	144	1,326	1	–	5	63	167	1,031	7	44
2001	6	197	114	1,805	1	6	4	70	122	1,146	2	24
2002	8	124	113	3,074	4	75	4	68	344	4,056	33	149
2003	8	125	114	1,807	3	70	3	64	320	4,012	29	114
2004	4	65	80	1,424	4	50	6	93	122	1,169	11	220
2005	4	83	66	1,568	4	53	4	67	146	1,384	20	80
2006	4	79	64	1,513	4	48	3	51	146	1,530	15	55
2007	4	86	59	1,379	4	59	3	51	146	1,339	79	287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소수점 이하 생략)

4) 특용작물의 생산

함평군의 특용작물은 면화·유채·참깨·들깨·땅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참깨가 대표적이다. 특용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표 26>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670ha에

<표 26> 특용작물 생산량

(단위 : ha, M/T)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소수점 이하 생략)

구분 / 연도	면 화		유 채		참 깨		들 깨		땅 콩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63	225	176	–	–	–	–	31	10	–	–
1964	416	19	100	45	30	10	24	8	–	–
1965	214	141	293	369	58	24	105	5	–	–
1966	73	569	538	630	29	6	5	2	–	–
1967	90	65	588	715	8	4	41	20	–	–
1968	95	60	–	–	38	57	26	12	–	–
1969	159	122	1,512	1,987	28	13	22	9	–	–
1970	154	120	1,510	1,753	54	23	23	15	–	–
1971	152	122	286	394	100	25	19	8	–	–
1972	144	116	584	818	125	49	22	10	–	–
1973	65	64	444	635	145	71	21	15	1	1
1974	32	29	1,233	1,664	155	39	21	13	–	–
1975	18	23	898	1,275	162	41	29	17	1	1
1976	11	11	797	1,550	193	73	28	17	1	1
1977	9	9	277	129	246	95	30	14	–	–
1978	19	1	244	315	1,005	444	31	13	5	5
1979	23	22	144	205	967	434	33	19	22	26
1980	29	24	356	740	1,025	256	13	7	34	33
1981	12	12	215	389	915	366	5	12	96	112
1982	17	18	238	399	877	435	12	9	51	37
1983	18	20	76	160	941	630	12	8	25	45
1984	13	15	20	41	968	590	7	5	47	95
1985	7	6	47	90	791	572	16	14	7	13
1986	4	4	18	29	563	321	23	15	80	145
1987	–	–	9	13	605	242	26	14	214	313
1988	–	–	8	21	843	573	219	175	280	560
1989	–	–	2	5	509	290	44	32	174	315
1990	–	–	3	8	537	311	117	94	139	290
1991	–	–	2	3	358	218	53	41	81	141
1992	–	–	2	4	385	216	34	29	1	3
1993	–	–	2	4	312	131	28	21	4	6
1994	–	–	1	1	101	103	21	16	1	3
1995	–	–	1	1	187	98	15	11	1	1
1996	–	–	–	–	658	408	–	–	15	19
1997	–	–	1	1	231	99	24	27	9	16
1998	–	–	–	–	237	125	27	18	4	8
1999	–	–	–	–	333	181	41	28	17	27
2000	–	–	–	–	302	163	38	25	11	14
2001	–	–	–	–	282	140	24	18	2	6
2002	–	–	–	–	313	163	25	17	2	4
2003	–	–	–	–	310	159	25	16	3	6
2004	–	–	–	–	285	209	38	35	1	1
2005	–	–	–	–	294	253	35	29	–	–
2006	–	–	–	–	234	173	28	23	–	–
2007	–	–	–	–	124	84	30	24	–	–

539M/T이던 것이 1970년은 1,741ha에 1,911M/T, 1975년은 1,108ha에 1,357M/T, 1980년은 1,457ha에 1,060M/T, 1985년은 868ha에 695M/T, 1990년은 796ha에 703M/T, 1995년은 204ha에 111M/T, 2000년은 351ha에 202M/T, 2005년은 329ha에 282M/T, 2007년은 154ha에 108M/T로 나타났다.

면화는 화학섬유에 밀려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줄었고, 1986년 이후로는 통계마저 없다. 유채는 1980년대 중반무렵부터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함평군의 주 특용작물

인 참깨는 1970년대 말무렵 재배가 급증했으나 최근에 들어서 시들하다. 들깨는 연도에 따라 증감의 차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변화가 없다. 땅콩은 1980년대 중반무렵 재배가 늘었으나 최근 들어 시들한 양상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특용작물의 생산면적이 10,089ha이고 생산량이 6,186M/T인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1.5%와 1.8%에 지나지 않는다.

5) 엽연초(葉煙草) 및 인삼(人蔘)의 생산

(1) 엽연초

엽연초는 근래까지 농가 소득원의 큰 몫을 차지했던 경제성작물이다. 함평군에서는 1968년 엄다면 100가구, 학교면 95가구가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엽연초재배 현황은 <표 27>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0년 생산면적 146.2ha에 생산량이 213,987kg이던 것이 1975년은 460.8ha에 892,843kg, 1980년은 588.6ha에 1,025,481.5kg, 1985년은 220.8ha에 431,100kg, 1989년은 110.5ha에 298,981.5kg이었다. 1990년부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다만 농림부가 1996년 펴낸 『1995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한해 함평군에서는 596가구에서 127ha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엽연초 재배현황

(단위 : 가구, ha, kg, 천원)

구분 / 연도	경작가구	경작면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수납대금
1968	229	30.2	277.5	83,807.5	-
1969	329	42.3	198.8	84,095.0	-
1970	1,061	146.3	146.3	213,987.5	-
1971	1,600	232.8	148.8	346,300.5	-
1972	3,642	527.9	223.8	1,181,300.5	-
1973	3,311	416.7	225.4	939,160.0	-
1974	3,070	370.2	171.8	635,929.0	-
1975	3,430	460.8	193.8	892,843.0	427,129
1976	3,733	471.2	218.8	1,030,814.5	702,150
1977	4,707	599.5	245.1	1,469,100.0	1,048,409
1978	-	-	-	-	-
1979	-	-	-	-	-
1980	3,661	588.6	174.2	1,025,481.5	1,336,409
1981	2,904	437.2	163.6	715,094.5	1,079,772
1982	2,235	322.5	228.9	738,190	1,167,292
1983	1,531	222	243.4	540,288	873,429
1984	1,492	233	219.3	510,985	873,176
1985	1,377	220.8	195.2	431,100	837,510
1986	1,245	213.1	209.4	446,273	834,380
1987	1,055	169.5	171.7	291,027.3	604,827
1988	738	111.3	238.2	265,064.1	717,863
1989	706	110.5	270.6	298,981.6	937,728
1995	596	127	-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81	96.50	265.7		1,528,246,704

2002	255	81.21	272.0		1,322,627,955
2003	212	65.90	200.2		771,673,615
2004	144	37.75	271.3		626,908,377
2005	85	25.30	259.7		448,620,904
2006	65	21.10	239.4		338,104,560
2007	46	14.90	272.5		288,130,144
2008	30	11.30	279.5		232,065,444
2009	20	9.80	215.4		160,406,527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인삼

함평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삼은 1981년부터 함평읍과 나산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인삼은 고소득 작물이긴 하지만 생육기간이 길고 재배기술이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 인삼재배 현황은 <표 28>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81년 9명이 22.3a를 재배하던 것이 1985년은 13명이 350.9a, 1989년은 26명이 771a를 재배했다.

1990년부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다만 농림부가 1996년 펴낸 『1995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한해 함평군에서는 18가구에서 1,700a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인삼재배 현황

(단위 : 명, ha)

구분 / 연도	총 수		2 년 근		3 년 근		4 년 근		5 년 근		묘 삼	
	경작인	면적	경작인	면적	경작인	면적	경작인	면적	경작인	면적	경작인	면적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5	0.223	2	0.075	1	0.062	2	0.028	–	–	4	0.058
1989	5	0.272	2	0.077	2	0.075	1	0.062	–	–	2	0.058
1990	6	0.359	2	0.058	2	0.077	2	0.075	–	–	3	0.149
1991	13	7.279	7	2.42	3	0.639	3	0.45	–	–	3	3.77
1992	13	3.50.9	7	2.42	3	0.639	3	0.45	–	–	–	–
1993	22	8.16	–	–	12	3.29	7	2.42	3	2,45	–	–
1994	26	7.37	7	1.66	12	3.29	7	2.42	–	–	–	–
1995	26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1996	26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1997	15	7.37	7	1.66	12	3.29	7	2.42	–	–	–	–
1998	15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1999	15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2000	15	7.37	7	1.66	12	3.29	7	2.42	–	–	–	–
2001	15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2002	15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2003	15	7.37	7	1.66	12	3.29	7	2.42	–	–	–	–
2004	15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2005	15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2006	15	7.37	7	1.66	12	3.29	7	2.42	–	–	–	–
2007	21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2008	22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2009	20	7.37	7	1.66	12	3.29	7	2.42	–	–	–	–
	21	7.46	4	1.12	7	1.66	12	3.29	3	1.05	3	0.34
	20	8.25	15	4.93	4	1.22	7	1.66	–	–	6	0.44
	21	12.68	7	3.24	12	3.29	7	2.42	3	2.74	4	0.99
	20	12.72	7	2.44	7	2.87	12	4.12	3	2.42	3	0.87
	22	14.39	7	3.69	12	3.29	7	3.87	3	2.87	–	0.67
	24	17.85	4	5.32	7	3.98	12	4.57	3	3.21	3	0.77
	26	19.23	15	5.24	4	5.24	7	4.12	5	3.65	6	0.98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7. 양곡의 수매

1) 공공비축미곡매입(公共備蓄米穀買入)

함평군의 벼수매실적은 <표 29>와 같다. 1983년 22,544,126kg이던 것이 2007년에는 4,924,000kg으로 사실상 수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2005년부터 기존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손불면이 실적이 가장 높고, 해보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 전남의 총 수매실적 138,642,000kg에 비하면 함평군은 3.6% 수준이다.

<표 29> 추곡수매 실적

(단위 : kg)

구분 / 연도	벼 수 매 실 적						
	실 적	등 급 별			종 류 별		
		1 등	2 등	등 외	일반매입	종 자	기 타
1983	22,544,126	16,536,906	5,949,018	68,202	19,459,602	1,102,140	1,992,384
1984	25,186,518	19,591,092	5,527,656	67,770	21,902,670	1,108,188	2,175,660
1985	20,708,946	17,008,002	3,610,008	90,936	19,249,218	1,070,604	389,124
1986	20,631,132	17,084,952	3,475,710	70,470	19,128,096	911,088	591,948
1987	18,087,960	14,939,400	3,128,640	19,920	16,999,840	920,080	168,040
1988	24,235,520	22,267,640	1,938,240	29,640	23,286,000	893,000	56,520
1989	29,282,400	25,897,080	3,331,400	53,920	28,311,840	967,360	3,200
1990	21,641,560	19,771,760	1,855,440	14,360	20,819,800	818,000	3,760
1991	16,025,680	15,213,440	807,800	4,440	15,315,120	710,280	280
1992	17,294,800	16,014,800	1,275,400	4,600	16,880,800	414,000	-
1993	17,965,600	16,838,280	1,115,440	11,880	17,596,280	369,320	-
1994	18,715,800	18,023,040	683,360	9,400	18,715,800	282,000	-
1995	17,773,600	17,131,520	642,080	-	17,733,600	40,000	-
1996	17,976,560	17,578,520	398,040	-	17,976,560	-	-
1997	17,115,160	16,670,680	441,760	2,720	17,115,160	-	-
1998	13,282,360	11,062,560	1,911,360	308,440	13,282,360	-	-
1999	12,536,520	10,577,040	1,762,280	197,200	12,536,520	-	-
2000	13,091,480	11,157,120	1,804,680	129,680	13,091,480	-	-
2001	11,745,200	11,442,920	300,040	2,240	11,745,200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하곡수매(夏穀收買)

함평군의 하곡수매실적은 <표 30>과 같다. 쌀보리·맥주보리·겉보리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는데, <표 30>과 같이 쌀보리 위주의 수매를 보이고 있다. 1984년 17,557,860kg이던 것이 2007년에는 2,840,000kg으로 84% 정도가 줄었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수매량의 감소 때문이다. 이것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손불면이 가장 실적이 높고, 해보면이 가장 낮다.

구분 / 연도 / 읍면	벼 수 매 실 적								
	실 적	등 급 별					종 류 별		
		특등	1 등	2 등	3등	등 외	일반매입	종자	기타
2002	12,313,000	1,277,000	9,108,000	1,858,000	–	70,000	12,313,000	–	–
2003	12,429,000	2,170,000	9,306,000	926,000	27,000	–	12,413,000	16,000	–
2004	12,007,000	2,992,000	8,378,000	602,000	35,000	–	12,007,000	–	–
2005	12,535,000	2,635,000	9,461,000	439,000	–	–	12,535,000	–	–
2006	8,454,000	1,240,000	6,901,000	306,000	7,000	–	8,454,000	–	–
2007	4,924,000	668,000	3,803,000	436,000	16,000	1,000	4,924,000	–	–
함 평	618,000	79,000	469,000	65,000	4,000	1,000	618,000		
손 불	926,000	138,000	713,000	71,000	4,000	–	926,000		
신 광	392,000	56,000	311,000	23,000	2,000	–	392,000		
학 교	549,000	101,000	407,000	37,000	4,000	–	549,000		
엄 다	407,000	71,000	288,000	48,000	–	–	407,000		
대 동	589,000	73,000	455,000	61,000	–	–	589,000		
나 산	489,000	23,000	403,000	63,000	–	–	489,000		
해 보	319,000	25,000	263,000	30,000	1,000	–	319,000		
월 야	635,000	102,000	494,000	38,000	1,000	–	635,000		

종류별로 살펴보면 쌀보리와 맥주보리 모두 손불면이 높게 나타났다. 40만kg이 넘는 곳은 손불, 학교, 엄다, 대동면 등 4개면이다. 2007년 전남의 총 수매실적 82,490,000kg에 비하면 함평군은 3.4% 수준이다.

<표 30> 하곡수매 실적

(단위 : kg)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겉 보 리			쌀 보 리			맥 주 보 리		
		1등	2등	등외	1등	2등	등외	1등	2등	등외
1984	17,557,860	–	–	–	12,290,460	5,147,940	119,460	–	–	–
1985	8,038,800	–	–	–	5,487,000	2,463,120	88,680	–	–	–
1986	5,488,500	–	–	–	4,629,540	832,500	26,460	–	–	–
1987	9,344,000	–	–	–	6,391,980	2,898,780	45,240	6,450	1,550	–
1988	14,268,000	–	–	–	11,965,800	2,259,480	24,760	17,360	600	–
1989	15,464,801	128,800	–	–	12,425,240	1,959,680	18,840	257,000	478,680	196,640
1990	12,934,680	–	–	–	9,253,400	2,474,520	107,400	277,680	701,320	120,360
1991	11,154,880	–	–	–	7,619,520	1,798,320	129,440	531,040	863,720	212,840
1992	12,442,920	–	–	–	10,159,800	554,640	10,480	632,960	973,200	111,840
1993	10,663,080	–	–	–	7,934,800	595,680	12,320	940,920	1,025,480	153,880
1994	5,352,600	3,098	57	4	3,130,920	251,360	7,320	965,040	913,080	84,880
1995	9,111,400	–	–	–	5,976,760	266,440	6,320	783,640	1,838,160	240,080
1996	9,660,400	563,760	11,160	–	6,812,200	387,720	12,120	311,720	1,196,920	364,800
1997	2,924,760	–	–	–	2,211,360	43,800	–	218,400	403,760	47,440
1998	5,525,080	281,480	8,800	–	564,880	2,723,240	1,253,000	32,080	403,920	257,680
1999	6,385,850	48,240	–	–	5,118,680	165,530	680	214,640	651,920	186,160
2000	8,715,853	25,720	–	–	7,447,200	236,693	–	168,720	728,200	109,320
2001	6,582,040	–	–	–	4,366,960	1,124,760	30,520	149,600	790,920	118,280
2002	8,217,000	–	–	–	7,052,000	205,000	–	160,000	694,000	106,000
2003	6,003,000	–	–	–	3,955,000	186,000	16,000	319,000	1,279,000	248,000
2004	5,601,000	–	9,000	–	3,531,000	246,000	4,000	407,000	1,239,000	165,000
2005	3,582,000	5,000	3,000	–	1,437,000	828,000	49,000	117,000	823,000	320,000
2006	4,739,000	24,000	–	–	2,999,000	256,000	10,000	269,000	1,036,000	145,000
2007	2,840,000	5,000	–	–	1,825,000	75,000	–	221,000	652,000	62,000
함 평	237,000	–	–	–	183,000	13,000	–	13,000	23,000	5,000

손불	830,000	3	–	–	524,000	5,000	–	60,000	228,000	10,000
신광	89,000	–	–	–	38,000	3,000	–	9,000	34,000	5,000
학교	570,000	–	–	–	403,000	22,000	–	34,000	96,000	15,000
엄다	449,000	–	–	–	269,000	11,000	–	40,000	117,000	12,000
대동	471,000	2	–	–	288,000	18,000	–	33,000	118,000	12,000
나산	108,000	–	–	–	45,000	1,000	–	27,000	33,000	2,000
해보	35,000	–	–	–	25,000	1,000	–	5,000	3,000	1,000
월야	51,000	–	–	–	50,000	1,000	–	–	–	–

자료 : 함평군통계연보

8. 양곡보관 창고와 가공공장

1) 양곡보관 창고

정부관리 양곡은 정부창고, 농협창고, 민간창고, 통운창고 등에서 보관되고 있다. 현재 함평군은 농협창고와 민간창고에서 보관한다. 1981년 61동에 30,341M/T를 보관했던 정부창고는 1982년부터 민간창고로 이양했다(1978년~1981년 정부창고). 함평군의 양곡보관 창고현황은 <표 31>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30동에 102,781가마를 보관했던 것이 1970년에는 18동에 82,026가마로 줄었다. 1975년은 56동에 20,052M/T, 1980년은 104동에 42,920M/T, 1985년은 157동에 62,264M/T, 1990년은 118동에 70,781M/T, 1995년은 98동에 64,193M/T, 2000년은 77동에 50,211M/T, 2005년은 80동에 52,541M/T, 2007년은 76동에 49,062M/T로 나타났다.

읍면별(2007년 기준)로는 해보면이 17동(10,315M/T)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면 16동(10,603M/T), 월야면 14동(10,147M/T), 함평읍 12동(8,769M/T), 손불면 11동(6,031M/T), 대동면 9동(5,067M/T), 엄다면 7동(4,834M/T), 나산면 6동(4,893M/T), 신광면 6동(3,543M/T) 순이다. 참고로 2007년 전남의 총 양곡보관 창고는 1,292동에 805,010M/T이다.

<표 31>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현황

① 총괄표

2001. 3월 현재 (단위 : 평, M/T)

소유자별	정 부			농 협			민 간			통 운			새마을			계		
등급별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동수(동)	평수(평)	보관능력(톤)
계				50	5,392	32,495	27	2,932	17,716							77	8,324	50,211
특급				1	300	1,817										1	300	1,817
1급				46	4,800	29,359	24	2,703	16,684							70	7,503	46,043
2급				3	292	1,319	3	229	1,032							6	521	2,351

② 정부관리양곡 연도별 보관창고현황

구분 / 연도	합 계			민간(정부)창고			농 협 창 고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1963	29	1,806	45,082	18	894	-	11	912	-
1964	29	1,806	125,216	18	894	105,085	11	912	20,131
1965	30	1,841	102,781	19	929	88,442	11	912	14,339
1966	30	1,841	128,230	19	929	111,154	11	912	17,076
1967	35	2,097	61,896	24	1,185	58,665	11	912	3,231
1968	23	1,317	80,520	21	1,117	77,457	2	200	3,063
1969	32	2,015	77,411	21	1,103	73,500	11	912	3,916
1970	18	1,302	82,026	11	912	57,456	7	390	24,570
1971	26	1,617	5,082	20	1,077	3,462	6	540	1,620
1972	36	2,611	143,725	24	1,540	85,175	12	1,071	58,550
1973	36	2,611	10,444	24	1,540	6,160	12	1,071	4,284
1974	60	5,246	20,984	22	1,783	7,132	38	3,463	13,852
1975	56	15,544	20,052	13	3,564	4,469	43	11,980	15,583
1976	59	17,343	27,390	21	5,812	8,915	38	11,531	18,475
1977	70	23,703	30,140	28	9,513	11,915	42	14,190	18,225
1978	110	10,943	52,019	62	6,260	29,856	48	4,683	22,613
1979	104	10,400	49,920	60	6,000	28,800	44	4,400	21,120
1980	104	10,400	42,920	60	6,000	28,800	44	4,400	21,120
1981	139	12,325	57,741	61	6,167	30,341	78	6,158	27,400
1982	139	12,672	56,695	76	6,224	26,775	63	6,448	29,920
1983	157	13,676	62,019	94	7,276	30,953	63	6,440	31,066
1984	156	13,626	61,921	90	6,926	29,287	66	6,700	32,634
1985	157	13,698	62,264	91	6,996	29,630	66	6,700	32,634
1986	157	13,710	62,305	91	7,010	29,671	66	6,700	32,634
1987	156	13,623	62,205	90	6,963	29,728	66	6,660	32,477
1988	156	13,607	62,127	89	6,847	29,160	67	6,760	32,967
1989	108	11,211	50,348	43	4,659	20,978	65	6,552	29,370
1990	118	12,066	70,781	51	5,279	31,168	67	6,787	39,613
1991	115	12,236	72,332	47	5,349	32,115	68	6,887	40,217
1992	114	12,186	72,153	45	4,999	30,119	69	7,187	42,034
1993	114	12,186	72,153	45	4,999	30,119	69	7,187	42,034
1994	105	11,364	68,400	37	4,643	26,440	64	6,721	41,960
1995	98	10,638	64,193	39	4,442	26,856	59	6,196	37,337
1996	93	10,084	60,871	34	3,892	23,534	59	6,192	37,337
1997	87	9,224	55,805	28	3,032	28,468	59	6,192	37,337
1998	76	8,124	48,965	27	2,932	17,716	49	5,192	31,249
1999	77	8,324	50,211	27	2,932	17,716	50	5,329	32,495
2000	77	8,324	50,211	27	2,932	17,716	50	5,392	32,495
2001	80	8,654	52,182	29	3,162	19,087	51	5,492	33,095
2002	80	28,608	52,192	29	10,453	18,483	51	18,155	33,709
2003	80	28,608	52,806	29	10,453	19,097	51	18,155	33,709
2004	80	28,608	52,806	29	10,453	19,097	51	18,155	33,709
2005	80	28,724	52,541	28	10,238	18,832	52	18,486	33,709
2006	80	28,724	52,541	28	10,238	18,832	52	18,486	33,709
2007	76	27,451	49,062	24	8,970	16,353	52	18,481	32,709

<표 32> 정부관리양곡 읍·면별 보관창고 일람표

읍면별	창고명	창고주	창고소재지	보관주곡	창고면적	보관능력(톤)	소유자별	건축일

읍면별	창고명	창고주	창고소재지	보관주곡	창고면적	보관능력(톤)	소유자별	건축일
학교	흥업창고	고재영	학교 사거리33-2	조곡	660	1301	개인	81.06.19
학교	율동창고	고재영	학교 사거리 60-4	조곡	330	614	개인	77.12.31
학교	고려2호창	김준	학교 학교리 878-369	조곡	330	614	개인	77.09.12
학교	진례창고	최광자	학교 금송리 506-2	조곡	330	614	개인	79.06.01
학교	고려1호창	김준	학교 학교리 878-69	조곡	330	600	개인	77.09.12
학교	농장창고	전헌주	학교	조곡	330	614	농협	
엄다	송로농창	엄다농협장	엄다 송노리 79-1	조곡	660	1211	농협	75.11.21
엄다	정동농창	엄다농협장	엄다 엄다리 596-10	조곡	330	614	농협	77.10.19
엄다	베다니농	엄다농협장	엄다 송노리 724-1	조곡	330	614	농협	78.07.13
엄다	성천농창	엄다농협장	엄다 성천리 572	조곡	330	614	농협	78.07.13
엄다	성산1호농	엄다농협장	엄다 엄다리 1188-4	조곡	330	614	농협	78.06.16
엄다	성산2호농	엄다농협장	엄다 엄다리 1188-7	조곡	330	614	농협	79.08.21
대동	대동2호농	대동농협장	대동 향교리 702-1	조곡	330	614	농협	77.09.09
대동	덕산1호농	대동농협장	대동 덕산리 301-4	조곡	330	617	농협	75.11.14
대동	덕산2호농	대동농협장	대동 덕산리 352	조곡	330	614	농협	78.09.22
대동	덕산3호농	대동농협장	대동 덕산리 352	조곡	330	614	농협	78.09.22
대동	금산농창	대동농협장	대동 금산리 708-1	조곡	330	617	농협	75.11.04
대동	금성창고	대동농협장	대동 용성리 191-5	조곡	330	614	농협	78.12.15
나산	이문1호농	나산농협장	나산 이문리 245-1	조곡	330	614	농협	77.10.19
나산	이문2호농	나산농협장	나산 이문리 245-1	조곡	330	614	농협	77.10.19
나산	나산1호농	나산농협장	나산 나산리 246-1	조곡	990	614	농협	92.04.06
해보	상곡1호농	해보농협장	해보 상곡리 131-6	조곡	330	617	농협	76.03.25
해보	해보농창	해보농협장	해보 문장리 688	조곡	330	614	농협	89.12.10
해보	발미1호농	해보농협장	해보 해보리 656-5	조곡	330	614	농협	79.03.29
해보	발미2호농	해보농협장	해보 해보리 639-9	조곡	330	614	농협	84.12.31
해보	현대1호창	김준	해보 금덕리 347-2	조곡	330	614	개인	78.06.02
해보	현대2호창	김준	해보 금덕리 347-3	조곡	330	614	개인	79.05.26
해보	현대3호창	김준	해보 금덕리 336,347-2	조곡	330	553	개인	81.12.12
월야	대야1호농	월야농협장	월야 정산리 671-1	조곡	330	617	농협	75.07.18
월야	대야2호농	월야농협장	월야 정산리 684-3	조곡	330	614	농협	75.07.18
월야	대야4호농	월야농협장	월야 정산리608-3	조곡	330	614	농협	78.09.04
월야	양정농창	월야농협장	월야 양정리 289	조곡	330	614	농협	78.09.04
월야	현대월야	김 준	월야 정산리 728	조곡	660	1,319	개인	83.12.01
월야	장교1호창	박귀님	월야 정산리 698-5,699	조곡	660	1,319	개인	84.02.10
월야	장동창고	김재병	월야 월야리 510-2	조곡	330	614	개인	78.08.14
월야	월동창고	월야농협장	월야	조곡	330	610	농협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단위 : 1972년까지는 가마)
※ 1978부터 1981년까지 통계는 정부창고 수치임

2) 양곡 가공공장

함평군의 정부양곡 가공공장 현황은 <표 32>와 같다. 2007년 현재 2개의 공장에서 1일 정미 70t, 정맥 20t을 처리했다. 읍면별로 보면 학교면과 해보면에 국한하여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있다. 그 규모는 학교면이 정미 54.13t과, 정맥 20t, 압맥 17t 해보면이 정미 30t·정맥 20t·압맥 17.5t을 하루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7년 전남의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총 30개에 정미 1,132t·정맥 219t을 하루에 처리했다.



함평천지농협 RPC

<표 32> 양곡가공공장 현황

구분 / 연도	대 규 모					소 규 모					
	공장수	전동기	생산능력(일/t)			공장수	원동기(대)		생산능력(일/t)		
			정미	정맥	압맥		전동기	발동기	정미	정맥	제분
1978	3	6	120	84	45	-	-	-	-	-	-
1979	4	7	130	85	46	-	-	-	-	-	-
1980	3	6	120	84	45	-	-	-	-	-	-
1981	3	6	120	84	45	-	-	-	-	-	-
1982	3	1,485	120	84	45	96	38	58	10	-	365
1983	3	1,530	120	70	42	96	38	58	480	288	48
1984	3	1,685	144	82	60	97	56	41	455	288	48
1985	3	1,685	144	82	60	97	56	41	455	32	12
1986	3	1,685	150	82	67	96	49	47	568	230	18
1987	3	1,685	150	82	68	95	48	47	415	103	-
1988	3	1,685	124	82	67	95	48	47	415	102	-
1989	3	1,685	114	82	68	93	31	62	710	227	-
1990	3	1,685	124	82	68	-	-	-	-	-	-
1991	3	1,865	114	82	68	-	-	-	-	-	-
1992	3	1,865	114	82	68	-	-	-	-	-	-
1993	3	2,270	114	82	67	-	-	-	-	-	-
1994	2	970	60	40	35	-	-	-	-	-	-
1995	3	2,270	114	82	67	-	-	-	-	-	-
1996	2	970	60	40	35	-	-	-	-	-	-
1997	2	970	60	40	35	-	-	-	-	-	-
1998	2	970	60	40	35	-	-	-	-	-	-
1999	2	525	60	40	37	-	-	-	-	-	-
2000	2	525	60	40	37	-	-	-	-	-	-
2001	2	525	60	40	37	-	-	-	-	-	-
2002	2	525	60	40	37	-	-	-	-	-	-
2003	2	525	60	40	37	-	-	-	-	-	-
2004	2	525	60	40	37	-	-	-	-	-	-
2005	2	987	60	20	37	-	-	-	-	-	-
2006	2	998	70	20	20	-	-	-	-	-	-
2007	2	998	70	20	-	-	-	-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9. 농업관련기관

1) 함평군농업기술센터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67-1

(2) 연 혁

.1998. 8. 25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기관 명칭 변경

.1998. 11. 20 농업기술센터내 부설 곤충연구소 설치(지방자치법 제15조)

.1999. 6. 14 청사신축 이전(학교면 월산리 167-1)

(3) 시설현황

•사 무 소 : 부지 1,776㎡, 건평 1,218㎡,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상2층, 지하1층),

•부대시설

- 곤충연구소(441.5㎡, 2층) : 나비곤충 실내사육실, 표본수장고, 사무실
- 농업교육관(522.6㎡, 2층) : 생활과학관, 교육관
- 농기계격납고(333.89㎡)
- 저온저장고(155.37㎡)
- 나비.곤충 보급생산포(1,302㎡, 8동) : 비닐하우스
- 벼병해충 예찰포(2,475㎡)
- 나비사육 유리온실(165㎡)
- 관리사(131.4㎡)
- 기타 과학영농시설하우스 : 천적하우스, 국화육묘하우스, 딸기우량종묘 공급센터

(4) 주요업무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과 경영개선
•새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및 현장애로 기술해결

(5) 역대지도소장

대	이 름	취 임	이임	대	이 름	취 임	이 임
1	박 성 호	1962. 04. 01	1963. 05. 30	12	정 환 수	1982. 12. 01	1985. 12. 31
2	박 종 선	1963. 05. 31	1964. 02. 24	13	이 한 성	1986. 01. 01	1988. 12. 31
3	백 일 기	1964. 02. 25	1965. 02. 28	14	이 한 상	1989. 01. 01	1990. 05. 30
4	박 오 주	1965. 03. 01	1966. 04. 12	15	김 병 훈	1990. 06. 07	1992. 12. 31
5	차 영 준	1966. 04. 13	1969. 01. 31	16	조 영	1993. 01. 01	1994. 12. 31
6	김 세 근	1969. 02. 01	1971. 02. 22	17	이 상 택	1995. 01. 01	1999. 08. 01
7	박 용 수	1971. 02. 23	1973. 03. 24	18	조 희 열	1999. 08. 02	2001. 06. 10
8	성 봉 재	1973. 03. 25	1973. 10. 04	19	박 우 규	2001. 06. 11	2007. 02. 13
9	정 환 수	1973. 10. 05	1977. 01. 19	20	이 순 영	2007. 02. 14	2009. 07. 01
10	박 기 룡	1977. 01. 20	1979. 08. 15	21	조 대 흥	2009. 07. 02	현 재
11	류 영 표	1979. 08. 16	1982. 11. 30				

2009년 8월 말 현재

2)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7

(2) 연 혁

•1941. 11. 23 함평수리조합 설립인가 (1,462.4ha)
•1953. 03. 11 함동수리조합 설립인가 (1,416.5ha)
•1961. 11. 29 군내 군소수리조합(함평, 손불, 주포, 학교, 석정, 함동, 해보수리조합) 흡수 통합(3,822.4ha)
•1962. 01. 20 함평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
•1965. 01. 06 함동토지개량조합 분리 인가(함평토지개량조합 2,270.9ha, 함동토지개량조합 1,551.5ha)
•1968~1970 신광, 강운지구 확장 설치사업(225ha) 인가(2,495.9ha)
•1970. 02. 01 함평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1973. 04. 20 함동농지개량조합 흡수 통합(4,047.4ha)
•1974. 08. 29 용성지구(65ha) 설치사업 인가(4,112.4ha)
•1977. 03. 19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발족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로 개칭(5,413.8ha)
•1981. 04. 07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월야출장소 분리
•1988. 04. 13 영산강유역개발 2단계 사업준공으로 금석지구(308.1ha) 인수, 학교·엄다 일부(284.4ha) 무안농조에 인계
•1997. 04. 21 직제개정으로 월야출장소 흡수 통합(4,760.6ha)
•2000. 01. 01 3개 기관(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 함평지소
•2002. 01. 01 영산강지부가 분할(나주, 담양, 장성, 함평)하여 함평지사로 분리 승격
•2006. 01. 01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기능 및 명칭 변경,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
•2008. 12. 29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3) 시설현황 :

부지 6,047㎡(1,829.65평), 건평 1,484.78㎡(449.1439평),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4) 주요업무

- 농업경쟁력강화 : 영농규모화, 농지은행, 직접지불사업 등
- 농촌지역개발 : 도농교류, 전원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 농업생산기반조성 : 농촌용수개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기반시설종합관리 : 농업용수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
- 지하수개발 및 관리, 환경복원, 수질개선사업 등

(5) 역대지소장 및 지사장

-영산강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장

대	이 름	취 임	이임	대	이 름	취 임	이 임
1	多賀榮吉	1941. 11. 24	1945. 08. 15	9	임 경 남	1975. 09. 17	1980. 08. 27
2	이 재 승	1945. 09. 01	1954. 01. 30	10	장 판 주	1980. 10. 01	1986. 06. 30
3	김 태 일	1954. 02. 06	1959. 02. 20	11	임 준 모	1986. 07. 01	1989. 06. 12
4	지 홍 두	1959. 03. 01	1961. 11. 25	12	김 득 수	1989. 06. 13	1990. 12. 31
5	김 민 수	1961. 11. 30	1966. 01. 06	13	전 용 채	1991. 01. 01	1996. 03. 04
6	윤 완 중	1966. 04. 06	1970. 02. 18	14	배 종 복	1996. 03. 05	1997. 04. 20
7	박 행 석	1970. 04. 22	1973. 04. 30	15	임 청 정	1997. 04. 21	
8	임 민 화	1973. 09. 05	1975. 09. 13				

-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 함평지소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대	이 름	취 임	이 임	대	이 름	취 임	이 임
지소장	김순종	2000. 01. 01	2000. 12. 31	4	황선진	2004. 03. 24	2005. 12. 31
지소장	황선진	2001. 01. 01	2001. 12. 31	5	양상기	2006. 01. 01	2006. 12. 31
1	모덕래	2002. 01. 01	2002. 12. 31	6	이영대	2007. 01. 01	2007. 12. 31
2	노종구	2003. 01. 01	2003. 06. 30	7	이재현	2008. 01. 01	현 재
3	이재필	2003. 07. 01	2004. 03. 23				

3)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1) 소 재 지 :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346-7

(2) 연 혁

•1977. 10. 종자공급소 함평지소 설치 (대통령령 제8591호)
•1979. 8. 종자공급소 함평지소 정선 공장 준공 및 정선개시
•1994. 12. 종자공급소 함평지소 개칭 (농촌진흥청 소속 이관)
•2007. 11.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개칭(농수산식품부)

(3) 시설현황

•사 무 소 : 부지 13,986평, 건평 3,685평, 라멘 철골조
•부대시설 : 곡물정선저장고, 관리사, 수위실

(4) 주요업무

.정부보급종 생산 및 검사
.민간시장 종자유통 조사

(5) 역대소장

대	이 름	취 임	이임	대	이 름	취 임	이 임
1	김 정 기	1977. 10. 01	1978. 08. 15	13	배 인 태	1996. 01. 19	1998. 02. 20
2	김 한 수	1978. 09. 04	1979. 10. 22	14	신 인 균	1998. 03. 12	1998. 07. 07
3	한 상 문	1979. 01. 02	1980. 02. 13	15	조 원 환	1998. 08. 26	2000. 07. 01
4	최 도 환	1980. 02. 26	1982. 08. 12	16	정 운 채	2000. 07. 01	2001. 05. 31
5	홍 춘 선	1982. 08. 12	1986. 01. 10	17	안 영 수	2001. 06. 01	2002. 06. 18
6	김 병 기	1986. 01. 10	1989. 01. 05	18	강 철 구	2002. 06. 18	2003. 02. 03
7	김 현 수	1989. 01. 21	1989. 02. 03	19	신 동 하	2003. 02. 03	2005. 07. 04
8	임 관 희	1989. 02. 03	1992. 08. 14	20	신 창 호	2005. 07. 04	2006. 07. 14
9	오 대 환	1992. 08. 14	1993. 10. 20	21	민 주 석	2006. 07. 14	2007. 02. 12
10	안 광 욱	1993. 10. 20	1994. 01. 10	22	이 명 진	2007. 02. 12	2007. 12. 31
11	진 용 태	1994. 03. 31	1995. 01. 17	23	박 순 연	2008. 01. 01	2009. 04. 30
12	심 재 천	1995. 01. 17	1996. 01. 19	24	신 동 하	2009. 04. 30	현 재

4) 전라남도농업통계사무소 함평출장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12-1

(2) 연 혁

•1948년 농림부 조사통계과에서 농업통계업무 관장
(조사원 시군에 배치)
•1966. 3. 10 군 산업과에 통계요원 1명 주재
•1968. 6. 20 군내 읍면에 통계요원 1명 주재
•1970. 1. 1 읍면 주재요원 군 산업과에서 근무, 7월부터 내무과에서 근무
•1974년 군 농업통계출장소 신설(농수산부 직할)
•1978. 4. 2 농수산부 직제 개편에 따라 농수산통계출장소로 개칭(농업통계,

유통경제통계, 수산통계 등 제반 통계업무 관장)
•1980년 전산터미널 설치
•1991년 사무실 기공
•1992년 단말기 보급, 청사 준공 및 입사
•1996년 수산통계업무 해양수산부 이관
•2009년 3월 1일 광주지방통계청으로 통합

(3) 시설현황 :

부지 904평, 건평 234평, 시멘트 슬라브조

(4) 주요업무

•농업총조사 •경지총조사 •국부총조사
•과수 재배면적 조사 •농산물 생산량 조사 •작물 재배면적 조사
•가축통계 조사 •농업 기본통계 조사 •경지면적 조사
•농가경제 조사 •작물재배 의향 조사 •양곡재고량 및 소비량 조사
•기타 조사

(5) 역대출장소장

대	이 름	취 임	이임	대	이 름	취 임	이 임
1	정 득 근	1994. 02.	1978. 04.	9	정 득 근	1983. 06.	1988. 06.
2	김 덕 동	1978. 04.	1978. 06.	10	박 귀 종	1988. 06.	1991. 03.
3	박 귀 종	1978. 06.	1979. 03.	11	박 주 호	1991. 03.	1993. 03.
4	정 득 근	1979. 03.	1981. 03.	12	박 귀 종	1993. 03	1997. 07.
5	이 호 연	1981. 03.	1983. 06.	13	문 영 학	1997. 07.	현 재

5) 대한지적공사 함평군지사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7-1

(2) 연 혁

•1977년 : 대한지적공사로 명칭 변경
•2002년 : 함평군출장소에서 함평군지사로 명칭변경
•2004년 : 지적법에 의한 특수법인(준정부기관)
으로 전환
•1996년 : 수산통계업무 해양수산부 이관

(3) 시설현황 :

면적 418㎡, 건평 324㎡,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4) 주요업무

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 수행
나.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지적관계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다. 지적업무와 관련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및 부대업무
라. 지하시설물 및 사적지 등의 측량업무
마.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국외의 측량 및 도면작성

(5) 업무처리 실적

연 도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2002	6,709	683,700	
2003	10,556	812,702	
2004	6,136	796,429	
2005	4,789	789,151	
2006	5,253	869,082	
2007	10,490	871,042	
2008	8,911	1,090,214	

(6) 역대지사장

번호	성 명	재 직 기 간
1	문 성 주	2000. ~ 2003.
2	조 희 민	2004. ~ 2007.
3	박 금 성	2008.
4	조 상 훈	2009.02. ~ 현재

제 2 절 임 업

1. 임업여건

함평군은 산지가 적고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많은 평야지대라 임업여건이 열악하다. 산세는 동부·중부·서부의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모두 노령산맥의 서부맥을 이어 받았다. 동부맥은 장성의 태청산(593m)에서 월야면 월악산(164m), 나산면 어수산(130m), 국사봉(170m)으로 이어진다. 중부맥은 영광군의 불갑산(516m)에서 나산면 천주봉(377 m), 대동면 철성산(262m), 학교면 속금산(171m)으로 이어진다. 서부맥은 불갑산에서 손불면·신광면 군유산(403m), 손불면 발봉산(179m), 함평읍 곤봉(190m)·감악산(257m)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함평군은 해발 500m가 넘는 산들이 없는 저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다.

함평군의 2007년 현재 총 면적은 39,276ha로 24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 보다 앞선 21번째 순위이고, 임야면적은 17,040ha로 무안군·목포시 보다는 앞선 20번째 순위이다. 이는 전남 전체의

임야면적 695,283 ha의 2.5%에 불과한 것이다. 총 면적에 대한 임야비율은 전남의 57.4%보다 적은 43.4%로 군 전체 면적의 55.1%였던 1961년의 임야면적 17,900ha 보다 860ha가 줄어든 것이다.

읍면별 임야면적은 함평군의 18.0%를 차지하는 대동면이 3,064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산면 2,932ha(17.2%), 손불면 2,340ha(13.7%), 신광면 2,248ha(13.2%), 해보면 1,842ha(10.8%), 학교면 1,810ha(10.6%), 함평읍 1,245ha(7.3%), 월야면 1,012ha(6.0%), 엄다면 547ha(3.2%) 순이다.

2. 산림현황

1) 임야 소유별 면적

임야는 국유림·공유림·사유림으로 그 소유가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사유림에 속한다.

함평군의 임야 소유별 현황은 <표 33>과 같다. 이것을 1961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전체 임야면적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1961년에 국유림이 1,112ha로 5.2%·공유림이 118ha로 0.6%·사유림이 20,113ha로 94.2%이던 것이 2007년에는 국유림이 881ha로 5.2%·공유림이 80ha로 0.5%·사유림이 16,079ha로 94.3%로 나타났다. 근 47년 사이 그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면적에서는 국유림 231ha, 공유림 38ha, 사유림 4,034ha가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읍면별로는 2007년 현재 국유림은 나산면이 246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보면·대동면·학교면·손불면·함평읍·신광면·월야면·엄다면 순이다. 공유림은 함평읍이 43ha로 가장 많고 대동면·학교면·엄다면·손불면·신광면·월야면·나산면·통계 수치로 기록되지 않은 해보면 순이다. 사유림은 대동면이 2,908ha로 가장 많고 나산면·손불면·신광면·학교면·해보면·함평읍·월야면·엄다면 순이다.

<표 33> 소유별 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국유림			공유림 (군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1961	21,343	1,112	1,112	-	118	20,113
1965	19,202	528	528	-	128	18,546
1970	19,781	749	575	174	144	18,888
1975	17,989	720	590	130	86	17,183
1980	17,935	684	606	78	137	14,114
1983	17,900	678	600	78	137	17,085
1984	17,731	638	560	78	137	16,956
1985	17,700	698	620	78	137	16,865
1986	17,657	690	612	78	137	16,830
1987	17,607	687	665	22	137	16,783
1988	17,571	672	650	22	137	16,762
1989	17,551	658	639	19	137	16,756
1990	17,599	665	646	19	80	16,754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국유림			공유림 (군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1991	17,474	644	625	19	80	16,750
1992	17,470	647	628	19	77	16,746
1993	17,463	646	627	19	80	16,737
1994	17,445	647	628	19	80	16,678
1995	17,432	674	655	19	80	16,678
1996	17,381	753	734	19	80	16,548
1997	17,284	752	733	19	80	16,452
1998	17,252	792	773	19	80	16,380
1999	17,252	863	844	19	80	16,309
2000	17,233	859	840	19	80	16,294
2001	17,213	860	839	21	80	16,273
2002	17,138	859	838	21	80	16,199
2003	17,122	858	837	21	80	16,184
2004	17,106	857	836	21	80	16,169
2005	17,084	856	835	21	80	16,148
2006	17,071	879	858	21	80	16,112
2007	17,040	881	838	43	80	16,079
함 평	1,245	49	46	1	43	1,155
손 불	2,340	74	56	18	4	2,259
신 광	2,248	27	24	3	3	2,218
학 교	1,810	85	83	2	10	1,718
엄 다	547	5	2	2	5	537
대 동	3,064	144	141	3	12	2,908
나 산	2,932	246	244	2	1	2,685
해 보	1,842	242	235	10	-	1,598
월 야	1,012	9	7	2	2	1,001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임야 임상별 면적

임야의 임상은 침엽수·활엽수·혼효림·죽림으로 구분되는데, 소나무 등의 침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함평군의 임상별 현황은 <표 34>과 같다. 이것을 1981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전체 임야면적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1981년에 침엽수가 16,270ha로 90.7%·활엽수가 373ha로 2.1%·혼효림이 1,176ha로 6.6%·죽림이 45ha로 0.3%이던 것이 2007년에는 침엽수가 12,744ha로 74.8%·활엽수가 377ha로 2.2%·혼효림이 3,807ha로 22.3%·죽림이 20ha로 0.1%로 나타났다. 근 27년 사이 활엽수는 4ha, 혼효림은 2,631ha 늘었고, 죽림은 25ha, 침엽수는 3,526ha가 줄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비율은 임상면적의 변화와 같이 침엽수는 20.7%가량 줄었고, 혼효림은 전체 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5.4%가량 늘었다. 활엽수와 죽림은 면적이 조금 줄거나 늘었을 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표 34> 임상별 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 연도 / 읍면	합계	임 목 지				무 임 목 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미임목지	황폐지	기타
1981	17,935	16,270	373	1,176	45	33	6	32
1982	17,900	15,968	665	1,176	45	3	-	43
1983	17,900	15,968	665	1,176	45	3	-	43

구분 / 연도 / 읍면	합계	임목지				무임목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미임목지	황폐지	기타
1984	17,731	15,690	757	1,190	45	20	-	29
1985	17,700	15,606	784	1,208	45	37	8	12
1986	17,657	15,549	803	1,216	45	32	-	12
1987	17,607	15,376	816	1,216	45	141	-	13
1988	17,571	15,309	829	1,216	45	159	-	13
1989	17,551	15,115	888	1,217	45	270	2	14
1990	17,599	13,411	279	3,712	45	-	-	22
1991	17,474	13,085	303	3,712	75	274	2	23
1992	17,470	12,457	340	3,699	75	872	2	25
1993	17,463	12,394	369	3,712	75	879	2	32
1994	17,445	12,366	390	3,712	75	863	2	37
1995	17,432	12,326	386	3,712	75	878	2	53
1996	17,381	12,556	386	3,712	75	585.0	2	65.0
1997	17,284	12,376	386	3,712	75	656.0	2	77.0
1998	17,252	12,344	386	3,712	75	656.0	2	77.0
1999	17,252	12,509	386	3,712	75	491.0	2	77.0
2000	17,233	12,741	400	3,905	92	7.0	-	88.0
2001	17,213	12,716	385	3,932	92	-	-	88.0
2002	17,138	12,659	371	3,928	92	-	-	88.0
2003	17,122	12,620	371	3,923	92	28.0	-	88.0
2004	17,106	12,657	371	3,932	54	40.0	-	14.0
2005	17,084	12,616	370	3,919	92	73.0	-	14.0
2006	17,071	12,694(78)	378(8)	3,797(122)	92	95(22)	-	15.0
2007	17,040	12,744	377	3,807	20	78	-	14.0
함평	1,245	1,060	12	162	2	-	-	1.0
손불	2,340	1,545	30	791	-	19	-	2.0
신광	2,248	1,622	31	600	1	15	-	2.0
학교	1,810	1,700	24	93	1	14	-	1.0
엄다	547	497	8	38	1	3	-	2.0
대동	3,064	2,095	80	883	3	3	-	2.0
나산	2,032	2,093	90	730	7	3	-	1.0
해보	1,842	1,196	94	432	4	7	-	2.0
월야	1,012	936	8	78	1	14	-	1.0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읍면별로는 2007년 현재 침엽수는 대동면이 2,095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산면·학교면·신광면·손불면·해보면·함평읍·월야면·엄다면 순이다. 활엽수는 해보면이 94ha로 가장 많고 나산면·대동면·신광면·손불면·학교면·함평읍·월야면·엄다면 순이다. 혼효림은 대동면이 883ha로 가장 많고 손불면·나산면·신광면·해보면·함평읍·학교면·월야면·엄다면 순이다. 죽림은 나산면이 7ha로 가장 많으나 그 밖의 읍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임상별(林相別) 임목축적(林木蓄積)

함평군의 임상별 임목축적은 <표 35>과 같다. 이것을 1983년과 2007년으로 구분

<표 35> 임상별 임목축적 현황

(단위 : ㎥, %)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1ha당축적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1983	695,556	38.86	643,316	92.5	5,019	0.7	47,221	6.8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1ha당축적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1984	772,655	43.58	714,645	92.5	5,576	0.7	52,434	6.8
1985	813,390	45.95	752,519	92.5	5,621	0.7	55,250	6.8
1986	857,478	48.56	793,334	92.4	5,923	0.7	58,221	6.8
1987	879,367	49.94	811,774	92.3	6,242	0.7	61,351	7.0
1988	905,145	51.26	833,967	92.1	6,532	0.7	64,646	7.1
1989	931,095	53.05	856,113	92.0	6,862	0.7	68,120	7.3
1990	547,541	31.11	429,643	78.5	2,581	0.5	115,047	21.0
1991	562,468	32.19	438,211	78.0	2,948	0.5	121,309	21.6
1992	573,103	32.81	443,950	77.4	2,822	0.5	126,331	22.0
1993	591,478	33.87	453,674	76.7	2,904	0.5	134,900	22.8
1994	606,256	34.75	460,954	76.0	3,032	0.5	142,270	23.5
1995	603,952	34.65	461,562	76.4	2,580	0.4	139,540	23.1
1996	658,874	37.91	495,899	75.3	3,267	0.5	159,708	24.2
1997	680,997	39.40	509,126	74.8	3,412	0.5	168,459	24.7
1998	680,997	39.47	509,126	74.8	3,412	0.5	168,459	24.7
1999	755,951	43.82	563,119	74.5	6,236	0.8	186,596	24.7
2000	875,607	50.81	645,455	73.7	9,195	1.1	220,957	25.2
2001	910,120	52.87	671,643	73.8	8,880	1.0	229,597	25.2
2002	954,609	55.70	704,683	73.8	9,359	1.0	240,567	25.2
2003	992,530	57.97	732,003	73.7	9,724	1.0	250,803	25.3
2004	1,035,564	60.21	764,596	73.8	10,050	1.0	260,918	25.2
2005	1,079,794	63.21	797,505	73.8	10,489	1.0	271,800	25.2
2006	1,094,654	64.12	830,151	75.8	11,009	1.0	253,494	23.2
2007	1,397,751	82.03	1,043,019	74.6	14,894	1.1	339,838	24.3
함 평	99,951	80.28	70,495	70.5	793	0.8	28,663	28.7
손 불	195,850	83.70	130,008	66.4	1,970	1.0	63,872	32.6
신 광	187,945	83.61	124,526	66.3	1,769	0.9	61,650	32.8
학 교	120,580	66.62	95,421	79.1	1,660	1.4	23,499	19.5
엄 다	100,320	183.40	80,047	79.8	980	1.0	19,293	19.2
대 동	234,065	76.39	174,718	74.7	2,210	0.9	57,137	24.4
나 산	197,250	67.28	157,693	79.9	2,350	1.2	37,207	18.9
해 보	163,340	88.68	140,579	86.1	2,280	1.4	20,481	12.5
월 야	98,450	97.28	69,532	70.6	882	0.9	28,036	28.5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하여 면적과 비율을 살펴보면 1983년의 전체 임목축적 695,556㎥ 가운데 침엽수가 643,316㎥로 92.5%, 활엽수가 5,019㎥로 0.7%, 혼효림이 47,221㎥로 6.8%이던 것이 2007년에는 전체 임목축적 1,397,751㎥ 가운데 침엽수가 1,043,019㎥로 74.6%, 활엽수가 14,894㎥ 로 1.1%, 혼효림이 339,838㎥로 24.3%의 양상을 보였다. 표와 같이 1989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던 임목축적은 1990년 들어 큰 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로 다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침엽수와 활엽수, 혼효림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임목축적이 가장 많았던 해는 1,397,751 ㎥를 보인 2007년이다. 1ha당 축적량은 1983년 38.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82.03 ㎥로 나타났다.

읍면별 임목축적은 2007년 현재 대동면이 234,0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산면·손불면·신광면·해보면·학교면·엄다면·함평읍·월야면 순이다. 엄다면은 20,589㎥로 가장 적은 임목축적을 보였다. 1ha당 축적량은 183.40㎥의 엄다면이 가장 높았다.

3. 조림과 사방사업

1) 조림사업

함평군의 조림현황은 <표 36>과 같다. 이것을 1983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조림현황

(단위 : ha, 천본)

구분 / 연도 / 읍면	합 계		장 기 수		속 성 수		유 실 수		기 타	
	면적	본	면적	본	면적	본	면적	본	면적	본
1983	331	448	111	333	150	78	20	8	50	29
1984	300	354	80	235	158	86	12	5	50	28
1985	337	462.4	130	390	93	51.8	14	5.6	100	15
1986	401	498.6	145	435	90	46	16	7.6	150	10
1987	290	629	190	585	90	40	10	4	–	–
1988	185	420.2	132	399	50	20	3	1.2	–	–
1989	207	433.8	135	405	40	16	32	12.8	–	–
1990	205.5	476.6	154.5	459	40	13.2	11	4.4	–	–
1991	263	654	214	634.5	45	17.9	4	1.6	–	–
1992	352	933.3	302	906	40	17.8	5	2	5	7.5
1993	422.7	1,182.7	386.7	1,160.1	26	13.1	5	2	5	7.5
1994	333	936.5	308	916.5	20	12	–	–	5	8
1995	326	927.8	300	900	–	–	2	0.8	24	27
1996	456.0	1,343.0	440.0	1,320.0	–	–	–	–	16	23
1997	307.0	910.5	300.0	900.0	–	–	–	–	7	10.5
1998	242.0	700.6	225.0	675.0	–	–	–	–	17	25.6
1999	159.0	377.5	100.0	300.0	–	–	27	40.5	32	37
2000	124.0	326.7	80.0	240.0	–	–	–	–	44	86.7
2001	109.0	245.3	70.0	210.0	–	–	–	–	39	35.3
2002	111.0	294.1	78.0	270.2	–	–	–	–	33	23.9
2003	111.5	295.4	78.0	270.2	–	–	–	–	33.5	25.2
2004	157.5	385.2	100.0	340.0	–	–	–	–	57.5	45.2
2005	104.0	227.0	60.0	200.0	–	–	–	–	44	27
2006	105.0	313.0	76.0	259	–	–	–	–	34	54
2007	104.0	245.0	75.0	211.0	–	–	–	–	29	34
함 평	19.0	20.0	2.0	2.0	–	–	–	–	17.0	18.0
손 불	16.0	42.0	13.0	38.0	–	–	–	–	3.0	4.0
신 광	21.0	50.0	16.0	44.0	–	–	–	–	5.0	6.0
학 교	9.0	25.0	9.0	25.0	–	–	–	–	–	–
엄 다	2.0	5.0	2.0	5.0	–	–	–	–	–	–
대 동	2.0	3.0	2.0	3.0	–	–	–	–	–	–
나 산	10.0	28.0	8.0	25.0	–	–	–	–	2.0	3.0
해 보	10.0	24.0	8.0	21.0	–	–	–	–	2.0	3.0
월 야	15.0	48.0	15.0	48.0	–	–	–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983년에 조림면적은 331ha, 조림본수는 331천본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수가 111ha에 333천본, 속성수가 150ha에 78천본, 유실수가 20ha에 8천본, 기타가 50ha에 29천본의 조림실적을 보였다.

2007년에 조림면적은 104ha, 조림본수는 245천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기수가 75ha에 211천본, 유실수와 속성수는 조림된 것이 없으며, 기타가 29ha에 34천본의 조림실적을 보였다. 속성수는 조림실적이 미미해 통계수치로 기록되지 않은 듯 하다. 조림실적이 가장 좋은 해는 조림면적이 456ha에 조림본수가 1,343천본인 1996년이다.

읍면별 조림실적은 2007년 현재 21ha에 50천본을 조림한 신광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함평읍·손불면·월야면·나산면·해보면·학교면·엄다면 순이다. 대동면은 2 ha에 3천본을 조림해 실적이 가장 떨어진다.

2)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황폐된 임지(林地)에 각종 토목공사를 하거나 수목을 재식(栽植)함으로써 산림을 조성하고, 산지의 풍화침식과 붕괴를 예방하며 유사(流砂)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평군의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현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산지사방사업 현황

(단위 : ha, 천본, 천원)

구분 / 연도	면 적	식재본수	공사비	구분 / 연도	면 적	식재본수	공사비
1978	5	25	25,760	1993	-	-	-
1979	5	25	25,670	1994	-	-	-
1980	5	25	25,670	1995	-	-	-
1981	16	80	58,998	1996	-	-	-
1982	16.1	80.5	63,572	1997	-	-	-
1983	10	54	27,275	1998	-	-	-
1984	10	50	47,845	1999	1,000	-	318,201
1985	17.6	88	71,507	2000	1,000	-	318,202
1986	8	40.5	-	2001	1,000	-	318,202
1987	-	-	-	2002	-	-	-
1988	-	-	-	2003	-	-	-
1989	2.5	-	25,830	2004	-	-	-
1990	2.5	12.5	6,440	2005	1,000	-	318,202
1991	2	10	4,253	2006	-	-	-
1992	-	-	-	2007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4. 산림피해

산림피해는 무허가 벌채, 산림훼손, 산화,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함평군의 산림피해 현황은 <표 38>과 같다. 이것을 1984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4년에 피해면적은 0.86ha, 피해액은 236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무허가 벌채가 0.2ha에 32천원, 산림훼손이 0.5ha에 142천원, 기타가 0.16ha에 62천원이었다. 2007년에 피해면적은 3.72ha, 피해액은 4,91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화가 3.5ha에 1,710천원, 산림훼손이 0.22ha에 3,128천원의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무허가벌채로 인한 피해는 78천원으로 미미하다.

<표 38> 산림피해 현황

(단위 : ha, 천원)

구분 / 연도	합 계		무허가 벌채		산림훼손		산 화		기 타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1984	0.86	236	0.2	32	0.5	142	-	-	0.16	62
1985	1.50	1,810	1.0	31	0.5	1,779	-	-	-	-

구분 / 연도	합 계		무허가 벌채		산림훼손		산 화		기 타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면 적	피해액
1986	13.70	125	13.7	125	–	–	–	–	–	–
1987	0.01	320	–	–	–	–	–	–	0.01	320
1988	2.70	37	–	–	0.2	5	2.5	32	–	–
1989	3.20	1,108	0.6	43	0.1	693	2.5	372	–	–
1990	0.03	82	–	–	0.03	82	–	–	–	–
1991	5.44	9,155	0.05	6	2.79	7,947	2.6	1,202	–	–
1992	2.56	2,170	1.0	197	0.26	1,896	1.3	63	–	14
1993	3.16	2,343	0.02	9	0.64	1,914	2.5	420	–	–
1994	0.50	1,662	0.01	35	0.49	1,647	–	–	–	–
1995	0.30	874	0.20	6	0.10	868	–	–	–	–
1996	0.20	15	–	–	–	–	0.2	15	–	–
1997	5.19	1,030	–	–	0.090	350	5.1	680	–	–
1998	0.88	6,342	–	–	0.880	6,342	–	–	–	–
1999	1.10	26,285	–	12	1.099	26,273	–	–	–	–
2000	2.53	9,885	–	139	2.525	9,746	–	–	–	–
2001	0.08	3.467	–	–	0.08	3,467	–	–	–	–
2002	2.41	14,910	1.17	989	1.24	13,921	–	–	–	–
2003	0.11	472	–	–	0.11	472	–	–	–	–
2004	0.40	3,470	–	–	0.40	3,470	–	–	–	–
2005	0.26	1,714	–	72	0.21	1,606	–	–	0.05	36
2006	0.93	3,316	–	658	0.73	2,658	0.2	–	–	–
2007	3.72	4,916	–	78	0.22	3,128	3.5	1,710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5. 임업 생산

1) 임산물 생산

임산물 생산 현황은 <표 39>, <표 40>, <표 41>과 같다. 이것을 2007년을 기준하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임산물생산 현황(야생종실류)

(단위 : kg)

구분 / 연도	합 계	밤	호 두	대 추	은 행	기 타
1984	493,434	490,853	–	1,527	957	97
1985	556,275	553,190	–	1,758	1,236	91
1986	496,659	492,762	–	1,476	1,725	696
1987	417,992	415,000	12	1,516	1,363	101
1988	433,900	430,944	20	1,405	1,407	124
1989	402,449	399,296	30	1,545	1,428	150
1990	418,675	406,614	180	8,855	3,026	–
1991	471,935	460,496	188	8,010	3,104	137
1992	345,678	332,228	197	9,336	3,508	409
1993	319,345	306,000	49	9,288	3,861	147
1994	337,083	322,109	56	10,453	4,103	362
1995	377,500	339,590	48	20,958	4,044	12,860
1996	207,547					
1997	339,292					
1998	207,819					
1999	68,388					
2000	18,067					
2001	18,927					

2002	29,891					
2003	58,608					
2004	–					
2005	182,697					
2006	153,828					
2007	263,935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표 40> 임산물생산 현황(속)

구분 / 연도	버 섯(kg)		연료(M/T)	약 용(kg)		용재(㎥)
	표 고	기 타		약 초	산 수 유	
1984	–	9,248	29,357	136	–	–
1985	–	1,243	22,180	96	–	7,411
1986	–	654	13,580	90	–	–
1987	–	–	15,635	57	–	8,296
1988	2,020	–	12,431	34	–	7,997
1989	2,810	–	106,690	40	–	10,360
1990	2,649	–	107,240	80	80	5,023
1991	2,481	–	88,702	55	–	7,403
1992	3,444	–	93,947	58	–	8,055
1993	2,892	–	90,882	147.3	–	7,466
1994	1,359	3	73,790	5	–	7,276
1995	1,649	–	60,137	–	–	6,995
1996	4,830	–	42.00	–	–	9,540
1997	4,652	–	24.72	–	–	7,385
1998	5,741	–	22,000	–	–	2,086
1999	4.331	–	29.00	–	–	2,222
2000	140,210	–	–	–	–	8,708
2001	–	–	–	–	–	6,905
2002	13,400	–	–	–	–	3,317
2003	37,980	–	–	–	–	4,100
2004	20,080	–	–	–	–	–
2005	8,540	–	–	–	–	4,162
2006	10,700	–	–	–	–	7,237
2007	10,550	–	–	–	–	19,772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표 41> 임산물생산 현황(속)

구분 / 연도	퇴비원료(t)	사 료(t)	죽 순(kg)	산나물(kg)	토석류(㎥)	기 타(kg)
1984	115,110	60,854	–	791	3,500	–
1985	194,502	67,620	–	847	3,500	93
1986	133,884	57,544	–	1,954	–	245
1987	100,085	19,220	–	2,201	–	42
1988	224,906	25,631	–	3,234	–	49
1989	49,343	11,704	–	3,282	76,619	–
1990	64,399	14,405	–	2,935	209,200	260
1991	64,200	14,514	–	3,243	135,000	17,490
1992	65,105	14,700	–	3,319	200,000	26,320
1993	168,980	14,435	–	3,302	874,000	43,591
1994	175,680	13,858	186	6,919	1,138,000	9,835
1995	38,178	19,877	267	6,652	596,000	89,070
1996			250	7,067		

구분 / 연도	퇴비원료(t)	사 료(t)	죽 순(kg)	산나물(kg)	토석류(㎥)	기 타(kg)
1997			240	7,250		
1998			357	7,571		
1999			548	7,248		
2000			545	9,078		
2001			560	7,276		
2002			778	14,051		
2003			740	15,145		
2004			1,105	9,599		
2005			955	10,665		
2006			955	11,664		
2007			715	10,930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먼저 야생종실류는 밤·호두·대추·은행 등이 생산되는데, 함평군에서는 밤이 주를 이룬다. 야생종실류 총 생산량 229,3055kg 가운데 밤이 206,374kg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호두가 22kg으로 0.01%, 대추가 12,841kg으로 5.6%, 은행이 1.1%, 기타가 3.4%를 차지했다. 야생종실류의 생산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85년으로 556,275kg이 생산된 바 있다. 읍면별 생산은 나산면이 86,182k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동면 · 손불면 · 해보면 · 신광면 · 학교면 · 함평읍 · 월야면 순이다. 엄다면은 16,117kg으로 생산량이 가장 적었다.

버섯은 표고버섯이 대부분인데 10,550kg이 생산되었고, 용재는 19,772㎡, 죽순은 715kg, 산나물은 10,930kg이 생산되었다.

2) 제재공장 및 생산

2007년 현재 함평군에는 4개의 제재공장이 있다. 읍면별로는 함평읍에 2개, 대동면과 해보면에 각 1개가 있다. 제재공장 및 생산현황은 <표 42>와 같다. 현재 4개의 공장에서 연간 11,878㎥를 생산할 수 있다. 원목소비량은 13,848㎥로 침엽수가 대부분인데, 국내재가 1,260㎥로 9.1%, 도입재가 12,588㎥로 90.9%를 차지한다. 제품생산 실적은 8,397㎥, 공급량은 8,228㎥이다.

<표 42> 제재공장 및 생산 현황

(단위 : 개, ㎥)

구분 / 연도	업체수	연생산능력	원목소비량			제품생산량	
			계	침엽수		생산실적	공급량
				국 내	도 입		
1990	5	169	3,586	1,087	2,499	2,635	2,635
1991	5	167	4,965	230	4,735	2,679	2,679
1992	4	167	3,520	280	3,240	2,215	2,215
1993	4	8,153	5,987	1,148	4,839	3,086	2,894
1994	4	11,599	16,609	1,000	15,609	4,609	3,548
1995	4	11,878	13,848	1,260	12,588	8,397	8,228
1996	–	–	–	–	–	–	–
1997	3	5,020	5,020	–	5,020	3,250	3,250
1998	2	5,000	5,000	–	5,000	3,250	3,250
1999	2	5,000	4000	–	4000	2,900	2,900
2000	2	5,000	4,500	–	4,500	3,150	3,150

2001	2	5,000	4,000	-	4,000	3,000	3,000
2002	-	-	-	-	-	-	-
2003	-	-	-	-	-	-	-
2004	-	-	-	-	-	-	-
2005	-	-	-	-	-	-	-
2006	-	-	-	-	-	-	-
2007	-	-	-	-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3) 묘목(苗木) 생산

함평군의 묘목 생산 실적은 <표 43>과 같다. 이것을 1983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3년에 사업자 1명, 사업면적 23,117㎡, 묘상면적 14,448㎡, 양묘 360천본(자란묘 160, 어린묘 200)이던 것이 2008년에는 사업자 1명, 사업면적 21,032㎡, 묘상면적 12,934㎡, 양묘 155천본(자란묘 81, 어린묘 74)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해를 비교했을 때 사업면적과 묘상면적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양묘는 2007년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

<표 43> 묘목 생산 실적

(단위 : ㎡, 천본)

구분 / 연도	사업자수	사업면적	묘상면적	양 묘(養 苗)		
				계	자란묘	어린묘
1983	1	23,117	14,448	360	160	200
1984	1	20,045	12,528	584	390	194
1985	1	20,491	12,807	849	620	229
1986	1	16,743	10,464	756	486	270
1987	1	19,718	12,324	861	543	318
1988	1	16,766	10,479	691	480	211
1989	1	15,561	9,725	705	501	204
1990	1	18,058	11,185	647	328	319
1991	1	19,932	12,458	584	473	111
1992	1	19,956	12,573	125	63	62
1993	1	19,982	12,604	169	99	70
1994	1	20,190	12,618	140	113	27
1995	1	22,470	13,823	159	106	53
2002	1	68,546	36,445	233	160	77
2003	1	63,969	35,734	238	94	144
2004	1	66,184	29,562	236	104	132
2005	1	51,275	15,670	289	189	100
2006	1	19,632	13,447	285	185	100
2007	1	21,800	13,666	284	134	150
2008	1	21,032	12,934	155	81	74

자료 : 함평군 산림조합

6. 함평군산림조합

1) 소 재 지 :

함평읍 내교리 481-4번지

2) 시설현황 :

사무실 •대지 1,561㎡.
•건평 1,150㎡
•철근콘크리트 3층



3) 부대시설 :

창고 556㎡

4) 연 혁

•1949. 함평군산림조합 발족(사단법인)
•1953.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에 의한 이·동 단위 산림계 조직(산림조합 구성원)
•1962. 산림법 제정에 따라 계 조직 강화
•1980. 산림법에서 분리 산림조합법 독립 제정(공법인)
•1989. 산림조합법 개정(조합장 임명제에서 직선제)
•1993. 12. 12 함평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97. 04. 28 현 청사 신축 준공
•1998. 임산물직매장 개장 및 상호금융업무 개시
•2000. 산림조합으로 개편(함평군산림조합으로 개칭)

5) 조합원 현황

연 도	조합원 현황(명)			비고
	계	산주조합원	임업인	
1 9 9 8	4,154	1,401	2,753	
1 9 9 9	4,266	1,418	2,848	
2 0 0 0	4,361	1,433	2,928	
2 0 0 1	4,410	1,448	2,962	
2 0 0 2	4,442	1,455	2,987	
2 0 0 3	4,473	1,469	3,004	
2 0 0 4	4,460	1,478	2,982	
2 0 0 5	3,890	1,605	2,285	
2 0 0 6	3,931	1,665	2,266	
2 0 0 7	4,342	2,078	2,264	
2 0 0 8	4,639	2,390	2,249	
2 0 0 9	4,678	2,694	1,984	

5) 주요사업 실적

(1) 1992~1997년

① 조　　림 : 2,916ha

② 육　　림 : •조림지 풀베기 4,789ha　　•어린나무 가꾸기 860ha
　　•무육 간벌 375ha　　•천연림 보육 342ha

③ 산림보호 : •병충해 방제 수간 주사 970ha　•피해목 벌채 1,870ha

④ 임도시설 : 28㎞

(2) 1998~2008년

① 조　　림 : 532ha

② 육　　림 : 17,258ha

•조림지 풀베기 2,868ha　　•어린나무 가꾸기 3,165ha
•숲가꾸기　7,130ha　　•천연림 보육 1,001ha
•덩굴제거 3,094ha

③ 산림보호 : 2,235ha
•병충해 방제 수간 주사 2,057ha　　•피해목 벌채 178ha

④ 임도시설 : 68.29㎞
•임도신설 22.23㎞　　•인도구조개량 43.06㎞

(3) 예금대출실적(2000~2009)

(단위 : 천원)

연 도	예 금	대 출	비 고
2 0 0 0	8,266,816	4,933,566	
2 0 0 1	10,693,686	6,084,184	
2 0 0 2	11,773,002	5,138,208	
2 0 0 3	11,234,816	4,507,585	
2 0 0 4	10,680,928	4,224,799	
2 0 0 5	10,514,557	2,942,277	
2 0 0 6	10,139,195	2,484,439	
2 0 0 7	11,632,271	3,202,292	
2 0 0 8	10,277,211	3,297,258	
2 0 0 9	12,087,354	2,783,124	

5) 역대 조합장

대	성 명	취 임	이 임	본 적	참 고

1 ~ 2	김 동 근	'62. 06. 21	'65. 02. 18	신광면	
3 ~ 4	문 종 현	'65. 02. 19	'71. 02. 19	함평읍	
5	김 병 기	'71. 02. 20	'72. 11. 25	〃	
6 ~ 7	박 중 균	'73. 10. 31	'77. 02. 19	〃	
8 ~ 10	장 재 규	'77. 04. 06	'86. 04. 05	〃	
11 ~ 12	서 복 실	'86. 04. 06	'93. 07. 01	〃	
13 ~ 15	나 상 주	'93. 07. 02	'05. 07. 01	〃	청사 신축
16 ~ 17	이 승 동	'05. 07. 02	현 재	대동면	

<자료 제공 : 기술지도과장 김영균>

제 3 절 축산업(畜産業)

1. 가축사육(家畜飼育)

1) 한우(韓牛)

한우는 옛부터 역우(役牛)로써 사람의 노동력을 덜어주었을 뿐만아니라 구비(廐肥)를 생산하고,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기계화 영농, 화학비료의 공급 등으로 이러한 역할들은 없어지고 육우(肉牛)로써의 기능만 커져가고 있다.

함평군의 연도별 한우 사육현황은 <표 48>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에 5,512가구에서 5,788마리를 사육했던 것이 1970년에는 4,566가구에서 5,095마리를, 1975년에는 7,144가구에서 7,752마리를, 1980년에는 5,001가구에서 6,129마리를, 1985년에는 6,980가구에서 15,465마리를, 1990년에는 4,984가구에서 13,457마리를, 1995년에는 4,285가구에서 22,273마리를, 2000년에는 2,019가구, 2005년에는 1,717가구에서 18,841마리를, 2007년에는 1,788가구에서 24,92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1965년 1.1마리, 1970년 1.1마리, 1975년 1.1마리, 1980년 1.2마리, 1985년 2.2마리, 1990년 2.7마리, 1995년 5.2마리, 2005년 11.0마리, 2007년 13.9마리로 나타났다. 표와 같이 함평군은 대체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한우의 가구당 사육마리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사육규모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함평군이 2004년 전라남도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2008년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의 영향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33,632가구에서 339,595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5.3%와 7.3% 수준이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전남의 10.1마리보다 함평군이 13.9마리로 높다.

한우의 사육규모별 가구현황은 <표 44>와 같다. 이것을 1981년도와 2007년도로 구분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먼저 1981년도에 1~2마리는 89.7%로 사육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6마리는 9.6%, 7~14마리는 0.5%, 15~29마리는 0.1%에 불과하며, 30마리 이상 사육가구는 단 한 가구도 없다. 2007년에는 1~9마리는 67.1%로 여전히 사육가구의 절반을 넘기고 있으며, 10~19마리는 14.9%, 20~29마리는 5.4%, 30~39마리는 4.0%, 40~49마리는 2.2%, 50마리 이상은 6.4%로 사육규모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4> 한우 사육규모별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2	3~6	7~14	15~29	30~49	50 이상
1 9 8 1	4,413		3,960	425	23	5	–	–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2	3~6	7~14	15~29	30~49	50 이상
1982	5,759		4,892	807	54	6	-	-
1983	5,789		4,552	1,180	48	8	-	1
1984	6,486		4,886	1,464	128	7	-	1
1985	6,980		5,129	1,395	390	50	13	3
1986	6,430		4,883	1,485	40	19	3	-
1987	5,885		4,325	1,164	670	22	-	4
1988	5,085		4,111	902	40	25	5	2
1989	5,061		3,882	1,002	155	18	2	2
1995	4,581		1,653	1,936	694	234	56	8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9	10~19	20~29	30~39	40~49	50 이상
1998	3,465	-	-	-	-	-	-	-
1999	2,749	-	-	-	-	-	-	-
2000	2,019	-	-	-	-	-	-	-
2001	1,697	-	-	-	-	-	-	-
2002	1,555	11,404	-	-	-	-	-	-
2003	1,613	13,373	1,303	151	61	32	20	46
2004	1,685	16,379	1,270	207	84	40	26	58
2005	1,717	18,841	1,238	246	86	52	32	63
2006	1,790	21,470	1,281	240	88	57	37	87
2007	1,788	24,921	1,200	266	96	72	40	114

자료 : 함평군 농산과

2) 젖소(乳牛)

우리나라에 젖소가 도입된 해는 1902년으로 프랑스인에 의해서였다. 함평군에는 1966년 1마리가 들어와 사육되기 시작했다. 함평군의 연도별 젖소 사육현황은 <표 48>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5년 33가구에서 302마리를, 1980년 92가구에서 959마리를, 1985년 290가구에서 2,150마리를, 1990년 243가구에서 3,770마리를, 1995년에는 200가구에서 5,160마리를, 2000년에는 95가구, 2005년에는 85가구에 4,662마리를, 2007년에는 62가구에 4,22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1975년 9.2마리이던 것이 1980년 10.4마리, 1985년 7.4마리, 1990년 15.5마리, 1995년에는 25.8마리, 2005년에는 54.9마리, 2007년에는 68.1마리로 나타났다. 젖소 역시 대체적으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가구당 사육마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73가구에서 33,142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13.1%와 12.7% 수준이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전남의 70.1마리보다 함평군이 68.1마리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젖소의 사육규모별 가구현황은 <표 45>와 같다. 이것을 1981년도와 2007년도로 구분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먼저 1981년에 1~2마리는 3.7%, 3~6마리는 24.7%, 7~14마리는 32.1%, 15~29마리는 34.7%, 30~49마리는 3.7%, 50마리 이상은 1.2%로 중소 규모의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1~9마리는 4.8%, 10~19마리는 4.8%, 20~29마리는 9.7%, 30~39마리는 4.8%, 40~49마리는 13.0%, 50마리 이상은 6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와 같이 1981년도에 비해 2007년도가 30마리

이상의 대규모로 사육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젖소 사육규모별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2	3~6	7~14	15~29	30~49	50 이상
1981	81		3	20	26	28	-	1
1982	94		10	25	33	20	-	2
1983	121		23	38	19	32	-	2
1984	207		57	73	46	26	-	1
1985	290		83	65	74	34	13	3
1986	241		13	148	38	28	3	6
1987	285		29	32	168	43	-	4
1988	271		11	112	64	70	5	4
1989	295		11	52	136	76	2	6
1995	168		1	9	29	75	56	11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9	10~19	20~29	30~39	40~49	50 이상
1998	114	-	-	-	-	-	-	-
1999	104	-	-	-	-	-	-	-
2000	95	-	-	-	-	-	-	-
2001	98	-	-	-	-	-	-	-
2002	98	5,239	-	-	-	-	-	-
2003	86	4,709	2	6	9	12	10	47
2004	80	4,661	2	7	8	9	5	49
2005	85	4,662	6	11	7	7	7	47
2006	63	3,853	2	3	10	6	4	38
2007	62	4,220	3	3	6	3	8	39

자료 : 함평군 농산과

3) 돼지

함평군의 연도별 돼지 사육현황은 <표 48>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에 14,302가구에서 15,784마리를 사육했던 것이 1970년에는 12,602가구에서 18,066마리를, 1975년에는 10,532가구에서 18,581마리를, 1980년에는 7,191가구에서 9,351마리를, 1985년에는 1,857가구에서 4,135마리를, 1990년에는 719가구에서 5,862마리를, 1995년에는 78가구에서 32,681마리를, 2000년에는 100가구, 2005년에는 63가구에 64,633마리를, 2007년에는 48가구에 67,76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1965년 1.1마리, 1970년 1.4마리, 1975년 1.8마리, 1980년 1.3마리, 1985년 2.2마리, 1990년 8.2마리, 1995년에는 419마리, 2005년에는 1,026마리, 2007년에는 1,412마리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가구는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추이에 있다. 특히 이 양상은 최근에 올수록 그 차가 심하다. 반대로 가구당 마리 수는 1989년에 들어 사육규모가 기업화되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443가구에서 908,076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각각 3.3%와 7.5% 수준으로 최근에 이르러 크게 늘어났다. 가구당 사육규모에 있

어서도 전남의 629마리보다 함평군이 1,412마리로 두 배 이상 높다.

돼지의 사육규모별 가구현황은 <표 46>과 같다. 이것을 1984년도와 2007년도로 구분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1~9마리는 1984년 97.9%로 사육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2007년에는 4.2%에 지나지 않았다. 10~29마리는 1984년 1.5%이던 것이 2007년 4.2%, 30~99마리는 1984년 0.5이던 것이 2007년 8.3%, 100~499마리는 1984년 0.1%이던 것이 2007년 8.3%로 나타났다. 이밖에 1984년에 한 가구도 없었던 500마리 이상 사육가구는 2007년에는 500~999마리가 9가구로 18.8%나 되었고, 1,000마리 이상은 27가구에 56.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육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표 46> 돼지 사육규모별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가구					
			1~9	10~29	30~99	100~499	500~999	1000이상
1984	2,528		2,476	37	12	3	-	-
1985	1,857		1,822	26	8	1	-	-
1986	1,897		1,843	38	14	2	-	-
1987	1,476		1,408	57	10	1	-	-
1988	1,209		1,117	53	37	2	-	-
1989	964		853	69	33	8	1	-
1995	89		35	7	23	10	19	9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가구					
			1~9	10~29	30~99	100~499	500~999	1,000이상
1998	86	-	-	-	-	-	-	-
1999	99	-	-	-	-	-	-	-
2000	100	-	-	-	-	-	-	-
2001	95	-	-	-	-	-	-	-
2002	89	74,901	-	-	-	-	-	-
2003	79	71,286	7	6	10	6	20	30
2004	66	68,138	6	4	5	4	16	31
2005	63	64,633	6	6	3	8	13	27
2006	52	62,107	4	3	4	8	9	24
2007	48	67,764	2	2	4	4	9	27

자료 : 함평군 농산과

4) 닭

함평군의 연도별 닭 사육현황은 <표 49>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에 15,371가구에서 151,091마리를 사육했던 것이 1970년에는 12,780가구에서 169,917마리를, 1975년에는 11,880가구에서 72,287마리를, 1980년에는 3,667가구에서 62,814마리를, 1985년에는 4,049가구에서 77,860마리를, 1990년에는 1,486가구에서 296,639마리를, 1995년에는 204가구에서 1,736,332마리, 2000년에는 267가구, 2005년에는 276가구에서 4,900,601마리를, 2007년에는 197가구에서 4,104,75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1965년 9.8마리, 1970년 13.3마리, 1975년 6.1마리, 1980년은 17.1마리, 1985년은 19.2마리, 1990년은 199.6마리, 1995년은 8,511.4마리, 2005년은 17,755.8마리, 2007년은 20,836.3마리로 나타났다.

닭 사육가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감소추이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초에 심하게 나타난다. 가구당 마리수는 이와 반대로 1979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닭사육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화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것을 전남전체의 2007년 닭 사육현황(300가구, 13,255,048마리)과 비교하면 함평군은 사육가구에 있어서는 65.7%로 전남 전체의 절반이 넘어서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육 마리수도 31.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전남의 44,183.5마리보다 함평군이 20,836.3마리로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닭의 사육규모별 가구현황은 <표 47>과 같다. 이것을 1984년도와 2007년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1~499마리는 1984년에 98.6%로 사육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2007년에는 65.0%로 감소했다. 1,000~1,999마리는 1984년에 0.2%

<표 47> 닭 사육규모별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19	20~499	500~999	1,000~1,999	2,000~4,999	5,000~9,999	1만~49,999	5만이상
1984	4,797		4,728	90	-	7	4	5	3	-
1985	4,049		4,010	25	-	2	7	5	-	-
1986	3,577		3,503	56	1	4	6	3	4	-
1987	2,184		2,126	36	2	-	10	6	4	-
1988	1,717		1,688	7	2	2	2	11	-	5
1989	1,687		1,645	13	-	2	6	15	6	-
1995	408		319	36	1	4	1	16	27	4

구분 / 연도	총사육가구	총사육두수	사육규모별 가구							
			1~499	500~999	1,000~1999	2,000~2,999	3,000~4,999	5,000~9,999	1만~49,999	5만이상
1998	197	-	-	-	-	-	-	-	-	-
1999	272	-	-	-	-	-	-	-	-	-
2000	267	-	-	-	-	-	-	-	-	-
2001	327	-	-	-	-	-	-	-	-	-
2002	323	4,008,019	-	-	-	-	-	-	-	-
2003	413	4,339,779	325	1	0	2	2	1	39	43
2004	285	4,880,171	194	1	2	1	0	2	38	47
2005	276	4,900,601	192	4	3	1	0	2	37	37
2006	248	7,607,456	173	1	4	0	0	1	29	40
2007	197	4,104,751	128	0	3	0	0	1	33	32

이던 것이 2007년에는 1.5%,2,000~4,999마리는 1984년에 0.1%이던 것이 2007년에는 한 가구도 없고, 5,000~9,999마리는 1984년 0.1%이던 것이 2007년에는 0.5%, 10,000~49,000마리는 1984년 0.1%이던 것이 2007년 16.8%로 나타났다. 이밖에 1984년에 한 가구도 없었던 50,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도 2007년에는 32가구로 16.2%가 조사되었다.

5) 기타 가축

이밖에도 함평군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 개, 산양, 사슴, 토끼, 오리, 칠면조, 거위 등이 있다. 한때 한우와 같이 농경에 이용되었고, 운송수단으로 널리쓰였던 말은 1987년 2마리를 끝으로 조사된 바 없다. 기타 가축의 연도별 사육현황은 <표 48>, <표 49>와 같다.

<표 48> 연도별 가축 현황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 연도	한 우		젖 소		돼 지		사 슴		개		산 양	
	가 구	마 리	가 구	마 리	가 구	마 리	가 구	마 리	가 구	마 리	가 구	마 리
1963	5,129	5,470	–	–	13,363	16,347	–	–	–	5,029	–	22
1964	5,150	5,427	–	–	11,972	13,895	–	–	–	4,736	–	25
1965	5,512	5,788	–	–	14,302	15,784	–	–	–	5,711	–	25
1966	5,524	5,796	–	1	15,050	17,574	–	–	–	4,557	–	33
1967	5,213	5,455	–	3	14,261	17,121	–	–	–	3,497	–	40
1968	4,759	–	–	2	13,361	–	–	–	–	–	–	1,442
1969	4,566	5,095	–	–	12,602	16,406	–	–	–	1,444	–	276
1970	4,566	5,305	–	–	12,602	18,066	–	–	–	1,444	–	276
1971	4,713	5,187	–	1	11,303	15,039	–	–	–	1,701	–	265
1972	4,920	5,276	–	50	11,459	14,941	–	–	–	3,103	–	236
1973	–	5,958	–	84	–	13,910	–	–	–	3,930	–	244
1974	–	8,249	–	260	–	15,077	–	–	–	5,859	–	527
1975	7,144	7,752	33	302	10,532	18,581	–	–	5,356	6,181	452	685
1976	5,835	6,149	34	329	12,204	10,004	–	–	6,306	7,076	313	413
1977	5,483	6,066	43	404	7,756	–	–	–	6,213	7,011	358	480
1978	5,580	6,370	47	461	7,487	10,514	–	8	–	–	277	358
1979	4,897	6,345	72	724	5,996	8,946	–	6	–	–	144	244
1980	5,001	6,129	92	959	7,191	9,351	–	8	–	–	195	297
1981	4,413	6,788	81	922	3,030	5,500	1	9	3,934	5,216	158	199
1982	–	–	–	–	–	–	1	10	4,435	6,348	189	296
1983	5,789	11,310	121	1,170	3,286	7,200	2	13	5,189	7,077	337	1,555
1984	6,486	13,000	207	1,401	2,528	3,900	2	13	6,059	8,632	362	1,383
1985	6,980	15,465	290	2,150	1,857	4,135	2	18	5,092	7,003	303	970
1986	6,430	14,166	241	2,448	1,897	4,349	3	64	5,469	8,011	335	569
1987	5,885	13,458	285	2,887	1,476	4,001	3	63	5,932	9,146	221	411
1988	5,085	10,820	271	3,478	1,209	5,214	4	75	7,128	14,004	205	445
1989	5,061	11,369	295	3,994	964	6,306	8	99	7,220	16,020	166	350
1990	4,984	13,457	243	3,770	719	5,862	10	101	7,049	16,019	141	452
1991	4,381	14,462	257	4,303	435	7,447	10	235	4,560	12,080	408	1,373
1992	4,329	17,588	204	3,780	274	7,399	9	421	5,690	13,899	178	1,266
1993	4,432	20,638	210	4,461	151	18,041	10	696	5,552	11,222	209	1,203
1994	4,268	21,238	195	4,893	78	22,648	17	517	5,893	11,007	139	956
1995	4,285	22,273	200	5,160	78	32,681	24	765	5,352	13,800	169	1,081
1996	4,249	25,499	174	4,755	81	36,143	45	959	5,182	14,748	124	878
1997	3,947	26,381	140	5,020	80	49,906	48	1,10	5,300	13,481	131	957
1998	3,465	23,174	114	4,601	86	62,892	67	9	4,135	9,604	103	780
1999	2,749	18,286	104	4,674	99	65,691	72	1,18	4,008	9,359	129	1,118
2000	2,019	14,058	95	4,669	100	63,009	82	2	3,650	10,335	85	667
2001	1,697	12,356	98	5,034	95	74,343	91	1,17	3,962	13,631	95	762
2002	1,555	11,404	98	5,239	89	74,901	83	8	3,469	18,006	92	655
2003	1,613	13,373	86	4,709	79	71,286	94	1,08	3,081	14,195	114	1,381
2004	1,685	16,379	80	4,661	66	68,138	99	9	3,161	13,784	130	2,007
2005	1,717	18,841	85	4,662	63	64,633	86	1,19	2,497	10,777	99	1,922
2006	1,790	21,470	63	3,853	52	62,107	67	8	1,502	4,689	39	909
2007	1,788	24,921	62	4,220	48	67,764	71	1,26	1,415	4,447	25	1,003
								3				
								888				
								992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표 49> 연도별 가축 현황(속)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 연도	토 끼		닭		오 리		칠면조		거 위		꿀 벌	
	가구	마 리	가 구	마 리	가구	마 리	가구	마 리	가구	마 리	가 구	군 수
1963	–	7,724	13,939	130,867	–	4,270	–	–	–	411	–	787
1964	–	6,202	13,146	102,656	–	3,406	–	–	–	418	–	1,060
1965	–	7,791	15,371	151,091	–	2,709	–	–	–	283	–	1,172
1966	–	4,730	16,039	131,690	–	3,567	–	–	–	284	–	964
1967	–	6,920	15,782	137,468	–	3,632	–	3	–	296	–	841
1968	–	–	13,066	–	–	364	–	5,477	–	145,959	–	873
1969	–	5,186	12,780	125,830	–	4,511	–	4	–	356	–	831
1970	–	5,768	12,780	169,917	–	4,511	–	4	–	356	–	831
1971	–	2,897	12,371	95,902	–	4,847	–	1	–	271	–	444
1972	–	2,928	11,520	97,190	–	6,572	–	3	–	364	–	510
1973	–	3,283	–	93,175	–	11,982	–	–	–	309	–	–
1974	–	8,783	–	63,532	–	20,094	–	–	–	443	–	652
1975	3,205	9,941	11,880	72,287	3,145	17,339	2	5	198	431	222	872
1976	3,195	9,988	11,312	63,443	4,041	19,936	5	10	169	338	248	837
1977	2,986	8,767	10,647	54,322	3,310	14,076	11	30	89	186	204	710
1978	2,888	6,371	11,116	59,280	2,977	14,360	18	176	78	152	204	751
1979	6,562	6,562	3,839	69,554	2,687	17,496	22	247	61	195	187	740
1980	898	3,181	3,667	62,814	2,821	13,127	50	290	51	108	125	1,203
1981	957	3,095	7,130	97,000	2,192	9,833	16	134	43	88	182	708
1982	1,640	6,275	–	–	2,014	12,122	19	139	61	109	316	1,216
1983	1,794	5,223	5,990	119,000	2,540	11,755	5	12	81	151	236	1.611
1984	1,056	3,806	4,797	115,000	1,528	9,278	–	–	–	–	–	–
1985	1,240	2,997	4,049	77,860	1,628	6,708	–	–	–	–	–	–
1986	917	3,831	3,577	123,697	1,353	8,161	4	12	32	71	234	1,397
1987	345	1,847	2,184	155,736	1,477	6,483	4	132	36	103	159	2,105
1988	321	2,188	1,717	191,013	896	4,909	2	202	25	54	161	2,435
1989	259	1,307	1,687	212,175	873	12,528	11	41	24	254	183	2,546
1990	150	858	1,486	296,639	748	12,016	11	23	21	247	221	2,509
1991	333	1,383	1,379	305,032	320	14,486	3	18	6	24	108	1,019
1992	222	1,865	842	381,478	244	18,124	–	–	4	43	187	1,512
1993	115	846	392	614,798	96	4,267	1	2	7	366	193	1,428
1994	87	677	219	1,029,039	53	45,143	4	37	2	3	148	2,426
1995	91	891	204	1,736,332	39	34,477	2	4	3	204	230	2,686
1996	102	1,214	174	2,508,772	54	74,326	1	2	22	135	236	3,485
1997	82	1,209	218	2,907,347	34	99,083	–	–	15	231	267	4,271
1998	105	1,516	197	3,110,772	52	49,796	2	3	20	557	250	4,499
1999	142	3,204	272	3,242,328	68	157,839	2	18	26	379	259	5,007
2000	174	2,953	267	3,680,334	72	163,641	6	76	32	451	269	5,762
2001	179	2,073	327	3,976,876	111	335,186	2	5	20	348	277	10,071
2002	144	1,616	323	4,008,019	75	192,332	6	20	17	48	281	10,096
2003	108	1,605	413	4,339,779	113	291,016	4	11	16	539	252	9,719
2004	117	1,727	285	4,880,171	70	278,997	8	46	16	35	240	12,551
2005	97	1,577	276	4,900,601	76	275,875	8	35	16	531	235	10,363
2006	64	623	248	7,607,456	52	329,101	4	10	15	31	145	7,854
2007	38	501	197	4,104,751	36	455,520	2	24	10	15	143	7,694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도축(屠畜)

1) 소 도축

함평군의 소 도축현황은 <표 50>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235마리의 지육량이 29,610kg이던 것이 1970년 98마리에 10,490kg, 1980년 218마리에 41,658kg, 1985년 1,591마리에 328,656kg, 1990년 1,905마리에 397,157kg, 1995년은 13,958마리에 3,760,383kg, 2000년 9,393마리에 3,025,627kg, 2005년 4,581마리에 1,608,933kg, 2007년 1,656마리에 501,585kg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의 도축은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1997년 최고의 도축을 기록한 이후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도축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의 지육량은 연간 함평군민 한사람이 13.2kg을 소비할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전남 전체 도축량(54,940마리, 20,254,241kg)의 3.0%와 2.5%를 차지하고 있다.

2) 돼지 도축

함평군의 돼지 도축현황은 <표 50>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표 50> 연도별 소·돼지 도축현황

(단위 : 마리, kg)

구분 / 연도	소				돼지			
	마 리	생 체 량	지 육 량	폐 기 량	마 리	생 체 량	지 육 량	폐 기 량
1963	52	-	5,616	-	2,754	-	181,754	-
1964	242	-	26,136	-	1,175	-	77,550	-
1965	235	-	29,610	-	1,212	-	101,808	-
1966	157	-	16,956	-	6,637	-	438,042	-
1967	173	-	30,794	-	6,370	-	331,240	-
1968	99	-	31,432	-	7,337	-	442,200	-
1969	52	-	6,656	-	9,367	-	543,286	-
1970	98	-	10,490	-	6,407	-	331,964	-
1971	55	-	6,600	-	3,940	-	206,700	-
1972	42	-	7,476	-	6,660	-	346,320	-
1973	-	-	-	-	-	-	-	-
1974	-	-	-	-	-	-	-	-
1975	-	-	-	-	-	-	-	-
1976	163	52,706	-	-	13,950	1,131,962	-	-
1977	144	50,731	-	-	10,549	965,976	-	-
1978	126	49,901	25,798	41	5,642	515,031	373,912	93
1979	160	60,648	31,355	50	4,210	375,799	272,830	68
1980	218	80,577	41,658	66	3,633	338,127	245,480	61
1981	482	182,665	93,159	147	4,443	417,193	292,036	78
1982	840	367,777	197,401	2,895	12,123	1,028,787	794,000	142
1983	1,021	457,315	243,433	1,679	12,058	1,054,222	741,481	113
1984	910	383,110	203,431	305	12,483	1,086,021	734,150	147
1985	1,591	657,318	328,656	210	6,614	541,566	365,951	30
1986	1,901	688,162	433,542	118	3,999	359,910	233,941	218
1987	1,788	725,473	420,382	233	4,897	396,642	288,542	147
1988	2,404	925,492	462,746	564	8,102	627,465	395,303	135
1989	1,747	774,591	387,295	307	10,245	896,706	564,924	156

구분 / 연도	소				돼 지			
	마 리	생 체 량	지 육 량	폐 기 량	마 리	생 체 량	지 육 량	폐 기 량
1990	1,905	794,315	397,157	-	12,896	1,167,218	583,609	-
1991	2,120	956,759	478,379	-	18,268	1,633,523	1,061,789	-
1992	1,731	742,960	371,480	-	14,142	1,271,470	762,882	-
1993	3,556	1,542,461	802,080	-	11,500	1,051,203	683,280	-
1994	6,628	3,060,534	1,652,688	-	20,500	1,880,610	1,184,784	-
1995	13,958	6,963,673	3,760,383	-	66,843	6,482,918	4,084,238	-
1996	15,870	8,620,182	4,310,092		89,227	8,127,828	5,120,532	
1997	15,373	8,624,798	4,415,896		50,918	4,826,454	3,146,848	
1998	14,700	7,126,120	4,233,902		146,854	15,278,711	9,823,952	
1999	12,948	6,275,096	3,388,551		138,920	14,754	9,295	
2000	9,393	4,833,270	3,025,627		113,568	11,979,822	8,625,472	
2001	6,735	3,478,416	2,174,010		94,147	9,843,000	6,594,810	
2002	5,891	3,204,448	1,858,580		132,661	14,230,996	9,677,077	
2003	5,890	3,204,448	1,762,446		137,809	14,230,996	9,677,077	
2004	4,985	3,009,042	1,685,063		105,156	11,389,222	7,744,670	
2005	4,581	2,774,022	1,608,933		97,654	10,747,180	7,308,082	
2006	4,921	2,766,843	1,604,769		104,287	11,531,841	7,841,651	
2007	1,656	911,972	501,585		142,308	16,727,944	11,709,560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1,212마리의 지육량이 101,808kg이던 것이 1970년 6,407마리에 331,964kg, 1980년 3,633마리에 245,480kg, 1985년 6,614마리에 365,951kg, 1990년 12,896마리에 583,609kg, 1995년은 66,843마리에 4,084,238kg, 2000년은 113,568마리에 8,625,472kg, 2005년은 97,654마리에 7,308,082kg, 2007년은 142,308마리에 11,709,560kg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도축 역시 최근들어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의 지육량은 연간 함평군민 한사람이 308.2kg을 소비할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전남 전체 도축량(744,776마리, 59,585,708kg)의 19.1%와 19.7%를 차지한다.

3. 가축방역(家畜防疫)과 수의사(獸醫師) 현황

1) 가축방역

축산업이 발달하고, 근래 일반농가들이 부업삼아 많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질병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있다. 가축의 질병은 무엇보다도 원인과 증상, 예방법을 알아두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전염속도가 빠르고 집단폐사로까지 이어지므로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위생적인 축사관리, 적절한 예방접종, 정기적인 질병검사가 성공적인 축산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이다.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가축의 전염병은 일본뇌염, 기종저, 돼지위축성비염, 돈콜레라, 소전염성비관염, 광견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등이 있다. 가축방역 현황은 <표 51>과 같다. 일본뇌염은 1984년 5,080마리였던 것이 2007년에는 3,820마리 였다. 기종저는 1984년 9,750마리에서 2007년 3,530마리로 조사되었다. 돼지위축성비염은 1986년 720마

리를 끝으로 방역이 없었다. 돈콜레라는 1984년 12,920마리에서 2003년 360,760마리로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83,600마리의 방역이 이루어졌다. 광견병은 1984년 400마리에서 2007년 1,600마리로 나타났다. 돼지전염성위장염은 1988년 100마리를 끝으로 방역이 없다가 2001년 12,300마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2,900마리로 다시 감소했다.

<표 51> 가축방역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 연도	일본뇌염	기종저	돼지 위축성비염	돈콜레라	소전염성비관염	광견병	돼지전염성위장염
1984	5,080	9,750	58	12,920	-	400	1,520
1985	5,080	8,920	40	12,620	-	400	200
1986	6,900	8,500	720	13,250	-	585	540
1987	5,265	4,605	-	6,152	688	299	595
1988	3,438	3,349	-	4,614	-	107	100
1989	2,933	4,427	-	4,916	1,300	140	-
1990	5,060	4,420	-	4,907	1,200	200	-
1991	3,676	4,420	-	2,945	991	200	-
1992	5,000	4,493	-	2,000	1,000	1,000	-
1993	5,000	4,500	-	1,000	1,000	1,000	-
1994	6,300	2,985	-	1,000	380	5,523	-
1995	-	7,000	-	7,000	-	3,700	-
1996	-	9,000	-	-	-	5,000	-
1997	-	8,000	-	-	-	4,650	-
1998	-	7,800	-	-	-	5,900	-
1999	-	4,200	-	-	-	5,400	-
2000	-	3,200	-	-	-	1,600	-
2001	15,000	2,390	-	-	15,000	1,390	12,300
2002	12,967	2,800	-	-	2,388	1,699	12,998
2003	13,650	3,100	-	360,760	2,399	1,600	13,922
2004	13,900	2,724	-	273,738	2,273	1,574	12,371
2005	14,600	2,411	-	148,480	2,329	1,563	14,179
2006	5,904	3,448	-	241,104	2,590	1,522	3,713
2007	3,820	3,530	-	283,600	2,600	1,600	2,900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수의사 현황

함평군의 수의사 현황은 <표 52>와 같다. 2007년 현재 전남 전체의 수의사는 294명인데, 함평군에는 11명이 있다. 이는 도본청 62명, 나주시 33명, 순천시 32명, 여수시 19명, 목포시 13명에 이어 고흥군, 해남군과 함께 여섯번째에 해당한다. 이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행정 1명, 공수의 4명, 개업수의 5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함평읍에 8명, 해보면에 2명, 월야면에 1명이 있다.

<표 52> 수의사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행 정	연 구	공수의	개업수의	학 교	단 체	기 타
1983	7	2	-	3	2	-	-	-
1984	9	2	-	3	4	-	-	-
1985	10	2	-	2	6	-	-	-
1986	12	1	-	2	7	-	1	1
1987	12	2	-	2	6	-	1	1
1988	11	1	-	2	6	-	1	1
1989	12	1	-	2	6	1	1	1
1990	18	1	6	2	6	1	1	1
1991	20	9	3	6	2	-	-	-
1992	22	11	3	4	4	-	-	-
1993	24	11	3	6	4	-	-	-
1994	19	1	10	4	4	-	-	-
1995	20	1	11	4	4	-	-	-
1996	20	1	11	4	4	-	-	-
1997	23	1	11	-	9	-	2	-
1998	9	1	-	2	6	-	-	-
1999	8	1	-	-	6	-	1	-
2000	8	1	-	-	7	-	-	-
2001	6	-	-	-	6	-	-	-
2002	6	-	-	3	3	-	-	-
2003	6	-	-	3	3	-	-	-
2004	7	-	-	3	4	-	-	-
2005	10	1	-	4	5	-	-	-
2006	9	1	-	4	4	-	-	-
2007	11	1	-	4	5	-	-	1
함평읍	8	1	-	3	3	-	-	1
손불면	-	-	-	-	-	-	-	-
신광면	-	-	-	-	-	-	-	-
학교면	-	-	-	-	-	-	-	-
엄다면	-	-	-	-	-	-	-	-
대동면	-	-	-	-	-	-	-	-
나산면	-	-	-	-	-	-	-	-
해보면	2	-	-	-	2	-	-	-
월야면	1	-	-	1	-	-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4. 함평군축산협동조합



함평군축산협동조합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893번지

2) 시설현황 :

사 무 실-부지면적 660㎡,건평 907㎡,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슬라브 2층

3) 부대시설 :

한우생축사업장-면적 14,336㎡,건평 6,161㎡, 철파이프조 아연도강판 함평가축시장 - 면적 8,168㎡. 건평 888㎡. 슬라브 단층 섬유질사료공장 - 면적 12,233㎡. 건평 3,227㎡. 철골조 조립식판넬

4) 연 혁

- •1973. 4. 23 함평군축산협동조합 설립
- •1979. 1. 25 함평축산협동조합으로 재 발족
- •1982. 4. 23 축협중앙회 회원 가입
- •1982. 10. 4 나주축협에서 함평업무 인수
- •1988. 1. 18 상호금융업무 개시
- •1994. 3. 18 신축 청사 준공
- •1994. 7. 12 축산물 종합 판매장 개점
- •1995. 2. 17 함평가축시장 개장
- •1995. 2. 24 회원조합 종합 업적 평가 우수조합상 수상
- •1996. 2. 28 '95 회원조합 종합 업적평가 결과 전국최우수조합상 수상
- •1996. 4. 19 한우 생축사업장 준공
- •1998. 3. 15 섬유질사료공장 준공
- •2005. 9. 17 송아지경매시장 개장

5) 예금 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별	예금		대출	
	금 액	전년비 증가율	금 액	전년비 증가율
1991	4,337		5,982	
1992	5,180	119	10,238	171
1993	5,652	109	12,826	125
1994	7,517	133	19,678	153
1995	9,311	124	32,072	163
1996	13,990	150	40,369	126
1997	15,968	113	10,468	102
1998	19,559	119	12,173	115
1999	27,806	130	13,951	113
2000	30,089	108	15,069	108
2001	29,625	99	20,072	125
2002	30,835	104	20,630	102
2003	32,547	105	23,126	112
2004	33,035	101	23,001	99.4
2005	34,328	103	23,221	100.9
2006	34,940	101	21,997	94.7
2007	35,117	100.5	22,051	100.2
2008	33,924	96.6	22,256	100.9

6) 역대 조합장

- •1 ~ 5대 이재연 1974. 3. 18 ~ 1994. 3. 18
- •6 ~ 7대 안병호 1994. 3. 18 ~ 2006. 3. 16
- • 8대 임희구 2006. 3. 17 ~ 현 재

<자료 제공 : 총무팀장 이은모>

제 4 절 수산업(水産業)

1. 수산여건(水産與件)

함평은 군의 서쪽에 함평만(灣)을 낀 연안군(沿岸郡)이다. 그러나 9개읍면 가운데 함평읍과 손불면만이 바다에 접하여 해양면적이 좁고, 수심이 낮아 수산여건이 극히 빈약한 편이다. 다만 간석지(干潟地)가 발달되어 있어 갯지렁이, 낙지, 굴, 바지락 등의 채취가 용이할 뿐이다. 이중 어가부업의 큰 몫을 차지했던 갯지렁이는 한 때 연간 10여M/T을 생산하여 대일(對日) 수출로 외화획득에 기여한 바 있다.

해안선은 20.6km(함평읍 5.3km, 손불면 15.3km)로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와 경계인 함평읍 석성리에서 영광면 염산면 옥슬리와 경계인 손불면 학산리까지이다. 저조선(低潮線) 이하의 천해구역은 사니질(砂泥質)과 모래 등이 발달되어 있어 키조개, 바지락, 보리새우의 좋은 서식지이다. 농어, 민어 등의 산란장(産卵場)으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1982년 1월 8일 수산자원보존지구(건설부고시 제6호)로 지정된 바도 있다.

기반시설인 어항은 석두항(함평읍 석성리 석두), 주포항(함평읍 석성리 주포), 석계항(손불면 석창리 석계), 월천항(손불면 월천리 일공구), 해은항(손불면 학산리 해은) 등 5개 항이 있었다. 이 항구 가운데 주포항에서는 한 때 칠산어장에서 잡은 조기, 강달어, 젓새우 등의 파시가 형성되기도 했다. 1972년도에는 월천항과 해은항이 제2종 항으로 지정 받았으나, 함평만 일대가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1983년 12월 4일 해제되어 군소어항으로 격하되었다. 현재 이 항구들은 어항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내수면 어업은 나주시와 경계로 흐르는 영산강과, 함평천·고막천 등의 하천과, 100개소가 넘는 저수지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 역시 소규모로 뱀장어, 가물치, 미꾸라지, 잉어, 붕어 등을 잡아왔을 뿐이다.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30여개소의 저수지에 2백만마리의 잉어 치어를 방류한 바도 있으나 가뭄으로 저수지의 물이 말라 실패하고 말았다. 1977년 시작된 내수면 양식어업은 2009년 6월 현재 면허, 신고된 곳이 74개소에 면적은 19ha이다. 그 종류는 뱀장어가 주종을 이루고 기타 어종이 있다.

2. 어업가구와 어업인구

1) 어업가구

함평군의 2007년 말 총가구는 17,434가구이다. 이 가운데 어업가구는 604가구로 비율이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남 전체의 3.0%보다 높기는 하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남의 어업가구 22,939가구에 비하면 함평군은 2.6%에 불과하다.

연도별 어업가구의 추이는 <표 53>과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총가구에 대한 어업

<표 53> 연도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

구분 / 연도	총가구(A)	어업가구(B)				B/A(%)
		합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1963	22,667	153	–	–	–	0.7
1964	22,709	164	–	–	–	0.7
1965	22,716	165	–	–	–	0.7
1966	23,363	584	18	–	–	2.4
1967	23,159	590	19	–	–	2.5
1968	22,628	642	21	–	–	2.8
1969	22,628	645	35	–	–	2.9
1970	22,545	655	105	–	–	2.9
1971	21,592	665	110	–	–	3.1
1972	21,452	674	119	–	–	3.1
1973	21,460	–	–	–	–	–
1974	21,274	516	178	–	–	2.4
1975	21,684	–	–	–	–	–
1976	21,235	482	271	–	–	2.3
1977	20,931	–	–	–	–	–
1978	20,656	457	249	–	–	2.2
1979	20,383	450	245	–	–	2.2
1980	20,001	459	–	–	–	2.3
1981	19,180	734	118	312	304	3.8
1982	18,899	699	109	307	283	3.7
1983	18,754	362	18	344	–	1.9
1984	18,561	385	48	337	–	2.1
1985	18,906	380	97	283	–	2.0
1986	18,342	417	101	316	–	2.3
1987	17,855	421	94	220	107	2.4
1988	17,411	459	132	165	162	2.6
1989	17,351	468	131	175	162	2.7
1990	17,304	475	142	170	163	2.7
1991	17,531	538	169	186	183	3.1
1992	17,312	527	162	185	180	3.0
1993	17,427	519	134	191	194	3.0
1994	17,170	544	141	215	188	3.2
1995	17,276	566	100	261	205	3.3
1996	17,220	584	125	250	209	3.4
1997	17,309	585	119	261	205	3.4
1998	18,372	589	137	244	208	3.2
1999	17,528	599	124	247	210	3.4
2000	17,398	581	120	244	217	3.3

구분 / 연도	총가구(A)	어 업 가 구(B)				B/A(%)
		합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2001	17,255	592	115	251	226	3.4
2002	17,114	599	142	251	206	3.5
2003	17,312	592	142	250	200	3.4
2004	17,153	587	151	251	185	3.4
2005	17,553	589	151	251	187	3.4
2006	17,412	573	127	231	215	3.3
2007	17,434	577	136	203	238	3.3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가구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1965년 0.7%이던 것이 1970년에는 2.9%, 1976년에는 2.3%, 1980년에는 2.3%, 1985년에는 2.0%, 1990년에는 2.8%, 1995년에는 3.3%, 2000년에는 3.3%, 2007년에는 3.3%로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어가의 비율과 어가의 수는 전체적으로 증감의 폭이 적음을 볼 수 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2007년 어가비율은 각각 4.3%와 18.1%이다. 이밖에 내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학교면 23가구, 손불면과 함평읍에 85가구가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어가형태별 가구의 비율은 1966년에 전업어가가 18가구로 전체어가 584가구의 3.1%, 겸업어가는 566가구로 96.9%이었다. 1970년에는 전업어가 16.0%·겸업어가 84.0%, 1976년에는 전업어가 56.2%·겸업어가 43.8%, 1981년에는 전업어가 16.1%·겸업어가 83.9%, 1985년에는 전업어가 25.5%·겸업어가 74.5%, 1990년에는 전업어가 29.9%·겸업어가 70.1%, 1995년에는 전업어가 17.7%·겸업어가 82.3%, 2000년에는 전업어가 20.7%·겸업어가 79.3%, 2007년에는 전업어가 23.6%·겸업어가 76.4%를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로는 어가형태별 추이의 특징을 찾을 수 없다.

2) 어업인구

어업인구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표 54>와 같다. 2007년 말 함평군의 총인구는 37,998(남 18,832, 여 19,166)명이다. 이 가운데 어업인구는 1,393(남 617, 여 776)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전체의 3.2% 보다도 조금 높은 어업비율로 어업조건이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어업인구도 전남의 61,843명에 비하면 2.3%밖에 안 된다.

총인구에 대한 어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5년에 0.5%이던 것이 1970년에는 3.6%, 1976년에는 1.7%, 1980년에는 1.0%, 1985년에는 2.3%, 1990년에는 3.1%, 1995년에는 4.2%, 2000년에는 4.7%, 2007년에는 3.7%로 나타났다. 가구당 어업인구는 1965년에 3.9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7.0명, 1976년에는 4.2명, 1980년에는 2.0명, 1985년에는 4.7명, 1990년에는 4.1명, 1995년에는 3.8명, 2000년에는 3.6명, 2007년에는 2.4명이다.

<표 54> 연도별 어업인구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총 인 구(A)	어 업 인 구(B)			가 구 당 어업인구	B/A(%)
		합 계	남	여		

구분 / 연도	총 인 구(A)	어 업 인 구(B)			가 구 당 어업인구	B/A(%)
		합 계	남	여		
1 9 6 3	135,855	186	84	102	1.2	0.1
1 9 6 4	139,547	197	91	106	1.2	0.1
1 9 6 5	141,845	642	339	303	3.9	0.5
1 9 6 6	138,818	3,055	1,570	1,485	5.2	2.2
1 9 6 7	141,177	3,060	1,595	1,465	5.2	2.2
1 9 6 8	137,337	4,007	2,270	1,737	6.2	2.9
1 9 6 9	137,337	4,457	2,336	2,121	6.9	3.2
1 9 7 0	127,240	4,611	2,457	2,154	7.0	3.6
1 9 7 1	126,139	4,686	2,293	2,393	7.0	3.7
1 9 7 2	128,197	4,736	2,318	2,418	7.0	3.7
1 9 7 3	127,621	–	–	–	–	–
1 9 7 4	126,636	3,096	1,645	1,451	6.0	2.4
1 9 7 5	119,237	–	–	–	–	–
1 9 7 6	118,087	2,029	1,024	1,005	4.2	1.7
1 9 7 7	116,555	–	–	–	–	–
1 9 7 8	114,913	–	–	–	–	–
1 9 7 9	112,924	1,974	957	1,017	4.4	1.7
1 9 8 0	96,344	913	465	448	2.0	1.0
1 9 8 1	92,960	2,988	1,541	1,447	4.1	3.2
1 9 8 2	91,417	2,814	1,448	1,366	4.0	3.7
1 9 8 3	86,357	1,720	1,015	705	4.7	2.0
1 9 8 4	85,004	2,227	1,309	918	5.8	2.6
1 9 8 5	78,173	1,784	981	803	0.2	2.3
1 9 8 6	75,720	2,048	1,065	983	4.9	2.7
1 9 8 7	72,023	2,110	1,085	1,015	5.0	2.9
1 9 8 8	69,550	2,140	1,076	1,064	4.7	3.0
1 9 8 9	69,728	1,877	940	937	4.0	2.7
1 9 9 0	63,081	1,956	978	978	4.1	3.1
1 9 9 1	62,098	2,200	1,105	1,095	4.1	3.5
1 9 9 2	58,215	2,054	1,029	1,025	3.9	3.5
1 9 9 3	55,684	1,963	978	985	3.8	3.5
1 9 9 4	52,819	2,103	1,021	1,082	3.9	3.9
1 9 9 5	51,703	2,151	1,016	1,135	3.8	4.2
1 9 9 6	49,733	2,142	1,065	1,077	3.6	4.3
1 9 9 7	48,304	2,114	1,036	1,078	3.6	4.4
1 9 9 8	50,929	2,120	1,018	1,102	3.6	4.2
1 9 9 9	46,929	2,131	1,027	1,104	3.6	4.5
2 0 0 0	45,369	2,112	1,012	1,100	3.6	4.7
2 0 0 1	43,677	2,127	1,019	1,108	3.6	4.9
2 0 0 2	42,123	2,131	–	–	3.6	5.0
2 0 0 3	42,338	2,125	–	–	3.6	5.0
2 0 0 4	40,486	1,974	–	–	3.4	4.9
2 0 0 5	40,437	1,980	–	–	3.4	4.9
2 0 0 6	38,956	1,870	–	–	3.3	4.8
2 0 0 7	38,402	1,393	617	776	2.4	3.6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008년도 어가수는 총 577가구 1,393명이며 해면어업이 469가구에 1,156명이고 이중 전업자 가구는 76가구이고 내수면 어업은 108가구에 237명이며 이중 전업자 가구는 60가구이다.

– 해면어업은 함평읍 169가구 400명과, 손불면 300가구 75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 내수면 어업은 학교면 23가구 66명과 손불면, 함평읍에 85가구 171명이 종사하고 있다.

어업인구의 남녀 구성비는 각각 1965년에 52.8%·47.2%, 1970년에 52.4%·47.6%, 1976년에 50.5%·49.5%, 1980년에 50.9%·49.1%, 1985년에 55.0%·45.0%, 1990년에 50.0%·

50.0%, 1995년에 47.2%·52.8, 2000년에 47.9%·52.1, 2007년에 44.3%·55.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어선보유 현황

함평군내의 어선은 2007년 현재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대부분이다. 5톤이상의 어선은 3隻에 불과한데, 그것도 10톤을 넘는 어선이 한척도 없다. 이 어선들은 큰 바다에서의 조업보다는 가까운 함평만에서 연안어업을 하거나 해태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이용된다.

어선보유 현황은 <표 55>와 같다. 이것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5년 31척에 84.5톤으로 척당 2.73톤이던 것이 1970년에는 35척에 141.3톤으로 척당 4.04톤, 1976년에는 48척에 91.9톤으로 척당 1.92톤, 1980년에는 129척에 196.2톤으로 척당 1.52톤, 1985년에는 230척에 422.9톤으로 척당 1.84톤, 1990년에는 226척에 301.2톤으로 척당 1.33톤, 1995년에는 145척에 232.2톤으로 척당 1.6톤, 2002년에는 154척에 259.9톤으로 척당 1.69톤, 2007년에는 154척에 233.1톤으로 척당 1.51톤이다.

규모별 어선 현황을 1978년과 2007년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1978년 1톤미만이 6척으로 6.3%, 5톤미만이 42척으로 44.2%, 10톤미만과 이상이 각각 1척으로 1.1%이던 것이 2007년에는 1톤미만이 86척으로 55.8%, 5톤미만이 65척으로 42.2%, 10톤미만이 3척으로 2.0%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0톤이상의 어선은 한척도 없다. 1978년에 비해 2007년이 어선의 척수는 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 소형어선이라 영세한 형편이며, 중형어선의 수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다. 특히 1990년 이후 1톤미만의 소형어선 비율이 높은 것은 해태양식 채취선과 내수면 양식어업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력선과 무동력선의 구성비는 1965년에 동력선 12.9%·무동력선 87.1%이던 것이 1970년에는 동력선 31.4%·무동력선 68.6%, 1976년에는 동력선 27.1%·무동력선 72.9%, 1980년에는 동력선 72.1%·무동력선 27.9%, 1985년에는 동력선 83.9%·무동력선 16.1%, 1990년에는 동력선 84.5%·무동력선 15.5%, 1995년에는 동력선 92.4%·무동력선 7.6%, 2002년에는 동력선 92.2%·무동력선 7.8%, 2007년에는 동력선 92.9%·무동력선 7.1%를 나타내고 있다. 표와 같이 어선의 동력화는 1978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5> 어선보유 현황

(단위 : 척, 톤)

구분 / 연도	합 계		동 력		무 동 력		규 모 별 척 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톤미만	5톤미만	10톤미만	10톤이상
1965	31	84.5	4	24.3	27	60.3	–	–	–	–
1966	31	84.5	4	24.3	27	60.3	–	–	–	–
1967	36	121.4	5	46.0	31	75.4	–	–	–	–
1968	41	160.2	7	83.2	34	76.9	–	–	–	–
1969	41	156.6	8	89.3	33	67.4	–	–	–	–
1970	35	141.3	11	93.8	24	47.5	–	–	–	–
1971	33	132.5	9	85.0	24	47.5	–	–	–	–
1972	42	136.1	8	78.6	34	57.5	–	–	–	–
1973	–	–	–	–	–	–	–	–	–	–
1974	50	179.0	14	137.0	36	42.0	–	–	–	–

구분 / 연도	합 계		동 력		무 동 력		규 모 별 척 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톤미만	5톤미만	10톤미만	10톤이상
1975	-	-	-	-	-	-	-	-	-	-
1976	48	91.9	13	53.5	35	38.4	-	-	-	-
1977	-	-	-	-	-	-	-	-	-	-
1978	95	137.7	50	79.7	45	58.0	6	42	1	1
1979	132	200.3	96	165.0	36	35.3	6	88	1	1
1980	129	196.2	93	160.8	36	35.3	6	121	1	1
1981	165	255.3	127	219.0	38	36.3	22	105	1	1
1982	183	269.6	148	234.9	35	34.6	6	176	1	-
1983	212	311.1	171	273.6	41	37.5	15	196	-	1
1984	231	431.5	194	389.3	37	42.1	18	211	1	1
1985	230	422.9	193	380.8	37	42.1	18	210	-	1
1986	237	439.4	198	396.8	39	42.6	20	216	-	1
1987	236	438.3	192	394.7	44	43.6	25	208	2	1
1988	275	407.5	237	374.0	38	33.5	49	222	4	-
1989	225	295.4	190	266.0	35	29.4	78	143	4	-
1990	226	301.2	191	271.9	35	29.4	-	-	-	-
1991	223	295.0	187	264.4	36	30.6	76	142	5	-
1992	234	313.2	185	276.0	49	37.2	84	144	6	-
1993	152	189.6	136	179.7	16	9.9	94	53	5	-
1994	141	209.7	130	202.2	11	7.6	83	50	8	-
1995	145	232.2	134	224.9	11	7.3	84	47	14	-
1996	132	224.6	121	218.4	11	6.2	72	45	15	-
1997	153	238.6	141	231.7	12	6.9	94	43	16	-
1998	161	260.0	149	253.1	12	6.9	97	48	16	-
1999	155	259.9	143	253.0	12	6.9	92	51	16	-
2000	161	266.0	149	259.1	12	6.9	95	59	15	-
2001	165	270.2	153	263.3	12	6.9	91	18	15	-
2002	154	259.9	142	253.0	12	6.9	85	61	9	-
2003	168	297.0	157	290.5	11	6.5	91	68	9	-
2004	171	303.0	160	296.6	11	6.5	93	70	8	-
2005	171	303.7	160	297.3	11	6.5	93	70	8	-
2006	145	237.1	134	230.6	11	6.5	82	58	5	-
2007	154	233.1	143	226.6	11	6.5	86	65	3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4. 수산물 어획고

함평군의 수산물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해조류·기타로 나뉘는데, 그 어획고는 <표 56>과 같다.

이것을 1982년과 2007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1982년 총 어획고가 1,350M/T에 13억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4,303M/T에 364억원을 넘었다. 다시 종류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1982년은 어류가 345M/T에 2억 3천만원, 갑각류가 48M/T에 2억 1천만원, 연체동물이 4M/T에 2백만원, 해조류가 746M/T에 7억 6천만원, 기타가 208M/T에 9천 만원이었다. 2007년에는 어류가 2,954M/T에 328억 3천 7백만원, 갑각류가 20M/T에 2억 8천 5백만원, 연체동물이 1,316M/T에 31억 3천 3백만원, 해조류가 4M/T에 1억 9천 3백만원, 기타가 9M/T에 1천 4백만원의 어획고를 보였다.

<표 56> 수산물 어획고

(단위 : M/T, 천원)

구분 / 연도	합 계		어 류		갑 각 류		연 체 동 물		기타수산물		해 조 류	
	량	금액	량	금액	량	금액	량	금액	량	금액	량	금액
1982	1,350	1,300,000	345	231,380	48	211,760	4	2,450	208	91,410	746	763,000
1983	–	–	–	–	–	–	–	–	–	–	–	–
1984	1,297	1,196,500	268	402,000	155	347,850	5	12,150	869	434,500	–	–
1985	1,569	1,556,000	370	428,000	103	206,000	11	31,500	175	151,000	479	523,500
1986	1,251	1,363,000	394	511,000	72	222,500	489	163,300	11	110,000	285	356,200
1987	917	1,427,530	381	626,700	–	–	246	115,780	73	356,200	217	328,850
1988	2,081	1,947,441	289	766,741	–	–	1,408	346,900	34	290,720	350	543,080
1989	1,623	2,171,904	293	1,387,142	33	125,025	1,286	344,375	11	315,362	–	–
1990	388	1,689,000	154	856,000	59	389,500	143	125,000	4	223,500	28	95,000
1991	781	2,594,000	267	1,387,000	87	577,000	322	266,000	5	207,000	100	157,000
1992	1,747	4,197,000	263	1,677,000	89	694,000	668	585,000	6	297,000	721	944,000
1993	1,375	3,558,000	217	1,547,000	68	396,000	724	680,000	8	405,000	358	530,000
1994	2,134	4,636,000	218	1,978,000	74	439,000	1,579	1,364,000	78	397,000	252	458,000
1995	1,998	5,524,000	302	2,568,000	77	503,000	1,461	1,730,000	10	420,000	148	303,000
1996	1,776	6,058,000	372	2,998,000	98	556,100	1,151	1,799,000	10	428,900	145	276,000
1997	2,055	6,168,000	428	3,138,000	95	539,000	1,303	1,653,000	9	412,000	220	426,000
1998	2,244	11,874,000	484	4,202,000	115	820,000	1,372	5,983,000	6	335,000	267	534,000
1999	1,772	8,353,000	121	928,000	106	785,000	1,331	5,900,000	5	319,000	209	421,000
2000	1,767	8,335,000	119	924,000	105	781,000	1,330	5,890,000	5	321,000	209	419,000
2001	1,772	8,551,000	118	892,000	104	765,000	1,339	6,133,000	6	354,000	205	407,000
2002	1,771	8,354,518	119	928,400	106	785,000	1,331	5,900,218	6	319,000	209	421,900
2003	1,774	8,357,000	119	928,000	108	788,000	1,332	5,902,000	5	315,000	210	424,000
2004	3,195	22,103,000	1,264	16,960,000	37	610,000	1,816	3,784,000	4	139,000	74	610,000
2005	3,405	22,553,000	1,854	18,770,476	37	610,000	1,400	2,850,000	4	139,000	110	183,524
2006	4,081	30,377,000	2,250	26,750,000	30	512,000	1,750	2,945,000	3	90,000	48	80,000
2007	4,303	36,462,000	2,954	32,837,000	20	285,000	1,316	3,133,000	9	14,000	4	193,000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5. 양식어업

1) 천해(淺海) 양식

(1) 김 양식

함평군의 김 양식은 1971년 손불면 학산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자연포자에 의한 채묘로 포자부착이 불량하고 양식기술도 미숙하여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본격적인 김 양식은 인공포자의 보급과 완도, 진도 등 선진지 양식어가가 유입되면서부터이다.

김 양식 현황은 <표 57>과 같다. 이것을 1978년과 2009년 6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78년 35가구에서 450책을 건홍해 38천속을 생산했고, 53,200천원의 소득을 올렸던 것이 2009년 6월 현재 3가구에서 280책을 건홍해 15천속을 생산했고, 45,565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가장 활발했던 김 양식 시기는 대체로 많은 가구가 참여한 1980년 초와 후반이

다. 1981년은 197가구가 5,550책을 건홍해 지금까지 최고 수치를 나타낸다. 생산량은 1983년의 282,550천속이, 소득에 있어서는 10억원이 넘었던 1989년이 최고였다. 그러나 김 양식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갯병발생률이 높아 참여가구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7> 김·굴 양식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 연도	김 양 식				굴 양 식			
	가 구	책수(책)	생산량(천속)	금 액	가 구	면적(ha)	생산량(t)	금 액
1978	35	450	38	53,200				
1979	52	878	65	97,500				
1980	83	2,050	195	40,950				
1981	197	5,550	431	564,000				
1982	195	4,586	373	763,200				
1983	181	4,160	282,550	833,000				
1984	-	4,640	-	-				
1985	-	4,296	-	-				
1986	23	985	53	109,002				
1987	98	2,620	108	328,850	150	80.5	121	510,000
1988	130	3,060	175	543,080	180	128.5	444	147,000
1989	156	4,500	465	1,033,990	180	128.5	134	76,000
1990	143	4,870	-	-	180	128.5	115	87,000
1991	69	3,080	50	157,000	180	128.5	274	190,000
1992	77	3,300	360	943,921	180	128.5	527	476,000
1993	50	2,480	179	529,895	180	128.5	431	487,500
1994	27	1,530	126	458,280	180	128.5	471	486,200
1995	27	1,540	74	303,110	230	148.5	314	590,000
2006	9	750	56	183,000	365	178.5	27	459,000
2007	3	300	23	80,000	365	178.5	26	442,000
2008	3	300	4.5	13,500	365	178.5	29	493,000
2009.6월	3	280	15	45,565	365	178.5	30	510,000

자료 : 함평군지, 함평군농수산진흥과

(2) 굴 양식

함평군 연안의 천해간석지는 넓지는 않지만 굴 등의 패류 서식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굴은 성장이 빠르고, 맛과 질이 좋아 한 때 개발 유망 품종으로 지목된 바도 있다. 함평군의 굴 양식 사업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굴 양식 현황은 <표 57>과 같다. 이것을 1987년과 2009년 6월로 구분해 살펴보면 1987년 150가구가 참여해 80.5ha에서 121t을 생산, 510,000천원의 소득을 올렸던 것이 2009년 6월 현재 365가구가 참여해 178.5ha에서 30t을 생산 510,000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1970년대 굴양식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표 57>과 같이 가장 많은 생산면적과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한 2009년 6월 현재가 굴양식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생산량은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생산량은 1992년의 527t이, 소득에 있어서는 1995년의 590,000천원이 최고였다.

2) 내수면(內水面) 양식

함평군의 내수면 양식은 1977년 엄다면 영흥리에서 시작한 뱀장어 양식(규모 3,000㎡)이 시초였다. 1979년에는 월야면 월악리에 순채 양식장이 조성된 바도 있다.

최근의 함평군 내수면 양어장 현황은 <표 58>과 같다.

<표 58> 내수면 양어장 허가(면허·신고)

(단위 : 개소, ha)

구분 / 연도	합 계		뱀장어		잉어류		메 기		가물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2	25	5.01	11	1.56	-	-	-	-	4	0.61	10	2.84
1994	32	7.94	13	2.04	-	-	-	-	-	-	19	5.90
1995	41	10.51	15	2.41	-	-	16	4.08	1	0.27	9	4.02
1996	45	14.14	17	3.02	-	-	9	7.67	2	0.32	7	3.13
2005	68	14	54	11	-	-	3	1	-	-	11	2
2006	67	15	58	12	-	-	3	1	-	-	6	2
2007	72	15	54	11	-	-	2	1	-	-	16	3
2008	64	14	43	10	-	-	-	-	-	-	21	4
2009.6월	74	19	47	11	-	-	-	-	-	-	27	8

자료 : 『전남통계』 각 연도 봄호

제 5 절 광·공업

1. 광 업

함평군의 광산은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으로 나눌수 있다. 그러나 자원 매장량은 비금속인 고령토를 제외하고는 매우 빈약하다.

금속광은 대동면 향교리 고산봉, 대동면 금곡리 금적골, 손불면 궁산리 묘동, 학교면 월호리 · 금송리 속금산 일대에 있었던 금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속금산 일대의 금광은 일제강점기에 채광을 시작했던 곳으로 이름났다. 가장 많았던 금속광의 광권 출원 광구는 1973년의 18개소였다. 2007년 현재는 12개소로 신광면, 학교면, 대동면에 각 1개소가 있다.

석탄은 1970년대 엄다면에서 무안군에 이르는 일대에 유연탄이 매장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로 한때 광산업자들이 모여든 바도 있으나, 이렇다할 광맥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나산면 우치리와 월봉리에서 시굴한 바도 있다. 가장 많았던 석탄광의 광권 출원 광구는 1971년에서 1974년까지의 13개소였다. 2007년 현재는 출원 광구가 하나도 없다.<표 60> 참조

비금속은 매장량이 양과 질에서 뛰어나다. 1950년대에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마을 앞산인 수산봉 일대에서 채굴한 석회석은 현 함평여고 옆에 가공 공장을 세우고 농용석회를 생산하기도 했다. 손불면 학산리와 산남리 일대에 매장된 도석은 질이 뛰어나 외지 도자기 공장으로 많이 반출된 바 있다.

고령토는 함평군 전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매장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함평군은 조선시대 이래로 도자기 제조가 성하였고, 지금도 곳곳에 도요지 터가 남아 있다. 특히 손불면 산남리와 월야면 영월리에서 나오는 고령토는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질이 좋기로 이름

이 나 있다. 함평군의 고령토 생산 현황은 <표 59>와 같다. 2006에 2,178M/T을 생산했으나 2007년 현재 함평군에서 고령토 생산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생산된 해는 20,100M/T를 기록한 2000년이다.

<표 59> 고령토 생산 현황

(단위 : M/T)

연 도	생 산 량	연 도	생 산 량	연 도	생 산 량
1 9 8 1	12,940	1 9 9 0	-	1 9 9 9	1,500
1 9 8 2	7,548	1 9 9 1	5,041	2 0 0 0	20,100
1 9 8 3	6,450	1 9 9 2	5,100	2 0 0 1	3,508
1 9 8 4	6,355	1 9 9 3	8,000	2 0 0 2	15,926
1 9 8 5	15,223	1 9 9 4	18,200	2 0 0 3	8,000
1 9 8 6	7,847	1 9 9 5	3,500	2 0 0 4	6,000
1 9 8 7	15,827	1 9 9 6	9,500	2 0 0 5	2,178
1 9 8 8	12,390	1 9 9 7	8,824	2 0 0 6	2,178
1 9 8 9	1,950	1 9 9 8	3,626	2 0 0 7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표 60> 광종별 광구수

(단위 : 개소)

구분 / 연도 읍면	합 계			금 속 광		비 금 속 광		석 탄 광	
	계	가 행	미가행	가행	미가행	가 행	미가행	가 행	미가행
1 9 6 9	23	1	22	-	9	1	4	-	9
1 9 7 1	43	2	41	-	17	2	11	-	13
1 9 7 3	46	2	44	1	17	1	14	-	13
1 9 7 5	50	5	45	2	11	3	27	-	7
1 9 7 7	50	4	46	-	11	4	33	-	2
1 9 7 9	64	6	58	-	11	6	45	-	2
1 9 8 1	68	4	64	-	11	4	51	-	2
1 9 8 3	70	6	64	-	11	6	50	-	3
1 9 8 4	75	18	55	-	11	18	41	-	3
1 9 8 5	53	15	38	-	4	15	33	-	1
1 9 8 6	48	10	38	-	4	10	33	-	1
1 9 8 7	50	15	35	-	4	15	30	-	1
1 9 8 8	44	21	23	-	4	21	18	-	1
1 9 8 9	40	3	37	-	4	3	32	-	1
1 9 9 0	38	-	38	-	4	-	34	-	-
1 9 9 1	41	3	38	-	4	3	34	-	-
1 9 9 2	32	2	30	-	4	2	26	-	-
1 9 9 3	38	3	35	-	4	3	31	-	-
1 9 9 4	41	2	39	-	4	2	35	-	-
1 9 9 5	40	1	39	-	3	1	36	-	-
1 9 9 6	27	9	18	-	3	9	15	-	-
1 9 9 7	31	12	19	-	7	12	12	-	-
1 9 9 8	31	1	30	-	6	1	24	-	-
1 9 9 9	31	1	30	-	5	1	25	-	-
2 0 0 0	30	2	28	-	4	2	24	-	-
2 0 0 1	31	3	28	-	4	3	24	-	-
2 0 0 2	34	1	33	-	6	1	27	-	-
2 0 0 3	45	1	44	-	13	1	31	-	-
2 0 0 4	43	1	42	-	14	1	28	-	-
2 0 0 5	41	1	40	-	10	1	30	-	-
2 0 0 6	45	1	44	-	10	-	34	-	-
2 0 0 7	54	-	54	-	12	-	42	-	-
함 평	4	-	4	-	1	-	3	-	-
손 불	20	-	20	-	2	-	18	-	-
신 광	7	-	7	-	5	-	2	-	-
학 교	2	-	2	-	1	-	1	-	-
엄 다	2	-	2	-	-	-	2	-	-

대 동	6	–	6	–	3	–	3	–	–
나 산	2	–	2	–	–	–	2	–	–
해 보	4	–	4	–	–	–	4	–	–
월 야	7	–	7	–	–	–	7	–	–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공업

1) 공업여건

함평군은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산업고도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효과, 생산과 수출액이 낮은 영세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업화 전망은 밝게 보고 있다. 그것은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망운 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전철의 경유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함평군은 광주의 첨단과학산업기지, 대불·삼호공업단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이나 주요 부품산업단지 내지는 거점물류단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373)]

2) 제조업종 현황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에 따른 함평군의 제조업종 현황은 <표 61>과 같다. 2007년

현재 총 사업체는 31개인데, 크게 10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각 6개 사업체로 가장 많다.

연도·읍면별 제조업 현황은 <표 62>와 같다. 1991년 총 58개 사업체였던 것이 2007년에는 31개로 27개 사업체가 줄었다. 읍면별로는 광주직할시와 인접한 월야면이 13개 업체로 가장 많고, 농공단지가 있는 학교면이 9개업체, 함평군이 3개, 해보면이 2개, 신광면과 나산면이 각각 1개업체이다. 대동면, 손불면, 엄다면은 단 한 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제조업 중분류별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 종별	사업체	월평균 종사자	연 간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주 요 생산비	부가가치	유 형 고정자산연 말잔액
식 료 품	6	197	2,932	34,670	34,972	25,404	9,266	26,573
음 료 제 조 업	1	19	439	3,085	2,288	868	2,217	931
목 재나 무 제 품	2	37	644	6,953	6,954	3,280	3,673	781
펄 프, 종 이 제 품	2	41	958	2,861	2,803	1,065	1,796	785
고 무플 라 스 틱	3	164	4,192	22,817	22,083	14,207	8,610	6,787
비 금 속 광 물 제 품	6	209	4,116	31,749	31,857	15,564	16,185	9,012
제1차 금 속 산 업	1	11	218	1,503	1,504	1,081	422	936
금 속 가 공 제 품	3	100	1,448	14,732	13,166	7,685	7,047	8,296

3) 김재철,「함평군의 공업화 전략」,『지역발전전략세미나』, 함평군, 1995.

기타 기계 및 장비	4	145	2,954	27,083	26,945	19,294	7,789	3,8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	99	1,323	4,685	7,505	5,528	-843	8,885

자료 : 2007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하나의 산업분류별 수치가 2개이하 사업체의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그 수치 대신에 X표시를 하였음.

<표 62> 제조업 중분류 연도·읍면별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 연도 / 읍면	사업체	월평균 종사자	연 간 급여액	생산비	출하액	주 요 생산비	부가가치	유 형 고정자산연말 자산
1991	58	1,577	-	13,970	33,257	-	22,230	32,773
1992	60	1,378	-	28,447	49,661	-	22,575	36,475
1993	53	1,310	-	36,114	59,766	-	25,398	42,879
1994	48	1,226	9,902	36,646	62,484	-	27,967	46,452
1995	46	1,215	11,404	35,195	73,226	-	38,440	37,105
1996	47	1,163	12,728	85,997	85,151	46,507	39,490	39,303
1997	50	1,189	13,352	90,479	90,134	50,568	39,911	40,865
1998	46	1,008	11,400	86,345	84,480	45,957	40,388	38,992
1999	55	1,114	14,384	105,557	105,905	60,218	45,339	45,979
2000	50	1,003	13,784	109,933	109,664	64,274	45,659	47,520
2001	62	1,068	13,942	125,092	124,441	83,763	41,329	51,077
2002	66	1,172	17,079	143,983	142,997	100,336	43,647	61,135
2003	49	965	16,764	139,907	139,966	88,338	51,569	45,874
2004	56	1,060	18,534	164,774	163,565	101,805	62,969	45,712
2005	52	1,041	18,828	156,211	156,631	98,544	57,667	42,593
2006	34	1,004	17,514	132,133	127,653	80,666	51,467	58,472
2007	31	1,022	19,224	150,138	150,077	93,976	56,162	68,159
함평	5	101	1,701	27,796	27,643	19,122	8,674	5,380
손불	-	-	-	-	-	-	-	-
신광	1	19	439	3,085	2,288	868	2,217	2,294
학교	9	349	6,134	37,466	36,815	19,353	18,113	29,483
엄다	-	-	-	-	-	-	-	-
대동	-	-	-	-	-	-	-	-
나산	1	51	663	115	3,480	1,828	-1,713	1,796
해보	2	65	909	14,008	14,395	8,519	5,489	5,379
월야	13	437	9,369	67,668	65,456	44,286	23,382	23,827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3) 제조업 각 등록업체 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한 함평군의 제조업 등록업체는 <표 63>과 같다. 총 17개 분야 93개 등록업체 가운데 종업원이 1~10명인 업체는 59개로 전체의 63.44%, 11~20명인 업체는 12개로 12.9%, 21~50명인 업체는 17개로 18.28%, 51~99명인 업체는 4개로 4.5%, 100명 이상인 업체는 1개로 1.1%이다. 읍면별로는 학교면이 33개 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이 월야면 24개 업체,

<표 63> 중소제조업 등록업체 현황

1. 식료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유)세양종합식품	강상희	함평 수호 411-1	돈가스.햄	27		
2	함평축협사료공장	임희구	함평 장년 1346-3	동물사료	13		
3	함평농산물유통	김님섭	함평 장교 359-2	깐마늘	5		
4	나비산업영농조합	박춘호	함평 내교 555-1	쌀,보리	4		
5	유천전통식품	조충남	손불 죽암 336	두부 및 콩나물	3		유망중소기업
6	대선재분	박관희	학교 월산 1437-1	쌀가공품	30		
7	우성식품	민의인	학교 사거리 335-157	소,도축업	65	HACCP	
8	초록세상	김영일	학교 죽정리 39-1	짱아찌,김치	12		
9	호남종합식품	김순임	학교 죽정리 39-5	김치	10		
10	도정공장	전헌주	학교 월산리 609-2	도정공장	20		
11	우정식품	김숙희	학교 죽정리 1150	채소가공	5		
12	태흥농산	김영희	엄다 송로리 608	농산물가공	4		
13	룡영농조합법인	이도화	엄다 엄다리 204	깐마늘	8		
14	함평천지영농조합	김상표	엄다 성천리 768	양파즙	3		
15	나비골협동조합	윤한수	해보 금덕리 496-4	고추가루	11		
16	용천골청국된장	박득수	해보 광암리 85	청국장.된장	3		
17	현대도정공장	김준	해보 금덕리 347	쌀	4		
18	해미물산	김재우	월야 예덕리 421	김	2		
19	(주)해덕산업	이정태	월야 월야 566	조미김	7		
20	대동산업	나병찬	월야 월야 747-24	조미김	6		

2. 음료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주)한국천수어성초	김영수	함평 대덕 679-1	어성초엑기스	5		
2	청정나래영농조합	박정자	함평 장교 30-3	양파엑기스	2		
3	놀부농산	김경애	함평 장교 35-31	양파즙	2		
4	대양농산	정두진	학교면 죽정리 39-2	양파즙	2		
5	함평천지복분자	조성준	신광 삼덕리	복분자와인 .음료	13		
6	연꽃나비	임명란	신광 월암리	다류	3		

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주)오성로프	김형준	엄다 송로리 745	로프	17		

4. 목재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동원제재소	최용우	함평 기각 283	각재,판재	9		
2	엘지콘테이너	박종영	학교 사거리 495	이동식주택	5		
3	영품목재함평지점	심동남	월야 영월리 379-1	목재용기	25		

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기웅	이용내	학교면 죽정리 1152-1	메모지포스트	30		
2	대성산업	한재길	월야 외치 15-12	종이상자	8		
3	(주)일상포장	하말례	월야 외치리 117-4	골판지상자	5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주)금성필름	김한권	월야 외치리	농업용필름	6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죽산에스피	안창만	학교면 죽정리 85-22	양식부자	12		
2	아현테크	이광형	학교면 죽정리 8547	이중바닥제	5		
3	대원폴리	김화자	학교면 죽정리 85-42	p하수관	5		
4	나산장갑	김성철	해보 문장리 794	장갑	1		
5	대양기업	김창규	월야 외치리 238-5	실린더 휠브라	10		
6	대한타이어공업(주)	박종혁	월야 외치리 453-1	자동차튜브	58		
7	덕신산업	강병만	월야 용월리 303-19	에어필터	40		
8	디에스(주)	강병희	월야 양정리 327-1	냉장고부품	50		
9	(주)대륙플리머	최재용	월야 외치리 238-6	청소기부품	6		
10	광주스티로폴	김상식	월야 월야리 산103-1	스티로폴	5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미진산업	이정화	함평 기각 1043-73	벽돌	2		
2	주포산업	곽정순	함평 기각 237	벽돌	4		
3	(주)천보레미콘	윤영철	함평 장년리 1345-1	레미콘	24		
4	(주)푸른강산	김진석	함평 장년리 1345-3	아스콘매트	6		
5	(주)밝은환경	최동식	함평 장년리 1345-6	생태블럭	6		
6	(주)에코닉스	김갑중	함평 장년리 1346-1	보도경계석	20		
7	천지환경(주)	최명순	함평 장년리 1347-4	재활용골재	28		
8	동양석재	박수	함평 대덕리 391-7	석재가공	3		
9	(주)쌍우아스콘	나이철	함평 장년리 1345-2	아스콘	5		
10	(주)에코엠엔씨	김갑중	함평 장년리 1345-5	콘크리트가공	6		
11	전남석재	이화동	엄다 송로리 168	석재가공	3		
12	영진세라믹	배지수	학교 죽정리 85-30	소성용내화물	100		
13	(주)일석	이정석	해보 금계리 313	아스콘매트	5		
14	(주)신진산업	김영언	해보 금계리 306	레미콘	20		
15	(주)신아금호	정현석	해보 금계리 313-3	아스콘	40		
16	문장벽돌공장	박래옥	해보 문장리 822-36	벽돌	5		

9. 1차 금속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주)동궁다이케스트	나진석	월야 외치리 70-5	보조열쇠	9		
2	(주)세화아디다스	유동환	월야 외치리 64	특수강	36		
3	(주)캔택	김영신	월야 월야리 447	설치요금속탱크	71		
4	보은산업	최행용	월야 월야리 506-40	금속문,TU터,창	10		
5	보은용사촌수문사업소	한창훈	월야 월야리 447	가동보,수문	6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신평산업	윤성현	학교면 죽정리 40-3	저잔용기제조	5		
2	금강스틸	조성균	학교면 죽정리 40-4	용접철망철선조립	5		
3	제일체육공사	변정대	학교면 죽정리 40-4	운동기구제조	14		
4	동인철강	김선갑	학교면 죽정리 40-4	철근가공	18		

1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조인테크	이승호	학교 죽정리 85-42	구내방송장치 CCTV.LED	5		

12. 전기장비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한국스카다	윤장섭	학교면 죽정리 85-49	배전반자동제10어	10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주)서영	김재용	용두리 426	자동차부품	30		
2	미성금속	정성호	월야 외치리238-8	기계부품	9		
3	(주)대의함평공장	김위영	월야 월야리 821-1	자동차부품	21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대한환경시설	박흥규	함평 장년리 1347-9	산업용정수기	8		
2	유일	황보옥환	학교면 죽정리 85-47	고추건조기	32		
3	송현	오대석	학교면 죽정리 85-13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6		
4	쥴온돌히터(주)	양순호	월야 외치리 236-1	온돌히터	2		

5	(주)세찬	박은숙	월야 월야리 437-1	자동차체제	39		
6	세화기계함평공장	유희열	월야 외치리60	타이어금형	46		
7	충성기공	김달수	월야 외치리 284-2	원심분리개	3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광목	추화석	학교면 죽정리 85	화물적재함	5		
2	에스엔씨	김일윤	학교면 죽정리 1159	자동차부품	25		

16. 기타 제품 제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대우기와	정인창	학교 사거리 621-26	시멘트기와	5		
2	학교석재	곽기환	학교 사거리 6228-3	석재품	3		
3	덕원산업	방정이	학교 죽정리 40-2	혈분사료	7		
4	신원산업	정우현	학교 죽정리 58-17	콘크리트제조	18		
5	아폭스21	황인숙	학교 죽정리 85-25	재생유	10	폐프라스틱 재생유가공 시스템특허	
6	행천자기	우구형	학교 월산리 935-2	도자기.식기	75		
7	광목유지	박삼천	학교 죽정리 85-9	사료원료	5		
8	효성오엔비	박태헌	학교 죽정리 85-23	유기질비료	5		
9	함평엔비텍	최덕동	학교 죽정리 41-1	이동화장실	10		

17. 타시도에 본사를 둔 기업체 현황

순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수	특허 인증	비고
1	대선제분	박관희	학교면 월산리 1437-1	제철제강(열연내연)	30		

자료 : 함평군 지역개발과

그 다음이 함평읍이 19개 업체, 해보면이 8개, 엄다면이 5개, 신광면이 2개, 손불면과 나산면에는 각 1개 업체가 있으며 대동면에 가동중인 업체가 없다. 폐프라스틱 재생유가공시스템 특허인증업체인 학교농공단지의 아폭스21이 있으며, 학교면 사거리의 우성식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손불면 죽암리의 유천전통식품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수출에도 참여한 업체는 로프연승이 주 생산품인 엄다면 송로리의 (주)신화와, 튜브가 주 생산품인 월야면 외치리의 대한타이어공업 등 두 곳이다.

4) 농공단지

함평군의 농공단지는 학교농공단지(학교면 죽정리 85-1번지 일원)와 함평농공단지(함

평읍 장년리 1345번지 일원) 두 곳이 있다.

1984년 9월 7일 지정되어 1987년 12월 14일 준공을 본 학교농공단지는 조성면적이 49,408㎡로 국비 2,084백만원, 지방비 1,348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432백만원이 들었다. 분양대상면적은 36,492㎡인데, 2007년말 현재 100% 분양되었다. 입주업체는 30개이다.

1990년 7월 13일 지정되어 1992년 1월 22일 준공을 본 함평농공단지는 조성면적이 31,207㎡로 국비 1,224백만원, 지방비 1,43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675백만원이 들었다. 분양면적은 25,862㎡인데, 2007년말 100% 분양되었다. 입주업체는 10개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표 66>·<표 67>과 같다. 두 곳의 농공단지 총 40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가동중인 37개 업체 가운데 종업원이 1~10명인 업체는 25개로 전체의 67.6%, 11~20명인 업체는 8개로 21.6%, 21~50명인 업체는 3개로 8.1%, 50명 이상인 업체는 1개로 2.7%이다. 연간 생산액이 1,000백만원 이상인 업체는 8개이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1,000백만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연간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청소기 호수가 주 생산품인 학교농공단지의 (주)한국닉스이다.

<표 66> 함평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단위 : ㎡, 명, 백만원, %)

업 체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공장용지 면 적	종업원수	연생산액	가동율	입주년
함평축협사료공장	임 희 구	동물사료		15		70	
(주)대원사료	이 광 하	동물사료/조제식품		30		70	
(주)천보레미콘	윤 영 철	레미콘		14		69	
(주)푸른강산	김 진 석	아스콘매트		7		-	
(주)에코엠앤씨	박 래 옥	맨홀		10		75	
(주)밝은환경	최 동 식	블록		2		70	
(주)에코닉스	김 갑 중	보도블록		19		70	
(주)천지환경	최 명 순	재생골재		31		70	
(주)쌍우아스콘	나 이 철	아스콘		7		70	
대한환경건설	박 홍 규	여과기		7		70	

자료 : 함평군 지역개발과(2009년 8월 기준)

<표 67> 학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단위 : ㎡, 명, 백만원, %)

업 체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공장용지 면 적	종업원수	연생산액	가동율	입주년
(주)초록세상	김영일	채소가공품		3		60	
대양농수산	정두진	농산물가공		2		68	
함평천지식품	김순님	김치		4		50	
광복유지	박삼찬	유지		4		68	
다미찬	나광석	절임식품		2		65	
(주)아현테크	이광형	이중바닥재		5		65	
(주)아름다운목재	손승용	일반목재		5		50	

업 체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공장용지 면 적	종업원수	연생산액	가동율	입주년
(주)덕원산업	방정이	혈분비료		5		65	
자연생활	조영주	죽염		1		40	
(주)이폭스21	오청섭	중질유		9		63	
(주)죽산에스피	안창만	양식부자		14		67	
효성오앤비(주)	박태헌	유기질비료		25		설립중	
(주)대원폴리	김화자	하수관		6		80	
(주)동성비료	이형주	유기질비료		4		40	
벧엘산업(주)	오청섭	화학제품		4		67	
(주)영진세라믹스	배지수	내화제품		80		70	
(주)신원산업	정우현	벤치풀륨		18		67	
(주)동인철강	김선갑	철근가공		16		67	
(주)신평산업개발	송영미	물탱크		4		65	
(주)엔젤리싸이텍	김금례	스쿠루		3		60	
(주)유일	황보옥환	저온냉장고		18		70	
(주)금강스틸	조성균	철망		4		68	
(주)제일체육공사전남지점	변정대	운동기구		2		70	
(주)송현	오대석	농업용기계		14		60	
(유)광목	추항석	트레일러		4		68	
(주)조인테크	이승호	음향기기		6		65	
(주)한국스카다	윤장섭	배전판		6		60	

자료 : 함평군 지역개발과(2009년 8월 기준)

내수 뿐만아니라 수출에도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학교농공단지의 (주)한국닉스, 내화갑 붕관이 주 생산품인 (주)영진세라믹스, 무연로스터와 냉동고가 주 생산품인 (주)유일금속, 호브제가 주 생산품인 (주)한독화학 등 네 곳이다.

5) 빛그린 산업단지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한미FTA체결 등의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농촌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의 필요성 때문에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덕림동 일원에 빛그린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2009년 9월 30일에 승인되었다.

빛그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업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빛그린 산업단지의 현황은 <표 68>과 같다.

<표 68> 빛그린 산업단지 현황

조성 지역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덕림동 일원
개발 면적	4,081,555㎡(123만평)-전남 2,248천㎡/광주 1,833천㎡
사 업 비	5,679억원
사업 기간	2009.9 ~ 2014.1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개발근거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유치 업종	광산업, 생물·의약, 디지털 정보가전, 신소재, 자동차, 연구개발, 첨단부품소재산업

제 6 절 장 시

1. 함평군의 장시[374]

1) 옛 장시

함평은『동국문헌비고』단계에 나타난 5개소의 장시가 1개소도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375]. 이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장이 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기의 장은 모두 장날을 달리하여 읍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임원경제지』단계부터는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이 지역내에서 장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함평은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하나의 시장권을 이루고 있었다. 주로 대장의 개시일이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함평읍장은 초기부터 큰시장이었고 그 때문에 함평의 시장들은 안정적인 상권을 이루어 어느 장에 흡수되거나 소멸됨이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68> 참조

<표 68> 함평군 장시의 변천

전거 / 지역	동국문헌비고 (1770년)	임원경제지 (1830년)	군현지도 (1872년)	재래시장일람표 (1938년)	현 재 (2009년)	비 고
함평	읍내(2)	읍내장(2, 7)	읍전시	함평읍장(2, 7)	함평읍장(2, 7)	
	망운(1)	망운장(1, 6)	포림시*			1906년 무안으로 이거
	선치(3)	선치장(3, 8)	선치시	선치장(3, 8)	해보장(3, 8)	장명변경
	나산(4)	나산장(4, 9)	나산시	나산장(4, 9)	나산장(4, 9)	
	사천(5)	사천장(5, 10)	사천시	사천장(5, 10)	신광장(5, 10)	1999.3.22폐지
				학교장(5, 10)	학교장(5, 10)	
					손불장(1, 6)	2000.9.16폐지
					월야장(5, 10)	
계	5기	5기	5기	5기	5기	

＊망운장이 다경면에 있는 장이었고『군현지도』의 포림시 역시 다경면에 있으므로 망운장과 포림시는 같은

374) 이 글은 목포대학교 사학과 고석규교수의「영산강유역의 장시와 교역」중 함평과 관련된 부분을 전재하였다. 자세한 것은 사단법인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1997년 발행한『영산강유역사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375) 다만 망운장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금은 무안군 소관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유지되고 있다.

장으로 추정된다.

2) 현재의 장시 현황

2009년 6월 현재 함평군에 소재하는 장시는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개로 함평장, 학교장, 나산장, 해보장, 월야장이 남아 있다. 그 중 함평장만이 장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장시는 그 기능이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69> 함평군 장시의 현황

장시명	소재지	개장	개설일	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함평장	함평읍 기각리	2, 7	1903	9,023	2,182	88
학교장	학교면 사거리	5, 10	1970	5,634	317	30
나산장	나산면 삼축리	4, 9	1907	3,852	287	27
해보장	해보면 금덕리	3, 8	1943	4,557	520	26
월야장	월야면 월야리	5, 10	1981	1,459	238	24

(1) 함평읍장

흔히 '큰소장'이라 불릴 정도로 소의 거래가 많은 함평읍장은 읍장과 버스터미널이 서로 붙어 있어 함평군의 주민들이 장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교통은 영광~나주간 국도와 나주~지도간 국도가 교차하고 있으며, 인근 면들과는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다.

『동국문헌비고』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큰 규모로 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함평의 우시장은 천변에서 새벽에 열리는데 전남에서 손꼽히는 규모이다. 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여느 장과 마찬가지로 생선류가 매우 많으며, 채소, 의류, 그리고 곡류의 순이다. 생선을 팔러오는 상인들은 일로나 무안장, 영산포장을 순회하고 있다. 그리고 생선의 경우 도방에 의해 상인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물건에 별다른 특성은 없으며, 이로 인해 단골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팔리는 양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생선은 주로 목포나 영광 등지에서 도방상인에 의해 들어온다.

함평읍장의 상인들은 함평거주 상인들로부터 인근지역인 광주·나주·무안·목포·해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상인들의 장시 순회는 읍장→문장(해보장)→나산장, 읍장→나주장→문장→월야장→영광장, 읍장→무안장→학교장, 학교장→함평장→일로장→읍장, 읍장→영암장→나주장 등이 주요 경로이다. 이 외에 개나 오리 등의 가축을 파는 상인들은 송정·독천 등지에까지 순회하고 있다. 즉 함평읍장을 중심으로 2·7일장이 아닌 장들을 일정한 범위로 순회하고 있는 것이다. 일로장에서 생선파는 상인들이 대부분 다음날 함평읍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평의 특산물인 양파나 고구마 등이 함평읍장에서 팔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농협을 축으로 하여 대량 수매되기 때문에 읍장에서 거래되는 상인들은 주로 함평읍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용품이 많다. <함평 우시장 사진 : 화보를 볼 것>

(2) 손불장

1일과 6일에 열리는 손불장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겨났는데 거의 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2000년 9월 16일 폐지되었다. 장은 매우 쇠퇴하여 장사가 안되고 있었지만 시골사람들은 그래도 가게를 이용하지 않고 장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결국 사라지고 만 것이다. 손불면은 군의 북서부에 해안을 따라 있는 면들과 지방도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순회지역에서 소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신광장

사천장 또는 사납장이라고 불리던 신광장은 1999년 3월 22일 폐지되었다. 신광장은 영광과 함평간의 도로 중간 지점에 있으며 함평~장성간 국도가 면의 북부를 동서로 지나며, 영광~광주간 국도가 남부를 동서로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데,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오히려 장이 폐지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중세적 교통과 근대적 교통이 차이가 신광장과 같은 면장의 운명을 크게 갈라 놓았던 것이다. 근대적 교통의 발달은 읍장의 상업적 외연을 군 전체에까지 넓히게 함으로써 면의 장들이 가진 그나마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해보장

『동국문헌비고』, 『임원경제지』 단계에서 선치장(맬래미장, 무너미장. 원래는 문암에 있었다.)으로 불리며 장세를 유지하였고, 흔히 문장이라 불리는 해보장은 현재는 광주와 교통이 편리하게 통하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장성~함평간 국도와 영광~광주간 국도가 교차하고 있어 편리하다. 몇 년 전만 해도 해보장은 용두리, 문장리를 중심으로 돗자리 생산이 많아 돗자리 장으로 유명하여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 들었다. 장날이면 돗자리를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짊어진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날 하루에 나오는 돗자리는 줄잡아 4천장쯤이었다고 한다. 이 돗자리 거래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시작되어 새벽 여섯시쯤에 가장 붐비고 일곱시가 채 못되어 끝났다고 한다. 이 돗자리장에는 광주, 목포, 전주의 장사꾼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서울과 부산의 장사꾼까지 몰려 왔다. 이렇게 문장의 돗자리장으로 유명했던 해보장은 현재는 빈 장옥들만이 잡초를 키우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편에 있다.

(5) 월야장

월야장은 해보장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데, 장은 일제 때 이후에 생겨났다. 현재 광주 시내버스가 다닐 정도로 광주와 매우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데, 그 때문에 장은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쇠퇴하였으나 이웃한 해보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미약하나마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이다.

(6) 나산장

나산장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럭저럭 장세는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2년 전까지 우시장이 열렸었는데 현재는 사라졌고, 우시장이 있을 당시에는 장의 규모가 컸었다고 한다.

(7) 학교장

호남선이 면의 중앙을 통과하고 학교역이 있으며, 광주~목포간 도로와 영광~나주간 국도가 면내에서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함평읍으로 향하는 함평의 관문역할을 하는 학교면은 이러한 교통의 요지라는 위치 때문에 일제 때 장이 생겨났다. 학교장은 한국전쟁 이후 구터에서 철길과 고가다리 사이로 옮겼다가 현위치로 옮겼다. 인근의 금송리·월호리·석정리에서 예로부터 양질의 가마니를 생산했는데 이런 가마니를 팔러온 사람이 많아 가마니장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터도 좁고 고막천의 물이 자주 범람하여 물이 찌기 때문에 터를 옮겼다. 현재 장에서는 피복, 잡화, 지물, 고무신, 채소, 어물전이 열리고 있으며 주로 무안·함평사람들이 이용한다. 교통이 편리해 도회지나 읍으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학교장 역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제 7 절 전 기

1. 전기

함평군에 전기가 처음 가설된 것은 1918년으로,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함평출장소가 세워지면서 학교면 학교리와 사거리, 함평읍 기각리·내교리·함평리 등이 전기 혜택을 보았다. 이후 나산면 나산리와 삼축리가 고막원선(古幕院線)에서 인입하여 전기가 가설되었다.

전기는 1960년대까지도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 대동면의 5개 읍면에만 시설이 있었으며, 1968년말 당시 전체 22,628가구 가운데 수용가가 2,834가구로 12.5%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에 이르러 사창(社倉)출장소 선로에서 인입한 월야면이 가설을 끝냈고, 1971년에는 함평지역구 출신 윤인식(尹仁植) 국회의원이 세계적 봉사단체인 케아 지도층과 교섭하여 해보면 전기 가설 원조를 받아냈다. 이 원조로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도 전기를 쓰게 되었다.

1972년에는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의 시책에 의해 손불면과 신광면에 전기가 들어갔다. 이로써 함평군 전체 읍면 소재지가 전기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함평군의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곧 1974년에 6,188가구, 1975년에 2,141가구, 1976년에 1,422가구가 더 전기를 쓰게 된 것이다. 1978년에는 함평군내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 가설이 끝나 총 20,656가구 가운데 99.5%인 20,544가구가 전기 혜택을 보기에 이르렀다.

학교면 사거리에 있던 학교 변전소는 1976년 폐쇠되어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로 옮겨갔고, 다시 이 변전소는 1997년 엄다면으로 옮겨왔다. 현재 함평군의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점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에 배전하고, 한국전력공사 엄다변전소가 함평읍, 학교

면,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에 배전하고 있다.

함평군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은 <표 69>와 같다. 2007년 현재 총 161,267MWH를 쓰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택용이 24,168MWH, 공공용이 13,750MWH, 서비스업이 63,279MWH, 농림수산업이 44,597MWH, 광업이 24MWH, 제조업이 15,444MWH를 사용하고 있다. 용도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량과 그 연도는, 먼저 주택용은 29,927MWH의 1992년, 공공용은 13,750MWH의 2007년, 서비스업은 63,279MWH의 2007년, 농림수산업은 44,597MWH의 2007년, 광업은 4,951MWH의 1993년, 제조업은 64,343MWH의 1995년이다.

<표 69> 용도별 전력 사용량

(단위 : MWH,%)

구분 / 연도	합계	주 택 용		공 공 용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1984	11,315	8,376	74.0	92	0.8	161	1.4	-	-	-	-	2,686	23.8
1985	12,823	9,031	70.4	112	0.9	185	1.4	-	-	-	-	3,495	27.3
1986	17,432	12,719	73.0	152	0.8	270	1.5	172	1.0	-	-	4,119	23.6
1987	15,216	14,645	96.2	219	1.4	352	2.3	794	5.2	-	-	2,821	18.5
1988	29,807	23,152	77.7	430	1.4	644	2.2	930	3.1	-	-	4,651	15.6
1989	30,384	23,660	77.9	437	1.4	716	2.4	323	1.1	634	2.1	4,612	15.2
1990	43,432	24,381	56.1	1,614	3.7	1,992	4.6	1,203	2.8	595	1.4	13,647	31.4
1991	62,370	25,957	41.6	315	0.5	15,915	25.5	585	0.9	2,783	4.5	16,815	27.0
1992	86,542	29,927	34.6	2,482	2.9	17,434	20.1	1,647	1.9	4,863	5.6	30,189	34.9
1993	72,347	26,786	37.0	2,352	3.3	14,200	19.6	2,124	3.0	4,951	6.8	21,934	30.3
1994	56,642	18,862	33.3	3,002	5.3	17,219	30.4	10,167	18.0	193	0.3	7,199	12.7
1995	59,861	22,972	38.4	3,784	6.3	10,809	18.1	11,593	19.4	446	0.8	10,257	17.1
1996	73,144	23,846	32.6	6,956	9.5	5,841	7.9	17,361	23.8	3,231	4.4	15,909	21.8
1997	89,592	28,338	31.6	7,135	7.9	15,432	17.2	20,703	23.1	958	1.0	17,026	19.0
1998	75,179	19,273	25.6	3,488	4.6	23,976	31.9	16,913	22.5	70	0.1	11,459	15.2
1999	88,473	19,457	22.0	4,255	4.8	29,859	33.8	16,650	21.1	148	0.2	16,104	18.2
2000	100,909	20,136	20.0	5,929	5.9	36,059	35.7	24,463	24.2	171	0.2	14,151	14.0
2001	113,137	20,583	18.2	7,561	6.7	44,449	39.3	26,736	23.6	106	0.1	13,702	12.1
2002	120,326	21,533	17.2	9,470	7.9	48,929	40.7	25,952	21.6	454	0.4	13,988	11.6
2003	121,079	22,718	18.8	10,867	9.0	48,744	40.3	25,620	21.2	51	0.0	13,078	10.8
2004	134,399	23,488	17.5	12,257	9.1	53,468	39.8	31,807	23.7	42	0.0	13,337	9.9
2005	192,909	24,076	12.5	12,202	6.3	57,143	29.6	34,997	18.1	148	0.1	64,343	33.4
2006	151,534	24,153	16.2	13,035	8.6	59,743	39.4	40,671	26.5	130	0.1	13,802	9.2
2007	161,267	24,168	15.0	13,750	8.5	63,279	39.2	44,597	27.7	24	0.0	15,444	9.5

자료 : 함평군 통계연보

2.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점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5-12

2) 시설현황 :



•사무실-면적 2,345㎡,
•건평 720.9㎡,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 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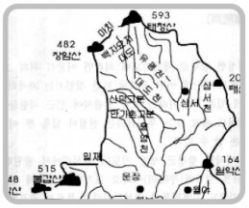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3) 연 혁

- 1911. 12 목포전등주식회사 설립
- 1945. 8 남성전기(주) 목포지점 함평출장소(병)
- 1961. 7 한국전력(주) 목포영업소 함평출장소(병)
- 1982. 7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 함평출장소(병)
- 2000. 2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함평지점(IV)
- 2006. 9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 함평지점(IV)

4) 역대 지점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취 임	퇴 임
1	김 재 웅	2000. 02	2002. 02
2	고 영 운	2002. 02	2004. 01
3	신 현 주	2004. 01	2005. 02
4	유 승 주	2005. 02	2007. 01
5	신 종 순	2007. 01	2009. 01
6	유 승 주	2009. 01	

제11장 사회복지 (社會福祉)



제1절 고대(古代)의 사회복지제도와 사례 (事例)

1. 제도

고대에 시행했던 구황(救荒) 및 극빈자 구호사업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진휼(賑恤)

식량과 염장(塩漿). 소금과 식초, 옷가지와 베 등을 현품 또는 돈으로 나누어 주어 이재민이나 굶주리는 극빈자를 구제하던 제도이다.

2) 시식(施食)

흉년 또는 춘궁기(春窮期) 때 여행하는 사람이나 걸식(乞食)하는 사람을 위하여 절, 역원(驛院),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직접 나누어 주던 제도이다.

3) 견감(蠲減)

은면(恩免)과 재면(災免)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은면은 개국(開國), 즉위(卽位), 재제(齋祭), 순행(巡幸), 불사(佛事), 경사(慶事), 전쟁 후 또는 질병이 끝난 후에 전세(田稅), 호세(戶稅), 부역(賦役) 등의 조세(租稅) 공과와 미납분(未納分) 죄벌을 면제 혹은 사각하는 것이고, 재면은 이재민에게 공과와 범죄형량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던 제도이다.

4) 진대(賑貸)

춘궁기인 3~7월까지 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곡식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대부(貸付)하고 10월에 거두어들이거나 겨울, 봄에 대출하였다가 가을 추수 후에 거두어 들였으며, 또는 흉년에 대출했다가 풍년 때 거두어 들이기도 하던 제도였다.

5) 경조(輕糶)

나라의 곡식을 싼 값에 팔아 곡가를 조절하던 제도이다.

6) 방곡(防穀)

풍년 때 곡물을 매점(買占) 못하게 하던 법이다.

7) 권분(勸分)

흉년이나 기근(飢饉) 때 관의 곡식으로 진휼하되 관곡이 부족할 때는 부자들의 개인 곡식도 징발하던 제도이다.

8) 보양(保養)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고아, 늙어서도 자식 없는 사람들을 보호, 양육하던 제도이다.

9) 양노(養老)

왕이 순행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을 모아 야식(夜食)과 향연을 베풀거나 나라에서 경사 가 있을 때 궁궐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으며 혹은 기로사(嗜老社)를 설치하여 문무 2품 이상,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봄, 가을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10) 구료(救療)

구료 기관을 설치하여 빈궁한 병자들에게 의식(衣食)과 약을 나누어 주던 제도이다. 이외에도 전제(田制), 창제(倉制), 역제(役制)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수시적(隨時的)이었고 범사회적(汎社會的)이 아니라 지역적이어서 극히 소극적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항시 응급조치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2. 사례(事例)

고려조 이후 전남에 대한 사회사업을 역사에서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함평이란 이름이 기재된 구호사업의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전남 지역에 대한 구호사업에는 함평도 포함된 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고려 정종 6년(靖宗 · 1040) 2월

영광(靈光) 및 임치현(臨淄縣)[376]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창(義倉)을 열고 진휼하였다.

2) 고려 고종 13년(高宗 · 1227) 3월

전라도 일대가 흉작이 들어 비축이 있는 주, 군, 현의 창고를 열어 구호곡을 주고 풍년 때 갚도록 했다.

호남에 곡식 3만 5천곡을 지급 진휼하였고 순조 29년(1829) 1월에는 호남 각 읍에 사진(私賑)을 권장하여 구호곡을 거두어 지급했고 내탕금(內帑金) 5천냥을 내리었으며 대동결전(大同結田) 3분의 1을 감하였다.

376) 당시는 영광에 속했으나 조선조 때는 함평에 영속되었음. 현재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함평 사람 중 진휼(賑恤)에 힘쓴 사람이 옛 군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휼(賑恤)에 힘쓴 사람)

성	명	본 관		호(號)	참 고
김광련	金光鍊	광산	光山	숙 효	흉년에 걸인이 늘자 사재로 죽을 끓여 연명케 하였다.
정우상	鄭遇象	나주	羅州	금 호	매년 춘궁기에 구휼(救恤)하였다.
양종운	梁鐘韻	남원	南原	송 포	곤란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사람들이 자선가라 했다.
이환영	李桓榮	경주	慶州	소 호	많은 재산을 빈민 돕기에 쓰니 인근 사람이 후에 입비(立碑)
오홍근	吳弘瑾	낙안	樂安	성 암	매년 춘궁기에 많은 쌀을 내놓아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김봉수	金鳳洙	김해	金海	쌍 오	근검 절약으로 가산을 이루고 빈한 사람을 많이 도움. 면민이 비 세움
이재영	李載榮	함평	咸平	활효재	많은 적선을 하였다.
양주상	梁柱詳	남원	南原		굶주리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였다.
안경환	安京煥	죽산	竹山	죽 포	봄,가을 두 차례 빈민들을 도왔다. 인근 사람들이 비를 세움.
윤용식	尹勇植	파평	坡平	석 파	종족(宗族)중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적선함.
신용희	申瑢熙	평산	平山	기 은	혼례,장례에 후히 도웁고 빈한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김봉해	金鳳海	김해	金海	석 계	매년 춘궁기에 구휼미를 많이 냄. 면민이 입비 칭송함.
장지문	張志文	인동	仁同		을축(乙丑) 흉년에 구휼미 수백석을 희사. 주민이 입비함.
김염소	金廉素	김해	金海		손불교에 10두락, 함평국교에 10두락, 빈한한 면민에게 세금으로 200원 대납. 함평농업학교에 잔여 재산 기증.
전장은	全章銀	천안	天安	묵 암	빈궁한 사람들을 도왔다.
박일배	朴日培	밀양	密陽	가 은	빈궁한 가정의 장례에 후히 곡식을 보내고 무의탁 아동들을 많이 길렀다.
김봉민	金鳳旼	김해	金海	농 은	춘궁기에 많은 이웃 빈민을 구제했다.
김교상	金敎相	선산	善山		만년에 재산을 모았고 무신(戊申) 봄에 많은 빈민을 도왔다.
오영주	吳泳柱	낙안	樂安	월송정	매년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했고 철성국교, 월송국교를 자비로 세움. 면민이 입비하였다.
김병인	金炳寅	김해	金海	매 포	매년 춘궁기에 많은 빈민을 도왔다.
이수헌	李壽憲	함평	咸平	효 정	〃
김갑현	金甲鉉	광산	光山	청 암	〃
김장우	金長愚	김해	金海	청 오	춘궁기에 빈민을 도왔고 후에 인근 사람들이 비를 세움
김판동	金判同	김해	金海		저수지 사업 등에 노임살포하니 내무부장관표창

제2절 현대(現代)의 사회복지

1. 구호사업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1921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극빈자에게 무료진료권을 발부했고, 흉년의 빈민구호, 재해구호, 행려환자구호(行旅患者救護), 면수자(免囚者)의 보호기관 설치운영, 육영회 등의 사업을 하였다.

해방 후로는 외국의 원조가 이 땅에 수없이 들어왔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슬기롭게 쓰지 못하여 곤궁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1962년 5월 1일 조선 구호령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활보호법을 공포하여 근대적인 구호사업을 펴게 되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1967년과 1968년에 몰아닥친 이 땅의 가뭄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구호사업은 천수답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할 영세민은 평년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춘궁기라는 뼈아픔을 다시 맛보지 않게 되어 지금은 춘궁기의 얘기가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 군에서 시행한 생보대상자의 구호사업과 재해대책사업, 원호사업 등의 실적을 통계연보에 의해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사업

현재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구호(居宅救護)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전에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무의탁 아동, 그리고 불구 질병자를 지목하였으나 지금은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말하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1984년까지는 영세민이라 하였고 그 후부터 자활대상자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말하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양로원, 모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연별 상황은 <표1>과 같다.

<표 1> 생활보호 대상자 상황

연 도 별	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1967	4,336	16,165	1,607	3,300	2,729	12,865		
1978	3,572	10,684	1,578	4,013	1,994	6,671		
1979	3,572	10,684	1,578	4,013	1,994	6,671		
1970	2,113	6,828	1,311	3,391	802	3,437		
1971	2,366	5,996	1,373	2,128	993	3,868		
1972	2,341	5,833	1,385	2,072	956	3,761		
1973	2,288	5,663	1,368	2,028	920	3,635		
1974	2,205	5,317	1,051	1,990	1,154	3,727		
1975	2,205	5,317	1,051	1,990	1,154	3,727		
1976	4,616	19,570	935	1,876	3,681	17,694		
1977	4,641	19,780	940	1,890	3,701	17,890		
1978	4,734	19,930	945	1,920	3,789	18,010		
1979	4,770	20,100	950	1,960	3,820	18,140		
1980	4,838	20,555	977	1,978	3,861	18,577		
1981	4,970	21,086	921	1,864	4,049	19,222		
1982	4,970	21,086	921	1,864	4,049	19,222		
1983	5,099	22,421	719	1,500	4,380	20,921		
1984	3,399	12,468	700	1,495	2,699	10,973		
1985	3,058	11,113	707	1,436	2,351	9,671		

연 도 별	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1986	2,920	10,734	718	1,450	2,202	9,284		
1987	3,083	11,088	762	1,550	2,321	9,538		
1988	3,007	11,324	828	1,630	2,175	9,330	4	364
1989	3,381	12,519	927	1,838	2,450	10,343	4	338
1990	3,382	12,318	950	1,817	2,428	10,183	4	318
1991	4,354	15,544	981	1,919	3,369	13,322	4	303
1992	4,156	14,172	1,005	1,881	3,147	11,997	4	294
1993	3,741	14,043	989	1,837	2,748	11,944	4	262
1994	3,396	11,225	999	1,790	2,393	9,173	4	262
1995	2,448	5,289	840	1,338	1,608	4,705	4	246
1996	2,373	5,835	851	1,334	1,518	4,245	4	256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황

연도별	총 수 급 자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구	시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소계	개인단위 보장특례	타법령에 의한특례	시설수	인원
1997	2,222	4	5,379	2,218	5,125						4	245
1998	2,087	4	4,692	2,083	4,452						4	240
1999	2,406	4	4,629	2,406	4,629						4	235
2000	2,567	4	4,892	2,563	4,660						4	232
2001	2,465	4	4,601	2,461	4,369						4	232
2002	2,320	4	3,994	2,302	3,963						4	226
2003	2,412	4	4,230	2,408	4,010						4	220
2004	2,396	4	4,186	2,396	3,959						4	227
2005	2,407	4	4,238	2,403	4,019						4	219
2006	2,269	4	3,855	2,265	3,662						4	193
2007	1,976	4	3,394	1,976	3,212						4	182
2008	1,905	4	3,234	1,751	2,717	90	235	64		103	4	179
함 평	417	3	799	389	627	10	19				3	126
손 불	255		372	244	352	2	4					
신 광	166		256	147	219	12	22					
학 교	224	1	388	211	293	10	35				1	53
엄 다	146		247	132	215	10	25					
대 동	195		315	175	262	12	42					
나 산	209		358	188	314	15	37					
해 보	145		227	126	194	9	21					
월 야	148		272	137	241	10	30					

<표 2> 장애인등록현황

연도별	합 계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1																						
2002	2,335	1,330	112	224	353		211	1	80	18	6						218	515	460	335	397	410

연도별	합 계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3	2,629	1,432	133	246	399		261	2	92	22	8	13	5		7	9	249	557	502	379	451	491
2004	2,786	1,513	159	261	412		263	2	103	23	10	15	5		10	10	248	569	527	399	505	538
2005	3,101	1,673	177	302	457		282	2	121	31	10	19	3		11	13	272	603	549	455	598	624
2006	3,389	1,807	224	331	494		292	2	136	37	12	14	8		13	13	305	621	577	509	689	688
2007	3,598	1,913	255	341	539		308	2	140	33	15	16	8	1	10	17	292	626	636	567	777	700
2008	3,763	2,015	273	364	514	34	327	2	130	41	11	15	5	1	12	19	298	627	663	633	808	734
함평	813	431	65	91	90	10	68		28	13	1	5	1		4	6	60	135	149	126	175	168
손불	472	268	29	48	67	1	31		16	3	2	2	1		2	2	36	85	68	81	110	92
신광	250	126	16	30	44	5	19		6	3						1	14	48	45	43	48	52
학교	505	294	34	41	67	9	38		12	3	4	1			2		31	73	99	87	118	97
엄다	263	148	18	23	38		14	1	11	5					1	4	20	35	41	47	65	55
대동	361	212	30	25	43	4	25		12	4	1	2	1	1		1	24	63	71	73	77	53
나산	395	185	23	35	56	3	69	1	15		2	2			2	2	54	75	70	59	76	61
해보	304	146	36	29	44	2	22		18	3	1		2			1	32	50	55	54	45	68
월야	400	205	22	42	65		41		12	7		3			1	2	27	63	65	63	94	88

<표1>에서 보면 자활보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정도가 악화된데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므로하여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며 복지사회로 향하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거택 구호 대상자에게는 양곡과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992년 지급 내역은 연(年) 1인 평균 양곡 150kg(미곡 120kg, 맥류 30kg), 부식비 182,500원 연료비 149,650이었다.

영세민 구호 기준표

단위 : g,원

구 분	대 상	1980	1981	1982	1983
연 료 비	가 구 당	월 2,500	월 3,000	월 3,300	〃
수 업 료	〃	년 78,240	년125,000	년 171,000	〃

2) 자조근로(自助勤勞) 및 새마을 노임(勞賃) 소득사업,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 실적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 거택구호자 외에 노동력은 있으나 실업(失業) 또는 잠재적 실업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민을 취로시켰으며 1970년까지는 자조근로사업으로 주로 양곡을 지급하였으며 1971년부터는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이라 하여 도로, 하천, 교량, 소류지(小溜池) 사업을 펼쳤었다.

1983년부터는 영세민취로 구호사업이라 명칭을 바꾸었는데 함평군 통계연보에 기록된 1992년까지의 대상자는 <표 2-1, 표 2-2>와 같다.

<표 2-1> 자조근로 및 새마을노임소득사업,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실적

단위 : t,천원

연 도	사업건수	취로가구수	취로연인원	양곡노임	현금노임	비 고
1966	21	2,354	174,860	633		자조근로사업
1967	14	3,517	200,552	722		한해구호사업
1968	15	3,315	147,222	530		〃
1969	12	720	82,222	296		자조근로사업
1970	22	2,805	98,205	313		〃
1971	142	7,731	81,413	204	21,560	새마을노임소득사업
1972	4	824	50,328	152	8,177	〃
1973	11	77	1,852		1,111	〃
1974	72	3,875	78,995		75,537	〃
1976	80		16,188		75,502	〃
1977	19		18,491		21,975	〃
1981	12	1,038	9,498		35,000	〃
1982	91	4,424	44,867		195,000	〃

<표 2-2>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

단위 : 천원

연 도	사업건수	취로가구수	취로연인원	재원별			참 고
				계	국 비	지방비	
1983	21	1,223	9,101	42,000	42,000		영세민구호사업
1984	34	1,780	14,117	75,000	71,000	4,000	〃
1985	74	3,568	39,829	221,000	201,000	20,000	〃
1986	66	2,799	24,008	140,511	140,511		〃
1987	86	3,694	24,663	184,500	184,500		〃
1988	68	1,912	18,942	155,854	155,854		〃
1989	114	6,037	33,775	320,320	320,320		〃
1990	27	1,283	4,893	56,000	56,000		〃
1991	45	1,988	7,442	78,800	58,600	20,200	〃
1992	25	1,082	4,779	58,700	58,700		〃

<표 2-3> 2000~2009년 수급자 현황

연 도	계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구	가구수	가구	가구수	가구	가구수	가구	가구수
2000	2,567	4,892	2,563	4,660	-	-	4	232
2001	2,465	4,601	2,461	4,369	-	-	4	232
2002	2,306	4,189	2,302	3,963	-	-	4	226
2003	2,412	4,230	2,408	4,010	-	-	4	220
2004	2,400	4,186	2,396	3,959	-	-	4	227
2005	2,407	4,238	2,403	4,019	-	-	4	219
2006	2,269	3,855	2,265	3,662	-	-	4	193
2007	1,976	3,576	1,976	3,394	-	-	-	182
2008	1,905	3,235	1,905	3,056	-	-	-	179
2009	1,745	2,967	1,670	2,685	75	122	-	160

3) 내실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

① 현 황

-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기준 : 시장진입형 32천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29천원, 근로유지형 21천원
  - 추진방법 : 군(읍면) 직접시행 및 자활센터 위탁시행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지원대상 :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 지원기준 : 가구당 1,7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도배·장판, 지붕수리, 보일러, 화장실 개보수 등
- 저소득층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1~3급, 조손, 한 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
  - 시행기관 : 함평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 지원내용 :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

② 주요성과

년 도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가구수
	예산액	참여자수	예산액	지원 가구수	예산액	지원 가구수	
계	10,424,740	1,749	2,016,965	1,775	1,337,141	802	923
2000	343,342	152	-	-	-	-	-
2001	334,357	151	-	-	-	-	-
2002	569,704	141	197,004	334	-	-	-
2003	533,745	132	226,003	273	-	-	-
2004	823,876	158	241,449	214	34,988	45	-
2005	1,293,841	206	234,506	190	140,000	68	-
2006	1,548,363	251	268,425	179	259,893	125	-
2007	1,653,959	200	249,578	162	276,271	212	125
2008	1,496,483	168	300,000	221	274,737	212	496
2009	1,827,070	190	300,000	202	351,252	140	302

2. 원호사업(援護事業)

1961년 8월 원호처가 발족하면서 원호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족(遺族)에서 국가 유공자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1) 원호 대상자

원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군경과 4.19 상이자 및 반공희생자, 공상공무원으로서 특별원호심사위원에서 결정된 자이며 유족은 전몰군경 및 4.19 유족중 미망인, 미성년 자녀, 부모 직계 존속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다.

함평군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표 3-1, 3-2>와 같다

<표 3-1>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연 도	총수	상 이 군 경				유 족					애국지사 기 타
		계	1급	2급	3급	계	미망인	자녀	부모	기타	
1965	687	98		5	93	589	158	82	344	5	
1966	687	98		5	93	589	158	82	344	5	
1967	663	109		15	94	554	145	65	341	2	1
1968	661	109		15	94	552	145	65	341		1
1969	636	112		12	100	524	134	55	334		1
1970	606	116		12	104	489	135	31	323		1
1971	590	112	1	12	99	477	127	17	333		1
1972	587	115	1	14	100	471	124	16	331		1
1973	561	109	1	12	96	451	122	2	327		1
1974	543	112	1	18	93	430	119	3	308		1
1976	501	119				378	103	5	270		4
1977	477	117				356	93	6	257		4
1980	417	103				309	93	6	210		5
1981	390	104				281	80	4	197		5
1982	379	98				275	81	4	190		6

<표 3-2>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구분 / 연별	합 계	국 가 유 공 자				유 족						
		계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공 상 공무원	계	애 국 유 족	순직공상공무원유족	전몰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미망인	자 녀	부 모	기 타
1983	355	92	91		1	263	2	2	80	3	175	1
1984	350	94	93		1	255	2	2	80	3	168	
1985	375	109	88	20	1	266	2	2	88	13	161	
1986	363	108	86	21	1	254	2	2	86	17	147	1
1987	356	111	88	22	1	244	3	3	86	17	136	1
1988	337	111	87	23	1	226	2	3	91	23	107	
1989	333	111	85	25	1	222	2	5	81	13	121	
1990	326	116	79	35	2	210	4	4	82	11	109	
1991	318	118	85	36	2	200	5	4	79	13	99	
1992	318	125	85	38	2	193	6	4	80	10	93	
1993	319	128	85	41	1	191	7	5	79	12	88	
1994	311	125	86	36	3	186	7	5	74	13	82	5
1995	310	129	89	38	2	181	7	5	72	14	77	6
1996	310	127	88	37	2	183	7	5	77	15	72	7
함평읍	81	31	21	10		50	1	2	21	4	20	2
손불면	35	17	13	4		18			4	4	9	1
신광면	19	9	8	1		10	1		4		5	
학교면	51	20	12	7	1	31			14	2	13	2
엄다면	23	8	8			15		1	12	1	1	
대동면	25	12	9	3		13			6	3	3	1
나산면	26	9	5	3	1	17	3		10		4	
해보면	21	8	4	4		13		1	3		9	
월야면	29	13	8	5		16	2	1	3	1	8	1

<표 3-3>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연도별	합 계	국 가 유 공 자								비 고
		소 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자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1997	319	135		86	47			2		
1998	312	135		83	48			4		
1999	310	130		77	50			3		
2000	315	135		82	48		1	4		
2001	321	137		87	45		1	4		
2002	341	156		102	49		1	4		
2003	378	163		110	46		1	6		
2004	372	158		109	43		1	5		
2005	382	160		109	44		1	6		
2006	370	168		114	47		1	6		
2007	394	166		112	45		1	8		
2008	1,161	163		110	44		1	8		

연도별	유 족										비 고
	소 계	순국애국지사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전몰·전상·공상·군경유족			
								미망인	자녀	부모	
1997	184	6				5		83	14	69	

1998	177	6				5		79	16	63	
1999	180	5				8		82	20	57	
2000	180	5				8		83	21	53	
2001	184	8				9		87	22	44	
2002	185	8	15			8		83	29	42	
2003	195	7	16			8		88	37	39	
2004	214	7	18			7		86	50	46	
2005	199	8	20			6		85	42	38	
2006	202	8	27			6		82	49	30	
2007	207	10	28			6		81	50	32	
2008	209	10	34			6		80	50	29	

년도별	기 타 대 상 자								비 고
	소 계	광주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이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	20							
2004									
2005	23	23							
2006	22	22							
2007	21	21							
2008	789	21	707	1		9	48	3	

2) 유자녀(遺子女) 취학 현황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는 각급 중고등학교 정원의 2~3%를 의무적으로 취학케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함평군의 유자녀 취학 상황은 <표 4-1, 4-2>와 같다.

<표 4-1> 유자녀 취학 현황

연 도	계		전몰유자녀		상이군경유자녀		애국지사 및 기타	
	취 학	미취학	취 학	미취학	취 학	미취학	취 학	미취학
1965	167	153	161	142			6	11
1966	171	155	164	143			7	12
1967	84	410	60	200	24	202		8
1968	47	136	46	136	1			
1969	273	145	45	67	228	78		
1970	172	120	25	60	145	60	2	
1971	293	77	14	12	278	65	1	
1972	225	51	8	10	216	41	1	
1973	149	78	11	8	137	70	1	
1974	160	91	6	8	153	83	1	
1975	182	89	10	8	168	80	4	1
1976	303	88	14	8	284	80	5	
1977	200	96	19	12	174	83	7	1
1978	231		38		185		8	
1979	314		43		263		8	
1980	328		45		271		12	
1981	252		45		194		13	
1982	169		25		135		9	

<표 4-2> 유자녀 취학 현황

구분 / 연읍면	총 계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1983	101	54	47		80				16						
1984	101	54	47		87	47	40		14	7	7				
1985	97	51	46		90	48	42		7	3	4				
1986	90	46	44		74	39	35		14	6	8		2	1	1
1987	75	38	37		61	33	28		14	5	9				
1988	99	24	50	25	82	21	44	17	17	3	6	8			
1989	50	22	29		42	18	24	16	9	4	5				
1990	51	19	31		28	12			22	7	15				
1991	20	10	10		15	8	7		5	2	3				
1992	34	15	17	2	27	12	13	2	7	3	4				
1993	3	16	12	2	23	13	9	1	7	3	3	1			
1994	31	14	13	4	22	11	9	2							
1995	22	4	14	4	19	4	12	3	3		2	1			
1996	26	3	20	3	26	3	20	3							
함 평	8	1	6	1	8	1	6	1							
손 불	1		1		1		1								
신 광															

구분 / 연읍면	총 계				국 가 유 공 자				배 우 자				자 녀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대학	계	중학	고등
학 교	6	1	4	1	6	1	4	1							
엄 다	2		2		2		2								
대 동	1			1	1										
나 산	3		3		3		3	1							
해 보															
월 야	5	1	4		5	1	4								

<표 4-3>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취학 현황

연도별	합 계				국가 유공자				배 우 자				자 녀			
	계	중학	고교	대학	계	중학	고교	대학	계	중학	고교	대학	계	중학	고교	대학
1997	25	4	21		23	3	20		1		1		1	1		
1998	26	5	21										26	5	21	
1999	26	5	21										26	5	21	
2000	14	3	11										14	3	11	
2001	8	4	4										8	4	4	
2002	44	6	15										44	6	15	23
2003	36	9	12	15									36	9	12	15
2004	21	8	13										21	8	13	
2005	22	8	14										22	8	14	
2006	20	5	15										20	5	5	
2007	15	4	11										15	4	11	
2008	103	5	51	47	2			2					101	5	51	45

3) 국가유공 원호대상자 취업 현황

원호 대상자 중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직장을 알선, 항구적인 자활책을 강구해 주고 있는데 본군의 현황은 <표 5 - 1>, <표 5 - 2>, <표 5-3>과 같다,

<표 5 - 1> 국가유공 대상자 취업현황

연 도	합계	정부관서		국영기업체		지방관서		학 교		개인기업체		해 고 자		
		상이	유족	상이	유족	상이	유족	상이	유족	상이	유족	계	상이	유족
1967	41		1	8	1	12		18		1		64	46	18
1968	34	1	1	4	1	11		15		1		1	1	
1969	30			4	1	10		14		1		33	18	15
1970	29			4		9		12		1	1	34	19	15
1971	35			3		7	1	11	1	1	10	37	22	15
1972	38			5		9	1	13		6	4	6	2	4
1973	44	4		4	5	4	2	7		5	3	2	2	
1974	12		1	1	1	1	1	2	1		3	8	4	4
1975	14	1	1	1	1	1		2		3	4	6	5	1
1976	20	5	2	1				3	2	6	5	10	6	4
1977	69	5	3	7	6	3	2	12	4	15	12	7	5	2

<표 5 - 2> 국가유공 대상자 취업현황

연 도	총 계			상 이 군 경			유 족			특별원호대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78	231	221	10	185	181	4	38	34	4	8	6	2
1979	314	306	8	263	260	3	43	40	3	8	6	2
1980	328	317	11	271	267	4	45	41	4	12	9	3
1981	89	82	7	43	40	3	44	40	4	2	2	
1982	86	78	8	40	36	4	45	41	4	1	1	

<표 5-3> 국가유공 대상자 취업현황

구분 / 연·읍면	총 계			국 가 유 공 자			유 족			기 타 대 상 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3	97	71	28	52	35	7	43	34	9	2	2	
1984	98	72	26	54	36	18	42	34	8	2	2	
1985	99	72	27	54	36	18	43	34	9	2	2	2
1986	101	72	29	54	36	18	43	34	9	4	2	
1987	107	83	24	55	39	16	50	42	8	2	2	
1988	107	83	24	55	39	16	50	42	8	2	2	
1989	115	87	28	60	41	19	53	44	9	2	2	
1990	87	65	22	39	30	9	40	31	9	8	4	4
1991	86	70	16	39	32	7	41	33	8	6	5	1
1992	87	71	16	42	34	8	41	33	8	4	4	
1993	87	72	15	42	35	7	39	32	7	6	5	1
1994	95	76	19	46	37	9	40	33	7	9	6	3
1995	168	130	38	69	54	15	75	61	14	24	15	9
1996	162	133	39	72	56	16	76	62	14	24	15	9
함 평	48	37	11	19	14	5	21	18	3	8	5	3
손 불	19	14	5	10	7	3	5	5		4	2	2
신 광	13	10	3	6	5	1	6	4	2	1	1	
학 교	21	18	3	9	8	1	12	10	2			
엄 다	19	14	5	7	5	2	11	8	3	1	1	
대 동	18	15	3	9	8	1	8	6	2	1	1	
나 산	21	15	6	9	6	3	8	6	2	4	3	1
해 보	4	3	1	1	1		2	2		1		1
월 야	9	7	2	2	2		3	3		4	2	2

<표 5-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현황

연도별	합 계			국가 유공자			유 족			기타 대상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7	38	25	13	22	16	6	11	7	4	5	2	3
1998	39	26	13	23	17	6	11	7	4	5	2	3
1999	42	28	14	24	18	6	12	7	5	6	3	3
2000	38	28	10	1	1		33	27	6	4		4
2001	36	26	10	1	1		31	25	6	4		4
2002	43	29	14	1	1		36	27	9	6	1	5
2003	57	38	19	4	4		43	31	12	10	3	7
2004	60	40	20	4	4		46	33	13	10	3	7

연도별	합 계			국가 유공자			유 족			기타 대상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5	62	41	21	4	4		48	34	14	10	3	7
2006	76	64	12	5	5		64	56	8	7	3	4
2007	78	65	13	5	5		66	57	9	7	3	4
2008	79	66	13	5	5		67	58	9	7	3	4

3. 시설보호(施設保護) 관리사업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전쟁고아가 생겼고 이들 고아 중 무의탁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었다.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고아원이며 원장과 직원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그들을 훌륭히 키워 사회에 진출시켰으며 이제는 전쟁고아가 아닌 자립이 어려워 일반아동이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등을 이유로 고아원이 아닌 아동양육시설로 변화하여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다.

함평에는 다른 지방보다 많은 4개의 아동보육시설이 있었으나 성애원(聖愛園)이 1978년에 노인요양시설로, 자광원이 1988년에 모자시설로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함평삼애원과 함평시온원만이 아동양육시설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1) 삼애원(三愛園)



삼애원

(1) 대지 :

함평읍 내교리 379번지 함평의 아동양육시설 중 가장 먼저 구호의 문을 열었다.

(2) 설립년월일 :

1952. 6. 15

(3) 설 립 자 :

윤인식(尹仁植)

(4) 시설 현 황 :

대지 총면적 : 4,162㎡,
건물 7동 총 면적 : 1,489.83㎡,
시멘트 벽돌 기와 지하 1층 지상 2층

(5) 부대시설 :

삼애어린이집. 기타 : 논밭 25,918㎡

(6) 연　　혁

•1952. 06. 15 : 함평읍 함평리에 설립자 윤인식 원장 취임 개 원
•1953. 04. 10 : 내교리 379번지 현재로 이전
•1954. 05. 12 : 기독교 아동 복리회(CCF)에 가입
•1957. 02. 19 : 재단법인(현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
•1957. 06. 11 : 후생시설 인가　　•1958. 02. 28 : 제1회 해호(퇴소) 18명
•1969. 10. 02 : 공공직업 훈련소 인가　•1974. 12. 31 : 공공직업 훈련소 폐쇄
•1988. 03. 03 : 콘크리트 벽돌 기와집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신축
•1993. 03. 10 :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2층 신축
•2004. 01. 06 : 시멘트 적벌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축
•2004. 01. 06 : 삼애어린이집 신축

(7) 입퇴원(入退園) 상황

연　　도	입원자수	퇴원자수	입양자수	원아수	참　　고
1952~1960	251	157			
1961~1970	254	209			
1971~1980	224	207			
1981~1990	170	210			
1991~2000	88	144			
2001~2010	42	77			
계	1,029	1,004			

(8) 역대원장(歷代園長)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윤 인 식	1952. 06. 15 ~ 1967. 02. 28
2	윤 한 식	1967. 03. 01 ~ 현　　재

2) 함평시온원(咸平시온園)

(1)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53-5번지

(2) 설립일 :

1953. 8. 6

(3) 설립자 :

김 수 업



함평시온원

(4) 시설현황 :

- •대지 총 면적 : 2,674㎡
- •건물 총 면적 : 1,327.43㎡
- •철근콘크리트벽돌조

(5) 연　　혁

- •1953. 08. 06 : 함평읍 기각리 739번지 김유남의 개인 주택 1동을 대여 받아 개원
- •1957. 02. 18 : 사회복지시설인가(30호)
- •1957. 09. 12 : 한국세계 기독교 선명회 가입
- •1958. 10. 28 :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53-5번지 현 주소지로 이원(移園)
- •1962. 06. 30 : 사회단체 제334호 등록
- •1966. 04. 20 : 시설대표자 갱신 (제2대 시설장 : 이재성)
- •1972. 02. 28 :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 •1982. 10. 21 : 시설대표자 갱신 (제3대 시설장 : 윤영종)
- •1983. 07. 25 : 시설신축 2층 247.6㎡
- •1984. 06. 30 : 법인대표자 갱신 (제2대 대표이사 : 이의용)
- •1985. 03. 28 : 사회복지협의회 가입
- •1989. 12. 22 : 시설 연건평 528.98㎡ 신축
- •1991. 12. 23 : 시설 연건평 432.72㎡ 신축
- •1999. 12. 13 : 아동숙사 사무실 248.04㎡ 개보수 및 71.06㎡ 증축
- •2000. 05. 04 : 공동모금회 지원 아동숙사 심야전기 보일러 공사
- •2003. 12. 20 : 아동숙사 342.48㎡ 개보수 공사
- •2007. 07. 06 : 독서실동 245.22㎡ 개보수 공사

(6) 입퇴원(入退園) 상황

연　　도	입원자수	퇴원자수	입양자수	비　　고
1952~1955	66	20		
1956~1960	115	39		
1961~1965	99	91		
1966~1970	72	106		
1971~1975	106	105		
1976~1981	82	59		
1982~1985	103	83		
1986~1990	68	49		

연 도	입원자수	퇴원자수	입양자수	비 고
1991~1995	20	24		
1996~2000	16	32		
2001~2005	30	28		
2006~2010	10	21		현재 남자 31명, 여자 23명, 계 54명

(7) 역대원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김 수 업	1953. 08. 06 ~ 1966. 04. 19
2	이 재 성	1966. 04. 20 ~ 1982. 10. 18
3	윤 영 종	1982. 10. 19 ~ 현 재

3) 자 광 원(自光園)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7번지

(2) 연 혁

•1954. 04. 01 : 6.25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아 홍순호, 김이만이 수용함

•1954. 12. 07 : 재단법인 함평자광원 설립 인가 (육아시설 설립)

•1958. 07. 31 : 원사 2층 957㎡ 신축 •1988. 02. 29 : 육아시설 폐지

(3) 역대원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홍 순 호	1954. 12. 07 ~ 1982. 07. 09	
2	유 영 자	1982. 07. 10 ~ 1988	폐 원 함

4) 성 애 원(聖愛園)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57번지

(1) 연 혁

•1953. 10. 22 : 함평읍 함평리 257번지에 설립

•1956. 05. 10 : 재단법인 함평성애원 설립인가

•1978. 07. 19 : 육아시설 폐지인가(그간 598명을 수용, 사회에 진출 시켰다)

(2) 역대원장

대	원장성명	재임기간	비 고
1	모 남 식	1953. 10. 22 ~ 1967. 03. 30	
2	모 종 일	1967. 04. 01 ~ 1970. 11. 15	
3	박 옥 현	1970. 11. 16 ~ 1978. 07. 19	육아시설 폐원

5) 성애양로원(聖愛養老院)



노인복지법 제4장 31조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는 시설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심신의 건강회복과 치매예방을 위해 다양한 여사생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함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57번지

(2) 설립일 :

1982. 03. 31

(3) 설립자 :

모 남 식

(4) 시설현황 :

- 대지 총 면적 : 2,975.3㎡
- 건물 총 면적 : 142,3㎡
- 논·밭·임야 : 243.3㎡

(5) 연혁

- 1953. 10. 22 : 함평성애원 육아시설 설립
- 1956. 05. 10 : 재단법인 함평성애원 설립인가
- 1972. 01. 21 : 사회복지법인 함평성애원 정관변경 인가
- 1978. 07. 19 : 시설전환하기 위해 육아시설 폐지인가
- 1981. 12. 04 : 함평성애양로원 시설인가
- 1982. 03. 31 : 함평성애양로원 개원
- 1986. 11. 22 : 함평성애양로원 새 원사 준공

•1996. 02. 16 : 함평성애양로원 신 원사 준공
•2008. 12. 26 : 함평성애 전문요양센타 개원 (설립자 : 모종한)

6) 모자보호시설 자광모자원(自光母子園)



1988년 2월에 자광원의 육아시설이 폐지되고 이 시설을 개보수하여 1989년 1월 27일에 모자보호시설을 개원하였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0-1

(2) 설립일 :

1989. 01. 11

(3) 시설현황 :

•대지 총 면적 : 1,364㎡ •건물 총 면적 : 667.8㎡

(4) 연혁

•1951. 04. 01 : 6·25동란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홍순호, 김이만씨가 모아 수용함
•1954. 12. 07 : 재단법인 함평자광원으로 인가
•1958. 07. 30 : 신 원사 2층 957㎡ 신축
•1988. 02. 29 : 함평자광원 육아시설 폐지
•1989. 01. 11 : 함평자광모자원 시설허가(15세대 60명)
•1989. 01. 27 : 15세대 55명 입소(제1기)
•1998. 09. 17 : 푸드뱅크 1377전화개통
•1999. 12. 02 :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과 자매결연
•1999. 10. 19 :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과후 아동지도」 선정
•2003. 05. 22 : 종교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자매결연
•2004. 12. 28 : 농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2005. 05. 09 : 2005테마기획사업「3주제-생활시설이동권확보차량지원」선정
•2005. 05. 27 :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타 청소년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나비와 함께하는 사랑실천

(5) 입소자 현황 :

15세대 52명 (남 20명, 여 32명)

4. 노인복지(老人福祉)

1) 읍・면 경로당

읍·면에 경로당(敬老堂)이 마련되어 회원의 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말 함평군의 경로당 시설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함평군내 경로당 현황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1	가동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248번지 1호	하 용 기	15	051-322-2266
2	기산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18번지 2호	장 풍 장	15	061-324-4541
3	기각4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85번지 7호	이 계 행	15	061-324-2333
4	누각온천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15번지	이 길 남	15	061-322-2069
5	함평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7번지	문 길 홍	15	061-322-2526
6	함평여자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7번지	윤 오 음	24	061-322-2264
7	기각2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장 석 용	12	061-324-4025
8	라뷔랑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05번지 라뷔랑@101-1202	이 재 연	14	061-322-3888
9	내교2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19번지 3호	이 건 천	25	061-322-2808
10	주공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55번지	최 병 영	15	061-322-3299
11	대천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704번지	이 돈 식	15	061-322-1456
12	고양촌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58-1	김 태 섭	15	
13	초동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250번지 5호	노 홍 귀	18	061-322-1448
14	만흥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401번지 5호	문 수 용	15	061-322-3990
15	청학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17번지 2호	김 판 규	17	011-632-9468
16	석성2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463번지	임 철 두	15	061 322 9173
17	주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87-3	양 옥 만	25	061-322-9297
18	성북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71-20	이 용 대	14	061-324-0087
19	소등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40번지 2호	나 병 환	15	061-322-2054
20	삼정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791번지 1호	박 상 배	15	061-324-3824
21	수호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40번지	김 남 태	15	
22	대등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548번지	박 차 영	15	
23	송정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864번지 1호	김 고 만	17	
24	흥용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166번지 1호	박 영 균	14	061-324-8886
25	용산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693번지	문 영 회	15	061-322-1284
26	노송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496번지	이 현 수	14	061-324-0851
27	금곡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989-1	정 병 연	17	061-324-7600
28	장고산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235-2번지	이 상 인	15	061-323-8284
29	월봉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695번지 4호	박 종 수	15	061-324-0177
30	자명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771번지	최 을 남	17	061-324-1173
31	산음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996번지 13호	김 순 식	18	
32	월선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405번지	김 인 혁	19	
33	백년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778번지	김 갑 채	18	061-322-3814
34	구주포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879번지 2호	곽 재 환	13	
35	대진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240번지	이 만 석	15	061-322-3757
36	양림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38번지 5호	장 삼 혁	15	061-324-4427
37	대성 경로당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77-5번지	조 복 윤	15	061-324-7766
38	궁산1리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1006번지	정 종 진	15	061-322-1452
39	목교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31번지 3호	김 관 식	13	061-322-2058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40	궁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333번지	김 봉 옥	20	061-322-9126
41	묘동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800번지	김 재 호	13	061-322-9380
42	대전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146번지 31호	김 상 진	20	061-322-4666
43	수문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251번지 3호	김 상 열	25	061-322-1604
44	대전 여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664번지 18호	김 도 금	16	061-322-4176
45	동암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 162번지 호	김 계 수	18	061-322-8441
46	동암2리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 282-6	이 동 식	11	
47	사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662-2번지	백 도 흠	12	061-324-4944
48	승선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835번지	박 종 신	20	061-324-5137
49	산남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1774번지 6호	김 남 수	12	061-322-9803
50	교촌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1959번지 2호	이 항 섭	19	
51	용흥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16번지 2호	김 각 현	12	061-324-4211
52	북풍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355-4번지	이 갑 산	10	061-322-4388
53	대성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385번지 71호	이 종 갑	11	061-323-9513
54	유록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849번지 24호	이 의 웅	13	061-324-0866
55	수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972-3번지	박 영 재	12	061-322-4130
56	석계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48번지 4호	김 수 열	18	061-322-8694
57	해석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245번지 25호	장 세 양	15	061-322-5370
58	대덕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708번지	정 윤 성	13	061-322-0930
59	모량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65번지 1호	모 학 기	16	061-324-4126
60	월천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148번지 17호	김 태 완	20	061-322-5722
61	서호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1800번지 1호	전 길 봉	15	061-324-4822
62	저수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180번지 3호	임 민 채	19	061-322-4408
63	백옥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714-1	김 두 현	20	
64	신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797번지 9호	전 홍 식	22	061-324-0311
65	죽림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422번지	이 상 문	14	061-322-9418
66	죽장1리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287-1	김 옥 련	19	
67	수철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817번지 6호	정 형 기	13	061-322-4470
68	해은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023-1	백 유 선	21	
69	호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296번지 1호	백 방 인	26	061-324-0181
70	학산 경로당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917번지 1호	백 형 옥	20	061-324-4304
71	동백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203번지 7호	양 납 진	18	061-322-9761
72	호덕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509번지	이 화 신	17	061-322-5619
73	계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154-2번지	이 남 열	14	061-323-6241
74	사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301	임 진 택	17	
75	삼양동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1091번지 13호	정 기 풍	13	061-322-5060
76	냉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44번지 호	심 연 옥	15	061-322-5381
77	신여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622번지 6호	노 장 섭	13	
78	수정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622번지 6호	정 상 일	15	061-322-9956
79	저동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140번지 1호	정 복 례	17	061-323-5980
80	보여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보여리 213-3번지	채 윤 표	20	061-322-1566
81	복치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복흥리 132번지 4호	심 웅 섭	18	061-322-5076
82	괴치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복흥리 232번지	심 홍 섭	12	
83	덕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500번지	조 성 열	21	
84	좌야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736번지 1호	모 원	15	061-323-2285
85	송사1리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311-1	정 내 숙	16	061-323-6241
86	학동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451번지 1호	김 영 무	15	061-322-1515
87	원남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671번지	이 정 록	15	
88	월암1리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11번지 2호	이 재 용	20	
89	수인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91번지 3호	심 태 수	19	061-323-5240
90	벽유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216번지 1호	노 장 균	19	061-322-9516
91	미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298번지 5호	노 병 은	17	061-322-9803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92	학천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65-5	김 우 현	15	
93	구봉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611번지	강 재 원	15	061-322-2789
94	수덕 경로당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68번지	이 이 행	18	061-323-5178
95	고막1구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08번지	정 순 임	20	061-322-0881
96	광진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345번지 1호	전 기 술	12	
97	곡창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93번지 3호	김 수 윤	19	061-322-5393
98	곡창2리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42-17	송 영 문	26	
99	금송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1067번지 18호	나 동 채	27	061-323-7661
100	금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539번지	김 순 용	16	061-323-6907
101	방우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567번지 7호	정 일	18	
102	신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293번지 3호	서 동 진	14	061-322-1966
103	표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457번지	정 연 주	17	061-322-4624
104	청수원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99번지	노 병 주	26	061-322-0465
105	장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400번지 1호	노 수 천	16	061-323-8788
106	두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727	노 만 홍	19	
107	내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6번지	이 종 우	18	
108	율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213번지	윤 상 율	22	
109	명암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71번지 3호	신 광 채	37	061-322-0256
110	사거3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36번지	노 덕 봉	42	061-322-6309
111	청정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12번지 6호	이 만 형	25	061-323-5032
112	경화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73-3번지	박 일 만	26	
113	흥용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055번지 1호	이 상 희	15	
114	석정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429번지 1호	이 무 길	20	
115	동림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730번지	양 종 철	23	061-322-5968
116	월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165번지 3호	오 광 종	16	061-322-7394
117	월봉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329-1	박 맹 복	13	061-322-6154
118	송정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690-1	정 정 진	30	061-324-0893
119	송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829번지	채 대 두	17	061-322-1781
120	기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116번지 8호	서 상 국	18	061-322-6919
121	용호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437번지	양 승 월	22	061-322-0231
122	망월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828번지 885-2	양 문 학	14	
123	월호1리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91`번지 12호	양 영 환	15	061-322-6206
124	덕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044번지 5호	김 창 구	18	061-323-7576
125	선암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30번지 1호	임 영 택	19	
126	호암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30-1	이 계 욱	16	
127	둔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524-2	지 태 순	15	
128	정자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623-1	서 무 정	22	061-322-6828
129	이암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040번지 1호	정 재 선	18	061-322-6213
130	영화촌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50번지 9호	박 재 수	15	061-322-6030
131	백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24-1번지	김 봉 규	34	061-322-6601
132	달배기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39-4번지	한 기 석	17	
133	회춘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683번지 1호	김 삼 중	25	061-323-4450
134	학교6리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번지 232호	안 성 엽	18	061-323-6551
135	신학 경로당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번지 57호	안 석 규	17	061-323-3100
136	삼원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199번지 1호	김 수 환	25	061-322-7870
137	삼정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363번지 호	조 성 보	32	061-322-7363
138	와촌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21번지 32호	서 중 환	29	061-323-5857
139	성암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697번지 1호	이 판 암	25	061-322-7453
140	해정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36번지 2호	이 영 기	25	061-322-7175
141	노상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551번지 7호	장 진 태	30	061-322-7122
142	담안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666번지	이 점 규	14	
143	심양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712-25	김 태 환	22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144	송촌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830번지 1호	윤 재 욱	20	061-322-7241
145	우평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154-2번지	정 원 길	15	061-322-7684
146	장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191-1번지	김 순 봉	19	061 322 7618
147	화계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298번지 2호	이 삼 재	30	061-322-7498
148	불암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324번지	이 금 형	24	061-322-7107
149	제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483-1번지	정 길 용	13	061-322-7173
150	정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668번지	황 하 룡	14	061-322-0792
151	번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750번지 1호	안 귀 석	36	061-323-5460
152	엄다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13번지 4호	최 경 식	16	061-322-7328
153	성산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929번지 호	윤 석 봉	30	061-322-7439
154	흑룡동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429번지 1호	임 점 택	17	061-323-1101
155	영천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693번지 2호	김 두 형	31	061-322-7196
156	영흥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952번지 3호	임 종 관	13	061-322-0909
157	학야1리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2-8	전 금 순	24	061-323-4988
158	대천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557-6	임 방 택	17	061-322-1456
159	쌍천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73번지 5호	박 의 구	16	061-322-5960
160	정양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453번지 1호	김 영 록	34	061-324-0790
161	화양 경로당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844번지	서 달 상	25	061-322-1355
162	송산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337-1	김 진 배	27	061-322-1781
163	홍지학송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471번지 1호	강 지 연	30	
164	주평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686번지	진 상 담	35	
165	금적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49-4	서 영 수	32	
166	남악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727번지 5호	김 정 자	18	061-323-0046
167	감산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194번지 5호	홍 옥 식	35	061-322-3646
168	금구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387번지 35호	노 진 영	14	061-322-3720
169	고산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64번지 2호	이 돈 석	35	061-322-3078
170	내덕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272번지	김 서 현	17	
171	덕산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338번지 1호	이 기 헌	39	
172	아차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604번지 호	김 종 남	48	061-322-3072
173	보화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256번지	김 병 용	19	061-322-0300
174	석호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648번지	최 이 성	46	061-322-3959
175	옥동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384번지	윤 병 도	67	061-323-3874
176	연암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855번지 7호	김 대 준	30	061-322-1867
177	정창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02번지 1호	김 상 기	24	061-323-0046
178	용연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072번지 11호	조 태 환	33	061-322-3828
179	금성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501번지	박 재 선	52	
180	괴정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692번지 2호	박 병 영	19	061-322-3026
181	마금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700번지 5호	노 원 숙	17	061-322-4967
182	해운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883번지	조 영 형	50	061-322-3239
183	명륜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88번지	이 장 원	34	061-324-0766
184	상교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709-1	최 용 식	48	
185	향교 경로당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82번지	정 병 화	28	061-322-3424
186	구산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373번지 1호	문 정 호	42	061-323-1141
187	구산2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692번지	노 병 태	18	061-323-0188
188	삼성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751번지 3호	김 영 인	18	061-322-8101
189	방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299번지 1호	안 도 길	30	061-322-1773
190	나산1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695번지 1호	안 영 수	45	
191	덕림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47-1	이 상 규	44	
192	축동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085번지 1호	오 상 균	19	061-323-8934
193	나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34번지 4호	김 운 봉	19	061-323-9469
194	금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79번지 1호	노 광 섭	65	061-322-8345
195	나성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94번지 4호	안 종 칠	21	061-322-8223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196	송암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493번지 1호	신 종 렬	17	061-323-4368
197	송죽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693-1번지	신 철 현	15	061-322-8422
198	유덕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756번지	정 호 범	43	061-322-8987
199	월현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971번지 11호	안 경 순	23	061-322-8910
200	마산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268번지 1호	배 윤 팔	18	061-322-2422
201	수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417번지 1호	정 현 식	19	061-322-5199
202	수하2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742-1	남 상 철	45	061-322-8656
203	신평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539번지 1호	조 성 근	20	011-618-8633
204	용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40번지	유 을 식	35	061-3228-3293
205	원석현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603번지 2호	김 종 록	18	
206	선박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63번지 2호	김 병 섭	30	
207	석현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768번지 4호	박 석 태	18	061-322-8649
208	오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888번지 1통	김 정 상	26	322-8898
209	우치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645번지 8호	김 만 종	43	061-323-6034
210	계동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835번지	정 병 술	21	6103228898
211	원선마을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원선리 55번지 5호	모 종 길	19	
212	유촌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원선리 714-2	김 근 수	19	
213	월봉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420번지 1호	김 업 동	62	061-323-3388
214	월평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684번지 1호	유 기 관	40	061-322-8256
215	석지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66번지 1호	정 종 철	20	061-322-5744
216	삼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673번지 1호	김 채 기	19	061-322-8250
217	사정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765-1	김 규 채	26	
218	사산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722번지 1호	장 삼 남	21	061-322-8083
219	원초포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87-1	이 철 범	48	061-322-8279
220	입석 경로당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928번지 8호	이 형 채	19	061-322-8363
221	광암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287번지	김 석 주	38	061-322-1820
222	금산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97번지 2호	서 기 풍	19	061-323-0054
223	만년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233번지	서 용 호	11	061-323-3009
224	해보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386번지 3호	홍 춘 성	16	061-323-0443
225	유정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34번지 1호	이 연 행	28	061-322-2341
226	금곡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558번지	주 병 영	15	061-323-2028
227	구계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760번지 1호	강 학 수	15	061-323-0505
228	고두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91번지 6 호	유 봉 래	29	061-323-2450
229	각궁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389-1번지	진 막 동	13	061-322-1841
230	창서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271번지 1호	정 병 규	29	061-323-3208
231	성대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503-1번지	김 종 회	20	061-322-9930
232	하귀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00번지 7호	윤 국 중	22	061-323-0165
233	구미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95번지 10호	박 현 구	32	061-323-0211
234	문암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342-3번지	정 동 근	20	061-323-0360
235	상귀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604번지 1호	김 동 철	20	061-322-8311
236	원산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392번지	장 종 수	17	061-323-4564
237	상모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96번지 2호	윤 태 수	47	061-322-0477
238	하모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438번지 1호	윤 복 중	16	061-323-0559
239	운곡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902번지	윤 기 병	13	061-323-0789
240	수산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산 1번지 4호	윤 완 병	14	061-323-0518
241	대성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374번지 3호	윤 남 중	19	061-323-0204
242	소성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470-3	심 웅 섭	16	061-323-0537
243	주현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856번지 1호	정 진 석	33	061-323-0663
244	영진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36번지 4호	강 귀 현	20	061-323-0045
245	백토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81-1	윤 정 녀	32	061-323-0154
246	모산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318-5번지	노 병 석	17	061-322-0225
247	발미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581번지 3호	정 영 숙	16	061-323-0534

경 로 당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회원	회관 전화번호
248	월현 경로당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856번지 3호	정 석 진	21	061-322-4904
249	금치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496-3번지	홍 철 희	14	061-324-8889
250	장함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527번지 2호	노 혁 용	14	061-323-3249
251	주전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53번지 6호	류 재 평	17	061-322-2442
252	죽림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575번지 1호	노 진 태	12	
253	시목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689번지 1호	이 계 삼	19	061-322-2487
254	양지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462번지 2호	김 명 순	20	061-323-1412
255	방축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871-2	방 은 규	20	
256	덕령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118번지	정 필 연	33	061-323-1256
257	석보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291번지 2호	오 영 근	28	061-323-1901
258	예동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406-3	안 종 남	24	061-323-3454
259	신덕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406-3	김 재 성	21	
260	외치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54번지	정 기 상	21	061-323-1808
261	백야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511번지 호	정 길 진	41	061-323-1145
262	방하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385-3	정 병 권	19	
263	신성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535-17	노 희 필	15	061-323-1049
264	은암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828번지	박 태 일	11	061-323-3335
265	외세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175외 1필지	김 병 태	15	
266	수창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367번지 56호	김 용 원	20	061-323-7522
267	월봉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379번지	이 태 홍	23	061-323-9507
268	용두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547-4	최 갑 진	19	061-323-1147
269	내세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87-1번지	정 병 모	18	061-323-2667
270	복용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114번지	김 태 영	19	061-323-3999
271	용정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428번지	장 병 련	14	061-322-1912
272	덕산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574번지	김 대 현	24	061-323-5611
273	지변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87번지	정 근 한	14	
274	봉덕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649번지	정 효 열	19	061-323-7308
275	성주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799번지 1호	정 귀 동	12	061-323-1163
276	월악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817번지	정 지 만	18	
277	월야 여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088번지	문 정 례	59	061-323-0892
278	청학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182번지 호	이 녹 범	16	061-323-3048
279	월야1리(전하)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259번지 75호	김 환 기	27	061-323-1333
280	순촌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16번지 1호	정 을 선	33	061-323-1054
281	전하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65번지 8호	정 동 일	11	061-322-1904
282	금석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구 1278번지 1호	정 형	22	061-323-8527
283	평촌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556-76	정 영 철	16	061-323-1217
284	연당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34번지 18호	정 연 근	19	061-323-2864
285	신기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268번지 1호	이 영 실	17	061-323-2864
286	내정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404-1	이 봉 현	24	061-323-3711
287	화산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529번지	오 진 용	12	061-323-1337
288	동촌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676번지 1호	곽 병 태	27	061-322-2231
289	대야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696번지 12호	진 화 일	18	061-323-7684
290	서촌 경로당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785-4	이 재 기	19	061-323-7774

2)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1) 소재지 :

함평읍 함평리 함평군민복지회관 내

(2) 연혁

- 1982. 08. 23 :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발족(군청내 사무소 설치)
- 1982. 06. 03 : 군민복지회관 1층 5호로 사무실 이전
- 1984. 03. 23 : 대한노인회선정 전국시범지회 지정
- 1999. 10. 02 : 함평군노인복지회관 개관

(3) 함평군 노인인구 현황

(2009. 12 현재)

전 체 인 구			노 인 인 구				경로당 회원수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비율	전 체	남	여	비율
36,985	18,358	18,627	10,755	4,076	6,679	29%	10,612	4,567	6,045	98%

(4) 함평군 경로당 현황

읍 · 면	행정리	자연마을	경로당 수			비 고
			군 등록경로당	지회등록경로당	등록율	
9 개	271	484	300개소	286개소	95%	

(5) 활동상황

- 1982. 03. 23 : 정기총회 개최 임원 개편
- 1982. 03. 31 : 수성상제(壽星賞制) 제정
- 1982. 04. 01 : 지부부설(支部附設) 기산노인학교(箕山老人學校) 설립.
  초대교장 임기남(林琪南)
- 1982. 04. 30 : 지부회보(支部會報) 수성보(壽星報) 창간,
  97년 가을호까지 총 45회 간행
- 1983.10.21~31 : 제1회 모범가훈전시회(模範家訓展示會) 개최, 지부 예하 조직으로
  읍 ·면분회(邑面分會), 학구단위노인회(學區單位老人會)의 조직을 완료
  했고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 1984. 12. 20 : 전국 모범지회 금상 수상
- 1988. 03. 25 : 함평노우문선집(咸平老友文選集) 1집 발간
- 1992. 01. 07 : 수성노인상 수상인명록 1집 발간
- 1996. 08. 09 : 노인 학생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방송사에 기탁
- 1996. 12. 04 : 중앙일보사 “봉사상” 수상
- 1997. 12. 02 :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거행, 지회 국무총리상 수상,

지회장 한원섭 국민포장 수상

(6) 년중 주요추진 사업

- 수성노인상 시상 (년1회)
- 수성보 발간 (봄·가을 년2회)
-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년1회)
- 지회장기 장기대회(년1회)
- 스포츠댄스교실 운영
- 서예교실 운영
- 한글교실 운영
- 보행보조기 보급

(7) 노인 취업지원센타 운영

- 사업체 노인취업 지원
- 노인 일자리사업
  - 노인교통안전 봉사단
  - 어린이 안전지킴이
  - 엑스포 주차장관리
  - 자연생태 해설사
  - 수의 제작·판매

(8)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경로당 임원교육
-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지원
- 모범경로당 표창
- 출향인사 고향경로당 찾기 운동전개
- 좌식 안마기 보급
- 좌식 싸이클 보급

(9) 수성상(壽星賞) 시상

1982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인생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필생을 화사(華奢)하게 장식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보은의 뜻이 담긴 상으로써 80여 성상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헌신 봉사한 가장 훌륭하고 장한 인덕과 품행이 겸전한 노인을 발굴 매년 2명(남1, 여1)에게 드리는 상으로 1997년까지 30명(남 15, 여 15)을 시상하였다.

수상자는 아래 표와 같다.

<수성상 수상자>

회	시상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출생지 및 주소
제1회	1982. 10. 05	양봉구 남여비	梁奉九 南汝非	1899. 04. 22 1902. 03. 10	학교면 석정리 나산면 수하리
제2회	1983. 10. 05	천보배 김신안	千寶培 金新安	1903. 01. 09 1893. 12. 28	엄다면 삼정리. 광주시 산수동 나주군 금천면. 해보면 금덕리
제3회	1985. 03. 23	이재혁 정영덕	李載爀 丁永德	1893. 09. 15 1901. 08. 20	함평읍 함평리 무안군 무안읍. 함평읍 함평리
제4회	1986. 03. 13	이계동 오정자	李啓東 吳貞姿	1892. 11. 02 1900. 05. 26	월야면 용정리 목포시. 함평읍 내교리
제5회	1987. 03. 23	이영헌 김연동	李瑛憲 金連洞	1905. 12. 19 1886. 03. 10	함평읍 기각리 신광면 동정리. 손불면 대전리
제6회	1988. 04. 13	이계후 김광녀	李啓厚 金廣女	1908. 03. 10 1903. 02. 02	함평읍 기각리 손불면 월천리. 신광면 삼덕리

회	시상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출생지 및 주소
제7회	1989. 04. 14	신 경 렬	辛 璟 烈	1903. 01. 17	나산면 송암리
		심 가 임	沈 可 任	1901. 11. 12	신광면 복흥리. 대동면 용성리
제8회	1990. 04. 10	정 동 기	丁 同 其	1909. 09. 09	학교면 금송리
		김 육 매	金 六 梅	1906. 05. 10	장성군 삼서면. 월야면 외치리
제9회	1991. 04. 30	박 종 국	朴 鍾 國	1907. 06. 24	나산면 삼축리
		안 이 연	安 二 淵	1908. 08. 27	무안군 현경면. 함평읍 성남리
제10회	1992. 03. 31	이 종 만	李 鍾 萬	1909. 01. 05	함평읍 성남리 247
		김 귀 순	金 貴 順	1900. 06. 17	월야면 용암리 410
제11회	1993. 04. 17	정 원 길	丁 元 吉	1909. 02. 16	엄다면 신계리 555
		윤 순 용	尹 順 用	1905. 02. 14	함평읍 기각리 1027
제12회	1994. 04. 21	지 영 학	池 永 學	1911. 09. 04	학교면 죽정리 530
		정 일 녀	鄭 一 女	1914. 03. 15	엄다면 엄다리 682
제13회	1995. 04. 18	이 동 렬	李 東 烈	1915. 04. 21	대동면 향교리 989
		김 순 덕	金 順 德	1912. 12. 22	신광면 계천리 211
제14회	1996. 04. 20	정 복 기	鄭 福 基	1908. 04. 15	학교면 마산리 455
		나 석 예	羅 錫 藝	1905. 09. 30	해보면 문장리 573
제15회	1997. 03. 31	정 심 영	鄭 沁 永	1909. 09. 19	학교면 사거리 740
		오 효 현	吳 孝 現	1916. 06. 07	월야면 월악리 299
제16회	1998. 10. 02	조 윤 형	趙 潤 衡	1918. 06. 19	엄다면 삼정리 264
		윤 경 례	尹 京 禮	1914. 10. 20	함평읍 수호리 546
제17회	1999. 10. 02	안 도 순	安 度 淳	1916. 02. 13	해보면 금덕리 산48-9
		이 의 순	李 義 順	1918. 12. 27	나산면 수하리 288
제18회	2000. 10. 02	김 대 열	金 大 烈	1920. 01. 24	함평읍 내교리 43-10
		백 정 례	白 正 禮	1914. 10. 10	나산면 초포리 928
제19회	2001. 10. 02	김 유 원	金 有 源	1915. 02. 02	학교면 월호리 837
		박 태 임	朴 太 林	1912. 08. 09	엄다면 엄다리 976
제20회	2002. 10. 02	김 용 서	金 容 瑞	1923. 08. 06	학교면 학교리 681
		진 연 임	陳 連 任	1922. 04. 03	해보면 금덕리 407
제21회	2003. 10. 02	모 원	牟 源	1915. 01. 18	신광면 삼덕리 774
		백 봉 임	白 奉 壬	1915. 06. 19	엄다면 송로리 219
제22회	2004. 10. 02	박 춘 원	朴 春 元	1922. 08. 20	함평읍 기각리 891
		이 필 순	李 必 順	1922. 06. 20	월야면 외치리 608
제23회	2005. 10. 02	한 원 섭	韓 元 燮	1912. 03. 03	함평읍 내교리 306
제24회	2006. 10. 02	박 병 인	朴 炳 寅	1920. 02. 06	대동면 향교리 554
제25회	2007. 10. 02	이 완 영	李 完 永	1921. 12. 23	나산면 용두리 761
제26회	2008. 10. 02	최 순 실	崔 順 實	1928. 11. 13	손불면 석창리 353
		노 공 순	盧 公 順	1918. 09. 03	월야면 외치리 656
제27회	2009. 10. 02	문 길 홍	文 吉 弘	1922. 01. 25	함평읍 내교리 329
		김 부 례	金 富 禮	1928. 02. 02	학교면 사거리 453

(10) 역대지회장

대 수	성 명	재임 기간	비 고
1·2대	이 계 후(李 啓 厚)	1982. 03. 01 ~ 1988. 03. 31	
3·4·5·6대	한 원 섭(韓 元 燮)	1988. 04. 01 ~ 2000. 03. 31	
7대	조 윤 현(趙 潤 衒)	2000. 04. 01 ~ 2003. 03. 31	
8대	김 용 서(金 容 瑞)	2003. 04. 01 ~ 2006. 03. 31	
9대	나 상 근(羅 庠 根)	2006. 04. 01 ~ 2009. 03. 31	
10대	정 병 규(丁 病 奎)	2009. 04. 01 ~ 현 재	

(11) 함평군지회 부설 함평노인대학

◆ **연혁**

- 1982. 04. 01 :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부설 함평노인대학 설립
- 1986. 05. 28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함평노인학교 등록
- 1986. 07. 01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시범노인학교 지정
- 2002. 03. 28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함평노인대학으로 승격
- 2009. 11. 16 : 제29기 졸업식 (총 졸업생 1,404명 배출)

◆ **역대 학교장**

기 별	학 교 장	사무국장	교 무	
1 ~ 3기	임 기 남	이 국 헌	이 국 헌	
4	김 용 섭	이 국 헌	이 국 헌	
5	한 원 섭	이 국 헌	이 국 헌	
6 ~ 14기	김 유 원	이 국 헌	이 국 헌	
15 ~ 20기	이 기 헌	이 기 헌	이 국 헌	
21 ~ 25기	임 철 호	문 효 철	문 효 철	
26 ~ 28기	정 병 규	박 희 의	박 희 의	
29 ~	오 상 균	진 수 복	김 영 미	

5.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수혜 상황

의료보험은 1986년까지는 직장의료보험만 실시하다가 6월부터 전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상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다.

의료보험 수혜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함평군 국민건강보험센터 및 수혜자

* 변화 있는 해만 간추림

구분 / 연별	합계 수혜자수			직장의료보험				지역조합				공무원사립학교직원		
				사업장수	수혜자수			조합수	수혜자수			수혜자수		
	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계	피보험자	피부양자
1979				3	91	35	56							
1981				4	125	44	81							
1983				7	295	78	217							
1984				12	586	151	435							
1985				13	670	172	498							
1986				15	1,057	299	758							
1987				19	2,031	681	1,410		621		621			
1988	49,622	49,622						1	49,622		49,622			
1989	35,534	35,534						1	35,534		35,534			
1990	32,932	32,178	754	22	1,254	500	754	1	31,678		31,678			
1991	32,486	31,549	937	28	1,319	382	937	1	31,167		31,167			
1992	37,341	30,652	6,689	29	1,310	416	894	1	28,311		28,311	7,720	1,925	5,795
1993	38,677	32,098	6,579	23	1,195	386	809	1	29,808		29,808	7,674	1,904	5,770
1994	43,650	13,436	30,214	85	5,268	1,657	3,611	1	31,232	9,883	21,349	7,150	1,896	5,254
1995	38,042	11,976	26,066	36	1,728	609	1,119	1	29,073	9,556	19,517	7,241	1,811	5,430
1996	44,960	16,732	33,601					1	37,800	9,572	28,228	7,160	1,787	5,373

<표 2>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년도별	합 계			근 로 자				지 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계	가입자	피부양자	사업장수	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가입자	피부양자
1997								27,510	17,914	9,596			
1998								28,020	18,590	9,430			
1999								26,975	17,003	9,972			
2000								25,015	15,458	9,557	5,757	1,420	4,337
2001	34,074	12,466	21,608	142	3,863	1,341	2,522	24,660	14,975	9,685	5,551	1,440	4,111
2002	37,506	17,228	20,278	169	14,535	3,525	11,010	22,971	13,703	9,268	5,309	1,236	4,073
2003	38,242	26,545	11,698	229	11,105	3,408	7,697	30,888	21,713	9,175	5,425	1,424	4,001
2004	32,477	23,845	8,632	276	7,251	2,579	4,672	28,440	19,815	8,625	5,411	1,451	3,960
2005	31,588	22,381	9,207	302	8,190	2,878	5,312	26,362	8,061	8,301	5,337	1,442	3,895
2006	27,932	20,186	7,746	316	6,253	2,311	3,942	23,465	16,416	7,049	5,263	1,459	3,804
2007	29,021	20,501	8,520	340	8,658	3,551	5,107	23,171	15,564	7,607	5,799	1,386	3,413
2008	28,628	19,915	8,713	385	9,065	3,770	5,295	22,148	14,772	7,376	5,791	1,373	3,418

<표 3> 국민건강보험급여

(단위 : 건,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직 장(근로자)		공무원 · 교직원		지 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3	1,010,018	35,500,917	323,904	10,854,019	131,122	4,850,610	554,992	19,796,288
2004	1,038,661	38,748,667	357,684	13,079,187	134,718	5,256,178	546,259	20,412,702
2005	1,237,063	42,433,421	460,614	15,604,167	159,681	5,546,684	616,768	21,282,570
2006	1,233,058	45,460,620	494,624	17,869,140	165,705	6,281,237	572,729	21,310,244
2007	1,260,824	46,141,436	474,440	17,161,353	160,923	6,062,899	625,461	22,917,183
2008	1,311,189	43,505,890	456,028	14,647,406	152,710	5,050,298	702,451	23,808,1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4>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단위 : 건, 일, 천원)

구분 / 연도별	진료건수	일 수		진 료 비		
		내 원	진 료	계	공단 부담	본인부담
2003	1,010,018	1,755,483	5,941,804	35,500,917	25,721,555	9,779,362
2004	1,038,661	1,776,983	6,381,059	38,748,067	28,291,438	10,456,629
2005	1,237,063	1,818,208	6,709,536	42,433,421	31,129,383	11,304,038
2006	1,233,058	1,795,760	6,903,578	45,460,620	33,757,871	11,702,749
2007	1,260,824	1,658,292	6,029,171	46,141,436	34,390,375	11,751,061
2008	1,311,189	1,493,585	5,928,914	43,505,890	32,211,970	11,293,92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주)양국의 처방조제 내원 일수는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

(1) 소 재 지 :

함평읍 내교리 481-4번지

(2) 연 혁

•1987. 06. 02 : 지역의료보험 설립위원회 구성

•1987. 11. 01 : 함평군의료보험조합 설립 개소(1과 3계)

•1991. 04. 04 : 직위 변경에 따라 1부 3과로 변경

•1992. 05. 01 : 인구 감소로 1부 2과로 축소

•1998. 07. 01 :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함평지사로 변경
구 함평우체국에서 내교리 현 사무소로 이전

•2000. 07. 01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로 변경
•2006. 11. 03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로 변경

(3) 역대 이사장

• 1대	이일행(李一行)	1988. 01. 16 ~ 1991. 01. 15
• 2~3대	김장백(金長伯)	1991. 01. 16 ~ 1997. 01. 15
• 4대	정병규(丁炳奎)	1997. 01. 16 ~
• 5대	김용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장
• 6대	홍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장
• 7대	김대섭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장
• 8대	김낙순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 9대	이권섭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 10대	김반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 11대	김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 12대	류재웅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제3절 군민복지시설(郡民福祉施設)

1. 함평공원(咸平公園)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이 공원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 신사(神社)가 세워짐으로하여 조성되었다. 그러나 만경, 은율 군수(수령)를 역임한바 있는 이동범(李東範)이 1907년에 세운 세심정(洗心亭)을 보면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이 일대가 군민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함평공원은 물이 맑기로 이름난 영수천(潁水川)을 안고 있으며 툭트인 함평평야와 노령산맥의 일맥(一脈)인 고산봉, 철성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가경(佳景)이다. 그래서 허부와 소유의 전설이 담긴 중국의 기산영수(箕山潁水)를 지명(地名)으로 하고 있다.

광복이 되고 일인들의 신사(神社)는 헐리었고 6·25후 신사 자리에 높이 1.8m 정도의 충혼탑이 세워졌다. 공원의 수목은 벚꽃 일색이어서 4월의 벚꽃만 자랑 거리일 뿐이었다.

함평공원이 군민의 휴식처로 명실공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이영의(李泳儀·영암출신) 군수가 함평출신 내외 인사들에게 애향심을 호소하여 함평공원을 새롭게 꾸민 것이다.

1) “나라와 겨레 위한 얼의 탑(塔)” 준공



1.8m 높이의 초라한 옛 충혼탑을 헐고 높이 12m의 현대적 감각을 담은 특수 철근 조립의 콘크리트 탑을 세웠다. 앞면에 탑 글, 위쪽에 놋쇠로 만든 비둘기를 붙이고 꼭대기에는 역시 놋쇠로 지어만든 무게 80kg의 성화(聖火)를 장식했다.

부대 시설로 헌화대, 분향대, 탑, 기념비 1기를 세웠고 500㎡(가로 20m, 세로 25m)의 탑 경내에 보도(步道)를 까는 등 조경(造景)을 말끔히 하여 엄숙하고 장엄한 감을 주게 하였다.

“나라와 겨레 위한 얼의 탑”이란 글은 함평출신으로 국전(國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회환이 썼다. <총편 화보 참조>

기념탑비의 앞면에는

기산, 영수 아늑한 동산에 초라히 섰던 탑(塔)
12만 군민의 정성 모아 거룩한 얼의 탑 새로 세우다.
빼앗긴 땅에 씨앗을 묻고자 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 고장 의(義)에 살고 의에 죽은 선열들이어

5천년 가난을 쫓고 마을마다 새마을 정신
불길로 솟아 복된 낙원 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자연보호(自然保護)로
후손에게 님의 충절(忠節) 기리고 님의 효심(孝心) 본받게 하리니

길이 이 땅 밝혀주실 위대한 넋이어 고이 잠드소서

1977년 12월 22일 함평군수 이영의 짓고 송태경 쓰다

2) 계단(階段) 개설 50m

종래의 계단을 헐고 폭을 넓혔다.

3) 진입로 확장

읍사무소 입구부터 노인당앞, 세심정, 광장에 이르는 120m를 확장 포장하여 차가 다닐 수 있게 하였다.

4) 그외 높이 9m의 국기 게양대, 퇴락한 세심정(洗心亭) 보수, 급수전(給水栓) 설치, 5개소에 수은등 설치, 노인당 울타리 조성, 경비 관리실 건축등을 하였고 군청 후정에 방치되어 있던 목민관 비를 한데모아 세웠고 벚나무 일색인 공원에 향나무, 단풍나무, 철축등 관상수 775그루를

심어 군단위 공원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게끔 산뜻이 꾸몄다.

2. 기산공원(箕山公園)

함평공원이 면적이 좁고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장차 함평읍이 늘어난다면 공원이라기보다는 한낱 어린이들의 놀이터 구실밖에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산을 공원화 하려는 계획이 유민봉(庾珉鳳) 군수 재임 때에 수립되었다.

기산은 옛 산성(山城)이 있고 함평읍은 물론 서해(西海)가 한눈에 보이는 경승지(景勝地)며, 높이가 해발 147m 밖에 되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크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다.

2정이 넘는 분지에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식품가게, 옛 산성의 연못 복원, 주차장등 위락시설을 갖추고 정상에는 8각정을 세워 휴게실겸 전망대로 쓰며 산정(山頂)까지 4m 너비의 차도(車道)를 만들어 노약자나 허약자도 오를 수 있게 계획을 세웠었다.

그 1차 사업이 1982년 6월 21일에 시공되어 1983년 12월 3일에 마무리되었다.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국도가 통하는 작곡재(원래 잣골재. 성재)에서 성문(城門) 터까지의 320m 도로(道路. 너비 4m)를 개설하였으며 함평 상수도(上水道) 정수장에서 기산봉 중턱에 이르는 580m의 길을 만들었고 주차장 1개소를 설치했다.

또 주차장에서 상봉에 이르는 계단을 세 곳에 설치했는데 모두 270여 계단이다. 배수를 완만히 하기 위하여 배수로 520m도 신설하였다. 앞으로 성문터에서 440m의 도로를 만들면 기산봉 산정까지 차로 오를 수 있다. 수목을 갱신하고 위락시설을 갖추는 일이 또 남아 있다.

제1차 사업은 대통령 특별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지었다.

함평은 자랑할 관광지가 없고 기산봉은 함평읍 바로 뒷면에 위치하고 있어 기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함평읍이 풍요로워진다는 전설을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보자는 뜻이 기산의 공원화(公園化)에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담긴 이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난 뒤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1997년 기산봉 상봉에 짓기 시작한 팔각정 신설공사만 1998년에 마무리되었다.

3. 군민복지회관(郡民福祉會館)



함평군민복지회관은 기념탑 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 군민의 정성이 한데 영근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복지회관은 제2회 군민의 날인 1980년 10월 5일 함평출신 사업가(事業家) 이재욱(李載郁)이 군민회관 건립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언약과 당시 김종호 전남도지사가 5천만원의 건립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승포(羅承布·함평읍 출신) 군수가 건

립준비를 착수했다.

1981년 1월 16일에는 433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동년 2월 20일 2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 1981년 6월 1일 착공을 했는데 착공 후 나승포 군수는 화순군수로 발령이 되어 떠나고 유민봉(庾珉鳳) 군수가 부임하여 1982년 4월 30일에 준공하였다.

부지를 제외한 총 건축비는 2억 5천 8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군비에서 1억 1천만원, 도비에서 5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억원은 외지에 나가 있는 함평출신과 군민들의 성금으로 충당했다.

군민복지회관의 규모와 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 재 지 :

함평읍 함평리 154-1 584평(1,931㎡, 이재욱 기증)

※ 이 터는 일제강점기 때 야마다(山田萬吉郎)가 세운 도정공장이었는데 해방후 여러 사람들을 거쳐 이재욱이 소유하게 되었고 소유자 이재욱이 함평군에 기증했다.

2) 구조 및 규모와 용도 :

철근콘크리트 라면조 지상(地上) 3층, 지하(地下) 1층

(1) 총건평

471평(1,557㎡)

(2) 지하실

47평(153.9㎡) : 한국국악인협회함평군지부

(3) 지상1층

188평(620.6㎡): 사무실, 소회의실

※ 2009년말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함평예술인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지부회, 함평군 환경보존연합회,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사무실이 있다.

(4) 2층 205평 (675㎡):

다목적 체육관 및 회의장으로 활용, 샤워실,

(5) 3층 31평 (102.5㎡) :

영사실, 함평군재향군인회

(6) 정원에는 군민이 기증한 값진 정원수를 심고 잔디를 심었으며 해보면 상곡리 탑동에 있던 석불입상(石佛立像·고려때 만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과 함평읍 내교리에 있던 넓다리(廣橋) 유래가 담긴 평판석(平板石)을 옮겨 놓았다.

3) 준공 기념탑문



충의의 얼 서린 유서 깊은 이 고을 기산 영수 정기 이어
10만 군민 정성모아 이룩한 웅비의 나라 더욱 빛내갈 일꾼
빛부신 성사(盛事)여 자랑스런 성취여 슬기와 기량 예서 갈고 닦고
항상 새로운 심기(心氣)로 살아 이 뜻과 보람 고이 간직하여
창조와 문화복지 전당으로 알뜰히 가꾸고 다듬어
그 큰 몫 다하리니 길길이 보전 계승하리라

1982. 5. 14 함평군수 유 민 봉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군민복지회관은 군민의 정성이 한데모여 이룩되었다.<화보 참조> 성금을 낸 군민은 수천에 이른다. 이들중 1백만원 이상을 성금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출신읍면 및 주소	성 금 액
정 병 기	나산면출신, 현대페인트 사장	10,000,000
최 규 영	신광면출신, 전 엠파이어 사장	10,000,000
이 갑 진	재일교포	10,000,000
안 병 균	나산면출신, 서울 초원의 집 사장	5,000,000
이 재 관	일신중기 사장, 광주시	5,000,000
권 병 위	함평읍 기각리	5,000,000
나 대 환	함평읍출신, 동대문구 창신동	2,000,000
장 계 섭	〃 광주시 서석동	2,000,000
김 호 신	광주시 광산동 69-5	2,000,000
신 대 규	광일토건 사장, 광주시 월산동	2,000,000
이 상 순	대동면 향교리	2,000,000
홍 양 희	신광면출신, 서울 아마존 사장	1,000,000
박 종 균	관악구 노량진, 경성외과	1,000,000
천 병 준	광주시 문화동 480-15	1,000,000
전 명 남	손불면출신, 광주시 서석동 46-4	1,000,000
박 승 진	마포구 아현동 614-24	1,000,000
김 민 규	함평읍출신, 한국농산 사장	1,000,000
박 연 록	무안군 현경면 평산	1,000,000
김 영 창	함평읍 내교리, 토건업	1,000,000
김 균 홍	김의원장, 현 광주 백운동 이주	1,000,000
이 종 영	이종영외과의원장	1,000,000
김 동 창	함평택시 사장	1,000,000
정 동 수	학교면, 흥업공장 사장	1,000,000

4. 함평군 노인복지회관(咸平郡 老人福祉會館)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전문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어코자 1998년 12월 15일 착공하여 1999년 10월 2일 준공하였다. 노인복지회관 현황과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2번지

2) 시설규모 :

• 부지 : 1,871㎡ • 연면적 : 1,059㎡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2층 (1층 : 533㎡ 2층 : 526㎡)

4) 주요시설 :

•1층 : 사무실(95.9㎡), 식당(122.3㎡), 건강관리실, 다목적실(99.2㎡)

•2층 : 대회의실(162.0㎡), 소회의실(102.5㎡), 정보화실49.6㎡)

5) 운영현황

- 근거 : 함평군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운영방법 :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 위탁운영

6) 주요운영프로그램 :

서예교실, 한글교실, 노인대학, 지회장기 읍·면 게이트볼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함평군자원봉사회운영), 시조교실, 수성보 발간 등

7) 역대지회장

대 수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1·2대	이계호(李啓厚)	1982. 03. 01 ~ 1988. 03. 31	
3·4·5·6대	한원섭(韓元燮)	1988. 04. 01 ~ 2000. 03. 31	
7대	조윤형(趙潤衡)	2000. 04. 01 ~ 2003. 03. 31	
8대	김용서(金容瑞)	2003. 04. 01 ~ 2006. 03. 31	
9대	나상근(羅庠根)	2006. 04. 01 ~ 현 재	

제4절 군민의 날과 군민의 상(賞) 수상자

1. 군민의 날

함평군민의 날은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므로서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1979년 1월 23일에 10월 5일로 정하였다.(조례 592호)

그러나 10월 5일이 농번기여서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또 10월 5일이 풍성한 수확 철이라는 의미 외에는 우리 군과 역사적인 어떤 관련도 없어 농번기가 아닌 봄철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 1996년 2월 6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5일로 바꾸었다.(조례 1428호)

그 후 1999년 5월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가 매년 4월 말경부터 5월초에 개최하게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군민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이루어져 우리지역의 축제가 전국화 해가게 되어 군민이 축제와 함께 즐기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00년 3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여 5월 4일로 바꾸게 되었다.(조례 제1636호)

2. 함평군민의 상과 수상자

1) 군민의 상

이 상은 함평군민으로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대외에 함평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함평군민의 날에 군민의 뜻을 모아 군수가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다.

1979년에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상한 군민의 상은 1981년까지는 조례가 없이 당해년의 결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아래 수상자 내역에서 보듯이 9개 분야를 시상하였다.

이에 상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에 따라 1982년 2월 25일에 조례(제736호)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질서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안보상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1986년 9월 11일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였다.(제1040호)

개정된 내용은 시상 분야를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의 3개 분야로 하고 본상과 장려상으로 나누되 군민의상심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찬성 2/3이상이면 본상, 1/2이 넘으면 장려상, 1/2 이하면 당해년에는 수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명 투표의 폐단이 논의되어 1991년 9월 13일에 조례가 다시 개정(제1299호)되었고 이어 1994년 10월 13일(제1386호) 재개정, 1997년 9월 29일(제1510호) 재개정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시행중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시상부문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으로 한다. (제4조 1의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2인 이하로 한다. (제4조 2)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

(1)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 20인 이하의 주민 • 읍·면장

(2) 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 날 30일 전까지 한다.

(3) 군민의 상의 부상은 금 37.5g 범위 내에서 한다. (제8조 ②)

(4) 이중 수상 금지 (제10조)

2) 군민의 상 수상자

연 도	부 문	성 명	주 소	상구분	참 고
1979	교 육 · 체 육	함평중고등학교			
1980	문 화 예 술	천 학 실	엄 다 면		
	교 육 체 육	김 재 란	학 교 면		
	사 회 복 지	이 재 욱	나 산 면		
	새 마 을 사 업	박 순 구	해 보 면		
	식 량 증 산	김 영 기	나 산 면		
1981	국가안보 및 충성	노 병 도	함 평 읍		
	효 자 · 열 녀	이 금 례	엄 다 면		
	향 토 방 위	김 명 종	대 동 면		
	교 육·체 육	김 재 길	함 평 읍		
	문 화 예 술	리 상	해 보 면		
	사 회 복 지	김 균 홍	나 산 면		
	새 마 을 사 업	정 경 열	월 야 면		
	산 업	윤 정 중	엄 다 면		
	군 정 공 로	최 창 덕	신 광 면		
1982	지역사회봉사상	김 형 태	학 교 면		
	도 의 상	김 유 성	나 산 면		
	교 육 문 화 상	이 국 헌	함 평 읍		
	새마을지도자상	임 유 광	신 광 면		
	체 육 상	노 경 선	대 동 면		
1983	지역사회봉사상	이 종 표	신 광 면		법원장 역임
	도 의 상	윤 한 식	대 동 면		
	교 육 문 화 상	김 철 수	함 평 읍		
	새마을지도자상	유 순 식	나 산 면		
	체 육 상	윤 정 부	함평농고교사		
1984	안 보 상	김 재 술	함평경찰서		
	지역사회봉사상	김 영 창	함 평 읍		
	교 육 문 화 상	리 현 석	함 평 읍		
	새마을지도자상	박 현 순	나 산 면		
	체 육 상	김 원 기	대 동 면		84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질 서 상	박 정 순	함 평 읍		
1985	지역사회봉사상	이 경 식	함 평 읍		
	교 육 문 화 상	한 안 숙			함평여자고등학교장
	체 육 상	권 갑 수	함 평 읍		
	안 보 상	노 광 섭	나 산 면		
1986	지 역 개 발 상	서 복 실	함 평 읍	본 상	
	도 의 상	임 완 택	엄 다 면	〃	

연 도	부 문	성 명	주 소	상구분	참 고
1987	도 의 상	최 복 순	엄 다 면	〃	
	지 역 개 발 상	안 인 수	나 산 면	장려상	
	교 육 문 화 상	한 진 웅	함 평 읍	〃	
	〃	정 부 진	월 야 면	〃	아시안게임 하키 금메달
	〃	모 지 영	월 야 면	〃	〃
	〃	정 계 석	월 야 면	〃	〃
1988	지 역 개 발 상	김 석 규	대 동 면	〃	
	교 육 문 화 상	김 영 남	함 평 읍	본 상	88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1989	지 역 개 발 상	이 재 관	광 주	〃	해보면 출신
	교 육 문 화 상	김 종 신	함 평 읍	〃	세계 레슬링 선수권 금메달
1990	지 역 개 발 상	정 심 영	학 교 면	장려상	
	교 육 문 화 상	윤 우 중	해 보 면	〃	
1991	지 역 개 발 상	정 병 기	서 울	본상	나산면 출신
	교 육 문 화 상	홍 준 희	손 불 면	장려상	
1992	지 역 개 발 상	안 병 균	서 울	본 상	나산면 출신
	도 의 상	이 경 자	대 동 면	장려상	
1993	지 역 개 발 상	임 재 상	학 교 면	〃	
1994	도 의 상	문 성 수	함 평 읍	〃	
1995					수상자 없음
1996	지 역 개 발 상	김 용 일	광 주	본 상	엄다면 출신
	도 의 상	최 용 임	대 동 면	장려상	
1997	도 의 상	유 영 자	함 평 읍	본 상	
1998	지역개발	안 병 호	해 보 면		
	도의	양 남 진	신 광 면		
1999	도의	박 금 엽	손 불 면		
	농수산진흥	양 연 모	학 교 면		
2000	교육문화	이 재 승	나 산 면		
	농수산진흥	김 재 봉	월 야 면		
2001	농수산진흥	장 근 섭	대 동 면		
	도의	장 관 선	경 기 도		
2002	농수산진흥	배 종 태	신 광 면		
2003	지역개발	안 종 칠	나 산 면		
	도의	전 정 희	해 보 면		
	농수산진흥	윤 자 석	해 보 면		
	교육문화	김 명 수	경 기 도		
2004	교육문화	이 문 헌	함 평 읍		
	지역개발	정 정 자	함 평 읍		
	지역개발	정 헌 천	함 평 읍		
	도의	박 선 희	서 울 시		
	교육문화	박 광 웅	학 교 면		
2005	지역개발	곽 기 환	학 교 면		
	도의	임 승 규	손 불 면		
	농수산진흥	이 만 호	대 동 면		
	교육문화	김 남 삼	광 주 시		
2007	교육문화	이 이 행	신 광 면		
	도의	김 영 택	서 울 시		
2008	지역개발	강 송 복	학 교 면		
	도의	염 춘 례	대 동 면		
	교육문화	박 문 식	함 평 읍		
	농수산진흥	김 중 연	신 광 면		
2009	도의	강 일 원	함 평 읍		
	도의	김 은 영	서 울 시		

연 도	부 문	성 명	주 소	상구분	참 고
	지역개발	노 화 섭	나 산 면		

제5절 호국충혼기록(護國忠魂記錄)

1. 나라와 겨레 위한 얼의 탑

1) 소재지 :

함평공원 <제3절 1항 함평공원을 볼 것>

2. 함평군 기미(己未) 3·1의거 열사 기념비

1) 소 재 지 :

함평공원

2) 세 운 때 :

1983년 3월 1일

3) 세운경위

1979년에 세우려고 발기하였으나 기금이 모아지지 않아 1983년 1월에 추진위원회를 발족, 3·1계(契)와 협력하여 군민의 힘을 모아 건립하였다.

4) 기념비문의 시(詩)



겨레여
자유의 상징인 이 비를 보라
생명보다 귀중한 자유의 심장(心臟)을
인고(忍苦) 딛고 일어선 산 호흡(呼吸)이여
억압을 가르고 사선(死線)을 넘어선
쟁취(爭取)의 맥박이여
그대 자유의 여신(女神)
독립의 포로
아— 어이 잊으랴
함평군의 열사들을

5) 의거 경위 비문

<함평의 3·1운동항을 볼 것>

6) 열사명단(烈士名單)

이인행 (李仁行) 김재문 (金在文) 김기택 (金箕澤) 윤의병 (尹誼炳)
정기연 (鄭琦衍) 장효섭 (張孝燮) 정용섭 (鄭龍燮) 조사현 (曺士鉉)
김용언 (金用彦) 이계동 (李啓東) 정재남 (鄭在南) 이행록 (李行錄)
모양춘 (牟陽春) 장덕환 (張德煥) 모재명 (牟才明) 김재곤 (金在崑)
김용현 (金龍鉉) 송대호 (宋大浩) 윤치선 (尹致璿) 모순기 (牟順基)
이윤상 (李閏尙) 장영안 (張永安) 정재식 (鄭在植) 편무경 (片茂景)
정영조 (鄭永祚) 김준령 (金俊玲) 윤태완 (尹泰完) 이인덕 (李仁德)
김여옥 (金汝玉) 장태중 (張太仲) 이양범 (李陽範) 최준달 (崔俊達)
이상준 (李相俊) 민정태 (閔鼎泰) 김원춘 (金源春)

3. 고(故) 반공 애국투사 추모비


반공애국투사추모비

1) 세 운 곳 :

함평공원

2) 세 운 때 :

1961년 10월 3일

3) 세운사람 :

반공 애국투사 유적 부활운동 위원회 함평중·농업고등학교 6.25전쟁의 반공 애국투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다.

4) 고(故) 반공 애국투사 명단

김경수 (金京洙) 김대자 (金大者) 김동엽 (金東燁) 김만병 (金萬炳)
김상환 (金相煥) 김세두 (金稅斗) 김세윤 (金稅允) 김영일 (金永日)
김영자 (金永子) 김녕화 (金寧和) 김이용 (金利龍) 김점수 (金點守)
김종구 (金宗九) 김종열 (金宗烈) 김종현 (金宗鉉) 김창열 (金昌烈)
나순이 (羅順伊) 도상동 (都相東) 박상영 (朴相榮) 박중구 (朴重九)
백덕인 (白德寅) 백덕영 (白德瑛) 손인섭 (孫仁燮) 송성만 (宋成萬)
신천석 (辛千石) 심기운 (沈棋雲) 유창호 (柳昌浩) 이갑재 (李甲宰)
이기연 (李奇演) 이재문 (李在文) 이재복 (李載福) 이정수 (李廷秀)
임언택 (林言澤) 임정순 (林丁順) 장순옥 (張順玉) 정창수 (鄭昌洙)
정춘길 (鄭春吉) 조동신 (趙東臣) 지철상 (池哲相) 최석기 (崔錫基)

4. 순직 경찰관 추도비


순직 경찰관 추모비

1) 소 재 지 :

함평경찰서 정원

2) 세 운 때 :

1949년 4월 이 추도비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군내는 물론 지리산등에 준동하던 공비 소탕전에 참전하여 순국한 경찰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당시 경찰서장이던 최신방(崔新芳)이 주선하여 세웠다.1950년 7월 22일 공산군의 함평 진입이 목전에 있을 때 비문석(碑文石)만을 떼어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1951년 봄에 다시 세운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3) 봉안영령(奉安英靈)

이길행 (李吉行)　　이군행 (李君行)　　신성균 (申聖均)　　김용암 (金龍岩)

김진우 (金鎭宇)　　양관진 (梁官珍)　　김태권 (金太權)　　주덕식 (周德植)

김춘곤 (金春坤)　　박동열 (朴東烈)　　지성해 (池成海)　　선우광천 (鮮于光天)

김정중 (金正中)　　윤종학 (尹鐘學)　　이재은 (李載殷)　　원용환 (元容煥)

이상 경사(警査)

경감　최환현 (崔亙鉉)

순경　박기만 (朴基萬)

이 순직경찰 추도비에 1980년 5월에 순직한 4위(四位)를 봉안했는데 이들은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에 광주에서 순직하였다.

경사　정충길 (鄭忠吉)

경장　이세홍 (李世鴻)　강정웅 (姜貞雄)　박기웅 (朴基雄)

5. 문장3·1만세 기념탑



1) 소재지 :

해보면 금덕리 135번지

2) 세운 때 :

2008년 4월 4일

3) 세운경위 :

이곳 우리 문장은 1919년 4월 8일 장날을 택하여 이인행 외 23명의 열사 주도하에 이기환, 김재순, 이순형 등 수많은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하늘높이 외치며 왜놈의 헌병들과 맨주먹으로 싸워 선혈을 흘린 독립투쟁의 현장이다.

이에 이 민족의 피맺힌 분노의 불길은 함평군일원으로 퍼져 독립만세를 외치던 투사들은 악랄한 왜병의 총칼에 끌려가 투옥 옥사 고문치사 당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슬프지 않으랴

오호 민족 재단에 목숨바친 열사들의 의성이 헛되지 않고 드디어 조국광복 되었으니 이 거룩한 거사야말로 청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도다.

함평군중은 순절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고자 뜨거운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다.

함평군민 일동

4) 4·8 문장장터 독립만세 사전결의

1919년 4월 8일은 폭압적 일제 무단정치에 목숨 걸고 저항하고자한 최초의 지역유림의 높은 양심이 솟구친 날이다.

문장장처 4·8 만세운동은 독립쟁취라는 민족의 염원을 달성키 위해서이다.

그때 낙영재에서 태극기 1,600개와 격문을 제작한 사전결의의 숭고한 얼과 넋을 영원히 기리고자 조형되었다.

5) 사전결의에 참여한 열사

이인행(李仁行)　이윤상(李潤相)　김기택(金箕澤)　장효섭(張孝燮)　정재남(鄭在南)
정재식(鄭在植)　정용섭(鄭龍燮)　장영안(張永安)　모재명(牟才明)　김여옥(金汝玉)
이양범(李陽範)　이상준(李相俊)　장덕환(張德煥)　장태중(張太仲)　이계동(李啓東)
김용현(金龍鉉)　김재곤(金在崑)　최준달(崔俊達)　모양춘(牟陽春)　민정태(閔鼎太)
이인덕(李仁德)　김원태(金源泰)　주승환(周昇煥)　윤의병(尹誼炳)

6) 4·8 문장장터 독립만세 현장

기미년 4월 8일 오후 2시 문장장터에서 애국지사 24인이 선봉에 서서 나라사랑, 자주독립의 높은 뜻을 일깨우고 수백명의 주민들이 호응하여 민족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독립쟁취 저항운동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소리 진동했다.

겨레여 자유의 상징인 이 탑을 보라
생명보다 중한 겨레의 맥박이여
그대 자주독립의 혼
아 어이 잊으리 함평의 우국 열사들을

7) 함평 문장장터 4·8만세소리

겨레여 겨레여 자주독립의 기개 꺾을 수 없었기에
쇠 녹여 불덩이 일렁이듯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일제에 항거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만세를 불렀노라
만세소리 조국의 힘이 되었노라 만세소리 조국의 희망이 되었노라
우국열사들이여 그 뜻 받들어 우리 굳게 뭉치고자
오늘 그 뜻 새겨 놓으니 영원히 빛나소서 나라의 빛이 되소서

제 6 절 사회단체

1. 국가관련단체 (國家關聯團體) - 무순(無順)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1) 소재지: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함평군청내 4층

(2) 설립목적: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3) 민주평통 연혁

- 1980. 10. 2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 명시
- 1981. 03. 14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법률 제3383호)
- 1981. 04. 0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 공포(영 제10276호)
- 1987. 10. 29 : 헌법 9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변경
- 1988. 02. 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개칭 (법률 제4000호)
- 1998. 02. 2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영 제15705호)
- 1999. 05. 2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직제」 공포(영 제16364호)
  통일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
- 2002. 01. 2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영 제17493호)

(4) 자문위원수: 388 명

기 수	자문위원수	기수	자문위원수	기수	자문위원수
1기	25명	6기	25명	11기	23명
2기	27명	7기	23명	12기	46명
3기	27명	8기	22명	13기	34명
4기	25명	9기	22명	14기	40명
5기	25명	10기	24명		

(5) 주요활동실적

《활동목표》'통일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첫째 :** '실용적 정책건의' 추진으로 남북 상생·공영에 기여 – 남북관계 현안 및 중장기 통일 대비 과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실현

– 국내외 지역협의회 활동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현장의 통일 여론수렴 강화

• **둘째 :** '통일무지개운동' 전개로 국민통합 선도 및 통일시대 준비– 10만 통일 일꾼(통일준비위원)을 양성하여 통일시대 준비

– 국민참여형 통일운동 전개로 소통의 열린 통일문화 창달

• **셋째 :**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속의 통일한국 실현 기반 구축– 해외지역협의회를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육성

– 재외동포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동포사회 통일에너지 결집

• **넷째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한 국민속의 민주평통 구현

– 새터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해 원칙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6) 역대 협의회장

직 위	기수	성 명	기 간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기	김 재 길	1981. 06. 01 ~ 1983. 05. 31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2기	김 재 길	1983. 06. 01 ~ 1985. 05. 31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3기	김 재 길	1985. 06. 01 ~ 1987. 05. 31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4기	김 민 수	1987. 06. 01 ~ 1991. 06. 28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5기	정 원 강	1991. 06. 29 ~ 1993.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6기	이 연 행	1993. 07. 01 ~ 1995.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7기	윤 표	1995. 07. 01 ~ 1997.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8기	윤 표	1997. 07. 01 ~ 1999.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9기	박 래 옥	1999. 07. 01 ~ 2001.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0기	박 래 옥	2001. 07. 01 ~ 2003.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1기	박 래 옥	2003. 07. 01 ~ 2005.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2기	박 세 영	2005. 07. 01 ~ 2007. 06. 30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3기	곽 기 환	2007. 07. 01 ~ 2009. 06. 30

직 위	기수	성 명	기 간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	14기	노 화 섭	2009. 07. 01 ~ 현 재

2)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함평군협의회

(1) 소 재 지 : 함평읍 함평리 154-1

(2) 연　　혁

•1979. 05　　: 통일꾼 모임으로 출발
•1981. 04. 25　　: 민족통일 함평군협의회 창회

(3) 회　　원 : 창립회원 33명. 1997년 말 회원 25명

(4) 목　　적

정부차원의 통일안보 보다 민간 주도가 대중사회 침투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통일원 산하에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중요 사업

· 민족통일 촉진대회 개최
· 통일현장 답사 교육
· 통일교육 연수
· 경제살리기운동 전개
· 이북 동포 돕기운동 전개
· 통일연찬회 개최
· 통일의식 홍보교육 및 강연회개최

(6) 역대 회장

•1대　김동식(金東植)　1981. 4. 25 ~ 1988 도협의회장 역임
•2대　모정신(牟正信)　1989 ~ 1990
•3대　이재연(李載連)　1991 ~ 1995 도협의회장 역임
•4대　최판덕(崔判德)　1996 ~ 현 재

3)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연　　혁

•1963, 12, 05 : 한국반공연맹법 제정
•1964, 01, 15 : 한국반공연맹 설립

•1967, 07, 01 : 한국반공연맹함평군지부 설립
•1989, 04, 01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설립
•2009. 03. 19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명칭변경

(3) 회원수 : 1,906명

(4) 주요업적

•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통일대비 6,25 전후 출생 고등학생 교육
•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및 홍보관련사업

(5) 역대 지부장

<한국반공연맹 함평군지부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건 영	1964 . . ~ 1969. 05. 20
2	문 종 현	1969. 05. 21 ~ 1971. 05. 30
3	권 병 위	1971. 06. 01 ~ 1978. 06. 09
4	이 상 순	1978. 06. 10 ~ 1981. 05. 17
5	김 영 창	1981. 05. 18 ~ 1989. 04. 03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지부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김 영 창	1989. 04. 04 ~ 1993. 06. 20
2	최 덕 균	1993. 06. 21 ~ 1994. 12. 31
3	곽 기 환	1994. 01. 01 ~ 2003. 07. 31
4	노 갑 진	2003. 08. 01 ~ 2006. 03 19
5	전 일 정	2006. 03. 20 ~ 2009. 07. 08
6	선 종 승	2009. 07. 09 ~ 현 재

4)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부녀회

(1) 창 립 : 1989. 04. 01

(2) 회원수 : 120명

(3)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조 춘 자	1983. 01. 20 ~ 1985. 01. 19

2	신 정 순	1985. 01. 20 ~ 1991. 01. 19
3	김 미 자	1991. 01. 20 ~ 2001. 12. 31
4	정 경 림	2002. 01. 01 ~ 2005. 12. 31
5	김 윤 자	2006. 01. 01 ~ 현 재

5) 한국참전자회 함평군지회

(1)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332번지

(2) 회원수 : 350명

(3) 연　혁 : 1986, 7, 20 발족

(4) 중요업적 : 향토·방위 승공안보강화

(5) 역대회장 : 초대 박재환(朴在煥)　1986, 7, 20 ~ 현재

6) 함평문화원

(1)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555번지

■ 연락처 061)322-0505　　■ 이메일 : hpc0505@hanmail.net

(2) 연　혁

■ 1954. 07. 23 : 함평공보원 설립
■ 1964. 12. 30 : 함평문화원 창립총회
■ 1965. 02. 11 : 문화원 설립 인가 (제448호. 문교부장관)
■ 1986. 07. 01 : 사무국 설치
■ 1994. 07. 27 :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창립 총회
■ 1994. 08. 22 : 공익법인 함평문화원으로 인가 (113호)
■ 2009. 03.25~07.06 : 함평문화원 관내 9개 읍·면 분원 설치

(3) 목　적

고유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도모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업적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4) 활동상황

■ 1965. 2. 11 문교부장관 설립허가 이전에 활동하던 함평공보원은 1954년경부터 문화활동을 폈으며 1959년부터는 함평군의 문학 동호회인 문림회와 공동으로 함평군 학생글짓기대회를 주최하였고 1962년과 1963년에는 예총 함평군지부와 공동으로 제1~2회 함평군 예술제를 주최했다.

■ 남도문화제에 5회 출전 최고상 1회, 우수상 3회, 장려상 1회 수상.

■ 어르신문화학교(2006~2009) 우수상 1회 수상

■ 함평문화제 개최(1988년 1회~2009년 22회) ■ 향토문화논단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2007~2009) ■ 향토사료 수집 정리 사업

■ 한국문화학교 운영(1988~2009) ■ 향토작가 초대전

■ 함평문화의집 임대 운영(2005~2009) ■ 문화재 보호대회

■ 함평문화지 발간 보급(2008년 36호 발간)

(5) 회 원 수 : 2009년 12월 말 현재 909명

(6) 역대 원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택 헌	李 宅 憲	1965. 02. 21 ~ 1967. 11. 20
2~3	이 상	李 祥	1967. 11. 21 ~ 1988.
4~5	박 정 순	朴 程 淳	1988. 04. 19 ~ 1996. 04. 18
6~7	서 복 실	徐 福 實	1996. 04. 19 ~ 2004. 04. 18
8	이 현 석	李 炫 石	2004. 04. 19 ~ 2008. 04. 18
9	정 원 강	鄭 元 強	2008. 04. 19 ~ 2009. 12. 31
9	이 진 행	李 辰 行	2010. 02. 11 ~ 현 재

<자료제공 : 사무국장 최권진(崔權鎭) >

8)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咸平郡協議會)

(1) 소 재 지 : 함평군민복지회관 내

(2) 연 혁

•1980. 01. 01 ; 함평군 사회정화 추진위원회 발족
•1986. 01. 04 ; 사회정화운동 함평군협의회로 개칭
•1989. 05. 01 ;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로 개칭

(3) 역대회장

•1~2대	리인찬(李寅燦)	1980. 01. 01 ~ 1986, 01, 10
•3대	윤한식(尹漢植)	1986, 01, 14 ~ 1996, 01. 19
•4대	양길배(梁吉培)	1996, 01, 20 ~ 현 재

9) (사) 함평군새마을회

(1) 소재지 : 함평읍 함평리 154-1 함평군민복지회관 내

(2) 연 혁

1984. 3. 30 각자 분리되어 활동을 해오던 새마을 단체를 규합하여 새마을운동에 협동적인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회를 개청하여 산하에 지역협의회, 부녀회,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청년연합회(4H회) 조직을 관장하였으나 1986. 3. 17일자로 새마을금고가 마을금고로 이관되고 1987년에 청소년연합회 조직이 농촌지도소로 이관되어 현재는 3개 단체로 지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9. 1. 30보건복지가족부지정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3) 중요 활동

- 1985. 12. 02 : 새마을운동 전국지회평가대회 우수상(자조상) 수상
- 1986. 12. 04 : 새마을운동 전국지회평가대회 장려상(노력상) 수상
- 1996. 07. : 군민대상 의료(안과) 무료봉사사업 전개. 봉사단체 서울라이온스클럽 의사회원 (186명에게 3,500만원 상당 지원)
- 1997. 01. : 새마을자원봉사센타 운영. 자원봉사 희망자 접수 및 교육
- 2000. 05. 08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3. 04. 03 : 창포재배단지 창포채취 및 분근작업 (함평읍 5,955평)
- 2003. 12. 03 : 새마을운동함평군새마을지회 국무총리단체표창
- 2005. 04. 30 : 재경함평군향우회 우호결연 협약 체결
- 2007. 05. 04 :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 우호증진 교류.협약체결
- 2007. 10. 05 : 새마을운동함평군새마을지회장 노화섭 대통령 수상
- 2007. 12. 10 : 대동면재활용품창고 건립(40㎡)
- 2008. 01. 02 : 잔디재배단지 조성 (14,850㎡)
- 2008. 03. 21 : 새마을운동함평군새마을지회 환경부장관 표창
- 2009. 01. 30 : 보건복지가족부지정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 2009. 03. 19 : '08년도 지회종합평가부문 자조상 수상 (새마을중앙회장)
- 2009. 06. 03 : 사단법인 함평군새마을회 설립등기
- 2009. 04. 03 :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383 (777㎡)토지구입
- 2009. 06. 05 : 들묵새 채종사업 (49,099㎡)
- 2009. 07. 03 : 엄다면재활용품창고 건립 (777㎡)
- 2009. 07. 15 : 함평군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제정
- 2009. 10. 28 :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내 새마을교육협력계 개칭

• 2009. 10. 30 : 녹색새마을운동함평군본부 현판식

(4) 회원수 : 2009년말 574명

(5) 역대지회장

- 1~2대 이우행(李友行) 1984. 01. 01 ~ 1988. 02. 20
- 3~4대 이기노(李基魯) 1988. 02. 21 ~ 1992. 02. 20
- 5~8대 박성일(朴成日) 1992. 02. 21 ~ 2003. 02. 01
- 9대 박세영(朴世榮) 2003. 06. 20 ~ 2006. 07. 17
- 10~11대 노화섭(盧化燮) 2006. 07. 18 ~ 현재

10)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

(1) 회원수 : 294 명

(2) 연 혁 : 1980, 8월에 발족하였으며 산하에 9개읍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3) 중요 업적

- 1980 ~1986 : 새마을운동 국민의식 교육 전개
- 1986 ~1988 : 올림픽새마을운동 전개 : 국토공원화 꽃길 조성사업 전개
- 1986. : 기초질서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 1990. : 환경정화, 이웃사랑 봉사, 방역 봉사, 재해 봉사활동 전개
- 2001. : 서로돕는 복지공동체사업 사랑의집 고쳐주기, 1읍면1하천 가꾸기
- 2002. : 함평나비축제 자원봉사활동전개
- 2003. : 창포재배단지 창포채취 및 분근작업실시
- 2003. 12. 05 : 새마을지도자함평군협의회장 이동휴 대통령상 수상
- 2007. : 환경정화활동실시
- 2008.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자원봉사
- 2009. 01. 29 :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표창(종합평가부문 최우수단체)
- 2009. 12. 09 : 새마을지도자함평군협의회장 장갑석 새마을포장 수상

(4) 역대협의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 2	임 유 광(林柳光)	1980. 08. 17 ~ 1984. 12. 31
3 ~ 4	이 기 노(李基魯)	1985. 01. 01 ~ 1988, 12. 31

대	성 명	재 임 기 간
5 ~ 6	채 대 두(蔡大斗)	1989, 01. 01 ~ 1992, 12, 31
7 ~ 9	전 갑 채(全甲宋)	1993, 01, 01 ~ 2000. 01. 31
10	이 건 백(李建栢)	2000. 02. 01 ~ 2001. 01. 31
11~12	이 동 휴(李東休)	2001. 02. 01 ~ 2006. 02. 05
13~14	장 갑 석(張甲錫)	2006. 02. 06 ~ 현 재

11) 함평군새마을부녀회

(1) 회원수 : 270명

(2) 연 혁 :

1980년 8월 17일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로 발족하여 공동보조취하고 있다

(3) 중요 활동

- 1986. : 환경정화 차원에서 폐품수집과 재활용운동 전개
- 1990. :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 2001. : 서로돕는 복지공동체 사랑의집고쳐주기, 김장나누기, 목욕, 빨래봉사, 불우이웃돕기전개
- 2002. : 함평나비축제자원봉사활동전개
- 2006.12.14 : 함평군새마을부녀회장 강송복 새마을훈장 노력장 수상
- 2007. : 함평나비마라톤 음식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실시
- 2008.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자원봉사
- 2009. : 국향대전자원봉사
- 2009.02.03 :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장표창(종합평가부문 최우수단체)

(4)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채 연 순 (蔡連順)	1980. 01. 01 ~ 1982. 12. 31
2~3	천 옥 자 (千玉子)	1983. 01. 01 ~ 1986, 12. 31
4	이 춘 자 (李春子)	1987. 01 01 ~ 1988, 12, 31
5~6	이 귀 순 (李貴順)	1989. 01 01 ~ 1992, 12, 31
7	장 경 례 (張璟禮)	1993. 01 01 ~ 1993, 12, 31
8	김 정 순 (金正順)	1994. 01 01 ~ 1994, 12, 31
9	김 봉 순 (金奉順)	1995. 01 01 ~ 1996, 12, 31
10~11	양 귀 님 (梁貴任)	1997. 01 01 ~ 2003. 02. 25
12~13	강 송 복 (姜松福)	2003. 02. 26 ~ 2009. 01. 22

14	정 경 임 (鄭京任)	2009. 01. 23 ~ 현　　재

12)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

(1) 회원수 : 18명

(2) 연　혁 : 1980년 12월에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로 개청하여 산하 이(里)단위에 2~3개 단위문고를 운영하였으나 농촌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단위문고를 통폐합하여 면 소재지에 구심(求心)문고를 개설 9개 구심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3) 중요 업적

- 1985. : 농어촌 양서 보내기 운동 전개
- 1986. :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 운영(독후감 작성 및 발표회 ,교양강좌)
- 1993. : 읍·면구심문고 육성지원
- 2002.~ 2009 : 국민독서경진함평군예선대회 우수독후감선집발간(8회) 문고자료보급 (4,000권), 피서지환경안내소운영
- 2009. 02. 12 : 전라남도지사표창 (종합평가부문 최우수단체)
- 2009. 12. 22 : 전라남도지사표창 (새마을문고운영부문)

(4)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4	김 휘 남 (金輝南)	1980. 01. 01 ~ 1988. 12. 31
5~6	박 성 일 (朴成日)	1988. 01. 01 ~ 1991, 12. 31
7~9	박 현 순 (朴賢淳)	1992, 01. 01 ~ 2002. 02. 19
10~11	정 정 조 (鄭政照)	2002. 02 .20 ~ 2007. 02. 20
12대	이 동 휴 (李東休)	2007. 02. 21 ~ 현　　재

<새마을 단체 자료 제공 : 사무국장 조강희(趙 康 熙)>

13) 대한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1) 소 재 지 : 함평군민복지회관 내

(2) 목　　적

이 회는 상이군경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6.25전쟁 후 설립했다.

(3) 연　혁

•1951. 05. 15 : 대한상이군인회 함평군분회로 발족

•1953. 10. 01 : 대한상이용사회 함평군분회로 개칭
•1963. 08. 23 : 원호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89호)에 의하여 대한상이군경회 함평군분회로 개칭
•1985. 06. 15 : 대한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로 개칭

(4) 회 원 수 : 101명

(5) 역대 분, 지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박 재 천	朴 載 天	1951 ~ 1953
2	이 동 기	李 東 基	1953 ~ 1957
3	문 홍 길	文 洪 吉	1957 ~ 1968
4	윤 용 병	尹 用 炳	1968 ~ 1988. 07. 29
5	김 석 규	金 石 奎	1988. 07. 30 ~ 1992. 09. 30
6	양 남 진	梁 南 鎭	1992. 10. 01 ~ 현 재

14) 대한민국 전몰(戰歿)군경미망인회 함평지회

(1) 사 무 소 : 함평군민복지회관 내

(2) 연 혁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89호에 의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설립되고 동법 제5조에 의거 함평군 분회가 1963년 8월 24일에 설립되었다.
•1989. 1. 1 단체 설립법 제4073호에 의해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라남도지부 함평지회로 개칭

(3) 회 원 수 : 82명

(4) 역대 분,지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망 례	李 望 禮	1963. 08. 24 ~ 1967.
2	한 순 자	韓 順 子	1967. . ~ 현 재

1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

(1) 사 무 실 : 함평읍 함평리 153

(2) 연　　혁

1963. 8. 23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분회로 발족
1985. 6. 1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로 개칭

(3) 주요활동

매년 6월 6일 현충일 때 유족과 군민 다수가 참여하여 봉안된 영령에게 위령제를 모시고 있다.

(4) 회원수 : 89명

(5) 역대 분,지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이 종 만	李 宗 萬	1963. 08. 24 ~ 1980. 09. 30
2	박 석 규	朴 石 奎	1980. 10. 07 ~ 1997. 03. 03
3	장 서 인	張 瑞 仁	1997. 03. 04 ~ 현　　재

16)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함평군지회

(1) 소 재 지 : 함평군민회관 내

(2) 회 원 수 : 56명

(3) 연　　혁

•1989. 04. 25 : 대한무공수훈자회 함평·영광지회 발족
•1991. 12. 29 : 법률 제4458호로 특수법인 공포와 함께 영광지회와 분리함
•1994. 12. 02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함평지회로 명칭 변경
•1996. 12. 29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법률 제5120호)

(4) 주요활동

•국경일, 기념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국가유공 무공수훈자 전공 기념비 건립

(5) 역대 지회장

•초대~4대　　박춘원(朴春元)　　1989. 04. 25 ~ 현　재

17) 재건국민운동 함평군지부

5.16 후 국가 재건에 활력을 넣기 위해 1963년에 발족 군민의 의식개혁과 국가 재건사업에 공을 세웠다. 이 단체는 1973년에 새마을금고연합회 함평군지부로 개칭되었다가 1980년대에 해체하였다.

(1) 역대지부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1	홍 순 호	1961. ~ 1962	
2	박 행 석	1962. ~ 1965	
3	김 유 원	1965. ~ 1967	
4	한 원 섭	1968. ~ 1976. 03. 22	
5	김 휘 헌	1976. 03. 22 ~ 1979. 10. 16	마을금고 연합회 함평군지부로 개칭
6	이 우 행	1979. 12. 12 ~	해체함

18) 함평군재향군인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증진 이바지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민족 통일에 이바지

(3) 연 혁

- 1951. 12. 20 : 재향군인회 함평군연합분회 창립총회
- 1954. 01. 01 : 제대장병보도회로 이름을 바꿈
- 1957. 02. 10 : 대한상무회 함평군연합분회로 개칭
- 1960. 05. 20 : 재향군인회 함평군연합회로 개칭

(4) 회원수 : • 정회원 : 1,500명
• 여성회원 : 50명

(5) 주요활동실적

- 안보교육 연2회 500명(민간 학생)
- 사회봉사, 사회단체 및 불우회원 위문
- 6,25 참전용사 조직 및 예우
- 불우회원(6,25 참전용사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 장학금 지급

(6) 역대 회장

구분 / 대수	성 명	군 별	군 계 급	선 임 일	기 간
1대	윤 용 병	육 군	상 사	1951. 12. 20	12개월
2대	노 재 영	〃	하 사	1953. 12. 30	10개월
3~5대	유 판 옥	〃	대 위	1954 .10. 20	86개월
6~7대	김 민 수	〃	대 령	1961. 12. 25	46개월
8~13대	유 판 옥	〃	대 위	1965. 10. 20	122개월
14대	서 복 실	〃	소 령	1975. 12. 15	24개월
15대	양 기 두	〃	병 장	1977. 12. 15	24개월
16대	이 건 진	해 병	상 병	1979. 12. 20	12개월
17~18대	양 기 두	육 군	병 장	1980. 12. 20	60개월
19대	김 국 성	〃	대 위	1985. 12. 11	36개월
20~21대	서 복 실	〃	소 령	1988. 01. 26	72개월
22대	방 재 호	〃	소 위	1994. 01. 17	36개월
23대	장 영	〃	병 장	1997. 03. 20	36개월
24~25	이 복 동	〃	준 위	2000. 01. 25	36개월
26~27	조 성 술	〃	병 장	2006. 01. 10	현 재

<자료 제공 : 박문봉>

20) (사)함평생태관광협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2) 설립목적 :

함평군 농촌생태 관광 공급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 상호간 교육, 세미나, 마케팅기법 등 학습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의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 2009.06.22 : 전라남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
- 2009.07.10 : 법인설립 등기
- 2009.07.14 : 나주세무서 고유번호(사업자등록)등록

(4) 회원수 : 240명

(5) 주요활동실적 :

- 함평생태관광안내자 교육실시(2009.08.14-2009.10.28) 안내자 33명 배출활동
- 함평 애벌레 곤충학교 운영(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역대회장 :

제 1 대 : 2009.07.10 ~ 현재까지 회장 : 고 일 석 사무국장 : 이 건 종

21)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6-4번지

(2) 설립목적 : 저소득층 자활 · 자립지원

(3) 연　　혁 :

- 2003.08.01 : 전남함평자활후견기관 설립
- 2003.10.06 : 자활근로사업 시작
- 2004.11.01 : 복권기금가사간병사업 시작
- 2006.02.23 : 자활공동체 함평집수리 설립승인

※현 나비학교청소조합, 솔내음 새송이, 천지솜씨방 등 4개소

- 2007.03~04 :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생활지원기관지정
- 2007.07.01 :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로 개칭
- 2009.03.16 : 도우누리 노인복지센터 설립(방문요양, 방문목욕)

(4) 회 원 수 : 110명

(5) 주요활동실적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실시

○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 생산, 버섯흑염소 사육, 청소용역, 장애아동 통합보조, 취약계층 무료반찬 · 청소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 실시 24명 참여

○ 복권기금가사간병,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생활지원 총 수혜자 148명

- 도우누리 재가노인요양기관운영 : 수혜자 21명

○ 주거현물급여사업, 새송이 버섯, 생활한복 및 천연염색 소품생산, 관내 초등학교 대상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참여

(6) 역대회장 : 초대 관장 장 성 대

22) 민족통일 함평군협의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군민복지회관 내)

(2) 설립목적 :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1979. 01. 24 : 중앙협의회 창립
- 1981. 02. 27 : 사단법인 등록
- 1981. 05. 14 : 함평군협의회 창립

(4) 회 원 수 : 38명(2009. 12.5 현재)

(5) 주요 활동

- 민족통일의식계도사업
- 민족통일촉진대회
- 통일연수교육
- 애향운동전개
- 통일촉진워크샵 등

(6) 역대 회장

- 초대 김동식
- 2대 이재연
- 3대 최판덕,
- 4대 곽기환,
- 5대 모정원

23) 대한민국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1) 설립목적 :

6·25전쟁의 교훈을 연구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과호국안보의식고취

(2) 연혁 :

- 1986. 07. 20 : 발족
- 2001. 05. 16 : 사단법인 6.25참전 전우기념 사업회
- 2004. 03. 26 :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 2008. 10. 21 : 대한민국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3) 회원수 : 264명

(4) 주요활동 실적 :

- 6·25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 6월 25일 6·25기념행사 거행
- 군민 안보교육 실시
-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 함평군청 주요행사시 자연보호 활동실시

(5) 역대회장 : 초대 박 재 환 (朴在煥) 1986, 7, 20 ~ 현재

〈자료재공 : 사무국장 조병복〉

24) (사)대한민국 베트남첨전유공전우회 전남도지부 함평군지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83번지



(2) 설립목적 :

베트남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고, 친목과 단결로 회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참전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기여하고 참전의 대의를 역사 속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향군의 친목단체로서 향군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 연혁 : · 2001년 4월 16일 설립

· 2008년 6월 12일 사단법인 허가 (2008-87호)

(4) 회원수 : 120명

(5) 주요활동 실적 : · 호국 순례 및 안보교육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

· 다문화 가족(베트남 이주여성)과 양부, 양녀결연 및 위안행사

(6) 역대 회장 : 제 1 대 김일남(金一男)

25)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346-7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KOREA SEED & VARIETY SERVICE

(2) 설립목적 :

주요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정선소독 및 농가공급(벼, 보리, 콩, 밀 등 4곡종)

- 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3) 연혁

- 1977. 10. : 국립종자공급소 함평지소 설치(농림부 소속)
- 1979. 08. : 종자정선공장 준공 및 정선개시
- 1994. 12. : 종자공급소 함평지소로 직제개정(농촌진흥청 소속)
- 2000. 08. :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로 직제개정(농림부 소속)
- 2006.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07. 11.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직제개정(농림수산식품부 소속)

(4) 직원수 : 4급기관장 등 15명

(5) 주요활동 실적(2009년도 실적)

- 벼 보급종 생산 : 5,260톤
- 보리 보급종 생산 : 1,546톤
- 밀 보급종 생산 : 32톤
- 콩 보급종 생산 : 233톤

(6) 역대 지원장

	성 명	전근무지	전입일자	근무년수	전출일자	전출기관	비 고
1	김정기	농수산부	'77.10.01	10월	'78.08.15	종자공급소 생산과	
2	김한수	농수산부	'78.09.04	1년1월	'79.10.22	국립자재검사소 생물검사과장	
3	한상문	국립자재검사소	'79.11.13	3월	'80.02.13	의원면직	
4	최도한	식물검역소부산지소	'80.02.26	2년4월	'82.08.12	밀양지소장	
5	홍춘선	밀양지소장	'82.08.12	3년5월	'86.01.10	농업공무원 교육원	
6	김병기	농수산부 특작국 특작과	'86.01.10	3년	'89.01.05	농수산부 (국방대학원파견)	
7	김현수	국립자재검사소생물검사과(승진)	'89.01.21	-	'89.02.03	의원면직	
8	임관희	과수화훼과	'89.02.03	3년6월	'92.08.14	농업공무원교육원 교수부	
9	오대환	농산국식물방역과	'92.08.14	1년2월	'93.10.20	농수산부	
10	안광욱	농업협력통상관실	'93.10.20	3월	'94.01.10	농수산부	
11	진용태	국립식물검역소 서울지소장	'94.03.31	10월	'95.01.07	식물검역소 병균조사과장	
12	심재천	농산국 농산과	'95.01.07	1년	'96.01.19	농업공무원 교육원	
13	배인태	농림수산부	'96.01.19	2년1월	'98.02.20	재배시험과장	

	성 명	전근무지	전입일자	근무년수	전출일자	전출기관	비 고
14	신인균	생산과장	'98.03.12	4월	'98.07.07	생산보급과장	
15	조원환	농산원예국 과수화훼과	'98.08.26	1년10월	'00.07.01	평택지소장	
16	정운채	재배시험과	'00.07.01	11월	'01.05.31	강원도전출 (대관령지소장)	
17	안영수	과수화훼과	'01.06.01	1년	'02.06.18	해외연수(미국)	
18	강철구	품종심사과	'02.06.18	8월	'03.02.03	안동지소	
19	신동하	국방대학원	'03.02.03	2년5월	'05.07.04	농관원전남지원	
20	신창호	농업구조정책	'05.07.04	1년	'06.07.14	본부(해수부파견)	
21	민주석	농림부	'06.07.14	7월	'07.02.12	식검(중부격리재배)	
22	이명진	식량정책과	'07.02.12	11월	'07.12.31	명예퇴임	
23	박순연	정책조정과	'08.01.01	16월	'09.04.30	식검(인천공항지원)	
24	신동하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09.05.01	현재			

26) 함평군산림조합



(1)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1-4번지

(2) 설립목적: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연혁:

- 설립등기(특수법인)
- 1980년 산림조합법 독립제정(공법인)
-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임명제 → 직선제)
-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개정(함평군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7년 조합 청사 준공
- 1998년 임산물직매장 개장 및 상호금융업무 개시
- 2000년 산림조합으로 개편(함평군산림조합으로 개칭)

(4) 회원수: 4,693명

(5) 주요활동 : 산림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① 교육 · 지원사업

조합원의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및 지도, 농산촌생활 환경개선과 문화향상,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의 사업과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

② 경제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하고,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 · 가공 · 판매 · 알선 · 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외소득증대사업,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 · 판매 · 알선,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의 채취 · 보관 · 육성 · 판매 ·알선, 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 임목 · 임야의 매매 · 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설 및 판매 및 보관사업

③ 산림경영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산림보호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임도의 시설 및 보수 · 사방 ·산림 형질 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휴양림 · 삼림욕장 · 임간수련장 · 산림박물관 · 수목원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 · 관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④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조합원의 유가증권 · 귀금속 ·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행

⑤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역대 조합장

직 위	순 위	재직기간	성 명	비 고
함평군산림조합장	1	1962. 06. 21~1963. 02. 18(8월)	김동근	
,,	2	1963. 02. 19~1965. 02. 18(2년)	,,	
,,	3	1965. 02. 19~1968. 02. 18(3년)	문종현	
,,	4	1968. 02. 19~1971. 02. 19(3년)	,,	
,,	5	1971. 02. 20~1972. 11. 25(1년9월)	김병기	
,,	6	1973. 10. 31~1974. 02. 19(3월19일)	박중균	
,,	7	1974. 02. 20~1977. 02. 19(3년)	,,	
,,	8	1977. 04. 06~1980. 04. 05(3년)	장재규	
,,	9	1980. 04. 06~1983. 04. 05(3년)	,,	
,,	10	1983. 04. 06~1986. 04. 05(3년)	,,	

직 위	순 위	재직기간	성 명	비 고
,,	11	1986. 04. 06~1989. 07. 01(3년2월)	서복실	
,,	12	1989. 07. 02~1993. 07. 01(4년)	,,	
,,	13	1993. 07. 02~1997. 07. 01(4년)	나상주	
,,	14	1997. 07. 02~2001. 07. 01(4년)	,,	
,,	15	2001. 07. 02~2005. 07. 01(4년)	,,	
,,	16	2005. 07. 02~2009. 07. 01(4년)	이승동	
,,	17	2009. 07. 02~2013. 07. 01(4년)	,,	

27) 함평축산업협동조합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3번지

(2) 설립목적 :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 1973. 04. 23 : 함평군축산업협동조합설립
- 1979. 01. 25 : 초대 이 재 연 조합장 취임
- 1982. 04. 23 : 축협 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
- 1994. 03. 18 : 제6대 안 병 호 조합장 취임
- 1997. 07. 17 : 축산물 종합판매장 개장
- 1995. 02. 17 : 함평가축시장 재건축 개장
- 1995. 02. 24 : 94년 회원조합업적평가 결과 전국 우수조합상 수상
- 1996. 02. 28 : 95년 회원조합업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조합상 수상
- 1996. 04. 19 : 한우생축사업장 준공
- 1998. 03. 15 : 섬유질사료공장 준공
- 2005. 09. 17 : 송아지전자경매시장 개장
- 2006. 03. 17 : 제9대 임 희 구 조합장 취임

(4) 회원수 : 조합원수 - 2,200명

(5) 주요활동실적

- 1995년 : 회원조합 업적평가결과 전국우수조합상 수상
- 1996년 : 회원조합 업적평가결과 전국최우수조합상 수상
- 2006년 :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한우부분 위생안전상 수상
- 2007년 : 함평천지한우 전남대학교 1호 무항상제 인증획득
- 2008년 :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 한우생축사업장 HACCP인증 획득
- 2009년 : 함평천지한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인증 획득

(6) 역대 조합장

구 분	성 명	한 자	재 임 기 간
초대	이 재 연	李 載 連	1979. 01. 25 ~ 1982. 01. 24
2~5대	이 재 연	李 載 連	1982. 01. 25 ~ 1994. 03. 17.
6~8대	안 병 호	安 病 鎬	1994. 03. 18 ~ 2006. 03. 17.
9대	임 희 구	林 喜 求	2006. 03. 18 ~ 현 재

2. 국제봉사단체 (國際奉仕團體)

※ 설립순에 의함.

1) 국제라이온스협회 309지구 함평클럽

(1) 사 무 소 : 함평읍 함평리

(2) 연 혁

- •창 립 : 1973. 02. 09
- •헌장승인 : 1973. 4. 16(전남에서 20번째)
- •1990. 04. 21 : 제17차 지구연차대회에서 우수 클럽으로 선정
- •1991. 04. 27 : 제18차 지구연차대회에서 협동상 수상
- •1992. 04. 18 : 제19차 지구연차대회에서 봉사상 수상
- •1993. 05. 13 : 제20차 지구연차대회에서 우수클럽상 수상
- •1996. 06. 12 : 제23차 지구연차대회에서 인화봉사대상 수상

(3) 활동 상황

헌장 정신을 받들어 불우이웃돕기, 의연금 , 장학사업, 위문금, 방위성금, 지역사회 봉사 등 각종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회원간의 친목도 다지고 있다.

특히 1996년에 시행한 무료안과개안수술(890명 검진. 78명 수술)은 군민으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았다.

(4) 회 원 수 : 46명(1997. 4월 말 현재)

(5)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3	이 재 욱	1973. 02. 09 ~ 1976. 02. 08	15	지 광 선	1987 ~ 1988
4	장 홍 규	1976. 02. 09 ~ 1977. 02. 08	16	노 경 수	1988 ~ 1989
5	김 동 식	1977. 02. 09 ~ 1978. 02. 08	17	박 성 일	1989 ~ 1990
6	천 병 화	1978. 02. 09 ~ 1979. 02. 08	18	박 행 용	1990 ~ 1991
7	정 영 수	1979. 02. 09 ~ 1980. 02. 08	19	노 홍 귀	1991 ~ 1992
8	이 상 만	1980. 02. 09 ~ 1981. 02. 08	20	지 재 갑	1992 ~ 1993
9	최 수 원	1981. 02. 09 ~ 1982. 02. 08	21	이 재 덕	1993 ~ 1994
10	문 성 수	1982. 02. 09 ~ 1983. 02. 08	22	윤 병 업	1994 ~ 1995
11	김 균 홍	1983. 02. 09 ~ 1984. 02. 08	23	윤 양 중	1995 ~ 1996
12	김 재 길	1984 ~ 1985	24	신 동 명	1996 ~ 1997
13	이 상 근	1985 ~ 1986	25	김 용 실	1997 ~ 1998
14	조 형 섭	1986 ~ 1987			

2) 국제라이온스협회355-B2지구 함평태양클럽

(1) 사무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9-7

(2) 창립일 : 2001년 8월 16일

(3) 헌장승인 : 2001년 11월 26일 승인번호 제5802-5600호

(4) 회원수 : 26명

(5) 연혁 :

- 2001. 08. 16 : 제5지역 부총재 김재길L님과 전 재무총장 조형성L님 원로라이온님들을 모시고 조직원 구성과 임시의장 백맹님L님을 추대
- 2001. 08. 29 : 목포태양라이온스클럽 회장 양근석L님 가이딩 명예회장 최영기L님 및 집행부와 상견례
- 2001. 10. 18 : 목포태양라이온스클럽 스폰서로 가칭 '함평태양라이온스클럽' 이라 칭함
- 2001. 10. 30 : 박현표총재님 유정애부총재님 스폰서클럽 양근석회장님 등 참석 조직총회 개최하여 '함평태양라이온스클럽' 탄생(함평신협 3층)
- 2002. 01. 08 : 헌장수여식 및 백맹조L 초대회장 취임(함평군민회관)
- 2003. 06. 19 : 장동수L 제3대 회장 취임(함평문화체육센타)
- 2004. 06. 24 : 노화섭L 제4대 회장 취임(함평문화체육센타)
- 2005. 06. 09 : 김성호L 제5대 회장 취임(목포알리앙스 문화원5층 대연회장)

- 2006. 06. 15 : 전갑렬L 제6대 회장 취임(함평문화체육센타)
- 2006. 06. 15 : 김용규L 제7대 회장 취임(함평천지뷔페)

(6) 봉사실적

- FY 2001-2004년도 봉사금액 211,594,860원
- FY 2004-2007년도 봉사금액 172,879,926원

(7) 수상실적

- FY 2001-2003년도 LCIF 무궁화사자대상 및 멜빈존스 백맹조L
- FY 2003-2004년도 LCIF 무궁화사자대상 및 멜빈존스 장동수L
- FY 2005-2006년도 LCIF 무궁화사자대상 및 멜빈존스 노화섭L
- FY 2006-2007년도 LCIF 무궁화사자대상 및 멜빈존스 김성호L
- FY 2007-2008년도 LCIF 무궁화사자대상 및 멜빈존스 전갑렬L
- FY 2004-2005년도 국제라이온스협회총장상, 355복합지구협회의장상 : 종합우수클럽상

(8) 지역사회봉사활동 상황

헌장정신을 받들고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우이웃돕기와 의연금, 장학사업, 위문금, 방위성금, 지역사회 독거노인 위로금 전달과 회원간의 친목다짐을 하며 특히

- 2002-2003년 북한동포 의료원(안과) 건립기금 협찬, 손불면, 신광면 의료봉사
- 2005년 나산면 의료봉사
- 2006년 영암군 삼호면 의료봉사

(9) 역대 회장

- 초대~2대 회장 : 백맹조L 2001. 11. 26 - 2003. 06. 30
- 3대 회장 : 장동수L 2003. 07. 01 - 2004. 06. 30
- 4대 회장 : 노화섭L 2004. 07. 01 - 2005. 06. 30
- 5대 회장 : 김성호L 2005. 07. 01 - 2006. 06. 30
- 6대 회장 : 전갑렬L 2006. 07. 01 - 2007. 06. 30
- 7대 회장 : 김용규L 2007. 07. 01 - 2008. 06. 30
- 8대 회장 : 전갑렬L 2008. 07. 01 - 2009. 06. 30

3) 국제로타리 3710지구 함평클럽

(1) 소 재 지 : 함평읍 기각리 378-21

(2) 회 원 수 : 63명 명예회원 4명

(3) 연　　혁

•1974. 05. 31　서광주클럽 스폰서로 26명이 참석하여 발기인회의
•1974. 06. 06　회원 39명으로 창립총회
•1974. 11. 09　RI 본부 가입 인준
•1974. 12. 21　RI 헌장준수
•1987. 10. 21　함평여고 인터랙트 창립
•1996. 10. 09　함평클럽 스폰서로 함평천지클럽 창립
•2003. 07. 14　함평고등학교인터랙트클럽창립

(4) 중요 업적

•매년 4년제 대학생 중 장학생 9명을선발하여 900만원 장학금 전달
•가입 인준식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 고등학생 20명, 25만원 장학금전달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성금 전달, 소년 소녀 가장돕기, 불우이웃성금전달,
•최우수클럽표창 6회수상,　우수클럽표창 5회수상,

(5)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대	성	명	재 임 기 간
1	윤성윤	尹盛胤	1974.05.31~1975.08.07	18	안양현	安亮賢	1991.07.01~1992.06.30
1	백하규	白夏圭	1974.08.19~1975.06.30	19	마현택	馬鉉澤	1992.07.01~1993.06.30
2	권병위	權炳威	1975.07.01~1976.06.30	20	안종칠	安鍾七	1993.07.01~1994.06.30
3	유판옥	庾判玉	1976.07.01~1977.06.30	21	윤범중	尹釩重	1994.07.01~1995.06.30
4	김병기	金炳基	1977.07.01~1978.06.30	22	안양현	安亮賢	1995.07.01~1996.06.30
5	임남복	林南福	1978.07.01~1979.10.17	23	김계남	金桂男	1996.07.01~1997.06.30
5	임경남	林暻男	1978.10.20~1979.06.30	24	임천재	任千宰	1997.07.01~1998.06.30
6	나병련	羅炳連	1979.07.01~1980.06.30	25	박현순	朴賢淳	1998 ~ 1999.06.30
7	김영진	金永珍	1980.07.01~1981.06.30	26	박상규	朴祥奎	1999 ~ 2000.06.30
8	조영희	趙英熙	1981.07.01~1982.06.30	27	임옥진	林玉鎭	2000 ~ 2001.06.30
9	김익수	金翊洙	1982.07.01~1983.06.30	28	방종호	方鐘昊	2001 ~ 2002.06.30
10	김하균	金夏均	1983.07.01~1984.06.30	29	박원재	朴元載	2002 ~ 2003.06.30
11	최여규	崔汝奎	1984.07.01~1985.06.30	30	김영직	金永稷	2003 ~ 2004.06.30
12	김장백	金長伯	1985.07.01~1986.06.30	31	김호범	金鎬范	2004 ~ 2005.06.30
13	채희남	蔡熙南	1986.07.01~1987.06.30	32	최용우	崔龍雨	2005 ~ 2006.06.30
14	나형규	羅熒圭	1987.07.01~1988.06.30	33	이재식	李載植	2006 ~ 2007.06.30
15	국순종	鞠順鍾	1988.07.01~1989.06.30	34	이옥현	李玉鉉	2007 ~ 2008.06.30
16	이인철	李仁哲	1989.07.01~1990.06.30	35	장주석	張周錫	2008 ~ 2009.06.30
17	정남혁	鄭南爀	1990.07.01~1991.06.30	36	이만호	李萬鎬	2009 ~ 현　　재

제36대총무 동창 김함경 [자료제공]

4) 함평천지로타리클럽

(1)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178번지

(2) 설립목적 :

친목과 초아의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살기 좋은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데 있다.

(3) 연　　혁

- 발기인 총회- 1996년9월2일, 함평클럽스포서로37명참석
- 창 립 총 회- 1996년10월9일, 회원47명으로 창립
- R.I본부가입인준- 1996년12월11일
- R.I 헌 장 수 여- 1997년 1월11일
- 현 재 회 원 수- 33명
- 클　립　송 - 고향의 봄
- 주　　보 - 한새들(월1회발행)
- 주　　회 - 매월11일,26일
- 인터랙트클럽 창립-1999년11월19일 월야종합고등학교 회원54명
- 리틀랙트클럽 창립-2003년7월18일 월야초등학교 회원30명
- 리틀랙트클럽 창립-2006년9월26일 해보초등학교 회원33명

(4) 회 원 수 : 33명

(5) 주요활동 실적

-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지급(1년중)
  · 대학생 5,000,000원
  · 고등학생 1,200,000원
- 불우이웃,시설돕기 : 3,500,000원
- 자연보호캠페인 및 지역방역봉사활동실시
- 3710지구 최우수클럽2회수상

(6) 역대 회장 (임기:7월 1일~다음해 6월 30일까지)

회 수	회 장 명	임　　기	비 고	회 수	회 장 명	임　　기	비 고
초대	낙원 정 한 식	1996~1997		2대	수덕 박 래 옥	1997~1998	
3대	여류 안 기 영	1998~1999		4대	금영 김 국 도	1999~2000	
5대	해산 조 기 영	2000~2001		6대	양지 이 성 춘	2001~2002	
7대	백송 김 재 봉	2002~2003		8대	은곡 이 병 오	2003~2004	
9대	대성 정 현 웅	2004~2005		10대	해암 조 성 국	2005~2006	
11대	은곡 이 병 오	2006~2007		12대	한솔 나 병 기	2007~2008	
13대	신일 채 창 기	2008~2009		14대	구룡 이 재 영	2009~2010	

5) 함평청년회의소 (JCI - KOREA함평)

(1) 소 재 지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430-5번지

(2) 설립목적 :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적인 청년단체

(3) 슬로건 : 푸른 함평 함께하는 함평JC

(4) 연　　혁

- •1976. 10. 10 : 한국 JC 인준 (제198호)
- •1984. 05.　 : 함평청년회의소 부인회 발기총회
- •1988. 08.　 : 무인촌 진료봉사
- •1992. 07. 11 :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 주관
- •1998.　　 : 구호 "맑은 정신 푸른 JC"
- •1998. 04. 27 : 새 생명 찾아주기 '사랑의 메신저운동'
- •1999. 05. 05 : 함평나비축제 여성한마당 큰 잔치주관
- •1999. 12. 29 : 함평JC 회관건립 완공
- •2001. 05. 04 : 나비대축제 댄싱경연대회·나비가요제 개최
- •2002. 10. 03 : 전남지구 제33차 회원대회 개최
- •2006. 10.　 : 어린이 회의교실 운영
- •2008. 05. 17 : 관내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쌀 전달
- •2009. 01. 23 :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함평군에 전달

(5) 회 원 수 : 정회원 45명, 부인회원 31명, 특우회원 26명

(6) JCI 4대 이념

4대 이념	추진 방향
개인능력개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재발굴
	시스템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분산
	전문능력을 갖춘 회원의 전문역량 극대화
사업능력개발	명확한 일정계획에 의한 사업운영
	평가기준 및 시스템 구축/보급
	중점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중점사업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아젠다 선점을 위한 실질적 지원
	로컬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리더 양성 사업의 강화
국제경험개발	국제실 기능과 조직강화 및 국제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한국JC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국제 홍보
	해외 한인JC 활동지원

(7) 중요 활동

- •1987. 04.　 : 애향 캠페인 전개
- •1988. 05.　 : 함평어린이 놀이터 보수

•1988. 07 :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군민위안 노래자랑 개최
•1990. 02. 22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대회 개최
•1991. 09. 24 : 경상북도 왜관JC와 우호JC 결연
•1993. 04. 03 : 제13회 목포 스폰서 챱타 체육대회 개최
•1994. 07. 18 :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군민노래자랑 개최
•1995. : 새 생명 찾아주기 무료 검진
•1996. 10. 05 :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가두 캠페인
•1997. 09. 26 : 민・관・군 축구대회 개최
•1999. 03. 31 : 새 생명 찾아주기 '사랑의 메신저 운동' 전개
•2000. 05. 08 : 함평나비대축제 경로위안잔치 주관
•2002. 05. : 나비대축제 댄싱경연대회, 나비가요제 개최
•2002. 07. :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운영
•2004. 05. : 나비축제 오광대 탈춤공연 개최
•2006. 08. : 함평JC 30주년 기념 JC배 족구대회 개최
•2008. 01. 09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D-100 행사개최
•2008. 05. 17 : 전국청소년 댄스 페스티발 개최
•2008. 10. 02 : "지역경제 살리기" 가두 캠페인
•2008. 12. 29 : 사랑의 이웃돕기 일일 호프
•2009. 03. 14 : 제1회 함평JC배 볼링대회 개최
•2009. 04. 10 : 성애양로원 봉사활동 실시

(8)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임기간	대	성 명	재임기간
1	양 길 배	1976년도	19	김 영 렬	1994 년도
2	〃	1977 〃	20	김 문 호	1995 〃
3	이 우 행	1978 〃	21	심 기 권	1996 〃
4	김 재 우	1979 〃	22	김 정 수	1997 〃
5	이 희 남	1980 〃	23	정 현 수	1998 〃
6	나 병 상	1981 〃	24	나 영 헌	1999 〃
7	윤 봉 귀	1982 〃	25	김 희 천	2000 〃
8	이 창 행	1983 〃	26	박 용 철	2001 〃
9	〃	1984 〃	27	임 한 진	2002 〃
10	김 덕 기	1985 〃	28	이 재 갑	2003 〃
11	오 광 재	1986 〃	29	오 임 철	2004 〃
12	노 영 환	1987 〃	30	이 태 범	2005 〃
13	윤 인 규	1988 〃	31	문 선 형	2006 〃
14	정 민 수	1989 〃	32	김 영 춘	2007 〃
15	이 연 행	1990 〃	33	이 남 오	2008 〃
16	김 영 판	1991 〃	34	신 안 득	2009 〃
17	김 성 호	1992 〃	35	장 만 종	2010 〃
18	백 정 부	1993 〃	36		

<자료 제공 : 정현수>

6) 와이즈멘 한국남부지구 함평클럽

(1) 창　　립 : 1981. 12. 9

(2) 목　　적

개인적인 봉사와 협동적인 노력으로 YMCA와 그 밖의 유익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3) 회　　원 : 창립 때 29명, 1983년 40명

(4) 역대회장

•1대　김민규　1981. 12. 9~1983. 9. 30
•2대　노병도　1983. 10. 1~　　＊1980년 중반 해체

3. 함평군여성단체

1). 함평군여성단체협의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7-2

(2) 설립목적 :

여성단체간의 친목과 보다 효율적인 여성단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창회한 이후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음.

(3) 연　혁 : 1997년도 창립

(4) 회원수 : 1,545명(9개단체)

(5) 주요활동 실적

시설방문 위문활동, 다문화가정 교육 아이돌봄 봉사, 여성주간행사 개최, 독거노인·부자가정 사랑의 김장담아주기, 함평나비대축제 및 행사 등 자원봉사활동 등

(6) 역대 회장

• 1대 : 유영자(한국부인회)　　: 1976~1986

- 2대 : 정행자(한국부인회) : 1987~1989
- 3대 : 임금례(한국부인회) : 1990~1995
- 4대 : 홍웅년(새세대육영회) : 1996~1997
- 5대 : 김미자(자유총연맹) : 1998~1999
- 6대 : 조관순(적십자함평봉사회) : 2000~2001
- 7대 : 김기순(전국주부교실 함평지회) : 2002~2004
- 8대 : 정정자(여성자원봉사회) : 2005~2006
- 9대 : 강송복(새마을부녀회) : 2007~2008
- 10대 : 권남희(한국부인회) : 2009~현 재

2). 한국부인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5

(2) 설립목적 :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활의 전반에서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의식향상을 도모하므로써 건전한 가정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연 혁 : 1964. 06. 14 창립

이 단체의 전신인 부인회는 일제때 그리고 광복 후에까지 조직이 있었으나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다. 5.16 이후 한국부인회로 바뀌면서 1964. 6. 14 창립하여 활동이 활발해 졌다.

(4) 회원수 : 25명

(5) 주요활동 실적

- 매년 학교면 나환자 정착촌 및 성애양로원 위문
- 설날 소년소녀 가정 15세대 가래떡 전달
- 합동 결혼 4쌍에게 주방기구 전달
- 영산포 장애자복지관에 내의 50벌 전달 위문
- 여성단체와 합동으로 독거 노인 78세대, 소년소녀 가장 128세대 김장담가주기
- 관내 미화요원 46명에게 중식 대접 및 내의 1벌 선물
-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법사업
- 저출산 극복 설문조사, 에너지 및 물절약 캐페인 및 포럼회 전개, 아이낳기 운동사업 추진 포럼회 참여

(6) 역대 회장

- 1대 오정자 : 1964 ~ 1969
- 2대 정개동 : 1970 ~ 1971
- 3대 한덕심 : 1972 ~ 1974
- 4대 유영자 : 1975 ~ 1984
- 5대 정행자 : 1985 ~ 1989
- 6대 임금례 : 1990 ~ 2004
- 7대 조경애 : 2005 ~ 2005
- 8대 권남희 : 2006 ~ 현 재

3) 함평군 백일홍회

1968년경부터 군청 계장급 이상의 부인이 회원이 되어 불우이웃돕기, 군 행사 노력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해왔다.

회장직은 역대 군수부인(郡守婦人)이 맡았는데 1998년부터 김희정(이석형군수 부인)이 맡아 크고 작은 군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바 있다.

4). 함평군생활개선회

(1)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67-1

(2) 설립목적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과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1990. 04. 10

(4) 회원수 : 300명

(5) 주요활동 실적

- 매년 함평나비대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 사랑의 봉사대 운영 : 9개회 90명

(6) 역대회장

- 1대 정연희 : 1990 ~ 1992
- 2대 황옥희 : 1993 ~ 1994
- 3~4대 권오선 : 1995 ~ 1998
- 5~6대 김윤자 : 1999 ~ 2002
- 7대 김영란 : 2003 ~ 2004
- 8~9대 정봉숙 : 2005 ~ 2008
- 10대 조동예 : 2009 ~ 현재

5). 사)함평군새마을부녀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 통하여 함평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연　　혁 : 1984. 03. 31 창립

(4) 회 원 수 : 300명

(5) 주요활동 실적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불우이웃돕기, 지역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활동,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등

(6) 역대 회장

• 1대 채연순 : 1981 ~ 1984
• 2대 천옥자 : 1985 ~ 1986
• 3대 이춘자 : 1987 ~ 1988
• 4대 이귀순 : 1989 ~ 1992
• 5대 장경례 : 1993 ~ 1994
• 6대 김봉순 : 1995 ~ 1996
• 7대 양귀님 : 1997 ~ 2002
• 8대 강송복 : 2003 ~ 2008
• 9대 정경임 : 2009 ~ 현재

6). 함평군여성자원봉사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1

(2) 설립목적 :

지역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결손가정 등과 결연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는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함께 모인 자원봉사단체입니다.

(3) 연　　혁 : 2000년 11월 창립

(4) 회 원 수 : 320명

(5) 주요활동 실적 :

•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 밑반찬사업, 경로식당운영, 조손가정급식전달사업, 주간보호사업 자원봉사, 독거노인 이·미용 및 도배사업, 함평나비대축제 및 행사 추진 자원봉사 등

(6) 역대 회장

• 1대 김봉순 : 2000 ~ 2001
• 2대 정정자 : 2002 ~ 현재

7). 함평군 자유총연맹여성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지역사회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

(3) 연 혁 : 1989. 04. 01 창립

(4) 회 원 수 : 25명

(5) 주요활동 실적

• 동서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 남해군, 하동군 방문
• 불우이웃돕기, 성애원 불우노인 방문, 독거노인 및 아동 김장담그기
• 돌머리해수욕장등 환경미화작업
• 함평군 축제 자원봉사 등

(6) 역대 회장

• 1대 김미자 : 1990 ~ 1998
• 2대 정경림 : 1999 ~ 2005
• 3대 김윤자 : 2006 ~ 현 재

8). 고향생각주부모임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 - 2

(2) 설립목적 :

본회는 여성의 자조, 자주적인 단체로서 여성의 자주, 자립, 협동 정신을 고취시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여 여성 복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1989년도

(4) 회 원 수 : 70명

(5) 주요활동 실적 :

•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장애우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함평나비대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등

(6) 역대 회장

• 1대 김봉순 : 1989 ~ 1999
• 2대 박금진 : 1998 ~ 2006
• 3대 오맹순 : 2007 ~ 현 재

9). 주부교실 함평군지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504-1

(2) 설립목적 :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고 근검 절약의 미풍을 기르며 여성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국가시책 수행에 참여하기 위함.

(3) 연 혁 : 1971. 12. 28 창립

(4) 회 원 수 : 32명

(5) 주요활동 실적 :

• 영세민 위문품 전달, 수해의연금 전달,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가정 위문 및 돕기 등

(6) 역대 회장

• 1대 박순례 : 1973 ~ 1978 • 2대 한춘희 : 1979 ~ 1994
• 3대 김기순 : 1995 ~ 2002. 06월 • 4대 차은숙 : 2002. 07월 ~ 2003. 12월
• 5대 김국진 : 2003. 01월 ~ 2004 • 6대 박오순 : 2005 ~ 현재

10). 21세기여성발전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여성상호 협력과 단체 간 친선을 도모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함.

(3) 연 혁 : 2003. 05. 19

(4) 회 원 수 : 23명

(5) 주요활동 실적 :

•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
• 청소년 자긍심 함양을 위한 교육, 양성평등 교육 추진
• 지역여성운동 실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농어촌무료 한방진료 및 말벗도우미사업 추진

(6) 역대 회장

• 1대 김관순 : 2003 ~ 현재

11). 농가주부모임 함평군연합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19

(2) 설립목적 :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젊은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결성함.

(3) 연　　혁 : 1997년도 창립

(4) 회 원 수 : 300명

(5) 주요활동 실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밑반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도배해주기, 추곡수매 및 하곡수매 자원봉사, 하나로마트 장례식장 자원봉사, 축제자원봉사, 등

(6) 역대 회장

- 1대 서수임 : 1997 ~ 2003
- 2대 문은자 : 2004 ~ 2006
- 3대 전금례 : 2007 ~ 현 재

12). 여성농업경영인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436

(2) 설립목적 :

농업인가족의 모임단체로 농업 및 가족을 위한 권익사업 향상을 활동하기 위함

(3) 연　　혁 : 2002. 08. 02

(4) 회 원 수 : 150명

(5) 주요활동 실적 :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사업, 농업인가정 자녀 장학사업, 이주여성 돕기 등

(6) 역대 회장

- 1대 김성애 : 2002. 8월 ~ 2004
- 2대 임영례 : 2005 ~ 2006
- 3대 김혜자 : 2007 ~ 현 재

13). 세계평화여성연합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23

(2) 설립목적 :

본 연합은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새 가치관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모색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아시아와 기타 세계 각 국가들 간의 협력을 추구하여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1992. 07. 20 창립

(4) 회 원 수 : 45명

(5) 주요활동 실적 :

- 무공해 비누제조 판매수입
- 숯공예 판매수입
- 가성소다 판매수입
- 불우가정, 소년가장, 다문화 가정 위문 및 행사 추진 등

(6) 역대 회장

- 1대 김기순 : 1992 ~ 2006
- 2대 나까다미찌오 : 2007 ~ 2008
- 3대 데라와유까리 : 2009 ~ 현재

14). 대한적십자봉사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01

(2) 설립목적 :

박애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함.

(3) 연 혁 : 1974년도 창립

(4) 회 원 수 : 20명

(5) 주요활동 실적 :

응급구호물품 및 무료급식 제공(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등의 취약계층 백미, 주식, 도시락, 밑반찬 전달) 등 구호활동 전개

(6) 역대 회장

- 1대 김영자 : 1974 ~ 1984
- 2대 김국진 : 1985 ~ 1995
- 3대 조관순 : 1996 ~ 2002
- 4대 박덕심 : 2003 ~ 현 재

15).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2-1

(2) 설립목적 :

여성 의용소방대원은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다운 봉사단체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외계층에 많은 봉사활동으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하기 위함.

(3) 연 혁 : 1988년도 창립

(4) 회원수 : 200명

(5) 주요활동 실적 :

산불 및 주택화재 진화 참여, 소년소녀가정 돕기, 수호천사 활동(학교주변 방범순찰),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구급대원 활동, 함평나비대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활동 등

(6) 역대 회장

- 1대 나명옥 : 1988 ~ 1996
- 2대 진영자 : 1997 ~ 2000
- 3대 박길순 : 2001 ~ 2004
- 4대 윤앵랑 : 2005 ~ 2007
- 5대 최방례 : 2008 ~ 2008
- 6대 김인숙 : 2009 ~ 현재

16). 새세대육영회

(1) 소 재 지 :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96 - 4

(2) 설립목적 :

어린이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력의 소중한 원천이므로 그들을 올바르게 육영함은 국가의 밝은 장래를 예비하는 길로 이에 새세대육영회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모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민주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1980년도 창립

(4) 회원수 : 31명

(5) 주요활동 실적 :

어린이집 방문 물품전달 및 자원봉사, 독거노인 및 휠체어등 전달
독거노인에게 음식 만들어 주기, 중앙청사 방문 농산물 판매,

(6) 역대 회장

• 1대 홍웅년 : 1980 ~ 1997
• 2대 김명숙 : 1998 ~ 현재

17). 함평 여성라이온스

(1) 소 재 지 :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95-1

(2) 설립목적 :

라이온스의 모토는 “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이다. 1954년 공식 모토로 채택된 이래, 회원 개개인의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주창한 멜빈 존스의 의지와 맞물려 라이온스의 철학을 대표로 하여 모든 라이온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함.

(3) 연 혁 : 2002년도 창립

(4) 회원수 : 27명

(5) 주요활동 실적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독거노인 불우이웃돕기(경찰서 연계) 등

(6) 역대 회장

• 1대 서수임 : 2002. 6월 ~ 2004. 5월 • 2대 김오순 : 2005. 6월 ~ 2006. 5월
• 3대 박성희 : 2007. 6원 ~ 2008. 5월 • 4대 이태원 : 2009. 6월 ~ 현 재

18). 푸른함평지킴이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1992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과 함께 채택된 Agenda21의 정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푸른함평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2004. 04. 07 창립

(4) 회원수 : 250명

(5) 주요활동 실적 :

• 환경보전 실천운동실시(음식쓰레기 줄이기, 화학비료 적게 쓰기, 합성세제 적게쓰기, 제초제 사용 안하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불법소각 안하기 등의 3소 3무운동 전개)
• 꽃무릇 식재작업, 함평나비대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활동 등

(6) 역대 회장

• 1대 유복남 : 2004. 4월 ~ 2005
• 2대 조경애 : 2006 ~ 2007
• 3대 이옥순 : 2008 ~ 현 재

4. 향토자생단체(鄕土自生團體)

1) 재경함평향우회(在京咸平鄕友會)

(1) 창 립 : 1980. 11. 1

(2) 목 적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함평과 함평인의 발전에 기여하며 애향정신을 고취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활　　동

•군민복지회관 건립과 새마을사업 등에 회원들이 많은 지원을 하였다.
•1988년　　: 회지 함평천지 창간
•1989. 08. 22 : 수재의연금 천만원 모금. 8.26 함평군에 전달
•1994. 05. 26 : 군청, 읍면사무소, 새마을지회 등 12개소 증정
•1994. 08. 11 : 한해의연금 2,030만원 군에 전달
•1995. 05. 14 : 한강시민공원에서 재경함평군향우회원 친목체육대회 개최(1,000여명 참석)
•1996. 08. 04~08 :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 의료진 유치 87명 무료 개안 수술 (의료수가 3억원 추산)
•2009. 04. 23 :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식 참석
•2009. 05. 12 : 함평군 특산물 판매행사(광진구 직거래 장터)
•2009. 11. 05 : 함평국향대전 참석 광주·전남 시군 여성회장 초청

(4) 재경향우회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 전시성 일회 수혜성의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재를 육성하더라도 확실하게 육성한다는 결의로 소수정예화하여 그 장학생이 학업하는 동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수혜 후에도 끝까지 연계성을 유지하여 이 사회에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장학생들과 평생 네트워킹을 갖는다.

• 본 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전문화하고 인재를 바르게 양육하는 전인적인 인성교육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 본 재단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회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여 인격, 비전, 열정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아가 21세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장학재단의 모델이 되고자 재경함평향우회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5) 역대 회장

• 초대~4대 : 정병기　1980. 11. 01~1989. 04. 29　신명그룹회장　나산면
• 5대~6대 : 이균범　1989. 04. 29~1991. 04. 26　전 전남지사　함평읍
• 7대~8대 : 홍양희　1991. 04. 26~1994. 04. 01　청계상가회장　신광면

• 9대~10대 : 서영수 1994. 04. 01~1997. 06. 21 함평섬유회장 엄다면
•11대~12대 : 노병해 1997. 06. 22~2001. 전 세무서장 함평읍
•13대~14대 : 홍종후 2001. ~2005. 고양시 덕양구 신광면
•15대~16대 : 노인수 2005. ~2009. 노인수변호사 학교면
•17대 : 김은영 2009. ~현 재 D&Y건설사장 손불면

2) 재광함평향우회(在光咸平鄕友會)

(1) 창 립 : 1973. 9. 22

(2) 회 원 수 : 7,600명.

(3) 목 적

광주에 살고 있는 함평출신들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고향주소 찾기, 인재발굴을 위한 재광함평장학회 운영 등과 고향의 군민회관 건립, 새마을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실천운동의 친목단체이다.

(4) 주요 실적

· 1981년 향우회원 1,000명 달성
· 국회의원, 교육감 등을 배출하며 향우회 활성화
· 1987년 재광함평장학회 1억5천만원 기금조성
· 고향 및 향우자녀 225명에게 9천9백여만원 장학금 전달
· 2003년 고향주소찾기 사업, 향우회지 함평천지 5호 발간
· 고향사랑실천 운동결과 향우회원 7,600명 돌파
· 역대회장단의 헌신적 노력으로 여성향우 참여도 향상

(5) 역대 회장

대	성	명	참 고
1 대	윤 종 열	尹 鍾 悅	해보면 출신, 당시 광주·서광주경찰서장
2~3 대	이 건 영	李 建 榮	대동면 출신, 전 경찰서장, 광전교통 사장
4 대	장 계 섭	張 啓 燮	함평읍 출신, 전 전라남도청 과장
5~7 대	이 재 관	李 載 寬	해보면 출신, 일신건설 회장
8~9 대	김 용 일	金 容 日	엄다면 출신, 전 조대병원원장, 의학박사
10~11 대	문 성 식	文 成 植	함평읍 출신, 전 산림조합도연합회장
12 대	김 재 구	金 載 球	손불면 출신, 전 시군과장(행정사무관)
13 대	안 종 일	安 鍾 一	월야면 출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14 대	김 호 신	김 호 신	해보면 출신, 전 북구의회 부의장
15 대	이 정 재	李 正 宰	나산면 출신,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16~18 대	심 동 남	심 동 남	월야면 출신, 센트럴관광호텔 회장
19 대	노 대 영	魯 大 榮	학교면 출신,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 이사장

3). 성균관 유도회(儒道會) 함평군지부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0-1

(2) 설립목적 :

- 공부자의 중국과 조선의 성현들에게 석전대제 봉향
- 윤리도덕과 충효사상과 학술대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시

(3) 연　혁 : 1410년에 건립

(4) 회원수 : 500명

(5) 주요활동 실적 :

- 년중 춘추(春秋)로 2회에 걸쳐 석전대제 봉향
- 매월 삭망(朔望)에 대성전 봉심
- 년중 4회 유림교육실시
- 여름방학기간에 청소년 인성교육실시
- 년 1회 전 유림 선진지 견학 실시
- 시범향교 운영 (한문, 서예, 예절, 컴퓨터, 사군자, 건강강좌 운영)

(6) 역대 회장 :

① 심기천(沈基千), ② 김성남(金成男), ③ 윤득주(尹得周), ④ 정병화(鄭炳華),⑤ 정두면(鄭斗冕), ⑥ 김성두(金成斗), ⑦ 모상풍(牟相豊), ⑧ 이록범(李祿範),⑨ 박병인(朴炳寅), ⑩ 이만신(李滿信), ⑪ 정영택(丁永澤), ⑫ 모　원(牟　源),⑬ 서상은(徐相殷), ⑭ 김규채(金圭埰), ⑮ 정기수(鄭箕洙), ⑯ 장춘섭(張琦燮),⑰ 김수개(金綏盖), ⑱ 이진행(李辰行), ⑲ 김주환(金柱

煥)

4). 전라남도약사회(藥師會)함평군분회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01

(2) 창　　립 : 1958. 05. 08(분회인준)

(3) 활　　동

함평군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약사들의 모임으로 군민건강증진, 대민봉사, 무료 투약사업 등을 하고 있다.

(4) 회 원 수 : 25명

(5)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참 고
1	최 여 규	1958 ~ 1966	중앙약국 경영
2	박 기 수	1966 ~ 1967	함평약국 경영
3	김 형 중	1968 ~ 2008	제중약국 경영
4	황 명 성	2009 ~	광주약국 경영

5) 함평군 번영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번지

(2) 회원수 : 300명

(3) 연 혁

- 1960년 김용우, 이건영(李建榮), 이경식(李景植) 등의 발기로 군 번영을 위한 함평군 번영회를 발족했으며 .
- 1984년 4월 26일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한 새 정관을 채택.
- 1986년 4월 26일 번영회 정관을 1차개정.
- 1996년 4월 26일 2차개정 시행하고 있음

(4) 중요 업적

- 군민의 날 행사 주관 : 함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아울러 화합 분위기를 마련

하므로서 『인심좋고 살기 좋은 함평천지 만대 번영(咸平天地 萬代繁榮)을 위한 결의를 굳건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985년 10월 5일 제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이래 1997년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까지 주관하였음.
1998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함.

•애향 운동 :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 캠페인을 전개하여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주민등록과 차적 옮기기, 교육청 통폐합 결사반대, 함평사랑운동의 10대 실천 과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애향사업을 하고 있음

•기타 사항 : 기타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5) 역대 회장

대(代)	성 명		재 임 기 간
	한 글	한 문	
초 대	이 건 영	李 建 榮	1960년 ~ 1962년
2 대	이 재 혁	李 載 爀	1963년
3 대	권 병 위	權 炳 威	1964년 ~ 1983년
4 대	이 일 행	李 一 行	1984년 4월 26일 ~ 1987년
5 대	김 영 창	金 永 昌	1988년 ~ 1989년
6 대	이 우 행	李 友 行	1990년 ~ 1995년
7 대	김 용 균	金 鎔 均	1996년 4월 9일 ~ 현재

6) 함평한얼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10

(2) 회원수 : 2009년 말 55명

(3) 목적 및 연혁

1970. 2. 19에 창립한 함평한얼회는 당시 함평읍에 거주하는 30대의 건전한 젊은 층이 의기가 투합하여 회원의 인격 도야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사회에 봉사하고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그 뜻이 발전 계승되어 매월 14일에 월례회의를 갖는 등 현재도 활발히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4) 중요 업적

•1977~1989년 한얼회장배 쟁탈 직장친목배구대회 개최(12회)
•1979~1997년 불우학생 62명에게 장학금 지급(4,957천원)
양로원 위문 및 경로 잔치 2회
•1981. 04. 05 기산봉에 10년생 벗나무 33그루 식재

•1981. 10. 새마을경연대회 우수자생단체 표창(전남도지사)
•1985. 05. 자생단체 공로 표창(함평군수)
광주일보 주최 "88 광일단축마라톤대회"에 대비 함평군 선수들을 지원하여 초, 중, 고, 남녀부 전종목 우승 3회
오지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1회씩 마을 주민의 위로연을 함
•1985. 05 해보면 산내 2리 : 종돈 2마리 지원
•1993. 05 함평읍 진양 2리 : 흑염소 2마리 지원
•1993년부터 매년 1회씩 미화요원 접대 및 선물 전달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년 2회)
•회원 주제발표 : 1978년부터 회원의 인격도야를 위해 매 반기 1인 발표

(5) 역대 회장

대	성 명	재임기간	대	성 명	재임기간	대	성 명	재임기간
1	김 고 성	1970년도	15	김 철 수	1984 〃	29	김 행 구	1998년도
2	박 희 의	1971 〃	16	정 근 욱	1985 〃	30	전 석 현	1999년도
3	박 재 관	1972 〃	17	유 종 호	1986 〃	31	박 광 웅	2000년도
4	박 상 규	1973 〃	18	나 병 권	1987 〃	32	김 성 수	2001년도
5	김 명 문	1974 〃	19	오 정 래	1988 〃	33	노 영 균	2002년도
6	김 청 사	1975 〃	20	〃	1989 〃	34	김 관 주	2003년도
7	모 정 신	1976 〃	21	윤 양 중	1990년도	35	박 종 이	2004년도
8	이 우 행	1977 〃	22	〃	1991 〃	36	박 회 성	2005년도
9	〃	1978 〃	23	최 준 열	1992 〃	37	정 창 우	2006년도
10	모 정 신	1979 〃	24	김 휘 남	1993 〃	38	박 문 봉	2007년도
11	김 오 영	1980년도	25	정 근 욱	1994 〃	39	모 상 겸	2008년도
12	〃	1981 〃	26	이 방 행	1995 〃	40	장 주 석	2009년도
13	최 준 열	1982 〃	27	박 현 순	1996 〃	41	김 창 문	2010년도
14	김 휘 남	1983 〃	28	노 호 영	1997 〃	42		2011년도

7) 함평군농민회

– 가톨릭농민회 + 기독교농민회 + 농우회

(1) 연 혁

•1972년 :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총무 서경원 등 농민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향진회(대동면, 분회장 서경원), 외대분회(함평읍, 노금노), 마량분회(대동면), 백년분회(대동면), 청류분회(해보면), 신기분회(월야면)를 창립함.
•1974년 : 서경원(전국회의원), 노금노(전 군의원), 임재상(현 학교면농협 조합장), 임정택, 모영주, 지성철, 윤종형(현 군의원)이 크리스챤아카데미에서 실시한 농민운동 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함

•1979년 : 독자적인 분회 활동보다는 군단위 조직체가 있어 농민운동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함평군지부를 결성하고 김갑현(대동면 출신)이 회장에 취임함

•1982년 : 지부 명칭은 수직적인 조직체계의 의미가 짙다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고, 함평군협의회(회장 김갑현, 대동면), 함평군동부협의회(회장 이은렬)를 결성하였다.

이때 양종환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농민회를 창립 독자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85년 : 노금노가 중심이 되어 농우회를 창립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함.

•1990년 3월 : 보다 집결력이 있고 강력한 농민운동의 힘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농우회가 합하여 함평군농민회를 창립하였고 회장에 노금노가 취임함.

＊함평가톨릭농민회 결성을 주도한 서경원은 가톨릭농민회전남연합회장, 한국가톨릭농민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을 맡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2) 주요 활동

•1975~1978년 농협 강제출자 거부운동 전개

이 운동은 농협이 비료판매를 하면서 비료대에 강제로 농협출자금을 붙여 판매하였고 비료대의 폭등은 물론 품귀현상을 가져오게 한 현실에서 농민이 최초로 집단적 저항을 벌인 사례며 가톨릭농민회 외대화분회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함평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50여회 1,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1976~1978년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별항에서 자세히 언급함>
•1977년 쌀 생산비 보장, 초가지붕 강제철거 보상운동
•1978년 부당 농지세 시정운동
•1979년 노풍피해 보상운동
•1980~1983년 광주민주화운동, 반외세투쟁에 윤종형, 박시영, 박시양, 모영주 등
다수 참여
•1984년 함평·무안군 농민대회
•1985년 소값 피해 보상운동
•1987년 농가부채 대책 건의·농축산물 수입 저지 함평농민대회
•1988년 의료조합비 거부운동, 쌀값 보장 농민대회
•1989년 수세폐지 운동

(3) 함평고구마 재배 농민 피해 보상운동

– 함평고구마사건 –

① 기 간 : 1976. 11. 23 ~ 1978. 04. 29

② 발단 배경

농협중앙회가 1976년산 고구마 수매자금 120억원을 지원받아 이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80억원을 주식회사 보해 등 7개 주류제조회사에게 대출해 주고는 생산농가에 수매자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몄다.

당초 각 읍면 단위농협은 1976년 3월부터 마을별 순회좌담회를 열어 1976년산 고구마는 농협을 통해 10월까지 계통 출하 할 것을 선전하였고, 농협 수매가도 15㎏들이 1포에 1,317원을 제시했었다.

농민들은 농협의 약속을 믿고 농협이 배포한 수매용 포대에 고구마를 담아 자동차 운송이 용이한 도로변에 야적했다.

그런데 각 단위농협들이 당초 약정한 물량을 제 때에 수매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고구마를 생산한 7,300여 농가는 썩어가는 고구마를 중간상인들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값도 1포당 300~800원의 헐값에, 또 농협 포대에서 일반포대로 바꾸면서 포대 수마저 엄청나게 줄었다.

실례로 대동면 백호리 거주 임정택은 400포를 상인들을 통해 1포대 당 450원에 팔았는데 감량을 40%나 계산했다.

그 나마 팔지 못한 고구마는 노변에 야적된 채 썩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농협과 정부에 대한 농민의 원성이 극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함평군의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운동을 착수하였다. 당시 이 같은 현상은 함평군만이 아니라 인근 무안군을 비롯 전남북 전역이 같은 실정이었는데 유독 함평군의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진상파악과 보상운동을 펴게 된 것은 1975년 농협강제 출자금 거부운동을 벌이며 집적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③ 운동 진행과정과 결과 개요

- •1976. 11. 17 : 서경원, 노금노, 임정택, 임재상, 장성일, 모영주, 정병오, 지성철, 박명섭, 김갑현, 장두병, 조용진 등 농민대표가 모여 “함평군 고구마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킴과 동시에 피해조사에 나섰다.
- •1976. 12. 20 : 농협의 방해와 경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5개 읍면 9개 마을 179농가의 피해보상을 조사하였다.
- •1977. 01. 11 : 함평천주교 광장에서 조사된 피해액을 농협 측에 알리기로 하고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경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대표자를 연행하고 농협은 깡패들을 동원하여 농민들로부터 자의에 의해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음.
- •1977. 01. 30 : 가톨릭농민회 대전본부와 전남연합회 정기 총회에 사건을 보고하여 도단위 대응을 결의함.
- •1977. 04. 18 : 농협 측의 협상제안으로 농협도지부 판매과장과 대책위원들이 협상을 가졌으나 결열됨.

•1977. 04. 22 : 함평, 해남, 강진, 무안, 영광군의 농민 500여명이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150여명이 농협도지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여 농성중 농민 15명이 부상

•1977. 04. 23 : 천주교 장흥빈 농민회 지도신부의 주선으로 대책위원회 대표가 고건 당시 전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농수산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1977. 04. 25 :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 조사진이 현지 조사 착수

•1977. 07. 26 : 서울 동대문 천주교회에서 500여명 신자를 대상으로 진상 보고회를 가짐

•1977. 08. 17 :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기독교청년회에 진상 보고

•1977. 11. 22 : 대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함평고구마 피해보상운동 경과 보고

•1978. 04. 24~29 : 광주 북동천주교회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였고 서경원, 노금노, 임정택(이상 함평), 윤기현(해남), 김현창(강진), 윤한봉(강진), 경북, 충남 농민 등 73명이 단식농성을 벌였는데 단식 기간에 가톨릭농민회 전국지도부단 15명,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단 60여명이 참여 합세하였고, 전국의 교회, 인권단체, 민주화운동 단체의 지도급 인사 150여명이 격려차 방문함.
농협이 피해농가에 309만원을 직접 보상하겠다는 제의를 해옴에 따라 함평고구마 피해농가 보상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함

*5월 6일 전국 일간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사건"이라는 제하에 고구마 수매자금 80억원 유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농협 임·직원 600여명이 무더기 징계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④ 의의(意義)

"함평 고구마 피해농가 보상운동"은 서슬 퍼렇던 유신체제하에서 농민들이 자주적이고 조직적이며 또 각가지의 압력에도 굽힘이 없이 지속적으로 농민의 몫을 찾기 위해 도전하여 이를 성취한 것은 근대 한국농민운동사에 처음인 것이다.

또 함평농민회에서 그 후 전개했던 농협민주화운동(1977~1983), 농지세 시정운동(1981~1982),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1979~현재), 소값 피해운동(1985) 등이 농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함평인의 농민운동은 철종 12년(1862) 정한순의 주도하에 수천명이 봉기하였던 철종조 농민봉기를 기점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비화한 함평농민연맹의 항쟁, 광복 후 농민조합운동으로 이어 왔고, 수년간의 침채기를 거쳐 1970년대에 가톨릭농민회분회, 가톨릭농민회협의회, 함평군농민회로 이어져 명실공히 한국농민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신독재시대의 함평고구마사건

◆ 들어가는 말

함평고구마 사건은 1976년 11월부터 1978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 박정희 유신정권을 상대로 벌인 농민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한국현대사의 한 장르였다. 1976년 늦가을 전남 함평군 함평·대동·신광·월야·학교 등 5개 읍면 9개 마을 180여 농가농민들은 농협이 당초 '약속한 고구마 전량수매를 이행하라'며 '고구마피해보상운동'에 착수한 후 1978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 줄기차게 벌였다. 해당기관인 함평군농협은 자신들의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 농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지은 고구마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무단하게 썩거나 아주 헐값으로 방매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하는 비열한 수법으로 깔아뭉개고 나섰다. 당시는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극단적으로 억압하던 시기였다. 유신독재 체제의 경찰은 농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외면한 채 '사상이 불순하다'며 오히려 함평군농협을 편들면서 농민들을 핍박했다. 분노한 농민들은 감연히 일어섰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의 농협과 경찰이 치졸하게 협박하고 방해함으로써 대부분의 농민들은 투쟁대열에서 이탈하고 겨우 179농가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버티어냈다. 여기에 전국적 농민운동단체인 가톨릭농민회가 뒷받침하고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기관들이 거들었다. 그런데도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18개월의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끝에 간신히 성사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당시 오만하고 서슬 퍼런 유신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끝에 거두어 낸 성과라는 데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 문제는 고구마를 계통수매하기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고구마수매 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시행착오적 과실이 불가피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진솔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농민들을 무시하려는 비민주적·반농민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1. 발생원인

전남에서 무안·해남군과 함께 고구마주산지인 함평군 내의 1976년 고구마재배면적은 7,169농가에서 1,296헥타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의 1,100헥타르에 비해 재배면적이 17.8%가 늘어난 데다 풍작으로 인해 전년도 2만 톤보다 5,000여 톤이나 증산된 2만 5,000여 톤이 생산되었다. 이는 흉작으로 인해 시중 고구마 값이 전 해보다 30%가량 오른 데다 농협도 이에 덩달아 수매 값을 15관들이 부대 당 1,317원(2등 기준)으로 17.4%

나 인상하자 농민들이 고구마 재배면적을 마구 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같은 5,000여 톤의 증산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중 값 폭락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신한제분 등 주정(酒精)제조회사들은 국내 고구마 값보다 훨씬 싼 주정원료(밀·옥수수)를 외국에서 이미 수입해왔다며 중간상인들을 통해 농협수매 값보다 10%가량 싼 15관들이 부대 당 1,100—1,200원씩 거래하자며 농민들에게 접근해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에 따른 생산과잉을 우려한 나머지 고구마 값이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절반정도는 농협수매에 응하고 나머지는 주정제조회사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처분하고자 했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배정한 함평군 내 고구마 수매목표량은 1만 2,000톤으로 전체생산량 2만 5,000톤의 44%선이었다. 나머지 56% 가운데 종자용을 포함한 자가소비용 5,000여 톤을 제외한 8,000여 톤은 헐값으로 팔아야할 형편이었다. 이 8,000여 톤의 헐값판로를 우려하던 전년규(全年圭) 농협전남도지부장은 자신이 주정(酒精, 알코올)회사와 별도로 교섭해 가능하면 전량을 수매토록 하겠다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전량수매를 약속하고 나섰다. 전 지부장은 고구마 산지를 돌며 '헐값으로 팔지 말고 모두 농협수매에 응하라'며 독려하고 다녔다. 생산된 전량을 수매하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농민들은 값이 더 비싼 농협의 전량수매 약속에 환호를 올리며 상인들의 접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함평고구만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농민들은 당연히 지부장의 약속대로 전량이 수매될 것으로 믿고 상인들에게 팔지 않은 고구마를 도로변에 야적해놓고 수매공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권장을 받아들여 썰어서 말리는 절간고구마생산 작업도 서둘렀다. 그러나 10월을 넘어 11월 중순이 되어도 농협의 고구마수매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조금 기다리라'며 일부만을 수매하면서 전량수매를 기피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것은 전년규 도 지부장이 호언했던 주정제조회사와의 수매량 증량교섭이 성사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정부가 당초 농민들의 고구마수매 값을 17.4%나 인상해주면서 주정제조회사가 이 고구마로 생산하는 주정의 출고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은데다 수입하는 옥수수 등 주정원료 값이 수매고구마 값보다 쌌기 때문에 주정제조회사들이 농협주앙회로부터 처음 배정받은 양만을 수매하고 전년규 지부장이 요구하는 별도의 증량매입을 거부했던 것.

이는 도 지부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당연히 농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바꿔 말하면 도지부장의 약속이 전연 이행되지 않게 되자 수매를 기다리는 동안 다소 싼 값으로라도 내다팔 기회를 놓쳐버린 농민들의 원망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도로변에 야적한 상태로 수매를 대기하다 고구마가 썩고 상해버린 것은 더욱 심각했다.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서 야적해 놓은 고구마가 얼고 녹아나는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었다. 당초의 전량수매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간파한 농민들은 그 해 11월 중순을 넘기면서 해당 단위농협으로 쫓아가 '고구마를 수매하라'며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도 농협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수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제분회사들이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

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농협으로의 계통출하가 사실상 좌절됐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폭락한 헐값으로라도 팔고자 안간 힘을 쏟았다. 더 썩기 전에 한 푼이라도 건져야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부대 당 400원, 500원에 거래하기도 했다. 서로 자기 고구마를 팔기위해 같은 마을 농민들끼리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심지어 대동면 백호리 백년마을 김일두(당시 29세) 씨는 상인들의 트럭 밑에 누워 '내 고구마를 사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떼를 쓰는 등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377] 농협의 입장이나 이유야 어디 있건 힘없는 농민들만 농협에 농락당한 신세가 되었고 상인들에게 애걸복걸해야하는 비참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농협은 '할 만큼 했다' '자금이 없다' '우리의 잘못이 없다'며 농민들의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외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2. '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 발족과 피해조사

자신이 고구마농사를 지으며 직접 겪고 있던 대동면 금산리 서경원(徐敬元・당시 41세) 함평가톨릭농민회장은 이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11월 18일 몇몇 농민대표와 함평가톨릭농민회 회원 10여명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다음 23일 17명을 함평읍 함평리 청하식당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로 약칭)'를 발족시켰다.[378] 위원장은 자신이 맡았다.

우선 대책위원회는 출범직후부터 12월까지 함평군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함평읍 석성리 성곡마을 5농가, 함평읍 장년리 백련마을 20농가, 장년리 월선마을 30농가, 장교리 월봉마을 24농가, 대동면 백호리 백년마을 44농가, 금산리 과목장마을 7농가, 신광면 가덕리 가덕마을 12농가,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 23농가,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 14농가 등 5개 읍면 9개 마을 179농가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농협이 공시한 수매 값(부대 당 1,317원)대로 수매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가 약 280만원, 수매를 기다리다 썩어버린 223부대 값 29만 원 등 피해액은 모두 179농가 309만 7,085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농가당 평균 1만 7,302원이었다.[379]

함평군 내 76년산 고구마 피해손실내역[380]

377) 한국정치상연구회, 『大命-70년대 강압정치와 민중항쟁운동』, 동광출판사, 1988, 62쪽.

378) 대책위원회 발족에 앞서 군내 전체 피해 농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정식 발족하려 했으나 당국의 방해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2009년 6월 2일, 서경원 증언).

379) 당시 함평군내 고구마 생산농가는 7,169농가였다. 그런데도 9개 마을 179농가밖에 조사하지 못한 것은 농협은 물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농민회 및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해는 물론 참여농민들을 마을과 집까지 찾아다니며 '사상이 불순한 사람' '산에서 나무 한 가지 베어다 땔 줄 아느냐'며 협박하고 방해함으로써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이 두려움을 느낀 끝에 대책위원회 참여는 물론 피해조사마저 불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가한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2009년 8월 19일, 노금노 증언).

번호	마을	수매량(포대)	피해농가 호수	수매계통	감량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성곡		5					271,185
2	백련		20					299,963
3	월선		30					469,745
4	월봉		24					100,270
5	백년		44					1,265,551
6	과목장		7					17,119
7	가덕		12					70,695
8	신기		23					584,180
9	화산		14					35,559
	계		179					3,097,085

함평읍 석성리 성곡 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 수매금액	수매계동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김복영	420		200-900 200-1100	농협 상인	·	553,140	422,000	131,140
2	배인석	222		1,100	상인	18	292,374	224,400	67,974
3	임태봉	183		1,300	농협	2	241,011	235,300	5,711
4	진종환	160		1,100	상인	8	210,720	167,200	43,520
5	박병술	120		1,300	농협	16	158,040	135,200	22,840
	계								271,185

함평읍 장년리 백련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 매금액	수매 계동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이국행	17		1,000	상인	2	22,389	15,000	7,389
2	이갑행	12		1,000	상인	1	15,804	11,000	4,804
3	이상행	48		850	상인	5	63,216	36,550	26,666
4	김흥용	34		850	상인	3	44,778	26,350	18,428
5	박내오	25		850	상인	2	32,925	19,550	13,375
6	박수복	25		850	상인	2	32,925	19,550	13,375
7	김기혁	4		850	상인		5,268	3,200	2,068
8	박내철	70		850	상인	7	92,190	53,550	38,640
9	김상호	48		920	상인	10	63,216	34,960	28,256
10	이재필	6		850	상인		7,902	5,100	2,802
11	이송행	21		850	상인		27,657	17,850	9,807
12	임연섭	43		850	상인		56,631	34,850	21,781
13	이재신	24		1000	상인	1	31,608	23,000	8,608
14	김몽득	80		850	상인		105,360	68,000	37,360
15	이천행	75			상인		98,775	63,750	35,026
16	김갑채	11		800	상인		9,219	5,600	3,619
17	김기준	31		930	상인		40,827	26,040	14,787
18	김동옥	8		850	상인	1	10,536	5,950	4,586

380) 피해조사 자료는 2009년 8월 19일, 노금노 제공.

번호	성명	수매량 (포대)	부패량 (포대)	포당수 매금액	수매 계동	감량 (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9	이종식	43		1300	농협		56,631	55,900	731
20	김병식	15		850	상인	1	19,755	11,900	7,855
계									299,963

함평읍 장년리 월선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 (포대)	부패량 (포대)	포당 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 (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모육월	30		21-820 8-765	상인	1	39,510	23,340	16,170
2	김동북	34		800	지정인	4	44,778	24,000	20,778
3	임봉식	45	5	700	지정인	11	65,850	23,800	42,050
4	김상열	25		850	상인	4	32,925	17,850	15,075
5	김동춘	53		1317	지정인	2	69,801	67,167	2,634
6	이영남	31		1,000	상인통한농협 수매		40,827	31,000	9,827
7	임종식	110	13	800	상인	23	161,991	69,600	92,391
8	안문환	45		21-1317 22-850	지정인	2	59,265	46,357	12,908
9	김연호	20		850	상인	3	26,340	14,450	11,890
10	장성일	16		820	상인		21,072	13,120	7,952
11	정종복	11		1,000	상인		14,487	11,000	3,487
12	김도근	30		1,100	상인		39,510	33,000	6,510
13	김양복	11		760	상인		14,487	8,360	6,127
14	장대우	104		950	상인		136,968	98,800	38,168
15	이남섭	118	2	820	상인		158,040	98,400	59,640
16	김복기	50		760	상인	5	65,850	34,200	31,650
17	김인혁	20		800	지정인		26,340	16,000	10,340
18	김동봉	7		1,000	상인		6,219	7,000	2,219
19	김수복	3		1,310			3,951	3,930	21
20	이남기	479		40-1,310 9-500	상인		64,533	56,900	7,633
21	김승현			1,310	농협				
22	김봉순	7		820	상인		9,219	5,740	3,479
23	김해운			820					
24	편종범			1,000					
25	이두범	45		23-650 36-1,000	지정인		59,265	45,000	14,265
26	이상숙	59		950	지정인 상인		77,703	60,950	16,753
27	김상옥	19		950	상인	3	25,023	15,200	9,823
28	박덕현	30		820	상인		39,510	28,500	11,010
29	이용행	20		850	상인		26,340	16,400	9,940
30	김정배	15					19,755	12,750	7,005
계									452,763

함평읍 장교리 월봉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 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노석봉	90			신한제분	11	118,530		
2	노기봉	58			신한제분	15	76,386		
3	주봉수	80			신한제분	8	105,360		
4	김태섭	90		1,290	신한제분	3	114,100	112,230	1,870
5	박동근	140			신한제분	15	184,380		
6	김금식	170			신한제분	20	227,890		
7	김남철	50			신한제분	5	65,850		
8	이천석	220			보해	20	289,740		
9	김근식	35			신한		46,095		
10	박삼량	54		1,250	신한	5	67,500	61,250	6,250
11	장정환	35		1,150	보해		76,095	40,250	5,845
12	유노적	18			신한	2	23,706		
13	박장근	1750			신한	15	230,475		
14	김규식	20			신한	3	26,340		
15	이종우	70		1,310	신한	4	92,190	86,460	5,730
16	노기현	110		1,100	보해	12	144,870	107,800	37,070
17	이문종	95		1,310	신한	3	125,115	120,520	4,595
18	이복순	70		1,290	보해	3	92,190	86,430	5,760
19	이상제	150		1,200	보해	13	197,550	164,400	33,150
20	장삼순	110			신한	10	144,870		
21	지길홍	100			보해	11	131,700		
22	이양우	120			신한	10	158,040		
23	박연수	45			신한	3	59,265		
24	이석현	125			신한	35	164,625		
계									100,270

대동면 백호리 백년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매 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조정현	102		8,000	농협	2	134,334	100,000	34,334
2	이광옥	48		8-600 40-850	농협 상인		63,216	38,800	24,416
3	이제원	40		850	농협	3	52,680	34,000	16,680
4	김태환	8	12	850	상인		26,340	6,800	13,540
5	임전수	95		1,000	농협	1	125,112	95,000	30,112
6	김동만	97		900	농협	2	127,749	87,300	40,449
7	한귀춘	64		1,000	농협	7	78,188	64,000	14,188
8	배남동	64		1,000	농협	16	78,188	64,000	14,188
9	임대재	110		850	상인	0	144,870	93,500	51,370
10	임태옥	89		1,000	상인		117,213	89,000	28,213
11	임오순	45		850	상인		59,265	38,250	21,015
12	임종태	72		20-800 52-850	농협		94,824	60,200	34,624
13	임재친	30		850	상인		39,510	25,500	14,010
14	전도현	50		1,000	농협	28	65,850	22,000	43,850
15	김정민	79		1,000	농협	23	104,043	56,000	48,043
16	김재완	115		900	상인	13	151,455	91,800	59,655
17	박재관	32		900	상인		42,144	28,800	13,344
18	박남일	55		850	상인		72,435	46,750	25,685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9	황이권	50		1,000	농협		65,850	50,000	15,850
20	노수환	36		850	상인	1	47,412	29,750	17,662
21	김채석	34		850	상인	2	44,778	25,600	19,178
22	황의선	27		1,000	농협	2	35,559	25,000	10,559
23	임공근	53		800	상인-농협	3	69,801	40,000	29,801
24	임천동	85		800	상인-농협	2	111,945	66,400	45,545
25	임정택	100		900	상인-농협	32	131,700	61,200	70,500
26	김일두	140		1100 1150	상인-농협	4	184,380	156,400	27,980
27	김일수	60		800	농협	3	79,020	48,000	31,020
28	임순용	74		1,000	농협	14	97,458	74,000	23,458
29	황연주	65		1260	농협	5	85,605	81,900	3,705
30	임해수	86		50-1300 36-900	농협		113,262	97,400	15,862
31	나금남	40		1,000	농협	5	52,680	40,000	12,680
32	임성순	65		1,100	농협	4	85,605	71,500	14,105
33	임재균	130		1,000	농협	10	171,605	130,000	41,605
34	정경태	80		1,000	농협		105,360	80,000	25,360
35	황의재	132		1,200	농협		173,844	158,400	15,444
36	임이재	73		800	농협	3	96,141	58,400	37,741
37	정종화	55		850	농협	1	72,435	46,750	25,685
38	조만식	52		1,000	농협	2	68,484	52,000	16,484
39	임연섭	16		800	농협	2	21,072	11,200	9,872
40	조철환	91	10	1,000	농협	1	133,017	90,000	43,017
41	임순선	95	10	800	농협	3	138,285	73,600	64,685
42	조히진	140		51-1100 50-700 39-600	농협		184,380	114,500	69,880
43	황의평	63	10	1,000	농협	2	96,141	61,000	35,141
44	노낙천	88		46-1280 42-1000	농협		115,896	100,880	15,016
계									1,265,551

대동면 금산리 과목장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 2등(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김정수	40		1,317	상인	2	52,680	50,046	2,634
2	신용수	28		1,317	상인	1	36,876	35,561	1,315
3	이성범	53		1,317	상인	3	69,801	65,850	3,951
4	김양말	120		1,317	상인	5	158,040	151,455	6,585
5	김호길	14		1,317	상인		18,438	18,438	-
6	서경원	37		1,317	상인		48,229	48,229	-
7	정충모	15		1,317	상인	2	20,550	17,916	2,634
계									17,119

신광면 가덕리 가덕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2등(1,317원)	실제수매금액	손실금
1	임무열	9		880	상인		11,853	7,920	3,933
2	양남진	9		880	상인		11,853	7,920	3,933
3	김재술	25		880	상인		32,925	22,000	10,925
4	정숙자	40		880	상인		52,680	35,200	17,480
5	김경수	5		880	상인		6,585	4,400	2,185
6	서양하	14		1,050	상인		18,438	14,700	3,738
7	박귀하	16		880	상인		21,072	14,080	6,992
8	서성길	20		1,050	상인		26,340	21,000	5,340
9	김일학	9		880	상인		11,853	7,920	3,933
10	박정환	6		880	상인		7,902	5,280	2,622
11	윤영례	6		880	상인		7,902	5,280	2,622
12	박용곤	16		880	상인		21,072	14,080	6,992
계									70,695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포대)	부패량(포대)	포당수매금액	수매계통	감량(포대)	수매량×고시가2등(1,317원)	실제수매금액	손실금
1	장종원	80	20	450	상인		131,700	36,000	95,700
2	조성태	71	14	41-450 30-800	상인 농협		111,945	42,450	69,495
3	장두병	49		1,000	상인	4	64,533	45,000	19,533
4	김성원	29	3	800	농협	5	42,144	19,200	22,944
5	유재일	28		1,000	상인	4	36,876	24,000	12,876
6	이영실	51		1,000	상인	7	67,167	44,000	23,167
7	이행하	11	9	800	농협		26,340	8,800	17,540
8	장태병	28	6	1,000	상인	4	44,778	24,000	20,778
9	박천수	22		1,000	상인	5	28,974	17,000	11,974
10	진채언	15	15	1,000	농협	5	39,510	10,000	29,510
11	유수근	13	3	800	농협		21,072	10,400	10,672
12	진태섭	19	1	7-600 8-200	상인	4	26,340	5,800	20,540
13	이삼용	17	5	2-800 13-1000	농협 상인	2	28,974	14,600	14,374
14	장종태	60		400	상인		79,020	24,000	55,020
15	장대석	13		800	농협		17,121	10,400	6,721
16	김종열	5	11	450	농협		21,072	2,250	18,822
17	김길주	55	7	47-800 8-450	농협		81,654	41,200	40,454
18	유강식	11		1,000	상인	2	14,487	9,000	5,487
19	정승현	24	10	1,000	상인	4	44,778	24,000	20,778
20	고인순	28		1,000	상인	9	36,876	19,000	17,876
21	이종남	18		1,000	상인	4	23,706	14,000	9,706
22	장진석	84		1,000	상인	10	110,628	74,000	36,628
23	장석근	5		600	농협		6,585	3,000	3,585
계									584,180

학교면 월산리 화산마을

번호	성명	수매량 (포대)	부패량 (포대)	포당수매 금액	수매계통	감량 (포대)	수매량×고시가2등 (1,317원)	실제 수매금액	손실금
1	임재상	36	4	1,317	농협	1	52,680	46,095	6,585
2	임영조	40		1,317	농협		52,680	52,680	-
3	유순애	28		1,317	농협		36,876	36,876	-
4	최영만	50		1,317	농협		65,850	65,850	-
5	노성조	35		1,317	농협		46,095	46,095	-
6	김동균	23	2	1,317	농협	2	32,925	27,657	5,268
7	임노철	35	4	1,317	농협	1	51,363	44,778	6,585
8	임기남	30		1,317	농협		39,510	39,510	-
9	임기종	35	5	1,317	농협	3	52,680	42,144	10,536
10	문하식	25		1,317	농협		32,925	32,925	-
11	유순애	28		1,317	농협		36,876	36,876	-
12	노진갑	30		1,317	농협		39,510	39,510	-
13	임기홍	20	5	1,317	농협		32,925	26,340	6,585
14	임기환	35		1,317	농협		46,095	46,095	-
계									35,559

대책위원회와 함평가톨릭농민회는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함평군농협은 전량수매 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농민이 생산한 고구마는 본인 책임 하에 자유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이므로 공판장까지 출하된 것만이 당조합의 책임일 뿐 가정에 보유된 것은 모두 보관·판매·소비 등이 농가책임이므로 당 조합은 하등 책임이 없다. 다만 앞으로 지하실저장시설 지도와 계통출하 기반 조성 등 농가지도에 가일층 노력하여 농민들의 고구마 수매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해명 아닌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했다.[381]

3. 피해보상운동의 전개과정

당초 대책위원회는 출범할 당시 도지부장이 직접 약속한 일이고 피해조사에 응한 농가나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1976년 11월과 12월이 지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가운데 해를 넘기게 되자 농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함평군농협은 이 같이 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자 해당마을 유지들을 앞세워 '본인이 생산한 고구마는 영농형편상 상인에게 판매했고 대금은 전액 받았으므로 농협이나 다른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가는 농간까지 벌였다. 여기에는 농민들에게 확인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잠깐 도장 좀 빌리자', '아무것도 아니다'며 도장을 찍어가기도 했다. 또한 농협직원, 읍면공무원, 경찰들이 부락에 상주하면서 농민들의 동태를 살피며 '대책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회유함은 물론 읍면직원들이 농민회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함평가톨릭농민회 활동자금이 용공단체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농민들을 겁주기도 했다. 더욱이 농민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381) 1977년 3월 3일자, 안수복 함평농업협동조합장 해명서.

'산에서 나무 한 가지 베어다 땔 줄 아느냐' '집안에 막걸리 한사발이라도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구마 사건으로 경비를 들여 목포법원까지 꼭 갈 것이냐' '그렇게 간다고 재판에서 이길 줄 아느냐'라고 위협하며 농민회와 대책위원회 투쟁대열에서 이탈하도록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회까지 협박했다. 이 같은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자 농민들은 하나 둘 투쟁대열에서 이탈해 나갔다.[382]

심지어 농수산부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이 농민회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는 자유와 인권유린을 다반사로 일삼으며 무조건 굴종하기를 바라는 자기 마음에 반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유신독재정권의 기본속성이 내포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히려 서경원 농민회장과 일부 회원들에 대해 '사상이 불순한 사람' '북괴에 동조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 했고 가톨릭농민회와 대책위원회 투쟁을 '공산당 식'이라며 '빨갱이'로 몰아붙이는가하면 나중에는 '서경원은 간첩'이라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퍼뜨렸다.[383] 심지어 1977년 12월 3일 대책위원회 교육담당 및 함평가톨릭농민회 분회장인 노금로(당시 29세)가 거주하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마을에 읍사무소 직원 6명과 군청직원 2명 등 8명의 공무원이 나타나 '지붕개량을 하지 않았다'며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던 노금노·모종만·김정선·김월선·한재열 초가집 다섯 채의 지붕을 난데없이 철제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갈고리로 헐어버렸다. 고구마 피해보상운동에 대한 보복차원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384]

그러면서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회원들의 보상요구시위와 항의집회참가를 겁주는 탄압을 계속 되풀이했다. 심지어 회장인 서경원이 생산한 고구마 51부대를 전량 수매해주겠다는 등 대책위원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의 고구마는 썩은 것까지 전량 수매하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대책위원회 간부들의 것을 모두 수매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이나 농민들로 하여금 상호 불신토록 이간질하여 대책위원회나 가톨릭농민회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깔려있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하소연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 시위에 참가했던 500여명의 농민들이 대부분 이탈했다.

그렇다고 농민들과 대책위원회로서는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법,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마지막까지 남은 179명은 함평뿐만 아니라 농협도지부가 있는 광주시내의 천주교교회는 물론 개신교교회 등 종교계의 호응을 받아 적극적인 항의와 보상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해를 넘긴 1977년 1월 농협이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시종 무마와 회유로 일관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가톨릭농민회와 대책위원회는 1월 10일 오전 10시 함평천주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농민대표와 대책위원 및 함평천주교회 주임신부 등 23명은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라남도지구연합회' 이름으로 농협의 반응이 없으면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연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1) 본 고구마사건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382) 2009년 6월 2일 서경원·2009년 8월 19일 노금노 증언
383) 2009년 6월 2일, 서경원 증언.
384) 2009년 8월 19일 노금노 증언.

2) 고구마 생산농가 피해조사서에 기록된 피해전액을 조속히 보상하라
3) 우리는 불필요한 면담을 원치 않으며 서류상의 답변을 요구한다.
4) 본 고구마사건에 관한 해결의 확답이 1977년 1월 18일까지 없을 때 우리 임의대로 행동한다.
5)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피해 입은 농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국민총화'는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 농민회의 힘으로라도 국민총화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385]

이러한 결의는 그 동안 각 농가의 피해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액을 과학적인 투쟁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회유와 인간질에 말려들지 않도록 농민들의 재결속을 다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협 및 경찰의 회유와 억압을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대책위원들은 결의문을 선포한 후 부락유지들을 앞세운 농협 및 경찰의 회유와 무마책으로 인해 이완된 농민들의 결속의지를 더욱 다지기 위해 1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각 마을을 돌며 대책위원회의 활동목적을 홍보하면서 '왜 농민들이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라는 의식을 적극 일깨우고 다녔다. 이에 대해 농협은 물론 경찰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며 대책위원들을 겁주고 매도했다. 그런 가운데 농협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결의문에서 지적한 1월 18일까지의 회신기한조차 무시해 버렸다. 농민들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깔아뭉개진 것이다. 그러면서 함평경찰서의 형식적인 주선으로 농민대표와 농협이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지만 '농협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결국 거부했고 경찰은 농협을 응원하며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철회만을 강요하고 나왔다.

이렇게 함평고구마피해보상 문제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다. 드디어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들고 일어났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 연합회는 1977년 1월 31일 오후 2시 광주가톨릭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4개항을 결의하였다.

1) 우리의 태도와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각각 해당 단위조합에 가서 싸운다.
3) 사회여론화하고 언론을 통해 권익을 주장한다.
4) 최후에는 법정투쟁을 벌인다.[386]

함평농협은 대책위원회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데다 여기에 가톨릭 등 종교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1977년 3월 3일 '해명서'를 농민들이게 돌려 농민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 '해명서'에는 자기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농민들을 위해 할만치 했다는 투였다. 우선 신한제분과의 계약에 따라 당초 수매예정이던 1만 2,000톤 이외 5,000톤을 추가해 모두 1만 7,201톤을 수매했기 때문에 할일을 다했다는 것이다. 특히 5,000톤 중 1,200톤(1만 2,000부대)은 영광·곡성·영암농협에 알선하여 수매토록 했다며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1만 7,201톤을 수매한 결과 농촌에는 더 수매할 고구마가 없다며 다음과 같은 1976년산 고구마사업현황을 공개했다.

385) 한국정치상연구회, 『大命-70년대 강압정치와 민중항쟁운동』, 동광출판사, 1988, 69쪽 재인용.
386) 한국정치상연구회, 『大命-70년대 강압정치와 민중항쟁운동』, 동광출판사, 1988, 70쪽.

해 명 서[387]

1) 재배면적 1,296ha
2) 총생산량 2만 5000톤(26,200톤)[388]
3) 수매량
가, 생고구마 17,000톤(5,000톤 초과 수매했으며 이중 1,200톤(2만 부대)은 영광·곡성·영암 등 타 지역에서 수매한 량)
나, 절간고구마 201톤
계 17,201톤
4) 잔여 량 합계 7,799톤
가, 종자 고구마 1,040톤
나, 식용 판매 2,000톤
다, 자가소비 4,000톤
라, 개인판매 75

그러나 이 같은 해명서는 피해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더욱 감정을 상하게 했다.

1977년 4월에 들어서자 대책위원회는 전국 각계에 고구마 피해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유인물을 발송하는 한편 광주시내 계림동천주교교회에서 윤공희 대주교가 집전하는 '고구마피해보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한국가톨릭농민회는 함평고구마사건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등 197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년 내내 갖가지 호소문·선언문·결의문을 보내고 곳곳의 성당과 교회에서 함평고구마사건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여는가 하면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농민단체 회의에 참석해 경과보고와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하는 운동을 잠시도 쉬지 않고 벌였다. 더욱이 이들은 농협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농협중앙회장과 정부당국에 끊임없이 보냈다. 함평 농민들의 고구마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농협이 민주화 되어 있지 않고 관료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89]

★ 1976년 10월 1일=함평군농협은 함평읍 소재 신한제분과 고구마 1만 2,000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읍·면 단위조합을 통해 작년보다 17.4% 인상한 값으로 수매한다는 전단을 돌려 홍보했다. 아울러 생고구마는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절간고구마는 11월 1일부터 4개월간 수매한다고 발표했다.

★1976년 10월 13일=함평군농협은 단위조합에 공문을 보내 고구마 생산예상량의 절반가량은 절간고구마로 출하토록 장려했다.

★1976. 10. 21. 함평농협은 생고구마수매목표량 중 4,000톤을 절간 고구마로 수매하라고 예하 단위농협에 지시했다.

★1976년 11월 18일=함평가톨릭농민회 관계자와 고구마피해농민 10여명은 함평읍 함평리 청하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면서 '농민의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된 고구마가 길가에서 눈비를 맞고 썩어가는 것은 곧 농민들이 썩는 것과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390]

---

387) 1977년 3월 3일자, 安壽福 함평군 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해명서'

388) 함평농협이 보낸 해명서에는 1976년 함평군 내 생산량을 2만 5,000톤으로 표시했으나 그 안에 총생산량 2만 6,200톤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총생산량은 2만 6,299톤이었던 것을 2만 5,000톤으로 줄여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1977년 3월 3일자, 안수복 함평농협조합장의 해명서).

389) 이 요약문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99 ; 조영욱, 「1970년대 함평농민운동의 연결망과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한국정치상연구회, 『大命-70년대 강압정치와 민중항쟁운동』, 동광출판사, 1988 ; 서경원·노금노 이외 해당농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작성했음.

★1976년 11월 23일=각 마을대표와 농민회 관계자 17명은 청하식당에 재차 모여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오후 3시 선출된 서경원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함평농협을 방문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197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대책위원회는 함평·대동·신광·월야·학교 등 5개 읍면 179농가피해를 조사한 결과 309만 7,085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했다.

★1976년 11월 25일='왜 시끄럽게 하느냐' '사상이 불순하다'며 경찰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1976년 11월 29일=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들은 함평군농협을 재차 방문하고 대책위원회 활동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전액을 보상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농협은 '처음 하는 일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남은 고구마를 모두 사들이고 외상수매대금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외상대금은 농협이 수매한 후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액수는 일반상인들 것과 합쳐 1976년 12월 현재 250만원이었다.

★1977년 1월 10일=오전 10시 함평천주교회에서 179개 농가대표 및 가톨릭농민회원, 그리고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 임원, 함평천주교회 주임신부 등 23명이 모여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 이름으로 1월 18일을 회답시한으로 정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평군농협에 전달했다.

★1977년 1월 13일=피해농가마을에서 농협직원들이 피해 농가를 찾아가 '본인이 생산한 생고구마는 영농형편상 상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농협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받아가는 현장에서 대책위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1977년 1월 14·15일=대책위원들은 4일 전 발표한 결의문을 홍보하는 한편 함평군농협이 마을 유지들을 앞세워 펼친 회유·협박으로 인한 농민들의 해이된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르도록 마을을 돌면서 '농민이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설득작업을 벌였다.

★1977년 1월 18일=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 이름으로 보낸 1월 18일 시한의 5개항 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함평농협에 의해 묵살되었다.

★ 1977년 1월 31일=한국가톨릭농민회 본부, 동 전남지구연합회,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회의에서 투쟁단계를 함평군단위에서 전남도단위로 한 단계 높여 확대하기로 하고 4개항의 투쟁방침을 결의했다.

★1977년 2월 24일=고구마대책위원회는 전남지구연합회 회원 7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함평고구마 생산농가 피해의 내막과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농민의 피해보상을 당장 받아내는 한편 민주농협의 신장을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 회원일동은 이미 지적한 '피해액 309만 7,085원을 조속히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협 아닌 전남도경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으며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3월 1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농민대표들에게 응답해 왔다.

★1977년 3월 3일=안수복 함평군농업협동조합장은 '농협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군내 각 농가에 발송했다.

★1977년 3월 8일=함평가톨릭농민회 및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함평읍과 대동면단위농협을 상대로 농협의 강제출자거부운동을 벌였다.

★1977년 3월 9일=전남지구연합회 회장단과 고구마대책위원들은 도청기자실에서 함평고구마사건 내용을 브리핑했다.

★1977년 3월 11일=함평경찰서는 함평읍과 대동면단위농협에 대한 강제출자거부운동을 벌인 주동농민을 연행해 갔다.

★1977년 3월 18일=전남일보·중앙일보·현대경제신문에 처음으로 함평고구마사건이 보도되었다.

★1977년 4월 3일=전남지구연합회 임원들은 '농민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다.

★1977년 4월=고구마대책위원회는 농협중앙회·농수산부·청와대 등 각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1977년 4월 15일=피해농가 대표 22명은 농협도지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 간접보상안을 채택하고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 임원회의에 회부했다.

★1977년 4월 18일=전남지구연합회 임원회의는 간접보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다.

★1977년 4월 22일=광주 계림동천주교회에서 함평농민 150명을 비롯한 전남 각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고구만사건 타결기도회'를 가진 다음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원일동은 '농

390) 2009년 5월 4일 서경원 증언 ; 조영호, 앞의 글.

협민주화운동 결의문'을 발표했다.[391] 함평농민들의 고구마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농협이 민주화되지 않고 관료적 독선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어서 농협의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백출했었다. 그리고 농민대회 겸 기도회를 끝낸 회원들은 농협도지부장 면담을 위해 농협도지부 광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977년 4월 25일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함평군고구마피해실태를 조사했다.

★1977년 5월 2일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가 합동조사결과의 강평회를 통해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액이 고구마대책위원회 조사액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내용공개는 거부했다.

★1977년 5월=함평경찰서는 '함평고구마사건타결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농민들을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1977년 5월 17일=한국 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와 고구마대책위원회는 농협도지부장에게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1977년 6월=노금노 함평가톨릭농민 총무는 서울 동대문천주교회 기도회에 참석하고 함평고구마사건을 설명했다.

★1977년 8월 5일=한국가톨릭농민회 전남지구연합회 및 고구마대책위원회는 9월 5일 광주북동천주교회에서 제2차 기도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1977년 8월 15일=전남지구연합회 회원 및 고구마대책위원들은 서울 방림방적 노임 체불사건을 위한 동대문천주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

★1977년 8월 16일=전남지구연합회 회원 및 고구마대책위원들은 대전가톨릭농민회 본부회의에 참석, 협조를 호소했다.

★1977년 8월 17일=전남지구연합회 회원 및 고구마대책위원들은 부산에서 열린 전국기독교청년회에 참석, 함평고구마사건에 대한 협조를 호소했다.

★1977년 8월 24일=경찰개입으로 9월 5일 예정된 광주북동천주교회 기도회가 무산되었다.

★1977년 8월=한국가톨릭농민회장 최병욱은 농협중앙회장에게 15개 항목에 걸친 공개장을 발송하고 3개항을 요구했다.[392]

★1977년 11월=고구마대책위원장 서경원은 대전에서 열린 추수감사제 및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고 함평고구마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1977년 12월 3일=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마을에 공무원 8명이 함평가톨릭농민회 회원 5명의 초가지붕을 헐어버렸다.

★1978년 1월=한국가톨릭농민회와 동 전남지구연합회는 함평고구마 사건에 대한 투쟁을 강력한 실력행사로 펼칠 것을 다짐했다.

★1978년 2월=고구마대책위원들은 4월 실시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때 함평고구만 사건을 강력하게 제기하여 이의 해결을 공약하지 않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말도록 권유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1978년 2월 28일=한국가톨릭농민회 본부, 동 전남지구연합회, 고구마대책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4월 24일 광주 북동천주교회에서 '함평고구마피해 농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뒤이어 전국농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4. 단식투쟁과 피해보상 실현

1976년, 1977년에 이어 햇수로 3년째인 78년 1월이 되었다. 그래도 농협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와 고구마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참으며 기다릴 수가 없었다. 투쟁의 강도를 더욱 다그쳐야 했다. 179농가의 피해액 309만원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보아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농민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농협은 물론 유신독제체제의 의식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

391)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99, 230쪽.
392)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99, 228쪽.

기돼 물러설 수 없는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본부, 동 전남지구연합회,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당위성과 필연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월 28일 합동회의에서 결의한대로 오는 4월 24일 광주 북동천주교회에서 '피해 농가를 위한 기도회'는 물론 대대적인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대정부투쟁 쪽으로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은 4월 22일 '함평고구마사건은 농협이 민주화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고 농협민주화운동 결의문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다시 보내 촉구하면서 강력투쟁을 서서히 본격화 해 나갔다.

한국가톨릭농민회와 전남지구연합회 및 고구마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4월 24일 오후 3시부터 광주시 북동소재 북동천주교회에서 전국 각 지역 농민·종교계·재야 및 학생운동권 인사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공희 대주교와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단 공동 집전으로 '함평고구마피해 보상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공희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농협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함평군 농가에는 당연히 그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데도 3년째 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협의 존재자체를 의심케 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지도신부단의 이종창 신부는 이에 부연해서 (1) 함평고구마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루속히 실시할 것, (2) 농민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3) 구속된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원 두 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진행된 2부 순서에서 농민회 회원들은 본격적인 투쟁을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함평고구마사건 및 투쟁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농협의 비민주적 작태와 농민회 탄압사례도 발표되었다. 또한 지도신부단·가톨릭농민회·전국회원 일동명의의 성명서·선언문·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주최 측은 농협도지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일부회원들이 농협도지부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강력하게 저지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성당 뜰로 되돌아와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밤 11시에 시작된 연좌농성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24일 밤을 새운 연좌농성회원들은 계속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성당주변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위상인들로 하여금 '영업에 방해된다'며 성당에 항의하도록 배후에서 종용해 연좌농성을 스스로 해산하도록 시도했다. 낮 12시쯤 농성회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단식이라는 마지막 단계의 초강력수법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지도신부와 함께 73명이 참가했다. 전남출신 44명을 비롯한 강원·경북·경남·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의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비회원도 17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13명의 대학생도 끼어 있었다.[393]

단식 이틀째인 26일 새벽부터 경찰은 성당 앞 인도와 주변을 완전봉쇄하고 일반신도들의 새벽미사 참여까지 저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단말마적 행태를 노정했다.

4월 27일 아침 농성회원들은 경찰이 밤사이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내건 현수막은 물론 심지어 예비자 입교환영 현수막까지 철거하고 신도들의 새벽미사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종교적 탄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함을 간파했다. 정·사복 경찰은 성당주변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성당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회원들의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공포분위기

393) 조영욱, 「1970년대 함평농민운동의 연결망과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는 더욱 고조되었다.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단은 경찰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이 날짜로 전국 모든 교회에 단식자들의 상태와 의지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후 1시 쯤 윤공희 대주교가 단식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기도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잠시 단식 농성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고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들도 농성자들의 뜻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단식투쟁은 함평지역 차원이 아니라 천주교광주대교구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이 날 YWCA회관에서 열렸던 인권기도회 참가자들은 기도회가 끝난 후 단식농성현장으로 몰려왔으나 기동경찰이 무력으로 강제 저지하는 한편 20여명을 연행하는 바람에 농성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 특히 가톨릭농민회 탄압을 중단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국 홍보부장과 조봉훈 회원이 전날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여비와 숙식비를 지원하면서까지 단식 농성자들의 가족을 단식현장으로 초치, 설득토록 공작해 농성장을 억지로 와해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 YWCA에서는 북동성당에서 단식농성투쟁 중인 가톨릭농민회원들과 함평고구마피해농민들을 위한 기도를 열었다.

농성 나흘째인 28일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고립된 단식농성회원들은 전국회원들에게 단식 현장을 상세하게 알리고 그들의 성원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오후에는 서울에서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각계 양심인사들이 줄지어 단식현장을 찾아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위로금을 전달했다. 전날 연행된 이상국·조봉훈 두 회원의 소식은 아직도 캄캄 무소식이었다. 경찰의 농성장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다. 회원들은 경찰의 비열한 수법에 의해 단식농성이 강제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긴박감을 느끼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이 날 오후 2시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가톨릭회관 7층에 있는 광주대교구장 사제관에서는 농민회 측과 당국간의 협상이 열렸다. 농민회 쪽에서는 윤공희 대주교와 가톨릭농민회 및 전남지구연합회 지도신부 및 함평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대표가, 농협 및 당국에서는 고건 전남도지사와 농협도지부장, 중앙정보부 광주분실장, 전남경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 탄압중지와 연행된 회원석방에 대한 약속은 있었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농협 측 안으로 5월 31일까지 피해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겠다는 극히 막연하고 무성의한 미봉책이 제시되었다. 농민회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협상은 즉각 결렬되었다.

다음 날인 4월 29일 아침 농협도지부 판매과장이 북동성당에서 단식 중인 서경원 위원장을 찾아와 309만원 현금을 제시하며 생산 장려금이라는 명목을 붙여 타협하자고 제의해왔다. 서경원 위원장은 단호했다. 어디까지나 고구마피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붙어있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서작성도 요구했다. 잠시 후 농협당국의 요청으로 아침부터 북동천주교회 인근 커피숍에서 서경원 위원장과 판매과장 등 실무자 중심으로 협상이 재개되었다. 농민회 측에서는 지도신부 및 농민회 대표, 함평대책위원회 서경원 대표 등이 참석했고 농협 측에서는 도지부 판매과장, 중앙정보부 조정관, 도경 형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과 경찰은 피해손실금으로 계산된 309만 7,085원 전액을 보상하고 이상국·조봉훈 두 회원을 즉각 석방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투쟁과정의 경비도 요구했지만 거부되었다. 농민회 측은 6명의 단식농성자들이 실신하는 등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소진되는 바람에 '고구마피해 간접보상'이라는 명분을 붙인 협상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개월에 걸친 함평고구마피해사건은 이렇게 매듭지어졌다.[394] 이 날 개신교인 양림교회에서

는 단식 농성자와 함평고구마피해농민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농성자들을 성원하기도 했다.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인 30일이 되었으나 두 사람은 석방되지 않았다. 단식농성은 그들이 석방될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5월 1일 저녁 7시 30분, 광주 남동천주교회는 '북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신부들이 공동 집전한 이 기도회에는 수십 명의 개신교 성직자 및 관련자들과 각계 사회지도층 양심인사들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비오 신부는 단식투쟁 중인 회원들을 대신하여 구속 중인 두 사람 회원의 조속한 석방과 농민회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특히 문익환 목사는 '이번 농민들의 단식투쟁은 대한민국 민주회복운동과 인권수호투쟁사에 찬연하게 빛나는 공로를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농민들의 투쟁의식을 극찬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100여명의 양심인사들은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전국농민인권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이종창 농민회 지도신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회가 앞으로 불의와 압제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농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투쟁하는 적극적 단체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협상타결 3일이 지난 2일이 되어서야 이상국·조봉훈 두 회원이 석방되어 단식농성장으로 돌아왔다. 무려 8일 간 계속된 단식투쟁 동안 6명이 의식을 잃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의연한 회원들의 의지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이제 단식투쟁을 멈출 때가 되었다. 단식농성자들은 지도신부들과 함께 '농성을 끝내는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하다가 이미 구속된 유남선·정성헌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오는 5월 8일 춘천교구 주최로 춘천시 죽림동성당에서 열기로 한 기도회에 모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 다음 '단식농성을 풀면서'라는 이름으로 전국 가톨릭농민회원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함평고구마사건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맺 음 말

너무 오랜 동안 치른 노력과 고통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 미미했다. 함평군내 전체 피해액은 1억 4,000여만 원으로 추산되었지만 보상액은 농협과 경찰의 간섭과 협박 때문에 최소한으로 신고한 309만 7,085원, 전체피해액의 2.2%만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보상은 함평군내 피해농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투쟁해온 가톨릭농민회원 또는 여기에 적극 참여한 농민들에게만 해당되었다. 더욱이 갖가지 부대비용을 공제한 결과 어떤 농가는 단돈 23원을 보상받은 경우도 있었다.[395]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투쟁할 힘도 없고 배경조차(조직) 없어 억울한 한 숨을 또 다시 내쉬어야 했다.[396] 더욱이나 함평군 일부 농민들은 가톨릭농민회가 주동이 되어 투쟁한 보람을 그나마 얻어냈지만 그렇지 않은 무안이나 해남 등 다른 군 농민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397] 이 때문에 함평고구마 사건은 다

394) 2009년 9월 12일, 서경원 전화증언.

395) 2009년 5월 4일, 서경원 당시 함평농민회장 증언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333쪽.

396) 감사원은 그 후 4개도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단위농협이 주정회사 및 상인들과 짜고 1976년·77년 이태 동안 고구마수매를 위장해 횡령·착복·유용한 액수가 무려 80억여 원(고구마 24만 6,000톤)이었음이 밝혀져 전남도지부장 1명을 포함한 202명이 해임되고 457명이 정직·감봉·좌천 등의 징계를 받았다(동아일보, 1979년 5월 6일자).

397)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1999, 59·223~241·572쪽,

음 해 일어나는 YH사건에 앞서 서슬 퍼런 유신정권을 상대로 대정부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이겨냈다는 의미가 컸다. 비록 보상액은 미미했지만 순수한 농민운동차원을 넘어 억압으로 일관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도전하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었다. 유신정권이 YH사건에서 보여주듯 연약한 근로자나 농민들의 생존적 하소연까지 깔아뭉개는 인권유린을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을 때였다. 자기네들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가난하고 억울한 농민들의 피해마저 보상하지 않으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다하는 독재정권의 속성을 드러냈지만 결국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박정희 유신정권으로서는 자기네들의 일방적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괘씸한 요구에 대한 유일한 패배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김영택 기).

8). 함평군지우회

(1)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0-6 번지

(2) 연 혁 :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봉사와 협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1972년 12월 17일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함평군 지우회가 발족되었고, 동년 12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서충렬 초대회장을 모시고 출발한 함평군지우회는 함평읍 기각리 891-1번지 김녕호 제2대회장님이 경영하던 대우전자에다 처음 지우회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그 후 함평읍 함평리 139번지에 소재한 희망예식장을 거쳐 함평읍 기각리에 소재한 함평신용협동조합 사무실로, 다시 함평읍 기각리 975번지 제중약국앞 2층으로, 2003년 2월에 함평읍 내교리 200-3번지의 전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오늘 이취임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함평군 지우회는 창립 이후 양로원과 시온원 등을 방문하여 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선행아 표창, 장학사업등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1978년 11월 3일에는 함평읍 기각리 기산초등학교에서 함평군 관내 500여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위안잔치행사를 성대하게 마쳐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1978년 4월 15일에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미감아 학교인 신성분교에 교문과 운동장 연단을 설치하여 기증한바 있고, 또한, 푸른함평건설을 위해 특별사업으로 기산봉 공원화사업을 계획하여 1986년부터 2000년까지 14년에 걸쳐 기산봉에 벚나무 514주를 식재하여 지우회 벚꽃동산을 조성하였고, 2000년 4월에는 벚꽃동산에 지우회 표석을 세워 제막식을 가졌다. 지금도 매년 식목일을 즈음하여 벚꽃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함평군의 지우회 활동사항이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까지 알려져 1978년, 1982년, 1995년 3회에 걸쳐 우수봉사단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군수상도 수차례 수상하였다.

(3) 회원수 : 33명

(4) 활동 실적 :

- 이웃돕기 2명 30만원
- 장학금지급 : 초 6명, 중4명, 고2명 140만원 지급

(5)역대회장 명단

대 별	회 장	대 별	회 장	대 별	회 장
초 대	서 충 열	15 대	이 건 학	25 대	김 종 태
2-4 대	김 녕 호	16 대	김 고 성	26 대	정 철 희
6 대	김 형 중	17 대	박 병 술	27 대	장 동 수
7 대	양 길 배	18 대	김 수 진	28 대	나 기 봉
8-9 대	손 영 길	19 대	한 진 웅	29 대	박 복 천
10 대	송 영 환	20 대	강 병 태	30 대	김 형 모
11 대	박 용 석	21 대	장 영	31 대	양 상 길
12 대	김 백 용	22 대	박 동 연	32 대	김 남 균
13 대	김 영 규	23 대	이 종 연		
14 대	이 건 율	24 대	김 수 개		

9)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구, 보건소 1층)

(2) 연 혁

- 1982. 10. 15 : 창립
- 1987. 02. 27 :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

(3) 회 원 : 32명

(4) 중요 업적

- 1983. 함평군사편찬을 용역 받아 1984년에 편년체 한글판 함평군사를 펴냄(4×6 배판 1,380쪽)
- 함평군 문화유적 조사 : 1983년부터 기산성, 대굴포 전라수영지, 고인돌, 고분 등 군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을 조사 정리하였고, 1990년 대동면 금산리 이음돌 고분을 학계에 알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음
- 함평군 고전 국역본 발간 사업(1985~1991) : 국내외적으로 학술, 사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함평인 저술의 문헌을 국역하여 국역본을 아래와 같이 발간함

- 정유피란기(정유피란기. 정호인-鄭好仁- 지음. 1986)
- 해상록(해상록. 정희득-鄭希得- 지음. 1986)
- 만사록(만사록. 정경득-鄭慶得- 지음. 1986)
- 교재집(교재집. 윤제-尹濟-. 윤정우-尹挺宇 지음. 1989)
- 송파집(송파집. 나각-羅珏- 지음. 1990)
- 영언전(영언전. 박봉혁-朴葑赫 지음. 1991)

•함평군 문헌사료집 발간(1991~1994) 4×6 배판 상, 중, 하권 총 2,400쪽

•마을사 발간(1995~) : 1년에 1개 마을사를 발간키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사(1996 발간)

나산면 나산리 나산마을사(1996 발간)

(5) 역대회장

•1대 리현석(李炫石) 1982.10. 15~1996. 9. 30

•2대 나홍채(羅紅埰) 1996. 10. 1~현 재

10) 함평란우회

(1) 연 혁

•1985. 11. 23 : 회 창립

•1987. 02. 28 : 함평군민복지회관에서 회원 자체 한국춘란 전시회를 가짐(출품작 70점)

•1988. 03. 12~13 : 함평란우회 주관, 함평군, 함평문화원 후원으로 제1회 한국춘란 전시회 개최. 1995년부터 "함평춘란대축제"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8년까지 매년 3월에 전시회를 가짐

• 1990. 12. 21 : 함평국민학교 교정에서 전국 난 동호인 친선 체육대회 개최 서울, 경기, 광주, 진주, 부산, 전북 동호인 등 215명 참가

• 1995. 04. 16 : 나산초등학교 송암분교에서 한국춘란 전국자생지 복원운동 전개. 주관 함평란우회. 주최 월간 난과 생활사. 후원 환경부, 산림청. 참가 인원 500여명

(2) 역대 회장

•1대 양인배(梁因培) 1985. 11. 23 ~ 1991. 05. 10

•2대 김천수(金千洙) 1991. 05. 11 ~ 1992. 05. 09

•3대 양인배(梁因培) 1992. 05. 10 ~ 현 재

11). (사)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

(1)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읍 함평리 154-1 ☎- 322-9990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pgukak9990

(2) 설립목적 :

우리지역의 옛 문화를 발굴, 보전 전승하고 발전시켜 그 맥을 유유히이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3) 연 혁 :

- 1986.08.30 : 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 설립
- 1992. : 사단법인으로 승격
- 2003.03 : 나르다사물놀이패 창단
- 2008. : 나르다예술단 창단

(4) 회 원 수 : 110명

(5) 주요활동 실적 :

- 남도국악제출전 - 1992~ 현재
- 전남민속예술축제출전- 1998 ~ 현재
- 기산제 봉행시 길굿 - 1994. ~ 현재
- 나비축제 국악한마당- 1995.~ 현재
- 나비축제전국마라톤대회시 길굿 - 2005.4.~ 현재
- 전국호남가경창대회 개최 - 2002.5.~ 현재
- 필리핀 앙길레스시 초청공연 - 1997년
- 향교기로연 축하공연
-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축하공연
- 한중문화교류행사
- 광주충장축제 시가행진 - 2008 ~ 현재
- 장애인 송년모임축하공연
- 국향대전예술인축하한마당 - 2006.~ 현재
- 경로위안잔치
-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시 길굿
- 요양원,장애인시설 방문공연봉사
- 생활체육협의회대회시 입장식봉사 등 다수

(6) 역대 회장 :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1 대	윤 인 상	1986. 08. 30 ~ 1988. 12.
2 대	김 선 일	1989. 01. ~ 1991. 12.
3 대	최 수 복	1992. 01. ~ 1994. 12.
4 대	신 오 성	1995. 01. ~ 1996. 06.
5 대	옥 경 래	1996. 07. ~ 1997. 12.
6 대	박 문 식	1998. 01. ~ 2000. 12.
7 대	박 문 식	2001. 01. ~ 2003. 12.

8 대	박 문 식	2004. 01. ~ 2007. 12.
9 대	박 문 식	2008. 01. ~ 현재

12).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69번지

(2) 설립목적 :

한농연은 새천년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다할 것으로 되어있다.

(3) 연 혁 :

• 1987. 12. : 전국 후계자 협의회 창립 총회

(4) 회원 수 : 900여명

(5) 역대 회장 :

역대 회장	초대	1987. 12 ~ 1988. 12	이 동 윤	엄다 화양리 859
	2대	1989. 01 ~ 1990. 12	이 영 호	나산 초포리
	3대	1991. 01 ~ 1992. 12	류 중 권	해보 금덕리
	4대	1993. 01 ~ 1994. 12	서 수 정	
	5대	1995. 01 ~ 1996. 12	김 봉 수	함평 장교리
	7~8대	1997. 01 ~ 2000. 12	조 은 기	대동 운교리 902
	9대	2001. 01 ~ 2002. 12	임 희 구	손불 대전2구
	10대	2003. 01 ~ 2004. 12	양 문 오	학교 월호리
	11대	2005. 01~ 2006. 12	이 재 영	나산 구산리
	12대	2007. 01 ~ 2008. 12	강 대 도	손불 궁산리 967-28

13). 함평군 게이트볼 연합회

(1)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2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구내

(2) 설립목적 :

국민생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이의 스포츠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게이

트볼운동을 폭넓게 보급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활동을 즐기도록함으로써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개요

- 1988.03.10 : 함평군 게이트볼 동호회 조직 (함평읍거주자 회원 11명. 단일팀. 회장 한원섭)
- 1988.03.05 : 함평군 게이트볼 연합회 조직 (면단위 3개분회 –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 회원27명. 3개분회 연합회장 조동범)
- 2000.03.10 : 7개분회로 확대 조직 (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신광면, 손불면, 나산면, 학교면)
- 2006.01.19 : 각 면별 9개 분회로 확대 조직 (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신광면, 손불면, 나산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 2007.05.10 : 대동면 2개 분회로 개편 (향교분회, 용성분회)
- 2008.02.01 : 나산면 2개 분회로 개편 (삼축분회, 초포분회)
- 2009.12~현재 : 읍·면 지역단위 11개 분회 (지역단위 동호회)가 활동

(4) 역대 회장

(2006. 1. 1부터 임기 2년)

순번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재 임 기 간	비고
초대	한 원 섭	남				
2	정 만 채	남				
3	김 영 일	남				
4	김 복 남	남				
5	조 동 범	남	34. 02. 06	함평읍	'98. 01. 20 ~ '00 . 02. 10	
6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00. 02. 11 ~ '03 . 04. 10	
7	이 기 행	남	35. 08. 07	함평읍	'03. 04. 11 ~ '06 . 01. 15	
8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06. 01. 19 ~ '08 . 01. 10	
9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08. 01. 11 ~ 현재	

(5) 본부 및 읍·면·지역 분회 조직 현황

※ 2009. 01. 11 현재

- 함평군 게이트볼 연합회장 : 박 문 식　　연합회 사무장 : 박 복 만
  연합회 교육부장 : 전 양 권　　연합회 경기부장 : 노 덕 수

분회명	직 책	성 명	주 소	회원수	비고 (전임회장)
함평읍	회장	박 문 식	함평읍 함평리 94-1	13	한원섭, 정만채, 김영일, 김복남
	총무	지 광 남	함평읍 내교리		
(나산)삼축	회장	노 광 섭	나산면 삼축 1리	7	안종칠
	총무	정 근 식	나산면 삼축 1리		
(나산)초포	회장	이 형 채	나산면 초포 2리	12	
	총무	이 성 환	나산면 초포 2리		
(대동)향교	회장	이 장 원	대동면 향교 4리	9	이만기
	총무	이 용 성	대동면 향교 4리		
(대동)용성	회장	박 병 영	대동면 용성 5리	11	

	총무	이 돈 문	대동면 용성 3리		
손 불	회장	전 길 봉	손불면 월천 3리	12	
	총무	양 삼 자	손불면 월천 1리		
신 광	회장	채 주 성	신광면 월암 1리	17	노장섭, 모종관
	총무	모 종 태	신광면 월암 2리		
엄 다	회장	정 용 섭	엄다면 송노리	8	황하룡
	총무	황 하 룡	엄다면 월암 4리		
월 야	회장	노 병 량	월야면 계림 2리	17	
	총무	정 상 규	월야면 용월 1리		
학 교	회장	최 창 균	학교면 사거 2리	11	최병섭, 신광채
	총무	오 윤 종	학교면 월산 2리		
해 보	회장	윤 주 원	해보면 금덕 2리	9	이준길, 정연호
	총무	유 희 범	해보면 금덕 2리		
합 계				112	152명 (미납자포함)

(6) 군내 게이트볼 경기구장 현황

순	구 장 명	코트수	구 장 의 위 치	구분	조명등
1	읍구장	2	함평읍 내교리 노인복지회관 옆	야외	유
2	삼축구장	1	나산면 삼축리 수변공원	야외	무
3	초포구장	1	나산면 초포리 입석마을	야외	유
4	향교구장	1	대동면 향고리 면사무소 뒤	야외	무
5	용성구장	1	대동면 용성5리 야구연습장 옆	전천후	유
6	손불구장	1	손불면 대전리 노인당 옆	야외	무
7	신광구장	1	신광면 월암리 파출소 옆	야외	무
8	엄다구장	1	엄다면 엄다리 교회 앞	야외	무
9	월야구장	2	월야면 월야리 보건진료소 옆	야외	무
10	해보구장	1	해보면 금덕리 면사무소 옆	야외	무
11	학교구장	1	학교면 월산리 송산 문화마을	야외	유
계		13개소		야외12 전천후1	무8개소 유5개소

(7) 연중 활동 내용

- 교육부장 : 각 구장 순회 경기규칙 및 경기기량 연마 지도
- 분회간 친선경기 연 3~4회 주관
- 대한 노인회 함평군 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주관
- 함평 농협장배 게이트볼 대회 주관
- 함평군 게이트볼 연회회장배 대회 주관
- 생활체육 전남 연합회장배 대회 참가
- 전남 노인연합회장배 대회 참가
- 전라남도민 체전 게이트볼 분야 참가
- 전라남도지사배 대회 참가
- 대나무축제 게이트볼대회 참가 (담양)
- 산수유축제 게이트볼대회 참가 (구례)
- 무안군수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무안)
- 도 규모 각종 대회 참가 연 5~7회
- 함평 나비게이트볼대회 주관 (도규모 60개팀 참가 2009. 11. 30)

(8) 주요활동 실적

• 1990. 01. 03 : 제 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2위
• 1997. 09. 12 : 무안군수배 게이트볼대회 2등
• 1998. 06. 19 : 제 17회 생활체육 전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 한마당 남성부 모범상
• 2001. 10. 26 : 제 1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3위
• 2001. 11. 17 : 고흥군수배 전라남도 게이트볼대회 우승
• 2002. 03. 22 : 제 11회 전라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혼성부 3위
• 2003. 04. 25 : 제 2회 전라남도지사기 국민생활 게이트볼대회 남성부 3위
• 2003. 11. 05 : 제 13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연합횢장기 게이트볼대회 우승
• 2009. 05. 20 : 대한노인회 전라남도 연합회장배 대회 장려상
• 2009. 11. 20 : 함평 나비게이트볼 대회 3위 (향교)
• 2009. 12. 05 : 전라남도 임원 게이트볼대회 3위

14). 함평군지방행정동우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2) 목적 :

함평군에 봉직하다 퇴임한 동료 및 선후배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 :

• 1988.04.03 : 박정순외 10명이 발기인 총회
• 1988.04.10 : 박정순외 함평군 퇴직공무원 35명이 참석
창립총회 개최 박정순 초대회장 취임
• 2009.04.16 : 참석회원 101명이 함평군노인지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갖고
7대회장에 김영종 취임.

(4) 회원수 : 211명

(5) 주요활동 실적 :

• 연1회 이상 군민의식개혁교육을 통한 군민화합 도모
• 매년 7월 돌머리해수욕장 자연보호캠페인과 12월에 고산봉과 용천사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매년 설과 추석 귀성객 환영 프랑카드 게첨

• 1999년부터 매년 5월 나비축제 및 국화축제 안내 봉사 및 홍보

(6) 역대 회장

• 초대 박정순(朴程淳) 1988 ~ 1990　　전 함평읍장
• 2대　김유원(金有源) 1991 ~ 1993　　전 학교면장
• 3대　김영진(金永珍) 1994 ~ 1995　　전 함평군청 근무
• 4대　안종칠(安種七) 1996 ~ 1998　　전 나산면장
• 5대　김영연(金永連) 1998 ~ 2002　　전 경리계장
• 6대　김승규(金承奎) 2002 ~ 2009　　전 함평부읍장
• 7대　김영종(金永鍾) 2009.04.16 ~ 현재 전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장

15). 함평군교장동우회

(1) 창 립 : 1989. 12. 13

(2) 목 적 :

애향심을 함양하고 고향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정보 교환 및 상부상조하여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활　동

창회 초부터 함평군 전 · 현직 교장선생님들 및 전문직 근무자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상호간 친목단체로 결성되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주로하고 대외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

(4) 회 원 수 : 20명

(5) 역대 회장

대	년도	직위	성명	참 고
1	1 9 9 8	학교장	최 상 만	함평초등학교
2	1 9 9 9	학교장	이 행 만	해보초등학교
3	2 0 0 0	학교장	정 일 성	학다리초등학교
4	2 0 0 1	학교장	노 강 수	손불초등학교
5	2 0 0 2	학교장	이 원 범	월야초등학교
6	2 0 0 3	학교장	최 종 강	학다리중앙초등학교
7	2 0 0 4	학교장	이 주 헌	나산초등학교
8	2 0 0 5	학교장	박 광 웅	대동향교초등학교
9	2 0 0 6	학교장	노 동 수	월야초등학교

10	2007	학교장	최 병 구	엄다초등학교
11	2008	학교장	모 효 일	신광초등학교
12	2009	학교장	박 광 웅	전 대동향교초등학교

16) 사단법인 대한시우회 함평군지회

(1) 연 혁

- •1991. 03. 30 대한시우회 함평군지회 창립
  1997년까지 회원 중에서 노장섭(盧長燮), 김성현(金性鉉) 2명의 국창을 배출하였다.
- •1993.11.10~12 제1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주관
  주최 함평문화원
- •1997.10.27~29 5회 대회 성황리에 마침

(2) 역대 대회 최고상 수상자

- •1회 (1993. 11. 10~12) 명인부(名人部) 1등 전판진(全判鎭) 월야
- •2회 (1994. 10. 24~26) 국창부(國唱部) 1등 김양기(金陽基) 대구
- •3회 (1995. 11. 21~23) 명창부(名唱部) 1등 이만청(李晩晴) 의왕시
- •4회 (1996. 10. 29~31) 국창부(國唱部) 1등 유양님(柳良任) 광주
- •5회 (1997. 10. 27~29) 〃 김성현(金性鉉) 함평
- •6회 (1998. 10. 27~29) 〃 송성철(宋成喆) 광주

(3) 역대 회장

- •1대 정만채(鄭萬采) 1993~1995 함평읍
- •2대 조병옥(趙炳玉) 1995~1997 학교면
- •3대 임종하(林鍾河) 1997~현 재 신광면

17) 사단법인 한국자생란보존총연합회 함평천지지회

(1) 연 혁

- •1995. 08. 20 : 함평천지란보존회 창립
- •1996. 08. 11 : 화순군 수만리에서 자연보호운동
- •1997. 01. 19 : 함평천지란보존회와 함평란우회가 합동으로 자연보호운동
- •1997. 05. 29 : 사단법인 한국자생란보존총연합회 함평지회 가입 승인
- •1997. 05. 21 : 함평천지지회로 명칭 변경

(2) 역대 회장

•1대 김영출(金永出) 1995. 08. 20 ~ 1997. 07. 25
•2대 이상길(李相吉) 1997. 07. 26 ~ 현 재

18). 기산의림클럽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 설립 목적 :

건전한 스포츠정신 함양과 골프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연 혁 : 1998년 창립

(4) 회원수 : 41명

(5) 주요활동 실적 : 매월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기전 개최

(6) 역대 회장

구 분	회 장 명	임 기	비 고
초 대~2대	정 원 강	1998 ~ 2000.	
3 대	장 록	2001. ~	
4 대	김 민 수	2002. ~	
5 대	문 성 수	2003. ~	
6 대	서 동 렬	2004. ~	
7 대	김 영 종	2005. ~	
8 대	김 호 범	2006. ~	
9 대	방 종 호	2007. ~	
10 대	김 희 성	2008. ~	
11 대	서 영 록	2009. ~	
12 대	최 용 우	2010. ~	

19). 함평나르다예술단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목적 :



함평나르다예술단은 전통예술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문화적 예술보호육성 및 계승을 기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신명나는 민족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 :

· 2003년 3월 7일 나르다예술단 설립
· 2008년 1월 1일 함평나르다예술단 인가

(4) 회원수 : 25명

(5) 주요활동 실적 :

· 2003. 04. 27 : 함평나비대축제 마라톤대회 길 굿
· 2004. 02. 06 :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풍물 봉사
· 2005. 02. 01 : 세계나비·곤충엑스포지정 선포식 농악 봉사
· 2006. 10. 25 : 전남 농업기술원 농업박람회 농악 봉사
· 2006. 11. 29 : 필리핀 앙길레스시 축하공연
· 2007. 03. 22 : 여수해양엑스포 홍보사절단 환영식 풍물 봉사
· 2008. 10. 07 : 광주시 충장축제 7080행사 길 굿 봉사
· 2008. 12. 20 : 제1회 함평나르다예술단 정기 발표회
· 2009. 04. : 함평나비대축제기간 정기공연 4회
· 2009. 02.~12 : 노인요양원 청수원 등 10회 공연 봉사
· 2009. 10. 30 : KBS 네트워크 생방송 출연
· 2009. 11. 11 : 베트남 참전용사 전우회 및 베트남 다문화가정 위문 공연
· 2009. 12. 03 : 제2회 함평나르다예술단 정기 발표회

(6) 역대 회장 : 제1대 박행님

20). 함평난연합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

(2) 목 적 :

체계적인 난 보존육성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함평군 한국춘란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한민국 난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

· 우리군 애란인의 날을 제정하여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여 자생지복원 등 춘란보존에 힘쓴다.

· 지역 및 전국단위 난전시회 등 난 관련행사를 개최하여 난 메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난동호인 저변확대 및 난문화 창달에 공헌한다.

· 함평군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연계한 난 마을조성으로 세계적인 난 문화중심축을 이루고 난 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함평군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난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건전한 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 난 배양이 애란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소득증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난 배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보급에 앞장선다.

(3) 연 혁 :

· 2003. 10 : 함평난보존회 결성
· 2004. 08 : 함평난연합회 창립
· 2005. 03 : 2005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 소속단체 : 함평난우회, 함평난인회, 기산난우회, 함평천지난우회, 함평난상우회
· 2006. 03 : 2006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 소속단체 : 함평난우회, 함평난인회, 자연생태난동호회, 자생난산업운영회
· 2007. 03 : 2007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 소속단체 : 함평난우회, 함평난인회, 자연생태난동호회, 천지난우회, 자생난산업운영회
· 2008. 03 : 2008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 중국난명품대제전 동시전시 함평춘란협회, 함평난연합회 공동주관 -농어민체육관
· 2008. 07 : 함평춘란회와 함평난연합회의 통합운영회의 개최 통합의견조율
· 2008. 08 : 함평춘란회와 함평난연합회 통합(전원 찬성)
  -명칭은 함평난연합회로 신임회장은 자연생태난동호회 고송주회장이 맡아
· 2008. 12 : 회장 취임식 및 총회 - 함평웨딩컨벤션

(4)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기산난우회	24	함평난우회	25	함평춘란회	25	자연생태난동호회	24
함평천지난우회	23	자생란산업운영회	11	함평춘란회	28	함평애란회	24

(5) 주요활동 실적

- 2005. 03 : 2005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주관
- 2006. 03 : 2006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주관
- 2007. 03 : 2007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주관
- 2008. 03 : 2008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주관 ※ 중국난명품대제전 동시 전시
- 2009. 03 : 2009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주관

(6) 역대회장 및 임원

년 도	회 장	부회장	사무국장
2005	임 병 재	강종삼, 이병석, 김영출, 전남식, 홍기영	이 만 호
2006	강 종 삼	김우택, 이병석, 고송주, 홍기영	이 병 한
2007	강 종 삼	김천수, 이병석, 고송주, 양년일, 홍기영	이 병 한
2008	양 인 배, 강 종 삼	김천수, 양년일, 이병석, 홍기영, 최정환, 김형삼, 모동선, 고송주	이 병 한
2009	고 송 주	이병한, 이병석, 양년일, 홍기영, 김형삼, 최정환, 정일권	장 종 만

(7) 시상 내역 :

• **2005년도** – 대상 : 농림부장관상 : 손세운(황화소심)
  – 최우수상 : 화예 : 전라남도지사상 : 장판득(황화)
    엽예 : 전라남도의회의장상 : 문정호(단엽)
  – 우수상 : 화예 : 함평군수상 : 최영욱(중투복색)
    엽예 : 함평군의회의장상 : 이춘언(중투)

• **2006년도** – 대상 : 농림부장관상 : 임성재(황화소심)
  – 최우수상 : 화예 : 전라남도지사상 : 손세운(중투화)
    엽예 : 전라남도의회의장상 : 이수연(단엽)
  – 우수상 : 화예 : 함평군수상 : 홍대표(복색화)
    엽예 : 함평군의회의장상 : 정길호(중투호)

• **2007년도** – 대상 : 농림부장관상 : 정길호(황화소심 '청흥소')
  – 최우수상 : 화예 : 전라남도지사상 : 이행우(두화소심 '일월화')
    엽예 : 전라남도의회의장상 : 박영복(중투호 '사천왕')
  – 우수상 : 화예 : 함평군수상 : 민미옥(황화소심)
    엽예 : 함평군의회의장상 : 이완기(중투호 '진주수')

• **2008년도** – 대상 : 농림부장관상 : 박지혜(엽예)
  – 최우수상 : 화예 : 전라남도지사상 : 정수연(수정)
    엽예 : 전라남도의회의장상 : 전미경(기화)
  – 우수상 : 화예 : 함평군수상 : 김경만(기화)
    엽예 : 함평군의회의장상 : 이은호(수정)

• **2009년도** – 국무총리상 : 김송재 (주금소심, 동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 김택식(복색화, 지존)
  – 환경부장관상 : 김건호(중투호, 아가씨)
  – 전라남도지사상 : 이종섭(황화소심, 보름달)
  – 전라남도의회의장상 : 김건호(복색화, 신비)
  – 함평군수상 : 김송재(복색소심, 천운소)
  – 함평군의회의장상 : 이완기

• **2010년도** – 국무총리상 : 양창섭 (주금소심, 동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 김영길(복색화, 지존)
  – 환경부장관상 : 이동섭(중투호, 아가씨)
  – 산림청장상 : 고현만(황화소심, 보름달)
  – 전라남도지사상 : 최영욱(복색화, 신비)
  – 함평군수상 : 조홍성(복색소심, 천운소)
  – 특별상 : 김현숙(홍화)
  – 특별상 : 홍 찬 (기화)

– 특별상 : 강병훈(주금화, 주몽) – 특별상 : 강복이(원판소심, 송옥)
– 명명품 일출상 : 이선애(홍화, 삼홍) – 인기상 : 이강헌(복륜화)
– 금 상 : 도복용(황화소심, 관음) – 금 상 : 설진덕(산반소심)
– 금 상 : 김성안(홍화) – 금 상 : 김은구(복색화, 태극문)
– 금 상 : 강응률(객설수채화) – 금 상 : 이은호(복륜화)

21) 함평군문화관광해설가협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2) 설립목적 :

함평 문화유산의 안내, 관광해설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함평 관광발전에 기여함과 회원 또는 도, 시군 협회와 상호친선도모 및 정보교류를 통한 함평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 :

- 2003. 12월 함평문화원 주관으로 31명의 문화유산해설가 배출
  – 문화원 회원과 향토문화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
- 관내외 출사 공모전 참여 2005. 12월 전라남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21명 배출
  – 10여명이 현재 문화관광해설가로 활동 중
- 2006. 10월 함평군과 동신대 문화관광 인력양성사업단 주관으로
  – 33명 배출 – 15여명이 현재 문화관광해설가로 활동 중
- 위 회원 중 2009. 11월 현재 도지사인증 한국문화관광해설사로 7명이 활동 중임.

(4) 회원수 : 26명

(5) 주요활동 실적:

- 2005. 10 : 도 여성회관 주최 제6회 전남 문화관광해설 홍보대회에서 이명숙 회원 최우수상 수상.
- 2006. 10 : 함평군 국향대전기념 제1회 전국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에서 이명숙 회원이 우수상을 수상.
- 2006. 10 : 도 여성회관 주최 제7회 전남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에서 정혜정 회원 금상을 수상.
- 2007. 05 : 전남 문화관광해설가협회 주최 강진 다산제 홍보대회에서 박창순 회원 은상을 수상.

- 2007. 08 : 사단법인 한국 해양관광학회 주관 전국 문화관광해설 전문가 발표대회에서 전덕님 회원이 장려상을 수상.
- 2007. 12. 28 : 전라남도 문화관광과주최 제8회 전남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에서 조은영 회원이 동상을 수상.
- 2008. : 함평군 국향대전기념 제3회 전국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에서 김인숙 회원 장려상을 수상.
- 2009. : 함평군 국향대전기념 제4회 전국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에서 박광웅 회원 장려상을 수상

(6) 역대 회장

대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제 1 대	백 맹 조, 김 인 숙	2007. 01. 10 ~ 2008. 12. 31	사무국장 이 건 종
제 2 대	이 영 호	2009. 01. 01 ~ 현 재	사무국장 이 건 종

22) 사)한국효도회 함평군지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2) 설립목적 :

노령화와 산업화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노인 경시풍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미풍양속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2005. 03 :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함평군지회 창립

(4) 회원수 : 268명

(5) 주요활동 실적:

- 2005. 05월 : 함평군관내 장한어버이 및 효행상등 39명 표창
- 2006. 05월 : 함평군관내 장한어버이 및 효행상등 53명 표창
- 2007. 05월 : 함평군관내 장한어버이 및 효행상등 58명 표창
- 2008. 10월 : 함평군관내 장한어버이 및 효행상등 46명 표창
- 함평군관내 금석문 탁본사업

(6) 역대 지회장:

대	회 장 명	재임기간	비 고
제 1 대	고 일 석	2005. 03. 30 ~ 2006. 12. 31	사무국장 김 영 직
제 2 대	고 일 석	2007. 01. 01 ~ 현 재	사무국장 이 건 종

(7) 각 분회 회장단

분회	회장	재임기간	비고
함평읍	김 청 수	2005.03.30 ~ 2006.12.31	
학교면	노 종 석	2005.03.30 ~ 현재까지	
엄다면	1.김 상 표	2005.03.30 ~ 2006.12.31	
	2.서 의 권	2007.01.01 ~ 현재까지	
신광면	심 기 권	2005.03.30 ~ 현재까지	
손불면	장 종 남	2005.03.30 ~ 현재까지	
해보면	서 동 영	2005.03.30 ~ 현재까지	
월야면	정 현 웅	2005.03.30 ~ 현재까지	
나산면	정 기 만	2005.03.30 ~ 현재까지	
대동면	김 봉 진	2005.03.30 ~ 현재까지	

23). 함평자연생태난동호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62번지

(2) 목 적 :

자주적인 협동정신으로 자연생태의 춘란·야생화 등의 진흥과 발전에 성역없는 교류로 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애로 우수종의 보존육성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하며 전시문화와 자생지 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로 본회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3) 연 혁 : 07. 13 : 창립 총회

- 2007. 02 : 함평 란연합회 가입
- 2007. 07. 12 :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위임)
- 2009. 07. 09 :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신임)

(4) 회원수 :

년 도	회원수	년 도	회원수	년 도	회원수	년 도	회원수	년 도	회원수
2005	14	2006	17	2007	20	2008	23	2009	25

(5) 주요활동 실적 :

- 2005. 11. 26 : 자생지 보호 및 답사(대동 고산봉)
- 2006. 03. 25 : 현지답사 및 회원가족단합대회(손불 군유산)
- 2006. 11. 25 : 자생지보호 및 가족현지답사(나산 옥녀봉)
- 2007. 03. 03 : 2007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참여
- 2007. 03. 31 : 자생지답사 및 자생지보호(신광 삼청동)
- 2007. 11. 24 : 자생지답사 및 자생지보호(해보 모악산)
- 2008. 03. 01 : 2008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참여
- 2008. 04. 26 : 봄철 자생지답사 및 보호 가족대회(대동 철성산)
- 2008. 11. 29 : 가을 자생지답사 및 보호 가족대회(학교 속금산)
- 2009. 03. 28 : 2009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참여

(6) 역대 회장

회기	회장명	부회장명	사무국장	기 간	비 고
창립	고 송 주	백 용 인	장 종 만	2005. 07~2007. 06	
2	고 송 주	백 용 인	장 종 만	2007. 07~2009. 06	
3	백 용 인	김 종 환	장 종 만	2009. 07~	

※ 춘란 자문위원 : 고재영 ※ 야생화 자문위원 : 박점남

24). 함평군골프협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 설립목적 :

함평군 관내에 정규코스의 사계절 양잔디 골프클럽이 정회원제와 아울러 퍼블릭코스를 개장함에 있어 관내 골프인 양성 및 도민체전 출전선수 지원, 골프인 저변확대를 기하는 등 골프특구의 선봉에 서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 혁 : 2006년도 창설

(4) 회원수 : 18명

(5) 주요활동 실적 :

-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 및 출전 지원
- 매월 회원 정기전을 통한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

(6) 역대회장 :

구 분	회 장 명	임 기	비 고
초 대	임 기 영	2006. 10 ~ 2008. 12	
2 대	최 용 우	2009. 01 ~	

25). 함평천지회

(1)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1042-8

(2) 설립일 : 2006. 1. 20

(3) 설립배경 :

본회는 함평군 관내에서 재직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공고히 하면서 교직에 대한 현장성있는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함평지역의 교육발전 및 아동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과 제안을 제시함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가교적 역할을 통하여 교육의 이해의 폭을 넓혀 푸른 함평의 백년지대계를 세움에 그 목적이 있다.

(4) 회원수 : 16명

(5) 주요활동 :

- 제1회 교육발전 간담회 (2006. 7. 15)
-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교육
- 조·손 가정의 바람직한 교육방법 제시

(6) 역대회장

- 제1대 회장 : 이 주 헌 2006. 01. 20 ~ 2008. 01. 19
- 제2대 회장 : 강 광 석 2008. 01. 20 ~ 2009. 12. 25
- 제3대 회장 : 윤 이 중 2009. 12. 26 ~ 현 재

26).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협의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Cafe//daum//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협의회

(2) 설립목적 :

전통적 미풍양속이 깃든 아름다운 고장 함평천지에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베푸는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상대를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글로벌추임새운동을 실천하여 마냥 즐겁고 신바람 나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신 정신문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전개하고 있는 운동으로 군민 모두의 호응 속에 건전한 정신문화 인프라 구축이 굳건해지게 하는 운동단체이다.

(3) 연 혁 :

- 2006. 09. : 글로벌추임새운동에 대한 지도자 정규코스 양성교육(30시간)
- 2007. 01.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협의회 발족
- 2007. 06.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 자질향상 심화연수(3회)
- 2008. 10.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 실천 가이드북 발간 보급
- 2008. 10. : 저탄소고장 에코함평만들기 가이드북 발간 보급
- 2008. 11.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 자질향상 교육기관 입교연수
- 2009. 06.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 자질향상 심화연수
- 2009. 08.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 강의자료 개발보급
- 2009. 12. :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 선진문화고장 현장답사연수

(4) 회원수 : 지도자 23명

(5) 주요활동 실적 :

- 2007년도 마을단위 군민글로벌추임새운동 실천교육 (150회-3,500명)
- 2008년도 마을단위 군민글로벌추임새운동 실천교육 (140회-4,200명)
- 2009년도 마을단위 군민글로벌추임새운동 실천교육 (130회-3,700명)
- 글로벌추임새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급 (4,000매)
- 글로벌추임새운동 실천다짐 홍보용 프랑카드 게첨

(6) 역대 회장 : • 제1대 박 광 웅(朴 光 雄) 2007. 01 ~ 현 재

27).함평문화실버사진동호회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555

(2) 설립목적 :

- 함평문화재보호. 도굴방지, 화재예방, 주변청소, 관광객에 대한 해설

• 문화재촬영 영상화 CD 제작, 교육자료 활용,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함평문화실버사진동호회원은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보호하며 우리고장 탐방 관광객에게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해설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문화재 자료를 계획적으로 촬영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연혁 : • 2006년 9월 18일 설립
• 2006년 10월 함평문화재 사진전
• 2007년 10월 함평문화재 사진전
• 2008년 10월 함평문화풍물 사진전
• 2009년 10월 함평문화충물 사진전

(4) 회원수 : 26명

(5) 주요활동 실적 :
• 관광객에 대한 문화재 해설
• 화재예방
• 매장 문화재 도굴방지
• 관내외 출사 공모전 다수 입상
• 문화재 촬영 축제기간에 사진전시회 4회실시

(6) 역대 회장 : • 1대 회장 : 이용대
• 2대 회장 : 신용길
• 3대 회장 : 신용길

28). 함평예술인연합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2) 설립 목적 :

함평 개군 600주년 기념 지역예술인의 작품창작성 고취 및 예술 장르간 소통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함이다.

(3) 연혁 : 2007년 11월 30일 창립

(4) 회원수 : 70명

(5) 주요활동 실적 :

· 2008년 5월 에코 깃발전시회
· 2008년 5월 한·중 서예작가 교류전 퍼포먼스
· 현대시 100주년 기념 시비건립-시인 양성우
· 함평예술인합동전시회
· 함평 명명 600주년 기념 송년의 밤 공연



(6) 역대 회장 : 제 1 대 최재원

29) (사)함평생태관광협회

(1)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9-2

(2) 설립 목적 :

함평군 농촌생태 관광 공급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 상호간 교육, 세미나, 마케팅기법 등 학습과 정보를 공유하고, 군의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 혁 :

- 2009.06.22 : 전라남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
- 2009.07.10 : 법인설립 등기
- 2009.07.14 : 나주세무서 고유번호(사업자등록)등록

(4) 회원수 : 2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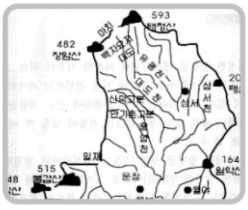
(5) 주요활동 실적 :

- 함평생태관광안내자 교육실시(2009.08.14-2009.10.28) 안내자 33명 배출 활동
- 함평 애벌레 곤충학교 운영(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역대 회장 :

제 1 대 : 2009.07.10 ~ 현재까지 회장 : 고 일 석 사무국장 : 이 건 종

제12장 보건(保健)·위생(衛生)·상하수도



제1절 함평군 보건소와 지소

1. 함평군보건소



보건 시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옛부터 보건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있었다.

이를 참고로 간략하게 열거해 보면, 고려조는 서민의 구료사업(救療事業)으로 국도(國都)의 동서에 대비원(大悲院)을 설치 운영했는데 광종 14년(光宗. 963)에는 제위보(濟危寶)라는 재단을 더두어 구료사업의 충실을 꾀하고 정종 2년(靖宗. 1036)에는 대비원을 증수하였으며 문종(文宗) 때는 이를 더 강화하였고, 예종 7년(睿宗. 1112)에는 혜민국(惠民局)을 두어 약물의 보급을 편리하게 하였다.

공양왕 3년(恭讓王. 1391)에 혜민전국(惠民典國)이라 이름을 바꾸고 빈민 환자의 구료에 힘을 썼다.

이들 구료 기관에는 훈련을 받은 승려(僧侶)를 두어 사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가 혜민국을 설치하고 서민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여의(女醫)를 육성하였고, 1393년(태조 2년)부터는 전라도 안렴사(安廉使) 김희선(金希善)의 주청으로 의학 교수(醫學敎授) 1명을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에 파견하여 양반의 자제를 뽑아 향약혜민경험방(鄕藥惠民經驗方)을 가르치고 보급케 했으며 1397년(태조 6년)에는 제생원(濟生院)을 신설했다.

태종 14년(太宗. 1414)에는 혜민국을 혜민서(惠民署)로 개칭하였고 1882년(고종 19년)에 폐지하였다.

고려 때부터 시행해 오던 동서 대비원은 태종 14년 9월에 동서 활인서(東西活人署)로 이름을 고치고 서울의 서민 환자를 치료했는데 중엽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하였고, 영조 때에 이르러 일시 활동을 하다가 1882년에 폐지되었다.

1894년(고종 31년)에 내무위청(內務衛廳)에 위생국을 두어 전염병의 예방과 의약, 종두(種痘)업무를 관장했고 1899년에는 13도에 종두소를 설치했다.

일제 강정기는 경찰총감부 아래에 위생국을 두어 보건업무를 관장했으며 1914년에 의사규칙, 치과규칙, 의생규칙(醫生規則)을 반포하고 1918년 의료령(醫療令)에 의해 군에 공의(公醫) 1명이 배치되었는데 함평군에는 함평읍 함평리 전 함평우체국 앞에 공의가 개업을 했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7일 미군정법령 25호에 의거 도에는 보건후생부, 군에는 보건후생과(保健厚生課)가 설치되었고, 1949년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부가 설치되고 1955년에 다시 개정법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발족되었다.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保健所法)이 공포되고 동년에 설치된 함평군보건소는 병원, 약국, 약종상 등의 관리와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가족계획사업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은 특히 그 실적이 전국에서 뛰어나 1983년에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1) 시설 현황

(1)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53번지

(2) 건　　물 :

대지 3,757㎡. 건평 1,051㎡.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2003년 이전 신축 준공

(3) 최초 건축 :

1962년. 대지 1,561㎡ 건평 249㎡ 철근콘크리트 1층 증축 1980년 2층 증축. 1989년 2층 중축 2003년 지하1층, 지상 3층 이전 신축(대지 3,757㎡. 건평 1,051㎡)

(4) 시설내역 :

사 무 실 1	구강보건실 1	엑스레이실 1	임상병리실 1
결핵관리실 1	일반진료실 1	한방진료실 1	예방접종실 1
회 의 실 1	영양상담실 1	건강증진실 1	물리치료실 1
재활관리실 1			

2) 급만성 관리

1954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공포되어 당시는 공의로 하여금 각종 예방 접종을 담당 실시하게 하였으며 보건소 설치 후로는 보건소장 지휘 감독 아래 예방접종, 결핵관리, 나병관

리, 성병관리 등을 하게 되었다.

함평통계연보에 실린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1) 예방접종(豫防接種) 실적

구분 / 연별	종두			장티부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D. 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P.T)	소아마비	B.C.G	홍역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B형간염	기타
	1기	2기	3기										
1962	-	10,309	-	13,400	64,243	-	-	-	-	-			
1963	-	3,496	-	85,212	64,243	-	-	-	2,830	-			
1964	1,165	1,168	1,165	85,212	64,243	-	760	-	-	-			
1965	2,400	2,200	2,600	92,000	-	-	780	-	-	-			
1966	2,600	2,500	2,700	92,000	400	-	800	-	3,375	-			
1967	7,261	360	-	132,366	20,956	-	2,400	-	7,126	-			
1968	6,705	4,812	2,233	18,000	18,000	-	1,600	-	10,400	-			
1969	6,348	5,929	2,323	54,398	117,000	-	920	-	13,209	-			
1970	5,000	5,000	4,600	64,000	162,810	-	2,838	-	24,038	-			
1971	3,372	4,688	4,875	37,350	137,695	-	6,994	-	15,172	-			
1972	520	3,909	16,653	36,213	101,376	-	5,134	-	16,535	-			
1973	5,524	4,211	3,268	24,192	71,401	-	4,932	-	14,599	-			
1974	5,305	3,827	2,858	68,168	117,710	-	3,070	-	13,081	-			
1975	-	-	-	-	-	-	-	-	-	-			
1976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됨			33,335	40,626	-	5,579	-	8,888	-			
1977				29,831	22,071	-	5,778	3,017	7,352	-			
1998				32,728	19,083	-	13,146	9,600	5,527	-			
1979				30,513	23,248	-	6,065	7,830	6,125	-			
1980				24,529	70,320	-	15,095	12,851	5,214	-			
1981				24,650	28,656	2,692	4,775	5,040	5,613	13,597			
1982				5,478	18,233	2,188	8,163	7,809	5,009	4,774			
1983				11,141	20,374	2,057	4,169	6,038	4,754	1,084	20,280		
1984				55,895	13,564	1,336	4,321	5,068	4,420	875	8,740		
1985				4,276	7,179	1,479	3,880	4,200	3,996	1,311	29,316		
1986				3,650	3,960	1,320	2,620	3,300	3,524	8,386	27,590		
1987				1,900	2,620	1,320	1,820	2,670	3,172	5,191	23,938		
1988				1,600	2,560	1,200	1,540	2,220	2,435	6,340	21,458		
1989				2,462	800	1,107	1,560	2,202	1,698	-	18,728	4,270	
1990				3,100	-	955	1,615	2,232	1,927	-	14,942	5,856	
1991				1,300	-	761	1,411	1,879	1,643	457	14,904	9,650	3,990
1992				1,250	-	638	1,428	1,778	1,377	356	14,700	3,219	3,970
1993				1,200	-	550	1,499	1,771	10,771	378	9,263		5,960
1994				1,194	-	480	1,277	1,469	-	335	8,950	3,414	11,619
1995				1,320	-	422	1,282	1,410	-	283	4,305	6,910	1,850
1996				1,200	-	430	1,423	1,557	-	357	3,811	2,196	3,760
1997				2,610	-	397	1,366	1,474	311	410	4,076	4,248	6,567
1998				2,635	-	-	1,587	1,410	352	822	3,820	4,223	7,818
1999				3,113	-	-	1,612	1,722	340	921	3,906	648	959

구분 / 연별	종두 1기	종두 2기	종두 3기	장티부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D. 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P.T)	소아마비	B.C.G	홍역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B형간염	기타
2000				2,910	-	-	1,720	1,432	288	1,313	2,928	539	18,715
2001				1,253	-	-	1,141	373	292	225	2,399	104	11,871
2002				1,412	-	-	1,407	1,142	163	608	1,971	910	22,654
2003				1,374	-	-	1,152	947	187	575	1,753	426	23,733
2004				500	-	-	1,098	880	175	575	1,590	380	25,155
2005				1,472	-	31	896	614	141	436	1,405	733	22,097
2006				748	-	345	735	614	96	541	1,150	684	20,089
2007				1,188	-	296	859	705	112	420	1,131	681	21,492
2008				821	-	383	882	696	95	448	1,179	622	20,747
2009				363	-	331	782	627	94	376	991	731	16,267

(2) 결핵환자 현황

구분 / 연별	연말현재 총계	양성	음성	재치료	요관찰	증가 계	신규등록	검진객담	x선발견	전입	재등록	복귀	관리전환	기타	감소 계	완치	관찰완료	사망	전출	중단	진단변경	타의료	관리전환	기타
1997	60	19	7	-	34	92	45	-	-	1	2	-	8	36	117	42	1	1	7	9	-	-	8	49
1998	59	14	25	-	20	101	50	-	-	9	1	5	5	31	102	44	3	-	1	5	1	-	-	48
1999	55	9	14	-	32	92	43	-	-	2	-	3	-	44	97	59	-	1	4	-	-	-	2	31
2000	61	20	18	-	23	70	32	-	-	6	-	1	-	31	70	37	1	1	4	1	3	-	-	23
2001	67	12	16	-	40	59	45	-	-	5	-	9	-	-	30	21	-	1	5	-	1	-	-	3
2002	46	1	13	-	32	71	27	-	-	5	-	4	-	35	68	23	-	2	3	9	-	-	-	31
2003	58	12	25	-	21	58	29	-	-	4	-	4	-	21	58	35	-	2	-	-	-	-	-	21
2004	45	6	25	-	14	118	41	-	-	5	-	14	-	58	101	35	-	-	8	-	-	-	-	58
2005	45	6	21	-	18	38	19	-	-	1	-	5	-	13	55	33	-	2	4	-	-	-	-	16
2006	56	9	23	-	24	56	26	-	-	-	-	12	-	18	63	35	-	-	1	4	3	-	-	20
2007	95	3	18	-	74	95	18	-	-	-	-	3	-	74	21	16	-	2	-	2	-	-	-	1
2008	66	10	6	-	50	3,017	15	382	2,567	2	1	-	-	50	-	-	-	-	-	-	-	-	-	-

(3) 나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읍면	총계 계	총계 남	총계 여	정착 계	정착 남	정착 여	재가 계	재가 남	재가 여	새로 발견	정착지
1997	57	31	26	28	14	14	29	17	12		학교면 고막리
1998	54	28	26	25	11	14	29	17	12		1983년에 정부 지원으로 취락개조사업 시행
1999	53	28	25	25	11	14	27	16	11		
2000	55	29	26	27	12	15	28	17	11		
2001	53	29	24	26	12	14	27	17	10		
2002	51	30	21	24	13	11	27	17	10		
2003	44	24	20	20	10	10	24	14	10		
2004	38	20	18	20	10	10	18	10	8		
2005	38	20	18	20	10	10	18	10	8		
2006	37	20	17	20	10	10	17	10	7		

구분 / 연.읍면	총 계			정 착			재 가			새로 발견	정 착 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7	37	20	17	20	10	10	17	10	7		2007년에 정부지원으로 간이양로시설 1동(5실)신축
2008	37	20	17	37	10	10	17	10	7		
함평읍	1	1					1	1			
손불면	3	2	1				3	2	1		
신광면	4	2	2				4	2	2		
학교면	21	11	10	20	10	10	1	1			2007년에 정부지원으로 간이양로시설 1동(5실)신축
엄다면											
대동면	6	2	4				6	2	4		
나산면	1		1				1		1		
해보면	1	1					1	1			
월야면											

3) 가족계획사업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사업은 초기의 진료소 중심 사업에서 통합사업으로 다원화 되었다.

매 5개년 계획의 초년도에 반짝 불붙다 식어버린 감이 있는 이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의 폭발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부흥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 1981년 12월 17일 인구 증가 억제책이 발표되고 가족계획사업은 크게 활성화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3년 함평군의 가족계획사업 실적은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어 정부의 표창을 받았다.

아래 가족계획 실적표를보면 가족계획사업은 콘돔에서 시작하여 먹는 피임약의 때를 거쳐 1974년부터는 정관, 난관, 자궁내 시술 장치로 전환되어 갔으며 1981년부터는 월경 조절 시술이 인기를 모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가족계획사업에 적극 호응한 것도 알 수 있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던 구호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하나 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고 이 운동에 의해 인구 억제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1990년 초반부터 급격한 인구의 감소 형태가 나타나자 정부는 1995년에 가족계획사업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 공포하였으나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가임층의 정신을 바꾸기는 참으로 힘들 것으로 어겨진다.

(1) 가족계획 실적 상황

연 별	계	불 임 시 술		자 궁 내 장치시술	콘 돔	먹 는 피 임 약	월 경 조절시술
		정 관	난 관				
1966	8,589				7,661	928	
1967	7,904				7,575	329	
1968	6,911				6,911	–	
1970	20,502				9,808	10,694	
1971	22,421				9,920	12,501	

연 별	계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시술	콘 돔	먹는 피임약	월경 조절시술
		정 관	난 관				
1972	24,049				9,465	14,584	
1973	21,061				8,875	12,186	
1974	23,120	87	10	1,300	9,368	12,355	
1975	2,274	95	-	1,200	1,252	11,193	
1976	10,598	66	35	1,160	5,349	3,988	
1977	11,102	107	375	1,266	4,003	5,351	
1978	11,283	80	420	1,070	4,359	5,354	
1979	9,501	90	380	600	3,140	5,291	
1980	8,088	85	502	600	3,000	3,901	
1981	8,044	84	490	540	2,940	3,699	291
1982	10,894	136	509	570	4,188	4,978	413
1983	9,419	248	932	679	3,631	3,335	594
1984	5,113	125	479	409	2,577	1,183	340
1985	3,925	87	242	268	2,250	988	90
1986	4,721	70	498	480	2,351	1,064	258
1987	4,812	37	416	442	2,731	884	302
1988	3,877	39	279	427	2,307	624	201
1989	3,639	20	143	342	1,548	520	66
1990	1,729	14	57	253	1,131	273	1
1991	1,224	9	39	146	971	59	
1992	1,025	5	34	102	840	44	
1993	548	11	15	51	432	39	
1994	341	7	8	28	233	65	
1995	40	4	8	20	5	3	
1996	425	13	18	70	292	32	

사업폐지로 추진실적 없음

4) 역대 보건소장

구별 대(代)	이름		재임기간		본 적	출신학교
	한 글	한 문	취 임	퇴 임		
1	주도식	朱燾植			무안군	
2	이두석	李斗錫			광 주	전남의대
3	김균홍	金均鴻			나주시	조선대의대
4	임경순	任京淳			광 주	〃
5	마덕룡	馬德龍			〃	〃
6	이관호	李寬鎬			〃	〃
7	박정환	朴正煥	1982. 05. 18	1983. 12. 01	인 천	경희의대
8	황민홍	黃珉洪	1983. 12. 02	1988. 12. 25	강진군	
9	이임현	李任炫	1988. 12. 26.	1993. 03. 04	〃	
10	이남행	李南行	1993. 03. 05	1997. 10. 29	함평군	
11	김유준	金庾俊	1997. 10. 30	2001. 02. 25	광 주	
12	김성호	金成澔	2001. 02. 26	2002. 09. 20	무안군	
13	유경순	柳慶順	2002. 09. 21	2003. 10. 23	목포시	군산 간호대학교,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14	김성호	金成澔	2003. 10. 24	2007. 07. 25	무안군	
15	최용주	崔容柱	2007. 07. 26	2007. 08. 02	함평군	호남대학교 사회복지과 대학원
16	유경순	柳慶順	2007. 08. 03	2010. 04.현재	목포시	군산간호대학교,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2.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지소명	2009년 현재 시설현황				건물규모(㎡)	소재지주소	비고
	건립연도	증개축연도 및 내용	건물구조	대지면적(㎡)			
소 계	8			10,944	2,828		
손 불	1985	2001(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2층)	810	338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644-1	최초건축 1985. 2층 증축 1991(조적조)
신 광	1988	2004(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조(2층)	1,660	350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200	최초건축 1987.
학 교	1991	2007(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조(3층)	1,257	356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581	최초건축 1990.
엄 다	1985	2006(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2층)	617	420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03-5	최초건축 1985. 2층 증축 1994(조적조)
대 동	1993	2008(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2층)	4,335	342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63-1	최초건축 1993.
나 산	1988	2004(이전신축)	2층철근콘크리트조	705	336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71-1	최초건축 1988
해 보	1998		철근콘크리트조(2층)	1,197	343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98-1	최초건축 1986
월 야	1998		철근콘크리트조(2층)	363	343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59-7	최초건축 1987

1)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2009년 현재 시설현황							소재지주소	비고
	건립연도(현재사용중인건물)	증개축연도 및 내용	건물구조	대지면적(㎡)	건물규모(㎡)	설치연월일	관할인구수		
소 계				8,223	1,580		12,355		
삼 정	1984	2000(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	509	118	84.06.01	558	함평읍 성남리 791-14	
석 성	1985	2006(신축)	철근콘크리트(1층)	728	122	85.08.07	794	함평읍 석성리 200-24	
산 남	1986		연와조	278	77	86.06.17	856	손불면 산남리 1877-1	
월 천	1985		블록	330	68	85.06.29	882	손불면 월천리 1024-5	
죽 장	1985	2004(신축)	철근코크리트조(2층)	331	160	04.06.08	586	손불면 죽장리 285-1	
동 정	1984	2007(신축)	철근콘크리트조(1층)	690	125	84.09.17	888	신광면 동정리 1078-2	
금 송	1983	2009(이전신축)	철골조	990	68	09.04.06	962	학교면 금송리 514	
복 천	1987		조적조	378	79	87.04.29	782	학교면 복천리 415-21	
영 흥	1985	2008	철근코크리트조		122	85.08.1	518	엄다면 영흥리 696-5	

		(이전신축)	(1층)	547		4			
금 곡	1985	2003 (이전신축)	철근콘크리트조 (2층)	517	70	03.02.13	421	대동면 금곡리 296	
덕 산	1984	2009 (이전신축)	철골조	118	70	09.02.23	809	대동면 덕산리 291-5	
용 두	1984	2009 (이전신축)	철골조	826	142	84.10.10	714	나산면 이문리 944-8	
대 각	1984	2009 (이전신축)	철골조	430	70	09.02.24	603	해보면 대각리 425-2	
계 림	1986		연와조	536	76	86.07.01	787	월야면 계림리 494	
양 정	1985	2009 (이전신축)	철골조	662	142	84.10.01	923	월야면 양정리 288-4	
정 산	1983		연와조	353	68	81.12.01	1,272	월야면 정산리 672-1	

3)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

구분 / 연·읍면	합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종별외				
		소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소계	보건직	행정직	기타	보건진료원
1999	134	36	8	5		7	8		8						16
2000	132	34	8	5	2	5	8		8						16
2001	134	36	10	5	2	5	8		8						16
2002	50	34	8	4	2	5	15								16
2003	52	35	8	5	4	5	13		1						16
2004	53	38	8	5	6	5	12		1						16
2005	53	37	8	5	6	5	7		6						16
2006	50	34	8	5	5	5	9		2						16
2007	50	34	8	5	5	5	10		1						16
2008	48	33	8	5	6	5	8		1						16
함 평	2														2
손 불	8	5	1	1		1	1								3
신 광	6	5	1	1		1	1								1
학 교	6	4	1			1	1								2
엄 다	4	3	1	1			1								1
대 동	5	3	1				1								2
나 산	6	5	1	1		1	1								1
해 보	4	3	1	1			1								1
월 야	7	5	1	1		1	1								2

제2절 의료시설(醫療施設)

1. 의원(醫院)·병원(病院)

함평군에서 첫 개업한 양방(洋方)의원은 1918년경 개업한 공의원(公醫院)이었고 공의는 서울 사람 이었으며 함평읍 함평리 전 함평우체국 앞에 자리했다.

이어 이경식이 재생의원(濟生醫院)을 함평군청 앞 기각리 808번지에서 개업하였고 한방(韓方)의원은 국윤범이 1995년 4월 8일에 함평읍 기각리 962번지에서 함평한의원이란 이름으로 첫 개업하였으며, 치과의원은 박해균치과의원을 함평읍 내교리 219-29번지에서 첫 개업하였다.

1997년 말 현재 개업의가 없는 면은 신광, 엄다, 대동 3개면이며 나산면은 오종택이 1987년에 폐업한 이후 그 자리에 중앙의원, 나산의원, 삼축의원이란 이름으로 여러 의사들이 개업하였으나 입원하는 환자가 적어 폐업을 거듭하였는데 1995년에는 3명, 1996년에는 4명이 개폐업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함평군 의원·병원·한의원·치과의원·조산원 개업 상황

시설의료원이름	소 재 지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원장	병상수		참 고
				이름	1983	2007	
제생의원	함평읍 기각리 808		폐 업	이경식	6		본인 사망으로 폐업
선광의원	〃 함평리 135		폐 업	정용호	7		〃
이종영외과의원	〃 내교리 209-9		폐 업	이종영	14		제일병원 신축 이전함
제일병원	〃 〃 168-3	'88. 07.25	'92. 11.01	이종영			한국병원으로 개칭.성심병원에 매각
김광모외과의원	〃 〃 209	'85. 03.04	'03. 12.01	김광모			이종영외과의원을 인수 개업함
김의원	〃 기각리 718	'83. 04.25	'89. 09.23	김선명	9		광주로 옮겨감
신정님 조산원	〃 〃 898-8	'82. 02.03	'01. 07.11	신정님			
박해균치과의원	〃 내교리219-29	'85. 05.01	'90. 01.13	박해균			
성모의원	〃 기각리 918	'89. 09.24	'92. 05.01	나경일			
〃	〃 〃 918	'92. 05.01	'94. 04.13	임윤모			성모의원 인수
명성 외과 의원	〃 〃 918	'94. 04.17	'96. 04.12	이현정			성무의원 인수 개업
최종상내과의원	〃 〃 918	'96. 04.13	폐 업	최종상			명성외과의원 인수 개업
함평 치과 의원	〃 내교리212-28	'90. 01.15	'90. 04.25	최형인			
〃	〃 〃 212-28	'90. 04.25	'94. 04.28	양승필			
〃	〃 〃 212-28	'94. 05.02	'98. 05.29	정 훈			
〃	〃 〃 212-28	'98. 06.01		김재호			
노암 치과 의원	〃 〃 211-11	'90. 05.29		노 암			
제일 치과 의원	〃 내교리 198-3	'92. 07.24	'00. 05.31	김정호			
〃	〃 내교리 198-3	'00. 06.02	'09. 08.28	김지광			
〃	〃 내교리 165-6	'09. 08.28		김지광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하치과의원	〃 기각리 1000-8	'08. 04.23		하정길			
함평한의원	〃 기각리 962	'95. 04.08	'97. 05.23	국윤범			
천지인한의원	〃 내교리 211-3	'02. 04.19		임승일			
원광한의원	〃 내교리200	'08. 07.04		이정훈			
참사랑 한의원	〃 내교리212-7	'09. 02.23		김대수			
함평한의원	함평읍 기각리 962	'97. 07.04	'98. 07.27	조대웅			
함평성심병원	〃 내교리 168	'96. 05.11		송영종			한국병원을 인수하여 개업함
강한의원	〃 〃 214-18	'96. 12.18	'02. 06.26	강천식			
박치과의원	〃 기각리1008-8	'97. 06.05	'98. 07.23	박영희			
함평연합의원	함평읍 내교리 203-5	'01. 11.06		김도규			
윤상준내과의원	〃 기각리 918	'04. 02.05		윤상준			
홍내과의원	〃 내교리 209-58	'05. 03.31		홍한기			
한빛의원	〃 〃 209-9	'08. 10.20		김창훈			
함평천지의원	〃 기각리 1001-5	'08. 04.10		김성근			
월야의원	월야면 월야리714-10	'91. 05.20	'91. 09.02	방춘오			

시설의료원이름	소 재 지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원장	병상수		참 고
				이름	1983	2007	
〃	〃 〃 714-10	'91. 09.07	'93. 03.18	송정자			
〃	〃 〃 714-10	'93. 03.30	'95. 01.03	임주영			
〃	〃 〃 714-10	'95. 01.05	'96. 01.03	김영배			
〃	〃 〃 714-10	'96. 01.03		선희매			
함평의원	〃 〃 465-8	'00. 11.17		김근수			
한마음한의원	〃 〃 714-10	'10. 02.08		김흔수			
청송의원	〃 〃 465-8	'96. 10.29	'97. 02 12	문태주			
〃	〃 〃 465-8	'97. 02.13	'00. 05.02	박성수			
일경한의원	〃 〃 1005	'97. 11.04	'01. 09.03	국윤범			
중앙의원	〃 〃 967-4	'97. 11.10		서재관			
서울안과의원	〃 내교리 183	'07. 08.22	'09. 08.18	이정탁			
〃	〃	'09. 11.20		김현승			
이안과의원	〃 기각리 884-17	'09. 11.26		이동헌			
기독의원	손불면 대전리228-10	'92. 02.13	'94. 01.20	임주영			
〃	〃 〃 228-10	'94. 01.29	'04. 03.02	정동옥			
〃	〃 〃 228-10	'04. 03.03		한광섭			
최한의원	〃 〃 817-18	'09. 09.15		최관준			
세브란스의원	〃 〃 670-6	'08. 03.20	'09. 02.16	정보현			
손불의원	〃 〃 670-6	'09. 02.16	'10. 01.18	김 욱			
〃	〃 〃 670-6	'10. 01.18		선명균			개설자 변경
손불제일의원	〃 〃 180-5	'02. 04.06		오진석			
백제의원	학교면 학교리 475	'60. 01.02	'90. 05.	김형태	3		본인 사망으로 폐업
연수의원	〃 〃 475	'90. 05.11	'91. 02.01	오길남			
〃	〃 〃 475	'91. 02.02	'93. 02.10	류창수			
〃	〃 〃 475-1	'93. 02.10	'94. 02.02	정윤필			
〃	〃 〃 475-1	'94. 02.02	'95. 02.02	김성태			
현대의원	〃 사거리 621-7	'93. 07.24	'01. 02.12	강주삼			
학교가정의학과의원	〃 사거리 991	'01. 02.26		박승룡			
효사랑의원	〃 학교리 475-1	'08. 02.25		이기복			
대동한의원	대동면 향교리 856-3	'09. 08.28		권오중			
삼성의원	나산면 삼축리 327-1		'87. 01.	오종백	1		
중앙의원	〃 〃 327-1	'87. 01.27	'90. 04.02	김범진			
나산의원	〃 〃 327-1	'90. 04.02	'91. 02.25	이임수			
〃	〃 〃 327-1	'91. 02.26	'91. 12.31	백진기			
〃	〃 〃 327-1	'91. 12.31	'93. 01.04	김철우			
〃	〃 〃 327-1	'93. 01.04	'94. 01.07	천대웅			
중앙의원	〃 〃 327-1	'94. 03.08	'94. 04.25	박태일			
나산의원	〃 〃 327-1	'95. 01.11	'95. 03.31	이현주			
〃	〃 〃 327-1	'95. 04.06	'95. 08.07	이재휴			
〃	〃 〃 327-1	'95. 08.07	'96. 02.05	김순열			
〃	〃 〃 327-1	'96. 02.05	'96. 03.04	박경상			
〃	〃 〃 327-1	'96. 03.05	'96. 09.05	정 전			
〃	〃 〃 327-1	'96. 09.06	'96. 10.16	박양숙			
중앙의원	〃 〃 327-1	'96. 12.09	'97. 05.03	박채돈			
나산현대의원	〃 〃 327-1	'99. 06.21		박현균			
삼축의원	〃 〃 327-1	'97. 05.04	'98. 02.03	채홍재			
하나의원	〃 〃 273-1	'07. 10.12		문형선			
해보의원	해보면 문장리822-49		'88. 10	임정호	1		
함동의원	〃 〃 822-49	'88. 10.04	'01. 02.28	심재규			
문장치과의원	〃 문장리 822-6	'92. 06.23	'93. 03.24	임경윤			
〃	〃 〃 822-6	'93. 03.24	'95. 06.24	김홍수			

시설의료원이름	소 재 지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원장	병 상 수		참 고
				이름	1983	2007	
〃	〃 〃 822-6	'95. 06.29	'01. 10.12	허 웅			
〃	〃 〃 822-134	'02. 04.22		최 재 윤			
자 애 의 원	〃 금덕리407-26	'90. 03.09		조 기 창			
문 장 한 의 원	〃 문장리 822-134	'06. 12.28		권 순 철			
김 재 련 의 원	〃 문장리822-25	'96. 06.17	'03 04.01	김 재 련			
대 성 의 원	〃 〃 822-116	'03. 12.23		노 동 명			
국군함평병원	〃 해보리 산 18	'07. 05.16		의 무			
국군함평치과병원	〃 해보리 산 18	'07. 05.16		사 령 관			

2. 약국(藥局)·약방(藥房)·한약종상(韓藥種商)

약국이란 국가 자격의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양약을 파는 가게를 말하는데 함평에서는 중앙약국, 함평약국(폐업. 서울 이주), 제중약국 순으로 개업하였다.

약방이란 약종상의 면허증을 가지고 양약을 판매하는 가게며 자체 조제는 하지 못한다. 함평에서는 삼산약방이 제일 먼저 개업하였다.

한약방은 약종상 면허증을 가지고 한약제를 파는 가게인데 종래의 한약방을 법적으로 인정 강화한 셈이고 함평에는 동인당, 청송, 삼성 한약방 등이 일찍 면허를 받았다.

1). 약국·약방·한약종상의 개업 상황

명 칭	소 재 지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약사 및 약종상명		참 고
				한 글	한 문	
중 앙 약 국	함평읍 내교리216	'70. 05. 01		최 여 규	崔 汝 奎	
함 평 약 국	〃 기각리	'70. 05. 01	1970년대	박 기 수	朴 淇 洙	서울로 이주 개업
제 중 약 국	〃 〃 966	'70. 05. 01		김 형 중	金 衡 中	
동 산 약 국	〃 내교리210	'70. 05. 01	'06. 07. 31	최 용 진	崔 容 鎭	
서 울 약 국	〃 〃 213	'70. 11. 20	'90. 03. 14	김 청 사	金 淸 司	사망으로 폐업
새서울약국	〃 내교리213	'90. 03 .20		이 동 국		서울약국 인수 개업
삼 산 약 국	〃 〃 212-7	'88. 11. 03	'00. 08. 28	이 재 삼		
광 주 약 국	〃 기각리1001	'90. 07. 16		황 명 성		
삼 산 약 방	〃 〃 217-1		폐 업	박 종 섭	朴 淙 燮	사망으로 폐업
평 화 약 방	〃 함평리		폐 업	오 연 희		이거 폐업. 전 함평농협 옆
함 평 약 국	〃 기각리918	'84. 08. 13	'92. 06. 25	박 종 율		92.6.25 내교리 217번지로 옮김
동인당한약방	〃 기각리969	'70. 05. 15		이 계 필	李 啓 弼	첫 개업 : 이영헌(李瑛憲)
삼성당한약방	〃 〃		폐 업	이 재 현	李 載 鉉	내교리 215로 이전. 서울로 이거
대왕당한약방	〃 내교리215	'71. 08. 10		이 문 헌	李 文 憲	삼성당 건물 인수. 대동면에서 이전
용당한약방	〃 〃 203-6	'90. 06. 22	'00. 09. 14	최 용		대동 향교에서 이거
대동약국	〃 기각리 884-6	'06. 08. 21	'10. 02. 01	김 영 철		
〃	〃	'10. 02.01		한 동 균		
평화약국	〃 내교리203-10	'01. 10. 19	'07. 06. 07	김 민 화		
〃		'07. 06. 07		지 안 용		
함평약국	〃 내교리217-4	'04. 08. 23	'08. 07. 28	윤 동 호		
창운약국	〃 내교리183	'07. 07. 23		백 창 운		
장수약국	〃 내교리206-3	'07. 04. 23		정 병 희		
천지약국	〃 내교리 168-1	'00. 11. 06		양 강 술		
정다운약국	〃 내교리214-2	'06. 10. 31		이 주 영		
함평종로약국	〃 내교리210-10	'01. 09. 17		정 종 호		
우 리 약 국	손불면 대전리 644-1		'88. 06. 14	김 종 중	金 淙 中	
〃	〃 〃 644-1	'88. 06. 15		신 성 철		
손불종로약국	대전리180-6	'09. 09. 22		국 민 철		
김 약 국	〃 〃 185	'87. 03. 12	'90. 06. 27	김 성 식		
광 성 약 방	〃 월천리1008-4		폐 업	박 백 수	朴 白 洙	
대원당한약방	〃 대전리 647	'71. 08. 10	폐 업	정 희 구	鄭 喜 九	
신 광 약 방	신광면 월암리 199	'70. 05. 15		홍 정 섭	洪 正 燮	

명 칭	소 재 지	개업년월일	폐업년월일	약사 및 약종상명		참 고
				한 글	한 문	
광생당한약방	〃 월암리 199	'70. 05. 15	'00. 08. 09	장동섭	張東燮	307.6
김 약 국	〃 사거리991-10		'89. 02. 16	김정구	金廷九	
사거리약국	〃 사거리991-23	'01. 03. 10		안상범		
천 사 약 국	〃 〃 991-10	'89. 02. 17	'93. 02. 10	문종훈		
〃	〃 〃 991-10	'93. 02. 10	'94. 12. 30	최민수		
유 명 약 국	〃 〃 634	'87. 03. 12	'92. 09. 08	이현숙		
〃	〃 〃 634-6	'92. 09. 09	'99. 11. 08	변병석		
광 생 약 방	〃 학교리878		폐 업	방용진	方用辰	
대 인 약 방	〃 〃 878		'94. 05.	강병모	姜炳模	
건 강 약 국	〃 〃 878	'89. 09. 04	'95. 09	권용진		
〃	〃 〃 878	'95. 09	'96. 10. 04	강선영		
〃	〃 〃 878	'96. 10. 11	'97. 03. 24	배기운		
〃	〃 〃 878	'97. 03. 25	'98. 11. 25	류미홍		
〃	〃 〃 878	'98. 11. 28	'00. 07. 31	이경희		
〃	〃 〃 878	'00. 10. 18	'09. 02. 19	권용진		
〃	〃 〃 878	'09. 03. 03		이병수		
광제당한약방	〃 사거리572	'68. 12. 30	폐 업	송영부	宋英夫	
대응당한약방	〃 〃 623-20	'91. 08. 03	'93. 08. 19	박석만		
〃	〃 〃 621-2	'94. 07. 14		〃		이전 개업
순천당약방	엄다면 엄다리824		폐 업	황재연	黃在淵	
남혜당한약방	〃 엄다리850	'54. 03. 10	폐 업	이남주	李南柱	이문규(李文奎)
명성한약방	〃 〃 831-9	'86. 10. 30	'90. 03. 10	강석우		나주시 중앙동으로 이거
대 동 약 방	대동면 덕산리431		'93. 09. 03	이돈풍	李敦豊	사망
세광당약방	〃 금산리753		폐 업	강형수	姜亨秀	
용당한약방	〃 향교리869	'84. 02. 28	'90. 06. 22	최 용		.함평읍 내교리 203-6으로 옮김
대성당한약방	〃 〃 862	'90. 12. 08	'91. 03. 14	조충일		
임 약 방	〃 〃 862	'91. 03. 15	'91. 10. 16	임기봉		
대동한약방	〃 〃 862	'91. 10. 17	'94. 01. 22	김수원		전북으로 이거
나 산 약 국	나산면 삼축리1066	'70. 05. 01	03. 01. 21	박만혁	朴滿赫	
하나로나산약국	〃 삼축리 337-6	'00. 12. 01		임병완		
재생당한약방	〃 삼축리 276-6	'70. 05. 15	'92. 10. 16	최준상	崔俊翔	폐 업
태평양약국	〃 삼축리273-4	'07. 10. 17	'08. 10. 07	박 준		
새태평양약국	〃 삼축리273-4	'08. 10. 08		이은효		
세 창 약 국	해보면 금덕리407	'70. 12. 09		김세창	金世昌	
이 당 약 국	〃 문장리822-86		'86. 08. 19	이승남	李承男	
〃	〃 문장리 822-86	'86. 08. 20	폐 업	강석기		
호연당약방	〃 금덕리407		폐 업	류민재	柳民在	
문장약국	〃 금덕리 401-2	'06. 08. 22	'07. 03. 02	신상진		
나비약국	〃 금덕리401-2	'07. 03. 07		최병두		
유을당한약방	해보면 금덕리 404-7	'80. 09. 29		류재승	柳在勝	
제일당한약방	〃 〃 407	'77. 03. 31		권희철	權熙喆	
홍제당한약방	〃 〃 407-28	'91. 10. 16		홍춘성		
광 주 약 국	월야면 월야리 494-31	'90. 07. 04		조기영		
대 성 약 방	〃 정산리 708		폐 업	홍인기	洪仁基	
금 성 약 국	〃 월야리713-3	'01. 04. 10		김미숙		
월 야 약 방	〃 월야리 45		'93. 11. 19	정진동		장성으로 이거
제생당한약방	〃 정산리 597-6	'70. 05. 15		안두환	安斗煥	

2).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소

구분 / 연·읍면	의료합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조산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의약품판매업소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계	약국	도매상	약업사	한약방	의료기구
1996	43	96	1	75	10	21	4		2		1		1	8	16	29	14		4	9	2
1997			1	75	11	21	5		3		1	1					14		4	9	2
1998			1	75	10	21	5		3		1	1					14		4	9	2
1999			1	75	13	22	5		4		1	1					14		4	9	2
2000			1	75	13	23	5		6		1						16		3	7	2
2001			1	75	15	48	5		4								18		1	7	2
2002			1	130	17	29	5		4								17		2	7	2
2003			1	130	17	29	5		4								19		2	7	3
2004			1	130	17	29	5		4								18		2	7	2
2005			1	130	16	29	5		5								17		4	7	
2006			1	130	15	29	5		6								18		3	7	3
2007			3	628	18	29	5		5								21		3	7	5
2008			3	628	19	29	5		5								20		1	7	7
2009			3	628	19	29	5		7								21		1	7	7
함평읍			1	100	8	29	4		3								11			2	5
손불면					3				1								2				
신광면																			1		
학교면					2												2			1	1
엄다면																					
대동면									1												
나산면					2												2				
해보면			2	528	2			1	1								2			3	1
월야면					2				1								2			1	

제3절 공중 · 식품위생업소

광복 이후 어느 지방이나 크게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흔히들 주점과 식당을 포함하는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소(理·美容業所), 다방이라고 말한다.

다음 표에서 보면 그 말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대중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명칭이 바뀐 음식판매업소가 군내에 가장 많은 해는 1983년으로 328개 업소였고 1996년 말 현재는 282개소로 읍면별로는 함평읍 115개소, 학교면 43개소, 해보면36개소, 손불면 22개소 순이다.

함평의 맛자랑으로 첫손 꼽히는 것이 비빔밥이다.

미식가들의 말을 빌리면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알려진 전주비빔밥보다 함평의 비빔밥이 월등히 맛이 좋으며 그 비빔밥의 대표적인 맛을 1970년대 후반에 폐업한 해동식당을 들고 있다. 항시 새로 짠 참기름, 무채 썰듯 가냘피 썬 돼지 비개살, 시큼하면서도 감칠맛 도는 묵은 김치, 검게 탄듯한 민물고기 조림 등을 곁들인 비빔밥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근래에 함평비빔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여러 식당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흥음식점은 1970년대에 크게 번성했는데 함평의 주소득원인 양파 값이 좋았던 때였고 수십명의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가 함평읍만해도 10여 곳이 넘었으나 양파 값이 폭락한 1980년대부터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용업소는 광복전에는 함평읍에 중앙이발관 뿐이었다. 그 중앙이발관은 현 함평군청 정문 바로 동쪽에 자리했었다.

함평군에 이용업소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4년으로 124개소였고 1980년대부터 유행된 장발(長髮)의 풍조에 의해 많은 업소가 폐업하여 1996년 말 현재는 군내에 42개소 함평읍에 1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미용업소는 해방과 더불어 여자의 머리형이 파마로 바뀌면서 늘어나 1988년에는 군내에 65개업소가 있었고 1996년 말 현재는 군내에 49개업소, 함평읍에서 19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함평읍에서 제일 먼저 생긴 다방은 호수다방(湖水茶房)이고 6.25전쟁 후에 개업했으며 지금의 옥천양조장 자리였다. 1988년에는 군내에 48개업소가 있었고 1996년 말 현재는 군내에 37개업소 함평읍에 12개업소, 대동면을 제외한 면소재지에 2~5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함평지역은 인근에 광주와 목포등 도시가 있어 숙박업이 잘 안되는 곳이다. 함평에 제일 먼저 생긴 근대적인 여관은 만옥여관(萬屋旅館)이었고 지금의 동창여관 자리이다. 여관과 여인숙을 합하여 1996년 말 현재 함평읍에 6개업소, 해보면에 3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이외의 면에는 업소가 없다.

1) 군내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①

* 대중음식점에는 식당. 주점이 포함되어 있다.

연 도	환 경 업 소							위 생 업 소		
	이용업	미용업	여 관	여인숙	목욕탕 (공동)	유 기 장 업		대 중 음식점	다 방	과 자 영업용
						당구장	전 자 유기장			
1963			3	1						
1964	73	34	3	2				76		
1965	71	18	3	2				88	5	
1966	74	16	4	2				58	5	
1967	81	16	6	4				41	6	
1968	88	23	8	6				64	6	
1969	96	27	2	5				66	4	
1970	103	32	3	6				92	6	
1971	113	27	3	6				74	8	
1972	112	29	3	7				102	8	
1973	120	31	3	8				115	17	
1974	124	28	5	9				162	15	
1975	114	24	5	12				184	15	
1976	112	25	5	11				184	14	

연 도	환 경 업 소							위 생 업 소		
	이용업	미용업	여 관	여인숙	목욕탕 (공동)	유 기 장 업		대 중 음식점	다 방	과 자 영업용
						당구장	전 자 유기장			
1977	68	17	5	11	2	7	1	215	14	2
1978	70	19	5	10	2	7	1	221	14	3
1979	68	25	6	10	2	7	1	224	14	4
1980	76	25	6	10	2	7	1	240	20	3
1981	78	30	6	9	1	7	1	283	26	3
1982	79	33	7	9	1	8	1	325	26	3
함 평 읍	18	9	6	2	1	1	1	156	8	3
손 불 면	7	1				1		24	3	
신 광 면	8	2				1		21	1	
학 교 면	11	4	1	4		1		46	4	
엄 다 면	4	2						12	1	
대 동 면	7	1				1		11	1	
나 산 면	6	3				1		23	2	
해 보 면	8	5		2		1		20	4	
월 야 면	10	6				1		12	2	

구분 / 연·읍면	합 계	숙 박 업		이 미 용 업		목욕탕	전자유기장	위생관련업
		여 관	여인숙	이용업	미용업	공동탕	청 소 년	세 탁 업
1983	133	7	9	77	38	1	1	
1984	145	6	8	81	47	2	1	
1985	168	7	8	84	57	2	10	
1986	174	7	8	82	59	2	16	
1987	183	7	8	84	63	2	19	
1988	191	8	8	85	65	3	22	
1989	137	7	7	55	45	3	20	
1990	136	7	7	48	40	3	18	13
1991	144	7	7	45	50	3	16	16
1992	146	7	7	45	50	3	15	19
1993	136	6	7	43	42	3	15	20
1994	136	6	6	42	46	4	11	21
1995	154	8	9	41	55	9	11	21
1996	152	9	8	42	49	9	14	21
함 평 읍	60	6	2	13	19	5	7	8
손 불 면	20		3	5	4	3	3	2
신 광 면	7			3	2		1	1
학 교 면	19		2	3	7		3	4
엄 다 면	5			2	2			1
대 동 면	4			2	2			
나 산 면	10			5	3			2
해 보 면	15	3	1	3	5	1		2
월 야 면	12			6	5			1

구분 / 연·읍면	합 계	숙 박 업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노래 연습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 역 업	기 타
1997	151	20	9				35	51	22	-	14
1998	156	21	9				36	53	23	-	14

구분 / 연·읍면	합 계	숙 박 업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노래 연습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 역 업	기 타
1 9 9 9	168	22	9	2	13	7	37	54	24	–	14
2 0 0 0	189	23	9	4	23	15	37	55	23	–	31
2 0 0 1	227	20	8	12	17	24	36	54	25	–	31
2 0 0 2	231	19	9	9	14	30	36	58	25	–	31
2 0 0 3	200	20	11	8	14	28	36	55	27	–	1
2 0 0 4	197	18	9	7	17	27	35	60	23	–	1
2 0 0 5	182	18	9	6	17	27	33	50	21	–	1
2 0 0 6	182	18	10	5	18	23	33	53	21	–	1
2 0 0 7	164	18	10	4	7	21	29	53	20	1	1
함 평	69	5	4	3	6	7	9	22	11	1	1
손 불	21	3	3			5	4	4	2	–	–
신 광	7	–	–			1	2	3	1	–	–
학 교	19	3	1	1	1	2	3	7	1	–	–
엄 다	5	2	–				1	1	1	–	–
대 동	4	–	1				1	2	–	–	–
나 산	9	–	–			1	3	4	1	–	–
해 보	18	5	1			2	4	5	1	–	–
월 야	12	–	–			3	2	5	2	–	–

2) 군내 공중, 식품위생업소 현황②

구분 / 연·읍면	합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운반 기타업			
		계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계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업	즉석판매가공	계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기타
			다방	제과	기타											
1983	368	368	32	2	6	328										
1984	246	246	37	1	2	204		2								
1985	205	205	40	1	1	161		2								
1986	218	218	43	1	1	171		2								
1987	217	217	42	4	1	168		2								
1988	232	232	48			181		3								
1989	216	216	45			166		5								
1990	304	219	44	2		167		6		84			84	1		1	
1991	370	236	44	1		186		5	11	123			123	1		1	
1992	401	260	43			212		5	11	130			130	1		1	
1993	381	260	45			207	3	5	7	113			113	1		1	
1994	569	310	39	4	5	254	3	5	13	114	1		113	132	130	1	1
1995	612	328	38	4	3	270	7	6	22	123	3		120	139	138		1
1996	674	341	37	6	2	282	4	10	25	125	21	2	102	183	111	71	1
함평	236	136	12	4		115	1	4	5	31	6	1	24	64	43	21	
손불	53	29	5		1	22	1		3	12	2		10	9	5	4	
신광	30	14	2			12			2	9	1		8	5	2	3	
학교	95	49	5		1	43			5	17	3		14	24	14	9	1
엄다	27	12	2			8	2		1	4	2		2	10	7	3	
대동	27	9				9			2	7	1		6	9	5	4	
나산	49	20	3			16		1	1	11			11	17	9	8	
해보	82	46	5	1		36		4	2	14	4		10	20	11	9	
월야	75	26	3	1		21		1	4	20	2	1	17	25	15	10	

구분 / 연·읍면	합계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소계	다방	기타						
1997	706	372	48	41	2	307	5	6	11	-	24
1998	667	402	48	41	1	337	6	6	11	1	25
1999	709	422	51	44	1	353	6	6	12	1	35
2000	756	445	54	44	-	375	10	4	12	2	37
2001	656	396	46	37	2	333	7	4	13	2	35
2002	685	384	40	30	2	348	8	4	12	2	35
함평	262	157	15	8	1	139	6	-	3	1	13
손불	56	33	4	4	-	28	-	1	-	-	3
신광	30	15	2	2	-	13	-	-	-	-	1
학교	89	43	5	4	1	45	-	-	3	1	7
엄다	33	19	-	-	-	16	-	3	-	-	1
대동	31	13	-	-	-	13	-	-	-	-	2
나산	48	28	3	3	-	24	-	-	1	-	3
해보	74	44	8	6	-	42	2	-	4	-	2
월야	62	32	3	3	-	28	-	-	1	-	4

구분 / 연·읍면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운반·기타업			
	소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계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기타
1997	142	24	-	-	114	168	167	-	1
1998	145	22	-	-	121	95	94	-	1
1999	158	22	-	-	134	94	94	-	1
2000	160	25	-	-	134	114	107	6	1
2001	107	18	-	-	86	118	113	5	-
2002	109	32	-	-	87	137	132	5	-
함평	28	3	-	-	25	64	59	5	-
손불	12	2	-	-	10	8	8	-	-
신광	9	1	-	-	8	5	5	-	-
학교	13	6	-	-	7	16	16	-	-
엄다	5	1	-	-	4	8	8	-	-
대동	9	3	-	-	6	7	7	1	-
나산	10	-	-	-	10	8	8	-	-
해보	9	3	-	-	6	9	9	-	-
월야	14	3	-	-	11	12	12	1	-

구분 / 연·읍면	합계	소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다방	기타						
2003	744	439	40	35	5	372	9	4	13	1	39
2004	728	430	37	31	6	367	8	4	13	1	40
2005	641	379	28	20	8	325	6	4	14	2	39
2006	679	395	33	23	10	336	5	4	15	2	39
2007	688	398	32	22	10	338	6	4	16	2	39
함평	279	172	15	10	5	143	4	-	9	1	13
손불	52	34	5	3	2	28	-	1	-	-	4
신광	33	15	-	-	-	15	-	-	-	-	1
학교	81	49	3	2	1	42	-	-	3	1	7
엄다	37	15	2	2	-	10	-	3	-	-	2
대동	29	12	-	-	-	12	-	-	-	-	3

구분 / 연·읍면	합계	소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다방	기타						
나산	43	23	2	1	1	21	-	-	-	-	3
해보	70	50	3	3	-	42	1	-	4	-	2
월야	64	28	2	1	1	25	1	-	-	-	4

구분 / 연·읍면	소계	식품제조·가공업				소계	판매·운반·기타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2003	119	24	-	-	95	147	142	5	-
2004	126	30	-	-	96	132	127	5	-
2005	118	24	-	-	94	105	92	4	9
2006	140	31	-	6	103	105	90	6	9
2007	151	38	-	8	105	100	93	7	-
함평	51	7	-	5	39	43	38	5	-
손불	11	1	-	-	10	3	3	-	-
신광	12	4	-	-	8	5	5	-	-
학교	15	6	-	-	9	10	10	-	-
엄다	10	4	-	-	6	10	10	-	-
대동	9	3	-	-	6	5	4	1	-
나산	12	4	-	-	8	5	5	-	-
해보	12	5	-	1	6	6	6	-	-
월야	19	4	-	2	13	13	12	1	-

제4절 상하수도(上下水道) 시설

1. 상수도 시설



함평상수도 정수장

상하수도가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식수를 천연의 샘에 의지했던 농촌은 옛과는 달리 농사철의 농약 공해가 심해지고 생활 폐수 등 오염물질이 땅 속에 스며들어 천연수의 우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함평읍이나 학교면, 엄다면은 함평천의 오염이 심하고 간디스토마, 대장균이 많아 상수도를 시설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1963년에 함평읍 상수도 시설을 개기로 현재는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이 시설을 갖추어 급수하고 있으며 또 마을 단위의 간이 상수도를 개발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

래와 같다.

1) 함평읍 상수도

1963년 함평읍 기각리 445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를 해오다가 급수량 부족으로 6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1981년 5월 19일부터 1982년 7월 6일까지 영수천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취수장, 기산봉의 정수장, 그리고 배수관 등을 확장 또는 교체하였고, 1984년부터는 학교면 학교리, 사거리, 월산리, 엄다면 학야리 등까지 급수 지역을 넓혔다.

1992. 12~1993. 1월까지 현재의 시설로 증보수공사를 하였고 학교면과 엄다면 급수지역은 학교면 월산 정수장에서 급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 11월 기존 함평정수장과 함평 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롭게 함평 취정수장(규모 : 10,000톤/일)과 배수지(규모 : 4,000톤/일)를 신설하여 운영하다 2009년 8월 배수지(2,000톤)를 증설하였다.

함평읍 상수도의 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취수설비(取水設備)

- •소 재 지 : 원래 – 함평읍 기각리 445번지. 1997 현재 – 663번지,
  2002 현재 – 기각리 569번지
- •수 원 : 함평천 복류수(咸平川 伏流水)
- •준 공 : 1982. 7

•시 설 물	1983년 당시	1997년 말 현재	2002년 말 현재
집수암거	56m	60m	
집 수 정	1지(池)	2지(池)	2지(池)
취 수 장	1동(棟)	1동(棟)	1동(棟)
모터펌프	60마력 4대	200마력 2대	200마력 2대
송 수 관	직경(φ) 200㎜. 732m	직경(φ) 300㎜. 750m	직경(φ) 300㎜. 750m

(2) 정수설비(淨水設備)

- •소 재 지 : 함평읍 함평리 산 12-1, 2002 현재 – 기각리 569번지

•시 설 물	1983년 당시	1997년 말 현재	2002년 말 현재
착수정(着水井)	1지(池. 규격 24㎥)	1지(池. 규격 28㎥)	1지(池. 규격 ㎥)
여과지(濾過池)	3지(池. 규격 648㎥)	4지(池). 2지 규격 172㎥ 2지 규격 765㎥	3지(池). 3지 규격 ㎥
소독실(消毒室)	1동(棟)	1동(棟)	1동(棟)
관리사(管理舍)	1동(棟)	1동(棟)	1동(棟)

(3) 배수설비(配水設備)

•소 재 지 : 함평읍 함평리 산 12-1,

	1983년 당시	1997년 말 현재	2002년 말 현재
배수지	1지(池. 규격 1,176㎥)	2지(池. 규격 500㎥)	2지(池. 규격 6,000㎥)
배수관	직경(φ) 80~350㎜ 5,200m	직경(φ) 75~350㎜ 15,720m	직경(φ) 75~350㎜ 15,720m

(4) 시설용량

	1983년 당시	1997년 말 현재	2002년 말 현재
1일 생산량	3,000t	5,000t	10,000t
1일 1인	210L	350L	350L

(5) 급수지역

함평읍,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엄다면

2) 학교 상수도

1968년부터 1981년까지는 목포상수도 급수관에서 도중 급수를 하다가 1981년 1월 학교리 회춘동에 지하수를 개발한 상수도 시설을 갖춰 급수를 했으나 공급량 부족으로 1983년 9월 14일부터 함평읍 상수원을 이용할 공사를 착수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학교리, 월산리, 사거리, 엄다면 학야리, 화양리 쌍촌 일대에 급수를 시작했고 동년 2월 28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 사 비 : 2억 5천만원(엄다지구까지 포함)

•도 수 관 : 직경(φ) 200㎜ 5,640m

•1일 급수량 : 700t (1일 1인당 176L) 11개 마을 1,200 여호(5,372명) 중 513호(2,560명) 혜택

1992. 12~1993. 1월까지 월산리 정수장을 개설하여 목포상수도에서 1일 3,500t을 공급 받아 함평읍 상수도에서 급수하던 학교면 월산, 사거, 학교리와 엄다면 학야리, 화양리에 급수를 하고 있다.

회춘동 상수도 시설은 1984년부터 회춘동, 달배기 마을 등에 급수를 하였는데 1997년 말 월산 정수장에서 공급함과 동시에 폐쇄 조처하였다.

폐쇄 당시 설비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취수설비

•소 재 지 : 학교면 학교리 365-1번지

•준 공 : 1981. 6

•수 원 : 지하수 관정

•시 설 물 : 취수장 1동. 모터펌프 15마력 1대. 송수관 직경(φ) 150㎜ 370m

(2) 정수 설비

•소 재 지 : 학교면 학교리 55-8번지

(3) 배수 설비

•배 수 지 : 1지(池) 규격 3×3×3
•배 수 관 : 직경(φ) 75~200㎜ 8,200m
•용 량 : 1일 500t. 1일 1인 급수량 350L

그 후로 2006년 1월 월산정수장을 폐쇄하고 함평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로와 학교 농공단지로 올라가는 배수관로를 직접 연결하여 농공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다.

3) 엄다 상수도

엄다 상수도는 1968년부터 1981년 6월까지 목포상수도 송수관에서 중간 급수하다가 1981년 6월 엄다리 시장에 자체 지하수원 1개공을 개발하여 엄다리와 송로리 일대에 급수하다가 1995년 1개공을 추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급수하고 있고, 학야리와 화양리 쌍촌은 1984년 1월 1일부터 함평읍 상수도에서 급수하다가 1993년부터 학교면 월산 정수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다.

학야리와 화양리 쌍촌은 들녘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수도가 가설되기 전에는 식수가 나빠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 곳이다.

엄다 상수도의 1997년 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년월일 : 1981. 6

(2) 취수 설비

•소 재 지 : 엄다면 엄다리 산 36-1번지
•수 원 : 지하수 관정 2공
•시 설 물 : 모터펌프, 20마력 1대. 10마력 1대, 송수관 직경(φ) 75㎜ 310m. 150㎜ 510m

(3) 정수 시설

•소 재 지 : 엄다면 엄다리 산 36-1번지
•시 설 물 : 관리사 1동

(4) 배수 시설

•배수지 : 2지(池)

•배수관 : 직경(φ) 75~200㎜ 10,300m

(5) 시설 용량

•1일 200t. (1일 1인 350L)

그 후로 2006년 12월 함평에서 엄다면까지 배수관로(D200)를 직접연결하여 엄다 취수장을 폐쇄하고 함평배수지로부터 수돗물을 엄다면까지 직접 공급하고 있다.

4) 나산 상수도

나산 상수도는 1983년 9월 2일에 사업비 3억 6천만원으로 착공 1984년 준공하였는데 고막천 복류수를 상수원으로 하였다.

1997년 10월 4일 고막천 상수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하수 4개공을 개발하여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취수 설비

•소 재 지 : 나산면 삼축리 431-1번지
•수　　원 : 지하수

•시 설 물	1984년 준공 당시	1997년 말 현재
집 수 정	1지(池)	
취 수 장	1동(棟)	1동
모타펌프	15마력 2대	10마력 2대. 7.5마력 2대
송 수 관	직경(φ)125㎜ 120m	직경(φ) 125㎜ 120m

(2) 정수 설비

•소 재 지 : 나산면 삼축리 산 92-3번지

•시 설 물	1984년 준공 당시	1997년 말 현재
착수정	1지(池. 규격 2×4×3)	1지 (규격 2×4×3)
여과지	2지(池. 규격 6×4×3)	2지 (규격 6×4×3)
소독실	1동	1동
관리사	1동	1동

(3) 배수 시설

	1984년 준공 당시	1997년 말 현재
배수지	1지(池. 규격 8×8×4.5)	1지 (규격 8×8×4.5)
배수관	직경(φ) 75~200㎜ 6,300m	직경(φ) 75~200㎜ 6,300m

(4) 시설 용량

	1984년 준공 당시	1997년 말 현재
1일(1일 1인)	550t (202L)	550t (350L)

(5) 급수지역 : 삼축리, 나산리, 월봉리, 수하리 일대

그 후로 2004년 고막원천 주변에 지하수 관정(5호)을 개발하여 현재 5개 관정에서 취수하여 나산 정수장 배수지에서 소독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2. 상수도 보급 상황

현재까지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은 손불, 신광, 해보, 월야면이며 1996년말 군 전체 인구의 보급률은 28%며 보급 지역의 1인당 1일 급수 평균량은 272.9L이고 1979년부터 보급해 온 내역과 배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함평군의 상수도 보급 상황

구분 / 연·읍면	함평군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 급 률 (%)	시설용량 (㎥/일)	급 수 량 (㎥/일)	1일 1인당 급수량(L)	급수전수
1979	112,924	9,203	8.2	1,600	1300	400	
1980	96,344	9,393	9.8	1,900	1,520	463	
1981	92,960	9,494	10.2	1,900	1,700	179	
1982	91,417	10,074	11.0	3,700	1,540	153	
1983	86,357	10,330	12.0	3,700	1,895	183	
1984	85,004	11,835	13.9	4,250	2,105	178	
1985	78,173	12,666	16.2	4,250	2,145	169	
1986	75,720	12,706	16.8	4,250	2,332	184	
1987	72,023	13,469	18.7	4,250	2,434	181	
1988	69,550	14,133	20.3	4,250	2,495	177	
1989	69,728	14,243	20.4	4,250	2,626	184	
1990	63,031	14,395	22.8	4,250	2,716	189	
1991	62,098	13,860	22.3	4,250	2,716	196	2,780
1992	58,215	14,395	24.7	6,310	3,097	215	2,928
1993	55,684	14,870	26.7	6,250	3,650	242	3,030
1994	52,819	15,565	29.5	6,250	4,000	257	3,116
1995	51,703	14,654	28.3	6,250	3,800	259	3,232
1996	49,733	13,927	28.0	6,250	2,570	272.9	3,316
1997	48,304	14,250	29.5	6,250	4,000	280.7	3,377
1998	50,929	14,526	28.5	6,250	4,000	275.4	3,519
1999	46,929	14,250	30.4	6,250	4,125	289.0	3,700
2000	45,369	13,788	30.4	6,250	3,608	261.0	3,843
2001	43,667	14,010	32.1	6,250	3,441	246.0	3,905
2002	41,965	14,100	33.5	11,250	3,465	246.0	3,907
2003	42,338	14,443	34.1	11,250	4,250	293.0	4,005
2004	40,486	14,217	35.1	10,750	5,803	408.0	4,111
2005	40,437	14,305	35.4	10,750	5,850	408.0	4,150
2006	38,956	13,634	28.4	10,750	5,863	430.0	4,181
2007	38,402	13,844	36.0	10,550	5,750	415	4,362
2008	37,432	14,344	37.9	10,550	6,338	447	4,723
함 평 읍	9,597	7,024	73	10,000	3,708	532	1,988
손 불 면	4,213						
신 광 면	2,095						
학 교 면	4,790	3,200	66		1,300	359	1,180
엄 다 면	2,394	1,700	71		560	302	735
대 동 면	3,327	1,008	30		302	298	340
나 산 면	3,410	1,412	42	550	450	301	480
해 보 면	3,214						
월 야 면	4,392						

2) 상수도관 배설 상황

단위 : m

구분 / 연·읍면	합계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계	주철관	기타	계	강관	주철관	기타	계	아연도강판	주철관	합성수지관	기타
1982	46,271	1,730	1,120	610	10,124		4,924	5,2,00	34,417			4,647	29,770
1983	46,271	1,730	1,240	610	10,124		4,924	5,200	34,417			4,647	29,770
1984	67,492	1,850	1,240	610	21,818		4,924	16,894	43,804			6,508	37,315
1985	57,222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3,554			6,508	27,046
1986	57,568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3,900			6,508	27,392
1987	58,111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4,443			6,508	27,935
1988	58,111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5,365			6,591	29,064
1989	58,111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6,090			9,005	29,085
1990	58,111	1,850	1,240	610	21,818		15,764	6,054	39,148			10,063	29,085
1991	64,341	1,850	1,240	610	23,187		14,304	8,883	39,304	28,525			10,779
1992	63,366	2,100	1,120	980	22,117		20,618	1,500	39,148	27,085			12,063
1993	67,036	2,270	1,290	980	23,118		20,618	2,500	41,648		47,148		4,500
1994	72,736	2,270	1,290	980	26,418		20,618	5,800	44,048		47,148		6,900
1995	100,632	3,535	2,205	1,330	44,400	2,950	16,898	24552	52,699	9,138		32,165	11,394
1996	107,538	5,292	2,205	3,087	46,710	3,545	16,898	26217	55,536	9,138		34,686	11,712
1997	107,594	5,292	2,205	3,087	43,789	3,595	11,956	28,238	58,513	9,138		37,663	11,712
1998	110,926	5,217	2,230	3,087	43,951	3,595	8,962	31,394	61,758	9,138		40,908	11,712
1999	123,291	5,217	2,130	3,087	48,065	2,033	8,962	37,070	70,009	9,138		40,908	19,963
2000	127,218	5,217	2,130	1,980	48,565	2,033	8,962	37,570	73,436	9,138		40,908	26,090
2001	129,230	5,217	2,130	3,087	50,127	645	8,030	41,452	73,886	9,138		44,335	20,413
2002	130,645	2,471	1,073	1,398	52,981	645	12,668	39,543	75,193	1,035	770	57,254	14,251
2003	147,362	3,175	2,471	704	53,981	645	13,576	42,024	87,942	3,688		63,254	21,000
2004	148,281	3,175	3,175		57,198		14,770	42,428	87,908	3,688		84,220	
2005	153,089	4,245	4,245		59,876		15,247	44,629	88,968	3,688		85,280	
2006	161,889	4,245	2,615	1,630	62,800		15,387	47,413	94,844	3,688		91,156	
2007	167,144	4,245	2,615	1,630	62,900		15,387	47,513	100,199	2,895		97,304	
2008	161,894	4,245	2,615	1,630	62,802		15,387	47,415	94,847	3,688		91,159	
함평읍	62,730	2,615	2,615		19,039		4,130	14,909	41,076	2,941		38,135	
학교면	38,341				18,508		6,738	11,770	19,833	497		19,336	
엄다면	32,548				12,768			12,768	19,079	250		18,832	
대동면	18,204	698		698	7,342		927	6,415	9,930			9,930	
나산면	10,071	932		932	5,145			5,145	4,926			4,926	

3) 급수 사용량 현황

단위 : ㎥

구분 / 연·읍면	합 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공공용
			1 종	2 종	1 종	2 종	
1980	1,161	704	274	64		52	67
1981	282,900	123,900		115,800		18,900	24,300
1982	456,480	333,720	25,920	39,960		14,400	42,480
1983	542,937	275,313		237,751		17,886	11,987

구분 / 연·읍면	합 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공공용
			1 종	2 종	1 종	2 종	
1984	569,076	341,909		160,444		3,205	63,518
1985	629,350	377,070	141,595	38,049		14,235	64,571
1986	592,030	363,175	131,035	35,040			48,545
1987	628,465	373,757	134,629	42,267	19,883		67,909
1988	641,305	376,315	136,145	41,245	26,645		60,955
1989	657,730	369,015	141,985	43,070	43,070		60,590
1990	698,245	401,865	8,395	186,150	40,880		60,955
1991	870,590	412,490	171,950	146,150	35,000		65,000
1992	792,705	411,951	132,865	38,599	151,387		57,903
1993	960,177	490,378	160,178	48,432	187,338		73,851
1994	971,516	839,801	152,880	127,918	46,767		109,950
1995	1,011,123	556,479	145,547	149,201	39,462		120,434
1996	1,005,198	549,376	139,219	129,259	65,374		121,970
1997	1,026,917	567,482	143,245	146,196	49,054		120,940
1998	1,011,195	568,103		152,602	47,677		242,813
1999	961,488	536,272	162,492		39,396		223,328
2000	1,011,214	568,550	185,219		50,343		207,102
2001	966,614	536,773	183,631		42,796		203,414
2002	982,267	521,703	251,219		51,403		157,942
2003	1,035,416	551,049	246,965		69,635		167,767
2004	1,107,700	606,000	269,700		70,000		162,000
2005	1,120,000	616,000	275,000		65,000		164,000
2006	1,025,360	624,295	325,879		75,186		
2007	1,205,194	633,897	495,552		75,744		
2008	1,336,058	661,293	615,676		59,089		

4) 급수 사용료 부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읍면	합 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공공용
			1 종	2 종	1 종	2 종	
1980	5,660	2,560		390		900	330
1981	56,660	33,460		18,740		470	3,990
1982	74,028	47,748	16,638	4,457		840	4,345
1983	74,912	27,991		32,674		698	1,518
1984	93,826	51,326		34,365		4,537	7,437
1985	103,642	54,686	29,996	8,928			8,796
1986	122,866	62,823	34,415	9,849			11,242
1987	129,380	63,844	34,752	11,027	6,786		12,971
1988	132,261	63,545	34,365	11,705	9,302		13,343
1989	137,087	62,439	34,727	12,072	14,830		13,019
1990	143,685	65,993	2,049	47,697	14,467		13,479
1991	178,460	86,430	44,170	15,997	14,127		17,730
1992	171,427	89,873	42,643	13,953	8,160		16,798
1993	240,058	125,900	59,635	19,628	14,298		20,597
1994	310,442	146,903	62,097	45,970	22,450		33,022
1995	332,851	152,768	63,730	58,718	23,098		36,537
1996	378,108	166,547	60,573	62,404	43,704		44,880

구분 / 연·읍면	합 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공공용
			1 종	2 종	1 종	2 종	
1997	377,487	170,202	63,135	70,897	29,446		43,807
1998	441,878	199,938		81,903	32,242		127,795
1999	527,495	219,290	109,259		61,118		137,828
2000	552,094	243,080	131,290		47,437		130,287
2001	526,823	231,178	121,480		39,105		135,060
2002	550,040	216,081	175,808		48,968		109,183
2003	554,832	206,703	161,742		65,963		120,422
2004	618,000	252,000	179,000		66,000		121,000
2005	618,000	255,000	178,000		62,000		132,000
2006	659,544	262,070	325,880		71,594		
2007	762,322	291,202	398,137		72,983		
2008	853,733	282,224	516,818		54,691		

5) 간이 급수시설(簡易給水施設)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의 자연 마을에 정부가 자재대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여 도시와 같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책이 마을 단위의 급수시설이며 1972년부터 실시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20호 이상이 살며 마을 전체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있고 또 수인성(水因性) 질환이 염려되는 252개 마을을 대상으로 간이 급수시설을 추진한 결과 1997년 까지 256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256개마을 중 기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포함 2008년말 기준 123마을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별 시설마을 수와 연별 시설마을 수 그리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별 시설 마을 수

읍 면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계
마을수	9	13	10	19	13	21	15	11	12	123

※ 기존시설 개량사업 포함(2008년 기준)

(2) 연별 시설 마을 수

연 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마을수	11	4	3	7	18	15	14	68	40	10	40

연 별	1983	1984	1985	1986	1987	1994	1995	1996	1997	1998
마을수	9	4	2	4	1	2	2	1	1	

연 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마을수	6	5	6	6	7	7	5	2	3	3	305

(3) 연별 시설 마을 내역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72	함평읍 자풍리 노송	42	347	12.10	12.24	1978	엄다면 엄다리 제동	38	207	5. 1	11.30
〃	손불면 대전리 수문	125	403	11.27	12.27	〃	대동면 덕산리 외덕	70	430	〃	〃
〃	대동면 금곡리 나막	53	334	11.26	12.29	〃	손불면 석창리 서편	27	156	〃	〃
〃	〃 〃 재생농원	25	106	12. 7	12.27	〃	나산면 송암리 송암	25	150	〃	〃
〃	나산면 삼촉리 하장기	123	450	12.10	〃	〃	〃 월봉리 월평	53	300	〃	〃
〃	해보면 상곡리 운곡	21	220	11.24	12.24	〃	〃 수상리 월현	35	250	〃	〃
〃	함평읍 진양리 양림	66	413	12.10	12.27	〃	〃 용두리 선박	65	430	〃	〃
〃	해보면 금계리 금산	33	138	〃	12.29	〃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23	120	〃	〃
〃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60	382	12.12	〃	〃	〃 산내리 원산안	29	180	〃	〃
〃	해보면 문장리 중귀	59	406	〃	12.24	〃	〃 용산리 주현	55	325	〃	〃
〃	나산면 월봉리 관동	29	257	11.27	12.26	〃	월야면 용정리 송정	31	162	〃	〃
1973	신광면 삼덕리 덕천	70	432	8.28	11.30	〃	〃 〃 복룡	55	350	〃	〃
〃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	75	440	〃	〃	1979	엄다면 삼정리 송정	21	126	4. 5	12.30
〃	〃 죽정리 호암	35	222	8.28	11.30	〃	신광면 복흥리 석계	22	129	〃	〃
〃	나산면 수하리 화전	59	450	8.26	1.30	〃	엄다면 영흥리 용호동	43	241	〃	〃
1974	함평읍 성남리 성북	75	526	4.10	6.30	〃	나산면 용두리 회화정	25	134	〃	〃
〃	손불면 궁산리 묘동	51	265	〃	〃	〃	해보면 해보리 방촉	20	126	〃	〃
〃	함평읍 성남리 소등	44	226	〃	〃	〃	월야면 예덕리 신촌	30	181	〃	〃
1975	대동면 백호리 석호	70	460	3.15	〃	〃	〃 월계리 작은동	20	173	〃	〃
〃	학교면 곡창리 원곡	71	420	4.10	5.30	〃	손불면 동암리 벽초	25	124	〃	〃
〃	손불면 죽장리 담골	98	501	〃	〃	〃	월야면 용월리 외세	27	163	〃	〃
〃	해보면 해보리 모산	51	310	〃	5.10	〃	해보면 용산리 신주현	30	184	〃	〃
〃	엄다면 신계리 강등	70	420	4.20	5.28	〃	함평읍 수호리 예동	22	110	3.29	〃
〃	손불면 대전리 2구	60	520	11.20	12.25	〃	학교면 곡창리 서당매	20	112	〃	〃
〃	〃 월천리 백옥	50	300	〃	12.30	〃	〃 월산리 월봉	30	174	〃	〃
1976	대동면 운교리 판교	81	405	7. 1	1.30	〃	대동면 용성리 금성	28	185	〃	〃
〃	〃 상옥리 옥동	121	602	5.20	〃	〃	〃 백호리 보화촌	46	252	〃	〃
〃	〃 금곡리 금곡	75	378	〃	〃	〃	엄다면 삼정리 벽유정	27	196	〃	〃
〃	엄다면 신계리 우평	50	148	〃	〃	〃	〃 영흥리 영천	28	184	〃	〃
〃	〃 삼정리 원삼정	61	300	5.25	1.29	〃	〃 성천리 용동	31	187	〃	〃
1976	〃 신계리 화계	50	300	5.30	〃	1979	〃 화양리 정양	30	188	〃	〃
〃	해보면 문장리 하귀	58	276	5.21	1.28	〃	〃 동정리 냉천	43	243	〃	〃
〃	〃 금덕리 시장	121	627	〃	〃	〃	〃 삼덕리 덕산	48	252	〃	〃
〃	나산면 월봉리 용산	51	258	5.25	〃	〃	〃 계천리 사천	39	241	〃	〃
〃	학교면 사거리 청정	81	640	5.23	1.29	〃	〃 동정리 신려	29	178	〃	〃
〃	학교면 죽정리 선암	45	280	〃	5.29	〃	손불면 월천리 신기	40	216	〃	〃
〃	신광면 유천리 미출	50	200	6. 3	1.30	〃	나산면 삼촉리 일촉	64	354	〃	〃
〃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	50	300	12.30	〃	〃	〃 〃 이촉	148	729	〃	〃
〃	〃 우치리 신촌	24	120	〃	〃	〃	〃 〃 삼촉	91	452	〃	〃
〃	해보면 금덕리 고두	50	350	〃	〃	〃	〃 나산리 방하	24	143	〃	〃
〃	월야면 외치리 외치	50	50	〃	〃	〃	〃 우치리 계동	23	127	〃	〃
〃	〃 용정리 용두	29	180	〃	〃	〃	〃 이문리 사정	60	324	〃	〃
〃	함평읍 석성리 신설포	70	375	〃	〃	〃	〃 〃 원이문	20	118	〃	〃
1977	월야면 용암리 운암	30	182	5. 5	9. 5	〃	〃 용두리 원석현	20	121	〃	〃
〃	나산면 수하리 마산	54	328	〃	〃	〃	해보면 문장리 중상귀	30	106	〃	〃
〃	엄다면 삼정리 영화정	28	196	〃	〃	〃	〃 대창리 성대	22	134	〃	〃
〃	나산면 용두리 용두	45	215	〃	9.17	〃	월야면 계림리 가차	30	186	〃	〃
〃	학교면 죽정리 덕산	66	359	5. 6	11.30	〃	〃 용월리 용두	30	182	〃	〃
〃	나산면 삼촉리 동촉	45	308	〃	〃	〃	〃 예덕리 발산	25	164	〃	〃
〃	월야면 예덕리 신덕	36	228	〃	〃	〃	〃 용월리 내세	28	172	〃	〃
〃	해보면 문장리 상귀	42	252	〃	〃	〃	〃 월계리 큰동	20	123	〃	〃
〃	대동면 운교리 마량	59	364	5. 8	10.30	〃	〃 〃 덕산	52	264	〃	〃
〃	엄다면 신계리 생곡	21	147	〃	〃	〃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35	137	4. 5	〃
〃	〃 영흥리 흥룡	36	240	〃	〃	〃	〃 석성리 성재동	20	115	〃	〃
〃	해보면 해보리 유정자	64	414	〃	〃	〃	〃 내교리 외대화	40	192	〃	〃
〃	〃 〃 발미	50	305	〃	〃	〃	〃 장년리 백련동	20	115	〃	〃
〃	대동면 덕산리 내덕	51	306	〃	11.30	〃	〃 수호리 해동	20	106	〃	〃
〃	해보면 문장리 시장	41	250	12. 7	12.30	〃	엄다면 화양리 중양	24	188	〃	〃
1978	함평읍 옥산리 옥산동	35	200	5. 1	11.30	〃	〃 송로리 담안	20	108	〃	〃
〃	엄다면 영흥리 월산	26	140	〃	〃	〃	〃 영흥리 송현	27	172	〃	〃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79	대동면 금산리 금구동	20	119	4. 5	12.30	1981	함평읍 장년리 구주포	35	175	2.26	5.15
〃	〃 향교리 중교	22	124	〃	〃	〃	손불면 산남리 감남	29	145	〃	〃
〃	〃 서호리 호정	31	170	〃	〃	〃	〃 궁산리 신평	21	105	〃	〃
〃	학교면 월산리 화산	27	161	〃	〃	〃	학교면 죽정리 후치동	26	130	〃	〃
〃	〃 곡창리 대곡	21	116	〃	〃	〃	〃 죽정리 상곡	21	105	〃	〃
〃	신광면 보여리 보전	20	102	〃	〃	〃	엄다면 화양리 농은동	21	105	〃	〃
〃	〃 동정리 삼향동	21	118	〃	〃	〃	〃 〃 영화정	29	145	〃	〃
〃	신광면 보여리 기동	20	121	〃	〃	〃	대동면 덕산리 상고산	20	100	〃	〃
〃	나산면 용두리 회룡동	20	126	〃	〃	〃	〃 금곡리 정자동	21	105	〃	〃
〃	〃 송암리 양지	23	130	〃	〃	1982	함평읍 장교리 월봉	24	122	3.29	6.30
〃	〃 덕림리 죽림	28	162	〃	〃	〃	〃 〃 작동	20	150	〃	〃
〃	손불면 산남리 산직	20	104	〃	〃	〃	〃 〃 자명	25	129	〃	〃
〃	〃 〃 교촌	25	122	〃	〃	〃	〃 석성리 석두1	29	142	3.30	〃
〃	손불면 북성리 사기	23	128	〃	〃	〃	〃 〃 석두2	31	148	〃	〃
〃	〃 원천리 안악	22	116	〃	〃	〃	〃 〃 성곡	27	131	〃	〃
〃	〃 대전리 대행	21	113	〃	〃	〃	〃 장년리 월선	20	115	〃	〃
〃	해보면 산내리 신원산	20	117	〃	〃	〃	〃 진양리 양림	25	110	〃	〃
〃	〃 금덕리 구계	34	221	〃	〃	〃	손불면 궁산리 목교	22	85	〃	〃
〃	〃 산내리 노적	20	118	〃	〃	〃	〃 산남리 가작동	20	90	〃	〃
〃	월야면 용암리 신성	21	122	〃	〃	〃	신광면 송사리 송계	30	90	〃	〃
1980	함평읍 장년리 지성동	23	140	5.19	〃	〃	〃 〃 사간	22	115	〃	〃
〃	〃 수호리 대등	55	330	〃	〃	〃	〃 〃 삼천	25	100	〃	〃
〃	손불면 대전리 음곡	63	365	〃	〃	〃	〃 동정리 수정	24	140	〃	〃
〃	〃 석창리 대덕	23	138	〃	〃	〃	〃 〃 큰몰	30	130	〃	〃
〃	〃 동암리 복흥	27	162	〃	〃	〃	〃 원산리 학동	25	105	〃	〃
〃	〃 석창리 해창	50	420	〃	〃	〃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	24	93	〃	〃
〃	신광면 유천리 벽유	42	252	〃	〃	〃	〃 〃 청수2	23	94	〃	〃
〃	〃 계천리 실산	21	105	〃	〃	〃	〃 사거리 명암	26	104	〃	〃
〃	〃 원산리 덕동	30	145	〃	〃	〃	〃 죽정리 둔기	23	94	〃	〃
〃	〃 함정리 청계	24	109	〃	〃	〃	〃 고막리 신촌	20	78	〃	〃
〃	〃 계천리 게월	20	101	〃	〃	〃	〃 〃 광진	23	93	〃	〃
〃	〃 원산리 지초	20	134	〃	〃	〃	엄다면 화양리 포향정	15	60	〃	〃
〃	학교면 월산리 송산	38	260	〃	〃	〃	대동면 백호리 백년	20	112	〃	〃
〃	〃 〃 상송	30	210	〃	〃	〃	〃 덕산리 고산	29	110	〃	〃
〃	〃 사거리 경화동	56	390	〃	〃	〃	〃 금산리 합동	23	118	〃	〃
〃	대동면 월송리 동암	48	320	〃	〃	〃	〃 〃 삼거	22	98	〃	〃
〃	〃 향교리 고시	55	380	〃	〃	〃	〃 〃 노적	20	101	〃	〃
〃	〃 백호리 백년	69	415	〃	〃	〃	나산면 구산리 삼성	20	81	〃	〃
〃	나산면 원선리 원선	23	160	〃	〃	〃	〃 〃 삼구	21	82	〃	〃
〃	〃 원선리 유촌	21	140	〃	〃	〃	〃 수상리 대안촌	20	84	〃	〃
〃	〃 초포리 사촌	23	160	〃	〃	〃	해보면 금덕리 금곡	20	131	3.17	〃
〃	〃 수상리 유덕	54	325	〃	〃	〃	〃 광암리 운암	25	129	〃	〃
〃	〃 이문리 석지	62	375	〃	〃	〃	〃 산내리 송산	20	111	〃	〃
〃	〃 신평리 신촌	37	225	〃	〃	〃	〃 광암리 광동	23	109	〃	〃
〃	해보면 상곡리 상모	65	450	〃	〃	〃	〃 금덕리 만연	20	125	〃	〃
〃	〃 〃 하모	38	260	〃	〃	〃	월야면 월야리 금석	40	227	〃	〃
〃	〃 금덕리 유정자	20	110	〃	〃	〃	〃 용정리 복룡	20	103	〃	〃
〃	〃 문장리 시장	20	109	〃	〃	〃	〃 정산리 동촌	61	242	〃	〃
〃	월야면 월야리 순촌	72	520	〃	〃	1983	함평읍 장교리 산음	21	124	3. 4	8. 8
〃	〃 〃 장동	50	350	〃	〃	〃	〃 진양리 동화	25	130	〃	〃
〃	〃 〃 평촌	41	280	〃	〃	〃	〃 만흥리 만년	20	115	〃	8. 1
〃	〃 용월리 노장	48	320	〃	〃	〃	학교면 석정리 화지	27	137	3. 5	7.29
〃	〃 〃 월봉	51	350	〃	〃	〃	〃 마산리 신평	20	112	〃	〃
〃	〃 예덕리 예동	58	400	〃	〃	〃	엄다면 엄다리 송암	21	116	〃	〃
〃	〃 용암리 방아	41	280	〃	〃	〃	대동면 연암리 옥련	20	105	3. 3	12. 8
〃	〃 계림리 시목	31	186	〃	〃	〃	〃 용성리 괴정	20	105	〃	7.29
〃	〃 〃 주전	31	190	〃	〃	〃	〃 초포리 원초포	30	130	3.16	7. 1
〃	〃 〃 죽림	24	145	〃	〃	1984	대동면 덕산리 아차	46	148		11.30
〃	〃 월계리 용강	30	195	〃	〃	〃	〃 용성리 정창	26	89		〃
〃	〃 외치리 백야	28	141	〃	〃	〃	해보면 대각리 각궁	9	16		〃
1981	함평읍 내교리 신기	33	165	2.26	5.15	〃	〃 〃 해화정	13	28		10.30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연별	간이시설 마을 이름	급수혜택		착공 월일	준공 월일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85	함평읍 진양리 중양	33	91		10.23	2002	나산면 우치리 원우치	60	146	3.15	6.29
〃	학교면 복천리 두동	20	80		12.24		나산면 용두리 회화정	60	178	〃	〃
1986	〃 고막리 원고막	45	126		8.30		월야면 예덕리 석보	55	169	〃	〃
〃	〃 월산리 학송	36	104		8.25		월야면 월계리 덕산	75	273	〃	〃
〃	대동면 운교리 운림	8	34		9. 8	2003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	42	108	2.21	7.16
〃	〃 금산리 금구	12	21		〃		신광면 복흥리 복흥	74	152	〃	〃
1987	손불면 산남리 가작	18	34		10. 8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73	174	〃	〃
1994	나산면 삼축리 하축	27	81		11.30		나산면 삼축리 분토	61	173	〃	〃
〃	나산면 삼축리 상축	16	48		〃		나산면 이문리 원이문	58	142	〃	〃
1995	엄다면 화양리 정양	17	49		8.22		해보면 대각리 대각	51	120	〃	〃
〃	〃 영흥리 흥룡	22	60		7.30		월야면 정산리 내정	56	139	〃	〃
1996	나산면 송암리 송암	16	30	9.18	11.16	2004	손불면 죽암리 죽림	45	45	4.6	9.18
1997	신광면 월암리 소재	145	459	12.23	5.22		신광면 동정리 신여	30	23	〃	〃
1999	손불면 대전리 소재	142	433	3.15	7.20		신광면 계천리 사천	35	31	〃	〃
	엄다면 신계리 화계	59	179	2.25	6.10		학교면 석정리 건지	43	94	〃	〃
	대동면 강운리 강운	79	226	〃	〃		학교면 죽정리 호암	40	97	〃	〃
	나산면 이문리 석지	49	123	〃	〃		월야면 용암리 연화	56	136	〃	〃
	해보면 해보리 모산	45	121	〃	〃		월야면 용정리 송정	33	78	〃	〃
	월야면 용월리 내세	59	179	〃	〃	2005	손불면 학산리 해은	46	120	3.21	7.10
2000	손불면 동암리 벽초	45	96	3.5	7.2		신광면 원산리 학동	41	89	〃	〃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	46	136	〃	7.5		학교면 금송리 금산	95	216	〃	〃
	나산면 구산리 삼구	64	162	〃	〃		대동면 금곡리 남악	33	62	〃	〃
	해보면 해보리 월현	65	139	3.10	〃		나산면 수상리 유덕	40	80	〃	〃
	월야면 용정리 복룡	41	110	〃	〃	2006	신광면 원산리 덕동	26	48	3.24	6.29
2001	손불면 월천리 백옥	66	260	3.26	8.24		신광면 원산리 학동	50	117	〃	〃
	손불면 월천리 월산	50	172	〃	〃		학교면 금송리 금산	34	90	〃	〃
	학교면 송암리 송암	26	36	〃	〃	2007	신광면 함정리 연화	30	78	4.2	9.5
	나산면 상축리 상축	54	264	〃	〃		학교면 금송리 반송	55	117	〃	〃
	월야면 예덕리 신덕	61	132	〃	〃		대동면 백호리 석호	39	125	〃	〃
	월야면 외치리 외치	77	193	〃	〃	2008	신광면 백운리 운제	30	78	3.20	7.13
2002	손불면 월천리 농장	54	151	2.20	7.1		신광면 유천리 벽유	55	117	〃	〃
	학교면 죽정리 선암	64	162	〃	〃		월야면 정산리 동촌	39	125	〃	〃

3. 하수도

함평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하는 통계가 1977년부터며 이 통계도 1980년까지는 기준이 군 전체이나 1981년부터는 함평읍에 국한된 통계며 1993년부터는 통계양식이 바뀌었으며 1994년부터는 함평읍과 학교면을 합한 통계이다.

편이상 바뀐 통계를 ①,②로 분류하였다.

1) 하수도 설치 상황①

연 별 읍 면	행정구역 면적(㎢) A	계획배수 면적(㎢) B	배수면적 (㎢) C	도시인구 (천 인) D	배수인구 (천 인) E	계획하수 관거연장 (㎞) F	시설하수 관거연장 (㎞) G	하수도 보급률(%)		
								배수면적 기준 C/B×100	배수인구 기준 E/D×100	하수관거 기준 G/F×100
1977	116.556	116.556	2.38	20	11	35.070	26.320	2.0	55.0	75
1978	114.913	114.913	2.50	19	11	36.080	26.320	2.2	57.8	73
1979	112.924	112.924	2.50	19	10	36.080	26.340	2.2	52.6	73
1980	112.924	112.924	2.50	19	10	36.080	26.340	2.2	52.6	73
1981	40.426	1.43	0.61	19	10	11.8	5.225	42.6	52.6	44
1982	40.426	1.43	0.61	17.8	9.1	11.8	5.226	43	51	44
1983	40.42	1.43	0.61	17	10	11.8	5.2	43	52	44.4
1984	40.42	1.43	0.61	17	9.5	12	7.0	42.6	54.4	59
1985	40.42	1.43	0.62	17.3	8.5	11.8	7.4	43.4	55.1	62.6

연별 읍면	행정구역 면적(㎢) A	계획배수 면적(㎢) B	배수면적 (㎢) C	도시인구 (천 인) D	배수인구 (천 인) E	계획하수 관거연장 (㎞) F	시설하수 관거연장 (㎞) G	하수도 보급률(%)		
								배수면적 기준 C/B×100	배수인구 기준 E/D×100	하수관거 기준 G/F×100
1986	40.42	1.43	0.62	17.3	8.3	11.8	7.5	43.4	49.1	63.7
1987	40.42	1.43	0.62	15.7	8.3	11.8	7.5	43.4	52.6	63.7
1988	40.42	1.43	0.62	15.5	8.6	11.8	7.5	43.4	55.2	63.7
1989	40.42	1.43	0.62	15.5	8.6	11.8	7.5	43.4	55.2	63.7
1990	40.42	1.43	0.62	13.0	6.0	12.0	8.0	43.4	52.8	63.7
1991	40.42	1.43	0.62	13.0	8.0	12.0	8.0	43.4	59.3	64.0
1992	40.42	1.43	0.62	13.0	8.0	12.0	8.0	43.4	58.3	64.0
함평읍	40.42	1.43	0.62	13.0	8.0	12.0	8.0	43.4	58.3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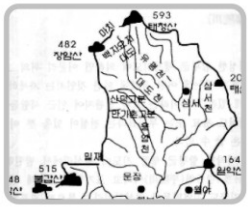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2) 하수도 설치 상황②

구분 / 연·읍면	면적									인구								
	도시 면적	계획우수배수구역 면적(A)	우수배수구역 면적(B)	계획오수배수구역 면적(C)	오수배수구역 면적(D)	처리면적 (E)	보급률(%) 우수배수 (B/A)	오수배수 (D/C)	처리면적 (E/C)	총인구 (F)	우수배수인구 (G)	오수배인구 (H)	처리인구 (I)	수세식인구 (J)	보급률(%) 우수배수 (G/F)	처리인구 (H/F)	접속인구 (I/F)	수세식인구 (J/F)
1993	0.83	6.5	2.4	1.4	0.6		36.9	42.8		55,684		9,132		6,682		16.4	11.9	11.9
1994	84.89	7.34	1.64	2.91	0.60		22.3	20.6		52,819		11,096		7,942		21.0	15.0	15.0
1995	84.89	7.34	1.67	2.90	0.61		22.7	21.0		51,703		11,142		7,962		21.6	15.4	15.4
1996	84.90	7.30	1.60	2.18	0.60		21.9	20.6		49,733		10,262		7,962		20.6	16.0	16.0
함평읍	40.50	5.40	0.90	1.08	0.60		16.7	33.3		11,356		7,123		6,691		62.7	58.9	58.9
학교면	44.40	1.90	0.90	1.10			36.8			6,836		3,139		1,271		45.9	18.6	18.6

3) 하수도 설치 상황③

구분 / 연·읍면	면적									인구								
							보급률(%)								보급률(%)			
	도시면적	계획우수배수구역면적(A)	우수배수구역면적(B)	계획오수배수구역면적(C)	오수배수구역면적(D)	처리면적(E)	우수배수(B/A)	오수배수(D/C)	처리면적(E/C)	총인구(F)	우수배수구인구(G)	오수배수구인구(H)	처리인구(I)	수세식인구(J)	우수배수(G/F)	처리인구(H/F)	접속인구(I/F)	수세식인구(J/F)
1997	392.76	112.03	31.20	20.83	4.17	4.17	28%	20%	20%	48,304	13,453	10,345	10,345	10,345	28%	21%	21%	21%
1998	392.76	112.03	33.61	20.83	4.28	4.28	30%	21%	21%	50,929	15,279	10,465	10,465	10,465	30%	21%	21%	21%
1999	392.76	112.03	34.73	20.83	4.53	4.53	31%	22%	22%	46,929	14,548	10,517	10,517	10,517	31%	22%	22%	22%
2000	392.76	112.03	36.97	20.83	4.81	4.81	33%	23%	23%	45,369	14,972	10,564	10,564	10,564	33%	23%	23%	23%
2001	392.76	112.03	40.33	20.83	5.12	5.12	36%	25%	25%	43,667	15,720	10,733	10,733	10,733	36%	25%	25%	25%
2002	392.76	112.03	45.93	20.83	5.66	5.66	41%	27%	27%	41,965	17,206	11,296	11,296	11,296	41%	27%	27%	27%
2003	392.76	112.03	50.41	20.83	6.10	6.10	45%	29%	29%	42,338	19,052	12,219	12,219	12,219	45%	29%	29%	29%
2004	392.76	112.03	62.74	20.83	6.35	6.35	56%	30%	30%	40,486	22,672	12,441	12,441	12,441	56%	31%	31%	31%
2005	392.76	112.03	70.58	20.83	6.55	6.55	63%	31%	31%	40,437	25,475	12,572	12,572	12,572	63%	31%	31%	31%
2006	392.76	112.03	73.94	20.83	7.12	7.12	66%	34%	34%	38,956	25,711	13,266	13,266	13,266	66%	34%	34%	34%
2007	392.76	112.03	76.18	20.83	7.34	7.34	68%	35%	35%	38,402	26,113	13,532	13,532	13,532	68%	35%	35%	35%
2008	392.76	112.03	78.42	20.83	7.75	7.75	70%	37%	37%	37,432	26,020	13,718	13,718	13,718	70%	37%	37%	37%
2009	392.76	112.03	80.66	20.83	8.20	8.20	72%	39%	39%	37,089	26,704	14,280	14,280	14,280	72%	39%	39%	39%

제13장 체 육 (體育)



제1절 한국체육의 발달

1. 원시 및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

원시 시대에는 식량을 얻거나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활쏘기, 창던지기 등의 신체 활동이 곧 체육활동이었다.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은 자기의 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예수련과 제천 행사에서 가무 등으로 행해졌다.

2. 삼국 시대의 체육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사이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던 삼국 시대에는 훌륭한 무사가 필요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전투 기술을 익히는 무사 체육이 매우 중요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무용총 벽화에 나타나 있듯이 사냥과 수박, 무용 등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이 성행하였다. 특히, 신라에는 화랑 제도가 있어 청소년들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길렀다. 삼국 통일 이후에도 활쏘기, 말타기, 수박 등의 무예와 함께 격구, 축구, 씨름 등의 민속놀이가 성행하였다.

3. 고려 시대의 체육

고려 초기에는 북진 정책으로 무예가 중시되었으나, 중기에는 문신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무예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격구, 수박 등은 경기적 요소를 곁들여 크게 성행하였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씨름, 연날리기, 그네뛰기와 같은 삼국 시대의 민속놀이가 이어졌다.

4. 조선 시대의 체육

조선 시대는 문예를 숭상하고 무예를 천시하는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이다. 따라서,

전통무예는 쇠퇴하고 체육은 군사훈련 과목으로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따라 널뛰기,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차전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성행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근대 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5. 근대 체육의 도입

우리나라에 서양의 근대 체육이 소개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며,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체육을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당시에 소개된 운동으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의 구기와 육상 경기이다.

기독교 청년회(YMCA)와 각종 체육 구락부는 근대 체육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결과 많은 경기 대회와 운동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민들은 체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10년 일제의 침략 이후 우리 민족은 온갖 탄압에도 좌절하지 않고 체육을 일제에 대한 항거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육 활동을 통하여 민족적 울분을 발산하고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민족의 긍지를 높였다.

6. 광복 이후의 체육

8·15 광복을 계기로 체육의 내용과 목적은 신체 단련을 위한 무예와 군사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포츠와 놀이를 통하여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려는 현대적 체육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바뀌었다.

1962년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체육 시설과 체육 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스포츠의 국제 교류와 과학화로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에는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를, 1988년에는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서울 올림픽에서는 세계 종합 4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력 수준이 세계 상위급임을 입증하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우리 국민에게 감격과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은 전 국민이 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는 생활 체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전국 체육 대회와 전국 소년 체육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스포츠의 경기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제2절 함평군 체육의 개요

옛 문헌에 기록된 함평인들의 기질을 보면 무예(武藝)를 좋아하며 불의에는 활화산(活火山)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개가 체육 함평을 빛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함평의 체육사는 문헌이나 자료가 없어 찾아 볼 길이 없어 유감이다. 근대의 함평 체육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정구를 들 수 있다.

1922년경부터 모임체가 구성된 정구는 1925년부터는 호남인의 결속이라는 표제아래 함평에서 호남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 즉 해방된 조국의 환호성을 안고 불붙기 시작한 축구 또한 호남 대회를 개최할만큼 성장했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학다리고등학교 육상팀이 주축이 되어 마라톤을 석권하여 마라톤하면 함평을 연상하게 하였다.

뒤이어 함평 체육을 빛낸 종목이 배구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태권도가 전국을 제패하는 기염을 보였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보급된 레슬링은 전국뿐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여 함평인의 힘의 원천(源泉)이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싹을 보인 싸이클은 급성장하는 여세에서 여자부가 아시아 제패라는 결실을 안아다 주었다. 착실히 성장하는 학교 체육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반에 전남에서 종합우승 또는 준우승을 하는 등 상위권에 들어선 바 있다.

함평의 체육을 세계에 과시한 것은 레슬링이며 1979년에 창단한 함평농업고등학교(함평실업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뀜) 출신인 김원기, 김영남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현재도 함평실업고등학교와 손불중학교에서 내일의 꿈나무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제3절 함평군 체육회와 종목별 활동 실적

1. 함평군 체육회

1) 임 무 :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 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진흥으로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군내체육단체를 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체육회는 정관에 의해 회장은 역대 함평군수가 역임하고 있으며 상임부회장은 함평체육인이 맡고 있다.

2) 함평군체육회 역대 임원

회 기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비 고
초 대	김 휘 헌		
2 대	정 용 호		

회 기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비 고
3 대	양 길 배		
4 대	김 재 길		
5 대	권 갑 수		
6 대	이 우 행		
7 대	윤 영 수	국 동 일	
8 대	이 문 헌	손 영 무	
9 대	이 문 헌	손 영 무	
10 대	백 정 부	정 창 우	
11 대	김 호 범	정 창 우	
12 대	김 관 주	정 창 우	
13 대	정 창 우	김 진 석	현 재

<산하 가맹 경기단체 및 임원단>

2009년 9월 현재

종 목	주경기장	임 원 단		직장 및 주소	회원수	비 고
		직 위	성 명			
육 상	문화체육센타	회 장	안 민 수	함평읍 내교리 193-1 함평농협	32	
		전무이사	박 성 우			
축 구	문화체육센타	회 장	심 재 근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183-3	161	
		전무이사	임 한 진	학교면 월산리 153-1		
테 니 스	구룡테니스장	회 장	송 기 현	함평읍 기각리 980	55	
		전무이사	윤 영 재	함평읍 내교리 209-27		
정 구	함평테니스코트	회 장	지 봉 상	함평읍 석성리 340-8	16	
		전무이사	백 기 영	광주시 남구 노대동 송하마을 5단지A 508동 1203호		
배 구	문화체육센타	회 장	이 기 남	함평읍 기각리 1000-1	190	
		전무이사	양 정 열	함평읍 내교리 동광A 102-805		
탁 구	군민복지회관	회 장	문 덕 수	함평읍 내교리 거송라뷔랑A 101-505	20	
		전무이사	박 을 렬	함평읍 내교리 145 함평우체국		
씨 름		회 장	이 태 범	함평읍 대덕리 458-4 청기와주유소		
		전무이사	한 수 영	함평읍		
궁 도	관덕정	회 장	방 종 호	함평읍 기각리 861	40	
		전무이사	심 성 옥	함평읍 내교리 152		
배드민턴	군민복지회관	회 장	문 대 중	학교면 사거리 용일빌라A 401호	161	
		전무이사	이 영 재	학교면 월산리 345		
볼 링	함평볼링장	회 장	임 용 수	함평읍 내교리 212 하얀나라	160	
		전무이사	김 남 석	함평읍 기각리 1035		
레슬링	함평중	회 장	김 한 기	학교면 학교리 445-20		
		전무이사				
게이트볼	함평노인복지회관	회 장	박 문 식	함평읍 함평리 94-1	162	
		전무이사	박 복 만	함평읍 내교리 213-5		
골 프	다이나스티CC	회 장	최 용 우	함평읍 기각리 283	47	
		전무이사	이 남 오	함평읍 기각리 822 LIG화재		
파크골프	함평엑스포구장	회 장	이 연 행	엄다면 엄다리 205-4	44	
		전무이사	백 맹 조	함평읍 기각리		
사이클		회 장	장 철 수	함평읍 기각리 970-6 한일건재	75	
		전무이사	임 기 영	학교면 사거리		
족 구	함평문화체육관	회 장	김 순 관	함평읍 함평리 123-1	48	
		전무이사	정 국 진	함평읍 함평리 123-1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합기도		회 장	정 호 승	함평읍 기각리 776-1	57	
		전무이사	김 영 대	함평읍 내교리 365-2		

종 목	주경기장	임원단		직장 및 주소	회원수	비 고
		직 위	성 명			
검 도		회 장	옥 부 호	함평읍 내교리 거송라뷔랑A 101-1401		
		전무이사	박 형 빈	나주시 대호동 현대A 102-408		
태권도	함평 체육관	회 장	오 임 철	엄다면 엄다리 775-6 태양농약도매마트		
		전무이사	박 성 진	함평읍 기각리 848		
유 도		회 장				
		전무이사	윤 성 용	함평읍 내교리 주공A 101-203		
생활체조		회 장	박 수 경	함평읍 내교리 동광A 102-805	403	
		전무이사	김 세 진	함평읍 내교리 199-2		
수 영	전남장애 인수영장	회 장				
		전무이사				
야 구	전남 야구장	회 장				
		전무이사				
펜 싱	함평여중 체육관	회 장				
		전무이사				

2. 종목별 활동실적

1) 육 상

함평의 육상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49년 부터다.

단거리에서 박연태, 유정근(대동면 강운리 출신)이 전남을 석권하 바 있다. 그리고 정용호(전 선광의원 원장)는 높이 뛰기에서 전남 최고기록(1m 79cm)을 보유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라톤에서 김연범 선수가 배출되어 함평의 육상을 빛냈다. 그는 학다리고 재학 시절부터 마라톤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김선수 외에도 김호국(나산 이문리 출신)선수 등 수준급 선수가 학다리고등학교에는 많았다.

김연범의 입상 내역을 보면

- •1952. 03. 26 : 제15회 올림픽대회(헬싱키) 참가
- •1955. 10 : 제36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우승(2시간 28분 25초)
- •1955. 12 : 전국 최우수 선수 표창(대한체육회장)
- •1955. 12 : 전국 최우수 선수
- •1960. 08 : 제17회 올림픽대회 참가(로마)
- •1962. 10 : 제43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한국 신기록(2시간 23분 56초)
- •1962. 10 : 국제 마라톤대회 참가(동경)
- •1964. 09 : 제18회 올림픽대회 참가(동경)

김연범에 이어 김원식(金元植, 나산면 출신), 심국종(沈國鍾. 신광면 출신)도 마라톤 국가대표가 되어 함평의 육상을 빛냈다.

1960~1962년까지 100m 단거리 종목에서 나산면 이문리 출신 정일성(鄭一成)이 전남대회는 물론 충청도의 정기선과 한국육상의 선두를 겨뤘다. 그 후 1960년대 후반부터 침체 일로에 있던 함평의 육상은 전국소년체전의 개최와 전남 학도체전의 실시를 계기로하

여 학교 체육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나산중(당시 지도교사 전석현) 나산북교(지도교사 정기춘) 함평국교(지도교사 최종렬)등이 육상 함평을 빛냈다.

특히 나산중학교는 전남에서 내로라하는 육상 명문교로 부상하게 될 만큼 각종 대회에서 여러 종목을 석권하였다. 1976년부터 실시된 전남일보 주최(현재는 광주일보)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 선수를 출전시켜 마라톤 중흥의 꿈을 키워갔다.

육상 전적

- •1975. 11. 17 : 제2회 학도체전 400m 우승 (나산중, 이규복)
- •1976. 11. 09 : 전남 회장기 쟁탈 400m 이어달리기 우승 (나산중 이창호 외)에 이어 이창호는 400m에서 두각을 나타내 1977년에는 제1회 초·중고 육상대회, 제4회 회장기 쟁탈 육상대회, 제4회 학도체전에서 기염을 보였다.
- •1978. 11. 02 : 제5회 학도체전에서 김천효, 김남열 우승
- •1983. 06. 15 : 제1회 전남 학년별 육상대회 3000m에서 김석희(신광중) 우승

1980년대 중반 이후는 함평국민학교 육상부가 각종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입상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제규모대회 입상실적>

대 회 일 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 위	성 명	
'95.10.27~30	'95한.일 교환육상경기대회 *장소:일본 구라시끼시	800M 여	1 위	최 영 주	2'25"23
		100M 남	3 위	정 현 중	13"57
'97.8.29~9.1	'97한.일 교환육상경기대회 *장소:일본 구라시끼시	100M 여	1 위	정 창 숙	
		800M 남	1 위	모 근 영	
		400mR 여	1 위	정 창 숙 정 귀 자	
		400mR 남	1 위	모 근 영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

대 회 일 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위	성 명	
'92. 6. 13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남	2 위	박 강 우	5m 44cm
		50 M 남	2 위	채 민 복	7" 35
'93. 5. 28	제22회전국소년체육대회	100 M 남	1 위	채 민 복	12"52

<전라남도 규모대회 입상실적>

대회 일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 위	성 명	
'92. 2.14	전남육상경기연맹회장기쟁탈	5KM 남	1 위	김 민 규	국교 남:단체우승

대회 일시	대회명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성명	
	단축마라톤대회	5KM 여	1 위	최 공 님	국교 여:단체준우승
'92. 9. 5	제2회 교육감기쟁탈 시·군 대항 육상경기대회	100M 여	1 위	이 숙 정	13" 78
		50M 남	1 위	김 정 수	7" 28
		60M 여	1 위	이 숙 정	8" 82
		200M 남	2 위	정 정 일	
		80M 남	2 위	정 정 일	
		50M 남	3 위	정 현 중	
		400MR 여	3 위	이숙정외 3명	57" 36
'92. 9. 5	제8회 전남학교간 육상 경기대회	400MR 여	1 위	나다영외 3명	국교 여:단체우승
		높이뛰기 여	1 위	나 다 영	56" 89
		100M 여	3 위	이 훈 희	1m 30cm
		60M 여	3 위	이 훈 희	
		높이뛰기 남	3 위	나 승 두	
'92. 9.25	광주교대 개교54주년기념 제7회 광주·전남 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남	1 위	이 두 행	1m 40cm
		400MR 남	1 위	채민복외 3명	55" 26
		400MR 여	1 위	진수희외 3명	
		높이뛰기 여	1 위	나 다 영	
		100M 여	1 위	이 숙 정	
		600M 여	1 위	최 공 님	
		멀리뛰기 여	1 위	이 훈 희	
		높이뛰기 여	2 위	진 수 희	4m 18cm
		800M 남	2 위	김 민 규	
		투 포 환 남	2 위	박 강 우	
		멀리뛰기 남	2 위	정 정 일	
		100M 남	2 위	정 정 일	
		높이뛰기 남	2 위	김 민 규	
		투 포 환 여	3 위	강 윤 미	국교 남:종합우승
		멀리뛰기 여	3 위	최 정 희	국교 여:종합우승
		멀리뛰기 남	3 위	이 두 행	
'92.10.28	제17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50M 남	1 위	정 현 중	국교 남:도대표팀
		200M 남	1 위	채 민 복	국교 여:도대표팀
		80M 남	1 위	채 민 복	
		400MR 남	1 위	채민복외 3명	
		높이뛰기 남	1 위	이 두 행	
		멀리뛰기 남	1 위	이 두 행	
		100M 여	1 위	진 수 희	
		60M 여	1 위	진 수 희	
		400MR 여	1 위	나다영외 3명	
		50M 여	3 위	윤 아 름	
'93. 2. 5	제6회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기 단축마라톤대회	5KM 남	2 위	이 두 행	국교 남:종합우승
		5KM 여	3 위	김 문 옥	국교 여:종합준우승
'93. 9.25	제3회 교육감기쟁탈 시·군 대항 육상경기대회	800M 남	1 위	이 두 행	2' 18" 69
		100M 여	1 위	진 수 희	13" 69
		200M 여	1 위	배 미 순	28" 90
		200M 남	1 위	채 민 복	27" 05
		400MR 여	1 위	진수희외 3명	57" 14
		400MR 남	2 위	이두행외 3명	54" 10
		높이뛰기 남	2 위	이 두 행	1m 40cm
		200M 여	2 위	진 수 희	29" 08
		높이뛰기 여	2 위	김 수 정	1m 30cm
		200M 남	3 위	이 종 운	

대회 일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 위	성 명	
		80M 남	3 위	최 용 주	
		100M 여	3 위	나 다 영	
		80M 여	3 위	최 영 주	
		80M 여	3 위	채 은 희	

대회일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 위	성 명	
'93. 9.25	제9회 전남학교간 육상경기대회	200M 여	1 위	김 수 정	28" 84
		높이뛰기 여	1 위	김 수 정	1m 35cm
		800M 남	1 위	정 세 민	2' 26" 54
		80M 남	2 위	최 용 주	
		800M 여	2 위	채 은 희	국교 여:종합우승
		80 M 여	3 위	최 영 주	
'93.11. 3	제6회 학생의 날 기념 교육감기 구간마라톤대회	국교 남1소구	1 위	이 두 행	13' 24"
'93.11. 5	제18회 전남학생 종합체육 대회	800M 남	1 위	정 세 민	
		400MR 남	1 위	최용주외 3명	
		멀리뛰기 남	1 위	최 용 주	
		80M 여	1 위	최 영 주	
		200M 여	1 위	김 수 정	
		800M 여	1 위	채 은 희	
		높이뛰기 여	1 위	김 수 정	
		400MR 여	2 위	최 영 주	
				김 수 정	
				채 은 희	
				오 해 연	
		높이뛰기 남	2 위	최 용 주	
		멀리뛰기 남	2 위	정 세 민	
		200M 남	3 위	신 승 련	
'94. 2. 3	제7회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기쟁탈 단축마라톤대회	5KM 남	2 위	정 세 민	초등 남:종합우승
		5KM 남	3 위	최 용 주	초등 여:종합우승
		5KM 여	3 위	채 은 희	
'94. 2.26	3·1절 기념 제35회 광일단축마라톤대회	5KM 여	1 위	채 은 희	초등 남:종합우승
		5KM 여	2 위	김 수 정	초등 여:종합우승
		5KM 남	2 위	정 세 민	
		5KM 남	3 위	신 승 련	
		5KM 여	3 위	조 환 희	
'94. 8.26	제10회 전남학교간 육상경기대회	80M 남	1 위	김 래 오	초등 남:종합우승
		멀리뛰기 남	1 위	김 재 웅	초등 여:종합우승
		100M 여	2 위	양 강 윤	
		800M 남	3 위	박 홍 주	
		투포환 여	1 위	강 주 숙	11m 89cm
		멀리뛰기 여	1 위	이 주 연	4m 63cm
		높이뛰기 여	1 위	김 주 희	1m 40cm
		800M 여	1 위	김 주 희	2' 38" 2
		200M 여	3 위	강 주 숙	30" 06

대회일시	대회명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성명	
'94.08.26	제4회 교육감기쟁탈 시·군 대항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남	1 위	정 세 민	4m 88cm
		100M 여	1 위	오 해 연	13" 07
		80M 남	1 위	김 레 오	11" 01
		멀리뛰기 여	1 위	김 수 정	4m 67cm
		높이뛰기 여	1 위	김 수 정	1m 40cm
		80M 여	1 위	최 영 주	11" 06
		800M 남	2 위	정 세 민	2' 24" 02
		200M 여	2 위	오 해 연	28" 03
		800M 여	2 위	채 은 희	2' 30" 09
		200M 남	3 위	최 용 주	4m 76cm
		멀리뛰기 남	3 위	정 현 중	26" 04
'94.11.03	제7회 학생의 날 기념 교육감기 구간마라톤대회	제2소구 남	1 위	정 세 민	13' 38"
		제12소구 여	1 위	채 은 희	14' 06"

대회 일시	대회명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성명	
'93. 9. 17	제9회 전국국민학교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600 M 남	2 위	정 세 민	1'45"28
		400 MR 남	2 위	이 종 운	53" 88
				김 성 민	
				신 승 련	
				정 세 민	
		높이뛰기 여	3 위	임 미 성	1m 35cm
		400MR 여	3 위	이 미 지	58" 04
				나 설 화	
				김 수 정	
				나 다 영	
'94. 4. 21	제22회KBS배 전국육상대회	높이뛰기 여	2 위	김 수 정	1m 45cm
'94. 5. 28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높이뛰기 여	3 위	김 수 정	1m 45cm
		400MR 남	3 위	신 승 련	
'94. 9. 3	제15회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여	1 위	김 수 정	4m 86cm
		400MR 여	3 위	오 해 연	54" 10
				김 수 정	
'94. 9. 13	제10회 전국국민학교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여	1 위	김 수 정	4m 86cm
		600M 여	1 위	채 은 희	
		50M 남	3 위	정 현 중	8" 91
		높이뛰기 여	3 위	김 수 정	1m 40cm
		400MR 여	3 위	오 해 연	53" 54
				김 수 정	
		400MR 남	2 위	신 승 련	50" 51
'95. 5. 27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80M 여	1 위	정 창 숙	대회신기록 (11" 22)
		높이뛰기 여	3 위	김 보 배	1m 40cm
		400MR 여	3 위	최 영 주	52" 04
				심 애 리	
'95. 7. 7	제23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600M 여	1 위	최 영 주	대회신기록 (1'37"76)
		400MR 여	2 위	심 애 리 외 3명	54" 08
		높이뛰기 여	2 위	김 보 배	1m 45cm
		멀리뛰기 남	2 위	정 현 중	5m 15cm
'95. 9. 29	제1회 교보생명컵 전국 시·도 대항 국민학교 육상대회	600M 여	1 위	최 영 주	1'41"93
'96.5.25~26 (포항시)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800M 여	2 위	최 영 주	2' 22"
		높이뛰기 남	3 위	심 재 복	81m 50cm

대 회 일 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위	성 명	
'96. 7. 4~ 5	제24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600M 여	1 위	최 영 주	1' 40"48
		높이뛰기 여	1 위	장 미 래	1m 40cm
		멀리뛰기 남	2 위	심 재 복	4m 82cm
		멀리뛰기 여	2 위	홍 은 옥	4m 96cm
'96. 9. 2~ 3	제2회 교보생명컵 전국 시·도 대항 국민학교 육상대회	높이뛰기 여	1 위	장 미 래	
		높이뛰기 여	3 위	심 재 복	
'96. 9.13~14	제17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여	1 위	장 미 래	
'97. 5.24~25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여	1 위	정 창 숙	5m 13cm
		400mR 여	1 위	정 창 숙	52초 04
				정 귀 자	
'97. 7. 3~ 5	제2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400mR 여	1 위	정 창 숙	53초 40
				곽 선 미	
				정 귀 자	
				임 연 화	
		멀리뛰기 여	3 위	정 창 숙	
'97. 9. 9~10	제18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400mR 여	3 위	정 창 숙	53초 45
				정 귀 자	
		200m 여	2 위	정 귀 자	27초 48
		멀리뛰기 여	2 위	정 창 숙	4m 96cm
'97. 9. 23	'97 교보생명컵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400mR 여	2 위	정 창 숙	53초 53
				정 귀 자	

대회일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위	성 명	
'96. 8.27 ~29	제6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100M(5년) 여	1 위	정 창 숙	
		800M(5년) 여	1 위	임 연 화	
		800M(5년) 남	1 위	모 근 영	
		멀리뛰기(5) 여	2 위	정 창 숙	
		높이뛰기(6) 여	1 위	장 미 래	
		높이뛰기(6) 남	1 위	심 재 복	
		멀리뛰기(6) 남	1 위	심 재 복	
		800M(6년) 남	3 위	정 봉 현	
'96.10.26 ~27	제21회 학생종합 체육대회	멀리뛰기 여	1 위	정 창 숙	
		800M 여	1 위	임 연 화	
		800M 남	1 위	모 근 영	
		200M 여	1 위	정 귀 자	
		100M 여	3 위	정 창 숙	
		200M 여	3 위	임 연 화	
		200M 남	2 위	모 근 영	
'96.11. 5	학생의 날 기념 교육감기 구간마라톤대회	제4소구 여	1 위	임 연 화	
'97. 2.20	제10회 전남육상경기 연맹회장기 쟁탈 단축 마라톤대회	5Km 남	1 위	모 근 영	
		남	3 위	기 노 정	
		여	2 위	정 창 숙	
'97. 3.25 ~26	'97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도대표 선발 2차평가전	멀리뛰기 여	1 위	정 창 숙	
		800m 남	1 위	모 근 영	
		800m 여	1 위	임 연 화	
		100m 여	2 위	정 창 숙	
		200m 여	2 위	정 귀 자	
		200m 남	3 위	모 근 영	
		멀리뛰기 남	3 위	기 노 정	
		400mR 여	2 위	정소이외	

'97. 9. 4 ~5	제7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여 100m 여 200m 여 400mR 여 800m 여 800m 남 멀리뛰기 남	1 위 1 위 1 위 1 위 2 위 1 위 3 위	정 창 숙 정 귀 자 정 귀 자 정 창 숙 곽 선 미 박 미 정 정 창 숙 모 근 영 기 노 정	

<함평초등학교 육상부 국가대표상비팀 소속 현황>

순	성 명	성 별	현 소 속	비 고
1	문 미 라	여	목포 제일여고	국가대표상비팀
2	이 두 행	남	목포 청호중학교	국가대표상비팀
3	오 해 연	여	목포 항도여자중학교	국가대표상비팀
4	최 영 주	여	순천여자중학교	국가대표상비팀
5	정 창 숙	여	함평초등학교	대한육상경기연맹 선발 꿈나무선수

<제22회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1997.10.28--29) 여천종합경기장>

구 분	종 목	등 위	성 명
남 초	80미터	1 위	김 부 겸
남 초	80미터	2 위	김 시 영
여 초	80미터	2 위	윤 은 별
여 초	투포환	3 위	임 경 화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회장기 단축마라톤대회 입상실적(1998.02.26)>

영암대불공단내

대회일시	대 회 명	입 상 실 적			비 고
		종 목	등 위	성 명	
'94.11.10	제19회 전남학생종합 체육대회	멀리뛰기 남	1 위	정 현 중	4m 52cm
		100M 남	1 위	정 현 중	13" 07
		높이뛰기 여	1 위	김 보 배	1m 25cm
		80M 여	2 위	정 창 숙	13" 00
		800M 여	3 위	손 양 미	2' 40" 07
		200M 남	2 위	김 선 우	
		400MR 여	3 위	김 보 배	초등 남:도대표팀 선발
				정 창 숙	초등 여:도대표팀 선발
				심 애 리	
				최 영 주	

대회일시	대회명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성명	
'95.09.15	제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400MR(5) 여	1 위	정창숙외 3명	56" 74
		400MR(6) 여	1 위	심애리외 3명	
		멀리뛰기(5) 여	1 위	홍 은 옥	
		80M(4년) 여	1 위	정 창 숙	
		100M(5년) 남	1 위	김 대 호	
		높이뛰기(6) 여	1 위	김 보 배	
		800M(6년) 여	1 위	손 양 미	
		200M(6년) 여	1 위	심 애 리	
		멀리뛰기(6 남	1 위	정 현 중	
		800M(5년) 여	1 위	최 영 주	2' 23" 07
		400MR(5) 남	1 위	심재복외 3명	56" 99
		100M(5년) 여	2 위	최 영 주	13" 69
		800M(5년) 남	2 위	정 봉 현	
		멀리뛰기(6) 여	2 위	김 보 배	4m 40cm
		100M(6년) 여	2 위	심 애 리	13" 51
		800M(6년) 남	2 위	박 한 계	
		100M(5년) 여	3 위	홍 은 옥	
'95.10.26	제20회 전남학생종합체육 대회	100M 남	1 위	김 대 호	13" 16
		200M 남	1 위	김 대 호	27" 61
		멀리뛰기 여	1 위	홍 은 옥	4m 21cm
		800M 여	1 위	최 영 주	2' 27" 42
		200M 여	1 위	최 영 주	27" 72
		400MR 여	1 위	정창숙외 3명	57" 37
		100M 여	3 위	정 창 숙	14" 20
		높이뛰기 남	2 위	심 재 복	1m 30cm
		높이뛰기 여	3 위	장 미 래	5학년부:종합우승
		800M 남	2 위	정 봉 현	
		200M 여	3 위	장 미 래	6학년부:종합우승
		멀리뛰기 남	3 위	심 재 복	
'95.11. 3	학생의 날 기념 제8회 구간 마라톤대회	초등남소구간	1 위	정 봉 현	
		초등여소구간	1 위	손 양 미	
		초등여소구간	2 위	최 영 주	
'96. 1.10	제9회 전남육상경기 연맹회장기 단축 마라톤대회	5 KM 여	1 위	최 영 주	18' 43"
		5 KM 여	2 위	정 창 숙	20' 00"
		5 KM 남	2 위	심 재 복	
		5 KM 여	3 위	정 창 숙	초등 여자부-종합우승
'96. 3. 1	제36회 광일단축 마라톤대회	5 KM 여	1 위	최 영 주	초등 여자부-종합우승
		5 KM 여	2 위	정 창 숙	
		5 KM 여	3 위	장 미 래	
		5 KM 남	2 위	정 봉 현	초등 남자부-종합준우승
		5 KM 남	3 위	심 재 복	
'96. 3.21 ~22	제25회 전국소년체육 대회 전남도대표 2차 선발전	800M 여	1 위	최 영 주	초등 남여부: 도대표팀 선발
		200M 여	1 위	최 영 주	
		멀리뛰기 여	1 위	홍 은 옥	
		높이뛰기 여	1 위	장 미 래	
		400MR 여	1 위	정창숙외 3명	
		멀리뛰기 남	1 위	심 재 복	
		높이뛰기 남	1 위	심 재 복	
		100M 여	2 위	홍 은 옥	
		100M 여	3 위	정 창 숙	
		200M 여	3 위	장 미 래	
		800M 남	2 위	정 봉 현	
		200M 남	3 위	정 봉 현	

구 분	종 목	등 위	성 명
남 초	단체종합	1 위	함평초등학교
여 초	단체종합	1 위	함평초등학교
남 초	5KM	2 위	최 복 철
남 초	5KM	5 위	전 승 선
남 초	5KM	7 위	김 부 겸
여 초	5KM	2 위	정 복 순
여 초	5KM	3 위	황 진 화
여 초	5KM	4 위	김 선 영
지도교사	5KM단축마라톤	최우수지도자상	교사 박광웅

<제27회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2차평가전)입상실적(1998.03.12--03.13)>

여천공설운동장

구 분	종 목	등 위	성 명	비 고
남 초	80미터	1 위	김 부 겸	도 대 표
남 초	80미터	2 위	김 시 영	도 대 표
여 초	100미터	4 위	김 선 영	도 대 표
여 초	투 포 환	3 위	임 경 화	
여 초	80미터	3 위	정 복 순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	비고	소속
1998.02.26	전남육상연맹회장기 쟁탈 단축 마라톤대회		최 복 철	5	2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쟁탈 단축 마라톤대회		정 복 순	3	2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쟁탈 단축 마라톤대회		황 진 화	5	3위		함평초
1998.04.01	98 전남소년체전 80m		김 부 겸	4	1위		함평초
	98 전남소년체전 80m		김 시 영	4	2위		함평초
	98 전남소년체전 80m		정 복 순	4	3위		함평초
	98 전남소년체전 투포환		임 경 화	6	3위		함평초
1998.08.14	제8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멀리뛰기		김 시 영	5	1위		함평초
	제8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멀리뛰기		황 진 화	6	2위		함평초
	제8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200m		황 진 화	6	3위		함평초
1998.10.23	제23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800m		정 복 순	4	1위		함평초
	제23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김 시 영	5	1위		함평초
	제23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멀리뛰기		김 시 영	5	2위		함평초
	제23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80m		이 진 나	3	2위		함평초
1999.04.01	99 전남소년체육대회 800m		정 복 순	5	1위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	비고	소속
							초
	99 전남소년체육대회 80m		백 지 선	4	1위		함평초
	99 전남소년체육대회 80m		이 진 나	4	1위		함평초
	99 전남소년체육대회 200m		김 시 영	6	2위		함평초
	99 전남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김 시 영	6	3위		함평초
	99 전남소년체육대회 80m		윤 여 진	6	3위		함평초
1999.11.03	교육감기 구간 마라톤대회		정 복 순	5	1위		함평초
1999.10.27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800m		정 복 순	5	1위		함평초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정 기 철	5	2위		함평초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백 지 선	5	3위		함평초
2000.03.18	전남소년체육대회 800m		정 복 순	6	1위		함평초
	전남소년체육대회 800m		배 유 경	6	2위		함평초
	전남소년체육대회 200m		배 유 경	6	2위		함평초
	전남소년체육대회 200m		이 진 나	5	3위		함평초
	전남소년체육대회 200m		백 지 선	5	3위		함평초
2000.07.06	전남육상연맹회장기 대회 800m		이 수 진	6	1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대회 100m		이 진 나	6	1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대회 200m		이 진 나	6	2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대회 600m		정 복 순	6	1위		함평초
	전남육상연맹회장기 대회 800m		정 복 순	6	1위		함평초
2000.08.30	제10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100m		이 진 나	5	1위		함평초
	제10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100m		백 지 선	5	2위		함평초
	제10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200m		정 복 순	6	2위		함평초
	제10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800m		정 복 순	6	1위		함평초
2000.10.27	제2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백 지 선	6	1위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	비고	소속
							초
	제2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80m		이 수 진	4	2위		함평초
	제2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이 진 나	5	2위		함평초
	제2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100m		이 진 나	5	2위		함평초
	제2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100m		백 지 선	6	2위		함평초
2000.11.01	교육감기 구간 마라톤대회		정 복 순	6	1위		함평초
2001.08.29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200m		백 지 선	6	1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200m		이 진 나	6	1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800m		최 민 별	6	1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100m		이 진 나	6	2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100m		이 진 나	6	2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600m		김 은 화	5	2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80m		이 수 진	4	2위		함평초
	제11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100m		백 지 선	6	3위		함평초
2005.03.31	2005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200m		최 혁 진	6	2위		함평초
2005.03.31	2005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멀리뛰기		김 세 훈	6	2위		함평초
2005.07.20	제15회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김 세 훈	6	1위		함평초
2005.10.28	제30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800m		정 민	5	2위		함평초
2005.11.03	제18회 교육감기 마라톤대회		정 민	5	3위		함평초
2006.04.19	2006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800m		정 민	6	2위		함평초
2006.11.10	제19회 교육감기 구간마라톤대회 제10소구		정 민	6	1위		함평초
2006.11.02	제31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100m		정 지 윤	5	1위		함평초
2006.11.02	제31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200m		정 지 윤	5	1위		함평초
2007.03.29	2007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100m		정 지 윤	6	1위		함평초
2007.03.29	2007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200m		정 지 윤	6	1위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	비고	소속
							초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800m		김 새 봄	6	2위		함평초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00m		김 새 봄	6	3위		함평초
2008.11.08	제21회 교육감기 구간마라톤대회		김 새 봄	6	3위		함평초
2009.03.28	2009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800m		박 선 화	6	3위		함평초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	110mH	조 성 민	1	3위		함평중
2006.09.14	제16회 교육감기 학년별육상대회	멀리뛰기	여 승 철	3	2위		함평중
	"	110mH	여 승 철	3	2위		함평중
	"	110mH	김 민 철	3	3위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영광종합운동장	정 지 윤	2	100m 2위		학다리중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영광종합운동장	정 지 윤	2	200m 3위		학다리중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영광종합운동장	윤 세 진	3	5000mw 2위		학다리중
2008.09.27	제18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영광종합운동장	양 정 혁	3	400m 3위		학다리중
2008.10.01	제21회 교육감기학년별육상경기대회	영광종합운동장	서 혁	3	5000mw 3위		학다리중
2008.11.0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여수망마경기장	정 지 윤	2	100m 3위		학다리중
2008.11.0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여수망마경기장	서 혁	3	5000mw 2위		학다리중
2008.11.0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여수망마경기장	양 정 혁	3	400m 1위		학다리중

2) 축 구

광복과 더불어 우리 고장에는 축구 붐이 일었다.

1946년 김석구(金石九) 김익주(金益柱 작고), 김용무(金勇武) 등이 주축이되어 팀을 결성하였고 1947년에는 제1회 호남 축구대회를 함평국민학교 교정에서 열었다. 광양군팀 등 여러 팀이 출전하였고 함평이 온통 축제 분위기에 쌓였다.

이러한 경기를 가지면서 발전한 축구는 김휘헌, 김범석 등 쟁쟁한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학생팀과 일반팀이 겨루는 읍면대항, 직장대항 등 갖가지 대회가 열려 함평 축구의 전성기를 맞았으며 1948년에는 함평농림중 대 광주동중과의 친선 경기를 가졌다.

1960년대에는 전국대회에 이강산(李江山 지도교사) 김민규(현 실업인)의 지도하에 육성된 함평국민학교 축구팀이 전남을 재패하였다. 이후 함평 축구의 열은 약간 식었다.

그러나 신광면은 해년마다 이대항(里對抗) 축구대회를 성대히 열었고 1998년 현재 35

회가 넘는 역사를 가졌다.

1974년에 이르러 양길배(梁吉培)가 주축이 되어 함평군 조기축구회를 결성하였으며 함평, 영광, 광산, 금성시 등 4개 시·군 친선 대회를 년 4회 윤번제로 실시하여 현재 33회에 이르고 있다.

1976년에는 함평군 축구협회가 발족되었으며 성인 축구의 활성기를 맞아 대통령 하사기 쟁탈 전국 새마을 축구대회 전남예선대회(장소 : 금호고)에서 광주팀을 3 : 0으로 완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학교 축구는 성남국민학교 팀이 1979년 1980년 연이어 전남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1981년에는 대광국민학교가 우승을 하였다.

(1) 함평군 축구협회 회장 명단

•초대 : 양길배	•2대 : 이종영(李鐘瑛)	•3대,9대 : 이문헌	•4대 : 이창행
•5 대 : 김용섭	•6대 : 박동연	•7, 10대 : 백정부	•8대 : 장유남

(2) 함평군 조기축구회 역대 회장

•초대 : 양길배	•3.4대 : 김용환	•5,6대 : 이문헌	•7 대 : 이창행
•8 대 : 조남현	•9 대 : 최정신	•10 대 : 이방행	•11 대 : 김용섭
•12대 : 조용기	•13,17대 : 백정부	•14 대 : 장 영	•15,16대 : 박동연
•18대 : 장유남	•19 대 : 김찬권	•20 대 : 유병관	•21 대 : 정철희
•22대 : 윤석호	•23 대 : 임덕근		

(3) 주요활동 사항

•축 구 : – 군수기쟁탈 민·관·군 축구대회 개최
(창설–'95.4 , 참가–군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
– 군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

•조기축구회 : – 빅토리 연예인 축구팀 방문 및 초청경기
(방문–'84.4 경기장소–서울 태능선수촌 축구경기장, 초청–'84.10 함평실업고등학교 운동장)
– 5개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
(창설–'74.5, 개최횟수–97회, 참가시군–광산구,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개최방법–연중참가)
– 수련대회 및 전지훈련 실시
(1회–제주도 2회–동해안,설악산 3회–서해안)

3) 테니스

근대 구기종목(球技種目)으로 함평에 먼저 보급된 것이 정구다. 정구는 1922년경부터 장정현(張釘鉉), 황용기(黃龍起) 등에 의해 보급되었으며 1920년에 발족한 함평청년회의

적극 지원 아래 1925년부터는 함평지국 주최로 호남 정구대회를 개최하여 10개팀 이상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구는 그후 침체 상태에 들어가 6.25 직전에는 황용기, 이재식 등이 현 함평군 교육청 자리의 코트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1976년에 들어서 홍성신(洪性信)을 중심으로 한 테니스 애호 인사들이 모여 함평 테니스 협회를 조직 성인(成人)체육으로 발전 함평, 영광, 무안, 장성군의 4개군 친선 테니스 대회를 계속해 왔으며 때를 같이하여 테니스는 학교 체육으로 정착, 1981년에는 함평중학교 테니스팀이 전남을 석권하여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였고 같은 해에 함평중학교 출신 문창열(文昌烈, 당시 사레지오고 재학)이 일본 주니어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하는 쾌거를 보였다.

테니스협회의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대 (代)	성 명	재임기간	대(代)	성 명	재임기간
초 대	홍 성 신	'76. 01. 01~'76. 12. 31	제 18 대	방 재 호	'92. 01. 01~'92. 12. 31
제 2 대	노 병 교	'77. 01. 01~'77. 12. 31	제 19 대	이 종 연	'93. 01. 01~'93. 12. 31
제 3 대	장 록	'78. 01. 01~'78. 12. 31	제 20 대	이 광 재	'94. 01. 01~'94. 12. 31
제 4 대	장 록	'79. 01 01~'79. 12. 31	제 21 대	서 경 렬	'95. 01. 01~'95. 12. 31
제 5 대	문 복 용	'80. 01. 01~'80. 12. 31	제 22 대	송 회 용	'96. 01. 01~'96. 12. 31
제 6 대	문 복 용	'81. 01. 01~'81. 12. 31	제 23 대	박 성 일	'97. 01. 01~'97. 12. 31
제 7 대	윤 길 중	'82. 01. 01~'82. 12. 31	제 24 대	박 성 일	'98. 01. 01~'98. 12. 31
제 8 대	홍 성 신	'83. 01. 01~'83. 12. 31	제 25 대	양 태 옥	'99. 01. 01~'99. 12. 31
제 9 대	손 영 길	'84. 01. 01~'84. 12. 31	제 26 대	송 기 현	'00. 01. 01~'00. 12. 31
제 10 대	손 영 길	'85. 01. 01~'85. 12. 31	제 27 대	송 회 용	'01. 01. 01~'01. 12. 31
제 11 대	박 홍 천	'88. 01. 01~'86. 12. 31	제 28 대	모 윤 수	'02. 01. 01~'02. 12. 31
제 12 대	모 윤 수	'87. 01. 01~'87. 03. 14	제 29 대	김 성 배	'03. 01. 01~'03. 12. 31
제 13 대	김 성 웅	'87. 03. 15~'87. 12. 31	제 30 대	문 덕 수	'04. 01. 01~'04. 12. 31
제 14 대	김 선 영	'88. 01. 01~'88. 12. 31	제 31 대	김 정 식	'05. 01. 01~'05. 12. 31
제 15 대	이 요 현	'89. 01. 01~'89. 12. 31	제 32 대	김 정 식	'06. 01. 01~'06. 12. 31
제 16 대	윤 길 중	'90. 01. 01~'90. 12. 31	제 33 대	김 용 규	'07. 01. 01~'08. 12. 31
제 17 대	김 형 우	'91. 01. 01~'91. 12. 31	제 34 대	이 향 기	'09. 01. 01~'09. 12. 31

(1) 테니스 활동실적

- •1978. 04. 22 : 제18회 전남 종별대회 문창열, 박병중(복식 우승)
- •1978. 04. 30 : 전국종별대회에서 문창열 단식 우승
- •1982. 02. 27 : 제22회 전남 종별대회
  전상진, 박승용 : 복식 우승
  전상진 : 단식우승
- •2009. 03. 29 : 제6회 광주광역시장배 테니스대회 국화부3위 김향자
- •2009. 04. 08 : 제8회 아산충무공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나리부 준우승 송덕순
- •2009. 06. 06 : 제5회 윌슨패밀리파크배 테니스대회 준우승 박현자
- •2009. 06. 19 : GS칼텍스 제12회 여수시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개나리부 우승 오현금
- •2009. 09. 13 : 제5회 운암80배 테니스대회 국화부 우승 김향자
- •2009. 11. 21 : 제6회 영광원자력본부장배 테니스대회 은배부 우승 박상현,

동배부 우승 송회용, 홍경미, 동배부 준우승 오현금, 은배부 3위 이향기, 동배부 3위 박현자

•2009. 12. 05 : 제19회 순천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국화부 준우승 김향자

4) 배 구

함평이 체육의 고장이라 할 만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거양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배구만은 어디를 가나 다른 팀들이 두려워 했다.

이 고장에서 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함평읍 석성리 출신 김원용에 의해서며 1952년이다. 1952년에는 이계서, 양길배, 정영희, 김범석 등으로 학생팀이 조직되어 1955년까지 활동했으며 1954년에는 광산, 목포 등 인접 시·군 일반부 배구대회가 개최되었고 1959~1961년에는 읍면대항, 직장대항 배구대회가 열렸다. 1962년부터 전남 시·군대항 배구대회(일반부)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1963년에는 함평여자중학교 배구팀이 국제식·극동식 모두에서 전남을 제패하는 개가를 올렸고 1964년에는 함평에도 여자 일반부팀이 결성될 만큼 성장했다,

이후 배구는 학교체육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는데 1968년부터는 학다리중학교의 배구팀이 전남은 물론 전국을 수차례 석권하였다.(당시 체육교사 김기남, 코치 한진웅)

1970년 중반부터는 국민학교 배구가 두각을 나타내 함평국민학교, 해보국민학교, 철성국민학교가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 등 도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1) 함평 배구의 실적

•1963. 05 : 전남도대회 국제식·극동식 우승 : 함평여중
•1968. 05 : T.B.C배 쟁탈 전국 중·고등 배구대회 우승 : 학다리중
•1968. 06 :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우승 : 학다리중
•1968. 11 : 조선대학교 총장기쟁탈전국어린이배구대회 우승 : 학다리중
•1977. 05 : 문교부장관기쟁탈 전남어린이배구대회 우승 : 함평국민학교
•1977. 05 : 전남교육위원회 교육감기쟁탈 어린이배구대회 우승 : 함평국교
•1978. 11 : 제5회 전남 학도체육대회 남·여 우승 : 함평국교
•1979. 11 : 제6회 전남 학도체육대회 여자부 우승 : 철성국민학교
•1980. 05 : 제9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국민학교 남자부 동메달 : 함평국교
•1981. 05 : 제1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국민학교 여자부 도대표 참가 : 철성국교
•1982. 05 : 제1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국민학교 남자부 동메달 : 해보국교
•1983 : 제4회 도지사기쟁탈 배구대회 일반부 함평팀 우승
•1997 : 제36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우승
•2003 :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우승

(2) 함평군 역대 배구협회장

•초대 : 노명규　　•2대 : 정인상

대(代)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1 대	이 문 헌		
2 대	나 병 기	1997 - 1998	
3 대	김 한 기	1999 - 2000	
4 대	이 은 헌	2001 - 2002	
5 대	최 용 우	2003 - 2004	
6 대	김 관 주	2005 - 2006	
7 대	이 기 남	2007 - 현 재	

5) 탁　구

1952년 함평농회 자리(현 보건소)에서 책상 2개를 맞붙여 놓고 오동나무로 깎아 만든 벳을 들고 학생들이 탁구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 선수가 공식대회에 출전한 것은 1956년 전남학도체육대회이다. 이 대회에 학다리고 팀인 이혁범, 김양, 장우천이 출전하였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함평군 학생 탁구대회가 열려 우수한 선수가 양성되었는데 모희길, 김석범, 이상순 등이다. 이상순은 함평출신으로 광주북중에 재학했으며 1962년 전남 학생 랭킹 1위가 되어 광주고를 거쳐 경희대 특기 장학생이 되기도 했다.

1965년부터 모희길, 모방원, 최정신, 모윤재 등으로 일반부가 조직되어 시·군대항 대회에 출전했고 최정신은 전남경찰국 산하 탁구대회에서 개인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후 탁구는 학교체육으로 정착하여 나산서국민학교, 영창국민학교, 기산국민학교 등이 괄목할 만큼 성장한 바 있다. 특히 영창국민학교 팀은 1978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 바 있다. 당시 함평군 탁구협회장은 모희길이 맡았고 다음으로 노금노가 맡았고 현재는 문덕수가 맡고 있다.

6) 씨　름

조상의 얼이 담긴 씨름은 안부덕, 정영춘, 김동운들에 의해서 함평 씨름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1950년대 말까지 영수천 등지에서 난장이 열려 황소를 타가는 장사의 늠름한 기상을 볼 수 있었다.

정영춘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전국 씨름대회에서 전남대표로 참석했고 전남 씨름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그 뒤를 이은 선수로 정인석, 최병업, 이기행, 정진상, 김덕희 등이 배출되어 전국대회에 참가했으며 지우상(엄다면 학야리 출신)은 제10회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하는 개가를 올렸다. 손불 출신의 모근배는 현재 전남 씨름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학교체육으로서 씨름은 아래와 같은 실적을 갖고 있다.

•1980　　: 전남학도체전 우　승 : 이문국민학교

•1981. 07. 09 : 전남학도체전 준우승 : 월야중학교. 이 학교는 1982년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함평군 씨름협회장은 처음 정인석이 맡았고 1998년에는 신동명이 맡았으며 2003년부터

는 박종이가 2010년부터는 이태범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7) 궁 도

(1) 연 혁

관덕정(觀德亭, 옛 영수정)에 사장(射場)이 있었다. 영수천 맑은 물을 휘날아 과녁에 명중되는 화살, 정말 남도(南道) 제일을 자랑하는 활터였다.

이형헌, 김상보, 이관서, 이계우 등 쟁쟁한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례, 곡성, 해남, 목포, 영암, 영산포 궁도인들과 초청 및 교환경기를 갖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했다.

그러나 영수천 호안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과녁의 사정거리가 멀어져 관덕정 사장이 구실을 못하면서부터 침체되고 말았다.

궁도협회에서는 97년도에 임시 국궁장을 만들고 98. 4. 1일 창립총회를 함과 아울러 협회장은 김형중이 맡고 있다.

(2) 경기대회 개최 실적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참가 범위	참가팀 및 참가자수	시상내용	비고
제1회 전국남·여궁도대회	2009.11.07~09	전국동호인	1500명		

(3) 경기단체 역대 회장

대(代)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대(代)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1대	김 형 중	1996 ~ 1998		5대	손 영 길	2004 ~ 2006	
2대	모 봉 수	1998 ~ 2000		6대	박 종 태	2006 ~ 2008	
3대	이 계 행	2000 ~ 2002		7대	김 문 호	2008 ~ 2009	
4대	나 상 주	2002 ~ 2004		8대	방 종 호	2010 ~ 현 재	

8) 태권도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함평과 연을 맺은 것은 이건진이 1957년 현 양비회사 자리(옛 극장)에 창무관을 개설하면서부터다.

이어 고향인 신광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김녕호가 1958년 무덕관을 개장(현 함평극장 뒤, 그때는 경찰서 유도장)하면서부터 태권도는 활기를 띠었다.

그 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무덕관을 권갑수가 개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중앙체육관(관장, 김고성), 청도관, 월야 오도관 등이 있어 태권도 붐이 크게 일었다.

제48회 전국체전부터 여러해 동안 전남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김고성, 윤덕환 등의 해외 진출, 이계웅 등의 전국체전 우승이 특기할 사항이라 하겠다. 1972년부터 교육장기

쟁탈 함평군 태권도 대회(당시 교육장 이재완)를 개최 6회까지 치룸으로써 태권도는 학교 체육으로 깊게 뿌리를 내렸다.

•1977. 11. 02 : 제4회 전남학도체전, 웰터급 우승 : 이기환(함평중)

•1978. 11. 10 : 제5회 전남학도체전, 단체 1위 : 함평중
함평중은 제1회 목포지역대회(1980.10.18), 제2회 교육감기 쟁탈 (1980.11.16) 제3회 교육감기 쟁탈대회(1981.7.21)에서도 단체 1위를 차지하였다.

•1979. 10 : 제60회 전국체전 핀급 우승 : 이계웅(학다리고)
이계웅은 제61회, 제62회, 제63회 전국체전에서 계속 우승하여 특출한 실력을 과시하였다.

•1982. 03 : 전국소년체전 플라이급 우승 : 김우창 (함평중)

•1982. 11. 17 : 전남학도체전에서 우승 : 핀급-김우창, 라이트급-홍평식

•1983. 04. 21 : 전남도민체전 함평군팀 3위

•1983. 08. 20 : 제5회 도지사기대회 함평군팀 2위

•1984. 04. 23 : 제23회 도민체전 함평군팀 1위

•1984. 11. 02 : 제6회 도지사기대회 함평군팀 1위

•1985. 04. 23 : 제24회 도민체전 함평군팀 1위

•1985. 08. 30 : 제7회 도지사기 함평군팀 1위

•1986~1988년 : 도민체전 함평군팀 1위

•1987. 07. 15 : 제9회 교육감기대회 학다리고 1위

•1988 : 서울올림픽에서 학다리고등학교 출신 이계행이 금메달 획득

•1990. 06. 23 : 교육감기대회 학다리고 1위

※ 함평중과 학다리고의 코치는 권갑수가 맡고 있었다.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2009.03.28	2009. 전남소년체육대회(태권도 웰터급)	함 평	박 민 석	6	2위		해보초
08.11.0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여 수	김 종 원	5	태권도 3위		월야초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여 수	성 유 진	5	태권도 3위		월야초
09.03.28	2009 전남소년체육대회	함 평	김 종 원	6	태권도 3위		월야초
2003.06.27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대회		김 권 우	3	장려		함평중
2003.10.19	제2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라이트급	김 홍 진	3	3위		함평중
"	"		김 권 우	3	3위		함평중
"	"		이 찬 휘	3	3위		함평중
"	"		김 홍 진	3	1위		함평중
2005.10.02	제22회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태권도(L-웰터급)	김 남 기	3	3위		함평중
2004.07.03	제2회 문화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 대회품새		김 남 기	2	2위		함평중
	제2회 문화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 대회품새		박 정 권	3	모범상		함평중
2005.11.13	제1회협회장배 품새대회	태권도 품새	김 남 기	3	3위		함평중

9) 유도

유도는 1940년대 말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는 김동운(金東雲,작고)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57년 김동운이 현 무덕관에서 선수를 규합 훈련에 임한적이 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1982년에야 함평중학교에서 유도부를 창설하였으며 1983. 11. 9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전남대표 선발 2차전 60kg급에서 이동명(함평중)이 준우승을 한 적이 있다. 이후 특기할만한 성적이 없다.

10) 배드민턴연합회

1972년 기산국민학교에 재직하던 김오영 교사에 의해 처음으로 보급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체육으로 뿌리를 내려 1973년에 함평국민학교와 기산국민학교가 연합팀을 구성하여 학도체전에 출전하였고 뒤를 이어 10여 학교에서 팀을 만들었다.

(1) 주요대회 실적

- •1980 전남소년체전(목포지구) 초등부 남·녀 우승 : 향교국민학교, 이 학교는 1981년도에도 계속 우승을 하였다.
- •1982 전남 소년체전에서 초등부 남자 우승 : 해보중앙국민학교
  초등부 여자 우승 : 향교국민학교
  중등부 여자 우승 : 함평여자중학교
  중등부 남자 준우승 : 해보중학교

(2) 경기대회 개최 실적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참가범위	참가팀 및 참가자수	시상내용	비 고
제1회 함평나비배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 배드민턴대회	2008.10.18~19	광주·전남	1,400명		
제2회 함평나비배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 배드민턴대회	2009.10.26~27	광주·전남	1,500명		
제3회 함평나비배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 배드민턴대회	2010.05.15~16	광주·전남	1,300명		

(3) 경기단체 역대회장

대(代)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1 대	이 동 관	2005 – 2006	
2 대	이 상 익	2007 – 2008	
3 대	문 대 중	2009 – 현 재	

11) 사격

1970년 모희길 선수가 시·군대항 개인전에 출전한 것을 시점으로 1971년에는 이후범,

김영기 등이 단체전에 출전했으나 연습도중 오발사고로 시합을 포기하는 불운을 맞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에 함평여자중학교에서 사격팀을 조직하여(지도교사 나상두) 1977년, 1978년 양년에 전남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실력향상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해체하였고, 1980년도 중반에 팀을 만든 월야중학교가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두드러진 성적을 거양치 못하고 있다.

(1) 주요 대회 실적

- •1979. 05. : 전국소년체전 소년부 우승 : 함평초등학교
- •1982. 11. : 제3회 전남 학도체육부대회 단체 준우승 : 함평여자중학교
- •1983. 04. : 제3회 전남사격연맹 주최 사격대회 단체 준우승 : 함평여중
- •1983. 08. : 제4회 전남학도 체육대회 단체 및 개인 준우승 : 함평여중
- •1986. 04. 24 : 제4회 회장기 쟁탈 전남사격대회. 공기권총 우승 : 월야중
- •1987. 09. 23 : 제13회 전남도지사기 쟁탈 학생사격대회 공기권총 우승(월야중)
- •1988. 06. 18 : 제18회 대통령 하사 봉황기 쟁탈 전국사격대회 준우승(월야중)
- •1988. 11. 01 : 제14회 전남도지사기 쟁탈 학생사격대회 공기권총 우승(월야중)
- •1990. 07. 31 : 제15회 〃 공기권총 3위(월야중)

12) 복싱

(1) 회 장 : 김 희 성

(2) 전무이사 : 서 영 만

(3) 창 립 일 : 1985. 4. 15

(4) 수 상

- •89. 03. 13 : 제14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파견 2차 선발대회 “플라이급 3위
- •89. 07. 19 : 제19회 대통령배 전구시도대항 복싱대회 플라이급 1위
- •89. 09. 26 : 제70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플라이급 3위
- •90. 01. 15 : 국가대표 선수후보 1차선발대회 플라이급 2위
- •92. 10. 11 : 제73회 전국체육대회(일반부) 플라이급 1위
- •93. 10. 12 : 제74회 전국체육대회(일반부) 밴탐급 2위

그외 도민체전 금메달 다수 수상.

13) 역 도

1983년에야 함평중학교에서 팀을 창설 기량을 닦고 있다.
1983. 09. 03 : 전국소년체전 전남예선대표선발 1차전, 박동식(함평중) 종합 2위

14) 볼 링

볼링은 공을 굴려서 물건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인간의 파괴본능에 의한 오락으로 예날부터 있어 왔던 운동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 정확성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어가는 경기종목으로 우리 함평에는 볼링종목이 도민체전에 정식 경기종목으로 포함될 때부터 함평군볼링협회가 있었다. 1994년 6월경 함평에 볼링장이 건립되면서 볼링애호가를 중심으로 경기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볼링경기 실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양하기 위해 볼링협회를 설립하여 군민 인구가 많지 않은 군단위이지만 여느 시군에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 볼링대회 입상실적

· 2002. 04. 26 : 제4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5인조 3위
· 2005. 10. 27 : 제1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볼링대회 우승
· 2006. 05. 27 : 전라남도 시·군 임원볼링대회 우승
· 2009. : 제15회 전남연합회장기생활체육볼링대회 시군대항 남자2인조 3위
· 2010. 03. 14 : 제5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 남자부단체전 2위

◆ 역대회장

회 기	회장명	임 기	비 고	회 기	회장명	임 기	비 고
제 1 대	정 금 연	1994 ~ 1995		제 5 대	김 승 만	2003 ~ 2005	
제 2 대	김 계 남	1996 ~ 1997		제 6 대	이 기 우	2006 ~ 2008	
제 3 대	나 승 의	1998 ~ 1999		제 7 대	임 용 수	2009 ~ 현 재	
제 4 대	김 관 주	2000 ~ 2002					

15) 레슬링

함평에 레슬링이 보급된 것은 1977년부터다. 부산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부임한 윤정부(함평읍 기각리 출신)가 학교의 배려로(당시 김철환 교장, 작고) 1979년 1월 1일 중등부 18명, 고등부 20명으로 레슬링부를 창설하였다.

윤정부는 제5회 아시아 경기대회 3차선발(1966. 5)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3차선발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제43회 전국체육대회(1966. 10) 44회, 45회, 49회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는 한국의 1류급 레슬러였다.

그는 그의 기량을 전수시켜 창단 4개월째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를 석권하여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 레슬링하면 함평을 꼽고 레슬링 명문학교가 되었다. 일본과 교환 경기도 갖고 있다.

(1) 함평실업고등학교(전 함평농업고등학교) 선수가 큰 대회에서 거둔 성적

•1978. 04 : 전국신인선수권대회 고등부 종합우승 (금5, 은6, 동3)
•1978. 10 : 제5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이연익, 김원기, 김영남 3명 금메달
•1979. 08 : 제7회 문교부장관기대회 중(함평중), 고(함평농업고등학교)
최우수 선수상 수상
•1979. 07 :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몽고) 출전 : 정용균(함평농고 출신)
•1980 : 국가대표 선수로 7명 태능선수촌 입촌
이연익, 김원기, 김영남, 임상선, 노경선, 조영진, 정종삼 동년(同年)
제6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선수권 임상선 2관왕.
•1982 :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미국) 노경선 금메달(48kg급)
•1982 : 제63회 전국체전 조영진, 학생선수권 정종삼, 김치수, 금메달
•1983 :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로스엔젤레스) 조영진 금메달(48kg급),
•1984 : LA올림픽에서 김원기 금메달
세계주니어대회 참가 선수 선발대회에서 김치수 1위
•1986 : 세계주니어대회에서 김종신 금메달
•1988 : 서울올림픽에서 김영남 금메달, 노경선 동메달
•1989 :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종신 금메달
•1992 :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김종신 은메달

이후 침체해 있던 함평실업고등학교 레슬링부는 홍준희 지도교사가 부임하여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1995 : 전국규모대회에서 금 4, 은 2, 동 5 획득
•1996 : 전국규모대회에서 금 11, 은 6, 동 15 획득
•1997 : 전국규모대회에서 금 12, 은 5, 동 11 획득
•1997 : 양정모 올림픽 재패기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자유형 : 단체우승, 그레고로만형 : 단체전 준우승
최우수 선수상 : 조현완, 우수 선수상 : 송인기

(2) 함평손불중학교 레슬링부

•1988 : 창단
•1989 : 전남도대표 8체급 석권 금메달
•1990 : 광주·전남소년체전 8체급 금메달 획득 및 종합우승
•1991 : 문화체육부장관기 및 회장기 쟁탈 전국레슬링대회
금 3, 은 4, 동 1 종합 준우승
•1992 : 문화체육부장관기 및 회장기 쟁탈 전국레슬링대회
금 2, 은 3, 동 3, 종합 준우승
•1993 : 전국소년체전 동 3 획득

회장기쟁탈 전국레슬링대회 금 2, 은 2, 동 1 종합 3위

•1994 : 문화체육부장관기 레슬링대회 금 1, 은 2

•1995 : 전남학생체전 및 전남 도대표 주축학교 6체급 금메달 획득
전국소년체전 은 1, 동 2

•1996 : 전국소년체전 76kg 전경민 금
대통령배 전국레슬링대회 전경민 금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99.10.27	제24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 (자유형)76kg	신기동	1	1위		함평중
"	"	레슬링 (자유형)100kg	김건영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35kg	정춘식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39kg	조지훈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6kg	김황기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76kg	신기동	1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이인선	2	3위		함평중
2000.03.18	2000년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39kg	정춘식	3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이승호	2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이영연	3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85kg	신기동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39kg	정춘식	3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6kg	윤성일	3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이영연	3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85kg	신기동	2	1위		함평중
2000.11.24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레슬링	이영연	3	은		함평중
2001.04.04	제11회 회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		최복철	3	동		함평중
"	"		이승호	3	동		함평중
"	"		한준용	3	동		함평중
2001.06.30	제2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최복철	3	은		함평중
"	"		한준용	3	동		함평중
"	"		이주연	1	금		함평중
2001.08.03	제26회 KBS배 전국레슬링 선수권대회		이주연	1	은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	"		이 승 호	3	동		함평중
2001.11.26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장 종 오	2	금		함평중
"	"		최 복 철	3	은		함평중
2001.10.31	제26회 전라남도 학생종합 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이 승 호	3	금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정 지 훈	2	금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심 경 복	2	금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박 성 찬	2	금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김 영 천	2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장 종 오	2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이 주 연	1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서 용 현	1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이 준 군	3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박 성 용	2	동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김 철 우	1	동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김 진 영	1	동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이 준 구	3	금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한 준 용	3	금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최 복 철	3	금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심 경 복	2	은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박 성 찬	2	은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정 지 훈	2	은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장 종 오	2	은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서 용 현	1	은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박 성 용	2	동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김 진 영	1	동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이 주 연	1	동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김 철 우	1	동		함평중
2002.03.21	재12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전 중 건	3	은		함평중
2002.08.01	재27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39kg	이 주 연	2	은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100kg	심 경	3	동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복				중
2002.12.17	제27회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35kg	정 주 성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5g	정 주 성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39kg	정 주 현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이 기 현	1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이 기 현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6kg	이 주 연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6kg	이 주 연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0kg	이 영 수	1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0kg	이 영 수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이 태 호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이 건 재	1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8kg	이 창 형	2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8kg	황보진 군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조 성 현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조 성 현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김 진 영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9kg	김 진 영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76kg	박 득 규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76kg	김 용 인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85kg	조 영 모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85kg	조 영 모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97kg	심 경 복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97kg	심 경 복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100kg	김 영 승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100kg	김 영 승	1	2위		함평중
2003.06.03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이 주 연	3	금상		함평중
203.10.31	제28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	김 진 관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김 진 관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6kg	정 주 성	3	1위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	"	레슬링(자유형)46kg	정 주 성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김 진 영	3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김 진 영	3	1위		함평중
2003.04.01	제13회 회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		정 주 현	2	3위		함평중
"	"		김 진 영	3	3위		함평중
"	제3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레슬링대회		이 주 연	3	3위		함평중
"	제28회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이 주 연	3	1위		함평중
"	제29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		정 주 현	2	3위		함평중
2003.10.31	제28회 전라남도학생종합 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 42kg	박 대 석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박 대 석	2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0kg	이 기 헌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0kg	이 기 헌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황보진 군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황보진 군	2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100kg	이 기 헌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100kg	황보진 군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100kg	이 주 연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100kg	이 주 연	3	2위		함평중
2004.06.25	제3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정 주 현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이 영 수	3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손 해 남	1	3위		함평중
2004.10.29	제29회 전라남도학생종합 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35kg	손 해 남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6kg	손 해 남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39kg	정 주 용	1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9kg	정 주 용	1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이 연 석	2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이 연 석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85kg	최 일 성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85kg	최 일 성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이 영	3	3위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수				중
"	"	레슬링(자유형)63kg	이영수	3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정주현	3	2위		함평중
2005.03.21	제15회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		장재학	3	3위		함평중
"	"		허진종	3	3위		함평중
2005.05.31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허진종	3	3위		함평중
2005.07.05	제3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레슬링(자유형) 54kg	장재학	3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9kg	허진종	3	금상		함평중
2005.08.03	제30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	레슬링(그래고로망형)85kg	최일성	3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5kg	강성혁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손용덕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장재학	3	3위		함평중
2005.08.26	제31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허진종	3	3위		함평중
"	제31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	레슬링(자유형)58kg	장재학	3	2위		함평중
2005.03.31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레슬링(그래고로망형)35kg	손해남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5kg	손해남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39kg	정주용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정주용	2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42kg	손용덕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g	손용덕	1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42kg	강성혁	2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9kg	강성혁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42kg	정진호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2kg	정진호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54kg	장재학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장재학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54kg	이연석	3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58kg	박성술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박성술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63kg	허진종	3	1위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	"	레슬링(자유형)63kg	허 진 종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래고로망형)85kg	최 일 성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85kg	최 일 성	3	1위		함평중
2005.10.28	제30회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그래고로망형)35kg	손 해 남	2	1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39kg	강 성 혁	2	1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39kg	강 성 혁	2	1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42kg	손 용 덕	1	1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46kg	정 주 용	2	1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46kg	정 주 용	2	3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54kg	박 성 술	1	2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54kg	장 재 학	3	2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76kg	허 진 종	3	1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85kg	허 진 종	3	1위		함평중
	"	레슬링(그래고로망형)85kg	최 일 성	3	1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91kg	최 일 성	3	1위		함평중
2006.06.20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강 성 혁	3	은상		함평중
2006.04.27	제34회 전국문화관광부장관기배 레슬링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정 주 용	3	3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	손 해 남	3	3위		함평중
	"	레슬링(자유형)	강 성 혁	3	1위		함평중
2006.08.01	제31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		강 성 혁	3	금상		함평중
2006.09.01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레슬링시도대항		강 성 혁	3	3위		함평중
2006.04.19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손 해 남	3	은상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강 성 혁	3	금상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정 주 용	3	은상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손 용 덕	2	금상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박 성 술	2	금상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김 세 훈	1	은상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손 해 남	3	금상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강 성 혁	3	금상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손 용	2	은상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덕				중
"	"	레슬링(자유형)	정 주 용	3	은상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박 성 술	2	금상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김 세 훈	1	은상		함평중
2006.11.02	제31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손 용 덕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김 세 훈	1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9kg	이 지 연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김 원 재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8kg	박 성 술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0kg	강 성 혁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정 주 용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46kg	강 성 혁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정 주 용	3	3위		함평중
2007.05.29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58kg	김 원 재	3	2위		함평중
2007.03.29	2007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58kg	박 성 술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김 세 훈	2	1위		함평중
2007.11.03	제3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 42kg	이 동 원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54kg	정 민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58kg	손 용 현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63kg	이 종 화	1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69kg	김 세 훈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42kg	이 동 원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54kg	정 민	1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58kg	이 종 화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63kg	손 용 현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76kg	김 세 훈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46kg	이 지 연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46kg	이 지 연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58kg	손 용 덕	3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69kg	박 성 술	3	2위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54kg	손 용덕	3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58kg	김 세훈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63kg	박 성술	3	2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 69kg	김 원재	3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42kg	이 지연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 54kg	김 원재	3	3위		함평중
2008.04.06	제18회 회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김 세훈	3	1위		함평중
2008.06.03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이 종화	2	동메달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김 세훈	2	금메달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이 종화	2	동		함평중
2008.03.30	2008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42kg	이 동원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0kg	서 예담	1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손 용현	2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8kg	정 민	2	2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이 종화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9kg	김 세훈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이 동원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0kg	서 예담	1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4kg	손 용현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8kg	정 민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김 세훈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이 종화	2	1위		함평중
2008.11.0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42kg	이 동원	2	3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0kg	서 예담	1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정 민	2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이 종화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39kg	이 동원	2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0kg	서 예담	1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54kg	손 용현	2	3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정	2	1위		함평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민				중
"	"	레슬링(자유형)69kg	이 종 화	2	1위		함평중
2009.3.28	2009 전남소년체육대회	레슬링(그레고로망형)58kg	손 용 현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이 종 화	3	1위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정 민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9kg	이 종 화	3	1위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3kg	정 민	3	1위		함평중
2009.5.30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자유형)63kg	정 민	3	금메달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9kg	정 민	3	은메달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63kg	이 종 화	3	동메달		함평중
"	"	레슬링(자유형)69kg	이 종 화	3	동메달		함평중
"	"	레슬링(그레고로망형)58kg	손 용 현	3	동메달		함평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2008.4.6	제26회 회장기레슬링대회	전남 보성	이 지 연	1	동		골프고
			최 일 성	3	동		골프고
			허 진 종	3	동		골프고
2008.6.1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충북 청주	장 재 학	3	금		골프고
			최 일 성	3	금		골프고
			이 지 연	1	은		골프고
			강 성 혁	2	동		골프고
2008.7.25	제33회 KBS배 레슬링대회	강원도 태백	이 지 연	1	금		골프고
			장 재 학	3	은		골프고
			강 성 혁	2	은		골프고
			최 일 성	3	동		골프고
			허 진 종	3	동		골프고
2008	제34회 대통령기대회	강원도 속초	허 진 종	3	금		골프

							고
			최 일 성	3	은		골프 고
2008.10.14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함평	장 재 학	3	금		골프 고
			최 일 성	3	금		골프 고
			호 진 종	3	은		골프 고
			손 용 덕	1	동		골프 고
			허 진 종	3	동		골프 고
			최 일 성	3	동		골프 고
2008.12.2	제2회 종합선수권대회	경북 안동	허 진 종	3	금		골프 고
			이 지 연	1	금		골프 고
			최 일 성	3	은		골프 고
			장 재 학	3	동		골프 고
			강 성 혁	2	동		골프 고
2009.4.20	제27회 회장기레슬링대회	전남 해남	강 성 혁	3	금		골프 고
			이 지 연	2	금		골프 고
			박 성 술	2	동		골프 고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소속	성명	기록	
제20회 협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02.2.16~19	레슬링		함평군청		금1, 동1	
제27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2.7.28~8.1	레슬링		함평군청		동1	
제28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2.8.31~9.4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1	
제83회 전국체육대회	2002.11.9~14	레슬링		함평군청		금1, 동1	
국가대표 선발대회	2003.4.27~30	레슬링		함평군청		은1, 동1	
제28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3.7.28~8.1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1, 동1	
제29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3.9.1~5	레슬링		함평군청		금1, 동3	
제84회 전국체육대회	2003.10.10~16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1, 동1	
국가대표 선발대회	2004.3.30~4.2	레슬링		함평군청		은1, 동1	
제30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4.9.6~10	레슬링		함평군청		금2, 은1, 동1	
제85회 전국체육대회	2004.10.8~14	레슬링		함평군청		금1, 동2	
제23회 회장기	2005.3.15~21	레슬링	종합	함평군청		금2, 은1, 동3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입상실적					비고
		종목	등위	소속	성명	기록	
전국레슬링대회			준우승				
국가대표선발대회	2005.4.13~17	레슬링		함평군청		동1	
유니버시아드선발대회	2005.5.8~11	레슬링		함평군청		동1	
제30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5.8.1~6	레슬링	종합 준우승	함평군청		은4	
제31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5.8.25~29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2, 동1	
제86회 전국체육대회	2005.10.14~20	레슬링		함평군청		은1, 동2	
제2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06.3.22~27	레슬링	종합 우승	함평군청		금1, 은2, 동2	
국가대표선발대회(1차)	2006.5.19~23	레슬링		함평군청		은1	
국가대표선발대회(2차)	2006.6.27~30	레슬링		함평군청		동2	
제31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6.7.30~8.4	레슬링	종합 우승	함평군청		금2, 은4, 동1	
제32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6.8.30~9.4	레슬링		함평군청		금2, 은2, 동3	
제87회 전국체육대회	2006.10.17~23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2, 동1	
제25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07.3.16~21	레슬링	종합 우승	함평군청		금2, 동2	
국가대표선발대회(1차)	2007.4.12~15	레슬링		함평군청		은1, 동1	
국가대표선발대회(2차)	2007.6.12~16	레슬링		함평군청		금1, 동1	
제32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7.7.18~23	레슬링	종합 준우승	함평군청	1위 전경민	금1, 동5	
제33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7.8.16~21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1, 동1	
제88회 전국체육대회	2007.10.8~14	레슬링		함평군청		동3	
제2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08.4.1~7	레슬링	종합 우승	함평군청		금2, 동2	
국가대표선발대회(2차)	2008.5.6~10	레슬링		함평군청		은2, 동2	
제3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008.7.22~27	레슬링		함평군청		금1, 은1	
제34회 대통령기전국 시·도 대항레슬링대회	2008.8.26~31	레슬링		함평군청		금3, 은2, 동1	
제89회 전국체육대회	2008.10.10~16	레슬링		함평군청		동2	

16) 수 영

수영은 시설이 문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뜻은 있어도 팀을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1년 대동국민학교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었고 팀이 구성되었다.

•1983. 08. 13 : 교육감기 쟁탈 제1회 학년별 수영대회
정화자, 고진숙, 오정현 자유형 접영 1위 (해보국민학교)
장경기 2위 (엄다중)

이후 특기할만한 성적이 없었으나 전남 에 수영장이 개설되면서 인근의 대동향교초등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영부를 창단하여 전라남도대표선수를 육성하게 되어 그 입상실적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 고	소 속
2004.9.15	제11회 전라남도교육감기시. 군 대항 수영대회		황 선 주	5	자유형200m 3위		대동향교초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2004.9.15	제11회 전라남도교육감기시. 군 대항 수영대회		조 유 나	5	개인혼영200m 3위		대동향교초
2005.10.28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채 인 경	5	배영50m 3위		대동향교초
2005.9.9	교육감기수영대회 자유형100m		조 유 나	6	자유형100m 3위		대동향교초
2005.3.31	수영대회 여초(자유형 500m)		조 유 나	6	자유형 50m 3위		대동향교초
2006.4.19	전남소년체육대회		안 보 성	6	평영50m 3위		대동향교초
2006.4.19	전남소년체육대회		안 보 성	6	평영100m 3위		대동향교초
2006.9.8	제13회 전라남도 교육감기시. 군대항수영대회		안 보 성	6	평영200m 2위		대동향교초
2006.9.8	제13회 전라남도 교육감기시. 군대항수영대회		안 보 성	6	평영 50m 2위		대동향교초
2006.11.2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이 한 행	4	평영 50m3위		대동향교초
2006.11.2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진 영 미	3	평영50m2위		대동향교초
2007.3.29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진 영 미	4	평영50m2위		대동향교초
2007.9.15	제14회 전라남도교육감기 시.군대항 수영대회		진 영 미	4	평영50m 2위		대동향교초
2007.9.15	제14회 전라남도교육감기 시.군대항 수영대회		진 영 미	4	접영 50m 3위		대동향교초
2007.11.3	제3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김 어 진	3	평영50m3위		대동향교초
2007.11.3	제3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김 어 진	3	배영50m 1위		대동향교초
2007.11.3	제3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진 영 미	4	평영50m3위		대동향교초
2008.3.30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김 어 진	4	배영50m 1위		대동향교초
2008.3.30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김 어 진	4	접영 50m 3위		대동향교초
2008.11.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진 영 미	5	평영100m 3위		대동향교초
2008.11.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진 영 미	5	평영50m 2위		대동향교초
2008.11.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김 어 진	4	배영100m 2위		대동향교초
2008.11.1	제33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김 어 진	4	배영50m 3위		대동향교초
2009.3.28	2009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목포	김 어 진	5	배영100m 2위		대동향교초
2009.3.28	2009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목포	김 어 진	5	배영50m 3위		대동향교초
2009.3.28	2009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목포	진 영 미	6	평영100m 3위		대동향교초
2009.3.28	2009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목포	진 영 미	6	평영50m 3위		대동향교초

17) 야 구

야구가 지방에까지 보급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야구와 함평과의 인연은 일찍 맺어진 셈이다. 제2대 함평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상국(徐相國)이 한국야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는 한국야구사상 공인된 제1호 홈런 타자였다. 그러나 함평 지역에 야구가 뿌리를 내린 것은 1969년이다. 박상진 교육장이 함평에 부임하여 군내초·중등학교 대항 야구대회를 열면서 학교 체육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함평국민학교와 향교국민학교가 맞수가 되어 두 학교가 불꽃튀기는 접전을 하였으며 1970년 목포지구 학도 체육대회에서 향교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당시 지도교사 임창곤) 그때의 학생 선수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로 자랐으며 대동면 향교리 출신의 이기종, 김봉근 등이다.

그 후 야구는 침체 상태였는데 1980년 나산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없이 해체되었다. 함평군 야구협회장은 이유가 맡았었다.

18) 싸이클

싸이클이 함평에 뿌리를 내린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고 함평의 싸이클은 학다리 고등학교로 대변되었다. 학다리고등학교의 싸이클 전적은 다음과 같다.

•1979. 06 : 제9회 문교부장관기 전국학생싸이클대회 여자 고등부 우승 : (선수 임양자, 김미색, 최은숙) 이들은 1980. 6월, 제10회 대회도 석권하였다.
•1981. 11 : 아시안게임 출전 도로경기 싸이클대회 : 종합우승
1위 : 박정순 2위 : 최은숙 3위 : 박앵란
•1982 : 아시안게임 도로경기 금메달 : 최은숙
•1982. 11 : 전국싸이클대회 종합 우승
•1983. 10 : 제64회 전국체육대회에 싸이클 3000m 단체 추발 : 1위(선수 박앵란 등)
•2007. 04. 27 : 제46회 전라남도민체전 싸이클 3000m 단체 3위(정인경 외1명)

19) 핸드볼

전남 학도체육대회가 열리면서부터 학교체육으로 뿌리를 내린 핸드볼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연계적인 관계를 잘 이루었으며 광주시청, 광주교대 등에 스카웃된 국가 대표급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핸드볼은 엄다초등학교와 엄다중학교가 명문을 이루었다.

•1976. 11 : 전남학도체전 우승 : 엄다초등학교
•1978. 09 : 제6회 문교부장관기대회 우승 : 엄다초등
•1978. 12 : 제6회 교육감기쟁탈대회 우승 : 엄다초등
엄다초등학교는 1980, 1981 목포지역 학도체전에서도 우승하였다.
•1982. 06 : 목포지역 학도체전에서 엄다중학교 남·녀팀 우승

20) 농구

농구가 함평에 보급된 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 늦다. 그것은 실내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으로 농구를 시작한 것은 1970년 기산국민학교가 처음이나 섬개구리로 유명했던 신안군의 사치분교와의 대전에서 참패한 후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학다리고등학교에 체육관이 들어섰고 이에 힘입어 학교면 방면에 농구 붐이 일었다. 1983년에는 학다리국민학교가 남자부 전국소년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영광을 안았다. 학다리국민학교의 우승전적은 아래와 같다.

•1982. 06. 22 : 지역별 학도체전(목포지구) 우승
•1982. 11. 17 : 전남학도체전 우승
•1983. 03. 23 : 회장기쟁탈 전남농구대회 우승
•1983. 05 :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

21) 하키

하키의 보급은 참으로 늦었고 아직도 일반에게는 생소한 경기다. 1970년대 후반에 월야중학교에서 하키팀을 창설 보급에 나섰으며 괄목할 실력의 향상이 있어 전남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월야중학교 하키팀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79. 05 : 전국추계 하키리그전 우승
•1979. 11 : 제6회 학도체전 우승
•1980. 11 ; 제1회 전남학도체전 우승
•1981. 05 :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1982. 07 : 제25회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준우승
•1983. 03 : 제12회 전국소년체전 전남예선대회 준우승
•1983. 09 :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전남예선 1차 평가전 : 준우승

22) 게이트볼

(1)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79-2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구내

(2) 설립목적 :

국민생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이의 스포츠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게이트볼운동을 폭넓게 보급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함으로써 명랑하고 밝은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혁개요

• 1988.03.10 : 함평군 게이트볼 동호회 조직
(함평읍거주자 회원 11명. 단일팀. 회장 한원섭)
• 1988.03.05 : 함평군 게이트볼 연합회 조직
(면단위 3개분회 -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 회원27명. 3개분회 연합회장 조동범)
• 2000.03.10 : 7개분회로 확대 조직
(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신광면, 손불면, 나산면, 학교면)
• 2006.01.19 : 각 면별 9개 분회로 확대 조직
(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신광면, 손불면, 나산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 2007.05.10 : 대동면 2개 분회로 개편 (향교분회, 용성분회)
• 2008.02.01 : 나산면 2개 분회로 개편 (삼축분회, 초포분회)
• 2009.12~ 현재　읍·면 지역단위 11개 분회 (지역단위 동호회)가 활동

(4) 역대회장

(2006. 1. 1부터 임기 2년)

순번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재 임 기 간	비고
초대	한 원 섭	남			1988. 01. 20 ~ 1992. 02. 10	

2	정 만 채	남			1992. 02. 11 ~ 1994. 02. 10	
3	김 영 일	남			1994. 02. 11 ~ 1996. 02. 09	
4	김 복 남	남			1996. 02. 10 ~ 1998. 01 19	
5	조 동 범	남	34. 02. 06	함평읍	1998. 01. 20 ~ 2000. 02. 10	
6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2000. 02. 11 ~ 2003. 04. 10	
7	이 기 행	남	35. 08. 07	함평읍	2003. 04. 11 ~ 2006. 01. 15	
8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2006. 01. 19 ~ 2008. 01. 10	
9	박 문 식	남	35. 11. 14	함평읍	2008. 01. 11 ~ 현 재	

23) 파크골프

(1) 경기대회 참가 입상 실적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경기종목 참가자		입상실적				비고
		종목	참가자수	등위	소속	성명	기록	
목포시장배	2006.10.26	파크골프	16		함평			
목포삼학파크골프	2007.04.28	파크골프	21	1	함평	최병섭		
일산시전국대회	2007.05.26	〃	17	1	〃	최병섭,백맹조		실버
					〃	나상주,조경애,임금례		일반
목포시장배전국	2007.06.09	〃	23	1	〃	이계필		실버
					〃	임금례.이우자		일반
밀양시장배전국	2007.10.05	〃	26			없음		
목포시장전국대회	2007.10.13	〃	28	2	함평	정원강		실버
〃	2008.04.21	〃	32		〃	없음		
〃	2008.10.25	〃	36		〃	없음		
밀양시장전국대회	2008.11.11	〃	18	1	〃	임금례		여자

(2) 경기대회 개최 실적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참가 범위	참가팀 및 참가자수	시상내용	비고
2009함평나비배 전남파크골프대회	2009.11.03	전남동호인	200명		

(3) 경기단체 역대회장

대(代)	회 장 명	재임기간	비 고
1 대	정 원 강	2006.03.31 ~ 2009.09.18	
2 대	이 계 필	2006.09.18 ~ 2008.01.14	
3 대	이 기 행	2008.01.15 ~ 2008.08.19	
4 대	신 선 균	2008.08.20 ~ 현 재	

24) 정 구

(1) 발족 배경 및 연혁 :

(2) 경기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

경기대회명	경기대회일	경기종목 참가자		입상실적				비고
		종 목	참가자수	등위	소속	성명	기록	
전국정구연합회장배	2009.05	장년3부	6	개인전 준우승	함평나비	백 기 영 송 광 용		여수시
전라남도지사배	2009.04	장년3부	6	단체전 우승	함평나비	(연합팀)		순천시
순천시장배	2008.10	장년3부	6	단체전 우승	함평나비			순천시
고흥군의장배	2008.05	장년3부	6	개인전 우승	함평나비	백 기 영 송 광 용		고흥군
전라남도회장배	2007.10	장년3부	6	개인전 준우승	함평나비	백 기 영 송 광 용		무안군
제10회아시아 장년 정구 선수권대회	1992.10	장년2부	2	아시아대회	함평군	백 기 영 송 광 용	국가대표 선수	대만
제1회 한.일 생활체육 교류전	1997.11	장년3부	1	한.일교류전	함평군	백 기 영	국가대표 선수	일본
제3회 한.일 생활체육 교류전	1999.11	장년3부	1	한.일교류전	함평군	송 광 용	국가대표 선수	일본

(3) 역대회장

대(代)	회장명	재임기간	비 고
1 대	나 백 현	~ 1997	
2 대	박 래 옥	1998 ~ 2002	
3 대	서 숙 종	2003 ~ 2006	
4 대	지 봉 상	2006 ~ 현재	

25) 펜 싱

(1) 경기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고	소 속
2002.05.14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3위		함여중
2003.03.18	제41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펜싱)		단 체		2위		함여중
2003.06.03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3위		함여중
2004.05.20	제31회 전남협회장배개인선수권대회(펜싱)		박 희 야	3	1위		함여중
2004.06.01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2004.10.29	제29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펜싱)		정 승 원	2	1위		함여중
2006.04.19	2006. 전남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2006.05.29	제44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펜싱)		오 다 성	2	2위		함여

							중
2006.06.09	제33회 전남협회장배개인선수권대회(펜싱)		박 완 선	2	1위		함여중
2007.03.13	제19회 한국중고연맹회장배전국대회(펜싱)		단 체		3위		함여중
2007.03.29	2007. 전남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2007.05.29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3위		함여중
2007.06.20	제34회 전남협회장배개인선수권대회(펜싱)		김 태 희	2	1위		함여중
2007.11.03	제32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2008.03.30	2008. 전남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2008.06.27	제35회 전남협회장배개인선수권대회(펜싱)		윤 초 빈	2	1위		함여중
2009.03.28	2009. 전남소년체육대회(펜싱)		단 체		1위		함여중

일 자	대 회 명	장 소	성 명	학년	입상실적	비 고	소 속
01.7.22	제2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펜싱대회	익산			단체3위		함여고
04.8.23	제1회한국중고연맹전국펜싱대회	양구	문 주 희	3	3위		함여고
05.10.20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울산	김 보 미	3	3위		함여고
06.5.29	제44회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대전	박 영 선,김 은 영 이 길 님,김 보 미	2,3	단체2위		함여고
06.7.21	제34회문화관광부장관기 펜싱대회	익산	박 영 선,김 은 영 이 길 님,김 보 미	2,3	단체1위		함여고
06.10.23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북	이 순 화	1	2위		함여고
07.3.8	07년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양구	송 진 옥	1	3위		함여고
07.10.14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박 희 야,이 순 화 정 승 원,정 주 원	2,3	단체3위		함여고
07.7.24	제35회문화관광부장관기 펜싱대회	익산	박 희 야,이 순 화 정 승 원,정 주 원	2,3	단체2위		함여고
08.3.9	2008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선발전	양구	이 순 화	3	2위		함여고
08.3.14	제20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펜싱대회	양구	이 순 화,정 승 원 정 주 원,최 수 정	2,3	단체1위		함여고
08.3.14	제20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펜싱대회	양구	최 수 정	2	2위		함여고
07.3.13	제19회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펜싱대회	전주	송 진 옥,최 수 정 김 현 옥,이 순 화	2,3	단체3위		함여고
08.5.8	제46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고흥	이 순 화,정 승 원 정 주 원,최 수 정	2,3	단체1위		함여고
08.5.8	제46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고흥	이 순 화	3	2위		함여고
08.6.29	2008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방콕	이 순 화	3	4위		함여고
08.7.25	제36회문화관광부장관기펜싱선수권대회	익산	이 순 화,정 승 원 정 주 원,최 수 정	2,3	단체3위		함여고
08.7.25	제36회문화관광부장관기펜싱선수권대회	익산	정 주 원	3	3위		함여고
08.7.25	제36회문화관광부장관기펜싱선수권대회	익산	이 순 화	3	1위		함여고
08.10.16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고흥	이 순 화,정 승 원 정 주 원,최 수 정	2,3	1위		함여고
08.10.16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고흥	이 순 화	3	2위		함여고
09.3.18	제21회 한국중고연맹회장배전국펜싱대회	대전	송 진 옥,최 수 정 박 완 선,오 다 성	2,3	단체3위		함여고

26) 골 프

(1)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 설립목적 :

함평군 관내에 정규코스의 사계절 양잔디 골프클럽이 정회원제와 아울러 퍼블릭코스를 개장함에 있어 관내 골프인 양성 및 도민체전 출전선수 지원, 골프인 저변확대를 기하는 등 골프특구의 선봉에 서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 혁 : 2006년도 창설

(4) 회원수 : 18명

(5) 주요활동 실적 :

-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 및 출전 지원
- 매월 회원 정기전을 통한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

(6) 경기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

2006.05.17	제9회 전라남도교육감배학생 골프대회		정 하 룡	3	준우승		함평 중
2010.04.27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골프부대회				우 승		함평 팀

(7) 역대회장 :

구 분	회 장 명	임 기	비 고
초 대	임 기 영	2006. 10 ~ 2008. 12	
2 대	최 용 우	2009. 01 ~	

제4절 경기단체별 대회 개최 실적

1. 경기단체별 개최 주요대회

대 회 명	경기대회일	대회참가자 수	시상내용	비 고 (참가범위)
제86회 전남·광주 서남부지역 15개정 궁도대회	2007.11.03.	350명		전남·광주 서남부지역
제25회 전라남도태권도 협회장기 남녀 초·중·고·대학생 겨루기대회	2008.09.27~28	약1,200명		전라남도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2차 예선전 겸 최종전(태권도)	2009.03.21~22	800명		전라남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종목개최	2008.10.10~16	984명		전국규모
범 군민 자전거타기행사	2008.11.08.	약500명	등위 없음	군 민
제1회 함평나비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2008.11.16	약300명		전국규모
제1회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배드민턴대회	2008.10.18~19	약1,400명		전남·광주
제1회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동호인배구대회	2007.06.23~24	약1,000명	우승3팀, 준우승 3팀, 공동3위 3팀	전남·광주
제2회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동호인배구대회	2008.06.14~15	약1,000명	우승3팀, 준우승 3팀, 공동3위 3팀	전남·광주
2008.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춘계대회	2008.04.05~11	약1,200명		전국규모
제3회 전라남도지사기 배구대회	2008.11.01~02	약1,200명	우승4팀, 준우승 4팀, 공동3위 4팀	전라남도
제15회 연합회장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2007.04.15.	약100명		전라남도
제2회 함평나비배 광주·전남 생활체육동호인배드민턴대회	2009.09.26~27	약1500명		전남·광주
2009 함평나비배 파크고프대회	2009.11.03	약200명		전국규모
2009 함평나비배 전국남· 여궁도대회	2009.11.06~09	약1500명		전국규모
2009함평나비배 나비골프대회	2009.11.14	약300명		전국규모
2009국향대전배 전라남도게이트볼대회	2009.11.20	약550명		전라남도

2. 경기단체별 심판자격증 소지자 현황

경기단체명	심판자격증 구분	소지자 성명	현 소속	비 고
배구	대한배구협회 공인심판증 B급	양 정 열	함평고등학교	
배구	전국배구연합회 공인심판원증 A급			
배구	대한배구협회 공인심판증 B급	장 원 주	함평영화학교	
배구	대한배구협회 공인심판증 B급	홍 창 운	함평영화학교	
배구	대한배구협회 공인심판증 B급	이 경 승	상하수도관리과	
배구	대한배구협회 공인심판증 C급	조 경 범	해보면	
축구	대한축구협회 공인심판증 C급	백 정 부	함평읍	
축구	대한축구협회 공인심판증 C급	유 병 관	함평군청	
축구	대한축구협회 공인심판증 C급	국 중 현	신광면사무소	

제5절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

1. 설립배경

제6공화국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체육정책의 방향을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모색하게 되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누구나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평생체육을 구현하게 하며, 함평군민의 신체적성에 적합한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체육활동의 조직화와 과학화를 통한 군민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해 군력을 배양하며, 고령자, 청소년, 부녀자, 저소득층으로 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반사항을 민간차원에서 전담해 범 군민 체육운동으로 확대시키고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지방조직의 결성에서부터 비롯된 운동이다.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및 활용지원,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지원, 생활체육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육성, 생활체육과 한민족축전사업의 연계추진 등을 통해 범 군민 체육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함평군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1) 연혁 :

(2) 생활체육협의회원의 구성 :

-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감사 : 1인, 사무국장 : 1인, 고문 : 10인, 이사 : 42명

(3)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상황 및 실적

(4) 함평군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박 수 경	2001. 05~	어르신전담 지도자	노 영 진	2006. 01~
	신 석 호	2005. 01~		김 순 자	2008. 01~
	윤 성 수	2009. 09~		윤 진 하	2009. 09~
	김 세 진	2008. 09~			
	김 현 성	2009. 09~			

(5)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 역대 회장

대(代)	성 명	재임기간	대(代)	성 명	재임기간
1	이 문 헌	1989 ~ 1990	7	이 연 행	2001 ~ 2002
2	양 춘 배	1991 ~ 1992	8	백 정 부	2003 ~ 2004
3	박 동 연	1993 ~ 1994	9	김 호 범	2005 ~ 2006
4	강 종 삼	1995 ~ 1996	10	김 관 주	2007 ~ 2008
5	김 청 수	1997 ~ 1998	11	정 창 우	2009 ~ 현 재
6	이 문 헌	1999 ~ 2000			

제6절 올림픽과 함평출신 선수들의 활동

1984년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로스엔젤스에서 열린 제23회 올림픽 대회에 함평 출신들이 국가대표가 되어 여러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레슬링 그레고로만형에 출전한 김원기(金原基)는 기라성 같은 세계 각국의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한국 체육사에 금자탑인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김원기의 쾌거는 한국 선수로 동종목(同種目)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이라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 여자 핸드볼 선수로 출전한 강숙(姜淑, 학교면 출신)은 한국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레슬링 그레고로만형에 출전한 김영남(대동면 용성리)이 부상으로 인하여 아깝게 4위를 차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레슬링 그레고로만형에 출전한 김영남이 금메달, 노경선(대동면 출신)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함평을 만방에 알렸고, 여자 핸드볼에 출전한 이기순(李期順. 나산면 우치리)이 금메달, 시범 종목인 태권도에 이계행(대동면 출신)이 출전하여 역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레슬링에 출전한 함평읍 내교리 출신 김종신이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대 회 명	대 회 일	대회구분	참 가 선 수			비 고
			소 속	성 명	입상실적	
제23회 미국LA올림픽대회	1984	레스링		김 원 기	금메달	
제24회 대한민국서울림픽대회	1988	레스링		김 영 남	금메달	
제24회 대한민국서울림픽대회	1988	레스링		노 경 선	동메달	
제24회 대한민국서울림픽대회	1988	핸드볼		이 기 순	금메달	
제25회 에스파냐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1992	레스링		김 종 신	은메달	

제7절 함평군의 체육시설

1. 운동장

순번	운동장명	소재지	부 지 (㎡)	규 격(m)	비 고
1	함평초등학교	함평읍 내교리 272	5,404	90×60.05	
2	기산초등학교	함평읍 기각리 737	7,063	70×50	
3	손불초등학교	손불면 대전리 273		70×50	
4	손불서초등학교	손불면 월천리 1031-1	10,002	80×68	

5	신광초등학교	신광면 월암리 182	10,287	70×55	
6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학교면 죽정리 897	16,302	85×60	
7	영창초등학교	학교면 사거리 172	10,595	70×55	
8	엄다초등학교	엄다면 엄다리 811-1	15,361	75×55	
9-1	대동향교초등학교	대동면 향교리 906	760	200m	우레탄트랙
9-2	대동향교초등학교	대동면 향교리 906	2,766.5	65×45	인조잔디운동장
10	나산초등학교	나산면 삼축리 389-5	12,989	70×55	
11	해보초등학교	해보면 금덕리 477	13,200	65×55	
12	월야초등학교	월야면 월야리 1240	19,015	75×55	
13	함평여중학교	함평읍 내교리 829-2		70×50	
14	함평월야중학교	함평읍 월야리 612-4	9,037	96×62.45	
15	함평손불중학교	손불면 대전리 636	21,213	75×60	
16	함평신광중학교	신광면 월암리 232-1	1,900	100×70	
17	함평해보중학교	해보면 용산리 938-1	12,695	70×50	
18	나산중학교	나산면 삼축리 1184	9,889	90×68	
19	함평공설운동장	대동면 향교리 147	29,940	120×90	
20	함평학생의집	대동면 월송리 424	13,736	90×60	
21	함평영화학교	함평읍 진양리 744-2	2,341	70×50	인조잔디운동장







2. 체육관

1) 함평초등학교 구룡관



·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72번지

· 부지 : 658㎡

· 경기장 규격 : 실내체육관(15m × 20m)

· 수용인원 : 300명

· 주 사용자 : 학교행사 및 체육학습, 육성체육선수 훈련장



2) 손불초등학교 군유관

• 소재지 :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273번지

• 개관일 : 2009. 5.

• 규 모 : 738.13㎡

• 수용인원 : 300명

• 활용 방법

－학교행사 － 입학식, 졸업식, 시업식, 학예발표, 애국주회 등 －교육과정운영 － 체육수업(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무용, 사물놀이, 음악줄넘기)
－유치원 교육과정 및 1년 슬기로운 생활 운영
－교직원 친목 배구, 탁구, 배드민턴 경기 및 윷놀이 경기
－지역사회 개방
· 배구동우회 활동 － 주2회 사용(월,금요일(농번기 제외))
· 리대항 배구대회 및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등

3) 신광초등학교 신광관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82번지

• 설치배경(목적)

◦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발표회장 확보
◦ 1층 쾌적한 급식실 확보로 학생들의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공간
◦ 학교,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 공간
◦ 지역사회 문화, 체육 공간 확보 제공 활용

• 부지 : 978㎡ (2층) • 규격(가로×세로) : 36.6m×22.6m • 수용인원 : 100명

• 주사용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 경기대회 개최 실적 : 2009. 12월 31일 준공 신축 다목적교실

4)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학익관(鶴翼館)



· 소재지 :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85

· 설치목적 :

학생체력증진, 교육과정 정상운영장, 주민 체육활동 장려 공간제공, 지역관내 주요행사 및 각종 방과후학교 발표회장

· 경기장 규격 : 실내체육관(35m × 19m)

· 수용인원 : 5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재학생, 지역주민 동호회
② 주간사용 일시 : 학생체육시간 활용, 방과후 17:30 ~ 20:00 지역동호회

5) 엄다초등학교 칠성관(다목적 강당)



· 소재지 :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11-1

· 부지 : 658㎡

· 경기장 규격 : 실내체육관(15m × 20m)

· 수용인원 : 3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엄다배드민턴 동호회
② 주간사용 일시 : 주2회 (월, 목) 학생체육시간 이용

6) 대동향교초등학교 청림관(실내체육관)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06



· 부지 : 701㎡

· 경기장 규격 : 25m× 20m

· 수용인원 : 1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대동향교초등학교 및 대동면 행사지원
② 주간사용 일시 : 09:~17:00

7) 나산초등학교 나산관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89-5

· 부지 : 732.26㎡

· 경기장 규격 : 687.26㎡ (가로× 세로)

· 수용인원 : 2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나산 배드민턴클럽
② 주간사용 일시 : (월 ~ 금 매일 20시~ 22시)

8) 해보초등학교 해금관(다목적 강당)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77

· 부지 : 교내 부속건물

· 경기장 규격 : 661㎡ (25m× 20m)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해보초등학교 학생. 해보면배구동호회. 해보면사물놀이패

② 주간사용 일시 :

	월	화	수	목	금	토
09:00~09:40						
09:50~10:30		○	○			○
10:50~11:30	○	○	○		○	○
11:40~12:20			○	○	○	○
13:20~14:00					○	
14:10~14:50					○	

해보면배구동호회 : 매주 화·목 19:00 – 21:00
해보면사물놀이패 : 매주 금요일 19:00 – 21:00

9) 월야초등학교 월야관



· 소재지 :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240

· 부지 : 680㎡

· 규격 : 철근콘크리트조. 25m× 20m

· 수용인원 : 2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베드민턴 동아리(주민)
② 주간사용 일시 : (월-금 18:00-20:00)

10) 함평여자중학교 나빌레라관(다목적교실)



· 소재지 : 함평읍 내교리 829-2

· 부지 : 학교용지 716.93㎡

· 경기장 규격 : (25m× 20m)

· 수용인원 : 200명

·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 제1전시장으로 적극 활용함.

11) 손불중학교 실내체육관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636번지

· 부지 : 21,213m

· 경기장 규격 : 실내체육관(가로× 세로)

· 수용인원 : 50명

· 주 단체사용 : – 손불 배드민턴클럽
– 손불 배구 동호회

· 주간사용일시 : – 화, 수,(배드민턴)
– 목, 금 (배구)

12) 나산고등학교 실림관 (다목적강당)

· 소재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184

· **부지** : 778.6㎡



· 경기장 규격 :실내체육관 (43.2m * 18m)

· 수용인원 : 580명

· 설치년도 : 2002년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해보배드민턴 동호회

② 주간사용 일시 : 학생체육시간이용

13) 전남보건고등학교 월악관 (실내체육관)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627-5

· 부지 : 4,800㎡



· 경기장 규격 : 강당 (가로× 세로)

· 수용인원 : 5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재학생 및 지역주민 동호회
② 주간사용 일시 : 주 30시간

14) 함평골프고등학교 레슬링 연습장(실내체육관)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18번지

· 부지 : 7,843㎡

· 경기장 규격 : 588㎡ (20m× 15m)

· 수용인원 : 4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 함평골프고등학교·함평중학교 레스링선수
– 함평군청 소속 레스링 선수 8명,
– 함평주민 5명

15) 함평고등학교 역산관 (다목적 강당)



· 소재지 :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753번지

· 개관일 : 2008. 6.

· 부지 : 814.94㎡

· 경기장 규격 : 975.97㎡ (25m × 20m)

· 수용인원 : 400명

· 주 사용자 : 재학생

16) 학다리고등학교 무학관(다목적 강당)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67

· 부지 : 780㎡

· 경기장 규격 : 가로50m × 세로35m – 배구장, 배드민턴장

· 수용인원 : 15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학교 배드민턴 클럽

② 주간사용 일시 : 매일 20:00 ~ 22:00

· 경기대회 개최 실적

경기대회명	주관단체명	경기 개최일	참가 수	시상 내용	비 고
함평나비배배구대회	보조경기장				
함평나비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보조경기장				

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체육관(강당)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53-1

· 부지 : 572.67㎡

· 경기장 규격 : 30×20m (농구, 배구, 탁구, 보치아,배드민턴장으로 활용)

· 수용인원 : 2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센터 재학생 및 장애인유과기관(비정기적 사용)

② 주간사용 일시 : 월, 화, 수, 목, 금(09:00~18:00)

1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수영장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53-1

· 부지 : 278㎡

· 경기장 규격 : 25×15m (5레인, 장애인 입수 경사로 설치)

· 수용인원 : 5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센터 재학생, 함평군 장애인협회, 함평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 무안군 장애인종합 복지관,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② 주간사용 일시 : 월, 화, 목, 금(13:00~17:00)

19) 함평농어민문화체육센타



·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 부　　지 : 8,313㎡

· 규　　격 : 실내체육관(1,216㎡)

· 수용인원 : 950명(관중석)

· 주 사용단체

① 단 체 명 : 각종 체육대회 유치, 함평천지 배구동호인회, 함평군청 배구동호인회, 목회자연합 족구회 등

② 사용시간 : 09:00 ~ 22:00

· 주요 경기대회 개최 실적

대 회 명	주 관	개최일자	참가인원(명)	비 고

2008 전국대학배구대회	한국대학배구연맹	2008. 4. 5	550	
함평나비배 동호인배구대회	함평군배구연합회	2007. 6. 23 2008. 6. 14	1,000	
제25회 전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전남태권도협회	2008. 9. 27	1,200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대한레슬링협회	2008. 10. 10	2,000	
함평나비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함평군배드민턴 연합회	2008. 10. 18	1,500	
제38회 전남소년체전선발 태권도대회(전남최종전)	전남태권도협회	2009. 3. 21	1,500	

20) 함평나비베어스타운 나비베이스타운(합숙소)



·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687번지

· 부　　지 : 9,808㎡

· 규　　격 : 합숙소(2,241㎡)

· 수용인원 : 10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 체 명 : 전지훈련팀 및 각종 체육동호인회

② 사용시간 : 09:00 ~ 22:00

21) 함평볼링장



·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2

· 부　　지 : 3,300㎡

· 규　　격 : 10레인

· 수용인원 : 60명(레인 수용 가능 인원)

· 주 사용단체

① 단 체 명 : 아리랑 볼링클럽, 919 볼링클럽,
횃불 볼링클럽, 헤드핀 볼링클럽, 피닉스 볼링클럽, 로즈 볼링클럽, 함평 볼링클럽,

다크호스 볼링클럽, 섬드리 볼링클럽

② 사용시간 : 10:00 ~ 24:00

· 주요 경기대회 개최 실적

대 회 명	주 관	개최일자	참가인원(명)	비 고
도협회장기·도지사기 볼링대회	전라남도 볼링연합회		220	
함평군 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함평볼링협회		50	
함평 JC회장배 볼링대회	함평청년회의소	2009. 3. 14	50	

3. 특별 경기장



1) 함평테니스장(함평초등학교내)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72

· 부지 : 3,848m²

· 경기장규격 : 51×71m. (6면)

· 수용인원 : 5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함평군테니스협회

② 주간사용 일시 : 매일 18:00~ 22:00

2) 엄다초등학교 골프 연습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11-1

· 설치배경(목적) :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골프를 즐겨 훌륭한 선수의 꿈을 키우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며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활동으로 상호간 친목을 도모케 함.



・부　지 : 188.70㎡

・규격(가로×세로) : 24.6m × 16.65m

・수용인원 : 15명　　・주사용자 : 재학생 및 동호회원

・1주간사용 일 : 7일

3) 대동향교초등학교 골프연습장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06

・ 설치배경 : 골프영재육성을 위한 함평골프고등학교와 인접한 초등학교로서 기초기본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선수를 육성코자 함

・ **부지** : 255.35㎡

・ 경기장 규격 : 255.35㎡. 10타석. 퍼트장 1실

・ 수용인원 : 20 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대동향교초등학교 및 동호회원　　② 주간사용 일시 : 09:00~20:00

4) 해보초등학교 실내골프장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77

・ 부지 : 교내 부속건물

・ 경기장 규격 : 67.5㎡. 4타석

・ 수용인원 : 8 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방과후학교 재학생(골프부)
② 주간사용 일시 :

	월	화	수	목	금	토
15:00~16:30		○			○	

5) 월야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소재지 :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240번지
・설치배경(목적) : 월야초등학교 학생들의 골프 기능을 향상 시켜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코자함.

・부지 : 24,661㎡

・규격(가로×세로) : 27m×18m

・수용인원 : 20명

・주사용자 : 본교 학생 및 지역주민

・1주간 사용 일시 : 5일

6) 손불중학교 골프장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636번지

・ 설치배경 : 함평군의 골프영재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연계화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기준에 맞는 연습장을 설치하게 되었음.

・ 부지 : 21,213m

・ 경기장 규격 : 25m × 10m

・ 수용인원 : 5개 타석 대 10명 수용

· 주 사용자 : 재학생 체육수업시

7) 함평골프고등학교 골프연습장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18번지

· 설치목적 : 골프의 메카 함평에서 세계 제일의 우수선수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시설로써 재학생들의 원활한 활용과 방과 후 시간의 지역주민에 대한 여가선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체육시설임

· 부지 : 7,843㎡

· 경기장 규격 : 1,096㎡ (20타석× 2층)

150m × 60m,

· 수용인원 : 동시 수용인원 40명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함평군 관내 주민 월 60명

② 주간사용 일시 : 아침 6시 ~ 오후 10시 (2,4주 토·일요일 휴무, 일반 공휴일 근무)

8) 함평골프연습장



·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 설립배경 : 골프특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원은 물론 일반 골프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우수선수 육성은 물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코자 함

· 부 지 : 5,000㎡

· 규　　격 : 300㎡(지상1층, 높이 4.2m)

· 수용인원 : 20타석(40명 수용)

· 주 사용단체

① 단체명 :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원 및 일반회원
② 사용시간 : 09:00 ~ 21:00

9) 함평다이나스티컨트리클럽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6-21번지 일원

· 설치배경 : 골프영재육성의 대표적인 고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계절활용이 가능한 양잔디구장으로 설치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우수선수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 설립완공일 : 2005. 4. 29.

· 부 지 : 1,347,715㎡

· 경기장 규격 : 사계절 양잔디구장 27홀　　· 1일 수용인원 : 480명

· 주 사용자 : 함평다이나스티컨트리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

· 경기대회 개최실적

대 회 명	주관 단체명	개 최 일	참가자 수	시상 내용	비 고
KB국민은행 Star Tour	KB국민은행	2006.9.28 ~ 9.30	117	우승 외 10	
KB국민은행 Star Tour	KB국민은행	2007.5.10 ~ 5.12	183		
KB국민은행 Star Tour	KB국민은행	2008.5. 9 ~ 5.11	119		
KB국민은행 Star Tour	KB국민은행	2009.5. 8 ~ 5.10	108		

10) 함평나비컨트리클럽



함평나비컨트리클럽 조감도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산 2-7

· 건설배경 : 골프영재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연계화한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부 지 : 233,741㎡

· 경기장규격 : 한국잔디 9홀

· 1일 수용인원 : 명

· 운영방식 : 일반회원 대중제

11) 함평아델리아컨트리클럽 (공사중)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 66-2

· 설치배경 : 골프영재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하여 우수선수 육성에 발맞추는 골프특구로써 광주인근에 위치하여 도시민들에게는 여가선용공간을 제공코자 함

· 부 지 : 1,662,733㎡

· 경기장규격 : 한국잔디 27홀

· 수용인원 : 명

· 운영방식 : 함평아델리아컨트리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

12) 전남야구장

·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402-1번지 (대동댐 제방 밑)



· 부　　지 : 23,266㎡

· 규　　격 : 야구경기장(13,233㎡)

· 수용인원 : 200명(관중석)

· 주 사용단체

① 단 체 명 : 각종 체육대회 유치, 기아 타이거즈야구단, 지역야구동호회 등

② 사용시간 : 09:00 ~ 18:00

· 주요 경기대회 개최 실적

대 회 명	주　관	개최일자	참가인원(명)	비　고
제1회 함평나비배 전국여자 야구대회	대한야구협회	2006. 7. 16	100	
제2회 함평나비배 전국여자 야구대회	한국여자야구연맹	2007. 5. 12	250	
프로야구 2군 경기	기아타이거즈	2006. ~	10,000	

13) 함평궁도장(관덕정)

· 소 재 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 부　　지 : 4,350㎡

· 규　　격 : 관덕정(232㎡). 8사대

· 수용인원 : 200명

· 주 사용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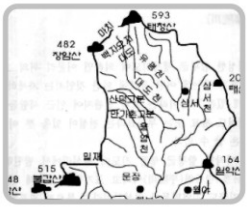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① 단 체 명 : 함평궁도협회

② 사용시간 : 09:00 ~ 17:00

· 주요 경기대회 개최 실적

대 회 명	주　관	개최일자	참가인원(명)	비　고
제86회 광주전남 서남부지역 15개정 궁도대회	함평궁도협회	2007. 11. 3	300	

제14장 종 교



함평군에 포교된 종교를 교별(敎別)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등이며 1960년대에는 단군(檀君)을 모시는 대종교(大宗敎)도 포교되었으나 현재는 교당이 없다. 신도수별로 보면은 1983년도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이었으나 1996년말 현재는 기독교의 장로계가 7,042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가 4,037명, 천주교가 3,085명, 원불교가 868명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말 현재는 기독교인 7,831명 천주교 3,400명 불교 5,011명 유교 836명 원불교 2,600명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종교단체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종교단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	
	교 당	교직자	교 당	교직자	교 당	교직자	교 당	교직자	교 당	교직자	교 당	교직자
1991	86	91	6	6	15	21	1	1	3	3	3	3
1996	86	98	9	13	20	27	1	1	3	3	6	6
2007	91	100	10	13	21	28	1	1	3	3	5	5

제1절 불 교(佛敎)

함평에 제일먼저 세워진 절은 해보면 광암리의 용천사(龍泉寺)며 신라때이다. (통일신라 시대 중 용천사항을 볼 것) 이후 고려에 들어와 군유사(君遊寺), 고산사(高山寺, 일부기록 고산사-孤山寺), 만년암(萬年菴), 죽림사(竹林寺), 죽사(竹寺), 월양사(月陽寺), 대굴사(大堀寺), 옥천사(玉泉寺)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고려시대 불교항을 볼 것)

기록에는 없으나 지명(地名)이 불교와 관계가 있고 절이 있었다는 곳을 보면 함평읍 함평리 대사동(大寺洞), 손불면 학산리, 산남리, 동암리, 학교면 월호리 속금산하 2곳, 나산면 원선리 3곳, 신평리, 수상리, 용두리, 오수산 2곳, 대동면 철성산 3곳, 해보면 해보리 탑동, 월야면 월악산 등 30여 곳이 된다. 대게 이들 절은 터만 남아있거나 터도 깡그리 없어진 상태며 유물이 남아있는 절은 군유사의 부도 1기(현 함평읍 함평리에 소장됨), 해보면 탑동의 석불입상(石佛立像.군민회관 정원에 소장됨), 고산자 마애불, 옥천사 마애불 등이다.(이상 고려시대의 유물항을 볼 것)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함평에 용천사와 보광사(普光寺)만 있었다. 보광사는 함평읍 함평리 대사동(大寺洞)에 있는 절이며 1942년 3월 5일에 창건했다. 현재는 여승들의 도량으로 활용되고 있고 용천사의 종이라고 알려진 범종(梵鍾)이 소장되어 있다.(조선시대의 유물항을 볼 것)

이어 1950년대에 1개소, 1960년대에 3개소, 1970년대에 5개소, 1980년대에 3개소의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태고종(太古宗)이 9, 조계종(曹溪宗)이 5, 법화종(法華宗) 2등 합계 20개 사찰이 존속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던 용천사는 1983년에 건평 27평의 요사재를 옛 규모대로 새로이 지은 후 1990년부터 대웅전의 건립을 비롯하여 이 고장 전통사찰로서 새롭게 변모하였다. 2007년말 현재 군내의 사찰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사찰현황

2007년말

연번	사 찰 명	종 파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교직자	설립시기	비 고
1	관 음 사	조계종	함평읍 함평리 2	324-1144	최혜지	1	1990년	
2	보 광 사	〃	함평읍 함평리 288	322-2698	이법흥	5	1896년	
3	중 생 사	태고종	함평읍 함평리 148	322-0344	최병순	1	1932년	없음
4	유 모 사	〃	함평읍 수호리 산 2	322-3156	노병성	1	1983년	
5	영 산 사	법화종	함평읍 대덕리 771-5	322-3522	이관심	1	1981년	
6	법 음 사	태고종	대동면 월송리 30	322-5558	조복희	1	1972년	
7	철 암 사	〃	대동면 월송리 30	322-3946	문헌봉	1	1975년	
8	화 운 사	〃	대동면 운교리 902	322-1498	양일녀	3	1952년	
9	수 명 사	〃	나산면 삼축리 438-1	322-8604	노연숙	1	1970년	
10	달마정사	법화종	나산면 구산리 791	322-8642	오복용	1	1983년	
11	대원정사	선교종	해보면 금계리 5	322-5797	모종례	1	1982년	
12	용 문 사	법화종	해보면 금계리 5	323-4143	오경희	1	1980년	
13	토각선사	조계종	해보면 금계리 443	323-5467	양광준	1	1992년	없음
14	용 운 사	법화종	해보면 금계리 산42	323-3457	임효임	2	1985년	없음
15	용 천 사	조계종	해보면 광암리 415	322-1822	신종규	3	1965년	
16	보림정사	〃	월야면 월계리 766-5	323-4774	장 웅	1	1995년	
17	천 년 사	선각종	월야면 월악리 869	323-1921	정일수	1	1989년	
18	청 룡 사	태고종	월야면 외치리 181	322-8965	이광석	1	1974년	백년암으로바꿈
19	월 성 사	〃	월야면 외치리 산1	323-0803	유복열	1	1962년	없음
20	불 흥 사	〃	월야면 예덕리 215	323-0961	종관	1	1965년	
21	보타선원절	조계종	학교면 곡창리 529	323-4351	추주형	1	1987	

제2절 유 교 (儒敎)

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小獸林王. 372)에 대학(大學)을 세우고 오경(五經)과 사학(史學) 문학을 가르치는 한편 율령(律令)을 펴고 역사

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고 유학(儒學)을 가르쳤고 고미왕 52년(古彌王,285)에 왕인(王仁)이 일본에 건너가 논어와 천자문(千字文)을 가르쳤고 근초고왕 무렵에는 오경박사를 일본에 보내어 문학과 학술사상을 전했다.

신라도 유교문화를 도입하고 장려하였으며 경학연구(經學硏究)와 유교정신 실천에 힘썼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광종 때(光宗. 재위 947-945) 과거제도를 실시했으며 성종은 유교주의 정치를 목표로 내걸고 국학(國學)을 확립하고 각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였으며 문종 때는 이를 더 확산하여 발전시켰다.

고려말에 이르러 송학(宋學) 즉 정주학(程朱學)이 들어와 조선조 말까지 유학의 주류와 중축(中軸)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유학이 전성기를 이룬 것은 조선조이다.

조선조는 향고(鄕校)의 흥폐(興廢)로 지방수령의 업적을 평가할만큼 뿌리를 내려 모든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향교가 세워졌으며 역대왕은 유림(儒林)을 북돋아 유교계는 크게 융성했으며 오늘날 윤리도덕 관념은 유교사상에 지배되었고 관혼상례도 유교정신에 근원을 둔 것이다.

유교는 향교로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교에서는 유교의 종사(宗師)로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하고 중국, 한국의 유철(儒哲)을 배종(配從)으로 하는데 이 묘우(廟宇)를 문묘(文廟)라고 한다.

향교에는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자 외 여러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명륜당에서는 유학을 강론(講論)했다.

향교에는 국가에서 내린 학전(學田)등 많은 귀속재산이 있었는데 1910년에 향교 재산관리 규정이 공포됨으로 하여 군수가 정리를 수행하였으며 수입금은 제전(祭典) 공립 또는 지정학교의 경비 문묘유지에 충당했다.

그후 1920년에 새로이 향교재단 규정이 재정되어 수입금은 공립 또는 지정학교의 경비에 충당함을 금지하고 전적으로 문묘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썼다.

해방후인 1947년에는 유도회(儒道會)를 조직, 전국유교연맹을 결성했다. 그러나 뚜렷한 업적은 없었고 1948년에 향교재단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각군의 향교재단을 토대로 도(道)에 재단법인 향교재단을 설치하여 동 법인 이사회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마련에 부심하여 유도회를 활성화하고 1995년에는 향교지를 제작 간행 보급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함평향교유림회관이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성균관지정 시범향교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성전등의 건물에 대한 단청공사도 완료하였다. 함평향교는 매년 봄과 가을 석전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현재 장의의 수는 100여명이다.

광복이후 함평향교의 전교(典校)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3 함평향교 역대 전교 명단>

(단, 광복이전은 생략함)

성 명	본 관	취임년도	성 명	본 관	취임년도
이 근 행	함평	1951	장 연 섭	인 동	1985

성 명	본 관	취임년도	성 명	본 관	취임년도
안 종 태	죽산	1953	김 성 두	상 산	1987
나 중 환	금성	1954	모 상 풍	함 평	1989
안 창 순	죽 산	1955	박 병 인	무 안	1991
나 필 환	금 성	1956	김 유 원	상 산	1993
안 기 만	죽 산	1959	이 건 풍	함 평	1995
정 태 섭	진 주	1961	정 영 택	영 성	1997
신 경 열	영 산	1965	모 원	함 평	1999
이 영 헌	함 평	1968	이 재 승	함 평	2001
정 기 영	전 주	1974	김 옥 현	광 산	2003
김 성 남	나 주	1977	이 문 행	함 평	2005
이 돈 율	함 평	1980	김 규 채	상 산	2008
이 천 구	함 평	1982			

○ 함평향교 (조선시대 유적을 볼 것)

제3절 천 주 교

1. 천주교의 한국전교

한국 천주교의 창설은 선교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인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쩨스윝파, 쎄스페데스 (Gregorio de Cespedes)가 고시니 유끼나가의 군종신부로 한국에 와서 약 1년간 체재하면서 주로 침략 왜군들 사이에 전교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가 직접 한국인들에게 전교한 사실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고 그후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인질로 심양(瀋陽)을 거쳐 북경에 가서 쩨스윝 신부 아담샬(Adam Schsll)을 만나 그로부터 서양의 신문학과 기독교에 접하게 되었다. 그 무렵 마테오 릿치(Matthiew Ricci)가 지은 교리서 「천주실의(天主實義)」 2권이 그외 여러 과학서적과 함께 북경에 들어갔던 동지사(冬至使)들의 손을 통하여 들어왔다.

그후 17세기에 실각한 남인파 학자들이 학문연구의 입장에서 서학(천주교)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종교를 믿게 되었다. 이러한 자들중에 이벽(李檗), 권철신 형제, 이가환, 정약전 삼형제, 이승훈 등이 있었다.

경기도 광주와 양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교리연구를 하고 있었으나 차츰 그 교리가 조선전래의 풍습과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그 해결을 모색하다가 정조(正祖) 7년(1783) 동지사 일행을 따라 이승훈이 북경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교리서 「십자고상(十字苦像)」, 성화, 묵주 등을 가지고 돌아와 연구하던 중 먼저 이벽이 믿고 그의 전도로 윗 여러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들은 북경에서 본대로 교회제도를 세워 권일신을 주교로 이승훈 등 몇 사람을 신부로 세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세운 성직제도에 회의를 품고 다음에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편에 묻게 하였다.

당시 북경주재 구베아(Alexander de Govvea) 주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세례 외의 성례를 행할 수 없음을 말하고 또한 조상숭배가 신앙생활에 어긋남을 가르쳤다.

1791년 전라도 양반 윤지충(尹持忠)이 모친상을 당하여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핍박이 일어났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사형을 당하고 이승훈은 이벽, 권일신과 함께 배교를 했다.

정조(正祖)는 탕평책(蕩平策)을 써서 정치적 모략이 다분히 있는 극단적 탄압을 피하려 했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서양서적은 불살라 버렸다.

구베아 주교의 지시에 의하여 성직제도를 해지한 후 교회는 교회성장과 성례문제로 북경주교에게 신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1794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서울에 왔으나 배교한 밀고자 때문에 3년간 귀부인 교우의 집에 숨어 있었으나 박해가 더욱 심하여지므로 교우들을 구할 요령으로 자수했지만 1801년 숨겨준 부인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것이 신유(辛酉)박해이다. 이때에 황사영이 북경주교에게 로마교황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정복하면 선교의 자유를 얻을것이라는 백서(帛書)를 보냈으나 도중 발각되어 그는 홍주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이일을 계기로 하여 1810년, 1815년, 1819년, 1826년 네 차례에 걸쳐 큰 박해가 일어났다. 1832년 샴(Siam)에서 선교하던 브루기에레(B.Brugiere)가 자진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오다가 만주에서 병사하고 대신 중국에서 선교하던 모방(P.Maubant)이 임명되어 최초로 서울에 들어온 서양신부가 되었다.

1년후 샤스땅(Chastam)신부가 1837년에는 앵배르(Imbert)주교가 입국했다. 그러나 1839년 기해년(己亥年)에 순교했다.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는 다시 페레올(Ferreol)과 매스뜨르(Maistre) 신부를 한국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마카오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김대건 신부와 합하여 훈춘으로부터 입국하려다 실패하고 상해에서 해로로 1845년 겨우 김대건과 페레올 주교가 서해안에 상륙했다. 다음해 매르뜨르 신부를 입국시키려 배를 서해로 띄우다가 김대건이 체포되어 순교하고 대박해가 일어났다. 1862년 고종이 위에 오르고 대원군이 섭정이 되어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취하였다.

1866년 다시 박해가 일어났다. 신부들은 많은 신자들과 함께 순교했고 그중 세 사람만 피했다. 그중 한사람인 리델(Ridel) 신부가 탈출하여 바닷길로 중국에 가서 천진에서 프랑스 함대장 로스(Roze)를 만나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에 와서 신부들을 살해한데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은 더욱더 쇄국정책을 강화하고 핍박을 계속했다. 돌아보건대 천주교의 한국선교는 피로 물든 역사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부들과 교도들은 영웅적인 신앙과 희생적인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왜 핍박이 있어야 했던가 거기에는 또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는 정치에서 실각한 남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자연 정적들은 그들의 신앙운동을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보게 되지 않았다. 조상숭배 거부문제는 유교를 국교로 삼은 한국인의 눈에는 부도덕한 사교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겸하여 황사영 같은 사람은 프랑스의 세력을 빌어 굴욕적인 개국을 강요하려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땅에 한국인 스스로의 힘

으로 꽃을 피운것이다.

2. 함평의 천주교

1930년 이바오로, 채말다가 노안에서 함평으로 이사하면서 함평지역에 천주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1931년 현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에 소재한 기산회관에서 나주군 노안에 있던 한국인 신부 박요안이 첫 미사를 드리고 봉헌하였다. 1936년 4월에 2명, 8월에 5명이 나주본당 김요셉 신부의 미사봉헌으로 영세성사를 받았으며 1940년에는 일본경찰의 방해로 미사봉헌이 불가능하였으나 1941년에는 현재의 내교리 340번지 소재의 땅을 매입하고 1944년 함평공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45년에 함평본당으로 승격하여 초대신부로 김바오로(昌鉉) 신부가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1949년에는 본당을 신축하고 1950년 7월 23일 본당 신축 첫 미사를 드리고 준공식을 가졌으나 1950년 10월 19일 공산당에 의하여 신축 성당이 방화(放火) 소실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2년 4월부터 불탄 성당 재건에 착수, 1952년 10월 13일 준공, 축성미사를 봉헌하였다.

1953년에는 영광, 법성, 나산, 석정, 가동, 학다리, 염산공소를 설립하고 그해 4월에는 수녀원 본원을 설립 바오로회 수녀가 취임하였다. 이후 문장, 신광, 나산공소 등을 설립하고 1964년에는 본관 사제관을 신축하고 1983년에는 본당 새건물을 착공 1984년 준공, 봉헌미사를 봉행하였다.

1995년에는 학다리공소가 학다리천주교회로 승격하였으며 1996년도에 함평천주교회의 공소로 있던 신광, 문장, 손불, 나산등 4군데가 현재는 화상본당으로 승격됨으로 장년리 공소만이 함평천주교 산하에 있게 되었다. 학다리천주교회의 재생원공소와 석정리공소, 엄다신계리공소가 있다.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에 건립되었다가 전쟁중 소실되어 전쟁중 복구되었던 함평천주교성당건물이 2004년 12월31일 등록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어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08년 현재의 함평천주교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함평천주교 현황>

교 회 명	설립년도	소 재 지	신도수	교역자	연락처
함평천주교회	1938	함평읍 내교리 340	500	정도식	323-8004
장년리 공소	1956	함평읍 장년리 742-1	20	정도식	
학다리천주교회	1953	학교면 학교리 602	100	모요안	323-6664
재생원 공소	1967	학교면 고막리 600-17	30	모요안	322-0199
석정리 공소	1992	학교면 금송리 529-1	68	모요안	323-3952
엄다신계리 공소	1984	엄다면 신계리 366-1	20	모요안	322-7097
하 상 본 당					
손불천주교회	1956	손불면 대전리 184-3	70	임창훈	322-4341
신광천주교회	1954	신광면 백운리 293-14	50	임창훈	322-5413
나산천주교회	1964	나산면 나산리 671	60	임창훈	323-8213
해보천주교회	1958	해보면 문장리 822-14	70	임창훈	323-0043

제4절 기 독 교(基督敎)

1. 개신교의 한국전교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로 한국을 찾아온 이는 독일 태생으로 경건파의 중심지인 할래(Halle)에서 교육받고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받아 바타비아에서 선교하던 꾸쯔라프(Carl Gutzlaff)이다. 그러나 그는 1828년 화란선교회와 손을 끊고 샴(Siam)에 옮겨왔고 샴을 떠나 마카오에 와서 중국에 온 첫 신교 선교사 모리손(R.Morrison)의 친구가 되고 1832년 동인도회사의 파송으로 통상을 위한 북중국 해안지역 개항 조사원의 통역으로 산동에 왔다. 이들은 황해를 건너 한국 장산곶 근방 도서에 왔고 남하하여 충청도 금강(錦江) 입구에 상륙하여 조선정부의 통상을 교섭했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동안 꾸쯔라프는 모리손에게서 많은 한문성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에게 뿌렸다. 그후 33년만에 중국에 선교하던 토마스(R.J.Thomas)가 산동성에 주재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회 지배인 윌리암스(A.Williamson)의 집에서 대원군의 핍박을 피하여 온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한국의 사정을 듣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고 1865년 옹진근방 여러섬 에서 2개월 반을 지나면서 성서를 반포하다가 돌아가고 다시 이듬해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쉬만(Generl Sherman)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으나 이를 막는 관군에게 배는 불살라지고 토마스 목사는 성서를 뿌리다가 순교했다.

그의 순교 1주년인 1867년 9월 9일 윌리암슨은 한국개척교회를 위한 만주전도 여행을 하여 고려문(高麗門)에 와서 한국인들을 접촉하고 성서를 뿌렸다. 한편 만주 우장(牛莊)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일치자유교회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와 매부 맥킨타이어(J.Macintyre)도 한국 선교의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했다.

1874년 고려문에서 의주청년 학자 이응찬(李應贊), 백홍준(白鴻俊), 이성하(李成夏), 김진기(金鎭基)를 만났고 그중 이응찬은 어학교사가 되어 함께 우장으로 갔다. 그후 남은 세 사람도 이들의 어학교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서 번역을 시작하여 1880년에 요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그후 남은 두 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했다. 이무렵 의주출신 서상륜(徐相崙)이 이들과 함께 1881년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인쇄소를 설치하고 1887년에 신약성서 전부를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를 출판했다.

이보다 앞서 백홍준은 번역된 복음서를 가지고 서간도 지역 한국인들에게 전도했고 1884년 「로스」, 「맥킨타이어」 목사는 동만주지방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75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다시 로스목사는 서상륜에게 성경을 주어 한국에 들어가게 하였다. 의주에 온 서상륜은 그후 아우 경조(景祚)와 함께 황해도 송천(松川-소래)으로 이사하였다.

1884년 로스목사는 이성하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주어 의주에 돌아가 전도하게 하는

한편 서상륜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쳤고 복음서 6,000권을 인천세관 고문 몰렌돌프(Mollendorf)에게 선편으로 보내어 서상륜에게 전하게 하였다.

1874년 고종황제가 친정하게 되고 대원군이 물러섰다. 민씨일파는 쇄국정책을 버리고 1876년 일본과 우호통상 조약을 맺었으나 다시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나라정세는 어지러웠다. 1882년 한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문에는 종교문제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직 기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2~3년내 영, 독, 노, 이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때 최초로 한국선교의 문호를 연 사람이 의사 「알렌(H.N.Allen)」 박사이다. 그는 본래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됐으나 거기서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한국주재 미국공사관 공의로 1884년 서울에 온 후 뒤이어 영국, 청국, 일본 영사관의 공의도 되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郵政局) 신축 낙성연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한의들이 고치지 못할 때 알렌 의사가 3개월 정성을 다하여 그의 생명을 건졌고 그것을 계기로 고종황제의 어의가 되었고 정부는 알렌의 요청대로 광혜원(廣惠院)이라는 병원을 세웠다.

병원 개원 닷새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Undewood)」와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H.G.Appenzeller)」 부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 때마침 일본에 나와있던 「스크랜톤(W.B.Scranton)」박사가 알렌박사와 함께 일하다가 후에 감리교 병원을 따로 세웠다. 1885년 스크랜톤 박사의 모친 「스크랜톤 부인(Mary F Scranton)」이 이화학당을 세웠고 1886년 아펜셀라가 배제학당을, 1885년 언더우드가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모체인 고아원을 세웠고 1886년 북장로교 선교부는 정신여학교를 세웠다.

1890년에 영국 성공회가 들어오고 1892년 남장로교, 1898년 남감리교, 1893년에 캐나다 장로교회 등에서 계속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다. 작은 나라에 여러 선교단체가 들어오게 되니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선교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889년 북장로교 선교회와 호주선교부가 합의한 것을 필두로 각 선교부에서는 모두 가까운 지역의 선교부들끼리 합의하여 평안도는 북장로교와 북감리교가, 강원도 북부 3분의 2와 서울 이북 경기도 지방은 남감리교가 강원도 남부의 3분의 1과 서울동부와 서부는 북감리교가 원산 이남은 남감리교가,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부가, 충청북도는 북장로교, 충청남도는 북감리교, 전라도는 남장로교, 경상남도는 호주선교부, 그외는 북장로교가 맡기로 조정했다.

이렇게 해서 외국 선교사들을 통한 의료와 교육을 매개체로 서서히 이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개신교는 세브란스 의과전문학교, 숭실대학, 이화여자전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목포의 정명여자학교, 영흥중고등학교, 광주의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등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수많은 교육기관을 통해 근대 한국사 발전에 찬연한 공헌을 했고 일제의 탄압기에도 꾸준히 민족정신을 견지하고 독립운동의 선구자를 양성, 이바지 해 오는 등 이나라 근대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1865년에 와서야 최초의 주일예배를 시작한 개신교의 첫 한국인 신자는 알렌 의사의 어학선생인 노도사(盧道士)로 그는 기독교를 알 목적으로 알렌 의사의 어학선생이 되어 그 책상에서 성경과 교리서를 읽은 다음 세례받기를 원해 1866년 7월 11일 순교의 각오를 갖고 세례를 받음으로 찬란한 한국인 선교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2. 함평의 기독교

교육과 의료를 통한 포교활동으로 서서히 이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개신교는 1890년초에 목포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정명학교, 영흥학교 등을 세우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동반하게 되었다.

당시 목포선교부 소속 배유지 선교자(ReV, ugene Bell) 에 의해 1900년 봄 나주군 삼도리 교회에서 함평군 성정교회(현용성교회 전신) 가 세워졌다.

이때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당시 대동면 용성리에 세워진 교회를 어느날 돌아보기 위해 유서백 선교사가 목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왔다.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는 장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와 용성마을 뒷산으로 노루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교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인석이 유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접하고자 달걀을 소반에 담아 교회로 달려오니 이미 뒷산으로 사냥을 떠난 뒤였다. 최인석은 다시 집에 돌아가 하얀 두루마기로 정장을 한 뒤 뒷산으로 계란을 들고 올라가 유선교사를 찾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유선교사와 최인석은 정 반대쪽에서 찾게 되었고 한참 숨을 죽이고 총을 겨누고 있을 즈음에 저 건너편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어른거렸고 같은 방향에서 노루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어 유서백은 여지없이 총을 쏘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에 탄알 하나가 유서백을 찾아 헐레벌떡 올라오던 최인석에게 맞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흰 두루마기의 최인석은 뒹굴었다.

그때서야 깜짝놀라 달려가 보니 다행히도 총탄은 최인석의 허벅지에 박혀 중상은 아니었고 유선교사가 응급조치로 총탄을 제거한 후 동네로 업고 내려왔다. 토수장이었던 최인석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목포 정명학교에 재직 중이던 유서백 선교사의 비서로 발탁되어 계속 일하다가 1981년 노환으로 작고했고 그의 장남은 현 목포 그리스도교회의 목사가 되었다.(최요한) 이때가 1906년에서 1908년경으로 추산되는데 그후 1923년경에는 이곳 함평지방에 가장 포교활동이 활발하고 교회설립이 왕성한 시대였다.

그 배경은 처녀 선교사인 「마율리아」의 전도 때문이었다. 마율리아 선교사는 유서백 선교사의 뒤를 이어 대동면 용성마을에 근거를 두고 인근에 있는 부인들을 모아 이들에게 월 3원씩의 전도비를 지급하면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시켰다. 이때 동원된 숫자가 항상 30여명이나 되었고 당시 전도를 하던 부인들에게 지급된 3원은 장정의 임금보다도 웃도는 금액이어서 아예 대동면 부녀자들은 직업삼아 전도의 일선에 나서게 되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후 「명애다」 선교사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 교회에 가서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여 교인들의 양식을 높였는데 당시 정명여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었고 특출한 미모에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처녀 선교사였다.

그 외에 “고무공장 굴뚝”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 마그렛」 여사가 있는데 역시 정명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음악에 조예가 깊고 키가 큰 미인으로 예능지도에 공헌이 컸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성직자들이 갖은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이곳의 교회들은 대체로 일본경찰들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았던 요인은 전남·북을 선교구역으로 활동하던 선교사 유서백이 당시 미국 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정계의 거물급이었고, 당시 전주 예수병원장이었던「린 톤」역시 1차 세계대전에서 수훈을 세운 미육군성의 4성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경찰이 감히 이들의 선교구역을 침범하지 못했던 것이다.(함평읍 강대용장로 증언)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에 이미 있었던 교회로는 용성, 함평읍, 가덕, 나산, 궁산, 산남, 구봉, 옥동, 영흥등 9개처였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산군들의 만행은 이땅 전역에서 자행되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했다.

1950년 8월 당시 함평읍교회에 출석하던 노현덕 장로(당시 함평우체국장), 이기섭 장로, 박병연 집사, 이애수 집사등 4명이 함평읍 구기산에서 패주하던 공산군에 의해 첫 순교를 당했고 한편 손불에서도 손불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진희 장로(당시 산남교회 이승철 목사의 장남)가 순교를 당했다. 그해 10월 국군이 함평을 수복한 후 함평읍교회에 주재를 하며 양민과 빨갱이 색출작업을 할 때 김병두(83)와 전규동 장로의 확인 보증으로 많은 양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야, 해보지역에서는 김병두, 전규동 외에 윤인식의 현저한 헌신봉사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함평군수인 박종오에 의해 전쟁고아를 위한 고아원 설립이 추진되어 삼애원(윤인식 장로)이 맨처음 설립되었고 자광원(홍순호 장로), 차례로 시온원(김수업 장로), 성애원(모남식 장로) 등이 김병두 목사의 주선으로 설립되어 전남일대의 전쟁고아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이 고장 최초의 사립중등교육기관인 광인고등공민학교(함평읍교회 교육관·초대교장 김병두)가 설립되어 1983년까지 27회 1,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고 YMCA의 설립에도 교회가 모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교육, 선교, 사회사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대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이끌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길이 남을 장한 발걸음이었다. 또한 서울 남서울교회 시무목사인 홍정길 목사를 비롯하여 함평출신 기독교 목사들의 활동은 어느 지역 못지않은 자랑거리이다.

함평군 기독교연합회는 초교파적 조직으로서 함평의 선교 105주년을 기념하는 함평군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박종삼목사/함평읍교회시무)를 2005년 구성하여 대동면 용성교회에 선교105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선교100주년 기념연감도 제작보급 하였다.

2007년말 현재 군내 기독교 교회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함평군 교회 현황

2007년말

구분	교 회 명	설립년도	소 재 지	성도	교파	교역자	연락처
1	함평읍교회	1911	함평읍 함평리 166	230	기 장	박광석목사	323-5649
2	은광교회	1974	기각리 784-6	110	기 장	김순자전도사	322-3420
3	함평교회	1980	기각리 980	450	예 장	황상길목사	322-3493
4	함평중앙교회	1926	기각리 909-1	400	예 장	최창영목사	324-1004
5	함광교회	1982	내교리 441	50	예 장	김영수목사	322-2469
6	함평순복음	1976	내교리 197-3	250	하나님의성회	이기봉목사	322-3183
7	해동교회	1963	수호리 654-1	60	기 장	박대웅목사	322-3883
9	함평제일교회	1967	수호리 133	80	예 장	김주익목사	322-2816
10	성남교회	1953	성남리 832-5	40	예 장	김경수목사	322-3713
11	만흥교회	1948	만흥리 361-3	100	기 장	한해식목사	322-3738
12	장교제일교회	1994	장교리 61-7	50	예 장	김정철목사	324-2977
13	옥산중앙교회	1977	옥산리 689-1	8	예 장	이정래목사	322-3300
14	옥산교회	1957	옥산리 257	60	예 장	봉만형목사	322-3266
15	가동교회	1951	가동리 243-1	32	예 장	송덕빈목사	322-9020
16	석성교회	1916	석성리 504-3	100	예 장	정 남목사	322-9191
17	석성제일교회	1974	석성리 295-1	18	예 장	전용호목사	322-9283
18	순복음석성교회	1960	석성리 359-7	70	하나님의성회	김 혁목사	322-9277
19	주포교회	1997	석성리 614-5	30	예 장	김대영목사	323-5335
20	진양교회	1973	진양리 129-2	40	예 장	허기녕목사	322-3754
21	양림교회	1983	진양리 544-1	30	하나님의교회	음도길목사	322-0044
22	함평감리교회	2003	대덕리 1010-1	15	기독교감리회	우영운목사	323-8291
23	학산교회	1934	손불면 학산리 42	30	기 장	김병선목사	324-4684
24	혜은성결교회	1982	학산리 1007-1	40	예 장	유경석목사	324-4167
25	월암교회	1970	양재리 434	50	예 장	김용임목사	324-4287
26	은성교회	1957	월천리 1009-5	30	기 장	박광혁전도사	324-4694
27	소망교회	1994	월천리 732	50	예 장	김선형목사	324-0863
28	손불중앙교회	1955	대전리 275-10	70	기 장	민봉배목사	322-4897
29	성광교회	1981	대전리 640	70	예 장	윤덕중목사	322-4137
30	죽장교회	1957	죽장리 56-1	120	기 장	문유신목사	322-4677
31	궁산교회	1923	궁산리 99	180	예 장	김대식목사	322-9515
32	함평전원교회	1985	석창리 716	40	예 장	서종석목사	322-9530
33	해성교회	1974	석창리 48-1	25	예 장	박희종목사	322-9357
34	감람교회	1928	산남리 2405-1	130	예 장	윤중관목사	322-4144
35	대성교회	1980	산남리2405-1	110	예 장	박윤식목사	322-4312
36	산남교회	1920	산남리 1038-8	60	기 장	조병환목사	322-4564
37	신광제일교회	1953	월암리 252	120	예 장	김민호목사	322-5023
38	신광교회	1953	삼덕리 582-1	60	기 장	김철옥목사	322-5213
39	가덕교회	1919	가덕리 252-3	50	기 장	이요한목사	322-5402

구분	교 회 명	설립년도	소 재 지	성도	교파	교역자	연락처
40	보여감리교회	1992	보여리 260	15	대한감리회	김정원목사	323-1874
41	군유교회	1974	동정리 293	60	예 장	송국찬목사	322-5324
42	송사시온교회	1988	송사리 295	10	대한감리회	이대신목사	323-5348
43	구봉교회	1931	함정리 542-1	40	기 장	신영식목사	322-5442
44	함평새순교회	1974	석창리 146-1	50	예 장	김양수목사	322-0111
45	동부교회	1964	학교면 옥천리876-5	40	예 장	윤재진목사	322-6704
46	학다리중앙교회	1953	사거리 648-1	300	예 장	이영우목사	322-6124
47	학다리교회	1932	학교리 477-3	120	기 장	진권호목사	322-6163
48	학다리제일교회	1990	학교리 878-173	70	예 장	문규식목사	323-3004
49	금송교회	1954	금송리 252-2	90	예 장	김용균목사	322-6490
50	마산교회	1968	마산리 218	60	예 장	김병기목사	322-6097
51	주찬양교회	1999	학야리 123-1	20	예 장	조현정목사	323-8507
52	신곡교회	1981	곡창리 71-6	30	예 장	김은순전도사	322-6820
53	갈멜교회	1984	고막리 336	30	예 장	임금례전도사	322-6729
54	영흥교회	1909	엄다면 영흥리818	60	예 장	박창순목사	322-7283
55	성산교회	1963	엄다리 1142	23	기 장	김인옥전도사	322-7163
56	엄다교회	1949	송로리 731	170	예 장	강 일목사	322-7065
57	삼정교회	1987	삼정리 160-1	20	예 장	김재완목사	322-7960
58	엄다동성교회	1974	성천리 672	65	예 장	정동석목사	322-7162
59	엄다중앙교회	1984	엄다리 811	10	예 장	양동철목사	322-7090
60	옥동교회	1926	대동면 상옥리342	20	예 장	이광용목사	322-3913
61	석호교회	1948	백호리 160	40	예 장	이경완목사	322-2282
62	백호교회	1948	백호리 277	45	예 장	김이운목사	322-3986
63	강운교회	1974	강운리 494	30	기 장	조부덕목사	322-1265
64	함평대동교회	1910	향교리 868	150	예 장	곽승호목사	322-2081
65	성산교회	1983	덕산리 227	45	예 장	김광수목사	322-3102
66	덕산교회	1960	덕산리 312	40	예 장	송승록목사	322-3014
67	용성교회	1898	용성리 552-3	80	예 장	박성익목사	322-2560
68	운산교회	1976	운교리 947	40	예 장	노성대목사	322-3244
69	함풍교회	1983	금산리 780	50	예 장	김경문목사	322-1764
70	고시교회	1972	향교리 69	30	예 장	모종대목사	322-1545
71	나산교회	1907	나산면 삼축리247	200	예 장	임준석목사	322-8875
72	나산중앙교회	1985	삼축리 1212-1	20	예 장	김행운목사	322-8832
73	신촌교회	1987	수하리 726-1	30	예 장	유구의목사	322-0772
74	나산제일교회	1978	나산면 나산리 691	53	예 장	임흥길목사	322-8262
75	구산제일교회	1983	구산리 838-2	35	예 장	이상백목사	322-8594
76	구산중앙교회	1955	구산리 51-1	50	예 장	조이섭목사	323-8857
77	오수교회	1971	용두리 897-2	35	예 장	김기만목사	322-8774
78	나산동부교회	1980	수상리 798	40	예 장	안병복목사	322-8918
79	우치교회	1983	우치리 62	30	기 장	박사순전도사	322-8738
80	해보제일교회	1962	해보면 대창리 산2	77	기 장	김수현목사	323-0432
81	문장교회	1900	문장리 822-35	190	예 장	장동화목사	323-0082

구분	교 회 명	설립년도	소 재 지	성도	교파	교역자	연락처
82	해보중앙교회	1957	문장리 63-2	80	기 장	배현묵목사	323-6652
83	대각교회	1958	대각리 646	12	예 장	정길모목사	322-1884
84	월야서교회	1980	월야면 월야리 478	12	예 장	김정길목사	322-4947
85	천성교회	1919	월악리 17-4	40	예 장	원극희목사	323-6279
86	월계교회	1985	월계리 95-7	50	예 장	양희언목사	323-1979
87	정산교회	1974	정산리 609	100	예 장	박상원목사	323-1946
88	성남교회	1966	계림리 526	60	예 장	김선규목사	323-1790
89	월야교회	1945	월야리 450-34	120	예 장	전순균목사	323-1014
90	백야교회	1953	외치리 669	20	기 장	구순덕전도사	323-2110
91	사랑의교회	1998	외치리 248	40	예 장	김명관목사	322-1082

제5절 기타 종교

1. 통일교회

1) 명 칭 :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함평통일교회

2)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23번지

3) 연 혁

- •1960. 7. 20 개척 설립 (개척자 김천일)
- •1976. 1. 15 교회당 건축 (25평)
- •1989. 해보교당 설립

4) 현교역자 : 송정섭 목사, 해보교당 - 현재는 없음

설립년도	소재지	신도수	대표자	직위	연락처
1960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23	200	송정섭	목사	322-2011

2. 원불교

1) 명 칭 : 원불교 함평교당

2) 소 재 지 : 함평읍 함평리 138-18

3) 연　　혁

•1977년　　영광교구 이수오 교구장 봉불식 거행
•1978년　　온화중 교무부 부임. 현 교무 문정난

4) 해보교당(송원근)과 신광교당(양점희)을 거느리고 있음.

시설명	설립년도	소재지	신도수	대표자	직위	연락처
함평	1965	함평읍내교리322	300	여순옥	교무	322-2804
신광	1982	신광면월암리244	50	양점희	교무	322-5029
해보	1989	해보면용산리917-5	80	송원근	교무	323-0139

3. 여호와의 증인

1) 명　　칭 : 여호와의 증인의 함평회중

2) 소 재 지 : 함평읍 내교리 207-2

3) 연　　혁

•1955. 2. 1　　한국지부로부터 함평집단 설립인준
•1956. 5. 1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에 왕국회관 설립
•1960. 4. 1　　여호와의 증인의 함평회중으로 명칭을 인준 받음.
•1966. 3. 20　　왕국회관 건립 (함평읍 내교리 296)
•1984.　　해보왕국회관 건립

4) 주임감독자 : 유평담(함평), 김정태(해보)

시설명	설립년도	소재지	신도수	대표자	직위	연락처
함평	1960	함평읍 내교리 207-2	100	장학기	주임	324-3031
해보	1984	해보면 용산리 919-3	50	김지태	주임	

4. 전 도 관 - 현재는 없음

1) 명　　칭 : 한국예수전도관 부흥협회 함평교회

2)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 연　　혁 : 1953년 개척설립

5. SGI(국제창가협회) 한국불교회 - 현재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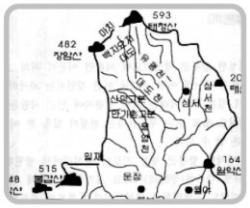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1) 명　　칭 : SGI (국제창가협회) 한국불교협회

2) 연　　혁 : 1984년 함평전도

3) 소 재 지 : 엄다면 엄다리 765

4) 현지부장 : 이남범

제15장 언 론 (言論)



제1절 신 문

1. 중앙지(中央紙)

1) 광복이전(解放以前) 중앙지

우리 나라 신문의 시초라면 개화당이 집권하면서 박문국(博文局)을 두어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성순보는 관보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었다.

이어 신문의 구실을 충분히 발휘하며 발간된 것이 독립신문(獨立新聞)이며 1896년 4월 7일에 창간호를 냈다. 그러나 발행자 서재필이 미국으로 가고 윤치호(尹致昊)가 운영권을 받았으나 1899년에 폐간하고 말았다.

그 뒤 독립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문이 황성신문(皇城新聞)이며 발행자 장지연(張志淵)은 후일 경남일보(慶南日報)를 창간하여 지방지로서 효시를 이루었다.

대한제국이 종언을 고하고 조선총독부가 무단정치를 자행한 1910년에는 그간 언론의 사명을 다해오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大韓每日新聞) 등 많은 신문을 폐간시키고 국문판 매일신문(每日新聞), 기관지인 일어판 경성일보(京城日報), 영문판 Seoul Press만 남겼다.

이리하여 3·1운동에 이르렀을 때는 60여개의 지하신문(地下新聞)이 민족의 울분을 표출하였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時事新聞), 시대일보(時代日報), 중앙일보 등이 창간되었다.

그러나 조선, 동아는 1940년 8월 10일 강제 폐간 때까지 4번이나 정간 조치를 받았었다. 또 동아는 정간 이외에도 압수를 당하는 핍박을 받았다.

2) 광복이후 중앙지

광복이 되자 조선, 동아, 양대신문이 복간을 서둘렀다. 이 동안 영문판 서울타임즈, 해방통신, 조선통신, 자유신문, 민중일보, 신조신보, 독립신문, 해방일보, 대한독립신문 그 외에도 많은 특수지가 나와 난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대부분 신문의 사명보다는 혼란 속의 정치 기관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이러한 양상을 보인 신문은 민중속으로 파고들지 못하여 경영난에 부딪혔고 자연 도태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정부 수립 후 제4공화국까지의 신문은 여당지, 야당지, 중도지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편집의 짜임이 뚜렷이 보인 바도 있다.

광복 이후의 중앙지로 독자들을 널리 확보하여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는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며 경제신문으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등이 있다.

<표 1> 광복 이전의 중앙지(중앙지)

제 호	간행별	창 간 년월일	창 간 발행인	참 고
한성순보	순 보	1882	박문국	개화당들이 주관, 관보의 성격을 띰. 갑신정변으로 폐간되었다가 1886년 한성주보로 재발행. 1888년 폐간. 순한문판
독립신문	주3회	1896.4.7	서재필	1898년 윤치호가 운영권을 받아 월간으로 발행. 1899년 폐간.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
협 성 회 회 보	주 간	1898		중도 폐간
경성일보	주2회	1898		일어판. 1945년 존속. 일인들의 기관지
매일신문	일 간	1898		후에 매일신보로 총독부 이용지. 1945년까지 존속.
대한신보	격일간	1898		중도폐간.
제국신문	일 간	1898		중도폐간.
황성신문	일 간	1898	장지연	1905.11.17 한일신협약에 대한 기사인 [시일야 방성대곡] 때문에 1905.11.29 정간. 1906년 정간 해제. 1910.8.3 신문일제단속에 의해 정간. 한성신문으로 개칭. 동년 9.14 강제 폐간. 국한문 혼용지로 민족진영을 일깨움에 공헌
시사총보	격일간	1899		보수계에서 발행. 중도 폐간
상무시보	격일간	1899		〃 〃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주 간	1897.2.2		종교계 신문 〃
그리스도신 문	주 간	1897.4.1		종교계 신문 〃
대 한 매일신보	일 간	1905.8.1	배 열	어네스트 베텔(한국명 : 배열) : 1909년 항일필봉을 들다 감옥에서 얻은 병에 의해 작고. 1910.8.9 통감부가 매수
만 세 보	일 간	1906.6	오세창	이인직의 [혈의 누]소설 연재. 신문소설의 효시 1910.8.18 발행 중지. 8.31폐간
대한민보	일 간	1909		1910.8 폐간
조선일보	조석간	1920.4.6	예종석	발간당시 친일신문. 1924.9 이상협, 이인수, 이상재를 사장으로 할 때부터 민족진영 신문이 되고, 1940.8.10 폐간될때까지 4회나 정간됨. 해방후 속간하여 오늘에 이름.
동아일보	일 간	1920.4.1	박영효	민족진영 신문으로 발족. 주식회사 대표 김성수 1940.8.10 폐간될때까지 4회 정간. 해방 후 속간으로 오늘에 이름.
시사신문	일 간	1920.4.1	민원식	중도 폐간
시대일보	일 간	1924.3	최남선	1926 재정난으로 폐간. 이상이 이를 인수 9월 중외일보(中外日報)로 개칭 속간. 재정난으로 1931년 폐간.
중앙일보	일 간	1931.1.1	노정일	1933.9 여운형이 인수. 조선중앙일보로 개칭 속간 1937.11 발행권 취소.

3) 제6공화국 이후의 중앙지

군사쿠데타로 막을 올린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언론정화라는 기치를 걸고 언론 통폐합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6개 중앙지와 2개 경제지가 발행되었다.

이후 6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자 언론자유화 정책에 따라 신규 언론사 창설 허가에 따른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겨레신문(1988), 국민일보(1988), 세계일보(1988)등 종합지와 경제, 스포츠, 검경,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 소식을 알리는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창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2> 중앙지 함평지국 현황

신문사명	지국장명	주 소	비 고
서울신문	김창성	함평리	기자 겸임
	홍성만	기각리	현임
조선일보	장정현	기각리	기자 겸임
	권병위	기각리	기자 겸임. 함평지역 기자단 제1대 단장
	유판규	함평리	
	홍성만	기각리	서울 신문 겸임. 현임
경향신문	이재욱	함평리	기자 겸임
	김재길	기각리	
	이영기	기각리	
	지국폐쇄		
중앙일보	정상운	기각리	기자 겸임
	신현동	기각리	
	김용균	내교리	현임
동아일보	황의성	내교리	기자 겸임
	심기보	함평리	기자 겸임
	김수진	내교리	
	신자철	기각리	현임
한국일보	김만봉	기각리	기자 겸임
	최홍식	기각리	
	신자철	기각리	
	이진호	기각리	
	이영기	기각리	현임
대한일보	김만길	기각리	기자 겸임. 지국폐쇄
매일경제	이민복	기각리	기자 겸임. 지국폐쇄
한국경제	지광선	기각리	현임
세계일보	김휘남	내교리	
	장종남	함평리	
	국용부	기각리	현임
국민일보	김철수	기각리	현임
한겨레신문	모영주	내교리	
	최권진	함평리	현임

2. 전라남도의 신문

1) 제6공화국 이전의 신문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가장 오래된 신문은 목포일보의 전신인 목포순보(木浦旬報), 그 뒤를 이은 목포신보다. 해방이 되고서는 많은 일간지가 쏟아져 나왔으나, 1950년대까지는 호남신문과 목포일보가 언론의 사명을 다하였다. 이후 1950년대 후반에서는 전남일보와 목포일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다른 도(道)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보다 내용과 인쇄면에서 앞서 갔으며, 전남의 문화창달을 위해 기여한 공이 참으로 컸다고 해야할 것이다. 4·19 혁명후로 신문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고침에 따라 혁명 이전 보다 3배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를 공포하여 신문 또는 통신 발행에 필요한 인쇄 시설을 갖춘 신문만을 남기고 등록을 모두 취소시켜 신문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문사의 통폐합은 1973년과 1980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1980년에는 1도 1지 원칙아래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통합하여 광주일보를 창간하게 된다. 통신도 합동, 동양 통신이 합하여 연합통신이 출범하였고 중앙의 주재 기자가 해오던 지방의 기사 취재와 지방지에 실리는 서울지역 기사를 취재하여 신문에 제공하고 있다. <표 3>은 광복 후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신문들의 연혁을 간략히 묶어본 것이다.

<표 3>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신문

제 명	간별	창간년월일	최초발행인	발행지	참 고
전남신보	일간	1945. 8.31	자치위원회	광주시	해방전 일본인 경영의 광주신보를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전남신보로 개칭 발행함
호남신보	〃	1947. 3.21	이 은 상	〃	전남신보를 1946.11.24 이은상이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운영권 인수. 1947.3.21 호남신문으로 명칭을 바꿈. 1961.5.28 기준시설 미달로 폐간
건국신문	〃	1945		〃	1950년 이전 자진폐간
건국신보	〃	1945		〃	〃
광주민보 동광신문	〃	1945.10.10	고 광 표	〃	1946.4 동광신문으로 개칭 1950.7.22 6·25 전쟁으로 휴간된채 폐간
조선중보 광주신보	〃	1946. 5	명 창 순	〃	1947.1.1 광주신보로 개칭, 1947.7 폐간 9.15 속간,1948.9.1 박철웅이 인수. 1956폐간
목포일보 호남매일	〃	1946. 8. 5	문 재 철 장 기 순	목포시	1899.6.16 목포순보 : 야먀모도 1902 일간지로 바꿈. 일인 야마노 1946.8.5 문재철등 20인이 목포일보로 개칭 발간 1965.1.1 호남매일로 개칭 1973.5.31 폐간
대중신문 여수일보	〃	1945.11. 1 1948. 1	임 병 호 정 재 완	여수시	1948.1 여수일보 개칭 1961.5.28 폐간
전남일보 광주일보	〃	1952. 2.10	김 남 중	광주시	1950.10.3 전남도 기관지로 호남, 동광 진용병합, 판권없이 발행. 1951.11 김남중 판권소유 1952 호남신문 복간으로 분리, 김남중이 사장이 되고 창간호 발행. 지방지로서 지령, 시설 규모에서 전국 으뜸. 1980.11.30 1도 1지 방침에 따라 전남일보와 통합, 광주일보 창간
남도일보	〃	1959. 9	서 태 관	〃	1961.5.28 폐간
전남매일 신 문	〃	1960. 9.16	김 일 로	〃	주간지 농촌중보, 일간지 남도일보를 모체로 출발 4.19를 계기로 태동한 언론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번창함. 1980.11.30 1도 1지 방침에 따라 전남일보와 통합, 광주일보 창간
목포매일 신 문	〃	1960		목포시	1961.5.28 언론정책에 의해 폐간
여흥신문	〃	1960		여수시	〃

제 명	간별	창간년월일	최초발행인	발행지	참 고
순천일보	〃			순천시	〃
순천매일신문	〃			순천시	〃
전남통신	〃			광주시	〃
순천통신	〃			순천시	〃
농촌중보	주 간	1955	이 교 은	광주시	5.16 군사정권까지 유지해 옴. 전남매일 모체
호남자치주보	〃	1959. 9	서 태 관	〃	1961.5.28 폐간
호남평론신문	월 간	1960	박 재 현	〃	〃
전남공론	〃	1960	박 복 주	〃	〃
호남교육신문	주 간	1960	박 원 주	〃	〃
항도경제신문	〃	1960		목포시	〃
여수산경신문	〃	1960		순천시	〃
산경신보	〃	1960		여수시	〃
광주신보	주2회	1969		광주시	1970 폐간
호남교육신문	〃	1970	김 태 준	〃	1980 언론정화때 폐간
광주일보	일 간	1980.12. 1	김 종 태	〃	1980.11.17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이 통합하기로 결의. 광주시 동구 광산구 76번지에서 창간호 발행.지면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1982.1 광주시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 이전

2) 제6공화국 이후의 신문

1980년 1도 1지 원칙아래 탄생한 광주일보가 전남의 소식을 대변하다 제6공화국의 언론 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등일보(1988), 전남일보(1988), 전남매일(1989), 광주매일(1991), 광남일보(1995), 도민신문, 남도일보 등 종합지 성격의 일간지와 호남환경신문(1993), 무등환경신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표 4> 전남지역 종합지 현황

제 명		간 별	창간년월일	최초 발행인	발행소	참 고
광주일보	光州日報	일 간	1980.12. 1	김 종 태	광주시	
무등일보	無等日報	일 간	1988.10.10	박 성 섭	광주시	
전남일보	全南日報	〃	1988.	이 정 일	〃	
전남매일	全南每日	〃	1989. 6.29	안 광 양	〃	
광주매일	光州每日	〃	1991.11. 1	고 제 철	〃	
도민신문	道民新聞	주 간				
전광일보	全光日報	일 간				창간 : 남도일보
호남신문	湖南新聞	〃	1995.12.12	박 기 인	광주시	창간 : 광남일보

3. 1990년대 함평출신 신문인과 보급상황

함평출신으로 신문사에서 중책을 맡아 일한 사람을 들어보면, 해보면 상곡리 출신 윤철이 전남매일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함평읍 진양리 출신 장행운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함평

읍 기각리 출신 이시헌은 동아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광주일보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상규는 제판부장, 윤길전은 사진부장을 역임했다. 손불면 산남리 출신 전덕룡은 씨알의 소리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김영택은 동아일보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함평에는 광복전부터 조선일보 지국, 동아일보 지국이 있었는데 이들 지국 주최로 호남정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체육 진흥에 힘쓴 바 있으며 항일사상을 심기도 했다. 그 후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지사, 지국이 읍소재지는 물론 면소재까지도 파고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6년 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의 지국, 지사와 보급상황을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1971년 군내 총호수는 21,595호였다. 호당 보급률은 35.62%며 전남일보, 중앙일보, 전남매일이 보급상위였고 신아일보와 대한일보가 하위였다.

당시 상황으로 애독자는 한계수가 있고 신문의 지국, 지사 수는 많아 읍면에서 출입께나 한다는 사람은 3가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사람이 10여가지 신문을 보아야 했다. 한 번도 읽지 않고 신문이 며칠이면 책상서랍에 그득히 쌓였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1970년까지는 지국, 지사장이 지방의 기사를 취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폐단이 많았다. 그래서 1971년 지방의 지사, 지국을 보급소로 개칭하고 군청소재지에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사의 특파원이 1명씩 주재하여 기사 취재활동을 하게 하였고 그외 서울 등지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광주에 주재하는 특파원이 맡게 되었다.

이 조치에 의하여 전남일보는 김녕호 기자가, 전남매일은 처음에 노명규 후에 이건진 기자가 기사 취재를 했다. 1980년 12월 1일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신문이 통합하여 광주일보가 되면서 방재호가 주재기자가 되었으며 그간 상당수의 일간지와 경제지가 정리되었다.

<표 5> 일간지와 경제지 지국, 지사 현황

구분 / 신문명	지국 지사장	보급상황	비고
서울신문	홍성만	326	
동아일보	신자철	130	
조선일보	홍성만	250	
경향신문			400부 보급하다 지국폐쇄
한국일보	이영기	200	
세계일보	국용부	300	
중앙일보	김용균	900	
국민일보	김철수	100	
한겨레신문	최권진	200	
광주일보	임기영	670	
무등일보	김광철	900	
전남일보	서영록	900	
전남매일	이경신		
광주매일	이연행	700	
호남신문	김청수	700	
전광일보	김영판		
도민신문			지국 폐쇄

매 일 경 제 신 문	이 민 복		지국 폐쇄
한 국 경 제 신 문			지국 폐쇄
호 남 환 경 신 문	허 종 만	200	
무 등 환 경 신 문	허 종 만	100	

1) 함평출신 광주·전남 언론사 부장급 이상

광주일보 : 김여송, 지형원
무등일보 : 이기홍, 김갑제, 최근휴, 김대종

2) 군민의 신문 구독 실태

제5공화국 출범이후 6개 중앙지 지국과 광주일보 지국에 의해 보급되던 신문이 제6공화국의 언론 자유화 물결에 따라 새로운 언론사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는 9개 신문사에서 보급하는 2,496부와 지방지는 7개 신문사에서 보급하는 4,500부 및 일부 전문지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구 5만 이하의 군세에 비해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광주·전남 지방지 함평지사 역대 현황

신 문 사 명	지사장명	주 소	비 고
호 남 매 일	정 상 운	내 교 리	기자 겸임
	김 용 균	함 평 리	기자 겸임. 함평지역 기자단 제2대 단장
	권 강 한	기 각 리	기자 겸임
	김 재 우	기 각 리	기자 겸임. 신문사 폐간
전 남 매 일	강 봉 규	기 각 리	기자 겸임
	홍 성 만	기 각 리	기자 겸임
	김 용 균	함 평 리	기자 겸임
	권 영	기 각 리	기자 겸임
	노 명 규	학 교 면 사 거 리	기자 겸임
	이 건 진	기 각 리	기자 겸임. 신문사 폐간
전 남 일 보	김 호 근		기자 겸임
	김 용 균	함 평 리	기자 겸임
	김 녕 호	기 각 리	기자 겸임. 신문사 폐간
광 주 일 보	방 재 호	기 각 리	기자 겸임
	윤 영 수	기 각 리	기자 겸임
	이 권 행	내 교 리	기자 겸임
	김 영 인	내 교 리	기자 겸임
	윤 영 수	기 각 리	기자 겸임
	임 기 영	기 각 리	기자 겸임. 현임
무 등 일 보	김 광 철	내 교 리	기자 겸임. 현임
전 남 일 보	서 영 록	기 각 리	기자 겸임. 현임
전 남 매 일	김 청 수	기 각 리	기자 겸임
	한 호	기 각 리	기자 겸임
	이 경 신		기자 겸임. 현임
광 주 매 일	이 연 행	기 각 리	기자 겸임. 현임
호 남 신 문	김 청 수	기 각 리	기자 겸임. 현임
전 광 일 보	김 영 판	학 교 면 사 거 리	기자 겸임. 현임
도 민 신 문	조 광 희	기 각 리	기자 겸임. 지국폐쇄
호남환경신문 무등환경신문	허 종 만	내 교 리	현임

4. 2000년대 이후 함평군청 출입으로 본 신문사와 출입기자

5공의 서슬 퍼런 언론 통폐합 이후 6공의 언론 자유화 정책은 “신문의 홍수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신문의 창간과 폐간, 복간 등의 계속됨은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종류와 부수(部數)마저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 뉴스의 빠른 보급은 “정보의 홍수”속에 살게 만들었다. 또한 이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창간된 지역신문사들은 지역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의 함평지역의 언론을 알리고자 했으나 잦은 기자의 교체와 군청 출입 언론들의 교체의 어려움이 있어 2010년 4월 8일 현재로 국한하려 한다.

2010년 4월 8일 현재 함평군청 출입 언론은 방송사를 제외하면 지방신문 15개사, 지역신문 6개사, 인터넷뉴스 3개사, 중앙신문 2개사, 통신사 2개사, 주간신문 1개사, 기타 5개사 등 모두 31개사가 있다.

이들의 각 신문사와 출입기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방신문사 : 15개사

언론사	기자명	언론사	기자명	언론사	기자명	비 고
광주일보	황 운 학	광남일보		전광일보	임 왕 택	
무등일보	정 창 현	남도일보	이 경 신	아침신문	문 숭 용	
전남일보	서 영 록	희망일보	전 석 현	광주타임즈	나 근 채	
전남매일	윤 예 중	일간광주신문	임 기 영	호남매일	이 경 재	
광주매일신문	이 병 석	호남신문	김 광 춘	남도투데이	김 승 남	

지역신문사 : 6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함평신문	임 요 준	함평군민신문	김 명 욱	노령신문	이 민 행	
함평천지신문	김 상 석	연합군민신문	김 정 훈	함평중앙신문	권 기 덕	

인터넷뉴스 : 3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함평누리뉴스	김 진	영광·함평인터넷뉴스	박 청	함평뉴스	김 용 균	

중앙신문사 : 2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한 국 일 보	박 경 우	아시아일보	배 정 빈	

통신사 : 2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연 합 뉴 스	김 재 선	뉴 시 스	맹 대 환	

주간신문 : 1개사

언 론 사	성 명	비 고
전 남 환 경 신 문	허 종 만	

기타 : 5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환 경 일 보	고 광 춘	서 울 일 보	국 승 보	다문화포커스	김 학 수	
수 도 일 보	김 성 진	목 포 일 보 사	권 향 렬			

제2절 방 송

1. 방송의 발전개요

세계 최초의 방송은 1920년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KDKA가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일보 주최로 1924년 봄에 시험방송을 했고 같은 해 6월 총독부 체신국에 방송실험실을 설치하였다.

1925년 8월 15일 당시 전국 라디오 수신기는 5대, 광석식인 수신기 값은 1인용이 10~100원 10인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100원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없다.

1926년 11월에 경성방송국이 설립된 후 1927년 2월 16일부터 한국어와 일어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3월 말의 청취 허가자는 한국인 949명, 일본인 4,161명, 그외 외국인 12명, 계 5,122명이었다.

1932년 4월 7일 경성방송국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바꾸었고 1948년 9월 3일 국제 무선통신회의로부터 HL의 무선통신부호를 할당받았다.

우리 전남에는 1942년 3월 공보실 광주지방 방송국이 세워진 후 목포, 여수, 순천 등에 방송국이 세워졌고 1960년대에는 광주문화방송 등 상업방송이 전파를 탔고 1970년대에는 흑백TV시대를 맞았으며, 1980년대에는 첨단의 천연색 TV시대로 들어섰고 상업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가 1990년대부터 공영과 상업방송이 경쟁을 벌이며 격조높은 교양, 교육 및 오락 방송에 괄목할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함평출신의 방송계 활동과 방송 매개체 현황

함평출신으로 방송계에서 큰 직책을 맡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방송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광면 월암리 출신의 이종만, KBS 중앙방송국 기술부장 박상규(엄다면 화양리), MBC TV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연헌(李年憲)등이 있다.

또 김영진(金永珍)은 문화방송, 양길배(梁吉培)는 KBS 광주방송국의 주재기자로 1970년대 중반까지 지역발전과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은 바 있다.

1997년 현재 각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평 출신으로는 백운기, 정두숙, 박충원 등이 있으며 아나운서로 광주문화방송에서 나선희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KBS라디오 방송의 PD로 일하는 임종성과 KBS TV의 PD로 활동하는 홍경수 등도 추가되고 있다.

방송 매개체 보급 상황을 보면 1950년대말부터 유선방송망이 가설되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4,586가구가 유선방송의 스피커를 통해 음악과 새소식을 들었다. 1967년부터는 트랜지스터의 보급으로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들었었다.

TV가 크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며 1981년부터는 천연색 TV가 방영됨으로서 천연색 TV시대가 열렸다.

1990년 이후부터 케이블 TV시대가 열려 함평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를 시청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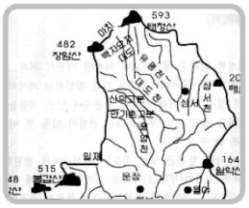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여기에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전국적인 망 확보는 전국을 한 권역에 놓게 만들었다.

함평군청을 출입하는 방송국과 기자는 다음과 같다.

방송사 : 6개사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언 론 사	성 명	비 고
KBS광주방송총국	김 광 진 류 성 호	KBC 서부지사	강 동 일	CMB 광주방송	김 영 훈	
목포 MBC	장 용 기	YTN 광주지국	김 범 환	MBN	지 영 봉	

제16장 함평의 문학(文學)과 예술(藝術)



제1절 문 학 (文學)

1. 고대(古代)의 문학 활동과 유고(遺稿) 및 문집(文集)

인재의 고장으로 전해져온 함평에서는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유수한 인물들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연이어 배출되어 왔다. 하지만 특히 고전문학이나 옛 연예계의 경우는 한문과 풍문으로 전해진 예전 작품의 자료 접근, 조사가 제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 활동한 분들 역시 각 분야에 흐트러진 채 너무 많아 조사도 체계화되지 않은 면이 많다. 따라서 여기 기록하는 대상자 밖에도 본의 아니게 더러 누락될 소지가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조사자의 노력과 함께 대상자 스스로의 협조에 관한 문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함평고을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기초 작업 삼아 정리해둔다.

•정개청(鄭介淸, 아호: 困齋)의 우득록과 수수기

이 분야 가운데서 맨 먼저 꼽힐 분은 일찍이 우리 고을에 고성 정씨의 입향조(入鄕祖)로서 터를 잡고 임진왜란 이전 무렵부터 문명(文名)을 온 나라에 떨친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이다. 본디 나주에서 태어나 초시에도 여러 번 합격하여 곡성현감 등을 제수 받았으나 팔 개월 만에 스스로 벼슬을 그만 두었다. 1567년경에 엄다면 제동에 정착하며 윤암정사(輪岩精舍)를 세워 학문에 정진하여 유학을 비롯한 역사, 천문, 지리, 역학, 산수, 전진법(戰진法), 약학 등에 걸쳐 폭넓은 학문을 쌓았다. 나중에는 임금으로부터 친히 자산서원(紫山書院)사액을 내릴 만큼 전국적인 규모로 여러 제자를 길러냈던 것이다. 당시 선조대왕도 곤재를 아꼈고 영의정 박순은 "주정자(朱程子) 뒤의 한 사람"이라 칭송한 그를 팔도도원수로 천거한 바 있으며 유성룡 또한 "호남 사람 중 더 덕망이 높으며 학술과 행검으로 자임하였다"할 정도로 곤재는 학덕을 지닌 인재였다. 일찍이 화담 서경덕의 문하에서 이문을 얻어 정주학의 체계를 세운 곤재는 올곧은 선비로서 내로라하는 당대의 유학자였고 문장가였다.

그의 유저 중 『우득록』 목판은, 1987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고 이듬해에는 그 유저가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국역본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1616년에 사액(賜額) 받은 옛 서원은 그 동안 숱한 당쟁 속에서 너덧 번의 훼철과 복설을 거듭해 온 끝에 수세기가 지

난 근년에 관계 당국과 문중 및 뜻 있는 분들의 협력에 의해 1998년에 여섯 번 째의 현세적 모습으로 완건 되었다. 다만 문장가로서 집대성된 저서라 할 수 있는『수수기(隨手記)』9권이 조선조 당시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실되어 여러 언서 시조 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전에 없이 치열한 당쟁에 희생된 곤재가 39세 때부터 논학 (論學), 석의(釋義), 논례 (論禮), 논리(論理), 산수, 의학, 역학(易學) 등을 다룬 역저인『우득록(愚得錄)』세 권은 왕명에 의해 사후에 간행되어 시 일부도 전해진다. 당시 "동방의 참된 선비로서 모름지기 이황(퇴계)에 버금간다."고 곤재를 기린 윤선도와 허목이 손수 고정(考訂)을 본 이 책에는 다행히 한시(漢詩)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상사나 학문에 대한 소감과 선비의 의연한 기개및 인간미 넘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무제(無題)」「서고청과화하여 운을 일으킴(和徐孤靑)」「회포를 술회함(述懷)」「회포를 읊음, 3수(詠懷, 三首)」「박사암의 운에 차운함(次朴思菴韻) 」은 『한국명시선』에 올라 있다.

•나덕원(羅德元, 아호: 沙潭)의 사담집

사담 나덕원(沙潭 羅德元, 1548~1610?)은 본디 관향인 나주 문평에서 태어나서 학교면 금송리로 이거해온 금성 나씨 이조판서공파 입향조이다. 곤재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은 그는 덕행과 학문으로 널리 알려졌다. 후손들에 의해서 2005년에 번역, 출간된 시문집『沙潭集』에는 사담의 행적과 그의 시 작품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1573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그는 임진왜란 때에는 뜻 있는 친인척들과 분연히 창의하고 앞장서서 전라도내 여러 주와 군현에서 수천의 의병을 규합해 싸웠다. 1594년에 오수(獒樹) 찰방에 제수되고 함창(咸昌)현감을 지내는 동안에 일어난 정유재란을 당해서는 손수 관하 군사들과 병마를 이끌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가등청정 군대 진지를 공략해 전과를 올린 바 있다. 그리고 두 왜란이 끝나자 귀향한 사담은 글쓰기와 위선사업 및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609년에 묶어놓은 이 시문집에는 만서(漫書)와 한시 308편, 기(記) 2편이 수록되어 있다. 1권에는 서와「過長水新院」등 오언절구 44수,「次梅竹軒韻」등 오언율 50수, 2권에는「次思君韻」등 칠언절구 179수,「登僊岩臺」「宿廣州村」등 칠언사율 23수 분포로 실려 있다.

•이덕일(李德一, 아호: 漆室)의 칠실유고

대동면 향교리 출신의 선비로서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덕일(李德一,1561~1622)의 작품이 돋보인다. 그의『칠실유고(漆室遺稿)』에 남긴 우국가(憂國歌)는 국한혼용(國漢混用)의 가사문학(歌辭文學)으로서 새롭게 평가할 작품이다. 왜란 때 전공을 세우고 병조좌랑, 통제영 우후 등을 지낸 뒤 낙향하여 스스로 "칠실"이란 작은 집을 짓고 은거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을 담아낸 시가이다. 언뜻보면 시조처럼 매 장마다 초장, 중장, 종장 형식으로 28장을 이룬 우국가(憂國歌)는 내용이나 배경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진, 정유 왜란의 뼈아픈 체험을 되새겨 읊은 노래, 사색당쟁을 보고 상심한 노래, 충심으로 간청하고픈 심정을 읊은 노래 등이 그것이다. 일찍이 남달리 빼어난 문장을 익힌 그는 함께 과거(科擧) 별시(別試)에 응

시 했던 영광 태생의 강항(姜沆) 등이 권유하던 문과보다 난세(亂世)에는 오히려 무과가 필요하다며 한사코 무과 을과(乙科)에 응시, 급제한 경력과 함께 문무를 겸전한 선비로서 더욱 빛난다. 이덕일 장군은 특히 정유재란 때 손수 많은 향병(鄕兵)을 모집하여 함평 고산봉 골짜기(고산골)와 신광 동막골 전투에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는 것이다.

•윤제(尹濟, 아호: 守貞)와 윤정우(尹挺宇, 아호: 松墩)의 교재집

그리고 위와 같은 시대에 엄다면 성산에 정착한 수정(守貞) 윤제(尹濟, 1562~1645)와 송돈(松墩) 윤정우(尹挺宇,1603~1690)부자(父子)가 쓴 시가가 주목된다. 수정은 무안현의 송구리(태봉)에서 태어나서 함평으로 이사와 산 성산(星山)의 파평윤씨 입향조로서 곤재의 수제자로 일컬어진다.“상덕대전(尙德大典)”에서처럼 부자의 도리를 함께한 책이라는 뜻의 『교재집喬梓集)』에 실린 수정의 「심덕성가(心德性歌)」다섯 수와 송돈의 「기우가(奇偶歌)」아홉 수는 국한문 혼용체의 시조들로서 이 유고집에 우의정을 지낸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서가 붙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전자의 시조는 곤재의 수제자로서 스승이 당쟁에 희생된 현실에서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힘써 당대 호남의 석학으로 꼽혔던 수정의 학문적인 자세를 드러낸 가사문학 작품이다. 마음과 덕성과 성품을 내세운 제목에서처럼 곤재의 『우득록』을 읽은 소감 등 한시 12수에 섞여 있는데 스승을 따라 성리학(性理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조인 것이다. 또한 후자인 수정의 자제 송돈의 시조들은 한시 「自詠」 등 37수의 한시 속에다 홀수와 짝수 노래라는 시조 이름처럼 주역(周易)의 음양오행이나 팔괘 등의 태극 이치 풀이에 바탕을 둔 가사로서 수학적인 면에서 독특한 경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진문(李振門, 아호: 後齋)의 경번당가

1573년 나산면 초포리 태생으로 광해군과 인조 연간인 1630년까지 생존했던 이진문(李振門)의 시조 「경번당가」 14수도 근래 학계에서 발견되어 추가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무과 주부(武科主簿)를 지낸 그가 관서의 관방에 나가 겪은 일들을 기록한 필사본 『봉사부군일기(奉事府君日記)』의 뒷부분에 수록해 두고 있는 월령체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월 한 보름달 돌가 ᄂᆞᄂᆞᆫ 사ᄅᆞᆷ돌하/ 산너머 하ᄂᆞᆯᄉᆡ애 구름 소옥글 보ᄂᆞ슨다/우리도 ᄃᆞᆯᄀᆞ본님을 두고 비초여나 보고져/”- 이렇게 시작하여 일 년 열 두 달의 세시(歲時)적 정경이나 공방(空房)에 있는 여성의 정감을 연시조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나각(羅珏, 아호: 松坡) 의 송파록

1574년 함평읍 가동리에서 태어나 자는 연보(連寶), 호는 송파로 썼다.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효행이 두드러졌던 그의 덕행을 높이 사서 창릉(昌陵)에 제수하였다. 월사(月沙,이정구)의 문하생인 그는 정묘호란 이후 고향에 돌아와 있다가 병자호란 때는 사위와 함께 의거하여 남한산성에 군량과 의병을 보내기도 했다. 유고집은 1644년 송파가 작고하기 수년 전인 1641년에 상하 두 권으로 후손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의 시에는 「전주성에

서 의병을 해산하고 사위 이시우가 귀향하던 날」「사호에 배띠우고」「연기 서린 언덕에 목동의 피리소리」「가을밤에」「기성태수 이홍망께」「송도를 지나며」등에서처럼 외세의 침략에 대한 가족의 대응과 영산강변 사포에서 지내는 전원의 정취 및 옛 추억이나 함풍 현감에 보내는 글 등의 일상적 주변의 삶과 서정성 짙은 향취가 스미어 있다.

•윤제민(尹濟民, 아호: 岑鼎子)의 잠정자시집

1634년 대동면 상옥리 태생인 선비로서 19세에 진사과에 합격했다. 당대에 호남의 명문장가로 꼽히던 인물로서 처음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1690년 작고하기 이전까지 여러 벼슬도 지냈다. 성균관 선비들의 추천에 의해 공릉참봉이 된 후 내자봉사(內資奉事), 사헌부 감찰을 거쳐 만년에는 학성(鶴城) 현감으로 고을을 일으켜 지방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전한다. 이런 그의 한시들은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창의의 주역이었던 윤황(아호: 老坡)과 윤길(아호: 夢坡) 형제에다 윤황의 증손인 그(윤제민)까지 세 사람(三賢)의 글을 모은 『三賢實記』가운데 4, 5, 6권에 실려 있다. 그의 한시들에는 「시대를 탄식함」「역사를 읊음」「웅진을 지나고」「아내의 죽음을 슬퍼함」「옥수암에서 옛날을 회고함」등에서처럼 시대상과 역사의식 및 개인사에 걸친 문제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태희(李泰熙, 아호: 愛吾齋)의 애오재문집

신광면 월암리 태생인 애오재 이태희(1761~1823)는 일찍부터 출중한 인물로 성장해 왔다. 정조와 순조 때 예조좌랑과 병조좌랑을 거쳐 사헌부 장령, 통례원 좌통례 고산찰방 등을 지냈다. 이렇게 오랜 관직생활 중에 백두산이나 칠보산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여러 지역을 방문하거나 생활했던 경험을 지녔다. 이런 경륜이나 체험을 살려 쓴 그의 글을 그의 후손들이 문집으로 보관해 온 것이다. 필사본으로 전해진 문집 2권 2책에는 한시 448수가 실려 있다. 「南幸歌」「朴淵次韻在松都大興山城」「金剛窟」「長白山積雪」등은 여느 문사의의 글세계와는 다른 맛을 보인다.

•안지환(安志煥, 아호: 太虛齋)의 태허재 유고

1774년 나산면 출생으로 문간공(文簡公, 송치규)의 문하생으로서 당시 문명이 높았다. 시문이 뛰어나서 경향 각지의 선비와 관원들이 그의 한시를 베껴 써 간수할 정도였다고 전한다. 1851년에 작고한 그의 『太虛齋遺稿』가운데 실린 한문시에는 「무명꽃 (木綿花)」「주포에서 명승지를 두루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등의 서정성을 띤 것과 「새 살림을 시작하면서(新寓)」「함평에서 부른 노래(咸歌)」등의 일상생활을 노래한 내용이 많다. 그런가 하면 그밖에 「열 가지 군정(十丁)」이라 해서 젖먹이 아이나 노인들에게까지 억지로 일을 강요하고 세금 매기는 위정자들을 지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의 글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나 후손들이 찾아 모아서 문집으로 햇빛을 본 것이다.

•김두삼(金斗三, 아호: 潁濱)의 영빈유고

또한 구한말 무렵에도 백여 편의 한시(漢詩)작품을 남겨놓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손불

면 장동 출생의 영빈(潁濱) 김두삼(金斗三, 1844~1931)을 들 수 있다. 성리학에 밝고 조예가 깊은 그는 향리인 죽장리에 스스로 영빈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러 글월을 남겼다. 자신의 호를 따온 『영빈유고(潁濱遺稿)』에는 전원의 삶에서 느끼는 애환과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의 마음을 읊은 2백여 편의 율시(律詩)로 써놓고 있다. 「초당의 봄날, 두 수(草堂春日 二首)」 「답답함을 풀며(遣悶)」 「국상을 당하여 산에 올라 망곡함 (丙寅方喪登山望哭)」 등에는 간절한 우국충정이 드러나고 있다. 영빈유고는 그의 손자인 규일(珪馹, 아호: 弦齋)이 1945년에 유고를 정리하여 김병찬의 서문을 얻은 후 1967년에 한문본을 발간했고 다시 1988년에 증손 김연수 등이 앞장서서 국역본으로 펴냈다.

•정경식(鄭慶植, 아호: 愛橘재)의 애귤재유고

또 1845년 학교면 표산 태생의 애귤재(愛橘齋) 정경식(鄭慶植, 1845~1889)은 충효사상과 향토성 짙은 서정시들을 썼다. 그는 열 살 안팎 때는 열사서삼경을 통달하고 부모 모시는 효성이 남달랐을 뿐더러 우국충정이 두드러졌는데 그런 마음과 삶이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의 작품들은 손수 아호로 이름 지은 한시들과 기타 한문 작품집 『애귤재유고(愛橘齋遺稿)』에 실려 있다. 그의 유고집은 한시 244수 가운데 92수, 서찰 19편, 제문 3편, 명(銘) 3편, 잡저 3편 등으로 되어 있다. 그의 작서 한시 「숲속의 까마귀(林烏)」「어버이 성묘길의 감회(省掃親山感懷)」, 「국상 날에 (國恤)」, 「용천사에서 노닐며(遊龍泉寺)」 등은 친근감을 더 한다.

•홍승안(洪承晏, 아호: 警堂)의 경당시고

뿐만 아니라 신광면 벽유동 태생의 선비로서 20대 중반의 아까운 나이로 요절한 홍승안(洪承晏, 1887~1911)도 귀한 글을 남겼다. 서리어린 달과 돌아오는 기러기(상월귀안 「霜月歸雁」) 등의 격조 높은 율시(律詩)들을 유고집인 『경당시고(警堂詩稿)』에 실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박봉혁(朴葑赫, 아호:守齋)의 영언전

함평인으로 노래 글(歌辭)이나 노래글 모음(歌辭集)을 남긴 분의 작품으로는 수재 박봉혁(守齋 朴葑赫, 1878~1935)이 있다. 송난곡(宋蘭谷)의 문하생으로서 당대에 호남에서 손꼽히는 학자로 전해진다. 그가 남긴 8권 3책의 수재유고에는 총 207편의 글이 편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그의 『영언전(永言傳)』에 수록된 이들 민요조 및 단가체 시가들은 구한말의 나라 빼앗긴 울분과 친일 세력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함평 출신의 문집이나 옛 시문학 작품은 수 없이 많다. 나산면 출신 안여기(安汝器), 신유장(辛裕章 아호:晩悔), 이돈현(李敦賢,아호:三悔齋), 이명룡(李明龍,아호:戒逸軒),정영필(鄭英珌,아호:晦山), 엄다의 서계종(徐啓鐘,아호:愚石), 서명종(徐明鍾, 아호:玉峰), 함평읍의 윤영호(尹榮浩, 아호:箕山齋) 등.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나 국문 시가문학 작품이 아니라 일기를 주로 한 수필장르에 포

함될 다음의 일록류(日錄類)는 색다르고 흥미로운바 많다. 그것은 정유재란 때 왜병들의 침탈을 피하여 가까운 가족 일행이 바다로 나가다가 칠산 바다에서 납치되어 일본에 끌려가 지내다가 삼년 만에 되돌아온 전란의 체험기 세 권이다. 이 이색적인 기록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가다 같은 장소(일본 南海道 阿波州 猪山城)에서 함께 납치생활을 한 이야기이므로 중복된 내용도 많지만 그런대로 형제와 조카의 시각이 상이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정경득(鄭慶得, 아호:湖山)의 만사록

『만사록(萬死錄)』은 월야면 월악리 출생의 정경득(1569~1630)이 정유재란 당시 고향에서 왜병들의 만행을 면하려 바다로 일가친척들과 피난 나가다 서해에서 둘러싸여 잡힌 나머지 일본 땅에 갇힌 채 3년 동안 겪은 기록문학이다. 기록은 정유재란에 피난 떠나기를 논의하던 1597년 8월 중순부터 귀국 후 3년째까지의 일이 적혀 있다. 칠산 바다에서 왜선에 포위되자 아녀자 여덟은 모두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는 장면이 여실한 공본 땅준다. 일기체로 쓰이어진 문집에는 왜란 당시의 수난과 혼란 일및 일본 현지의 풍물 등이 수많은 시문(詩文)들과 함께 실감 있게 실려 있어 흥미도 있다. 특히 저자인 호산 정경득은 적국에 가서도 그곳 스님들로부터 시문과 인품일및 충효정신으로써 가객(佳客)으로 대접받다가 적장(家政)을 감화시킨 나머지 친족 여럿과 외지 사람들까지 데리고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1598년 12월 그믐날의 일기를 참고해 볼만 하다.

– 왜인들도 역시 해가 바뀌는 것을 알아 집집마다 모여서 마신다. 왜인 주인이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한다. 스스로 생각하니 이 해도 다 갔는데 아직도 딴 나라의 나그네 신세이니 오늘의 회포 평시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 이날 박수영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서울사람으로 예빈시 서리(禮賓寺書吏)로 있다가 임진년에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정희득(鄭希得,아호:月峰)의 해상록

이 기록은 정경득의 아우인 정희득(1572~1640)이 정유년 피난 때 왜인들에게 잡힌 몸이 되어 함께 겪은『萬死錄』내용에다 일부만을 첨삭하여 그의 증손(德休)이 후에 표지 이름을 바꾸어 전한 것이다. 같은 포로처지로 일본인 땅에서 여러 친척들과 삼년동안 겪다가 돌아온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전자와 시간이나 배경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왜적들과의 삶에서도 이미 그곳에 잡혀와 지내는 영광의 강항(姜沆), 광주의 고경민, 창평의 이갑 소식을 듣고 풍신수길이 죽은 풍문도 알아차리는 사정이 흥미롭다. 가벼운 천(훈도시)으로 배꼽아래 부분만 가리는 등의 일인들 풍속을 묘사한「왜속」은 물론 칠산 바다에 투신했던 아픔에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내게 밥 주는 것을 보고 깨어나 슬퍼함」등이 눈에 띤다. 이 문집 말미의 부록인 <風物記> 는 당시 왜병들에게서 유사한 포로 체험을 기록한 이웃고을 영광 출신 강항(姜沆)의『看羊錄』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참고 된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1599년 7월 20일 자 해상록 일기도 눈에 띤다. –“집에 도착했다. 입성(入城)하셨던 아버님이 밤에 돌아오셨다. 손을 잡고 슬피 울었다. 어머님은 기둥이시다.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다에서 겪은 변고를 생각하니 망극하고

또 망극하여 하늘에 우러러 부르짖고 땅을 치니 오장이 찢기고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의 여덟 살 된 기(奇)가 옷을 당기며 슬피 울었다. 이날의 회포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다. 아들 우(遇)는 초동의 처가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지 못했다.가련하다. 집은 불타 없어졌고 거리도 변했으며 마을도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도 옛날 같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것 비통뿐이다. 오직 돌아와 아버님 모시는 것만이 다행이다.

•정호인(鄭好仁, 아호: 隱窩)의 정유피란기

또한 19세 때 친동생(호례)과 함께 배를 타고 왜병들을 피해 가다가 같은 신세가 되었던 정호인(1579~?)의 『丁酉避亂記』 역시 주목을 끈다. 이 한문기록은 집안 아저씨(족숙)인 정경득이나 정희득의 그것과는 차이가 난다)의 1579년 8월 12일부터 1599년 7월 23 같은 310여 일의 삶을 일기문 형식으로 적었다. 날짜도 위 족숙들의 경우와 많이 겹치지 않는 편이다.일본 현지에서 왜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호인은 글을 잘 모른다고 외면한다. 시를 지으며 더불어 놀자는 의승(醫僧 長延)이 청을 하는데도 거절하자 스님의 노염을 사서 보름동안 밥마저 굶김을 당하기도 했다. 일인들 호의를 거절한 것은 피난 나오는 배에서 부모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데 따른 적대의식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에 상관된 선비의식 때문이다.

1599년 4월 27일 자의 일기에서 정호인의 심사를 살필 수 있다. 삼년 갇혔다가 다행히 돌아오는 도중 또 다른 섬의 왜인들에 잡혀 있는 중에 쓴 시이다. 밤에 죽으려는 것 마냥 구슬프게 우는 새소리를 듣고 족숙이 읊은 시에 차운한 한시이다.

–“이 몸이 죽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니
너와 더불어 슬피 우는 한과 다를 바 없구나
이미 그물 벗어나 환고향하는데 도리어 조롱 속에 갇혔으니
지금은 혼이나마 꿈에 고국강산을 넘어 가네”

참고로 옛날 함평인의 문학 활동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유고(遺稿)와 여러 문집인데 옛 군지(郡誌)에 유고와 문집이 있다고 기록된 사람들을 가문별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고(遺稿) 및 문집(文集) 일람(一覽)

성 명	본 관	아 호 (雅號)	문 하 (門下)	유고·문집	참 고
김응인(金應仁)	고성	남 파(南 坡)		유 고	
김원삼(金原三)	〃	지 곡(芝 谷)		〃	
김남식(金南式)	〃	숭정처사(崇禎處士)	송연재와 교유	〃	
김재신(金在臣)	광산	수 현 당(守 玄 堂)	신독재(愼獨齋)	〃	인조조(仁祖朝)
김영환(金永煥)	〃	송 암(松 菴)	조숙재(趙肅齋)	〃	순소조(純祖朝)
김 훈(金 勳)	〃	동 해(東 海)		〃	
김두삼(金斗三)	〃	영 빈(潁 濱)	기정진(寄蘆沙)	유고집	
김병찬(金秉燦)	〃	소 산(小 山)	송병선(宋秉璿)	〃	시224, 수, 서간15편
김기순(金箕舜)	〃	초 연 재(超 然 齋)	전우(田遇)	〃	
김석환(金錫煥)	김해	지 송(遲 松)	최익현(崔益鉉)	유 고	
김두환(金斗煥)	〃	국 포(菊 圃)	최익현(崔益鉉)	〃	
김기서(金麒瑞)	낙악	농 은(聾 隱)	박농산(朴濃汕)	〃	
김선일(金善一)	선산	성 헌(省 軒)		문 집	

성 명	본 관	아 호 (雅號)	문 하 (門下)	유고·문집	참 고
김병규(金秉圭)	〃	만성재(晩醒齋)	허목(許穆)	〃	현종조(顯宗朝)
나 각(羅 珏)	금성	송 파(松 坡)		〃	시문(詩文) 550수
나도의(羅燾毅)	〃	금 와(錦 窩)	이정구(李廷龜)	〃	국역본발행
노 호(魯 浩)	함평	농 계(聾 溪)		유 고	
노관국(魯覽國)	함평			〃	
노태신(魯泰臣)	〃	육영재(育英齋)		〃	
노유탁(魯愉鐸)	〃	유 남(悠 南)		〃	
노정채(魯貞采)	〃		전우(田遇)	〃	
노극창(魯克昌)	광산	송 계(松 溪)	〃	문 집	시집(詩集)
노철수(盧澈秀)	〃	백 천(百 泉)	김잇후와 교유	〃	남원부사 역임
모윤천(牟潤天)	함평	성 암(省 庵)	전우(田遇)	유 고	
모병기(牟秉基)	〃	묵 헌(默 軒)		시 집	
모대혁(牟大赫)	〃	남 당(南 堂)		유 고	
모종관(牟鐘寬)	〃	유 천(柳 川)	기우만(奇宇萬)	유고집	
박봉혁(朴葑赫)	밀양	수 재(守 齋)			조선조유물항 볼 것
서봉관(徐鳳寬)	이천	동 강(東 岡)	송병화(宋炳華)	유 고	영언집가요편을 볼 것
신동욱(辛東旭)	영산	심 사(心 史)	최익현(崔益鉉)	〃	
신태준(辛太準)	영산	취 석(醉 石)			
심 서(沈 曙)	청송	부의당(扶義堂)	창수록(唱酬錄)	유 고	
심의종(沈宜宗)	〃	간송당(澗松堂)	송시열과 교유	〃	
심수택(沈守澤)	〃	남 일(南 一)		〃	
모유추(牟有秋)	함평	금석당(金石堂)		〃	『진지록(津知錄)』
모일성(牟一成)	〃	석옹루(石翁樓)		〃	
심훈택(沈勳澤)	청송	백 헌(栢 軒)			『石翁樓遺稿』
안여해(安汝諧)	죽산	이병재(理病齋)		동유록(東遊錄).	
양영석(梁永錫)	남원	설 계(雪 溪)	창수록	창수록	
오영진(吳永晋)	낙안	은 암(隱 岩)	허목(許穆)	시 집	
유화준(兪和濬)	기계	성 재(省 齋)	오준선	시집 2권	
윤삼거(尹三擧)	파평	사매당(四梅堂)		유 고	
윤용규(尹龍奎)	〃	모술재(慕述齋)	전우(田遇)와 교우	문 집	
윤기진(尹璣鎭)	〃	국 파(菊 坡)	송시열(松시열)	〃	
윤자경(尹滋敬)	〃	파 옥(坡 玉)		유 고	
윤항식(尹恒植)	〃	추 당(秋 塘)	기노사와 교유	〃	
윤세함(尹世咸)	〃	사 헌(思 軒)		〃	
윤상기(尹相琦)	〃	희 암(喜 庵)	최정진(崔勉庵)	문 집	
윤철성(尹哲成)	〃	치 당(恥 堂)		유 고	
윤화규(尹華圭)	〃	송 암(松 庵)	동해김훈(東海金勳)	〃	헌종조(憲宗朝)
윤규병(尹珪炳)	〃		전우(田遇)	〃	
윤갑진(尹甲鎭)	〃			〃	
윤상원(尹相元)	〃	남 고(南 皐)		〃	
윤상익(尹相益)	〃	남 파(南 坡)		유 고	
윤경은(尹卿殷)	해남	해 당(海 堂)	장헌주(張憲周)	〃	
이태희(李泰熙)	경주	애오재(愛吾齋)		〃	
이유중(李裕中)	〃			〃	
이윤규(李允圭)	〃	노 호(蘆 湖)		시 2 권	순조조, 국역본 발간
이성구(李性求)	한산	춘 파(春 坡)		유 고	
이유인(李有仁)	함평	파 우(坡 遇)	기우만(寄宇萬)	문 집	
이철헌(李轍憲)	〃	죽성재(竹城齋)		〃	수 32수 등 다수
이수온(李壽溫)	〃	엄 대(嚴 臺)	허목(許穆)	유 고	
이수담(李壽聃)	〃	덕 암(德 巖)		〃	
이유찬(李儒讚)	〃	춘 파(春 坡)	송환기와 교유	〃	
이주헌(李周憲)	함평	상 실(尙 實)	기정진과 교우	〃	송증헌선
이동명(李東明)	함평	회 재(晦 齋)		〃	
이호서(李滈緖)	〃	회 은(晦 隱)		〃	
이봉헌(李鳳憲)	〃			시·유고	
이계택(李啓宅)	〃	현 은(峴 隱)		유 고	
이일범(李一範)	〃	만오당(晩悟堂)		〃	
이돈기(李敦琦)	〃	초 은(樵 隱)	윤추당(尹秋塘)	〃	

성 명	본 관	아 호 (雅號)	문 하 (門下)	유고·문집	참 고
			오준선(吳駿善)		
장장섭(張長燮)	인동	난 파(蘭 坡)	임헌회(任憲晦)	〃	
정개청(鄭介淸)	고성	곤 재(困 齋)		〃	
정재필(鄭在弼)	진주	미 재(薇 齋)	서경덕(徐花潭)	우 득 록	순조조, 국역본 발간
정 준(鄭 浚)	〃	추월당(追越堂)	전재임헌회	유 고	
정종식(鄭鐘式)	진주	죽 은(竹 隱)		유 고 집	
정병휴(鄭炳休)	〃	성 암(省 菴)		유고 3권	
정경식(鄭慶植)	〃	애귤재(愛橘齋)	전우(田遇)	문 집	
정상연(鄭相然)	진주	화 담(花 潭)	기정진	〃	시 92, 서간 19편 등
정재영(鄭在榮)	〃	목 전(木 田)	정도원(鄭道源)	유 고	
정재회(鄭在晦)	〃	전 와(全 窩)	전재임헌회	〃	
정응휴(鄭應休)	〃	성 헌(醒 軒)	〃	〃	
정상열(鄭相烈)	〃	화 담(花 潭)	정재필(鄭在弼)	〃	
정 균(丁 均)	압해	해 학(海 鶴)		유 고 집	시 150수 등
정종현(鄭琮鉉)	〃	율 림(栗 林)		유 고	
조의윤(趙懿允)	한양	야 은(野 隱)		유 고 집	시 55수 외
조방윤(趙邦允)	〃	계 은(溪 隱)	김훈(金勳)과 도의계	〃	
진계하(陳繼夏)	여양	구 산(龜 山)	〃	유 고	
채홍석(蔡洪錫)	평강		전우(田愚)	〃	
최시순(崔時淳)	경주	사 산(四 山)		유고 3권	
최광한(崔光翰)	진주	학 성 당(學 聲 堂)		유 고	
			송환기(宋煥箕)	〃	

2. 현대(現代)의 문학 활동

1) 한문학(漢文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한말 무렵에도 함평 천지가 낳은 한시(漢詩)를 통한 시인들이 적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난 현대에는 더 많은 한시 관계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함평이 낳은 한문학의 대가(大家)로는 나산면 송암리 태생의 신호열(辛鎬烈·호 : 雨田)이 있다. 그는 일찍이 중앙에 진출하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의 대학원 국문과에 출강하였으며 아주시단(亞洲詩壇) 한국 지도위원, 민족문화추진 현 한국고전 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國譯硏修院)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90년대 초엽까지 삼국사기(三國史記),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퇴계집(退溪集), 하서집(河書集) 등 귀중한 옛 문헌을 수없이 번역해내며 후진 양성에 임해온 그가 한문학에 끼친 공로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또한 향리에서 한학(漢學)에 꾸준히 정진한 사람은 이명헌(李明憲), 정철환(鄭喆煥), 김규일(金珪馹), 리강현(李康炫), 정기영(鄭基永) 등 다수가 있다.

이들은 기영창수회 (箕潁唱酬會) 회원으로 후에는 기영음사(箕潁吟社)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의욕을 돋구었으며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모임의 이름을 <기영창수회>라 함은 함평을 대표하는 '기산영수'를 중심으로 살면서 한시를 부르며 서로 응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영음사' 역시 기산영수의 선비들이 좋은 한시를 읊는 선비들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기영창수록(箕潁唱酬錄)과 회원들의 활동

함평에 거주하는 한문학 동호인들에 의해 발간된 창수록이 있어 자료로서 좋은 참고가 된다. 이 창수록을 발간한 회원은 12명으로 함평을 비롯하여 인근에서 이름이 높은 한문학인 들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회원 밖에도 함평 천지 여러 곳에서 혼자서나 삼삼오오로 만나는 옛 선비 분들이 적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를 테면 1990년대에 함평문화원에서 시행한 한시 백일장에 장원이나 차상 등으로 입상한 분들도 이 회원 명단에는 빠져 있다. 박연춘, 정두면, 김성두, 정길휴, 김정숙, 이만신, 김귀근, 정기억 등. 또한 문화원의 발표지인 《함평문화》 등에 자주 투고하였던 김유원(金有源), 이녹범(李祿範), 김광수(金光洙) 뿐만 아니라 일찍이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스스로 글짓기를 즐겨한 이문규(李文奎), 김재광(金在光) 같은 분들도 한시에 관여해 왔었던 것이다.

성 명	호 (號)	생 년(生年)	출 신 지	참 고
노민표(盧玟杓)	경재(絅齋)	1892	함평읍 진양리	
김규일(金珪馹)	현재(弦齋)	1894	손불면 죽장리	1979 졸, 유고집 발간
정종석(鄭鍾錫)	석산(石山)	1899	대동면 향교리	
심기천(沈棋千)	소송(小松)	1900	신광면 복흥리	
박규동(朴奎東)	낙와(樂窩)	1900	대동면 향교리	
윤후중(尹厚重)	동강(東崗)	1901	해보면 상곡리	
신경렬(辛璟烈)	송은(松隱)	1903	나산면 송암리	
모경원(牟敬源)	백천(百千)	1903	신광면 삼덕리	
이영헌(李瑛憲)	면와(勉窩)	1905	함평읍 기각리	
노수표(魯壽杓)	도계(陶溪)	1905	나산면 나산리	
정기영(鄭基永)	취송(翠松)	1906	월야면 외치리	
심기보(沈棋寶)	우송(又松)	1906	함평읍 함평리	

이 창수록에는 1961년 9월 5일의 『이송당 면와 장창회운(二松堂勉窩莊牕會韻)』을 비롯하여 1974년 11월 7일의 『향교아집(鄕校雅集)』까지 함평군내는 물론 제주도, 설악산, 경주 등지를 관광하며 회원들이 주고 받은 시(詩) 수백 수를 수록하였다. 1974년 12월에 발간하였고 서문(序文)은 정철환(鄭喆煥), 발문(跋文)은 이영헌(李瑛憲)이 썼다. 폭넓은 학식과 다양한 소재에 의해 다듬어진 회원들의 역작(力作)이 집대성되었다고 하겠다.

(2) 기영음사(箕潁吟社)와 시고집(詩稿集) 발간

기영창수회를 확대 개편한 한문학인(漢文學人)들의 모임이 기영음사다. 이 모임은 1968년 3월에 결성되었는데 함평출신으로 음영(吟詠)에 뜻을 가지고 있고 모임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사원·社員)으로 한다고 규약되어 있다.

사무소는 함평 향교에 두었고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장(社長) : 이명헌(李明憲)
•부 사 장 : 김규일(金珪馹), 이영헌(李瑛憲, 규약에 의한 당연직·典校)
•총 무 : 정기영(鄭基永)
•간 사 : 정병화(鄭炳華), 리강현(李康炫), 장연섭(張璉燮), 이상운(李相雲)

매년 2회 시회(詩會)를 갖기로 되었고 1976년에 『기영음사시고(箕潁吟社詩稿)』 1 집을

발간하였다. 시고집의 서문은 함평출신으로 한문학의 대가인 신호열(辛鎬烈)이 썼고 발문(跋文)은 김규일, 정기영, 천보배(千寶培), 리강현, 이영헌이 썼다.

회원은 160여명으로 한학을 한다는 사람은 모두 가입한 셈이며 함평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까지 망라하였다. 후일 함평의 한문학 맥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에서 회원(사원)의 명단을 여기에 옮겨본다. 그간 타계한 사람이 많아 비록 회원의 수는 줄었으나 모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기영음사원(箕潁吟社員, 회원) 명단>

성 명	아 호	본관	주 소	성 명	아 호	본관	주 소
이영헌(李瑛憲)	면와(勉窩)	함평	함평읍 기각리	장한기(張漢基)	죽헌(竹軒)	인동	손불면 죽암리
박한균(朴漢均)	국사(菊史)	밀양	〃 옥산리	최문규(崔文圭)	정헌(淨軒)		〃 대전리
문이선(文二善)	용강(龍岡)	남평	〃 〃	임만택(林萬澤)	운암(雲岩)	나주	〃 〃
장연섭(張璉燮)	경당(敬堂)	인동	〃 진양리	모영암(牟營岩)	석전(石田)	함평	〃 양재리
나승옥(羅承玉)	우석(于石)	나주	〃 가동리	조상기(趙相紀)	매당(梅堂)	한양	〃 산남리
박병후(朴炳후)	나운(羅雲)	밀양	〃 옥산리	전복현(全福鉉)	명계(明溪)	천안	〃 〃
김명운(金明雲)	사성(思誠)	김해	〃 석성리	모형기(牟炯基)	풍천(豊泉)	함평	〃 양재리
김장현(金長鉉)	고헌(鼓軒)	광산	〃 장년리	정선구(鄭善九)	남당(南堂)		〃 대전리
박창규(朴昌圭)	취송(翠松)	밀양	〃 옥산리	임주택(林朱澤)	우송(又松)	나주	〃 〃
장정렬(張正烈)	양헌(陽軒)	인동	〃 진양리	이병길(李炳吉)	현암(玄菴)	경주	신광면 월암리
서인남(徐仁楠)	독창(獨蒼)	이천	〃 자풍리	모경원(牟敬源)	백천(百千)	함평	〃 심덕리
최형기(崔亨基)	후송(後松)	해주	〃 대덕리	이상복(李相福)		경주	〃 월암리
나기욱(羅基郁)	화전(花田)	나주	〃 수호리	이희우(李喜雨)		〃	〃 〃
이관서(李寬緖)	백암(白菴)	함평	〃 기각리	이상환(李相煥)	농은(農隱)	〃	〃 〃
이돈율(李敦傑)	심산(心山)	〃	〃 〃	박규현(朴奎賢)	학산(鶴山)	함양	〃 원산리
이종기(李鍾基)	석강(石江)	경주	〃 〃	박철주(朴哲柱)		〃	〃 〃
장윤섭(張允燮)	후암(後菴)	인동	〃 진양리	최병옥(崔炳玉)	운암(雲岩)	해주	〃 백운리
김선일(金善一)		광산	〃 대덕리	이권섭(李權燮)		고성	〃 원산리
문락섭(文洛燮)	후계(後溪)	남평	〃 옥산리	노동렬(盧東烈)	학산(鶴山)	광산	〃 동정리
박진균(朴珍均)	행정(杏亭)	밀양	〃 〃	이재구(李載九)	송은(松隱)	함평	〃 송사리
리만신(李滿信)		전주	〃 자풍리	이성표(李成表)	죽암(竹岩)		〃 〃
서상순(徐相淳)		달성	〃 장교리	윤상하(尹相夏)	양재(養齋)	파평	〃 삼덕리
정병규(丁炳奎)	영은(潁隱)	압해	〃 진양리	이갑헌(李甲憲)	경암(敬菴)	함평	〃 〃
장형식(張亨植)	후성(後省)	인동	〃 〃	조재형(趙才衡)		한양	〃 〃
장흥섭(張興燮)	극암(克菴)	〃	〃 〃	나병인(羅炳仁)		나주	〃 〃
김규일(金珪馹)	현재(弦齋)	광산	손불면 죽장리	노택수(魯宅洙)	남정(南庭)	함평	학교면 복천리
모영태(牟營台)	태봉(台峯)	함평	〃 양재리	노익수(魯益洙)	금사(錦沙)	함평	〃 〃
박남기(朴楠基)	문암(問菴)	밀양	〃 북성리	김영택(金營澤)	후포(後浦)	해남	〃 월산리
장철규(張哲圭)	송은(松隱)	인동	〃 양재리	노은택(魯銀澤)	후은(後隱)	함평	〃 복천리
김경일(金京一)	유계(柳溪)	김해	〃 산남리	양규상(梁圭祥)	호은(湖隱)	남원	〃 월호리
모찬기(牟燦基)	이산(梨山)	함평	〃 양재리	김기천(金箕千)	지은(智隱)	광산	〃 금송리
박인배(朴仁培)	후송(後松)	밀양	〃 북성리	김성남(金成男)	우정(牛亭)	나주	엄다면 신계리
전대현(全大鉉)	후당(後堂)	천안	〃 산남리	윤석주(尹錫柱)	이재(梨齋)	파평	〃 엄다리
이성춘(李成春)	월포(月浦)		〃 월천리	이창헌(李昌憲)	겸재(謙齋)	함평	〃 송노리
임난택(林蘭澤)	모암(慕菴)	나주	〃 〃	정재규(鄭在奎)	운곡(雲谷)	압해	〃 성천리
윤석일(尹錫一)	호은(湖隱)	파평	엄다면 엄다리	이재우(李載宇)	오헌(梧軒)	함평	나산면 초포리
김두천(金斗千)	석천(石泉)	나주	〃 〃	김영기(金英基)		상산	〃 이문리
정경연(鄭敬衍)	영재(永齋)	〃	〃 영흥리	진도선(陳道善)	도원(桃源)	여양	〃 수상리
리찬규(李贊圭)	노정(盧汀)	전주	엄다면 송노리	김호겸(金鎬兼)	오산(鰲山)	상산	나산면 이문리
최병훈(崔炳訓)	묵암(默岩)	〃	〃 〃	문이주(文二柱)	월파(月波)	남평	〃 삼축리
윤득주(尹得周)	설송(雪松)	파평	〃 삼정리	나행균(羅行均)	기은(箕隱)	자주	〃 수상리
정기현(丁奇鉉)	후성(後省)	압해	〃 성천리	김재복(金在福)	송파(松波)	김해	〃 삼축리
박규동(朴奎東)	낙와(樂窩)	무안	대동면 향교리	정병두(丁炳斗)	죽암(竹菴)	압해	〃 송암리
윤태경(尹泰卿)	석천(石川)	파평	〃 상옥리	정진삼(鄭鎭三)		진주	〃 우치리
김재인(金在寅)	남애(南崖)	광산	〃 덕산리	이명헌(李明憲)	우송(友松)	함평	해보면 문장리
김영식(金泳植)	사강(沙江)	도강	〃 용성리	윤서병(尹瑞炳)	임계(林溪)	파평	〃 상곡리

성 명	아 호	본관	주 소	성 명	아 호	본관	주 소
윤병언(尹炳彦)	정강(靜江)	파평	〃 상옥리	윤후중(尹厚重)	동강(東綱)	〃	〃 〃
윤태정(尹泰貞)	경은(耕隱)	〃	〃 〃	리강현(李康鉉)	월주(月州)	전주	〃 해보리
김재철(金在哲)	성재(省齋)	광산	〃 덕산리	이정헌(李正憲)	월계(月溪)	함평	〃 용산리
정호연(鄭浩然)	송계(松溪)	하동	〃 강운리	김용채(金用采)		광산	〃 문장리
김을현(金乙鉉)	월계(月溪)	광산	〃 덕산리	윤상오(尹相五)	매헌(梅軒)	파평	〃 대창리
김영호(金泳浩)	취헌(翠軒)	〃	〃 〃	김대현(金大鉉)	화당(和堂)	광산	〃 해보리
조극윤(趙克允)	익헌(益軒)	한양	〃 연암리	정병창(丁炳昌)	돈재(돈재)	압해	〃 대창리
김영섭(金永燮)	수헌(水軒)	광산	〃 덕산리	정기영(鄭基永)	취송(翠松)	진주	월야면 외치리
김국현(金局鉉)	송암(松菴)	〃	〃 〃	김재곤(金在崑)	옥산(玉山)	광산	〃 월계리
김상현(金相鉉)	남석(南石)	〃	〃 금곡리	정병기(鄭秉基)	후송(後松)	진주	〃 외치리
신경열(辛璟烈)	송은(松隱)	영산	나산면 송암리	정병화(鄭炳華)	만오(晩悟)	나주	〃 용월리
정상수(鄭祥洙)	유재(裕齋)	초계	〃 덕림리	김정현(金正鉉)	백하(柏下)	광산	〃 월계리
이상운(李相雲)	운초(雲樵)	경주	〃 〃	정병호(鄭炳晧)	백헌(柏軒)	압해	〃 〃
김동석(金東錫)	남하(南河)	선산	〃 송암리	정기덕(鄭基德)	후당(後堂)	진주	〃 외치리
김세창(金世昌)	동화(東和)	김해	〃 월봉리	정정봉(鄭正奉)	유천(柳川)	나주	〃 용월리
김기근(金基根)	근정(槿庭)	상산	〃 이문리	모찬기(牟燦基)	월파(月波)	함평	〃 계림리
정성근(鄭聖根)	경암(敬菴)	해주	〃 덕림리	정길휴(鄭吉休)	동강(東岡)	진주	〃 외치리
이두행(李斗行)	동원(東源)	함평	〃 원선리	정진규(鄭鎭奎)	지은(池隱)	동래	〃 〃
박판기(朴判基)	경암(敬菴)	밀양	〃 수상리	정규환(鄭奎煥)	시학(侍學)	진주	〃 월악리
김석제(金碩濟)	정암(正菴)	경주	〃 덕림리	이계동(李啓東)	용전(龍田)	함평	〃 용정리
이창범(李昌範)		함평	〃 초포리	정영환(鄭永煥)	영파(潁波)	진주	〃 월악리
박기화(朴基化)	성암(誠菴)	밀양	〃 수상리	정규섭(鄭圭燮)	후매(後梅)	〃	〃 외치리
안창순(安昌淳)	학강(鶴岡)	죽산	〃 나산리	김호현(金灝鉉)	주산(舟山)	광산	〃 월계리
정항연(鄭恒衍)	석담(石潭)	나주	〃 이문리	정학철(鄭學喆)	관오(觀吾)	진주	〃 월악리
김봉석(金鳳錫)	죽계(竹溪)	선산	〃 송암리	정봉재(鄭鳳在)	율정(栗亭)	〃	〃 월야리
유만식(兪萬植)	정헌(靜軒)	기계	〃 월봉리	안종섭(安鍾燮)	하정(荷汀)	죽산	〃 예덕리
박종국(朴鍾國)	죽우(竹友)은	밀양	〃 삼축리	정태섭(鄭泰燮)	석봉(石峯)	진주	〃 외치리
정평식(鄭枰植)	암(隱岩)운재(	진주	월야면 외처리	서창현(徐昌鉉)	만송(晩松)	이천	
정두면(鄭斗晃)	雲齋)	나주	〃 용월리	조정형(趙正衡)		한양	
천보배(千寶培)	학산(鶴山)	영양	광주시 계림동	정신원(鄭信源)		진주	
오상선(吳祥善)	월정(月庭)구	낙안	〃 월산동	모춘기(牟春基)		함평	
이태삼(李太三)	곡(九曲)	함평	충 남 대전시	이장우(李張雨)		경주	
신홍렬(辛洪烈)	춘강(春岡)	영산	광주시 월산동	윤기병(尹起炳)	월계(月溪)	파평	
심기천(沈棋千)	소송(小松)	청송	〃 〃	정화채(鄭化采)			
오형선(吳炯善)	허주(虛舟)	해주	〃 학1동	정성현(丁聖鉉)	성재(誠齋)	압해	

2) 현대문학

(1) 문림회(文林會)와 동인지

함평에서 지방 문단을 활성화시키면서 장래 중앙문단의 역군들을 길러내는 문학인재 못자리 역할을 겸해 나온 현대문학 동인 활동으로는 문림회의 활동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이다. 문림회는 회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후진 양성에 힘쓴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한 이 고장 최초의 순수문학 동인 모임이기 때문이다. 《文林》 이라는 명칭부터가 시와 산문을 모은 작품집이요 문단을 뜻해서만이 아니다. 사실 지방문단사적으로 고찰할 때 전남지역에서는 문예지 가운데 함평의 이 《文林》 동인지 출현은 상대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은 것이었다. 1920년대에 목포의 《Socie May》 와 영광의 《자유예원》 ,강진의 《靑丘》 에 이어 1930년대에 뒤따른 여수의 《종산시사》 나 광복 이후 계속된 광주의 문예지 활동에 버금가는 실적을 보이는 것이다.

1958년 4월에 발족한 문림회의 발기인은 김경태(金敬泰, 당시 함평여중교장), 리상(李

祥, 전 함평문화원장. 작고), 이국헌(李國憲, 당시 함평군청 근무, 시인, 아동문학가), 김신철(金信哲, 당시 함평문화원 총무, 후에 아동문학가), 리현석(李炫石, 당시 함평초교 교사), 나광채(羅光埰, 당시 학다리고등학교 교사), 김영운(金榮雲, 당시 광인중학교 교사) 등이었고 회원은 한때 3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초대 회장 김경태에 이어 김신철이 회장직을 맡았으며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백일장을 베풀어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리고 1959년 4월 25일에는 아담하게 《文林》 동인지 창간호를 내고, 1960년에는 2집을 준비하며 회원의 작품발표와 토의, 등 문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61년 10월 제 7 회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백일장을 끝으로 한동안 동면기를 가졌다.

그런데 함평 천지에 최초의 문예동인지로 창간되어 선보였던 《文林》 이 휴면에 들어갔던 뒤 30여년만에 다시 소생하였다. 1990년 4월에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옛 문림회원과 서오근 등 출향한 이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평출신 문학인들이 모여 문림회를 전승하기로 하고 이국헌을 회장으로 새로 선출하였다. 1990년 8월에 속간호인 《함평문림》 2집이 출간되었다. 창간호에 비해 그 분량도 갑절이 늘어서 140여 쪽이었고 실로 한 세대 만에 얻은 보람이었다. 이어서 1991년 6월에 제3집을 냈다. 그 후 이 동인지는 다소의 군청지원도 받으면서 매년 꾸준하게 한 권씩 출간되어 1995년까지 국판 300쪽 정도로 7호를 펴내오며 이 고장 문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다음은 희곡작가 김영관(金永官, 조선대 교수)이 회장을 맡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으로 12집을 출간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군비 2백만 원에 도비 1백만 원 지원으로는 출판비가 절반 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 출간을 미뤄오고 있다. 이들 《文林》 에는 경향 각지의 함평출신 문사들의 시, 동시, 시조, 한시, 소설, 수필, 평론 및 희곡 등과 가끔 타지방 태생의 중견 문인들 글도 초대석으로 싣고 있어 돋보인다. 출향문인들과 재향문인을 아우른 회원도 1백 명을 헤아리고 있어 앞으로의 계속적인 출간이 기대된다.

(2) 함평문화(咸平文化) 발간

《함평문화》 는 종합지를 목표로 1966년 10월에 국판 300쪽 분량으로 창간되었다. 함평의 성장과정과 문화의 소산을 찾고 창조적인 내일의 좌표를 열어주는 향토적 특색을 지닌 함평문화원 기관지격이다. 《함평문화》 는 향토문화 보호와 선양을 위해 다소의 국고 지원을 받아 1965년에 문을 연 군 문화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책으로서 이전의 군민 문예동인지격인 《문림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과 군정(郡政)소개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 상당부분을 차지한 문학이나 예술관계 필진은 엇비슷한 것이었다. 발간 실무진은 이국헌, 김신철, 리상등 전 문림회 주역들이었고 발행처는 함평문화원이었다. 따라서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이택헌이 대표가 되었다. 《함평문화》 창간호는 목표대로 함평군 관내 기관의 현황과 전망 등이 소개되고 한시, 시, 동시, 수필, 소설, 희곡 등의 창작물과 평론 및 “우리고장의 사라져가는 옛 문화를 찾아보자”는 특별기획도 실려 환영을 받았었다.

창간호 이후 20년간은 경비가 없어 다음호를 펴내지 못해오던 중 1986년 7월의 2호부

터 1988년 16호까지는 30쪽 안팎의 소책자로 속간호를 내왔다. 그러다가 1989년의 17호부터는 매년 국고와 군비 보조로써 4·6 배판 300쪽 안팎의 두툼한 연간집으로 펴내서 지방문화 이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거의 매호에다 함평 출신의 현역 서예가의 서예작품이나 미술가의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또는 도예작품을 곁들인 미술가들의 소개도 겸하였다. 그런가하면 저명한 외부명사의 옥고도 게재하였다.

참고로 1996년의 24호 내용을 보면 외부인사 초대로 극작가 신봉승과 연세대 최정호 교수의 글을 실었고 뜻있는 특집도 마련했다. '특집 Ⅰ.문학의 해 기념 96 향토논단'으로 「고전을 통한 함평인 저작(著作)의 시가 고찰」이 향토문학의 뿌리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특집Ⅱ.「문학의 해 기념 함평 작가와 작품 이해」에서는 유수의 지방 신문사 문화부 기자와 경향 각지 거주의 타지방 출신 비평가 등을 통해 함평 출신 현역문인과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창작보다는 문학사적인 접근과 비평적 정립작업이 돋보인다. 두툼한 분량의 여러 곳에는 관계 자료를 컬러로 취급하여 지방화 문화 속의 문학이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또한 2천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각광받은 함평나비 대축제 등의 행사 화보와 매년 군 문화원이 주최하는 가을철의 함평문화제 행사기록이 실려 있다. 특히 해마다 그래왔던 바처럼 《함평문화》 끝부분에는 학생 백일장과 한시 백일장에 입상한 초, 중, 고생의 각 장르별 작품들을 모두 발표하여 돋보인다. 그것은 이글의 말미에 연차적인 순서대로 입상자를 정리해서 제시한 바와 같다. 최근 간행된 제35호에는 2007년 10월에 20회째 거행된 함평문화제 행사사항과 작품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그동안 행해져온 함평군 문화원의 나이테와 업적에 참고 된다. 《함평문화》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본 지방 문인의 작품발표 무대인 동시에 함평천지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차세대들의 문학과 예술계 재목을 길러내는 온상 노릇도 겸한다고 하겠다.

(3) 샛별문학회 활동과 전국적인 문예지

1960년대에 모처럼 빛을 보인 《함평문화》 발간이 중지된 이후 함평군의 문학 활동은 10여년 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다. 이 침체된 상태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것이 1970년대에 접어들어 이루어진 '샛별 문학회'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70년 무렵부터 지속되어 오던 샛별회가 확대하여 본격화된 이 문학모임은 함평문단에 결정적이었다. 사실 군 단위로서는 전국최초의 큰 문학공간인 샛별문학관을 김철수 회원의 노력으로 1987년 여름, 읍내에 2층 건물로 세운 것을 계기로 문학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펼쳐져갔다.

샛별문학회는 처음에 이 고장의 젊은 문학도들인 김철수(金鐵水), 김창훈(金昌勳), 노유복(盧有福), 김창수(金昌洙), 모효남(牟孝男) 등이 발기하여 1977년 4월에 발족하였다. 이 모임은 발족 6개월만인 6월에 회원수가 크게 늘어나 아동문학, 시, 소설 등 3개 분과(分科)를 두었으며 모임의 이름도 "샛별문학회"로 하는 등 견실한 문학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동문학가 김철수를 회장으로 한 이 모임의 회원은 함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입하여 1983년 말 회원수는 140여 명이었다. 1982년에는 샛별문학상이 제정되었으며 제1회 시상식을 함평에서 가진 바 있다. 처음에 격월간으로 펴낸 샛별문학 회보는 135호로 마무리 짓고 2007년까지 200쪽 안팎의 종합문예

지 《샛별문학》 은 32집을 간행했다. 비약적인 발전으로서 함평천지는 이제 난(蘭)의 메카일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예지 발간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이루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무렵인 1988년에는 다시 김철수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월간문예지 《아동문학》 창간호를 낸 이래 2009년 8월까지 통권 209호를 꾸준하게 발행해왔다. 동시, 동요, 동화와 글짓기 등을 주로 한 이 아동문학 전문지는 매호마다 신인 작품상을 두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 교포 작품도 많이 싣고 있다. 또한 《아동문학》 자매지격인 계간 《크리스찬 문학》 도 1988년 창간 이래 최근까지 통권 60호를 펴내서 국내뿐 아니라 미주 등에 보급하고있다. 사실 전국적인 규모의 월간 아동문예지와 기독교계 계간 종합문예지를 군단위지역에서 오래 내는 경우로서는 함평천지가 유일한데 출판사 사무실은 함평읍 기각리 신기산길 55호에 있다.

(4) 한국문인협회 함평지부와 함평문학 발간

한국문인협회 함평군지부는 역시 샛별문학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88년 4월 24일에 결성하였다. 결성이 이루어진 바로 그 해에 기관지인 《함평문학》 창간호를 낸 이래 2009년 가을까지 신국판 200쪽 안팎으로 19집을 연간으로 출판해왔다.

초창기 이래 《함평문학》 에는 본 단체 회원의 글을 많이 싣고 있다. 회원은 함평군내 18명(이중 9명은 문협의 정회원), 기타 출향문사(出鄕文士)를 주로 한 준회원과 명예회원 37명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직 회원들의 유대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앞으로 대동단결해서 발전해갈 소지는 많다.

집행부 회장은 초대~ 3대: 김철수, 4~5대: 윤한식, 6대: 정의정이 맡고 있다.

참고로 한국문인협회 함평군지부의 그간 업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988년 10월 20일 제1회 함평문화제 고등학생 시낭송대회 개최(샛별 문학관)
- •1988년 10월 30일 함평문학 창간호 발행 및 회원 합동출판기념회 개최
- •1989년 5월~6월 함평군 관내 초, 중, 고 순회 문학강연회 개최
- •1989년 12월 10일 함평문학 제②호 발간 및 문학사랑방 토론회 개최
- •1990년 12월 20일 함평문학 제③호 발간 및 회원 합동출판기념회 개최
- •1991년 12월 1일 함평문학 제④호 발간 및 연말 합동문학토론회 개최
- •1992년 12월 8일 함평문학 제⑤호 발간 및 회원 합동출판기념회
- •1993년 6월 20일 중국문학기행 실시, 백두산, 두만강 일대 답사
- •1993년 12월 10일 함평문학 제⑥호 발간 및 회원 합동출판기념회
- •1994년 12월 5일 함평문학 제⑦호 발간
- •1995년 5월 10일 국제 해외문학 심포지엄 참가 및 도내 문화유적지 답사
- •1996년 12월 5일 함평문학 제⑧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 •1997년 12월 10일 함평문학 제⑨집 발간기념식 및 회원 합동 출판기념회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회지 간행과 행사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내용은 생략함)

(5) 함평출신들의 문단활동(文壇活動)

흔히 지칭하듯 개화기 이후 신문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함평 현지는 물론이요 함평출신으로서 이 지방 내지 중앙에서의 현대문학 활약상을 살펴보면 이웃 광주나 목포 및 영광지역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된 편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일제 강점기이던 1920년대부터 목포의 김우진, 박화성, 김진섭에 의한 신문예운동과 영광의 조운(曺雲) 시조시인에 의한 <자유예원> 활동 등만이 아니다. 1930년대 초엽 광주(광산)의 박용철에 의한 전국적 시문학운동에 견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초의 작품이 언어와 문자를 통한 문학작품 실체로 드러난 시나리오 경우만은 함평 출신인 최금동이 앞서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호남지방에서는 목포가 희곡과 소설 및 수필의 선구자를, 영광이 시조를, 광주가 시문학을 전국적일만큼 새로운 문예운동으로 펴나갈 무렵에 함평천지 인재들도 연면하게 제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셈이다. 여기에는 함평군과 문화원은 물론 근년 들어 전국 규모의 월간종합문예지《아동문학》과 계간문예지《크리스찬문학》및 긴요한 지역신문인《함평신문》과《함평군민신문》《함평천지신문》《함평중앙신문》의 긍정적인 역할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실제로 등단절차를 밟지 않은 특수 경우도 포함하되 주로 공식적인 데뷔 순서로 프로필을 정리해 본다. 이번이 마침 함평군 6백주년에 펴내는 마지막 종이책 군사(郡史)라는 의미에서 되도록 이면 신진문인들까지 포함시켜 장래 활동에 참고토록 했다. 필요하면 직접 전화 인터뷰로 수차 확인했음을 밝혀둔다.

① 1950년 전후에 등단(登壇)한 사람들

•최금동(崔琴桐, 아호: 白耕)) 시나리오 작가

1916년 대동면에서 태어난 그는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문학도였다. 최금동은 일찍이 1936년 동아일보 제1회 시나리오 현상 공모에 영화대본인 시나리오 「환무곡」(영화로는「애련송(愛戀頌)」)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드라마나 영화대본 쓰기에 나섰던 그는 오랫동안 서울과 지방에 있는 몇 신문사 일에 종사하면서 시나리오 작법이론을 세우고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많이 썼다.『에밀레종』『이름 없는 별들』『건너지 못하는 강』『제7의 벽』을 비롯해서『화랑』『3.1운동』『이순신』『아리랑』『유관순』『백범김구』『8.15전야』『안중근』『이성계』『팔만대장경』 등. 궁핍했던 일제강점기와 혼돈을 가중시킨 분단현실을 겪어오던 그는 작고 전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 가운데 독립투사의 삶이나 민족운동 등의 민족사적인 제재를 택하여 문예적 당면과제로 활용하였다.

•최석두(崔石斗) 시인

함평 출신의 현대문인을 들 때는 일찍이 해방 공간에 치열한 삶을 살며 시집『새벽길』(조선사, 1948)도 선보였던 시인 최석두를 제외할 수 없다. 1917년에 함평읍 기각리의 최

부자 집에서 불우하게 태어나서 숱한 갈등과 반항 및 수난 속에 살면서 시 쓰기를 계속했다. 함평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6년 광주공립농림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서울에서 경성사범 단기강습과를 나와 경기도 여주에서 교편생활도 하였다. 일제하에서 항일적인 독서회 사건으로 연루되기도 했던 그는 해방직후에 미군철병과 남한단독정부 수립반대를 외쳤다. 「솔개」, 「일기」, 「전단(삐라)대」 등의 좌익적인 저항시를 쓰며 활동하다가 사상범으로 서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풀려나서 북으로 올라갔던 그는 1951년 10월에 미군의 폭격을 맞고 북한의 한 요양소에서 짧은 혁명시인의 삶을 마감했다. 그런 만큼 북한문학사에서는 최석두 시인을 대서특필 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별이 날아가는 밤」, 「고향」에서 처럼 가족이나 동지에 대한 따스한 정이 깃들어 있고 짧고 참신한 시어를 통한 서정 깃든 예술성과 치열한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수복(李壽福) 시인

1924년에 함평읍 장교리(함평리) 산음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문태중학과 경성대학 예과, 조선대 국문학과 등에서 수학했다. 최석두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그윽한 성품을 지닌 채 한국적 한과 정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정주의 추천으로 1950년대 중엽(1954~'55)에 《문예》와 《현대문학》 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68년에 유일한 시집 『봄비』를 현대문학사에서 펴내서 「꽃씨」, 「모란송」 등의 전통적이고 기독교풍을 가미한 서정성 짙은 시풍을 보여주었다. 1960년에 발표한 「고향의 하늘 아래」에는 그의 함평천지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추억이 담겨 있다. 중앙의 일간지와 현대문학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광주일고, 조선대학교에 출강하는 등 한국시단에 다대한 업적을 남겼다. 1957년에 현대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라남도 문화상도 받았다. 수피아여고를 시작으로 숭일고, 순천고, 전남고, 승주 주암고 등에서 교편을 잡던 중 1986년에 작고하였다. 현재 광주 사직공원에 그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또한 2003년 5월, 함평읍 천변공원에도 중고교 교과서에 실려 있던 「봄비」를 새긴 시비와 함께 조형물도 건립되었다.

•이국헌(李國憲, 아호: 宵泉) 시조시인

1928년 함평읍 출신이며 오래 함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1956년 《호남신문》 신춘문예에 시 「풍토(風土)의 노래」가 당선되고 1981년 중앙일보 주최 제1회 백일장에서 시조에 입상 후 1989년 《시조문학》에 시조로 추천받았다. 등단한 후 경향의 일간지와 잡지 등에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1981년 전남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이국헌 문학선집 『망중유한』과 『내 고장 전통 가꾸기』 등의 책자를 펴냈고 1982년에 군민의 상(문화부문)을 수상했다. 1989년 《시조문학》에 시조시인으로서의 추천과정을 마쳤다. 그는 특히 동인지인 《咸平文林》 회장으로서 직접 한시나 수필 등도 발표하며 함평의 문학을 활성화하는데 많이 이바지하였다. 1982년부터 《壽星報》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잡지를 주간으로 발행하였다.

•김신철(金信哲, 아호: 兒林) 아동문학가

1933년 나주 다시면 태생인데 20여세 때 함평에 이주하여 중학 교편을 잡으며《함평문림》을 창간하는 등, 그의 문학 기반을 닦고 빛냈다. 특히 1950년대 전후에는 여러 명의 식솔을 거느리고 광인중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함평지역의 문학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56년《전남일보》신춘문예 동시에 당선된 이래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장미꽃』『은하수』등 여러 권의 동시집과 시집 및 『민수의 소원』『용꿈을 꾼 할아비』등 여러 권의 동화집을 펴냈다. 그동안 전라남도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아동문학 강연과 백일장을 열었다. 1966년 전라남도 문화상(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남 아동문학회장을 역임하였다. 1970년대 이래 서울로 이주해서는 중앙문단 일선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아동분과 회장을 거쳐서 2000년대 초 작고 무렵까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감사 등을 지냈다.

•나광채(羅光埰, 아호:鴻影) 수필가

1933년 학교면 출생으로 학다리중,고와 조선대 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일찍이 학다리고등학교와 나산중고교 등에서 교편(국어)을 잡으며 농촌에 묻혀있던 보석을 캐내서 갈고 닦아내듯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1950년대 말엽에 김신철, 이현석 등과 이 고장의 문학동인지《文林》의 창간 회원으로 비제도권 문사로서 남달리 농익은 에세이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그의 수필은『야브로시 서서』「강화도 주변 고적을 찾아」「이사유감」등, 경향 각지를 넘나드는 일상의 애환과 전통문화의 향기를 기리고 있다. 유려하고 단단한 문체로 빚어낸 수필집 『마냥 그렇게 걸어온 더딘 발자국』(2002)도 펴냈다. 뒤늦게 월간문예지《순수문학》에 수필「텃밭」등으로 등단절차를 밟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더 원활한 작품 활동이 기대된다.

② 1960년대에 등단한 사람들

•김만선(金滿船) 시인, 아동문학가

1939년 봄에 만주 흑룡강성 만보산에서 출생하여 유소년기를 함평읍에서 지냈다. 함평중학교와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함평초등학교 등에서 여러 해 교편생활을 했다. 1960년《새교실》지 현상문예에 시「요일연습」이 당선되고 그 후 전남일보, 목포일보 등에 시와 동시 등을 자주 발표하였다. 서정시풍과 시사적인 현실인식을 담은 시집『차라리 슬퍼 좋은』(1988) 등의 작품집이 있다. 80년대 말엽이후 민족문학 작가회의에 가담한 그는 현재 서울에서 시보다는 동화와 동시를 주로 한 아동문학에 많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리현석(李炫石, 아호: 星園) 작가

1937년 신광면 송사리 출신인 그는 일찍부터 함평군 관내 여러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소설이나 수필을 발표해온 비제도권 문인이다. 글쓰기는 물론이요 고려자기 재현술 등으로 대통령상을 받아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던 그는 문학에 전념하지는 못 했다. 박화

성 작가를 사사한 그는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 《목포일보》(후에 《호남매일》)에 장편소설『던져놓고 보다』를 연재하였고 1981년에는 장편소설『얼 심은 하늘아래』를 발간하였다. 항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그는 오래 동안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장으로 일하며「함평인 저작(著作)의 시가(詩歌)고찰」등의 논문들에서 주요 향토문인들 작품을 조사, 번역하여 소개해왔다. 하지만 함평문화원장 시절인 2008년에 지병으로 작고한 그는 의욕에 비해서 창작 열매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

•김우창(金禹昌) 평론가

1937년 생으로 호적상 부친(김의택)의 고향인 엄다면 신계리를 본적으로 광주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광주고교와 서울 문리대 영문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문명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에서 고려대로 옮겨 영문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한국문학 비평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평론가이다. 1965년《청맥》에「엘리트의 예」와 1967년《창작과 비평》봄호에「시에 있어서의 지성」을 발표한 이래 본격적인 비평 활동에 임하고 있다.『궁핍한 시대의 시인』,『지상의 척도』등의 평론집과『시대의 흐름에 서서』『자유와 인간적 삶』『풍경과 마음』『정의와 정의의 조건』등의 저술을 냈다. 김환태문학상과 김팔봉평론상, 2005년 인촌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장 등, 국제문화 행사에서도 추진 대표 등을 맡아 일했다. 고려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고려대 명예교수이다. 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그는 예술원회원,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있다.

•김홍주(金洪柱, 鶴野) 시인

1941년 학교면 사거리 명암마을 출신으로 학다리 중,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학원문학상을 비롯해서 전국 여러 곳에서 행한 문예현상 모집에 두드러진 문학적 재능을 나타냈다. 대통령 탄신 전국문예콩클 산문부 최우수상은 물론 경북대, 건국대, 전북대, 중앙대 등에서 주최하는 전국 학생문예 콩클에서 시, 소설, 희곡 등 여러 장르에 두루 장원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문예특기생으로 평론가 백철(白鐵) 댁에서 숙식을 하고 있던 1961년(대학 2년생)에 김동리 추천으로 단편「분지에서」로《현대문학》소설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중앙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인천고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주)고려서적에서 본부장과 이사로 재직해왔다. 그는 1998년에 첫 시집『어머니의 난 한 촉』을 출간했는데 2007년에 서울에서 작고했다.

•김삼진(金三鎭, 아호: 靑松) 동시인

1934년 나산면 나산리 출신으로 광주사범학교와 광주교대를 졸업 했다. 초등학교 교직에 있던 196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나뭇잎」이 당선되었다. 전남 도내 여러 학교 교사와 교장을 역임하며 동시집『오월의 바람』(1979),『아침편지』(1987),『꽃시계』『아름다운 만남』에 이어『나비야 날아라 함평 가자』(2008)를 펴냈다. 한국 아동문학상(1981), 한정동 아동문학상(1990), 농민문학 작가상(2009), 박경종 아동문학상(2009)도 수상했다. 전남아동문학회장, 전남광주아동문학인회 공동회장 등을 지냈다. 그의 작품은

흔히 자연적 심상을 통해서 일상적 삶의 근원적 의미를 서정과 동심으로 진지하게 추구한다.

③ 1970년대에 등단한 사람들

•양성우(梁性佑) 시인

1943년 학교면 월호리 출신으로 학다리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70년 문예지《詩人》를 통해서 등단했다. 학다리고교와 광주 중앙여고에서 여러 해 교편생활을 했다. 1972년에 첫 시집『발상법』이후『신하여, 신하여』『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겨울공화국』등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향토성 작품들을 펴내서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시절에 민중 저항시인으로 옥고도 겪었다.《시와 시론》 동인이었으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대표를 맡고 13대 국회의원도 역임했다. 시집『겨울공화국』(1975),『북치는 앉음뱅이』(1980),『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1982),『넋이라도 있고 없고』(1983),『오월제』(1987),『첫마음』(2000),『아침꽃잎』(2008) 등이 있다. 작가회의 이사로서 최근 공공기관인 제5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향토적인 서정과 역사의식으로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새로운 시작품을 지향하며 새로움을 모색하는 그의 시비가 2009년 함평천에 세워졌다.

•김목(金穆) 시인, 동화작가

1951년 학교면 출신으로 목포교육대를 나왔으며 학다리초등교 등에서 교편을 잡아왔다. 1975년에 전일신춘에 시《소년 중앙》에 동화「강나루 할아버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날개 달린 장사』『멀고 먼 나라』『멀리 뛰는 개구리』『나는 가방』『황금동관의 왕국』등 여러 권의 동화집과 첫 시집 『누렁이』(1993) 등을 펴냈다. 그는 민담과 설화를 바탕으로 환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소외된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본질을 추구한다. 한국동화문학상(1978) 등을 수상한 그는 전남아동문학협회장, 전국교원노조 초등위원장 등도 역임했고 1989년 봄 이후 교직에서 물러나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이명재(李明宰, 아호: 咸山) 평론가

1938년 엄다면 제동 출신으로 엄다초등학교와 학다리 중고교를 졸업했다. 중앙대 법정대학과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수료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동아일보》신춘문예에「체념과 저항의 시학-김소월론」에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서 문과대 학장과 사회개발대학원장을 맡으며 문단활동과 후진 양성에 임해왔다.『변혁기의 한국문학』(1990),『전환기의 글쓰기와 상상력』(1998),『통일시대 문학의 길 찾기』(2002)등의 평론집 네 권을 펴냈다. 수필집『꿈과 낭만 그리고 지성』(1986),『글 쓰는 생활의 보람』(2003)도 냈다. 또한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1991),『북한문학사전』(1995),『소련지역의 한글문학』(2002),『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1997),『한국현대민족문학사론』(2003) 등의 저서를 두고 있다. 주로 남북한

문학사와 문학비평 및 해외한인문학에 업적을 이루었다. 한국 문협 평론분과 회장과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및 우리문학기림회의 대표도 역임했다. 노산문학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월간문학 동리상 등을 수상했다.

•이시헌(李時憲, 아호: 黑石) 수필가

1938년에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에서 태어나 함평읍 기각리에서 자란 그는 논픽션적인 수필이나 촌철살인적인 칼럼으로 문명(文名)을 높여온 문필가이다. 광주서중과 광주고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 및 톰슨재단 초청으로 영국 등에서 수학하였다. 1965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30여 년 동안 사회부 기자, 차장을 지나 문화부장과 조사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신문 잡지 등에 예리하고 중후한 칼럼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의 주요문화 현장을 답사하여 기획 연재했던 "향토의 숨결"이나 각 지방의 예술인들을 탐방한 "문화의 빛을 찾아" 등은 유명하다. 그는 중요 지방문화를 빛내고 있는 예술인들의 현장을 탐방한 칼럼집 『여기 이 땅 이 사람들』(1986),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서슬 퍼런 검열 속에서 자행된 폭력성을 고발한 『오 ! 하늘이여』(1995)와 자신의 주요 에세이집인 『사람 사랑』(1996), 집필 당시의 사회적 쟁점을 첨예하게 다룬 칼럼집 『기사로 말한 기자』(2009) 등을 펴냈다.

•서오근(徐五根, 아호: 鄕松) 동시작가, 시인

1943년 학교면 학교리 출신이며 1977년 《월간문학》 의 동시 신인상 당선 문인이다. 1987년에 한정동아동문학상, 1994년 전남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중이다. 무안에 머물면서 전남문협 수석부회장, 무안문협회장, 시류(詩流)문학회장, 무안문화원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지역관계 저서를 묶어내는 등, 지방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 크리스찬 무안읍교회 수석장로이기도하다. 한국아동문학회 중앙위원, 한국문협과 국제 펜클럽 회원인 그는 전국창작시대회 심사위원과 국민의 시 낭송위원 등으로 중앙문단에서도 많이 활약한다. 동시집 『산들바람』, 『풀꽃 한 송이』, 『창문을 열면』 등 10여권에 이어 2009년에 서오근 작사, 서동수 작곡으로 동요작곡집 『단비』 를 냈다. 아동문학 작품 밖에 일반 시도 자주 발표하는 그는 순결한 동심으로 자연의 알레고리 속에서 생동감 넘치게 유연하고 정감 깃는 글을 빚어낸다. 출향문인인 그는 재향문인 못지않게 함평문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노창수(魯昌洙, 아호: 相來) 시인·평론가

1948년 학교면 마산리 출신으로 학다리 고교를 졸업하고 목포교육대를 거쳐 일찍이 조선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박사이다. 1973년 《현대시학》 에 시가 추천되고 1979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도 시로 당선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시조문학》 에 시조가 추천되고 《표현》 과 《한글문학》 에 평론이 당선되었다. 1991년 시조문예상, 한글문학상(1994) 등을 수상한 그는 시집 『거울 기억제』(1990), 『선 따라 줄긋기』(2003), 『슬픈 시를 읽는 밤』(2003), 『원효사 가는 길』(2008) 등이 있다. 평론집 『한국 현대시의 화자

연구』(2007)밖에 다수의 에세이도 발표했다. 광주여고 교장 등을 역임하고 조선대, 동신대, 방통대, 대불대에 출강했다. 이런 노창수의 작품은 대체로 남도적 제재에 토착적인 상징어를 통해서 끈끈한 생명력과 인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④ 1980년대에 등단한 사람들

•이이행(李以行) 시인

1935년 신광면 출신인 이 시인은 광주농고를 졸업한 후 향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 창작에 매진했다. 1980년 《시문학》을 통해서 「새댁」으로 당선되고 1992년에 다시 《문예사조》 신인상에 당선하였다. 일간지나 잡지 등에 꾸준히 작품발표를 하고 있으며 서정적인 시집 『소양강 물소리』(1996), 『직녀의 한』(2001) 등을 내고 전남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친화성과 서정적인 주조를 이룬 그의 작품은 농민문학의 한 전범을 이룬다. 마을문고 회장,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군사편찬위원 등을 맡았다.

•임만호(任滿浩) 시인

1940년 신광면 가덕리 출신으로 함평농고를 거쳐서 숭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교육대학원 고위과정도 수료했다. 고교생이던 1957년 한국기독공보사 현상모집에 임옥인 작가에 의해 시 작품이 뽑힌 바 있고 1981년 계간 《韓國詩》에 시 「호수」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김현승 시인과 김신철 아동문학가를 사사해서 문학을 익혔다. 2009년에 낸 첫 시집 『달팽이는 두 뿔로 꿈을 꾼다』로 한국장로문학상을 받았다. 동인시집 『비파야 수금아 깰 지어다』(1992), 『지상의 뜨락에 피운 노래들』(1995), 『나그네된 집에서 부르는 노래』(1997)도 있다. 한국문협과 국제펜회원인 그는 현재 월간 《창조문예》 편집인 겸 발행인이며 도서출판 크리스찬 대표로 있다. 기독교 장로인 그의 작품들은 기독교적 상상과 동심을 한국 전통적 서정으로 조화된 세계를 이루고 있다.

•박호재 (朴琥載) 작가

1956년 함평에서 태어나서 전남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한국문학》에 소설「무학산」이 당선되었고 1986년 무크지 《민족현실과 지역운동》에 소설 「비오리」 등을 발표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작가이다. 창작집 『다시 그 거리에 서면』(1988), 『눈뜨는 섬』(1993), 『마이더스의 손』(1994) 등이 있다. 광남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그는 광주서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민주화의 격변기였던 1980년대 사회사를 다룬 참여문학성을 띠고 있다.

•박노해(필명: 朴勞解, 세례명: 가스발) 시인

본명이 박기평(朴基平)인 시인은 1958년 함평읍 기각리 출신이다. 어려서 여수로 이사갔고 고흥서 초등교, 벌교중학을 마치고 15세 때 상경하여 선린상고 야간부를 나왔다. 서울 등지에서 노동현장의 섬유, 건설, 금속 기능공으로 일하면서 창작과 사회운동을 겸해왔

다. 1983년 《시와 경제》 2집에 시 「시다의 꿈」 외 6편으로 등단하였다. 그는 현실 인식이 짙은 시집 『노동의 새벽』(1984) 이후 얼굴 없는 시인으로 각광을 받으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폈다. 그는 제1회 노동문학상을 수상한 다음해인 1989년에 자신이 결성한 사노맹사건으로 1990년대 대부분을 무기징역형으로 옥고를 치른 민중 시인이다. 그는 투옥 후에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시선집 『머리띠를 묶으며』(1991), 새 시집 『참된 시작』(1993), 옥중에세이집 『15만이 희망이다』(1997) 등. 1998년 8년의 투옥 끝에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작품 발표는 단행본으로 계속되었다. 에세이집 『오늘은 다르게(1999), 『겨울이 꽃 핀다』(1999), 『아체는 너무 울고 있다』 등. 그는 현재 사회단체 '나눔문화운동'의 상임이사로 있다.

•김철수(金鐵水, 아호: 금강수) 시인·아동문학가

1949년 함평읍 출신으로 대한기독교신학대를 거쳐 그리스토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필립핀 유니온 신학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서든켈리포니아대학원서도 수학했다. 1984년 《월간문학》에 동화 「꾸러기 장군」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동화집 『돛단 배』(1987), 『꽃나라의 비밀』(1996), 동시집 『각시붕어』(1988), 동요동시집 『나비야 나비야』(1999)를 비롯한 최근의 수필집 『옹달샘』(2009) 등에 이르도록 시,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 수십 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문학 활성화와 중앙문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아동문학회장 등을 지내고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 P.E.N. 클럽 한국본부 이사도 지냈다. 1983년 전남아동문학상, 함평군민의 상(문화부문), 1992년 한국아동문학작가상, 1994년 한국기독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샛별문학회장, 한국 문협 함평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1988년 창간 이후 함평에 기반을 둔 월간 《아동문학》, 계간 《크리스찬 문학》 주간 겸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미국 한인문단과 기독교단체들과는 물론 중국조선족문단과도 긴밀하게 상호교류하고 있다.

•이승철(李承哲) 시인

1958년 학교면 학교리에서 태어났다. 학다리 고교를 거쳐서 호남대 행정학과 등에서 수학했다. 1983년 민주문화운동 무렵에 김규동 시인이 주재한 시 전문 무크지 《民意》에 「평화시장에 와서」 등을 발표하며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세차장 야화」(1983) 「제2한강교 앞에 앉아」(1984) 「오월 노래」(1985) 등의 열린 사고와 시민의식 짙은 작품 성향을 띠고 있다. 시집 『세월아, 삶아』(1992년), 『총알택시 안에서의 명상』(2001), 『당산철교 위에서』(2006) 등을 냈다. 서울에서 도서출판 '산하'의 기획위원장, '나남' '인동'출판사의 편집장, 황토출판사 대표를 역임했고 여러 해 동안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일도 맡아 보았다.

•안혜성(安惠星) 작가

1948년 월야면 태생으로서 다소 신체장애를 겪은 소설가이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와 다년간 영자 신문사에도 근무한 당찬 여성작가이다. 1985년 동아일보사의

《여성동아》 현상공모에 장편소설 『베르니카의 노래』가 당선되었다. 장편 『불꽃 춤』(1988), 『향목(香木)』(1990), 『안개의 벽을 넘어』(1992)와 여러 편의 중, 단편을 발표했다. 1970~ 1980년 《코리아 헤럴드》 신문사의 문화부 차장으로 일하다가 강제퇴직 당 하는 시련을 겪었다. 한국문협과 민족작가회의 회원이었다. 기독교인으로 뒤늦게 혼인한 그는 2008년에 서울서 작고하였다. 그의 글에서는 인간의 사랑과 사회개혁의 한계 및 기독교적인 구원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왔다.

•김형수(金炯洙) 시인, 작가

1959년 해보면 출신이며 서강정보대학을 졸업하였다. 1985년 《민중시, 1》 에 시 「배고픈 다리」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진보적 시인이다. 또한 그는 1988년에는 계간지 《녹두꽃》 을 창간하면서는 비평 활동도 겸했다. 시집 『애국의 계절』 『가끔씩 쉬어간다는 것』 『빗방울에 관한 주석』 이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 『나의 트롯트 시대』와 평론집 『반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및 『대중을 위한 문학 교실』 등이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중앙대 예술대학원 강사로도 출강하고 있다.

•최권진(崔權鎭, 아호: 行兒) 시인, 아동문학가

1961년 대동면 서호리 출신으로 함평농고와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에서 수학했다. 그는 주로 고향 현지에 거주하면서 향토문화 진흥에 힘쓰며 글쓰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찍이 시집 『진실의 역』 (1985)을 내고 《월간문학》 에 동시 「판문점의 비둘기」(1989)가 당선되었다. 그 후 시집 『괄호로 묶은 사랑을 풀고』 (1992), 『원리, 그 눈부신 사랑』 (2010) 펴냈다. 대자연 속에 생활하는 인간의 품성을 탐색하는 그의 시는 사회인들과의 조건과 길항성을 서정적으로 노래한다. 한국문협회원, 한국아동문학 회원, 전남시인협회회원, 전남문협 이사, 전남아동문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함평에서 도서출판 꿈과 믿음사를 경영하던 그는 향토문화연구회원과 함평군사편찬위원, 함평문화원 사무국장 일을 맡고 있다.

•유재기(兪在奇) 시인

월야면 태생으로 1986년에 《현대시학》 추천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에 『무등천하』 『M16에 관한 명상』 등이 있으며 《함평문화》 등에도 좋은 글을 발표한다. SBS TV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를 기획, 출연했으며 언론사 논설위원을 지냈다. 여러 저서를 낸 그는 서울에서 출판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문혜관(文慧觀,아호: 雪村) 시조시인

1956년 학교면 곡창리 태생으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승려로서 시 쓰기에 임하고 있다. 1987년 《시조문학》 에 「촛불」이 당선된 이래 인생관조와 향토성 짙은 서정시집 『한듬』(1987), 『번뇌 그리고 꽃』(1996) 등을 펴냈다. 현대불교문학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낸 그는 서울에서 불교문학 포교원장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윤한식(尹漢植, 童園) 동화작가

1927년 대동면 출신으로 자유중국 동방신학교 등에서 수학했다. 1989년 《아동문학》에 동화 당선을 전후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동화집 『용원의 오솔길』(1988), 『천사의 여행』(1990), 『하늘 법정』(1996) 등이 있고 한국문협 함평지회장도 맡았다. 샛별문학상, 전남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화상 등을 받았다.

•이태헌(李太憲) 동화작가 · 소년소설가

1955년 함평읍 출신이며 한국방송통신대서 수학했다. 그 후 무안읍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며 글을 쓰는 아동문학가이다. 1989년 월간 《아동문학》에 소년소설이, 월간 《고신신문》에 동화가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기독교문예상, 아동문학상 등을 받았다.

⑤ 1990년대에 등단한 사람들

•박승배(朴承培, 아호: 智山) 시인

1938년 엄다면 성천리 태생으로 엄다초등학교 재학 중 송정리로 이주하여 자랐다. 서울에서 고학하며 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모교인 정광중학를 비롯해서 송정여상고, 전남공고 등에서 국어 교편을 잡으며 시 쓰기에 임해 왔다. 1990년 문예지 《문학공간》에 시 「한쪽만 가는 세월」 외 4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그대 부르는 일은 없었지만』(1989), 『친구가 불러준 마지막 노래』(1993), 『미리내강의 연인』(1998)을 펴냈다. 광주푸른공간회장 등을 역임한 그의 시에는 「성아, 너는 모르지」(1998)에서처럼 조국 분단이 데올로기로 인한 가족의 심적 외상 등을 향수어린 순수서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남석희(南石熙) 시인 · 수필가

1952년 부산태생이나 80년부터 엄다면 번동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 《시와 시론》 《문학공간》에 시와 수필이 당선되고 1992년 《문예사조》에 시가 다시 당선하여 등단했다. 수필집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여자』(1995), 시집 『메시지를 전송 한다』(1999), 『햇빛이 겨누는 작살』(2005)이 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공간시인협회 회원, 행동불교법사 회원이다. 그는 풋풋한 전원생활의 서정을 시와 수필로 노래하고 있다.

•이은자(李銀子) 수필가

1952년 함평읍에서 출생하였다. 전남대 사범대학 가정학과와 호남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문학예술》에 수필 「비와 음악」이 당선되었다. 수필집 『바오로의 그림』(1991), 『엄마 이젠 다 말 할 게요』(1993), 『종합독서교육의 독서마당』(1994)를 펴냈다. 그의 작품들에는 다소 교훈적이고 선도성향을 띠면서도 깊은 사색에 바탕한 사색과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우수(李雨洙) 동시인

1956년 손불면 대전리 출신으로 학다리고교와 조선대를 거쳐 호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91년 월간《아동문학》에「고향편지」로 등단했다. 동시집『고향편지』(1988),『아름다운 세상을 위해』(1991) 등이 있다. 한국문협 회원, 국제펜 회원으로서 전남아동문학 사무국장, 광주 공무원문학 동우회장 등을 역임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1993년 전남아동문학상을 수상한 그의 글은 때 묻지 않은 동심으로 사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

•임현택(林炫澤) 작가

1960년 엄다면 영흥리 태생인 그는 고향에서 오래도록 농사를 짓다가 상경하여 늦깎이로 대성한 소설가이다. 서른 살 넘은 나이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1년《문학사상》신인상에 단편「무기(無器)」가 당선되어 등단한 것이다. 그 후 여러 단편과 「그림자와 눈」을 비롯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 왔다. 1996년에 1천만 원 대산문학상 지원으로 장편『붕새의 사랑』(문학과 지성사), 1998년에 창작집『멀고 먼 폴리네시아』도 출간했다. 현재 그는 경기도 이천에서 학원 및 유치원을 경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박영조(朴榮祖) 시인

1940년 무안읍 인근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청년시절에 학교면 사거리로 이사 온 이래 50여년을 함평군민으로 살고 있다. 나이테를 감안하면 뒤늦은 1991년 문예지《문학공간》에 시「老松」외 1편으로, 이듬 해《한맥문학》에「진달래」외 2편으로 천료되어 등단하였다. 그의 시는 소박하고 진솔한 서정성을 띠고 있다. 한국문협회원 겸 전남문학 회원인 그는 학다리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류중영(柳重榮, 아호: 大園) 시인, 수필가

1943년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나 나산초등, 광주남중, 광주공고를 거쳐서 전남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문학공간》에 시가 추천 완료되었고 2003년《현대문예》에 수필 「대권유감」도 당선되었다. 그 후 작품 활동을 하며 수필집 『득도의 길』(2003)을 펴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흔히 자연과 인생에 대한 관조와 서정을 다루고 있다. 광주에서 중고교 교편생활을 마친 그는 광주시조문학회 부회장과 무등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상훈(全尙勳) 시인

1955년 손불면에서 태어나 조선대 사범대 국어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문학공간》에 시「울 엄니」외 4편이 당선되어 데뷔했다. 1986년 전국독서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그는 1996년에 시집 『사는데 무슨 말이』를 펴냈다. 중고교에서 국어교편을 잡던 그는 교육위원회 간부로도 일하며 시 작업을 계속하였다. 가족애적 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그의 시는 토속적 서정성의 추구와 현대문명의 부정성에 대한 통찰 내지는 비판적 시각이 주조를 이

룬 가운데 일상적인 사물에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일구어진 삶의 의미를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이현숙(李賢淑, 아호: 雪香) 시인·수필가

1958년 손불면 대전리 출신으로 수피아여고 등에서 수학했다. 1991년《문예사조》에 수필「꽃비」당선에 이어 이듬 해《문학세계》에 시「잠 속의 피리소리」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가야금과 창에도 조예가 깊으며 전통적 서정을 긴축된 시어로써 형상화하는 시를 쓰고 있다. 그는 시집 『대숲에 들면』(2006)을 출간했다.

•김창훈(金昌勳, 아호: 民河) 시인

1952년 함평읍 내교리 태생인 그는 성균관대 법학과와 전남대 행정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고향에 내려와 정착했다. 1992년에 계간 《시세계》에「울아버지」등이 당선된 후 시집『별이 뜨면 노래를 부릅시다』(1994)를 펴내고 시 창작에 힘쓰고 있다. 함평문림 회원, 한국문협 회원으로 있으면서 빛글인회 회장 일과 한국언어문화회 회장 등을 맡았다. 함평문화원 사무국장을 거쳐《함평군민신문》발행인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낙후와 빈곤으로 피폐된 농촌현실을 서정 넘치는 옛정서로 승화시키는 한편 생명감 있는 농심을 되살려 향토부활의 글을 지향 한다.

•강경호(姜京昊) 시인·평론가

1958년 손불에서 출생했고 광주대학교를 거쳐 같은 대학 대학원 문창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조선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함평 태생의 시인인 이수복 문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준비 중 이다. 1992년《문학세계》에 평론이, 같은 해《현대시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경향의 주요 문예지와 신문들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는 향토지인《文林》《함평문화》에도 자주 좋은 글을 싣고 있다. 시집『언제나 그리운 메아리』『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람』『함부로 성호를 긋다』(2004) 등을 출간했고 계간 문예지《시와 사람》발행인으로서 도서출판 '신문예'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대 문창과 등에 출강하는 그는 물질문명에 소외되고 짓눌린 인간의 가치옹호와 존재론적 가치 부여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글을 쓴다.

•정의정(鄭義丁) 동시인

1952년 엄다면 삼정리 태생으로서 함평읍에서 살며 함평농고를 나왔다. 후에 나주대 사회복지과와 초당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월간《아동문학》에 동시가 당선된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향토민을 위한 교통업에 종사하는 그는 그대로 거리의 시인처럼 일상을 생활하는 글쓰기 작업에 임하고 있다. 시집『목마를 타고』(1994),『내 곁에 그대 있었기에』(1995)를 출간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동시집『아지랑이』를 펴냈다. 그는 한국문협 함평지부의 사무국장에 이어 회장을 맡고 있다.

•배상수(裵常洙, 아호: 愚谷) 시인

1954년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하여 광주북중과 조대부고를 거쳐 조선대 경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학춘추》에 시「뒷동산」외 2편과 같은 해《시와 산문》에 시가 신인상으로 당선되었다. 이듬해 《문예한국》에 시「월계리에서」외 2편도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그 후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꾸준한 시작활동을 계속하는 그는 시집『돌아오는 길』(2003), 『강변에서』(2009)를 출간하고 있다. 그의 시는 짜여 진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기성찰적 인간 진실을 서정적이고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석류동인으로서 광주문협과 한국문협 회원인 그는 시와 산문 편집고문도 맡고 있다.

•김종화(金鐘和, 아호: 숭늉) 수필가

1950년 엄다면 송로리 해정서 태어나 학다리고교를 거쳐 호남대 행정학과와 중앙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로 육군에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했다. 1995년 《국방일보》현상문예에 수필이 당선되고 이듬해 《문예사조》에 수필로 재등단하였다. 한국 문협 회원, 국제 펜 회원이다. 수필집 『개구리는 왜 움추리는가』(1995), 『나는 마누라 자랑하는 팔불출』(1998), 『지휘관일기』(2002), 『이십 년의 약속』(2003), 『내 마음은 소주잔』(2008)을 냈다. 제10회 한국전쟁문학상, 제1회 소운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협 회원, 국제펜회원인 그는 3사문학회회장,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로 있다. 그의 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한 삶의 애환과 긍정적인 사랑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김영관(金永官) 희곡작가

1947년 함평읍 내교리 출신으로서 학다리 고교와 조선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나와 모교에서 영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영문학 교수이다. 그는《함평문림》동인으로서 많은 수필과 칼럼을 발표해 왔다. 평소 유진 오닐을 좋아해 온 그는 여러 번역희곡과 창작희곡을 써오다가 뒤늦게 1997년 《문학 21》에 희곡이 당선된 이후 더욱 희곡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창작희곡집 『미로』(2000)와 수필집 『바람의 길목에서』(2004) 외에 번역희곡집 『이상한 막간극』(2001) 등을 냈다. 광주문협 부회장과 함평문림회장을 맡은 그의 작품세계에서는 표현주의 극의 기법에서처럼 현대인의 내면세계에 천착하는 작풍을 드러내고 있다.

•김희저(金熙姐) 작가

1956년 익산 출생으로 원광대에서 수학하였다. 1993년도부터 가족과 함께 엄다면 성천리 용동 마을에 정착해 살면서 창작에 임하고 있는 여성소설가이다. 1995년《세계일보》신춘문예에 한국 판소리와 북에 심취한 장인세계를 심도 있게 그린 단편「엇몰이」가 당선된 후 글쓰기에 노력하는 작가이다. 2000년대 들어 산문집『꽃밭에서 변죽을 울리다』를 펴냈다. 근래 작품으로 단편「공자의 유한시대」「달래」「빈대떡」「괘종시계」등을 발표했다. 좀처럼 문인단체에 왕래를 꺼리며 조용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문예 특강 등에

임한다.

•김대자(金大者, 아호: 天眼) 수필가

1944년 손불면에서 태어나서 서울 총신 목회대학원을 수료하고 기독교의 목회활동을 하며 수필을 쓰는 신학박사이다. 1995년 《문학춘추》와 같은 해 《수필과 비평》의 수필 신인상에 당선했다. 수필집『이름 없이 빛도 없이』(1988)를 펴낸 바 있다. 《교회신문》사 주최 수기기독문학상(1990) 등을 수상했다. 신교계 목사인 그의 작품에선 기독교적 신앙과 어머니를 위한 효 사상 고취 등을 드러내고 있다.

•함진원(咸珍媛) 시인

1959년 학교면에서 태어나고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 조선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수료했다. 1995년《무등일보》신춘문예에 시「그해 여름의 사투리조」당선으로 등단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집『인적 드문 숲길은 시작되었네』가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원탁시 회원인 그는 기린독서문화원과 한국독서교육원 원장으로 일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남도 풍정과 물질문명에 녹슬어가는 현대인들의 애환을 향토적 서정으로 접근해 내고 있다.

•전덕용(全德龍) 작가

1939년에 손불면 산남리에서 태어난 그는 유달중학과 학다리고교를 거쳐 서라벌예대와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0년대 4·19학생운동 이후 민주화운동 등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 월간《씨알의 소리》편집장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시국적인 수난 후에는 영남권역서 교편을 잡고 퇴임 뒤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다. 낯선 지방서 꾸준히 소설쓰기에 임해왔다. 뒤늦게 발표한 장편『동촌(東村)』(1996)을 통해서 사회의식을 드러내고 이어서 타령조인 장편『청승개비타령』(1997)에선 드물게 사설조 문체를 써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양산의 효암고교 교장을 역임한 그는 한국문인협회에도 가입하여 본격적인 소설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김영월(金永月) 시인, 수필가

1948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나 함평중학, 광주고교, 국제대학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서기를 거쳐서 서울 연지동 등의 주택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1996년 문예지《한국수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시와 산문》을 통해서 시단에도 등단했다. 그는 등단을 전후한 10여 년 만에 수필집 여섯 권과 시집 다섯 권을 내서 왕성한 창작실적을 올리고 있다. 수필집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산은 산, 물은 물을 찾아서』『가끔씩 날개를 달고』『몰입하는 삶』등과 시집『현금자동지급기』『60억 번째 아기를 위하여』『나는 은하수로 춤추러간다』『섬은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등.

•정종배(鄭鍾培) 시인

1957년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태생이다. 서울 한성고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중대 교육대학원를 마쳤다. 그는 목포 홍일고, 서울 장훈고교를 거쳐 청담고교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1996년 《문예한국》에 시 「남행소묘」, 「두주먹」, 「항구」 등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시집 『산에는 작은 꽃도』(1999), 『안개 속에 소리가 자란다』(2006), 『그림자 흔들기』(2008)를 냈다. 서양화가인 아내와 부부시화전도 가진 그는 일상생활의 애환과 자연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정희경(鄭會京) 시인

1958년 신광면 삼덕리 출생으로 신광중학과 조선대 부고를 졸업했다. 1996년 《문학 21》에 시 「낮달」 외 1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문학》에도 「간극」 「곡우」 등, 여러 작품을 선보이고 수련을 쌓았다.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그는 여수문학회와 전남시문학회 회원으로 있다. 고향에 오는 때마다 그는 으레 옛 동네인 신광면과 새로 부모님이 이사가 계신 손불면에 들러 오가는 정을 나누기에 바쁘다. 2006년에 펴낸 그의 첫 시집 『풍경, 꽃 지고 날 저무는』의 작품세계는 「녹슨 풍경 속에서 캐낸 삶의 원형」이라고 평설하고 있다.

•고선주(高善柱) 시인

1967년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하여 광주 대동고와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 「비에 대한 우상」이 당선되고 계간 《열린 시학》 《시와 정신》, 월간 《현대문학》 신춘시 특집 등에 시와 평론, 산문들을 발표하며 활기찬 문단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작가의 시론집인 공저 『광주문학지도 1』(2005)을 내고 첫 시집 『꽃과 악수하는 법』(2008)을 상재했다. 《광남일보》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정재(李正宰, 아호: 羅山) 수필가

1946년 나산면에서 출생하여 나산중학(검정고시에 합격)에서 공부했다. 광주상고를 거쳐 광주교대를 졸업했다. 다시 서울대 사대 교육원 수학과를 수료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조선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찍이 함평초교 교사, 완도군외중 교사, 함평중, 농고 교사를 지냈다. 이어서 동신실업전문대 교수, 광주교육대 교수 및 교무처장을 거쳐 광주교육대 총장을 역임했다. 1997년 《문예사조》에 수필 「사랑의 십자가」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그후 《전남일보》 《전남도민일보》 《호남일보》 《호남교육신문》 등에 많은 칼럼을 발표해 오고 있다. 그의 수필은 서정적 향토적이면서 당면한 시민적 삶을 올바르게 다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성연(李晟衍) 시인, 수필가

1949년 나주군 세지면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함평군 학교면으로 이주해 살았다. 학다리 고교를 나왔다. 조선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마치고 문학석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교수로 시작해서 목포대 교수를 거쳐 다시 조선대

사범대에서 오래도록 국어학을 강의했다. 평소 문학 창작에도 열의를 가져 뒤늦게 등단하였다. 1990년대 들어 종합문예지《문학춘추》에 이어《詩文學》에 시가 당선되었다. 그 후 《현대수필》에 수필로도 데뷔해서 활동했다. 기독교 성향과 민족적 서정성으로 휴머니즘을 지향한 글들을 즐겨 쓰며 시집 준비를 해오던 그는 2009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김산중 (金山中, 아호: 淸江) 시조시인

1934년 학교면 학교리 태생으로 학다리고와 서울문리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부터 함평동중, 무안북중, 목포제일중, 함평여중 교사를 지내고 광주전남중, 진도군내중 교장을 지내다 정년했다. 1999년《문학춘추》에 시조「춘설란」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조집『회자정리』(2001)와『속회자정리』(2003)에는 우리 전통서정과 불교적 충효의식을 통한성찰의 성격이 담겨 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문창과를 수료한 그는 동천문학회장도 맡고 있다. 또한 사군자 등 그림을 익히고 있는 그는 2003년 한국미술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윤석원 (尹錫元) 소설가

1958년에 학교면 사거리에서 태어났다. 학다리 중학교를 거쳐 광주 숭일고를 나왔다.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명지대 대학원 문창과에서 수학했다. 서울에서 여러 해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다. 1993년 여름호《창조문학》에 단편「춤」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전남 사투리를 많이 활용한 자전적인 작품이 많다. 창작집 『남자가 사는 법』(2004)과 장편『환생유혹』(1997), 장편『어머니 품안에는』 (2006) 등을 펴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소설가협회 의원으로 있다.

⑥ 2000년대에 등단한 문인들

•채문수(蔡文秀, 아호: 平山) 작가

1943년 학교면 월산리에서 태어나 학다리중, 고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창작전문 과정을 마쳤다. 오래도록 서울서 정보통신부에 근무하던 그는 1990년 KT현상문예 소설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2년《월간문학》에 단편소설「루비콘강을 건너다」가 당선되어 작가로 등단했다. 이후 창작집『국경선』(2006)을 출간한 그는 이순의 늦깎이답지 않게 참신한 자기세계와 탁월한 기법을 활용하여 휴머니티를 구현해내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현재《계간문예》주간,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김동리기념사업회 이사, 한국 문협 문인저작권옹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춘배(李春培) 시인, 수필가

1949년 손불면 월천리 출신이며 살레시오고와 광주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정규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복무 후에 중령으로 예편했다.2002년《백두산문학》과 2007년《문학

예술》에 시가, 2003년《문학춘추》에 수필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해왔다. 계간 《문학춘추》 편집위원, 남우회 광주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09년에 펴낸 시집『길 찾아 나선 길』은 자아성찰을 통한 생명존중을, 수필집『침묵연습』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 통찰을 통한 존재의 의미를 재인식한 성향을 보인다.

•고일석(高逸錫, 아호: 眞村) 시인

1941년 학교면 곡창리에서 태어나 학다리고교와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오래도록 모교인 학다리 중고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중학교장으로 후진들을 키워냈다. 2003년에 중학 교직 정년기념으로 펴낸 시집『낙서』이후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장로인 그는 현재 군사편찬의원,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이사장도 맡아 지방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최승영(崔塍栐, 본명:崔璋圭) 시인

1962년 해보면 금덕리에서 태어났다. 2003년《문예사조》에 시「버스 정류장의 귀로」 등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로 고향을 터전으로 살면서 시골과 여러 도회를 잇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시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현실적인 삶의 세계를 다분히 서정적인 데다가 주지적 성향으로 표출하는 편이다. 2006년에 첫 시집 『외로우면 길을 걸어라』를 냈다. 그리고 2008년 초《문예춘추》사의 타골탄신기념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김낙현(金洛炫) 평론가

1970년 학교면 사거리 경화동 출생으로 학다리고를 졸업했다. 중앙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마치고 조기천 연구로 문학박사를 받았다. 2003년《월간문학》에 평론「울음의 서정과 역동성-신경림론」이 당선되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원, 한국문협 회원인 그는 남서울대, 중앙대에 출강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시 문학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한글문단에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환(吳鍾煥) 시인

197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후 어릴 적부터 부친 고향인 월야면 영월리에 정착해 산다. 월야중학을 나와 군 제대 후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2005년 시「바람의 날개」가 계간문예지《대한문학세계》에 당선되었다. 2007년에 낸 첫 시집 『하늘의 크레파스』에는 인생에 대한 애착과 죽은 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김밝음(아호: 民傘) 시인

1963년 해보면 금덕리 구계마을에서 태어나 함평농고를 졸업했다. 그 후 경기신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신대 목회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순천대 평생교육원 문예창작과도 수료했다. 2005년 계간《문학과 사랑》에 시「우전」외 4편으로 등단해서 시집『보성에 가

면』(2006)을 펴냈다. 현재 보성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그의 시는 녹차를 비롯한 남도적 서정과 기독교 신앙생활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승희(鄭承姬) 동화작가

1967년 학교면 마산리 표산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 상경하여 풍문여고와 중앙대 사범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 시내 명지초등학교 등에서 글짓기 교사를 지냈다. 2005년에 《새벗》 문학상 동화부문에 당선된데 이어 2006년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서 우수동화상을 받고 등단했다. 동화집 『손을 들면 흥이요 발을 들면 멋이라(인물 이야기 金千興』(2005), 『알다가도 모를 일』(2009)을 펴냈다.

•황숙자(黃淑子) 수필가

1945년 나산면 수하리에서 태어나 나산중, 광주교대 교육원 문창과에서 수학했다. 2004년 《대한문학》에 수필 「꽃밭」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공저 『초록빛 그리움 가득한 해』 『토요일 뜰 끝자락 돌계단 아래』(2008) 등에 수필을 발표하였다. 광주문협회원인 그의 작품은 일상의 삶에서 겪고 느끼는 인간과 인간간의 정감이나 동심 가득한 자연사랑 등을 자주 다루고 있다.

•김양기(金良基, 아호: 東濱) 시인

1940년 학교면 월호리에서 태어나서 소년 때 엄다면 삼정리로 이주하여 성장했다. 학다리 중, 고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상학과에서 수학했다. 학다리 고등학교에서 정년까지 봉직한 김준기 교장의 친형이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원 박사과정도 밟았다.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총무처 관리를 거쳐 함평 부군수를 지냈다. 2006년 《문학예술》 봄호에 시 「찔레꽃 여인」 「추어탕」이 당선되어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2009년에는 첫 시집 『아내를 울린 시』와 기행수필집 『이국(異國)에 뿌린 여정(旅情)』도 출간했다. 제목에서처럼 남도 물씬한 친근감을 주는 그의 시에서는 향토적인 서정성과 남도창 깃든 인정세계를 즐겨 다루고 있다.

•조성문(趙成文) 시조시인

1965년 함평읍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인천의 고교에서 국어교편을 잡으며 시작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주산지 물빛」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민족시 사관학교 회원인 그는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을 얻어 시조집을 준비 중이다. 그의 시조는 대체로 풍부한 상상력과 묘사력으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통한 인간의 고뇌를 이미지화하여 공감을 자아낸다.

이밖에 함평출신이거나 함평에 터전을 잡고 사는 문인 중에는 여러분이 남아 있어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에 임춘평(林春平), 이환행(李桓行), 수필에 김사현(金司鉉), 이계

선(李啓善), 이계윤(李啓潤), 정찬동(鄭燦東), 박병섭(朴炳燮), 정근욱(鄭根旭),이근형(李根炯), 아동문학에 양길배(梁吉培), 양점열(梁点烈), 오정희, 소설에 이상권, 장근양 등. 지금까지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늦깎이로 등단하여 활동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

또한 비록 함평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더라도 일시 근무처였거나 친인척의 고향, 또는 기타 인연으로 함평과 친숙감을 지니고 왕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신해자 시인이나 허승자(石蘭) 시인 같은 분들이 그렇다. 하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출간하는 군사(郡史)이니만큼 여기에 기재하는 객관적 기준을 주로해서 다루는 것임을 참고해서 할애하기로 한다.

(6) 함평군의 학생문학 활동

학교마다 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각기 학교문집(學校文集)이나 교지(校誌)들을 발간해 왔다. 그 기간과 각 급 학교에 따라 출간과 단절 또는 명칭 변경과 속간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부 기간에 행한 그 현황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문집 발행 현황>

학 교 명	문 집 명	창 간 년 월 일
함 평 군 교 육 청	향(香)	1983. 12.
함 평 국 민 학 교	느티나무	1982. 11. 1
학 다 리 국 민 학 교	고래실	1983. 11. 20
월 야 북 국 민 학 교	푸른잔디	1982. 10. 29
광 동 국 민 학 교	광동동산	1981. 11. 1
함 평 중 학 교	향나무	1981. 4. 30
함 평 여 중 학 교	개나리	1983. 6. 1
학 다 리 고 등 학 교	올해달은다리학괴다리되도록에	1983, 2. 10

<교지(校誌) 발행 현황>

학 교 명	교 지 명	창 간 년 월 일
함 평 군 교 육 청	함평교육	1983.
기 산 국 민 학 교	기산봉	1977. 5.
성 남 국 민 학 교	성남어린이	1983. 6. 28
향 교 국 민 학 교	향교어린이	1983. 4. 1
나 산 국 민 학 교	천주봉	1983. 3. 25
월 야 국 민 학 교	월야어린이	1983. 7. 1
월 야 남 국 민 학 교	꿈나무들의 호흡	1982. 5. 21
월 야 중 학 교	둥근달	1982, 5, 24
신 광 중 학 교	학교신문	1983. 5.
함 평 농 업 고 등 학 교	함농인의 소식	1983. 6. 25
학 다 리 고 등 학 교	학다리	1953. 1. 15

제2절 예 술 (藝術)

1. 함평출신들의 예술 활동

함평 천지는 과연 인재의 고장이라 싶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타관에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과 고향에 남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다 조사하여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여기저기서 직접 간접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면 대개 다음과 같이 윤곽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함평천지 출신의 연예인 중에는 그 출생지를 두고 모호하게 문제 삼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이웃에서 지켜보거나 친인척 관계를 이루며 살아서 분명히 함평천지 사람인데도 나중에 타지방으로 이주해 산 경우들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광산 쪽으로 이사 갔던 임방울 국창은 광주광역시에서, 나주로 이거해 가서 종명했던 정창업 국창은 나주서 매년 지역축제의 주인공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임춘앵 국극인 역시 남원 출생설이 없지 않으니 그 당사자들에게 함평인들 서로가 평소 소원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피고 자료를 확보하며 기념행사도 진지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대조적으로 본 고향은 타 지역인데 스스로 함평천지를 작업장과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여 온 주요 예술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광주나 목포, 또는 서울 등지에서 우리 고장에 정착하거나 이웃 지방을 넘나들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아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돌머리 부근에 새로 개관한 나비고을예술인촌은 의미가 짙다고 생각된다. 이분들께서는 함평 태생으로서 출향해서 타지에서 활동하거나 타향에서 귀향한 경우 못지않게 소중한 주민들이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로 열린 채 우주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함평의 예술과 인물들을 풍성하게 가꾸어갈 한 공동체의 식구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함평의 문화예술은 새로 영입해 들어온 예술인 여러분과 더불어 재향예술인, 출향예술인, 귀향예술인 모두 함께 어우러져 큰 발전을 이루어 가리라 기대된다.

1) 서예· 미술계

서예는 미술에 포함된 장르인데 함평 출신으로 서예계와 미술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성가(聲價)를 떨친 분들이 여러 사람 있다. 한학(漢學)의 대가(大家)로서 한문서예에 능통한 신효열, 한글서예의 제일인자격인 이학, 서희환, 그리고 동양화의 원로인 안동숙 화백, 서양화의 원로인 김영태 화백 등이 꼽힌다. 미술계의 경우는 문학 분야와 달리 데뷔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체적인 연령순으로 프로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예가(書藝家)

•노선표(魯璿杓, 아호: 庸菴)

1902년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한 선비로서 특히 예서에 뛰어났다. 남다른 필재를 지녔기에 그의 유묵은 호남 각처에 전해졌다고 알려진다. 1946년에 작고했다.

•신호열(辛鎬烈, 아호 : 雨田)

1914년 나산면 송암리 출생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활동한 서예가 겸 한학자이다. 4세 때부터 할아버지 학산공으로부터 한학공부를 시작하여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고 신동이야기를 들었다. 47세부터 동방고서국역간행회 편집부장을 지내고 61세부터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교수로서 국역요원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한편 고려대 대학원, 동국대 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수준 높은 한문학을 강의했다. 『대동야승』 『동문선』 『연암집』 『퇴계집』 『하서집』 등, 고전의 국역에 임하는 한편 한문 서도(書道) 강좌도 열어왔다. 젊은 시절 한 때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바도 있지만 그의 진가는 격 높은 한학과 서예세계에 있다. 그는 이미 작고했지만 그의 글씨는 서울 남산공원의 안중근 의사 기념비, 광주 공원의 옛 함평 출신 의병장 심남일(沈南一) 기념비 등에 새겨져 길이 빛나고 있다.

•모찬원(牟贊源, 아호 : 南川)

1916년 신광면 삼덕리에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달원, 낙원으로 쓰고 자를 동찬이라 했다. 한문으로 전국 각지의 비문과 기문, 현판 등의 글씨를 많이 썼다.

•모상풍(牟相豊, 호 : 河山)

1920년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하여 신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증산사, 백양사 등의 사우회 도유사를 맡았고 함평향교 유도회장, 전교를 지냈다. 여러 곳의 기적비 등, 비문을 직접 짓고 한문으로 썼다.

•이학(李鶴)

1922년 함평읍 출신으로 전 진의종 국무총리의 부인이다. 한글서예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그는 중·고교 학생용 「글씨본」을 펴낸 바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신사임당상'도 수상하였다. 우아하고 활달한 궁체한글은 높은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

•김인두(金仁斗, 아호 : 恒園)

1927년 나산면 월봉 출신으로 조선대 법대를 졸업했다. 손불중학 교장, 전남교육위원회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오랫동안 교육관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예 활동을 하였다.

•김재정(金在晶, 아호 : 鶴泉)

1923년 엄다면 성천리 출생이다. 엄다 초교와 목포상고를 거쳐서 1949년 조선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제 말엽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제일은행에서 근무했다. 그후 학다리 중·고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생활을 했다. 서예와 상업과목 등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만년에는 사거리 집에서 한글과 함께 한문 행서나 초서 및 도자서예에 전념하다 1993년에 작고하였다.

•서상은(徐相殷, 아호 : 秋圃)

1930년 엄다면 성천리 와촌의 이천 서 씨 가문 출생으로 1987년 첫회 단원 예술제에 특선하였다. 오래도록 함평 서도(書道)교육원 원장으로서 향토의 서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주로 한문서예에 일가를 이루었다. 함평문화 발전에 숨은 공로를 쌓으며 문장 3.1만세 터 비문 등 많은 금석문을 남겼다.

•이재원(李宰原, 아호 : 慕仁堂)

대동면 출신의 보기드문 여성 서예가이다. 전주 대사습놀이 전주 제1회 백일장 서예부문에 입선한 후 서울 제3회 전국 신미술대전 서예부문에 입상하였다.

•이환행(李桓行, 아호 : 瑞海)

1954년 해보면 문장 출신으로 지방행정요원으로 근무한 한글 서예가이다. 한·중교류전(韓中交流展) 등 일곱 차례나 입선하였다. 오랜 공직생활에 이어서 나산면장에 재직 중인 그는 최근 시단에도 등단했다.

•정동수(鄭東秀, 아호 : 省園)

1925년 해보면 출신으로 전국 춘향 미술대전(大展) 추천작가, 동남아 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남도전 및 대한민전(大韓民展) 등에 10여 회 입선한 바 있다.

•서희환(徐喜煥, 아호 : 平步)

1933년 엄다면 성천리 와촌 태생으로 학다리중학과 광주사범에서 수학하고 도내 여러 초중학교서 교편을 잡았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서예대가인 소전(素筌) 손재형을 사사(師事)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국전에 연 3회 특선한데 이어서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 국전 공모전(公募展)에 국전사상(國展史上) 처음으로 서예로써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후 상경하여 1972~94년 세종대 회화과 교수를 지내면서 한글서예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초기에는 소전처럼 예능적인 미의 시각성을 중시한 글씨에서 나중에는 손수 글자에 정신적 힘을 쏟아 붓는 서체를 개발해 썼다. 국전 심사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예술의 전당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탑비문(塔碑文)으로는 국민교육헌장선포 원본, 정몽주선생 동상문, 행주산성 전첩비문, 박정희 대통령 묘비문(墓碑文), 3.1운동기념비문, 독립기념관 어록비문(語錄碑文) 등 주요한 금석문(金石文)을 남겼다. 그러나 선생은 평소 시류를 저어하고 고고한 선비의 기개를 내세워 그를 따르려는 제자를 외면하여 키우지 않았다. 1990년 봄에 서울서 작고하여 함평천지 고향 동산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

•유병기(兪炳琪, 아호 : 樵堂)

나산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서예가협회 회원이다. 서예전람회(國展) 1~3회 입선,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선, 광주직할시 미술대전 등에 수차 입선 및 특선된 바 있다.

•김봉천(金鳳千, 아호: 雲峰)

함평읍 출신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고 미전에 입선한 바 있다. 1982년에 작고하였다.

•나상근(羅庠根, 아호:文谷)

1933년 엄다면 화양리 출생으로 목포중학을 거쳐 목포사범서 수학했다. 일찍이 소전(素筌, 손재형)에게서 한문 예서를 익혔다. 엄다 농협 등에서 근무하며 중앙의 여러 민선대회에 자주 출품하여 수차 입상하였다. 1980년대 말 제7,8,9,10회 한국 신미술대전에 입선(제7,9회에서는 특선)하여 추천작가로 인정받았다. 1989년 문공부 인증의 국제연합미술대전서도 동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현재 함평노인회 회장으로 있다.

•윤병주(尹炳注, 아호 : 愚智, 竹泉)

1934년 대동면 옥동 출신으로 광주사범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오래도록 교직에 종사하면서 서예를 계속해 왔다. 초등학교 교장과 함평교육청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군민복지회관 준공기념 탑문(塔文) 등을 썼다.

•윤경중(尹炅重, 아호 : 南坡)

1937년 해보면 상곡리 출생으로 조선대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전남 도내 중고교 교편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묵당(墨堂, 김유만)에게서 한문글씨를 익힌 그는 서예가 겸 시인으로 활동한다. 1971년 전남도전에 입선하고 197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서화대전서 한자 반초서로 특선하였다. 1989년 동남아세아 서예대전에 입상하고 한·중·일 서예교류전과 대한민국 예술전 서예부 특선(3회)경력도 가졌다. 또한 1984년 《문예사조》 에, 1989년 월간 《韓國詩》 당선 시인이다. 첫 시집 『참 삶의 세월』 (1991)을 비롯해서 『그리움이 타는 마음』 (1995), 『모악의 가을』 (1997), 『고은마음 깊은 곳에』 (2003), 『함평천지에 나비는 날고』 (2004)를 펴냈다. 그의 시 역시 반초서 글씨에서처럼 전통적인 한국풍의 서정성과 인도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정일순(鄭一順, 아호: 月松)

1940년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했고 전남대 경영대학원, 동 교육대학원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했다. 1960년대에 전남미술대전 입선 6회, 특선 4회 경력을 쌓았다. 1972년 호남예술제 서예백일장 최고상, 1974년 MBC 전국 여성 서예백일장 최고상, 유네스코 서예백일장 장원 외에도 기타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여러 번 입선했다. 그 후 한국예술문화협 초대작가, 광주-전남 미술대전 추천 및 초대작가였고 여류서예초대작가전 운영위원장, 국민예술협회 이사, 광주-전남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서예가 활동을 펴고 있다. 1987년 이래 광주에서 정관서예원(靜觀書藝院)을 열어 운영하였다.

•노대숙(魯大塾, 아호: 竹坡)

1941년 함평읍 진양리에서 태어나 함평중학과 숭일고교를 나왔다. 중앙대 문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그는 광주에서 화공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서예를 겸한다. 아

호에서 엿보이듯 서예가 송파(松坡 이규형) 밑에서 글씨를 익혔다. 그는 이미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와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추천작가를 지냈다. 2000년부터는 한국서가협회 광주지회 초대작가, 2005년부터는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이다. 한시 등을 주로 하는 그의 중후한 필체는 품격을 자랑하여 돋보이고 있다.

•강형채(姜炯埰, 아호: 靑南-佛甲山人)

1943년 해보면 금덕리 출생으로 조선대 부고를 나왔다. 일찍이 서예가 남용(南龍, 김용구) 밑에서 글씨를 배우고 희재(希栽, 문장호)를 통해 문인화를 익혔다. 한글과 한문서예를 겸하고 있다. 1971년 ~1984년에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 특선, 1990년~1996년에 국전서예대전에 입, 특선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광주광역시전 심사위원, 전라남도전(道展)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청남서예학원도 운영했고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도 맡았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과 전남도전 초대작가이기도 하다. 박용철시비문 등도 써서 남겼다. 제자들 모임인 청묵회 지도를 맡고 있다.

•정익환(鄭翊煥, 아호 : 德巖)

1945년 월야면 출생으로 서울에서 덕암서예한문학원 원장으로 있다. 한국문화예술제 특선, 국제문화 미술대전 특선, 국제문화협 신춘초대전 3회 출품 등의 경력을 가졌다.

•정광주(鄭侊柱, 아호: 金草)

1952년 학교면 금송리 출생으로 조선대 부속고와 조선대 사범대학 (영어전공)을 졸업했다. 1980년을 전후하여 수년 동안 광주서강고 교사를 지냈다. 1972년부터 서예가 송곡(松谷, 안규동)문하에서 본격적인 서예를 익히기 시작했다. 1974~1986년에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 특선 10번, 제1회(1982)와 제7회(1988)의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도 입선했다. 1985년 전남 도전(道展) 서예부문에서 우수상, 198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1984년(제1회)이후 2004년 사이에 여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1995년에는 예술의 해를 빛낸 미술인상(문화체육부장관)도 받았다. 1997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한국 전각, 초서의 오늘전 초대전'에서처럼 그의 작품은 한글과 한자에서 전각이나 초서의 새로운 서체를 구사하고 있다. 그는 전남 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전(市展) 초대작가, 국립현대미술관(국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대전(大展) 초대작가이다. 또한 국전, 전남도전, 광주시전, 동아대전, 대구시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음은 물론이다.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 지회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인 그는 호남대에 이어 여러 해 전남대 예술대에도 출강하고 있다.

•서재경(徐在京, 아호: 凡樹)

1963년 학교면 석정리 진례 태생인 그는 학다리중, 광주숭의실업고를 졸업했다. 순천농전 원예과와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호남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했다. 목인(木人 전종주)에게서 서예를, 치련(稚蓮 허의득)에게서 문인화를 배웠다. 다양한 실업계열 공부를 거쳐서 서예미학으로 전향한 그는 드디어 198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에서 서예로 데뷔했다. 그 후

1991, 1997, 1999, 2001, 2005년에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국내외의 작품전에도 영예로운 초대작가로서 출품, 참가했다. 대한민국 서예초대작가전, 전라남도 개도100주년기념미술초대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04광주비엔날레기념 서예문인화초대전, 한-아랍5개국전, 몽골-한국서예초대전, 독일-한국묵향초대전, 한중서예교류전 등. 그의 작품은 성균관대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해서 왕인박사 동상문 휘호, 함평생태공원의 김남조 시 「나비의 노래」, 목포 해양대 교정의 박남수 시비, 신경림 시비문 등으로 남아 있다.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가로 선정된 그는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장 겸 사단법인 광주서예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남도전, 광주시전, 무등전 등의 심사를 맡았다. 광주예술고와 호남대에도 출강했다. 함평과 광주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그는 남다르게 옛 상형이나 비문자 등을 활용해서 실험적인 작풍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이전의 예서나 전서를 문인화적 회화 이미지와 원초적인 아포리즘 시 미학으로 가미, 조화시켜 새로운 조형과 감성을 창출한다.

•정무남(鄭茂南, 아호: 竹菴)

1959년 엄다 영흥리 영천 출신으로 학다리중, 목포 기계공고를 졸업했다. 이어서 조선대 이공대 전기과와 초당대 컴퓨터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광주의 담헌(湛軒 全明玉)을 사사하며 한문서예를 익혔다. 1985년부터 전남도전 등의 특선을 거친 다음 한국서예협회가 주최한 2001년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 근무 중인 그는 현대 조형서예에서 자형의 다양한 모색을 꾀하여 주목 받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1회 연 바 있고 국내외의 여러 단체전에도 출품하고 있다. 한-아랍 5개국전, 독일전, 한중서예교류전 등. 대한민국 서예대전 추천작가, 전라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미술전 초대작가, 전국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인 그는 한국서예협회 광주지부 이사로서 대한민국 서예대전심사 및 각종 대전의 심사를 맡고 있다.

•김영용(金永龍, 아호: 蒼山)

1952년 학교면 금송리 출생으로 목포제일중, 학다리고, 조선대 법대를 졸업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남강(南剛 이효갑)을 사사하고 금초(金草 정광주)에게서 서예를 익혔다. 200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하였다.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추천작가, 남도서예 문인화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고향을 지키며 비문(碑文)과 현판 및 제호(題號) 등에 글씨를 써서 서예문화에 이바지한 분들이 많다. 월야면의 정학철(鄭學喆, 호 : 觀吾), 학교면의 김욱현(金旭鉉)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해보면의 윤판병(尹判炳), 나산면의 김광수(金光洙, 호 : 陽坡), 함평읍의 한원섭(韓元燮, 호 : 巖巖), 엄다면의 이창헌(李昌憲) 등이 활약해왔다.

또한 월야 출신으로 일찍이 학정(鶴亭 이돈흥)을 사사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대전 초대작가 겸 광주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장주현(石溪, 張珠賢)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손불면의 김두삼(金斗三), 나산면의 유중근(兪重根), 대동면의 진동범(陳東範), 함평읍의 강대윤(姜大允), 함평읍 신기산의 장봉원(張鳳瑗, 호 : 南石), 광주에 사는 이월희, 정순남 제

씨의 글씨 작품들도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 화가

① 한국화, 문인화 부문

•안동숙(安東淑, 아호 : 吾堂) 화백

1922년 나산면 출신으로 일찍부터 활동하여 성공한 화단의 거장급 원로이다. 일제강점기 무렵 가난 속에 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해 상경한 그는 어릴 적부터 이당(以堂) 김은호 화백 문하생으로서 스승 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고전적인 한국화를 익혀왔다. 이당 -오당이라는 아호 역시 스승이 자신의 화풍을 이을 재목으로 여겨 제자에게 손수 지어줄 만큼 깊은 뜻을 지녔다. 과도기 한때 간부급 공무원 신분도 지니고 한국전란을 겪으며 뒤늦게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였다. 이화여대 교수로 봉직하고 미술대학장과 미술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제자들을 길렀다. 대한민국의 국전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비중 있는 미전의 심사 등을 주관했다. 특히 한국화 가운데 창의적인 동물을 통한 추상화를 즐겨 그리는 남종화(南宗畵) 화풍의 창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목동과 신선이 산새들과 더불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노닐듯 인간과 동물, 식물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범아일여(梵我一如)와 자연 친화의 동양사상을 작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정년퇴임 이후는 경기도 광주군 남촌의 전원주택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원에는 함평천지서 직접 옮겨 심은 낯익은 고향 소나무들이 가득 오당화백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

•모용기(牟龍基, 아호 : 근재) 화백

함평읍 태생으로 해방 이전에 일찍이 선전(鮮展)에 두 번이나 입상했다. 그러나 6. 25 전쟁 무렵 타개하였다.

•김지상(金知常, 아호 : 雲呼) 화백

1916년 함평읍 출신으로 정광고등학교 재단이사장도 역임하면서 그림에 임했다. 초산(焦山, 通伯)을 사사한 그는 한국화와 함께 문인화에도 능하였다. 초기의 《함평문림》에 문인화도 그려넣었다. 일찍이 1930년대 중엽부터 《東光》 잡지 등에 시를 투고하여 발표한 이후 시도 쓰고 한동안 불가(佛家)에 몸 담았다가 돌아온 바 있다. 서예도 겸했던 그는 1990년대 초에 작고했다.

•이성운(李成雲, 아호 : 乙江) 화백

1916년 황해도 안악 태생으로 동경 미술전문학교에서 수학했다. 1950년대에 월남하여 우리 고장에 정착하면서 미술활동을 하였다. 여러 해 엄다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0여회 개인전도 연 바 있다. 초기의 《함평문림》 동인지에 표지화를 그렸다.

•윤영석(尹永錫, 아호 : 雲堂) 화백

대동면 상옥리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나왔다. 여러 차례 전남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성봉(鄭成奉, 아호: 旦軒) 화백

1948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나 함평초등, 광주 송원고를 졸업했다. 광주대 순수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의재(毅齋 허백련 화백)의 문하생으로 1979년부터 12번 연속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한 그는 개인전 2회, 미술관 초대전 수회를 가졌다. 남도 미술 100선집, 영호남 중견작가 초대전에도 참여했다. 남도묵우회 회장을 맡은 그는 한국미술가협회 광주분과 운영위원으로 있다. 산수화와 풍경화('돌머리 풍경')의 리얼한 수묵화 작업을 계속하는 그는 현재 조선대 미술대에 수년 동안 수목화 강사로 나가 지도하고 있다.

•노경상(魯卿相, 아호 : 浦馬) 화백

1948년에 월야면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일찍이 석성(碩星 김형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979년 목포, 1987년 광주, 1991년과 1993년은 서울 롯데, 1196년 대전, 2001년 광주 등, 여러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1985년 전남도전 우수상, 1987년 한국미술대전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그 후 광주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1990년대에 여러 해 동안 전남대 강사도 지냈다. 그림 작품에 전념하는 그는 서예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미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한국화의 시대적 조화론」「남도화의 재조명」「조선시대 산수화의 구도연구」등의 관계논문과『한국화 백문백답』(1995)을 책으로 펴낸 바 있다.

•김송근(金松根, 아호: 一丁) 화백

1958년 장흥군 안양면에서 태어나 송정중과 광주농고를 졸업했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서 한국화를 익히고 진도여중 교사를 지낸 그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1984년 전남도전 입선 이후 특선 4회 이후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되었다. 1987년 전국미술대전 종합대상, 1090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대상, 2002년 국전 특선 경력을 지녔다. 광주시전, 전남도전, 무등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지낸 그는 국내외서 개인전을 8회 열었고 다수의 초대전과 그룹전에도 2백여 회 참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함평읍 석성리에 자리 잡은 나비고을예술인촌에 터전을 잡고 창작에 임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자주 와서 지냈던 나산 유덕마을과 월야 덕정리의 외가친척들 초대와 이 고을 산수가 마음에 들어서란다.

•김광옥(金光玉, 아호: 玄童) 화가

1958년에 김송근 화백 이웃마을인 장흥군 안양면에서 태어나 광주공고를 졸업했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에서 한국화를 공부하고 나와 중고교 교편을 잡았다. 일

찍부터 동향출신 김송근(一丁)과 더불어 아산(雅山, 趙邦元)을 사사했다. 전남도전 추천작가인 그는문인화가인 부인 임혜숙 화백과 함께 2006년 가을, 함평천지에 생활과 창작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해보면 산내리에다 그곳 뒷산의 모양이 누에를 닮았다는 데서 아담한 잠월(蠶月)미술관을 짓고 관장 겸 창작 주체로 일하면서 함평주민으로 살고 있다. 스승인 아산의 산수화를 비롯해서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2백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는 가끔씩 주민이나 이웃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시회도 열고 있다.

그밖에도 군산대 졸업 후, 해보에 터전을 두고 수산증식업을 하면서 해보중학생들에게 미술지도도 하는 1957년생의 조신연(趙信衍, 아호: 茂堤) 화백이 산수화를 즐겨 그리고 있다. 또한 1964년 함평읍에서 출생하여 서울의 성신여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온 이수진(李受珍, 아호 : 春苑) 화백이 1980년대 말 국전 한국화 부문에 입선한 후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 문인화

•한상운(韓相雲, 아호: 覓堂) 화백

1950년 학교면 월산리 송정마을 태생이다. 학다리중, 고교를 거쳐서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그는 1978년부터 허백련화백의 문하생으로서 문인화계의 원로인 금봉(金峰 朴幸甫)을 사사하며 문인화를 익혔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2회, 전남도전 특선 4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특선 2회, 최우수상을 받아 등단했다. 이후 2000, 2003, 2006년, 3회에 걸쳐 한상운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광주-전남 문인화협회 이사장인 그는 대한민국 서예대전을 비롯해서 문인화 대전, 광주시전, 전남도전의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맡아왔다. 또한 이론 면에서도 석사논문 「한국근대 사군자에 대한 연구」,「일제 침략기의 문인화에 대한 연구」등으로 문인화 질량을 높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윤회와 인연생기로 이어진 영생불멸의 동양적인 세계로 승화된 사유를 담고 있다. 근년에 오래 봉직해오던 교직에서 명예퇴직하고 20여년 계속해온 전남대와 광주교대 출강도 접은 그는 더욱 작품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에 겔러리(藝)와 작업실, 담양에 농막 같은 창작실을 두고 양쪽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이진행(李辰行, 아호: 曉松) 화백

1941년 대동면 향교리서 태어나 학다리고교와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유림지도과정 등에서 수학했다. 공무원으로 함평군청에서 근무한 그는 손불, 신광면장을 지냈다. 1987년부터 수년간 한문서예 해서로 입선, 특선을 하다가 문인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거장 우송(愚松 金泳三) 문하서 문인화를 익힌 것이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서 6번 입상, 특선 1회의 관문을 거쳤다. 그는 2003년 목우(木友)공모전서 최우수상, 동학미

술대전 최우수상에 이어 2006년 대한민국 서예대전서 대상을 받았다. 2004년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2004년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겸 추천작가, 2006년 도전 추천작가, 2009년 성균관 주최 대한민국 유림서예대전 추천작가이다. 전남문인화협회 이사로 있는 그는 광주서구노인복지관, 함평문화원에도 강사로 나갔다. 2010년 현재 함평문화원장으로 있다.

이 밖에도 문인화 분야에는 함평읍 자풍리의 권남희(權南嬉), 신광면 복흥리의 박순애(朴順愛), 신광면 송사리의 윤명희(尹明嬉) 등도 작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자료가 없어 생략한다.

② 서양화 부문

•김영태(金永太, 아호: 白悅) 화백

1927년 함평읍 진양리 출생이며 광주농업학교, 조선대 미술과 1회 졸업생으로 화단에서 활약하는 원로급 화가이다. 한국전 때에는 육군 종군화가로도 나섰던 그는 일찍이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조대부속중고, 광주서중, 목포공고, 광주공고 등 광주, 전남의 여러 중고교 미술교사를 지냈다. 그 후 조선대 미술과 교수와 호남대 교수를 역임하며 여러 후진들을 키워냈다. 1972년 광주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래 그는 국내외에서 많은 초대전과 개인전을 가졌다. 1974년 미협전(美協展)에서 한국예총회장상과 1978년 전라남도 문화상을 받은 바 있다. 1991년 동아일보사 70주년 기념 백두산 설경전도 열었다. 몇 차례 방대한 화집을 낸 그는 국내서의 개인전은 물론 여러 해 일본이나 러시아 교류작가전에 수차 초대받고 현지 참가하여 국위를 빛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도전 심사위원과 광주시전, 무등대전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지냈고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장도 역임했다. 2006년 광주시문화상,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했다. 대학시절 김보현교수에게서 유화를 배웠던 그는 초기에 사실주의 화풍을 띠었으나 후에 오지호선생을 사사한 다음에는 점차 인상주의 화풍을 지향하다가 이제는 두 요소를 아우르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박석규(朴錫奎) 화백

1938년 나산면 월봉리 태생으로 목포고 졸업 후 조선대 미술학과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경희대 교육대학원을 마쳤다. 목포대학에서 미술학교수로서 오랫동안 후진을 양성해온 그는 인문과학대학장과 부설 조형예술연구소장 등을 맡으며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다. 현재 목포대 명예교수로서 출강함과 동시에 함평 소재의 갯벌미술관관장을 겸하며 특히 원초성과 리얼리티 만점으로 독보적인 갯벌그리기에 열의를 다하는 화가이다. 근년의 주요 개인전과 초대전 현황도 화려하다. 2009-KOMAS 서울특별전, 갯벌미술관 개관전-咸平天地 찾아서, 2008-여수 국제 아트페스티벌, 한중교류전(한중 국교16주년기념) 중국 북경,2006-제6회 광주비엔날레-미술오케스트라, 국제아트페스티벌(여수),2002-젊은 예술가의 표상-(광주),4th Zurich Art fair Swiss,2001-行方不明(광주5월 精神展),2000-나고야대학 초청미술전(일본), JAALA BIENNALE 동경(일본) 등. 한국미술대전, 전남미술대

전 심사위원장 등을 지낸 그는 한국미협 특별상(1978), 프랑스 르방 국제싸롱전 예술상(1996) 등을 수상했다. 또한 목포 미협 지부장, 목포 민족문화운동연합 의장, 한국 미협 전남초대지회장, 파리 8대학 조형예술대 연구교수, 유달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런 만큼 박석규 관장 중심의 나비고을 예술인촌 갯벌미술관은 앞으로 지역문화상으로나 친환경적으로 두드러지게 특성화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길(李泰吉, 아호: 仁松) 화백

1941년 나산면 출생으로 광주사범을 거쳐서 조선대 서양학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나왔다. 일찍이 목우회(木友會)공모전 공보부장관상 등에 이어 2007년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상도 수상했다. 대한민국 미술전(국전) 입선 10회, 특선 3회 경력을 지녔다. 서울신문사 초청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전 등 중진작가전에 수차 출품했다. 또한 독일 바르베르부륵 화랑 2인 초대전(1987), 한국-불가리아미술교류전(1992, 불가리아) 등에 출품하기도 했다. 한국 구상화의 대가로 꼽히는 그는 서울 성신여대와 숭실대, 인하대, 충북대 강사 등을 지냈다. 2천년을 전후하여 손수 발해와 고구려 고토인 구소련의 연해주와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현장을 답사, 취재하고 상호 교류에 임한 그는 우리 화단에 작품의 영역과 민족의식을 거듭나게 한 바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광주시립미술관장과 목우회 (木友會)이사장을 역임하며 국내외로 한국미술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지내고 현재 한국구상미술협회 이사장, 종로미술인회 회장, 신작전회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에 오래된 화실을 두고 후진을 지도하며 창작에 힘쓰고 있다.

•서병옥 (徐炳玉, 아호: 孝齋) 화백

1955년 대동면 금곡리에서 태어나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광주와 서울에서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오월의 서곡전 자리아트페어(광주), 우리 땅 독도 사랑전(광주), 감성과 셀러드전(일산), KBS초대전(서울), 남북의 길전-목포에서 판문점까지(서울), 한중미술교류전(중국 동영시), CAPING국제교류전(일본 동경) 등. 이미 서양화계의 중견인 그는 광주미술대전, 신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내며 미술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희옥(金姬玉) 서양화가

1958년 함평읍 기각리 태생으로 학다리고를 거쳐 서울예술전문대학 응용미술과를 나왔다. 그는 흔히 꽃, 과일 등의 정물화와 길, 산과 들의 풍경화를 주로 한 유화를 즐겨 그린다. 고향마을의 사계절 정경을 배경 삼은 최근의 카렌다 부부시화전은 인상적이다. 1999년 인사동의 서경겔러리 개인전, 2005년 윤갤러리 개인전, 2009년 인사아트풀라자 개인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인전를 열었다. 또한 각종 단체전 및 초대전에 120여회 참가한 그는 젊은 화가로서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펴고 있다.

•노정숙(魯貞淑, 아호: 福泉) 판화가

1963년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나 학다리중과 광주 동신고를 졸업했다.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와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처음에는 서양화 그리기로부터 시작했던 그는 19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 영향으로 인해서 판화로 전향하였다. 판화도 목판으로부터 점차 동판화로 옮겨왔다. 그는 1987년 광주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서울 인사동 개인전 등 국내외에서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연 바 있다. 김환기국제미술제전, 동계천아트페어,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초대전, 제10회 CREA 2005, 일한미술교류전 등. 화순에 작업실을 둔 그녀는 전남대에 출강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박태규(朴泰奎) 서양화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어릴 적에 부친 고향인 함평읍 기각리로 이사와 살면서 기산초교, 함평중, 학다리고교를 졸업했다. 호남대에 진학하여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처음에는 10여 년 동안 광주극장의 영화 간판을 그리며 미술적인 삶을 꾸려오다가 2천 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창작에 임하기 시작했다. 2001년 '행방불명' 오월정신전, 이듬해인 2002년에 광주 롯데화랑에서 박태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2002~2004, 2006년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고 출품하는 등, 그룹전에 많이 참여해 왔다. 거의 해마다 광주지방은 물론 2005년 서울, 2007년 대구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해왔다. 특히 2008년 광주에서 가진 <자연은 내 친구-박태규 김희련 생태미술 말판놀이전>은 주목된다. 이전의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사회참여에서 탈피하여 광주천 정화 등의 환경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 의식은 그의 쌍둥이 딸 이름을 친환경적인 자운영 이미지를 살려 자운-운영으로 지은 사실과도 연결되고 있다.

•정운학(鄭雲鶴) 서양화가

1965년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나 전남고와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독일에서도 7년 동안 유학하며 프랑크푸르트 미술아카데미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독일서 돌아온 후 2004년부터 함평천지 월야면에 자리한 월야문화마을에 입주해 살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 서울, 부산 등에서 모두 6회의 개인전을 연 그는 중국과 대만의 미술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02년 신세계미술상을 받은 바 있고 2006~2007년의 광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였다. 입체조각설치를 주로 하는 그는 수년 동안 목포대와 전남대 미술과에 출강하며 소묘분야의 강의도 맡고 있다.

•최대주(崔大柱) 서양화가

1970년 함평읍 대덕리 출신으로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도 마쳤다. 1996년과 1999년, 2005년에 무등예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수년에 걸쳐서 광주의 여러 겔러리나 미술관에서 행해진 3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 출품했다. 광주청년미술작가전, 수차의 불휘기픈 300호전, 조형 21흐름전, 생활의 기록전 등. 화순읍 주도리에 화실을 두고 꾸준한 창작에 임하는 그는 전

남대 미술학과에도 출강하고 있다.

•이관수 (李寬秀) 화백

1969년 신광면 가덕리에서 태어났다. 학다리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07년 광주 민미협 창립전 '핀치히터전'및 화가의 지갑전 외 단체전에 다수 참여했다. 2008년 '오월전/만인전'에 참가한 그는 광주 민예총 광주 민미협 회원으로 있다.

•김현덕(金賢德,아호: 色光) 염색공예가

1963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지내오다가 2002년부터 함평 신광면 보여리에 가족여섯 식구와 함께 이사와 산다. 일찍이 광주일고와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해보면 삼내리에 잠월(蠶月) 미술관에서 2008년에 3인전을 연 데 이어 2009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종이나 천에 감복합염색을 실험하는 미술작업을 한다. 그리고 나주천연염색문화관 자문위원인 그는 그곳 한국천연염색연구회의 담임교수도 맡고 있다.

이밖에 손불 출신인 김창선(金昌宣) 화백, 함평읍 출신인 김해성(金海星) 화백, 함평읍 옥산리 출신의 최병진(崔炳辰)화백, 함평읍의 이재칠 화백, 기각리의 나경아 화백, 함평읍 내교리의 윤은애 화백, 이종화(李鍾華) 화백이 있으나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적을 수 없다.

(3) 도예가, 조각가

•최재원(崔宰源, 아호: 箕山) 도예가

1950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나 함평농고, 목포교육대를 졸업하고 상지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초임부터 수년간은 전남지역에서, 그 후 여러 해는 경기지역 여러 초등학교에서 22년 교편생활을 하였다. 동남아미술대전 입상, 신미술대전 입선 3회 등 추천작가이다. 1990년대 전반기는 경기도 여주에서 향원도예를 경영하다가 1995년 이후 함평에서 기산도예를 운영하며 손수 도예작업에 임하고 있다. 1993년에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인 도예전시회을 연데 이어 같은 해 부산 아천미술관서 개인 황금백자전을 연 이후 여러 번 각종 단체전에도 출품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11월에 창립된 초대 함평 예술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양갑수(梁甲秀) 도예가

1960년 엄다 송로리 노상에서 태어나 학다리고교를 졸업했다. 이어서 광주대 산업디자인과와 조선대 대학원 산업공예과서 도자기를 전공했다. 실제 기술은 동신전문대 공예과에 다시 진학하여 박종훈 교수(후에 단국대)에게서 현대 도자기의 물레성형술을 주로 익혔다. 1986년부터는 광주가든백화점 등에서 열린 신도예 단체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개인전은 2003년 서울 무역센터와 2004년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연 바 있다. 2004년 부여시 조각공모전 우수상, 2009

년 광주광역시 주최 꽃박람회 도자기 대상을 받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예술대학, 대불대, 서남대, 한려대에 출강했고 2004년 이후 전남과학대학 겸임교수로서 대학내 연구실 겸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다.

•박영복(朴泳福, 아호: 美馬) 도예가

1960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중학과 무안종합고교를 졸업하였다. 1982년 서울 배수남집에서부터 도예를 시작해서 경기도 곤지암 등에서 기술을 익혔다. 이후 1986년 광주 무등요에서 본격적인 작품 만들기를 시작했다. 한동안 함평읍내 진양리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93년에 나산 소재 미마공작실에서 도예작업을 하고 있다.1996년 광주 가톨릭센타, 2000년 광주 남봉미술관, 2005년 광주여성발전센타서 개인전을 열었다. 초기에 분청을 주로 했던 그는 점차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도예작업을 해가고 있다.

•김한섭(金漢燮) 도예가

1070년 학교면 사거리 청정마을서 태어났다. 학다리고교를 거쳐 군산대 산업디자인과와 단국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93년 대학 실습실에서부터 도예에 전념했고 서울 세곡동 소재 박종훈교수 작업실 등서 작품제작을 익혔다. 국제도자디자인 공모전에 입상하고 남도 정예작가초대전, 남도의 형,색,향전, 강진청자문화제 초대작가이다. 초기에는 사발 등의 물레성형에 주력했으나 요즘은 조형분야에 치중한다. 평소 함평 석성리에 있는 나비고을예술인촌서 생활하며 작업하는 한편 주말에는 가정이 있는 무안 현경에서 서해공방을 경영하고 있다. 2006년 사발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008년 서울 인사동 소재 나눔겔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이건용(李建龍) 조각가

1977년 월야면 경산리에서 태어나 월야초교 때 광주로 나가 광주상고를 졸업했다. 조선대 미술대조소과를 거쳐서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2000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각부문 최우수상, 같은 해 한국미술대전에서 조각부문에 특선되었다. 2000~2003년 광주무등대전에서 특선 4회, 2002~2003년 전국대학-대학원생 조각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백학조각회, 그룹퓨전, 광주미협회원인 그는 젊은 나이로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에 올랐다.그는 현재 폐교가 된 나산 이문초등학교 자리에 행복한 샘 도예학습장을 운영하며 흙과 철조용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에 출강하기도 하는 그의 작품세계는 대체로 인간의 일상에서의 사랑과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 밖에 월야면 출신의 이재길 조각가, 최재덕 조각가도 꾸준하게 진지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지만 자료부족으로 자세히 다루지 못한다.

(4) 사진작가

•손재석(孫在石) 작가

1932년 손불면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광주로 이거한 후 고학하며 한국 사진예술계의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사진대전서 수차례 특선을 거친 그는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광주시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미국 뉴욕에서 활약하는 아타 김의 작풍을 좋아하여 직접 미국 현지에 가서 연수한 그는 드물게 미국사진작가협회회원(PSA), 국제사진협회회원, 한국이미지사진학회회원이기도 하다. 1980년 제1회 개인 작품전 이래 2009년에 이르도록 그는 경향각지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이전의 생활중심 기록의 재현사진을 탈피하여 한 차원 높게 예술성을 가미한 영상사진을 추구하는 그의 노력은 선구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공로들로 이미 문화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사진문화상, 광주사진문화상, 광주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손재석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장을 역임하고 여러 사진전의 심사는 물론 후진들 지도에도 임하고 있다.

•정영욱(丁永旭, 아호: 毅泉) 작가

1940년 학교면 사거리 출신으로 학다리 중고교를 졸업하고 영남대 영문학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광주여상 등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사진예술에 관여해왔다. 그는 초기부터 동향 출신의 선배로서 일찍이 미국에서도 새로운 사진예술을 익힌 손재석(孫在石) 등에게서 일상적인 기록을 벗어나 예술적인 이미지 추구의 사진 기법을 지도 받았다. 그동안 두 차례 동아국제 사진 살롱전에 입선한 그는 제18회 국전에도 입선했다. 광주에서도 광주직할시전, 전남대전에 여러 번 특선한 바 있다. 광주사단 합동전 추천작가인 그는 광주 한빛사우회 창립,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와 광주광역시 지회장을 역임하였다.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의 초대작가로서 전남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한 그는 조선대 평생교육원에도 출강하며 후진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순중(金順中, 아호: 雲峰) 사진작가

1938년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출신으로 목포 덕인고와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했다. 일찍부터 사진예술에 참여하여 많은 관록을 쌓아온 이 분야의 권위자이다. 대구-경북미술대전, 호남미술대전, 광주시 사진대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등의 초대작가이다. 전국촬영대회 및 공모전에 수십 회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지냈다. 1998년 광주광역시장 공로상, 2006년 회원전 20걸상(서울), 2008년 한국문화사진출판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불교신문 사진가회 광주시 지회장, 한국사진가협회 이사, 한국예총 본부 대의원을 역임하고 자문위원으로 있다. 저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으로 남기며』(2007)를 낸 그는 현재 수년 동안 무안군 문화원과 함평군 문화원에서 사진 강좌 교수역도 맡고 있다. 그는 작품 가운데서 숙명적, 일상적으로 자연산천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즐겨 테마로 다루고 있다.

•김교선(金敎善) 작가

1938년 엄다면 삼정리 태생으로 광주서중을 거쳐 학다리 고교를 나왔다. 광주에서 여러 사업에 종사하며 사진예술에 임하였다. 1992년 가을에는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그는 흔히 산수의 정취 등에 걸친 대자연을 사진의 대상으로 삼았다. 《함평문화》 등에도 자주 정선한 작품을 선보이곤 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던 그는 2008년에 작고했다.

•김용기(金龍基) 작가

1941년 학교면 학교리 출신으로 학다리 중고교를 졸업했다. 오래 전부터 광주에서 생활해 온 그는 향상된 풍경화의 이미지 사진 예술을 익히면서 창작에 열중하고 있다. 1990년대 광주사진대전에 특선 2회를 지내고 2000년에 사진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광주 사진협회 대의원으로서 협회의 간사 일을 맡아오고 있다.

이 밖에 학교면 금송리 출신으로서 광주광역시 전람회 초대작가인 김기호 작가도 있다. 광주에서 영상사진 동아리를 지도하는 그는 김기호 스튜디오도 운영하며 사진예술의 디지털 이미지를 추구한다.

2) 음악계

(1) 국악인

함평의 예술이나 연예를 말할 때는 역사적인 판소리의 창(唱)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판소리가 이미 2003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서만이 아니다. 사실, 함평천지는 서편제(西便制)의 거목들이 태어나 자랐던 본고장인 것이다. 국악전공의 김혜정 박사도 함평이 남도 판소리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밝혀놓고 있다. -"함평은 정창업, 정학진, 강장원, 임유앵 등의 명창이 출생한 지역이다. 전형적인 서편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강장원이나 임유앵처럼 김창완의 서편제와 이동백의 동편제가 섞인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정창업이나 강장원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정학진 명창(1853~1912)은 아직 자료가 미비하여 아쉬움이 남지만 그 인재적 가치나 예술적 열정은 무진장인 것 같다.

함평고을의 이런 국악에 대한 사랑의 맥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어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고전적인 국악이 가뜩이나 사양 추세인 요즈음에도 함평천지의 우리 소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 1986년에 국악협회 함평군 지부를 발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역대회장은 윤인상, 김선일, 최수복, 신오성, 옥경태, 박문식, 김성현씨가 맡아오고 있다. 비록 시조 창을 주로 한 모임이지만 20여 년 동안 본회를 이끌어온 박문식 회장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참고 된다.

-"함평은 오래 전부터 창(唱)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신창으로 불리며 종6품까지 오른 정창업을 비롯, 여성국악인으로 판소리, 민요, 창의 명수로 알려진 노장섭, 임

종하, 김성현 등 3명은 중앙본부에서 국창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함평국악협회회원들은 전국 판소리 경창대회에서 많은 입상자들을 배출해 냈다.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명희, 김종규, 이상규, 김유중, 양삼자, 박행님, 김재선, 정옥례, 김난희, 김정배, 윤덕수가 있다. 이외에도 고수부문에서 최양님과 황금덕이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모듬북에서는 심금섭이 입상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함평천지가 한민족의 전통음악인 판소리의 고장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대강의 맥을 찾아볼 수 있다.

•정창업(丁昌業) 국창

조선조 후기 헌종조(1847~1919설과 1849~1889설)에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현재 용동)에서 태어난 정창업(丁昌業)은 철종과 고종시대를 풍미하던 판소리 명창이다. 12세 때 박유전(朴裕全)문하에 들어가 5년간 공부하고 5년간 독공, 득음했다. 22세 때 전주 통인청 대사습시에 '춘향가'열창 중 서두 대목에서 "나구 등에 솔질 솰솰" 다음 가사를 잃어 탈락한 뒤 3년 동안 절치부심한 노력으로 대성한 일로도 유명하다. 고창의 신재효(申在孝)에게 사사하여 서편제의 달인으로 대성했다. 여러 번 서울에 불려가 솜씨를 보인 나머지 운현궁에서 마지막으로 감상했던 대원군으로부터 신창(神唱)으로 불렸고 오위장 벼슬을 제수 받아 함평 현감과 동등한 종6품까지 받은 소리꾼이었다고 전한다. 특히 「흥보가」나 「심청가」 중의 더늠(중타령)으로 갈채를 받았으며 문하생이던 남원의 송만갑(宋萬甲)은 동편제이던 가문을 외면하고 서편제의 정창업 국창을 따랐던 것이다. 노년에는 나주군 문평면으로 이거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당시 송만갑, 김창환, 전도성, 정정렬 명창 등으로 호남전역에 뻗쳐 있었는데 그 여맥은 오늘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편이다.

•임방울(林芳蔚) 국창

1904년 나산면 나산리 대정 태생의 국창(國唱) 임방울(본명:林承根)은 바로 정창업의 제자격인데 14세 때는 광산군 송정리로 이사 갔다고 전한다. 광주에서 박지현에게서 춘향가 「흥보가」를, 구례에서는 유성준에게서 「수궁가」 「적벽가」를 6년간 익혔다. 그 후 1928년 25세의 나이로 상경하여 처음 김창준 송만갑의 소개로 중앙의 큰 무대에 올라 판소리 춘향가의 「쑥대머리」를 불러 명성을 얻고 「수궁가」 「적벽가」를 완창하여 한국적 한과 설움으로 국민들 심금을 울렸다. 당시 일본으로까지 레코드판으로도 보급된 「쑥대머리」는 인기 절정이었다. 요즘 임 국창이 광산 출신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당시 그를 지켜본 분들은 입을 모은다. 본디 어릴 적에 그의 부모가 인간계와 신계를 매개하는 일을 맡은 샤마니즘 직업에 종사했던 신분상의 하대의식 때문에 본고장을 숨긴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수많은 고을(57개) 가운데 첫 구절을 '함평천지'부터 시작한 「호남가」를 임방울 자신이 작곡하여 취입하고 전국을 떠돌며 절창했던 연유도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 같다. 1961년 전북 김제의 허름한 재래시장 모퉁이에서 그는 초라하게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재인식된 그를 기리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2009년 현재 제17회 <임방울 국악제>에 이르도록 해마다 큰 기념축제를 열고 있다.

•강장원(姜章沅) 명창

1909년 함평에서 태어나 1962년에 서울서 작고한 근대 판소리계의 큰 공로자이다. 16세 때부터 나주의 김창환에게서 2년 소리를 배우고 5년을 손수 깊은 산속에 가서 득공을 한 다음 20세 넘어 상경해서는 이동백을 사사하여 대성한 국악인이다. 1933년에 처음 전국 명창대회에 나가서 특히 적벽가 중 삼고 초려한 대목을 장쾌하게 불러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더욱이 그해 조선성악연구원이 결성되고 1936년에는 그 직속 창극좌가 조직되어 박초월, 김소희와 함께 출연한 창극 공연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광복 이후 구왕실의 아악단 재건에 앞장섰던 그는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설립되자 초기부터 국악사로 자리 잡아 이론과 강습으로 국악 후진들을 길러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 더욱이 그는 후에 여성국극단의 대표가 된 임춘앵의 언니인 함평 태생의 명창 임유앵(林柳鶯,1913~1964)과 부부라서 주목되고 남는다. 거기에다 처형인 임임심의 딸로서 김연수 명창 부인이 된 김진경과 경수 자매(진경국극단 경영)뿐 아니라 처음에는 서양 성악을 하다가 국악으로 전향하여 국악원의 요직까지 맡은 그의 처남 임천수에 이르도록 두루 함평 태생의 국악가정을 이룬 터였다.

•천학실(千鶴實) 명창

1910년 엄다면 송암 출생으로 일찍부터 임방울의 판소리 창에 심취하여 배우며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즐기던 예인이었다. 일찍이 명창 강남중에게서 호남지방에 전승되는 소리를 익혔다. 그는 한국전란 전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소 고향에서 농사와 접객 음식점을 경영하면서까지 창과 벅구놀이, 북춤 등으로 예능을 생활화하며 이웃들에 기쁨을 주었다. 특히 그는 즐겨 부르던 모내기나 모 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의 남도노동요 예능보유자로서 뒤늦게 1977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KBS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도 출연하여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으나 그는 손수 후진들에게 양보할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지녔었다. 노후에는 이곳 국악협회 고문으로 젊은 대학생 등 후진들을 위한 국악전수에 주력하다가 1990년대 초엽에 작고했다.

•김화선(金花仙, 본명: 如樂) 명창

1928년 함평 기각리 출생으로 판소리, 민요 등 창의 명수로 알려진 여성국악인이다. 지방 각지에서 판소리 창법 등을 전수해 왔다. 1986년도 국악협회 함평군 지부를 결성한 발기인으로서 국악의 지방문화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다. 어릴 적부터 판소리를 해온 그는 80대에도 국악협회 고문으로서 손수 소리를 내세우며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여 왔다.

•나병수(羅炳洙) 명인

1923년 학교면 금송리 출신으로 함평농요(農謠)의 기능보유자이다. 특히 농부가, 상여

소리 등의 진례농악(進禮農樂)을 이끌어 왔다.

•김선일(金善日, 아호: 德齋) 명인

1924년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출신의 창(唱)을 겸한 고수로 알려진 향토 국악인이다. 여러 동호인들에게 기법 등을 전수하였다. 1986년 국악협회 함평군 지부 결성자이기도 한 그는 부회장과 회장을 지내며 지방의 국악진흥에 이바지해 왔다.

•김봉수(金奉洙) 국악인

1926년 해보면 대창 출생인 향토국악인이다. 특히 해보 농악으로 유명한 꽹과리 특기를 지니고 있다.

•이준길(李俊吉) 국악인

1933년 해보면 산내 출신으로 고수(鼓手)의 명수로 알려진 향토국악인이다.

•김상부(金相富) 국악인

1938년 손불면 태생으로 손불 농악을 이끌어 온 향토국악인이다.

•이종만(李鍾萬, 아호 : 南岡) 명창

함평읍 출신으로 1965년 함평 시우회(時友會)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낸 시조인이다. 1967년 삼정(三正)노인정에서 지방 시조 경창(競唱)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69년에는 목포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고전적인 시조창(時調唱)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박석규(朴石奎, 아호 : 晩圃) 국창

1913년 학교면 출신으로 함평 시우회(時友會)의 회장을 역임하며 동호인들에게 시조창을 가르쳤다. 1986년 5월에 함평 백학당에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1970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와 1976년 5월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윤기(鄭允基, 아호 : 南松) 명인

1913년 학교면 죽정리 출신으로 함평 시우회장(時友會長)을 역임한 시조인이다. 1969년 봄에 전주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 1등, 1973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시조경창대회에서도 명인부(名人部)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고석주(高石柱) 명인

그는 1916년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한 시조인이다. 1989년 가을에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신동수(申東秀) 명인

1923년 손불면 학산 출신으로 1989년 9월 대전서 열린 전국남녀경창대회에서 특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임종하(林鍾河, 아호: 守岩) 명인

1923년 신광면 출신으로 1988년 봄에 전주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그는 한동안 국악협회 중앙본부의 국창 버금가는 존재였다.

•김병철(金炳哲) 명인

1924년 신광면 출생으로 1989년 가을 이리(익산)에서 개최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명인부 1위를 차지했다.

•김성현(金性鉉, 아호: 竹川) 국창

1925년 함평읍 성남리 출생으로 서당서부터 학문과 전통시가인 시조의 진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1991년 옥천의 전국대회서 명인부 1위, 1997년 열린 전국 국창대회에서 국창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국악협회 함평군 지부장을 맡아 국악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판진(全判鎭, 아호: 아호: 德庵) 명인

1927년 월야면 화정리 태생이다. 1992년 김해기에서 거행된 전국시조, 가사, 가곡대회에서 명인부 1위를 수상했다.

•노장섭(盧長燮, 아호: 碧山) 국창

1934년 신광면 동정리 출신으로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신광농협조합장도 지냈다. 1989년 봄에 익산에서 개최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명인부 1위로 입상한 바 있다. 그는 1990년 국악협회 중앙본부 시조경창대회 국창부 1등에 뽑혔다.

•박희용(朴熙容, 아호: 靑松) 명인

1933년 신광면 출생으로 1989년 봄 남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特部) 1위를 했다. 1991년 영동에서 행해진 전국대회서 명인부 1등을 수상했다.

이밖에 함평천지가 낳은 국악인으로서는 신광면 출신의 김남호(金南鎬), 해보면 출신의 김상술(金相述), 학교면 출신의 조병옥(趙炳玉) 등이 있다.

•박동국(朴東國) 대금 명인 기획인

1958년 대동면 출신으로 향교초교와 대동 서중을 졸업했다. 목포 덕인고를 거쳐 서울 추계예술대학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했다. 일찍이 대금은 서용석 명인과 김정수 교수에게서, 판소리는 성우향 선생에게서, 가야금은 윤미용 선생에게서 사사 받았다. 국악이나 전통무용에 남다른 열정과 사랑을 지닌 그는 1989년 이래 동국예술기획사를 설립하여 국악과 전통예술 진흥사업을 펴고 있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MBC광주방송 창사10주년 완창 판소리 다섯마당 기획, 조흥은행 창립 99주년 기념공연, 2006년 SBS 서울방송 드라마 사극 서동요 음악 연출 등. 그는 사단법인 대한 명인회(名人會) 명인 기획실장으로서 1990년에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명인명무전(名人名舞展)' 70회 공연을 성황리에 계속해온 것이다. 또한 15년 연륜을 쌓아온 '한국의 소리와 몸짓' 역시 27회를 이어온 그가 손수 기획 연출한 작품만도 백여 편에 이른다. 미국, 일본, 중국, 몽골 등 해외공연도 많이 해온 그는 앞으로 한국의 전통예술인 계보와 명부 등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음악인

① 성악 부문

•조양녀(趙良女) 소프라노

1921년 함평읍 한젓골 출생으로 일본 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이다. 광복 후 여러 차례 독창회로 열연했다.

•최예수(崔禮守) 소프라노

함평읍 함평리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음대를 나왔다. 소프라노로서 여수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손진선(孫眞善) 소프라노

함평읍 출신으로 조선대 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이다. 무안의 백제여상고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손성래(孫成來) 테너 성악가

1968년 함평읍 내교리 출신으로 함평중학, 학다리고교를 거쳐서 러시아에서 10여 년 동안 유학했다. 러시아 국립 그네신음악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음악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이태리 베로나 콩클대회 성악부 2등에 이어서 같은 해 러시아 페스토스 콩클대회에서 우승하였다. 그 이후로 볼쇼이극장에서 오페라로는 한국인 최초로 주연 가수로 공연하기 시작했다. 2002~2004년에 이탈리아와 독일 여러 곳에서도 연주에 참가했다. 2004년에 귀국한 이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에서 클래식 오페라음악으로 주연한 그는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종합예술원, 백석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그는

한러오페라단 단장, 한러문화연구소 대표, 재단법인 밀알회 운영위원, 경기음악협회 해외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다.

② 현악기 부문

•정규배 음악가

함평읍 기각리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음대를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무렵에 학다리 중고등학교에서 오래도록 교편생활을 했던 음악인이다. 특히 전국에서 여러 현악기와 취타악기를 구해 모아서 이루어진 학교악단 지도로 많은 공을 세웠다.

•오상숙(吳相淑) 바이올리스트

함평읍 기각리 출신으로 조선대 음악대학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임성산 첼리스트

1981년 나산면 용두리에서 태어나 전남예고와 중앙대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피아노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첼로로 전향 했다. 독일 만하임 국립 음대에서 수석졸업하고 같은 대학 최고연주자과정에 유학 중이다. 그는 일찍부터 국제 음악무대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여 각광받고 있다. 그 동안 일본첼로페스티발, 한-일월드컵 친선음악회 초청연주, 독일 하이델베르그 독주회, 헨델오케스트라와 프랑크푸르트 협연 등에 참가한 그는 젊은 유망주다.

이밖에 작곡분야의 김남삼님, 취악이나 현악분야의 이정식님, 양강승님, 그리고 음악을 남달리 사랑하는 최성식님, 통기타 그룹인 프롤로그 등이 활동하고 있다.

3) 연예계

한말부터 조국 광복을 전후한 현재까지의 연예계에서 주요 인물로 활동해 온 함평인들이 적지 않다. 면적이나 특산물 등에서 이웃 고을에 비해 열악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대견한 현상이다. 두드러진 1950년대 전후에 전국적으로 흥행을 이루었던 여성국극단의 임춘앵 단장도 바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태어난 후에 함평읍에 이사해 살았던 판소리국악이나 국극가족으로서 주목된다. 임춘앵의 언니는 판소리 명창부부(임유앵과 강장원)였고 그의 제자로서 국극인이 된 김진진과 김경진 역시 임춘앵의 여 조카들이다. 또한 남동생인 임천수(林千壽)는 일찍이 일본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돌아와 국악으로 전향한 뒤에 서울예술학교 교장을 지냈음도 참고 된다.

(1) 함평의 풍류 삼현육각(三絃六角)

일찍이 함평의 연예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삼현육각이다. 세 가지 현악기인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삼현)에다 북, 장구, 해금, 피리 및 한 쌍의 대평소(육각)를 아울러서 지칭하는 함평의 삼현육각은 유명하다. 노래의 창법(唱法) 보다는 음률(音律)을 통하는 기예(技

藝)가 뛰어나 호남일대에서 손꼽히는 자랑이었다. 직접 노래 잘 부르기보다 악기 다루는 솜씨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이 타는 음률은 실로 자연의 대기(大氣)에 충화(沖話)하고 무아지경에 도달했었다고 한다. 구성원은 해적에 김경국, 장고에 김안식, 피리에 정산옥과 오영주 젓대에 김영채, 북에 조바우였다. 당시는 악사들이 천대를 받던 때여서 그들의 생활은 여유가 없었지만 이들의 삼현육각은 실로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작고와 함께 후계자가 한 사람도 없어 맥이 끊기고 말았다. 회갑연, 원님 도입 때에 빠짐없이 불리던 함평의 삼현육각인데도 이제는 그 재질을 찾을 길이 없어 아쉽다.

(2) 연예인

함평천지는 연예계에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가요계, 연극, 영화계에서 이 고장 출신들이 경향 각지에서 활동해 왔다. 1970년대 전후에 MBC TV에서 오랫동안 수사반장 등의 연속극에 연출과 기획을 담당하고 나중에 아리랑TV사장을 지냈던 이연헌(李年憲, 함평읍), KBS TV와 라디오 PD인 임종성, 홍경수 등과 더불어 함평출신 제작진을 이룬다. 근래 전국을 통틀어보더라도 TV를 포함한 방송국 제작진은 함평 출신 현역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성과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활동상을 모두 다 조사해서 숫자로 수록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임춘앵(林春鶯, 본명: 終禮) 명창국극인

1923년 나산면 나산리에서 태어나 초등교를 다니다 함평읍 기각리로 이사하여 성장했다. 어려서부터 광주 명창 유성준(劉成俊)과 서울 명창 정정렬(丁貞烈)에게서 판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15세 때 광주 국악원에 들어가 창무극을 익히기 시작했다. 20세에는 언니인 임유앵(林柳鶯) 명창 창극인 못지않게 판소리 여섯 마당을 비롯하여 검무, 승무, 살풀이 등 전통 춤사위와 창을 두루 섭렵한 판소리 명창 국극인(國劇人)이다. 그의 국악 관계 이력서에도 중졸, 가족 4명에 창악 전공이며 판소리 겸 창악이 장기로 되어 있다. 광복 후에 서울로 올라온 그는 1948년에 판소리 명창인 박녹주, 김소희 등과 함께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했다. 그해에 여성 출연진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옥중화』(춘향전을 번안)에서 이 도령역과 『해님 달님』의 주역을 맡아 크게 사랑받았다. 그 후 여성 국극인으로 전국을 순회공연하며 20여 년 동안 『견우와 직녀』『낙화유정』『무영탑』『청실홍실』등의 공연을 통해 국악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국극 무대에서 물러난 후에는 <임춘앵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후진들을 키우다 1975년에 작고하였다. 그 제자 중에는 조카(이질녀)인 김진진 김경수 김혜리와 조명숙 명창도 들어 있다. 임춘앵의 큰 언니인 임임심의 딸로서 후에 국립창극단장이던 김연수 명창의 부인이 된 김진진은 동생인 김진경과 더불어 진경국극단을 경영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정작 가정적으로 불우했던 임춘앵은 대한국악원공로상, 일본파견 예술단교포거류민단장상만을 수상하는데 그쳤다.

•임채무(林采茂) 탤런트

1949년 손불면 대전리 출신의 지명도 높은 인기 탤런트이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공무원인 아버지 따라 상경한 그는 서울서 서라벌 고교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다.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출발한 그는 수많은 일일 연속극과 영화에 주연급으로 출연하였다. 데뷔 이후 『사랑과 진실』 『한 지붕 세 가족』 등에서 열연했다. 근래의 작품만도 영화 『못 말리는 결혼』(2007), 『복면달호』(2007),TV연속극 『황금신부』(2007), 『하늘이시어』(2008), 『내 인생의 황금기』(2008) 에 출연했다. 그는 1085년 MBC연기대상 최우수상, 2007년 SBS연기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동신(李東信) 탤런트

1957년 대동면 상옥리 태생의 중견 탤런트로서 KBS와 MBC 등에서 활약하였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경한 그는 서울서 중고교를 거쳐서 중앙대 연영과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1983년 MBC공채 탤런트 15기로 출발하였다. 1980년대 말엽 TV연속극 『거리의 악사』, 『모래성』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 『레테의 연가』 『겨울이야기』 『그 해의 삽화』 등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삼김시대(三金時代)』 『남한산성』 『제일공화국』 『장길산』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고양 예총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희채(鄭熙采) 연극배우

1960년 함평읍 태생으로서 주목받는 현역 연극배우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상경한 그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다. 극단 '목화' 소속으로 있던 1987년에 오태석 원작 『자전거』로 데뷔한 정희채는 곧이어 오태석의 창작희곡을 상연한 연극 『태』 『춘풍의 처』 『레미제라블』과 번역극 『아트』 등에 주연급으로 출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화 『동양극장』 『그때 그 사람들』에 황철과 차지철 배역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연기의 선이 굵고 열정적인 개성을 드러낸 그는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참고할 사항으로는 널리 알려진 탤런트 이정길(李正吉)이 대동면 향교리 출신이란 설과 향교가 그의 외가란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코미디계에서 활약하다 작고한 심철호(본명 : 심종섭 – 沈鍾燮) 역시 신광면 월암리 출신이란 이야기가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3) 가요계-가수

•박건(본명: 洪夢憙) 가수

1940년 신광면 유천리 태생인 그는 가요계에서 신선 명쾌한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인기 가수이다. 1968년 「두 글자」로 데뷔하여 「사랑은 계절 따라」 「청포도 고향」 등을 불렀다. 그는 1970년대 전후에 유망주로 꼽히던 초기부터 나훈아와 자웅을 겨루던 존재였

다. “루루루루 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어있겠지”-로 시작되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은 지금도 국민들의 애창곡이다. 그리고 -“여름에 만난 사람 가을이면 가버리고”-로 이어지는 「사랑은 계절 따라」 나 「잊고 살리라」 도 그가 부른 노래인 것이다.

•김은희(金은희, 예명: 은희) 가수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탤랜트 고두심과 함께 다니고 제주여중과 서울예고를 졸업했다. 1970년대 초엽 통기타 가수였던 그는 서울에서 노래 「사랑해」로 데뷔하여 국민들의 애창곡 「꽃반지 끼고」 「연가」 등으로 MBC신인가수상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3년 남짓한 그때 30여장의 엘범을 발표하며 히트를 쳤다. 그러다 인기 절정이던 1970년대 중엽 결혼하여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주립대 패션학과를 마쳤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귀국한 그는 가족과 함께 폐교된 손불남초등학교 터를 둥지 삼아 2003년부터 함평군민으로 내려와 산다. 이제 여기서는 노래보다는 땡감으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가장 한국 전통적인 갈옷을 중심으로 미술 분야의 염색공예연구실과 작업실을 두고 물감들이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는 가수에서 미술가 분야로 전향해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함평주민이다.

•박문옥(朴文玉) 가수(대중예술인)

1956년 학교면 곡창리 태생이고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MBC 주최 제1회 전국대학가요제에 노래 「저녁 무렵」 이 입상됐다. 서울대 팀들이 부른 「나 어떡해」 버금가는 성과였다.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 후 3년 여 만에 중고교 미술교사를 그만두고 가요계로 나섰다. 대표곡 「직녀에게」 「양철제비」 「운주사 와불 곁에 누워」 등을 작곡해 부르고 취임해 팔았다. 처음에는 20여년 가요제 입상멤버들과 함께 해오다가 나중에는 솔로로 뛰고 있다. 20007년에는 서울 등 5대 도시를 순회하며 노래인생 30년 기념 박문옥 콘서트도 열었다. 광주서 <소리모아> 스투디오를 운영하며 손수 작곡하거나 음반 내는 대중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우승 가수

1960년 엄다 삼정리 출신의 가수로서 기대를 모인다. 학다리 중, 고교를 마치고 한동안 모델 활동을 하다가 일찍이 솔로가수로 일본에 진출하여 오사카 등지에서 활약했다. 귀국 후 「명동은 지금 12시 5분」 「40대 부르스」 등으로 독집 앨범을 내며 국내 무대에 뒤늦게 데뷔했다. 개성 있는 목소리와 짙은 호소력으로 청장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KBS 주최의 신인 가요상을 받은 후 독집을 낸 조훈(본명 : 조양원 - 趙楊元, 함평읍 출신), 일찍이 두드러진 재능을 선보인 정원 가수 등이 있다. 더욱이 가수인 홍이라(본명 : 홍상기 -洪相基, 학교면 사거리 출신)는 근래 신선한 「자기야」로 인기 절정인 박주희 등을 키운 가요계 메니저로서도 각광받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황원(본명 : 김정주 - 金正柱, 함평읍 출신)이나 여성가수 정희정(대동면 출신)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한 자료미비 등으로 자세한 프로필은 싣지 못한다.

제3절 함평의 예술제 현황

1. 예총 함평지부(藝總咸平支部)와 함평예술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말엽에 문림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자 함평의 예술 활동을 총망라하는 모임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돌았고 이 의견은 문림회가 주축이 되어 1961년 예총 함평지부를 결성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바로 중앙에서 지부 인준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예총 목포지부의 후원을 받아 지회의 성격을 띠고 활동에 들어갔다. 문학분과는 문림회원의 증원으로 결성되고 음악분과는 조용성, 주일석, 황근안, 미술분과는 주은기, 신정문, 강성식, 무용분과는 김옥경, 연극분과는 나광채, 김영훈이 중심이 되어 결성을 보았다.

5개 분과의 총회원은 78명이었고 발족 첫 사업으로 1962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1회 함평군 예술제를 함평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지부장은 당시 함평문화원장 이택헌(李宅憲), 부지부장은 김신철, 간사장은 리현석이 맡았고 경비는 회원 각자의 추렴, 찬조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제1회 예술제의 경비는 48만원이었다. 행사 내용을 보면 초, 중고등학교 학생 백일장, 독무, 군무, 독창, 합창, 기악, 군내 초, 중, 고등학생 그리기 대회, 연극 경연, 일반인들의 가요 경연 등이었다.

단체 우승상에는 문공부장관상이 주어졌고 준우승상에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이 수여되어 중앙에서도 관심 깊게 함평예술제를 지원 했었다.

제1회 종합우승상은 함평초등학교가 차지했었다. 제2회 함평군 예술제는 제1회 대회보다 참가자가 많았고 장소도 함평극장에서 치러 조명등의 효과를 충분히 살려 다채로운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문학 분과와 미술 분과가 협력한 회원 시화전(詩畵展)이 주목을 끌었다. 예총 목포지부의 지원 또한 컸었다.

종합우승은 1회 대회와 같이 함평초등학교가 차지했다.

아쉬운 것은 예총 함평지부의 활동이 제2회 대회 이후 다시 활동을 못한 것이다. 주축을 이루던 회원들의 타지 전출, 과다한 경비 등이 맥 끊게한 원인이었다.

당시 전국에서 예술제가 열린 곳은 목포, 밀양 등 몇 곳에 지나지 않았고 중앙의 지원도 크게 없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회원의 열의만으로 제2회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만도 보람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 예술제 개최로 인해 당시 함평군이 전국에서 공보 A지구에 뽑혔었다.

위에서처럼 1960년대 초에 발족했던 함평의 예총(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지부는 《문림》 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조직의 활동상이 점차 미약해졌다. 1970년대 초엽에 관내 중고교 교사 중심으로 결성되어 한동안 활발하게 행해지던 미술협회의 활동마저 1980년대에 들어 중단된 형편이다. 다만 그 기능 일부는 함평문화원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현재 명실상부한 함평예총 활동이 중단된 처지에서도 군내의 문화단체 가운데 한국예총 산하 기관 체제를 이루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두 단체가 있다. 1986년에 결성된 함평국악협회 군 지부와 1988년에 창립된 한국 문인협회 협회 함평지부가 그것이다. 두 단체는 예총 지부와 관계가 끊어진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또한 2007년 말에 새로 출범한 함평예술인 협회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50명 정도의 회원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두 단체나 예총과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편이다. 이 모임은 물론 이전의 두 단체들과 더불어 전에 해체된 회원들을 아울러서 재정비되어야 할 것 같다. 요컨대, 모든 함평 출신 문인이나 예술인들이 앞으로 보다 종횡으로 긴밀하게 연결, 협력하여 함평문화 발전과 창달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함평군 미술협회 및 교원 미전(敎員美展)

1972년에 주로 다른 지역 경우와 달리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주축을 이룬 함평군 미술협회가 결성되었다. 1년에 1회씩 군내 학생들의 미술대회를 주최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한편 회원 연수회도 가졌다.

1976년까지 활동을 했으며 역대 회장은 1대 박병희, 2대 강성식, 3대 임창권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해체된 상태이다.

그 대신에 당시, 함평군 교육청이 군내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개인의 취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평군 교원 미술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1982년 1회 교원미전을 거쳐 1983년 11월에 제2회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서예, 동양화, 서양화, 공예, 사진 등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 지방 예술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 전시회가 되었다.

관내에 재직하는 교사면 출품작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 후반 이후 활동은 미약하여 그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무렵에 다른 지역(군)에 비해서 열의를 보인 회원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제자들은 이후 미술계로 많이 진출하여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프로필들에서처럼 50대 안팎의 여러 함평 출신 화백들이 광주지역 등에서 회장을 비롯한 미술 각 분야의 중견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만이 아니라 여겨진다. 그것은 아무래도 1970년대 전반기에 함평군 관내의 초, 중, 고교 일선 미술담당 교사들이 솔선해서 협회를 결성하여 여러 해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그들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열심히 지도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3. 함평문화원 주최 문화제

학생 백일장서는 매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문화제를 열고 있다. 1988년부터는 이 문화제 가운데 학생예술제를 두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학생예술제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선

거법 규정 등으로 인하여 각 부문 초중고생들에게 최우수상을 골라 상장과 부상만 주고 있다. 대회 명칭도 요즘은 함평문화제의 학생백일장으로 부르고 있다.

2007년 현재 20회에 걸쳐 행해져온 함평문화제의 학생백일장(예술제) 학생문예의 입상자 명단을 들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자료에 의거하되 편의상 각 부문의 우수상과 장려상 및 수상자 출신교는 생략하고 연도별 분야별 최우수 당선자 이름만 밝히기로 한다. 이런 백일장 행사의 실적은 함평천지에 살아온 여러 청소년들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한국문단의 듬직한 재목으로 키워내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1회 1988년 -자료미비-

•제2회 1989년

시부 전체대상 이유진(영창초), 초등부 최우수상 이현화, 중등부 최우수상 정은정, 고등부 최우수상 김인식,

산문부 전체대상 양초롱(신광초), 초등부 최우수상 김미정, 중등부 최우수상 이미진, 고등부 최우수상 김지숙

•제3회 1990년

시부 전체최고상 신경선(영창초), 초등부 최우수상 이수경, 중등부 최우수상 임학수, 고등부 최우수상 양난주

산문부 전체최고상 김하나(함평초), 초등부 최우수상 장희영, 중등부 최우수상 김자옥, 고등부 최우수상 김지숙

한시 백일장 장원 박연춘(朴連春), 차상 김정숙(金正淑)

•제4회 1991년

운문부 장원 조순용(학다리초), 초등부 최우수 양효진, 중등부 최우수 서필기,

산문부 장원 정영주(함평여고), 초등부 최우수 이연미, 중등부 최우수 김종찬, 고등부 최우수 정병삼, 유한아

•제5회 1992년

운문부 대상 유한아(함평고), 초등부 최우수상 서지훈, 중등부 최우수상 서필기, 고등부 최우수상 정소영

산문부 대상 김하나(기산초), 초등부 최우수상 노순자, 중등부 최우수상 양혜숙, 고등부 최우수상 박은주

한시부 장원 정두면 (鄭斗冕), 차상 박연춘

•제6회 1993년

시 부문 전체최고상 권소미(영창초), 초등부 최우수상 박소향, 중등부 최우수상 이유진, 고등부

최우상 박정섭,

산문부 전체최고상 모윤정(함평초), 초등부 최우수상 장애령, 중등부 최우수상 김선옥, 고등부 최우수작 정일선

한시부 장원 김성두(金成斗), 차상 김귀근(金貴根)

•제7회 1994년

운문부 대상 김은경(함평고), 초등부 최우수상 김혜성, 중등부 최우수상 조영주, 고등부 최우수상 서목희,

산문부 대상 이아랑(월야초), 초등부 최우수상 손수진, 중등부 최우수상 이연미, 고등부 최우수상 정윤경

한시부 장원 정길휴(鄭吉休), 차상 노병부(盧炳富)

•제8회 1995년

산문부 장원 윤애리(해보중),

운문부 장원 정인영(함평고)

•제9회 1996년

운문 고등부 최우수상 서목희(학다리고), 중등부 최우수상 고은영, 초등부 최우수상 김경숙,

산문 고등부 최우수상 장희영(함평고), 중등부 최우수상 윤애리, 초등부 최우수상 정소라

•제10회 1997년 -자료미비-

•제11회 1998년

운문 전체최고상 나세희(함평초), 초등부 최고상 이부성, 중등부 최우수상 안정희, 고등부 최우수상 정인영,

산문 전체최고상 이애희(함평여고), 초등부 최우수상 서주연, 중등부 최우수상 정선화, 고등부 최우수상 김근영

한시 장원 김유원(학교면), 차상 김용원, 차하 박재희, 김규채

•제12회 1999년

운문 전체대상 송명화(학다리고), 초등부 최우수상 김혜자, 중등부 최우수상 이진영, 고등부 최우수상 정지영

산문 전체대상 김현주(함평여고), 초등부 최우수상 송은주, 중등부 최우수상 이주희, 고등부 최우수상 배미성

•제13회 2000년

운문부 전체최고상 송진아(함평고), 초등 최고상 박재광, 중등 최고상 안성희, 고등 최고상 박현지,

산문부 전체최고상 장환희(해보초), 초등 최고상 김영조, 중등 최고상 장유정, 고등 최고상 김주희,

•제14회 2001년

초등부 대상 김태산 (학다리초), 운문 최우수상 정솔, 산문 최우수상 김지수

중등부 대상 고은경 (함평여중), 운문 최우수상 김희영, 산문 우수상 정다니엘

고등부 대상 김화영 (학다리고), 운문 최우수상 김희정, 산문 우수 김애정

한시부 장원 정상철(나산면), 차상 모상익(신광면), 차하 정동식(손불면)

•제15회 2002년 (자료미비)

•제16 회 2003년

운문부 전체 최고상 홍미라(함평여중), 초등부 최우수상 김민지, 중등부 최우수상 윤다애, 고등부 최우수상 손정화

산문부 전체 최고상 양미정(학다리고), 초등부 최우수상 김은영, 중등부 최우수상 모진환, 고등부 최우수작 양보람

•제17회 2004년

운문부 전체 대상 윤민우(함평중), 초등부 최우수상 이민경, 중등부 노동욱, 고등부 고두리,

산문부 전체 대상 김병수(함평중), 초등부 최우수상 김도하, 중등부 김하정, 김승경

•제18회 2005년

운문부 전체최고상 정은아(함평고), 초등 최우수상 정승일, 중등 최우수상 이담비, 고등 최우수상 김은혜

산문부 전체최고상 김보람(나산중), 초등 최우수상 이빈, 중등 최우수상 박혜미, 고등 최우수상 최유리

사생부 전체최고상 김영미(함평초), 초등 최우수상 최신영, 중등 최우수상 김난희, 고등 최우수상 김장수

서예부 최우수상 김지민(나산초),

특별부 최우수상 류남순 (영화학교)

한시부 장원 이용대(함평읍), 차상 김영필(손불면), 차하 정대식(손불면)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최우수상 권현태(삼애어린이집)

•제19회 2006년

운문 고등부 최우수상 박영선, 중등부 최우수상 이해인, 초등부 최우수상 박서희, 이민경

산문 고등부 최우수상 전영준(함평고), 중등부 최우수상 정은영, 초등부 최우수상 이민경

•제20회　2007년

운문 고등부 최우수상 박혜미, 중등부 최우수상 오혜미, 초등부 최우수상 김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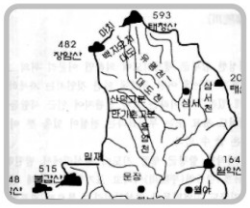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산문 고등부 최우수상 윤다애, 중등부 최우수상 송혜란, 초등부 최우수상 정예지

참고 문헌

광주문학사편찬위원회편, 『광주문학사』 도서출판 한림. 1994.
권영민 편『한국근대문인대사전』(상. 하) 아세아문화사. 1990.
권영민 편『한국현대문학대사전』,서울대 출판부, 2004.
김영삼 편『한국시인사전』한국사전연구회. 1994.
나덕원 『사담집(沙潭集)』신우당, 2005.
리현석 『함평군 인명사전』, 함평문화원, 1998.
박봉혁, 『주해(註解) 영언집(永言集)』,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91.
박형철 엮음, 『광주-전남문학동인사』,한림문학재단, 2005.
유민영,『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 출판부, 1996.
유민영,『한국인물연극사』, 태학사, 2006.
이명재 편,『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이현석 편저『咸平의 古典文學』, 함평문화원, 2001.
전남문학 백년사업추진위원회편 『전남문학변천사』도서출판 한림. 1997.
정개청, 국역 『우득록(愚得錄)』전라남도, 1988.
정경득, 『만사록(萬死錄)』,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 1986.
정노식, 『朝鮮唱劇史』,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0.
정호인, 『정유피란기(丁酉避難記)』,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86.
정희득, 『해상록(海上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1986.
함평군사편찬위원회『함평군사』, 함평군의 문학과 예술, 1984. *1999.*
함평군지(1906. 1924. 1930) 학행(學行) 등 인물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함평군문헌사료집』(중권),1993.
김혜정, 「남도와 판소리」《함평문화》28호, 2000.
남신희 외「함평 작가와 작품 이해」 《함평문화》 24호, 1996.
리현석「함평인 저작의 詩歌 고찰」《함평문화》, 24호, 1996.
이국헌「함평의 문화 예술 현황과 역사성」 《함평문화》 17호,1989.
인터넷 온라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의 유명인 해당 항목.
한국문인협회 전남지부 정기 간행물 《전남문학》창간호, 세종출판사. 1987~1997.

한국문학협회함평지부,《함평문학》, 창간호~9호, 1989~1997.
함평문림회, 《함평문림》 1~9호 1959~1997. 문림회 항목. 서예가, 화가 약력 등.
《咸平文化》 창간호~36호. 1966~2008.
《咸鄕》 창간호~3호, 2004~2006.

제17장 환 경



제1절 개 요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고,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한 공업화 우선 정책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어 생활의 터전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존층 파괴 등 갖가지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환경오염 감소 노력이 부족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 자명하며 환경 보전 수준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3개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0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 들어 중앙 부처에 환경부가 신설되었고 2008년 12월 현재 환경업무가 크게 분화되었다.

환경부소속 공공기관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살펴보면

먼저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이 있다.

소속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다.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로는 환경보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컨설팅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이 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는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전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충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안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이 있다.

함평군은 1991년에는 군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1995년부터 환경위생과로 편제되었으며 2009년 현재는 환경상하수도과와 친환경농축산과로 분할되어 좀더 새분화되 환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공업화 과정에서 낙후되어 <표 4>에서 보듯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지 않아 미래의 값진 유산이자 자랑인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앞으로 함평의 발전 전략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 유치나 무분별한 개발에서 찾는 것보다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난, 대기오염, 소음공해, 수질악화 등 각종 도시 문제로 찌들린 도시민과 출향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동경하여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어 1996년부터 “청정 함평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장(章)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사람과 가축의 분뇨 처리 상황, 생활 폐수,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 상황, 청정 함평건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2절 대기 환경

1. 대기환경 기준

환경 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국가 또는 일정지역에서의 환경보존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대기환경 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래 1983년 8월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옥시단트, 먼지,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의 환경 기준을 설정 관리하여 왔으나 1993년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부 항목은 환경 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이들 항목은 기준을 강화하고 탄화수소는 환경 기준 항목에서 제외하였

다. 대기환경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대기환경 기준

•1시간 및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미세 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SO_2)		연간 평균치 0.03 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1 시간 평균치 0.25 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 ce method)
먼지	총먼지(TSP)	연간 평균치 150㎍/㎥ 이하 24시간 평균치 300㎍/㎥ 이하	β선 흡수법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80㎍/㎥ 이하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O_3)		8시간 평균치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c method)
이산화질소(NO_2)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1 시간 평균치 0.15 ppm 이하	화학발생법 (chemiluminescent method)
일산화탄소(CO_2)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 적외선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납(Pb)		3개월 평균치 1.5㎍/㎥ 이하	H.V 원자흡광광도법 (a.a)

2.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은 고정 측정망과 이동 측정망이 있으며 고정 측정망에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와 산성비 측정소 등이 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서는 대기중의 먼지 및 아황산가스 등 6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모든 자료는 자동감시체제(TMS)를 통해 관할 환경관리청 및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다. 측정망 설치현황을 보면 2007년 9월말 현재 전국에 4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98개소는 국가에서 나머지 302개소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07.9월말 기준)

구분	계		도시대기		교외대기		국가배경	도로변	유해대기	중금속	광화학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시정거리
합계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국가	지자체
	400		224		14		6	22	31	43	21		34	1	4
계	98	302		224	14		6	22	31	43	12	9	34	1	4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광주광역시 7개소 : 건국동 : 광주 북구 대촌동(광주테크노파크 벤처지원센터 옥상), 농성동 : 광주 서구 농성동(서구보건소), 두암동 : 광주 북구 두암2동(두암2동사무소), 송정

1동 : 광주 광산구 송정1동(송정1동사무소), 오선동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1, 주월동 : 광주 남구 주월동(주월1동사무소), 충금동 광주 동구 호남동 39-1

전남 14개소 : 광무동 : 전남 여수시 광무동(여수시민회관), 나불리 :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공단(영암소방서), 문수동 : 전남 여수시 문수동사무소, 삼일동 : 전남 여수시 삼일동사무소, 순천만 : 전남 순천시 대대동 순천만 자연생태관 3층 옥상, 연향동 : 전남 순천시 연향동 연향도서관 3층 옥상, 용당동 : 전남 목포시 용당1동 용당1동사무소2층 옥상, 월내동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392 (환경시설공사여천2사업소), 장천동 : 전남 순천시 장천동 53-1(순천시청), 중동 : 전남 광양시 중동 1312-3(광양소방서), 진상면 : 전남 광양시 진상면사무소, 칠성리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태인동 : 전남 광양시 태인동(태인폐수처리장 사무실), 호두리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호두정수장 내 모두 21개소가 있다.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은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 분석함으로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대기중의 먼지 SO_2, NO_2, CO, O_3 5개 항목과 풍향, 풍속, 온도 등을 상시 측정하고 있다.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 파악 및 자동차 공해 대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 도로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를 확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 대기오염에 있어 안정지대인 함평군에는 측정 시설이 없다.

함평군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목포 용당동 측정소의 대기오염 상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용당의 조사된 대기오염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아직은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음을 볼 수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인 함평군의 대기 오염도는 용당에 비해 오염도가 크게 낮을 것이므로 안전한 대기 환경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목포 용당동 연도별 대기오염 측정 상황[398]

( )는 pm-10(미세 먼지) 측정자료

구분 / 연별	아황산가스 (SO2) ppm	이산화질소 (NO2) ppm	일산화탄소 (CO) ppm	오존 (O3) ppm	먼지(TSP) ㎍/㎥	강우산성도 pH
1991						5.6
1992						5.8
1993						5.7
1994						6.1
1995	0.012	0.015	0.5	0.032	(57)	6.6
1996	0.012	0.02	0.9	0.033	61	
1997	0.009	0.014	1	0.03	52	
1998	0.006	0.012	1.2	0.027	48	
1999	0.007	0.013	0.8	0.031	38	

398)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구분 / 연별	아황산가스 (SO2) ppm	이산화질소 (NO2) ppm	일산화탄소 (CO) ppm	오존 (O3) ppm	먼지(TSP) ㎍/㎥	강우산성도 pH
2000	0.005	0.014	0.5	0.026	37	
2001	0.005	(0.014)	0.5	0.024	33	
2002	0.005	0.021	0.4	0.028	(48)	
2003	0.004	0.013	0.4	0.033	63	
2004	0.005	0.017	0.6	0.035	65	
2005	0.004	0.011	0.6	0.031	51	
2006	0.004	0.01	0.7	0.033	49	
2007	0.006	0.01	0.5	0.032	46	
2008	0.003	0.01	0.5	0.034	54	

정상적인 비는 pH가 5.6 정도이다. 이것은 빗물이 내릴 때 공기중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약산인 탄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H2O + CO2 → H2CO3). 산성비의 원인은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분출되는 질소(NOx) 및 황산화물(SOx) 들이 강우 시에 빗물에 혼합되어 질산 및 황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성비의 pH 는 5.6 이하로 낮아진다.

예로서 석탄에는 황이 불순물로 섞여 있는데 1%의 황이 포함된 석탄을 1톤 연소 시에 아황산가스가 20 kg 이나 발생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된다.

산성비가 미치는 피해는 석회석건물의 부식, 호소에 물고기의 피해 등도 있으나 농업에 주는 피해는 식물 잎구조의 물리적인 파괴와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하여 유해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뿌리의 성장을 늦추어 줌으로서 식물의 생장에 피해를 가하게된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산성비 측정망 48개 시·도에 9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 대기오염 배출시설 상황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연료 사용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에서 5종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7년 말 함평군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1~2종까지는 없고 3종 1개소, 4종 52개소, 5종 47개소 도합 100개소다.

2008년 말 전국의 총 배출업소는 105,132개소이고 전남은 5,611개소로 약 5.33%를 차지하고 있고, 함평은 206개소로 전국의 0.19%, 전남의 3.67%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4 참조>

<표 4>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과 행정조치 상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개소)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3	92	-	-	-	23	69	54	-	-	-	1	53	37
2004	81	-	-	-	41	40	55	-	-	-	2	53	37
2005	88	-	-	1	47	40	50	-	-	-	1	49	48
2006	93	-	-	1	50	42	51	-	-	-	2	49	50
2007	100	-	-	1	52	47	56	-	-	-	3	53	50
2008	**115**	-	-	**1**	**62**	**52**	**57**	-	-	-	**2**	**55**	**42**
함평	25	-	-	-	15	10	13	-	-	-	-	13	4
손불	24	-	-	1	15	8	4	-	-	-	-	4	1
신광	-	-	-	-	-	-	2	-	-	-	-	2	1
학교	35	-	-	-	18	17	23	-	-	-	2	21	1
엄다	4	-	-	-	1	3	3	-	-	-	-	3	14
대동	1	-	-	-	1	-	1	-	-	-	-	1	4
나산	5	-	-	-	3	2	1	-	-	-	-	1	-
해보	10	-	-	-	2	8	8	-	-	-	-	8	2
월야	11	-	-	-	7	4	2	-	-	-	-	2	13

2). 환경오염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단위 : 개소, 건)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고발(병행)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명령	허가취소	폐쇄명령	기타	
2003	183	169	7	2	2	2	-	-	-	1	3(3)
2004	173	169	7	1	5	-	-	-	-	1	1(1)
2005	186	258	2	-	2	-	-	-	-	0	0
2006	194	128	12	-	5	-	-	-	-	7	2(2)
2007	206	142	3	-	-	-	-	-	-	3	-
2008	**214**	**168**	**3**	**2**	**-**	**-**	**-**	**-**	**1**	**-**	**-**
함평	42	35	-	-	-	-	-	-	-	-	-
손불	29	21	1	1	-	-	-	-	-	-	-
신광	3	1	-	-	-	-	-	-	-	-	-
학교	72	64	-	-	-	-	-	-	-	-	-
엄다	11	7	-	-	-	-	-	-	-	-	-
대동	2	2	-	-	-	-	-	-	-	-	-
나산	8	5	1	1	-	-	-	-	1	-	-
해보	21	15	-	-	-	-	-	-	-	-	-
월야	26	18	1	1	-	-	-	-	-	-	-

제3절 수질 환경

1. 수질환경 기준

수질환경 기준은 경제적 기술적 달성 가능성, 경제성장, 지역의 특성, 국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며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기준은 "환경보전법"이 1977년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 규칙의 별표에 마련 197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수역별, 항목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대장균 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존 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ABS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 호소에 5개 등급, 해역에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차등 설정하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하천 수질환경 기준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 정수 처리 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 여과 등이 의한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 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 처리 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부유물질량 (SS,㎎/L)	용존산소량 (DO,㎎/L)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 이상	50 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 이상	1000 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 이상	5000 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 이상	-
	Ⅴ	공업용수3급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2 이상	-

		생활환경보전			있지 아니할 것		
사람의 건강 보호	전수역	카드뮴(Cd):0.01㎎/L이하, 비소(As):0.05㎎/L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0.1㎎/L이하, 6가크롬(Cr6+) 0.05㎎/L이하, 음이온계활성제(ABS):0.5㎎/L이하					

2. 영산강수계 환경관리

2008년 현재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후일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영산강 개선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4대강 살리기'의 일환인 영산강 정비 사업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는 것은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2008.12.29 착공)이다.

영산강은 전국 4대강의 하나로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황룡강, 광주천,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등 지류를 합해 장장 305리 호남벌을 관류한다. 영산강 하구언으로 이어지는 총유역 면적 3,371㎢, 유로 연장 138㎞로 영산강의 유역면적이 전라남도 총면적의 23%를 차지하므로 이 지역의 젖줄이라 할 만하다.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다. 당초 전라남도가 2004년 기본계획을 세워 설계를 완료한 후 2009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과 함께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착공시기가 앞당겨졌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영산교, 영산대교 주변으로 6.7km 구간이다. 이 곳에서는 생태하천 조성, 둑 보강, 수변공원 조성, 생태습지 보전 사업 등이 추진된다. 홍수 방지와 함께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주민 문화예술 여가공간으로도 활용된다. 2011년까지 3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사업이다.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황포돛배 띄우기 행사' '영산강변의 삼한지 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 확보로 용수 확보량의 10.2억㎥ 증대이다. 이에 따라 함안보 등 8개의 보를 건설한다.(6.7억㎥), 또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을 통해(31개, 1.0억㎥) 용수를 확보하고 중소규모 댐 (영주, 보현산, 안동-임하댐 연결) 또한 건설한다. 여기에 홍수방어를 위해 홍수 조절 용량 6.1억㎥를 증대한다.

4.4억㎥준설, 노후제방 335km 보강(슈퍼제방 20km)
영주댐 (0.8억㎥), 농업용 저수지 증고(0.5억㎥)
지류 합류부 도류제 설치, 하구둑 배수문 증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폐수처리장(74개), 마을하수도(238개)
비점오염원 관리 : 빗물 저류시설, 생태유수지(23개)
생태하천 조성(407km), 지천(13개) 및 도심하천(1개) 복원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길 743km
지역발전 - 지방하천 정비(148개소, 862km

영산강수계의 주요 하천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영산강수계의 주요 하천

구 분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유 역 범 위
본 류	3,371	138.75	담양군 용면 용소~영산강 하구언
광 주 천	104	24	광주시 동구 용연동~서구 치평동
황 룡 강	547	61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광주시 광산구 송대동
지 석 천	619	53	화순군 이양면 중리~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고막원천	218	39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함 평 천	186	32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사포

행정구역상으로는 1광역시, 2시, 7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 상주인구는 2008년 말 현재 2,0748,789명으로 광주와 전남 합계 인구 중 6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류를 중심으로 5개 직할하천, 2개 지방하천, 168개 준용 하천 등 총 175개의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강은 유로 연장이 낙동강 527㎞, 한강 497㎞, 금강 401㎞에 비해 짧고 유역 면적이 한강 26,018㎢, 낙동강 23,817㎢, 금강 9,810㎢에 비해 가장 좁으며 상류에 4개 댐이 축조되어 있어 하천유지 수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며 다른 수계에 비해 갈수기와 우수기의 하천 유량차가 매우 커서 유역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전국 4대강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생활하수와 주변의 본촌, 하남, 소촌공단의 산업 폐수가 유입되는 극락교 지점의 수질 오염도가 하천수질 환경 기준 Ⅴ등급을 상회하고 있다.

1991년부터 광주하수처리장이 가동된 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갈수기와 가뭄 때는 미처리되고 있는 하수 등으로 인하여 전체 측정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75년 3월부터 수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매시간대별 측정을 통한 수질오염 사고 조기 예견, 환경오염의 사전 차단 및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에 힘쓰고 있는데 영산강수계에는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학산교와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에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하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평시에는 주 3회, 갈수기에는 매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운용치 않고 있다.

3. 영산강 수계의 오염 현황

연도별 영산강 수계의 오염도(BOD)를 보면 함평은 2급수에 해당하나 94년의 4.9㎎/L에 비해 95년은 갈수기에 해당하는 6월까지의 평균이지만 6.9㎎/L로 무려 71% 오염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7-1 참조>

고막천에 비해 함평천의 오염이 심한데 이는 함평천에 함평읍과 무안읍이 있어 생활 오수 발생량이 많은 데다가 함평천 상류에 대동저수지, 목포상수원인 대동댐이 설치되어 하천유지용수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7-2 참조>

<표 7-1> 연도별 영산강 수계 오염도(BOD)

지점 / 연별	우 치	광주 1	광주 2	광 산	나 주	함 평	무안 1	무안 2
등 급	Ⅰ	Ⅱ	Ⅲ	Ⅱ	Ⅱ	Ⅱ	Ⅱ	Ⅱ
1991	1.1	2.8	10.4	5.6	5.6	3.9	3.7	1.5
1992	1.4	3.4	10.3	5.8	5.6	4.1	4.0	2.1
1993	1.4	2.6	10.4	5.8	4.5	3.3	3.6	1.5
1994	2.0	3.9	16.2	8.9	7.3	4.9	5.9	1.9
1995.1~6	3.0	4.4	21.2	9.4	7.8	6.9	5.8	2.6

<표 7-2> 영산강 수계 월별 오염도(BOD) · 1996년

조사지점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담양 2	Ⅰ	1.2	1.5	1.5	2.3	2.3	1.4	1.4	1.2	0.8	0.8	1.0	1.6	1.4
우 치	Ⅰ	1.5	2.2	2.1	2.0	2.3	2.2	12.2	1.7	1.6	1.7	2.5	2.8	2.1
광주 1	Ⅱ	2.9	3.7	3.8	4.8	5.0	5.0	4.9	4.5	2.2	1.7	2.6	4.0	3.8
광 주	Ⅲ	8.2	9.5	9.9	12.0	9.9	8.5	4.0	6.3	12.9	10.7	12.7	15.3	10.0
광 산	Ⅱ	7.4	11.3	11.0	9.9	6.6	5.5	4.6	4.7	4.8	4.2	5.4	6.1	6.8
나 주	Ⅱ	6.1	6.2	6.1	5.9	6.4	5.8	6.2	4.9	4.9	4.5	5.0	5.5	5.6
영산포	Ⅱ	6.1	7.2	7.8	5.9	6.3	7.3	6.5	7.2	4.2	4.4	4.7	4.7	6.0
함 평	Ⅱ	5.5	5.6	6.2	5.9	6.7	6.6	6.2	4.7	3.5	3.9	4.4	4.1	5.3
무안 1	Ⅱ	5.7	6.1	6.4	5.5	4.5	4.2	5.9	2.9	2.9	2.8	4.6	4.1	4.6
무안 2	Ⅱ	2.0	2.2	2.2	2.8	2.5	1.9	4.1	3.8	3.1	2.6	1.9	2.0	2.6
광주천 1	Ⅱ	2.0	2.4	2.8	3.2	3.6	3.1	1.9	2.2	4.0	4.6	3.0	5.8	3.2
광주천 2	Ⅳ	24.5	33.2	38.0	45.9	48.3	40.1	28.8	20.8	24.5	47.5	38.6	37.3	35.6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인분, 쓰레기, 양식장의 부패물 등이다.

영산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오 · 폐수 량은 <표 10>과 같다.

<표 10> 수계의 오·폐수 발생량

1996년 12월 말 현재. 단위 ㎥/일

수 계	계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 산 폐 수		
				계	소	돼지
영산강 수계	706,574	602,248	91,709	12,617	6,977	5,640
섬진강 수계	147,498	134,399	7,025	6,074	4,497	1,577

1) 생활오수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오 · 폐수가 2009년 12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8,657㎥/일로 전체 오·폐수 발생량 9,936㎥/일의 87.1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폐수가 155㎥/일로 1.6%, 축산폐수가 1,124㎥/일로 1.79%를 차지한다.

또 섬진강의 생활오·폐수 배출량 보다 영산강 수계의 오,폐수 배출량이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오수량을 줄이고 생활오수를 정화 하지 않고는 수질을 정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업폐수

산업폐수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수로 생활오수와는 달리 고농도의 오염물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그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

1994년 말 전남·광주의 산업폐수 배출시설은 전남 1,358개소 광주 765개소 도합 2,123개소(표 3 참조)로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전남은 9위, 광주는 13위였고 함평군은 1, 2종은 없고 3종 3개소, 4종 3개소, 5종 38개소, 합하여 44개소로 전남 배출시설의 2.43%였다.

1996년 말에는 전남·광주의 산업폐수 배출시설이 2,821개소[399]로 많이 늘었으나 함평군은 3종 1개소, 5종 34개소, 합하여 35개소(광주·전남의 1.23%)로 2개소가 늘어 비율이 1994년 보다 낮아졌다.

또 학교면 농공단지의 산업폐수 처리 시설은 1991년 2월에 완공하였는데 처리방법은 장기폭기법이며 시설용량이 400㎥/일로 공단내의 산업폐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생성량에 비해 수질오염 부하량이 매우 크므로 미처리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화와 호소의 부영양화를 가져오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1994년 말 기준 영산강 수계권이 179,000㎥/일, 섬진강 수계권이 88,000㎥/일로 총 267,000㎥/일 이었다.

함평군은 다른 군에 비해 축산농가가 적은 편이 아니지만 규제대상 축산농가에 설치된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미약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정화조 또한 미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에 의해 수질 및 토양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4) 분뇨

함평군 통계연보에 의해 분뇨 수거 실적을 살펴보면 1978~1982년까지는 수거지가 함평읍 뿐이었고, 1983년에는 함평읍, 학교면 소재지, 1984~1987년까지는 함평읍, 학교, 나산, 해보면 소재지, 1988~1990년까지는 9개읍면 소재지, 1991부터 군 전역의 분뇨를 수

399) 1997년 영산강환경관리청 간행 「환경편람」165쪽에 의함.

거 처리했다.

분뇨의 처리는 가정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수세식 변소를 통하여 정화조 및 오수정화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되고 1차 처리된 오수는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처리된다.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변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뇨는 수집되어 분뇨처리 시설 등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함평군의 수세식 변소 설치 현황을 보면 2007년말 현재 함평군 인구 38,402명 가운데 36,583명이 수세식을 사용해 95.263%의 사용률을 보이며 재래식은 1,819명이 사용해 4.736%를 보이고 있다.

처리량을 보면 발생량 16.7kl/일 중 수세식 처리량 15.3kl/일로 대비 91.61%이다.

수거한 분뇨는 1992년부터 학교면 학교리 분뇨처리장(1일 처리 용량 20kl)이 가동되어 정화했으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었다. 1998년부터는 엄다면 화양리 함평천 가에 세워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전량 생활 오수와 함께 정화하고 있다.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 연도및 읍면별	행 정 구 역		분뇨발생(수거지)인구			
			세대수	인 구		
	세 대	인 구		합계(A)	수세식(B)	수거식
2002	17,114	42,123	17,114	42,123	31,090	11,033
2003	17,312	42,338	17,312	42,338	32,091	10,247
2004	17,153	40,486	17,153	40,486	32,016	8,470
2005	17,553	40,437	17,553	40,437	36,433	4,004
2006	17,412	38,647	17,412	38,647	36,741	1,906
2007	**17,434**	**38,402**	**17,434**	**38,402**	**36,583**	**1,819**
함 평	4,164	9,879	4,164	9,879	9,487	392
손 불	2,003	4,315	2,003	4,315	4,098	217
신 광	1,100	2,178	1,100	2,178	2,016	162
학 교	2,234	4,979	2,234	4,979	4,838	141
엄 다	1,161	2,485	1,161	2,485	2,293	192
대 동	1,572	3,405	1,572	3,405	3,256	149
나 산	1,668	3,458	1,668	3,458	3,230	228
해 보	1,518	3,230	1,518	3,230	3,089	141
월 야	2,014	4,473	2,014	4,473	4,276	197

자료 : 환경상하수도과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분뇨발생(수거지)인구								수세화율 (B/A)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세대	인 구			세대	인 구			
		소 계	수세식	수거식		소 계	수세식	수거식	
2002	3,658	9,026	7,020	2,006	13,456	33,0	24,070	9,027	72.7
2003	4,426	12,219	9,803	2,416	12,886	30,119	22,288	7,831	74.0
2004	5,177	12,441	10,616	1,825	11,976	28,045	21,400	6,645	79.0
2005	5,552	12,572	12,211	361	12,001	27,865	24,222	3,643	90.1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분뇨발생(수거지)인구								수세화율 (B/A)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세대	인 구			세대	인 구			
		소 계	수세식	수거식		소 계	수세식	수거식	
2006	5,975	13,266	13,141	125	11,437	25,381	23,600	1,781	95.0
2007	**6,120**	**13,412**	**13,291**	**121**	**11,314**	**24,990**	**23,378**	**1612**	**95.0**
함 평	3,591	8,074	8,038	36	573	1,805	1,773	32	96.0
손 불	-	-	-	-	2,003	4,315	3,970	345	95.0
신 광	220	372	360	12	880	1,806	1,662	144	93.0
학 교	1,126	2,924	2,917	7	1,108	2,055	1,914	141	97.0
엄 다	-	-	-	-	1,161	2,485	2,321	164	93.0
대 동	534	860	848	12	1,038	2,545	2,414	131	96.0
나 산	350	612	592	20	1,318	2,846	2,685	161	93.0
해 보	198	360	346	14	1,320	2,870	2,686	184	96.0
월 야	101	210	190	20	1,913	4,263	3,953	310	96.0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분뇨발생량(kl/일)			처리대상량(kl/일)			처리량(kl/일)					
							계			분뇨처리시설		
	계	수거식	수세식	계(C)	수거 분뇨	정화조 오 니	계(D)	수거 분뇨	정화조 오 니	계	수거 분뇨	정화조 오 니
2002	42	11	31	26	11	15	26	11	15	26	11	15
2003	42	11	31	26	11	15	26	11	15	26	11	15
2004	18.15	0.11	18.04	18.15	0.11	18.04	18.15	0.11	18.04	18.15	0.11	18.04
2005	28.4	0.9	27.5	28.4	0.9	27.5	28.4	0.9	27.5	28.4	0.9	27.5
2006	16.0	1.6	14.4	16.0	1.6	14.4	16.0	1.6	14.4	16.0	1.6	14.4
2007	**16.7**	**1.4**	**15.3**	**16.7**	**1.4**	**15.3**	**16.7**	**1.4**	**15.3**	**16.7**	**1.4**	**15.3**
함 평	4.3	0.3	4.0	4.3	0.3	4.0	4.3	0.3	4.0	4.3	0.3	4.0
손 불	2.0	0.2	1.8	2.0	0.2	1.8	2.0	0.2	1.8	2.0	0.2	1.8
신 광	1.0	0.1	0.9	1.0	0.1	0.9	1.0	0.1	0.9	1.0	0.1	0.9
학 교	2.2	0.2	2.0	2.2	0.2	2.0	2.2	0.2	2.0	2.2	0.2	2.0
엄 다	1.1	0.1	1.0	1.1	0.1	1.0	1.1	0.1	1.0	1.1	0.1	1.0
대 동	1.2	0.1	1.1	1.2	0.1	1.1	1.2	0.1	1.1	1.2	0.1	1.1
나 산	1.2	0.1	1.1	1.2	0.1	1.1	1.2	0.1	1.1	1.2	0.1	1.1
해 보	1.2	0.1	1.1	1.2	0.1	1.1	1.2	0.1	1.1	1.2	0.1	1.1
월 야	2.5	0.2	2.3	2.5	0.2	2.3	2.5	0.2	2.3	2.5	0.2	2.3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및 읍면별	처리량(kl/일)						처리율(%)		
	해양배출			재활용					
	계	수거분뇨	정화조 오 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 오 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 오 니
2002	-	-	-	-	-	-	100	100	100
2003	-	-	-	-	-	-	100	100	100
2004	-	-	-	-	-	-	100	100	100
2005	-	-	-	-	-	-	100	100	100
2006	-	-	-	-	-	-	100	100	100
2007	**-**	**-**	**-**	**-**	**-**	**-**	**100**	**100**	**100**
함 평	-	-	-	-	-	-	100	100	100

구분 / 연도및읍면별	처리량(kl/일)						처리율(%)		
	해양배출			재활용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손 불	-	-	-	-	-	-	100	100	100
신 광	-	-	-	-	-	-	100	100	100
학 교	-	-	-	-	-	-	100	100	100
엄 다	-	-	-	-	-	-	100	100	100
대 동	-	-	-	-	-	-	100	100	100
나 산	-	-	-	-	-	-	100	100	100
해 보	-	-	-	-	-	-	100	100	100
월 야	-	-	-	-	-	-	100	100	100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및읍면별	처리량(kl/일)						처리율(%)		
	해양배출			재활용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2002	-	-	-	-	-	-	100	100	100
2003	-	-	-	-	-	-	100	100	100
2004	-	-	-	-	-	-	100	100	100
2005	-	-	-	-	-	-	100	100	100
2006	-	-	-	-	-	-	100	100	100
2007	-	-	-	-	-	-	**100**	**100**	**100**
함 평	-	-	-	-	-	-	100	100	100
손 불	-	-	-	-	-	-	100	100	100
신 광	-	-	-	-	-	-	100	100	100
학 교	-	-	-	-	-	-	100	100	100
엄 다	-	-	-	-	-	-	100	100	100
대 동	-	-	-	-	-	-	100	100	100
나 산	-	-	-	-	-	-	100	100	100
해 보	-	-	-	-	-	-	100	100	100
월 야	-	-	-	-	-	-	100	100	100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및읍면별	처리량(kl/일)						처리율(%)		
	해양배출			재활용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2002	-	-	-	-	-	-	100	100	100
2003	-	-	-	-	-	-	100	100	100
2004	-	-	-	-	-	-	100	100	100
2005	-	-	-	-	-	-	100	100	100
2006	-	-	-	-	-	-	100	100	100
2007	-	-	-	-	-	-	**100**	**100**	**100**
함 평	-	-	-	-	-	-	100	100	100
손 불	-	-	-	-	-	-	100	100	100
신 광	-	-	-	-	-	-	100	100	100
학 교	-	-	-	-	-	-	100	100	100
엄 다	-	-	-	-	-	-	100	100	100
대 동	-	-	-	-	-	-	100	100	100

나 산	–	–	–	–	–	–	100	100	100
해 보	–	–	–	–	–	–	100	100	100
월 야	–	–	–	–	–	–	100	100	100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및읍면별	분뇨수집·운반업체							분뇨처리시설	
	업체수	시설(차량) 현황(대수)					종사인원	시설수	시설용량(㎥/일)
		계	3톤이하	4.5톤이하	8톤이하	기타			
2002	3	5	–	2	1	2	6	1	40
2003	3	5	–	2	1	2	6	1	40
2004	3	4	–	3	1	–	8	1	40
2005	3	5	–	1	1	3	6	1	40
2006	3	3	–	1	2	–	8	1	40
2007	**3**	**3**	–	**3**	–	–	**6**	**1**	**40**
함 평	2	2	–	2	–	–	4	–	–
손 불	–	–	–	–	–	–	–	–	–
신 광	–	–	–	–	–	–	–	–	–
학 교	–	–	–	–	–	–	–	–	–
엄 다	–	–	–	–	–	–	–	–	–
대 동	1	1	–	1	–	–	2	1	40
나 산	–	–	–	–	–	–	–	–	–
해 보	–	–	–	–	–	–	–	–	–
월 야	–	–	–	–	–	–	–	–	–

5) 쓰레기

(1) 쓰레기 발생량과 수거

우리나라는 공업화 이전에는 소량의 쓰레기와 폐수가 배출되어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보전되었으므로 자연의 자정 능력으로 대부분의 오염 부하량이 처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배출 쓰레기는 종류의 다양성, 분해의 어려움, 배출량의 증가, 유해화학물질 함유 등을 나타내고 있어서 최종 처리에 고도의 기술과 높은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오염물질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의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 실시, 매립장에서 수질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위생매립,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화를 위한 소각처리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폐기물 관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함평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함평군은 1978~1981까지는 함평읍, 학교, 해보면 소재지, 1982~1987년까지는 함평읍, 학교, 나산, 해보면 소재지, 1988~1990년까지는 9개 읍면 소재지의 쓰레기를 수거해 오다가 1991년부터 군 전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100%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

(단위 : ㎢, 명, 톤)

구분 / 연도별	행정구역(A)		청소구역(B)		수거지 인구율 (B/A)	배출량(C) (톤/일)	처리량(D) (톤/일)	수거율 (D/C)(%)
	면적	인구	면적	인구				
2002	392.70	42,123	392.7	42,123	100	19.4	19.4	100
2003	392.80	42,388	392.8	42,338	100	16.0	16.0	100
2004	392.72	40,486	392.72	40,486	10	18.5	18.5	100
2005	392.73	40,437	392.73	40,437	100	17.6	17.6	100
2006	392.72	38,956	392.72	38,956	100	18.0	18.0	100
2007	**392.76**	**38,402**	**392.76**	**38,402**	**100**	**15.7**	**15.7**	**100**

자료 : 환경상하수도과

쓰레기 수거

(단위 : ㎢, 명, 톤)

구분 / 연도별	수 거 처 리					지 방 자 치 단 체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인 원	장 비		
							차량	손수레	중장비
2002	19.4	11.2	-	8.2	-	34	7	5	2
2003	16.0	9.7	-	6.3	-	34	6	5	2
2004	18.5	14.0	-	4.5	-	34	6	5	1
2005	17.7	15.6	-	2.1	-	34	7	5	1
2006	18.0	15.8	-	2.2	-	34	7	5	1
2007	**15.7**	**13.9**	**-**	**1.8**	**-**	**34**	**7**	**5**	**1**

군 전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인구의 감소도 있겠지만 2002년에는 ㎢당 배출량이 19.4톤이었으나 2007년에는 15.7톤으로 많은 량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군민들이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크게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수거 쓰레기의 처리

1996년에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 상황을 보면 발생량 24.3t/일 중 매립이 15.6t/일으로 64.2%, 소각이 4.0t/일으로 16.5%, 재활용이 4.7t/일로 19.3%로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생활 쓰레기를 대부분 매립해야 하는 시, 군의 실정에 비추어 매립장 확보와 운영은 큰 애로 사항이다.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발생 침출수, 악

취, 가연성가스, 비산분진, 생태변화 등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기확보된 매립장이 용량을 다할때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새 매립장 후보지의 주민들이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실정이어서, 함평군은 물론 전남, 나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골치 중의 하나가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다.

1996년 말 현재 함평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황은 <표 13>과 같다.

학교면과 월야면, 나산면, 해보면을 제외하고는 잔여 매립용량이 50% 미만이고 함평읍(잔여량 18.8%)과 엄다면(잔여량 31.6%)은 새로운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함평읍은 여러 어려움을 거친 끝에 아래와 같은 위생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치 : 함평읍 장년리 산 59-2번지 외 13필지

•사업면적 : 36,428㎡

•매립용량 : 100,000㎥

•사 업 비 : 2,569백만원(국비 1,500백만원. 군비 1,069백만원)

•사용기간 : 2000. 10~2015(15간)

•사업내용 :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1식· 45kl/일
파쇄시설 설치 등　　10t/일
재활용 선별 창고　　396㎡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 현황

구분 / 연도및읍면별	개 소 수	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야매립 가능량(㎥)
2002	2	14.9	105,444	18,794	86.650
2003	1	13.8	146,000	17,870	128,130
2004	1	13.8	146,000	27,740	118,260
2005	1	25.6	146,000	32,424	113,576
2006	1	25.6	146,000	38,325	107,675
2007	**1**	**25.6**	**146,000**	**40,185**	**105,815**
함　평	1	25.6	146,000	40,185	105,815
손　불	-	-	-	-	-
신　광	-	-	-	-	-
학　교	-	-	-	-	-
엄　다	-	-	-	-	-
대　동	-	-	-	-	-
나　산	-	-	-	-	-
해　보	-	-	-	-	-
월　야	-	-	-	-	-

제4절 함평 환경에 관한 각종 현황

1. 함평 환경기초시설(하수 · 축산폐수·분뇨 처리장) 건설공사

1994. 11~1995. 6월까지 설계된 당초 함평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별도 부지에 시설토록 되었었다. 1996년 10월을 기해 이를 통합하여 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설을 설치해, 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며 축산폐수, 분뇨 방류수를 수질기준보다 양질로 처리하여 함평천의 수질 보전 및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로 시작했다.

2000년에 마무리 된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은 1997년 12월말 현재 1차 처리공사는 100%, 2차 처리공사는 1998년 말까지 완료었으며, 현재 2차, 3차 공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이 사업소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처리장 시설 위치** : 엄다면 학야리 322-1 일대
- **•처리장 설치 부지 면적** : 45,404㎡
- **•처리 구역 면적** : 276.0ha
- **•처리 계획 인구** : 24,500명
- **•하수 배제 방식** : 분류식
- **•처리 시설 용량** : 하수 9,000㎥/일. 가축분뇨 130kl/일. 분뇨 40kl/일
- **•처리 방식** : 하수-산화구법. 축산폐수-액상부식법. 분뇨-액상부식법
- **•하수처리장 시설 개요**

시 설	형 식	규 격
침 사 지	중력식	W 0.6m×L 9.1m×2지
유 입 펌 프 장	수중펌프	5.8㎥/분×2대(1대 예비). 3.6㎥/분×2대
산 화 구	무종단 순환수로식	W 0.6m×L 67.8m×H 3.0m×4지
최 종 침 전 지	원형방사류식	φ 26.0m×h 3.5m×2지
소 독 조	수로형	W 2.0m×L 40.0m×4지
슬 러 지 농 축 조	동력식. 원형	φ 5.5m×H 3.5m×2지
슬 러 지 저 류 조	장방형	W 3.1m×L 3.1m×H 3.0m×2지
슬 러 지 탈 수 기	필터 벨트 프레스 탈수기	W 2.0m×120~140kg/hr×2대

-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 개요**

시 설	구분	개요		참 고
		축 산 폐 수	분 뇨	
투입홈투입실	구조 면적	철근 콘크리트조 375㎡		투입 기계실은 축산폐수+분뇨 공동 사용
저류조	형식 규격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12.0m×L11.0m ×H4.0m×1조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6.0m×L11.0m×H4.0m×1조	
액상부식조	형식 규격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12.0m×L24.0m ×H4.0m×3조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7.0m×L24.0m×H4.0m×1조 W6.0m×L24.0m×H4.0m×1조	
혼합조	형식 규격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6.5m×L11.0m ×H4.0m×1조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6.5m×L3.4m×H4.0m×1조	
응집반응조	재질 규격	SS 41+FRP 코팅 W1.5m×L3.9m×H1.5m×1조		응집반응조 및 조정조는 하수처리장 슬

시 설	구분	개요		참 고
		축 산 폐 수	분 뇨	
조정조	형식 규격	철근콘크리트 밀폐 방수 W5.5m×L11.5m×H4.35m×2조		러지 처리 동에 위치 하며 축산폐수 + 분뇨 공동 사용
슬러지 CAKE 저장탱크	형식 규격	철근콘크리트조 W15.8m×L16.2m×1지		

2. 함평군 환경 각종 현황(통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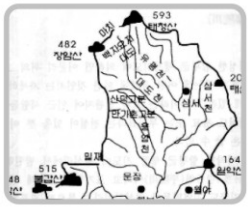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설치년도	참 고
상수도 정수장	함평읍 기각리 569 나산면 삼축리 산 29-3	10,000㎥/일 500㎥/일	2002 1982	
상수도 배수지	함평읍 함평리 12-1 나산면 삼축리 산 29-3	6,000㎥/일 250㎥/일	2009 1982	증설
환경기초시설 (하수,가축분뇨,분뇨)	엄다면 학야리 392-1	하수 9,000㎥/일 가축분뇨 130kl/일 분뇨 40kl/일	2000	
해보 하수처리장	해보면 용산리 1146-13	1,300㎥/일	2008	
환경관리센터(매립장)	함평읍 장년리 산 59-2	146,000㎥ 침출수18㎥/일	2000	하수연계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학교면 죽정리 85-50	400㎥/일	1991	2007 개선완료

○ 시설 현황

장비(물품)명		계					용도	비고
		계	10톤이상	5톤이상 10톤미만	5톤미만	기타		
계		20		10	9	1		
카이런		1			1		환경순찰	환경지도
청소차량	중형화물	2			2		환경순찰	환경미화
	대형화물	9		9			청소차량	환경미화
굴삭기		1				1 (08궤도)	매립장 복토용	환경미화
중형화물		1		1			침출수운반	환경미화
중형화물		1			1		집게차	환경미화
소형화물(더불캡)		1			1		청소민원	환경미화
소형화물(더불캡)		1			1		민원처리	상수도
마이티 2.5톤		1			1		슬러지 반출용	환경시설
소형화물(더불캡)		1			1		사무용	환경시설
스키드스키로더		1			1		슬러지	환경시설

제18장 주 택(住 宅)



제1절 선사 주거지(先史住居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굴 조사한 선사주거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며 전남지방은 또 다른 도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함평은 지난 1999년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유적에서 구석기 문화층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층이 발견되었다.

이는 함평에서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나 주거지는 밝혀진 바는 없다.

1. 청동기시대 (전기 B.C 1000~300. 후기 B.C 300~0)

전남지방이 청동기의 유적인 고인돌이 전국 고인돌의 70%를 넘는 것을 보면 청동기시대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았고, 또 그들이 살았던 집 터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발굴된 예는 미약한 것이다.

함평군은 전남지방에서 고인돌 분포가 상위에 속하고 나산면 초포리 사촌 돌널무덤에서 다량의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어 당시 부강한 선진 문화권에 속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청동기 주거지가 발견된 예가 없는 것이 아쉽다.

전남지방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광주 송암동(松岩洞), 영암군 장천리(長川里), 순천의 대곡리(大谷里), 우산리(牛山里) 등이며 주거지가 노출된 곳이 광주 운암동(雲岩洞), 장흥 건산리(巾山里) 등이다.

발굴 조사된 주거지는 땅을 20~30㎝ 파고 들어간 움집(수혈주거지-竪穴住居地)이며 그 형태는 직경이 대개 4~5m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주거지로 중앙에 기둥 구멍이 2개나 4개가 있는 원추형 모양의 움집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충남 서산군 해미, 부여 송국리, 경남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충남, 전남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형 주거지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움집과는 그 형태나 내부 시설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며, 이러한 형태의 움집이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지방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다른 지방과는 다른 하나의 문화적인 배경과 특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 보고 있다.[400]

2. 철기시대 (A.D 0~300)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철기시대의 대표적 주거지로는 승주 낙수리, 대곡리, 해남군 군곡리의 주거지가 있는데 승주의 낙수리는 보성강변의 구릉에 15개여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대곡리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걸치는 대규모의 집단 거주지가 발굴되었으며, 군곡리 패총 주위에서도 여러 기(基의) 주거지가 발굴되어 이 시대의 문화상이 밝혀지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많은 유적과 유물의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대의 주거지는 4~5m 크기의 모줄임 네모꼴형(말각방형-抹角方形)의 움집이다.

함평군에서는 현재까지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고분 구역내에서 1기가 발견되었을 뿐인데 그 크기는 가로 4.2×세로 4.1×깊이 0.35m며 기둥을 세웠던 4개의 구멍을 확인하고 발형토기(鉢形土器)를 수습하였으며 시기는 3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이 주거지가 모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고분과 관련되는 거주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직 만가촌고분의 발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시일을 요한다.<마한·백제시대의 유적·유물 중 예덕리 만가촌 고분을 볼 것>

제2절 함평군 민가의 유형과 구조

천득염 교수는 전남의 전통건축에 나타난 특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은 건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 시킨다. 추운 북쪽 지방에 비하여 고온 다습한 우리 고장의 건축은 개방적이다. 앞이 훤히 넓다. 창문이 많고 마루가 필수적이며 칸살이 넓다. 창문이 많아 통풍하기 쉽고 폐쇄적인 구들 보다는 널판을 깐 마루가 있어야 여름이 시원하다. 마루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대청마루 앞 문은 들어 열개문으로 하여 서까래의 걸쇠에 걸치면 대청마루가 바로 마당이 되고 마당이 바로 마루가 되기도 한다. 마루와 마당은 여름철에 기거하는 방이 되기도 한다.

비가 많아 지붕이 급하고 집이 낮다.

비가 많은데 평평한 지붕은 불리하고 비바람에 건물이 높아서 좋을 게 없다. 바람이 많으면 새끼를 촘촘히 엮어 방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농토가 넓어서 생활이 여유롭다.

집도 타지역에 비해 칸살이 넓다. 산보다는 농토가 많다. 돌보다는 흙을 즐겨 쓴다. 토담집이 큰 산 아래도 많다. 큰 산에는 돌이 많아 돌로 집을 지어야 할 것인데 이상하다.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고 내외의 출입을 삼가 하였다.

양반과 상것들이 드나들 공간을 따로 하였다. 사랑채 앞에는 나무를 키우고 조그만 연못을 파 멀

400) 1996년 간행 전남도지 26권 34쪽. 집필 천득염

리 있는 경승을 옮겨다 놓았다.

평면 형태는 거의가 일자형(一字形)으로 홑집이 많다.

서울지방의 영향으로 반가(班家)에서 일자형(日字形)이 약간 보이고 서남해안 도서지방에서는 까작집이라 해서 부엌이 돌출한 ㄱ자형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리산 고지의 마을에서는 산지주거(山地住居)의 특색인 겹집의 형태가 보이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재료는 역시 대부분 목재이나 벽을 심벽구조(深壁構造)로 한 것 이외에 흙벽돌집이나 두꺼운 토담집의 예도 월출산 주변 마을과 동광양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앞은 나무로 잘 지으려고 하였으나 옆이나 뒤는 구하기 쉽고 시원한 흙을 썼다. 기둥이나 서까래에 곧은 목재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휩어 썼다.

지붕의 형태는 초가의 경우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는 모습이나 강진지방에서는 유지기라 하여 용마루 끝에 상투를 튼 것과 같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기와를 얹을 때는 흔히 방풍(防風)집으로 하였다. 팔작(八作)지붕이라고도 한다. 보성지방에서는 연기막이라 하여 부엌 처마 밑에 삼각형 판자를 붙여 놓았다."[401] 라고 하였고 또 "전남지방의 서민 주거·민가"에서는,

"민가는 그 어느 건축보다도 지역성이 크게 나타나며 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에서 전남지방의 민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민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남지방에서 자연적, 사회적 환경인자는 이 지역 민가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파악되어진다.

둘째, 전남지방에서 나타나는 민가의 평면 유형은 산간지방은 3칸 겹집형, 내륙지방은 4칸 홑집형, 도서지방은 4칸의 까작집형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셋째, 배치유형은 등고선과 일치하는 지세에 따라 뒷이 높고 앞이 낮은 위치에 안채가 위치하고 부속채는 안채와 '튼 ㄱ자형' 배치가 일반적이다.

넷째, 내륙지방은 큰방, 부엌, 작은방, 대청, 광 등으로 그 기능이 뚜렷이 나눠져 있다.

다섯째, 민가를 축조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주변에서 구득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상태는 주인의 경제 상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또한 산간지방에서는 작고 거칠지만 도서와 내륙지방에서는 산간지방보다 크고 다듬어 쓴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여섯째, 각 실을 축조하는데 사용된 단위 척도는 큰방의 경우 산간지방에서는 8자 방이 많고 도서와 내륙지방에서는 정면 8자, 측면 12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구조적 특성으로서 돌과 목재의 사용이 풍부하며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산간지방은 높은 기단, 도서 내륙지방은 낮은 기단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 안채는 목조가구식인 반오량가이거나 이고주 오량구조며 부속채는 돌과 흙의 조적식인 삼량 구조가 대부분이다."[402] 라고 했다.

함평군의 민가 유형과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면단위에 대한 연구 분석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앞으로 함평의 모든 가옥이 현대화되기 전에 밝혀내야 할 하나의 연구과제이다.

제3절 함평군의 주택보급 상황 및 건축허가 상황

401) 1996년 간행 「전남도지」 26권 29~30쪽
402) 1996년 간행 전남도지 26권 56쪽

1. 함평군의 주택보급 상황

2007년 말 함평군의 주택 보급률은 97.9%며 읍면별로는 함평읍이 90.3%로 가장 낮으며 신광, 대동, 나산, 해보, 월야면이 100% 미만이며 손불, 학교, 엄다면이 보급률 100%를 넘었다. 특히 학교면은 106.5%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참조>

1984년 정우, 함성 등 연립 주택이 함평읍에 세워지면서 단독주택 건립에서 벗어났고 1991년에 함평읍에 동광아파트가 건립되어 다층 주택이 선을 보였다.

함평읍에는 2000년대에 주공아파트와 라뷔랑아파트가 세워졌으며, 학교면에도 다가구 주택들이 연달아 세워졌거나 세워지고 있다.

1996년 주택의 점유형태별 상황은 자가가 많으며 전세가 444가호, 사글세로 살고 있는 가호도 121가호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외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이다. <표 1 참조>

<표 1> 주택의 보급 및 점유형태별 상황

단위 : 동

구분 연·읍면	가구수	주택종류								점유형태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보급률(%)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1985	18,906	17,571	17,454			80		37	92.9	17,571	16,733	261	8	126	443
1990	17,304	16,186	15,863			68	9	246	93.5	16,186	15,419	292	13	99	363
1995	17,276	16,112	15,323		172	60	33	524	93.30	15,993	14,207	891	54	259	480
1996	17,220	16,588	15,605		172	60	33	718	96.30	15,204	14,203	444	27	121	409
1997	17,309	16,715	15,728		172	60	33	722	96.6	15,437	14,327	550	30	180	350
1998	18,372	17,062	15,907		172	60	33	890	92.9	15,204	14,203	444	27	164	366
1999	17,528	16,507	15,317		172	60	37	918	94.1	15,317	14,308	454	32	168	355
2000	17,398	16,458	15,271		172	60	37	918	94.6	15,271	14,265	452	32	167	352
2001	17,255	16,452	15,265		172	60	37	918	95.3	14,893	13,244	721	231	211	376
2002	17,114	16,783	15,305	-	463	60	955	-	98.1						
2003	17,312	16,793	16,180	40	463	60	50	-	97.0						
2004	17,153	16,845	16,226	40	463	60	56	-	98.2						
2005	17,553	16,855	16,236	40	463	60	56	-	96.0						
2006	17,412	17,007	16,266	40	570	75	56	-	97.6						
2007	17,434	17,074	16,330	43	570	75	56	-	97.9						
함평읍	4,164	3,759	3,110	41	530	60	18	-	90.3						
손불면	2,003	2,019	2,019					-	100.8						
신광면	1,100	1,066	1,066					-	96.9						
학교면	2,234	2,380	2,342				38	-	106.5						
엄다면	1,161	1,211	1,211					-	104.3						
대동면	1,572	1,556	1,554	2				-	98.9						
나산면	1,668	1,651	1,651					-	98.9						
해보면	1,518	1,423	1,383		40			-	93.7						
월야면	2,014	2,009	1,994			15		-	99.7						

2. 건축 허가 상황

<표 2>는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89년에 들어서면

서 건수가 크게 불어난 것은 경제력이 나아져 신축 등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관계가 있지만 89년 이전은 건축법에 대해 크게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실지 건축물은 신축, 증보수를 많이 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건축법이 강화되어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새로 짓거나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임을 밝혀둔다.

건축 성향을 보면 1983년까지는 신축보다 증축이나 보수가 많았으며, 1991년까지는 철근조 보다는 조적조 건축을 많이 했었으나 1992년부터는 철근조 건물이 크게 늘어나 35%를 상회하고 있고, 목조 건물이 건수가 작은 것은 목재를 이용한 전통 한옥을 많이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2> 연별(年別) 건축허가 상황

1992년까지 기타 항에는 광공업, 공공, 기타가 포함됨
문교항에는 사회 건축물 허가 건이 포함됨
1993년부터 기타 항에는 농수산 기타 건축물이 포함됨

단위 : 동(棟)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대수선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77	계	6	3	3			6	3	3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용																				
	기 타																				
1978	계	88	40	48			88	40	48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용																				
	기 타																				
1979	계	47	25				47	21	46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용																				
	기 타																				
1980	계	9	5				9	5	4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용																				
	기 타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대수선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81	계	58	32	26			49	23	26			9	9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용																				
	기 타																				
1982	계	69	15	53		1	24	11	12		1	44	4	40			1		1		
	주거용	43		43			4		4			39		39							
	상업용	5	2	3			4	2	2			1		1							
	농수산	12	8	4			12	8	4												
	문교용	6	5	1			1	1				4	4				1		1		
	기 타	3		2		1	3		2		1										
1983	계	123	35	81	7		45	20	22	3		77	14	59	4		1	1			
	주거용	64	4	56	4		4	4				60		56	4						
	상업용	14	3	10	1		11	2	8	1		2		2			1	1			
	농수산	16	13	3			10	8	2			6	5	1							
	문교용	14	11	2	1		5	2	2	1		9	9								
	기 타	15	4	10	1		15	4	10	1											
1984	계	88	18	51	18	1	60	10	35	15		28	8	16	3	1					
	주거용	51	3	40	8		35	3	27	5		16		13	3						
	상업용	7	1	6			6	1	5			1		1							
	농수산	7	2	3	2		5	2	1	2		2		2							
	문교용	11	10			1	2	2				9	8			1					
	기 타	12	2	2	8		12	2	2	8											
1985	계	58	24	26	1	7	38	13	24	1		20	11	2		7					
	주거용	16		16			16		16												
	상업용	15	8			7	5	5				10	3			7					
	농수산	6	3	2	1		5	2	2	1		1	1								
	문교용	9	8	1			1	1				8	7	1							
	기 타	12	5	7			11	5	6			1		1							
1986	계	87	38	45	2	2	65	30	31	2	2	21	8	13			1	1			
	주거용	18	2	16			13	1	12			5	1	4							
	상업용	12	6	6			8	4	4			3	2	1			1	1			
	농수산	11	7	3	1		10	7	2	1		1		1							
	문교용	4	1	3			2	1	1			2		2							
	기 타	42	22	17	1	2	32	17	12	1		10	5	5							
1987	계	63	39	24			38	26	12			25	13	12							
	주거용	9		9			4		4			5		5							
	상업용	13	6	7			5	3	2			8	3	5							
	농수산																				
	문교용	11	9	2			4	3	1			7	6	1							
	기 타	30	24	6			25	20	5			5	4	1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대수선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88	계	84	34	49		1	40	17	23			44	17	26		1					
	주거용	32	1	31			19	1	18			13		13							
	상업용	9	2	7			2	2				7		7							
	농수산	7	2	5			5	2	3			2		2							
	문교용	17	14	3			5	5				12	9	3							
	기 타	19	16	2		1	9	7	2			10	8	1		1					
1989	계	134	50	73	4	7	76	27	36	4	4	63	23	37		3					
	주거용	33		33			16		16			17		17							
	상업용	19	8	11			7	5	2			12	3	9							
	농수산	22	5	12	4	1	12	3	4	4	1	10	2	8							
	문교용	13	10	1		2	2		1		1	11	10			1					
	기 타	47	27	16		4	34	19	13		2	13	8	3		2					
1990	계	132	55	61	4	12	79	32	39	1	7	53	23	22	3	5					
	주거용	41	3	35	1	2	29	3	25	1		12		10		2					
	상업용	26	14	8	1	3	18	11	4		3	8	3	4	1						
	공업용	27	20	2	1	4	9	7			2	18	13	2	1	2					
	문교용	1		1								1		1							
	기 타	37	18	15	1	3	23	11	10		2	14	7	5	1	1					
1991	계	136	47	57	5	27	99	27	45	4	23	36	19	12	1	4	1	1			
	주거용	35	2	31		2	30	2	26		2	5		5							
	상업용	26	10	10		6	18	5	8		5	7	4	2		1	1	1			
	농수산	24	9	2	4	9	20	6	1	4	9	4	3	1							
	문교용	17	7	4	1	5	7	1	2		4	8	7	1							
	기 타	22	12	5		5	15	8	4		3	12	5	3	1	3					
1992	계	156	68	31	30	46	140	57	24	26	14	35	11	7	4	13					
	주거용	26	4	21		1	18	3	15			8	1	6		1					
	상업용	55	38	3	4	10	46	34	2		10	9	4	1	4						
	농수산	55	6	2	26	21	53	6	2	26	19	2				2					
	문교용	11	6	2		3	5	2	2		1	6	4			2					
	기 타	28	14	3		11	18	12	3		3	10	2			8					
1993	계	156	73	22	1	60	100	54	17	1	37	47	18	6		23					
	주거용	7	3	4			7	3	4												
	상업용	27	18	4		5	20	14	3		3	7	3	1		3					
	공업용	40	19	5		16	16	13	1		2	24	6	4		14					
	문교용	14	11			3	5	3	1		1	9	8			1					
	기 타	68	22	9	1	36	61	21	8	1	31	7	1	1		5					
1994	계	142	47	26	2	67	96	33	18		45	46	14	8	2	22					
	주거용	5	1	4			1		1			4	1	3							
	상업용	32	18	4		10	24	15	3		2	8	3	1		4					
	공업용	15	11	1		3	7	7				8	4	1		3					
	문교용	12	5			7	3	3				9	2			7					
	기 타	78	12	17	2	47	61	8	14		39	17	4	3	2	8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대수선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95	계	66	24	12	1	29	42	16	7	1	18	24	8	5		11					
	주거용	5	1	3		1	5	1	3			1									
	상업용	24	13	5		6	14	11			3	10	2	5		3					
	공업용	9	4			5	4	1			3	5	3			2					
	문교용	5	4		1		2	1		1		3	3								
	기 타	23	2	4		17	17	2	4		11	6				6					
1996	계	68	44	12		12	56	42	6		8	12	2	6		4					
	주거용	3	1	2			2	1	1			1		1							
	상업용	28	21	4		3	24	20	3		1	4	1	1		2					
	공업용	4	1	1		2	2	1			1	2		1		1					
	문교용	7	3	4			4	3	1			3		3							
	기 타	26	18	1		7	24	17	1		6	2	1			1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용도변경					
		계	콘트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1997	계	126	–	111	11	–	4	93	–	88	4	–	1	32	–	23	6	–	3						
	주거용	4	–	1	3	–	–	3	–	1	2	–	–	1	–	–	1	–	–						
	상업용	35	–	31	3	–	1	32	–	30	2	–	–	3	–	1	1	–	1						
	공업용	37	–	34	1	–	2	28	–	27		–	1	9	–	7	–	–	2						
	문교사회	12	–	8	3	–	1	4	–	4		–	–	7	–	4	3	–	–						
	기 타	38	–	37	1	–	–	26	–	26	10	–	2	12	–	11	1	–	–						
1998	계	98	–	78	15	–	5	61	–	48	11	–	2	37	–	30	4	–	3						
	주거용	5	–	2	3	–	–	4	–	1	3	–	–	1	–	1	–	–	–						
	상업용	15	–	11	2	–	2	11	–	9	1	–	1	4	–	2	1	–	1						
	공업용	6	–	6	–	–	–	4	–	4	–	–	–	2	–	2	–	–	–						
	문교사회	6	–	5	1	–	–	3	–	2	1	–	–	3	–	3	–	–	–						
	기 타	66	–	54	9	–	3	39	–	32	6	–	1	27	–	22	3	–	2						
1999	계	55	–	45	2	1	7	36	–	31	–	1	4	19	–	14	2	–	3						
	주거용	3	–	1		–	1	1	–	1	–	–	–	2	–	–	1	–	–						
	상업용	23	–	21	1	–	2	18	–	16	–	–	2	5	–	5	–	–	1						
	공업용	5	–	5		–	–	3	–	3	–	–	–	2	–	2	–	–	–						
	문교사회	9	–	7	1	–	1	5	–	4	–	–	1	4	–	3	1	–	–						
	기 타	15	–	11		1	3	9	–	7	–	1	1	6	–	4	–	–	2						
2000	계	49	–	46	3	–	–	38	–	361	2	–	–	11	–	10	1	–	–						
	주거용	3	–	1	2	–	–	1	–	1	2	–	–	–	–	–	–	–	–						
	상업용	16	–	16	–	–	–	18	–	13	–	–	–	3	–	3	–	–	–						
	공업용	1	–	10	1	–	–	3	–	7	–	–	–	4	–	3	1	–	–						
	문교사회	5	–	5	–	–	–	5	–	4	–	–	–	1	–	1	–	–	–						
	기 타	14	–	14	–	–	–	9	–	11	–	–	–	3	–	3	–	–	–						
2001	계	48	–	34	3	–	11	36	–	29	1	–	6	13	–	5	2	–	6						
	주거용	7	–	4	2	–	1	5	–	4	1	–	–	2	–	–	1	–	1						
	상업용	20	–	17	1	–	2	19	–	16	–	–	3	2	–	1	1	–	–						
	공업용	7	–	5	–	–	2	1	–	1	–	–	–	6	–	4	–	–	2						

연별	용도별	합계						신축						증축·개축·기타						용도변경					
		계	콘트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문교,사회	1	–	1	–	–	–	1	–	1	–	–	–	–	–	–	–	–	–						
	기 타	13	–	7	–	–	6	10	–	7	–	–	3	3	–	–	–	–	3						
2002	계	66	20	41	3	–	1	36	13	20	3	–	–	30	7	21	–	–	1						
	주거용	2	2	–	–	–	–	1	1	–	–	–	–	1	1	–	–	–	–						
	상업용	27	15	9	2	–	1	21	11	8	2	–	–	6	4	1	–	–	1						
	농수산	8	–	8	–	–	–	5	–	5	–	–	–	3	–	3	–	–	–						
	공업용	24	–	24	–	–	–	7	–	7	–	–	–	17	–	17	–	–	–						
	문교,사회	5	3	–	1	–	–	2	1	–	1	–	–	3	2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2003	계	68	29	27	9	2	–	51	23	24	1	2	–	17	6	3	8	–	–						
	주거용	10	7	2	1	–	–	9	7	2	–	–	–	1	–	–	1	–	–						
	상업용	27	15	8	2	2	–	23	13	7	1	2	–	4	2	1	1	–	–						
	농수산	4	–	4	–	–	–	4	–	4	–	–	–	–	–	–	–	–	–						
	공업용	6	–	6	–	–	–	4	–	4	–	–	–	2	–	2	–	–	–						
	문교,사회	18	5	6	6	–	–	9	2	6	–	–	–	9	3	–	6	–	–						
	공공용	–	–	–	–	–	–	–	–	–	–	–	–	–	–	–	–	–	–						
	기 타	3	2	1	–	–	–	2	1	1	–	–	–	1	1	–	–	–	–						
2004	계	251	48	130	69	4	–	186	38	94	51	3	–	61	10	32	18	1	–	4	–	4	–	–	–
	주거용	74	8	18	48	–	–	59	7	11	41	–	–	14	1	6	7	–	–	1	–	1	–	–	–
	상업용	36	7	13	12	4	–	25	5	11	6	3	–	10	2	1	6	1	–	1	–	1	–	–	–
	농수산	45	–	45	–	–	–	38	–	38	–	–	–	7	–	7	–	–	–	–	–	–	–	–	–
	공업용	18	3	13	2	–	–	8	2	6	–	–	–	10	1	7	2	–	–	–	–	–	–	–	–
	문교,사회	20	10	7	3	–	–	7	5	1	1	–	–	12	5	5	2	–	–	1	–	1	–	–	–
	공공용	31	16	13	2	–	–	31	16	13	2	–	–	–	–	–	–	–	–	–	–	–	–	–	–
	기 타	27	4	21	2	–	–	18	3	14	1	–	–	8	1	6	1	–	–	1	–	1	–	–	–
2005	계	251	41	156	42	12	–	166	23	109	27	7	–	83	17	47	15	4	–	2	1	–	–	1	–
	주거용	58	12	15	28	3	–	46	12	12	21	1	–	12	–	3	7	2	–	–	–	–	–	–	–
	상업용	41	14	12	8	7	–	22	7	5	4	6	–	19	7	7	4	1	–	–	–	–	–	–	–
	농수산	87	–	86	–	1	–	80	–	80	–	–	–	7	–	6	–	1	–	1	1	–	–	–	–
	농수산	14	1	13	–	–	–	5	–	5	–	–	–	8	–	8	–	–	–	–	–	–	–	–	–
	문교,사회	27	8	15	3	1	–	4	3	–	1	–	–	3	3	–	–	–	–	1	–	–	–	1	–
	공공용	3	3	–	–	–	–	–	–	–	–	–	–	22	5	15	2	–	–	–	–	–	–	–	–
	기 타	21	3	15	3	–	–	9	1	7	1	–	–	12	2	8	2	–	–	–	–	–	–	–	–
2006	계	487	58	339	68	22	–	366	38	258	51	19	–	110	15	78	15	2	–	11	5	3	2	1	–
	주거용	69	8	16	33	12	–	57	8	11	28	10	–	9	–	3	5	1	–	3	–	2	–	1	–
	상업용	75	28	26	18	3	–	50	19	15	13	3	–	19	5	10	4	–	–	6	4	1	1	–	–
	농수산	247	6	231	10	–	–	199	2	189	8	–	–	48	4	42	2	–	–	–	–	–	–	–	–
	농수산	17	1	16	–	–	–	11	1	10	–	–	–	6	–	6	–	–	–	–	–	–	–	–	–
	문교,사회	31	10	14	6	1	–	18	6	11	1	–	–	12	4	3	4	1	–	1	–	–	1	–	–
	공공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48	5	36	1	6	–	31	2	22	1	6	–	16	2	14	–	–	–	1	1	–	–	–	–
2007	계	557	82	361	79	31	4	392	60	249	55	27	1	140	15	106	14	2	3	25	7	6	10	2	–
	주거용	152	33	49	54	16	–	134	31	44	45	14	–	9	1	4	4	–	–	9	1	1	5	2	–
	상업용	80	24	31	12	13	–	52	16	16	8	12	–	18	4	12	1	1	–	10	4	3	3	–	–
	농수산	227	5	221	–	–	1	161	3	157	–	–	1	66	2	64	–	–	–	–	–	–	–	–	–
	공업용	32	3	18	7	2	2	10	1	8	–	1	–	22	2	10	7	1	2	–	–	–	–	–	–
	문교,사회	15	7	6	2	–	–	7	5	2	–	–	–	4	2	2	–	–	–	4	–	2	2	–	–

연별	용도별	합 계						신 축						증축·개축·기타						용 도 변 경					
		계	콘트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계	콘크리트	철근철골	조적조	목조	기타
	공공용	2	1	1	-	-	-	-	-	-	-	-	-	2	1	1	-	-	-	-	-	-	-	-	-
	기 타	49	9	35	4	-	1	28	4	22	2	-	-	19	3	13	2	-	1	2	3	-	-	-	-
2008	계	430	74	245	60	51	-	328	63	224	185	1	40	86	7	54	16	9	-	16	4	5	5	2	-
	주거용	143	34	44	34	31	-	122	31	65	38	-	26	18	2	5	6	5	-	3	1	1	1	-	-
	상업용	105	18	52	17	18	-	71	13	44	36	-	14	22	3	12	5	2	-	12	2	4	4	2	-
	농수산	93	2	90	1	-	-	72	2	70	69	-	-	21	-	21	-	-	-	-	-	-	-	-	-
	공업용	15	1	14	-	-	-	11	1	10	10	-	-	4	-	4	-	-	-	-	-	-	-	-	-
	문교,사회	22	13	5	3	1	-	12	11	-	-	1	-	9	1	4	3	1	-	1	1	-	-	-	-
	공공용	6	1	5	-	-	-	6	1	5	5	-	-	-	-	-	-	-	-	-	-	-	-	-	-
	기 타	46	5	35	5	1	-	34	4	30	27	-	-	12	3	8	2	1	-	-	-	-	-	-	-

제4절 도시계획 현황

1차 도시계획이 끝난 면은 신광, 해보면이며 진행중인 읍면은 함평, 학교, 나산, 월야면이고 손불, 엄다, 대동면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표 3 참조>

<표 3> 도시계획 현황

1996년 말 현재. 단위 : ㎢. 명

읍면별	기준년도	목표년도	인 구		계획구역면적	용 도 지 역												
						주 거 지 역				상업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미지정
			기준년도	목표년도		합계	주거전용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				39,600	26.57	3.46		3.41	0.05	0.37	0.39	0.10	0.29		14.20	6.58	1.57
함평	1993	2001	10,191	15,000	9.07	1.08		1.05	0.03	0.14	0.24		0.24		6.35	1.23	
손불																	
신광	1974	1986	1,300	1,500	1.91	0.09		0.09		0.02					0.16	0.07	1.57
학교	1989	2001	9,213	10,000	5.02	0.89		0.87	0.02	0.06	0.05		0.05		2.08	1.94	
엄다																	
대동																	
나산	1991	2003	2,179	3,500	3.12	0.48		0.48		0.03					1.67	0.94	
해보	1983	1993	3,987	4,600	4.45	0.60		0.60		0.06	0.06	0.06			2.29	1.44	
월야	1984	2006	3,160	5,000	3.00	0.32		0.32		0.06	0.04	0.04			1.62	0.96	

제5절 고 가(古家)

전통 한옥 중 고가에 해당하는 가옥이 군내에 몇 채가 있는가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1993년 "함평군의 문화유적"을 펴내면서 김지민(金知民) 교수 등 목포대학교 조사진이 함평군의 고가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24가옥을 선정하여 조사 수록한 바가 있다. 함평군의 고가 연구에 귀중한 자료여서 요약하여 여기에 옮긴다.

김 교수는 조사 개요에서,

"주거 건축은 금번 함평군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했던 분야다. 아울러 제일 어려웠던 분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군내의 거의 모든 마을을 일일이 현지 답사한 후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면사무소를 통해 행정적(가옥대장 조사. 구전 등)으로 조사할 전통가옥 목록을 통보 받았으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인정할만한 가옥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누락된 가옥이 더 많았었다. 그리고 더욱 힘들고 아쉬웠던 사실은 농촌의 주택 현대화 및 개축으로 인해 전통가옥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사실로 필자는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건립 당시의 원형(일부 지붕개량)이 그대로 보존된 24가옥을 찾아냈었다. 건립시기는 주로 19세기며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옥도 있다. -략-" 라고 하였다.

<대상 가옥 내역>

명 칭	소 재 지	창건연대	건 물 구 성	참 고
1. 이재혁 가옥	함평읍 함평리 대사동	20C초경	안채, 문간채	전남문화재 자료 250호
2.·김상부 가옥	손불면 대전리 수문	19C초경	안채. 문간채, 헛간채	초가
3. 정대자 가옥	〃 동암리 동백	19C말경	안채, 아래채, 헛간채	초가
4. 강정연 가옥	〃 〃 〃	19C중경	안채, 헛간채, 측간채	
5. 모락원 가옥	신광면 삼덕리 덕천	19C중경	안채	
6. 정양임 가옥	〃 월암리 연천	19C말경	안채, 측간채	초가
7. 심응섭 가옥	〃 복흥리 복치	19C중경	안채, 사랑채	초가
8. 이도숙 가옥	〃 유천리 벽유	19C중경	안채, 문간채, 곡간채	
9. 홍복식 가옥	〃 〃 〃	19C중~말	안채	
10. 나귀례 가옥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	19C말경	안채	
11. 이금성 가옥	〃 〃 〃	19C말경	안채, 측간채	
12. 최원식 가옥	〃 금송리 금산	19C중~말	안채, 아래채(블럭조)	
13. 양동열 가옥	엄다면 신계리 장동	19C말경	안채, 아래채(블럭조)	초가
14. 양재흥 가옥	〃 〃 화계	19C말경	안채	
15. 조연림 가옥	대동면 덕산리 내덕	19C말경	안채	
16. 김소녀 가옥	〃 금산리 감산	1900년경	안채, 아래채, 측간채	초가
17. 이보헌 가옥	〃 〃 〃	19C말경	안채, 창고(블럭조)	
18. 조지형 가옥	〃 운교리 판교	19C중~말	안채, 측간채, 창고(블럭조)	초가
19. 이규행 가옥	나산면 초포리 사산	17C후반~18C중반	안채, 사랑채	전남문화재 자료 150호
20. 이건풍 가옥	〃 〃 〃	17C이전	안채, 사당, 헛간채	함평군 최고가(最古家) 전남문화재 자료 251호
21. 남상복 가옥	〃 수하리 장재	1925	안채, 헛간채	
22. 정단예 가옥	〃 송암리 송암	18C말경	안채	초가
23. 김오열 가옥	해보면 상곡리 모평	20C초경	안채	
24. 정무경 가옥	월야면 용월리 내세	19C중경	안채, 사랑채, 헛간채	초가

1. 이재혁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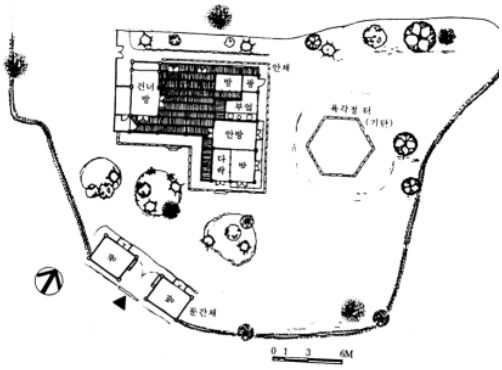
소재지 : 함평읍 함평리 379-2 <대사동>

이 가옥은 한말 만경, 은률 군수를 지낸 이재혁의 아버지 동범(東範)이 1900년대 초에 건립한 가옥으로 현재는 사랑채와 문간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 뒷편에 있던 9간 겹집은 1946년경에, 사랑채 오른편에 세워졌던 육모정은 1984년에 팔려 헐려 갔다.

사랑채는 상량문에 "정사 이월이십오일 개기 이십팔일 안초 동일 입주(丁巳二月二十五日開基二十八日安礎同日立柱)"라 기록되어 있어 1917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고, 문간채는 "세재 기사 사월 이십삼일 개기 안초 동월 이십오일 무인 미시 입주 상량 자좌(歲在己巳四月二十三日開基安礎同月二十五日戊寅未時立柱上樑子坐)"라고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어 1929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간채를 들어서면 각종 수목과 화초들로 가꾸어진 사랑뜰이 나타나고 그 안쪽에 ㄱ자형의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이재혁가옥 배치도

본 가옥에서 특히 주목되어지는 것은 사랑채 우측의 넓은 터에 연못을 파고 그 중앙에 6각형의 정자를 건립한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는 건물은 없어지고 자연석 바른층 쌓기를 한 기단만 6각형으로 남아 있다.

사랑채는 중부지방 평면형의 ㄱ자형 집이다. 평면 구성은 후퇴(後退)를 포함한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부엌을 배치하였으며 꺾어진 부분은 오른쪽으로 앞쪽에 1칸 다락을 드리면서 2개의 방을 배열하였다. 가로칸 전퇴(前退) 부분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대청과 부엌 뒷편, 그리고 꺾어진 부분의 앞쪽에는 각각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로는 화강암 장대석(長大石)으로 바른층 쌓기한 기단 위에 다듬은 네모초석을 놓고 그 위에 19.5㎝ 각(角)의 네모기둥을 세웠으며 가구(架構)는 2고주5량가(二高柱五樑架)이나 대청 중앙 부분만은 1고주5량가로 되어 있다.

도리(道里)는 장설(長舌)로 받혀진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대청 중앙 부분의 종량(宗樑) 위에는 원형의 마루대공을, 그리고 방 부분의 대량(大樑) 위로는 사다리꼴형에 대공을 놓아 종도리(宗道里)를 받게 하였다.

창호는 대청 전면에 4짝의 미닫이 유리문을 달았으며 각 방에는 아자(亞字)살의 미닫이문을 달고 덧문으로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한와(韓瓦)를 얹힌 합각지붕이며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다.

문간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집이다. 중앙간(中央間)에는 쌍여닫이의 판장문(板張門)을 달아 본 가옥의 출입문으로 이용하였으며 왼쪽 1칸은 방으로, 그리고 오른쪽 1칸은 광으로 꾸며 사용하였다.

구조 형식은 기단 형성 없이 다듬은 네모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삼량가(三樑家)의 민도리집 구조로 되어 있다.

본 건물에서는 정자살과 빗살무늬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방뒤 벽의 창이 특히 눈에 띈다.

2. 김상부 가옥

소재지 : 손불면 대전리 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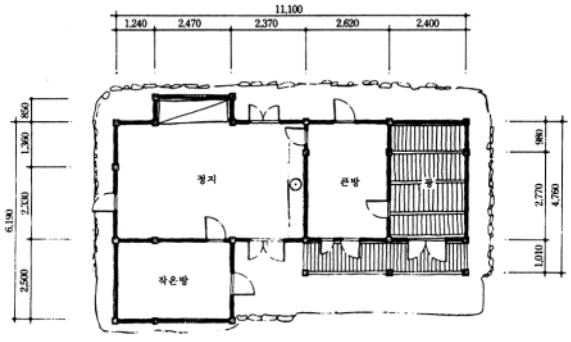
본 가옥은 김해김씨의 종가로서 안채의 건립 연대는 19세기 초로 추정된다.(김해김씨 수문 입촌 18세기 중엽)

현재 안채 전면 왼쪽으로는 60년 전에 건립된 문간 겸 사랑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벽돌조 창고가 한채 있다. 안채는 4칸 "一자형" 초가로서 평면 구성은 오른쪽으로부터 정지, 큰방, 광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정지 전면 모퉁이로는 작은방(정지방) 이 하나 더 드려져 있다. 작은방은 전면의 퇴주열(退柱列)에서 앞쪽으로 140㎝ 정도 돌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ㄱ자형 구조 같이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전남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형적인 평면형으로서 본 가옥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특히 주목이 된다.

광에는 우물마루가 깔려 있다. 남서해 도서지방에서는 이곳을 "마래" 또는 "마리"라고 부른다.

안방에는 봉창이 설치되어 있고 방문은 띠살문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2고주5량가로 납도리집이다. 일부 원형기둥에는 목침이 들어 있는데 이는 휜 재목을 곧게 펴기 위해 박은 것이다.



김상부가옥 안채 평면도

3. 정대자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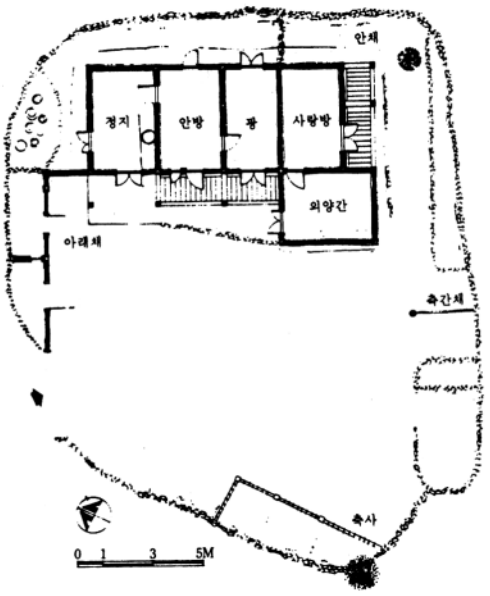
소재지 : 손불면 동암리 동백

마을 안쪽 산 아래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 아래채, 측간채, 가축사 등 4동으로 구성된 본 가옥은 필자가 조사한 이 지역의 민가 중 유일하게 모든 건물이 아직 초가로 남아 있어 다른 가옥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안채의 건축 연대는 19세기 말경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건물은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안채는 오른쪽으로부터 정지, 방, 광, 사랑방 순으로 꾸며진 "一자형" 평면이나 사랑방전면으로 외양간(헛간)이 한 칸 더 드려져 ㄱ자형 구조가 되었다.



정대자가옥 배치도

전후로 퇴간을 두었고 왼쪽면에도 퇴간을 두었다. 왼쪽 퇴간은 사랑방의 전면으로서 툇마루를 설치하여 별도의 출입동선을 두었다.

구조는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2고주5량가로서 납도리 양식이다.

다른 가옥들과 같이 안방에 봉창이 설치되어 있다. 안채는 비교적 규모도 크고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 지역 민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채는 2칸 구조로 방 하나와 헛간으로 꾸며져 있다. 측간채는 죽담구조로서 측간과 역시 헛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강정연 가옥

소재지 : 손불면 동암리 552번지 <동백마을>

동백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집으로 건물은 안채와 헛간채, 그리고 측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의 건축 연대는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헛간채는 1950년경에 강정연이 직접 건축했다고 한다.

안채는 현재 스레트로 지붕이 개량되었고 측간채와 헛간채는 아직 초가로 남아 있다.

배치는 대지 안쪽 중앙에 안채가 자리하고 있고 헛간채는 그 전면 오른쪽에 마당을 보고 위치해 있다. 측간채는 안채 뒤쪽 멀리 왼편에 배치되었다.

안채는 오른쪽으로부터 사랑방, 광, 안방, 정지 순으로 꾸며 있는 一자형 가옥이다. 사랑방 앞쪽으로는 외양간이 있으나 정대자 가옥처럼 퇴주열(退柱列)에서 돌출되지 않고 툇마루선과 맞추어져 있다. 정지 전면의 모퉁이에는 정지방이 드려져 있으나 이곳은 약 50년 전에 정지를 확장하면서 새로 방을 드린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구조는 정대자 가옥과 유사하다.

구조는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이며 가구는 2고주5량가로 되어 있다. 헛간채는 一자형 3칸 구조로 광 1칸과 헛간 2칸으로 꾸며져 있다. 측간채는 죽담구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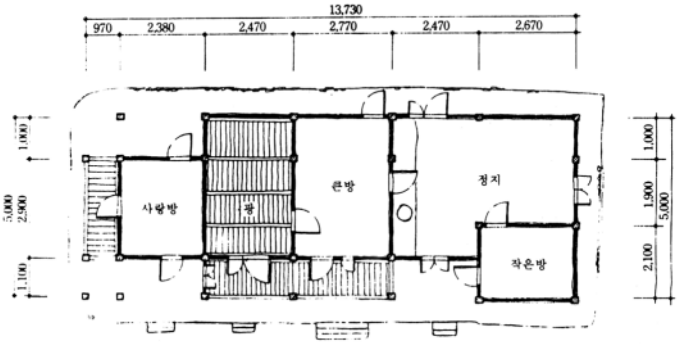
5. 모락원 가옥

소재지 : 신광면 삼덕리 256번지 <덕천마을>

90여호의 덕천마을에서 제일 고가로 알려진 집이다.

이 가옥의 건축 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모락원(77세)의 조부가 건립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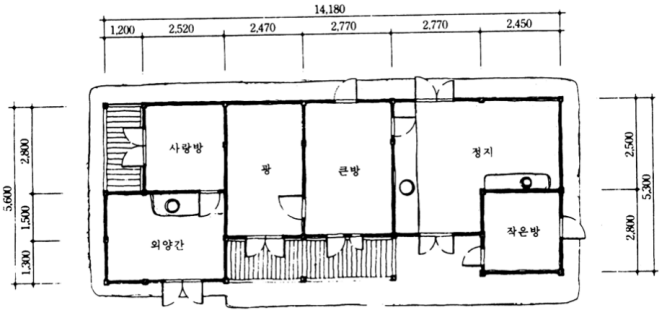
비교적 넓은 대지에 현재 안채만이 정북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타 부속채는 모두 훼철되고 없다. 안채는 10여년 전에 초가에서 스레트로만 개량되어 있을 뿐 건축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락원가옥 안채 평면도

안채는 5칸 규모의 비교적 큰 "一자형"의 가옥으로 앞 뒤와 오른쪽으로 퇴간을 두었다. 평면은 왼쪽으로부터 정지 2칸, 안방, 대청(광), 사방방 1칸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지 앞면 모퉁이로도 작은 정지방이 하나 더 드려져 있다.

사랑방 측면으로는 퇴간을 두어 툇마루를 설치했고 대청과 안방 앞면도 역시 45㎝ 높이로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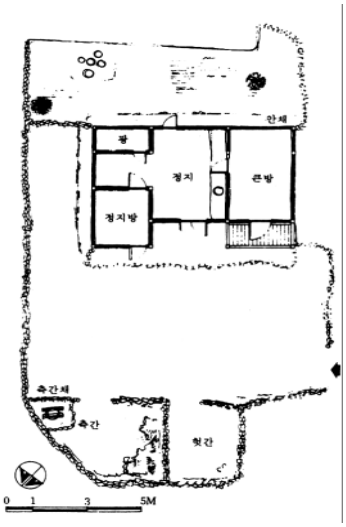
강정연가옥 안채 평면도

기단은 비교적 높게 축조되었고 그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2고주5량가며 도리는 납도리다.

정지와 대청에는 두꺼운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외 모든

문은 죽살문으로 되어 있다. 안방에는 47~72㎝ 크기의 작은 봉창이 달려 있다. 안방 내부에는 아직까지 굵은 장대로 만든 시렁과 횃대 등이 옛 모습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고가옥의 느낌이 더욱 든다.



정양님가옥 배치도

6. 정양임 가옥

소재지 : 신광면 월암리 연천

연천 마을 안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아담한 가옥이다. 이 가옥에는 정양임(74세)이 혼자 기거하고 있으며 건축 연대는 19세기 말로 추정된다.(19세에 시집 올 당시에도 고가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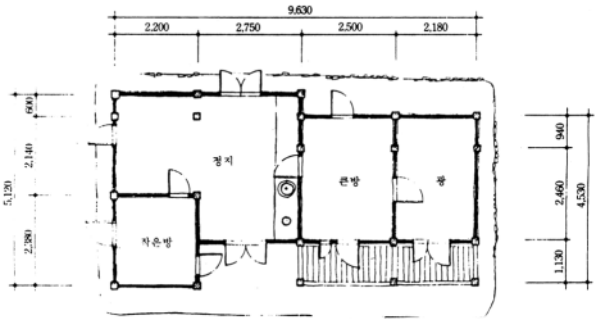
가옥은 대지 안쪽의 안채와 그 전면으로 죽담구조의 측간채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는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안채는 "一자형" 3칸 규모의 초가로 중앙에 정지를 두고 그 왼쪽에 안방,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앞쪽에 정지방을 두고 그 뒤로는 광으로 꾸몄다.

가구는 4량 구조로서 막돌 초석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단순한 구조다. 이 건물은 안방의 죽살문, 광 뒷면의 죽담구조 등 전체적으로 열악한 구조다.

측간채는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죽담구조의 초가로서 내부는 잿간, 헛간, 측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7. 심응섭 가옥



심응섭가옥 안채 배치도

소재지 : 신광면 복흥리 170번지 <복치마을>

복치마을의 안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간채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가옥의 구성은 안채와 사랑채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해방 후에 옛 건물은 헐고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안채만 고가다. 건립 연대는 1830년대 쯤으로 추정한다. (심응섭의 고증살아계시면 117세인 할머니가 19세에 시집올 당시 60년된 건물이었다고 함)

안채는 아직 초가로서 전면으로 툇마루를 둔 4칸 "一자형"의 건물이며 실(室)의 구성은 오른쪽으로부터 정지, 큰방(안방), 광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정지 전면 모퉁이로는 1.6평 크기의 작은방이 하나 더 드려져 있다. 광은 흙바닥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곳은 곡물을 넣은 항아리부터 온갖 살림도구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구조는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4량가의 단순한 납도리집이다.

문은 정지와 광의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살문으로 되어 있고 안방에는 봉창(37×74㎝)이라고 하는 작은창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이 창문은 큰문을 열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쉽게 밖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안방 출입문 옆에 설치한 편리한 외짝 창이다. 전남의 서남부 지역과 특히 도서연안 지역의 민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안채는 건립 당시의 원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19세기 초 이지역 민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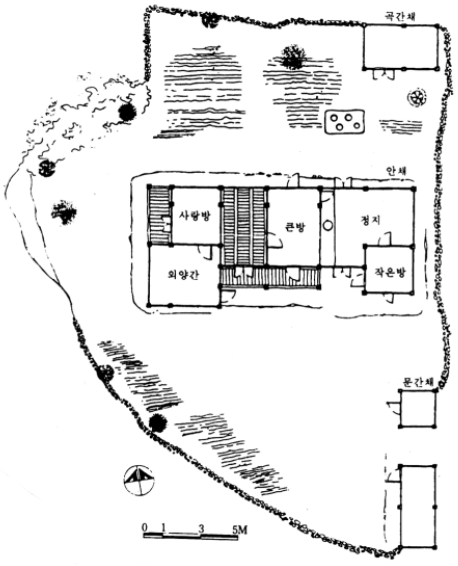
8. 이도숙 가옥

소재지 : 신광면 유천리 벽유정

이도숙(88세) 내외가 거처하고 있다. 해방 전인 1940년대 초에 9만원에 매입한가옥이라고 한다. 가옥의 건축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29년 이도숙이 이 마을에 입촌할 당시도 이 가옥은 벽유 마을에서 고가였다고 한다.

건물은 현재 안채와 문간채, 그리고 곡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도 있었으나 이도숙이 이사와서 바로 헐어버렸다고 한다.

안채는 지붕개량(시멘트 양기와)만 되어 있을 뿐 건축 당시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도숙가옥 배치도

본 가옥에서는 안채 뒷편의 텃밭 뒤로 별도의 2칸 곡간이 건립되어 있어 주목된다.

문간채는 4칸 "一자형" 구조로 광, 문간 각 1칸, 측간 겸 헛간 2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스레트로 개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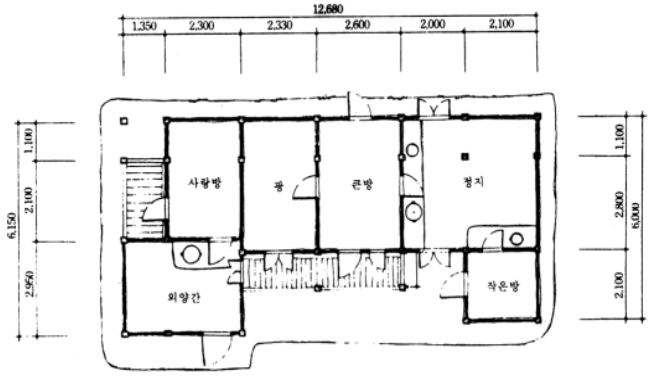
안채는 앞 뒤에 퇴를 둔 정면 5칸 규모의 비교적 큰 건물이다. 평면 형식은 왼쪽으로부터 정지, 큰방, 광, 사랑방 순으로 배열되고 정지와 사랑방 앞면으로는 각각 작은방과 외양간이 퇴주선(退柱線)에서 얼마간 돌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ㄷ자 평면형을 이루고 있다. 심응섭의 안채 가옥과 비교해 볼 때 사랑방과 외양간만이 더 추가된 셈이다.

식구가 많을 때 작은방은 아들 부부가 사용하고 사랑방에서는 머슴과 손님들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다른 가옥과 같이 사랑방 측면으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가구는 2고주3량가로 네모기둥 위에 납도리만 걸었다.

9. 홍복식 가옥

소재지 : 신광면 유천리 벽류



홍복식가옥 안채 평면도

벽류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집으로 알려오고 있고 이도숙 가옥과 마찬가지로 홍복식(80세) 내외만 살고 있다.

1969년 당시 벼 15섬을 주고 사서 옆집에서 이사했다고 한다.

건축 연대는 19세기 중엽 또는 말엽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안채만이 건좌이향(乾坐夷向)으로 대지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문간 옆의 초가 2동(측간, 헛간)은 본래 옆집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본 가옥에서 사용하고 있다.

안채 뒤로는 뒷뜰이 조성되고 장독대가 놓여 있다. 안채의 평면형식과 건물 구조는 이도숙 가옥과 거의 같다. 정지, 작은방, 큰방, 광, 사랑방, 외양간 등 모두 여섯 개 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방과 광, 큰방 전면으로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광 바닥이 흙바닥으로 설치된 점만 다르다.(이도숙 가옥은 우물마루)

이 지역의 민가에서는 주로 안방을 큰방이라하고 상대적으로 주로 정지에 딸린 방을 작은방으로 호칭한다.

정지와 외양간의 판장문을 제외하고 광문까지 모두 죽살문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2고주5량가며 네모기둥(15×13㎝) 위에 납도리를 걸었다. 그러나 일부 도리는 원형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지붕은 현재 시멘트 기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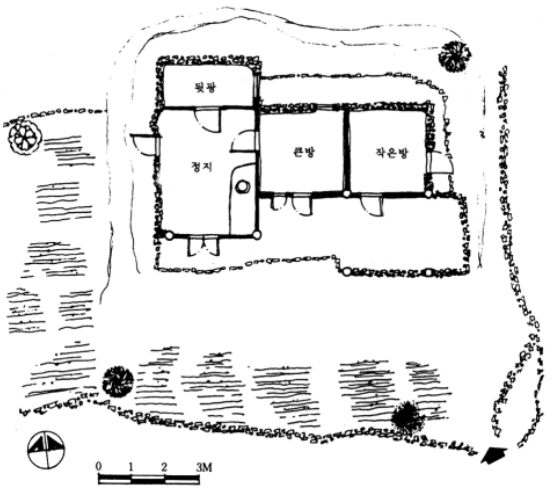
10. 나귀례 가옥

소재지 :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

배산임야(背山臨野)의 구조인 원석정 마을 윗쪽 높은 곳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건물은 현재 안채(몸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는 비교적 좁은 편이다.

건축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이 마을에서 이금성 가옥과 함께 제일 오래된 가옥으로만 전해진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100여년 가까이된 가옥으로 여겨진다. 현재 나귀례(74세) 혼자 살고 있고 10여년 전에 스레트로 지붕개량이



나귀례가옥 배치도

되었다.

건물은 정지, 큰방, 작은방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一자형" 3칸 구조다. 큰방과 작은방 앞쪽으로 퇴간을 두었고 현재 안방쪽으로만 평상이 하나 놓여 있다. 본래 그곳은 토방이었다. 정지 뒤쪽으로는 후에 새로 드린 것 같은 뒷광이 하나 있다.

기둥과 도리 등은 모두 거칠게 다듬은 원형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고 후면은 기둥 설치 없이 토벽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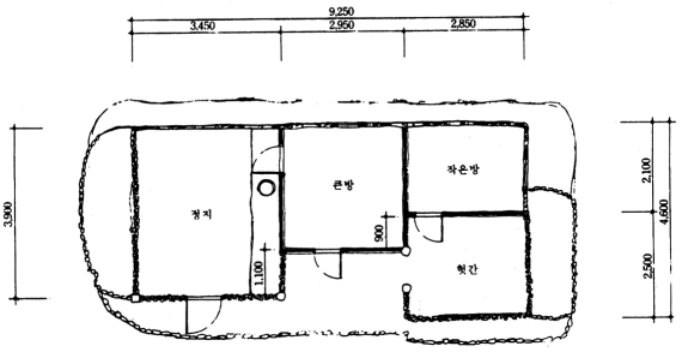
큰방 전면에는 죽살로 엮은 봉창과 빗살문을 달았다.

이 가옥은 이 지역 3칸 구조 민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 이금성 가옥

소재지 : 학교면 석정리 493번지 <원석정 마을>

건축 연대는 약 100여년 전쯤으로 추정되며 마을 윗쪽 높은 곳에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자리하고 있고 건물로는 안채와 측간채가 있다.



이금성가옥 안채 평면도

측간채는 죽담구조의 초가로서 안채 서쪽 측면에 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집에는 이금성(82세)이 홀로 살고있고 같은 마을에서 2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안채 건물 구조는 토벽집으로 원형기둥을 세웠다. 도리 등도 원형재를 거칠게 다듬어 얹었다. 평면은 왼쪽으로부터 정지, 큰방, 작은방 순으로 되어 있고 작은방 앞쪽으로는 작은 정지를 두었다. 작은 정지는 헛간 기능도 함께 한다. 작은방은 아들 부부가 사용 했었다고 한다.

안방 전면 퇴간은 본래 토방이었으나 현재는 평상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10여년 전에 스레트로 지붕개량만 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원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12. 최원식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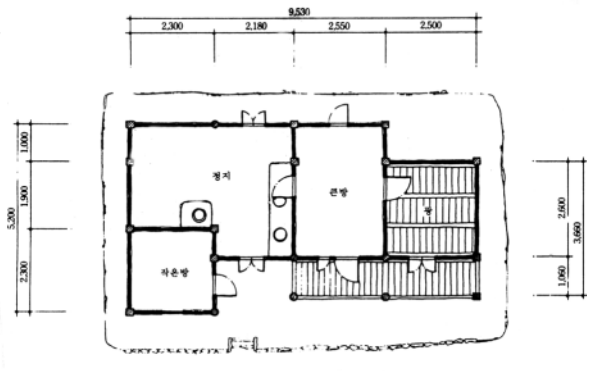
소재지 : 학교면 금송리 538번지 <금산 마을>

이 가옥은 19세기 중엽~말엽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금산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이다. 안채는 20년 전에 스레트로 지붕개량만 하였을 뿐 거의 원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옥 부근에 2채 정도 최원식 가옥과 건축 연대가 비슷한 가옥이 있으나 개보수가 심하게 이루어져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의 배치는 왼쪽으로부터 우물마루를 깐 광, 큰방, 정지 순으로 되어 있고 정지 앞쪽 모퉁이로는 작은방을 하나 더 드렸다.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 구성 모습이다.



최원식가옥 안채 평면도

가구는 2고주5량가며 기둥은 휘어진 원형재에 목침(쐐기)을 박아 곧바로 펴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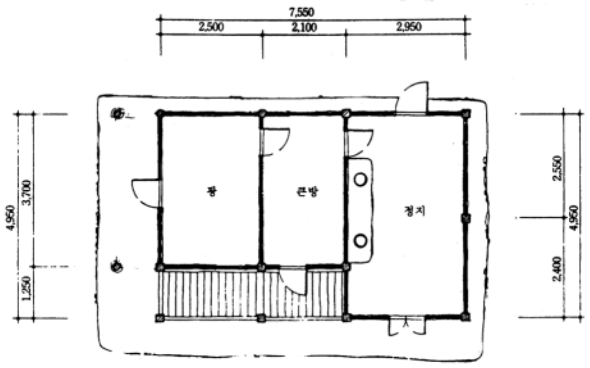
창호는 정지와 광은 판장문으로, 나머지 방문은 빗살무늬 죽살문으로 되어 있다.

전면 기단석에는 연통 없이 배연구만 나와 있다. 이러한 형태는 바람이 많은 남서해 도서지방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가옥의 안채 앞쪽으로는 최근에 지은 조적조 건물이 들어서 있다.

13. 양동열 가옥

소재지 : 엄다면 신계리 2구 <장동 마을>



양동렬가옥 안채 평면도

신계리의 4개 마을 130여호 중 양재홍 가옥과 함께 고가로 꼽을 수 있는 가옥이다.

건축 연대는 19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면 기둥 일부만 교체된 흔적이 보인다.

본채는 평탄한 대지에 남향으로 얹혀져 있고 그 전면에는 블록조 스레트집이 최근에 지어져 현재 살림은 그곳에서 하고 있다.

본채는 전형적인 3칸 형식의 초가다. 왼편으로부터 정지, 큰방, 작은방 순으로 실을 배치하였고 큰방과 작은방 앞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다.

가구는 4량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도리의 일부 뒷기둥 등은 원형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안방까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안방 위쪽으로는 굵은 장대로 시렁을 걸었다.

굴뚝은 연통 없이 배연구만 뒷벽 하단부에 뚫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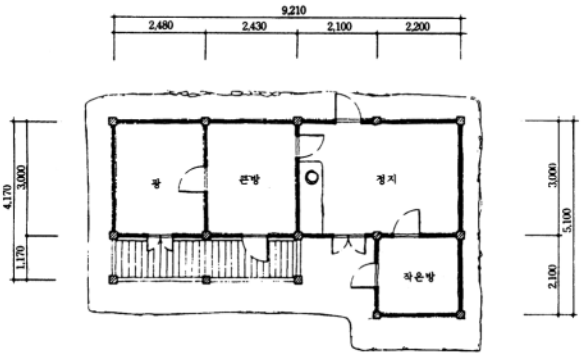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이 지역 3칸 민가의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14. 양재홍 가옥

소재지 : 엄다면 신계리 1구<화계 마을>

이 가옥은 마을 중앙의 평탄한 지형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건축 연대는 19세기 중엽~말엽 사이로 추정된다. 양재홍이 5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도 화계 마을에서 고가였다고 한다.

현재 안채와 축사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안채는 스레트로 지붕개량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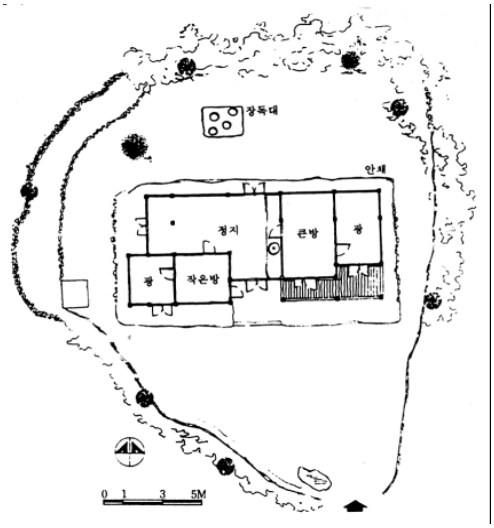


양재홍가옥 안채 평면도

안채의 평면 구성은 오른쪽으로부터 광, 큰방, 정지, 그리고 정지 전면으로 작은방이 들어서 있다. 광은 마루가 설치되지 않은 흙바닥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작은방이 정지 전면에 배치된 관계로 "ㄱ자형" 평면 형태 같은 느낌이다.(현재 광 측면으로는 블록으로 헛간이 증축되고 있음. 도면상에는 삭제)

구조는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4구 구조며 정지의 부뚜막에 큰 재래식 가마솥과 가스레인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5. 조연림 가옥



조연림가옥 배치도

소재지 : 대동면 덕산리 266번지 <내덕 마을>

내덕 마을의 안쪽에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대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건축 연대는 19세기 말경으로 추정하며 시멘트 양식 기와로 지붕만 개량되었을 뿐 건축 당시의 원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문간을 들어서면 바로 안마당이 보이고 그 안쪽에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장독대가 위치한 뒷뜰도 상당히 넓고 그 뒤로는 대숲으로 연결된다.

안채는 왼쪽으로부터 광, 안방, 정지, 그리고 정지 전면으로 작은방이 배치된 "一자형" 가옥이다. 작은방은 정지 안쪽으로 110㎝ 정도 들어가 있고 전면의 퇴주선에선 약 40㎝ 정도 튀

어나와 있다. 작은방 서측은 현재 벽체로 막혀져 있고 별도의 광으로 꾸며져 있으나 본래는 광 대신 평상이 놓인 퇴간이었고 그 안쪽으로 통하는 외여닫이 출입문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안방 옆의 광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2고주5량가며 네모기둥을 썼다. 정지와 광의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살문을 달았다. 이지역 민가에서 흔히 보이는 48~70㎝ 크기의 안방 봉창도 갖추고 있다.

16. 김소녀 가옥

소재지 : 대동면 금산리 165번지 <감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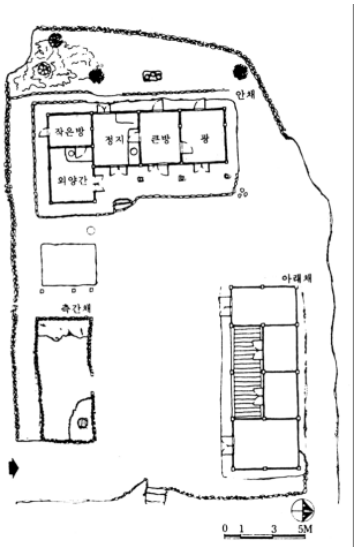
김소녀(84세)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다.

건물은 안채와 아래채, 측간채 등이 있으며 배치는 장방형의 대지 위에 서좌묘향(西坐卯向)으로 안채가 안쪽에 위치하고 그 전면의 좌우측에 아래채와 측간채가 서로 마주보고 자리하고 있다.

안채의 건립 연대는 1900년경(시아버지가 13세 때 건축. 생존한다면 108세)이고 아래채와 측간채는 1932년경에 옛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은 것이다.

아직 초가로 남아 있는 안채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구조는 4칸 "一자형"으로 실의 배치는 왼편으로부터 광, 큰방, 정지, 그리고 끝으로는 뒤쪽에 작은방이, 그 앞으로는 작은 정지(외양간)가 자리하고 있다.



김소녀가옥 배치도

이 지역 다른 가옥과 달리 작은방이 뒤쪽에 위치하고 대신 앞쪽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들어서 있다. 가족들이 다함께 살았을 때 안방은 시부모와 시누이들이 사용하고 작은방에서 김소녀 내외가,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래채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기단은 다른 가옥과 달리 높게(높이 88㎝) 막돌로 축조되어 있고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가구는 2고주5량가며 안방과 광 전면의 퇴간에는 본래 마루가 놓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평상식으로 마루를 설치하였다.

광과 정지의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살문을 설치하였다. 안방의 봉창 설치도 빠뜨리지 않았다.

측간채는 죽담 구조의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아래채는 막돌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우진각지붕의 민도리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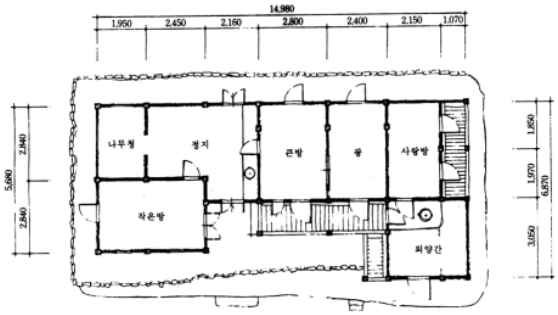
17. 이보헌 가옥

소재지 : 대동면 금산리 감산

감산 마을 50여호 중 건축 연대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가옥이다.

이 가옥은 이보헌의 증조가 건축한 것으로 19세기 후반 쯤이며 옆집인 김소녀 집보다 빠르다고 한다.

1960년대 말에 지붕개량과 전면 창호 개수, 기단 보수 등으로 현재 모습은 고가 같지 않다.



이보헌가옥 안채 배치도

안채는 ㄷ자형 평면으로 양측 돌출된 곳에 작은방과 외양간이 각각 드려져 있고 안쪽에는 오른쪽으로부터 나무청과 정지, 큰방, 광, 사랑방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지에 별도의 나뭇청이 있고 작은방이 다른 가옥에 비해 유난히 크다.

전반적으로 판교 마을의 조지형 안채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사랑방과 외양간은 1920년대 후반에 증축된 부분이라고 한다. 외양간에는 현재 소 1마리가 있고 방쪽으로는 소죽을 끓이는 큰 가마솥이 1개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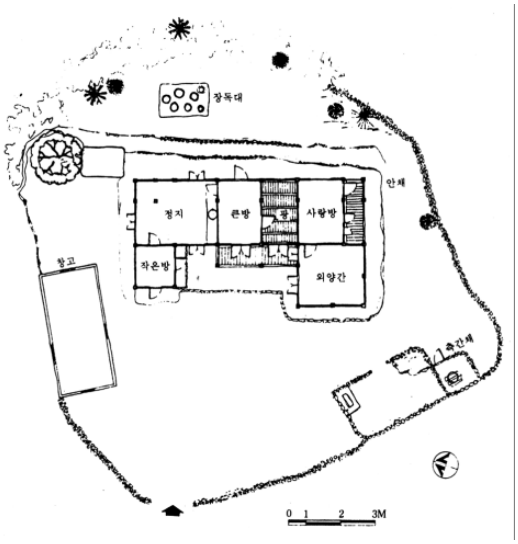
가구는 2고주5량가며 네모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큰방과 광 전면은 현재 살여닫이 띠살문으로 개수되어 있다. (본래 안방 : 봉창+외여닫이 죽살문. 광 : 2짝 바라지문)

18. 조지형 가옥

소재지 : 대동면 운교리 912번지 <판교 마을>

조지형(64세)은 1960년대 초에 이 가옥으로 이주하였다.

건물은 현재 초가인 본채와 1960년대 이주하여 지은 죽담구조 초가인 측간채, 그리고 블록구조인 창고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래는 이외 초가 3칸의 문간채(1950년대 초 훼철), 행랑채(현 블럭 창고 터. 초가 3칸. 1960년대 훼철) 등이 더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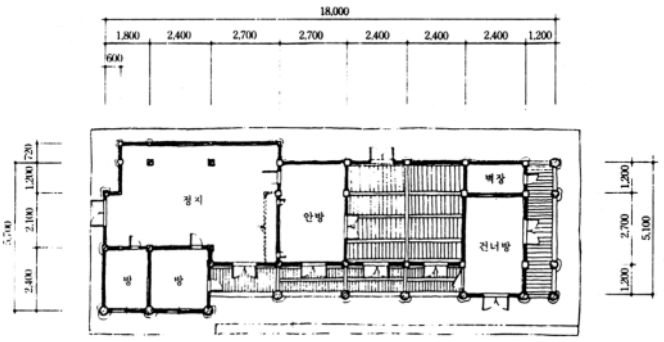


조지형가옥 배치도

본채의 건립 연대는 19세기 중엽~말엽 경으로 추정된다. 문간을 들어서면 넓은 안마당이 바로 펼쳐지고 그 안쪽에 안채가 갑좌경향(甲坐庚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 뒤편으로는 잡석 축대로 뒷뜰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윗쪽으로는 장독대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대숲이 가옥 뒷편을 모두 감싸고 있다.

19. 이규행 가옥



이규행가옥 안채 평면도

소재지 : 나산면 초포리 657-2번지 <사산 마을>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50호로 지정된 이 가옥은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순절한 이충인(李忠仁 1526~1597)이 30여세 때 지었다고 전하나 이는 가전(家傳)일 뿐 이를 뒷받침해 줄 확실한 기록이 없다. 안채 상량문에는 이미 퇴색되어 그 전문을 읽을 수 없으나 "숭정기원후 2○○ (崇禎紀元後二○○)" 라고 되어 있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가옥은 300여년 가까이 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둥 및 기와 등 그 상태가 극히 양호한 편이다.

이 집은 본래 문간채(솟을 대문 3칸. 10여년 전 훼철), 사랑채(안채 전면에 위치. 30여년 전 훼철) 등이 고루 갖추어진 짜임새 있는 반가(班家)였었다고 하나 지금은 훼철되고 오직 안채만 남아 있어 아쉽다.

이 집을 지으면서 심었다고 전하는 둘레 180㎝에 이르는 동백나무와 둘레 190㎝의 모과나무 한 그루가 현재 집 뒤 대숲에서 자라고 있다.

배치구조를 보면 안채만이 대지의 중앙 안쪽에 인좌신향(寅坐申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 전면으로는 상당히 넓은 마당이 전개되는데 이곳에 본래 사랑채와 행랑채, 그리고 문간채가 있었다고 한다.

안채는 "一자형" 팔작집으로 건축 규모는 전후와 우측으로 퇴를 둔 7칸이다.

평면 형태는 왼쪽으로부터 부엌과 안방, 뒷퇴를 포함한 2칸의 대청, 그리고 건너방을 배치하였으며 부엌 전면으로는 2칸의 정지방을 드렸다. 툇마루는 본래 전퇴와 우측퇴 모두에 설치하였는데 현재 건너방 앞퇴 부분은 방으로 확장되어 있다. 건너방 뒷퇴는 상부는 벽장으로 하부는 토방으로서 아궁이를 시설하였다. 부엌의 출입문은 현재 측면의 판장문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개조한 시설로서 원래는 전면으로 출입하였다고 한다. 부엌 앞쪽의 툇마루 역시 10년 전에 새로 시설한 것이다.

기단은 자연석 바른층쌓기 형식이었으나 지금은 시멘트로 덮여 있으며 초석은 막돌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면과 우측 퇴 부분에만 두리기둥을 썼으며 그외는 24㎝ 각의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대청의 중앙부분은 1고주5량이며 방측은 2고주5량 구조로 되어 있고 도리는 장

설(長舌)로 받혀진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전면의 퇴보 밑에는 머리쪽으로는 직선으로, 기둥 안쪽으로는 사선(斜線)으로 잘린 보아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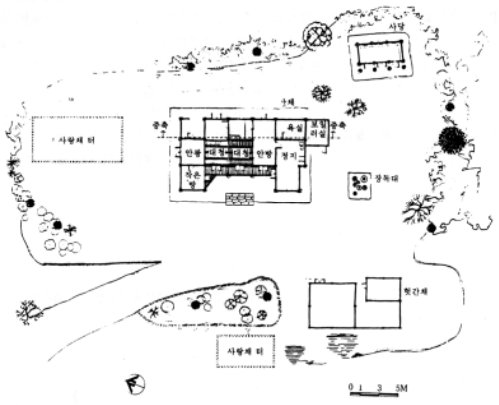
벽면은 퇴로 마감한 흙벽으로 되었으며 기와는 한와이고 처마는 홑처마로 되어 있다. 1995년에 행랑채에 해당하는 새 집을 건축하였으며 문간채와 사랑채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 이건풍 가옥

소재지 : 나산면 초포리 659번지 <사산 마을>

본 가옥은 함평이씨 순지(舜枝) 손의 종가로 이 마을을 개기한 순지가 지어 500년이 넘는 가옥이라고 전하나(고증 : 이건풍. 74세) 상량문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규행 가옥 보다 건립 연대가 앞서고 또 함평군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이건풍가옥 배치도

현재는 지붕개량(본래 한와→이건풍의 조부 때 초가→1964년 시멘트 기와)과 증축 등으로 옛 모습을 많이 잃었으나 고가의 위풍은 그대로 이다.

건물은 현재 안채와 사당(祠堂), 그리고 헛간채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배치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랑채 2동이 더 있었다.

안채는 "ㄷ자형" 평면 구조로 이 지역의 "一자형"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중앙으로 2칸 대청이 넓게 드려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안광, 그리고 왼쪽으로는 안방과 정지로 이어진다. 날개 부분은 오른쪽이 작은방, 왼쪽이 정지로 넓혀져 "ㄷ자형" 구조가 된다. 옛날에는 작은방 앞쪽으로 부엌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겹집 형식으로 꾸며진 뒤쪽 부분은 1990년대에 증축된 부분이라고 한다.

내부 창호는 최근에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였다.

본 건물의 외부 기둥은 밤나무 기둥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굴도리 장형집이다. 3량 가에 두리기둥으로 꾸몄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21. 남상복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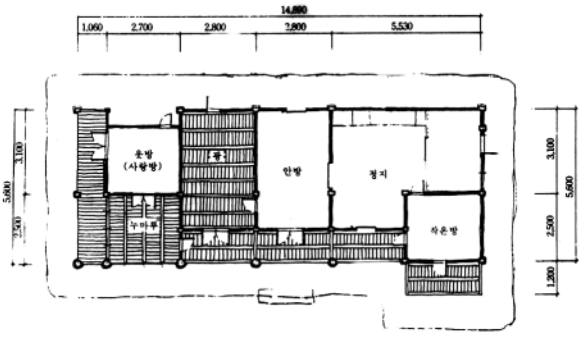
소재지 : 나산면 수하리 765번지 <장재 마을>

장재 마을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상량문을 확인 한바 1925년에 지은 집으로 그리 오래된 가옥은 아니다.

현재는 안채와 헛간채(목조 5칸. 스레트지붕)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에는 사랑채(3칸. 해방 직후 훼철), 중문까지 갖추었던 큰 가옥이었다.

안채는 정면 5칸의 비교적 큰 규모의 가옥이다. 전면 퇴주와 주심도리는 각각 두리기둥과 굴도리(장혀받침)를 썼고 나머지 부재도 비교적 굵직하다.



남상복가옥 안채 평면도

실의 구성은 왼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광, 그리고 맨 끝으로는 앞쪽으로 높이 40㎝ 정도의 누(樓)마루를 설치하고 그 뒤쪽으로는 웃방을 설치하였다. 정지 전면 모퉁이에도 작은 방을 하나 더 드렸다. 누마루에는 창호를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돌렸다. 누마루 위쪽에는 옛 사랑채에서 옮겨온 "양심재(養心齋)"라는 현판과 "양심재기(養心齋記)"가 나란히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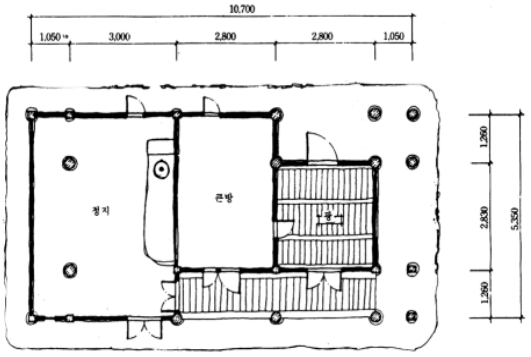
6년 전에 정지만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였고 나머지는 건축 당시의 원모습 그대로다.

22. 정단예 가옥

소재지 : 나산면 송암리 1구 <송암 마을>

송암 마을 어귀의 평탄한 지형에 축좌미향(丑坐未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단예(75세) 홀로 기거하고 있는 이 집은 몇 대조까지 인지는 모르나 김씨 대대로 이 가옥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필자는 19세기 초쯤에 건축한 것으로 본다.



정단예가옥 안채 평면도

1960년대 초에 문간채와 방앗간채가 훼철되고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다.

안채는 17년 전에 시멘트 기와로 지붕개량을 하였고 전후와 좌측으로 퇴간을 둔 "ㅡ자형" 3칸 집이다.

3칸 규모에 측면까지 퇴간을 둔 사실이 주목된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본래 퇴간 대신 광 옆으로 방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의 배치는 오른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광 순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가옥들과 마찬가지로 전퇴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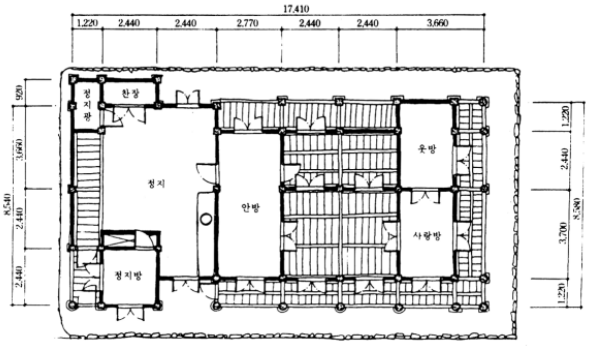
가구는 2고주5량가며 기둥은 다른 가옥과 달리 직경 21㎝의 굵직한 두리기둥을 섰다. 전면 주심도리 역시 직경 13㎝의 굴도리로 되어 있어 주목이 간다.

안방 출입문 옆으로는 비교적 큰 띠살 봉창(45×75㎝)이 설치되어 있다.

23. 김오열 가옥

소재지 : 해보면 상곡리 218번지 <모평 마을>

이 집은 1920년대에 윤선식의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당시 상류 주택이었으나 지금은 안채만 남았고 1989년 김오열이 매입하여 살고 있다.



김오열가옥 안채 평면도

건물은 전후와 좌우로 퇴간을 둔 정면 6칸 규모의 “一자형” 겹집이다.

실의 배치는 오른쪽으로부터 정지, 안방, 대청, 그리고 끝으로 건너방 순으로 배치하였고 정지 전면 모퉁이로는 정지방을 하나 더 드렸다. 대청과 건너방은 각기 중앙에 벽체를 두어 상하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는 쌓여닫이문을 달았다.

툇마루는 전후 퇴 부분과 건너방 전면에 설치하였다.

기단은 60㎝ 높이로 막돌허튼층쌓기로 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네모기둥을 사용하였으나 전면과 왼쪽의 퇴주(退柱)만은 두리기둥을 썼다. 도리는 종도리와 전면의 주심도리만은 장혀받침을 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대들보 위의 대공은 판대공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한와를 얹힌 홑치마 팔작지붕이다.

본 가옥에서는 정지와 안방 사이의 퇴주 위(처마 밑)로 연기막이 장치를 설치하여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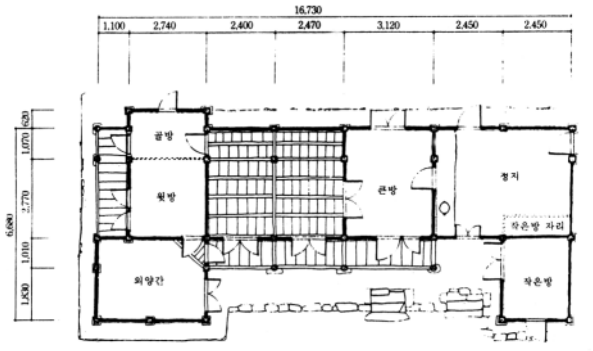
문은 정지의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띠살문으로 되어 있다.

24. 정무경 가옥

소재지 : 월야면 용월리 89번지 <내세 마을>

이 가옥은 월야면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건축 연대는 19세기 초로 보고 있다.(정무경의 6대조가 지었다고 함)

현재 안채만 고가이고 안채 전면의 사랑채와 헛간채는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



정무경가옥 안채 평면도

안채 뒷면에는 정면 측면 1칸의 사당이 있다.

안채는 1970년대 초에 초가지붕에서 시멘트 기와로 지붕개량이 되었다.

안채는 비교적 높게 축조된 막돌허튼층쌓기 단위에 세운 “ㄷ자형” 가옥이다. 양측 날개에는 각각 외양간(오른쪽), 작은방(왼쪽)이 본채 용마루선 보다 1단 낮게 자리하고 있다. 중앙에는 왼쪽으로부터 정지 2칸, 안방 1칸, 대청 2칸, 윗방(사랑방) 1칸 순으로 자리하고 있고 사랑방과 대청, 안방 전면으로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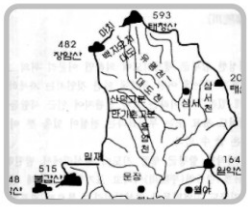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대청과 정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계획되어 있다.

일부는 광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과 사랑방 앞의 퇴주는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가구는 2고주5량가며 사랑방과 안방 전면에는 비교적 큰 띠살 봉창이 설치되었다.

제19장 월남파병(越南派兵.베트남)과 함평



제1절 월남전과 한국[403]

1. 개요

20세기 중반 세계는 자유와 공산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립 충돌하고 있었다. 당시 월남은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 남쪽의 월남공화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이었다.

북쪽의 공산세력에 의하여 월남공화국이 존립위기에 처하자 1964년 5월9일 미국의 존슨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 우방국에 대하여 월남공화국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동년 7월15일 월남정부가 우리정부에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했다.

그리하여 태권도 교관단을 포함한 국군 제1 이동외과병원이 월남으로 이동, 의료봉사활동, 태권도를 보급했다.

이어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월남의 지역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건설지원부대가 파견되었고 전쟁이 확대 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투부대가 이동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군전투부대가 참전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월남으로 이동한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 같이 된다면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불안감도 있었지만 당시의 국제 역학상 한반도의 전쟁방지,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에 기여한다는 우리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필연적이었다.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은 독립적인 작전 지휘권을 확보하고 중대기지전술로 책임지역을 평정하는 한편 지역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월남정서에 맞는 양민구호사업을 꾸준히 실시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군은 월남에서 최상의 군대로 역할과 소임을 완수했다. 1975년 4월30일 공산세력에 의해 자유진영의 일원이었던 월남공화국은 사라졌다.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의 지대한 노력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공산세력과 맞서는 전략전술 부재와 끊임없는 책동과 분열, 그리고 연합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지원이 삭감되자 전투의지가 나약해져 결국 붕괴되고 만 것이다.

최초의 월남전 파병은 1964년 한국정부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월남정부의

403) 이 글은 월남전 사이트인 베코(http://www.vetkor.com/) 등 여러 월남전 사이트에서 인용해 수정 · 보완하여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한을 수락하는 형식을 취한다.

정부의 월남파병 결정은 국회 제44, 47, 52, 55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파병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전투 부대인 제1이동외과병원과 비둘기부대의 월남파병을 시작으로 주월 한국군 사령부 창설과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은마부대 등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전파병은 1964년 7월 18일 파리평화협정에 따른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걸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했다.

그 기간 중 국군은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국군도 사망 5,077명(전사 : 4,597, 순직 : 277, 기타 사망 :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2. 비전투부대 파병

1955년 10월 8일 제네바회담 결과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 월남공화국(越南共和國. 베트남) 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1957년 9월에 고딘디엠 월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19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 월남은 우호를 두텁게 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했을 때 월남 정부는 베트콩 게릴라를 소탕하는데 한국군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으나 1959년 20명의 장교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들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1961년에는 국가재건회의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는 요청이 있게 된다. 이어 고딘 디엠 월남 대통령이 우방으로서 도와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월남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다.

이 계획에 따라 1962년 5월 11일에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심흥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사찰단이 월남으로 떠나 2개월 동안 월남에 대한 상황을 살핀다.

다시 1964년 5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 우방 국가들에게 월남지원을 요청한다. 한국 또한 린튼 B. 존슨 대통령이 월남 파병 요청 서한을 공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정부는 월남사태는 한국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유 우방의 지원으로 공산침략을 물리친 바 있는 한국이 공산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는 월남을 도운다는 것은 도의적 의무라는 명분을 들어 우선 1개 이동외과병원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요원 10명 등 비전투병력 14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 제1 이동외과병원/태권도 교관단(1차 파병)

제1차 파월병력 140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1964년 9월11일 해군 LST편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22일 월남의 수도 사이공 항에 도착한다. 제1이동외과병원은 붕타우에 있는 월남 육군정양병원에 주둔하게 되었고, 태권도 교관단은 3개조로 나뉘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보병학교에서 월남군의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 군사원조단:비둘기 부대(2차파병)

1964년 8월 2~4일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월남에 대한 군사지원을 증가시키면서 압력수단으로 월맹을 폭격한다. 이에 맞선 월맹은 미군 장교숙소와 미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전투가 격화되자 미국은 월남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 지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 (1964년 12월18일)은 우리정부에 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고, 월남정부 또한 1965년 1월 2일 국군의 2차 지원에 관한 공한(公翰)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국과 월남의 2차 파병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국군의 해외 추가파병에 대한 동의안이 1965년 1월 26일 제4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106, 반대 11, 기권 8)되자, 국방부는 1월 29일 국방부 일반 명령 제5호로 강원도 현리에 위치한 제6사단에서 주월한국군사원조단 본부를 창설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뜻의 '비둘기 부대'로 명명하고, 단장에 조문환 준장(육사7기)을 임명했다.

2월5일 김성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군사 원조단 결단식이 거행되었으면, 2월 9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이 베풀어 졌다.

한국군사원조단은 1965년 2월 13일 장교 9명이 선발대로 오산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했고, 본대 1,283명은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16일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비전투요원 2,000여명으로 편성되어 후방지원과 건설지원 임무를 띤 건설지원단은 사이공 동북방 22Km의 디안(DiAn)에 주둔했다.

함평출신으로는 양재호(함평읍 함평리)가 사병으로서 처음으로 월남땅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월 한국군사원조단은 1965년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같은 날짜 해군수송대를 배속 해제함과 주월한국군사령부에 배속된다.

한편 통킹만 사건 이래 월맹측이 계속해서 비엔호아 미공군기지, 탄손누트 공항, 사이공 미군숙소와 중부 고원지대 풀레이크 미공군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미군측은 항공기를 포함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에 존슨 미국 대통령은 북폭을 재개토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월남전은 점차 가열되어 갔다.

미국은 월맹에 북폭을 계속하면 그들이 베트공에 대한 지원과 남부 침투를 중지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월맹은 미국의 협상을 거부하고 병력을 부대단위로 침투시켜 월남군 진지를 하나씩 유린시키는 등 월남전이 확전 되어가자 미국은 가일층 북폭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에서도 확전을 단행했다.

3. 전투부대 파병

1) 맹호부대(3차 파병)수도사단/해병 제2여단

월남의 전선이 확전 일로를 걷자 미국은 월남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많은 병력

을 월남으로 이동시키면서 1965년 초 존슨 미대통령 특사인 로지(Henry C.Loge)는 박대통령을 방문 한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병을 요청한다.

당시 미국은 본토의 예비부대와 해외주둔부대를 월남전에 투입했으므로 주한 미군 2개 사단도 언제 월남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 미국의 전투부대 파병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차에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전투부대 파병문제로 브라운 주한미대사와 협상에서 파월병력의 상한선은 5만명 이내로 할 것 등 브라운 미 대사에게

①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

② 북한군 침공시 미군이 즉시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할 것

③ 한국군 파월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할 것

④ 월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월남시장 진출을 보장 할 것

등의 4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1965년 5월 16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박대통령은 17일과 18일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1개 전투사단 파월을 전제로

① 북한군 재침 시 미국의 즉각 개입 및 주한미군 계속 주둔

② 한국군 장비현대화

③ 군원 이관 중단

④ 한 · 일 협정 체결

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장기개발 차관

⑥ 한 · 일 국교정상화

등 한국 측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

전투부대 파병에 관해 미국과 합의한 한국정부는 부대편성과 대미협상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7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개 전투사단의 파견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동의안이 1965년 7월 12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는 8월13일 야당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로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 표결에 붙여 찬성 101, 반대 1, 기권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월남 증파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파월부대로 제1야전군사령부가 선정해 보고한 제27사단 대신 전투서열 1위인 수도사단(맹호부대)으로 결정하고, 사단장에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채명신 소장(육사 5기)을 임명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혁혁한 전과를 기록한 해병 제1사단 2연대를 파월부대로 선정했다.

그런데 연락단 (단장 이세호 합참 전략정보국장)이 사전에 주월미군 및 월남군측과 교섭한 결과 육군은 퀴논(Qui Nhon) 지역에, 해병은 캄란(Cam Ranh)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해병대의 규모를 연대에서 독립작전이 가능한 여단규모로 증편조정하고 여단장에는 해병대 사령부 관리국장 이봉출 준장(해병 특교대2기)을 임명했다.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 등 전투부대에 대한 파병이 결정되자 이들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을 위한 수도사단 예속으로 군수사령부를 창설(1965.9.1), 사령관에 이범준 준장(육사8기)이 임명되었다.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의 파월로 주월한국군은 군사원조단을 포함하여 25,000여 명에 달하게 되어 이들 부대들을 통한지휘 할 사령부의 편성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로 1965년 9월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 사령관은 채명신 수도사단장이 겸무토록 했다.

제3차 파병부대인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은 1개월 정도의 교육훈련이 끝나자 3개 제대로 나뉘어 월남으로 출발을 하였다.

1965년 9월 16일 육군 283명과 해병 95명으로 편성된 선발대가 미 수송기 편으로 출국한데 이어 제1제대인 해병 제2여단은 9월 20일 포항에서 박대통령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진 후 10월 3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9일 캄란에 도착한다. 10월 12일에는 여의도기지(K-16)에서 박대통령 임석하에 수도사단에 대한 환송식이 거행되었으며 수도사단 제1연대가 주축이 된 제2제대는 10월 16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22일 퀴논에 도착한다. 그리고 기갑연대가 주축이 된 제3제대는 26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11월 1일 퀴논에 도착함으로써 제1차 전투부대의 파월이 완료되었다.

2) 백마부대(4차 파병)수도사단 제26연대/제9사단

전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미국은 한국군이 월남전 수행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1965년 12월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제20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중이 이동원 외무부장관에 제4차 파병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3차 파병시까지의 한 · 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대미협상과정에서 합의사항이 구두약속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1966년 2월 25일 한 · 미 양국은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브라운 주한 미대사 간에 14개 조항으로 된 합의 의사기록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문서화하려는 의도 하에 합의 의사록을 작성 제의했다.

미국 측과 협의가 끝난 직후 1개 전투사단과 1개 전투연대로 구성된 제4차 파병안은 1966년 2월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방위원회에서 12일 동안 열띤 논쟁 끝에 3월 18일 표결 처리되었고, 제55회 국회 21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난항 끝에 3월20일 오전 재석125명 중 찬성 95명, 반대 27, 기권 3명으로 통과된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군 증파를 결정하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록 내용을 수정하고 형식도 합의의사록에서 '브라운각서'로 바꿔 3월 7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브라운각서'는 군사협조 10개조항과 경제협조 6개 조항 16개 항으로 되어있다.

전투부대 증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수도사단 제26연대는 곧 부산항을 출발하여 6일만인 4월 15일 퀴논에 도착하여 남쪽지역에 전개하였는데 이로써 수도사단은 3개연대로 완

전 편성된 전투사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파월부대로 지명된 제9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백마부대'라고 명명된 전통있는 사단(사단장 이소동, 육사2기)이었다.

제9사단은 수도사단의 경험을 토대로 인원선발 장비교체를 실시한 후, 약 2개월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끝내고 3진으로 나뉘어 월남으로 출발했다.

8월27일 중앙청에서 환송대회가 끝난 후 8월30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25일 나트랑(NhaTrang)에 상륙하여 해병 제2여단이 주둔했던 투이호아(TuyHoa)의 작전지역을 인수한다. 2진인 사단사령부와 제29연대는 9월20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15일 나트랑에 상륙, 북쪽의 닌호아에 전개하였다.

제3진인 제30연대는 10월3일 부산을 출발하여, 8일에 캄란에 도착, 청룡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판랑 비행장 경계임무와 제28연대가 담당했던 지역을 인수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TV와 신문 등 언론들이 계속해서 월남전의 비참한 전투장면을 보도함으로써 미국내에서는 반전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68년 11월 미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닉슨은 196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월남에서 단계적인 철군을 발표한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월남화 정책(미국이 월남전을 월남인에게 맡기고 미군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한 감축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병력 철수를 개시하자 전투부대를 파월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태국 등 연합국도 이에 동조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1972년 초에는 각각 100명 이내 상징적 병력만 잔류 시키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월 한국군의 제1단계 철군이 개시된 1971년 말 주월 외국군의 현황은 미군을 제외한 자유 우방군 가운데 주월한국군만이 파월 당시 병력 수준인 47,86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파월한국군 병력 수[404]>

연 도	부 대	병 력 수	참 고
1964~65	비둘기 (의무 및 공병)	2,128	1, 2차 파병
1965	수도사단(-1). 해병여단. 지원부대	18,904	3차 파병
1966	제9사단. 수도사단 26연대. 지원부대	23,865	4차 파병
1967	해병대대. 지원부대	2,963	보충병
1969	C-46 승무원	12	증원
계		47,872	

파월군 마지막 부대(보충병)가 부산항을 떠난 것은 1967년 6월이다.

1965년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월될 때 외국인들은 한국군을 용병적인 2급 군대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월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책임지역내에서 군단급 작전을 포함한 수많은 작전을 한국식 군사교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중요지역에

404) 미 의회, 「사이밍턴 청문록」, 1544, 1570쪽.

중대 단위의 전술기지를 편성하여 기지를 중심으로 포착 섬멸 작전, 정찰 작전, 매복 작전을 전개하여 베트콩(VC)의 근거지를 분쇄한다.

또한 이들이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미 침투한 적은 반복 수색 작전으로 완전 소탕하는 전술 개발과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 주민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생필품 지원, 일반 기술 지원과 의료 및 구호 활동, 태권도 보급, 자매결연, 경로회, 운동경기 등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었다.

개통되지 않은 1번 국도를 개통시키는 등 한국군 책임 지역에서 95%의 평정률을 보이자 1967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한국군의 용맹성과 함께 대민지원에 관한 세계 언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바라본 월남전의 한국군 ▣

If the Korean forces had taken charge of the whole of South Vietnam or the U.S forces had drawn a lesson from "Go Boi", the Vietnam war would already have been won.
When one takes a ride in a car for 96 kilometers in the pitch-back dark,there is not a single sign of rifle shooting or ambush attack. None but the Korean soldiers could do so anywhere in South Vietnam

-The London Times.

만일 한국군이 전 월남을 장악하였거나 미군들이 "고보이"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더라면 월남전은 벌써 이겼을 것이다.

칠흑같은 어둠속을 96키로나 자동차로 달려도 총격도 복병기습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월남 지역의 그 어느곳에서도 그와 같이 할 자는 한국군 이외는 아무도 없다.

-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 "고보이 교훈"이란?...

맹호부대 포병대대가 퀴논(Qui Nhon)근처 고보이(Go Boi)평야에 건기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보이댐을 건설해주는 공사를 말한다. 열대지방 베트남의 2모작 농사에서 3모작이 가능하게 한 퀴논 영구댐이다.

▣ 미국 저널지의 시각으로 본 월남의 대한민국 국군 ▣

What would happen of six hundred thousand Koreans were exclusivelyconducting the Vietnam war? only fifty thausand Koreans repelled the enemy from their strategic responsibility area just overnight during the enemy''s Tet offensive..... The central coast area which Viet Cong
had been occupying since their anti-French war is now completely under Koreans''s control.

- Evansille Journal, U.S.A- March,1966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 보는 것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적의 구정 공세 기간중 전술 책임구역 내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룻만에 격퇴했다. 베트콩의 항불전쟁 이래 베트콩에 장악되어 있던 중부 해안 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하여 완전히 통활되고 있다.
- 1966.3 미국 에빈스빌 저널-

▣ 미 뉴스위크지가 바라보는 한국군 ▣
The Americans in South Vietnam give the Koreans top markes both as fighting men and for their pacification efforts.
Indeed, some Americans who have worked with the ROKs believe that it would not hurt the U.S. to study their methods.
"It''s a little bit like being a teacher and having an extraor dinary student."
mused ond U.S offical
"You come to class one morning and discover he has gone past you."
-News week 10 April 1967 -
월남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나 한국군을 최고로 높이 평가한다.
사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일부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방법(전술)을 배워도 좋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마치 미국은 한국이라는 비범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와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실에 와서 선생님 미국보다 학생인 한국군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미국 관리는 심각하게 말했다.
- 1967.4.10. 뉴스위크지에서 -

▣ 1967년 미국 옵져버지가 바라보는 한국군대 ▣
It was in June 17 years ago that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ttacking across the 38th parallet, began a full-scale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Korean Army, at that time, was much like the South Vietnamese Army of today.
Now, many years later and many miles form the Pusan perimeter, the Bay of Inchon, the frozen waters of the Yalu and the hills of Chorwon .the ROK Armed Forces are again facing Communists in combat.
- The Observer 24 May 1967 -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할 당시 이 한국군은 지금의 월남군과 같았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한국군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떠나, 철원의 고지를 떠나, 그리고 인천항, 부산항을 떠나 수천만리 이역땅에서 다시금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다.
- 미 옵져버지 기사에서..1967. 5.24 -

▣ 뉴욕 타임지에서 노획한 베트콩 지령문 ▣
Captured Viet Cong orders now stipulate that contact with the Koreans is to be avoided at all costs unless a Viet Cong victory is 100%certain. Never defy Korean soldiers without discrimination, even when are notarmed, for they all well trained with

Taekwondo.
- An excerpt from an enemy directive seized
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한국군은 모두 태권도로 단련된 군대이니 비무장한 한국 군인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마라.
- 1966.7.22 뉴욕 타임지에서-

▣ 미국 뉴우스 앤드 월드리포트지 기사 ▣
U.S has found a valuable ally in the South Koreans. They''re rugged fighter- and more. As "combat politicians" the ROKs make of their Oriental skinship whth Vietnamese.
Americans feel they can learn some lessons.
- U.S News & World Report 15 May 1967 -
미국은 한국이라는 귀한 동맹국을 찾아내었다. 그들은 건강한 투사, 그 이상이다. 싸우는 정치인들로서 한국인은 동양에서 월남인들과 가장 친근해졌을 뿐더러
미국은 어떤 교훈을 한국으로 부터 배울 수 있으리라 느끼게 되었다.
- 미국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1967. 5.15 -

▣ 사이공 포스트가 바라보는 한국군 ▣
Koreans killing ratio has been 15:1, and they drove out the enemy from the swamp area of Vin Dhing, where both the French and Vidtnamese were not successful during the past 20 year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Koreans is their unending fighting spirit.
It is not at all surprising that the enemy is avoiding contact with the Tiger, White Horse and Blue Dragon Warriors. Capured enemy documents indicate that the VC are instructed not
to make contact with Koreans.
- Saigon Post March,20,1968 -
한국군은 우군 피해에 대해서 15:1 이라는 비율로 적을 사살했으며, 프랑스와 월남이 20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빈딩성의 늪지 해안으로부터 적을 추격, 격파시켰다.
기본적인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불굴의 정신이다. 맹호, 백마, 청룡 용사들에 대하여 적이 조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다.
노획된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문서에 의하며 한국군과는 가급적 접전을 피하도록 전 병사들은 명령 받고 있는 것이다.
- 사이공 포스트 1968년 3월 20일 -

▣ 월남 띠엔 반지가 바라보는 한국 군대 ▣

The central area of this country where ROK Forces are stationed is best secured area.
ROK soldiers are brave enough to guard the area of their responsibility against the enemy, who is skilful in particualr tactics.
They are also mutually understandable to the regional people, and experienced ROK surgeons kindly take medical care of the people.
- Tieng Vang(New Paper) 17 Feb 1968 -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술한 전술을 가진 적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는 대담한 군인이다.
또한 지방 농민과 잘 어울리고 농사일에는 모도 심어주고 우수한 군의관은 대민 진료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 월남 띠엔.반 지에서 1968. 2.17 -

▣ 리챠드 닉슨이 한국군에 대하여 ▣
The enormous contribution which your country has made towards a free future for South Vietnam is tangible proof that both the confidence and assistance.
America placed in Free Korea 17 years ago was the wisest of investments.
- Richard Nixon 17 Dec 1967 -
자유 월남의 장래를 위한 한국이 이룩해 온 커다란 공헌은 17년전 미국이 한국에
심었던 신뢰와 협조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고 있다.
-1967.12.17 리챠드.닉슨 -

4. 파리평화협상, 연합군 철수와 월남패망

1968년 5월 3일, 이날은 월남전을 평화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참전당사국(미국과 월맹)간의 첫 회담이 열린 날이었다. 회담을 먼저 제의한 쪽은 미국이었고, 미국이 끝내 무력에 일관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타결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월남전의 특수성 때문에 미군이 수십만의 병력과 우수한 전쟁무기를 갖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었고,

둘째는 승산도 없는 전쟁을 막대한 전비와 희생을 무릅쓰고 계속하느냐 하는 미국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전여론과 목전에 다가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집권당(민주당)의 입장 때문이었다.

일단 개막을 보게 된 파리평화 협상은 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막후교섭이 부단하게 이루어진 끝에 결과적으로 전쟁축소조정을 통한 '월남전의 월남화 계획'을 실천하려는 닉슨 미국대통령의 독트린에 따라 1971년 4월경부터 미군의 철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도 철군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그해 11월 6일 제1차 철군계획을 발표했다. 1971년 12월 4일을 기해 청룡부대를 포함한 제1진의 철수가 단행되고, 그 뒤를 이어 종합적인 철군계획에 따른 후속부대의 철군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파리평화협정에서 정전협정에 합의하면, 미군 전쟁 포로를 석방해 줄 것을 북베트남에 요구하고 있었다. 월남전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휴전협정이 조인된 일자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된 지1주일 후인 1973년 1월 27일이었고, 그 협정이 발효되어 월남 전역에 걸쳐 전투행위가 중지된 시각은 그 다음날 28일 오전 8시였다.

미국의 '월남전의 월남화계획'에 따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월남전쟁은 미군이 월남전에 투입된 지 꼭 10년만에 끝난 셈이었다. 10년간에 걸친 전투에서 미군은 45,000명의 전사자와 30만명 이상의 전상자를 내었다.

확전으로 치닫고 있던 1965년부터 1971년 사이에 소모된 전비는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을 비롯한 다른 참전 연합군의 전사자만도 50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공산군은 30만명의 전사자와 50만명의 부상자를 냈고, 남북 월남의 민간인 피해자수는 무려 3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었으니, 실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쟁의 종결이었다.

그런데 1973년 1월 27일에 조인된 후전협정은 그로부터 2개월 후 미군의 마지막 철수 제대가 월남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잘 지켜졌으나, 마지막 제대가 철수한 뒤로는 곧 전쟁이 재발됨으로써 휴전협정이 사문화되고 말았다.

그 요인은 총 9장 23조로 된 그 협정문에서 미국은 지나치게 발뺌을 서둘렀던 나머지 UN의 중개라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휴전을 감시하는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기대할 유지가 없게 된 것을 비롯해서 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통제력이 있는 기능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그리고 월남 내에 2개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3세계의 존재를 허용했다. 또한 미군은 비롯한 참전연합군의 완전철수 시한은 확고하게 못 박아 놓았으면서도 월남 내에 침입해 있는 월맹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세심하고 빈틈없는 배려가 결여된 때문이었다.

월맹 공산군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된 1974년 가을 이후 월남군의 전세가 날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1975년 3월 중순경 중부월남의 12개성을 장악하고 있던 월남군 제2군단의 최정예부대인 제23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중부고원의 반메트오트 요충지가 실함되었다.

그 후부터 월남군의 붕괴가 가속화된 끝에, 1975년 4월 30일 마침내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자유월남공화국은 영영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파월 한국군 철수 계획은 1971년 11월에 한, 월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1단계로 해병 제2여단이 1972년 3월까지 기타 부대는 6월까지 철수 완료하며 제2단계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곧 참전국들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제1단계 철군은 소유 장비를 갖고 귀국할 수 있다는 한 · 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장비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해병 제2여단(청룡) 제1제대가 1971년 12월 4일 다낭을 출발하여 12월 9일에 부산항에 입항했고, 제대간 20일의 간격을 두고 출발, 마지막 제대인 제7제대가 1972년 4월 1일에 캄란을 출발 4월 13일에 부산에 입항함으로서 1단계 철수가 완료되었다.

제2단계 철군은 1973년 1월 27일에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되자 서두르게 되었는데 선발대 125명이 1월 30일에 공로로 귀국했다. 11개 제대로 편성된 본대는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로로 철수했고, 3월 23일에 후발대 118명이 항공기로 마지막 철수했다.

1964년 9월 25일 제1차 파병이 있은지 8년 6개월 만이었다.

이동안 파병된 연인원은 325,517명이었고 대부대 작전 1,171회, 소부대 작전 57,636회를 치루었으며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무기 노획 20,972점의 전과를 올렸고 한국군도 전사 3,344명, 비전투원 손실 3,738명의 피해를 입었다.

장비는 한, 미 합의에 따라 일부는 미군에 반납하고, 일부는 월남군에 인계하였으며, 일부는 본국으로 해상 수송했다.

다음은 사이밍턴 청문록에 실린 파월 한국군의 전투수당과 기본월급,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함으로서 미국측이 부담한 경비이다.

<표 1> 주월한국군의 전투수당(戰鬪手當) 일람표

단위 : 달러/1일

계 급	최초 승인액 (1964.12.25)	추가 승인액 (*1)	추가 승인액 (1965.10.11)	추가 승인액 (1966. 7.26)	추가 승인액 (*2)
중 장				10.00	10.00
소 장			7.50	8.00	8.00
준 장		7.00			7.00
대 령	6.50				6.50
중 령	6.00				6.00
소 령	5.50				5.50
대 위	5.00				5.00
중 위	4.50				4.50
소 위	4.00				4.00
준 위		3.50			3.50
상 사	2.50				2.50
중 사	2.00				2.00
하 사	1.50				1.90
병 장	1.20				1.80
상 병	1.10				1.50
일 병	1.00				1.35
이 병	1.00				1.25

<표 2> 주월한국군의 기본 월급

단위 : 달러

장 교	사 병
대장 361.00 중장 300.00 소장 242.00 준장 217.00	상사 61.00 중사 54.00 하사(장기) 27.00
대령 194.00 중령 156.00 소령 119.00 대위 91.00	하사(기) 8.00 병장 2.60 상병 2.10
중위 60.00 소위 47.00 준위 85.00	일병 1.80 이병 1.60

<표 3> 한국군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미국의 지출

단위 : 백만 달러

지 원 의 종 류	회 계 년 도 (FY)						소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 병력 및 장비 수송 *1							
2. 전투태세 예비사단용 장비		6.400					6.400
3. 해외 근무 수당	0.367	8.863	29.754	36.848	37.036	18.200	130.200
4. 전사 및 신체 장애		0.654	1.600	3.439	2.872	1.800	10.500
5. 군 출동 배치		3.900	0.700	0.700			5.300
6. 한국군 전투력 증강(육군및 해병의 화력,기동력, 통신 능력 향상) *2							
7. 부상병 한국 후송 *3							
8. 한국군 현대화 *2		10.000	10.000				20.000
9. 재정 추가 비용			5.895	14.713	14.824	9.400	44.800
10. 부대 재편성		25.600	4.800	9.800	7.400	4.300	51.900
11. 대침투 소요 자금 *4		0.200	0.200	5.400	0.500	0.200	6.500
12. 조병창 확장 시설 *5			2.600				2.600
13. 한국 전용 통신시설			1.314		0.007	0.380	1.400
14. C-54기 4대 관리 유지		1.200	0.600	0.400	1.200	0.400	3.800
15. 군막사 및 위생시설 개선(잉여물자 판매대금)			0.667	0.583		0.477	1.700
16. 군원 이관 중지 *6		4.600	10.300	18.400	27.100	32.800	93.200
17. 전투 식량 보급				6.100	12.300	5.600	24.000
18. 한국에서 구매 *6		9.600	11.900	15.200	9.100	5.000	50.800
19. 한국업자 기회 확대 *6. 7							305.400
20. 미군용품 납품 및 용역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	144.000
21. 군수물자 해상 수송 계약		3.000	3.000	3.000	3.000	1.600	14.500
22. 공용 출장 지원				0.900	0.800	0.400	2.100
23. 특별 휴가 지원					0.700	0.700	1.400
24. 기타	0.090	0.700	1.600	2.000	1.500	1.100	7.000
총계(1965~1970 회계년도)							927.500

제2절 함평출신들의 파월활동과 전사자

함평출신으로 월남에 파병된 사람은 영관급으로 이재건(李載建. 함평읍 기각리), 김영선(金榮宣. 함평읍 내교리) 등이 있다. 이재건은 파월 당시 중령으로 주월한국군사령부 작전선임 장교를 역임했으며 김영선은 소령으로 수송사령부에서 일했다.

사병으로는 비둘기부대 1진에 배속되어 참전한 양재호가 첫 파월병이며 맹호부대 1진에는 박성길(함평읍 기각리), 이길원(함평읍 기각리)이 배속되었고, 청룡부대 1진에는 정홍균(함평읍 기각리)이 배속되었으며, 1967년 6월 마지막 파월병에는 양인배(함평읍 기각리)가 배속되어 있었다.

함평군 출신으로 월남에 파병된 사람은 1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파월된 함평출신 중 조성택(趙成澤. 함평읍 기각리)은 월남정부로부터 월남공화국 1등 명예훈장을 받았고, 김추복(金秋福. 함평읍 내교리)은 짜빈동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워 한국정부로부터는 인현무공훈장, 월남정부로부터는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김성모(함평읍 기각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자유의 수호신으로 이국 땅 월남에서 산화한 함평출신 전사자는 다음과 같다.

함평출신 전사자

성 명	본 적	군 별	계 급	전사 일자
최 현 근	함평읍 대덕리 985	육군	하사	'66. 1. 26
김 유 복	〃 〃 651	〃	상병	'66. 12. 26
박 영 일	〃 함평리 102	〃	병장	'67. 10. 24
김 기 수	〃 기각리 707	〃	중사	'68. 3. 22
정 경 남	〃 〃 999	〃	중위	'69. 2. 7
김 영 학	〃 〃 924	해병	병장	'69. 12. 7
국 길 순	〃 〃 997	육군	일병	'70. 11. 13
장 선 명	〃 대덕리 803	〃	이병	'71. 7. 30
심 복 만	손불면 궁산리 262	〃	상병	'66. 12. 16
심 재 호	신광면 복흥리 337	〃	이병	'68. 2. 3
신 귀 남	〃 동정리 1194	〃	하사	'69. 2. 15
박 종 재	학교면 학교리 878	〃	하사	'67. 5. 25
이 성 근	〃 월산리 345	〃	중위	'67. 8. 4
구 종 근	〃 학교리 147	〃	병장	'68. 1. 14
김 동 수	〃 죽정리 1093	〃	상병	'70. 1. 11
정 영 수	엄다면 학야리 11	〃	상병	'68. 7. 23
윤 갑 종	〃 엄다리 978	〃	일병	'68. 8. 23
이 계 문	〃 송로리 477	〃	하사	'69. 8. 4
서 영 호	〃 성천리 432	〃	병장	'72. 1. 11
이 건 용	대동면 용성리 615	〃	일병	'70. 11. 25
이 종 준	나산면 용두리 764	〃	일병	'70. 7. 11
노 중 귀	〃 구산리 217	〃	병장	'69. 4. 4
장 대 봉	〃 수하리 450	〃	일병	'69. 5. 20
유 용 재	〃 용두리 1019	〃	일병	'65. 4. 12
문 경 덕	〃 삼축리 752	〃	일병	'68. 3. 22
나 길 태	〃 용두리 49	〃	하사	'70. 3. 23
성 문 규	〃 수상리 285	〃	병장	'70. 10. 6
김 문 길	〃 우치리 492	〃	병장	'71. 4. 23
정 좌 경	해보면 대창리 515	〃	일병	'68. 7. 26
이 재 석	〃 산내리 444	〃	하사	'69. 6. 9
이 흥 삼	〃 금덕리 479	〃	상병	'70. 8. 20
강 희 만	〃 〃 550	〃	이병	'71. 1. 16
정 병 남	〃 〃 768	〃	일병	'71. 6. 25
정 정 문	〃 대각리 524	〃	중사	'71. 9. 6
송 문 호	〃 금덕리 180	〃	상병	'70. 1. 19
장 현 기	〃 광암리 27	〃	병장	'67. 10. 24
정 갑 섭	월야면 월야리 302	〃	일병	'66. 7. 29
정 병 찬	〃 용암리 396	〃	일병	'68. 11. 27
김 수 일	〃 양정리 834	〃	병장	'68. 12. 30
김 달 중	〃 용암리 447	〃	중사	'72. 4. 3

다음은 함평군 출신으로 현재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 용사 명단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함평군지회"로 명명되어 있는 참전용사 모임은 지회장 김일남과 부회장 양인배, 그리고 허종만 사무국장과 박성일을 포함한 16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있다.

이 명단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함평군지회”가 창립된 후 파악한 명단으로 이들에 따르면 약 4~5명 정도가 파악이 안되었으며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함평 출신 용사들은 모두 파악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함평 용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번 호	휴 대 폰
김 일 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83	청 룡	322-8881	011-9614-0118
양 인 배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13	맹 호	322-3208	011-612-3208
지 봉 상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40-8	청 룡		010-5000-6443
배 종 근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98			011-9354-1222
김 추 복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30	청 룡	322-1602	010-6336-1602
이 종 성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84	백 마	324-5080	019-602-6060
최 진 수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3	백 마	322-2975	011-791-2975
곽 정 길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88	백 마	322-1641	010-4661-8266
서 정 봉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92	십자성	322-3124	011-635-6289
조 용 길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9-16		322-2520	011-605-2520
송 기 주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45-2	맹 호	322-1414	011-632-1410
허 종 만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주공A103-1203	맹 호	322-2213	011-603-9034
이 금 철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55		322-3312	010-6628-3312
김 덕 기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58-3		322-2545	010-7108-2727
한 종호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3-9	청 룡	324-2858	019-612-2858
이 용 삼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544		324-3317	010-3603-3317
모 상 복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평호		324-3152	016-756-3152
박 성 일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주공A102-1104		322-5660	019-9243-0615
이 재 윤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405		322-4993	010-9877-4993
조 윤 형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30-2		322-5303	011-617-5303
이 사 재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2구		324-3302	
이 재 향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141	백 마	324-3764	011-9608-3879
양 충 배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2		322-2220	016-663-9886
반 대 범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3-1		324-3996	
노 해 균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5-6		324-2769	
정 대 범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53		324-3197	
정 종 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22	청 룡	322-6447	011-9625-6447
장 동 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36-6		322-6212	0105614-6212
신 용 식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53	백 마	322-7833	011-614-7833
김 창 렬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41		322-6643	011-9431-6643
임 기 택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99		322-6927	010-7247-6927
김 창 신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18		322-6105	017-660-8322
진 순 길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70-1	백마	322-6884	010-5653-6884
박 영 수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845		322-6833	011-608-6833
이 동 렬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41		322-2379	010-7565-2379
박 정 용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맹호	322-6132	010-4448-6032
이 익 중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295		322-7431	010-9636-7431
남 재 복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904		322-5892	016-9899-5898
전 상 근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630		322-6923	
김 우 기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99		322-6740	
이 화 섭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09	청 룡	322-5043	011-9213-5043
이 수 길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맹 호	323-4194	
정 기 풍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427-3	맹 호	323-8678	010-6749-8678
김 종 술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산6번지		323-2656	017-321-9199
심 한 섭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504	맹 호	322-5100	018-622-5100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채 동 만	함평군 신광면 보여리 36	백 마	322-5412	010-2008-5412
조 순 행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비둘기	322-5626	011-9663-3295
김 영 범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504		322-0042	
윤 석 인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67		323-5540	
현 흥 배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223			
윤 정 미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1008	백 마	324-4874	011-642-4490
이 홍 만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010		324-4909	
배 영 삼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대성		322-4420	
송 중 식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251		323-4279	
백 영 균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50		324-1606	011-608-1607
배 맹 용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385		322-4420	
전 병 학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맹 호	324-3662	019-219-3662
정 형 문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48		322-9055	
최 양 기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768		322-0562	
김 곤 식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218		322-9004	
최 연 휴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289		322-4848	
전 병 학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775		324-3662	
조 윤 대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85			011-616-1537
김 광 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63	백 마	324-1728	
박 재 수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788	백 마	322-3039	011-9759-7082
김 순 길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1구	맹 호	323-7652	
김 행 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백 마	322-1286	010-8811-3348
김 용 석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257			
신 일 록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752	맹 호	322-3348	
이 기 헌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303		322-3457	
고 산 화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74	십자성	324-4640	010-4662-4640
박 승 원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315	백 마	322-1395	011-9623-1395
임 양 근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423		322-7573	010-7171-4281
임 영 빈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264		322-7033	011-9759-7082
오 성 원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 342		322-3725	010-4717-3725
신 중 현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413	청 룡	322-8339	011-9221-8339
정 영 호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111	백 마	323-6134	010-8612-5633
송 방 오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155	맹 호	322-3776	018-630-3776
이 재 길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600		322-8339	
김 덕 호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10		323-8329	
장 상 근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777		322-8651	
장 학 익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719-6		322-5799	
문 규 식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80		322-8329	
배 영 산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902	십자성	323-0348	010-4113-0348
이 점 범	함평군 해보면금덕리 141-106		323-0209	011-617-0209
윤 길 성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39-2		323-0218	017-710-1287
이 미 수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37-1		323-5858	
김 성 철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778-19		323-0289	
노 정 균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871			010-9633-0442
신 규 현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836-30		322-1841	
최 연 휴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785-12		323-8043	
이 종 행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562		323-0604	
정 우 하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582		[062]973-2376	011-601-1667
전 성 웅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90		323-9596	010-7750-9596
정 철 영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656	백 마	323-1654	016-614-39
최 정 수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676		323-1151	
정 남 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33		323-9579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번 호	휴 대 폰
김 맹 열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521		323-0982	
박 천 수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394		323-2838	
김 인 석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7		323-2096	
강 호 봉	함평군함평읍내교리정우1동301		322-2603	011-603-3577
이 동 신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1359		323-0663	
이 백 중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215		322-7431	
박 윤 창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656-1		322-3610	011-9600-3610
김 용 안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959	수도사단	322-0411	011-9450-0411
이 진 범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547			010-4604-3185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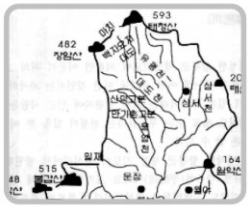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월남전쟁 연구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나종삼(羅鍾三), 국방군사연구소, 1996. 12. 28

• 「함평군사」 월남파병과 함평, 함평군사편찬위원회, 1984.

• 「함평군사」 월남파병과 함평. 함평군사편찬위원회, 1999.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2009회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009.

제20장 새마을운동



제1절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기본정신

1. 개 요

1970년 4월 22일 전주에서 있었던 한해대책 전국 지방 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고 확신한다 …… (중략)

이 운동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그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태동한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농촌에서, 도시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영역에까지 깊이 파고드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민·관 합동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안일한 구태로부터 탈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개척자적 운동으로서 역사적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운동으로 부각되었다.

2. 새마을운동의 배경

우리들이 지켜온 이땅의 역사적 국난(國難)은 단군 이래 931회나 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국난 중에는 고구려(高句麗)의 대(對) 수(隨)·당(唐)전쟁은 50년, 고려(高麗)의 요와의 전쟁은 26년, 대 원(元)전쟁은 30년이 걸렸으니 이같은 국난의 기간이 931년이 훨씬 넘는다고 볼 때 4,300년 남짓한 우리 민족사의 4분의 1 이상을 국난 속에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국난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어도 그때마다 끈질긴 대항으로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민족사에서 우리는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역사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살아 보겠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남기에 급급하여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는 불교(佛敎)와 도가(道家) 그리고 유학(儒學) 사상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뿌리 깊게 지배하여 반상(斑常)의 윤리와 노동 천시의 풍조가 조장된

결과로 36년동안 일본제국주의에 국토를 점탈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끝내는 국토분단에 의한 민족분열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근대화를 꾀하기 위해 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국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중심의 공업화와 경제개발 정책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생활의 질 면에서나 소득 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발전의 크나큰 저해 요소로까지 대두되었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제창된 새마을운동은 곧 잘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민족의 대약진운동』이라 할 수 있다.

3.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새마을운동은 전통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대목(臺木)으로 하여 근대 자본주의라는 접순(接筍)을 접목(接木)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운동이며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을총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동의 자치능력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토착화 시키는 실천도장화 하자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농촌에 옛부터 면면히 상존해온 자조·자립하고, 근면·성실하며, 검약·협동하는 정신을 사회 각 분야에서 회복시키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산업의 근대화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그에 알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의식구조 개혁을 위한 정신운동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그 정신개혁의 명제를 근면·자조·협동으로 정하고 이를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및 지도이념으로 하여 조국근대화의 의지를 산업화로 이끄는 동시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민족중흥의 의지로 집약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

1. 새마을운동의 주요 연혁

•1970. 04. 22 : “새마을 가꾸기운동” 제창
10. 01 : “새마을 가꾸기 길잡이” 책자발간

•1971. 08. 19 : 내부부에 “지역개발담당관, 도시개발관, 농촌개발관, 주택개량관실”등 전담부서를 신설함
09. 29 :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을 “근면·자조·협동”으로 규정
•1972. 01. 14 : 독농가 연수원 설립
03. 07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여 설치함(대통령령 6104호)
⇒ 폐지 ’90. 5. 31(대통령령 제12999호)
•1973. 01. 08 : 농수산·상공·문교부 및 농협에 새마을 전담부서를 신설함
01. 25 : 상훈법에 새마을 훈장을 신설함(자립・자조・협동・근면・노력장으로 규정)
02. 01 : 시·도, 시·군·구에 새마을 지도과를 신설함
03. 22 : 새마을금고 연합회 창립(1964. 8.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비롯)
05. 31 : “독농가 연수원”을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1974. 05. 04 : “새마을운동론(지역사회개발론)”을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으로 선정
07. 21 : 경제·언론·종교·학계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함
•1975. 01 : 전국 138개 군에 새마을 담당 부군수제 신설
05. 07 : 새마을모자 제정
05. 30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능강화(15개부처 → 22개부처)
•1976. 11. 10 :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창립
⇒ ’81. 2. 28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개칭
•1977. 02. 21 :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설립(상공부)
•1978. 03. 27 : 농어촌 새마을 주택개량사업기구 설치
(내무부 및 시·도 → 과, 시·군→ 계 신설)
10. 05 : 자연보호 헌장선포(세종문화회관)
•1979. 02. 21 : 도시 새마을운동 10대 구심사업 설정
04. 18 : 마을 발전 수준을 재정립하고 『자영마을』을 신설
12. 28 :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설치법 공포(법률 제3171호)
•1980. 04. 22 : 새마을운동 10주년 기념행사 – 새마을 활력화 운동추진
12. 21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창립(민법 제32조) →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부녀회 중앙 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를 회원 단체로 가입 출발
12. 13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정(법률 제3269호)
시행령(’81. 3. 2. 대통령령 제10226호)
12. 19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단법인으로 인가
•1981. 01. 28 : 직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원개원(‘68. 농민교육원에서 비롯)
03. 05 : 새마을협동 유아원 설치 사업개시

10. 01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도지부 설치승인('82. 9. 1 업무개시)
새마을문고 중앙회(전 마을문고연합회)회원 단체로 가입
10. 23 : 새마을 조기체육회 회원단체로 가입
⇒ '88. 4. 7. 해산으로 회원단체에서 제외
10. 28 : "새마을 청소년 중앙연합회"회원단체로 가입
⇒ '89. 4. 24. 회원단체에서 제외

•1982. 01. 25 :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 통합운영
08. 02 : 나라꽃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전개
08. 09 : 새마을운동 민 주도화 추진계획 확정
12. 17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수원 설립
⇒ '83. 4. 22.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성남으로 이전

•1983. 01. 01 : 새마을금고법 시행
02. 04 : 새마을 광역권사업 전개
02. 08 : 새마을운동본부 연수원 설립('89. 3. 17 폐지)
10. 18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군·구지회 설치승인
(업무개시 '84. 3. 21)
12. 31 :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설치법 폐지
⇒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새마을운동 본부로 통합, 성남 이전

•1984. 02. 11 :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원단체가입

•1985. 03. 09 : 범국민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지침시달
04. 15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장성 연수원 설립
04. 02 : 전국토공원화운동 지침시달(시·군·구까지 국토미화계 신설)

•1987. 01. 01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영종연수원 개원
⇒ '88. 2. 26. 영종원수원 폐지

•1988. 03. 01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조직 기구축소 개편(1448→972명)

•1989. 03. 17 : 본부 연수원 폐지
04. 24 : 새마을청소년 중앙연합회 회원 단체에서 제외
04. 24 :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를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로 명칭 변경
04. 24 : 시도지부(16), 시군구지회(269) 운영위원회 신설
05. 23 : 새마을운동 발전 방향 수립
06. 01 : 새마을가족 행동지침 " 우리의 다짐"제정

•1990. 01. 01 : 직속 새마을 연수원 명칭 변경(성남 연수원→중앙,
장성연수원→남부)
02. 28 : 새마을지도자 강령 제정
03. 20 : 가정새마을운동 강령 제정(새마을부녀회 중앙 연합회)

•1991. 01. 28 :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책자 발간
09. 07 : 3대 질서(교통, 행락, 환경)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1992. 05. 14 :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제1차 한·일국제심포지엄개회(중앙연수원)
⇒ 일본 오이타현 정기 교류 시작
06. 17 : 제1회 일하는 보람상 제정 시상
•1993. 01. 11 : 내고장 환경가꾸기 책자 발간
02. 05 : 신한국 창조와 시민 의식 개혁 대 토론회 개최
03. 24 :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 토론회 개최
8. 10 : 함평군직제개편(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 개편)
9. 24 : 농어촌 도서관·마을문고에 1백만권 책 보내기 운동 전개
•1994. 01. 01 : 남부연수원 부설 한국기업문화혁신센터, 백암청소년캠프개설
03. 03 :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훈련원 개소
08. 05 : 전국대학 새마을 연구소 연합회 명칭 변경
⇒ 한국대학교수 새마을 연구회
•1995. 07. 27 : 새마을산업(주) 그린씽크공장 창업식(정읍시, 고부농공단지)
10. 13 : 새마을운동 활력화 전국 다짐대회 개최
⇒ 서울시 새마을기 게양중단 방침에 대응
12. 31 : 비 자치구 지회 폐지(249개 지회→ 232개)
•1996. 05. 14 : 사랑의 노인섬기기 운동 활성화 다짐 대회
06. 01 : 사랑의 노인섬기기 계도방송(MBC-R "잠깐만“)
06. 01 : 함평군직제개편 사회진흥과 폐지(새마을 업무일반업무에분산편입)
10. 19 : 과소비 추방 방송 캠페인
12. 01 :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운동 개시(각급 새마을 부녀회)
•1997. 3. 27 :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추진결의(중앙회장단)
⇒ 새마을운동 중점 과제로 설정 추진
12. 10 :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
12. 17 : 전국 아파트 에너지 전략 경진 대회
•1998. 01. 09 : 경제 살리기 새마을 운동 추진계획 시행
02. 01 : 월간지 “새마을”종간(‘98. 2월호, 제25권2호, 통권272호)
03. 01 : 새마을 문고 중앙회 사무국 통합
03. 05 : 격주간 “ 새마을운동”창간
04. 21 : 새마을 사랑 모임 창립 총회 개최
05. 01 : 새마을 노숙자 돕기 「사랑의 점심 나누기」 운동 전개 시작
05. 15 :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 대회」 전국 동시 행사
07. 08 :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규정 제정

08. 01 : “앞서가는 직장”소식지 창간
10. 29 : 실직자 돕기 범 국민 캠페인 시·군·구 선포식(234개)
12. 11 : 러시아 연해주 새마을운동 협력사업 본 계약 체결

•1999. 03. 20 : 범 새마을 가족 북한 비료보내기운동추진(읍·면·동 단위 지도자)
06. 30 : 베트남 새마을 협력 사업 협약 체결
07. 15 : 계간 “ 새마을사랑모임 소식지”창간호 발간
08. 25 : 제2건국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08. 31 :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 소식지” 창간호 발간
12. 01 : 영수증 주고 받기 및 신용카드 사용 캠페인 전개(105개 지회)
12. 22 : 제1회 올해의 독서 문화상 시상

•2000. 02. 07 : 새마을 홈페이지 개통(도메인 : www.saemaul.or.kr)

2. 연도별 중점 추진 내용

•1970 :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제시
•1971 : 210개 전 행정리에 마을당 시멘트 335대씩 균일 지원 실험사업 추진
•1972 : 마을당 시멘트 500대, 철근 1톤을 지원 새마을 가꾸기사업 중점 추진
•1973 : 마을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104개리, 자조마을 92개리, 자립마을 14개리로 체계화시키고 새마을사업을 소득에 직결시켜 추진
•1974 : 기본자재를 마을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 소득증대, 새마을 교육확대,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을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
•1975 : 증산·근검·인보운동을 3대운동으로 추진하고 소득사업, 노임사업, 국민교육, 도시새마을운동 4대 역점시책으로 추진
•1976 : 3대 운동과 소득증대, 국토가꾸기, 도시새마을운동, 국민교육을 4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77 : 3대 운동과 문화복지 농어촌건설의 촉진, 소득증대 운동의 지속화, 도시 새마을운동의 본격화, 공장새마을운동의 강화,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5대 시책으로 정하여 중점 추진
•1978 : 농촌주택개량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의 가속화, 3대 질서운동의 전개, 공장 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5대 중점 시책으로 집약 추진
•1979 : 새마을 복지기반의 확충, 새마을 소득증대의 촉진, 도시새마을운동의 심화, 공장새마을운동의 확산, 새마을 국민교육의 강화를 5대 시책으로 총력 경주
•1980 : 농어촌 복지환경의 향상, 농촌소득 기반의 확충, 도시새마을운동의 심화, 공장새마을운동의 확대, 새마을 국민교육의 확대를 5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1 :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새마을 국민교육의 강화, 새마을 복지기반의 확충, 도

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공장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5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2 : 고소득 복지 농어촌의 건설, 도시새마을운동의 활력화, 공장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새마을운동의 민간 주도화, 새마을 교육·홍보의 강화, 올림픽대비 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 유아원의 발전적 운영등 7대 중점 시책 추진

•1983 : 농어촌 균형기반의 확충, 도시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새마을 국민교육의 확대 강화,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활력화, 올림픽 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6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4 : 고소득 복지기반의 균형발전, 도시새마을운동의 내실화, 새마을 국민교육의 확대 강화, 새마을운동 민간주도 기반 확충, 올림픽 새마을운동의 지속추진을 5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5 : 농어촌 새마을운동의 2단계 도약, 도시새마을운동의 활기찬 추진,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부녀새마을운동의 활발한 전개, 범국민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전개를 5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6 :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농어촌새마을운동의 활기찬 추진,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추진, 소비절약 새마을운동 전개, 민간주도 자율추진 역량 제고를 5대 시책으로 중점 추진

•1987 : 올림픽새마을운동, 농어촌새마을운동, 소비절약새마을운동, 독서생활화운동, 새마을운동홍보

•1988 : 건전생활실천운동전개, 올림픽새마을운동, 직능새마을운동의 활력화, 국민독서운동전개, 새마을운동홍보

•1989 : 새마을운동위상재정립, 살기좋은고장을 위한 새마을운동전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마을운동전개, 자랑스런 나라건설을 위한 새마을운동

•1990 :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보람찬 일터 만들기, 건강한 사회 구현, 자랑스런 나라건설,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

•1991 :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보람찬 일터 만들기, 건전한 사회 구현, 자랑스런 나라 건설

•1992 : 땀 흘려 일하는 사회 기풍 진작, 근검 절약 생활화와 낭비추방, 공중도덕과 시민 의식 함양, 농어촌 발전 운동의 전개, 사회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

•1993 : 의식 개혁 운동의 확산, 내고장 활력화 및 환경 가꾸기 운동, 대전EXPO 새마을운동, 자율추진 역량 제고

•1994 : 「농어촌 살리기 새마을운동」의 적극 전개, 「내고장 환경 살리기」 새마을운동 지속추진, 「국민 의식 개혁」을 위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민간 자율의 추진 역량 제고

•1995 : 도·농간 결연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살리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 건강한 사회 가꾸기「국민 의식 개혁」 운동,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민간 자율의 추진 역량 제고

•1996 : 생활 의식 개혁 운동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가꾸기 운동, 내고장 환경 지키기, 자원봉사 활동 강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새마을 운동

•1997 : 경제 살리기 새마을 운동, 금수강산 되찾기 운동, 사회 질서 세우기 새마을 운동, 이웃돕기 새마을 운동, 통일 및 국제화 새마을 운동

•1998 : 경제 살리기, 도덕·질서세우기. 지역 가꾸기, 환경 되살리기, 이웃 사랑 나누기, 국제화 및 통일 준비하기

•1999 : 나라 살리기, 경제 회생 및 사회 안전망 운동, 생활 의식 개혁 운동, 화합과 이웃 사랑 운동, 환경 보전 운동, 국제화 및 통일 준비 운동, 조직의 효율적 관리

•2000 : 생활·의식 개혁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녹색 새마을 운동, 통일 및 국제화 새마을운동

•2001 : 지역 가꾸기 새바람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통일 및 국제화 새마을 운동, 정보 생활화 운동, 민간 자율 운동 추진 기반 강화

•2002 :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지역 가꾸기 사업, 환경 보존 사업, 지역 축제 홍보 및 자원봉사, 사회 참여 연대

•2003 : 생활 의식 개혁 운동, 내 고장 활력화 운동, 환경 가꾸기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국제화 새마을 운동, 통일 새마을 운동, 민간 자율 추진 기반 정착

⇒ 지회 : 자생력강화, 자원봉사,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운동

•2004 : 생활 의식 개혁 운동, 내 고장 활력화 운동, 환경 가꾸기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국제화 새마을 운동, 통일 새마을 운동, 민간 자율 추진 기반 정착, 새마을 운동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지회 : 지역 특산품 개발 운동, 독서 문화운동, 자원 봉사

•2005 : 생활 의식 개혁 운동, 내 고장 활력화 운동,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 민간 사회 안전망 운동, 국제·통일 협력 운동,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 역량 강화

⇒ 지회 : 지역 특산품 개발 운동, 독서 문화운동, 자원 봉사

•2006 : 문화 시민 의식의 선진화, 서로 돕는 복지 공동체, 지역의 활력 찾기, 국제·통일 협력 사업

⇒ 지회 : 자생력 강화, 시민참여연대, 자원봉사, 창포 단지 육성

•2007 : 시민 의식 높이기, 복지 공동체 만들기, 지역의 활력 찾기, 쾌적한 환경 가꾸기, 새마을 운동 해외 보급, 새마을 운동 추진 역량 강화

⇒ 지회 : 상동

•2008 : 2007년도 동일

⇒ 지회 : 2008 나비·곤충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 창포 단지 육성

•2009 : 다정한 이웃(열린 봉사), 건강한 사회(선진사회), 살기 좋은 고장(녹색생활), 자랑스런 나라(세계시민)

•2010 : 녹색 새마을 운동,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 세계화 새마을 운동

3. 전개 과정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으로써 줄기찬 국민적 열기속에 추진되어 물량적 성과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부침은 있었다.

70년 방향제시를 시발로 1973년까지는 행정지원 체제와 추진 체계를 갖추는 등 새마을운동을 점화하고

1) 기초환경(基礎環境)정비에 중점을 두어 자율실천을 유도하면서 새마을정신의 계도(啓導) 개발(開發)에 힘썼으며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자조발전기(自助發展期)로써 생산기반시설(生産基盤施設) 및 소득증대와 새마을정신의 범 국민운동화(汎國民運動化)에 주력함으로써 더욱 심화(深化)발전되었다.

또한 1977년 이후부터는 새마을정신 생활화를 기반으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는 자립완성기(自立完成期)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관(官)이 앞에서 끌고 민(民)이 뒤를 받쳐주는 행정(行政)과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추진체계로써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중심의 엄청난 물량(物量)적 성과 속에 마을의 모습을 바꾸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80년대 들어와서는 관(官)주도형 운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주도화 추진계획이 모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마을 단위 자율 추진체계에서 전국적인 조직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외형적으로는 조직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증대와 복지사회 건설에 주력하면서 80년대 국가적 양대 행사였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대비에 전 새마을조직의 참여하에 범국민적 손님맞이 운동과 전 국토 공원화운동을 전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당초 새마을운동이 마을 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한 자율 추진 체계에서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주민위주의 운동에서 조직 목표달성의 운동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중앙지도부 일부가 당시 제5공화국 정치세력과 연관을 갖었던 관계로 정권의 부침에 따라 새마을 조직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판과 매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내 행정 지원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비운을 맞

게 되어 9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침체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는 새망ㄹ운동이 민주도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시비비(是是非非)에 얽혀있다 할지라도 70년대 우리의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자 하는 강열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근대화(近代化)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국민의 자긍심과 자각심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추진 역점과제와 성격에 비추어 운동의 전개 과정을 70년대의 지역 사회 개발 운동에, 80년대의 국민정신 운동기, 90년대 이후의 자원 봉사 운동기 등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는 견해도 있으나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의 전개과정>

단 계	역 점 사 업	운동의 특색	1인당GNP(달러)
1. 기반조성단계 (1970~73)	· 환경개선 : 마을안길, 지붕. 담장 · 소득증대 : 농로, 농지, 종자 · 의식개혁 : 근검절약, 퇴폐일소	· 운동의 출범과 점화 · 정부주도의 활동 · 생활환경개선 우선	· 1970 : 257 · 1973 : 375
2. 사업확산단계 (1974~76)	· 소득증대 : 소하천, 농외소득 · 의식개혁 : 새마을교육, 홍보 · 환경개선 : 주택, 상수도, 회관	· 공간적, 기능적 확대 · 소득증대, 의식개혁 · 국민적공감대 형성	· 1974 : 402 · 1976 : 765
3. 효과심화단계 (1977~79)	· 농촌 : 취락구조, 문화, 주택 · 도시 : 골목길포장, 청소, 질서 · 직 · 공장 : 생산성, 물자절약	· 광역적 연계화 · 규모경제의 추구 · 단위별특성화 부각	· 1977 : 966 · 1979 : 1,394
4. 체제정비단계 (1980~89)	· 사회풍토 : 친절, 질서, 봉사 · 경제발전 : 복합영농, 유통개선 · 환경정비 : 청결, 국토공원화	· 민간주도로 체제변화 · 역할분담체계구축 · 침체로부터의 탈출	· 1980 : 1,507 · 1989 : 4,934
5. 자율확대단계 (1990~)	· 건전풍토 : 일하는 기풍, 도덕성 · 경제안정 : 경제살리기, 근검 · 생활환경 : 환경가꾸기, 자치	· 자율, 자립기반의 강화 · 개방화,지방화에 부응 · 경제위기극복 노력	· 1990 L 5,503 · 1996 : 10,548

4. 새마을 사업의 분류

광의로 새마을 사업을 분류할 경우 생산기반 부분, 소득증대 부분, 복지환경 부분, 정신계발 부분, 도시·공장 새마을 부분 등 5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 기반 부분

- 새마을 광역권 사업(권역별로 추진)
- 새마을 가꾸기 사업(회관, 종합복지관, 공동구판장, 안길, 하수구, 울타리, 지붕개량, 도수로, 소하천, 선착장, 보설치 등)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표창 또는 포상마을) •소규모 어항개발
•어업기반시설(선착장, 물량장, 호안 등 → 수협) •어업부대시설
•수리시설 개보수(용수개거, 보설치, 도수로 보수 등)
•국제협력 새마을 사업

2) 소득 증대 부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농토배양사업(객토, 볏짚깔기, 토양개량제, 깊이갈이, 퇴비증산)
•기계화 영농단 육성 •병충해 방제 •복합영농 시범 사업
•농어촌 후계자 육성 •원예·특용작물 개발 •산지 협동 출하반 육성
•올림픽 대비 식수 •농촌경제수 식재 •마을 양묘
•마을 사방 •사유림 협업 경영
•내수면개발(치어 방양, 공동양어장) •수산물 증·양식
•어촌 부업 육성 •새마을 협동조직 육성(농협)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차량지원, 창고신축, 공동출하 조직육성, 농산물 공동출하등 → 농협)
•새마을 소득 종합개발사업(농협)
•수산자원 육성(패류 양식 등 → 수협) •가축 순회진료(축협)
•축산기술지도(축협) •축산물 유통개선(축협) •축산관측 홍보(축협) 등

3) 복지 환경 부분

•농어촌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
•전국토 공원화 운동(꽃길조성, 화단 및 소공원조성, 국토공간 녹화)
•소도읍 가꾸기 사업(가로정비, 건물정비, 시장정비, 기타)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질서 유도시설 확충, 주택 및 건물정비, 뒷골목 포장, 하수구 정비, 공중변소 정비 확충, 불량광고물 정비, 옥상·담장·소하천 등 정비, 시범업체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철도 및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지붕도색,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조성, 꽃길조성, 공한지 식수, 주택철거, 농막 및 비닐하우스 정비, 승강장 정비, 기타)
•새마을 유아원 설치운영
•색채환경 개선(공공건물, 간판·광고물, 도로시설물, 도시건축물, 차량, 농촌주택)
•농어촌 쓰레기 분리수거(매립장, 처리장 등) •새마을 금고 육성
•광산지역 종합개발 •국토보전 및 녹화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벽지 버스노선 개설 •취락구조 개선 •철도새마을운동
•농촌생활지도(공동취사장 운영, 어린이 공부방 운영, 생활문화 교실 운영 등→농협)

4) 정신 계발 부분

•새마을 국민교육(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청소년지도층·서비스업 종사자 등 합숙교육, 1일 새마을학교, 직장새마을 교육)
•공직자 정신교육 •노사교육 •금융인 새마을 교육
•사회복지 새마을 정신교육
•새마을 소비절약 운동(폐자원 수집, 재활용, 전통혼례 보급 등)
•새마을 문고 육성 •군(軍)새마을운동 •전국 대학생 봉사 활동
•농어촌 저축
•새마을 청소년회 육성(조직운영, 새기술 개발, 교육행사, 농어민 후계자 지도 등)
•농민 영농기술 교육(농어민 후계자 및 영농지도자 교육, 농기계 교육·겨울 영농 교육, 영농기술 교본 발간 등)
•이동도서관 운영 •어촌기술지도 •새마을 지도자 육성관리
•새마을운동 홍보 •새마을 단체 육성

5) 도시 · 공장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질서 유도시설 정비,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우수업체지정 육성, 질서계도, 시범점포 지정,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 주문식단제 보급, 불량간판·광고물정비, 차량 청결도색, 뒷골목 하수구설치 및 포장정비, 공중변소 신설 및 개보수, 가로화단 조성, 도시공간 녹화 등)
•공장 새마을운동(공장 새마을 교육, 우수 중소기업 지정 등)

제3절 새마을 사업의 추진 실적

1. 마을 발전 목표

새마을운동 지도방법은 각 마을의 고유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다.

이 방향에 의하여 1973년부터 마을 수준을 기초(基礎), 자조(自助), 자립(自立)의 세 가지로 전 마을을 유형화 하여 각 단계별로 마을의 입지와 여건을 감안하여 약간씩 다른 개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기초마을은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자조마을은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자립마을은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80년도에 모든 마을이 자립마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후 80년초에 다시 호당 소득을 기준으로 자립(自立), 자영(自營), 복지(福祉)마을로 분류하여 새로운 추진 좌표를 설정하고 지도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때 자립마을은 호당 소득 200만원 이상이며 자영마을은 4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삼았다.

마을 발전 목표 설정에 의한 추진은 관주도 운동 추진시 채택된 추진 목표였으나 민간 주도 운동 이후로는 개발 위주의 마을 단위 사업 중심의 새마을 사업은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2. 새마을 사업 추진 실적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팽창되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명칭만 『새마을』을 차용한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새마을 사업은 광역권 사업, 협동권 사업, 가꾸기 사업, 특별지원 사업 등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이용 또는 활용하여 사후관리까지 주민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먼저 농한기(農閑期) 유휴(遊休) 노동력을 생산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중점 추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발로 시작되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운동 추진의 점화를 위하여 전 행정 리단위로 균일하게 물자(시멘트, 철근)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은 노력을 부담하는 형태로 먼저 농촌 지역에서부터 추진되다가 점차 주민 호응도에 따라 차등지원 방식을 택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 공동참여가 가능한 모든 사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엄청난 물량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재인식과 함께 자조·협동의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와 성과에 의해서 새로운 의욕에 불타는 의식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새마을운동이 가정, 마을, 직장, 기업체, 학교, 군부대 등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파급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새마을 광역권 사업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주로 마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광역적인 지역개발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마을 단위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필요하게 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마을 단위 사업보다는 대규모적인 사업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있었다.

협동권(協同圈)사업은 지대(地帶), 전통, 영농 형태 등이 상호 유사하고 지역개발 방향이 일치되는 2개 이상 인접한 마을이 서로 협동하여 마을 단위 사업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상호연계되는 공동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소단위 지역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마을간 협동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 정주생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特別支援)사업은 1973년 11월 2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잘살아보겠다는 의욕과 노력이 왕성한 마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추진 되었는 바 이는 대통령 특별지원금(73년 1백만원부터 83년 이후 3백만원)형태로 지원 되었으며 지원금과 마을 자체 자금으로 완성할 수 있고 주

로 소득증대와 즉결 될 수 있은 사업이 중점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초에는 자재 지원으로 출발하여 점차 마을 도급 형태로 변했으나 주민의 노력 및 재원 부담이 갖는 한계성(기술력, 자금력, 시공관리등)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 업자도급이 도입되고 90년대는 행정기관에서 업자 도급으로 완전히 전환함에 따라 새마을 사업에 의한 주민 공동체 의식배양은 점차 희박해 가고 있다.

또한 각종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시설된 모든 물질적 성과물을 새마을 시설물이라 칭하고 이러한 시설물은 각 마을 단위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관리규약에 의해 자체 관리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물 설치 당시와는 생활양식이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노후(老朽) 협소(狹小)한 시설물이 발생되어 이용가치가 점차 감소되고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활용 저조로 인한 주민 관심이 소홀해지는 등 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導出)되었을 뿐만아니라 상위 계획에 의하여 중복시공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예컨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농로나 도수로가 경지정리지구에 포함된다든지 하천정비 사업에 의하여 하천내 시설된 농업용수시설이 폐기된다든지 개설된 진입로나 안길이 농어촌 도로나 군도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등 그 예는 비일비재 했다.

이에 1982년 초까지 노후시설을 보수하거나 민간양여 또는 매각하고 활용부진 시설은 폐기, 통·폐합하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활용을 촉진시켰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의해서 80년대 초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민 주도운동 이후에는 둔화되었다.

다음 표에 기재된 시설물 통계는 2009년말 현재 최종관리 시설물이다.

<새마을 시설물 보유현황>

(2009. 12. 현재)

구분 \ 읍면		단위	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총 계			822 49,668	88 5,180	89 4,609	89 3,569	105 5,468	70 4,143	87 4,261	100 6,786	83 6,317	111 9,335
문화복지시설	소 계		722 39,419	79 4,356	80 3,672	80 3,063	95 4,314	60 3,218	77 3,574	91 5,925	67 4,235	93 7,062
	마을회관	동 ㎡	44 3,349	13 804	1 50	3 263	2 205	3 293	5 346	10 870	4 268	3 250
	정자각	개소 ㎡	361 9,865	27 633	43 546	52 770	48 983	28 812	39 990	46 1,894	32 675	46 2,561
	기타	개소 ㎡	17 1,201			1 24	4 210	2 131	6 53		3 554	1 230
	경로당	개소 ㎡	300 25,004	39 2,919	36 3,076	24 2,006	41 2,916	27 1,982	27 2,185	35 3,161	28 2,738	43 4,021
소득기	소 계		100 10,249	9 824	9 937	9 506	10 1,154	10 925	10 687	9 861	16 2,082	18 2,273
	공동창고	동	97	9	9	9	10	9	10	9	15	17

반시설		㎡	9,664	824	937	506	1,154	824	687	861	1,728	2,142
	공동작업장	개소 ㎡	3 585					1 101			1 354	1 131

※ 2009년도 현재 분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표임 (자료제공 : 함평군 창조디자인과)

제4절 주거환경 개선사업

1.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새마을사업의 성과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의 생활양식도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어 크게 변화 발전되었으나 주택은 비능률적이고 불편한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에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와 생활수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의 환경개선사업도 마을권 사업에 편중되었고 가정권 사업이라야 부엌, 울타리, 지붕개량 등 부분적인 개량에 그쳤기 때문에 농촌의 주거환경을 만족할 만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농촌 주거환경을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주택으로 개량시키고 영농의 기계화, 과학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영농 및 일상생활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택 전체의 구조적인 개량과 혁신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부금제도를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관급자재(官給資材)를 공급하기도 했으며 융자금 상환능력(償還能力)을 배양(培養)하기 위하여 각종 소득사업의 집중 지원도 병행해서 실시했다.

또한 기술직(技術職) 공무원들로 기술지도반을 편성 시공부터 완공까지 전 공정에 걸쳐서 철저한 기술지도로 값싸고 튼튼한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시책을 펴기도 했다. 개량 대상지역은 국철도변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선정하여 파급 확산의 효과를 기하게 되어 새마을운동의 성공으로 높아진 소득을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케 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농촌 주택개량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사업량(동)			사업비			
	계	지원	자력	계	융자	보조	자부담
계	2,349	2,079	270	31,601,243	30,722,352	59,979	803,452
1978	187	187		402,795	306,560	22,440	73,795
1979	150	150		535,962	414,840	21,943	99,179
1980	72	72		371,839	299,870		71,969
1981	35	35		242,484	195,552		46,932
1982	107	52	55	466,364	333,350		133,014
1983	87	32	55	270,603	210,880	12,000	47,723
1984	67	17	50	127,056	8,000	3,596	

구분 / 연도별	사업량(동)			사업비			
	계	지원	자력	계	융자	보조	자부담
1985	84	24	60	209,320	158,420		50,900
1986	40	20	20	72,480	134,840		37,640
1987	11	11		87,120	69,700		17,420
1988	40	20	20	124,620	124,620		
1989	32	22	10	272,500	148,220		124,280
1990	31	31		352,100	251,500		100,600
1991	48	48		470,000	470,000		
1992	51	51		714,000	714,000		
1993	65	65		910,000	910,000		
1994	89	89		1,424,000	1,424,000		
1995	135	135		2,160,000	2,160,000		
1996	177	177		2,832,000	2,832,000		
1997	146	146		2,336,000	2,336,000		
1998	55	55		880,000	880,000		
1999	93	93		1,860,000	1,860,000		
2000	54	54		1,080,000	1,080,000		
2001	70	70		1,400,000	1,400,000		
2002	72	72		1,440,000	1,440,000		
2003	60	60		1,200,000	1,200,000		
2004	70	70		1,400,000	1,400,000		
2005	38	38		1,140,000	1,140,000		
2006	31	31		1,240,000	1,240,000		
2007	35	35		1,400,000	1,400,000		
2008	51	51		2,040,000	2,040,000		
2009	50	50		1,500,000	1,500,000		
2010	16	16		640,000	640,000		

※ 자료제공 : 함평군 건축계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의 소득,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더욱더 발전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릉지(丘陵地)나 야산 등 폐경지(廢耕地)의 자연여건을 살린 장기적인 취락 배치계획을 주민총의로 수립하여, 생활에 편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비롯한 기반시설(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공동퇴비사, 공동축사 등), 복지시설(어린이 놀이터, 복지회관)등의 입지를 종합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영농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회(集會), 위락공간(慰樂空間), 녹지(綠地)를 확보하여 재래의 취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취(情趣)있는 이상적 문화농촌 건설의 선도적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연도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실적>

구분 / 마을별	사업량(동)				사업비(천원)			실시년도
	계	A형	B형	C형	계	지원	주민부담	

읍면별									
계	12개마을	152	37	85	30	764,316	578,850	185,466	
엄 다	교 회 촌	11		11		21,120	17,600	3,520	1978
해 보	금 곡	13		13		24,672	20,560	4,112	1978
학 교	호 암	10			10	34,380	28,650	5,730	1979
엄 다	송 현	10			10	29,340	24,450	4,890	1979
대 동	금 구 동	15	15			52,392	43,660	8,732	1979
해 보	주 현	29		29		106,632	88,860	17,772	1989
함 평	양 림	10		10		50,160	41,800	8,360	1980
해 보	유 정 자	16	16			80,256	66,880	13,376	1980
월 야	전 하	11		11		55,164	45,970	9,194	1980
함 평	주 포	10			10	69,120	57,600	11,520	1981
학 교	재 생 원	11		11		91,080	72,820	18,260	1982
손 불	대 행	6	6			150,000	70,000	80,000	1992

※ 자료제공 : 함평군 건축계
※ 사업비중 지원액은 주택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3. 기타 사업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민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로 농어촌에도 도시형 주거문화가 도입되고 급격한 이농과 함께 농어촌 인구 구성도 부녀자와 노령화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시대변화에 의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의 가스 및 석유화와 상수도 보급율 확대에 따른 입식 부엌개량, 변소개량, 재래식 변기개량, 빈집 정비가 요구되었다.

<기타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총계		입식부엌개량		변소개량		재래식 변기개량		빈집정비		비고
	동수	금액	동수	금액	동수	금액	동수	금액	동수	금액	
계	4,081	2,695,500	1,700	1,630,000	1,362	681,000	55	2,200	964	382,300	
1991	550	380,000	350	280,000	200	100,000					입식욕실 800 화장실보조 500
1992	496	377,500	250	250,000	240	120,000			6	7,500	입식욕실 1,000 빈집조조 1,250 화장실보조 500
1993	887	618,200	353	353,000	530	265,000			4	200	입식욕실 1,000 빈집보조 500 화장실보조 500
1994	796	539,700	334	334,000	392	196,000	55	2,200	15	7,500	입식욕실 1,000 빈집보조 500 화장실보조 400
1995	257	235,000	213	213,000					44	22,000	입식욕실 1,000 빈집보조 500 화장실보조 500
1996	210	205,000	200	200,000					10	5,000	입식욕실 1,000 빈집보조 500 화장실보조 600
1997	30	15,000							30	15,000	빈집보조 300
1998	146	43,800							146	43,800	빈집보조 300

1999	30	900							30	900	빈집보조 300
2000	55	16,500							55	16,500	빈집보조 300
2001	50	15,000							50	15,000	빈집보조 300
2002	50	15,000							50	15,000	빈집보조 300
2003	60	18,000							60	18,000	빈집보조 300
2004	93	27,900							93	27,900	빈집보조 300
2005	50	15,000							50	15,000	빈집보조 300
2006	45	22,500							45	22,500	빈집보조 500
2007	70	35,000							70	35,000	빈집보조 500
2008	120	60,000							120	60,000	빈집보조 500
2009	61	30,500							61	30,500	빈집보조 500
2010	25	25,000							25	25,000	빈집보조 1,000

※자료제공 : 함평군 주택계, 비고 난의 숫자는 개인별 보조금임.

제5절 소도읍(小都邑) 가꾸기

1. 2000년 이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근대화정책 추진에 의해 도시는 날로 산업화, 공업화 되었고 이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심화(深化)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시는 더욱 급속도로 확장 발전되어 왔고, 농촌은 농촌대로 인구의 감소는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 왔다.

그러나 소도읍(읍, 면소재지)은 빈약한 군 재정(財政)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개발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고 새마을 사업도 간판정비, 건물보수, 가드레일 설치 등 기존상태를 전제로한 미봉적(未縫的)인 정비에 그침으로써 농촌의 문화, 경제, 사회, 행정의 지역 정주 생활권의 거점(據點)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도로망 확대에 따른 교통의 발달은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좁혀짐과 동시에 각종 대중정보 매체의 확대보급은 농촌의 경제, 문화, 교육등의 생활권을 도시로 확산시킴으로써 소도읍의 기능은 더욱 위축됨에 따라 70년대 중반이후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에 78년부터 소도읍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로를 정비하고 항구적인 상가건물을 세우며 시장을 현대화 하는 등 소도읍의 기능을 개발하여 전원도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농촌인구의 이산을 방지하는 한편 보기좋고 살기좋은 활기찬 도읍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로정비(도로확장 및 포장, 하수도 설치, 보도블럭 설치 등), 상가정비(주택개량 및 보수, 담장보수), 시장정비(시장 장옥설치, 진열대 정비, 공중변소 시설 등), 기타사업(주차장정비, 오물처리장 설치, 하천정비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예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장기저리 융자금 특별지원 및 대지 구입비를 융자하고 도로편입 용지의 보상, 각종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과 건축허가 비용의 일부 감면 및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촉진시책을 펴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의존하는 빈약한 지역단위 경제기반 속에서 상업자본을 건축 신축 등 고정자본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지역단위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파산하는 자가 속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연도별 시행현황>

년도별	1978	1980	1980	1990	1991	1992	1993	1995
시행면	함 평	나 산	해 보	월 야	함 평	함 평	함 평	함 평

※ 자료제공 : 함평군 창조디자인과

<사업시행실적('78~'95)>

시행년도	시행읍면	공 사 구 간	주 요 사 업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군 비	융 자	자 담
계	8 건			12,866	2,136	3,315	178	6,937
1978	함평읍	함평교 ↔ 사거리 중앙로 ↔ 윗삼거리	·가로정비:724m ·주택정비:173동 ·시장정비: 17동	119		50	45	24
1979	나산면	면소재지 ↔ 간선도로	·가로정비:400m ·주택정비: 88동 ·시장정비: 33동	278	22	38		218
1980	해보면	면소재지 ↔ 간선도로	·가로정비:650m ·주택정비:152동 ·시장정비: 66동	400	45	73		282
1990	월야면	월야국교앞 ↔ 월야중입구	·가로정비 L = 820m B = 20m ·주택정비:21동	1,550	147	239	133	1,031
1991	함평읍	새마을금고앞(광남로) ↔ 사거리(광주전자)	·가로정비 L = 160m B = 15m	2,558	183	523		1,852
1992	함평읍	사거리(영일상회) ↔ 영수교	·가로정비 L = 150m B = 15m	4,207	394	1,063		2,450
1993	함평읍	군민회관앞 ↔ 작곡재	·가로정비 L = 855m B = 14-20m	2,426	414	932		1,080
1995	함평읍	군청 진입도로	·가로정비 L = 120m B = 8m	1,328	931	397		

※ 자료제공 : 함평군 창조디자인과

2.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부 방침에 의한 전국 동일 모형의 사업은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화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참여 정부에서는 획일화 된 하향식 사업 선정에서 탈피하여 「상향식 공모제」로 전환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2003년부터 시행 하게 되었다.

함평군에서는 2003년 첫해에 전국 공모에 참가하여 함평읍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03~2006년까지 4년동안 국비 256.2억원(행자부 100, 타부처 56.2)과 도비 10.5억을

지원받고 군비 132.1억원 및 민자 128.2억원등 총 527억원을 투자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계획 및 투자 사업비>

사업명	시행 읍면	공사구간	주요사업	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행자부)	타부처	지방비	민자
계	6건			229.1	100	42.2	68.3	18.6
전략사업	함평읍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체험관, 도서관진입로)	· 체험타운조성 A=191,050㎡ · 체험관및도서관 A=2,621㎡ · 진입로L=760m	135	80	29	26	
	함평읍	아름다운생태·전원경관조성	· 함평천생태하천 · 군민회관앞분수 조형물외 30건 · 함평성당옆공원 조성외 13건	48.1	20		24.5	3.6
기본사업	함평읍	함평재래시장정비사업	· 재래시장정비 A=5,603㎡	4.0		12	2.8	
	함평읍	중심상가 정비사업	· 홍주빌딩~5일시장	5.0			1.0	4.0
	함평읍	첨단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	· 외부공사	35.0		12	12.0	11.0
	엄다면	도심지생활교통정비사업	· 주차장,차선도색	2.0			2.0	

사업명	시행 읍면	공사구간	주요사업	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행자부)	타부처	지방비	민자
계	6건			297.9		114.0	59.9	124
기본 사업	함평읍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 소로2-12. 2-13 L=136m개설	5.5			5.5	
	함평읍	종합터미널이전사업	· 종합터미널이전	1.0				1.0
	함평읍	전통가옥, 토담정비사업	· 2005,2006년 A=8,020㎡정비	4.0		2.0	2.0	
	함평읍	하수관거정비사업	· '03~'04년:34.3km · '05~'07년:42.5km	127.4		87.0	40.4	
	함평읍	석두아름마을가꾸기	· 정보화마을, 어민회관신축	37.0		25.0	12.0	
	함평읍	나비생태골프장조성	· 골프장조성 A=245,245㎡	123.0				123

※ 자료제공 : 함평군 창조디자인과

제6절 국토 가꾸기 운동

1. 추진 개황

1) 국토 가꾸기 운동 태동

초창기 새마을사업 추진시 울타리 개량, 마을안길 정비,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른바 정신질서·행동질서·환경질서 등 3대질서 운동의 일환으로 국토 가꾸기가 시작되었다.

2) 자연보호운동 추진

1972년 스톡홀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자』라는 구호아래 『인간환경선언』과 『자연보호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일반화됨에 따라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3) 국 · 철도변 가꾸기 사업

36년간 일제의 수탈에 이은 6·25의 전화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더구나 1960년대부터 추진한 고도 경제성장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공업단지의 확대 및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인위적인 훼손지와 폭풍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황폐지가 늘어나거나 나지(裸地)가 확대 되었다.

이는 개발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각종 재해를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므로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가꾸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새마을운동 초창기부터 새마을가꾸기, 국토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연을 보정(補正)하고 복원하여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철도변 가꾸기 사업은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결됨에 따라 그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행려객과 내방객에게 파급효과가 큰 국·철도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다시 전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발전했다.

<국 · 철도변 가꾸기 실적>

구분 \ 연도별		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비탈손질	개소	24	5	6	10	3	3					
	m	12,800	600	4,200	4,000	4,000						

구분			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도로변가꾸기	노면손질	개소	28	10	3		7		8				
		m	44,180	700	3,400		500	3	39,580				
	측구손질	개소	32	9	6	6	5	6					
		m	6,561	1,800	1,200	1,150	1,500	911					
	가로수식재	본	3,600	1,300			1,100	1,200					
불량건물보수	지붕개량	동	528	90	28	357	350						
	주택이축	동	33	5	3	14	4			7			
	부속사정비	동	240	10		29	4	16	25	114	10	10	22
	지붕색도	동	647							667	80		
	담장개량	개소	166	4	8	8	4			142			
		m	8,916	156	283	570	1,000			6,212			701
경관조성	조림	개소	48		6	37				5			
		m	46,234		3,000	42,300				934			
	언덕손질	개소	9					3		6			
		m	500					290		210			
기타	오물처리장	개소	35		9				26				
	간판정비	m	705		10						635	30	40
	하수도정비	개소	53			52	1						
		m	3,477			3,465	12						
	기타	건	2,668			1,794	850	24					

4) 전 국토 공원화 운동

1980년대에 진입하여 '85 I.B.R.D 차관회의 유치 및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주거지 주변, 도로변, 시가지, 학교 등 공공기관, 절개·포락·황폐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토환경의 정비와 정리 및 미화시키는 종합적인 전국토 공원화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지를 비롯한 문화 및 유적지 등의 면모를 크게 일신시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가로수 식재정도에 머물렀던 도로변이 가로화단 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조경수를 심재하고 꽃길가꾸기 등 다양하고 규모있게 정비되었다.

2. 분야별 추진사항

1) 꽃길 조성

꽃길 조성은 도로변 경관(景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행려객(行旅客)이나 내방객(來訪客)의 미적감각을 충족시키고 쾌적감(快適感)을 느끼게 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 시키자는데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코스모스 꽃길, 초화류식재, 군화꽃길, 전통꽃길, 무궁화꽃길 조성 등으로 코스모스 꽃길은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국도, 지방도 전구간 108km 노변에 매년 병열터널 방식으로 식재하다가 90년대에 들어와 노견 포장이 실시되고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차로 및 곡선지역에서 운전자의 시계장애(視界障碍)를 유발시키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95년부터는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가능한 직선 구간만 조성했다.

초화류 식재는 1986년부터 시행했는 바 가로화단, 소공원, 시가지 주변, 도로변 꽃박스 등에 숙구근초 및 꽃묘를 이식하여 가꾸었다.

식재화종은 펜지, 페추니아, 데이지, 칸나, 사루비아, 메리골드, 루드베기아, 꽃양배추 등으로서 4계절 순환 개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식재했다.

군화 꽃길은 함평군의 군화인 배롱나무를 국도 1호선(학교면 고막리 ↔엄다면 삼정리) 전구간 7km 63,000㎡에 4,570주를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식재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라꽃 무궁화 꽃길가꾸기는 국도 23호선(함평읍 기각리)과 국도 24호선 2개소 2.1km 6,000㎡에 6,000그루를 '93 ~ '94년 2년동안에 단심종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초화류 식재가 외국에서 수입 개량된 화종 중심으로 심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나라 전통꽃길 조성계획이 '94년 수립되어 함평읍 시가지 진입로 2km 구간에 천수국, 부용화, 무궁화 등 9,600본을 심어서관리하고 있으나 식생환경이 여의치 않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미약하다.

2) 가로화단 조성

조성 동기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 가꾸기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88서울올림픽 이후에도 낙토가꾸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2년부터 관내 주요 국도변과 군계지역, 시가지 주변, 대중집합장소 위주로 조성되었으며 기반조성은 업자도급이나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식재 수목은 대부분 군민의 헌수를 받고 화목류는 구입해서 심었으나 민선 2·3·4기에 중점 추진 해온 나비 축제 및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도로변 경관 개선에 주력 하면서 12개소에 불과하던 가로화단이 12년 동안 58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가로화단 조성 현황>

연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계	58개소	62,395㎡		
1	내교리 중앙화단	함평 내교	132㎡	버드나무 12주	
2	천주교 가로화단	함평 내교	165㎡	느티나무외 2종 157주	
3	세영식당 옆 가로화단	함평 기각	364㎡	영산홍 190주	
4	RPC 가로화단	손불면 월천농장	4,600㎡	해당화 300주	
5	월천 가로화단	손불면 월천백옥	250㎡	해당화 120주	
6	안악 가로화단1	손불면 월천방조제	100㎡	소나무외 2종 62주	사각정자1개소
7	안악 가로화단2	손불면 월천방조제	100㎡	멀구슬나무외 1종 104주	
8	신기 가로화단	손불면 월천 신기	250㎡	해당화 100주	
9	월천 가로화단2	손불면 월천 백옥	10,000㎡	해당회 300주	
10	산남 가로화단1	손불면 월천 백옥	10,000㎡	멀구슬나무외 5종 15주	그늘수령1개소, 등의자 4개
11	석창 가로화단1	손불면 산남리 교촌	850㎡	반송외 5종 57주	돌탑 1개소
12	석창 가로화단2	손불 석창리	350㎡	해당화 120주	
13	궁산 가로화단1	손불면 석창리 대발	500㎡	배롱나무외 3종 132주	
14	궁산 가로화단2	손불면 궁산리 덕산	400㎡	은행나무외 종 158주	팔각정자 1개소
15	죽암 가로화단	손불면 궁산리 목교	400㎡	배롱나무외 1종 242주	
16	동죽 가로화단1	손불면 죽암리 죽림	1,350㎡	소나무 2주	
17	동죽 가로화단2	손불 동암리	100㎡	소나무외 3종 57주	
18	대전 가로화단1	손물 대전리	1,100㎡	소나무외 12종 150주	사각정자 1개소
19	대전 가로화단2	손불 대전리	300㎡	해송외 3종 47주	
20	대전 가로화단3	손불 대전리	750㎡	해송외 4종 170주	
21	대전 가로화단4	손물 대전리	315㎡	이팝나무외 4종 73주	
22	남일 가로화단	신광 원산리	315㎡	배롱나무외 2종 85주	그늘시렁1개소, 평의자3개소 박터널1개소
23	좌야 가로화단	신관 좌야입구	2,500㎡	이팝나무외 2종 140주	경계석 30본
24	나비골 가로화단	신광 함정리	1,200㎡	배롱나무외 2종 150주	나비화단 문형 1개
25	지경 가로화단	신광 함정리	980㎡	가이즈까향나무외 2종 102주	
26	종곡 가로화단	신광 백운리	660㎡	소나무외 6종 147주	

연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27	국도1호선 가로화단	학교사거리	505㎡	소나우외 1종 5주	
28	한문교 화단	자산서원옆	3,000㎡	백목련외 7종 108주	
29	오선나비화단	엄다 국제모텔 옆	4,298㎡	둥근향나무외 1종 200주	
30	박주가로화단	엄다면 국도1호선	132㎡	둥근향나무외 4종 105주	
31	별 화단	엄다면 성암 천지배	496㎡	둥근향나무외 1종 200주	
32	바위 화단	엄다 성암리	330㎡	반송외 6종 73주	
33	칠성가로화단	엄다면 와천마을 앞	364㎡	반송외 6종 10주	
34	딴봉나비화단	엄다면 영화정마을	132㎡	천지백외 1종 80주	곤충조형물 (1.5*1) 1개소
35	영선식당 앞 삼거리화단	대동 향교리	33㎡	가이즈까향나무외 2종 3주	육각파고라 1개소
36	송상가로화단	대동 강운리	2,652㎡	영산홍 300주	
37	동함평IC 가로화단	대동 향교리	1,500㎡	단풍나무외 1종 143주	
38	향교사거리 가로화단	대동 향교리	766㎡	동백나무외 3종 81주	
39	직업학교 앞 가로화단	대동 향교리	1,652㎡	배롱나무외 3종 208주	
40	아차 가로화단	대동 덕산리	165㎡	반송외 5종 112주	
41	신덕,외덕,내덕 가로화단	대동 덕산리	3,664㎡	반송외 2종 424주	돌탑 1개소, 조경석 9개
42	정창가로화단	대동 용성리	137㎡	은행나무외 5종 90주	
43	금성동가로화단	대동 용성리	1,322㎡	배롱나무외 6종 40주	고인돌조형물 3개
44	사정가로화단	나산 이문리	1,850㎡	동백나무외 3종 19주	
45	회화정 가로화단	나산 나산리	550㎡	이팝나무 15주	
46	석지가로화단	나산 이문리	1,100㎡	느티나무외 4종 84주	석축 4개소
47	번영로 가로화단	나산 나산리	1,800㎡	해송외 3종 12주	도로경계자연석석축, 번영회기념비 1개소
48	대각가로화단	해보 대각리	429㎡	동백나무외 9종 656주	
49	산내가로화단	해보 산내리	131㎡	희양목 200주	
50	금계가로화단	해보 금계리	330㎡	회양목외 2종 351주	
51	용산가로화단	해보 용산리	400㎡	무궁화외 5종 649주	
52	해보나들목 가로화단	해보 용산리	500㎡	이팝나무외 3종 299주	
53	성대가로화단1	해보 대창리	330㎡	백목련외 2종 22주	
54	성대가로화단2	해보 대창리	250㎡	둥근향나무외 161주	돌쌓기 3개
55	석보마을	월야 영월리	480㎡	단풍나무외 5종 220주	

연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가로화단				
56	방축마을 가로화단	월야 용월리	1,985㎡	광나무외 1종 510주	
57	내정마을 가로화단	월야 정산리	166㎡	소나무외 5종 214주	육각파고라 1개소
58	외치재 가로화단	월야 외치리	330㎡	무궁화외 378주	

※ 자료제공 : 함평군 공원 녹지과.

3) 소공원 조성

조성 동기는 가로화단과 동일하나 규모상 가로화단보다 크고 편익시설 및 수목식재 위주로 조성했다.

소공원은 국도 1호선 및 22호선을 중심으로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으나 '84 ~ '86년에 집중 조성했다.

대부분의 수목은 군민의 헌수를 받았으며 기반조성은 업자 도급위주였으나 일부는 직영조성 되었으며 특히 국도 1호선에 조성한 고막 소공원은 그 규모와 내용이 충실하고 경관이 뛰어나 1986년 내무부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타시군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대대적으로 추진된 도로망 정비 및 확충으로 '80년대에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 일부가 점차 훼손되는 실정이었으나 민선 2·3·4기에 함평을 생태 관광의 메카로 발돋음 시키시 위해서 경관 가꾸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함에따라 소공원 조성이 국·철도변 위주로 추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가지를 비롯한 군도까지 확대하고 도로망 확충에 따른 각종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30여 개소를 확충한바 도로변이나 시가지가 공원화가 됨으로써 함평군의 면모가 크게 일신하였다.

<소공원 조성현황>

연 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계	49개소	161,053㎡		
1	가슴공원	함평읍 내교리	126㎡	꽝꽝나무외 2종 139주	
2	고두개재 (나비산업)	함평읍 수호리	1,149㎡	해송외 1종 76주	난간 40m

연 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3	함평공원	함평읍 기각리	7,875㎡	동백나무외 26종 497주	팔각정자1개, 평의자 10개, 음수대, 휴지통, 화장실 1개소, 기념비 등
4	신기각공원	함평읍 기각리	77㎡	동백나무외 4종 46주	사각정자 2개소
5	분수대공원	함평읍 내교리	448㎡	느티나무외 2종 125주	육각정자 1개, 평의자 4개, 분수대 1개
6	기산공원	함평읍 함평리	357㎡	벚나무외 2종 10주	그늘시렁1개소, 평의자 9개소, 음수대, 연못2개, 가로등 1개
7	폐도부지 소공원	신광면 삼덕리	2,300㎡	소나무외 14종 468주	팔각정자 1개소, 박터널 1개소
8	홍무소공원	신광면 삼덕리	1,900㎡	무궁화외 7종 547주	기념비 1개
9	남일소공원	신광면 원산리	1,700㎡	소나무외 9종 175주	사각정자 1개, 표석1개, 장승1개, 연못1개, 돌탑2개
10	함평농공단지 소공운	신광면 덕천	2,640㎡	매화나무외 3종 400주	나비문형2개, 잔디쉼터 330㎡
11	학교체육공원	학교면 학교리	7,314㎡	단풍나무외 14종 282주	육각정자 1개, 그늘수령 1개, 등의자 4개, 평의자 10개, 화장실 1개
12	사포소공원	학교면 사포리	287㎡	무궁화외 5종 40주	
13	용수소공원	나산면 용두리	4,600㎡	배롱나무외 2종 22주	사각파고라 1개
14	오수 흰나비공원	나산며 용두리	1,850㎡	배롱나무외 6종 2513주	사진촬영대 1개
15	원이문소공원	나산면 이문리	22,000㎡	동백나무외 4종 330주	사각파고라 1개
16	선박나비 소공원	나산면 용두리	1,750㎡	회양목 40주	
17	대포리 공룡공원	나산면 용두리	2,850㎡	이팝나무외 4종 1,538주	
18	소백이소공원	나산면 이문리	900㎡	느티나무외 3종 57주	등의자4개, 돌장승 4개, 대장승 12개
19	나리뫼소공원	나산면	1,660㎡	동백나무외 11종 32주	사각파고라 2개
20	밀재휴게소공원	해보면 금덕리	2,140㎡	배롱나무외 15종 633주	사각파고라 1개, 체육시설 1종
21	진재소공원	해보면 광암리	100㎡	배롱나무외 5종 337주	육각파고라 1개, 등의자 1개
22	쌈지소공원	해보면 산내리	100㎡	벚나무외 7종 475주	육각파고라 1개
23	밀재상봉 소공원	해보면 금덕리	800㎡	동백나무외 7종 634주	사각파고라 1개

연 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24	4.8만세터 소공원	해보면	400㎡	무궁화 7종 202주	육각파고라 1개, 평의자 2개, 기념탑조형물 1개
25	모산소공원	해보면	2,090㎡	단풍나무외 4종 198주	사각파고라 1개, 기념비 1개소
26	아산소공원	해보면해보리	100㎡	배롱나무외 13종 208주	그늘시렁 1개소, 평의자 5개
27	덕령소공원	월야면 양정리	991㎡	느티나무외 4종 963주	
28	달맞이공원	월야면 용월리	69,916㎡	느티나무외 30종 6836주	육각파고라 6개, 야외탁자 15개, 화장실 1개소, 분수조형물 3개소, 족구장 1개, 민속그네 1개, 체육시설 7종
29	고막원소공원	학교면 고막리	2,394㎡	단풍나무외 7종 615주	육각정자 1개, 등의자 3개, 평의자 8개, 철봉외 4종 등
30	학소공원	학교면 죽정리	3,000㎡	소나무(소나무숲)	육각정자 1개소
31	죽정리공원	학교면 마산리	440㎡	배롱나무외 4종 18주	사각정자 1개소
32	함학간 율동소공원	학교 사거2리	1,030㎡	소나무외 3종 53주	사각정자 1개소
33	1호선 광장공원	1호선주유소	990㎡	소나무외 2종 5주	팔각정자 1개소
34	운림공원	무안IC 출구	100㎡	반송외 1종 46주	
35	별뫼공원	엄다 산울림앞	2,340㎡	반송외 6종 73주	사각정자 1개소
36	쇠등공원	엄다 제동마을	330㎡	벚나무외 2종 37주	
37	정양소공원	엄다 정양마을	430㎡	동백나무외 7종 47주	팔각정자 1개소
38	본골소공원	엄다 번동사거리	198㎡	벚나무외 12종 119주	그늘시렁 1개소
39	남악소공원	대동면 금곡리	200㎡	느티나무외 2종 162주	
40	옥동소공원	대동면 상옥리	1,374㎡	동백나무외 7종 11주	
41	황금박쥐 조형물소공원	대동면 향교리	661㎡	소나무외 3종 19주	육각파고라 1개, 조형탑 1개, 돌탑 1개
42	동호정소공원	대동면 서호리	661㎡	이팝나무외 4종 86주	사각파고라 2개, 조경석 7개
43	용수소공원	나산면 용두리	4,600㎡	배롱나무외 2종 22주	사각파고라 1개
44	호정승강장 옆 소공원	대동면 서호리	991㎡	아카시아나무 43주	
45	수암~옥련간 소공원	대동면 연암리	660㎡	단풍나무외 3종 64주	

연 번	명 칭	위 치	면 적	조경식수	편익시설
46	수암소공원	대동면 연암리	1,652㎡	단풍나무 10주	육각파고라 1개, 돌탑조형물 2개, 조경석 34개
47	옥련소공원	대동면 연암리	661㎡	벚나무외 3종 30주	돌탑조형물 2개
48	오수 흰나비공원	나산며 용두리	1,850㎡	배롱나무외 6종 2513주	사진촬영대 1개
49	원이문소공원	나산면 이문리	22,000㎡	동백나무외 4종 330주	사각파고라 1개

4) 자연보호와 국토청결

1997. 10. 5일 자연보호에 대한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창한 이후 내무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기구를 정비하고 1978. 10. 5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 선포 이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운동으로 정착되었다.

그동안 자연보호활동은 정화활동 및 캠페인, 산림내 취사행위 규제, 1기관 단체 1산 1하천 정화활동, 자연 휴식년제 실시, 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 유상매입제, 하천휴식년제 실시 등과 꾸준한 교육·홍보·자연보호시설 확충 등의 계도활동 등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보하였으나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쳐 '93. 10월부터 국토청결운동과 병합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7절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현황

1. 일반 현황

1) 지도자 현황

'97. 12. 30 현재

조 직 수			회 원 수			비 고
계	단위문고	구심문고	계	문고지도자	기타회원	
11	2	9	28	10	18	

※ 자료제공 :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2) 문고 현황

'97. 12. 30 현재

구 분	조 직 수			회 원 수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통	계	현직지도자	전직지도자등	
계	2	18	544	12,965	545	12,420	
지 역	1	9	272	5,671	271	5,400	
부 녀	1	9	272	7,294	274	7,020	

※ 자료제공 :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3) 새마을운동 지회현황

※ 대한민국시대 11장 6절 사회단체를 볼것

2. 새마을지도자 훈·포장자 명단

훈 격	성 명	직 위	주 소	일 시	비 고	구 분
계	26명					
협동장	박순구 (朴淳求)	새마을지도자	해보면 문장리 739	'76. 12. 10	81호	
근면장 (4명)	이춘자 (李春子)	군부녀회장	엄다면 신계리 283	'82. 7. 5		부 녀
	정찬동 (鄭燦東)	새마을지도자	함평군 자풍리 노송	'83. 11. 3	465호	지 역
	이기노 (李基魯)	〃	손불면 월천리 산70	'85. 10. 25	638호	〃
	정경열 (程敬烈)	〃	월야면 월야리	'86. 6. 18	293호	〃
노력장 (4명)	박현순 (朴賢淳)	〃	나산면 삼축리 95	'85. 10. 23	819호	〃
	김광수 (金光洙)	〃	나산면 월봉리 408	'87. 11. 3	1191호	〃
	이귀순 (李貴順)	부녀지도자	나산면 삼축리 251	'88. 11. 23		부 녀
	강송복	군부녀회장	학교면 죽정리 37	'06. 11. 14		
포장 (4명)	안재철 (安在喆)	새마을지도자	해보면 금덕리 546-5	'82. 12. 10	556호	지 역
	전갑채 (全甲宋)	〃	월야면 양정리	'90. 11. 13	1454호	지 역
	박성일 (朴成日)	회장	함평읍 내교리 855	'99. 12. 1		지 역
	장갑석	군협의회장	대동면 용성리 501	'09. 12. 9		지 역
대통령 표창 (4명)	정영삼 (鄭永三)	〃	해보면 문장리	'81. 12. 9	53868호	전 직
	김휘남 (金輝男)	문고지도자	함평읍 함평리 269	'82. 12. 16		문 고
	이동휴	군협의회장	나산면 월봉리 518	'08. 12. 5		지 역
	노화섭	회장	나산면 이문리 182	'07. 10. 5		지 역

훈 격	성 명	직 위	주 소	일 시	비 고	구 분
국무총리 표창 (9명)	채 대 두 (蔡大斗)	새마을지도자	학교면 월산리 816	'86. 10. 30	44896호	지 역
	김 영 석	〃	손불면 산남리 258	'87. 11. 13		〃
	윤 익 중 (尹益重)	〃	신광면 삼덕리			〃
	조 길 순	부녀지도자	손불면 대전리	'89. 11. 13		부 녀
	서 정 애	〃	월야면 월악리	'91. 10. 20		〃
	정 정 조 (鄭政照)	군문고회장	엄다면 삼정리 368	'05. 12. 1		문 고
	김 부 덕	부녀지도자	손불면 산남리 2119-2	'07. 10. 5		부 녀
	이 향 님	부녀지도자	신광면	'08. 12. 11		부 녀
	윤 희 자	부녀지도자	해보면 용산리 433	'09. 12. 9		부 녀

※ 자료제공 :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